=======================================

# Volume 1

=======================================

무한의 마법사 - 김치우

## [1] 마법을 만나다 (1)

“응앵. 응앵.”

빈센트는 인상을 찡그리며 잠에서 깼다. 새들도 잠든 적막한 산중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앵. 응앵.”

부스스한 머리를 털고 졸린 눈을 비비는 동안에도 아기의 서러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신이시여,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침대에서 내려온 빈센트는 단잠에 빠진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행복한 꿈을 꾸고 있기를 바랐다. 이 소리를 듣게 된다면 한바탕 곤욕을 치르게 될 테니까.

결혼 7년 차인 빈센트 부부는 아이가 없었다. 비싼 돈을 들여 의원을 찾은 적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전부였다.

“속궁합이라는 게 있다네. 그냥 그런 일일 뿐이야. 올리나도 자네도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 여러 번 자주 시도해 보게나. 껄껄!”

빈센트도 처음에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의원의 처방전 덕분에 금슬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아내인 올리나는 한 번도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가 쓸쓸한 표정으로 다른 집 아이들을 쳐다볼 때면 빈센트는 자신의 아랫도리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어떤 쌍눔의 시키가,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사냥꾼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대부분 산속에 집을 짓고 산다. 시간마다 덫을 확인해야 하고 몇 날 며칠 산짐승을 추적하려면 산속에 베이스캠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사냥꾼의 집을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적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빈센트는 외날 도끼를 들고 문을 나섰다.

“누구야! 야밤에 시끄럽게 구는 놈이!”

빈센트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고함소리만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특산물을 취급하는 상인이 찾아온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흔한 횃불하나 보이지 않았다.

빈센트는 더욱 긴장하며 도끼 자루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기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소리는 마구간에서 들리고 있었다.

도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산중에 홀로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물을 약탈하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를 화전민촌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썩을 놈! 토막을 내 주마!”

최악의 사태에는 피를 볼 수밖에 없으리라.

그렇게 결의를 다진 빈센트는 마구간 문을 열어젖혔다. 동시에 산꾼의 탁월한 감각으로 안쪽을 살폈다.

푸르르.

말의 평화로운 투레질 소리를 듣자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었다. 짐승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필의 말이 잠들어 있는 마구간은 좁고 아담했다. 그렇기에 숨을 곳도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누군가 들어온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울음소리가?”

빈센트는 살그머니 걸음을 옮겨 짚단이 깔린 곳을 살펴보았다. 태어난 지 두어 달 지난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성스러움에 도끼를 등 뒤로 감추었다. 그러다가 이것도 불경스럽다는 생각에 아예 구석으로 던져버리고 아기에게 엉금엉금 기어갔다.

“응앵. 응앵.”

투박한 손으로 속싸개를 벌리자 달덩이처럼 어여쁜 아기가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세상의 공기를 접한 순결한 아기가.

빈센트의 눈동자가 부르르 떨렸다. 그러다가 벼락을 맞은 듯 몸을 흔들더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간 밖으로 튀어 나갔다.

“누구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아이를 버리다니, 이 썩을 놈아! 빨리 나와!”

마치 여러 사람이 말하는 듯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나와! 진짜로 안 나와? 어떻게 아이를 버릴 수가 있어! 넌 진짜로 나쁜 놈이야! 알아?”

다시 한 번 다그쳤으나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진짜로 버린 거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나중에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 봐! 면상을 떡으로 만들어 줄 테다!”

빈센트는 생애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먼 훗날 오늘을 회상했을 때 어떠한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빈센트는 다시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울다가 지쳤는지 아이는 소록소록 잠이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껴안은 그는 작은 가슴에 살포시 귀를 대 보았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 올리나가 숨을 헐떡이며 마구간으로 들어왔다. 빈센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잠이 완전히 달아난 상태였다.

빈센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내를 멀뚱하니 쳐다보다가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여주었다.

“뭐예요, 그 아이는?”

“그게…… 우리 아이인가 봐.”

\* \* \*

푸름이 창궐한 초여름.

빈센트는 차가운 시냇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콧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재촉했다. 커다란 고라니 한 마리가 어깨에 걸쳐 있었지만 거구인 그의 몸놀림은 가볍기만 했다.

집이 가까워지자 걸음걸이는 더욱 빨라졌다. 소중한 가족들의 얼굴이 벌써부터 눈에 아른거렸다.

“시로네, 아빠 왔다!”

“아빠!”

12살 소년이 함박웃음을 터뜨리며 현관으로 달려왔다. 투박한 바위 같은 빈센트와 달리 시로네는 신이 특별히 아낀 듯 아름다운 소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금사처럼 찰랑이는 머릿결과 푸른 눈동자, 아직 덜 자랐음에도 오똑한 콧날이 마치 인형을 보는 듯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빈센트는 절로 콧김이 나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시로네를 품에 안은 그는 아들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들의 체취가 고단했던 산행의 피로를 깨끗하게 날렸다.

“그래, 우리 아들. 내 보물.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엄마 요리도 도와 드리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요리와 책.

두 단어 사이의 부조화를 느낀 빈센트는 난감했다.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책이 그렇게 좋으냐?”

“아니, 그게……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감정을 감추는 아들의 모습에 빈센트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사실은 그도 알고 있었다. 하늘이 내려 준 기적 같은 아이가 범상치 않게 영민하다는 것을.

올리나가 글을 조금 알지만 어차피 산꾼의 아내였다. 그럼에도 시로네는 배운 것만으로 알음알음 글자를 더듬더니 이제는 혼자서 책을 읽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팠다.

사냥꾼의 자식은 공부를 할 수 없다.

약초꾼의 자식은 약초꾼을, 사냥꾼의 자식은 사냥꾼을 하는 게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하며 사는 길이었다.

아무리 하찮은 직업이라도 맨입으로 전해 줄 수 없는 비결과 요령이 있는 법이다. 가난한 빈센트가 아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건 사냥 기술이 전부였다.

하지만 빈센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세상의 불공평함을 알려주기에 12살은 너무 어렸다.

“아니, 잘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배워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야. 이번에 아빠가 도시에 가면 책을 사다 주마.”

“괜찮아요. 여태까지 많이 사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별 내용도 없던걸요.”

빈센트는 아들의 허풍에 웃고 말았다. 돈이 되는 실용 서적 같은 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귀족들이 버린 책들을 골동품 가게에서 헐값에 사다 주었다. 모르긴 해도 아이가 소화시킬 수준의 서적이 아니었다.

부모의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하는 아들의 심성에 빈센트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찢어지는 듯했다.

“그래! 그나저나 어떠냐? 아빠랑 나무나 하러 갈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름지기 사내란 체력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오늘은 아빠가 나무 패는 법을 가르쳐 주마.”

“우와! 그럼 저도 도끼 주는 거예요?”

“껄껄! 물론이지! 오늘 아빠랑 산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 버리자꾸나!”

빈센트는 기다렸다는 듯 시로네에게 도끼 한 자루를 선물했다. 살림에 비하면 값이 나가는 편이지만 책보다는 훨씬 유용한 물건이다. 도끼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아들이 산꾼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로네는 또래에 비해 왜소하여 험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체력을 길러 주려는 생각이었다.

‘얼굴에 귀티가 흐르고 머리도 빼어나게 좋다. 혹시 귀족의 자식은 아니었을까?’

빈센트는 머릿속의 의문을 황급히 지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면서도 이내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였다.

‘시로네는 내 아이다. 마구간에서 데려온 자식이 아닌, 내 피가 흐르는 내 아이다.’

그렇게 다짐한 빈센트는 시로네의 손을 붙잡고 집을 나섰다.

그의 벌목 구역은 오두막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가근방에 산꾼들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 외에서 작업을 하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할 때는 칼부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자.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보고 따라 하렴.”

빈센트는 손바닥에 침을 퉤 뱉은 다음 후련하게 나무를 패기 시작했다. 퍽퍽 소리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은 나무가 우지끈 넘어갔다.

도끼질의 횟수는 나무꾼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였다. 빈센트는 나무꾼이 아니기에 10회의 도끼질에 넘어뜨렸으나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실력이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곳을 여러 번 팬 다음 나무를 기울이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단다. 할 수 있겠니?”

“네, 해 볼게요.”

빈센트는 시로네가 팰 수 있을 법한 나무를 골라 주었다. 나무와 마주 선 시로네는 아빠가 했던 것처럼 손에 침을 뱉었다. 한 번 보았을 뿐인데도 도끼를 걸치는 위치와 자세, 손바닥을 비비는 습관까지 판박이였다.

빈센트는 역시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막상 도끼를 휘두르려고 하자 어딘가 모르게 자세가 엉성했다.

머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힘과 체력이 받쳐 줘야 한다. 도끼의 무게가 상당한데다가 바람을 가를 정도로 휘두르려면 강인한 근력이 필수였다.

빈센트가 나무를 하러 나온 이유도 시로네의 체구가 또래에 비해 작기 때문이었다.

학자가 될 수 없는 운명이라면 힘이라도 길러야 한다. 어떤 여자도 돈을 벌 수 없는 남자한테는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이익! 익!”

시로네는 이를 악물며 도끼를 휘둘렀다. 하지만 휘두를 때마다 타격 지점이 제각각이었다.

보다 못한 빈센트가 요령을 일러 주었다.

“힘을 전부 써 버리면 안 된다. 조금만 힘을 줄이는 대신에 정확도를 높여 보렴.”

시로네는 빈센트의 조언을 빠르게 흡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너무 약해서 좀처럼 부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이 약했던가?

조금 시무룩해진 빈센트였다.

“후우, 힘드네요.”

“괜찮다, 시로네. 아니, 미안하다. 솔직히 말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단다. 하지만 사냥꾼의 자식은 말이다, 어쩔 수 없이…….”

빈센트는 울컥한 마음에 말문이 막혔다. 자식에게 냉혹한 현실을 전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할까.

“넌 정말 영리한 아이야. 약초꾼 아들 바론보다도, 과일 장수 딸 스텔라보다도 훨씬 똑똑하지. 힘이 약하다고 주눅 들 필요 없다. 내 욕심이 너를…….”

서러운 마음에 빈센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아빠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그것보다 아빠, 어떻게 해야 나무를 잘 팰 수 있어요?”

빈센트는 슬쩍 머쓱해졌다.

하지만 무안함은 잠시였고 시로네가 나무 패기에 관심을 보이자 고양감이 밀려들었다.

“너, 정말 이거 배워 보고 싶니?”

“네, 가르쳐 주세요. 재밌어요.”

아들의 말에 다시금 용기가 샘솟았다. 빈센트는 심기일전하여 시로네를 데리고 나무의 홈을 자세히 살폈다.

“자, 여기 이 홈을 봐라. 힘이야 어른이 되면 저절로 붙는다. 하지만 사실 큰 힘이 필요한 일은 아니란다. 중요한 건 요령이지. 아까는 같은 곳을 패라고 했지만 그것보다 조금만 각도를 뒤틀면 훨씬 큰 힘을 받게 되지.”

“아, 그렇구나.”

빈센트는 눈을 게슴츠레하게 뜨고 아들이 만든 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꽤나 놀라웠다. 초심자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정확히 같은 곳만 때렸다.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어지간한 강골이 아닌 이상 나무를 쓰러뜨리기가 힘들 정도였다.

## [2] 마법을 만나다 (2)

“다시 해 볼게요.”

시로네는 빈센트가 물러난 뒤에도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나무의 홈을 관찰했다.

현재 그는 가벼운 전율을 느끼는 중이었다.

한 줄의 요령을 머리에 담는 건 지식이다. 하지만 몸 전체로 받아들이는 건 감각이었다.

똑같은 곳을 가격하되 조금만 비튼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이 간단한 지식은 빈센트의 예상보다 훨씬 큰 깨달음으로 시로네에게 흡수되고 있었다.

“아빠.”

“응?”

“이거 제가 한 번에 부러뜨려 볼까요?”

“하하하! 아직 절반도 안 팼는데 그게 부러지겠니?”

“재수가 좋으면 될 수도 있죠.”

재수가 좋다고 나무가 부러지지는 않는다. 노련한 나무꾼은 결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몇 차례의 도끼질만으로 넘어뜨리지만 시로네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좋다! 우리 아들의 운을 믿어 보자!”

빈센트는 흔쾌히 아들의 장단을 맞춰 주었다. 나무 패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이었다.

“만약 이거 부러뜨리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응? 소원?”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다른 부잣집 아이들처럼 학교에 보내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번에 물건 팔러 도시에 갈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십년감수했지만, 빈센트는 내색하지 않고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껄껄, 그 정도라면 좋다. 얼마든지 들어주마!”

승낙을 받은 시로네는 도끼를 어깨 뒤로 넘기고 나무를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사라지자 빈센트는 섬뜩했다. 눈조차 깜박이지 않고 나무를 응시하는 아들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시로네는 갑작스럽게 도끼를 휘둘렀다. 정확히 홈을 가격한 듯 보이지만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범주에서 극도로 미세한 뒤틀림이 섞여 있었다.

쩌저저저적!

벼락이 내리치는 소리에 빈센트는 눈을 똥그랗게 떴다. 도끼가 들어간 자리에 지진처럼 균열이 일어나더니 나무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지끈 부러졌다.

“야호! 성공이다!”

빈센트는 믿을 수 없었다. 나무꾼 사이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천둥패기’였다. 빈센트도, 빈센트가 아는 나무꾼도 듣기만 했을 뿐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신화적인 기술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꾼의 작업이 생계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직업군에서는 천둥패기의 현상을 상당히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검사였다.

목숨을 걸고 검을 휘두르는 검사는 나무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기술을 연마한다.

그중에는 천둥패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검사들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야호! 성공이다!”

약속대로 도시 구경을 할 수 있게 된 시로네는 두 팔을 들고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빈센트는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를 나무꾼으로 키워야 하는지, 나무꾼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 \* \*

빈센트는 짐수레가 달린 쌍두마차의 고삐를 붙잡고 크레아스 도시의 성문을 넘었다. 짐칸에 타고 있는 시로네가 반짝이는 눈동자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가죽은 무기 상점에, 고기는 식료품 가게에, 내장은 약재상이나 마도 상점에 납품한다. 상점을 여러 군데 돌아야 했고 흥정까지 하려면 족히 4시간 이상은 걸릴 터였다.

가게에 도착하자 시로네는 수레에서 폴짝 뛰어내렸다. 빈센트가 어깨에 고기 가방을 얹으면서 말했다.

“해 지기 전까지는 돌아와야 한다.”

“걱정 마세요. 길은 다 외웠는걸요.”

“으슥한 곳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큰길로만 다녀야 된다. 누가 와서 왜 혼자냐고 물어보면 가장 가까운 가게를 가리키면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돼.”

“알았어요. 저번에 왔을 때도 별일 없었는데요, 뭐.”

빈센트는 아들을 방치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흥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생계비가 걸려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시로네는 불안해하는 아빠를 안심시키고 상점가를 벗어났다. 빈센트는 아이들이 주로 찾는 공연장이나 장난감 가게정도를 예상했지만 시로네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시로네가 도착한 곳은 도시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다.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건물 안에 유사 이래의 모든 지식이 축적되어 있을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고급 문화 공간인 도서관은 귀족이 아니고서는 출입자체가 불가능했다.

도서관에서 2명의 여학생이 책을 품에 안고 걸어 나오자 시로네는 황급히 비켜섰다.

빈센트는 다정한 아빠지만 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도깨비처럼 으름장을 놓았다.

절대로 대들지 마라. 그들의 말은 무조건 옳다. 눈을 마주치거든 고개를 숙여라.

시로네는 귀족이 얼마나 대단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책을 읽고 싶을 뿐이었다.

‘어째서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시로네는 여학생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도서관 말고는 구경하고 싶은 곳이 없기도 했지만, 귀족들이 어떤 점에서 평민과 다른 것인지 궁금했다.

그로부터 20분 정도를 걷자 풍경이 급변했다.

시로네는 본래의 목적도 잊고 사방에 솟아 있는 거대한 구조물들에 압도당했다. 그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철창 너머로만 봐도 엄청난 부지를 자랑하는 학교였다.

정문의 아치에 건물명이 적혀있었다.

알페아스 마법학교.

시로네가 세상을 살면서 유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마법이었다.

수많은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원리를 서술한 책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다. 일종의 무시였다. 마법사가 아닌 자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오만함이기도 했다.

경비가 시로네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뭐야! 너 뭐하는 자식이야?”

그리고 시로네의 차림새가 영락없는 천민이자 파리를 내쫓듯 손을 앞뒤로 휘저었다.

“썩 돌아가! 여긴 너 같은 잡것이 올 데가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로네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생긴 것도 우악스러운 경비가 눈까지 부라리자 오금이 저렸다.

하지만 경비가 보이지 않을 무렵 다시 걸음을 멈췄다. 놀랍게도 여전히 마법학교의 담벼락 아래였다.

대체 이 학교는 얼마나 넓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마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자꾸나.”

“아아아, 싫어요! 마법 보여 줘요. 하나만 더 보여 주세요!”

“불요! 불 나가는 거 보여 주세요, 교장 선생님!”

시로네는 담벼락 너머에 서 있는 아름드리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마법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야외수업을 하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시로네보다 어렸다. 태어난 순간부터 교육을 받는 게 귀족이니 어린아이가 마법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허허허, 학교에서 불을 질렀다가는 혼난단다. 대신에 문제를 맞히면 재미있는 마법을 보여 주마.”

“아싸! 무슨 문제요? 빨리 내주세요!”

시로네는 담벼락에 귀를 기울였다.

“마법을 배우는 데 가장 필요한 재능은 무엇일까?”

한참이나 정적이 이어졌다.

모두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게 틀림없었다. 시로네가 생각하기에도 꽤나 주관적인 답을 요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법의 재능을 인정받아 조기 입학시킨 영재들. 포기하기보다는 나름의 대답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노력이요. 마법은 평생 공부해도 다 배울 수 없으니까 노력이 중요해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본 마법 서적만 100권이 넘거든요.”

그 외에도 집중력, 기억력 등 그럴듯한 대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돈이요. 마법을 배우려면 사야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교장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이쯤 되자 시로네도 궁금해졌다. 노력도, 지식도, 돈도 아니라면 마법을 배우는 데 가장 필요한 재능은 무엇일까?

아이들의 대답을 모두 들은 교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마법을 배우는 데 가장 필요한 재능은 통찰력이란다.”

두 번째 정적이 찾아왔다.

“통찰이 뭐예요?”

교장이 끙 하고 난감한 신음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내 친절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 나갔다.

“통찰이란 지식보다 정확하고 노력보다 빠른 것이란다.”

“우와! 그럼 완전 마법이네요?”

“허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 말이 맞다. 세상에 존재하는 마법은 전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마. 1 더하기 1이 몇인지 알고 있니?”

“당연히 2죠.”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냐는 투였다.

“그렇구나. 그러면 1 더하기 1이 어째서 2인지 설명할 수 있겠니?”

“어? 그야 당연히…….”

자신 있게 말을 꺼내려던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알페아스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담겼다.

“지금 느껴지는 그 이상한 기분이 바로 통찰이란다. 오래전에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모르던 시대도 있었단다. 그것을 지식과 노력으로 증명해 낸 것이지.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니?”

시로네는 점차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벽 너머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입을 헤벌리고 듣고 있을 터였다.

“마법이란 원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현상이란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몰랐을 때도 정답이 2인 것처럼 말이지. 누군가는 노력과 지식으로 그 사실을 밝혀냈지만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듯 통찰이란 무언가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빠른 수단이란다.”

“그럼 공부하거나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말이 그렇게 되나?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이 그렇단다.”

상식은 다수가 믿는 지식이다. 하지만 가끔은 받아들이기 편해서 상식인 경우도 있다. 시로네는 잔혹한 현실을 말해야 하는 알페아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 학교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허허허! 통찰이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1 더하기 1이 2인 이유는 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증명해 냈기 때문이지. 물론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정답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르지.”

“엄마가 저더러 천재라고 했는데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게다. 인간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재능을 갈고닦으면 누구라도 천재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천재가 될 수 있다. 시로네는 그 말이 가슴에 들어와 박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 높은 담벼락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도 올까?

“그래. 거기 벽 뒤에 서 있는 아이야. 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구나.”

시로네는 황급히 벽에서 물러섰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 대답해야 할까? 하지만 평민에게 대답할 자격이 있을까?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오렴. 얼굴을 보고 싶구나.”

시로네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담벼락으로 다가갔다.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은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지금 이 벽을 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리란 사실이었다.

시로네는 담벼락을 기어올랐다.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교장 알페아스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첫인상은 호호백발의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국에서 인정한 공인 4급의 마법사로서 타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덕망 높은 인물이었다.

평평한 바위에 앉아 있는 알페아스가 손을 흔들었다.

“어서 오려무나. 이 늙은이의 말벗이 되어 주러 왔느냐?”

알페아스의 인자함에 자신감을 얻은 시로네는 담을 뛰어넘었다. 예상대로 시로네와 비슷한 또래거나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다.

## [3] 마법을 만나다 (3)

한 아이가 시로네의 차림새를 보고 미간을 찡그렸다.

“교장 선생님, 쟤 귀족 아니에요. 천민인 거 같아요.”

“천민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야, 너 빨리 나가!”

알페아스도 귀족이 아닐 줄은 몰랐기에 난감한 듯 눈썹을 긁적였다. 하지만 지성을 추구하는 마법사답게 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오라는 손짓을 했다.

“괜찮으니 이쪽으로 오렴. 그래, 늙은이의 어떤 말이 마음을 끌어당겼는고?”

시로네는 우물쭈물 서 있었다. 알페아스에게 다가가고 싶었으나 아이들의 눈빛이 접근을 막고 있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하찮은 천민 주제에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마법을 보여 주세요.”

“허허, 마법을 본 적이 없느냐?”

“책에서 읽기는 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한 아이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거짓말! 천민이 무슨 책을 읽어?”

알페아스는 진위를 가리듯 시로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거짓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순진한 얼굴로 밥 먹듯이 어른을 속이는 게 저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기도 했다.

“그래, 어떤 마법을 보고 싶으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든지 좋으니 보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로네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알페아스가 너털웃음을 지으며 손을 휘저었다. 애들과 노닥거릴 수준의 마법이라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이 늙은이의 유일한 즐거움은 우리 귀염둥이들에게 마법을 보여 주는 것이지. 좋다! 그렇다면 이번엔 바람을 일으키는 마법을 보여 주마.”

“우아아! 바람이다, 바람!”

아이들이 손뼉을 치는 와중에도 시로네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주먹을 꽉 쥐었다. 마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당연한 일이었다.

알페아스가 손을 휘젓는 순간 시로네는 예상치 못한 부유감에 눈을 크게 떴다. 세상이 아래로 푹 내려앉으면서 시야가 확 트였다. 마법학교의 건물들이 한꺼번에 보였다.

“으아아아아!”

시로네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반면에 아이들은 알페아스의 마법이 재밌는지 공중제비까지 선보이며 마법을 즐기고 있었다.

잠시 후 시로네는 엄청난 속도로 추락했다. 땅이 덮쳐 오는 광경에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절망적인 충격은 전해지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뜨자 지면 근처에서 두둥실 떠 있는 상태였다.

아이들이 시로네를 가리키며 웃어젖혔다. 알페아스 또한 웃음살을 볼록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어떠냐? 이게 바로 마법이란다.”

시로네가 들을 수 있는 건 가슴에서 뛰는 심장박동 소리 밖에 없었다. 생전 처음으로 경험한 마법은 막연하게 꿈꾸던 소년의 환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마법이라는 건 뭐죠?”

“흐음, 어디 보자. 마법이라는 것은…….”

알페아스가 장난기를 머금으며 말을 고르자 조급해진 시로네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생각하시는 그대로를 말씀해주세요.”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다. 알페아스는 왕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마법사다. 그래서 귀족 자제들도 순한 양처럼 구는 것이다. 그런데 시로네가 건방진 소리를 했으니 아이들로서는 기가 찰 일이었다.

알페아스는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절박함이 엿보였기에 언짢아하지는 않았다. 천민답지 않은 아름다운 외모도 위화감을 지우는 데 한몫했다.

“껄껄!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 사실 어려운 얘기도 아니니까. 하지만 원한다면 난이도를 조금 올려 보마. 마법이란 상식을 깨트리는 행위란다. 반대로 말하자면 현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 작용이지.”

시로네는 눈을 깜박이며 한참이나 생각에 몰두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된다.”

“상식과는 다르지만, 사실은 그게 진실이라는 건가요?”

알페아스는 아랫입술을 내밀었다. 그가 정말로 놀랐을 때에만 나오는 습관이었다.

짧은 말에서 진의를 느끼는 것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에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알페아스가 강조했던 통찰력이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

“어, 음, 책에서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 있더냐?”

“내용은 아니고 책을 읽다가 떠올랐어요. 상식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요.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식과 싸워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알페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는 얘기였다.

‘아니, 일리가 아니라 진리다. 정말로 알고 하는 소리인가?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읊조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12살이나 되었을까?

어떤 생각이 상식의 반열에 오르면 그것을 파괴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벌써부터 마법이 추구하는 제1목표인 본질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재능이었다.

‘참으로 영특하다. 아니, 통찰력이 있어. 정말로 평민인 것인가? 아쉽구나.’

시로네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을 것을 직감하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마법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나요? 특별한 힘이 필요한가요?”

“특별한 힘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정신력을 요하기는 하지.”

의외로 시시한 답변이었다. 시로네는 알페아스가 진실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게 전부인가요? 바람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전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구나. 하지만 과장을 보태서 얘기하자면 그렇단다. 물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지. 마법사의 정신이 완벽하게 세상과 동화되어야 한단다. 이를테면 극도로 예민한 정신 상태라고 할까?”

교장 선생님이 진지하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처음 접한 아이들은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극도로 예민한 정신 상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나요?”

알페아스는 시로네의 의도를 간파하고 슬그머니 미소를 머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 아이는 탐구하고 있다. 정말로 이 자리에서 마법을 배워 갈 생각인 것이다.

‘애석하지만 평민이다. 마법을 배울 기회는 평생 없겠지. 평생 좌절감을 맛보느니 지금 주는 게 낫겠다.’

알페아스는 분위기를 환기하듯 표정을 풀었다.

“마법사가 집중을 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감각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예민해진단다. 마법사들은 이것을 스피릿 존에 들어간다고 표현하지. 시범을 보여 줄 테니 여기 있는 아이가 하는 것을 보거라. 슈아민, 스피릿 존에 들어가 보겠니?”

“네, 교장 선생님.”

슈아민이라는 소녀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마다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니 실력을 뽐내고 싶은 건 당연했다.

슈아민이 눈을 감고 집중하자 아이들이 알아서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마치 그런 태도가 자신들의 우월함을 한층 더 드러낸다는 듯이.

“스피릿 존에 들어갔어요.”

“그럼 시작하자꾸나.”

알페아스는 동전을 꺼내 들고 흔들었다. 그런 다음 동전을 잡아채며 주먹을 내밀었다.

“자, 여기에 몇 개의 동전이 들어 있지?”

“6개요.”

손바닥을 펼치자 여섯 닢의 은화가 놓여 있었다. 시로네의 놀란 표정을 모른 체하며 알페아스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자, 다시 해보렴.”

“3개요.”

이번에도 정답이었다.

그 후로 몇 번을 더 시도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알페아스가 만족한 표정으로 동전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이제 됐다, 슈아민. 아주 잘했구나.”

슈아민은 숨을 길게 뿜어냈다. 단지 개수를 맞혔을 뿐인데도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몽실몽실 맺혀 있었다.

“이게 바로 극도로 예민한 정신 상태란다. 스피릿 존에 들어간 순간 마법사는 외부 세계를 초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단다. 뛰어난 마법사들은 먼 거리에 있는 나뭇잎의 개수까지 맞힐 수 있지. 물론 슈아민이 보여 준 실력도 대단한 것이지만 말이다.”

시로네는 왠지 알 것 같았다. 자신 또한 인간의 감각으로 찾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지점을 통찰로 깨달아 천둥패기를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슈아민은 동전의 숫자를 센 게 아니었다. 모든 감각을 집중해 알페아스의 손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통째로 느껴버린 것이었다.

‘극도로 예민한 정신 상태. 스피릿 존.’

시로네는 알페아스의 말을 곱씹었다. 그러는 와중에 자연스레 이어지는 의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할 수 있단다.”

시로네의 속내를 간파한 알페아스가 말했다.

스피릿 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타고난 재능.

마법은 그런 세계였다.

“조용한 곳에서 연습을 해 보렴. 우선은 너를 느끼는 거다. 그런 다음 지우는 것이지. 그게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시로네는 이해했다.

“자신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신을 지우는 것 또한 불가능할 테니까요.”

알페아스는 재차 감탄했다. 12살짜리가 음미할 수 있는 통찰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였다. 정말로 재능이 있거나, 짓궂은 지인이 장난을 치려고 보낸 아이거나.

“한번 해 보겠니? 여기서.”

거절할 이유가 없는 시로네는 눈을 감았다. 천둥패기의 경험을 살리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집중하자 나무의 약점을 찾는 것과는 달랐다.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었다. 외형을 떠올려 봤자 대부분은 시각적 정보를 통해 구성된 것에 불과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대체 뭐지? 나라는 존재는?’

시로네는 끝없이 생각을 파고 들어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도달했다.

‘뇌. 인간은 뇌였구나.’

무엇을 떠올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는다. 인간의 그저 뇌의 작용이다. 생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나라면, 생각을 지우는 순간 나도 사라진다.

시로네는 점차 뇌의 작용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정신이 심연으로 빨려드는 것 같다. 처음으로 집중력의 형태를 본 기분이었다. 오감과 연결된 신경계가 녹아내리면서 무엇이 냄새고 무엇이 촉각인지 구분이 가질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로네는 자신의 뇌에서 사라졌다.

시로네의 눈이 번쩍 뜨였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평온했다. 아이들이 하품을 하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뽑아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어느새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시로네는 알지 못했다.

“어떠냐? 무언가 들리더냐?”

알페아스는 기대하지 않았다. 10분을 버틴 집중력은 인정하지만 스피릿 존이란 노력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눈을 감고 서 있는 게 전부라면 마법사는 개나 소나 될 수 있을 테니까.

“네, 들었어요.”

의외의 대답에 알페아스가 눈썹을 쫑긋 세웠다.

“호오? 그래, 무엇을 들었더냐?”

“소리. 모든 소리를 들었어요.”

“허허, 그랬구나.”

알페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시로네는 스피릿 존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10분 동안 집중하면 별의별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스피릿 존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달랐다.

우선 공감각을 경험한다. 소리에서 냄새가 나고, 빛에서 맛이 느껴지고, 이미지가 피부로 전해져 들어온다.

‘역시 바로는 무리인가? 아쉽구나. 재능은 있는 아이인데.’

귀족이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다면 지금 이곳의 아이들과 비슷한 성취를 이루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알페아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세상에는 별처럼 많은 재인들이 살고 있다. 이 자리의 아이들조차도 마법사가 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다.

“잘했구나. 앞으로 열심히 연습하면 더욱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게다.”

알페아스는 시로네를 쓰다듬어 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멀어져갔다. 시로네는 그의 실망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를 나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배려였다.

시로네는 담을 타고 넘어갔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다. 달리기를 멈추고 주저앉은 뒤에야 심장이 가슴뼈를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다.

“진짜로 됐어.”

## [4] 마법을 만나다 (4)

시로네는 모든 소리를 들었다. 물론 그 이상의 감각도 있었지만 알페아스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막연한 이상이 손에 잡히는 순간 모든 생각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전했다.

어쩌면 스피릿 존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직도 그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수 없었다.

마치 몸이 입자로 쪼개져 퍼져나가는 듯했다. 감각이 열리면서 온갖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오감으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거대함에 전율했었다. 동시에 하나의 진리가 뇌리를 관통했다.

나는 무한하다.

“흐윽, 흑.”

시로네는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내달렸다. 달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각성한 뇌는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켰고 일시적인 블랙아웃 상태로 빠져들었다.

갑자기 얼굴에 둔탁한 충격이 가해졌다.

“아욱!”

시로네는 코를 부여잡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정신을 차리자 골목길이었다. 빈센트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으슥한 곳이었다.

“뭐야, 짜증 나게!”

시로네에게 등을 얻어맞은 청년이 넘어지면서 성질을 냈다. 전방에는 불량스럽게 생긴 아저씨들이 시로네를 노려보고 있었다.

청년을 일어나자마저 시로네의 멱살을 쥐었다. 눈이 쪽 찢어지고 입술이 비열하게 뒤틀린 사내였다.

“뭐야? 너 미쳤냐?”

“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끝이야? 솔직히 불어. 울프 패거리에서 보낸 거지? 방금 나 담그려고 그런 거 아냐?”

“아뇨! 아니에요!”

불량배들은 시로네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보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쓰러진 모습마저 깜찍했던 이 꼬맹이는 칼은커녕 사람을 때릴 용기도 없었다.

뒷골목에서는 이런 부류를 초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초식은 육식에게 좋은 자금 공급원이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이제 벗겨 먹기만 하면 된다.

‘호오? 이것 봐라?’

얼굴을 보아하니 차림새는 허접해도 귀티가 배어 있었다. 이런 아이는 남촌에 팔면 금화 한 닢은 받을 수 있는 고급 인력이었다.

“너희들 뭐해?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생겼어?”

“에이미 아가씨!”

불량배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몸을 돌렸다.

골목 바깥에서 시로네와 비슷한 또래의 어여쁜 소녀가 서 있었다. 붉은빛이 감도는 앞머리가 한쪽 눈을 가리듯 흘러내리고 긴 목만큼이나 높은 칼라의 드레스를 입었다.

“헤헤. 웬일로 오셨음까? 또 심심하신 검까?”

가벼운 말투와 달리 청년은 비굴하게 두 손을 비볐다.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었다.

카르미스 에이미.

귀족서열 제1계급인 카르미스 가문의 막내딸이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기에 사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요즘은 뒷골목을 기웃거리면서 재밌는 일을 찾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제1계급은 서열상 왕족 바로 아래였으니 뒷골목 불량배들이 벌벌 떠는 건 당연했다. 더군다나 에이미는 씀씀이가 커서 양아치들의 존경까지 받고 있었다.

“이 자식이 말임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슴까. 그래서 손 좀 보려고 하고 있었슴다.”

시로네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부딪친 거예요.”

“까고 있네. 그 말을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냐?”

덩치의 사내가 복부를 지르자 시로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숨이 멎고 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폭력이었다.

“배상을 해야 할 거 아냐, 인마! 네 엄마 어디 갔어? 너같이 양심도 없는 놈을 낳아 놓고 빵이나 삼키고 있을 엄마, 데려오라고!”

시로네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도 엄마가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진짜로 나쁜 놈들이었다.

“어쭈? 이 자식 눈빛이 변하네? 기분 나쁘냐?”

시로네가 정색하자 불량배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짓밟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시로네는 얼굴만큼은 건들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만해. 그러다 애 잡겠다.”

에이미의 지시에 불량배들이 물러섰다.

시로네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고통에서 자유로운 그녀가 부러웠다.

“야! 너 괜찮아?”

“저,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누가 뭐래니? 괜찮냐고 물었잖아.”

“모르겠어요, 괜찮은지도.”

시로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쩌면 이 여자 아이가 보내 줄지도 모른다. 여자는 사람을 때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던가. 부디 그녀에게서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바랐다.

에이미가 불량배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어떡할 거야? 더 재밌는 거 없어?”

시로네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가득 담긴 눈으로 에이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개구쟁이처럼 씩 하고 웃을 뿐이었다. 불량배 중의 하나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일단 좀 털어 보다가 남창으로 팔아 버릴 생각이었는데요.”

시로네의 얼굴이 멀건 수프처럼 창백해졌다. 겁에 질린 소년의 얼굴을 보자 에이미도 조금 안쓰럽기는 했다.

하지만 어차피 뒷골목 쓰레기들과 똑같이 놀 생각은 없다. 조금만 겁을 주다가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남창이면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옷을 벗겨 보는 게 어떨까?”

에이미가 당돌한 제안을 했다. 귀족은 평민에 비해 성숙한 편이라 12살 정도면 이론은 빠삭하다고 봐야 했다.

그런 만큼 호기심도 강해서 한 번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게다가…… 잘생겼잖아? 솔직히.’

거칠거칠한 어른의 알몸은 돈을 준다고 해도 사양이었다. 다행히 시로네는 나이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마음에 들었다. 평민 여성이 우람하고 건장한 남자를 좋아한다면 귀족들은 시로네 같은 얼굴이 취향이었다.

“한번 벗어 봐. 혹시 아니?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집에 보내 줄 수도 있을지.”

시로네는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넋이 나갔다. 어째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야, 아가씨가 벗으라잖아! 또 맞고 싶어?”

불량배가 윽박질렀으나 시로네는 반응조차 없었다.

에이미는 살짝 불안했다. 귀족 12살이면 다 컸다고 하지만 평민은 아직 애였다. 한계를 넘은 공포에 정신이 나가버린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있었다. 패닉상태에 빠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피릿 존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두 번째로 경험하는 스피릿 존은 처음과 달랐다. 온갖 정보들이 휘몰아쳤다. 불량배들이 눈을 깜박이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시로네는 초감각의 정신세계에서 유일하게 나 있는 길을 따라 의식을 흘려보냈다. 그 길의 도착지에는 알페아스가 마법을 시전하던 기억이 머물고 있었다.

시로네의 통찰력이 알페아스가 마법을 시전할 당시의 정서, 감각, 정신, 행위, 태도, 자세 등 표면적인 정보들을 끌어 모았다.

외부의 형태가 잡히자 내면의 진의가 얼추 예상되면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톡 하고 굴러들어왔다.

“이 자식아! 빨리 바지 안 내려? 아가씨가 보고 싶다고 하잖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스피릿 존은 물리적인 충격에 취약하다. 시로네 또한 불량배가 멱살을 잡고 흔들자 스피릿 존에서 빠져나갈 뻔했다.

시로네의 눈동자에 섬뜩한 기운이 떠오르자 에이미가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잠깐 기다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현실과 스피릿 존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시로네의 정신이 위기를 깨달으면서 본능적으로 어떤 의지가 현상을 뒤틀었다.

퍼엉!

고밀도의 바람이 솟구치면서 골목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불량배들은 물론 에이미까지 날아갔다.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나무 상자도, 돌멩이도, 작은 먼지 한 톨도 남아 있지 않았다.

“으아아아! 사람 살려!”

하늘에서 들리는 절규 소리에 시로네는 존에서 퍼뜩 빠져나왔다. 정신을 차리자 황량하게 비어 있는 골목길이 보였다.

잠시 후 건물의 천장보다 높이 떠올랐던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쿵! 쿵!

듣기만 해도 충격이 예상되는 묵직한 소리가 땅을 두드렸다. 중력이란 상식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라서 팔다리부터 떨어진 불량배들의 사지가 부러져 나갔다.

“끄어어어어.”

“내, 내 팔. 내 다리……!”

다리는 기괴하게 꺾였고 팔뚝의 뼈가 피부를 한 뼘이나 뚫고 나와 있었다. 마치 폐기된 목각 인형들을 아무렇게나 방치시킨 풍경이었다.

순간의 감정이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시로네는 말을 잃었다.

그때 유일하게 멀쩡한 상태로 바닥에 착지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에이미였다.

귀족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신체를 연마한다. 특히나 귀족서열 제1계급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펄럭이는 치마를 손으로 붙잡고 내려온 에이미는 황당한 표정으로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시로네가 만들어 낸 풍경은 어째서 마법사가 무서운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었다. 타고난 운동 능력을 자랑하는 그녀조차 순간적인 용오름에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대답해! 마법은 어디서 배웠어? 어떻게 천민이……!”

에이미는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비명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불량배들과 어울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가문에서 난리가 날 터였다.

“쳇!”

에이미는 건물에 한쪽 발을 가져다 댔다. 벽을 박차면서 날아오른 그녀가 다시 두 발로 벽면을 떠밀면서 반대편 건물의 지붕 위로 사라졌다.

“어? 어?”

지그재그로 동선을 쫓던 시로네는 그녀가 사라지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모든 죄를 덮어쓰게 된다. 도시는 힘없는 자들에게 잔인한 곳이니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을 터였다.

시로네는 반대편 골목으로 달아났다.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빠를 찾아 정신없이 두 다리를 움직였다.

\* \* \*

카르미스 가문.

제1계급의 직위를 2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왕국의 강자.

본가는 이곳 크레아스에 있지만 가문이 배출한 인재들은 왕국을 넘어 대륙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었다.

에이미는 피곤한 기색으로 문을 열었다. 정계에서 은퇴하고 본가로 돌아온 그녀의 아버지 카르미스 샤코라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또 교육 빼먹었다면서?”

환갑이 넘은 샤코라지만 흰머리하나 없을 만큼 젊었다. 훤칠한 키에 날렵한 신체, 이지적인 얼굴. 눈빛에는 왕국 최고 귀족이라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배울 건 다 배웠어. 재미도 없고.”

“그래서 망나니들과 놀다 왔느냐? 아무리 천재라도 하염없이 놀다가는 따라잡히고 만다. 원석도 다듬어야 보석이 되는 법이야. 방심하면 언젠가 뒤통수를 맞을 날이 올 게다.”

“어우! 그놈의 잔소리.”

샤코라는 피식 웃었다. 천방지축인 점은 어미를 쏙 빼닮았으나 재능은 자신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무엇을 가졌는지 알게 되면 기울었던 축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게 바로 천재의 숙명이니까.

에이미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우뚝 멈춰 섰다. 아빠의 잔소리 덕분에 생각하기 싫은 낮의 일이 떠올랐다.

‘대체 뭐지, 그 자식?’

차림새로 보나 겁에 질린 모습으로 보나 평민이 분명했다. 귀족이 아닌 자가 마법을 정식으로 배웠을 가능성은 일자무식이 제왕론을 독파할 가능성보다 적었다.

그렇다면 골목길에서 시전했던 마법은 무엇이었을까?

우연한 발현? 재능의 각성?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아빠의 말이 새삼 따갑게 다가왔다.

-방심하면 언젠가 뒤통수를 맞을 날이 올게다.

에이미는 입술을 고물고물 깨물었다. 세상이 지루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남보다 뒤처질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다.

“아빠.”

샤코라는 신문을 내려두고 안경을 올렸다. 사춘기라고 생각했던 딸이 먼저 말을 건네는 건 의외의 일이었다.

“그래. 할 얘기라도 있는 거냐?”

“그게…… 딱히 하고 싶다는 건 아니야. 그냥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긴 한데.”

“호오?”

샤코라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어릴 때부터 하나를 가르치면 백을 깨치는 아이였으니 무엇을 해도 잘해 나갈 터였다.

“말해 보렴. 아빠가 적극 지원해 주마.”

“아니,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관심만.”

“그래. 그렇다면 너의 그 관심을 적극 지원해 주마.”

에이미는 입맛을 다셨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제1계급의 권력과 부라면 세상에 얻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가끔은 딸을 위해 어려운 일도 감수하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는 건 사춘기 소녀의 어리광에 지나지 않았다.

“마법.”

“응? 뭐라고?”

“마법학교에 아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 줘.”

## [5] 마법을 만나다 (5)

시로네는 도시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함구했다. 생각해 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일단 얘기를 꺼내게 되면 마법학교에서 있었던 일까지 말해야 한다.

시로네는 그날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경험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축복일지 불행일지는 몰라도, 선을 넘은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분명했다.

천재의 기준 중의 하나는 자신이 천재인 것을 아는가의 여부였다. 시로네 또한 어릴 적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딱히 우월감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능력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욕망은 누구보다 강했다.

다만 내색하지 않을 뿐이었다.

시로네에게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비록 가난할지언정 한 번도 틀린 길을 강요한 적이 없는 분들에게 마음의 짐을 얹어 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12살 소년이 경험했던 위대한 각성은 그렇게 기회를 기다리며 잠복기에 들어갔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졌다. 엄마를 도와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했다.

하지만 산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도끼질이 아닌 명상이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스피릿 존에 들어가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다.

물론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아무리 스피릿 존에 익숙해져도 골목길에서 시전했던 마법은 다시 발동되지 않았다.

시로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를 깨달았다.

타의에 의한, 그리고 무의식중에 성공한 마법이었다. 성공을 의식하게 되면 모방은 불가능하다. 생각 없이 연주했던 악보도 의식을 하면 손이 굳어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였다.

감각을 복원하려면 통찰로 뛰어넘어버린 중간과정을 차근차근 되짚는 수밖에 없는데, 마법을 배우지 못한 그가 과정을 살피는 건 불가능했다.

시로네는 얻을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해버리고 대신에 스피릿 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단순히 마법을 부리는 정도로는 마법 연구가가 한계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내구력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5시간의 명상을 끝낸 시로네는 도끼를 들고 천둥패기를 시도했다. 처음과 달리 천둥패기도 의식하기 시작하자 성공률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무 패기는 마법과 달라서 얼마든지 과정을 되새길 수 있었다.

시로네는 하나씩 오류를 수정해 나가며 도끼를 휘둘렀다.

수백 번을 후려친 끝에 천둥패기가 성공했다.

쩌저저저적!

통쾌하게 나무가 넘어갔다.

하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그저 하나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했을 뿐이었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

그렇게 기본을 거듭해 나간다.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위해.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로네의 눈빛은 여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목숨보다 값진 기회(1)

낙엽들이 바람을 타고 무궁무진하게 흩날렸다.

창가에 서 있는 시로네는 담비 털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늦가을 산의 정경을 바라보았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시로네도 16살의 소년으로 성장했다. 여전히 앳된 티가 보이지만 남녀노소 누구라도 눈길을 돌릴 만큼 빼어나게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다녀올게요, 엄마.”

“적당히 하고 들어오렴. 장작은 이제 충분하단다.”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장비를 챙기고 오두막집을 나서자 한기가 숨을 멎게 했다. 산은 도시보다 계절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정상에는 벌써부터 눈이 쌓여있었다.

“해 지기 전에 돌아오려면 부지런히 걸어야겠네.”

4년 동안 스피릿 존으로 정신을 단련한 시로네였기에 예전과 달리 어지간한 위험에는 겁을 먹지 않았다. 덕분에 낯가림도 사라졌고 산꾼의 아이들과도 자주 어울렸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는 없었다.

산꾼의 아이들은 시로네와 달라서 성격이 거칠고 직선적이었다. 심지어는 여자애들까지도.

그런 무리에서 시로네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

아이들은 지성미가 흐르는 시로네를 선망하면서도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1년 전에 화전민촌의 하우란이란 여성이 시로네에게 추파를 보낸 적이 있었다. 6살이나 연상인 그녀는 할 말이 있다고 시로네를 불러놓고 육체적인 접근을 하려 했다.

하지만 시로네가 단호히 거부하자 갑자기 돌변하더니, 너같이 비실한 남자는 자기 취향이 아니라며 앞으로 한 번만 더 자기에게 찝쩍대면 집안을 들쑤셔 놓겠다고 협박했다.

시로네는 당시를 회상하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린 마음에 정말로 그녀가 찾아올까 봐 며칠을 끙끙 앓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모두 잘 지내려나?’

벌목 구역에 도착한 시로네는 적당한 나무를 찾아 가볍게 도끼를 찍고 홈이 파인 자국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나무의 급소는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같은 행위나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루틴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사칙연산의 복잡한 개념을 저절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로네는 4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도끼질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천둥패기의 감각을 완성시켜 나갔다.

무언가를 직감한 시로네는 다시 도끼를 들고 적당한 힘으로 나무의 홈을 찍었다. 천둥소리가 터지면서 나무가 쓰러졌다. 두 번의 도끼질만으로 성공. 운이 좋은 편이지만, 어차피 열에 한 번은 천둥패기에 성공하는 시로네였다.

쓰러진 나무에 앉은 시로네는 스피릿 존으로 들어갔다. 현재 스피릿 존의 형태는 대략 40미터 직경을 가진 구체였다. 이는 인재들이 모인 마법학교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수준이었다.

시로네는 발밑의 세계를 느꼈다. 마치 대지와 동화된 듯 수풀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땅속에서 지렁이들이 꾸물거리고 나무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렸다.

자연은 쉬지 않고 변화한다. 그 역동적인 세계를 음미하노라면 5시간 정도는 찰나에 지나지 않았다.

“어? 벌써 어두워졌네.”

명상을 끝마친 시로네는 쓰러진 나무를 토막으로 쪼개 지게에 짊어졌다.

오두막집에 도착한 시로네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마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구간을 살피니 백마 두 마리가 여물을 핥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인사했으나 반기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엄마의 얼굴이 어두웠고 거실에는 처음 보는 노인이 테이블에 앉아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 아빠 오셨어요?”

“시로네 왔니?”

새벽에 도시에 들어간 것치고는 빨리 돌아온 편이었다. 게다가 다른 때라면 달려와서 뽀뽀 세례를 가했을 텐데 지금은 근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인사드려라, 시로네. 오젠트 가문의 부집사님이시다.”

“반갑네. 테무란일세.”

“처음 뵙겠습니다. 시로네라고 합니다.”

시로네는 깍듯이 인사를 올렸다. 산골짜기에 사는 시로네도 오젠트 가문은 알고 있었다. 크레아스에 본가를 둔 제2계급 귀족으로 수많은 무인을 배출한 무가였다.

“자네를 만나려고 찾아왔네.”

테무란은 귀족 특유의 냄새를 풍겼다. 그렇다고 그가 귀족인 것은 아니었다.

왕국의 계층구조는 귀족과 평민으로 단순하지만 정치적 구분을 떠나면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평민의 계층은 귀족이 정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귀족의 검을 만드는 대장장이는 존경을 받는다. 귀족 구역에 가게를 차린 상인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산꾼은 어떠한가? 귀족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심지어는 도시에 살지도 않는다.

따라서 산꾼은 천민이라 불리며 천대받는다.

반면에 테무란은 귀족을 바로 옆에서 보필하는 직업이니 평민 중에는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시로네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산골짜기까지 들어와 자신을 찾을 찾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일단 좀 보겠네.”

테무란은 시로네의 몸을 더듬으며 외모 및 골격, 눈빛 등을 살폈다. 마치 가축에게 등급을 매기는 태도였다.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하더군.”

“네. 어릴 때부터 책을 조금씩 읽었습니다.”

테무란은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시로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테무란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다.

“자네 평판이 꽤 좋더구먼. 산꾼의 자식이면서 책을 읽을 줄 알고, 더군다나 효심이 그렇게나 깊다지?”

테무란에게는 칭찬을 조롱처럼 들리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마치 너 따위가 효심이 깊어 봐야 얼마나 깊겠냐는 투였다.

시로네는 남의 가정을 폄하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다. 참을 수 없어 대꾸를 하려는 찰나, 테무란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다.

“자네, 오젠트 가문에서 일해 볼 생각 없나?”

시로네의 머릿속에 벼락이 내리쳤다. 제2계급 귀족 가문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최하층에서 최상층으로의 신분 상승이나 마찬가지였다.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본가에서 대도서관 이전 작업을 한다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지. 일만 권에 달하는 서적 중에는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네. 힘쓰는 일은 짐꾼들이 하겠지만 분류 작업은 나와 자네, 단둘이서만 하게 될 것이야. 2년 정도 걸리는 일이 되겠지.”

도서관!

시로네는 심장이 터질 뻔했다. 매력적인 제안일수록 독이 감추어졌을 확률이 높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 어떤 독배라도 마셔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테무란은 시로네가 마셔야 할 독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다. 천민을 상대로 속이지 않겠다는 집사의 자부심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네와 가족뿐일세. 어떠한 이유로든 서적이 유출되거나,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나면 자네와 가족은 죽은 목숨이네.”

시로네는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를 깨달았다. 설령 발설하지 않는다고 해도 2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목숨을 남에게 맡기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목숨을 거는 일인 만큼 돈은 충분히 지급할 것이네. 자네 아버지가 사냥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을 게야. 자식 잘 둔 덕분에 식구들도 살림 피는 거지.”

빈센트가 붉어진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돈 때문에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오! 나는 우리 시로네가…… 시로네가!”

빈센트는 서러움에 말문이 막혔다. 여태까지 아무것도 해 준 게 없는 못난 애비였다. 그래 놓고 가져온 기회라는 게 아들의 목숨을 거는 일이라니.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랄 뿐이란 말이오.”

테무란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겐가? 아첨이라도 떨어서 출세해 볼 생각인가? 그렇다면 꿈 깨게. 분명히 말하지만 고용하는 것일세. 아들을 써 달라고 부탁한 건 바로 자네일세. 돈이 아니고서야 그럴 이유가 없겠지.”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했잖소!”

“물론 책은 읽을 수 있지. 하지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네. 그렇기에 유출이 되면 목을 베겠다고 한 게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지.”

빈센트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물건을 팔러 도시로 들어갔을 때 귀족 가문의 집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평민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천운의 기회라고 여긴 그는 두말 않고 테무란에게 달려가 시로네를 써 달라고 사정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아들이 받을 상처였다. 설마 돈에 눈이 멀어 자식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나가. 돈 따윈 한 푼도 필요 없어. 이럴 줄 알았다면 사정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빠, 저 할게요.”

“시로네!”

테무란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16세의 소년이, 그것도 천출이 감당하기에는 크나큰 부담일 텐데도 시로네는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정말 괜찮은가? 나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야. 분명히 말하지만 조그만 소문이라도 돌았다가는 자네의 목이 잘리게 될 것이야.”

“네, 할게요. 절대로 유출시키지 않을 것이고, 설령 어떤 이유로 소문이 퍼진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테무란도 믿어 볼 만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천출이었고 효심이 깊은 데다 영민함도 갖추고 있었다.

발품을 판 보람을 느끼며 테무란은 몸을 돌렸다.

“일주일 후에 데리러 오지. 그동안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거절해도 좋아. 하나, 일단 저택에 들어가면 일이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는 걸 명심하게.”

테무란은 누구의 배웅도 원치 않는 듯 홀로 문을 열고 나가 버렸다. 하지만 가족들도 조심히 살펴 가라고 입을 놀릴 기분이 아니었다.

## [6] 목숨보다 값진 기회(2)

빈센트가 시로네의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시로네! 어째서 허락한 것이냐?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아니, 내 책임이다! 이 애비가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거절하자!”

“괜찮아요, 아빠. 유출만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가 있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짓이었어! 이 애비가 책임지고 거절하마!”

시로네는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정말로 좋은 부모를 만났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센트의 얼굴이 멍해졌다. 시로네가 아버지라고 높여 부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건 시로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시, 시로네…….”

시로네는 두 팔을 활짝 벌렸다. 그리고 환희의 크기만큼이나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흐윽!”

빈센트는 체면도 잊고 눈물을 쏟아 냈다. 살아오면서 아들의 눈물을 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 이토록 환희에 차오른 표정을 본 적이 있었던가?

“걱정하지 마라, 시로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애비가 너를 지켜 줄 거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 줄 거야!”

“아빠,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내 보물!”

빈센트는 시로네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부자의 감동적인 포옹에 엄마인 올리나가 행복한 눈물을 훔쳤다.

일주일 후.

오젠트 가문의 평집사들이 시로네를 데리러 왔다. 일만 권의 서적을 정리하려면 족히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했지만 소박하게 살아왔던 시로네의 짐은 고작해야 배낭 한 보따리였다.

테무란은 시로네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한 달에 20골드를 약속했다.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4골드였으니 굉장한 거금이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집도 조금은 호화롭게 변해 있을까? 그럴 부모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시로네는 애써 즐거운 상상을 하며 아쉬움을 떨쳐 냈다.

마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계약은 효력을 발휘한다.

평집사들은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시켰고, 정신이 없는 빈센트는 작별의 정도 충분히 나누지 못한 채 시로네를 마차에 태워야 했다.

마차에서 기다리는 시로네는 차분했다. 부모님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감정보다는 차갑게 머리를 식히는 것이 중요했다.

눈을 감고 존에 들어가자 눈물을 훔치며 출발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공감각을 통해 전해져 왔다. 시로네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생각을 움직였다.

빈센트와 올리나의 마음속에 따스한 감동이 스며들었다. 마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니지만 시로네의 전심이 닿은 것만은 분명했다.

마차가 덜컹거리자 시로네는 스피릿 존에서 튕겼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감은 채였다.

오젠트 가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최악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2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몸을 맡긴 채, 시로네는 다시 스피릿 존으로 빠져들었다.

\* \* \*

오젠트 가문은 장군급인 국가 공인 3급의 검사를 배출한 이름난 무가였다. 게다가 가주인 오젠트 비쇼프는 국가 공인 4급의 검사로서 크레아스 도시의 군사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오젠트 가문에 도착한 시로네는 정문 너머로 펼쳐진 광활한 풍경에 압도당했다.

거대한 도로가 부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크기의 저택을 관통해 아치를 지나 후문으로 빠져나간 도로는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먼 곳까지 뻗어있었다.

‘이것이 말로만 들었던 오젠트 가문의 대직도구나.’

거칠 것 없이 부지를 양분한 대직도야말로 오젠트 가문의 호쾌한 기질을 말해주는 상징이었다.

20대 초반의 평집사가 시로네를 보고 비웃었다.

“헤헤, 겁먹었냐? 벌써부터 놀랄 필요 없어. 식구들은 더 괴물이니까.”

“말조심해. 목 달아나고 싶어?”

나이 지긋한 집사가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딱히 비하의 의도는 담겨있지 않았기에 추궁을 멈추고 시로네를 데리고 정문으로 들어갔다.

대직도는 집사를 위한 길이 아니었다. 시로네는 도로의 옆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의 오솔길을 따라 저택을 우회했다.

집사들이 머무는 곳은 4층의 원형 건물이었다. 집무실로 올라가자 부집사 테무란이 일을 보고 있었다.

“왔느냐? 작업을 설명할 테니 따라오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테무란은 인사조차 받지 않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철문이 낡은 소리를 내며 열리자 책으로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다. 2층에도, 3층에도, 4층에도 책 밖에 없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를 빨아들이며 시로네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정도라면 목숨을 걸어 볼 가치가 충분했다.

“이곳의 서적을 신도서관으로 옮길 것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도서 분류다. 일주일마다 목록을 전할 테니 너는 그 책들을 찾아서 모아 두어라. 작업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그 이후는 자유 시간이다. 밖에는 나갈 수 없고, 특별한 지시 없이 저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집사 수칙은 평집사가 알려 줄 것이다. 이해했나?”

“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죠?”

“내일부터. 오늘은 짐을 풀고 쉬어라. 그동안에 집사 수칙을 숙지하도록.”

다음 날부터 시로네는 도서관에 출근했다. 막상 작업을 시작하자 어째서 이 일을 혼자 할 수밖에 없는지 깨달았다.

테무란이 건넨 서류에는 수백 권의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분류 기준이 생각하기 나름이었다.

이를테면 ‘검술의 역사’라는 책을 역사서로 분류해야 할지 검술서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했다.

테무란이 기본적인 체계를 정해 주었지만 일만 권에 달하는 도서를 나누려면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시로네는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역사는 포괄적이고 검술은 전문적이므로 검술의 역사는 검술서로 분류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데에만 무려 이주일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런 작업조차 시로네에게는 유익했다.

분류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모든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음악과 수학이, 화학과 정신이, 미술과 과학이 다르지 않았다.

분류 체계가 잡히고 난 뒤부터 작업은 탄력을 받았다. 목표량을 시간 내에 맞출 수 있게 되자 비로소 공부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지식이란 귀족과 평민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이곳에서 얻게 될 지식은 훗날 엄청난 도움이 될 터였다.

시로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로 했다. 눈앞에 일만 권의 서적이 있다. 2년이란 시간이 있다고 해도 모든 서적을 읽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건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시로네는 무릎을 쳤다. 모든 지식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학문을 파고들면 차후에 얼마든지 다른 지식을 보강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를 파고들어야 할까?”

생각을 거듭하던 시로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역사를 공부하면 된다.”

인간의 삶이 역사라면 지식 또한 역사를 따라 발전해왔다. 역사를 먼저 익히는 것은 생물의 척추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시로네는 머릿속으로 역사의 수평선을 그렸다. 그 선ㅇ르 확대하면 선 안에 종교, 과학, 마법, 신화, 문학, 예술, 정치, 전쟁, 경제 등 인류의 모든 지식이 시간 순으로 담겨 있을 터였다.

“역사를 익혀 두면 언제든지 다른 지식을 보강할 수 있다. 아니, 훨씬 빠르게 결합이 가능하다. 역사야말로 지식의 척추다.”

대도서관에 저장된 역사 서적은 대략 850권. 시로네는 결심했다. 2년 동안 이 850권의 서적을 모두 읽는다. 지식의 척추를 세우는 것이다!

그날 이후부터 시로네는 일과가 끝나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책을 읽었다.

야근을 한다는 명목으로 점호를 빠졌지만 임시직인 시로네를 신경 쓰는 사람은 테무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역사서를 읽는 건 솔직히 고역이었다. 16년을 산에서 자란 그에게 들어 본 적도 없는 대륙의 지명과 인물, 거기서 얽히는 사건들이 연상될 리가 없었다.

통째로 암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암기는 머리에 기록되지만 이해는 마음에 기록된다. 한 줄의 사건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지식의 척추를 세우는 왕도였다.

그럼에도 역사를 이해한다는 건 중노동이었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

능률은 현저하게 떨어졌고 일주일이 지나도 책 한 권을 읽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도서관에서 자는 날이 잦아졌고 기절하듯 쓰러지는 일이 태반이었다.

새벽 4시.

철문이 열리고, 수정등을 앞세운 테무란이 들어왔다. 시로네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테무란은 날마다 이 시간에 들어와 시로네를 감시하고 있었다.

시로네가 읽다가 떨어뜨린 책을 살펴보았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도 보름 동안이나 책이 바뀌지 않고 있다.

테무란은 코웃음을 쳤다. 미친 듯이 실용 서적을 익혔다면 일과 시간 외에 출입을 금지시킬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완전 맹탕이다. 글 좀 읽을 줄 안다고 해서 허황된 꿈을 꾸는 머저리였던 것이다.

“그럼 그렇지. 천출이 무슨 성공을 해 보겠다고.”

테무란은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몸을 돌렸다. 공부로 출세하려면 운도 따라야 하지만 머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꿈만 거창한 시로네는 벌써부터 글렀다고 생각했다.

\* \* \*

도서관 작업에 착수한 지 세 달이 지났다.

분류 작업이 손에 익으면서 시간 배분이 한결 여유로워졌고 집사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서적이 유출되든 말든 귀족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가문의 오의는 직전으로만 전해지고,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워낙에 많은 귀족들은 책이 몇 권 사라지든 말든 관심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시로네가 덜 위험해진 것은 아니었다. 귀족의 너그러움은 고지식한 평민들의 충정 위에 세워진다. 집사들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얼마든지 냉혹해질 수 있었다.

귀족에게는 하찮은 일이 평민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시로네는 두 계층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피부로 느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갑자기 도서관 문이 벌컥 열리더니 처음 듣는 소년의 음성이 적막을 깨뜨렸다.

“후우, 빌어먹을 영감탱이. 오늘 같은 날은 쉬면 어디가 덧나나?”

시로네는 불청객을 보고 눈을 깜박거렸다.

가주의 막내아들 오젠트 리안이었다. 무골의 핏줄답게 얼굴선이 굵은 호남아였고, 동갑인데도 시로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도서관 밖에서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렸다.

“리안! 감히 도망을 쳐? 잡히면 정원 백 바퀴 추가다!”

“으악! 제기랄!”

리안은 안절부절못하며 책장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시로네를 발견했다. 반응할 틈조차 주지 않고 달려온 그가 시로네를 흔들며 소리쳤다.

“야! 나 여기 왔다는 말 하지 마. 알았지?”

말을 내뱉자마자 리안은 책장 밑으로 몸을 숨겼다.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노인의 일갈이 도서관을 뒤흔들었다.

“리아안! 여기 숨은 거 다 알고 있다!”

백발의 노인이지만 어깨는 떡 벌어졌고 키는 거인만큼이나 컸다. 흰 수염을 명치까지 기른 그가 시로네에게 흉흉한 안광을 뿜어내며 걸어왔다.

“너! 머리털 퍼렇고 땅콩만 한 놈 여기 들어왔지?”

시로네는 그런 사람을 아는지 생각해 보았다. 파란 머리의 소년은 알지만 그게 땅콩만 한 거라면 노인의 눈에 자신은 대체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

“인상착의로 보아 막내 도련님 같네요.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시로네는 가문의 권위를 이용해 시간을 끌어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전장을 호령한 백전노장은 시로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검술 사범이다! 그 땅콩을 두들겨 팰 수 있는 스승이란 말이다! 잡소리 말고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너부터 얻어터지고 싶지 않으면.”

시로네는 입맛을 다셨다. 배움을 갈구하는 자에게 스승이란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특히나 가주의 명을 받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집사의 말장난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아, 그러셨군요. 도련님이라면 저기 책장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죽을래?”

리안이 인상을 쓰며 기어 나왔다. 그러다가 눈앞에까지 다가온 검술 사범을 발견하고 사시나무 떨듯 오들거렸다.

“스승님, 이건 오햅니다!”

“이노오옴!”

멱살을 붙잡은 검술 사범이 리안을 땅바닥에 패대기쳤다.

리안의 몸이 원호를 그리며 떨어지는 순간 시로네는 한쪽 눈을 감았다.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바닥에 퍼져 버린 리안이 사지를 부들거렸다.

“따라와, 이눔의 시키야. 넌 수련이고 뭐고 정신 무장부터 다시 해야 돼.”

다리를 붙잡힌 채로 질질 끌려가는 리안이 고개를 젖혀 시로네를 향했다. 그리고 무슨 말인가를 뻐끔거렸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 모양만으로 전하는데도 시로네는 그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넌 죽었어.

## [7] 목숨보다 값진 기회(3)

그날 이후로 시로네는 뒤통수가 근질근질했다. 언제 리안이 보복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풍문으로 들으니 검술 사범에게 붙잡혀 산으로 끌려갔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난 뒤에야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감정은 휘발성이 강해서 시간이 지나면 큰일도 별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가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을 터였다.

시로네는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조국인 토르미아 왕국의 건국사를 읽었다.

네 달 동안 독파한 서적의 숫자는 82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처음 한 권을 떼는 데 20일이 걸렸음을 생각하면 괄목할 성장이었다.

근래 들어 시로네의 독서량은 기하급수로 늘어서 한 페이지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초에 불과했다.

모르는 부분은 1분이 걸리더라도 아는 부분에서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책을 쓴 작가 또한 다른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 어떤 서적이라도 완벽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깨닫는 분기점인 200권 정도만 넘어간다면 남은 650권은 전과 비교가 안 되는 속도로 완독이 가능할 것 같았다.

시로네가 역사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마법사의 활약상이었다. 학자가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마법사들은 그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법사의 직업은 학문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반면에 스피릿 존에 들어갈 수 없는 학자들은 마법사가 될 수 없으니 마법사야말로 굉장한 고급인력이었다.

방대한 지식과 예민한 감각.

이 두 가지가 바로 마법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미 스피릿 존을 터득한 시로네는 더더욱 지식을 채워나가는 일에 몰두했다.

잡학의 호기심을 억누르고 역사만을 공부했다. 훗날 지식의 척추가 완성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효율을 위해서였다.

그 효율이 마침내 빛을 발할 때 자신은 어떤 마법사가 되어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노라면 잠을 자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건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은 시로네가 만족한 얼굴로 책을 덮으려는데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 이 자식! 내가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지옥에서 버텼다!”

당사자의 말을 빌리면 지옥에서 돌아온 오젠트 리안이었다. 독기가 바짝 오른 얼굴이 악마의 화신을 보는 듯했다.

시로네는 그의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다. 모르긴 해도 검술 사범에게 끌려갔을 당시와 똑같은 분노가 전해지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라면 눈 밑이 퀭해지고 몸이 마른 정도랄까?

“너! 감히 내가 숨어 있는 곳을 고자질했겠다?”

“정말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알아? 절벽을 수없이 오르내렸지. 손에 힘이 풀려 죽는구나 싶을 때마다 복수할 생각으로 버텼다고!”

시로네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증오심을 키웠다면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철천지원수보다도 미울 것이었다.

“대답 안 해? 어째서 고자질을 했냐고 묻잖아, 이 비겁한 자식아!”

“고자질한 게 아니고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하! 사실을 말했다고? 그렇다면 나도 네가 한 짓을 집사장에게 사실대로 말해 볼까? 그럼 네 인생은 끝장이야! 알아?”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시로네는 설득을 포기했다. 귀족과 평민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뼈저리게 느껴 온 바였다. 더 이상 일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안은 살짝 당황했다. 딱 봐도 이제 막 가문에 들어온 평집사 같은데, 하는 짓이 너무나 태연했다.

“이제는 집사까지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좋아. 내가 겪은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똑같이 느끼게 해 주마. 따라와.”

시로네는 끌려가다시피 리안을 따라나섰다.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죽도록 때릴 생각인 모양이었다. 4년 전 불량배들에게 당했던 일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굴리면 굴리는 대로 하자.’

부모님이 목숨 걸고 만들어 준 기회를 물거품으로 날릴 수는 없었다.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집을 떠올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겁게 식사를 하는 광경을 상상했다.

리안이 데려간 곳은 소규모 연무장이었다. 무를 숭상하는 집안답게 저택에는 크고 작은 연무장이 여러 개 있었다. 지금 도착한 곳은 리안의 전용 연무장으로 곡소리를 내질러도 누구 하나 달려오지 않는 장소였다.

리안이 횃불을 켜는 동안 시로네는 마른침을 삼키며 기다렸다. 차라리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뜸을 들이니 속이 오르락내리락했다. 일부러 그러는지도 모른다. 검을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대치의 긴장감 정도는 꿰고 있을 테니까.

“자, 이거 받아라.”

연무장이 밝아지자 리안은 목검을 던졌다. 찰진 소리를 내며 시로네의 손바닥에 목검이 달라붙었다. 처음 잡아 보는 목검의 손잡이는 도끼의 손잡이보다 두꺼웠다.

“이걸 왜 저에게?”

“그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줄 알았냐? 난 너처럼 비겁하지 않아. 장차 세계 최고의 검사가 될 몸이니까. 너 때문에 강해졌으니 너에게 되돌려주는 것뿐이다. 공평하지?”

시로네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무를 연마한 사람과 싸우자는 건 그냥 두들겨 맞으라는 말과 다를 게 없었다.

“제가 뭐가 그렇게 비겁했습니까?”

“난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고민조차 안 하고 고자질하는 너 같은 부류 말이야. 그런 놈에게는 목검 찜질이 제격이지. 덤벼라. 실력 차이를 감안해서 일단 세 번은 받아 주고 시작하마.”

시로네에게 검을 겨누는 리안의 눈빛이 변했다. 성격은 이상해도 저 눈빛만큼은 명백한 오젠트 가문의 것이었다.

투지에 반응한 것인지 어느새 시로네도 양손으로 목검을 붙잡고 있었다. 촉감만으로도 단단함이 느껴지는 목검은 사람의 뼈 정도는 가볍게 끊어 버릴 듯했다.

말인즉슨, 리안이 제시한 세 번의 기회가 끝나면 자신의 뼈가 부러진다는 뜻이었다. 온갖 잡념이 머리를 스쳤다.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책을 읽을 수 없게 된다. 병신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부모님이 바라보고 있다.

‘어떡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시로네는 결심을 굳혔다. 휘둘러 보는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낮다고 포기하는 건 자신의 미래를 쓰레기통에 처넣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야아압!”

시로네는 머리 위로 검을 치켜세우고 돌진했다. 기세가 남달랐으나 리안은 코웃음을 쳤다. 자세도 그렇고 무게중심도 엉망이었다. 검이라고는 쥐어 본 적도 없는 게 분명했다.

시로네의 검을 막아 내며 리안이 소리쳤다.

“하나!”

딱! 경쾌한 소리가 연무장에 퍼졌다. 하지만 시로네에게는 목을 죄어 오는 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배 속의 공포심을 기합으로 토해 내며 가로 베기를 시도했다.

“둘!”

리안의 호탕한 목소리를 들은 시로네는 속이 부글거렸다. 까마득한 하수를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즐거울까? 입술을 짓깨물며 마지막 기회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

바람을 가르며 목검이 떨어지자 리안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세로 베기, 가로 베기, 세로 베기. 초심자라고는 하나 무식하리만치 단순한 패턴이었다.

리안은 가로막기 자세로 목검을 대기시켰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디며 소리쳤다.

“자, 마지막이다! 이제부터 내 차례……!”

콰지지지직!

그 순간 리안이 들고 있는 목검의 중앙이 터져 나갔다. 부러졌다기보단 끊어진 것이었다. 동시에 시로네의 목검 또한 가운데 부분이 박살 났다.

경악에 물든 리안의 얼굴을 자잘한 파편들이 스쳤다. 황급히 정신을 차린 그는 걸음을 물렀다. 목검을 살펴보니 단면의 결이 거칠게 일어서 있었다. 충격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돌아 버린 것이었다.

‘이건…… 검살이잖아?’

무기 파괴식 검살.

베기가 없는 검술은 없듯이, 모든 유파에는 하나 이상의 무기 파괴식이 존재했다. 오젠트 가문에서는 이를 검살이라고 칭하며 그 오의를 직전으로만 전하고 있다.

오의라는 거창한 꼬리표가 붙는 이유는 단지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간의 대결에서는 힘의 가중만큼이나 힘의 흡수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충격의 집중도, 즉 사람이 아닌 오직 검만을 노리는 특별한 동작과 정신 상태가 필요했다.

리안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검을 잡은 그조차 사람을 상대로 검살을 성공시킨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분이 나쁜 건, 아직까지 가문에서 검살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는 점이었다.

“너, 도대체 뭐야? 어디서 검술을 배운 거야?”

시로네는 손잡이만 남은 목검을 떨어뜨렸다. 솔직히 말하면 도박 같은 일격이었다.

첫 번째 타격으로 감각을 느끼고, 두 번째 타격으로 타이밍을 계산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시도했다.

4년간 수도 없이 연습했던 천둥패기를.

“검술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닥쳐! 뼛속까지 야비한 자식! 그럼 어떻게 검살을 성공시켰지? 날 조롱하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죽여 버릴 테다!”

“이건 천둥패기라는 것입니다.”

“천둥패기?”

“저의 아버지는 사냥꾼입니다. 산에서 살다 보니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체격이 크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나무를 패야 했고, 그러다가 자연스레 익히게 된 기술입니다. 나무꾼들 사이에서는 이걸 가리켜 천둥패기라고 부릅니다.”

리안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으로 엉켰다. 산꾼? 나무를 하러 다녔다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난 16년 동안 검을 잡았어. 장작 좀 팼다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잖아. 내 또래 중에도 검살을 성공시킨 놈은 1명도 없단 말이야. 있다고 해 봤자 기껏해야…….

리안은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젠트 라이.’

리안보다 2살이 많은 오젠트 가문의 차남이었다. 또한 가문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검의 천재이기도 했다.

리안은 부서지도록 주먹을 움켜쥐었다. 형의 환영이 나타나 자신을 비웃고 있는 듯했다.

라이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검살을 성공시켰다. 가문의 경사였고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성대한 파티를 열어 주었다.

리안은 그날의 감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결국에는 산꾼의 자식에게조차 따라잡히고 만 것이었다.

“인정할 수 없어!”

리안은 일갈을 내질러 라이의 환영을 날려 버렸다. 정말로 노력했다. 한때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검을 휘두른 적도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저놈은 되고 자신은 되지 않는 것인가.

“도련님, 제가 결례를 범한 것은…….”

“닥쳐!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어! 누구 하나 진 사람은 없다고! 난 오젠트 리안이야!”

리안은 몸을 돌려 연무장의 외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서 귀족들이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장검을 뽑아 가지고 돌아왔다.

진검을 본 시로네는 섬뜩했다. 장검을 잡아당기자 물소리를 내며 검이 빠져나왔다.

횃불을 빨아들인 칼날이 용암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날의 상태를 확인한 리안이 다시 칼날을 검집에 처넣고 시로네에게 던졌다.

시로네는 한 발짝 다가와 두 손으로 받았다. 어째서 검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자 리안이 손가락을 뻗으며 말했다.

“둘 다 무기가 없으니 승부를 가릴 수 없다. 네가 검살까지 익혔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겠지. 앞으로 한 달 후, 이곳에서 진검으로 승부를 겨루자.”

시로네는 억장이 무너졌다.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기책을 펼친 것인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목검과 진검은 받아들이는 기분 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리안은 더 이상 세 번의 기회를 주지도 않을 것이었다.

죽을 수도 있다. 시로네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슬퍼하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창한 나이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게 서러웠다.

“도련님, 제발 생각을 바꿔 주세요! 저는 검술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다. 나무를 하다가 검살을 익혔다고? 그 말을 믿지도 않지만, 설령 그렇게 잘난 놈이라면 한 달 사이에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리안은 자신의 말이 억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이라면 가능할 테니까. 그는 시로네에게서 형의 환영을 보고 있었다. 그래, 각오가 부족했던 것이다. 진검이라면, 목숨을 건 상황이라면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내 개인사를 떠나서 너 같은 놈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리안의 마지막 말이 시로네의 발등을 대못처럼 내리찍었다.

## [8] 목숨보다 값진 기회(4)

다음 날 아침.

시로네는 피곤한 몰골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간밤의 일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다.

마음이 심란하니 분류 작업도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시로네는 애써 냉정함을 되찾았다.

두려워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든 대비책을 세워야 했다.

우선은 호구조사였다.

가주 비쇼프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는데 장남은 공인 6급의 검사였고 차남인 라이도 조만간에 형의 뒤를 따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검의 천재였다.

리안의 누나 또한 재능만큼은 오젠트급이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검을 포기하고 현재는 왕궁의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나씩 따져 보니 결국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건 리안이 유일했다. 가주가 전담 교사까지 붙여 주었지만 소질이 없다는 보고만 올라올 뿐이었다.

“하아, 괜한 짓을 했구나. 그냥 때리는 대로 맞을걸.”

평생을 형제들과 비교당하고 살아온 리안이었으니 시로네의 천둥패기에 발끈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귀족이라고 다 뛰어난 건 아닌 모양이었다.

“이제 어쩐다지? 정말 큰일 났네.”

사태 파악이 끝나자 다시금 심란해졌다. 책상 아래에는 리안이 던져 준 진검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한참이나 그것을 바라보던 시로네는 마침내 결심을 내린 듯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싸우든 안 싸우든 준비는 해 두는 게 좋았다. 산에서 생활하며 체력에는 자신 있으니 방어하는 법이라도 알아 두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분간 역사책은 봉인하기로 했다. 대신에 검술에 관련된 책이란 책은 모조리 챙겼다.

‘검술교본’ 같은 기술 서적도 있는 반면, ‘검이란 무엇인가?’, ‘인간만이 검을 두려워한다’ 같은 철학서도 있었다. ‘허세로 이기자’,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같은 실용 서적도 보였다.

시로네는 단순 명쾌한 제목인 ‘검술’이라는 책을 펼쳤다. 검이 시작된 역사와 검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법사 지망생인 시로네가 보기에도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마법사에게 스피릿 존이 있다면, 검사에게는 스키마라는 것이 있다.

스키마는 가상의 육체이자 인체 도식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구체화시킨 도면이었다.

스키마의 고수는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 하나의 작용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은 시로네는 스키마가 스피릿 존의 대칭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법사는 나를 지워 세상과 동화되지만, 검사는 더욱 집요하게 나라는 존재를 파고드는 자들이었다.

시로네는 직접 실험을 해 보았다.

스피릿 존에 들어가는 뇌의 작용을 느끼면서 가상의 자신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여기까지는 수월했다.

하지만 가상의 육체는 그림자처럼 어두워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이 어두운 장막을 전부 걷어 내면 스키마가 되는 거구나. 정말 대단하다.’

시로네는 다시 책을 들었다. 스키마를 터득하는 방법은 가문마다 천차만별이고 중점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부분도 다르다고 적혀 있었다.

정신 수양으로 스키마를 얻는 가문이 있는 반면, 육체를 극한으로 몰아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가문도 있었다.

어떤 가문은 근력을, 어떤 가문은 속도를, 어떤 가문은 신경계를 강화시키는 데 스키마를 활용했다.

시로네는 4년 전 골목에서 만났던 붉은 머리의 소녀를 떠올렸다. 당시에는 도망치느라 경황이 없었지만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녀의 몸놀림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스키마를 터득한 것이구나. 나랑 비슷한 나이였는데. 정말 대단한 재능이다.’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시로네는 책을 덮고 생각에 잠겼다. 어차피 리안도 스키마를 터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시도하자니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스피릿 존이 마법이 아니듯이 스키마 또한 검술이 아니다. 마법사에게 지식이 중요하듯 검사에게도 강인한 육체가 필수불가결이었다. 신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키마를 구사한다고 해도 강화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이미 스피릿 존이 있다. 상충하는 개념을 익히느니 차라리 검술 쪽으로 해법을 찾는 게 빠르겠다.”

한 달 안에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시로네는 검술교본 초급을 꺼내 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뜬금없이 검술을 공부하게 되었지만 목숨이 걸린 일이다 보니 집중력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 \* \*

“으아아아! 으아아아!”

대연무장에 흙먼지가 일었다. 리안의 두 다리가 일으키는 토연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 위장의 것들이 역류했다.

“우엑! 우엑!”

점심에 먹었던 것들이 식도를 타고 넘어왔다. 리안은 토하면 토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 그가 신경 쓰는 건 오로지 두 다리뿐이었다.

“백 바퀴! 통과!”

검술 사범 카이트가 호탕하게 소리쳤다. 오늘따라 달라진 리안의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기록 단축이다! 그런데 웬일이냐? 순순히 훈련을 다 받고?”

“제기랄! 이딴 게 무슨 훈련이라고!”

“뭐 인마?”

카이트가 황당한 눈을 치켜떴다. 간만에 칭찬 좀 해 주려고 했더니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다짜고짜 투정질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투정은 다른 때와 성격이 달랐다.

“지금도 이렇게 서 있잖아요! 스승님, 더 센 거 없어요?”

“호오?”

카이트는 꽤나 놀랐다. 리안이 이토록 불타오르는 건 오랜만이었다. 2년 전 오젠트 라이의 천재성 앞에 무릎을 꿇은 이후로 처음인 듯했다.

“너…… 무슨 일이 있었구나?”

두 손으로 무릎을 짚은 리안이 땀을 쏟아 내며 고개를 쳐들었다.

“없어요, 그딴 거.”

카이트는 믿지 않았다. 무섭도록 전방을 응시하는 제자의 눈에는 분명 누군가의 환영이 아른거리고 있을 터였다.

‘이번에도 라이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리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가문의 차남뿐이었다. 그가 또다시 뭔가를 해낸 것일까? 하지만 무엇을? 이미 라이는 스키마까지 터득하지 않았던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의 제자는 라이가 아닌 리안이므로. 그리고 지금 그 제자가 얼마든지 자신을 요리하라고 목을 내미는 상황이었다.

“좋다! 오늘 한번 제대로 죽어 보자! 진짜 죽어도 난 책임 못 진다!”

“얼마든지요!”

리안은 장검보다 두 배나 무거운 철봉을 연속으로 내리쳤다. 통찰력으로 스키마를 깨닫지 못한다면 육체를 극한으로 몰아넣어 강제로 찾도록 하는 방법뿐이었다.

“타하! 타하! 타하!”

카이트는 수직 베기를 반복하는 리안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갔다. 마침내 깨달은 그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달려갔다.

“이 미친놈아! 그만해! 그러다가 근육이 터져 버린다!”

“아직 안 터졌잖아요!”

카이트는 달려가다 말고 제자를 바라보았다. 이를 악물고 봉을 휘두르는 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빌어먹을! 왜 근육이 터지지 않는 거야! 왜 팔이 끊어지지 않는 거냐고! 더 할 수 있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카이트의 눈에서도 눈물이 차올랐다. 제자만큼이나 분한 스승이었다. 어째서 안 되는 거지? 한계의 한계까지 육체를 몰아세우는데, 어째서 스키마를 열 수 없는 거지?

카이트는 굵은 팔로 눈물을 닦아 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스승이 의심을 해 버리면 제자인 리안은 어쩌라는 말인가.

카이트는 공기를 가르는 리안의 철봉을 손바닥으로 받아 냈다. 스승의 손을 때리자 이번만큼은 리안도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동작을 멈췄다.

“리안, 이걸로 충분하다. 오늘은 그만하자꾸나.”

따스한 목소리에 리안의 광기가 사라졌다. 팔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곤봉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리안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카이트는 리안의 어깨에 얼음 수건을 올려 주었다. 뼈가 상하지 않은 걸 보니 타고난 강골인 건 부정할 수 없었다.

리안은 연무장 언덕에 앉아 먼 산을 얼보고 있었다. 치료를 끝낸 카이트가 옆자리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팔 아파 죽겠다는 생각요.”

카이트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리안. 나는 가주에게 올리는 보고서에 네가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쳇, 누가 뭐래요?”

“하지만 나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는 것만이 재능은 아니야. 이룰 수 없음에도 기를 쓰고 도전하는 것. 그 또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지.”

“위로하실 필요 없어요. 말이 좋을 뿐이지 까놓고 말해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죽어라 노력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 천재는 자기가 천재라는 걸 알고 있단다.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깨닫고 있지. 너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

“글쎄요. 할 수 없는 게 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 그래서 너는 천재가 아닌 것이다.”

리안은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으로 카이트를 돌아보았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팔 아파 죽겠는데 속까지 쓰리게 만드는 스승이었다.

“그만하세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리안이 입술을 삐죽거리자 카이트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말이다, 리안. 천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노력이란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이야. 재능이 없어서 노력을 한다고? 천만에. 세상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하는 사람밖에 없다.”

카이트는 리안의 어깨를 붙잡고 부드럽게 힘을 밀어 넣었다.

“천재들은 너를 두려워한단다. 너에게는 가지지 못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천재의 천적인 것이다.”

천재의 천적.

리안은 이 말이 마음에 들었다. 못난 제자를 위로하는 말이라도 상관없다. 그래, 가지지 못했을 뿐이다. 원래부터 없었다면 악착같이 얻어 내면 된다.

리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을 생각이었다.

\* \* \*

시로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스키마에 미련조차 두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 또한 리안과 정반대의 성향임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재능은 목적지로 향하는 최단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도모한다. 시로네는 잡다한 기술은 제쳐 두고 검술의 기초만을 파고들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팔 방향의 베기와 팔 방향의 막기. 이 두 가지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게 된 시로네는 수련을 끝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익힌 것이 무엇인지를 함축하는 질문을 던졌다.

“검술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운동 역학의 총체. 또한 생과 사를 가른다는 점에서 고도의 심리학이기도 했다.

시로네는 가상의 리안을 상정하고 검을 겨누었다. 아마도 적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움직일 터였다.

하지만 거짓에 불과하다. 오직 자신을 베려고 들어오는 검만이 진짜였다.

시로네는 상상의 적에게 상상으로 대응했다. 자신의 검이 환영처럼 늘어나 여덟 방위를 제압했다. 다시 한 합이 더 치러지자 수십 갈래로 분산되었다.

‘숫자를 세는 게 아니야. 통째로 느끼는 거다.’

나무에 집착하면 숲을 보지 못한다. 가능성을 통째로 음미하는 것. 그게 바로 통찰이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다양한 패턴들이 프랙털처럼 뻗어 나갈수록 자꾸만 특정 부분의 공격에 집착하고 있었다.

‘해내지 못해도 괜찮아. 관조하자.’

점차 탄력을 받은 시로네는 어느 시점에서 생각을 완전히 풀어 버렸다. 무한한 여백에 온갖 가능성들이 통째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어? 어어어어?”

시로네는 경악스러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았다. 끝이 없었다. 온 세상이 자신과 리안의 검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함에 시로네는 검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렸다.

“하하, 하하하.”

허탈한 웃음소리. 마법과 마찬가지로 검 또한 무한했다. 한 자루의 검에서 파생되는 무한의 세계를 경험한 것이었다.

‘검사들은 이런 길을 선택한 것이구나.’

자신 또한 마법이라는 무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알 수 없는 동질감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집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후회는 없었다. 리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생사의 분기점을 앞두고, 정말로 멋진 세계의 일면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도서관 밖에서 자정이 가까워 오는 종소리가 들렸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리안.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끝낸 시로네. 거울처럼 대칭되는 두 소년의 격돌은 이제 1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 [9] 목숨보다 값진 기회(5)

대연무장.

시로네는 정시에 도착했다. 리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투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접근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작하자.”

리안이 선택한 무기는 시로네와 똑같은 장검이었다.

패도적이고 호쾌한 검술을 자랑하는 오젠트 검술은 장검보다는 대검에 적합했다.

하지만 그것도 스키마가 가능했을 때의 일이기에 시로네를 배려했다기보다는 맞춤형 무기를 선택한 셈이었다.

시로네는 검술 초급에 나오는 정중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간단한 동작이긴 했지만 리안이 보기에도 예전보다 무게중심이 훨씬 제대로 잡혀 있었다.

‘정말로…… 저게 가능한가?’

리안은 시로네에게서 또다시 라이를 보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아이는 정말로 검술을 배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지? 죽음이 두렵지 않나?’

16년 동안 검을 수련한 리안도 죽음은 두려웠다. 그렇기에 육체를 한계까지 몰아가면서 자신감을 북돋는 것이었다.

반면에 시로네에게는 리안과 같은 용기가 없었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초식동물이었다.

하지만 지성은 언제나 최고의 효율을 추구한다. 진검에 대한 공포를 이번 대결의 최고 위험 요인으로 분석한 시로네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답을 얻어 냈다.

공포를 이길 수 없다면 이해해 버리면 된다.

검 철학에서는 이를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라고 부른다. 인간은 누구나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 죽는다는 사실만 떠올리지 않는다면.

일례로 세상의 어떤 부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권력자, 사업가, 범죄자 등 직업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결과를 미리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쇄살인마는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할 뿐 체포당했을 때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독재자는 반란군이 성문을 뚫고 들어온 상황에서도 한가로이 만찬을 즐긴다. 그들에게 있어 미래는 0.1초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시로네는 절벽의 끝에 서 있는 상상을 했다. 그런 다음 오른발을 허공에 내밀고 뒤이어 왼발을 끌어왔다.

시로네는 추락하지 않았다. 미래를 상상하지 않느다면, 절벽의 바깥 또한 추락하기 직전의 상태일 뿐이었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떨어진 게 아니다. 죽기 전까지는 죽은 게 아니다.’

지성이 때때로 용기보다 무서운 이유는 이렇듯 위험의 본질을 이해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얼어붙은 시로네의 정신은, 결과적으로 스피릿 존의 안정감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간다아아아!”

시로네가 스피릿 존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리안이 지척까지 다가왔다.

시로네의 눈앞에 섬광이 그어지는 듯했다. 분명 산꾼의 도끼질과는 수준이 다른 호쾌한 검술이었다.

하지만 시로네에게도 스피릿 존이 있었다.

공감각 인지 능력으로 검의 궤적을 선명하게 느낀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공격을 회피했다.

리안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다. 진검의 움직임을 눈으로 본다는 건 초심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검의 기술 또한 무한하다. 시로네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다. 칼날이 시로네의 가슴팍을 베고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스피릿 존이 흔들렸다.

시로네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그런데 이어지는 리안의 공격이 예상 밖으로 과격했다. 덕분에 시로네는 몸을 날려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다.

‘어째서 저런 공격을?’

크게 힘을 쓸 필요 없이 최단거리로 옆구리를 베면 끝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리안은 시로네의 흔들림을 눈치채지 못한 듯 큰 동작으로 승부를 걸어왔다.

‘생각보다 검술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시로네의 생각은 정확했다. 통찰력이 부족한 리안은 검술 자체는 능숙했지만 검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은 떨어지는 상태였다.

시로네는 리안의 실력을 하향 조정했다. 적을 너무 강하게 설정하는 건 반격의 여지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승부를 이기려면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시로네의 반격이 시작되자 죽음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리안의 체력이 급속히 소진했다. 그렇게 수십 합이 이어지자 급기야 리안은 경악했다.

‘젠장!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상대가 사용하는 기술은 기초적인 베기밖에 없었다. 한데도 막기가 힘들었다. 막을 수 없는 부분만을 노리고 있었다.

문득 라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2년 전의 대결에서 형은 한 손만으로 리안을 제압했었다. 입술을 이기죽거리며 조소를 짓는 라이의 얼굴이 지금도 뇌리에 선명했다.

“웃기지 마! 나는 세계 최고의 검사가 될 거야!”

리안이 저돌적으로 부딪쳐 올수록 시로네는 의아했다. 대체 이 소년은 뭐지? 이기고 싶지 않은 건가? 어째서 고집을 부리지? 생각이라는 걸 하기는 하나?

‘어? 어어?’

시로네는 점차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상대의 동작이 읽히지 않고 있었다. 소신껏 휘두르는 리안의 검이 시로네에게 예측 불가능한 난해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지 않아! 반드시 뛰어넘을 테다!”

리안은 승기에 편승해 시로네를 몰아세웠다. 시로네의 체력이 급격히 바닥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체력을 분배해 왔지만 어차피 절대적인 차이는 존재했다. 검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다.

“이걸로 끝이다!”

장검을 늘어뜨리고 달려온 리안이 시로네의 턱을 쪼갤 듯 올려쳤다. 시로네 또한 젖 먹던 힘을 다해 검을 내리쳤다.

챙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자루의 검이 하늘로 치솟더니 연무장 저편에 박혔다.

정적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연거푸 숨을 토해 내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리안은 천천히 시선을 내려 아래를 보았다. 자신의 명치를 겨누고 있는 시로네의 검이 보였다.

검이 충돌하기 직전 시로네는 회오리처럼 손목을 휘돌려 리안의 검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렸다. 관성에 더해 충격이 가해지자 체력이 떨어진 리안은 결국 검을 놓치고 말았다.

확신을 가지고 시도한 기술이 아니었다. 단지 검술의 이해도의 차이. 자신을 벨 수 있는 공격만이 진짜라는 생각으로 모험을 감수한 것이었다.

시로네는 긴장을 풀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드러눕고 싶었지만 어렵게 구한 목숨을 허탈하게 놓칠 수는 없었다.

“에이, 내가 졌다.”

리안은 시원하게 패배를 인정했다.

“아, 져 버렸네. 져 버렸어.”

짜증스럽게 머리를 긁는 리안이었으나 독기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한계까지 훈련했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렇기에 미련 따위는 남지 않았다.

“네가 이겼다. 대결에서 패했으니 죽여도 할 말이 없다.”

치기 어린 발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것이 더욱 못마땅했다.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 있을까?

“지금 장난하세요?”

“뭐?”

“도련님을 죽이면, 저는 뭐, 살 수 있을 줄 아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나 참!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목숨 걸고 싸운 상대한테 할 소리냐, 그게!”

“목숨은 도련님만 걸었겠죠! 전 그냥 살라고 싸운 거거든요! 도대체 이 황당한 대결부터 말이 안 되는 게, 애당초 도련님이 훈련하기 싫어서 숨은 거 가지고 저한테 죄를 덮어씌우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리안은 당황했다. 보통 사내들끼리 싸우고 나면 훈훈함까지는 아니어도 뜨겁고 묵직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대사가 오고 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데 이건 숫제 잔소리로 잡아먹을 기세였다.

“야, 인마! 누가 죄를 덮어씌워? 네 행동이 하도 좀스러워서 그런 거잖아! 아무리 처음 본 사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의리가 발동해야 정상인 거야!”

“의리 같은 소리 하네!”

“뭐야, 인마?”

시로네는 울컥했다. 한 달 동안 당면한 문제에 정신이 팔려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막상 일이 끝나고 나자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게 의리라고요? 가주의 아드님과 검술 사범님 사이에서 평집사가 받아야 할 부담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걸 알고도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응? 그야…….”

리안은 눈을 껌벅거렸다. 날마다 얻어터지면서 배웠던 리안에게 시로네의 잔소리는 생소한 공격이었다.

“도련님이 정말로 의리의 사나이라면 일개 집사에게 부담을 주는 걸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검술 사범님 앞에 나섰어야죠. 그거야말로 정말로 멋있고 의리 있는 행동 아닌가요?”

리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반복적으로 입맛을 쩝쩝 다시는 모습에서 시로네는 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말을 지어내는 성격이 아니다.

할 말이 없으니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더 꼴 보기 싫은 시로네는 잔소리조차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하아, 진짜 죽을 뻔했잖아.”

리안은 구시렁대는 시로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죽음의 공포마저 이겨내고 자신을 몰아붙였던 최강의 상대는 사라지고 그냥 꼬마가 앉아 있는 듯했다.

대체 누굴까? 천재인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라이가 아니었다. 한 손으로 검을 쳐 내며 비소를 날린 형과 달리, 저 소년은 온몸을 다해 자신을 상대해주었다.

“너, 이름이 뭐냐?”

시로네는 고개를 쳐들었다. 앉아서 바라보니 리안의 덩치가 더 커보였다.

“아리안 시로네입니다.”

“난 오젠트 리안이다.”

귀족과 평민이 통성명하는 것도 웃기지만 더욱 황당한 건 이거였다. 가문의 막내아들 이름을 정말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건가?

리안은 시로네의 뚱한 표정에 개의치 않고 걸어갔다. 시로네의 고개가 더더욱 위로 올라갔다. 솥뚜껑만 한 손을 불쑥 내민 리안이 굵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 친구 하자. 어때?”

꿈을 향한 첫걸음(1)

오젠트 가문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시로네는 17살이 되었고 대도서관의 서적은 칠천 권 이상이 빠져나갔다.

경이로운 작업 속도에 테무란은 혀를 내둘렀지만 시로네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분류 서적이 줄어들수록 능률이 가속화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의 생각에 세상의 모든 일은 등속이 아닌 가속의 적용을 받는 듯했다. 시작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면 예상보다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목표치인 850권의 역사서 중에 남은 서적은 불과 200여 권. 평균 독서량은 하루 세 권이 넘었고 이제 몇 달 후면 꿈에 그리던 지식의 척추가 완성될 예정이었다.

그 외에도 검술을 경험하고 공포의 본질을 이해했다. 덕분에 스피릿 존의 내구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다.

이렇듯 그가 보낸 1년의 시간은 알차고 유익했다.

하지만 어떤 유익함도 시로네가 처음으로 사귄 진실한 친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책 무진장 많네. 우리 가족은 이런 거 다 읽어 봤을라나?”

바닥에 앉은 리안이 책을 거들떠보며 중얼거렸다. 막상 시로네가 사귀어보니 리안은 정이 많고 애교가 있는 성격이었다. 귀족 집안의 막내답다고 해야 할까?

시로네가 사다리 위에서 책을 정리하며 말했다.

“당연하지. 가주님이나 작은 도련님은 도서관에 자주 들르시니까.”

“쳇, 똑똑한 사람들은 좋겠어.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리안이 읽고 있던 책을 내던지자 사다리에서 내려온 시로네가 그것을 주워 들고 잔소리를 퍼부었다.

“함부로 던지지 마. 한 권이라도 훼손시키면 나는 죽는다고.”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사람 목숨보다 책이 중하다는 게 말이 돼? 설령 네가 도서관을 불태운다고 해도 내가 지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만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제발 조심 좀 해.”

시로네의 입에서 낯간지러운 말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단호하고 엄격하지만, 차갑지는 않다. 리안은 그런 시로네가 좋았다.

“너랑 있는 건 좋은데 도서관에만 처박혀 있으니 답답해 죽겠다.”

“대체 왜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거야? 수련은?”

“기본 수련만. 도서관에서 공부 좀 하고 싶다고 했거든.”

시로네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럼 빨리 공부해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리안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어리광을 부렸다.

시로네는 무시하듯 외면하고 책상으로 향했다. 딱히 리안의 게으름이 걱정스럽지는 않았다. 자신이 물이라면 리안은 불이었다. 한번 타오르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불.

## [10] 꿈을 향한 첫걸음(2)

역사책을 챙긴 시로네가 다시 잔소리를 퍼부었다.

“일어나서 책 가져와. 공부하게.”

“끄응, 요즘 들어 훈련이 너무 빡세다니까.”

리안을 서재로 내보낸 시로네는 자리에 앉아 역사책을 펼쳤다. 근래에는 서류 작업보다 현장 작업이 빨리 끝나서 시간이 제법 여유로웠다.

일단 책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페이지가 순식간에 넘어갔다.

좌상, 좌하, 우상, 우하. 네 번의 눈짓이면 두 페이지가 뚝딱이었다. 더군다나 한 권을 전부 읽을 때까지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는 머릿속에 담긴 지식의 범주가 책의 범주를 뛰어넘었음을 뜻했다. 650권의 역사책을 독파했다면 남은 200권 정도는 물 마시듯 소화시킬 수 있었다.

“야, 시로네. 여기 재밌는 책 찾았다.”

리안이 책을 흔들며 다가왔다. 하지만 이내 엄청난 속도로 책장을 넘기는 시로네를 발견하고 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례로 자신은 한 페이지를 넘기는 데 10시간이 넘게 걸린 적도 있다. 분명 책을 읽고 있었는데 눈을 떠 보니 아침이었던 것이다.

시로네의 옆자리를 차지한 리안은 자신이 가져온 책을 펼쳤다. 그가 발견한 재밌는 책이라는 건 이런 제목이었다.

검사 VS 마법사.

“서문. 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을 것이다. 검사와 마법사가 맞붙는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리안이 소리를 내며 읽자 책장을 넘기는 시로네의 손짓이 멈칫했다. 마법사 지망생에게는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내용이었다.

“나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지를 떠돌았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아른거린다. 해발 6,000미터의 아르투스나 산맥. 그곳에는 산새를 잡아먹는 육식나무…….”

리안은 책을 덮어 버렸다.

“더럽게 재미없네.”

“뭐? 난 재밌는데!”

시로네의 외침에 놀란 리안이 어깨를 들썩였다. 관심 없는 척하더니 여우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던 모양이다.

“재밌긴 뭐가 재밌어? 그림도 없고 검술 얘기도 안 나오잖아.”

“한 페이지도 안 읽어 놓고 할 소리냐, 그게!”

“작가라는 사람이 독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시작은 재밌게, 끝은 감동적으로.”

“이건 소설이 아니잖아. 책 줘 봐. 그래서 누가 이긴다는 건데?”

“누가 이기면 뭐해? 마법사와 검사가 미쳤다고 맞장을 뜨겠냐? 유리한 상황이면 달려들고 불리하면 도망치는 거지.”

시로네는 ‘검사 VS 마법사’의 중간 부분을 펼쳐 놓고 페이지를 뒤졌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경우도 있을지 모르잖아.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

“글쎄다. 대충 예상을 해 본다면…….”

“당연히 검사가 이긴다.”

책장 너머에서 날 선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싸늘한 인상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리안처럼 우람하지는 않았지만 키는 훨씬 컸고 팔다리 또한 늘씬하게 길었다.

오젠트 가문의 차남, 오젠트 라이였다.

형제라도 분위기나 외모는 리안과 상당히 달랐다. 일단 머릿결이 칠흑 같은 검은색이었다.

오젠트 가문에는 희석되지 않는 두 가지 혈통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청발과 흑발이었다.

가주인 비쇼프, 장남, 차남은 흑발을 물려받았고 물색의 머릿결은 차녀와 막내인 리안에게 이어졌다.

덧붙여 국가 공인 3급의 검사인 리안의 할아버지 또한 푸른색 계통이었다.

물론 가문의 식구들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가끔은 혈통에 따라 편을 가르기도 한다는 점이 재밌다. 누구 혈통이 뛰어난가는 세대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이번에는 비쇼프와 라이로 이어지는 흑발이 대세였다.

“아! 안녕하세요.”

시로네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리안과 친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문에 없었다. 만약 조금 전 대화를 들었다면 치도곤을 당해도 모자랄 일이었다.

“검사가 이긴다고? 어떻게 확신하지? 형이 검사라서?”

리안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비꼬는 말투로 라이의 의식을 붙잡아 두려고 했다.

“확신 같은 거창한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각 대륙의 마법사와 검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만 알아도 드러나는 사실이니까.”

다행히 라이는 자신과 리안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듯했으나 안심할 수 없었다. 도서관에 찾아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생각을 읽기 어려운 남자였다.

“직위야 어쨌든 간에 이건 맞장이라고. 설마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런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내가 너보다 높으니 물러나라. 이렇게 말이야.”

리안은 한 방 먹였다는 듯 통쾌하게 웃어 젖혔다.

하지만 라이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무심한 눈으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꼬마?”

“음…… 최고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마법은 위력이 엄청나니까 검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겠죠. 하지만 검사들은 그 대신에 육체 능력이 뛰어나니까 마법을 쓰기 전에 덤벼들면…….”

“아니, 틀렸어. 마법사는 검사를 이길 수 없다.”

시로네는 울컥했다. 아직은 지망생에 불과했지만 마법사는 그의 꿈이었다. 자신의 꿈이 다른 무언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못 미친다는 건 불쾌한 일이었다.

친구가 무시당하자 덩달아 열 받은 리안이 쏘아붙였다.

“형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무슨 검사 대표라도 되는 줄 알아?”

라이는 입매를 끌어 올렸다. 리안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비소였다.

“검사의 긍지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마법사의 지식은 돈으로 사 버리면 그만이야.”

라이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실제로 검사에게는 마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존재했다.

일명 ‘안티매직’이라고 불리는 아티팩트였다.

안티매직은 특수한 파장을 발생시켜 마법사의 스피릿 존을 흐트러뜨린다. 스피릿 존이 흔들리면 마법의 위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티매직 아티팩트는 수정구의 형태로 가공되어 갑옷이나 방패, 검에 장착한다. 마력 파동을 발산하는 드래곤의 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급 아티팩트는 어지간한 귀족이 탐을 낼 수 없을 만큼 고가였다.

게다가 효율이 10퍼센트인 아티팩트를 10개 장착한다고 해서 100퍼센트 마법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파동은 공명하기 때문에 안티매직의 파동에 새로운 파동을 더한다고 해도 겹치는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아티팩트를 여러 개 장착할수록 효율은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억제시키느냐가 관건이었다.

현존하는 최고의 아티팩트라면 대마법사 야크라가 만든 ‘오신장의 갑옷 세트’가 있었다. 투구, 갑옷, 건틀렛, 부츠, 방패에 아티팩트가 박혀 있으며 각각 단일 최대치인 20퍼센트의 효율을 발휘한다.

연구에 의하면 오신장의 갑옷 세트를 전부 착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억제력은 자그마치 65퍼센트였다. 마법력이 65퍼센트 약화된다는 건 마법사에게는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다.

또 하나 껄끄러움이라면 ‘정령의 정수’가 있다. 자연계에서 극소량만 결정되는 정수는 불, 물, 바람, 흙의 네 종류가 있으며, 장착하면 마법이 발동되는 것은 물론 해당 속성을 완벽하게 막아 낼 수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수의 개수는 전 세계를 통틀어 17개―불 2, 물 3, 바람 5, 흙 7―로 하나의 가치가 소규모 왕국의 예산을 초과할 정도였다.

시로네는 상상해 보았다. 오신장의 갑옷 세트에 네 가지 정수를 장착한 스키마의 고수가 검을 휘두른다면 과연 어떤 마법사가 상대할 수 있을까?

물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 오신장 세트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 출처가 불분명했고 정령의 정수는 국가 단위가 아니고서는 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안티매직을 여러 개 장착하는 것도 문제였다. 파동방정식의 대가인 야크라조차 오신장의 갑옷 세트를 조율하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쏟아부었다.

어설프게 안티매직을 중첩시키다가는 돈만 꼬라박기가 십상이었다. 파동식과 공명 주파수, 마력의 상호작용이 집대성되지 않으면 효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안티매직 1퍼센트 올리려다가 귀족 재산 절반이 날아간다는 말은 그냥 하는 농담이 아니었다.

검사의 딜레마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안티매직을 올리느니, 차라리 안티매직 마법을 배운 마법사를 데리고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일이었다.

라이의 말에는 이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었다. 마법사는 검사의 종속에 불과하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법사의 지식은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안티매직을 아티팩트로 개발한 자는 검사가 아니라 마법사였다. 수많은 마법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드래곤의 마력이 스피릿 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성과를 내기만 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는 마법으로 먹고사는 마법사가 마법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었다. 돈 따위에 팔려 다니는 마법사가 검사를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였다.

“어때? 책을 좋아하는 것 같던데. 마법이야 안티매직으로 봉쇄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검사의 육체는 달라. 우리들의 신체능력은 오로지 고통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시로네는 라이의 말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게 바로 마법사입니다.”

“뭐라?”

라이는 시로네가 순순히 인정하자 의아했다. 마법을 좋아하는 소년이라면 당연히 발끈하는 게 정상이었다.

“마법사는 만물의 조화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법을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여 이상할 일은 아니지요.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싸워서 이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아티팩트 또한 그 경계 없는 지성의 산물입니다. 그러면서 마법사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는 리안처럼 우직하지 않았다. 상대를 이길 수 있다면 어떤 논리를 펼쳐서라도 제압하는 성격이었다.

그럼에도 턱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이유는 시로네의 논리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안은 터지는 웃음을 애써 참았다. 언제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떠들어 대던 형이 시로네의 말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자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다.

‘푸하하하! 꼴좋다. 내 친구 말발 끝내주지?’

시간이 지날수록 라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미간이 구겨지고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던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이상은 현실과 다르다. 어떤 의도를 가졌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라이는 차갑게 돌아서서 도서관을 나갔다. 그 모습에 리안이 웃음살을 볼록이며 입을 틀어막았다.

‘현실과 다르다고?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냐? 어휴, 바보 냄새. 어서 가라. 빨리 가 버려.’

그러다가 도서관 문이 닫히자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시로네, 최고야! 형이 저런 표정 짓는 거 진짜 처음 봤다고!”

리안이 시로네를 인형처럼 껴안고 흔드는 와중에도 시로네는 라이가 나간 곳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검사 대 마법사.

리안이 가져온 한 권의 책은 시로네에게 많은 화두를 던졌다. 어쩌면 라이의 말대로 현실은 다를지 모른다.

하지만 시로네는 믿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마저 거침없이 실험대에 올리는 마법사의 정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지성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 \* \*

대도서관은 한기가 느껴질 만큼 썰렁했다. 지식으로 물샐틈없던 책장은 공허했고 대낮처럼 밝혀 주던 야광등도 꺼져 있었다.

4층 창문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 한 줄기가 바닥에 인화되었다. 시로네는 그 햇살을 받으며 책장을 넘겼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가 끝나고 커버가 닫혔다.

시로네는 적주황색 커버의 뒷면을 쓰다듬었다. 책을 뒤집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수백 페이지의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뒤집게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850권의 역사.

시로네는 대도서관에 있는 역사책을 전부 읽었다.

‘끝났구나. 이것이 내 지식의 척추.’

따스했다. 빛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시로네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사냥꾼의 자식이지만 어떤 귀족과 대화를 해도 세상 전반에 관한 토론을 벌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이었다. 재능이란 효율적인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고, 누구라도 850권의 역사책을 읽으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 이전 작업 또한 1년 6개월간의 대공사 끝에 마무리되었다.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더 이상 가족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꿈만 같았다. 수많은 일들이 꿈결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 [11] 꿈을 향한 첫걸음(3)

“어이, 시로네. 너 아직도 여기 있냐? 작업은 끝났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온 리안이 피어오르는 먼지에 헛기침을 했다. 시로네는 잔잔한 웃음으로 친구를 반겼다.

“뭐야, 그 표정의 의미는? 무슨 좋은 일 있어?”

평소와 다른 친구의 모습에 리안은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이어진 시로네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리안, 나 너희 집 구경시켜 주라.”

“응? 뭐라고?”

리안이 눈을 갈아 떴다. 원칙에 충실하고 허튼 실수조차 하지 않는 시로네가 갑자기 집을 구경시켜 달라니.

하지만 시로네의 옆에 놓여 있는 한 권의 책을 발견하고 깨달았다.

“너…… 해냈구나?”

“응. 더 이상 읽을 것이 없어, 적어도 이 도서관에는.”

더 이상 읽을 것이 없다.

리안은 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는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시로네가 지성의 화신처럼 보였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마저 시로네를 축복하는 듯했다.

“우하하하! 진짜로 해냈어? 이 자식!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인마!”

리안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물론 검사만의 과격한 방식으로. 시로네를 품에 안고 한참이나 휘적거리던 그가 좋은 생각이 난 듯 손가락을 튕겼다.

“좋아! 우리 집에 오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지! 마침 잘됐다. 공부 끝난 기념으로 내가 끝내주게 멋있는 선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갑자기 무슨 선물? 난 필요 없는데.”

“아무튼 따라오라니까. 엄청 마음에 들걸? 푸하하하!”

시로네는 불안했다. 책거리도 방금 알았으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건 이상하다. 게다가 눈 밑의 웃음살이 볼록 튀어나온 품이 마음에 드는 선물은 절대 아닐 것 같았다.

처음으로 저택을 가까이에서 보자 크기의 위압감이 어마무시했다. 고대의 사람들이 신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해 거대 구조물을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리안, 조용히 들어가자. 식구들에게 들키면 어쩌려고?”

“무슨 걱정이야? 어차피 계약도 끝났잖아? 게다가 가족들은 전부 나갔다고. 아, 여기다. 빨리, 빨리!”

리안이 데려간 곳은 향긋한 냄새가 나는 여자의 방이었다. 발코니 창문에 핑크빛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잠깐! 여기 너희 누나 방이지? 빨리 나와! 우리가 들어가면 어떡해?”

“크크크. 잠깐만 기다려 봐. 이쪽 어디쯤에 있을 텐데.”

리안은 마치 자신의 방에 들어온 것처럼 함부로 서랍장을 여닫았다. 하단부의 선반을 뒤지다가 뭔가를 집어 든 그가 쾌재를 부르며 시로네에게 던졌다.

“찾았다! 자, 시로네, 선물이다!”

향기롭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시로네의 얼굴을 덮었다. 양손으로 들고 펼쳐 보니 앙증맞도록 작은 천이였다.

어리둥절하던 시로네의 얼굴이 빨개졌다. 형태로 보나 크기로 보나 누나의 속옷이 분명했다.

“야! 너 미쳤어? 이런 걸 왜 나한테 던지는 거야!”

“푸하하하! 얼굴 빨개진 것 좀 봐. 너도 이제 17살이잖아. 팬티 정도는 대범하게 보라고. 그런 의미로 형이 선물해 주는 거야.”

“시끄러! 팬티 보는 게 뭐가 대범하다고! 빨리 다시 가져가!”

“어? 흥분했다. 드디어 시로네가 흥분했다!”

리안은 배꼽을 붙잡고 발을 굴렀다. 사실 놀리고 싶은 마음이 9할이었지만 1할 정도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도서관에만 처박혀서 1년 6개월을 견뎠으니 피부는 새하얗고 얼굴은 아직도 어린 티를 벗지 못했다.

시로네는 배움에 너무 굶주려 있다. 한 번쯤은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마음속에 있는 남자를 끄집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하지만 시로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팬티를 돌려준 시로네가 한숨을 내쉬며 예의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대체 언제 철들래? 이런 장난이나 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잖아. 빨리 도로 넣어 놔.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궁중 악사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 어차피 걸릴 일은 없다고. 그런데 진짜 안 가질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널 따라온 것이 내 평생 제일 후회되거든! 빨리 정리해.”

리안은 속옷을 구겨서 집어넣고 서랍장을 닫았다.

“야, 그러면 걸리잖아?”

“시간 되면 전담 시녀가 정리해 줄 거야. 그나저나 별로 흥분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네.”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랑 절교할 거야.”

“하하하! 알았어. 장난이었다고. 아무튼 내방으로 가자.”

리안의 방은 복도의 맨 끝에 있었다. 어차피 남는 방이 대다수라 자기 편한 방을 골라서 쓴다고 했다.

열혈 검사답게 방에는 목검이 쌓여 있고 책장에도 검술에 관련한 책들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전문 서적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신화 속의 검사를 다룬 소설들이었다.

방에 앉아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무료해지자 카드 게임을 했다.

각자 똑같은 양의 칩을 걸고 시작했으나 게임은 30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리안의 완패였다.

시로네가 칩을 쓸어 담으며 물었다.

“한판 더?”

“안 해! 제기랄. 도박이야 어차피 운일 텐데, 난 재수가 엄청 없나 봐.”

“너, 에이스가 들어오면 패를 바깥으로 옮기는 습관이 있는 거 같던데. 그리고 페어일 때랑 노페어일 때랑 배팅하는 시간이 달라.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리안은 사기를 당한 사람처럼 멍해졌다.

“넌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 거냐?”

“관찰이라는 건 의외로 쉬워. 미리 그럴 것이라 단정 짓고 관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전체를 느껴봐. 그러면 찾아낼 수 있어.”

“흐음, 얻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지? 이거 어쩌면 스키마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럴걸? 나도 스피릿 존을 이해하는 데 영향이 컸으니까.”

리안은 시로네의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머릿속이 간질간질하는 게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도무지 핵심을 찾을 수 없었다.

어울리지 않게 생각을 오래 한 탓일까? 몸이 노곤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졌다. 늘어지게 기지개를 켠 리안이 드러누우며 말했다.

“할 것도 없는데 조금만 자자. 아침에도 백 바퀴를 돌았더니 피곤해 죽겠다.”

“그럼 좀 자. 나는 책 좀 읽고 있을게.”

“어어.”

리안은 머리를 대자마자 곯아떨어졌다. 속 편한 친구의 모습에 피식 웃음을 터뜨린 시로네는 소설책을 꺼내 들었다. 어려운 역사책만 보다가 모험담을 읽으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1시간이 지나도록 리안이 일어나지 않자 시로네는 책을 덮고 방을 정리했다. 해가 떨어지면 집 안도 시끌벅적해지기에 그만 나가는 게 좋을 듯싶었다.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데 피아노 연주가 들렸다.

시로네는 충격을 받고 걸음을 멈췄다. 산에서만 자란 그에게 작곡가의 영감이 담긴 악보는 마법과 다른 의미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소리는 리안의 누나 방에서 흘러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옮긴 시로네는 처음으로 리안의 누나를 보았다.

새벽이슬을 머금은 듯 청초한 얼굴. 푸른빛의 머릿결이 파도처럼 흘러내리는 여성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오젠트 가문의 차녀, 오젠트 레이나였다.

레이나가 연주하는 선율은 가히 천상의 소리였다. 최연소는 아니지만 19살이란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아 왕성으로 들어간 재인이니 시로네의 평가도 과한 건 아니었다.

차곡차곡 쌓여 가는 화성. 그 화성의 질주. 그리고 변주. 시로네의 정신은 마치 선율에 걸린 마리오네트처럼 레이나의 손끝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난 뒤에야 시로네는 자신이 있는 곳을 깨달았다. 감동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레이나가 이쪽을 돌아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안녕? 어땠어, 내 피아노 소나타?”

책으로는 읽었지만 귀로 듣는 건 처음이었다. 시로네는 감히 레이나의 연주에 의견을 달지 못했다.

“이쪽으로 와서 봐도 좋아. 처음 보는 얼굴이네. 이번에 들어온 집사야?”

“네. 도서관 분류 작업을 맡고 있어요. 이제 끝났지만.”

“아하! 얘기는 들었어. 너 되게 똑똑한가 보다. 분류 작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예술가이기 때문일까. 그녀의 말과 행동은 조금도 권위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배려가 묻어 나왔다.

시로네는 처음으로 누나가 있는 리안이 부러웠다. 그러자 본의 아니게 저질렀던 저질스러운 범죄가 떠올랐다. 자신이 본 것과 레이나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뺨이 화끈거렸다.

“윽!”

“어디 안 좋아?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니에요.”

시로네는 어색한 동작으로 방에 들어갔다. 가장 완벽한 거짓말은 자신마저 속이는 것이라던가. 시로네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최면을 걸며 화제를 돌렸다.

“이게 악보라는 거죠?”

“응? 그래, 맞아. 슈라이만이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3악장 ‘어둠 속에서’야. 혹시 피아노 쳐 본 적 있니?”

“아뇨,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이쪽에 앉아 봐. 가르쳐 줄게. 어려운 곡은 아니니까.”

시로네는 다정다감한 그녀에게 호감이 갔다. 물론 성질머리 고약한 마녀라는 얘기를 리안에게 들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다.

시로네는 가르쳐 준 대로 운지법에 신경 써 가며 첫 번째 화음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띄엄띄엄 움직여 두 번째 화음으로 연결했다.

“우와! 너 눈이 굉장히 빠르구나. 처음 친다면서 초견이 정말 좋다.”

처음 보는 악보를 연주하는 걸 초견이라고 한다. 감성보다는 기술적인 재능이 요구되는 것으로, 초견이 뛰어난 사람은 생각의 속도가 빠르다고 봐도 무방했다.

시로네는 레이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그는 레이나에 대한 감흥을 잊고 피아노에 빠져들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호기심이었다.

“죄송한데…….”

“응?”

“한 번만 다시 연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레이나는 그 순간 시로네의 독특한 기질을 발견했다. 예술가가 재능을 좋아한다는 건 평론가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오히려 예술가들은 열정을 사랑했다.

“좋아. 그럼 잘 들어 봐.”

레이나는 ‘어둠 속에서’를 앙코르 했다. 문외한인 시로네가 듣기에도 처음보다 훨씬 섬세한 연주였다. 스키마의 위력이었다. 자신의 육체를 이해하고 있는 그녀의 신경계는 보통 사람보다 곱절은 예민했다.

연주가 끝나자 레이나는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시로네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제가 해 봐도 될까요?”

“응? 어, 그래.”

“듣기 힘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후후, 물론이지.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시로네의 두 손이 부드럽게 건반에 올라갔다. 자세만큼은 제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로네의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음악이 연주되자 레이나는 난감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중장에 접어들면서부터 무언가를 깨달은 듯 귀를 기울였다.

‘뭐지, 이 아이?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음이 전부 엇나가고 있었다. 완벽하게 틀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완벽하게 흡사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 그랬다. 분명 시로네에게 악보를 연주하는 기술적 숙련도는 없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그는 마치 레이나가 된 듯 그녀의 모든 것을 모방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한 연주가 아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피아노밖에 없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가까이.’

시로네는 필사적으로 음악에 침투하려고 했다. 박자를 유지하다 보니 전개 속도가 너무 빨랐다. 자신의 초견 실력으로는 정확한 음을 찍어 낼 수 없었다.

초 단위로 널뛰는 집중력을 압축시켰다. 무아지경의 정신이 스피릿 존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레이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불협화음 사이로 기분 좋은 화음이 간간이 끼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두두두!’ 하고 올라가는 클라이맥스에서 정확히 1.7초 동안의 연주가 악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레이나는 전율을 느끼며 숨을 멈췄다. 시로네는 그 상태를 유지하며 정격종지에 돌입했다.

1도를 짚은 다음 양손을 번쩍 들어 벼락처럼 5도를 강타했다. 그런 다음 마지막 1도를 생애 최고의 열정으로 짓눌렀다.

쿠우우우우우우웅.

4분 전의 과거에서 이어져 온 화성들이 7개의 음으로 소멸하면서 무한한 여운을 퍼뜨렸다.

## [12] 꿈을 향한 첫걸음(4)

레이나는 거친 숨을 내쉬는 시로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연주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니기에 음감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본질을 깨닫는 통찰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대체 누구지? 어째서 이런 아이가 집사를…….’

“아, 좀 시끄러! 이 마귀할멈아!”

시로네와 레이나가 동시에 복도 쪽을 돌아보았다.

“왔으면 발 닦고 잠이나 자든가, 아님 자장가라도 치든가! 엄한 데서 당해 놓고 히스테리를 부려!”

푸석푸석한 머리. 반쯤 감긴 게슴츠레한 눈. 아직도 잠에 취해 있는 리안이 빨래판 복근을 벅벅 긁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누나의 옆에 앉아 있는 시로네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어라? 시로네, 너 여기서 뭐 하냐?”

“아니, 저기…….”

리안과 친구라는 사실을 레이나가 알게 되면 큰일이다.

하지만 리안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듯 뭔가를 웅얼거리더니 갑자기 배를 잡고 웃어 젖혔다.

“푸하하하! 너 설마? 그거 가지러 온 거야?”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시로네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레이나가 리안이 저지른 범죄를 알게 된다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한 그녀는 얼마나 수치스러울 것인가.

“아니야! 잠깐 들어온 거라니까.”

“아니긴 뭘? 축하한다, 시로네. 드디어 남자가 됐구나.”

리안은 거침이 없었다. 물론 속옷이야 식구들 사이에서는 행주만큼이나 대수롭지 않은 물건일 터였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인 시로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이었다.

“뭐야? 너희들 아는 사이였어?”

“시로네? 어, 내 친구야.”

“리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하하! 괜찮아. 저 마녀는 성질머리는 고약해도 이런 쪽으로는 전혀 신경 안 쓰거든.”

과연 그럴까?

그녀가 예술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이것은 귀족과 평민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름이 시로네였구나. 걱정하지 마. 리안이 친구라면 친구인 거니까. 한심한 동생이긴 해도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애는 아니야.”

시로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당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레이나는 오히려 시로네의 태도를 좋게 받아들였다. 진정한 신뢰란 의심 속에 싹트는 법이니까.

“근데 너 되게 특이하더라. 아까 그 연주는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시로네가 친 거였어? 난 또 누나의 히스테리가 발동했나 했는데.”

시로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렇게 예쁘고 다정한 누나에게 마녀나 히스테리라는 말을 붙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리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상냥하고 좋은 분이신데.”

“시로네, 절대 속으면 안 돼! 이 여자는 마녀야! 언젠가 널 잡아먹을지도 모른다고!”

리안이 시로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리안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했다.

“후후, 미안해. 동생이 워낙 철이 없거든. 그래도 시로네 같은 친구가 있어서 안심이 되네. 한심하고 못난 동생이지만 네가 좀 잘 챙겨 줘.”

리안은 테이블로 걸어가 물을 따랐다. 어차피 남매지간에는 무슨 말을 해도 귓등에도 안 들어오는 법이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뭐…….”

레이나는 수줍게 머리를 긁는 시로네를 빤히 바라보았다. 17살이면 다 컸을 법도 한데 참으로 순수한 아이였다.

“후후, 너 되게 귀엽다.”

“그렇게 귀여우면 누나가 데리고 살아. 시로네가 가족이 된다면야 나야 좋지. 으하하하!”

리안의 짓궂은 농담에 시로네의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졌다. 그럼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알게 모르게 그녀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머나! 누나까지 내줄 정도로 친한가 보네.”

“뭔 소리를 하는 거여? 물론 시로네는 형제나 다름없지만 너 같은 마녀는 아무한테나 줘 버려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시로네가 아깝지.”

“아하, 그러셔?”

레이나의 몸이 훌쩍 날아올랐다. 사람의 키를 가볍게 넘어서는 도약력에 시로네의 정신이 아찔해졌다.

리안의 앞에 착지한 레이나가 동생의 귀를 세게 잡아당겼다.

“아야야야! 아파! 아파앗!”

“잡았다, 요 범인!”

“범인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 속옷 가지고 장난 친 놈. 너지?”

“아니야! 왜 엄한 사람에게 덮어씌워!”

“2층에 있는 혈기 왕성한 남자는 너와 시로네, 단둘뿐이고 내가 지켜본 바로 시로네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밖에 없지. 이제 인정하시지? 그렇게 질색하는 누나의 속옷에 왜 관심을 가지셨을까?”

레이나는 한때 라이와 맞먹는 검술의 재인이었다. 그런 만큼 손가락에 집중된 힘은 가히 엄청났다.

리안은 지옥 불에 담금질당한 기분으로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된 이상 자폭밖에 없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1명이라도 살아남는 게 이득 아니겠는가.

“그래, 내가 했다! 속옷이 떨어져서 입으려고 그랬다! 넌 동생한테 팬티 한 장도 못 주냐! 으아아악!”

레이나가 귀를 사정없이 잡아당기자 거구의 리안이 꼼짝 못하고 까치발을 디뎠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귀 뜯겨 나간다.”

“죽여라, 죽여!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시로네는 좌불안석이었다. 누가 주도했든 간에 같이 저지른 일이었으니 리안 혼자 고통을 당하게 놔둘 수는 없었다.

“저기,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시로네, 안 돼! 넌 이 마녀의 무서움을 몰라! 빨리 도망쳐!”

“리안이 장난을 치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악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흐음, 그랬단 말이지.”

레이나는 게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시로네와 리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피식 웃으며 리안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아야!”

“시로네 때문에 목숨 건진 줄 알아.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진짜 귀머거리로 만들어 주겠어.”

리안은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시종 구시렁거렸다. 대체 이 마녀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에 들어온 것일까?

“대체 왜 돌아온 거야? 휴가는 전에 냈었잖아?”

“응? 너 아직 못 들었어? 라이 소식.”

“우리가 언제 신경 쓰는 거 봤어?”

“이번에 라이가 공인 검사 시험을 보거든. 그래서 데리러 온 거야. 왕성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출발했는데 중간에 친구 좀 만나고 오신다고 해서.”

“공인 시험?”

리안의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렸다. 실력의 차이는 인정하고 있었다. 형은 천재였으니까.

하지만 이렇게나 벌어졌단 말인가?

공인 자격증은 토르미아 왕국에 사는 모든 이들의 꿈이자 귀족 서열의 척도가 되는 기준이었다.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며 지원자의 숫자는 자그마치 천 명에 이른다.

하지만 그중에서 공인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서른 명도 되지 않았다.

비교 대상으로는 비공인 자격증이 있었다. 왕궁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크레아스 도시를 예로 들자면 대표적으로 알페아스 마법학교가 있었다.

마법학교를 졸업하면 비공인 10급의 마법사가 되고, 이후로는 협회나 길드를 통해 여러 가지 업적을 수행하여 급수를 올리게 된다.

공인과 비공인의 차이는 결국 왕성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였다. 따라서 비공인 중에도 공인에 뒤지지 않는 실력자가 존재하지만, 사람이란 돈과 명예가 따르는 곳에 몰리는 법이기에 전체적인 수준은 공인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었다.

매년 열리는 공인 시험에 비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로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흥, 좋겠구먼. 역시 천재는 달라. 집에서도 팍팍 밀어주잖아.”

레이나는 안쓰럽게 리안을 바라보았다. 재능이 있든 없든 귀여운 막내 동생이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저녁 준비하러 가야겠다. 왕궁에서 공수한 해산물이라 직접 손질해야 되거든. 시로네,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 보면 인사하자.”

“네. 안녕히 가세요.”

시로네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고개를 숙였다. 내일이면 저택을 떠나는 그가 레이나를 다시 만날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와 피아노를 연주했던 순간의 고양감은 영원히 잊지 못할 터였다.

“리안, 혹시 너희 누나 말이야.”

“응? 누나가 왜?”

“그러니까…… 혹시 남자 친구 같은 거 있어?”

시로네는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했다. 감정이란 철창에 갇힌 맹수와도 같아서, 막상 풀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한참이나 눈을 깜박거리던 리안이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시로네, 너 설마?”

“아, 아니야! 그냥 잊어 줘! 난 그냥…….”

“푸하하하! 누나! 누나!”

리안이 방을 뛰쳐나가자 얼굴이 빨개진 시로네가 뒤쫓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시간조차 아까운지 리안이 난간 밖으로 얼굴을 빼내고 소리쳤다.

“누나! 시로네가 남자 친구 있냐고 물……!”

“아우, 좀 그만해!”

아슬아슬하게 입을 틀어막은 시로네가 리안의 허리를 붙잡고 방으로 끌고 갔다.

“응? 무슨 소리지? 남자 친구?”

주방에서 일을 하는 시녀들이 2층을 올려다보았다. 해산물을 손질하는 레이나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애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자, 이제 찌기만 하면 돼요. 독은 제거했으니까 레시피대로 요리해 주세요.”

“네, 아가씨.”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가자 시녀들은 다시 정신없이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저택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젊은 남자만큼은 조금 전의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집사장 루이스.

타고난 계산 실력과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가문 역사상 최연소로 집사장에 오른 인물이었다. 차가운 인상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무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시로네라고?”

시녀들이야 들어 본 적이 없겠지만 집사장인 그의 뇌리에는 똑똑히 박혀 있었다. 대도서관 이전 작업을 위해 테무란이 데려온 계약직 소년이었다.

“어째서 막내 도련님과……?”

오젠트 가문의 번영에 인생을 바치기로 맹세한 그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었다.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눈동자를 번뜩인 그가 평집사를 불러 지시를 내렸다.

“부집사더러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 \* \*

꼭두새벽부터 대연무장에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다.

리안은 평소보다 강도를 높여 수련에 임했다. 라이가 공인 시험을 치른다는 얘기는 그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었다. 반드시 따라잡고 만다. 그런 생각으로 수없이 베기를 반복했다.

카이트는 제자의 호쾌한 검무를 바라보며 확신을 가졌다.

‘확실히 늘었다.’

체력, 기력, 기술. 모든 면에서 일취월장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도시 인근 산적 패거리 정도는 어렵지 않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식으로 검술을 익힌 사람끼리의 대결을 상정한다면 여전히 멀고도 멀었다. 문제는 스키마였다. 리안의 가장 큰 장점인 저돌성이 이번에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리안의 검술은 패도적이고 강렬했다. 때로는 정신을 차갑게 만들고 본질을 깨달아야 할 때가 있는데도 그는 오로지 전진만을 강조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냉정하지 못하다는 단점 따위는 저 뜨거운 화력 앞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 하나, 아쉽구나.’

“타하! 타하! 타하!”

장검보다 두 배나 무거운 곤봉을 완력만으로 휘둘렀다. 공기 저항까지 감안하면 대검을 쥐어도 손색이 없는 힘이었다. 스키마를 터득할 수만 있다면 그 효율이 얼마나 극대화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다.

“그만! 10분간 휴식!”

리안은 숨을 헐떡거리며 카이트에게 돌아왔다.

카이트는 제자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발견했다. 1년 전의 어느 날에도 이런 눈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금세 꺼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라이가 왕궁으로 간다. 리안의 불꽃은 다시는 시들지 않을 것이었다.

“막내 도련님! 막내 도련님!”

저택에서 일하는 평집사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목을 축이는 리안의 앞에 도착한 그가 숨을 가라앉히지도 못한 채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아가씨께서 빨리 저택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누나가? 갑자기 뭔 일이야? 형 때문이라면 관심 없어. 알아서 하라 그래.”

“그게 아니고 시로네라는 계약직 소년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13] 꿈을 향한 첫걸음(5)

리안은 마시던 물을 그대로 뿜어 버렸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시로네가 위험에 처해 있다니. 몇 시간 후면 떠나는 친구를 마중할 참이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시로네가? 무슨 일인데?”

“그게…… 저기…….”

“빨리 말해! 무슨 일이냐고!”

“루이스 집사장이 가주님에게 보고를 올린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도련님과 시로네라는 소년이 친구처럼 지냈다고…….”

“이런 빌어먹을!”

리안은 곧바로 바위에 말려 놓은 옷을 주워 입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카이트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 시로네는 또 누구고?”

“친구예요. 평민이라서 알리지 않았는데 루이스가 고자질했나 봐요. 비열한 자식! 스승님, 오늘 훈련은 이걸로 끝내죠. 저택에 가 봐야겠어요.”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연무장을 박차고 나가려는 리안이 황당한 얼굴로 카이트를 돌아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친구가 위험하다고요.”

“평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죠? 스승님, 그런 분이셨어요? 스승님도 그러셨잖아요! 검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카이트는 혀를 찼다. 철없는 제자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구나. 자세한 정황은 모르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였기에 대충은 윤곽이 그려졌다.

“돌아가서 뭘 어쩔 셈이냐? 질질 짜기라도 할 셈이냐? 아니면 재롱이라도 떨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생각이냐?”

“스승님!”

“리안,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너와 그 소년 사이의 일이야. 네 친구는 오젠트 가문의 직위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어리광 따위가 통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시로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비겁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카이트는 제자의 눈을 응시했다. 참으로 좋은 눈이다. 거짓이 없고, 열정적이며, 무엇보다 순수하다.

카이트는 허리에 차고 있는 애검을 풀어 리안에게 넘겼다. 진검이 다가오자 리안의 심장이 뛰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담겨 있는 뜻만큼은 확연했다.

친구를 구하고 싶다면 검을 뽑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다.

“이 검을 가지고 저택에 들어갈 수 있다면 보내 주마. 하지만 그 정도의 각오가 아니라면 여기서 움직이지 말거라. 이미 네 손을 떠난 일이다.”

“스승님.”

카이트를 바라보던 리안의 입가에 뜨거운 미소가 어렸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내밀자 카이트는 말없이 검을 넘겨주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명심해라. 친구를 버리는 건 또 하나의 너를 버리는 것이다.”

“네!”

리안은 검을 허리에 차고 저택으로 달려갔다. 카이트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것으로 끝났다. 작별의 시간이 조금 빨리 왔지만 사나이다운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제자의 앞날에 무운이 깃들기를.

\* \* \*

저택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업무가 중단되었고 집사들과 시녀들은 발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직계가족들이 앉아 있는 소파의 뒤편으로 집사장 루이스가 안경을 매만졌다. 그 옆에는 부집사 테무란이 꼬장꼬장한 시선으로 시로네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많은 적의와 멸시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직계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시로네였다. 마치 콜로세움 한복판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집사장, 보고하라.”

“네, 가주님. 테무란이 고용한 시로네는 1년 6개월 동안 기거하면서 오젠트 가문의 권위를 능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집사들이 막내 도련님과 시로네가 어울리는 걸 목격했으며, 저 또한 시로네가 도련님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황 근거는 테무란이 작성한 집사들의 증언 서류로 첨부하겠습니다.”

비쇼프는 말없이 손을 뒤로 넘겼다. 루이스가 전달한 서류를 받은 그는 착! 착! 거칠게 서류철을 넘겼다.

아버지가 서류를 읽는 동안 레이나는 슬그머니 시로네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전했다.

“시로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를 설득해 볼 테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린 시로네의 얼굴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래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안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침착한 척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시로네는 두렵지 않았다. 현재 그의 정신은 절벽의 바깥에 떠 있는 상태였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아직 무언가가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서류를 훑어본 비쇼프가 입을 열었다. 흑발의 계통답게 창백한 인상의 그는 목소리에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아리안 시로네, 이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이 사실인가?”

“아빠, 시로네와 리안은…….”

“레이나, 너에게 물은 게 아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레이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원리 원칙과 냉정함을 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비쇼프는 감정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로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정상적인 침착함에 지켜보던 집사들이 놀랐으나 비쇼프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말해 봐라.”

“만약 저와 막내 도련님이 친구라면, 막내 도련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친구를 먼저 걱정하는 시로네의 친절함에 레이나의 얼굴이 사랑스럽게 변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이 자리는 평민인 너를 추궁하는 자리다. 리안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 그것이 가문의 일인 이상 우리는 리안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비쇼프의 말에는 가시가 들어있었다. 귀족의 아들을 평민 따위하고 똑같이 취급할거란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일말의 걱정을 털어 버린 시로네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사실을 고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저와 리안은 친구 사이가 맞습니다. 1년 동안 좋은 우정을 쌓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시로네의 말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나 반신반의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자 함께 생활한 집사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귀족 가문의 자제와 산꾼의 자식이 1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다니. 연극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가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 시로네, 오젠트 가문의 가주로서 너를 처형하겠다.”

“아빠! 잠깐만 얘기를 들어 보세요! 발언권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스스로 자백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무의미한 짓이야. 집사장.”

“네, 가주님.”

“시로네의 처형을 집행해라. 또한 이 일은 절대로 바깥에 새어 나가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레이나는 다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태연한 시로네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여태까지 아버지가 가주로서 내린 결정을 번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구 마음대로 처형을 해!”

저택의 문을 부술 듯이 열고 리안이 쳐들어왔다. 단지 등장한 것만으로 저택의 기온이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모두들 리안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바로 리안이 가진 불의 힘이었다.

“누가 내 허락도 안 받고 친구를 처형한다는 거야?”

“나다.”

비쇼프가 딱 잘라 말했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됐을 뿐이잖아!”

“죽을죄를 지어야만 죽는 건 아니다. 귀족의 사정이란 복잡하다. 그 복잡한 사정을 감당해 내고 있기에 너 또한 귀족의 아들로서 특혜를 받으며 자라 온 것이야.”

“친구까지 죽이면서 얻어야 하는 특혜라면 내 쪽에서 거부하겠어!”

“철이 없구나, 리안. 친구는 동등한 위치에서 교감을 나누는 사람이다. 저 아이가 너를 친구라고 생각할까? 그걸 어떻게 믿지? 예를 들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쳐 보자. 그렇더라도 너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테지. 그런데도 너는 저 아이를 믿을 수 있다는 거냐?”

“시로네는 그딴 저급한 짓을 하는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다. 시로네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 봐.”

대화를 듣고 있던 레이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쇼프의 언변에 말려들었다. 시로네가 진실한 친구라는 증거는 없다. 흑심을 품고 접근했든 우정으로 대했든 시로네의 태도는 한 치의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안 또한 아버지의 논리에 한기를 느꼈다. 차갑다. 친구라는 증거를 대라니. 너무나 차가워서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리안은 허리에 차고 있는 진검을 움켜쥐었다. 스승님의 열기가 손을 타고 전해져 왔다.

“하하하하!”

그리고 후련하게 웃어 젖혔다. 스승님의 진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리광이나 부리라고 건네준 진검이 아니었다.

“역시 아빠는 못 당하겠어.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잖아. 증거? 내가 믿고 있어. 설령 시로네가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믿고 있는 한 시로네는 내 친구야.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증거라고!”

이번에는 비쇼프가 뜨거워졌다. 어쨌거나 리안의 말 또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가주의 말에 거역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와 자식의 문제가 아니다. 가주의 명을 어긴다면 가문에서 파면시킬 수도 있어.”

비쇼프는 배수의 진을 쳤다. 아들을 파면시키다니. 집사들은 물론이고 직계 식구들마저 이번 발언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리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마치 가족이 아닌 상관을 대하듯이, 전에 없는 예의를 갖추며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 파문을 감수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웃으며 감수하겠습니다.”

쾅!

비쇼프는 구둣발로 바닥을 내리쳤다. 용납할 수 없었다. 고작 17살밖에 안 된 아들이 파문을 감수하겠다고? 어리광이었다. 싸가지 없는 행동이다. 부모 자식 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강짜를 부리는 것이다.

“검을 뽑아라. 파문을 감수한다는 건 가족조차 버리겠다는 뜻이겠지? 정말로 친구를 위한다면 목숨을 걸어라.”

리안은 검을 뽑았다. 그 행동이 비쇼프를 더욱 화나게 했다.

“정녕 애비에게 칼까지 들이대는 것이냐?”

“아버지를 베기 위한 검이 아닙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검입니다.”

“언제부터 네가 친구를 소중히 여겼지? 넌 또래의 귀족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이 빛나 보였기 때문이지. 너는 너보다 못한 평민을 제물로 삼아 위안을 얻고 있는 거야.”

“아뇨. 이번만큼은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시로네는 저보다 빛나는 친구입니다. 저는 시로네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비쇼프는 허탈했다. 대체 저 아이가 뭐기에? 어떤 말로 현혹을 시켰기에 단순무식한 아들이 홀라당 넘어가버린 것일까?

“너냐? 네가 리안을 저렇게 만들었느냐? 평민과 귀족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득했느냐?”

가족끼리 사달이 날 지경인데도 시로네는 침착했다.

“네. 제가 그리 말했습니다.”

리안이 시로네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시로네,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큼은…….”

“리안.”

시로네가 리안의 말을 끊었다. 전에 듣지 못한 차가운 말투에 리안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네가 책임져야 할 것은 네가 책임져라.”

목소리, 말투, 태도, 말에 담긴 의도. 모든 게 비쇼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차가웠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리안마저 한기를 느낄 정도였다.

“어? 그,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시로네가 말을 이었다.

“책임져야 하지 않을 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우린 언제나 모든 걸 같이해 왔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번에도 함께 이겨 나가면 되는 거야.”

언제 그랬냐는 듯 시로네의 얼굴이 다정하게 변했다.

“설령 죽는다고 해도, 나는 너와 친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아.”

시로네의 마지막 말은 가뜩이나 불타고 있는 리안의 가슴을 폭발시켰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쯤 되면 보이는 게 없었다.

“바로 그거야! 설령 내가 쫓겨난다고 해도 우린 친구라고!”

집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던 그들도 이제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 [14] 꿈을 향한 첫걸음 (6)

‘대단하구나, 시로네.’

턱을 괴고 시로네를 바라보던 레이나가 미소를 지었다. 엄격한 말 한마디로 이 자리의 어른들을 주눅 들게 만들었다. 게다가 리안의 불같은 성질마저 더욱 타오르게 했다.

어떤 의미로는 아버지와 가장 닮은 성격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시로네가 빛나 보이는 이유는 계산된 전략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푸하하하! 이거 아주 걸작이로구만! 말년에 이렇게 흥분하게 될 줄이야! 역시 청춘이 최고지!”

저택이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에 시녀들이 비명을 질렀다. 반면에 직계가족들은 목소리만으로 짐작하고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푸른빛이 감도는 까까머리의 노인이 2층 발코니에 서 있었다.

시로네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리안의 최종진화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거구에 팔뚝의 근육은 터질 듯 꿈틀거렸다.

리안의 할아버지 오젠트 클럼프였다.

“할아버지!”

레이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표정으로 일어섰다. 자신과 리안만으로는 흑발의 가주를 설득시키기에 힘에 부치던 차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셨습니까, 아버님. 레이나 말로는 며칠 걸린다고 하던데요.”

“껄껄! 친구 놈이 젊은 색시 끼고 도망쳐 버리는 바람에 일찍 왔지. 그나저나 이곳은 여전히 시끌벅적하구나. 청춘이란 역시 좋은 것이야.”

“딱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으니까요.”

“글쎄다.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자니 모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체면이 떨어졌는지 어쩐지는 각자의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

레이나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 최고!’라고 외쳤다. 이미 가주의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클럼프지만 공인 3급의 검사라는 직책은 식구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 시로네를 어제 처음 만났지만 영특하고 재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또한 시로네는 계약직으로서 계약을 모두 완수했고, 오늘이면 가문을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시로네가 리안에게 딱히 어두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렇기에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나가 짧고 굵게 의견을 피력하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전세가 역전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야 겨우 양자의 균형을 맞추었을 뿐이다.

청발의 유대감이 흑발보다 좋다고는 하지만 한때 가주를 역임했던 클럼프는 공명정대한 성격이었다. 반대파가 분명한 라이에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 둘째 손자의 생각은 어떠한고?”

라이가 냉정한 말투로 답했다.

“난 저 아이가 싫어.”

집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가문 최고 유망주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비쇼프가 의아한 듯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저 아이가 싫다면서 신경 쓰고 싶지는 않다니?”

“말 그대로야. 난 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경 쓰기 싫은 내 마음까지 위증하고 싶지 않아.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거야. 리안이 누구랑 친구로 지내든 나는 빨리 이 안건을 끝내고 왕궁에 가고 싶을 뿐이야.”

레이나는 혀를 내둘렀다. 아무리 자기 동생이지만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성격이 리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듯했다.

클럼프는 소년처럼 키득거렸다. 저마다 개성 있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두 가지 혈통이 뒤섞여 있는 오젠트만의 강점일 터였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로네라는 소년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봤을 부집사의 의견을 들어 보지.”

테무란이 한 걸음 나섰다. 루이스가 곁눈질로 그를 흘렸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의미였다. 식구끼리야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는가. 하지만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용주인 비쇼프였다.

“시로네는 1년 6개월 동안 제가 지시한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루이스의 미간이 보기 싫게 구겨졌다. 말 한마디만 지어내면 되는 것을 못 하다니. 그래서 만년 부집사 꼴을 못 면하는 것이다.

“친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

“막내 도련님과 자주 다니는 건 알았으나 친구라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경거망동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아이였다면 일만 권의 서적을 분류하지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로네는 의외란 듯이 눈을 크게 떴다. 테무란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집사장 루이스가 분노를 담아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로네의 편을 드는 것인가?”

테무란은 노련한 집사답게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옵니다. 저 또한 계약직인 시로네가 막내 도련님과 사귄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부집사로서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옵니다.”

이것으로 판결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했다. 시로네를 벌하자고 주장하는 건 비쇼프뿐이었다. 아무리 가주라도 식구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긴장이 풀린 리안이 숨을 크게 내쉬었다. 시로네도 한결 마음이 편해진 기분으로 리안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클럼프의 최종 결단이었다.

“아버님.”

“할아버지!”

비쇼프와 리안이 동시에 클럼프를 불렀다. 하지만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극과 극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친구로 인정한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그것도 여기까지다. 관계가 이어지면 결국 소문이 날 것이고 다른 귀족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리안과 시로네는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절교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레이나는 할아버지에게 서운했지만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다. 가문의 일은 분명 중요하다. 시로네의 목숨을 지킨 것만으로 선방한 셈이었다.

적의에 이글거리는 리안의 시선을 클럼프는 해맑은 미소로 받아쳤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의 마음이야 어찌 모를까마는, 그에게는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었다. 이번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1명도 없다는 게 방증이었다.

“시로네, 어떠냐? 철없는 손자에게 우정을 가르쳐 준 것은 고맙지만, 이쯤에서 리안을 보내 줄 수 있겠느냐? 귀족과 평민이 친구로 어울리기는 힘든 법이다.”

대리석 바닥을 응시하고 있던 시로네가 말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당돌한 대답에 비쇼프는 물론 레이나와 라이, 클럼프까지도 의아하게 눈을 치켜떴다. 하지만 누구보다 당황하고 있는 건 리안이었다.

“시, 시로네…….”

“평민인 제가 리안의 길에 방해가 된다면 다시는 만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저를 죽이셔도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리안과 저는 친구니까요.”

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시로네가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오히려 신뢰가 부족했던 것은 자신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결정을 내린 리안이 검을 치켜들고 소리쳤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하겠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불안에 잠겼다. 시로네하고는 경우가 달랐다. 리안이 저렇게 흥분할 때면 반드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이었다.

불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리안은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어떤 말을 내뱉기도 전에 검을 반대로 돌려 전광석화처럼 바닥에 꽂았다.

대리석 바닥을 뚫고 들어간 장검. 시로네는 칼날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리안이 한쪽 무릎을 꿇으며 시로네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젠트 가문의 오젠트 리안은, 이 시간부로 시로네의 검이 되겠습니다.”

“뭐야, 이 멍청아!”

비쇼프가 체신도 잊고 일어나서 손가락질을 했다. 그만큼 리안의 행동은 황당무계했다. 리안의 편을 들어 주던 레이나까지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금 너…… 기사 서약을 한 거야?”

기사 서약.

귀족은 왕족에게 충성을 맹세한 대가로 녹봉을 받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왕족들도 어느 시대의 귀족이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왕권은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고, 기사들의 충성심은 왕족이 내려 주는 녹봉과 명예에 국한된다.

하지만 기사 서약은 다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한 자루의 검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며, 평생을 모실 주군의 검이 되겠다는 뜻이었다.

왕에게 대항하는 귀족은 고작해야 반역자일 뿐이다. 하지만 기사 서약을 어긴 기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가문에 먹칠을 한 자로 역사에 기록된다.

평생에 단 한 번. 리안은 그토록 무거운 결정을 지금 이 순간 시로네에게 바쳤다.

비쇼프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한 번 기사 서약을 해 버린 이상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 굳이 기사 서약의 무게까지 강조하지 않더라도 철회하는 순간 천하의 덜떨어진 놈 취급을 받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리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로네가 놀란 듯이 물었다. 하지만 리안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순간 흔들리고 말았다. 친구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건 시로네에 비해 자신이 한 짓이라고는 고작해야 말뿐이었다.

“어때? 이제 빼도 박도 못하지? 우린 끝까지 가는 거야.”

시로네의 각오에 비한다면 기사 서약 따위가 대수겠는가. 리안은 만족한 표정으로 검을 뽑아 들고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대형 사고를 친 셈이지만, 그래도 통쾌했다.

클럼프는 거대한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이 정도로 철이 없을 줄은 몰랐다. 그럼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건, 자신을 닮았기 때문이리라.

‘하긴, 철이 없으려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크크크.’

알쏭달쏭한 감정을 깊숙한 곳에 묻어 둔 채 클럼프가 근엄하게 물었다.

“리안, 네가 검이 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저 소년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겠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면 대답해 보아라. 그 자격의 기준은 저 소년의 위대함이냐, 너의 허접함이냐?”

리안은 생각했다. 시로네는 뛰어난가? 아니면 자신이 모자란 것인가? 어떤 판단을 내려도 오젠트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어째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

“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킬 뿐입니다.”

클럼프는 만족했다. 리안의 말대로 검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주인이 원하는 방향을 가장 예리하게 베고 지나가면 그만이었다.

“말 하나는 잘하는구나. 검술은 허접스러운 주제에. 너 같은 검을 얻은 네 친구가 불쌍하다.”

“할아버지!”

리안이 도끼눈을 치켜뜨고 소리쳤다. 하지만 전과 같은 긴장감은 없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 버린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모두들 맥이 풀려서 신경을 쓰기가 싫었다.

클럼프는 성격만큼 시원하게 일을 마무리 지었다.

“됐어. 이걸로 끝내. 네 주인도 일으켜 세우고. 시로네, 리안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검이지만 주인의 발등을 찍는 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 손자를 잘 부탁하마.”

시로네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겸양을 떠는 건 오히려 오젠트 가문의 자존심을 해하는 일이었다.

“저에게 과분한 친구입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놈이 알아서 한 짓을 내가 뭐. 어찌 됐건 계약은 끝났다고 들었다.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지?”

“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립겠구나.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평생을 약속한 친구가 되었으니 이대로 돌아가는 것도 서운할 테지. 어이, 집사장.”

“네, 큰어르신.”

“시로네가 타기로 한 마차를 지금 출발시키게. 부모님을 모셔 오도록.”

“알겠습니다.”

집사장은 대답하자마자 저택을 떠났다. 가주고 뭐고 이제는 자신의 손을 까마득히 떠난 일이었다.

귀족들의 사고방식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걸 새삼 깨달은 루이스였다.

## [15] 꿈을 향한 첫걸음(7)

시로네는 리안의 방에서 잡담을 나누었다. 아침에 불려 나가 무릎을 꿇은 뒤로 정오가 되었다. 반나절도 되지 않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진 기분이었다.

“크크크, 아까 우리 가족 얼굴 봤지?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니까.”

“그나저나 리안, 정말 괜찮아? 그 기사 서약이라는 거 말이야. 나 때문에 괜히 무리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장난스럽던 리안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다. 아무리 철이 없는 리안이라도 기사 서약의 무게는 알고 있었다.

“시로네, 단지 친구이기 때문에 서약을 한 것은 아니야. 너는 형하고 달라. 너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난 그런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긴 거야.”

시로네는 리안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역시나 낯간지러운 건 질색이었다.

“하하! 부담되네. 하지만 네가 날 지켜 주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발전해야 될걸?”

“윽! 아픈 데 찌르지 마.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나저나 네 담력에는 놀랐다. 가족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할 말 똑 부러지게 다 하고, 게다가 제압까지 해 버렸으니. 안 무서웠어?”

“후후, 거기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어.”

시로네는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를 설명해 주었다. 분명 이러한 얘기가 리안의 검술에도 도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한참을 듣던 리안이 처음으로 꺼낸 말은 이것이었다.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그런 짓을 왜 해? 너 바보 아냐?”

“바, 바보?”

리안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다니. 오크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도 이 정도로 충격적이지는 않을 터였다.

“아니, 잘 들어 봐.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상을 해 보라고.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죽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해결책도 보이고 그런다는 뜻이야.”

“어찌 됐든 결국 뛰어내리면 죽잖아. 잘 생각해 봐. 뛰어내리면 죽는다고.”

“어휴, 됐다!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바보야!”

“뭐야, 그런 얘기였어? 그렇다면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지.”

“응?”

“예를 들어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 그게 친구이자 기사의 도리니까.”

시로네는 눈을 깜박거렸다. 자신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리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리안다운 사고방식이었다.

‘정말 나하고는 정반대구나. 이렇게 만나기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다. 시로네의 얼굴이 화들짝 붉어졌다. 레이나가 고개를 배꼼 내밀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안녕. 흑발 진영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서 아군 기지로 대피 왔어용.”

“나가. 사나이들끼리 얘기하는 중이야.”

리안의 축객령에 시로네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왜 그래, 리안? 누나가 이번에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야, 네가 몰라서 그래. 이 마녀는 분명…….”

습관적으로 악담을 퍼부으려던 리안은 시로네를 보고 무언가 생각하더니 입을 다물었다. 시로네와 레이나. 레이나와 시로네. 두 사람의 이름이 번갈아 오가고 있었다.

붙임성 있는 레이나가 고양이처럼 총총 걸어와 남자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

“그나저나 리안 멋있더라. 기 승 전 기사 서약이라니. 정말 너한테는 못 당하겠다.”

“어째 놀리는 걸로 들린다?”

“헤헤, 들켰나?”

“아우, 그냥 확! 대체 여기에 온 저의가 뭐야? 나 약 올리려고 온 거지?”

“어허! 이 누나를 뭐로 보고. 이래 봬도 간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왔지요. 저쪽 진영에서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거든.”

“이 마당에 더 이상 심각할 게 뭐가 있어?”

“사실 아빠가 이번에 라이 데려갈 때 너도 보냈으면 어떨까 하셨거든.”

리안은 처음 듣는 소리였다. 게다가 천재인 라이조차 공인을 딸지 어떨지 모르는데 자신이 왕궁에 왜 간다는 말인가?

“무슨 소리야? 견학이라도 시켜 주게?”

“아니. 카이젠 검술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너도 알지? 토르미아 왕국에서 가장 큰 검술학교. 200년 동안 거기에서 배출한 공인 1급 검사만 자그마치 10명이라던데.”

“뭐어? 그런 걸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어떡해? 게다가 이제야 시로네랑 마음껏 놀 수 있게 됐는데 무슨 학교를 가? 카이트 선생님은 어쩌고?”

“사범님은 어제부로 계약이 끝나셨어. 그래서 아침에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작별 인사는 이미 했다고 그러시던데, 너 못 들었어?”

리안은 놀란 표정으로 스승님이 건네준 검을 돌아보았다. 그의 검이 있었기에 자신의 기사 서약도 나름의 무게감을 내보일 수 있었으리라.

‘스승님.’

엄하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리안을 아꼈던 사람이다. 순순히 계약을 해지한 이유 또한 제자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잖아. 시로네는 어쩌고?”

“아니, 그래서 이번에 나온 말이 그건데, 차라리 너랑 시로네랑 같이 검술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어떨까 하시는 거 같아. 어제 네가 그랬잖아. 시로네는 너보다 검을 잘 쓴다며?”

“그야 그렇지만, 시로네는 검술학교 안 가. 따로 하고 싶은 게 있거든. 흐음, 사실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누나가 할아버지한테 부탁해 봐.”

“응? 따로 하고 싶은 거라니?”

레이나가 돌아보았지만 시로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검술학교에 입학을 시킨다고? 평민인 자신을? 그런 방법이 있는가도 문제지만,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려는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귀족의 사고방식을 안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 오젠트 가문에서 시로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막내아들이 시로네의 검이 되기로 한 이상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로네의 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로네가 대답이 없자 리안이 대신 말했다.

“시로네는 마법사가 될 거거든. 검술에는 관심이 없어.”

레이나는 화들짝 놀랐다.

“뭐? 마법사? 그럼 너, 마법사 지망생에게 검으로 승부해서 진 거야? 진짜 한심하다.”

“시끄러! 나도 안다고! 하지만 시로네는 천재란 말이야! 검술 쪽으로 배워도 라이보다 훨씬 잘나갈걸.”

“호오! 그 정도였단 말이야?”

“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레이나가 감탄스럽게 쳐다보자 시로네는 눈 둘 곳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리안은 그런 시로네가 못마땅했다. 저렇게 숫기가 없어서야 세상에 어떤 여자가 달라붙겠는가. 팬티 작전을 한 번 더 사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리안이었다.

“알았어. 아무튼 내가 건의는 해 볼게. 근데 아마도 네가 검술학교에 들어간다는 조건이 붙을걸? 약점은 철저하게 이용하는 아빠니까.”

“쳇! 몰라. 생각 좀 해 보고.”

리안도 아빠의 성격은 질리도록 알고 있었다. 어차피 시로네를 위해서라면 검술학교 입학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생각해 보니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마법사 지망생에게 검으로 졌다. 이래 가지고는 시로네의 검은커녕 시로네의 짐 덩어리가 될 판국이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자 세 사람의 대화가 끊겼다. 평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시로네 도련님의 가족분들이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저택으로 모시기로 되어 있으나 도련님이 마중하고 싶다면 안내하라는 가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 시로네의 부모님? 어떡할래, 시로네?”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다. 시로네의 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저택의 정문에 꽂혀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 나가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렸다.

“후후. 모시고 와, 시로네. 우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시로네를 안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시로네는 집사를 따라 저택을 나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 야!’ 하던 집사의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한 것이 시로네는 못마땅했다. 혹여 돌부리에라도 걸릴까 봐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새였다.

“저기, 그냥 평소대로 하셔도 돼요. 제가 무슨 귀족이 된 것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막내 도련님의 주군이 되시는 분에게 어찌 그런 실례를!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책 한 권에 목숨을 걸어야 한 적도 있는 시로네이니 그 심정이야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이런 대접은 받고 싶지 않았다.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알리지 않을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집사는 감동에 겨운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평민 출신이 귀족의 주인이 되다니. 집사들에게 시로네는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나 마찬가지였다.

어쨌거나 시로네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오젠트를 상징하는 대직도의 끝에 마차 한 대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내리는 게 보였다. 그 순간 시로네의 시야가 가물가물해졌다.

1년 6개월 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이 저기에 있다. 그동안 눈칫밥을 먹으며 도서관에서 밤을 새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자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졌다.

북받치는 감정을 따라 다리가 움직였다. 집사가 소리치는 것도 듣지 못한 채 시로네는 저택의 철창으로 달려갔다.

“엄마! 아빠!”

알페아스 마법학교(1)

시로네는 부모님을 데리고 접견실로 향했다. 정문에서부터 눈물을 펑펑 쏟은 탓에 복도를 걷는 세 사람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감정을 추스르려면 시간이 걸리리라. 클럼프의 배려인지 회의가 길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시로네는 접견실에서 오랫동안 회포를 풀 수 있었다.

“어디 보자, 우리 아들.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빈센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예전보다 혈색이 좋아진 시로네였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저 못 먹고 못 잔 걸로만 보였다.

“고생은요. 책도 읽고 얼마나 재밌게 보냈는데요. 아버지는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럼! 당연히 잘 먹고 잘 지냈지. 너희 엄마 살찐 것 좀 보려무나. 너무 예뻐져서 네 동생이 태어날 뻔했단다. 하하하!”

“여보, 아들 앞에서 무슨 주책 맞는 소리를.”

시로네는 안쓰러운 미소를 지었다. 1년 6개월 만에 만난 부모님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모르긴 해도 하루하루 자식 걱정에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다시금 마음이 뭉클해지는 시로네였다.

빈센트는 문득 궁금해졌다. 처음에는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심장이 터질 만큼 초조했지만 여유로운 시로네의 모습을 보니 나쁜 일은 생긴 것 같지 않았다.

“그래, 어째서 우리를 부른 것이냐? 일이 끝났다면 곧장 집으로 오면 되지. 설마 저분들이 너를 못 가게 잡기라도 한 것이냐?”

“아뇨.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응? 좋은 기회?”

시로네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이미 머릿속으로 얼개를 정리해 두어서 말은 술술 나왔다. 하지만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었다.

빈센트의 표정이 점차 경악에 물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시로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체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오젠트 가문의 막내 도련님과 친구가 되었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에게 기사 서약을 해 버렸다고? 더군다나 그 사실을 가문이 받아들이고 친구로 지내는 것을 허락했다고?

상식의 벽을 연달아 깨고 나갈 때마다 머릿속에서 쾅, 쾅, 쾅 하고 천둥이 치는 듯했다. 마침내 얘기가 끝나자 빈센트는 말없이 머리를 긁적였다.

영리하고 속 깊은 아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혹시 아들의 정신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곳에서 너무 시달림을 받은 탓에 과대망상에 빠진 것은 아닐까?

“시로네, 솔직히 얘기해 보거라. 이 아빠는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사실이에요, 아버지.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 넌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말해 봐. 누가 너를 괴롭혔지? 누가 너를 못 살게 굴었어!”

빈센트는 진심으로 분노했다. 귀족 가문에 잘못 얽혔다가 반병신이 되어 나오는 평민의 사례를 부지기수로 접한 그였다.

시로네가 생각하기에도 황당한 이야기이긴 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 외에 더 좋은 설득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게 생각을 굴리고 있을 때, 접견실의 문이 열리며 오젠트 가문의 직계가족들이 들어왔다.

## [16] 알페아스 마법학교(2)

“반갑습니다. 가주 비쇼프입니다.”

가주인 비쇼프가 모두를 대표해 인사했다. 클럼프와 라이가 빠졌지만 대신에 리안과 레이나가 동행했다.

리안이 반가운 마음을 한껏 담아 빈센트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시로네의 검, 리안입니다. 장차 세계 최고의 검사가 될 사람이죠. 하하하하!”

“리안의 누나 레이나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빈센트와 올리나는 멍하니 눈만 깜박거렸다. 그러다가 머리 회로가 갑자기 연결되자 사태를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아, 안녕하십니까! 시로네의 애비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어머, 시로네에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얘기라 함은?”

빈센트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떠오르는 것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아들의 허풍뿐이었다.

“그럼 그 말이 사실이란 말씀입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우리가 조금 빨리 왔어야 하는데. 아무튼 시로네의 말 그대로예요. 제 동생 리안과 시로네는 기사 서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여기까지 모시게 된 거예요.”

비로소 사태의 전말을 깨닫게 된 빈센트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기쁜 마음은 잠시뿐이었고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순진한 아들이 어쩌자고 이런 대형 사고를 쳤을까?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자세한 얘기는 그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쇼프가 성격대로 짧게 용건을 끝내고 돌아섰다.

가주의 태도는 딱히 우호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귀족서열 제2계급이 평민에게 존대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막내아들을 볼모로 잡힌 부모의 심정을 드러낸 셈이었다.

가문의 사람들이 나간 뒤에도 빈센트는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그러다가 시로네가 웃으며 옷깃을 잡아끌자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갔다.

‘정말이란 말인가? 우리 시로네가? 오젠트 가문에?’

모든 것이 물음표였다. 모든 물음이 놀라웠다. 소녀처럼 겁에 질린 올리나가 남편의 팔을 꼭 껴안았다. 하지만 빈센트조차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황급히 정신을 차렸다. 시로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아들을 위해 이 자리를 지켜 내야만 한다.

단순한 접대에 불과한 식사 자리가 빈센트에게는 전쟁터처럼 다가왔다.

일자형 테이블에 각종 산해진미가 올라왔다. 사냥꾼인 빈센트조차 처음 보는 음식들도 있었다. 레이나가 왕궁에서 공수한 재료들이었다.

자리는 법도에 따라 서열순으로 착석했다. 가주인 비쇼프가 상석에 앉고 왼편에는 클럼프, 오른편에는 레이나가 앉았다.

말석에 앉아 있는 빈센트는 눈앞에 펼쳐진 진미의 음식들을 보고서야 실감했다. 집사장 루이스와 부집사 테무란이 예의를 갖출 때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다. 아들의 체면을 생각하면 조용히 식사를 끝마쳐야 하는데, 족히 일곱 가지가 넘어가는 식기의 종류를 보자 눈이 핑그르르 돌았다.

평민들이야 포크 하나만 들고 달려들어도 멧돼지 하나쯤 발라 버리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앞에 놓인 식기들은 크기나 형태가 제각각이고 생전 처음 보는 도구까지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빈센트의 가족은 여전히 첫술을 뜨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녀들이 그저 서 있기만 하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귀족과 평민의 위태로운 심리전에서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평민 주제에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했으니 그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거림도 섞여 있었다.

비쇼프가 식기를 내려놓고 말했다.

“식사하십시오. 굳이 귀족의 법도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 하지만 그래도…….”

“예의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워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충분한 예의를 느끼고 있으니 편하게 드셨으면 합니다.”

빈센트는 가주의 말에 감명을 받았다. 배려하는 마음이든 귀족의 자존심이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준다는 건 크나큰 호의였다.

그러자 시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젠트 가문이 시로네에게 대하는 마음가짐은 진짜였다. 정말로 시로네를 받아들일 생각인 것이다.

당황한 시녀들이 황급히 식기 사용법을 일러 주었다. 사실 몰라서 문제지 알기만 하면 밥 먹는 일이 무에 그리 어렵겠는가. 적당히 눈치로 깨달은 빈센트 가족은 그제야 편하게 식사를 했다.

여유를 되찾은 빈센트는 이번에는 아들이 걱정되었다. 대체 이 가문은 시로네를 어쩔 작정인 것인가?

기사 서약이 무엇인지 설명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시로네는 여전히 산꾼의 자식이었고 남들보다 영특한 것 외에는 어떤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혹시 다른 꿍꿍이속이 있는 건 아닐까? 호의를 베푼 사람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자식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빈센트였다.

“아들을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군요. 오젠트 가문이라면 크레아스에서도 최고로 쳐주는 명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문의 도련님이 시로네에게 기사 서약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도 하고요.”

“하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로네와 저는…….”

비쇼프가 리안의 말을 잘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불쾌한 감도 있습니다.”

좌중의 식기가 일제히 멈추었다. 하지만 비쇼프는 여전히 칼질을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기사 서약입니다. 무가에서는 최고의 구속력을 가진 긍지이자 신념이죠. 단지 신분의 차이가 난다고 하여 불쾌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리안의 긍지를 더럽히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존칭을 사용할 터이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쇼프의 말은 시로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귀족들은 대부분 오만하고 자기도취적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들이 숭배하는 긍지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사람들을 핍박하는 존재로만 여겨져 왔던 귀족. 하지만 막상 그들의 생활상을 지켜보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들 또한 나름의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었다.

“크크크, 우리 가주가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하는구나. 남아 있는 아들마저 떠나보내려니까 쓸쓸해 죽겠는 모양이지? 그러지 말고 그냥 내년에 보내는 게 어떠냐?”

비쇼프는 아버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라이는 스키마를 익혔고 오젠트 검술이 더해졌으니 공인을 딸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리안은 아직 스키마조차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검술학교에 기대를 걸어 보는 수밖에요.”

“듣자 하니 은근히 흑발의 편을 드는구나. 냉정의 흑발이지. 하지만 청색의 피에는 시들지 않은 청춘이 녹아 있단다. 청발의 열정을 우습게 보다가는 나중에 창피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양고기를 우물거리는 리안이 할아버지에게 엄지를 치켜세웠다. 비쇼프는 콧방귀를 뀌었다. 아버지의 장난기에는 정말로 이골이 났다.

“청발이든 흑발이든 누가 성공하든 내 자식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직계가족 모두가 식기를 내려놓으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오젠트다.”

\* \* \*

저녁 식사를 마친 클럼프는 식구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시로네의 일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다.

레이나는 가족회의에서 시로네가 마법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모두들 수긍했다. 체구로 보나 성향으로 보나 검술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빈센트를 부른 건 잘한 일이었다. 나름대로 화기애애했던 식사 분위기와 다르게 클럼프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공표했다.

“알다시피 우리 가문은 앞으로 시로네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듣자 하니 마법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곳 크레아스에 있는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장 알페아스는 나와 오랜 친분도 있고, 학교 또한 토르미아 왕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입니다. 왕국 지정 기관이라 졸업하면 비공인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 마법사…….”

빈센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마법사란 지성의 결정체이자 현상의 지배자였다. 신분과는 상관없는 아주 특별한 직업으로 일단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어디서든 중히 쓰이는 인재 중의 인재였다.

세상에는 스스로 마법을 깨달은 야인도 있고, 마법사의 제자로 들어가는 기연을 얻어 마법을 익힌 평민도 존재했다. 그런 사람들 또한 용병이 되거나 협회에 들어가 마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평민에게 마법사란 꿈에서조차 등장하지 않는 먼 나라의 직업일 뿐이었다.

그런데 시로네가 마법사가 된다니. 그것도 졸업만 하면 곧바로 자격증이 나온다는 명문 학교에 입학을 시켜 준다니. 아버지로서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올리나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펑펑 쏟아 냈다. 시로네가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누가 보더라도 훈훈한 광경이었지만 클럼프만은 의외로 표정이 어두웠다.

마법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마법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인 건 분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로네의 신분이었다. 마법학교는 철저히 귀족 위주로 입학을 허용하고, 특별 전형 또한 뚫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는 제2계급인 오젠트 가문의 입김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마법학교에는 제2계급은 물론 제1계급의 자제들까지 두루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시로네의 현재 신분으로는 마법학교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입학금과 교재비야 가문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입학 방식에 대해서는 결국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빈센트는 꿈에서 깨어났다. 너무나 달콤한 환상이라서 현실마저 잊어버릴 만큼 정신이 나가 있었던 모양이다.

“아, 물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빈센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자괴감도 있을 것이다. 귀족 가문이 인정한 아들이 못난 아버지가 물려준 신분 때문에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니.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클럼프의 말에 빈센트의 고개가 번쩍 쳐들렸다. 시로네 또한 처음 듣는 이야기라 관심을 기울였다.

“시로네를…… 오젠트 가문의 양자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클럼프의 제안은 한마디로 자식을 팔라는 얘기였다. 물론 나쁜 제안은 아니다. 사냥꾼의 아들이 한순간에 오젠트 가문의 아들로 둔갑하는 것이었으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생각할 수조차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하지만 선뜻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핏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로네는 귀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시로네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어 버리고 만다.

빈센트는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조금은 얄밉게도,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가족들끼리 회의를 해 보았으나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촌 중에 아직 자식이 없는 철부지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호적을 등록하면 시로네 또한 귀족이 되는 것이니 얼마든지 학교에 입학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아드님을 빼앗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서류상의 문제이니 가족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서류상의 문제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게 서류상의 문제였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다른 집의 아들로 호적이 등록된 시로네를 바라보면서 서운해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시로네, 뭐라고 말 좀 해 다오. 이 애비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느냐?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빈센트는 비참한 심정으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시로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답답하기 때문이라는 걸 빈센트는 깨달았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모두가 말을 아끼자 레이나가 나서서 물어보았다.

“시로네, 네 생각은 어떠니? 단지 서류만 등록하는 거야. 귀족이 될 수 있고 네 꿈을 이룰 수 있어. 물론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 부모님을 너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달라질 건 없는 거야.”

시로네의 미간이 더욱 내려앉으면서 눈이 가늘어졌다. 그러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 [17] 알페아스 마법학교(3)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다른 분의 양자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시, 시로네.”

빈센트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다. 아들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투였다.

시로네의 단호한 태도에 가문의 사람들도 당황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이기는 했다. 하지만 이토록 명쾌하게 대답한다는 건 가슴속에 일말의 갈등도 없다는 얘기였다.

클럼프가 전과 달리 냉철한 눈으로 시로네를 쏘아보았다.

“정말로 괜찮겠느냐? 귀족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누구에게나 오는 행운이 아니야.”

“아버지를 바꾸어야 한다면 차라리 평민으로 살겠습니다.”

“평민은 마법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마법학교에 입학하지 않겠습니다.”

“마법학교에 입학하지 않는다면, 마법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마법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시로네!”

클럼프가 불타는 눈으로 벌떡 일어섰다. 시로네의 강직한 태도가 답답했기 때문이다. 다른 때는 머리가 핑핑 잘도 돌아가는 아이가 어째서 이토록 쉬운 문제를 두고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성공을 위해서라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는 법이야. 아니면 너의 꿈이란 것은 그토록 하찮은 것이었더냐?”

거구의 클럼프는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들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언제나 그렇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라?”

“저의 꿈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그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은 저라는 열매에 양분을 공급하고 꿈을 꿀 수 있게 해 준 뿌리입니다. 제가 지금 오젠트 가문에서 기회를 잡은 것도, 그 전에 집사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도, 그 전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부모님이라는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무한한 기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뿌리를 부정하고 다른 뿌리의 양분을 받아 나아가라는 것은, 저에게 말라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실은 고요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레이나는 눈물을 훔쳤고 리안은 친구에 대한 자부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시로네를 내려다보는 클럼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착각을 하고 있던 건 자신이었다.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설령 누군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이 아이는 결국 마법사가 되지 않을까?

크다. 아니, 무한하다. 오젠트 가문이라는 명예조차 이 아이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기회일 뿐이었다.

누구도 이 아이를 잡을 수 없다. 이 아이가 먼저 잡아 주기 전까지는.

시로네는 모두를 설득시킨 뒤에야 미소를 지었다.

“제안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두 분뿐입니다.”

빈센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부끄럽다. 당장이라도 소파 아래로 기어들어 가고 싶다. 그깟 서류 조각 따위가 뭐라고 서운함을 느낀단 말인가? 이렇게 아들이 자신을 믿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 준 게 없는 부모가 고작 그따위에 서운함을 느끼려고 했다니.

“시로네를…… 오젠트 가문의 양자로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빈센트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시로네를 양자로 받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빈센트를 못난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 또한 가족의 문제라면 똑같은 행동을 했을 테니까.

“심정은 이해하네만 어쩔 수 없네. 아들이 이런 말을 한 마당에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있겠나.”

“시로네는…… 시로네는 사실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여보!”

빈센트의 발언에 모든 사람들이 눈을 똥그랗게 떴다. 하지만 누구보다 놀란 건 시로네였다.

출생의 비밀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 여기 있는 누구라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터였다. 생김새와 체구만 보더라도 시로네와 부모는 완전히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발언은 서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자 관계의 문제였다. 자식의 꿈을 위해 빈센트는 정말로 아버지이기를 포기할 각오를 한 것이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시로네는 우연한 계기로 얻게 된 아이입니다.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명 귀족의 아이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아들이죠. 귀족의 양자가 된다면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니 결코 뿌리를 부정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었기에 좌중은 고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듯 시로네가 서운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아빠!”

“시, 시로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상의도 없이 하시다니!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미, 미안하다, 시로네. 내가 말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물어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나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도 딱 한 분이고요. 대체 저에게 부모를 얼마나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벌써 여섯 분이나 생길 지경이라고요.”

빈센트는 충격을 받았다. 양자로 들어갈 2명과 자신들 2명, 그리고 시로네를 버린 2명 하면, 도합 6명이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 지금 자식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 나는 그냥 네가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게 슬퍼서…….”

“누가 꿈을 포기해요? 살다 보면 기회는 얼마든지 온다고요! 부모님에게 두 번이나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나 아세요?”

시로네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빈센트는 그제야 깨달았다.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라서 미처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 고작 17살이라는 것을.

“시로네, 미안하다! 이 아빠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절대로 널 남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네 꿈을 이루게 해 줄 거야!”

“아빠!”

빈센트가 와락 껴안자 시로네는 그제야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색조차 하지 못하는 속 깊은 아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오젠트 가문의 사람들은 부자의 상봉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특히나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가주인 비쇼프였다. 그 또한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4명의 아들딸들을 홀로 키워 낸 아빠였다.

비쇼프가 클럼프에게 조용히 일렀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힘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늙어 빠진 영감탱이에게 별걸 다 주문하는구나. 어떻게 힘을 써? 잔머리에 빠삭한 학자 집안도 알페아스의 옹고집에는 혀를 내두르는구먼.”

클럼프는 앓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기는 한 모양인지 표정만큼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주로서 지시를 좀 내려야겠군요. 특별 전형이라는 거 한번 뚫어 보시죠. 제가 듣기로 오래된 빚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흥! 그 영감탱이가 나한테 빚진 게 어디 한둘이야? 그렇다고 원칙을 꺾을 놈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절대로 안 되겠습니까?”

“크크. 글쎄다? 원칙 따지는 놈에게는 막무가내 전법이 특효약 아니더냐?”

비쇼프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막무가내 전법 때문에 강제로 가주를 떠맡게 된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 \* \*

시로네는 리안이 떠나는 날까지 오젠트 가문에서 지냈다. 특별 전형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어차피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에 입학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6개월이나 남아 있었다.

오젠트 가문의 정문에 고풍스러운 사두마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구들을 왕성으로 데려가는 마차였다.

라이가 먼저 타고 있었고 클럼프는 마법학교의 교장 알페아스를 만나고 난 뒤에 중간 지점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시로네와 헤어지기 싫은 리안이 눈물을 보였다. 마법학교든 검술학교든 이수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몇 년이고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헤어지면 언제 재회하게 될지 기약이 없었다.

“시로네, 반드시 마법사가 되어라! 편지할게!”

“알았어. 앞으로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은 돌아올 수 있잖아. 그만 좀 울어.”

“넌 반드시 졸업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보증해!”

레이나가 철부지 동생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너나 제발 졸업할 생각을 해! 네가 제일 걱정이야!”

“우이 씨! 나도 열심히 할 거라고! 반드시 최강의 기사가 되어서 시로네의 검이 될 테니까.”

시로네는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리안은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이와 같은 천재성은 없지만 라이가 갖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리안이었다.

레이나가 시로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시로네, 걱정하지 말고 당분간 가족이랑 즐겁게 보내. 반드시 할아버지가 너를 입학시켜 주실 거야. 허튼소리는 안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로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무리 리안과 친구가 됐어도 레이나의 조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좋게 풀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레이나는 문득 자신이 시로네와 헤어지기 싫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4살이나 어리지만 어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훌륭한 인격자이기 때문이리라.

“시로네, 마법학교를 졸업하면…….”

레이나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웃어 버렸다. 미래가 창창한 17살의 소년이었다. 마법학교에 가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재인들과 교류를 하게 될 것이다.

“아니야. 우리 서로 열심히 하자. 넌 반드시 마법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네. 리안을 잘 부탁드릴게요.”

“후후, 걱정하지 마. 기사 서약까지 했으니 잔소리 안 해도 열심히 할 테니까.”

레이나는 마지막으로 시로네를 돌아보고 마차에 올라탔다. 네 마리의 말이 발을 구르는 순간 창문이 열리며 리안이 얼굴을 빼냈다.

“시로네, 넌 최고야! 마법학교에 들어가면 전부 박살을 내 버려!”

“너도! 꼭 졸업해야 돼!”

이렇게 1년 6개월의 집사 생활이 끝났다.

막상 끝났다고 생각하자 집을 떠나는 것처럼 서운함이 밀려들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주눅 들게 했던 오젠트 가문의 대직도도 이제는 자신의 무운을 빌어 주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도련님, 가시지요.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시로네를 태울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비로소 집에 돌아간다는 실감이 들었다.

시로네는 오젠트 가문의 저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 \* \*

알페아스 마법학교.

수업이 한창인 정오 무렵, 교장실에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커다란 체구를 자랑하는 청발의 남자와 온화한 미소를 머금으며 조금은 구부정하게 앉아 창가를 바라보는 남자.

50년 지기 친구인 미르히 알페아스와 오젠트 클럼프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30분 전부터 끊겨 있었다. 정확히는 클럼프가 알페아스의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다. 알페아스가 대답을 해야 할 차례이기 때문에 클럼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자네라도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네.”

30분 만에 나온 대답치고는 맥 빠지는 말이었다. 하지만 클럼프는 씩 웃었다.

마치 어려운 결정을 내린 듯 시간을 끌었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터였다. 그가 아는 알페아스는 그런 장난꾸러기였으니까.

“아무리 자네라도? 내가 젊었을 적에 네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껄껄! 자네 입에서 공치사가 나오다니, 꽤나 급한 모양이구먼. 하나, 귀족들의 개구멍이 되고자 특별 전형을 만든 게 아닐세. 매년 수많은 청탁이 들어오지만 특별 전형에도 나름의 조건이 있는 게야.”

“크크, 그거 재밌는 소리군. 귀족들의 개구멍이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걸?”

알페아스는 살짝 불안해졌다. 클럼프의 눈에 장난기가 가득 담겨 있는 게 또다시 골칫거리를 물어 가지고 온 모양이었다.

“개차반 같은 놈을 받아 달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막내 손자의 친구 놈이 있는데 재주가 아주 뛰어나. 마치 어렸을 적의 자네를 보는 것 같지.”

50년도 지난 얘기에 알페아스의 눈빛이 아련하게 변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다.

“막내 손자라면 철없고 막무가내인 리안 말인가? 딱 어렸을 때의 자네 같더군.”

“크크크! 재능이 없어서 검술학교에 집어넣어 버렸어. 아무튼 그런 개차반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내가 말하려는 건 리안의 친구일세.”

“그렇게 재주가 좋다면 정식으로 입학을 해도 상관없지 않겠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겠네만.”

“아주 큰 문제가 있지. 귀족이 아니거든.”

알페아스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귀족이 아닌 자를 청탁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뇌리에 5년 전의 짧은 순간이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설마하니…… 금발에 푸른 눈의 소년인가?”

## [18] 알페아스 마법학교(4)

이번에는 클럼프가 놀랐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을 가지고 놀 줄 아는 친구였다.

“마법에 도가 트면 예지력이 생긴다더니.”

“그런 건 아닐세. 짧게나마 인연이 있었거든. 하긴, 강렬하긴 하더구먼.”

알페아스는 12살 무렵의 시로네와 만났던 일을 소개했다. 그러자 클럼프가 그 이후로 오젠트 가문에 들어온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아리안 시로네라.”

알페아스는 다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생각에 잠긴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받아 보는 게 어때? 이 또한 운명일지도 모르잖아?”

“운명이란 말장난에 불과하지. 인간의 미래는 인간이 개척하는 거야. 가져다 붙이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운명이 아닌 게 있겠나?”

이번에도 안 통하나. 클럼프는 입맛을 다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좋은 재능을 발견하고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친구의 심정이 짐작되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알페아스는 말이 없었다.

“귀족들의 알력에도 굴하지 않고 특별 전형을 열어 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자네는 할 만큼 했어.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지. 이제는 그만 자신을 용서하게나.”

“허허허, 자신을 용서한다는 건 오만일세. 난 신이 내려 준 소중한 재능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놈이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닐세. 다시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클럼프는 한숨을 내쉬었다. 공인 4급의 마법사에, 명문 학교의 교장을 지내고 있지만, 고작 이 정도로 끝날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천재였다. 그날의 일만 없었더라면.

“크크크. 하긴, 당시의 자네는 친구인 내가 봐도 재수 없긴 했지. 미르히 가문의 빛.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지금은 늙다리 교장이나 하고 있다니. 인생 참 무상해.”

나이가 들면 고통도 자식처럼 품는 것인지, 가슴을 파고드는 독설에도 알페아스는 기분이 좋았다.

“껄껄! 반면에 자네는 하늘이 도왔지. 그 재능 없던 바보가 공인 3급 검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야. 토르미아 왕국의 미래가 걱정되는구먼.”

두 사람은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재능과 노력, 그 천적 간의 싸움에서 클럼프는 승리했다고 봐도 좋았다. 알페아스는 그런 친구가 대견하고 존경스러웠다.

“늙어서 드는 생각이네만, 천재란 망상에 불과하네. 그저 무언가를 조금 잘하는 것뿐이지. 과연 그 소년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거야 자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알페아스는 피식 웃으며 창가로 걸어갔다. 결국 이렇게 오는가. 신분의 장벽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재능이 5년이라는 시간을 우회해 다시 자신의 앞에 나타난단 말인가.

세상에 운명은 없다고 믿었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만이 개척할 수 있다.

하지만 알페아스는 불현듯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정말로…… 운명이란 말인가?

“시로네를 입학시키겠네.”

마법을 배우다(1)

봄이 찾아왔다. 빈센트의 오두막 정원에도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마법학교 입학이 확정되고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시로네는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교에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과 많은 일을 해두고 싶었다.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하러 다니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차려 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빈센트는 시로네의 성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유약한 아들을 뒀다고 알게 모르게 무시했던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싶어 입이 간질거렸으나, 괜한 적을 만들어 시로네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시로네는 그런 아버지가 고마웠다. 오젠트 가문에서 도시에 집을 잡아 주겠다는 제안마저 한사코 거부한 이유는 오로지 자식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었다.

행복한 나날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마침내 마법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찾아왔다.

부집사 테무란이 마차를 이끌고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시로네는 부모님과 작별의 정을 나누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편지 자주 할게요.”

“그래, 내 아들! 열심히 해라! 자, 뽀뽀!”

빈센트가 입술을 내밀자 시로네의 웃음기가 굳어졌다. 아무리 외모가 어려도 18살의 나이에 아버지와 뽀뽀를 하는 건 좀 쑥스러웠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뽀뽀는 좀.”

“어허! 안 그러면 아빠가 한다!”

“으으.”

아버지가 두툼한 입술을 내밀며 다가오자 시로네는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빈센트는 입술이 아닌 시로네의 이마에 뜨겁게 입을 맞추며 등을 끌어안았다.

“시로네, 네가 자랑스럽다.”

빈센트의 품에 안기자 시로네는 마음속에 남아 있던 일말의 불안감도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인사말로 집을 나서자 마구간 앞에 테무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타시지요. 학교까지 모셔다 드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불과 2년 사이에 입장이 반대가 되었으니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잊지 않고 있었다. 루이스 집사장의 견제에도 그가 자신의 편을 들어 주었던 것을.

마법학교의 정문에 도착한 테무란은 깍듯이 예의를 갖추며 시로네를 하차시켰다. 귀족들이 다니는 곳이니 남의 이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입학금을 비롯한 교재비는 저를 통해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도련님은 그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시로네는 테무란에게 똑같이 예의를 갖추었다.

“부집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인사를 못 드렸잖아요. 저를 좋게 봐 주신 덕분에 마법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테무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평민이 아무리 날고뛰어 봤자 평민일 뿐입니다. 귀족을 넘볼 수는 없지요.”

시로네가 고개를 들자 테무란은 깐깐한 눈빛을 번뜩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회 또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마 수많은 귀족들이 도련님을 좋지 않게 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참고 또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을 수만 있다면, 결국 끝은 있는 법입니다.”

고아 출신으로 부집사까지 오른 테무란다운 조언이었다.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다면 결국 끝은 있는 법이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마법사가 될게요.”

테무란은 웃었다. 2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처음으로 본 그의 미소였다.

“각오가 되셨다면 따라오십시오. 도련님은 오젠트 가문의 손님으로 등재되어 특별 전형 입학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리지요.”

마법학교의 정문에는 6년 전의 그때와 똑같이 경비들이 서 있었다. 시로네를 벌레 보듯 하며 쫓아냈던 경비와 같은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자리의 철학만큼은 그대로일 터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에 마법학교에 입학한 시로네 님이시네. 여기 입학증명서하고, 오젠트 가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네.”

입학증명서를 확인한 경비는 신분증명서까지는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찌 됐든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이상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는 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 그러시군요.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정문 경비를 맡고 있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비가 허리를 구부리자 그 옆에 서 있던 경비도 오른팔을 배에 올리고 깍듯이 경례를 올렸다.

6년 전과는 딴판인 대우에 시로네는 어안이 벙벙했으나 이내 현실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는 가 보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를 찾으십시오.”

테무란에게 서류를 넘겨받은 시로네는 마법학교 학생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문의 문턱을 넘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 천재들의 요람이라 불리는 알페아스 마법학교.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

마법사 시로네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 \* \*

마법학교는 부지면적 75.425제곱킬로미터의 산 하나를 전부 사용하고 있었다. 총 스물두 채의 건물이 있고 기본 훈련장만 마흔 군데가 넘어갔다.

학생 총원은 420명이며 교사의 숫자는 32명이었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명실공히 왕국 최고의 학교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접수처가 있는 건물로 들어가자 깔끔하고 아름다운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벽면에는 각종 지도와 설립 역사, 커리큘럼이 붙어 있었다.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로네는 그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다.

알페아스 마법학교는 클래스 텐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텐에서 에이트 클래스까지가 기초반, 세븐에서 포 클래스까지가 고급반, 쓰리에서 원 클래스가 졸업반이었다.

유일하게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졸업반은 최대 인원이 30명까지이며 그중에서 졸업생은 10명뿐이었다.

시로네는 알페아스의 엄격한 졸업 방식에 혀를 내둘렀다. 졸업생 테스트가 1년에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해마다 20명의 인재들이 제적을 당한다는 얘기였다.

“네가 시로네구나.”

마법학교장 알페아스가 친히 시로네를 찾아왔다.

시로네는 6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그의 모습에 당황했다. 하지만 이곳이 상식을 파괴하는 마법학교라는 걸 생각하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시로네입니다.”

“우리는 구면인 거 같은데? 나를 기억하고 있니?”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 시로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법사의 꿈을 꾸게 만든 사건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일단 가자꾸나. 입학 테스트를 치러야 한단다.”

입학하자마자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에 시로네는 당황스러웠다.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테스트를 한단 말인가.

“걱정할 것 없다. 클래스를 정하기 위한 평가니까. 스피릿 존은 할 수 있니?”

“네, 할 수 있어요.”

“호오! 그렇구나.”

재능이 있고 똑똑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혼자서 스피릿 존을 터득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사실 시로네에게 스피릿 존을 가르쳐 준 건 알페아스 본인이지만 12살의 어린애가 한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입학생 중에서 시로네를 가장 늦게 접수시킨 것도 그런 이유였다.

태어날 때부터 마법 수련을 시키는 가문도 부지기수인 만큼 입학생 중에는 10살도 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14살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18살인 시로네가 체면을 상하지 않게끔 시간을 조정한 것이었다.

‘기초부터 가르쳐야겠지. 내 눈이 어두운 탓도 있지만 아까운 일이구나.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어도 좋았을 텐데.’

알페아스는 시험장으로 시로네를 안내했다. 지금 도착해 봤자 다른 아이들의 테스트가 한창일 것이기에 걸음걸이는 여유로웠다.

견학이라도 시켜 줄 요량으로 건물에 들어가자 시로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초반 건물이었음에도 아이들의 기상천외한 묘기들이 눈을 어지럽혔다.

4층 높이에 떠 있는 소녀가 친구와 창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세 권의 책을 공중에 펼쳐 두고 동시에 읽어 나가고 있었다.

알페아스는 시로네의 반응을 곁눈질하며 개구쟁이처럼 웃었다. 지금부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클래스 세븐으로 들어가자 학생들의 나이대가 훌쩍 올라갔다. 아이들처럼 요상한 마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지성으로 충만했고 옆에 누가 지나가도 모를 만큼 대화에 몰두해 있었다.

“대기를 빙점 이하로 끌어 내릴 만큼의 대류 에너지라고? 차라리 냉매를 응축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가역반응을 촉진시킬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런 건 어때? 에너지의 방향성을 뒤집는 대신 시간축을 회전시킨다면…….”

시로네는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덜컥 겁이 났다. 무슨 주제에 대한 토론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복도의 끝에서 강렬한 노이즈가 들렸다. 문짝이 뜯기면서 여학생이 귀를 막고 뛰쳐나왔다.

학생들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을 뿐 금세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반응을 보아하니 이곳에서는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인 모양이었다.

귀를 막은 여학생이 알페아스를 발견하고 반갑게 외쳤다.

“아,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허허, 그래. 문제가 생긴 모양이로구나.”

“소리 증폭 실험인데 출력 회로에서 오류가 났나 봐요.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입출력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단다. 전기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지.”

“네, 다시 해 볼게요.”

여학생은 안경을 고쳐 쓰고 실험실로 들어갔다. 또래의 아이들이 괴상한 마법진에 모여 토론을 하고 있었다.

시로네는 여태까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우물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모두가 천재처럼 보였다.

상황판에는 고급반 270명의 학생들의 성적이 주르르 적혀 있었다. 고급반에서도 최상위인 클래스 포에 42명의 학생들이 등재되어 있었고, 1등은 카르미스 에이미라는 이름이었다.

‘와. 역시 카르미스 가문이 1등이구나.’

오젠트 가문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로네도 유명한 귀족 가문 정도는 외우고 있었다. 카르미스라면 크레아스 도시에 본가를 두고 있는 귀족서열 제1계급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초장부터 겁을 집어먹지 않았다. 말 그대로 무한 경쟁. 겨루어 보고 싶다. 자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도전해 보고 싶었다.

“야, 에이미! 같이 가!”

시로네는 고개를 돌렸다. 분명 에이미라고 했다. 클래스 포의 1등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붉은 머리의 아름다운 소녀가 책을 껴안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라?”

시로네는 갑자기 심장이 뛰었다. 트라우마. 기억보다는 감정이 먼저였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그녀가 누구인지 떠올랐다.

6년 전 뒷골목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여자아이였다.

## [19] 마법을 배우다(2)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왜 저 아이가 여기 있는 거지?’

에이미가 친구와 함께 나란히 걸어오자 시로네는 고개를 돌렸다. 혹시라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면 낭패였다. 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발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

두 여학생은 별다른 내색 없이 그대로 옆을 지나쳐갔다.

시로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건 여자를 모르는 데서 오는 섣부른 판단이었다.

“방금 지나간 애 봤어? 새로 들어온 앤가? 입학생치고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혹시 전학생? 완전 내 취향이던데.”

수다쟁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에이미는 대답이 없었다. 시로네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무언가 요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었다. 뒷골목에서 수없이 많은 악동 짓을 했던 그녀가 시로네를 쉽게 떠올릴 수는 없었다.

“흐음, 이상하다. 분명 낯이 익는데. 어디에서 봤지?”

“뭐야, 너 쟤한테 관심 있는 거야? 여태까지 남자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더니.”

“아니야. 정말로 어디서 봤단 말이야.”

“거짓말 치지 마! 요것이 솔직하지 못하게. 너 반했지? 반한 거지?”

“아이, 진짜 아니라니까.”

집요한 추궁에 에이미가 걸음을 빨리했다. 친구가 더욱 빨리 걸어오자 에이미는 아예 뛰어가기 시작했다. 주위의 남학생들이 흐뭇한 얼굴로 에이미를 바라보았다.

알페아스 마법학교에서 여신으로 추앙받는 그녀가 한때는 뒷골목을 주름잡던 악동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시로네뿐이었다.

\* \* \*

마법학교. 제3시험장.

거대한 강당에 거울처럼 매끈한 바닥이 깔려 있었다.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흔한 의자 하나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유일하게 기재가 있는 곳은 강당의 북쪽이었다. 가로지른 테이블에 5명의 교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6명의 아이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테스트를 치르는 중이었는데 대부분 10세 미만의 아이들이었다.

“아직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구나. 마침 잘됐다. 저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거라.”

시로네는 테스트가 진행되는 곳으로 갔다. 차례를 기다리며 집중하던 아이들이 의아한 듯 시로네를 쳐다보았다.

전통적으로 스피릿 존을 테스트하는 제3시험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입학시험만을 치른다. 한데 시로네의 나이는 신입생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편이었다.

알페아스는 존에 들어가면 바닥에 새겨진 문자들이 특수한 정보를 전한다고 시로네에게 일러 주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교사들이 스피릿 존의 크기나 강도, 유연성, 성향 등을 체크한다고 했다.

“그래, 케미.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니?”

“물건을 공중에 띄울 수 있어요.”

심사관들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배우려고 들어온 학교에서 허풍을 떨어 봤자 결국에는 자신만 손해였다.

“그렇구나. 그럼 바로 스피릿 존에 들어가 볼까?”

케미는 심사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스피릿 존에 들어갔다. 우측에 앉아 있는 교사가 손등에 턱을 얹고 유심히 지켜보았다. 올백으로 넘긴 머리에 쌍꺼풀이 짙은 말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가장 멀리 보이는 숫자가 몇이니?”

“6이요.”

“오호! 6이라.”

남자는 감탄하며 서류에 숫자를 기록했다. 스피릿 존의 직경이 6미터라는 뜻이다. 입학생이 이 정도 크기라면 최소 클래스 나인에 들어가는 수준이었다.

옆에 앉은 나이 지긋한 교사가 질문할 차례였다. 까까머리에, 이마에 잔주름이 가득한 그는 습관적으로 눈을 크게 치켜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올빼미처럼 보였다.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색이 무엇이니?”

“음…… 붉은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붉은색이라. 발산형이군. 나이에 비해 존이 넓은 것도 이해가 되는군요.”

노인의 말에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교사도 자신이 전담하고 있는 분야의 질문을 던졌다.

거대한 탑이 오른쪽에 서 있는가, 왼쪽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은 주로 사용하는 뇌가 우반구인지 좌반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고, 주변에서 흔들리는 공이 몇 개냐는 질문은 존의 밀도를 측정하는 질문이었다.

“지금 느껴지지는 온도가 어떤가요? 더운 편인가요, 추운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질문한 교사는 젊은 여성이었다. 눈썹이 사납게 가늘었고 눈초리가 길어서 차가운 느낌이 났지만 외모만큼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음…… 조금 더운 거 같아요. 땀도 나고요.”

더위를 느낀다면 스피릿 존의 형태가 가변적이란 얘기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구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딱히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남은 학생들이 차례대로 테스트를 받았다. 꽤나 수준이 높은 모양인지 교사들은 만족한 표정이었다.

어떤 아이가 12라는 숫자를 불렀을 때는 교장인 알페아스조차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학생이 테스트를 끝마치고 시로네의 차례가 되었다. 알페아스는 긴장하는 시로네의 등을 부드럽게 떠밀며 교사들에게 데리고 갔다.

“자, 부담 갖지 말고 솜씨를 발휘해 보렴.”

“네, 해 볼게요.”

시로네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기초부터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키가 훌쩍 큰 소년이 들어오자 심사관들은 시로네를 유심히 살폈다. 교장이 미리 기별한 특별 전형 학생이었다.

이력서에는 오젠트 가문의 손님이라는 독특한 신분이 기재되어 있고, 특이 사항에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쓰여 있었다.

가끔은 이런 아이들이 있다. 나이가 들어 우연치 않게 능력을 개방하는 아이가.

하지만 이곳은 천재들의 요람이라 불리는 마법학교다. 바깥에서는 아무리 천재라고 떠들어 대도 여기만 오면 열등생이 되어 버리고 마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인지 교사들도 딱히 기대감은 없었다.

우측에 앉은 올백 머리의 남자가 시큰둥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화염 마법사 사드. 그가 호감을 느끼는 대상은 오로지 여자뿐이었다.

“아리안 시로네. 18살이군.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뇨. 아직 마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딱히 배우지 않아도 몇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사드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물론 그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스피릿 존은 머릿속의 지식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지식을 공부하는 귀족 아이들은 혼자서도 간단한 마법을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문을 익힐 기회가 없었던 시로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단점을 알고 있기에 다른 걸 제쳐 두고 지식의 척추에 목을 맨 것이지만, 어찌 됐든 현재까지는 마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이 얕은 게 사실이었다.

“좋아요. 일단 한번 봅시다. 저기 원에 서서 스피릿 존을 해 보세요. 아, 스피릿 존은 할 수 있겠죠?”

스피릿 존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다면 교장의 도덕성을 의심해 볼 생각이었다.

다행히 시로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원으로 향했기에 괜한 의심을 살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시로네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자아가 옅어지면서 무수한 감각이 바깥으로 뻗어 나갔다.

‘우와…….’

존에 들어간 시로네는 수많은 정보에 압도당했다. 마치 시험장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위상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정보가 차단당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닥에 새겨진 마법 문자의 상호작용뿐이었다.

“가장 멀리 보이는 숫자가 몇이죠?”

수많은 숫자들이 공전하고 있었다. 시로네는 가장 멀리 보이는 숫자에 주목했다. 시각이 아닌 공감각을 통하는 것이므로 시력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로네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로네, 멀리 보이는 숫자가 몇인가요?”

사드가 재촉해도 시로네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교사들은 그가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린아이들의 실력을 봤으니 위축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알페아스가 인자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시로네,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니까.”

시로네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숫자가 보이긴 하는데, 숫자가 너무 길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다고? 안 보인다는 말인가요?”

“아뇨. 보이긴 하는데 너무 길어요. 지금도 길어지고 있어요.”

사드는 짜증이 났다. 존의 크기를 계산하는 마법 문구는 오직 정수만을 전달한다. 부족한 실력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나머지 중언부언하며 시간을 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대충 앞에 있는 숫자만 말해 보세요.”

“음, 3.14요.”

교사들의 눈이 크게 떠졌다. 시로네가 보고 있는 숫자는 원주율이었다. 정수로 나누어지지 않는 무리수이므로 무한히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왼편에 앉아 있는 여자가 안경을 올리며 쏘아붙였다. 빙결 마법의 시이나. 마법적 성향답게 냉정한 성격이라 사드와 앙숙을 이루는 교사였다.

“시로네,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정한 숫자에 3.14는 없어요. 정말 확실한가요?”

시로네는 곤란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음. 그런가요? 하지만 전 그렇게 보이는데요.”

‘진짜구나…….’

시이나는 거짓말을 했다. 물론 바닥에 새겨진 마법 문자에 원주율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원주율이 뜨는 경우라면 딱 한 가지였다.

존의 영역이 계측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버렸을 때.

그렇다는 것은 시로네가 펼친 존의 직경이 최소 30미터 이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신입생을 평가하는 제3시험장의 계측 정밀도는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강도 높은 풍경을 보여 준다거나 뜨거운 고열, 북극의 한기를 경험시킬 경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환으로 스피릿 존의 직경을 측정하는 범위도 3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늦은 입학이라도 이 한계치를 넘어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직경 30미터 이상의 존이라면 최소 클래스 파이브 이상의 수준이었다.

사드의 옆에 앉은 노인이 질문을 던졌다.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색이 무엇입니까?”

“음, 푸른색요. 온통 파랗게 물들어 있어요.”

노인의 입술이 삐죽 튀어나왔다. 교사들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파란색 계통이라면 수렴형이다. 스피릿 존의 크기보다는 내구력에 장점이 있는 계열.

그런데도 스피릿 존의 직경이 30미터가 넘어간다면 결코 나이에 비해서 성장이 더딘 게 아니었다.

알페아스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클럼프가 호언장담을 했던 이유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천성이 마법사인 그는 오히려 비판적이 되었다.

적당한 재능이라면 칭찬을 해 줄 생각이었으나 시로네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또한 아직 마법이란 영역에 닿지 못한 반쪽짜리 재능이었다.

이것은 위험하다. 너무 추켜세우다가는 평생을 망칠 가능성도 있었다.

시로네는 이어지는 질문에 대답했다. 뇌의 발달은 좌우를 동시에 사용하는 양반구형이었다.

이 또한 특징적이었으나 정말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다음 질문에서 나왔다.

“주변에 떠 있는 공의 개수가 몇 개죠?”

공감각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일이 셀 필요는 없었다. 마치 무언가가 피부에 닿으면 느껴지듯이 공의 개수를 한꺼번에 감각할 수 있었다.

시로네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867개요.”

“867…….”

질문을 던졌던 교사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여태까지 냉랭한 태도로 지켜보던 시이나 또한 처음으로 의자를 끌어당기고 제대로 앉았다.

존의 밀도란 정신력이 얼마나 균등하게 퍼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범주였다.

867개의 공을 감각했다는 건 시로네의 정신력이 86.7퍼센트의 밀도로 존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

밀도가 균등하다는 건 그만큼 정신이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마법의 성공 확률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 [20] 마법을 배우다(3)

“시로네, 지금 얼마나 추운가요?”

시이나는 이미 시로네가 차가운 쪽이라고 상정하고 질문을 던졌다.

예상대로 시로네는 그녀가 원하는 답변을 했다.

“상당히 추운데요. 아니, 차가울 정도예요.”

어차피 3시험장에서는 차가운 느낌 이상으로 한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 시이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총평을 작성했다.

요지는 이랬다. 수렴형이고 방어적이며 내구도가 뛰어나다. 다만, 그럼에도 존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크다.

시이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4년이 넘게 교사직을 수행했지만 정신적 성향과 정반대의 기질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는 시로네의 선택과 집중이 작용한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 지식이 얕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역사책만을 들이팠듯이, 마법을 배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로지 스피릿 존의 수행만을 반복한 게 이런 탁월한 베이스를 갖추게 만든 것이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스피릿 존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클래스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해야 하니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스피릿 존에서 빠져나온 시로네는 꾸벅 인사를 하고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바깥으로 향했다.

시험장의 문이 닫히자 교사들이 너도나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상당히 특이한 학생이로구먼.”

사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반박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밸런스가 잘 잡힌 거 아닌가요?”

시이나가 말했다.

“밸런스가 너무 잘 잡혀 있어서 특이하다는 거죠. 마법을 모르는 18살의 소년이 직경 30미터가 넘어가는 존을 가지고 있어요. 수렴형의 성향인데도 말이죠.”

“존이 커질수록 밀도는 옅어지지. 하나, 이 학생의 밀도는 그럼에도 86.7퍼센트이네.”

“기술적으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긴 하지만, 이 아이는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수치를 보인 거예요. 86.7퍼센트라면 산에서 수행하는 고승 정도의 정신적 안정도라고요.”

교사들이 칭찬 일색이자 사드는 더욱 기분이 상했다. 마법이란 재능의 영역. 따라서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자존심이 강했다. 그런 만큼 가끔은 학생에게도 질투를 느꼈다.

“그래 봤자 학생 레벨에 불과해요.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학생 레벨이라니. 여긴 학생들이 배우러 다니는 학교예요.”

시이나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드의 얼굴이 붉어졌다. 얼굴이 예쁘지만 않았어도 이런 모욕을 참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정싸움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자 다른 교수들은 입을 다물었다. 화염 마법의 사드와 빙결 마법의 시이나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앙숙지간이었다.

알페아스가 물었다.

“그래서 어디로 배치했으면 좋겠나? 시로네 말일세.”

시이나가 가장 먼저 의견을 냈다.

“클래스 파이브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성향이 특이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가 반박했다.

“하지만 마법을 모른다잖아요? 클래스 파이브에 올렸다가 괜히 우쭐해져서 사고만 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사드 선생님 같을 수는 있지만,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아요.”

사드가 도끼눈을 치켜뜨고 일어섰다.

“시이나 선생님! 참아 주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아니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클래스 파이브 전담 교사니까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싶다는데, 문제 되는 거라도 있나요?”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마법을 모르는 데다 존의 변형도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아무리 좋게 쳐줘 봐야 클래스 세븐이 적당합니다.”

알페아스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어떤 교사는 클래스 텐부터 차근차근 키우는 게 좋다고 했고, 어떤 교사는 당분간 배치를 보류하고 지켜보자는 말을 했다.

올빼미를 닮은 교사가 중재안을 내놓았다.

“제 생각에도 클래스 세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초급반으로 보내자니 의욕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클래스 세븐이라면 스피릿 존의 기초 수업도 포함하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시로네가 정말로 재능을 드러낸다면 조기 진급도 가능할 테니까요.”

알페아스도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시로네의 반쪽짜리 재능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더욱더 기초를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배정하도록 하겠네.”

입학생 테스트가 종료되었다.

\* \* \*

클래스 세븐으로 배정받은 덕분에 시로네는 또래들이 머무는 고급반 기숙사에 숙소를 차릴 수 있었다.

놀랍게도 개인실이었다.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라서 편의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 주는 모양이었다.

시로네의 방은 남자 기숙사 707호였다.

귀족에게는 소박한 방이지만 시로네가 살던 오두막의 거실만 한 크기였다. 벽면에는 책장이 놓여 있었고 당연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시로네를 안내한 직원은 간단한 지침을 말해주었다. 수업은 오후 5시면 끝나고 이후부터는 자유 시간이었다.

주말을 제외하면 외출은 금지되지만 부지가 워낙에 넓어서 대부분의 편의 시설이 교내에 갖추어져 있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고 일정 숫자 이상이 모이면 지원금도 나온다.

도서관은 동서남북 네 군데로 24시간 개방되어 있는데 기한만 지키면 책을 빌려 가는 권수도 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시로네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금기 사항을 알려주었다. 실험실을 제외하고 일과 이후의 마법 사용은 엄금한다. 특히나 외도 마법을 연구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외도 마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네크로맨서들의 시혼술이 있고 개중에는 안티매직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로네는 안티매직이 금지 마법인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직원은 모른다는 대답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시로네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아직 배운 게 없으니 당분간 연구회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도서관에 다녀야겠다. 2년 동안 역사만 공부했으니 이제부터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해야 해.’

시로네는 자신 있었다. 그러기 위해 호기심을 억누르고 만들어 낸 지식의 척추가 아니던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는 일만이 남았다.

\* \* \*

피아노 연주소리에 시로네는 잠에서 깨어났다. 음향 마법의 일종인 에테르 공명으로 소리를 퍼뜨리는 것이었다. 듣기 좋은 연주였지만 레이나의 실력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로네는 벌써부터 그리웠다. 레이나는 잘 있을까? 리안도 자신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기다렸을까?

남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기숙사와 달리 식당은 기숙사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시로네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한때는 이런 소심한 성향 탓에 화전민촌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곳의 학생들은 남이 밥을 어떻게 먹건 신경 쓰지 않았다.

다만 남녀 사이의 문제는 예외라서 예쁘거나 잘생긴 학생이 들어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시선을 보냈다.

특히나 시로네는 새로운 얼굴인데다가 외모도 빼어나서 여학생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여자들의 쑥덕거리는 소리에 도망치듯 식사를 끝낸 시로네는 방으로 돌아와 시간표대로 교재를 챙겼다.

가방을 매자 책의 무게로 어깨가 아플 정도였다. 클래스 세븐도 엄연히 고급반이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수업은 어려웠다. 예습 복습이 철저한 귀족들에 비해 시로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지식의 척추를 통해서 얕고 방대한 지식을 습득한 덕분에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었다.

오전에 이론을 배운다면 오후에는 실습이었다. 특히 고급반은 스피릿 존을 수련하는 통합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280명의 학생들이 훈련장에 모여 선배와 후배로 갈라지는 모습은 시로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었다.

“선배님, 저번에 알려 주신 덕분에 시험을 잘 치렀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쪽이요! 제가 여기 자리 맡아 놨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시로네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 어린 학생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공인이든 비공인이든 사회에 나가면 급수에 따라 직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실력에 비례해 선후배 간의 장벽이 엄격히 존재한다.

이를테면 마법 사회의 축소판인 셈이었다.

물론 어제의 후배가 오늘의 선배가 될 수도 있지만, 고작 그런 일들이 두려워서 후배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선배는 없었다.

오히려 따라잡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라는 듯 당당히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다.

마법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재능은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재인들이 모여 경쟁을 펼치는 장이었으니 진급의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했고 한 번 벌어진 격차를 다시 따라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스피릿 존의 교사는 공인 6급의 마법사인 에텔라였다. 나이는 20대 중반쯤 되었을까? 갈색 머리를 뒤로 묶고 커다란 안경을 썼는데 마법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순한 인상이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먼저 시로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수많은 시선이 시로네를 향했다. 그중에는 에이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 어제 봤던 그 애 아니야? 이름이 시로네인가 봐.”

에이미의 친구 세리엘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대답이 없었다. 분명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라! 선배님, 쟤 아세요?”

클래스 파이브의 후배가 끼어들며 말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인데, 들어오자마자 클래스 세븐에 배치됐다고 하던데요. 선생님들 얘기로는 굉장한 재능이라고 하던데.”

“그래? 더욱 마음에 드네. 어디 가문의 도련님일까? 성은 몰라?”

“이런 제기랄!”

에이미가 갑자기 소리쳤다. 세리엘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에이미의 입에서 이토록 험한 말이 나온 적은 처음이었다.

“에이미, 왜 그래?”

“응?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한 재능. 어디 가문의 도련님.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그녀의 기억을 일깨웠다.

6년 전 뒷골목에서 만난 소년이었다.

‘재능은 있었지. 하지만 분명 평민일 텐데. 아니, 평민 중에서도 천민.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시로네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를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아리안 시로네입니다. 클래스 세븐에서 함께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박수로 시로네를 환영했다. 선배들은 후배가 들어와서 좋고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가 들어와서 좋았다.

하지만 개중에는 아니꼽게 바라보는 눈길도 있었다. 장차 자신의 경쟁자가 될 사람에 대한 이유 있는 적개심이었다.

신입생들의 소개가 끝나고 에텔라는 수업을 진행했다.

“자, 여러분. 스피릿 존이란 무엇일까요?”

“마법사의 정신이요.”

“맞아요. 스피릿 존은 정신이 형태로 나타난 것이에요. 최초의 형태는 구체입니다. 집중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기본 형태만으로는 실전에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에텔라는 ‘이미지 존’이라는 마법 장치로 들어갔다. 입학 테스트를 받았을 때와 똑같은 매끈한 바닥이 펼쳐져 있었고 동심원을 이루는 수많은 마법진이 그려져 있었다.

매끈한 바닥이 사라지고 시커먼 공간이 나타나자 에텔라는 마치 떠 있는 듯 보였다. 그 상태에서 직경 10미터 정도의 스피릿 존을 펼치자 놀랍게도 형태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이미지 존이구나.’

이미지 존은 수많은 마법 공학은 물론 엄청난 거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장치였다.

하지만 스피릿 존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수업의 성취도는 월등히 높아진다. 괜히 알페아스 마법학교가 왕국의 5대 명문인 게 아니었다.

## [21] 마법을 배우다(4)

에텔라는 스피릿 존에 들어간 사람답지 않게 편안하게 걸음을 옮기며 설명을 이었다.

“자, 이것이 스피릿 존의 기본형입니다. 모든 공간을 균등하게 장악하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전체 공간을 사용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에텔라가 손가락을 튕기자 20미터 떨어진 곳에 표적이 떠올랐다.

“직경 10미터의 구체로는 저 타깃에 마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가 없죠. 직접 이동하거나 스피릿 존의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형태를 바꾸면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에텔라의 존이 표적이 있는 방향으로 길어졌다. 부피는 같지만 형태를 변화시켜 타깃을 잡은 것이었다.

“정신의 형태를 바꾸면 이렇듯 스피릿 존의 형태도 바뀝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에텔라가 손을 내밀고 말했다.

“파이어.”

불이 펑 하고 나가더니 20미터 거리의 타깃을 불태웠다. 첫 수업인 학생들이 눈을 갈아 떴다. 순한 외모라서 우습게 여겼던 에텔라가 갑자기 위대해보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에텔라의 이어진 말에 신입생들은 머쓱했다. 조금 전의 시연이 사실은 안 좋은 예시였다는 민망한 때문이었다.

“존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를 다투는 실전에서 매번 형태를 계산해야 한다면 그 또한 비효율적일 겁니다. 따라서 마법사는 몇 가지 형태를 패턴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릿 존의 네 가지 패턴, 즉 존의 사방식입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에 시로네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방식의 첫 번째로는 방어형이 있습니다.”

에텔라의 스피릿 존이 와짝 조여들면서 20개의 삼각형 면을 가진 입방면체로 탈바꿈했다. 투박한 모양이었지만 멀리서보면 구체에 근접한 형태였다.

“방어형의 기본은 입방체입니다. 프레임으로 정신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이죠. 프레임이 많을수록 내구력이 강하며 최대한 많은 숫자의 아군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공격형입니다.”

에텔라는 스피릿 존의 형태를 바꾸었다. 구형의 표면적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사방으로 수십 개의 긴 가시들이 뻗어 나왔다.

“공격형은 별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중심 면적을 줄이는 대신 수많은 존을 뻗어 냅니다. 전 방위를 아우르기 때문에 표적의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도 유용한 형태입니다. 다음은 타깃형입니다.”

에텔라의 존이 또다시 변화를 거듭했다. 그녀를 중심으로 스피릿 존이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가며 십자가 형태를 이루었다.

“타깃형의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사방식의 기본형 중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지며 공격형보다 화력은 떨어지지만 표적을 손쉽게 포착할 수 있죠. 마법사를 중심으로 존을 회전시키고 타깃을 포착합니다.”

손가락을 튕기자 표적들이 에텔라의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에 맞추어 에텔라도 예리한 눈초리로 표적들을 뒤쫓았다.

“측방 45도. 파이어.”

회오리처럼 회전하는 십자가가 표적들을 붙잡을 때마다 불꽃이 쏘아졌다. 전후좌우 동시다발적으로 마법이 시전됐고, 마치 뒤에도 눈이 달린 듯 오차가 없었다.

“타깃형에서 숙달해야 할 것은 스피릿 존의 회전속도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최고 사거리를 가진 일자형이 있으나 스나이퍼 스타일이 아닌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법사가 직선 형태의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극히 어렵기 때문이죠.”

세 가지 형태를 보여준 에텔라는 잠시 안경을 닦았다.

“마지막으로 이탈형은 존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뇌를 옮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로네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존의 중심이란 마법사의 머리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옮긴단 말인가?

에텔라는 기본형으로 되돌아왔다.

잠시 후 스피릿 존이 구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움직이기 시작했다.

10초가 지나자 스피릿 존이 스텔라의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시로네는 경악했다. 존이 마법사의 정신이라면 저 존의 중심에는 대체 뭐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이탈형입니다. 사방식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로서, 스피릿 존이 몰아일체라면 이탈형은 물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 거리가 멀수록 존의 크기가 줄어들며 특화 마법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익히기 어려운 방식이죠. 하지만 사방식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발동이 즉시적입니다.”

에텔라는 마지막으로 사방식을 연속으로 보여 주었다. 입방면체로 단단해졌다가, 별 모양으로 삐죽해지고, 십자가 형태로 늘어났다가 구체로 되돌아오더니 존이 육체를 이탈해 그녀의 주위를 빠르게 휘돌았다.

“우아아아…….”

클래스 세븐의 학생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사방식의 연속 변환은 1~2년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눈앞의 선생님은 어리바리한 순둥이가 아닌 공인 6급의 마법사였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사방식을 수련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클래스별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난이도에 따라 차등 수업을 받았다. 시로네도 클래스 세븐 학생들과 함께 에텔라의 수업을 들었다.

“우선 방어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들은 성향에 따라 잘하는 분야가 특화되어 있지만, 방어형만큼은 꾸준히 갈고닦는 게 좋습니다. 혼란한 전장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티매직에 저항할 힘이 생기니까요.”

시로네는 어제 들었던 주의 사항을 떠올렸다. 직원은 대답해 주지 않았지만 이후로도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 저기, 질문해도 되나요?”

“후후,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설마 질문해도 되냐는 게 질문은 아니겠죠?”

“네. 안티매직이 왜 금지 마법인가요? 실제로 수많은 마법사들이 안티매직을 합법적으로 연구하고 있잖아요.”

“흐음, 어디 보자. 안티매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법사들의 안티매직과 아티팩트죠. 이건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안태매직은 마법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성질을 지닌 스피릿 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법사의 정신에 따라 효율이 차이가 나죠. 아티팩트와 다른 점입니다.”

“어설프게 접근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서투른 상태에서 시전했을 경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안티매직을 전공한 마법사는 한평생 그것만을 수련합니다. 대부분 무정한 성격이죠. 학교에서는 아직 학생인 여러분에게 그런 방식을 권유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시로네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것도 아닌 서로의 정신을 파괴하는 마법이었으니 학교 내에서 연구할 과목은 아니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방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세븐의 학생들이 저마다 실습에 들어갔다. 시로네도 방여형을 연습했다. 요령은 정신적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한참이나 연습을 하던 시로네는 스피릿 존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고 눈을 번쩍 떴다. 이미지 존이 아니기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해낸 듯했다.

시로네의 성향 자체가 수렴형이라 덕을 보기는 했지만 감안하고도 놀라운 성과였다. 6년 동안 스피릿 존만을 수행한 노력의 대가였다.

“우아아! 저것 봐!”

그때 동급생들이 이미지 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클래스 포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수련을 했는데 지금은 에이미가 화려한 볼거리를 시연 중이었다.

에이미는 타깃형이었다. 그녀의 십자가가 오른쪽으로 90도를 돌았다가 다시 왼쪽으로 270도를 회전하는 등 변화무쌍하게 각도를 뒤틀면서 불꽃을 쏘아 대고 있었다.

존의 길이는 20미터 정도로 타깃형치고는 무난한 수준이었으나 축의 회전속도가 상상을 불허했다.

사방에서 표적들이 올라오는데도 네 방향에서 쏘아지는 불꽃의 개수가 연사 수준이었다.

120개의 표적을 순식간에 소멸시킨 에이미는 존을 거두었다. 아름다운 외모에 탁월한 실력. 후배들이 반짝이는 눈동자로 그녀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저 선배님이 카르미스 에이미지?”

“제1계급에 얼굴도 장난 아니고, 더군다나 실력까지. 저런 선배랑 사귈 수만 있으면 학교생활 끝장나는 건데.”

“아서라. 저 선배에게 대시한 남자들만 100명이 넘는다더라. 그런데도 눈길 한번 안 준다잖냐.”

“오죽하겠어? 카르미스는 왕국에서도 알아주는 가문인데.”

시로네는 클래스 세븐의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좋은 집안의 소녀가 6년 전에는 어째서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시로네는 어깨를 움찔했다. 이미지 존에서 내려오는 에이미가 시로네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자연스레 다른 학생들도 시로네에게 시선을 돌렸다.

“뭐야? 둘이 아는 사인가?”

“아닌데? 어제 입학한 애잖아?”

“설마 반한 거 아냐? 남자하고는 눈조차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에이미는 황급히 시선을 되돌렸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하지만 솔직히 신경이 쓰여 미칠 것 같았다.

에이미에게 시로네는 과거의 철없는 행적을 아는 유일한 존재였다. 물론 지금도 철이 든 것은 아니지만 마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과거를 청산한 그녀였다.

‘안 되지. 이제 곧 졸업반인데 여기서 소문이라도 퍼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 이제 어떡하지?’

에이미가 자리로 돌아갔으나 이미지 존을 사용하려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명실공히 고급반의 서열 1위였으니 누가 나서더라도 후배들 앞에서 망신만 당할 터였다.

시로네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에텔라를 찾아갔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면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응? 이미지 존에?”

에텔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제 막 사방식의 원리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 이미지 존을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

“잠깐만…… 원칙은 상급자부터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에텔라는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이미지 존을 쓰려는 사람은 없었다. 비싼 장치를 놀리느니 경험이나 시켜 주자는 의미로 그녀가 승낙했다.

“좋아. 미리 해 보는 것도 좋을 테니까. 다만 표적은 올리면 안 된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방어형의 이미지를 눈으로 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응?”

에텔라가 무슨 소리냐는 듯 되물었으나 시로네는 듣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이미지 존에 올라가자 선배들이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쳤다. 격려라기보다는 재롱이나 보자는 투가 역력했지만 시로네는 신경 쓰지 않고 중앙으로 걸어갔다.

물을 마시고 있던 에이미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시로네를 발견하자마자 머금고 있던 물을 그대로 뿜어냈다.

“푸욱!”

“에이미, 괜찮아? 왜 그래?”

“쟤 도대체 뭐하는 거야? 클래스 세븐 주제에 저기서 뭘 하겠다고?”

난데없는 해프닝에 수업이 휴식 시간처럼 변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진지하게 집중하고 있었다.

스피릿 존에 들어가자 급격하게 구체가 부풀어 올랐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미지에 압도당한 시로네는 자신도 모르게 확장을 멈췄다.

시끌벅적했던 학생들이 말을 잃었다. 존의 크기가 직경 20미터나 되었다. 클래스 세븐의 평균 직경이 13미터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신입생의 등장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와우! 덩치는 크네.”

“흥. 덩치만 불린다고 마법이 되나? 공기 방울이나 마찬가지지 뭐.”

시로네는 당황스러웠다. 분명 이미지 존에 들어오기 전에는 성공했던 프레임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있었다.

‘어째서 안 되는 거지?’

스피릿 존을 눈으로 확인해서 정신이 흐트러졌나?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자신이 그렇게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본질적인 곳에서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다.

‘아차! 그렇구나!’

지금의 상태로 사방식을 시행하면 스피릿 존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초심자인 시로네는 사방식 변화에 들어가는 정신력이 전문가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데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직경 20미터의 크기로는 강철처럼 단단한 프레임을 구조할 수 없었다.

‘최대한으로 키워야 해.’

## [22] 마법을 배우다(5)

시로네는 더욱 정신을 집중시켰다. 이미지 존을 통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스피릿 존으로 파고들자 안 그래도 커다란 구체가 두 배는 크게 확장되었다.

선배들이 입을 떡하니 벌렸다. 기록표에 나타난 수치는 직경 41미터였다.

클래스 포의 평균 직경이 27미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졸업반에 근접한 수치였다.

“뭐, 뭐야? 저 자식 무슨 존이 저렇게 커?”

에텔라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물론 스피릿 존은 수련을 통해 얼마든지 크기를 키울 수 있다.

하지만 기사가 행하는 육체적인 고행이 아닌 깨달음을 비롯한 정신적 성장이 더해져야만 한다.

육체는 정직하기에 비록 힘들지라도 꾸준히 훈련하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정신은 정답이라는 게 없는 막연한 허상과의 싸움이었다.

평생이 걸려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마법사들도 세상에는 부지기수다.

마법이 재능의 영역이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시작부터 저렇게 월등한 존은 처음이야. 아마도 어릴 때부터 세상을 고찰하고 내면을 탐구하며 자랐겠지. 하지만 이제 18살인데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시로네는 조금 전과 달리 확신을 얻었다. 스피릿 존이 커지자 비로소 프레임이 잡혀 나가는 게 느껴졌다.

수많은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그는 오로지 스피릿 존의 뼈대를 연결시키기에 바빴다.

‘집착하면 안 돼. 한꺼번에 조인다.’

시로네는 어금니를 깨물며 눈을 번쩍 치켜떴다. 사방식의 방어형으로 돌입하자 커다란 구체가 시로네를 짓이길 듯 조여들었다.

얼마나 강렬한 기세인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우드드득!’ 하고 우겨지는 환청이 들릴 정도였다.

“우아아아…….”

어디선가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시로네는 자신이 펼친 사방식을 신비롭게 살펴보았다. 단단한 다이아몬드 결정 안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다.

에텔라가 선보인 입방체처럼 완벽하게 맞물린 형태였다. 존의 직경은 13미터. 41미터에서 13미터면 30퍼센트의 효율이었지만 어쨌거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진짜로 했어! 신입생이 첫날에 사방식을 해냈다고!”

속없는 클래스 세븐 애들이 호들갑을 떨자 몇몇 선배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런 숫자와 대등하게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물론 대부분은 여학생들이었다.

에이미는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았다. 다만 심각하게 시로네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어째서 잊고 있었을까. 마법을 배우려고 다짐한 계기도 시로네에게 굴욕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저 자식, 정체가 뭐지?’

재능만 있다고 들어올 수 있는 학교가 아니다. 조력자를 만난 게 분명했다. 누가 배후에 있는 것일까?

“선생님, 생각보다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드네요.”

“응?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내구력은 훨씬 향상되었을 거야. 물리적 충격에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고.”

시로네도 동의했다. 프레임의 단단함이 피부처럼 선명하게 전해졌다. 이 정도라면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도 스피릿 존에서 이탈할 위험이 없을 터였다.

에텔라는 눈썹을 긁적였다.

‘신입생 테스트 때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다더니, 소문이 사실인가 보구나.’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굉장한 통찰력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방어형을 성공시킨 건 수렴적인 성향에 더해 비정상적으로 존이 컸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반응을 뒤늦게 깨달은 시로네는 수줍은 소년으로 돌아와 구석진 자리로 돌아갔다.

시선 속에 파묻힌 탓일까. 에이미가 강렬한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시로네는 알지 못했다.

차가운 소년과 뜨거운 소녀(1)

시로네는 다양한 학문을 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졸업반이 되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했기에 범위가 엄청났다.

1교시는 화학 기초 수업이었다. 클래스 세븐의 강당으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교단에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빙결 마법의 권위자 올리페르 시이나.

올리페르 가문의 차녀이자 올리페르 학파 출신. 향년 26세. 빙결 마법 하나만으로 공인 6급의 마법사에 오른 천재. 얼굴 예쁨. 성격 차가움.

신입생 테스트 때 찬바람이 쌩쌩 불었던 태도 덕분에 시로네에게도 강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아름다운 외모에 교사라는 직책, 연상다운 까칠한 성격까지. 학생들에게는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로망이었다.

보랏빛 긴 머리를 단정하게 위로 올린 그녀가 뿔테 안경을 매만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클래스 세븐의 화학 수업을 맡게 된 올리페르 시이나라고 합니다.”

열화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졌다. 개중에는 휘파람을 불거나 노골적으로 애인이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시이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책부터 펼쳤다. 그리고 살며시 시선을 들어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시로네는 섬뜩했다.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착각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시로네의 느낌은 정확했다. 클래스 파이브의 담당인 그녀가 시간을 내서 한 과목을 더 개설한 이유는 오직 시로네 때문이었다.

‘재능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된다. 최대한 빨리 진급을 시키는 게 좋아.’

일단 올려놓으면 어떻게든 따라오는 게 재능이다. 시로네를 진급시켜서 라이벌인 사드의 기를 죽이고 교사로서의 소신도 지킬 생각이었다.

속사정이야 어찌 됐건 교사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에게 수업을 받게 되니 학생들은 그저 즐거울 따름이었다.

“선생님, 사드 선생님하고 사귄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아니죠?”

“첫사랑 얘기 해 주세요. 첫 수업이잖아요.”

“해 주세요, 선생님. 해 주세요!”

학생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시이나는 미간을 구겼다. 그러자 그녀의 옆에 직경 30센티미터의 얼음 결정이 탄생했다.

사라라라락! 사라라라락!

얼음이 회전하며 갈리기 시작하더니 눈발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냉기 입자가 순식간에 교실의 온도를 낮추었다.

처음에는 ‘좀 춥네.’ 하고 웃던 아이들의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 갔다. 기온 저하가 끝도 없이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입을 놀리지도 못할 만큼 얼어붙었다.

“선생님! 추, 추워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이나는 교단에서 내려와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얼음의 회전속도가 떨어지자 온도가 올라갔다. 하지만 여전히 영하권이었다.

“지금 발동한 빙결 마법은 어떤 원리일까요?”

시이나는 손바닥을 펼쳐 그 위에 얼음 결정을 띄웠다.

“냉기라는 건 무엇일까요?”

질문과 함께 주먹을 움켜쥐자 얼음 결정이 산산조각 부서졌다.

“차갑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차가운 에너지라는 것은 없죠. 따라서 온도라는 것은 무한히 높아질 수는 있어도 무한히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제로의 상태. 우리는 그것을 절대영도라고 부릅니다.”

시로네는 정신없이 그녀의 말을 노트에 필기했다.

“대기 중에서 에너지를 빼앗으면 얼음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흔한 얼음이죠. 하지만 그것을 입자 단위로 분해한 다음 바람의 힘으로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과 같이 단순한 얼음으로도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수준까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말에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아니, 마법사는 어떻게 마법을 구사하는 걸까요?”

시이나는 손가락 두 개를 펼치고 하나씩 꼽았다.

“전지, 전능. 마법사는 전지전능全知全能을 통해 마법을 시전합니다. 스피릿 존은 마법사의 정신과 세계를 일치시킵니다. 그렇기에 영역 내에서 마법사는 신격의 위치를 갖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전능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법을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져라 한다고 스피릿 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온도를 올리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전지입니다.”

시로네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여태까지 자신이 마법을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전능에 대한 수련만 했을 뿐 전지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저와 함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스피릿 존은 마법의 반쪽일 뿐, 전지가 없다면 뛰어난 마법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학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이나는 그제야 몸을 돌려 칠판에 필기를 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수업이었고 학생들의 집중력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과연. 예쁘다고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구나.’

교사에 대한 신뢰는 학생들의 성취욕을 북돋게 만들기에 시로네 또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수업을 들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미 지식의 척추는 완성된 상태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타 학문을 먹어 치울 생각이었다.

\* \* \*

오후 5시.

수업이 끝나자 강당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빠져나왔다. 시로네도 머리가 묵직해진 기분을 느끼며 기숙사로 향했다.

연구회에 가입한 학생들이 도시락을 들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고 있었다. 연구회가 없는 시로네는 간단히 요기만 해결하고 도서관에 갈 생각이었다.

“엇?”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다. 부유감에 정신을 차려 보니 두 발이 뜬 상태로 빠르게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다.

뒷고대를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숨이 막혔다. 가히 초인적인 힘과 속도였다.

3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정원의 숲 속이었다.

속도가 줄어들자 붕 하고 몸이 떠오른 시로네는 엉덩방아를 찍었다.

엉덩이뼈를 타고 충격이 전해져왔다.

기침을 하며 숨을 고르는 것도 잠시 황급히 자신을 데려온 인물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괴한이 불안한 듯 좌우를 둘러보더니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면을 벗었다.

“어, 어?”

시로네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괴한의 정체는 다름 아닌 카르미스 에이미였다. 멀리서도 빛이 났지만 지척에서 보니 이목구비가 올망졸망한 게 정말로 아름다웠다.

에이미는 시로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듯 손을 치켜들어 화염 마법을 일으켰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너, 날 기억하고 있는 거지?”

“어, 아?”

“내버려 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입술을 지져서 벙어리로 만들어 주마.”

시로네는 다가오는 불꽃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광인이 아닌 이상 폭력에도 근거와 목적이 필요한 법이다. 학교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불태우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졌다.

예상대로 시로네의 눈앞에서 손바닥이 멈췄다. 불길은 어느새 사라져있었다. 시로네를 겁에 질리게 해서 협박할 생각이었던 그녀가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너, 뭐야? 정말 예전 그 겁쟁이 맞아?”

뒷골목 패거리들에게 붙잡혀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다리를 오들오들 떨던 소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선배님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에이미는 시로네의 멱살을 붙잡고 끌어올렸다.

“선배는 누가 선배야, 이 자식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넌 평민인 데다 완전 촌닭이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왔어?”

시로네는 그녀가 흥분하는 이유를 몰랐다. 평민이 귀족학교에 입학한 것이 거슬렸다면 처음부터 이런 조용한 곳으로 데려오지도 않았을 터였다.

“사정이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왜 저를 끌고 온 거예요?”

“응? 왜?”

사실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처음에는 무시할 생각이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사소한 비밀만 들켜도 찝찝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시로네는 학교생활을 끝장 낼 수 있는 대형 폭탄을 가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어떻게 학교에 들어왔지?”

이번에 쳐들어오는 주먹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기에 시로네는 황급히 털어놓았다.

오젠트 가문의 후원을 받아 손님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정을 전하자 에이미가 멱살을 풀었다.

“호오! 오젠트 가문의 손님?”

## [23] 차가운 소년과 뜨거운 소녀(2)

에이미의 머리가 또르르 굴러갔다. 거짓말로 낙찰이다. 평민이 귀족 가문의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다. 리안의 기사 서약에 대해 모르기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너. 사람들에게 나 안다고 얘기 안 했지?”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그게 뭐 좋은 기억이라고.”

그렇다면 시로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다. 그런 폭탄을 달고 학교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이지 끔찍했다.

에이미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짐짓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말했다.

“너, 클래스 세븐이지? 난 클래스 포거든?”

“알고 있어요, 선배님.”

“그럼 오늘부터 너는 내 부하가 되는 거야.”

“네? 부하요?”

“네 약점을 쥐고 있잖아. 내가 입만 뻥긋하면 학교에서 쫓겨날걸? 그러니까 앞으로 내 부하가 되라고.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들어줘야 해.”

시로네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차피 선배님이니까 시키면 따를 텐데요?”

“순진하기는. 내가 그렇게 쉬운 일을 시킬 것 같아? 앞으로 눈물 쏙 빼 놓게 만들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시로네를 쫓아다닐 수 없다면 시로네가 자신을 쫓아다니도록 만들면 된다. 시야에 가둬두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속에 감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무슨 일을 시키실 건데요?”

“수업이 끝나면 빵과 커피를 사서 나에게 달려오도록. 알았어? 커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다시 갔다 오게 할 거야.”

성격 좋은 시로네였지만 이번만큼은 화가 치밀었다. 빵이라니. 자신이 무슨 빵 배달이나 하려고 학교에 들어온 줄 아는 것인가?

“호호호! 그럼 내일부터 제1도서관 앞에서 기다려. 말만 잘 들으면 금방 끝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에이미가 시로네의 이마를 콕콕 찍으며 웃어젖혔다.

시로네는 당황스러웠다. 이게 정말 알페아스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에이미인가?

“아, 맞다. 그리고…….”

발길을 돌리던 에이미가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손이 치솟자 주변의 공기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시로네의 몸이 하늘로 떠올랐다.

“허억!”

대기압을 조종해 바람을 일으키는 토네이도 마법. 일전에 시로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마법이었으나 현재 클래스 포인 에이미에게는 어린애 장난 같은 마법이었다.

시로네는 허공에 떠올라 허우적거렸다.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인지 지상이 훨씬 또렷하게 보였다. 바닥을 굴러다니는 낙엽조차 선명했다.

히죽 웃고 있는 에이미의 얼굴도.

‘떨어지면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에이미가 뛰어올라 시로네의 뒷고대를 붙잡았다. 옷깃이 울대를 압박하자 숨이 턱 하고 막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덧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

“쿨럭! 쿨럭!”

마법에 이어 스키마의 위력까지 선보인 그녀는 만족한 듯 손을 탁탁 털었다. 12살 이후부터 스키마의 수련은 중단했지만 그럼에도 인간을 초월한 움직임이었다.

“이걸로 빚은 갚은 거야. 그럼 내일 보자. 호호호!”

에이미가 통쾌한 듯 웃으며 멀어지자 시로네는 약이 바짝 올랐다. 이토록 밉살스러운 여자애는 살아생전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계급이 깡패고 실력이 전부였다. 분함을 삭인 시로네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숲을 빠져나왔다. 내일부터 그녀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했다.

\* \* \*

마지막 교시인 5시 종이 울렸다.

물리 기초 수업이 끝났다. 가방을 챙겨서 강의실을 나서는 시로네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벌써 열흘째 에이미의 빵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였다.

교내 상점에서 빵과 커피를 샀다. 오젠트 가문에서 지원해 주는 후원금에 비하면 티도 안 나는 가격이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에이미가 노리고 있는 점이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잘못도 자기가 먼저 해 놓고서.”

커피가 쏟아지지 않게 걸어가는 건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래, 이것도 수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자. 커피가 흔들리지 않도록 걸음걸이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럴 리가 있냐고!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시로네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다.

“어머! 저기 간다, 순정남.”

“오늘도 그녀에게 고백하러 가나 봐. 정말 저 정도면 병이다, 병.”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시로네를 가리키며 수군거렸다.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것이었다.

에이미에게 빵과 커피를 대령하면 그녀는 우아한 자세로 받아 들고 도서관으로 들어가 버렸다.

벌써부터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로네가 에이미를 짝사랑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런 소문이 흥행할수록 에이미는 더욱 매몰차게 시로네를 대했다.

6년 전의 한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풀어 대는 에이미의 모습에 시로네는 여자에 대한 환상이 깡그리 깨지고 말았다.

“얘! 저기 온다, 너의 왕자님.”

“왕자는 무슨. 몸종이지.”

에이미는 세리엘과 함께 도서관 정문에서 시로네를 기다렸다. 주변에는 기상천외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찾아온 학생들로 북적였다.

시로네가 계단을 올라오자 지켜보던 여학생들이 깔깔대며 박수를 쳤다. 시로네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세리엘이 안쓰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근데 좀 불쌍하다. 이 정도까지 하는데 너도 이만 받아 주는 게 어때?”

에이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어? 무슨 소리야? 내가 쟤를 왜 받아 줘?”

“내숭 떨기는. 솔직히 남자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는 애가 시로네가 사다 주는 커피랑 빵은 꼬박꼬박 챙겨 가지고 가잖아. 알페아스의 여신에게 드디어 짝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수군거리는 애들도 있다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어디까지나 시로네를 자극하는 작전이었는데 일이 심상치 않게 흐르는 듯했다.

사실은 일주일 정도를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찌 된 성격인지 시로네는 한 번도 불쾌한 티를 내지 않고 꼬박꼬박 빵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었다.

‘으! 이러다가는 진짜 이상한 소문으로 얽히겠어. 이제 그만해야겠다.’

시로네가 에이미에게 빵과 커피를 건네주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한 방울의 커피도 흘리지 않는 정성이 갸륵했다. 물론 완벽한 착각이었고 당사자 간의 골은 깊어질 뿐이었다.

“선배님, 여기 커피요.”

“에잇! 정말 귀찮게!”

에이미는 손을 치켜들었다. 얼토당토않은 착각을 되돌리려면 무안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팔을 때려서 커피를 쏟아 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면 시로네는 여태까지 차인 수많은 남학생들과 똑같이 될 것이고 이상한 소문도 가라앉을 것이다.

“누가 이딴 걸 가져오래?”

에이미가 손을 휘두르자 학생들의 눈에 커졌다. 하지만 예상했던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다.

에이미는 커피를 노려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다.

‘차라리 싫은 티라도 내든가. 바보야? 멍청이야? 남자가 배알도 없나?’

예상치도 못한 양심의 가책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로네의 강점이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런 태도가 에이미에게 죄책감을 들게 만들엇다.

“저기 선배님, 여기 커피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클래스 포에 안착한 에이미였기에 알고 있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이 시로네에겐 너무나 낭비적이라는 것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적잖이 미안해졌다. 어차피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남자를 피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귀찮았을 뿐이었다. 실력도 없는 주제에 귀족이랍시고 콧대를 세우는 애들이 체질상 맞지 않았다.

‘알아서들 생각하라지. 나만 아니면 되니까 뭐.’

에이미는 빵과 커피를 건네받았다. 그러자 마치 공연을 관람하듯 사방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앞으로는 필요 없으니까 이딴 거 사 오지 마! 알았어?”

“네? 아, 네.”

이것으로 그녀의 분이 풀린 것인가?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시로네는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이미의 발언은 학생들에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받아 줬다! 에이미가 시로네의 마음을 받아 줬어!”

“커피도 필요 없다고 하잖아. 그냥 와도 된다는 얘긴가?”

에이미는 대꾸하기 싫다는 듯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세리엘이 후다닥 뒤를 따라가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야! 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진짜라면 좋은 일이지만, 너 정말 그런 뜻으로 한 얘기야?”

“아, 몰라! 알아서 생각하라 그래. 할 일들 더럽게 없나 보네. 어차피 난 졸업반 가면 그만이야. 유치한 장난은 저들끼리 하라고 하셔!”

시로네는 도서관의 계단을 내려오며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다. 10일간의 고행. 솔직히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내일부터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도서관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야호! 책 한 권은 더 읽을 수 있겠다!”

에이미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로네. 그런 착각에 빠진 남학생들이 시로네가 뛰어가는 모습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11시.

에이미는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지만 도서관만큼은 좋아했다. 남의 연애사나 쑥덕대는, 자신보다 남이 더 중요한 사람들과 어울리느니 이곳이 훨씬 나았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임에도 도서관은 여전히 학생들로 넘쳐 났다. 이들에겐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 따위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경주마들이었다.

그들을 관찰하고 있노라면 잡생각에 빠져드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걸 깨닫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클래스 포의 1등이었고 역전당할 것이란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세리엘이 고개를 돌렸다.

“어? 왜 책 덮어? 벌써 들어가게?”

“응. 오늘 좀 심란하네. 그냥 푹 쉬고 내일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지 뭐.”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아니야. 나 때문에 너까지 쉴 필요 없어. 내일 보자.”

“그래, 그럼. 잘 가. 내일 꼭 일찍 일어나고.”

에이미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겼다. 6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유일하게 친구로 지내는 포트리스 세리엘. 여느 또래와 다를 바 없는 수다쟁이지만 할 때는 확실히 하는 아이였다. 성적 또한 클래스 포의 6등으로 졸업반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등수였다.

에이미는 어설픈 우정보다는 성숙한 경쟁을 즐길 줄 아는 세리엘이 좋았다.

친구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어 준 에이미는 열람실을 나섰다.

당직을 서는 사람 외에는 모두 퇴근을 해서 통로는 적막했다. 학생들이야 학교에 꿈이 있다지만 직원들에게는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일 뿐이었다.

에이미는 하루의 피로를 스트레칭으로 풀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다가 층계참의 어둠 속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백한 피부에 눈 밑에 드리워진 다크서클. 흑발의 머리가 뺨을 가리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에이미의 얼굴이 대번에 구겨졌다.

아르디우스 제이크였다.

귀족서열 제2계급이었고 가주는 왕성의 재정 집행관이었다.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특수성 때문인지 가문의 권력만큼은 제1계급 못지않다고 알려져 있다.

제이크의 성격은 거만하고 까칠했다. 하지만 에이미가 그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재능도 별로인 데다가 노력조차 하지 않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같은 클래스 포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제이크는 졸업반에 들어갈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블랙 매지셔라는 연구회의 회장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에이미가 생각하기에 블랙 매지셔가 연구하는 분야는 어떻게 하면 자신보다 잘난 학생들을 괴롭힐 수 있는가였다.

학교에서 승인한 연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비조차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열등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잘난 학생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서클이었다.

물론 대놓고 시비를 걸거나 돈을 뜯어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위 귀족의 자식이기 때문에 뒷골목 소인배처럼 행동하다가는 당장에 퇴학을 당하고 만다.

그럼에도 몇몇 학생들이 블랙 매지셔에 당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에이미, 오늘은 일찍 끝났군. 자정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는데.”

“네가 날 왜 기다려? 그렇게 할 일이 없니?”

“너무 그러지 마. 네 소문 들었어. 시로네라는 까마득한 호배 놈에게 마음을 열었다지?”

에이미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제정신인가? 다른 곳도 아니고 도서관까지 찾아와서 그딴 한심한 얘기나 하고 있다니.

제이크가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밀었다. 에이미는 향기만으로 알 수 있었다. 귀족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향고양이의 커피였다.

“따듯하게 데워 놨어. 천하의 에이미라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허접한 커피로 입을 더럽혀서야 되겠어?”

에이미는 커피를 바라보다가 황당한 듯 고개를 쳐들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다시피 구애하는 거야. 우리 가문의 권력은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도 왕성의 재정을 담당하게 될 거야.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는 바로 내가 아닐까?”

“미안한데, 나는 도서관에서 사적인 잡담은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는 장소도 틀렸고 시기도 틀렸어. 아,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사람도 틀렸다는 거야. 난 네가 싫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서로 조심하자.”

에이미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자 제이크가 벽을 짚으며 길목을 가로막았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무 부드럽게 대했나 보군. 나에게도 가문의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너도 마찬가지잖아? 카르미스 가문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아득바득 공부하는 거 아냐? 우린 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

에이미는 코웃음을 쳤다. 아르디우스 가문이 얼마나 잘났든 간에 그들의 입방아에 함부로 오르내릴 카르미스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제이크의 말하는 본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돈이나 세는 수전노 주제에.”

“뭐야?”

“우리 집안은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자는 주의거든? 아버지 따라서 돈이나 세겠다는 게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너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제이크의 눈에 핏줄이 섰다. 제1계급이라도 자신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왕실 재정 집행관이란 말이다. 세상만사 돈이면 끝난다. 철없이 날뛰는 건 에이미였다.

“카르미스 가문이 그렇게 잘났나? 말로만 제1계급이지 현역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지? 우리 가문의 힘이면 카르미스 정도는 돈으로 말려 죽일 수 있어. 어때? 못 믿겠으면 한번 해 볼까?”

에이미는 제이크의 탁한 기운을 느끼고 오싹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끝없이 남을 괴롭힐 수 있는 남자였다. 비로소 하루 동안 심란했던 이유를 깨달았다.

“후우. 덕분에 알았네. 어째서 커피를 받았는지.”

“뭐야?”

“넌 시로네하고 달라. 한마디로 겁쟁이라는 거야.”

“하하! 내가 그 허접한 자식보다 겁쟁이라고? 지금 당장 확인시켜 줄까?”

“뭔가 하고 싶어 죽겠나 본데, 할 거면 빨리 좀 해. 시간 아깝게 나불대지 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제에 눈에 힘이나 주고 있으면 겁먹을 줄 알아?”

에이미는 제이크의 머그잔을 후려쳤다. 값비싼 커피가 벽면에 뿌려졌다. 머그잔이 계단에 찍혀 와장창 깨져 나갔다.

## [24] 차가운 소년과 뜨거운 소녀(3)

제이크는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다. 에이미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이나 기다린 노력이 모욕을 당했다.

“너 따위 계집애가……! 큭!”

제이크는 입을 다물고 움츠러들었다. 에이미는 이미 스피릿 존에 들어간 상태였다. 아마도 사방식의 타깃형.

“너 따위 계집애? 말만 번지르르한 주제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렇게 열 받으면 덤벼 봐. 지금 당장 불로 태워 버릴 테니까.”

제이크는 이를 뿌드득 갈았다. 공부만 들이파는 모범생으로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다. 그녀 또한 어린 나이부터 뒷골목을 전전한 악동이었던 것이다.

“이 시간에 마법 사용은 규정 위반이야.”

“마법은 네가 먼저 사용했을 텐데? 저 사향고양인지 뭔지 하는 것을 데우고 있는 동안 말이야.”

“미친! 그것과 사방식이 같다고 생각……!”

“하하!”

에이미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고작해야 이런 소인배였다. 막상 전력을 개방하면 덜컥 겁을 집어먹는 소인배. 그녀가 만난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랬다.

“내가 시로네의 커피를 받아 준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아이는 무엇이든 스스로 책임지는 거 같거든. 너처럼 가문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그딴 소리 지껄이기 이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불태워 버리겠어. 흔적조차 남지 않을 거야.”

제이크는 확신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카르미스 가문의 홍안.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날 죽이면…….”

“상관없어. 나 또한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지니까.”

제이크는 어금니를 부러지도록 깨물었다. 이토록 심한 굴욕감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홍안이 내지르는 위압감 앞에서는 천하의 망나니인 제이크라도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다.

에이미의 사방식에 포착당한 상태였다. 클래스 포의 1등이라면 거의 절대적인 확률로 자신을 불태울 수 있을 터였다.

“두고 보자, 건방진 계집!”

제이크는 이를 뿌드득 갈며 성큼성큼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야 홍안이 빛을 잃었다. 잠시 비틀거린 에이미가 눈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짜증 나. 재수 없어.”

오랜만에 쉬려고 했더니 거지 같은 인간을 만나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짜증 났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어째서 달라붙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저런 놈들뿐인지. 그녀는 자신의 성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에이미의 입에서 풋 하고 웃음이 터졌다.

“하긴, 문제가 많긴 하지.”

갑자기 시로네에게 미안해지는 에이미였다.

\* \* \*

에이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시로네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있다가 없으니까.’라는 말이 있다. 에이미에게 빼앗긴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자 공부가 더욱 즐거워졌다.

학교에서 최고로 콧대 높은 소녀와 스캔들을 터뜨린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려야 했지만 도서관에서만큼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학구열이야말로 알페아스 마법학교를 명문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오늘도 수업을 끝마친 시로네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러다가 교사 숙소 근처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에이미의 친구인 포트리스 세리엘이었다. 화장실이 급한지 안절부절못하고 서성거리는 모습에 시로네는 발길을 돌렸다.

통합 수업 시간에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개인적으로는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자신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에이미와 달리 항상 응원의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엇을 응원한다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감이 오지 않았다.

시로네가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한 세리엘이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헐레벌떡 뛰어오기 시작했다.

“선배님, 안녕하세…….”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세리엘이 다짜고짜 시로네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는 거냐고! 이런 줄 알았으면 에이미를 보내지 않아도 됐잖아!”

시로네는 고개를 갸웃했다. 일과 끝나고 도서관으로 직행하는 건 그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말을 해야 알죠.”

“이것 좀 읽어 봐! 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세리엘이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다. 시로네는 그것을 말없이 받아 들고 펼쳐 보았다. 블랙 매지셔라는 발신인이 보낸 짤막한 경고문이었다.

30분 전.

도서관으로 향하는 에이미와 세리엘의 앞을 한 남자가 가로막았다.

클래스 파이브의 학생으로 23살이 넘은 장기 유급생이었다. 1년 전만 해도 같은 클래스였기에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음침한 성격이라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계시군요.”

능글맞게 존대를 하는 남자의 태도에 에이미는 콧방귀를 뀌며 걸음을 옮겼다.

“바쁘니까 비키세요. 할 얘기 없습니다.”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한때는 동급생이었는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당신에게 동급생이 나 하나던가요? 클래스 파이브를 거친 학생만 수백 명은 될 테니까 다른 애들을 찾아보시죠.”

나이를 고려해 존대를 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의 가시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이 남자가 싫었다. 클래스 파이브라면 재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적당한 위치에 안주하면서 여자 후배들이나 건드리는 인간 망종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겠는가?

“하하!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군, 에이미.”

에이미의 눈에 독기가 차올랐다.

“뭐야? 지금 뭐라 그랬어?”

나이를 고려해서 대우를 해줬더니 아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서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태연하게 쪽지를 건넸다.

“보스께서 너를 좀 보자고 하시더군.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왕자님을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왕자님? 무슨 소리야?”

에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쪽지를 빼앗아 읽어보았다.

시로네를 데리고 있다. 남자구실 못 하게 만들어 버리기 전에 6시까지 14훈련장으로 와라. 선생에게 알리면 평생 후회할 일이 벌어질 테니 알아서 하도록.

블랙 매지셔.

그러고는 곧바로 쪽지를 구겨 버렸다.

“어쩌라고? 시로네는 나랑 아무 관계도 아니야. 설령 상관이 있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 말에 따를 거 같아?”

“후후,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난 그저 전령일 뿐이야.”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드러내며 유유자적 멀어져 갔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에이미는 쪽지를 바닥에 던져 버렸다. 그것을 주워 든 세리엘 또한 내용을 읽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블랙 매지셔.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불량 서클이었다.

“에이미, 어떡하지? 이것들 진짜 악질이야. 저번 달에 타이라가 자퇴한 이유도 얘들 때문이라는 말이 있던데.”

“타이라가?”

클래스 포의 동급생 타이라는 졸업반 수준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던 실력자였다. 그런 그녀를 협박했다면 다수가 덤볐거나 비겁한 수를 쓴 게 틀림없었다.

“일단은 가 봐야지. 어찌 됐든 시로네가 붙잡힌 건 나 때문이니까.”

“차라리 선생님에게 말씀드리자. 시로네도 걱정되지만 너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

“선생님? 음…….”

에이미는 고민했다. 자신의 과거야 그렇다 쳐도 시로네에게는 남들에게 밝혀지면 곤란한, 출신의 비밀이 있었다.

사건이 커지면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것이고 시로네의 학교생활은 끝장날지도 모른다. 귀족들의 특권 의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였기에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먼저 가 볼게. 만약 7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선생님에게 보고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알려야 된다니까?”

“미안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돌아오면 다 말해 줄 테니까, 응?”

언제나 당당했던 에이미가 이런 식으로 부탁하자 세리엘은 당황스러웠다. 그녀와 사귀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럼 나하고 같이 가. 몇 명이 있을지 모르잖아?”

“너라도 남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줘야지. 걱정 마. 아마도 리더는 제이크일 거야. 그 인간의 실력으로는 날 어쩌지 못해.”

에이미의 천재성은 누구보다 세리엘이 잘 알고 있었다. 졸업반이라는 장벽에 막혀 있을 뿐이지 엄밀히 따지자면 같은 클래스 포라도 수준의 차이는 천차만별이었다. 에이미는 그중에서도 선두를 놓친 적이 없는 실력파였다.

“알았어. 정확히 1시간이야. 7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무조건 선생님에게 말한다.”

“응. 그럼 너만 믿고 갔다 올게.”

세리엘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시로네는 황당했다. 블랙 매지셔라는 불량 서클이 존재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에이미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니.

“결국 저 때문에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나도 몰라! 에이미가 무조건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야. 도대체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

시로네는 알 것 같았다. 1시간의 유예를 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또한 그 행동의 원인에는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려는 배려가 깃들어 있었다. 친구인 세리엘을 전령으로 남겨 둔 건 탁월한 판단이었다.

“가 봐야겠어요! 선배님은 에이미 선배님이 말한 대로 해 주세요.”

시로네는 14훈련장으로 달렸다. 약속 시간까지는 30분이나 남았으나 거리가 문제였다. 14훈련장은 실전 전투를 하는 곳이라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풍경이 흔들리면서 건물들이 순식간에 뒤편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세리엘이 옆구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달려서 언제 가려고 그래? 차라리 나도 같이 가.”

마법사의 필수 마법인 단거리 순간 이동이었다.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사용 금지지만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펑펑펑펑 터지는 파공음에 학생들이 위를 올려다보았다. 시로네를 껴안은 세리엘이 10미터 간격으로 점멸하며 산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산의 초입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구보로 산을 탔다. 순간 이동은 효율만큼이나 위험도가 높아서 산 속에서 시도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은 6시가 되기 전에 14훈련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보이지 않았다. 블랙 매지셔는커녕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에이미! 에이미!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없지?”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게 아닐까요? 쪽지에 장소가 노출되었으니 선생님에게 보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속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 에이미는?”

블랙 매지셔의 치밀함을 깨달은 시로네는 확신했다. 그들은 진짜로 사고를 칠 생각이었다.

“지금 산을 내려가서 선생님에게 말하세요. 제가 없으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에이미가 7시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정이 있다고 했어. 나중에 에이미가 실망하면 어떡해?”

“그 사정이 저 때문이니까 빨리 가라구요!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세리엘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에이미의 절박했던 표정이 시로네 때문이었다니.

“진짜야? 너희들 대체 무슨 사이야? 정말로 나 몰래 사귀고 있는 거 아냐?”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늦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아, 알았어! 너도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있어!”

세리엘은 방향을 틀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어쨌거나 에이미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면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시로네는 산속으로 들어가 에이미를 찾아 헤맸다. 다른 귀족들과 달리 반평생을 산에서 보낸 그였기에 울창한 숲은 오히려 친숙했다.

스피릿 존을 최대한 확장시켜 에이미의 흔적을 탐색했다. 10분 정도 산을 타자 마침내 첫 번째 발자국이 공감각을 통해 전해져 왔다.

“여기다!”

하지만 더 이상의 흔적은 없었다. 이곳을 기준으로 수풀이 누워 있는 것으로 보아 하늘로 날아오른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에이미를 찾을 방도는 없었다. 시로네는 난감한 기분으로 한참이나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저편 하늘에서 파공성이 터졌다. 시로네의 고개가 소리의 근원지 쪽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 [25] 차가운 소년과 뜨거운 소녀(4)

에이미의 얼굴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부에서 손가락 한마디의 간격을 두고 올라가고 있었다. 공기를 압축시켜 국소 장벽을 만드는 에어 실드라는 마법이었다.

“약속 장소를 바꾸자마자 기습이라니. 치졸한 건 여전하네.”

에이미는 착지했던 자세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에게 쪽지를 건넸던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후후, 나름대로 너한테는 쌓인 게 많거든. 순순히 당해 줬으면 에이미의 첫 키스를 갖는 영광을 누렸을 텐데.”

“생긴 것만큼 더러운 소리는 그만하고, 시로네 어딨어?”

에이미를 중심으로 하늘에서 5명의 인영이 떨어졌다. 그중에는 블랙 매지셔의 리더인 제이크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가 의외라는 듯 말했다.

“정말로 혼자 오다니. 그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나 소중한 사람이었나?”

“무슨 헛소리야? 너희들 따위는 나 혼자서도 충분해. 시로네 어디 있냐니까?”

“하하하! 그 비실비실한 놈은 당연히 도서관에 가 있겠지. 자기 여자가 이제부터 무슨 꼴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에이미는 그제야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인질이 없다면 저런 놈들은 자신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날 불러냈다는 건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겠지?”

“대단한 자신감이군. 하지만 쉽게 될까? 블랙 매지셔를 우습게 보다가 골로 간 놈들의 명단을 보면 그런 말 못 할 텐데.”

“학습 능력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쫑알쫑알 말이 많아.”

에이미는 스피릿 존에 들어갔다. 사방식의 타깃형으로 형태를 변형시키자 전날의 상황을 떠올린 제이크도 즉각적으로 사방식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제공격을 놓친 대가는 컸다. 에이미는 제이크를 무시하고 뒤편의 일원들부터 노렸다.

장기인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시전하자 남자들이 황급히 몸을 날렸다. 스트라이크 계열은 마법에 물리력을 더하기 때문에 에어 실드로도 막아 내기가 역부족이었다.

에이미는 스피릿 존을 빠르게 회전시켜 타깃을 겨냥했다. 하지만 인간의 움직임은 변수가 많아서 연습처럼 100퍼센트 정확도를 낼 수는 없었다. 스피릿 존이 회전, 역회전을 반복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제이크가 바람을 일으켜 하늘로 솟구쳤다. 에이미의 주력 기술이 불이라면 제이크는 바람이었다. 어차피 대인 전투에서는 하나의 필살기가 승부를 가르기 마련. 가장 자신 있는 윈드커터를 시전하자 날카로운 바람이 공기를 가르며 쇄도했다.

에이미는 윈드커터의 접근을 느끼지 못했다. 타깃형의 십자가 형태는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전방위를 감지할 수 있는 구체에 비해 수비력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공중에서의 공격은 치명적인 사각이었다.

에이미는 스피릿 존으로 침투하는 윈드커터를 감지하고 즉각 몸을 틀었다. 하지만 이미 1미터도 남지 않은 거리였다.

블랙매지셔가 쾌재를 부르려는 순간 그녀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르게 뒤틀렸다. 윈드커터가 스치며 붉은 머릿결을 베고 지나갔다. 제이크는 경악했다.

“뭐지? 어떻게 그걸?”

“스키마라는 거다, 자식아.”

에이미는 타깃형의 십자가를 지대공의 각도로 들어올렸다. 그러자 제이크도 바람을 일으켜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타깃팅 속도는 고급반 최고였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대포알만 한 불덩어리가 쏘아졌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제이크는 에어 계열의 상위 마법인 에어 슈트로 몸을 감쌌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에 얻어맞은 제이크는 굉굉한 포성을 들으며 땅으로 추락했다.

“으아아! 짜증 나는 계집애!”

그리고 벌떡 일어나 에이미를 노려보았다. 불길이 에어 슈트의 산소를 빨아들이며 이글거렸다. 지옥의 화신처럼 서 있던 제이크가 에어 슈트를 폭발시키자 불꽃이 떨어져나가면서 꽃잎처럼 추락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의 물리력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배 속이 뒤틀렸다.

“죽여 버리겠다.”

“호호호! 그딴 실력으로 날 이기려고 했니? 졸업은커녕 낙제하기 딱 좋은 수준이네. 허튼 곳에다 정신을 파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카르미스 가문의 천재 에이미. 과연 명성만큼이나 실력의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제이크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과연 그럴까? 자신만만한 것도 여기까지다.”

허세가 아님을 증명하듯 블랙 매지셔의 일원들이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에이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처음 접해보는 이상한 감각이 치밀었다. 무언가가 머릿속으로 들어와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다.

에이미는 분노를 담아 제이크를 노려보았다.

“이건…… 안티매직?”

“하하하! 놀랐나? 이게 바로 블랙 매지셔의 장기다. 또한 수없이 많은 재능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마법이기도 하지.”

“치졸한 자식.”

정말로 치졸한 짓이었다. 교칙으로 금지된 마법인 안티매직. 하지만 금단의 선을 넘기만 하면 학생 수준에서는 아킬레스건을 물어뜯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5명의 공명 파동이 에이미의 스피릿 존을 마구잡이로 헝클어뜨렸다. 누군가가 머리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 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에이미는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존을 유지했다가는 미쳐 버릴지도 몰랐다.

승자의 미소를 머금은 제이크가 에어 체인을 시전했다. 공기로 만든 사슬이 에이미의 팔다리를 칭칭 감아 들어 올렸다.

공중에서 포박된 에이미는 사력을 다해 버둥거렸다. 하지만 스키마를 사용하고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속력이었다.

“후후, 드디어 잡았군. 까칠한 암코양이를.”

제이크는 손칼을 꺼내 들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아직도 며칠 전의 일을 잊지 않고 있거든. 마음 같아서는 뭐라도 저질러 보자는 심정이야.”

“경고하는데, 나에게 상처 하나라도 냈다가는 너도 무사하지 못할걸?”

“푸하하하! 그 대단한 에이미도 궁지에 몰리니 가문 타령인가?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똑같다고. 어차피 너도 가문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계집애일 뿐이야.”

“나도 말했을 텐데? 너 같은 쓰레기랑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너는 반드시 내 손으로 해치워 버릴 테니까.”

제이크의 눈에 살기가 차올랐다. 이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그녀의 태도가 거슬렸다. 손칼을 들이민 손이 당장이라도 찌를 듯 부르르 떨렸다.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야. 얼굴에 낙서를 해 줄까? 추녀가 되면 귀찮게 따라다니는 놈들도 없을 테니까.”

정상이 아닌 제이크의 눈동자에 에이미도 조금은 두려워졌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열등감. 그는 정말로 일을 치를 생각이었다.

제이크는 반대편 손가락으로 칼날을 붙잡았다. 화염 마법이 능숙하지는 않지만 쇠를 달구는 정도는 쉬운 일이었다. 칼날의 안쪽에서부터 시뻘건 조명이 떠올랐다.

“이렇게 하지. 오만한 에이미는 혼자서 마법을 연구하다가 눈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마법학교를 자퇴하고 평생을 패배자로 살았다. 어때, 멋진 시나리오 아냐?”

제이크는 당장이라도 쇳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칼날을 보여 주었다. 갑자기 확 들이밀자 에이미는 고개를 틀었다. 머리카락이 타다닥 타들어 갔다.

“호오! 에이미도 겁에 질릴 때가 다 있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한 번만 봐 달라고 애원해 보라고. 눈물을 흘리면 더 좋고. 그런 다음에 학교를 떠나겠다고 약속하면 눈만큼은 지켜 주지.”

에이미는 타이라가 자퇴한 이유를 깨달았다. 교칙의 빈틈을 파고든 반칙 성향의 마법으로 그녀를 제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굴욕을 준 것이었다.

단지 자신들이 열등하다는 이유로,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자행했다. 분노에 차오른 카르미스의 홍안이 붉은빛을 발했다.

“할 수 있으면 해 봐. 하지만 너희들이 무사할 것이란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제이크는 피식 웃었다. 한두 번 들어 본 말이 아니었다. 여태까지 쫓아 버린 애들도 알아주는 귀족 가문에 고집은 쇠심줄 같았다. 하지만 칼날을 들이대는 순간에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한번 꺾이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지켜보며 제이크는 마음속의 열등감을 달랬다.

“자, 그러면 슬슬 들어가 볼까나?”

손칼이 에이미의 왼쪽 눈으로 천천히 접근했다. 에이미는 버틸 생각이었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가 전해져 오자 어쩔 수 없이 눈꺼풀이 질끈 닫혔다.

“기다려, 이 나쁜 자식들아!”

갑자기 들린 고함소리에 블랙 매지셔의 일원들이 어깨를 들썩였다. 주먹을 쥐고 씩씩대는 시로네를 발견한 에이미가 눈을 크게 떴다. 제이크도 의외라는 표정으로 돌아섰다.

“호오! 백마 탄 왕자님의 등장인가? 아쉽군, 조금만 늦게 왔으면 네 여자가 더 예뻐질 수 있었는데 말이야.”

“선배님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글쎄? 뭘 하려고 했을까나? 애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이 멍청아! 여길 혼자 오면 어떡해!”

에이미가 소리쳤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녀의 말보다 눈앞의 상황에 기가 막혔다.

사지가 구속된 소녀를 나이 먹은 학생들이 둘러싸고 위해를 가하고 있었다. 제이크라는 놈은 그것도 모자라 손칼을 휘두르며 낄낄대는 상황이었다.

‘나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극심한 분노를 느낀 시로네는 바닥에 있는 나무둥치를 집어 들고 소리쳤다.

“선배님을 풀어 줘!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푸하하하! 지금 들었냐? 그딴 나무 쪼가리로 뭘 하겠다는 거야?”

조롱 섞인 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로네는 그들에게 돌진했다. 어쨌거나 검술 대결에서 리안도 이겨 본 솜씨였다. 최대한 공감각을 활용해 시간을 끌다 보면 선생님들이 도착할 거란 계산이었다.

“간다!”

“얘들아, 온단다. 문 열어 드려라.”

시로네가 달려오는데도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빨리 와 주기를 바라는 표정이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로네는 망치에 얻어맞은 듯 정신이 흔들렸다.

“크윽!”

“바보야! 스피릿 존을 없애! 안티매직이란 말이야!”

안티매직? 에이미의 말에서 시로네는 깨달았다. 클래스 포의 1등을 도맡아 하는 그녀가 무뢰배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힌 이유를.

가히 엄청난 충격이자 진동이었다. 5명이 동시에 일으키는 공명 파동이 정신을 뒤흔들었다.

시로네는 고개를 들었다. 세상이 물에 번진 듯 색상들이 이리저리 뒤섞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멀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선배님, 지금 구해 줄게요.”

“오지 말라니까! 그러다가 평생 마법을 못 쓰게 돼! 바보가 된다고!”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스피릿 존에서 나와! 빨리!”

시로네가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그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시로네는 이를 악물고 스피릿 존을 유지했다.

‘안 돼! 버텨야 해. 더 많은 프레임이 필요해.’

강력한 의지를 따라 스피릿 존이 점차 사방식의 방어형의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랙 매지셔가 당황했다. 안티매직을 시전하는 게 버거웠다. 마치 무거운 바위에 깔린 듯한 기분이었다.

“뭐, 뭐야? 이거 왜 이래?”

시로네는 최대치까지 스피릿 존을 확장시켰다. 풀잎에 얹힌 이슬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지만 전심력을 다해 형태를 지켜갔다.

‘더 단단하게. 붕괴되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마침내 프레임이 연결되면서 스피릿 존이 안정성을 되찾아갔다. 그러자 시소게임으로 블랙 매지셔의 일원들이 하나둘씩 고통을 호소했다.

“큭! 어떻게 된 거야? 머리가 아파!”

그 순간 시로네의 눈이 번쩍 뜨였다. 사방식의 방어형이 완벽하게 완성되면서 거대한 구체가 입방면체로 조여들었다. 안티 매직의 고통이 사라지고 짱짱한 느낌이 밀려들었다. 금강석도 부숴버릴 것 같은 압박감이었다.

“으아아아아!”

안티매직을 발동한 5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듯 손가락조차 까닥하지 못했고 하나같이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안티매직을 금지시킨 이유였다. 무생물에 가까울 만큼 정신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티매직은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되어버린다.

에이미는 발버둥 치는 블랙 매지셔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5명의 안티매직을 혼자서 깔아뭉갰다. 그것도 입학 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클래스 세븐의 학생이.

시로네는 마치 발바닥 아래에 작은 도마뱀이 깔려 있는 기분이었다. 꿈틀대는 감각은 느껴지지만 기껏해야 그것뿐인 저항. 시간이 지나자 그런 저항조차 사라졌다. 정신이 붕괴되기 직전에 안티매직을 해제한 것이었다.

에이미는 화염 마법으로 에어 체인을 불태우고 바닥에 착지했다. 스피릿 존을 통해서 시로네의 스피릿 존이 어떤 형태인지 느껴졌다. 너무나 차갑고, 단단하며, 무거웠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시로네는 여전히 매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한 걸음을 내딛자 제이크가 자신도 모르게 물러섰다. 시로네의 스피릿 존과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본능이 작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직경 15미터의 스피릿 존을 고작 뒷걸음질로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두 개의 스피릿 존이 중첩되자 제이크는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스피릿 존의 공감각은 거짓을 전하지 않는다. 사방식의 방어형. 88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입방면체가 시로네를 둘러싸고 있었다.

(1권 끝)

=======================================

# Volume 2

=======================================

## [26] 돈으로 살 수 없는 것(1)

블랙 매지셔.

제이크를 주축으로 6명의 문제아들이 만든 연구회.

제이크를 제외하면 번번이 진급에 떨어지는, 꿈도 미래도 없는 학생들의 모임이었다.

그들도 한때는 빛나는 인재로 주목받던 시절이 있었다. 다시 도전할 용기만 있다면 언젠가는 승리를 쟁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경쟁을 포기했다. 어찌 보면 냉혹한 경쟁 속의 유일한 낙오자들인 셈이었다.

“이럴 순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제이크는 고개를 저었다. 에이미라면 몰라도 갓 입학한 신입생에게 블랙 매지셔가 패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 진 게 아니야.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여태까지 제이크가 자퇴시킨 학생들은 시로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성적이었다. 결국 운이 나빴을 뿐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그런 날이 있지 않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클래스 포다. 안티매직으로 뒤통수나 치는 놈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다.’

시로네는 제이크의 살기를 읽고 긴장했다. 별 모양으로 바뀐 제이크의 스피릿 존이 공감각을 통해 느껴졌다. 마치 수백 명의 궁수가 활을 겨누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떡하지? 난 아직 마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안티매직은 스피릿 존의 힘 싸움이었기에 대응이 가능했지만 마법 전투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랐다.

공격 마법은 물론이고 방어 마법의 기본인 에어 실드조차 익히지 못한 시로네가 제이크를 상대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제이크는 양 손바닥 사이에 바람을 일으키고 압축시키듯 짓눌렀다. 그러자 공기가 원반의 형태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통나무도 가볍게 잘라내는 윈드커터였다.

“팔부터 가져가마. 그다음은 다리다.”

제이크가 윈드커터를 시전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를 붙잡고 돌려세웠다. 공감각으로 접근을 감지하는 것과 동시에 몸에 닿았다.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

붉은 눈동자를 치켜뜬 에이미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주먹이 턱을 후려치자 눈앞의 풍경이 흔들렸다.

“아욱!”

물리 공격이 쥐약인 마법사에게 스키마의 위력이 담긴 공격이 들어왔으니 스피릿 존이 버틸 재간이 없었다.

에이미는 제이크의 배에 올라타 연거푸 주먹을 내질렀다. 한 방의 위력이 마치 돌로 내리찍는 듯했다.

“날 어쩌겠다고? 다시 말해 봐, 이 자식아! 다시 말해 보라니까!”

제이크의 얼굴이 뽑혀 나갈 듯 좌우로 흔들렸다. 이대로 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에 시로네는 에이미에게 달려갔다.

“선배님, 그만하세요! 이러다 죽어요!”

“놔, 이 자식아! 날 우습게 봤겠다!”

“죽는다니까요!”

제이크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대화를 들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둔탁한 충격만이 들어오고 있었다.

‘죽는다고? 내가 죽어?’

죽음의 공포가 제이크의 정신을 깨웠다. 그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사, 살려 줘! 목숨만 살려 줘! 제발!”

에이미는 울컥 눈물이 샘솟았다. 하마터면 애꾸가 될 상황이었다. 여태까지 이딴 쓰레기 자식에게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도는 듯했다.

“절대로 용서 못해! 나쁜 자식!”

“선배님, 제발 그만!”

시로네는 사력을 다해 에이미를 끌어당겼다. 스키마의 인체 밸런스가 상당해서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분이었다. 온힘을 다해 끌어당기자 비로소 에이미가 뒤로 넘어가면서 시로네를 깔아뭉갰다.

“이제 충분해요, 선배님. 그만하세요.”

시로네는 거친 숨을 내쉬었다. 정신이 들자 말랑말랑하고 부들부들한 감촉이 팔에 전해졌다. 에이미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손을 뗐다.

“죄, 죄송해요!”

에이미는 반응이 없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간헐적으로 몸을 부르르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감정이 몸을 타고 전해오면서 시로네도 안쓰러운 기분이 들었다. 살그머니 허리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말했다.

“선배님, 저 때문에…….”

“아! 시원~하다!”

“아욱!”

에이미가 튕기듯 몸을 일으키면서 시로네의 아랫배를 엉덩이로 강타했다.

시로네는 복부를 움켜쥔 채로 돌아누웠다. 조금만 더 아래를 맞았어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급소는 피했지만 충격이 아래쪽으로 쏟아진 탓에 이마에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히히!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가벼운데.”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왕성했던 그녀가 시로네의 상태를 모를 리가 없다. 감정 표현에 서투른 그녀 나름의 친밀감의 표시였다. 또한 시로네가 본의 아니게 성공한 엉큼한 접촉을 눈감아 주는 대기였다.

“그나저나 이제 어쩌죠?”

시로네는 화제를 바꿔 블랙 매지셔에게 시선을 돌렸다. 정신없이 싸울 때는 몰랐지만 사달을 내고 보니 그들의 상태가 심각했다.

하나같이 코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었고 제이크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땅바닥을 기어 다녔다.

그들의 몰골을 살핀 에이미는 이쯤에서 덮어 두기로 했다. 마음 같아서는 퇴학을 시켜 버리고 싶지만 사건이 커지게 되면 시로네의 신분이 밝혀질 수도 있었다.

“내려가자. 저 자식들도 찔리는 게 있으니 앞으로는 조용히 지내겠지.”

“하지만 세리엘 선배님이 이쪽으로 올 텐데요?”

“뭐? 너 설마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야?”

“당연하죠. 선배님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저 혼자 와요?”

에이미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수모를 당한 거야 그렇다고 쳐도 승리의 대가는 챙길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벌써 보고가 끝났다는 말에 김이 샜다.

시로네는 진한 감동을 느꼈다. 에이미가 실망하는 이유는 자신의 비밀을 지켜 주기 위해서였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응?”

“저 때문에 혼자서 오신 거잖아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비밀 같은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요. 선배님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아니, 나는 그런 게…….”

에이미는 뺨을 긁적이며 시선을 피했다. 자유분방을 상징으로 하는 카르미스 가문의 분위기 속에서 한때는 방치당하는 기분을 느낀 적도 있었다. 사람의 정이 그리워서 뒷골목을 전전했다. 그런 그녀에게 시로네의 다정한 말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완전히 소화시킬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흥! 누가 너 때문이래? 이런 놈들은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그런 거야. 사실 평소부터 벼르고 있기도 했고. 제대로 걸린 거지 뭐.”

에이미의 뺨은 완전히 붉어져있었다. 시로네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다.

“크크크, 유치해서 못 봐 주겠군. 너희 같은 것들이 천재라고? 천만에. 너희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맹이들일 뿐이야.”

제이크가 나무에 손을 짚으며 일어섰다. 얼굴은 만신창이였지만 눈빛에는 독기가 가득했다.

에이미가 허리에 손을 짚으며 말했다.

“너 진짜 구질구질하다. 일어서지도 못하면 그냥 뻗어 있을 것이지. 변태도 아니고 나한테 맞는 게 그렇게 좋니?”

“푸하하하하!”

제이크의 마음속에 패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건 돈이다. 싸움에는 졌을지 몰라도 아직 막강한 자금력이 남아 있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야. 솔직히 말해 봐. 진짜로는 날 죽이지도 못하지? 자신 있으면 죽여 보든가. 내가 학교에 있는 한 너희들은 절대 졸업하지 못할 거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너희들을 파멸시킬 거야!”

시로네는 섬뜩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뒷골목을 휘어잡았던 에이미는 제이크 같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너를 죽여? 내가 너를 왜 죽여? 너 같은 자식한테 낭비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창창하잖아. 하지만 이건 알아 둬라. 죽이지는 못 해도 두들겨 팰 수는 있다는 걸.”

에이미가 주먹을 쥐고 다가오제 제이크는 움찔했다.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몸은 공포를 기억하는 법이다.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누가 뭐래니? 일어났으니 다시 맞아야지. 난 아직도 분이 안 풀렸거든.”

에이미가 요란하게 어깨를 돌리는 모습에 제이크는 울컥했으나 얼굴은 두려움에 일그러졌다.

끼이이이이이이!

하늘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이 밀려들었다. 시로네는 위를 올려다보았으나 남은 두 사람은 보지 않고서도 알았다.

순간 이동의 상위 마법인 공간 이동 특유의 소음이었다.

창공에서 별빛이 반짝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섬광이 급속도로 휘어져 시로네 일행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세리엘이 2명의 교사를 대동하고 착지했다.

에이미는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교사의 면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빙결 마법의 시이나와 화염 마법의 사드였다.

‘어휴, 하필이면.’

에텔라와 더불어 마법학교에서 가장 젊은 교사진인 그들이 이번 사건을 거볍게 처리할 리가 없었다.

“에이미!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세리엘이 울먹이는 얼굴로 에이미에게 달려왔다.

“응, 괜찮아. 내가 쉽게 당할 리가 없잖아.”

세리엘은 섬세한 성격답게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오른 눈을 살짝 가리듯 흘러내린 에이미의 앞머리가 고실하게 타들어 가 있었다.

예전부터 에이미의 예쁜 외모에 비하면 헤어스타일이 너무 복고풍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친구가 6년 동안 고수한 머리가 망가지자 가슴이 저렸다.

“머리는 왜 그렇게 됐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나저나 벌써 7시가 넘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시간 내에 도착하지도 못했어.”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사위가 깜깜해지자 사드가 화염 마법을 시전했다. 펑 하고 솟구친 불덩어리가 마치 작은 태양처럼 허공을 불태웠다.

‘이게 파이어 선 마법이구나.’

시로네는 하늘에서 빛나는 구체를 보고 감탄했다. 대낮처럼 주변이 밝아졌음에도 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열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책에서 읽은 기억에 따르면 파이어 선은 겉보기와 달리 고등 기술이며 주로 전쟁터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사드는 울상을 지으며 에이미에게 다가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에이미! 너처럼 뛰어난 애가 어째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여자에게만 약한 성격인 사드는 시로네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특히나 에이미라면 성적은 1등이고 가문도 제1계급인 데다 외모까지 1등이었으니 아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드의 태도에 혐오감을 느낀 시이나는 시로네에게 향했다.

“시로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줄래?”

“어, 저기, 그게…….”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이크의 말에 교사들이 고개를 돌렸다. 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이 설명을 하겠다니. 너무 얻어맞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 또한 제이크의 계산이었다.

징계 따위야 받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아르디우스 가문의 자금력이 필요한 학교는 절대로 자신을 내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시로네는 어떨까? 조금 전의 대화에서 비밀이 어쩌고 했던 것을 똑똑히 들었다. 게다가 그대로 덮어두려고 했던 에이미의 행동. 결국 켕기는 것이 있다는 얘기였다.

“제가 에이미를 불러냈습니다. 그녀의 실력이 월등해서 안티매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당한 대결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결국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하게 당한 건 우리 쪽입니다.”

시이나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니? 너희들은 교칙을 어겼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에이미가 피해자라면 어째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들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사건들 덮어 두려고 한 겁니다.”

에이미가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뭘 숨겼다는 거야? 네가 시로네를 납치했다고 협박했잖아!”

“하하! 그래서 우리가 납치를 했나? 아니잖아. 더군다나 시로네는 우리가 보낸 쪽지를 읽고서도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았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너, 너 이 자식…….”

에이미는 반박하지 못했다. 납치를 당하지 않은 시로네가 교사에게 보고도 없이 달려왔다는 건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사실을 말하자니 시로네의 비밀이 밝혀지게 된다.

## [27] 돈으로 살 수 없는 것(2)

제이크는 기고만장했다. 보라, 이것이 바로 어른의 싸움이다. 이 세상은 결국 독하고 더럽고 치사한 놈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다.

‘크크크. 잘 가라, 에이미.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너만큼은 끌어 내려 주마.’

“건방 떨지 마라, 제이크.”

시이나가 싸늘한 눈을 뜨고 말했다.

“오기 전에 세리엘에게 얘기는 들었다. 너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거야.”

“단정 짓지 마시죠.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운영진은 아니잖아요?”

“뭐야?”

“아르디우스 가문에서 얼마를 내고 있는지는 아실 텐데요? 제1계급 귀족 10명이 내는 지원금보다 많은데, 그런데도 퇴학시킬 수 있을까요?”

귀족 학교는 대부분 기부금 제도를 운영한다. 고가의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였다. 장비가 낙후되면 학생들의 성취도가 떨어지게 된다. 성적이 떨어지면 명문의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면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알페아스 마법학교는 건립한 지 30년밖에 되지 않은 신흥 명문으로 귀족들의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알페아스 마법학교 출신인 사드였다. 제이크의 가문에서 지원하는 돈이 사라진다면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시이나 선생님, 벌써부터 퇴학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일이 아닐까요?”

“아뇨. 제이크는 퇴학입니다. 퇴학시키지 못한다면 자퇴한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이크가 학교에 남는다면 교사인 제가 책임지고 옷을 벗겠습니다.”

사드는 시이나가 옷을 벗는 모습을 상상하다가 황급히 지웠다. 차가운 성격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마법적 자질만큼은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여자였다. 그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건 제이크의 퇴학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제이크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하하하! 학교를 그만둔다고요? 어디 해보시죠! 선생님이 나가는지 내가 나가는지 한 번 해보자고요.”

시이나의 어깨에서 서릿발이 피어올랐다. 빙결의 마법사답게 그녀의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선생님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도서관의 책은 어떻게 구입할까요? 훈련장을 개설하는 돈은? 값비싼 마법 장치들은? 결국 세상은 돈! 돈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고요!”

그 순간 시이나가 손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렸다. 제이크는 어리둥절하게 발밑을 둘러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냉기가 원을 그리며 지면 위를 질주했다.

“큭!”

대기 중에서도 바람을 냉각시키는 아이스 토네이도라는 것을 깨달은 제이크는 몸을 웅크리며 얼굴을 가렸다.

쩌저저저저저적!

냉기의 회오리가 승천하며 제이크를 가두었다. 공기가 빙결되면서 기다란 가시들이 수백 개나 튀어나왔다.

“으으으으!”

날카로운 고드름이 제이크의 얼굴, 어깨, 옆구리,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제이크는 거푸집에 갇힌 듯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우와! 대단하다.’

시로네는 진심으로 탄복했다. 마법사가 전능하다고 해도 분자 단위의 빙결 현상까지 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왕궁에서 탐내던 천재 마법사라는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다.

“학생 주제에 교사에게 훈계를 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

제이크는 이리처럼 콧잔등을 찡그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세상에 없다. 눈앞에 황금을 들이밀면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짐승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며 자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요? 대체 그게 뭐죠?”

“재능.”

제이크는 움찔했다. 시이나는 그에게 있어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차갑게 찌르고 들어왔다.

“품성. 인격. 신념. 지성. 우정. 노력. 의기. 더 말해줄까?”

제이크는 악을 지르고 싶었다. 어째서 이 여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일까? 그녀의 입을 막을 수만 있다면 돈을 얼마를 쏟아부어도 상관없을 듯했다.

시이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아이스 토네이도가 산산조각 터져 나갔다. 얼음 파편이 제이크의 얼굴을 후려쳤다.

“으으으으…….”

공포에 질린 제이크는 눈조차 뜰 수가 없었다. 얼굴이 박살 났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이 들었다.

“이제 알겠지, 제이크?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야.”

제이크의 멱살을 붙잡은 시이나가 그를 잡아당겼다.

“흐윽!”

“착각하지 마라. 학교는 돈을 받는 대가로 너희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학교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곳이야. 넌 그런 소중한 공간을 제 발로 걷어찬 거야. 학교를 떠나게 되면 아무도 너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을 거야.”

제이크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정말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시이나는 반드시 자신을 퇴학시킬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패배자가 되고, 결국 자신의 인생 또한 끝나고 만다.

‘끝났다. 나는…….’

사색이 된 얼굴에서 점차 소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울먹일 듯 인상을 찡그린 제이크는 시이나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서럽게 눈물을 쏟아 냈다.

“잘못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퇴학만 시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부터 진짜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시로네 일행은 숙연해졌다. 학생의 신분으로 세상 밖으로 쫓겨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무릎을 구부린 시이나가 제이크를 일으켜 세웠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진심으로 잘못을 빌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그만한 각오가 필요한 거야. 선생님이 네 편이 되어 줄 테니까 하나씩 해 나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로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도 결국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달려야 한다.

평민이면 어떻고 귀족이면 어떤가.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꿈 또한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일 테니까.

\* \* \*

블랙 매지셔의 일원들은 징벌방에 갇혀 치료를 받았다.

내일쯤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시로네 일행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 교사들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사드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시로네는 블랙 매지셔를 제압한 방법을 상세히 고했다. 예상했던 대로 교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어? 스피릿 존으로 안티매직을 짓눌렀다고?”

“네. 에텔라 선생님에게 들었거든요. 마법사의 안티매직은 정신력 대결이라 함부로 시전하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방어형으로 버텨 보려고 했던 거 같아요.”

에이미를 제외한 모두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물론 안티매직은 전공이 아니라면 온전한 효율을 내기 힘들다. 하지만 감안하더라도 5명의 동시 공격이었다.

시로네의 스피릿 존이 블랙 매지셔 전부를 합한 것보다 강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결과였다.

시이나는 시로네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눈꺼풀을 들어 동공을 관찰하더니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안티매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마법이야.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자칫하다가는 마법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강심장인 시로네도 시이나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듣자 가슴이 철렁했다. 확실히 당시에는 에이미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에이미는 슬그머니 시선을 회피했다. 시로네를 위험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니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당연했다.

시이나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어쨌거나 안티매직을 제압한 건 대단한 재능이었다. 내구력이 뛰어나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예상치 못했다.

반면에 사드는 못마땅했다. 에이미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시로네가 성공했다고 하니 속이 뒤틀렸다.

그런 마음을 담아 사드가 말했다.

“시로네, 어째서 바로 알리지 않았지?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보고를 했어야지. 너보다 훨씬 클래스가 높은 선배를 혼자 구하러 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시로네와 에이미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

시이나도 이번만큼은 사드를 말리지 않았다. 블랙 매지셔의 악행으로 학생이 자퇴한 상황이었으니 작은 의혹이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다.

시로네는 의중을 묻듯 쳐다보는 에이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라면 설령 비밀이 밝혀진다고 해도 원망스럽지 않았다.

에이미가 할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알았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시로네의 비밀이 누구보다 궁금한 사람은 세리엘이었다. 대체 두 사람은 언제부터 알고 지냈던 것일까? 아니, 그보다 에이미는 어째서 시로네를 감싸는 것일까?

“사실 시로네는…….”

자중의 모두가 이어지는 말을 기다리는 가운데, 에이미가 갑자기 해맑은 미소로 머리를 긁적였다.

“제 애인이에요.”

“뭐어어어?”

예상치도 못한 대답에 방이 떠나갈 듯 흔들렸다.

사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그쳤다.

“대체 언제부터? 너는 연애 같은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잖아. 더군다나 시로네는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신입생인데?”

“어렸을 적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곳에서 다시 인연이 이어진 거죠. 하하! 흔한 일이잖아요.”

에이미는 일부러 너스레를 떨었다. 이것으로 됐다. 어차피 그녀는 졸업반에 들어갈 것이고 수업 시간이 다르면 시로네와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다.

한동안은 학교가 떠들썩하겠지만 나쁜 일은 아니었다. 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귀찮게 쫓아다니는 남학생도 줄어들 테니까.

그녀가 생각하기에도 탁월한 임기응변이었다.

반면에 받아들이는 입장인 시로네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에이미는 대선배였고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장의 사태를 수습하려는 거짓말이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부담감이었다.

“그렇지, 시로네?”

에이미가 눈웃음을 지으며 돌아보았다. 억지로 웃는 티가 역력했다.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 네, 맞아요.”

“꺄아악!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완전 충격, 아니 감동이야!”

세리엘이 자신의 뺨을 다다다 때리며 말을 빨리했다.

“호호, 나는 예전부터 그런 줄 알았다니까! 어쩐지 요것이 시로네만 보면 의뭉을 떨더라니. 대체 언제부터 사귄 거야? 고백은 누가 먼저 했는데?”

에이미의 친구인 세리엘까지 믿어 버리자 교사들도 의심할 수 없었다. 연인 사이였다면 한창의 혈기로 블랙 매지셔를 쫓아간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다.

사드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시로네와 에이미는 거, 건전하게 사귀는 사이로서…….”

\* \* \*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이제 알페아스 마법학교에서 시로네와 에이미가 연인 사이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은 없었다. 블랙 매지셔의 악행으로 대자보가 붙은 탓도 있지만 수다쟁이 세리엘의 입에서 나온 무용담이 여심을 흔든 게 주효했다.

연인을 지키기 위해 홀로 적진에 침투한 시로네. 블랙 매지셔가 안티매직으로 응수했지만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고 에이미를 구출했다.

악당 두목 제이크는 시로네의 눈빛에 압도당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다는 후문. 달빛이 쏟아지는 산중에서 두 사람은 진한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 이야기의 골자였다.

“세리엘! 너 죽을래? 대체 무슨 소문을 어떻게 퍼뜨리고 다닌 거야!”

“깔깔깔! 왜? 대충 맞는 얘기잖아!”

“대충도 안 맞는 얘기지! 내가 언제 시로네랑 뽀뽀했어?”

“어머, 내숭은. 사귀는 사이라면서 뽀뽀정도는 했을 거 아냐? 각색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가 줘야 하지 않겠어?”

“네가 무슨 연극 작가니? 왜 남의 얘기를 멋대로 각색해?”

“잘됐지, 뭐. 그렇게 귀찮게 굴던 남자애들이 얼씬도 하지 않으니까.”

## [28] 돈으로 살 수 없는 것(3)

그 부분은 에이미도 만족스러웠다.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입술 도장까지 찍혔다고 소문이 났으니 남자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터였다.

“오늘은 어떡할 거야? 시로네는 언제 만나러 가는데? 응? 응?”

“몰라. 당분간 서로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어.”

에이미의 말투에서 서운한 느낌이 묻어 나왔다.

‘아무리 위장 연애라도 소문이 이렇게 났는데, 어쩜 그리 태연할 수가 있지?’

시로네의 목석같은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다. 공주병은 아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는 외모가 아니라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정말로 관심이 없는 듯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위장 연애라도 엄연히 공식적 커플이다. 자신은 여자라서 그렇다 쳐도 남자는 조금쯤 의식을 해야 할 게 아닌가?

“몰라! 나도 신경 안 쓸 거야. 할 일이 태산인데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 거야?”

“역시 서운한 거지? 하긴 시로네도 너무하더라. 이렇게 예쁜 애인을 방치하다니. 나라면 하루 종일 붙어 있겠구만. 오호라! 어쩌면 그런 부분이 에이미의 철벽같은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세리엘…….”

에이미의 눈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본 세리엘이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저었다.

“하하. 알았어. 이제 그만!”

에이미는 콧김을 내쉬며 분노를 내보냈다. 어떤 의미로는 시로네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엄한 곳에 정신이 팔리면 기껏 위장 연애까지 하면서 남자들을 쫓아 낸 보람이 없을 테니까.

“어머! 에이미, 저기 제이크 아냐?”

제이크가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얼굴에 덕지덕지 밴드를 붙였고 커다란 백 팩을 어깨에 짊어졌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블랙 매지셔는 2년간 근신 처분을 받았다. 자퇴한 학생들에게 잘못을 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이례적인 선처인 것만은 분명했다.

“여어! 오랜만이다, 에이미.”

학교에서 쫓겨나는 사람치고는 제이크의 얼굴이 밝았다.

“아직도 안 떠났냐? 하여튼 구질구질하기는.”

“크크크! 나쁜 짓을 워낙에 많이 했는지 인사할 곳이 많아서 말이야.”

“안 어울리게 개과천선이라도 한 거야? 아서라. 사람 성격이 어디 쉽게 변하겠어?”

“뭐 그렇지. 하지만 나 같은 놈도 믿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나쁜 짓도 못 하겠다.”

제이크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시이나가 위원회에서 고군분투했다는 얘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블랙 매지셔는 퇴학을 면치 못했을 터였다.

“그나저나 앞으로 어떡할 거야? 2년 쉬면 클래스도 떨어질 텐데.”

“자퇴한 애들에게 잘못을 빌어야지. 아마 용서해 주지는 않겠지만, 각오하고 있어. 모든 걸 되돌려 놓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나지 않겠어?”

에이미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제이크에게 당한 아이들은 대부분 제1계급 귀족인 데다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맞아 죽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재하지는 못했다.

제이크라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태도였다.

“그만 가 봐야겠다.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너는 졸업해 있겠군. 언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잘 있어라. 좋은 사랑하고.”

제이크가 손을 흔들며 돌아서자 에이미는 썩은 미소로 화답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제이크조차 시로네와 사귄다고 생각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쨌거나 초라하게 퇴장당하는 모습을 보니 같은 학생으로서 씁쓸하기는 했다. 잠시 생각하던 그녀가 무언가를 떠올리더니 제이크를 불렀다.

“야, 제이크.”

제이크가 뒤를 돌아보았다.

“2년 따위 금방 지나간다. 포기하지 마.”

“하하!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해. 돈이라면 얼마든지 빌려 줄 테니까.”

마지막까지도 돈 자랑을 하는 재수탱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이크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질질 짜기라도 했으면 주먹이 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2년이라…….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

에이미는 멀어지는 제이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최소한 2년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하지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실력이 없으면 평생 제자리에서 썩는 게 마법의 세계였다.

“세리엘, 나 결심했어.”

“응? 시로네 만나러 가게?”

“졸업반 진급 신청할 거야.”

“뭐? 벌써? 너무 빠르잖아?”

클래스 포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졸업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진급 시험에 떨어지면 그해에는 다시 지원할 수가 없기에 학기 초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다.

진급시험에 붙는다고 해도 졸업은 까마득하다. 졸업반이란 천재들이 모인 마법학교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법학교 졸업생들은 졸업반을 사회보다 더 치열했던 전쟁터로 회고한다. 학창 시절의 우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30명의 예비 마법사들이 생존경쟁을 치르는 곳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무한 경쟁 체제를 비판하지만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알페아스 마법학교는 국가 지정 기관이라 졸업하면 비공인 자격증이 나오기에 정식 마법사로 인정을 받는다. 한마디로 사회 전선에 곧바로 투입되는 ‘즉시전력감’이란 뜻이었다.

최악의 경우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넘나들어야 하는 만큼 졸업반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보는 게 어때? 아직 정원도 텅텅 비었고, 졸업반 수준이나 경향을 분석한 다음에 지원해도 늦지 않잖아?”

“아니, 머뭇거리고 싶지 않아. 지금은 앞만 보고 달리고 싶어.”

에이미의 고집을 아는 세리엘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천재성이 졸업반에서 어디까지 통할 것인지 기대감도 들었다.

“그래, 응원해 줄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먼저 올라가서 분위기 좀 살펴보고 있을게.”

“헤헤, 사실 나는 조금 불안해서 정보부터 수집할 생각이야. 아무튼 우리 열심히 하자.”

“그래. 나도 도와줄게.”

에이미는 후련한 마음으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꿈은 태양만큼 멀다. 하지만 태양만큼 찬란한 빛으로 자신을 밝히며 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한다.

‘반드시 최고의 마법사가 될 거야.’

눈엣가시(1)

고급반 통합 수업 시간이 돌아왔다.

선후배들이 교류를 나누는 와중에도 시로네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때로는 너무 튀는 것도 문제였다.

입학 테스트에서 교사들을 놀라게 하고, 첫 수업에서 사방식을 성공했다. 블랙 매지셔를 분쇄했고 선망의 대상인 에이미의 공식적인 애인이 되었다.

짧은 시간에 시로네가 남긴 족적은 상당했다. 그럼에도 고급반의 최하위인 클래스 세븐에 속해 있었으니 동급생들의 심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어라? 저기 있다, 에이미. 네 남자 친구. 시로네!”

세리엘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시로네는 인파를 헤치고 다가갔다. 에이미가 토라진 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호호호! 얘는. 아직도 선배님이야? 우리들이 남도 아니고 어차피 나이도 같은데 편하게 말 놔, 말 놔.”

세리엘의 뚜쟁이 기질이 발동하는 중에도 에이미는 쀼루퉁한 반응이었다. 언젠가부터 시로네가 무관심한 것을 넘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랑은 아니지만 카르미스 에이미라면 학교에서 마다할 남자가 없다. 한편으로는 시로네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수없이 고민도 했었다.

그런데 시로네는 어떠한가? 아예 친구보다 못 하다는 듯 선을 긋고 사무적인 대화 이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하하! 그래도 그럴 수는 없죠. 엄연히 선배님이신데요.”

시로네의 태연한 대꾸에 에이미는 하마터면 주먹을 사용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화를 내면 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편하게 불러. 사귀는 사인데 선배라고 하는 것도 우습고.”

에이미의 떨리는 목소리에 세리엘은 새삼 사랑의 힘을 깨달았다. 자존심 빼면 시체인 그녀가 시로네의 환심을 사 보겠다고 분을 삭이다니. 원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뇨, 괜찮아요. 그럼 수업 들으러 가 볼게요.”

시로네가 자리로 돌아가자 에이미는 분하고 창피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됐어! 알아서 해! 그렇게 싫으면 하지 말든가!”

세리엘이 멀어지는 에이미를 뒤쫓았다. 그녀가 보기에도 근래 시로네의 태도가 이상하기는 했다.

“에이미, 혹시 시로네랑 싸웠어?”

“몰라! 이제 신경 안 써! 아주 자기만 잘난 줄 알아!”

시로네는 미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클래스 세븐으로 돌아왔다. 에이미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클래스 포의 1등과 친하게 지내기에는 난관이 너무 많았다.

시로네가 자리에 앉자 동급생들이 수군거렸다.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자랑하고 싶나?”

“수업 시간에도 연애질이야? 실력은 쥐뿔도 없는 게 얼굴 믿고 학교 들어왔나?”

그들의 질투심은 시로네의 예상보다 훨씬 심했다.

클래스 세븐의 평균 연령은 15세. 시로네에 비해 어린 편이었다. 특히나 이 나이대에는 한 살 터울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미성숙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룹이었다.

아이들은 갓 입학한 신출내기가 고급반의 전교 1등인 에이미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군중심리가 작용하면서 이제는 여학생까지 시로네를 험담하고 있었다.

“내 눈이 삐었지. 완전 날라리 아냐?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하니까 아직도 마법 하나 구사하지 못하지.”

시로네는 에이미를 멀리하기로 했다. 자칫하면 그녀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비난에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근래 들어서는 정도가 심해져서 슬슬 짜증도 났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테무란의 조언을 상기하며 참아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는 것뿐이었다.

“오늘부터 이론 수업을 줄이고 실습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사방식 주특기를 1시간 동안 연습하고 남은 시간에는 패턴 변화를 연습하도록 하세요.”

에텔라의 지시에 학생들이 모여 사방식을 수련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들과 섞일 수 없었다.

초창기에 무심코 스피릿 존을 펼쳤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 아이들이 공감각으로 전해오는 시로네의 스피릿 존을 마치 오물처럼 혐오하며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다.

시로네는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클래스 세븐에서 가장 커다란 스피릿 존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편하게 수련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1시간 동안 방어형을 수련한 시로네는 남은 세 가지 패턴을 연습했다. 방어형보다는 못했지만 공격형은 제법이었고 타깃형은 어려웠다.

가장 큰 문제라면 이탈형이었다. 난이도를 떠나서 흉내조차 낼 수가 없었다.

‘정말 까다롭네. 대체 어떻게 해야 이탈이 되는 거지?’

스피릿 존을 오른쪽으로 이탈시켜보려고 했으나 형태가 일그러지는 게 전부였다. 상위 클래스조차 이탈형을 구사하는 학생이 손에 꼽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중심. 중심을 옮기는 게 관건인데.’

시로네는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시도했다. 스피릿 존의 형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중심을 이동시켰다.

위잉 하고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다. 혼이 빠져나가면 이런 기분일까? 의식이 아득해지고 감각이 멀었다. 그러다가 이탈하기 직전에 스피릿 존이 공기 방울처럼 터졌다.

“후우!”

너무 어렵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정신이 빠져나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주 기술적으로 접근해야만 했다.

‘차라리 중심 이동을 먼저 할까? 아니, 첫 번째 방법이 맞아. 형태가 완벽하지 않으면 중심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시로네가 고전하자 에텔라가 친히 다가왔다.

“시로네, 좀 어떠니?”

“이탈형이 어렵네요. 중심을 옮기는 부분이 쉽지 않아요.”

“아마도 그럴 거야. 수렴형인 너한테는 상극인 셈이니까. 사방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탈형만큼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 그나저나 다른 사방식은 어때?”

에텔라도 시로네에게 이탈형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기대하는 건 시로네의 자연계적인 통찰력이지 인위적인 계산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 나머지는…… 딱히 문제없는 것 같아요.”

시로네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사방식의 패턴 변환이 능숙해지고 있었다.

## [29] 눈엣가시(2)

에텔라는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이미지 존에서 시연해 볼래?”

“네? 지금요?”

“왜? 컨디션이 안 좋아?”

“아뇨, 그런 건 아니지만.”

에텔라는 의아한 듯 눈을 깜박거렸다. 수업 첫날부터 이미지 존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던 의욕적인 학생이 근래 들어 수업에 소극적이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표정이 안 좋네. 아이들이 견제하는 것 같던데, 그것 때문인가? 생각보다 예민한 성격이네.’

에텔라가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음에 해도 상관없어. 클래스 세븐에서 사방식 변환이 가능한 사람은 너뿐이라서 한번 보려고 한 거거든.”

“아뇨, 해 볼게요. 평가해 주세요.”

시로네는 생각을 고쳤다. 설령 동급생들이 비난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에텔라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지는 않을 터였다.

시로네가 이미지 존에 들어가자 폭언이 날아들었다.

“어라? 쟤 또 할 생각인가 보네? 튀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구만.”

“애인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겠지. 하긴, 저 자식 잘하는 게 저것밖에 없잖냐. 마법은 쥐뿔도 못하는 주제에.”

반면에 상급자들은 연습을 멈추고 눈을 돌렸다. 사방식의 방어형을 성공한 이후 한 달이 지났으니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궁금했다.

“선생님, 시작할게요.”

“그래. 우선 하나씩 해 보자.”

시로네는 장기인 방어형을 시연했다. 거대한 입방면체가 강강한 자태로 만들어졌다.

상급자들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방어형만 놓고 보면 상위 클래스네. 거의 장갑 수준이잖아, 저건.”

반면에 클래스 세븐의 학생들은 공공의 적을 대하듯 시로네를 노려보았다. 그럼에도 투덜대지 못하는 건 정말로 대단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시로네는 사방식을 공격형으로 전개했다. 존의 크기가 줄어든 대신 수많은 가시들이 험악하게 튀어나왔다.

다음으로 타깃형이었다. 십자가의 길이는 상당했으나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회전력이 약했다. 그럼에도 일취월장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에텔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조만간 클래스 식스로 조기 진급을 해도 무방한 실력이었다.

시로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탈형을 시도했다. 에텔라에게 조언을 받으려면 실패하는 것도 중요했다.

여지없이 난관이 들이닥쳤다. 스피릿 존의 형태가 변해 버리는가 하면, 중심을 옮기더라도 이탈 직전에 존이 터져버리기 일쑤였다.

에텔라는 의외라는 듯 눈을 빛냈다. 상극의 성향이라 기대조차 안했는데 얼추 비슷하게는 가고 있었다.

반면에 이탈형을 시도할 생각조차 없는 클래스 세븐의 아이들은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크크크, 저거 뭐하는 거냐? 저게 무슨 사방식이야? 애들 장난이지.”

“천재라더니 별것도 아니네.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지. 저래 가지고 무슨 마법사가 되겠다고.”

시로네는 기분이 상했다. 클래스 세븐에서 이탈형이 가능한 사람은 1명도 없다. 자신이 넘을 수 없는 기준을 남에게 들이미는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평정심을 잃자 스피릿 존이 흔들렸다. 그럴수록 동급생들은 분기탱천하여 시로네를 끌어내리기 위해 험담을 멈추지 않았다.

시연을 지켜보던 에이미가 미간을 찌푸렸다. 사방식 변환까지는 흡족했는데 갑자기 존이 흔들리고 있었다.

“대체 왜 저래? 뭐하는 거야?”

“이탈형은 원래 어려운 건데. 아이들 반응에 너무 신경 쓰고 있나 봐.”

“설마. 그 정도로 흔들릴 애가 아니야. 진짜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어머, 감싸기는. 하긴, 서방님이니 어련하시겠어?”

에이미는 홍안으로 세리엘의 입을 다물게 하고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이상했다. 안티매직을 이긴 내구력은 어디 가고 술 취한 사람처럼 스피릿 존이 휘청거렸다.

‘정말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가?’

시로네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하지만 분노라는 것은 한 번 생기면 자기 자신을 잡아먹으면서 커지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체 왜 나를 싫어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열심히 배우고 더 잘하고 싶을 뿐이야. 마법사가 되고 싶은 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스피릿 존이 당장이라도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어이, 잡생각이 너무 많아.”

시로네는 퍼뜩 상념에서 깨어났다. 클래스 파이브 쪽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해. 넌 마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거잖아.”

시로네는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냉철하게 돌아보았다. 막상 정신이 들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뭐하고 있었던 거지?’

잡념을 지워버린 시로네는 이탈형을 시도했다. 실패해도 좋고 성공하면 더 좋다.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었다.

직경 40미터의 존이 천천히 중심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중심이 멀어질수록 직경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다.

이탈이 먼저인가 소멸이 먼저인가.

고급반 학생들 모두가 그 광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존의 크기가 직경 2미터까지 줄어들었을 무렵, 스피릿 존의 표면이 시로네의 몸에서 완벽하게 떨어져 나갔다.

클래스 세븐의 학생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고급반 선배들조차 쉽지 않은 기술을 성공시켰으니 정신이 멍해지는 건 당연했다.

스피릿 존이 시로네의 주위를 빠르게 맴돌기 시작했다. 매순간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왔다. 막대한 정보량에 머리가 터질 듯했다. 눈을 번쩍 뜨자 스피릿 존이 퐁 하고 터지며 자취를 감추었다.

“하아, 하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숨이 차올랐다.

“해냈다. 진짜로 이탈형을…… 성공시켰어.”

상급반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방어형을 성공시킨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과였다. 클래스 세븐은 물론 클래스 식스에서도 이탈형을 성공시킨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세리엘이 에이미의 팔을 흔들며 호들갑을 떨었다.

“에이미, 시로네가 해냈어! 진짜로 해냈다고.”

에이미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감정이야 어찌 됐든 같은 꿈을 향해 달리는 동료로서 존경할 만한 재능이었다.

‘성장 속도가 엄청나다. 아니, 진짜로 너무나 빨라. 한 달 만에 이탈형을 성공시킬 정도라면 필시…….’

나와 맞먹는 재능. 혹은 그 이상.

에이미는 조금 분했다. 아마도 시로네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신을 단련했을 터였다. 반면에 자신은 어떠한가? 뒷골목을 전전하며 악동 짓을 일삼고 다녔다.

‘나는 왜…… 소중한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했던 것일까.’

이탈형을 성공시킨 시로네는 조언의 주인공을 찾아 클래스 파이브 쪽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선배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기에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에텔라는 박수갈채를 받는 시로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로네의 성장에 모두 자극을 받고 있다. 조금 더 학급의 분위기를 고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흐음, 생각보다 일찍 왔네.”

\* \* \*

근래 시로네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다. 바로 구사할 줄 아는 마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마법에 필요한 지식은 저급반 아이들이 갖출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도 본격적인 마법 실습은 클래스 파이브부터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귀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기에 저급반 학생들이라도 하나 이상의 마법을 구사할 줄 알았다. 반면에 시로네가 공부를 한 기간은 오젠트 가문에서의 1년 6개월이 전부였다.

시로네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었다. 한 가지 학문에 몰두하면 간단한 마법은 구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절대로 넘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전략이 하나의 학문에서 파생되는 다른 학문들까지 통째로 공부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다 보니 빌려야 하는 책의 권수가 많아져서 요새는 아예 도서관에 자리를 깔고 살다시피 했다.

학생들은 그런 시로네를 비웃었다. 당장의 수업도 못 따라가는데 중구난방으로 공부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생각을 고치지 않았다. 지식의 척추가 있으니 어떤 학문이라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이 가능하다. 즉 내용을 망각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뜻이었다.

‘당장의 성과는 미미할지 모른다. 하지만 최소 2년. 이 상태로 2년을 공부하는 게 가능하다면 각 분야의 핵심 지식이 전부 연결된다.’

이것은 곧 지식의 뼈대. 어떤 정보건 열람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 통째로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시로네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책으로 빠져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열람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클래스 식스의 소녀뿐이었다.

시로네가 가방을 챙기면서 꾸벅 고개를 숙이자 그녀도 수줍은 미소로 마주 고개를 숙여주었다.

도서관을 나섰을 때는 새벽 2시였다.

지금 들어가도 잘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하지만 귀족 가문의 아이들보다 공부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면 자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럴 때면 시로네는 언젠가 읽었던 '위대한 학자들의 대담‘이란 책을 떠올렸다.

그중에서도 토르크콜린이라는 생물학자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다. 사람은 반드시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농담을 했다.

“물론 나는 학창 시절 4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말이오.”

책의 저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연구 결과가 틀린 거 아닙니까? 당신은 4시간만 자고도 뛰어난 학자가 되었으니까요.”

토르크콜린의 대답은 이랬다.

“하하! 10대는 인간이 아닙니다. 초인이죠. 잠 따위 자거나 말거나 아무 지장도 없을 겁니다.”

시간에 쫓기는 시로네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말이었다.

‘그래!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올 거야.’

졸업반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마법 실험을 하는지 창문이 번쩍거렸다. 저 안에서 어떤 새로운 마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시로네의 시선은 이미 졸업반을 향해 있었다.

\* \* \*

점심시간이 끝나 갈 무렵 에텔라가 시이나를 찾아왔다. 26살 동갑내기로 벌써 4년이나 함께 근무했지만 여전히 존대를 하는 두 사람이었다.

“시이나 선생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클래스 세븐 수업이 잡혀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마법에 대해 토론하다 보면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게 다반사였기에 시이나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

“아, 그렇군요. 시로네의 일로 상의할 게 있는데.”

시로네라는 말에 시이나도 흥미를 드러냈다. 자신이 가르치는 이론 수업은 미진한 반면에 에텔라의 실습시간에는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들었다.

“요즘 어떤가요? 실습 점수를 보니 꽤나 높던데요.”

“확실히 그렇죠. 저번에는 사방식의 이탈형까지 성공시켰으니까요.”

“호오, 그렇군요.”

시이나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시로네의 담당 교사로서 다른 교사에게 칭찬을 받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시이나 선생님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제안이요?”

에텔라가 학생의 일로 다른 담당교사에게 건의를 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었다. 그런 만큼 파격적인 얘기일 거라는 생각에 시이나는 눈을 깜박였다.

\* \* \*

클래스 세븐의 강의실 칠판에 화학 이론이 빼곡하게 적혔다. 필기하는 학생들은 눈과 손을 바삐 움직였다. 오늘따라 수업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대로 10분 정도 수업을 일찍 끝낸 시이나가 교단에서 내려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대신에 공지할 사안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넓은 아량을 베풀었다. 수업만 일찍 끝내 준다면 귀신 볍씨 까먹는 소리를 해도 들어 줄 수 있었다.

“조기 진급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리안 시로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난데없는 조기 진급에 시로네는 화들짝 놀랐다. 반면에 동급생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조기 진급이 극히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시로네라는 게 문제였다.

“시로네 학생은 클래스 파이브로 진급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그쪽 시간표대로 수업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도 더욱 정진하여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30] 눈엣가시(3)

강의실이 술렁거렸다. 클래스 파이브라니. 그냥 조기 진급이 아니라 단번에 두 계단을 뛰어올랐다. 이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입장에서도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선생님! 이의 있습니다. 어떻게 시로네가 두 클래스나 올라갈 수 있죠? 시로네는 마법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시이나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에텔라도 그런 말을 해 준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저급반 수업에는 딱히 마법을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정말이니, 시로네?”

동급생들이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제발 못 한다고 말해라. 못 한다고 말해.

“네. 아직 구사할 수 있는 마법은 없어요.”

“흐음.”

그렇더라도 조기 진급에 문제는 없다. 마법은 상급반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하급반의 교육과정은 어디까지나 스피릿 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로네는 사방식의 기본을 모두 익혔고 스피릿 존의 크기나 내구력은 상급반에 비해서도 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클래스를 따지자면 파이브가 적당하다.

하지만 아직도 마법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건 특이한 일이었다. 학생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몰래 마법을 시도해보기 마련이다. 미치도록 마법을 배우고 싶어서 마법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니까.

“선생님도 의문이군요. 하지만 클래스 식스까지는 마법에 관한 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시로네의 조기 진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 못해요!”

클래스 세븐의 암묵적 리더인 마크가 벌떡 일어섰다. 거구의 덩치에 어울리게 사각 턱이 우람한 학생이었다.

“어째서 학생을 편애하는 거죠?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전능만큼 전지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로네에게만 특별한 조건을 적용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지금 시로네랑 성적으로 경쟁한다고 해도 제가 이길 자신이 있어요! 시로네는 이론 수업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시로네를 조기 진급시킨다면 학생회에 건의해서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나이는 어려도 모두 클래스 텐부터 경쟁을 통해 올라온 아이들이다. 이번에도 시로네를 통해 자극을 받기를 기대했건만 그저 적군을 대하듯 적개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시이나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정도로 저항이 심하다면 오히려 학급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아직 정식으로 결정이 난 사안은 아닙니다. 정확한 공지는 교사회의를 거친 다음에 공표하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온 시이나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특수 목적 학교의 특성상 경쟁은 필연적이다. 또한 학생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자원해서 입학한 것이다.

‘대체 뭐지? 아이들의 그 이상한 눈빛은?’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었다. 조기 진급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토록 반발이 심한 적은 처음이었다.

“저기, 시이나 선생님.”

마리아라는 여학생이 시이나를 찾아왔다.

클래스 세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19살의 소녀로 벌써 4년째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아이였다.

재능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소심한 성격인 데다 겁도 많아 학교 측에서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학생이었다.

“응? 무슨 일이니, 마리아?”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참을 망설이던 마리아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시로네가 현재 학급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으며, 아이들이 조금 전에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시이나의 미간이 구겨졌다. 단순한 감정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악질적인 수법으로 시로네를 괴롭히고 있었다.

시로네와 마주치면 약속이라도 한 듯 토할 듯한 시늉을 하고, 의도적으로 시로네의 주변에 몰려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마리아는 울먹이며 이야기를 끝냈다.

“지금은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아서 관심도 없지만,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로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할 수 있는지.”

시이나는 사태의 전말을 파악했다. 1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 말해 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알아서 할게.”

시로네는 자정 무렵 숙소에 도착했다. 조기 진급 얘기가 나온 이후로 아이들의 따돌림이 더욱 심해지는 바람에 차라리 일찍 들어와서 책을 읽는 게 나을 듯했다.

똑똑.

누군가가 방문을 노크했다. 시간을 확인하니 어느덧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학생들은 외출이 불가능하고 직원들도 퇴근한 시간이었다. 혹시 아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괴롭히려는 것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시로네, 자고 있니?”

“시이나 선생님?”

시로네는 황급히 문을 열었다. 정말로 시이나였다.

“들어가도 될까?”

“아, 네. 들어오세요.”

오늘이 시이나 선생님 당직이었던가? 기숙사에서 몸을 씻고 왔는지 머릿결에 물기가 남아 있었다.

고급반 기숙사는 20대 초반의 학생들도 살고 있기에 야심한 밤에 여교사가 들락거릴 장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시이나는 동급생들 몰래 면담하기 위해 이 시간을 택했다.

여느 남학생들 방과 다르게 정리가 칼 같이 되어 있었다. 시로네의 성격을 짐작하며 그녀는 책상에 펼쳐진 책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교과서적도 있지만 아직 배울 필요가 없는 분야의 책들이 한 무더기였다.

‘역시 그랬구나. 과연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

마치 아무 책이나 펼쳐둔 것 같지만 전체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었다.

시로네가 여태까지 마법을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렴풋이 짐작되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입학할 때부터 전지에 약했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아이는 마법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야. 마법사가 되고 싶은 거다.’

시이나는 시로네의 방식을 지지했다. 지식과 지식을 연계하는 것은 과정은 어렵더라도 열매는 크다. 연결되어 있는 지식은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기, 선생님.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온 거야.”

시이나가 침대에 걸터앉자 시로네는 책상 의자를 끌어왔다. 그녀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사복차림에 머리를 풀고 있어서인지 학교에서보다 훨씬 어리게 보였다. 왠지 모르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살며시 고개를 숙였다.

시이나는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네. 원래 이런 성격인가?’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얼굴에 구멍을 내겠다는 듯이 집중하는 시로네였기에 이런 모습이 낯설었다.

“학교생활이 힘들지는 않니?”

“네, 재밌어요.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어째서 말하지 않았니? 아이들이 너를 괴롭힌다던데.”

시로네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사실 모르는 게 이상한 일이었다. 근래 들어서 아이들은 대놓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리아에게 아이들의 행패를 낱낱이 들은 시이나는 시로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건 솔직하게 말해도 돼.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정말로 괜찮아요.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아쉽지만 저를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학생을 따돌리는 건 나쁜 짓이야.”

“감정은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클래스 세븐의 아이들이 저를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시이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세상의 전부지만, 위를 올려다보는 자에게는 그런 집단도 잠시 들리는 경유지에 불과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조금 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시로네는 조기 진급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도 클래스 파이브 이상이라면 시로네를 열등감 없이 받아드릴 친구가 있을 터였다.

“시로네, 너의 각오는 확실히 들었다. 교사회의에 참고하마.”

순간 이동(1)

“이상으로, 시로네의 조기 진급에 관한 소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알페아스 교장과 고급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이나는 클래스 세븐의 집단 따돌림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리에 앉았다.

내용을 접한 교사들이 인상을 찡그렸다. 시로네가 마법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빌미로 집요하게 따돌렸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고작 이런 이유로 학급의 아이를 괴롭힌다는 게?”

“하위 클래스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린아이들도 많고, 머리는 굵어도 재능이 없어 머무는 학생도 있고. 일단 변별력 자체가 떨어지는 클래스니까요.”

“그렇다면 시로네를 빨리 진급시키는 게 좋겠군요. 그 아이라면 최소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을 겁니다. 인근 학교에서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지금, 조기 졸업생은 많을수록 좋아요.”

졸업생의 나이도 학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이터 중의 하나였다. 사회에 나가서 활약을 못한다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현재 여타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조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학교를 명문 반열에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정석적인 수법이었다. 일단 명문 타이틀을 얻으면 뛰어난 인재들이 몰리고, 그런 다음에야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타 학교의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알페아스 마법학교가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조기 진급은 기본이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은 시로네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사드가 손을 들고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자 시이나의 인상이 구겨졌다. 조기 진급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딴죽을 거니 얄미워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알페아스는 처음으로 나온 의견에 관심을 드러냈다.

“부정적이라. 어째서 그런가?”

“시로네가 재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시로네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반발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이나가 말했다.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요. 시로네는 지식의 전반적인 부분을 익히느라 하나의 학문에 매진할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시로네의 성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확신하고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시이나 선생님께서 시로네를 너무 편애하신다는 거죠.”

“뭐라고요?”

“어찌 됐건 클래스 세븐의 아이들도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로네가 지식을 습득할 시간이 있었든 없었든, 그 또한 평가 항목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학생들 또한 조기 진급을 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스피릿 존이 시로네보다 약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우위에 있으니까요.”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저는 이번 일을 감정적으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교칙에 따라 내린 결론이에요. 하위 클래스의 주된 평가 항목은 분명 스피릿 존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반발이에요. 이번 일로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명의 천재에게 모든 걸 쏟으라고 교사가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학생들의 어긋난 질투심 때문에 재능 있는 학생을 방치하는 것도 교사가 할 일은 아니죠!”

두 사람이 동시에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다. 회의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진풍경이었다.

## [31] 순간 이동(2)

거침없이 이어지는 논쟁에 나이 지긋한 교사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에도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의 등급이 더 높기 때문이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공인 6급의 마법사로 활약하고 있는 시이나와 사드, 거기에 더해 에텔라는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자랑거리였다.

언쟁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에텔라가 중재하고 나섰으나 말 그대로 화염과 냉기가 맞부딪친 것처럼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알페아스는 그저 미소만 머금고 있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저렇게 싸우지도 않는다. 다만 열정을 바칠 대상이 다른 것일 뿐이다.

사드는 모교의 발전을 원하고, 시이나는 학생의 성장을 원한다. 교사라면 응당 시이나의 편을 들어 주어야겠지만, 이곳 출신인 사드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잘 들었네.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그만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지.”

알페아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이나와 사드는 거짓말처럼 언쟁을 멈췄다.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알페아스에 대한 존경심일 것이다.

“내가 듣기로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네. 시이나 선생의 말은 논리에 합당하지.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사. 아이들의 마음에 편견이 자리 잡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교장 선생님.”

사드는 웃었고 시이나는 무표정했다. 하지만 알페아스도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 곰곰이 무언가를 궁리하던 그가 웃음살을 볼록이며 의견을 냈다.

“그래서 말인데…… 이런 방식은 어떻겠나?”

고급반 건물의 게시판에 한 장의 공문이 붙었다.

게시판 앞으로 모인 수십 명의 학생들은 공문의 내용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알페아스 마법학교 역사상 초유의 사태. 클래스 세븐 전원에게 진급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문의 주요 골자는 이러했다.

클래스 세븐 모두에게 조기 진급의 기회를 제공한다. 진급 대상자는 1명이며 테스트에 통과할 시 클래스 파이브로 상향한다. 학생들의 고민을 십분 인정하는 바, 평가는 이례적으로 스피릿 존이 아닌 마법으로 채점한다.

평가 항목은 순간 이동이다.

“수, 순간 이동? 나 할 줄 모르는데, 너 할 줄 알아?”

“아니. 당연히 못하지. 클래스 파이브 정식 지정 마법이잖아.”

“나는 한 번 해 봤는데. 근데 너무 무서워서 다시 시도할 엄두가 안 나더라.”

“멍청아! 원래 공식대로만 하면 쉬워. 응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문제지.”

술렁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다. 시로네가 걸어오고 있었다. 수많은 시선의 집중포화를 받으며 게시판에 도착한 그는 공문을 읽어 내려갔다. 교사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학생들 간의 진검 승부였다.

‘순간 이동.’

시로네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 \* \*

소위 클래스 세븐 왕따 사건이라 칭해지는 이번 사태는 상급반 학생들에게도 흥미로웠다. 특히나 그 대상이 시로네라는 사실에 말들이 많았다.

“세상에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에이미, 너 알고 있었어?”

일과가 끝날 무렵에야 게시판을 확인한 에이미는 망연자실하게 공문을 읽어 내려갔다. 세리엘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소문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들려주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따돌림을 당했다고? 그것도 나 때문에?’

동급생들은 시로네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다고 했다. 더군다나 통합 수업 시간에 에이미와 인사를 나눌 때면 아예 대놓고 욕을 하는 애들도 있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해? 하긴, 클래스 세븐이라면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사실 나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 금방 진급해 버려서 별일은 없었지만.”

“어리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안 어린가?”

“어쨌거나 우리는 클래스 포에 있잖아. 마법은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되니까 나이는 상관없다고 봐야지.”

에이미는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 않았다. 사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시로네가 당했다는 게 화가 날 뿐이었다.

“멍청이! 어째서 말하지 않은 거야?”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를 했으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지 않은가. 아니, 분명 그럴 것이다. 인기야 어찌됐든 클래스 포의 1등이다. 그런 사람과 사귄다는 데 허접들이 눈총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당한 일처럼 화가 났다.

“시로네에게 가 봐야겠어.”

“가는 거야 좋지만 뭘 어쩌려고?”

“일단 한 대 때려야지. 그런 다음 클래스 세븐 애들 전부 집합시킬 거야. 애인 사이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

“뭐어? 너 미쳤어? 절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럼 이대로 있으란 말이야? 그것도 나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어휴, 넌 정말 남자를 모르는구나. 어째서 시로네가 얘기하지 않은 줄 알아?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불을 지르면 어떡해?”

에이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여태까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던 이유가 고작 클래스 세븐의 아이들이 무서워서였다니.

이번 일로 자존심이 상한 건 오히려 에이미였다.

“남자들은 말이야, 인정받기를 좋아한다고.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는 게 남자야. 그런데 오히려 왕따를 당했으니 좋아하는 여자에게 말하고 싶겠어?”

세리엘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일 경우에 한해서였다. 위장연애에 불과한데도 말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나 때문에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래서 피해 다니는 거야.’

세리엘은 학교의 대처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다행이지 않니? 진급시험에 합격하면 클래스 파이브에 들어갈 수 있어. 순간 이동 테스트는 정말 잘 정한 거지. 클래스 세븐 애들도 처음부터 배워야 하잖아.”

에이미의 생각은 달랐다. 특정 마법을 배우지 못한 것과 마법 자체를 배우지 못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더군다나 순간 이동이라니.

순간 이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공포를 이겨 내는 것이다. 비행 마법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인 데다가 자칫 장애물에 부딪치기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무진장 위험한 테스트잖아? 선생님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지?”

“적당히 난이도를 조절하겠지. 학생들의 열정을 시험해 볼 수도 있고. 클래스 세븐의 절반 이상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인가 보더라고.”

“뭐어? 배운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많이?”

“합격 보상이 클래스 파이브잖아. 게다가 모두 처음부터 배우는 거니까. 나라도 도전해봤을 거 같아.”

에이미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다. 아마도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선배의 도움을 받거나 전담 교사를 붙여 집중적으로 연습할 게 분명했다.

반면에 시로네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전담 교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조언을 구할 친구조차 없을 터였다.

‘이러다 진짜 떨어지는 거 아냐?’

시로네의 재능은 인정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과정만 보자면 결코 합격을 보장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

“맞다! 에이미 네가 시로네를 도와주면 어때? 이번 기회에 화해도 하고.”

“흥! 그런 꼴을 당해 놓고 상의 한마디 없었는데 도움을 받겠어? 난 그냥 계속 모른 체할래.”

“어휴, 너희들도 정말 어지간하다.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신경 끄셔. 그게 우리의 연애 방식이니까. 어차피 나도 한가한 처지는 아니야. 졸업반 진급 테스트가 코앞인데.”

“아, 맞다! 그랬지. 미안해.”

학생에게 있어 진급만큼이나 중요한 건 없다. 아무리 에이미라고 해도 졸업반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정도도 못하면 내 애인이라는 타이틀도 없는 게 나아.”

게시판에서 돌아선 에이미는 속으로 말을 이었다.

‘아무리 가짜 애인이라고 해도 말이지.’

\* \* \*

자정이 가까운 시각.

복면을 쓴 인물이 남자 기숙사의 정원에 침투했다.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몸놀림에 내딛는 걸음에는 풀이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건물 7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긁적였다.

‘이건 절대로 신경 쓰여서가 아니야. 내 책임도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에이미는 이를 뿌드득 갈았다.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시로네에게 신경이 쓰여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두고 봐라. 아주 싹싹 빌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에이미는 벽을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밤중에 남자 기숙사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테지만 소싯적의 장난기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었다.

‘후후, 기왕 이렇게 된 거 심장이 떨어질 만큼 놀라게 해 주지.’

에이미는 창문을 열자마자 앞구르기를 했다. 착지와 동시에 계산이 이루어졌다. 시로네를 제압하고 침대에 던진다. 그런 다음 비명을 지를 정도로 팔을 꺾을 생각이었다.

“어?”

하지만 에이미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시로네가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시이나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 선생님?”

“너, 에이미니?”

시이나가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살폈다. 붉은 머리에 쌍꺼풀이 짙은 눈동자만 봐도 에이미가 분명했다.

시로네와 사귄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각자의 목표를 위해 공부만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하는 짓이 의뭉스럽기 그지없었다.

“설마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만난 거야? 낮에는 모르는 척하고 밤에는 밀회를 즐긴다?”

“오, 오해예요, 선생님! 그건 정말 엄청난 오해라고요!”

시이나가 황급히 손을 입에 가져다 댔다.

“쉿! 옆방에 들리겠다.”

에이미는 입을 가리고 옆방의 눈치를 봤다. 다른 곳도 아니고 남자 기숙사였다. 시로네의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이라도 퍼지면 첫 번째 용의자는 무조건 자신이 될 터였다. 물론 그렇더라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지만.

“아니, 잠깐만! 저야 그렇다 쳐도 선생님은 여기 웬일이세요? 그것도 이 시간에?”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시이나였다. 호출이라는 방법을 놔두고 야심한 밤에 교사가 사복차림으로 찾아올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말씀해 보세요. 이 시간에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에이미의 이유 있는 오해에 시이나의 뺨에 홍조가 들었다. 하지만 금세 본연의 자태로 돌아와 차갑게 말했다.

“진급시험 일로 조언을 해 줄 게 있어서 온 거야.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남들 눈에 띄는 건 좋지 않을 듯싶어서.”

진급시험이 이유라면 에이미도 대꾸할 말이 없었다. 자신도 그 일 때문에 왔기 때문이다.

“저기, 선배님.”

차를 준비한 시로네가 에이미에게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일단 차라도 한 잔…….”

“흠.”

에이미는 찻잔을 들고 향을 음미했다. 예의가 바른 후배답게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었다.

“……는 개뿔!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죄, 죄송해요!”

시로네가 사과하자 에이미는 더욱 열이 받았다. 저렇게 성질이 착해 빠졌으니까 어린 것들까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일단 앉자. 하던 얘기는 마저 하고 싶으니까.”

시이나가 자리를 권했다. 에이미는 시로네의 옆에 앉아 몸을 홱 틀었다. 신경이 쓰여서 찾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로네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번 테스트의 평가 항목은 순간 이동이야.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내리신 결정이지.”

“교장 선생님이요?”

에이미는 비로소 상황이 이해되었다. 클래스 세븐에 어울리지 않는 테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교장 선생님의 장난기라면 충분히 그럴 만했다.

“그래. 사실 나도 그분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 순간 이동은 하위 클래스에서 하기에는 위험한 마법이니까.”

에이미가 물었다.

“테스트는 아마도 ‘건널 수 없는 다리’에서 하는 거겠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실 거기밖에 없지.”

## [32] 순간 이동(3)

건널 수 없는 다리는 훈련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해발 1,000미터의 두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였다. 다리의 길이는 700미터였고 골짜기 아래로는 급류가 흘렀다.

“어째서 건널 수 없는 다리죠?”

시로네의 물음에 에이미가 설명했다.

“말 그대로 건널 수 없는 다리니까. 순간 이동 실습에 사용하는 훈련장이거든. 난이도는 1에서 10레벨까지 있는데, 클래스 포인 나도 8레벨 이상부터는 목숨을 걸어야 하지.”

시이나가 말을 보탰다.

“진급시험은 1레벨로 맞출 거야. 장애물이 없는 상태지. 클래스 세븐 아이들에게는 700미터를 뛰어넘는 것조차 불가능하니까.”

에이미가 물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진급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멀리까지 도약한 학생이 발탁되겠지.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야. 안전장치를 가동한 상태에서 하는 데다, 고급반 선생님들이 참관할 테니까. 문제는 학생들이야. 경쟁심이 지나치다 보면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

에이미의 생각에도 그 부분이 관건이었다. 조기 진급이 걸린 테스트인 만큼 담합은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가장 견제를 받게 될 사람은 시로네였다.

“이런 방법은 어때요? 초반부터 시로네가 치고 나가는 거죠. 물론 정신력이 꽤 소모되겠지만 시로네 정도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시로네를 전담할 거야.”

“네에? 선생님이요?”

에이미가 황당하게 눈을 치떴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전담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자칫 이상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어째서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이번 일에는 내 책임도 있으니까. 난 처음부터 시로네를 클래스 파이브에 등재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지. 내 말에 따랐으면 시로네가 괴롭힘을 당할 일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소문이라도 나면 문제가 커질 텐데요. 다른 학생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간 이동을 연구하겠지만, 선생님이 직접 시로네를 전담했다는 말이 퍼지면 기껏 합격한 테스트도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당분간 제가 시로네를 맡을게요. 레벨 1의 난이도라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시이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졸업반 진급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로네에게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거야.”

“어? 정말요, 선배님?”

시로네가 믿기 어려운 듯 되물었다. 아직 누구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접수를 했다는 건 정공법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뜻이었다.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다.’

한창 진급 시험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도 자신을 찾아와 주었다는 게 고마웠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했던 훈훈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자존심에 불이 붙은 두 여자는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다.

“아무리 바빠도 순간 이동 정도는 봐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포기하시죠? 오히려 그런 참견이야말로 시로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교사로서 학생에게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고서도 묵인할 수는 없지. 졸업반 테스트는 1년에 한 번밖에 지원하지 못해. 선생님에게 맡기고 졸업반 일에 신경 쓰는 게 좋을 텐데?”

두 사람 모두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눈을 보면 결코 웃고 있는 게 아니었다. 결국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들은 마지막으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시로네, 네가 선택해. 나야, 선생님이야? 물론 여자 친구가 가르쳐 주는 게 더 좋겠지만.”

“그래, 시로네. 네가 결정하는 게 좋겠다. 졸업반 시험을 앞둔 학생보다는 선생님이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테니까.”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원래부터 생각했던 바를 털어놓았다.

“그냥 저 혼자 할게요. 말씀은 고맙지만 도움은 필요 없어요.”

여자들의 표정이 멍해졌다.

“선생님에게 배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시험을 앞둔 선배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이번 시험은 혼자서 합격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 멍청아! 다른 애들은 과외라도 받아서 시험에 응할 거라고! 게다가 모두들 너를 견제하고 있고! 혼자서 어떻게 해 볼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대로 납득할 수 있어요.”

“응?”

“선배님이 졸업반 진급을 결정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도 이겨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난관도 넘을 수 없다는 각오인 거잖아요.”

“응? 그게…… 그렇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합격할게요. 남자 친구로서 부끄럽지 않게.”

시로네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은 에이미는 더는 반대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결정을 인정해주는 그가 고마웠다.

“흥. 다, 당연히 그래야지.”

시로네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없지만 분위기로는 에이미의 판정승이었다.

시이나가 안경을 매만지며 일어섰다.

“학생의 생각이 그렇다면 선생님도 받아들여야겠지. 하지만 언제든 모르는 게 있으면 와서 물어보렴. 그건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니까.”

“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이나는 문을 열고 가기 전에 에이미에게 말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남학생 방에 들어오는 걸 자제해. 다음에 걸리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에이미는 황송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생각에도 오늘은 운이 좋았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시이나가 나가자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다.

또래의 여자와 한 방에 있는 경험이 처음인 시로네는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러자 에이미도 덩달아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렸다. 한 대 쥐어박을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자 시로네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 그럼…… 나도 갈게.”

“아, 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에이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듯 시로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이 멍청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상의를 했어야지.”

“죄송해요.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바보야, 그딴 게 뭐가 중요해?”

“그보다는…… 선배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요.”

에이미의 뺨이 후끈 달아올랐다.

“사실대로 말해 봤자 사이만 더 어색해지겠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선배님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요. 선배님은 제 목표니까요.”

시로네는 마법학교에 입학했던 첫날을 떠올렸다. 클래스 포의 1등에 올라 있는 카르미스 에이미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부터 그의 목표는 언제나 에이미였다.

“반드시 선배님을 따라잡을게요. 그러니 선배님도 열심히 해 주세요.”

에이미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다. 사실은 그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 선배라고 부르지 마.”

“네?”

“어차피 동갑인 데다가 나도 널 인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선배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지만 그건…….”

“내가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게 뭐야? ‘선배님’ 하고 따르는 척하면서 뒤에서 추격하는 건 비겁해! 내 옆으로 와서 당당하게 경쟁하라는 말이야!”

마법학교에서의 클래스는 사회적 지위와도 연관되는 문제였다. 그런 그녀가 선배 대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시로네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대신에 빨리 올라와. 입으로만 그래 놓고 구질구질하게 아래에서 머물고 있으면 내쳐 버릴 테니까. 알았어?”

에이미는 빨개진 얼굴로 창문으로 걸어갔다. 문으로는 나갈 수 없는 처지라 이번에도 월담을 해야 했다.

“에이미.”

시로네가 부르자 에이미는 어깨를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란다고 곧바로 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만 시로네의 눈은 무시무시하게 불타고 있었다. 그 눈빛을 대하자 허튼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반드시 따라잡을 거야. 졸업반에서 기다리고 있어.”

에이미의 눈이 갈매기처럼 구부러졌다. 복면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그녀는 분명 웃고 있었다.

“흥. 그때쯤이면 이미 난 졸업해 있을 걸? 따라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따라와 봐.”

에이미는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다. 창문 아래를 살폈을 때는 이미 그녀가 사라진 뒤였다.

시로네는 한숨을 내쉬었다. 강한 척하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었다.

“순간 이동이라…….”

\* \* \*

진급시험까지 한 달이 남았다. 그 안에 어떻게든 순간이동을 터득해야 했다. 우선 도서관에 가서 순간 이동 마법에 관한 책을 전부 긁어모았다. 재고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책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대략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진급시험에 참가한다. 결국 그들 모두가 책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거 어쩌면, 진짜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시로네는 조급한 마음을 달래며 순간 이동의 기본 개념부터 착실히 익혀나갔다.

마법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광자화 이론은 마법사의 몸을 빛으로 바꾸는 마법이었다.

그렇다면 빛의 성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난해했다.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상대속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질량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하지만 케르고스는 그 난해한 성질에서 위대한 통찰을 얻었다. 상대속도가 없는 빛의 절대성을 이용하면 공간을 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광자화 이론을 전지로 채택하면 누구라도 순간 이동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위대한 발견인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였다.

순간 이동은 너무나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하기에 머리로 계산하고 움직이려다가는 목숨을 잃기 십상이었다.

‘하긴. 10의 20승에 달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는 없지.’

시로네는 계속 책을 읽어 나갔다. 마법사들은 광속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초광속, 광속, 아광속, 준아광속이었다.

초광속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론상 시간을 역행하는 타임슬립 마법이 가능한 경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마법사도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빛의 마법사라면 광속을 구사하는 자들이었다. 신의 영역이라 칭해지는 스톱 마법을 익힐 수 있지만, 이 경지에 도달한 마법사 또한 역사를 통틀어서 손에 꼽는다고 했다.

결국 빛을 다루는 대부분의 프로 마법사들은 아광속의 영역에서 실력이 나뉘는 셈이다.

마법사들의 정의에 따르면 아광속은 ‘물질의 최고 속도를 훨씬 초월하지만 빛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였다.

또한 아광속은 공간이동의 기본 전능이기도 하다. 광속의 경지라면 이동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아광속만 다루더라도 수 초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가능했다.

시로네는 연신 감탄하며 책을 읽었으나 아직까지는 현실로 와 닿지 않았다. 그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빛의 마지막 속도인 준아광속이었다.

마법사들이 내린 준아광속의 정의는 ‘생물의 최고 속도를 초월하지만 아광속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였다.

그렇기에 순간 이동이 빛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눈으로 동선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간을 왜곡시킬 만한 속도가 아니기에 주위 환경을 착각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엄폐물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 끝장이다. 광자화 이론으로 질량을 줄인다고 해도 속도가 있으니 치명적인 충격일 거야.’

시이나가 건널 수 없는 다리에 장애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학생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기본 공식만 가지고?’

## [33] 순간 이동(4)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도착하는 시간은 1초 이내. 그 안에 머릿속으로 변수를 계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순간 이동의 특성상 단거리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니 횟수가 늘어날수록 혼란을 커질 터였다.

“아, 그렇구나.”

시로네는 손바닥을 내리쳤다.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직관으로 느낄 수는 있다.

스피릿 존을 통해 나무의 이파리 개수를 셀 수 있듯, 빛의 속도 또한 통찰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알페아스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다. 누구나 익힐 수 있지만 재능에 따라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마법.

시로네는 자신감을 얻었다. 비록 전지에서는 뒤처지지만 전능이라면 12살 때부터 매일 같이 갈고 닦아왔다.

시험까지는 앞으로 30일.

시로네는 케르고스의 광자화 이론을 전지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업이 끝나면 숙소에서 밤새도록 책을 들이팠다. 그렇게 20일이 지나자 혼자서 책을 읽는 것으로는 더 이상 공부할 내용이 없었다.

그날부터 클래스 세븐 전용의 훈련장을 찾았다. 동급생들은 모두 비공개 훈련을 하는 모양인지 한적하게 비어 있었다.

시로네는 광자화 이론의 전지를 스피릿 존의 전능에 결합시켰다. 처음 시도한 탓에 감각을 찾는 게 어려웠다.

전지와 전능 사이에 시로네가 서 있다. 그 상태에서 시로네를 지우는 순간 전지와 전능이 달라붙으면서 마법이 발동하는 방식이었다.

시로네는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마법을 시전했다. 몸이 분해되는 느낌이 들면서 빛이 번쩍 터졌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 고개를 까닥하는 것과 동시에 녹아내린 세상이 덮쳐왔다.

“으아아아!”

5미터의 거리를 이동한 시로네는 도착과 동시에 바닥을 뒹굴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기분이었다.

“으으으…….”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는 와중에도 실패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새겨졌다. 광자화로 질량을 완벽하게 떨어뜨리지 않으면 준아광속으로 전진한 충격력이 고스란히 들어왔다.

혼자서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마법이었다.

하지만 개인교사는커녕 조언을 구할 선배도 없는 시로네는 몸으로 부딪히며 익히는 수밖에 없었다.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해내겠어.’

그날부터 시로네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오류를 수정했다. 일견 무식한 방법이지만 최후에는 몸으로 학습한 기억만이 남는 법이다.

며칠이 지나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훈련장에 나타나 시로네를 살폈다. 누군가가 보낸 첩자일 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여기 외에는 마땅한 장소도 없었다.

얼마나 많이 바닥을 뒹굴고 입술을 땅에 찍었을까. 전신에 멈이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뼈마디가 쑤셨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자정이 되기까지 10분이 남은 무렵, 시로네는 비틀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먼지를 들이마셔서 목이 칼칼했다. 반쯤 풀린 눈으로 훈련장의 중앙에 우두커니 섰다.

오류는 대부분 수정되었다. 남은 것은 고통을 이겨 내는 끈기,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였다.

시로네는 움직이지 못했다. 순간 이동을 시전하기가 너무 두려웠다.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이제는 뼈에도 멍이 들었는지 닿기만 해도 욱신거렸다.

“하자……. 해야 돼…….”

시로네는 넋이 나간 채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잘된 일일 지도 모른다.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나를 잊을 수 있을 테니까.

“순간…… 이동.”

상체가 기우는 극한의 미분점에서 시로네의 육체가 10미터를 뻗어 나갔다. 빛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섬광이 지나간 듯한 속도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시로네는 앞으로 쏟아지려는 상체를 황급히 붙잡았다.

“…….”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지독한 통증이 전해지지 않았다.

“헤헤, 해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그 경건한 소리를 들으며 시로네는 서 있는 자세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다. 흙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30일 동안 순간 이동으로 전진한 거리는 고작 10미터. 하지만 처음으로 도약한 10미터였다.

‘이걸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건널 수 없는 다리의 700미터를 통과하려면 최소 70회의 순간 이동을 시전해야 한다. 더군다나 경주라면 스태미나도 신경을 써야 했다.

순간 이동을 1회 시전하는 것은 공격 마법을 1회 시전하는 것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다.

10미터를 움직이기 위해 순간 이동을 시전한다면 차라리 빠르게 달리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연계성이다.

쉬지 않고 시전할 수 없다면 순간 이동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한 마법이었다.

완벽하게 광자화가 걸린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관성은 사라진다. 덕분에 마법사의 몸이 박살나지 않는 것이지만 연계를 하려면 처음과 같은 집중력이 필요했다.

‘이럴 시간이 없어.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돼. 적어도 연계하는 부분을 더 보강해야…….’

의욕은 그대로였으나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었다. 의식이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시로네의 눈꺼풀이 스르륵 감겼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 \* \*

마크는 창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 바람을 맞았다.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 욕실로 들어가 세안을 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었다.

‘클래스 세븐에서 고속 진급. 흐흐. 클래스 식스 애들이 어떤 대접을 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마크는 1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체구가 건장했다. 마법 세계에서 육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크기에 주눅이 드는 법이다. 거기에 더해 마법적인 재능도 타고났으니 클래스 세븐에서 그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덕분에 시로네를 몰아세워 이런 기회까지 얻었으니 자부심은 더욱 강해졌다.

“도련님, 기분은 어떠십니까?”

가느다란 체구의 남성이 문을 열고 인사했다. 한 달 동안 마크에게 순간 이동을 개인 지도한 마법사였다.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 급하게 구인했지만 이래봬도 공인 9급의 마법사인 데다 모사에 능한 인물이었다.

“괜찮아요. 시로네는 어때요?”

“여전합니다. 순간 이동이 익히기 쉽다고 한들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급시험을 치른다고 해도 도련님의 상대는 되지 못할 겁니다.”

“흠.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죠. 스피릿 존만큼은 나보다 크니까.”

마크는 방금 내뱉은 말에 만족했다. 흔히들 천재의 약점은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자신은 다르다. 타고난 재능에 노력까지 곁들였으니 시로네에게 질 리가 없었다.

“그건 그렇고, 작전에 참가하는 애들은 몇이나 되나요?”

“어제까지 들은 바로는 4명입니다.”

“꽤나 적네요. 공인 마법사에게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

“주제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겠죠. 어쩌면 알량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마크는 작전 참가를 거부한 학생들을 떠올리며 코웃음을 쳤다. 재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조기 진급의 기회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복을 걷어찬 셈이었다.

‘알아서 하라지. 어차피 진급은 바로 나, 슬라이더 마크의 차지니까.’

슬라이더 가문은 귀족서열 제3계급으로 아주 높은 등급은 아니지만 가족들 대부분이 마법협회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마법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했다.

콧대 높은 제1계급 자제들은 코웃음을 치겠지만 어차피 그런 애들은 마법에 확신이 없으면 입학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클래스 세븐 같은 곳에서 오래 있지도 않는다.

어떤 경쟁이든 상위권이 있으면 하위권도 있는 법. 마크는 어중간한 성적의 아이들을 끌어들여 작전조를 편성하기로 했다. 졸업 후에 협회에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몇 명이 넘어왔다. 합격자 1명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느니 거래를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다.

“4명 정도면 충분해요. 초반에 밟아 버리면 되니까.”

“순간 이동은 어떻습니까?”

마크는 문을 열고 나가며 엄지를 세웠다.

“완벽해요. 700미터 정도는 눈 감고 건너 드리죠.”

“건승을 빕니다, 도련님.”

공인 9급의 마법사는 마지막 날까지 마크를 예우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까마득한 후배지만 마법 협회의 기술고문인 아버지가 고용했으니 고용주의 아들이기도 했다.

마크는 고급반 건물로 향했다. 진급시험이 잡힌 날이라 수업이 없지만 테스트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은 남아서 자습을 하고 있었다. 마크 또한 작전조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곳을 찾았다.

예상대로 자습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시험을 치를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다.

마크는 그들의 면면을 살피며 우월감을 만끽했다. 오늘 교실에 남은 자들은 아마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구두나 닦을 처지라는 걸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터졌다.

“여어, 마리아! 너도 시험 포기야?”

마크는 멀리서 다가오는 마리아를 향해 손을 들었다. 그러자 마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로네 왕따 사건을 시이나에게 고발한 이후 그녀 또한 왕따가 되어버렸다.

마크는 어쩔 줄 모르는 마리아를 혐오스럽게 바라보았다.

‘쳇. 박쥐 같은 여자애. 같이 괴롭힐 때는 언제고 자기 혼자 쏙 빠져나가? 나이만 많았지 정말 쓸모없다니까. 저런 건 도대체 학교에 왜 다니는 거야?’

겁에 질린 마리아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마크, 실습장에 안 갔어? 너도 자습하려고?”

“하하!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너도 아닌데 말이야. 시간이 남아서 친구들이나 만날까 하고 온 거야.”

4살이나 어린 마크에게 하대를 당하는 마리아의 기분은 울적했다. 하지만 실력이 미천한 탓이라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너야말로 이런 데서 뭐하냐? 오늘 하루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실습장에 올라와서 견학을 하라고, 견학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도 공부야.”

“응, 그렇지…….”

마크의 훈계를 들으면서도 마리아는 어색한 미소를 고수했다. 빨리 대화를 끝내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 그럼 힘내. 꼭 합격하길 바랄게.”

“킥!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마크의 비소에 마리아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동급생이라서 참아 준 거야. 하지만 내가 선배가 된다면 그때는 각오해 두라고. 선생님에게 고자질한 일은 잊지 않을 테니까.”

마리아는 다급함에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체념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종종걸음으로 멀어져갔다.

마크는 코웃음을 치고는 작전조가 모인 교실로 들어갔다. 텅 비어 있는 강의실에 4명의 동급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가 셋, 여자가 하나. 한 달 동안 시로네를 방해하기 위해 훈련을 해 온 학생들이었다. 특히나 중점적으로 연습한 부분은 100미터 이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시로네도 분명 견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 초반에 치고 나갈 터였다. 어떻게든 그 전에 탈락을 시키는 게 관건이었다.

고의적인 충돌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겠지만, 마크의 입장에서는 사실 들입다 박아 버려도 상관이 없었다. 희생한 만큼 보상을 해 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어때? 작전은 제대로 세웠겠지?”

“응. 출발하자마자 두 사람이 먼저 시로네에게 달라붙을 거야. 그사이에 남은 두 사람이 너를 엄호할 거고. 만약 시로네가 거기서 더 치고 나온다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지.”

시로네를 떨어뜨릴 기회는 고작해야 두 번이 한계였다. 하지만 100미터 내에서 승부를 보는 것치고는 만족스러운 횟수였다.

아마도 시로네의 도약 거리는 정석적인 10미터. 그렇다면 작전조는 초반 10회 이내에 시로네를 추락시키면 된다.

“오늘의 도움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조기 진급하면 너희들을 이끌어 주지.”

“그래. 우리는 너만 믿고 있을게.”

마크는 만족스러웠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두 클래스 조기 진급의 주인공은 자신이 될 것이었다.

“좋아! 출발해 볼까?”

## [34] 순간 이동(5)

순간 이동 실습장.

해발 1,000미터의 봉우리에 학생들이 속속들이 도착했다. 수업이 없기 때문에 클래스 세븐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상위 클래스의 학생들까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오늘이 지나면 클래스 세븐에서 1명의 학생이 클래스 파이브로 진급하게 된다.

보통 하나의 클래스를 넘는 데 평균 2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4살 이상 어린 학생이 동급생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얘기였다.

“우와! 여기가 건널 수 없는 다리구나. 나 여기 처음 와 봐.”

진급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실습장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혀를 내둘렀다. 700미터 떨어진 반대편 봉우리에도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건널 수 없는 다리지? 다리가 어디 있다는 거야?”

“바보야, 저기 있잖아.”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긴 철봉이 연결하고 있었다. 길이가 길어질수록 장력은 떨어진다. 700미터 길이의 봉이 뻗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금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몇몇 학생들이 단애로 걸어가 아래를 살폈다. 교사들의 말과 다르게 안전장치는커녕 그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뭐야? 떨어지면 죽는 거 아냐?”

공간 이동으로 봉우리를 뛰어넘은 사드가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단다. 안전장치는 확실하니까.”

학생들은 안심할 수 없었다.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는 순간 이동 실습 중에 학생이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데요?”

“100미터를 추락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에어 네트 마법이 발동하게 되어 있지. 안전장치가 눈에 보이면 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시적으로 설계한 거야.”

“만약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죠?”

“하하하! 그럴 경우가 없다고는 말 못 하지.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흠,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자 사드가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안전장치가 고장 났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고급반 수업을 전부 중단시키고 교사들을 불러 모은 것이니까.

하지만 설령 사고가 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마법학교는 왕국이 지원하는 특수 목적에 해당하는 학교라서 수업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다고 해도 과실을 묻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학생들도 이미 그런 사실을 숙지하고 고급반에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는 진짜 오랜만에 오네. 에이미, 저쪽으로 가자.”

세리엘이 에이미의 손을 잡아끌며 언덕을 올랐다. 에이미는 못내 싫은 기색이었지만 결국 그녀가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보고 싶지 않다니까. 클래스 세븐 수준이야 뻔한데.”

“어머, 얘는! 남자 친구가 당당하게 클래스 파이브에 오르는 날인데 무슨 소리야? 이런 날에 애인이 응원해 주지 않으면 언제 점수를 따겠어?”

“쳇! 응원을 하나 마나 합격할 놈은 합격하고 떨어질 놈은 떨어지는 거지, 무슨.”

대범한 척을 하는 에이미였지만 속으로는 꽤나 신경이 쓰였다. 과연 한 달 사이에 순간 이동의 수준을 얼마나 끌어 올렸을까. 과연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기는 한 건가?

순간 이동의 감각을 익히는 데에는 실전 연습이 최고였다. 하지만 그 과정이 워낙에 고통스럽기에 대부분은 실력자의 조언에 따라 요령을 먼저 익히고 들어간다.

반면에 에이미는 말 그대로 몸으로 부딪쳐 터득한 타입이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스키마를 체득한 덕분에 크게 고생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로네는 아니겠지. 그렇다고 포기할 성격도 아니고. 컨디션이 괜찮아야 할 텐데.’

시로네만큼은 아니어도 클래스 세븐에는 주목할 만한 재능이 제법 포진해 있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로네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 근데 시로네가 아직 안 온 거 같은데?”

망원경으로 봉우리를 살핀 세리엘이 말하자 에이미는 황급히 망원경을 뺏어 들었다. 그녀의 말대로 벼랑에 서 있는 20명의 학생 중에 시로네는 보이지 않았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실패한 건 아니겠지?”

장담할 수 없었다. 시로네였기에 믿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 독학으로 익힐 만큼 녹록한 마법이 아니었다.

‘이 멍청이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 \* \*

따가운 햇살에 시로네는 눈을 떴다. 평소와 다르게 시야가 낮고 하늘이 높았다. 눈앞으로 어치 한 마리가 뛰어오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으아아! 이게 뭐야!”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훈련장 한가운데였다. 어젯밤에 쓰러진 뒤로 여태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날마다 3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한 데다 남은 일주일은 육체까지 혹사시켰으니 기절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급시험!’

시로네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허탈감을 느낄 새도 없이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해발 1,000미터를 오르려면 컨디션이고 뭐고 무조건 달려야 했다.

‘제발! 제발!’

건널 수 없는 다리(1)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음, 그러게.”

시이나가 하늘을 향해 조명 마법을 터뜨리자 실습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반대편 봉우리에서 조명을 확인한 에텔라가 학생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신호를 보내면 절벽으로 달리세요. 순간 이동으로 가장 멀리까지 간 사람이 진급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건널 수 없는 다리의 난이도는 레벨 1로 장애물이 없지만 허공을 날아야 하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다.

등수를 떠나서 최소 70회 이상의 순간 이동을 연계해야 안전하게 땅을 밟을 수 있다. 게다가 중간에 리듬이 깨지기라도 하면 추락의 공포로 스피릿 존마저 사라질 터였다.

‘어차피 못 건너. 결국 추락을 하긴 할 텐데,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전하다고 말해 줘도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지라 학생들 대부분은 긴장감에 몸이 굳었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마크와 작전조 정도였다.

‘흥. 매일같이 연습했어. 방해만 받지 않으면 칠십 번 정도야 충분하지.’

변수라면 시로네의 불참이었다. 마크의 전담 마법사가 시로네의 진도가 더디다는 보고를 했지만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자 별것도 아닌 놈에게 긴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이동. 익히지 못했군. 하긴, 원래부터 스피릿 존 말고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었지.’

시로네의 부재로 가장 초조한 사람은 에이미였다. 대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절벽 위를 불안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왜 안 와!”

“에이미, 저기 봐!”

세리엘이 반대편 봉우리를 가리켰다. 에이미가 망원경으로 확인하자 시로네가 정상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어디서 굴렀는지 옷에 흙먼지가 잔뜩 끼었고 숨조차 쉬지 못한 듯 얼굴이 새파랗게 떠 있었다.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온 거야! 저 바보가!”

세리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네. 시간 내에 도착해서. 하지만 지쳐 있을 텐데 괜찮을까?”

“몰라! 알 게 뭐야! 탈락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지!”

어쨌거나 시험장에 도착한 걸 보면 순간 이동은 할 수 있게 된 듯했다. 입술이 터져 있고 팔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자 시로네의 고행이 절로 그려졌다. 에이미는 이성을 되찾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늘은 바람이 꽤 부네. 어려운 시험이 되겠어.”

비행 마법 플라이만큼은 아니지만 순간 이동도 풍속이나 기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었다. 한시도 집중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시험이 될 터였다.

시험을 기다리던 학생들은 시로네의 등장에 표정이 굳어졌다. 포기한 줄 알고 방심하던 찰나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쳇! 저 자식 일부러 저런 거야. 혼란시키려고 말이야.”

“순진한 척하더니 아주 간사하네. 이런 비겁한 짓까지 해서라도 진급하고 싶나?”

아이들의 정신에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시로네는 체력이 방전된 상태였으니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었다.

에텔라는 숨을 헐떡이는 시로네를 보고 고민에 빠졌다. 시험 시작 전까지 도착했으니 자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험이란 동등한 상황에서 실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대로 진행시켜도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까?’

그녀는 주황색 조명 마법을 하늘로 쏘아 올렸다. 청색은 준비 완료, 적색은 테스트 시작, 주황색은 물음표였다.

에텔라의 조명탄을 확인한 교사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과 10분이라도 휴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페아스는 단호했다.

“시작하도록 하게.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시험을 앞둔 학생의 역량이지.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이나가 적색 조명으로 속행의 뜻을 전했다. 시로네는 일렬로 서 있는 학생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친절하게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은 마크가 심어 놓은 작전조였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긴장했다. 아무리 특별훈련을 받았더라도 1,000미터 낭떠러지를 달리는 건 다른 문제였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미지의 세계. 발밑으로 하늘이 펼쳐질 때 과연 무엇이 보일지, 어떤 기분일지, 얼마나 두려울지는 닥치지 않고서는 몰랐다.

“그럼 이제부터 클래스 세븐의 조기 진급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학생들이 달릴 자세를 취했다. 심장박동 소리만이 들리기 시작할 무렵 에텔라가 조명 마법을 시전했다.

펑 소리와 함께 적색의 구체가 하늘로 솟구쳤다. 건너편의 교사들이 서류철을 넘기며 기록할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선두! 선두를 차지해야 돼!’

‘1등으로 치고 나가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생각이었다. 그러자 다리에 힘이 풀린 시로네는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만회할 기회는 아직 남았다. 벼랑을 앞두고 어느 지점에서 순간 이동을 시전할 것인지는 각자의 각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스타트는 절벽을 박차고 날아오른 다음에 순간 이동을 시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긴장도가 가장 높은 시작 지점인 데다가 건널 수 없는 다리는 해발 1킬로미터의 고도였다.

풍속, 풍향, 기압 온도 등 모든 환경이 연습과 다르다. 맨몸으로 날아올랐다가 혹시라도 마법이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가급적 재기의 기회가 있는 지상에서 스타트를 끊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시로네의 예상대로 절벽까지 5미터가 남은 상황이 되자 공포를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먼저 순간 이동을 시전하여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머지 학생들이 속속들이 뒤따랐다. 선두를 유지하는 그룹에서 스타트를 끊지 않은 사람은 마크 일행이 유일했다.

‘안 돼! 조금만 더!’

그는 차오르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발을 굴렀다. 시로네는 분명 최상의 스타트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도 그에 준하는 스타트 포인트가 필요했다.

‘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아도 울렁거리는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다. 마크를 호위하는 작전조가 버티지 못하고 섬광으로 쏘아지자 그도 결국에는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절벽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시로네는 여전히 달리는 중이었다. 그런 만큼 시로네와 속도를 맞추고 있는 작전조는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이대로 가면 절벽에서 떨어지고 만다. 벼랑까지 두 걸음이 남은 시점에서 결국 작전조가 먼저 마법을 시전했다. 그럼에도 시로네는 계속 발을 굴렀다. 위험의 본질을 이해한 그에게 공포는 어떠한 방해거리도 되지 않았다.

아직 첫 번째 턴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다. 스타트만 잘 끊는다면 지상에서 뒤처진 부분을 만회할 수 있었다.

## [35] 건널 수 없는 다리(2)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는 것과 다르게 멀리서 지켜보는 관중들의 눈에는 그저 우르르 뛰어내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초 단위에서 벌어지는 접전이었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떨어진 게 아니다.’

절벽이 한 걸음 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도 시로네의 몸은 빛나지 않았다. 그러자 오히려 구경하는 학생들의 심장이 벌렁거렸다. 벼랑의 끝을 박차고 날아오른 시로네는 최대한 멀리 도약했다. 어마무시한 부유감. 강풍이 몸을 흔들고 산새들이 까마득한 발밑에서 무리를 지어 날아다녔다.

시로네는 오직 순간 이동에 집중했다. 도약의 임계점에서 마침내 그의 몸이 번쩍이며 섬광으로 튀어나갔다.

시로네를 마지막으로 모두 1턴을 끝냈다. 당연하게도 2턴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순위가 뒤집혔다. 스타트를 먼저 끊은 그룹이 후미로 처지게 되는 것이다.

시로네는 주행에서 벌어진 격차를 만회했다. 무엇보다 근소한 차이로 마크를 앞설 수 있었다.

마크는 뒤에서 튀어나온 시로네를 보고 기겁했다. 얼마나 스타트를 늦게 끊었으면 1턴 째에 자신을 앞지를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아직까지 선두 그룹의 격차는 10미터 안이기에 순위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지만 기대했던 작전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기분이 나빴다.

“이 자식! 거기 안 서!”

간발의 시간차를 두고, 시로네와 마크가 거의 동시에 순간 이동 마법을 시전했다.

\* \* \*

진급시험이 시작되기 10분 전.

우중충한 얼굴로 실습장을 향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

에를랑 마리아.

귀족서열 제3계급 에를랑 가문의 삼녀로 일찍이 마법적 재능에 눈을 떠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입학한 방년 19세의 재인이었다.

비록 지금은 클래스 세븐에 머물며 4살 어린 마크에게도 조롱을 당하는 처지지만, 처음부터 그녀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10살에 학교에 입학해 무려 9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 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경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아득바득 기를 쓰며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진급을 해봤자 새로운 경쟁의 시작이다. 그녀가 사는 인생은 도착지가 없는 마라톤일 뿐이었다.

“하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치고 올라간 타이밍을 놓쳐 버린 탓일까. 클래스 세븐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허무했다.

클래스 텐의 입학생이 클래스 세븐까지 올라갈 확률은 대략 40퍼센트였다. 절반 이하의 확률을 뚫었다는 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일이다.

마리아도 15살에 클래스 세븐에 들어왔을 때는 하늘을 날듯이 기뻤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고, 점차 좁아지는 진급의 틈새에 두려움을 느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성적이 좋았던 때는 클래스 세븐에 진급한 첫 번째 해였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점차 성적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신입생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수준까지 왔다.

경쟁하는 게 두려웠다.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조금 더 집요하고 조금 더 완벽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관성 때문일까, 아니면 조금이나마 열정이 남아 있기 때문일까. 그도 아니라면 노력한 시간이 아까워서 고집을 부리는 걸까?

마법이 좋아서 마법학교에 입학했던 마리아는 정체성을 잃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진급시험 같은 것은 남의 일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들과 교실에 남아 자습이나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정처 없이 걸었다. 그러다가 문득 실습장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린 참이었다.

아마도 저 꼭대기에는 빛나는 재능들이 호전적인 경쟁을 치르고 있을까? 그들을 보면 자괴감은 더욱 심해지겠지만, 어차피 그녀는 열정의 수명이 다해 가는 것을 느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은 어떤 해프닝이라도 벌어져서 조그마한 자극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허무한 발걸음을 옮겼다.

“응?”

봉우리 쪽에서 에텔라 선생님의 조명 마법이 솟구쳤다. 푸른색인 걸 보아하니 시험 준비가 한창인 모양이었다.

학생들의 함성 소리가 메아리를 타고 들렸다. 그곳으로 향할 자신감을 잃은 마리아는 걸음을 멈췄다. 그들의 함성이 닿는 곳은 자신이 아니었다.

‘내 자리는 저기에 없어. 클래스 세븐에서도 뛰어난 애들만 저곳에 있겠지.’

그 순간 어떤 악마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들면서 마리아에게 길을 인도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아서 발길을 돌렸을 뿐이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건널 수 없는 다리의 기관통제실에 도착해 있었다.

어쩌면 끝난 게 아니라는 희망.

그 희망을 부여잡고 그녀는 기관실의 문을 열었다. 직원이 의자에 앉아 하품을 하고 있었다. 보통의 진급시험이라면 교사가 대동하겠지만 오늘은 건널 수 없는 다리의 기관 장치가 꺼져 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총출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긴장이 풀린 직원이 다리를 쭉 뻗고 휘파람을 불었다. 하지만 잠시 후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며 고개가 꺾였다.

깊은 잠에 빠진 직원의 뒤편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정신을 이완시키는 수면 마법은 마법사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지만 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상당했다.

마리아는 기관 장치를 둘러보았다. 에어 네트의 안전장치가 가동되어 있고, 측면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회전식 스위치가 보였다.

그녀는 안전장치 버튼에 손가락을 댔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 정말로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

버튼만 누르면 된다. 평소의 그녀라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사람이 무언가에 홀리다 보면 달콤한 보상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는 법이다.

마리아는 버튼을 눌렀다. 막상 실행에 옮기자 헛웃음이 나올 만큼 간단했다. 끔찍한 일도, 비참한 결과도 없다. 그저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절벽에 설치된 에어 네트의 조명등이 붉은빛을 잃어 갔다.

\* \* \*

펑펑펑펑펑!

학생들의 무리에서 폭음성이 터졌다. 20명이 각기 점멸하며 1,000미터의 고공을 질주하는 상황이었다.

전체적으로 세 번째 턴이 진행된 시점에서 선두와 후미의 거리 차는 그리 벌어지지 않았다.

거대한 인간 군상이 움직이는 형세였다.

하지만 수준의 차이는 드러났다. 스타트를 일찍 끊었던 자들의 대부분은 발밑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흔들렸다.

‘헉헉! 진짜 떨어지는 거야? 여기를?’

아래를 내려다보니 만 리의 낭떠러지였다. 안전장치가 정말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 설령 안전하다고 해도 무조건 100미터를 추락해야 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스피릿 존이 약화되면서 도약 거리가 줄어들었다. 그럴수록 선두 그룹과의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스피릿 존은 극도로 예민한 정신 상태. 따라서 조금만 집중이 흐트러져도 유지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순간 이동의 전능에 실패한 후미 그룹의 학생들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으아아아아!”

“사, 사람 살려! 살려 주세요!”

와하하하하하!

건너편에서 지켜보는 선배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이미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경험한 그들은 허둥대는 후배들의 모습이 귀여울 따름이었다. 교사들도 미소를 지으며 탈락한 학생들의 평가를 서류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하지만 축제 같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교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에어 네트에 걸리고도 남을 시간이건만 사이렌 소리가 울리지 않고 있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기관실!”

“제가 가 보겠습니다!”

사드가 공간 이동을 시전했다. 하늘 위로 섬광이 치솟으며 기관실이 있는 곳으로 휘어들어갔다.

“일단 학생부터 구하겠습니다!”

시이나가 절벽 아래로 다이빙하며 무서운 속도로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에텔라도 상황이 이상함을 깨닫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교장 선생님, 어떡하죠? 시험을 중단해야 할까요?”

알페아스는 흐음 하고 숨을 내쉬었다. 공인 6급의 마법사가 2명이나 갔으니 학생들은 무사할 것이다. 다만 이대로 시험을 진행시킬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였다.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중단시키는 게 편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력을 다해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보상 받을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 안전이 보장되는 한에서는 참가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게 좋았다.

“일단 지켜보세. 20명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 이대로 끝난다면 학생들의 열정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겠나?”

낭떠러지에서 시이나와 에텔라가 동시에 솟구쳤다. 에어 네트 마법에 갇힌 학생들이 뒤를 따라 상승했다.

“무슨 일이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세리엘이 망원경으로 허공을 살피며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웅성거렸다.

하지만 에이미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공인 6급의 교사가 버티고 있는 곳에서 추락사가 일어나는 멍청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선두의 학생들은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자신이라도 그랬을 것이다. 클래스 파이브가 걸렸는데 안전 따위가 대수겠는가?

반면에 중위권 그룹에서는 눈에 띄게 소요가 일어났다. 교사들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학생들을 붙잡아 오는 걸 보고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 것이다.

‘안전장치가 없어?’

여태까지 공포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무리 실전과 흡사해도 실전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천 길 낭떠러지를 떠다니는 상황이었다.

“으아아아! 안 돼!”

“선생님! 구해 주세요! 시험 포기할게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냐!”

중위권 그룹이 속속들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이 빛을 번쩍번쩍 뿜어내며 학생들을 구출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두 그룹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 또한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오히려 쾌재를 불렀다.

‘기회다! 최대한 많이 탈락해라.’

마법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온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호승심은 보통 또래의 아이들과 궤를 달리했다. 현재까지 선두 그룹이 전진한 거리는 270미터. 클래스 세븐치고는 굉장한 수준이었다.

시로네는 여전히 1등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크와 작전조가 번갈아 가며 그를 앞질렀지만 다음 턴에서는 여지없이 역전 당했다. 순간 이동을 27회 연계하는 동안 1턴의 도약 거리는 10미터로 조금의 오차도 없었다.

‘오로지 순간만을 거듭한다. 연계의 개념은 지우자.’

시로네가 이번 테스트를 대비하면서 가다듬은 기계적인 루틴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인간은 기계보다 훨씬 정밀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복 강박이라는 무의식의 작용이었다. 강박을 이용하는 인간은 무섭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마치 기계처럼 장벽을 허물며 나아가기 때문이다.

‘젠장! 진짜 끈질기네! 다른 놈들은 뭐하는 거야!’

마크는 짜증이 났다. 시로네가 선두를 놓치지 않는 탓에 작전조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매서운 눈초리로 옆을 돌아보자 눈이 마주친 작전조의 여학생이 움찔했다. 최후의 수단을 시작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방법은 동반자살.

하지만 안전장치가 꺼져 있는 상태였다. 그녀는 과연 이게 맞는 일인지 의심이 들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어. 이대로 죽으나 실패한 인생을 사나 그게 그거야.’

그녀는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완주를 포기하고 순간 이동을 시전하면 잠시나마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다.

순간 이동을 고속으로 연계한 그녀가 시로네의 앞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또 한 명의 작전조가 시로네의 왼쪽 루트를 차단했다.

정면과 측면을 막은 상태에서 여학생이 속도를 줄이자 시로네도 도약 거리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 [36] 건널 수 없는 다리(3)

‘미안하다. 우리도 먹고살아야지.’

남학생이 눈을 질끈 감으며 시로네 쪽으로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충돌이 일어난다면 치명상은 피할 수 없다.

“크윽!”

공포에 신음성이 절로 새어 나왔으나 각오하고 있던 충격은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뜨자 시로네가 여전히 옆에 있었다.

‘방향을 틀었어.’

동반 자살보다 회피가 낫겠지만 거리에서 손해를 봤으니 승리는 물 건너간 셈이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추락하고, 마크가 시로네의 선두 자리를 탈취했다.

‘이런……!’

조금 전의 회피로 반복 강박이 끊긴 시로네는 순간 이동의 템포를 끌어 올리기 위해 이를 악물고 정신을 집중했다.

“방금 저 애들, 움직임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고급반 학생들에게서 말이 나왔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무리하다가 엉킨 거 아닐까? 설마 진짜로 부딪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아니, 일부러 부딪쳤어.”

클래스 파이브의 학생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쇳소리처럼 가느다란 목소리의 주인공은 클래스 파이브의 메르코다인 이루키였다.

일전에 이미지 존에서 시로네에게 조언을 건넸던 당사자로, 빼빼 마른 몸에 눈은 짝짝이고 이빨은 들쑥날쑥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확신해? 이런 경우 심증은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모르는 거야.”

손바닥을 펼친 이루키가 주먹을 치받으며 말했다.

“1명이 길목을 막고 측면에서 때리는 거지. 순간 이동의 즉시성과 공간 도약,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봉쇄하는 훌륭한 작전이야. 시로네가 회피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경기는 끝났겠지. 물론 나라면 운동방정식을 계산해서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빠져나갈 수 있었겠지만.”

동급생들이 다시 시험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더럽게 잘난 척하네.’

한편 마크와 차이가 벌어진 시로네는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남은 거리는 350미터.

절반을 지나간 시점에서 시로네와 마크를 제외하면 모든 참가자들이 탈락한 상황이었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1등을 확신하는 순간 마크는 전율했다.

눈앞에 가로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40회 가까운 순간 이동을 시전했음에도 피로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늘의 나는 평소와 다르다. 합격은 나야!’

클래스 파이브의 고속 진급, 부러워하는 동기들의 얼굴, 클래스 식스 선배들의 굴욕감 등이 뇌리를 스쳤다.

“하하하! 내가 1등이다!”

마크가 순간 이동의 템포에 박차를 가하자 시로네와의 거리가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시로네의 리듬이 갑자기 빨라지자 순간 이동의 파공음이 북을 두드리듯 울려 퍼졌다.

학생들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다.

“시로네가 따라잡기 시작했다! 여기가 승부처야!”

“마크! 더! 더 빨리! 더, 더, 더!”

그때 마크의 눈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건널 수 없는 다리의 철봉이 기하학적으로 휘어지더니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발끝이라도 걸리면 골절상은 기본이고 중심이 깨져 추락을 피할 수 없었다.

-경고. 경고. 건널 수 없는 다리의 기관 장치를 가동합니다. 레벨 10. 레벨 10.

고급반의 학생들이 기겁했다.

“레벨 10이라고?”

건널 수 없는 다리의 최고 난이도.

고급반의 상위 클래스조차도 이토록 흉흉한 형태로 철봉이 휘어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기관 장치가 가동되다니!”

교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안전장치가 꺼진 것도 모자라 최고 난이도의 트랩이 가동되어 버린 상황이었다.

“사드 선생은 뭐 하는 거야! 기관실로 갔잖아!”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하죠? 진급시험은…….”

알페아스는 시로네와 마크를 덮치기 일보 직전인 휘어진 철봉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학생들이 어떤 각오로 졸업 시험에 임하는지 알고 있기에 가급적 그들의 의지를 존중하고 싶었으나 건널 수 없는 다리의 레벨 10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애초에 변별력 자체가 없다. 저 아이들의 클래스로는 통과할 수 없어.’

알페아스가 씁쓸하게 말했다.

“시험 취소하고 기관 장치 해제하게.”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한 줄기의 섬광이 시험장의 하늘로 솟구쳤다.

사드를 찾아 기관실로 떠난 시이나였다.

\* \* \*

한편 시험장의 상황을 모르는 사드는 혼자 콧김을 씩씩 불어 대며 기관실의 입구로 다가갔다.

“젠장! 누군지 걸리기만 해 봐라!”

미치지 않고서야 담당 직원이 기관 장치를 해제할 일은 없으니 교내의 악동들이 수작을 부린 게 분명했다.

“도대체 누가……!”

소리치며 문고리를 거칠게 돌리는데 딸칵하고 안에서 잠겨 있는 소리가 들렸다.

“이 자식이!”

스피릿 존을 펼치자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등을 대고 앉아 있는 게 느껴졌다.

손에 불기운을 피워 올린 사드가 말했다.

“열어.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시전할 거다. 열지 않으면 너도 날려 버릴 거야.”

“상관없어요. 아니,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선생님.”

예상 밖으로 마리아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전담 교사는 아니지만 사드가 부임하기 전부터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니 착각할 리는 없었다.

“너, 마리아냐?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해요, 선생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문 열어. 일단 얼굴부터 보고 얘기하자.”

“저는 이제 퇴학이겠죠? 아니지, 감옥에 가게 될까요?”

“아니야, 마리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들어 줄게. 일단 문부터 열어.”

“상관없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죽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드는 이글거리는 불을 잠재웠다.

“하아. 그래,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평소 마리아의 행실로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문을 박살 내도 소용이 없을 터였다.

사드는 철문에 등을 대고 앉아 어린 시절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던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장 튀어나오라고 윽박지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마리아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진정이 되었다.

“선생님.”

“왜?”

“제가 미우시죠?”

“난 여자는 안 미워해.”

기본적으로 여자를 좋아하지만, 지금의 발언은 그것과 무게가 다른 사드만의 괴팍한 신념이었다.

“어째서 세상은 불공평한 걸까요?”

“하하! 불공평한 게 싫으냐? 너처럼 예쁘게 태어나는 경우도 드물어.”

“천재 마법사라고 불리는 선생님은 몰라요, 재능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잘해 보고 싶어도 절망감이 앞서요. 뭘 해도 안될 것만 같아요. 그게 얼마나 막막한 기분인지 아세요?”

“……알지.”

마리아는 철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이요?”

“스물두 살에 졸업했으니 교사가 된 지도 벌써 4년이네. 네가 입학했을 당시에 나는 졸업반이었겠구나. 내가 여기 출신인 건 알고 있지?”

“네.”

“그럼 떠올려 봐. 사드라는 학생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니?”

그러고 보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시로네의 경우만 봐도 특이한 일이었다.

“아뇨.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렇겠지. 성적은 중하위, 재능도 없지, 그렇다고 집안이 빵빵하지도 않지, 항상 학교 밖에서 싸움만 하고 돌아다녔지.”

“선생님이요?”

“그래. 클래스 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꼬박꼬박 2년을 채웠지. 졸업반에서는 3년이나 꿇었고. 하하! 물론 지금의 너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지만.”

사드는 마리아의 부루퉁한 표정을 상상하며 말했다.

“하지만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 최고가 될 수 없는 이상 누구든지 언젠가는 꺾이게 되어 있어. 나도 마찬가지였지. 어떻게 졸업반까지는 올라갔지만 매번 낙방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잘나가는 교사가 됐냐고? 다 운이야, 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남들만큼 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를 꺾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염증이 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드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네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건,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마리아는 그 말을 조용히 읊조렸다.

“마리아, 꼭 누군가를 이겨야 할 필요는 없어. 네가 마법을 좋아하면 그것으로 된 거야. 이 세상에는 누군가와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이야. 나처럼 말이야.”

마법이 좋아서 학교에 입학한 열 살의 소녀는 9년이 지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내 인생이 변했지. 생각해 보면 정말 괴짜 같지. 교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말을 하다니.”

“그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 내 스승님인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

마리아의 고개가 홱 돌아갔다.

“네? 교장 선생님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정식 제자가 되었고 개인 지도를 받았지. 엄청난 특혜야. 덕분에 인생 폈지, 뭐. 대륙에서 이름난 마법사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처럼 개차반 같은 놈도 천재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겠냐? 어때? 부럽지? 인생은 다 운이야, 운. 하하하!”

마리아는 다시 울적해졌다.

“그래서 내가 해 주고 싶은 말은, 세상은 결국 불공평하다는 거야. 누군가는 재능을 타고나고, 누군가는 악바리처럼 경쟁에 뛰어들고. 하지만 재능도 없고 경쟁도 싫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끔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야. 그렇기에 다들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사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섰다.

“누구에게나 기적은 찾아올 수 있어. 벌써부터 포기하기에는 여태까지 버린 시간이 아깝잖아.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해 보면 어떨까?”

마리아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무 재능도 없는 제가 찾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기적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걸어야 하나요? 만약에 찾아오지 않으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리아?”

사드가 철문에 손을 대고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너에게도 기적이 찾아왔잖아.”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나하고 다시 해 보자. 남들처럼 승승장구하지는 못했지만 벌써부터 너를 단정 짓지 마. 정말로 운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일 수도 있어. 학교 수업이 모두에게 효율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 다시 한 번 너를 맡겨 주면 안 될까? 반드시 마법사로 만들어 줄게.”

마리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선생님,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마법이 네 인생의 전부라면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덜컹 소리가 들리고 퉁퉁 부은 눈으로 자물쇠를 열고 나온 마리아가 급하게 소리쳤다.

“선생님! 빨리 장치를……. 장치가……!”

“응? 장치?”

700미터를 도약한다고 해도 순간 이동 마법이라면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는다.

지금쯤이면 테스트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고 여태껏 무소식인 것을 보아하니 교사들의 역량으로 무사히 진급시험이 끝난 모양이었다.

그 순간 사드의 기대를 배신하듯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섬광이 추락했다.

“사드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시이나의 얼굴에는 분노와 다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사드의 멱살을 잡으려던 그녀가 마리아를 발견하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마리아? 네가 왜 여기에?”

사드가 물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시이나가 다시 소리쳤다.

“빨리 기관 장치를 해제하세요! 건널 수 없는 다리의 난이도가 레벨 10으로 맞춰졌다고요!”

“네에?”

안전장치만 해제시킨 게 아니었단 말인가?

마리아의 말을 떠올린 사드는 사실임을 깨닫고 황급히 기관실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 또다시 한 줄기의 섬광이 휘어져 들어왔다.

공간 이동으로 날아온 에텔라가 시이나와 사드를 발견하고는 헐레벌떡 이쪽으로 달려왔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큰일!”

말 그대로 초대형 트랩이 가동된 상황이었기에 시이나는 덜컥 겁부터 났다.

“왜 그러세요? 설마 사고라도……?”

에텔라가 충격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소리쳤다.

“시로네가…… 시로네가!”

## [37] 건널 수 없는 다리(4)

\* \* \*

교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건널 수 없는 다리의 난이도가 레벨 10으로 오른 것은 고급반 수업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선생님! 저, 저기!”

한 교사가 손을 들어 가리켰다.

입체적인 구조물로 얽혀 있는 철봉의 중심으로 시로네와 마크가 뛰어들고 있었다.

“제길! 무모하기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당사자들의 판단은 이대로 시험을 속행하는 것이었다.

진급에 대한 집념은 칭찬할 만했지만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살행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엄청난 트랩이다.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목숨이 오가는 판국에서도 시로네는 오직 건널 수 없는 다리를 통과하는 방법만을 찾고 있었다.

철봉이 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물은 ‘웨이브 진행 방식’으로, 마치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드는 구성이었다.

‘제자리에서 기다려 봤자 트랩은 끝없이 밀려들 거야.’

결국 최단시간에 웨이브를 돌파하여 어떻게든 건너편에 도착하는 게 관건이었다.

첫 번째 웨이브는 철봉이 휘어지면서 채찍처럼 쇄도하는 구조였고, 손쉽게 회피한 마크는 나름 자신감을 얻었다.

‘이 정도라면 뭐…….’

아무리 어려운 난이도라도 진급을 할 수 있는 것은 1등만의 특권.

‘위험수위가 높아질수록 변별력도 높아지지. 차라리 잘된 일이야.’

마크의 경쟁심은 이런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다.

‘안 돼! 큰일 났다!’

반면 시로네는 당장의 위험이 아닌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재난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웨이브 시작 지점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레벨 10의 장애물은 그때그때 회피한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1차, 2차, 3차, 최소한 5차 이상의 웨이브를 전부 분석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막다른 곳으로 몰리게 된다.

“뭐, 뭐야?”

예상대로 마크는 첫 번째 함정을 피하자마자 넋을 잃은 표정을 지었다.

수직 웨이브 다음에 이중 수평선이 밀려들고, 그 다음에는 삼중 수평선이 물결처럼 흔들리며 밀려왔다.

철봉의 전진 속도로 보건대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뼈가 부러질 위력이었다.

‘안 돼. 저건 못 피해.’

세 번째 함정보다 높은 위치에서 상태를 주시하고 있던 시로네가 금방이라도 허리가 부러질 상황에 처한 마크를 향해 빠르게 내려갔다.

“크윽!”

마크가 트랩에 걸리기 직전, 처참한 결말을 상상한 학생들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그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시로네가 마크의 허리를 끌어안고 순간 이동을 연계하며 함정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시로네!”

마크를 구한 것은 대단한 용기지만 일견 무모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더군다나 엄연히 테스트 중이 아니던가.

“뭐야? 착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당연한 거 아냐?”

“당연하다고? 너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

“이 자식이! 거기서 내가 왜 나와?”

학생들이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이루키만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이 바보들아…….’

트랩은 시야의 끝까지 뻗어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로네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물 형태의 망이 다가올 때는 테스트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머릿속이 창백해질 정도였다.

‘저걸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무려 20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트랩이 다가오자 파리채를 기다리는 날벌레가 된 기분이었다.

“으아아! 살, 살려 줘!”

마크가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이미 용기가 꺾여 버린 이상 테스트 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죽는다.

그런 확신이 들 만큼 다가오는 함정의 숫자는 끝이 없었고 형태 또한 갈수록 기괴해지고 있었다.

“가만히 좀 있어!”

시로네가 돌파구를 찾아 머리를 굴렸으나 빠져나갈 공간조차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순간 이동은 무력할 뿐이었다.

‘아니, 아니야.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라면 처음부터 만들지도 않았을 거야.’

그 순간 뇌리에 섬광과도 같은 생각이 꽂혔다.

‘그거다!’

“으아아아! 우린 다 죽고 말 거야!”

마크가 비명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시로네가 순간 이동을 시전하자 이루키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바로 그거야!”

순간 이동으로 후진을 선택한 시로네는 그물이 다가오는 속도보다 빠르게 거리를 벌렸다.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느라 뒤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물러서서 충분히 거리를 확보한 다음 그물을 통째로 뛰어넘으면 간단한 일이야.’‘

타이밍을 잡은 시로네는 사선으로 상승했고, 아슬아슬하게 그물의 외곽 프레임이 발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일단 통과. 하지만…….’

레벨 10의 난이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시로네가 고도를 높이자 그에 맞춰 철봉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음 함정이 쇄도하고 있었다.

세리엘이 답답한 듯 소리쳤다.

“어째서 저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지? 마크가 탈락하면 무조건 진급할 수 있는 거잖아.”

에이미가 말했다.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야.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잖아.”

“착한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굳이 저럴 필요는 없잖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마크는 애들을 고용해서 방해하는 치졸한 짓을 했어.”

“시로네는 1등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남이 주는 숫자 따위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다.

“진급시험에 통과해 더 높은 수준이 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납득할 수 없다면 진급해 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시로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는 에이미였지만, 그렇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수가 없었어. 너무 위험해. 이 시험은 여기서 중단시키는 게 맞아.’

건널 수 없는 다리의 레벨 10은 클래스 포의 수준에서는 누구도 건널 수 없다.

시로네가 여전히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에이미의 경험에 의하면 여태까지 통과한 함정들의 난이도는 고작해야 6레벨 정도였다.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귀청이 울릴 정도로 고함을 지르던 마크의 눈자위가 하얗게 변하더니 결국 게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반면에 시로네의 정신은 더욱 첨예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마저 잊은 채 함정을 통과하자 발을 동동 구르던 교사들도, 호들갑을 떨던 학생들도 이제는 침묵을 지켰다.

알페아스마저 경탄에 경탄을 거듭하며 시로네의 현란한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긴 상태였다.

‘위기는 잠재력을 끌어 올리지. 하지만 누구라도 인내의 한계는 있는 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인가?

현재 건널 수 없는 다리는 시속 2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속도만으로 압도당하여 의식을 잃어버려도 무방한 상황.

그런데도 시로네는 시커먼 철봉의 구조물 사이를 마치 번개처럼 번쩍거리며 관통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한계는 없었다는 것인가?’

상승세를 타더라도 끝없이 치솟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만족해 버리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마법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마법사가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실력이나 재능의 문제만 있을까?

어떤 경지에 오르면 스스로 만족해 버리고 마는 그릇이라는 한계치는 인간의 심리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의 장벽이었다.

‘시로네, 너는 인간의 몸으로 무한을 꿈꾸는 것이냐?’

애초부터 그릇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만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가는 난이도에도 정신이 감당해 내고 있는 것이다.

무아지경에 빠져 있을 게 분명한 시로네는 어쩌면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카르시스 수도회의 최연소 비숍인 에텔라는 오늘 지켜본 시로네의 무용을 평생 잊지 못할 듯했다.

‘무한분의 일에 가까운 탈출구를 실시간으로 끝없이 찾아내고 있다.’

대체 어떤 정신이면 저게 가능할까?

‘위대한 고승조차 좌탈입망 상태에서나 유지될 수 있는 정신력인데.’

구조물은 이제 복잡한 단계를 지나 기괴한 느낌이 들 정도로 꼬여 가고 있었다.

규칙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혼돈의 함정이었다.

‘더욱 잘게 쪼개야 돼.’

1미터 이내로 움직이지 않으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웨이브가 짧아지자 시로네의 도약 거리도 줄어들었다.

하나를 피하고 다음 하나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부 분석하고 뛰어들어야 한다.

좌우좌좌우좌…….

시로네는 고리 형태로 겹쳐서 날아드는 트랩을 눈에 각인시키고 패턴을 떠올렸다.

순간 이동을 시전하자 섬광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구조물 사이를 관통했으나 이번에는 똑같은 형태의 트랩이 수직으로 밀려들었다.

패턴을 계산할 시간조차 없었다.

‘더 조밀해야 돼!’

시간이 더욱 잘게 쪼개지더니 순간 이동의 섬광이 포물선을 그리며 아래로 휘어졌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까지 입을 벌린 가운데 이루키가 짝눈을 치켜뜨며 소리쳤다.

“레인보우 드롭! 결국 거기까지 가는구나!”

물결처럼 휘어지는 섬광이 마치 미꾸라지처럼 서클의 중앙을 유영하듯 관통했다.

레인보우 드롭은 순간 이동의 고등 기술로, 졸업반의 전공자 수준에서나 가능한 마법이었다.

그렇기에 고급반의 학생들은 섬광이 휘어지면서 함정을 빠져나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말 가능한 거야? 순간 이동이 어떻게 휘어질 수가 있지? 빛은 직선으로만 움직이잖아?”

이루키가 머리를 똑똑 두드리며 말했다.

“간단한 원리야. 원을 미분하면 무한의 직선이 나오지. 순간 이동의 간격을 1천분의 1 정도로 쪼개 버린 거야.”

“1천분의 1? 인간이 그게 돼?”

“계산이 불가능하더라도 감각적으로 상상은 할 수 있어. 전지보다는 전능의 힘이 엄청난 놈이야. 한마디로 나와는 반대 성향의 천재라고 할 수 있지.”

학생들은 이루키의 말을 외면하듯 고개를 돌렸다.

‘천재 좋아하네. 클래스 파이브 주제에.’

한편 그러는 사이 건널 수 없는 다리의 속도는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었다.

철봉의 잔상이 길어져서 이제는 눈이 적응한 당사자가 아니면 구조물의 형태조차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잔상 속을 빠져나가는 시로네의 모습은 기술을 뛰어넘어 예술의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다.

직선의 빛을 잘게 쪼개어 곡선의 궤적을 운용하는 광경에 모두가 넋을 잃은 상태였다.

“설마 진짜로…… 되는 거야?”

건널 수 없는 다리의 도착 지점까지 남은 거리는 고작해야 30미터.

이제는 학생들도 다른 생각을 접어 두고 오직 시로네의 통과만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마법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고급반 학생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마스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교장 선생님! 저기!”

누군가 다리의 도착 지점을 손으로 가리키자 그곳을 지켜본 모든 교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도착 지점에서부터 철봉이 불붙은 머리카락처럼 꼬이기 시작하더니 입체적인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용의 미로다! 저건 안 돼! 빨리 장치를 해제해!”

용의 미로는 레벨 10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하는 함정으로, 완성 형태가 용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외관은 비슷하지만 내부 구조는 만들어질 때마다 다르고, 함정을 구조하는 데 들어가는 철봉의 길이만 무려 600미터에 달했다.

철봉이 꼬이는 과정부터 미리 파악하고 탈출 패턴을 발견하지 않으면 용에게 삼켜져 만신창이가 되어 버리는 무시무시한 함정이었다.

한계까지 집중하고 있는 시로네의 눈에도 철봉이 꼬여 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눈을 깜박이는 것조차 잊고 구조물의 패턴을 머릿속에 담아 두고 있는 그때 옆구리에서 흔들림이 느껴졌다.

“으아아아! 뭐야! 사람 살려!”

의식을 되찾은 마크가 시간을 뛰어넘어 거대해진 함정을 발견하자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단계별로 트랩을 통과한 게 아닌 그의 눈에는 분석할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질주하는 함정의 향연이었다.

‘온다!’

그런 상황에서도 용의 미로는 사상 최고치의 속도로 입을 벌린 채 돌진해 오고 있었다.

## [38] 건널 수 없는 다리(5)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 남짓, 이번만큼은 시로네도 심장이 철렁할 수밖에 없었다.

‘포기하면 안 돼!’

전기 자극이 뇌를 강타하면서 시로네는 마크의 비명으로 흔들렸던 스피릿 존을 다시 정비했다.

여기까지가 10분의 1초.

시로네는 생각했다. 여유로운가?

하지만 1초를 10으로 나누는 상상은 할 수 있어도, 0.1초를 열 번 느끼는 건 불가능했다.

따라서 방법은 단 하나, 계속 쪼개는 것이었다.

100분의 1초.

용의 미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했다.

전체적인 형태는 칠각형의 별 모양. 갈림길은 6개.

1천분의 1초.

미로의 형태를 되짚은 끝에 탈출구를 찾아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아홉 번의 순간 이동을 연달아 시전해야 한다.

‘안 돼! 마크를 데리고는 불가능하다!’

두 사람이 빠져나갈 틈이 없으면 다른 루트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용의 미로가 시로네를 집어삼켰다.

남학생들은 차라리 고개를 돌려 버렸고 여학생들은 참혹한 결말을 떠올리며 비명을 질렀다.

세리엘의 비명 소리가 가장 컸다.

퍼퍼퍼퍼퍼펑!

좁은 공간에서 몰아치는 파공음이 마치 시로네와 마크의 절규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가 사라졌다.

1만분의 1초.

통찰로 음미하기에도 까마득히 아련한 시간 속에서, 시로네는 다시 한 번 모든 패턴을 분석하여 탈출구를 찾아냈다.

순간 이동의 섬광이 용의 미로를 빠져나왔고, 찬란한 빛으로 번쩍이는 시로네가 결승선을 통과하여 착지했다.

“하아, 하아.”

시로네는 마크를 내려놓고 몇 걸음을 더 걸어다가가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한 채, 학생들은 마치 귀신을 보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시로네를 향하고 있었다.

에텔라가 사드를 찾아 떠난 시이나를 향해 공간 이동을 시전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 장치가 꺼지며 에코의 음성이 들렸다.

-건널 수 없는 다리의 기관 장치를 해제합니다. 레벨 제로. 레벨 제로.

철봉의 이동속도가 느려지고 나무 넝쿨처럼 자라 있던 구조물이 수평을 되찾으면서 최초의 건널 수 없는 다리의 형태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뭐, 뭐야…….”

학생들이 느끼는 건 한 가지였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돼. 레벨 10이었는데. 그것도 용의 미로를 통과했어.”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지상에 주저앉아 있던 시로네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뭐지? 왜 나를 보고 있지?’

중간마다 기억이 비어 있었으나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었다.

그제야 현실이 머릿속으로 정리되면서 시로네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했다.

“흐아,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허망할 정도로 멋이 없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세리엘은 이것이야말로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의 시로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이미! 시로네가 해냈어! 네 남자 친구가 해냈다고!”

남자 친구라는 말은 뺐으면 좋았겠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세리엘의 모습에 에이미는 이번만은 넘어가 주었다.

학생들이 경쟁하듯 다가와 시로네에게 말을 건넸다.

“축하한다! 너 진짜 멋있었어!”

“그럼 이제 클래스 파이브로 진급하는 거야? 하하하! 클래스 식스 애들은 속 좀 쓰리겠는데?”

시로네가 축하를 받는 동안 기관실로 갔던 교사들과 마리아가 공간 이동으로 도착했다.

시이나는 시로네부터 살폈다.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이 없기는 했으나 크게 다친 데는 없는 모양이었다.

‘용의 미로를 통과했다고?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졸업반 애들도 수십 번씩 연습을 하는 난이도인데.’

역사적인 장면을 놓치게 만든 사람에게 눈총을 주자 사드가 어깨를 으쓱하며 변명했다.

“알다시피, 아니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시이나는 한숨을 내쉬고 알페아스에게 걸어갔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로네와 마크가 동시에 들어왔다면 확실히 결과를 공표하는 게 뒷말이 없을 터였다.

“교장 선생님, 일단 합격자 발표를…….”

깜박하고 있었던 알페아스가 정신을 차린 표정을 짓더니 인자한 미소로 학생들에게 말했다.

“조기 진급시험의 합격자는 아리안 시로네입니다. 시로네를 클래스 파이브로 진급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보여 준 여러분의 용기는 앞으로 알페아스 마법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정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부터 시작된 박수갈채가 후배들로 이어졌다.

더 이상 시로네의 조기 진급에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었고, 직접 대결한 마크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천재라는 게, 정말로 있구나.’

용의 미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순간 이동을 시전했던 상황이 지금도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좌절하고 후퇴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자가 있는 것이다.

‘이러면 변명의 여지조차 없잖아.’

마크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시로네에게 걸어갔다.

이번 테스트에 모종의 협약이 있었다는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상하고 있었으나 마크는 이미 각오했다는 듯 모두의 앞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선배님, 제가 졌습니다. 멋진 승부였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페아스의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배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래, 오늘 고생했어. 나도 열심히 할게.”

그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던 에이미가 몸을 돌리며 세리엘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만 내려가자.”

“어? 왜 벌써 가? 오늘 같은 날은 애인하고 있어야지.”

“그럴 시간 없어. 시로네가 해냈으니 이제는 내 차례야. 나도 진급시험을 준비해야지.”

“정말 괜찮아, 이대로 가도?”

에이미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으나 흥분을 가라앉히려면 당장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에이미.”

시로네가 부르자 에이미가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섰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자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방금 이름 부른 거야?”

“당연하지. 사귀는 사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에이미 선배님인데…….”

여태까지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에이미는 후배들에게 선배 이상의 의미였다.

지금 당장 졸업반에 들어가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만큼, 지금의 상황은 놀라웠다.

시로네는 주위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에이미를 향해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이며 웃었다.

“이제 두 계단 남았다.”

“하하…….”

올라간 에이미의 입꼬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가 졸업반 진급 테스트에 통과했을 경우 이제 시로네와의 격차는 두 계단이었다.

“가자, 세리엘.”

“응? 어, 알았어.”

에이미가 몸을 돌리며 멀어지자 세리엘이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라 산을 내려갔다.

클래스 세븐을 제외하고 다른 고급반 학생들도 하나둘씩 흩어졌고, 그제야 사드가 알페아스에게 다가갔다.

“교장 선생님, 마리아의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드는 기관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그랬구먼.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알페아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리자 마리아가 다가와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어떤 죗값을 치르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흐음, 일단은…….”

그때 마크가 끼어들었다.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저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교사들의 시선이 돌아간 곳에 마크가 삐딱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 때문이라니?”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마리아 속을 엄청나게 긁어 놨거든요. 사실 저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꼭지가 돌아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제가 받을게요. 원인 제공자니까.”

시이나가 말했다.

“설령 그렇더라도 마리아의 행동에도 문제는 있어. 그리고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착한 놈은 아니지만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일을 저지를 만큼 찌질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애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입 다무는 것도 쪽팔리는 일이고. 덧붙이자면 시로네 선배님을 견제할 작전을 짠 것도 저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마크지만 이번 시로네와의 일전으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실력으로 압도한다.’

잡다한 생각 따위는 접어 두고 오직 눈앞의 난관을 뛰어넘어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은, 여태까지 마크를 이루고 있던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강렬한 충격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저에게 내리는 징계는 뭐가 됐든 달게 받겠지만 다른 애들은 좀 봐주세요. 특히 마리아는…….”

마리아를 흘끗 바라본 마크가 말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날마다 애들끼리 작당해서 괴롭혔거든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하겠어요?”

알페아스 또한 마리아에 대해서는 생각이 깊었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으나 학교의 누구보다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단련해 왔던 마법사 지망생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퇴학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에서 젊은 날의 자신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스승님…….’

알페아스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드는 애잔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미르히 가문의 빛.

알페아스가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건 빛의 마법이었다.

지금이야 케케묵은 이론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기발한 발상으로 왕이 하사하는 골드서클상까지 수상했었다.

하지만 빛나는 재능은 젊은 알페아스를 혼란의 수렁으로 빠트렸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둠 속을 헤매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알페아스는 역사에 이름이 새겨질 위대한 마법사가 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두 사람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마. 마리아는 기관 장치를 불법으로 작동시켜 시험을 방해한 죄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위험을 야기했지. 다만 마크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참작하여 징계를 내릴 것이다.”

마리아와 마크가 고개를 숙이자 클래스 세븐의 학생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마리아를 괴롭혔어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작전조에 들어가서 시로네 선배를 공격했어요.”

클래스 세븐 모두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번 마리아 사건이 학급 전체의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뜻이다.

어차피 불거질 사안이었지만 자진해서 죄를 고하는 용기는 마법사답다고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모두들 돌아가서 판결을 기다리도록 해라.”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계위원회에 반영할 것이다.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징벌이 내려질 것이고, 마리아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지는 않을 것이야.”

확답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교장의 말이었기에 무게감은 상당했다.

시이나가 물었다.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신가요? 아직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교사일세. 학생을 올바르게 이끄는 사람이지 심판하는 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네. 저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키워야 할 제자들이야.”

마리아가 참지 못하고 펑펑 눈물을 쏟아 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잘됐구나, 마리아.’

아마도 지금의 상황은 마리아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기적 같은 기회일 터였다.

마치 알페아스를 만났을 당시의 사드처럼.

‘세상은 운이라지만…… 포기해 버리면 그 운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것이지.’

마리아가 마법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오랜 시간을 클래스 세븐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비록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사드는 그렇기에 살아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간절히 꿈꾸고 버텨 낸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는 법이니까.

## [39] 또 1명의 천재 (1)

시로네는 클래스 파이브로 진급했다.

지식의 척추라는 독특한 공부 방식을 알고 있는 시이나가 전담 교사가 됐다는 건 행운이었다.

한 번에 클래스가 두 계단이나 상승했기에 진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시로네는 기존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했다.

고급반은 매주 한 번씩 시험을 치르고 월말에 최종 시험을 거쳐 한 달의 등수를 책정하는데, 시로네는 첫 번째 시험에서 40명 중에 40등을 했다.

총 11개의 과목이었고, 평균 점수는 고작 32점.

다만 과목별 점수가 전부 30점에서 33점 사이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했다.

두 번째 이론 시험의 평균 점수는 34점이었다.

‘평균 2점의 상승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전 과목의 점수가 동시에 올랐다.

세 번째 시험도 비슷하여, 이번에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로 과목별 점수가 전부 36점에서 39점 사이에 분포되었다.

‘전체가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로네의 성적 그래프를 보고 있노라면 그의 의지가 느껴졌다.

‘다행이야. 하위권에서 오래 머물 경우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프에서는 그러한 불안감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론 시험은 중요하다. 전지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 중의 하나니까.’

교사들은 대략 60점 이상부터 마법을 구사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한 달에 10점씩 올린다고 치면 세 달 후부터는 기초적인 마법의 운용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서 마법의 기본기는 거의 구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성향에 따라 적성도 차이가 나게 되고 고득점으로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래프를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대감이 들었다.

과연 한 과목도 놓치지 않은 상태로 어디까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결과에 따라 시로네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 날 터였다.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성적이 낮다고 시로네를 무시하는 학생은 없었다.

클래스 파이브 정도가 되면 학생들의 지상 과제는 당장의 등수가 아닌 졸업반으로 맞춰진다.

세계 각국은 최고 수준의 마법 체계를 유지하는 데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공을 특화시켜 다른 마법사와 차별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별다른 특기가 없는 학생들은 빛의 스페셜리스트인 시로네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광자 계열이 잘 맞는 것 같아.’

무엇보다 광자 계열은 전지보다 전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분야였다.

물론 전지 쪽도 상당히 발전된 이론을 구축한 상태지만 빛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간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실제로 시로네가 시간의 분절성을 통찰력으로 느끼지 못했다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완주하지 못했을 터였다.

이런 연유로 동급생들은 시로네를 무시하지 못했고, 통합 수업 시간에는 후배들이 인사를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후배들 중에서 가장 시로네를 잘 따르는 학생은 징계를 받고 돌아온 마크였다.

“선배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자리 맡아 놨어요.”

“응, 고마워.”

클래스 세븐의 대장 격인 마크는 시로네와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어머! 여기 있었네? 내 자리도 있을까?”

“헉!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마크가 벌떡 일어나 세리엘에게 인사했다.

세리엘이라면 무려 클래스 포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니 범접할 수 없는 대선배였다.

개의치 않는 듯 손을 휘적거린 세리엘이 시로네의 옆에 앉자마자 찰싹 달라붙었다.

“우리 시로네, 요즘 힘이 없어 보이네. 하긴, 애인이 떠났으니 당연한 일인가?”

“하하! 그런 거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에이미는 진급 테스트를 거쳐 마침내 졸업반에 진급하게 되었다.

세리엘의 말에 의하면 손쉽게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단련했을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보다는 선배님이 외로우시겠어요. 에이미랑 항상 함께 다녔었는데.”

“그렇지 뭐. 하지만 괜찮아. 나도 조만간 졸업반에 들어갈 생각이거든.”

“네? 졸업반에요?”

세리엘이라면 자격은 충분했다.

클래스 포에 쟁쟁한 실력자들이 많지만 그녀 또한 회복 마법에서는 두각을 드러내는 재능이었다.

게다가 졸업반은 오직 전공에 집중하는 클래스이니 변별력이 높은 회복 마법이라면 유리한 점이 많을 터였다.

“친구 따라서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만…… 나도 에이미처럼 너를 보고 자극을 받았거든. 원래는 적당히 보건소나 들어가서 대충 사는 게 꿈이었는데, 왠지 이렇게 끝내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학교에서 인정하는 재인의 입에서 보건소 직원이 꿈이라는 얘기를 듣자 마크가 울상을 지었다.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후후,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딱히 잘하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니까. 열심히 하면 누구라도 클래스 포까지 올라올 수 있어. 시로네가 특이한 경우지.”

시로네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사실 운이 좋은 편이에요. 저번에 진급 시험도 정규 과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뺄 거 없다니까. 장담하건대 너도 조만간 졸업반에 들어가게 될 거야. 에이미가 절대로 졸업반 동기는 안 할 거라고 기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후후, 아무튼 열심히 해 봐.”

‘졸업반 동기는 절대 불가라.’

에이미다운 발언이었고 그녀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몸이 뜨거워졌다.

“맞다. 그러고 보니 에이미는 전공 정했어요?”

“뭐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너희들 정말 심심하게 사귀는구나.”

“원래 그렇잖아요.”

시로네가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리자 세리엘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흐음, 에이미야 주특기는 화염 마법이고, 사방식은 타깃형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일전에 듣기로는 아마도 스나이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화염 마법사의 대부분은 전투 마법사를 지향하지만 스나이퍼는 꽤나 독특한 분야였다.

“스나이퍼라면, 군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로네의 심정을 읽은 세리엘이 씁쓸하게 웃었다.

“할 수 없지. 나도 에이미가 군인이 되는 건 좀 묘하다고 생각하지만 재능이 있는 쪽으로 직업을 정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 게다가 에이미는 제1계급 가문 카르미스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할 테고.”

시로네는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도 해쳐야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전공 같은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마법사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예외 없이 전장에 투입될 테니까. 마법학교도 왕국의 명령에 따라 예비 마법사를 배출하는 훈련소가 될 거야. 그때부터는 졸업이고 뭐고 없어. 기초 군사훈련 받고 무조건 투입이지.”

삼키기 어려운 쓰디쓴 진실이었다.

“그래서 특수 목적 학교인 거죠. 교육 중 사망자가 발생해도 절반의 책임은 학생이 지는 거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도 결국 왕국의 부속품인 셈이지. 오히려 에이미처럼 뛰어난 실력자가 많을수록 전쟁 억제력이 강해지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토르미아는 나름대로 강대국이지만 항시 평화가 유지될 수는 없기에 군인이 안전한 직업은 아니었다.

외교적인 마찰로 타국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동맹 관계에 있는 왕국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에이미도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했다.

호전적인 마크는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가졌다.

“에이미 선배님이 장교가 된다, 상상만 해도 부대에서 인기 끝내주겠네요. 솔직히 선배님의 귀여운 외모하고 군인은 조합이 안 돼요.”

“호호호! 그건 네가 에이미 성격을 몰라서 그래. 내 생각에는 오히려 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시로네,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마법사들은 전장에서 칼부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스나이퍼도 첩보전에 주력하는 편이니까. 생각해 보면 멋있잖아? 미녀 첩보원 에이미.”

“하하, 그것도 그러네요.”

시로네는 거기에서 생각을 접었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학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가 어련히 알아서 선택한 일일까.

당사자가 결정한 일에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에이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론 수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스피릿 존의 실습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습은 같은 클래스끼리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시로네도 마크와 세리엘과 헤어져 클래스 파이브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클래스 파이브는 고급반에서도 동갑내기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클래스였고, 시로네의 나이도 그 평균 커트라인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시험 때면 라이벌 의식에 불타오르지만 평소에는 경쟁을 잊고 웃고 떠들 수 있는 클래스이기도 했다.

덕분에 시로네도 다른 클래스보다는 남의 눈치를 덜 보면서 스피릿 존을 훈련할 수 있었다.

동기들은 필요할 때면 서슴없이 대화를 걸었고, 조금 심심해진다 싶으면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 잡담을 나누었다.

“시로네, 오늘도 활활 타오르네. 괜찮으면 같이 하자.”

클래스 파이브의 네이드가 말을 걸어왔다.

연녹색 머릿결이 찰랑이는 개구쟁이 같은 얼굴.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쾌활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무리에서 누군가 소외되는 모습을 못 보는 오지랖 넓은 소년이었다.

마법은 성격을 닮는 것인지 그의 성적 또한 특출하게 잘하는 과목도, 못하는 과목도 없었다.

유일하게 특이한 점이라면 다양한 마법 계통 중에서도 상당히 드물다는 전기 마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

‘전기라……. 빛과 닮았지만 또 다른 분야지.’

마법은 어떤 속성을 익히느냐에 따라 전지와 전능의 중요도가 다르게 분류된다.

예를 들어 빛의 마법이 전지보다는 전능이라면 빙결 마법은 전지의 역량에 좌우되는 편이었다.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전기 마법은 전지와 전능이 5 대 5 비율로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분야였다.

‘어쩌면 이런 것도 성격을 닮은 것인지도 모르겠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시로네였으나 클래스 파이브에 올라와서 막상 얘기를 들어 보자 속사정이 따로 있었다.

네이드의 꿈은 마법사가 아닌 마법 공학자.

어릴 때부터 꾸준히 전기를 다룬 덕분에 전지와 전능에 대한 이해도가 절로 높아졌고, 덕분에 마법학교에 들어와서도 전기 마법을 구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래, 같이 하자. 그럼 사방식…….”

“그나저나 에이미 선배님 말이야, 실제로 만나면 성격은 어때? 막 여성스러운 성격?”

시로네가 허락하자 실습은 뒷전으로 미루고 곧바로 대홧거리를 꺼내는 네이드였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친구였고, 작은 이야깃거리라도 있으면 학생들은 무조건 그를 찾았다.

증명이라도 하듯 클래스 파이브의 두 학생이 말싸움을 하며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아,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 도대체 왜 내 말을 이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정말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예전부터 느꼈는데 진짜 이상한 성격이네.”

두 사람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는 모습에 시로네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아하니 마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엇! 잘됐다! 시로네이드, 내 얘기 좀 들어 봐.”

클래스 파이브의 학생들은 시로네와 네이드가 같이 있으면 한데 묶어 시로네이드라고 불렀고, 도착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을 가리키며 말을 털어놓았다.

## [40] 또 1명의 천재(2)

“너희들은 에텔라 선생님하고 시이나 선생님 중에 어느 쪽이 취향이야? 아, 시로네는 에이미 선배님이 있어서 신경도 안 쓰려나? 네이드, 너는 어때?”

“흠. 내 취향으로는 에텔라 선생님이지. 물론 시이나 선생님도 괜찮긴 하지만.”

“오오! 동지여. 역시 에텔라 선생님이 최고지. 얼굴은 동안인 데다가 몸매도 끝내주고. 특히나 가슴은…… 어휴.”

에텔라는 매력적이었다. 커다란 안경 때문에 맹하게 보이고, 허리까지 기른 머리도 대충 묶고 다니지만 그럼에도 미인이었다. 특히나 어린 아이의 얼굴에서 그대로 몸만 자란 듯 풍만한 볼륨은 학생들이 열광하는 제1순위였다.

열변을 토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말수를 줄이더니 대화를 끝내고 멀어져갔다. 이상하게 생각한 시로네는 스피릿 존을 중단하고 고개를 돌렸다.

기괴하게 생긴 소년이 걸어오고 있었다. 클래스 파이브의 괴짜 메르코다인 이루키였다. 직설적인 성격이라 동급생들은 그를 멀리하지만 만인의 친구 네이드만큼은 달랐다.

“여어. 이루키. 설마 연습하려고 온 거야?”

“아니. 영내 순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그냥 똑같지 뭐. 선생님들 중에 누가 더 나은가, 그런 거.”

네이드는 문득 깨닫고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아, 시로네! 얘기하는 건 처음이지? 이루키라는 놈이야. 클래스 파이브의 아웃사이더지.”

클래스 파이브에 진급한 지도 한 달이 되어 가지만 이루키와 대면하는 건 처음이었다. 일부러 피한 게 아니라 수업에 참석하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오호! 아리안 시로네. 학교가 주목하는 천재 아니신가? 영광스러워서 일기에라도 적어야겠는데?”

시로네는 아이들이 그를 멀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람을 분석하는 눈빛 하며 말투에도 배배 꼬인 느낌이 묻어 나왔다.

“안녕? 난 시로네. 앞으로 잘 부탁해.”

“크크, 천재가 부탁은 무슨. 클래스 세븐에서부터 널 지켜봐 왔지. 이탈형을 성공했을 때도 그렇고,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을 때도 그렇고.”

“응? 날 지켜봤다고?”

시로네는 그 순간 깨달았다. 쇠가 긁히는 듯 가느다란 음성. 아이들의 비난을 받고 스피릿 존이 흔들렸을 때 조언을 해 주었던 목소리였다.

“그럼 그때 나에게 말해 준 사람이 너였어?”

“답답해서 한마디 한 거야. 어린애들에게 휘둘리는 게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이루키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지만 시로네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었다. 그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가 훨씬 힘들었을 터였다.

“고마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어.”

이루키는 시로네를 빤히 바라보았다.

“너, 되게 재미없는 애구나?”

“응? 재미없어?”

살면서 처음 들어 보는 말인데다 묘하게 기분이 나빴다. 그러자 네이드가 탁월한 감각으로 분위기를 되돌렸다.

“야, 야! 이루키. 그래도 고맙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실례지.”

이루키는 어깨를 으쓱하며 몸을 돌렸다.

“그래? 칭찬이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 봐. 물론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지만. 클래스 파이브에는 꼴통들이 많거든. 킥킥킥.”

멀어지는 이루키의 등에 대고 네이드가 소리쳤다.

“야, 어디 가? 같이 연습하자.”

“귀찮아. 잠이나 잘래.”

시로네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수업 시간이 귀찮다고 잠을 자다니. 클래스 파이브는 고급반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한 곳이었다. 저런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조금…… 이상한 성격인 것 같네.”

“미안해, 시로네. 사귀고 보면 그리 나쁜 애는 아니야.”

“하지만…….”

“하하! 무슨 생각 하는지 알아. 그냥 파고들어 봐야 우리만 피곤해져. 저 녀석도 천재거든. 너랑은 다른 유형의 천재라서 문제지만.”

“천재? 이루키가 천재야?”

“아하! 너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겠구나.”

네이드는 이루키라는 인물에 대해 말해주었다. 천재라는 말과 달리 성적은 네이드와 비슷했다. 하지만 동급생 중에서 그를 실력으로 깔보는 사람은 없었다.

이루키는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의 전형이었다. 문학이나 예술 등 감성이 좌우하는 과목에서는 여지없이 빵점을 받지만, 계산 능력이 요구되는 과목만큼은 눈을 감고도 만점을 받는 천재였다.

처음에는 교사들도 이루키의 재능에 눈독을 들이고 너도나도 전담을 맡으려고 했다. 하지만 성격이 워낙에 천방지축이라 지금은 대부분 포기해 버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수학적인 분야에서는 졸업생조차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만간에 클래스 파이브를 떠나리라는 관측을 내놓는 교사들이 많았다.

이루키의 전공 분야는 특수한 뇌 기능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계산물리학으로 1억도 이상의 고열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수치로 계산하는 학문이었다.

학술계에서는 이런 계산이 가능한 뇌를 가진 자를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자폐아에게서 발현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도 서번트 신드롬이 나타나기도 한다.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태아 시절에 뇌의 특정부위가 손상되었다가 자연 치유되는 과정에서 인간과 다른 독특한 사고 회로가 열린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찰 또한 생각과는 다른 사고 회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루키의 서번트 신드롬은 기계적인 연산이라는 측면에서 달랐다.

이루키는 오늘부터 4만 년이 지난 후의 날짜를 1분 안에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잠을 자지 않는다면 원주율의 소수점 아랫자리 숫자를 평생 동안 읊조리는 일도 가능했다.

네이드의 설명을 들은 시로네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면 엄청난 재능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아직도 클래스 파이브에 머물고 있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빵점이라는 게 말이 돼? 찍어도 몇 문제는 맞힐 텐데.”

“크크크. 그게 말이야, 늘 이런 식이거든.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이드는 이루키가 이론 시험을 치렀을 당시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예상대로 자연과학에서는 만점을 받았지만 문학 시험에서 교사의 눈에 거슬린 게 문제였다.

시인 길베르토의 <인생은 낙엽>이라는 시의 일부분이 발취된 문제였다.

마지막 시구의 ‘갈지자로 떨어지는 낙엽이여’에서 낙엽이 갈지자로 떨어진 이유를 답하라는 요구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루키의 답은 이랬다.

- 낙엽의 표면에 흐르는 유체(여기서는 기체)의 속력이 각기 다른 공기저항으로 걸리게 되므로, 압력이 작용하는 힘 벡터의 합이 큰 방향으로 움직임.

이하 낙엽의 표준 모델을 사용한 방정식을 첨부함.

그 아래로는 알아먹을 수조차 없는 요상한 수식이었다. 이루키의 성격을 아는 교사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으나 문학 교사인 아델리아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다.

세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살이 포동포동 오른 몸을 이끌고 강의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수업을 기다리는 이루키의 앞에 시험지를 탁 하고 내려놓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루키! 이게 뭐니?”

“시험지요.”

“그거 말고! 네가 써 놓은 답을 봐! 이건 문학 시험이지 수학 시험이 아니야!”

“수학과 문학을 구분하는 자체가 문학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아델리아의 통통한 얼굴이 통구이처럼 빨개졌다.

“네가 뭘 안다고 잘난 척이니? 넌 학생이야. 전공자처럼 행동하기엔 아직 몇 년은 일러! 세상에는 네가 수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사상도 존재하는 법이야.”

“선생님, 그런 건 없어요. 만약 세상의 어떤 부분이 비논리적이라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죠? 지금 당장 제 몸이 오크로 변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은 모든 게 논리적이다? 길베르토 시인의 시구마저도?”

“물론이죠. 그래서 답을 적은 거고요.”

아델리아는 한참이나 씩씩대더니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그렇다면 대답해 봐. 죄 없는 천 명의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하지만 너는 다른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서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어떤 선택을 할 거지?”

“천 명을 죽이죠. 천 명의 목숨은 증명이고 1명의 목숨은 가설이에요. 처음부터 등치를 세울 수 없는 수식이에요.”

아델리아는 배 속에서 올라오는 울분을 초인적으로 억눌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녀에게도 생각이 있었다.

“신은 있다, 없다? 대답해 봐!”

“없을 수는 있다.”

아델리아는 더욱 독기가 올랐다.

“엄마와 아빠,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하나만 대답해!”

“엄빠요.”

“나가.”

강의실 문을 가리키는 아델리아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나가, 이 자식아! 너 같은 건 내 수업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나가!”

아델리아의 건의로 교무회의가 열렸다. 결국 이루키의 문제 풀이에 교권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다고 판단한 교사들은 인문 과목에 대한 모든 점수를 빵점으로 처리했다.

“우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루키의 일화를 들은 시로네는 그가 자신과 같은 18살의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교사에게 덤비는 성질머리도 그렇지만 학생 신분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킨다는 건 엄청난 강단이었다.

“하하! 그렇다니까. 아무튼 그런 성격이야. 정말 친해지기 어려운 놈이지.”

“듣고 보니 그 정도 성격이면 나한테 재미없다고 한 말도 이해가 되네. 그런데 어째서 그게 칭찬이라고 한 거지?”

“모르지 뭐. 너한테서 남들과 다른 비범함을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일부러 소개를 했던 건데. 어쩌면 너랑은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시로네는 이루키라는 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말을 붙여 볼 것을 그랬다. 그런 생각으로 이루키를 찾는데 시로네가 의외라는 듯 눈을 갈아 떴다.

“어? 네이드, 저기 좀 봐.”

이루키가 잠에 취한 얼굴로 이미지 존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접근하자 아이들이 알아서 물러났다. 사람이 싫어서 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내주는 분위기였다.

“젠장! 저 자식 또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가 보자.”

시로네는 네이드를 따라 이미지 존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 외에도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저 자식 또 왜 저래? 혹시 예전처럼 옷 벗고 드러누워 버리는 거 아냐?”

누군가의 말에 시로네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여학생들도 있는데 옷을 벗어 버리다니.

우려와 달리 이루키는 정상적으로 스피릿 존을 펼쳤다. 직경 15미터의 구체. 클래스 파이브치고는 작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크기가 아니었다. 사방식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이탈형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있었다.

“히야! 이루키 자식, 오랜만에 하는데?”

“말려야 되는 거 아냐? 에텔라 선생님한테 이미지 존 사용 금지 먹었잖아.”

“내버려 둬. 말린다고 들을 놈이냐?”

작게 줄어든 구체가 엄청나게 넓은 반경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루키는 시로네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손가락을 튕기자 타깃이 올라와 주위를 빠르게 돌아다녔다.

학생들이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타깃을 올리는 건 금지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였고 이어진 시연에 넋을 잃었다.

“우와…….”

이루키의 존이 타깃을 추적했다. 마치 원래부터 정신이 출타한 사람처럼 움직임이 자유자재였다. 속도마저 압권이라 구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바람이 우는 환청이 들렸다.

“어? 이루키! 지금 뭐하는 거야!”

클래스 포를 지도하고 있던 에텔라가 황당한 표정으로 헐레벌떡 뛰어왔다. 하지만 이루키는 작심한 듯 시연을 멈추지 않았다. 타깃을 집어삼킨 스피릿 존의 중심부에서 작은 빛들이 거품처럼 보글거렸다.

“아토믹 봄.”

“저 미친놈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허리를 뒤트는 순간 사람을 밀어낼 만큼 막강한 폭발이 터졌다. 생전 처음 듣는 굉음에 시로네는 아찔했다. 서 있던 학생들이 모조리 엉덩방아를 찧었다.

시로네는 창백한 표정으로 앞을 돌아보았다. 이루키가 뒷짐을 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에 보자, 시로네.”

## [41] 또 1명의 천재(3)

다음에 보자는 게 무슨 소리인지는 조금 후에 에텔라에게 귀를 붙잡혀서 끌려 내려가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루키! 한 번만 더 그러면 징계받는다고 했지!”

“아야야야야! 장치는 안 망가지게 조절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작심하고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반성을 안 해! 넌 오늘부터 일주일간 근신이야! 수업에 나오지 마!”

“으악!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루키는 우는 소리를 했지만 끝까지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로네와 네이드를 돌아보며 웃기까지 했다.

“하아! 결국 또 저지르고 마는구나. 시로네, 미안. 내가 가 봐야겠다.”

네이드가 자리를 먼저 떴다. 시로네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혀 그가 떠난 지도 몰랐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인지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었다.

“저 자식 그래도 대단하지 않냐? 예전보다 기폭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 폭발력은 비슷한데 말이야.”

“아무래도 서번트 신드롬이니까, 반응식은 기가 막히게 계산하겠지.”

시로네가 끼어들었다.

“반응식이라는 게 폭발을 일으키는 식을 말하는 거야?”

“응. 나도 기폭 마법은 잘 모르지만 반응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폭발력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화염 마법의 기초인 이그나이트하고 비슷한 개념일걸?”

“그렇구나. 저 정도의 폭발력이라면 굳이 화염 마법을 배울 필요도 없겠네.”

“아니. 화염 마법하곤 용법이 달라. 일단 화염 마법은 즉시 발동이거든. 이루키도 화력이 세지면 기폭까지 꽤나 시간이 걸릴 거야. 뭐, 그 반응 시간을 줄이는 게 기폭 마법사의 숙제겠지만 말이야.”

시로네의 통찰력이 순간 이동에 특화되어 있다면 초인적인 계산 능력의 이루키에게는 기폭 마법이 제격인 셈이었다.

특히나 기폭 마법의 장점이라면 스피릿 존보다 커다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마법은 기폭만을 할 뿐이고 폭발 자체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거리가 멀어질수록 존이 작아지는 이탈형에게 최적화된 마법이었다.

‘메르코다인 이루키…….’

첫인상만큼은 확실히 폭발처럼 강렬했다.

\* \* \*

클래스 파이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월말 평가를 치렀다.

시로네의 점수는 평균 41점. 여전히 등수는 하위권이었지만 한 달 사이에 모든 과목을 10점이나 올렸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기지개를 켜며 책상을 정리했다. 굶주린 배를 채우러 교내 매점으로 향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짝을 지어 연구회로 향했다.

연구회가 없는 시로네는 도서관에 들를 예정이었다. 평균 40점대의 성적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근래 들어 지식의 척추에 살을 붙여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저기, 시로네.”

한 여학생이 시로네에게 다가왔다. 강의실의 구석에서는 그녀의 친구들이 흥미진진하게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응. 무슨 할 얘기라도 있어?”

“애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혹시 연구회에 가입하지 않을래? 물질이동 마법을 연구하는 중인데, 네가 들어오면 성취도가 높을 거 같아서. 광자화 이론하고도 관련이 많기도 하고.”

클래스 파이브에 올라와서 몇몇 그룹에게 제안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전공이 반드시 필요한 연구회는 처음이었다.

‘흐음. 한 번 해볼까?’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실기 시험, 이론 시험,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방학 중에 하는 과제로 자유 주제로 논문을 써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구회의 발표회로 대체할 수 있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기 중에 끝내버리는 편이다.

시로네도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에 연구회의 입회 자격을 찾아본 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돌렸다.

지금 당장은 이름값을 보고 제안하지만, 막상 활동을 시작되면 그들의 수준에 맞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음, 어떡하지? 근래 공부하는 분야가 있는데 아직 성과가 안 나와서. 당분간은 그쪽에 신경을 쓸 생각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할 수 없지.”

“일부러 제안해 줬는데 거절해서 미안해.”

“후후, 아니야.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 만약 생각 있으면 얘기해 줘.”

여학생은 오히려 시로네를 배려하며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사실 클래스 파이브 정도 되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물론 이루키 같은 괴짜도 엄연히 존재하지만.

여학생 일행이 강의실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좋겠다. 재밌겠다.’

시로네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 왔다. 자신에게도 리안과 에이미라는 친구가 있었지만, 리안은 분야가 달랐고 에이미는 졸업반이라 정신이 없었다.

인생이 결국 외로운 전장이라지만, 클래스 파이브를 다니면서 함께할 전우가 없다는 건 참으로 쓸쓸한 기분이었다.

“어? 시로네, 지금 나가는 거야? 나랑 같이 가자.”

네이드가 뒤에서 목을 끌어안았다. 강의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때면 여지없이 달려오는 그였다.

두 사람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숙사로 향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시로네가 좋아하는 주제였다.

“도서관도 좋지만 연구회에도 전문 서적은 꽤 돌거든. 그러고 보니 아까 왜 거절한 거야? 거기 꽤 준수한 연구회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하긴, 너는 이론 성적부터 올려야지. 그래도 부럽다. 나는 그런 의욕도 없는데 말이야.”

시로네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친구도 엄청 많잖아. 그러니 아무 연구회나 들어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연구회 정도는 이미 가지고 있지. 무려 회장이라고.”

“어? 정말?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네.”

네이드라면 특정 그룹에 소속되는 걸 싫어할 것이라 넘겨짚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회장이었다니.

“무슨 연구회인데?”

“하하! 사실 떠벌리기 부끄러운 연구회라서. 사람도 나 포함해서 달랑 2명밖에 없고.”

“어? 그러면 최소기준에 못 미치는 거 아니야? 지원금도 끊겼을 텐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연구회의 최소 인원은 3명 이상이었다. 1명은 단수고 2명은 복수, 3명부터가 집단이기 때문이다.

“저번 학기에 선배님들이 졸업해 버렸거든. 그래서 회장직도 물려받은 거고. 안 그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 그랬구나.”

교내에 수많은 연구회가 있지만 졸업반 멤버가 속해 있는 연구회는 흔치 않았다. 더군다나 졸업을 했다는 것은 학교 최고의 선배들이라는 얘기였다.

“괜찮으면 한번 구경해도 될까?”

“정말? 넌 연구회에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관심은 쭉 있어 왔어. 하지만 내가 들어가면 민폐가 될지도 모르고, 가입은 신중하게 해야 할 거 같아서.”

“하하하! 무슨 말이야? 연구회라고 해 봤자 그냥 애들끼리 공부하면서 노는 것뿐이야. 부담감 느낄 필요 전혀 없다고.”

“으음, 그런가?”

“사실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솔직히 너 다가가기 어려운 면이 있어. 왜 우리들 또래는 막 때리고 장난치고 고추도 만지고 그러면서 놀잖아. 클래스 파이브에도 개차반은 있지만 대부분 사귀어 둬서 나쁜 애들은 없어. 조금 더 애들을 편하게 대해 봐. 물론 고추를 만지게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하하하!”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였다. 생각해 보면 리안이나 에이미의 경우에도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

시로네가 또 다시 심각하게 파고들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네이드가 결심한 듯 외쳤다.

“좋아! 기분이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 우리 연구회 소개시켜 줄게. 대신 나중에 시시하다고 놀리면 안 된다?”

“정말? 그러면 나야 고맙지.”

“또 그런다. 친구 사이에 고맙고 말고가 어딨어? 자, 빨리 가자!”

\* \* \*

시로네는 네이드를 따라 마법학교 중앙공원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외진 곳으로 들어갔다. 100여 개의 거대한 정사면체가 복잡한 구조로 콜로니를 형성하고 있었다. 재질은 철이었고 표면에는 마법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규모도 그렇지만 형태도 상식을 파괴했다.

“여긴 어디야?”

“마법 기재를 모아 두는 창고야. 우리 연구회는 창고 안에 있거든. 하하!”

연구회의 연구실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연구회가 개설되고 일정 회원이 모이면 학교 측에서 비어 있는 방을 내어주는 식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창고라니. 거대한 부지를 자랑하는 학교에서 이토록 외딴 곳에 연구실을 내준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여기는 대대로 선배님들이 지켜 온 아지트 같은 곳이야. 우리 연구회 사실 꽤나 역사가 깊거든. 여기를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던데.”

“하지만 이건 좀…….”

“하하! 괜찮아. 여기는 없는 게 없거든. 창고의 물건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아, 절대 발설하면 안 돼. 너니까 믿고 말하는 거야.”

“헉! 정말?”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인 네이드가 창고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네이드를 따라 건물로 들어갔다. 구조가 복잡한 만큼 출입구도 여러 개였다. 게다가 100개에 가까운 건물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미로를 헤매는 수준이었다.

“헤헤! 멋지지? 하지만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틈날 때마다 건물 구조를 바꿔 버리니까.”

“건물 구조를 바꾼다고? 그게 가능해?”

“이곳의 정식 이름은 마법 창고 이스타스. 건물 자체가 마법 장치야. 물건을 찾아서 빼내는 것보다 건물을 움직여서 출입구로 보내는 게 훨씬 빠르니까. 적재성과 운반성을 동시에 고려한 공학 설계지. 그래서 학교에 실습이 있는 날이면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해. 그러니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찾을 수가 없지.”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네이드는 킬킬대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아지트라. 여기까지 듣자 시로네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 하지만 너는 아직 회원이 아니니까 가르쳐 줄 수 없어.”

네이드는 복잡한 길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갔다. 스무 개의 건물을 지나 도착한 곳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장소였다. 한 건물에 대략 10여개의 크고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네이드의 연구회는 그중에서 가장 큰 창고였다.

“짜잔! 도착. 바로 여기야.”

시로네는 긴장한 얼굴로 다가갔다. 대체 무슨 연구를 하기에 이런 곳에 숨어든 것일까?

철문에 도착하자 연구회 간판이 삐뚤게 붙어 있었다.

- 초자연심령과학연구회

“심, 심령과학?”

수많은 분야를 떠올린 와중에도 심령과학은 생각의 언저리에도 걸치지 못한 종류였다.

“어때? 우리 연구회 끝내주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거야. 귀신이나, 영혼, 사후 세계, 외계인, 지옥, 신. 이런 것들이지.”

시로네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점차 사라졌다. 생각해보면 은근히 호기심이 동하는 주제였다.

‘신의 존재라.’

신의 이름을 빌린 사람은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지만, 신이 직접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 이거 흥미롭겠다. 마법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을 수도.”

“하하! 그렇지? 역시! 너라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일단 들어와. 내가 구경시켜 줄게.”

네이드는 시로네의 손을 잡아끌고 문을 열었다. 정갈한 철학적 사유의 공간일 것이란 생각과 달리 시로네를 반기는 것은 자욱한 먼지였다.

시로네는 먼지 폭격에 눈살을 찌푸렸다. 문 한 번 세게 열었다고 이 정도로 먼지가 피어오르는 건 정상이 아니었다.

창고는 15평 정도였다. 책상은 다리가 부러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언제 먹었는지도 모를 빵 부스러기와 구겨진 종이로 가득했다. 창고를 연구실로 개조했다더니, 그들이 개조한 건 간판뿐인 듯했다.

“좀 더럽지? 다니다 보면 익숙해져. 들어와, 들어와.”

시로네는 어째서 창고를 치우지 않고 자신의 눈을 풍경에 맞춰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전방에 걸려 있는 칠판을 보는 순간 사라졌다.

간판처럼 삐딱하게 기울어진 칠판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빼곡한 수식이 적혀 있었다. 지금도 빠르게 분필을 놀리는 한 소년의 작품이었다.

“어?”

시로네는 서기를 끝마치고 돌아서는 소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징계를 받아 며칠간 수업에 들어오지 않던 이루키였다.

## [42] 또 1명의 천재(4)

“어어? 어?”

시로네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네이드가 멋쩍게 웃으며 설명했다.

“하하! 미안해. 사실 우리 연구회가 악명이 좀 있어서 멤버를 밝히면 곤란하거든.”

괴팍한 이루키가 네이드와 친구로 지내는 이유였다. 다만 문제는 연구회의 성질이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그가 비과학적인 연구회에 몸담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루키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오히려 그 반대야.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지. 이루키는 세상에 논리적이지 않은 건 없다고 믿거든. 그러니 이것만큼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겠어?”

이루키는 시로네를 눈치채지 못한 듯 무언가를 계속 웅얼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깐 네이드 쪽을 살피더니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어? 시로네!”

대답할 겨를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온 이루키가 다짜고짜 시로네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마침 잘 왔다. 내가 지금 엄청난 걸 생각해 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작은 물질을 쪼개는 거야. 가장 작은데 어떻게 쪼갤 수 있냐고 생각하지?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쪼개 버리면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뭘까? 내가 3일 동안 계산을 해 봤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엄청난 에너지가 안에 담겨 있어. 이게 가능하다면 어떨까? 응? 어떻게 될 거 같아? 빨리 말해 봐.”

워낙에 말이 빨라서 자세히 듣지도 못했다. 하지만 불타는 눈빛을 대하자니 뭐라도 대꾸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 글쎄?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바로 그거야! 엄청난 폭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 버릴 수 있는 폭발 말이야! 상상할 수 있지? 응? 너라면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시로네는 어안이 벙벙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린다고? 가능하고 말고를 떠나서 끔찍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죽잖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죽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폭발이라니까, 폭발! 도시가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폭발이 터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응? 살고 있는 사람들?”

이루키는 무슨 소리냐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시로네는 비로소 깨닫고 되물었다.

“너…… 설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야?”

“당연하지. 얼마나 큰 폭발력을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나?”

시로네는 섬뜩했다. 차라리 인간 따위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으면 조금은 납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루키는 정말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마법사가 자신의 마법이 미칠 여파를 생각하지 않는 게 말이 돼?”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구나, 시로네. 그런 건 인류학자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천재의 의무란 말이야.”

“누군가를 해칠 수밖에 없는 천재라면 바보가 훨씬 나아.”

“소수의 천재가 다수의 바보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 또한 우리가 속한 현실이기도 하고. 시로네, 난 이상론을 들먹이는 걸 아주 싫어해.”

“아니, 너의 논리야말로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어. 이상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어!”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인 거야.”

시로네와 이루키가 앙숙처럼 으르렁대자 네이드가 난감한 눈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자, 자! 그만하자. 토론은 좋은 거지만 충돌은 좋지 않아. 일단 차분히 앉아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고.”

“아니. 할 말 없어. 네이드, 나 간다!”

시로네는 몸을 팽 돌려 연구회를 나가버렸다. 네이드가 황급히 뒤를 쫓으며 소리쳤다.

“시로네! 같이 가야지! 너 혼자서 어떻게 길을 찾아?”

“내버려 둬. 구조가 바뀐 것도 아니잖아. 왔던 길 정도는 외우고 있겠지. 그 정도도 못 하면 정말로 바보인 거고.”

문 밖으로 나갔을 때 이미 시로네는 보이지 않았다. 되돌아온 네이드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대체 왜 그런 거야? 너라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글세. 나도 잘 몰라. 어쩌면 라이벌이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 둘 중 한 명은 추락해야하니까.”

이루키의 입에서 라이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다. 오만한 성격도 한 몫을 하지만 그보다는 경쟁 자체에 관심이 없는 아이였다.

여자도, 재물도, 명예도 그를 움직이지 못했다. 그가 빠져 있는 건 오직 수식뿐이었다.

“시로네가 라이벌이라고? 너 그 말 진심이야?”

이루키는 소파에 앉았다. 엉덩이가 파묻히자 먼지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너도 봤지? 순간 이동 테스트. 건널 수 없는 다리.”

“봤지. 그래서 우리랑 동급생이 된 거잖아.”

“순간 이동을 처음 배운 사람이 레벨 10, 그것도 용의 미로를 빠져나가려면 생각을 얼마나 빨리해야 할까?”

이루키가 자신의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계산에 의하면 시로네가 찰나의 순간 시간을 쪼갠 단위는 최소 10,000분의 1초야.”

“10,000분의 1초…….”

네이드는 아찔했다. 숫자로 표현된 그 시간의 간극을 떠올리노라면 머리가 터질 듯했다.

이루키가 킥킥 쇳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야말로 통찰이 가진 신비로움이야. 노력보다 빠르고 지식보다 정확하지. 어떤 의식적인 계산 능력도 직관의 속도보다는 느릴 거야. 하지만 말이야, 네이드.”

이루키의 눈동자에 광기가 휘몰아쳤다.

“과연…… 나라면 어떨까?”

“…….”

시로네의 통찰력과 이루키의 계산 능력. 과연 무엇이 더 빠를까? 두 사람의 충돌을 떠올린 네이드는 오싹한 전율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리미트리스(1)

시이나의 호출을 받은 시로네는 교무실로 갔다. 책을 읽고 있던 그녀가 시로네를 교사 휴게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시로네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다.

“자, 저번에 대접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대접해야지.”

“하하! 감사합니다.”

클래스 파이브에 올라오면서 시로네의 넉살은 꽤나 좋아졌다. 근래에는 동급생들과 우스갯소리도 자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성적표를 봤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더구나. 특히나 내가 가르치는 화학 점수가 가장 높다는 것이 고무적이야.”

“헤헤, 그래 봤자 1점 차이인데요, 뭐.”

시로네가 이토록 오래 상승세를 유지할 줄은 전담 교사인 시이나도 예측하지 못했다. 평균 45점대를 달리는 중에도 과목당 편차가 2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당분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부터는 중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학교 측에서도 너의 공부 방식을 주목하게 될 거고.”

“아니, 딱히 주목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물론 알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오늘 선생님이 부른 이유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제안이라뇨?”

“두 달마다 한 번씩 실습 시험이 있는 건 알고 있지? 이번 달에는 타깃팅 시험이 있더구나. 뭔지 알고 있니?”

“네. 에이미가 클래스 포에 있을 때 봤어요. 시간 내에 타깃을 적중시키는 테스트잖아요. 특히 에이미는 타깃형이라 엄청 빨랐죠. 정말 멋있었어요.”

시이나는 눈빛이 반짝이는 시로네를 보며 웃었다.

“그래. 에이미는 졸업반에서 잘하고 있나 보더구나. 여자 친구랑 떨어져서 서운하겠어.”

고급반과 졸업반은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기가 여의치 않았다. 주말에 데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다 그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괜찮아요. 남자 친구로서 응원해야죠.”

시로네와 에이미처럼 건전하게 사귀는 커플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만 지내 준다면 학교 측에서 연애를 권장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래. 서론은 이쯤에서 끝내고, 오늘 너를 부른 이유는 실습 시험 때문이야. 순간 이동 말고 딱히 배워 둔 마법이라도 있니?”

“아뇨.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아차! 그렇구나!”

시로네는 뒤늦게 깨달았다. 실습 시험을 치르려면 액티브 마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공격 마법일 필요는 없지만 시로네가 유일하게 배운 순간 이동은 효과가 지속되는 패시브 마법이었다.

반면에 액티브 마법은 효과가 단발적인 마법으로 파이어, 윈드커터, 힐링, 아이스 소드, 라이트닝 볼트, 아토믹 봄 등 종류가 다양했다.

타깃을 맞힐 수 있는 마법이 하나라도 있어야 시험을 치를 게 아닌가? 시로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다.

“어떡하죠? 공부에 신경 쓰느라 생각도 못 했어요.”

“걱정할 것 없어. 레인보우 드롭까지 터득한 너라면 간단한 액티브 마법은 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제 이론 성적은 평균 45점이에요. 최소 60점 이상이 아니면 발동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한 가지 있잖니. 그것도 100점에 가까운 전지가.”

여태까지 치른 이론 시험 중에 100점은커녕 50점을 넘긴 과목도 없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곧바로 깨달았다. 시이나의 말대로 분명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아! 광자화 이론!”

“그래. 순간 이동은 실습 평가라서 간과하고 있었지만 광자화 이론만큼은 충분히 공부했으니 액티브 마법으로 응용이 가능할 거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담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조언이야. 딱히 감사할 필요 없어.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해.”

“네. 그럼 바로 상담할게요. 광자화 이론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액티브 마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이나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혹시 광자 출력이라고 들어 봤니?”

“책에서 봤어요. 광자를 쏘는 거죠?”

‘광자 사출’이라 부르는 현상이었다. 다만 물리력이 없기에 쏘아 보낸다고 딱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주변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그러느니 조명 마법을 시전하는 게 훨씬 간편했다. 위대한 발견이라 불리는 광자화 이론도 이렇듯 액티브와 패시브에 따라 효율이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현재 마법사회의 선진을 이끄는 상아탑에서는 광자 출력이 마법의 미래라는 견해를 내고 있었다. 빛보다 빠른 건 없다. 게다가 직사의 성질을 이용하면 정보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시이나는 이런 최신 경향을 토대로 시로네를 설득했다.

“앞으로 광자 출력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어. 네가 졸업할 때쯤이면 벌써 소기의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미리 익혀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네. 그럼 연습해 볼게요.”

시로네는 고민하지 않고 그러겠노라고 답했다.

어차피 실습 평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액티브 마법이 필요했고 당장 터득할 수 있는 건 광자 출력뿐이었다.

면담을 마친 시로네는 훈련장으로 향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지금부터 연습을 해도 시간이 촉박했다.

시로네는 손을 내밀고 정신을 집중했다. 마법은 스피릿 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에 굳이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행위를 통해 의식을 강화시키면 집중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 마법사들은 이를 ‘매지컬 액션’이라고 불렀다.

광자화 상태에서 마법을 발동했지만 사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어형이라 순간 이동이 쉬웠던 만큼 광자 출력은 공격형에게 특화된 마법이었다.

‘순간 이동을 할 때보다 훨씬 높은 집중력이 필요해.’

시로네는 수십 번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패시브 마법은 정신을 얼마나 강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인 반면에 액티브 마법은 순간적인 정신응축이 필요하다.

실제로 스피릿 존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거대한 압박을 가해서 쥐어짜낸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스피릿 존의 내구력이 너무 강해서 감각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이래서 성향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스피릿 존을 기술적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에텔라가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갓 입학을 한 상태였기에 자세한 수업까지는 듣지 못했다.

‘스피릿 존이란 극도로 예민한 정신 상태. 집중력의 한계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더 강화를 하지?’

이런저런 의문점만 떠안은 채 시로네는 숙소로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다.

## [43] 리미트리스(2)

시로네는 아침 일찍 통합 수업 훈련장으로 향했다. 오늘부터 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시험 과목은 클래스별로 다르다. 시로네가 속한 클래스 파이브는 타깃팅 시험으로 일명 스피드 건이라고 불렸다.

“으! 오늘부터 스피드 건만 죽어라 하겠네.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인데. 타깃형에 특화된 애들은 좋겠다. 훨씬 유리하잖아.”

“그렇지도 않아. 타깃형은 소수 정예를 상대할 때 유리하니까. 실습 평가 타깃은 엄청 쏟아지잖아. 차라리 공격형으로 전환해서 걸리는 대로 터뜨리면 어떨까?”

“그러다가는 먼저 지칠걸? 어쨌든 공격형 아니면 타깃형이겠네. 이탈형을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 많은 걸 어떻게 따라잡겠어?”

“그러고 보니 이루키는 어떨까? 이번에도 이탈형을 사용하는 거 아냐?”

“하하! 설마,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그러겠어? 난 시로네도 궁금해지는데. 실전에 강하잖아. 하지만 방어형에 특화되어 있으니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지.”

학생들의 대화 내용에 간간이 이루키와 시로네의 이름이 섞여 들렸다. 그들보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 보여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단연 두 사람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울고 싶었다. 실전에 강하기는커녕 아직 광자 출력조차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액티브 마법을 발동할 수 없다면 실습 시험은 당연히 영점 처리였다.

‘으! 어떡하지? 진짜 고민되네.’

시로네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훈련장 외곽에서 컹컹 하고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학생들이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남학생들이 달려갔다.

“뭐야? 어떻게 들어왔지?”

“산에서 사는 개인가 봐. 근데 왜 저렇게 짖어?”

아이들이 몰려들자 개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의 성향이다. 하지만 폭력성을 드러내 버리면 아무리 개라고 해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

“야! 저리 꺼져! 재수 없게!”

클래스 세븐의 아이들이 돌팔매질을 해 댔다. 상급 클래스의 아이들도 지켜보고 있었으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을 싫어하니 야생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달랐다. 개 짓는 소리를 한참이나 듣고 있던 그가 무언가를 깨닫고 달려갔다.

“잠깐 기다려! 돌 던지지 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래스 세븐의 동급생이었지만 이제는 엄연히 선배였기에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동작을 멈췄다. 클래스 세븐의 리더인 마크가 주변 정리를 했다.

“야, 야! 그만들 해! 시로네 선배님이 그만하라잖아!”

시로네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마크가 화들짝 놀라며 따라 들어왔다.

“선배님, 위험해요. 이거 야생 개라고요.”

“아무리 야생에서 자랐어도 개는 사람을 물지 않아. 오히려 도망가고 말지.”

“하지만 저렇게 짖는걸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시로네는 겁 없이 접근했다. 개가 무시무시한 중저음을 내며 으르렁거렸지만 차마 덤벼들지는 못했다.

시로네는 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숲까지 밀고 나갔다. 예상했던 대로 아직 덜 자란 강아지 한 마리가 풀밭에 누워 낑낑대고 있었다.

“다리를 다쳤구나. 불쌍하다.”

“어? 정말이네. 얘들아, 여기 강아지 있다, 강아지.”

“아직 부르지 마. 아무리 개라도 새끼가 위험할 때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

“아, 그렇군요. 야! 오지 마, 오지 마!”

“대신에 회복 마법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줄래? 세리엘 선배님이 오시면 좋지만 그냥 클래스 파이브 이하에서 찾아 줘.”

“그럴 것도 없이 마리아가 할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닌 마리아는 구사할 수 있는 마법의 종류가 다양했다. 게다가 사드를 만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 터라 동급생들과도 수더분하게 어울렸기에 마크가 부르자 곧바로 달려왔다.

“어머,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지?”

“아마 영역 싸움에 휘말려서 물린 모양이야. 고칠 수 있겠어?”

“네, 선배님. 이 정도야 간단하죠.”

마리아가 회복 마법을 시전하자 강아지의 상처가 아물었다. 건강을 되찾은 강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재기 발랄하게 풀숲을 뛰어다녔다. 어미가 그제야 짖는 것을 멈추고 새끼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생명을 구하는 건 언제나 가슴 뿌듯한 일이었다. 돌팔매질을 했던 아이들도 가슴이 뭉클한 지 오랫동안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단하세요, 선배님. 어떻게 새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응? 하하! 예전에 산에서 오래 살았거든.”

시로네는 11살 무렵에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나가서 겪은 일화를 떠올렸다.

그날따라 운이 좋아서 발톱까지 돈이라는 적색 곰이 밧줄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었다. 적색 곰의 완력이라면 줄을 끊을 수도 있기에 빈센트는 황급히 화살을 겨누었다.

시로네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적색 곰을 잡으면 당분간 끼니 걱정은 없을 터였다.

하지만 화살은 날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에 고개를 돌리는데 빈센트가 활을 거두고 떠날 채비를 했다.

“나 원, 재수가 너무 좋아도 안 된다더니. 그만 돌아가자, 시로네.”

“어? 왜 안 잡아요? 엄마가 되게 좋아할 텐데.”

빈센트는 쪼그려 앉아 곰이 붙잡혀 있는 곳을 가리켰다.

“저기를 보거라, 시로네.”

시로네는 유심히 살폈다. 붙잡힌 어미의 옆에서 낑낑 울고 있는 새끼 곰이 보였다.

“아무리 사냥꾼이라도 새끼가 있을 때는 잡지 않는 법이다. 비록 동물이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법이니까.”

“하지만 그럼 허탕을 치는 거잖아요. 저기 굉장한 사냥감이 있는데 말이에요.”

빈센트는 따스한 눈빛으로 시로네를 쓰다듬었다.

“저 곰에게 새끼가 있듯이 나에게도 네가 있단다.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니. 살기 위해 싸우는 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생명을 가진 모두에게 통용되는 불문율이지.”

시로네는 그날 빈센트의 부정을 느꼈다. 그는 어쩌면 곰을 살린 게 아니라 당신의 자식을 지킨 것인지도 모른다. 언제까지고 아버지는 자신을 지켜 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시로네의 마음을 따듯하게 했다.

시로네가 들려준 일화에 학생들은 감명을 받았다. 그게 시로네의 아버지라는 건 몰랐지만 감동의 크기만큼은 다르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렇구나. 시로네는 정말 멋지네.”

“맞아. 시로네는 참 자상해.”

동급생들은 시로네를 달리 보게 되었다. 고지식하고 마법밖에 모를 줄 알았던 그가 이토록 따듯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건 의외의 매력이었다.

“어리석은 이론이군. 그런 이유로 사냥꾼이 짐승을 살려 두지는 않아.”

훈훈했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에 아이들이 뒤를 노려보았다. 이루키가 뒷짐을 지고 시로네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끼가 있는 짐승을 죽이지 않는 건 나중에 그 새끼가 자라서 인간에게 공격성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생물학에서는 이걸 각인 효과라고 하지. 일단 인간을 천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자식들 또한 본성을 물려받아. 그렇게 되면 사냥을 하기가 곤란해지지. 그렇다고 새끼까지 해치우자니 짐승의 씨가 말라 버릴 테고. 자신의 구역에서만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냥꾼들의 지혜라고 할까?”

시로네는 울컥했다. 물론 이루키는 모르고 한 얘기지만 그의 발언은 아버지의 부정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물론 그런 사냥꾼도 있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냥꾼들은 정말로 측은한 마음에서 짐승을 풀어 주는 거라고.”

“마음. 감정. 이런 건 포장하기 나름이야. 나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너처럼 어리석은 이상론으로 사람을 현혹시키지는 않아.”

“뭐야! 말 다 했어?”

시로네는 벌떡 일어나 이루키를 노려보았다. 초자연심령과학연구회에서 벌어졌던 언쟁의 2차전이었다.

학생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시로네는 누구하고도 싸울 성격이 아니고 이루키는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두 사람이 충돌하자 긴장감이 몇 배는 치솟았다.

“뭐지? 쟤들 둘이 무슨 일 있었나? 꼭 예전부터 싸운 것 같잖아?”

“견제하는 거지. 어쨌거나 차기 진급자 후보에 저 두 사람은 꼭 끼어 있으니까.”

시로네는 눈에 힘을 주고 노려보았다. 반면에 이루키는 싸울 의사가 없는 듯 다른 곳을 둘러보며 딴짓을 했다.

“야, 야! 너희들 또 왜 그러냐? 한동안 조용하더니. 선생님 오시니까 일단 돌아가자.”

네이드가 두 사람을 뜯어말린 덕분에 큰 싸움으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시로네는 기분이 불쾌할 수밖에 없었다.

이루키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시를 날려 버리는 방정식을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짐승의 생명을 하찮게 보는 태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에이, 앞으로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수업이 시작되고 에텔라가 산을 올라왔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모습에 학생들이 멍하니 입을 벌렸다.

실기 평가 기간이기 때문일까? 그녀는 활동하기 편하게 소매가 짧고 넓적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수련복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안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남학생들은 눈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에 말을 잃었다. 안경 하나로 인상이 이렇게나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오늘부터 특별 교육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실습장 사정상 클래스 파이브의 스피드 건 테스트가 제일 먼저 치러질 거예요. 내일부터는 클래스별로 시간대가 나누어지니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 수업은 조교의 시연을 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누엘, 이쪽으로.”

키가 훤칠한 금발의 미남자가 학생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나이는 20대 초반 정도였고 남자치고는 이례적으로 머리를 허리까지 기르고 있었다.

“여기 서 있는 조교는 졸업반에서 졸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누엘 군이에요. 전공은 언령 마법이며 오늘 특별히 마법 시연을 위해 와 주었습니다. 스피릿 존의 강화 교육과도 연관이 있으니 집중해서 봐 주세요.”

와아아아아아!

여학생들은 열성적으로 사누엘을 반겼다. 통합 수업 시간마다 남자들의 눈만 호강하다가 미남자가 등장했으니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반갑습니다. 고급반에서 수업을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볼품없는 실력이지만 교육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로네는 흥미롭게 사누엘을 바라보았다.

에이미와 경쟁하고 있는 졸업반의 라이벌이 어떤 실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나 언령 마법이라는 생소한 전공도 궁금했다.

이미지 존으로 들어간 사누엘이 스피릿 존을 펼쳤다.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시로네와 비슷한 크기의 직경 42미터짜리 구체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언령 마법이란 언어의 힘으로 마법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언령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네이도를 시전해 보겠습니다. 토네이도.”

사누엘이 양손을 띄우자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몰아쳤다. 고급반에도 토네이도를 구사하는 학생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마치 기본 마법을 다루듯 손쉽게 시전했다.

“조금 전의 위력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언령 마법으로 토네이도를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언어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언어에 담긴 의지를 음미하는 것으로 마법사의 정신력은 강해집니다.”

사누엘은 목청을 가다듬더니 8개의 구로 이루어진 시를 읊어 나갔다.

“열광의 대지여, 그대의 힘을 빌리노니 손을 어루만지라. 하늘은 내려다보고 만세의 역사는 순간에 담긴다. 공허의 위력이 손안에 깃들면…….”

하나의 구가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의 표정이 시큰둥해졌다. 의미조차 애매한 이상한 시를 읊고 있으니 지루함이 밀려들었다. 어디선가 하품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사누엘은 불쾌해하지 않고 시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다시 양손을 들며 마법을 시전했다.

“토네이도.”

퍼어어어어엉!

엄청난 폭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회오리바람에 아이들은 숨이 멎을 정도의 강풍을 맞은 채 얼어붙었다. 사누엘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일렁거릴 만큼 강력한 바람이었다.

사누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언령의 힘입니다. 언어에는 마법사의 의지가 담깁니다. 그 의지를 음미하여 마법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말하고, 되새긴다. 이것이 언령 마법의 기본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44] 리미트리스(3)

학생들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다. 지금 보여 준 시연만으로도 언령 마법의 위력은 충분히 느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이라니?

사누엘은 똑같은 시를 다시 읊어 나갔다. 말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자 아이들이 흥미를 드러냈다.

“열광의 대지여, 그대의 힘을 빌리노니 손을 어루만지라. 하늘은 내려다보고 만세의 역사는 순간에 담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입술의 움직임이 잔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음절이 이어졌다.

(천공의 성지는 마음에 존재하고 술사의 의지는 세계에 담긴다. 찬양과 찬미의 노래를 부르리. 창백한 섬광만이 불을 태울 수 있고 뜨거운 바람은 태풍을 부른다.)

사누엘은 허파를 움켜쥐며 인상을 찡그렸다. 차분하게 시구를 읊조리던 미남자는 사라지고 전투적인 언령 마법사만이 존재했다.

언령의 속도가 극한으로 치솟았다.

(정신에 깃든 영혼이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라. 법사는 사자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태양을 머금은 바다와 같이, 바다를 머금은 대지와 같이, 대지를 머금은 바람과 같이, 억년의 바람이 손안에 있으니 무한한 지성을 이루리라.)

모든 소리들이 앞으로 밀려나오자 음과 음이 깨지면서 고주파가 튀어나왔다. 학생들이 일제히 귀를 틀어막았다. 마치 수십 마리의 돌고래 떼가 울음을 터뜨리는 듯했다.

이제 언령은 언어의 범주를 넘어 음의 파동으로 변했다. 사누엘의 입술은 열린 채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 안에 있는 혀만이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는 중이었다.

시로네는 경악했다. 정상적인 발음 속도의 20배 이상의 빠르기였다. 처음에 2분 이상이 걸린 언령을 불과 6초 만에 끝장 내버린 사누엘이 다시 토네이도를 시전했다. 퍼엉 하고 소리가 터지면서 흙먼지로 옷을 입은 회오리바람이 치솟았다.

흙먼지가 사라졌을 무렵 사누엘은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쇠가 깨지는 듯한 소리는 사라졌지만 학생들의 귓가에는 여전히 이명이 맴돌았다.

“이것이 언령 마법사의 기본인 초음술이라는 것입니다. 실전 상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이죠. 물론 말을 빨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듣기 힘든 소음이었겠지만, 저는 이 시구의 의미를 빠짐없이 되새겼습니다. 그에 대한 증명은 토네이도의 위력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황당함에 말을 잊었다. 언령의 힘이 이토록 클 줄은 예상치 못했다. 특히나 마지막 토네이도는 최초의 마법보다 족히 열 배에 가까운 증폭력을 보였다.

‘이것이 졸업반 레벨인가?’

시로네는 식은땀이 났다. 물론 에텔라 선생님이 조교로 부른 만큼 졸업반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실력일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이었다. 또한 에이미가 저런 사람들과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졸업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다른 학생들도 상당한 자극을 받았는지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에텔라가 굳이 선배를 불러 시범을 보인 이유였다.

“수고했어요, 사누엘. 덕분에 학생들이 많은 걸 보고 느꼈을 거예요. 어려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사누엘은 남녀 사이의 선망 같은 건 조금도 없는 진지한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불러만 주시면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시로네는 자신이 누구에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사누엘조차 졸업을 하더라도 비공인 10급 마법사였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동안의 여교사는 자그마치 6급, 그것도 국가 공인의 마법사였던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거지, 우리 선생님?’

다른 학생들도 그 사실을 깨달았는지 사누엘이 떠난 뒤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했다.

“자, 여러분. 언령 마법의 시연은 잘 보았나요?”

“네!”

대답 소리가 여느 때보다 우렁차게 들리자 에텔라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언령 마법을 미리 보여 준 이유는 오늘 배울 스피릿 존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말이요!”

“그래요. 바로 말입니다. 생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에텔라에게 오래 전부터 수업을 받았던 클래스 포의 학생들이 대답했다.

“생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 어떤 생각이든 떠올려보세요. 아마도 그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마다 시도해본 학생들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되새기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언령 마법사는 자신이 내뱉은 언어를 다시 흡수하여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에텔라는 검지를 치켜들고 설명을 이었다.

“언령의 기본 체계는 단순합니다. 말하고, 되새긴다. 말하고, 되새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미를 증폭시켜 마법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도 언령을 배우나요?”

클래스 세븐에서 질문이 나오자 에텔라가 웃었다.

“언령 마법을 배우고 싶나요?”

“네. 아까 그 형 엄청 멋있었어요.”

“그래요. 적성에 맞는 걸 찾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언령 마법은 전공 학과라서 고급반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스피릿 존을 어떻게 강화해요? 언령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주 잘 짚어 주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령은 특정 마법의 위력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마법이 있고, 그 마법을 표현하는 언어가 따로 있죠. 하지만 스피릿 존은 순수한 정신 작용이기에 언령이나 초음술을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피릿 존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텔라는 설명을 멈추고 이미지 존으로 올라갔다.

“바로 수열식이라는 독특한 집중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생각으로든 입으로든 1부터 100까지 세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세요.”

절반이 넘는 인원이 손을 들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1부터 1,000까지 세어 본 사람은?”

학생들이 목을 빼내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클래스 포의 전체가 손을 들었으나 하위 클래스의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수열식이란 말 그대로 숫자를 나열하는 기술입니다. 언어와 달리 숫자는 고정불변의 위상을 갖춘 기호죠. 따라서 스피릿 존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숫자를 세면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언령과 똑같아요. 내뱉고, 되새긴다. 다만 수열식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되새긴다가 되겠죠. 숫자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수열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에텔라가 언령 마법을 먼저 소개한 이유였다. 고급 기술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지만 강화의 기본 개념은 수열식과 언령이 거의 유사했다.

“수를 전개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존은 강화됩니다. 수열식을 행하면 발동 확률, 위력, 정밀도 등 모든 부분이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수열식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피릿 존은 오직 정엄한 정신 수양을 통해서만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술적인 강화에 너무 치우치지는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 직접 수열식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끝낸 에텔라는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직경 10미터 정도의 스피릿 존을 펼쳤다.

“지금부터 수열식을 행합니다. 현재 보이는 스피릿 존을 오직 수열식만으로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언령이 아니기 때문에 음절을 고려하여 10승 단위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1.”

에텔라가 수열식의 시작인 1을 내뱉는 순간부터 공기가 차오르듯 스피릿 존이 부풀었다.

“100.”

“100? 방금 100이라고 하셨어?”

수열식이 효과를 내려면 숫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2초 만에 100을 셌다는 것은 가공할 속도였다.

“400.”

아이들의 눈이 똥그래졌다.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는지 특정 구간의 속도를 나타내는 제로백이 엄청나게 짧아졌다.

“1,100. 1,700. 2,400.”

시로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인간이 저렇게 빨리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인가? 20초가 되지 않은 시간에 1을 무려 2,400번이나 더했다.

스피릿 존이 직경 40미터의 구체로 커졌다. 오직 수열식으로만 만들어 낸 크기였다.

숫자가 1만을 찍은 시점에서 에텔라는 수열식을 멈췄다. 스피릿 존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원래의 크기로 되돌아왔다.

10,000을 한 번에 세는 집중력은 어째서 그녀가 카르시스 수도회의 최연소 비숍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얼마나 정신을 단련하면 저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

에텔라의 수열식 시범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다. 아름다운 외모조차 그녀의 재능에 비하면 빛이 바래는 느낌이었다.

“잘 보셨나요? 수열식을 얼마나 빠르게 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강화의 폭은 커집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피릿 존 자체의 수행이 부족하면 큰 효율을 얻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로네는 그녀의 말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수열식을 이용하면 스피릿 존의 내구력보다 강한 정신응축을 통해서 액티브 마법을 구사할 수 있었다.

“수열식은 1에서 100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속도를 제로백이라고 부르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숫자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제로백을 단축시키는 데 치중하세요.”

수업이 끝나자 시로네는 홀로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막상 시도해본 수열식은 단순하면서도 어려웠다.

1부터 100까지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 보니 7초였다. 처음 시도한 결과치고는 괜찮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은 건 엄청난 속도로 계산을 했는데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도달했다는 점이다.

클래스 파이브의 수준은 꽤나 높지만 정신적 내구력만큼은 아직까지 시로네가 월등하다는 증거였다.

실제로 수열식을 처음 행하는 학생들은 가속도가 붙을수록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숫자를 더 늘려 볼까? 아니야, 우선은 제로백을 단축시키라고 하셨잖아.’

에텔라의 성품으로 봤을 때 수열식의 수준은 학생들의 기준에 정확히 맞췄을 터였다.

‘그렇다면 훨씬 높은 경지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뭘까? 특별한 방법이 있을 텐데.’

생각에 잠겨 있던 시로네가 손가락을 튕겼다.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숫자를 통째로 음미하면서 처리하는 거야.’

시로네는 몰랐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보 마법의 기본 개념인 모듈화였다. 개개의 숫자를 단위별로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시로네는 곧바로 실험에 착수했다. 숫자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계산이 아닌 통찰이 필요했다. 동일한 시간 내에 처리하는 숫자의 개수가 늘어나자 스피릿 존의 성능이 올라가는 게 또렷이 느껴졌다.

엄청난 속도로 제로백을 돌파한 시로네는 사방식을 공격형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수열식이 천에 도달하는 순간 매지컬 액션을 취하고 마법을 시전했다.

번쩍하고 터지는 빛에 학생들이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시로네의 손바닥에서 광자 덩어리가 튀어 나갔다.

엄밀히 따지자면 빛의 구체였지만 준아광속으로 뻗어 나가는 속도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한 줄기의 섬광이 질주하는 듯 보였다.

“우와! 저게 뭐야?”

“광자 출력이네. 저걸로 타깃팅 시험을 치르려나 봐.”

“하지만 왜 저걸 익혔지? 광자 출력은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을 텐데?”

“상관없지. 이미지 존의 타깃은 어떤 마법이든 발동하니까. 힐링을 써도 타깃이 제거된다고. 사실 시험에는 유리할 수도 있어. 솔직히 저거, 엄청 빠르잖아?”

물리력이 없을지라도 액티브 마법의 기본 중에는 광자 출력보다 빠른 마법이 없기에 날파리처럼 날아다니는 타깃을 맞히기에는 제격이었다.

## [45] 리미트리스(4)

에텔라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따라 시로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시로네의 손에서 연거푸 빛이 나가고 있었다.

“시로네,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구나.”

“네. 사실 지금 막 성공한 거예요.”

“후후. 그래? 수열식이 성과가 있었나 보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시로네는 오류를 수정할 게 많은지 다시금 광자 출력에 열중했다. 에텔라는 입술을 매만지며 꼼꼼히 살폈다. 사실 시로네에게는 액티브 마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었다. 성향 자체가 너무 방어형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공시켰다는 건…….’

모듈화를 접목했다는 얘기다. 개인 지도 시간에 조언을 해주려고 했지만 스스로 깨달았으니 나설 기회는 사라졌다. 대신에 그녀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시로네, 타깃을 맞히는 건 한 번도 해 본 적 없지? 이미지 존으로 올라가 볼래?”

“네, 해 볼게요.”

학생들이 연습을 멈추고 시로네를 쳐다보았다. 그가 몇 점을 낼 수 있는지는 경쟁자들의 주요한 관심거리였다.

시로네는 타깃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연습에 불과하지만 스피드 건 훈련은 처음이기에 실전처럼 긴장이 됐다.

에텔라는 매직 배리어 장치를 가동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했다. 일전의 이루키처럼 마법 장막이 없는 상태에서 마법을 시전하다가는 기물은 물론 학생까지 다칠 수 있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사방에서 타깃이 올라왔다. 시로네는 수열식을 전개하면서 사방식을 공격형으로 변환했다. 수많은 가시들이 전 방위로 뻗어나갔다. 한 번의 시도로 꽤나 많은 타깃이 포착되었다.

시로네는 지체하지 않고 광자 출력을 시전했다. 빛이 번쩍하는 순간 타깃이 재로 변해 사라졌다.

“우아아아…….”

아이들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비록 물리력이 없는 액티브 마법이지만 화려함에서는 압도적이었다.

‘괜찮은데?’

시로네는 연속으로 광자 출력으로 시전했다. 마법을 시전하는 것과 동시에 타깃이 사라졌다. 거리에서 발생하는 시간차가 없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었다.

‘이거라면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은 시로네는 사방으로 광자를 쏘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지자 기록에도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 제거한 타깃의 개수는 172개. 그럼에도 시간은 20초가 남았으니 200점까지는 무난히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역시 모듈화를 터득했구나.’

에텔라는 시연을 보고 확신했다. 건널 수 없는 다리에서 얻은 깨달음이 수열식으로 이어지는 건 좋은 현상이었다.

현재 시로네의 수열식은 10개의 숫자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었다. 이 정도라면 제로백을 2초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였다.

1분이 지나고 장치가 작동을 멈추자 시로네는 숨을 헐떡이며 이미지 존에서 내려왔다. 학생들의 시선이 전광판에 집중되었다. 최종 합계 342점. 1분 동안 342개의 타깃을 제거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빗나가지? 나도 차라리 광자 출력으로 시험 볼까?”

“저게 쉬워 보이냐? 순간 이동을 마스터한 시로네니까 광자 출력도 할 수 있는 거야.”

학생들이 이런저런 감상을 늘어놓았다. 네이드와 이루키도 그들 옆에 나란히 앉아 느낀 바를 이야기했다.

“역시 시로네야. 방어형에 특화되어 있는데 공격형도 엄청나네. 어쩌면 이번 시험을 계기로 선두 그룹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어.”

“난 잘 모르겠는데, 342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처음치고는 괜찮은 점수야. 어제까지 광자 출력도 못했는데.”

“처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중요한 건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아니겠어? 그런 부분을 대단하다고 해야지.”

“어라? 웬일이야? 네가 시로네를 칭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어쨌든 좋은 실험이 되겠어. 이번 시험에서 누가 더 우위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어쩌려고?”

이루키는 대답 대신 자리를 털고 이미지 존으로 걸어갔다.

“에텔라 선생님, 제가 해 봐도 될까요?”

“이루키, 네가?”

에텔라가 불안한 듯 되물었다. 저번의 일도 그렇고 함부로 시연을 시켰다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아이였다.

“연습만 하고 내려올게요. 어차피 매직 배리어도 가동되고 있잖아요.”

시험 준비 기간이었으니 특정 학생에게 제약을 거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할 수 없이 그녀는 승낙했다.

“좋아. 올라가 봐. 하지만 사고 치면 안 돼.”

이루키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이미지 존으로 들어갔다. 그의 등장에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준비를 끝낸 이루키가 사방식을 이탈형으로 변환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설마하니 타깃팅 시험에서까지 이탈형을 구사할 줄은 몰랐다.

시로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이탈형이 사방식 중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지만 다연발로 올라오는 타깃을 포착하려면 최소한 공격형은 되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탈형은 공감각을 버리고 오직 눈으로만 타깃을 추적해야 한다. 완벽한 일대일 대응. 비유하자면 점을 움직여서 점을 붙잡는 방식이었다.

‘대체 어쩔 작정이지?’

타깃이 올라오자 이루키의 스피릿 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의 사람의 얼굴 크기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다. 반면에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펑! 펑! 펑! 펑! 펑!

정확했다. 마치 탄성을 지닌 고무처럼 스피릿 존이 각도를 급격히 꺾으면서 타깃들을 제거해 나갔다. 학생들이 감탄한 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에텔라마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탈형으로 타깃을 제거하다니. 꽤나 독특한 방법이네.’

카운트가 벌써 100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시로네는 이루키가 얼마나 대단한 솜씨를 보이고 있는지 깨달았다. 타깃을 눈으로 보면서 제거하고 있다. 움직이는 속도를 고려했을 때 엄청난 동체 시력이었다.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야.’

서번트 신드롬의 경이로운 계산 능력. 타깃의 운동 방향을 예측하고 미리 스피릿 존을 가져다대고 있는 것이었다.

‘이 정도로 놀라면 곤란해, 시로네.’

이루키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스피릿 존이 움직였다.

“어? 어?”

학생들은 경악했다. 스피릿 존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잡을 수 없었다. 흐릿한 무언가가 공간을 튕길 때마다 사방에서 타깃이 터져나가고 있었다.

퍼퍼퍼퍼퍼퍼펑!

아토믹 봄의 위력을 최소화시킨 덕분에 기폭 반응에 걸리는 시간은 없다시피 했다. 시로네의 광자 출력이 빠른 속도로 사정거리를 제압한다면 그는 스피릿 존을 움직여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었다.

카운트가 200점을 돌파했다. 모듈화를 이용한 시로네보다도 빠른 속도였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그렇다면 시로네는 인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존을 강화시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설마 내가 했던 방식으로?”

“아니. 너하고는 다를 거야.”

어느새 옆자리에 네이드가 다가와 있었다.

“이루키는 너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거든. 서번트 신드롬으로 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결국 엄청나게 빠른 계산 능력이야. 아마도 현재 이루키가 세고 있는 숫자는 1,000단위가 아닐 거야.”

“1,000 단위가 아니라고? 그러면?”

“100만.”

시로네는 눈을 크게 떴다. 1분 안에 100만을 세는 게 가능한가? 1만분의 1초를 느끼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다. 숫자의 모듈화는 직관의 영역이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100만 번의 루틴을 반복해야 하는 일은 상상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이루키는 주어진 1분의 시간을 쓰고 내려왔다. 최종 점수는 548점. 시로네의 점수를 크게 상회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이루키가 이토록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엄청나다. 이탈형으로 548점. 저건 사람이 아니야.”

“서번트 능력으로 타깃의 운동방정식을 모조리 계산했어. 솔직히 너무한 거 아냐?”

에텔라 또한 이루키를 달리 보았다. 이탈형으로 타깃을 포착한 것까지는 수학적 계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피릿 존의 이동속도는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됐다.

‘설마? 저 아이…….’

이루키는 이미지 존에서 내려와 곧장 시로네에게 갔다. 그리고 짝눈을 실룩거리며 말했다.

“감상이 어때? 그럭저럭 봐 줄 만했지?”

시로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단한 시연이었어. 서번트 신드롬. 타깃의 동선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

“흠, 고작 그것뿐인가? 이거 실망스러운데?”

“뭐야?”

시로네가 부루퉁하게 대꾸했다. 칭찬을 해줘도 못 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니 감정이 상했다. 하지만 이루키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었다.

“숫자를 모듈로 묶어서 수열식의 속도를 높인다. 확실히 너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하지.”

시로네는 이루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불안했다. 반면에 자신은 이루키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르쳐 줄까, 내가 시도한 방법?”

시로네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해 줘도 되는 거야? 들어보니 나를 굉장히 견제하는 것 같던데?”

“상관없어.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역시나 사람의 속을 벅벅 긁는 이루키였다.

“사실 별거 아니야. 대수(logarithm)를 써서 단위를 줄였을 뿐이니까.”

“대수라면……? 아, 그렇구나.”

과연 그런 방법이 있었다. 또한 이루키의 말대로 안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로그를 씌우면 천문학적인 숫자도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지. 이번에는 연습 삼아서 해 본 거야. 어차피 진짜 승부는 실습 평가니까.”

로그를 씌우면 어떤 단위의 숫자라도 단순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1억도, 10억도, 100억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애초부터 로그는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기호였다. 따라서 수열식처럼 단순한 연산에 접목시키면 오히려 수학자조차 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진다.

하지만 이루키는 가능했다. 서번트 신드롬의 능력으로 자연수를 전부 분수로 변환시켜서 계산해버린 것이다.

‘로그를 씌운 상태에서 수열식을? 정말로 인간이 가능한 일인가?’

시로네는 처음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르미스 에이미. 오젠트 가문의 식구들. 살면서 꽤나 많은 천재를 만났지만 이루키처럼 극단적으로 재능의 추가 기울어진 인물은 처음이었다.

“어때? 이래도 나를 이길 수 있겠어?”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최선을 다했다면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정석적인 대답이군. 상관없어. 원래부터 그런 놈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다음부터는 말을 조심하라고. 실력도 없는 이상주의자의 말을 들으면 정말로 불쾌하니까.”

시로네는 이를 뿌득뿌득 갈았다.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웠던 것일까? 단지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조차 이상주의라고 한다면 시로네도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 알았어! 겨뤄 보자.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너를 이기겠어.”

“하하!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시로네는 쏘아붙이려다가 이루키의 실력을 확인한 동급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입을 다물었다.

“이루키, 정말 대단하다.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그런 실력이 있으면서 왜 숨긴 거야? 우리 연구회에 들어오지 않을래? 네가 있으면 한 달 안에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을 거 같은데.”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다. 시로네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이루키가 이미지 존에서 선보인 시연은 충격적이었다.

“시로네, 건널 수 없는 다리에서 보여 준 너의 통찰은 확실히 대단했어. 하지만…….”

이루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다.

“내 연산은 통찰보다 빠르다.”

시로네는 침을 꿀꺽 삼켰다. 마법학교에 입학해서 수많은 경쟁을 치렀지만 이토록 강적은 처음이었다.

네이드가 시로네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다.

“힘내라. 무책임한 소리 같지만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한 것도 사실이니까. 나야 둘 다 친구라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지만.”

“경쟁은 좋지만 이런 건 싫어. 이루키는 그냥 날 싫어하는 것뿐이잖아.”

“하하! 어쩌겠어? 원래 저런 놈인걸. 하지만 이루키가 전력을 다하게 만들었으니 너도 참 대단한 놈이야. 클래스 파이브의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너희 두 사람뿐일 거야.”

“응? 최고 기록 같은 것도 있어? 몇 점인데?”

“어디 보자. 내가 알기로는 987점이었나?”

시로네의 눈이 똥그래졌다.

“987점?”

자신의 점수는 차치하고 로그를 이용한 이루키조차 500점을 넘긴 수준에 불과했다. 대체 얼마나 빠르게 타깃팅을 해야 1분에 987점을 낼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엄청나다. 대체 누구야? 이미 졸업은 했겠지?”

“응? 무슨 소리야? 사귄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에이미 선배님이잖아.”

## [46] 리미트리스(5)

“에, 에이미가……?”

시로네는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타깃형이 주특기인 만큼 그녀의 타깃팅 속도는 확실히 엄청났다.

하지만 987점이라는 건 가히 깨질 수 없는 기록이었다.

“에이미 선배님은 실전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거든. 하긴, 그런 부분은 너하고 닮았지. 오죽하면 졸업반에 들어가기까지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겠냐?”

세상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괴물이 있는 것일까? 아니, 이곳이 마법학교이기 때문이다. 마치 온 세상이 재능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기분이었다.

“굳이 최고 기록을 갱신할 필요는 없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987점 나오기 전에는 최고 기록이 700점 대였다고 하더라고. 선생님들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깨지지 않을 점수라던데.”

상당히 큰 격차였다. 시로네도 미리부터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일단 1차 목표를 700점으로 잡았다. 앞으로 시험까지 3주가 남았다. 그 안에 점수를 끌어 올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지 않겠어. 절대로!’

시로네는 두 주먹을 가득 움켜쥐었다.

\* \* \*

시로네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열식에 몰두했다. 이루키의 연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숫자를 세지 못하면 승부는 해 보나 마나였다.

현재 모듈화로 묶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20개. 즉 한 번에 20개씩 숫자가 올라가는 경지였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로그의 엄청난 단위 압축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젠장.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시로네는 밤이 새도록 훈련장에서 광자 출력을 시전했다. 제로백의 속도가 월등히 향상되었으나 1분에 셀 수 있는 숫자는 1만 대에 불과했다.

‘이루키는 첫날에 100만을 채웠어. 더, 더 빠르게 세야 해.’

수열식도 그렇지만 시험 방식도 알아 둘 필요가 있었다. 처음부터 타깃이 무한정 쏟아져 나온다면 1,000점을 내는 일도 어렵지 않을 테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첫 번째 스텝에서 10개가 올라오고, 그것을 전부 제거한 뒤에야 두 번째 스텝에서 11개가 올라온다. 1분 동안 그렇게 스텝이 계속 올라가면서 타깃의 개수가 늘어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초반부터 빠르게 스텝을 올려 두지 않으면 뒤늦게 분발한다고 해도 큰 점수는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이것도 제로백이야. 누가 먼저 스텝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나중에는 수백 점의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

연습은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다. 숙소에 돌아가서 기절하듯 잠을 자고 몇 시간 뒤에 다시 훈련장으로 가서 수열식을 연습하는 게 하루의 시작과 끝이었다.

실습 시험 기간에는 통합 수업이 없어지고 클래스마다 번갈아가면서 수업이 치러지기 때문에 훈련장은 한산했다.

학생들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수열식을 연습하면서 이미지 존의 순서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로네는 줄을 서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마지막이 될 때까지 수열식에 치중했다.

마침내 차례가 되자 시로네는 이미지 존에 들어가서 여태까지의 성과를 가감 없이 쏟아부었다. 마치 생물처럼 들쭉날쭉한 스피릿 존에 타깃이 닿을 때마다 광자 출력의 섬광이 번쩍번쩍 빛났다.

액티브 마법에 적응이 되면서 매지컬 액션을 생략한 상태에서도 광자 출력을 구사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자 돌아보지 않고서도 타깃을 맞힐 수 있었다.

최종 점수는 567점이었다. 일전에 시연한 이루키의 점수보다도 높게 나왔기에 시로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반면에 학생들의 자신감은 줄어들었다.

“일주일 사이에 200점 이상 올렸어. 뭐가 이래?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이 정도면 완전 반칙이잖아.”

“공격형 스피릿 존에 적응한 거지. 매지컬 액션은 위력을 높일 수는 있어도 강박이 생기니까 연계가 어렵거든. 내가 보기에 초당 4회 이상은 시전하는 거 같던데.”

이미지 존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마침내 공터가 되자 뒤늦게 이루키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석에 앉아 멍하니 쉬고 있던 그였다.

“이번에는 내 차례겠지?”

시로네에게 미소를 지은 그는 장치를 가동시켰다. 이탈형의 스피릿 존이 전보다 더욱 작아져서 이제는 주먹만 했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스피릿 존이 타깃을 제거했다. 섬광을 구사하는 시로네도 화려하지만 이루키의 속도감도 만만치 않게 박진감이 넘쳤다.

1분이 지나자 이루키는 점수조차 확인하지 않고 뒷짐을 진 채 멀어져 갔다. 최종 점수 568점. 시로네보다 딱 1점이 앞선 점수였다.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시로네는 이 또한 서번트 능력의 계산이라는 걸 직감했다.

결과적으로 예상은 들어맞았다. 훈련 시간마다 시로네의 실력은 일취월장했으나 항상 1점 차로 앞서는 이루키의 시연에 빛이 바래고 말았다.

자극을 받은 시로네는 수열식에 더욱 매진했다. 모듈화로 묶은 숫자의 개수가 100이 넘어갔다. 제로백에 걸리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고 스피릿 존의 성능은 몰라볼 정도로 올라갔다. 제로백을 단축시킬수록 스피릿 존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걸 깨달았지만 내구력이 장기인 만큼 1분 정도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듯했다.

시로네의 점수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클래스 파이브의 평균 점수인 500점을 훌쩍 뛰어넘었고, 급기야는 600점대에 돌입했다.

하지만 언제나 승자는 이루키였다. 또한 1점 차이로 앞서는 상황 자체가 극적이어서 아이들도 시로네보다는 이루키의 시연에 더 흥분했다.

시험을 앞둔 마지막 훈련 시간이 돌아왔다.

최종 점검에서 얻은 점수가 실제 시험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학생들의 집중도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시로네는 이를 악물고 타깃을 제거해 나갔다. 마치 몸이 발광물질로 변한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섬광이 쏘아졌다.

화려한 빛의 축제가 끝나자 학생들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소리를 내질렀다.

최종 점수 700점. 에이미가 세운 기록을 제외하면 클래스 파이브의 최고 기록에 근접한 점수대였다.

“정말 저 점수가 가능하구나. 700점대를 내가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10초 안에 열 번째 스텝을 통과하지 않으면 700점대는 나올 수가 없어. 대체 1초에 몇 개를 터뜨리는 거야?”

시로네는 점수를 확인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번 수업 시간보다 무려 70점이나 오른 점수였다. 더군다나 목표하던 700점대에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다.

시로네가 계단을 내려오자 이루키가 옆을 스쳐지나가며 말했다.

“축하해. 700점은 확실히 대단하군. 성장 속도가 무서울 정도야.”

“너한테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으니까.”

“크크, 그렇군.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시로네는 콧방귀를 뀌며 이미지 존을 내려왔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이루키는 어느새 스피드 건을 시작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우와! 존이 저렇게 작아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루키는 스피릿 존을 구슬 크기까지 축소시켰다. 워낙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탓에 잔상조차 보기 힘들었다.

퍼퍼퍼퍼퍼퍼퍼펑!

마치 타깃들이 스스로 알아서 터지는 듯, 이미지 존의 중앙에 있는 이루키를 중심으로 폭음성이 연달아 들렸다.

이루키의 시연이 끝나자 시로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종 점수 701점. 최선을 다해 70점 이상을 뛰어오른 시로네의 점수를 또다시 1점 차이로 눌러 버린 것이었다.

이루키의 쇼맨십에 학생들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성을 내질렀다. 본인들도 시험이 코앞이지만 그것마저 잊을 정도로 두 라이벌의 경쟁이 치열했다.

‘701점? 이번에도 1점 차이라고?’

시로네는 처음으로 초조해졌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고 침이 말라붙었다. 차라리 이루키가 온 힘을 다해 최고 점수를 냈다면 이토록 긴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1점 차였다. 결국 전력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였다.

시험 기간은 다음 주지만 클래스 파이브의 일정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고작 3일이었다. 그 안에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온갖 불안을 끌어안은 채 시로네는 힘없이 훈련장을 내려갔다.

\* \* \*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일. 오늘 같은 날이면 청춘 남녀들이 짝을 지어 돌아다니는 게 일상적이지만 시험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라 중앙공원은 한산했다.

반면에 세리엘은 이런 날이야말로 산책하기 제격이라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공원을 가로질렀다. 졸업반 진급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고급반의 시험도 이제는 남의 일이었다.

“에이미! 여기야, 여기!”

에이미가 분수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여전히 예쁜 자태였으나 가까이 다가가자 눈 밑이 퀭하고 원래부터 마른 몸이 더욱 얇아져 있었다.

“우와! 안 본 사이에 야위었네. 졸업반이 힘들긴 한가 봐.”

에이미가 피식 웃으며 서류를 건넸다.

“지옥에 들어온 걸 환영해. 자, 여기 네가 부탁한 졸업반 자료.”

졸업반 학생들의 성적과 주특기를 적은 자료였다. 졸업반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에 편법은 아니었다.

“고마워. 일단 앉자. 뭐 좀 마실래?”

“커피 마시자. 요즘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거 같아.”

카페로 들어간 두 사람은 커피 두 잔을 들고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별다른 대화 없이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시간을 죽였다.

에이미는 여느 소녀와 달리 수다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이런 정적이야말로 졸업반에서는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안식이었다.

수다쟁이 세리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 또한 에이미에게서 고단한 전사의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야위기는 했어도 졸업반 특유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클래스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에이미에게는 매일이 지옥이겠지만 그곳에서 버티는 동안 이미 고급반과 엄청난 차이를 벌렸음을 알 수 있었다.

‘확실히 그런 부분도 작용하겠지. 나도 빨리 진급을 해야겠네.’

비어 있는 아이스커피만 쪽쪽 빨아 대고 있던 에이미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시로네는 요즘 어때?”

“왜 안 물어보나 했네. 정말 한 번도 안 만난 거야? 소문도 못 들었어?”

“몰라. 만날 시간도 없고, 졸업반은 고급반하고 수업자체가 다르니까. 저번에 사누엘이 조교로 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렇구나. 사실 요즘 들어서 클래스 파이브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빨대를 문 에이미가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물 만난 고기처럼 세리엘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스피드 건 시험을 앞두고 시로네와 이루키의 대결 구도가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야기의 골자였다.

“로그를 이용해서 단위를 줄였다고? 그거 참신하네. 하긴, 이루키답다고 해야 할까?”

“응? 너 이루키 알아?”

“당연히 알지. 동급생이었으니까. 물론 나는 금방 진급했기 때문에 오래 보지는 못했지만. 걔 그거잖아? 서번트 신드롬.”

“어라? 정말 알고 있네? 얘기도 해 봤어? 사람들하고 안 친한 거 같던데.”

“응. 처음 클래스 파이브에 들어갔을 때 걔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었거든.”

세리엘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뭐? 걔가 너한테 찝쩍댔단 말이야? 어쩜 좋아! 그럼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사이에 둔 연적 간의 대결이란 거잖아? 완전 특종이야!”

“웃기고 있네. 걔 좀 이상하잖아. 하는 말도 뭔가 맞는 거 같기는 한데 공감은 안 되고. 아마도 시로네에게 했던 짓을 나한테 하려고 했던 거 같아. 보자마자 시비조더라고. 상대를 안 했지 뭐. 아마 그쪽도 내가 여자라서 관심을 꺼 버린 것 같아.”

“흐음, 그랬구나. 이른바 천재 사냥꾼이라는 거네? 시로네가 재수 없게 걸려들었나 봐.”

“재수 없을 것까지야. 한 번은 거쳐야 할 난관인데. 그나저나 힘들기는 하겠다. 타깃팅 시험인 데다가 이루키가 로그를 사용한다면 꽤나 고득점이 나올 거야.”

세리엘이 찌릿한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그런 말이 어딨어? 남자 친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응원해 줘야지. 시로네가 이루키에게 지면 어떡할 거야?”

“경쟁하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에이미는 예전과 달리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아마도 고급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리엘은 그 사실이 못내 서운했다.

“너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 무패 전설의 두 사람이 사귀는 걸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시로네에게 힘내라고 말해. 내가 직접 전해 줄 테니까.”

“됐어. 또 이상한 식으로 부풀려서 전하려고? 이번에는 진급시험도 아니고 실습 평가잖아. 시로네도 졸업반이 목표인 애야. 좋은 경험이 되겠지.”

“그러면 스피드 건 고득점 비법이라도 알려 줘. 너 기록보유자잖아. 987점.”

“흐음. 하지만 내가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라면 이미 시로네도 파악하고 있을 거야. 관심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로네는 뛰어나. 이미 700점도 넘었다면서. 나는 타깃형에 특화되어 있어서 남들보다 덕을 본 것뿐이라고.”

## [47] 리미트리스(6)

해법이 없다는 말에 세리엘이 울상을 지었다. 두 사람의 애틋한(?)사랑을 처음부터 지켜봤던 그녀는 마치 시로네가 소설 속의 남주인공이라도 되는 듯 상황에 몰입하고 있었다.

“어찌 됐든 이길 수는 있지? 시로네가 이겨야 되는데.”

“흐음.”

에이미는 턱을 괴고 빨대를 까닥거렸다. 메르코다인 이루키. 첫 만남이 재수 없기는 했지만 확실히 인재는 인재였다.

“타깃팅만 놓고 본다면 쉽지 않겠지. 서번트 신드롬은 정말 강력한 능력이니까. 로그까지 사용하면 상대하는 입장에서 엄청 까다로울 거야. 더군다나 이루키는 진심이라며? 만약 당시에 이루키가 나한테 진심으로 도전했다면…….”

“도, 도전했다면?”

곰곰이 생각하던 에이미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내가 졌을지도 몰라.”

세리엘은 충격을 받았다. 고급반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에이미, 클래스 파이브의 불변의 기록을 세운 그녀가 졌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다니.

졸업반이라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데 너그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발언이었다.

“히잉, 그럼 어떡해? 우리 시로네.”

세리엘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했다.

\* \* \*

스피드 건 테스트가 하루 전으로 다가왔다.

시로네는 숙소의 바닥에 앉아 명상에 잠겼다. 숫자를 세고 있지만 수열식은 아니었다. 여태까지 기술을 익혔다면 오늘만큼은 수열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다.

출발점은 있지만 목적지는 없는 수의 여행.

10시간이 지나도록 미동조차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대부분의 인간이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한 영역에서 시로네는 수열식의 본질을 깨달았다. 마치 천둥이 치는 것을 눈앞에서 본 것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어느덧 창밖에 동이 트고 있었다. 24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지만 피곤함은 없었다. 감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경건한 빛이 눈동자에 맺혔다.

시로네는 슬픔에 잠겨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느낀 것은 위대한 깨달음이었지만 몸서리치도록 냉혹한 현실이기도 했다.

‘정말로…… 이것이 진실입니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마치 대답을 들은 기분이었다.

\* \* \*

시험까지 30분 정도가 남았지만 이미 훈련장에는 참가자와 관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안전장치를 강화했고 점수가 집계되는 전광판도 이미지 존의 사방에 설치했다.

클래스 세븐과 식스의 학생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선배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계급사회의 단면이었다.

반면에 클래스 포의 학생은 시로네와 이루키의 대결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만 따로 시간을 내서 올라왔다. 그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역시나 클래스 포의 상위권인 세리엘이었다.

“엇!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마크가 대어를 낚는 눈빛으로 달려와 인사를 올렸다. 웃으며 손을 흔들어준 세리엘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래. 후배들은 다 참관했네. 하긴, 나 때도 그랬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는 오로지 시로네 선배님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요!”

“오! 역시 든든하구만! 좋아! 우리 한번 응원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불 싸질러 보자.”

세리엘과 마크는 이미지 존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가 걸어가는 곳마다 저절로 길이 생겼기에 1등석은 예약석이나 마찬가지였다.

웅성거리는 소리의 대부분은 시로네와 이루키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였다. 선천적으로 스피릿 존이 강한 시로네와 수열식을 통해 존을 강화시키는 데 능한 이루키. 누가 과연 클래스 파이브의 최고 재능인지를 가늠하는 승부였다.

시험은 두 사람이 동시에 치른다. 굳이 대결 구도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려는 학교 측의 의도였다.

같은 이유로 연습 때의 점수를 토대로 고득점자들의 순서를 뒤에 배치시켰다. 자연스레 시로네와 이루키는 마지막 차례인 20조를 배정받았다.

에텔라가 매직 배리어를 가동하자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다. 10분 정도 긴장을 풀 시간을 주고 1조부터 순서대로 시험이 치러졌다.

엄연히 실습 평가라서 개인 점수가 중요하지만 스피드 건은 대결 구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학생들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참가자들도 그런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개인 기록을 경신했더라도 같은 조의 학생에게 패하면 찜찜한 표정으로 이미지 존을 내려왔다.

10조까지 시험을 치르는 데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533점이었고 네이드는 반평균에서 조금 위인 491점으로 실기 평가를 끝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들 또한 오늘의 메인 매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마침내 19조의 시험이 끝나고 에텔라가 시로네와 이루키를 호명했다. 왁자지껄했던 응원 소리가 한순간 고요해졌다.

시로네와 이루키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나란히 계단을 올라갔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서 투쟁심이 느껴졌다.

“와! 시로네 선배님. 기합이 바짝 들었는데요? 애기 들어 보니까 이루키 선배님에게 전적으로 뒤진다고 하던데.”

“흥. 시로네는 실전에 강하다고! 순간 이동 시험 때도 그랬지, 아마?”

세리엘이 눈을 흘기자 마크는 빈 웃음을 터뜨리며 머리를 긁적였다. 시로네를 얕보다가 뒤통수를 맞은 당사자였다.

에텔라가 시로네와 이루키를 불러 규칙을 설명했다.

“시간은 1분이고 전광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 시작이야. 매직 배리어 덕분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일은 없으니 개인 종목이라 생각하고 임하면 돼. 특히 너희 두 사람은 후배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일은 저지르지 말도록.”

대답에 필요한 정신력마저 아끼려는 듯 시로네와 이루키는 고개만 끄덕였다. 에텔라가 팔을 벌리자 두 사람은 양쪽으로 갈라져 각자의 구역으로 들어갔다.

후배들은 두 사람의 결전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에 힘을 바짝 주었다. 침을 삼키는 소리도 들렸다. 최소 700점대 기록의 보유자들이니 초반부터 고속 타깃팅이 펼쳐질 게 분명했다.

시로네는 담담하게 전방을 바라보았다. 심장은 빨리 뛰지만 긴장감은 없었다. 인간의 집중력이 가장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전광판에 예비 조명등이 켜지자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셌다.

‘3, 2, 1.’

시작!

시로네는 빨간불이 들어오자마자 눈을 부릅뜨면서 수열식의 스타트를 끊었다. 시작과 동시에 제로백을 돌파했고 엄청난 속도로 숫자가 치달렸다.

퍼퍼퍼퍼퍼퍼펑!

초당 10회의 광자 출력.

섬광이 360도 전 방위를 긁고 지나갔다. 첫 번째 스텝에서 올라온 타깃들이 전부 터져 나갔다. 이루키의 이탈형 스피릿 존 또한 공간을 긁듯이 움직이며 타깃을 제거했다.

“우아아아! 둘 다 엄청 빠르다! 시작하자마자 다 터졌어!”

마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두 번째 스텝도, 세 번째 스텝도 마찬가지였다. 타깃이 올라오는 즉시 모조리 제거당하고 있었다. 여섯 번째 스텝까지 동률을 이루자 세리엘이 주먹을 힘껏 쥐었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승부는 몰라.”

시로네와 이루키는 열 번째 스텝까지 같은 시간에 주파했다. 하지만 다음 스텝은 20개의 타깃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두 사람 모두 한 번의 호흡으로 처리할 수 없는 숫자기 때문에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현재까지 점수는 239점 대 237점으로 시로네가 근소하게 앞서 나갔다. 이 정도라면 최종 점수 700점은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스타트였다.

‘좋아! 전력을 다한 이루키를 상대로 밀리지 않고 있어. 이대로 밀고나가자.’

타깃팅에서 실수를 하면 스텝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승부가 급격히 기운다. 하지만 섬광의 시로네와 이탈형의 이루키는 한 번도 타깃을 놓치지 않았다.

377점 대 377점.

30초 지점에서 이루키가 동점을 잡았다. 위기감을 느낀 시로네는 수열식에 가속을 걸었다. 스피릿 존이 강화되면서 섬광의 연계 속도가 빨라졌다.

시로네가 4점 차 리드로 앞서 나가자 이번에는 이루키가 초조해졌다. 연습 중에 여유를 부린 것과 달리 현재의 그는 사력을 다해 타깃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밀린다고? 내 계산 속도가?’

3일 전만 해도 이루키의 승리는 기정사실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수열식의 수준을 올린다는 건 불가능했다.

‘할 수 있어! 내 전략이 통하고 있어!’

시로네는 모듈화의 제한을 풀어 버리는 것으로 이루키의 속도를 따라잡았다. 여태까지 100개 단위로 숫자를 묶어서 처리했다면 지금은 232, 187, 99, 276등 닥치는 대로 처리하는 중이었다. 속도를 올리는 대신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략이지만 방어형의 정신적 내구력을 바탕으로 아직까지는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았다.

469점 대 432점.

처음으로 시로네가 이루키를 큰 점수 차로 따돌리자 학생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에텔라마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이루키는 비로소 시로네의 전략을 간파했다.

‘모듈화의 제한을 풀어 버렸어? 시험 성적 따위는 안중에도 없구만. 무조건 이길 생각으로 모험을 걸었다는 건데.’

이루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 왔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존재. 생애 최고의 라이벌을 만난 그는 기꺼이 승부를 받아들였다.

‘시로네, 내가 거는 도박은 너하고 차원이 달라.’

이루키는 수열식의 난이도를 높였다. 변화는 곧바로 일어났고 학생들이 의아한 듯 눈을 갈아 떴다. 연달아서 터지는 리듬 사이로 또 다른 리듬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어어? 저게 뭐야?”

542점 대 558점.

시로네의 점수를 따라잡은 것도 모자라 아예 추월해 버렸다. 한순간에 두 배 이상의 속도를 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리엘 선배님! 어떻게 된 거죠? 혹시 시로네 선배님이 실수를 한 건……?”

“아니. 시로네의 점수도 올라가고 있어. 그보다는 이루키의 타깃팅이 갑자기 빨라진 거야.”

“그럴 수가 있나요? 순식간에 100점이 올랐잖아요.”

이루키의 시연을 뚫어지게 살피던 세리엘이 마침내 깨닫고 입술을 짓깨물었다.

“……스피릿 존을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러자 학생들이 이루키 쪽을 돌아보았다. 분명 2개의 잔상이 다른 각도로 방향을 틀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더블 스피릿 존은 정신 분할이 가능한 서번트 신드롬 고유의 특성이었다. 기술이 아닌 특성인 이유는 결코 학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리엘이 정말로 놀란 이유는 스피릿 존이 하나 더 생겼는데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각기 다른 수열식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 두 가지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이루키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암산이 불가능한 로그를 씌운 상태에서.

‘에이미 말대로 엄청난 재능이네. 아니, 재능으로 설명할 수준이 아니야.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돌연변이.’

서번트 신드롬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는 전광판에 고스란히 점수로 드러났다.

692점 대 845점.

100점이 넘는 점수 차였고 스텝도 이루키가 몇 단계나 높았다. 일단 스텝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역전은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만 커질 뿐이었다.

‘더. 더 빠르게.’

시로네는 필사적이었다. 모듈화로 묶인 숫자는 평균 300개가 넘어가고 있었다. 적확한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은 더욱 복잡하고 불규칙해져 갔다.

732점 대 911점.

시로네는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이루키는 개인 기록을 넘어 에이미의 기록마저 갈아치울 수준이었다. 이대로 시험이 끝난다면 충분히 가능할 터였다.

시로네에게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닌, 오로지 뛰어넘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이번에도 대답을 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이미 대답을 들은 기분이었다.

‘수를 초월한다!’

## [48] 리미트리스(7)

시로네의 정신이 마치 초신성 폭발처럼 확장하면서 끝없이 퍼져나갔다. 완벽한 개방. 모듈화를 뛰어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가 하나의 점으로 압축하듯 밀려들었다.

퍼퍼퍼퍼퍼펑!

타깃팅 속도가 갑자기 치솟았다. 시로네의 스피릿 존에서 두 줄기의 섬광이 동시에 뻗어 나가고 있었다.

“선배님도 더블이에요!”

“아니, 서번트 신드롬이 아니면 더블은 불가능해. 저건 그런 수준이 아니야.”

세리엘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섬광의 숫자가 열 줄에서 스물 줄로, 스무 줄에서 백 줄로 늘어나고 있었다.

시로네는 완벽한 해방감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곳에 스며드는 기분. 그런 기분이 강해질수록 생각은 옅어졌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오로지 감각만이 만물에 닿았다.

스피릿 존은 한없이 커져갔다. 직경 80미터가 넘어가자 섬광이 전부 합쳐지면서 스피릿 존이 빛으로 가득 찼다. 그저 거대한 광자, 시로네의 모습조차 빛에 휩싸였다.

타깃이 등장과 동시에 터지면서 스텝이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아아…… 아아아…….’

시로네는 점차 옅어지는 존재감을 깨달으며 눈물을 흘렸다. 수를 초월했다. 전부다. 끝이다. 남은 건 이대로 세상에 스며드는 것뿐이었다.

‘크으으으! 아직 안 끝났어!’

이루키는 이를 악물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시로네의 점수를 확인했지만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시로네가 속도를 올렸다면, 그보다 더 빠르게 질주하면 그만이었다.

‘서번트의 계산에는 한계가 없다! 1조든, 1,000조든 모조리 계산해 주마!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의 끝을 봐 주마!’

이루키의 스피릿 존이 인간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1초! 0.9초! 0.85초! 빌어먹을! 뭔 놈의 시간이 이렇게 안 가!

삐-!

영겁과도 같던 1분의 시간이 끝났다. 타깃이 환영으로 흩어지면서 시로네와 이루키가 동시에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이는 이루키와 달리 시로네는 미동이 없었다. 이미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루키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점수를 확인했다.

1,247점.

마법학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 에이미가 세웠던 최고 기록을 무려 260점이나 앞선 점수였다.

‘내가 이겼나? 그런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시로네는 뭐하고 있는 거야?’

이루키가 고개를 돌렸을 때 시로네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슴에 파묻은 채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숨은 쉬는 듯했지만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허망한 느낌이었다.

이루키는 시로네의 전광판으로 시선을 옮겼다.

1,253점.

“서, 선배님! 시로네 선배님이……!”

“시로네가 이겼어!”

세리엘이 마크의 말을 끊으며 달려 나갔다. 본인조차도 소름이 돋았던 실력자인 이루키를 제압했다. 에이미를 대신해 뽀뽀라도 해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물론 그녀가 허락을 했을 때의 일이지만.

후배들도 질세라 이미지 존으로 향했다. 너도나도 축하의 말을 건네며 시로네를 흔들었다.

“허어어어억!”

정신을 차린 시로네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들이마셨다. 무의미함의 영역에 파묻혔던 정신이 재구성되면서 사물의 이름과 감정 같은 것들이 새록새록 박혀들었다.

시로네 쪽이 와글거리는 반면에, 이루키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유일하게 네이드만이 그의 어깨를 짚었다.

“결국 졌네. 하지만 멋진 승부였어.”

“별로 위안은 안 되는군. 승부는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네이드는 피식 웃으며 시로네에게 고개를 돌렸다. 정말로 대단한 재능이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타깃팅 시험이겠지만, 이루키의 재능을 아는 그는 시로네의 내면에 얼마나 거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축하한다, 시로네.’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시로네는 감격스러운 승리에도 기뻐하지 않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에텔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로네와 이루키의 점수 차이는 불과 6점. 하지만 정신의 속도로 따져 보았을 때 6점은 어마어마한 차이였다.

‘시로네. 설마…….’

스피드 건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로네의 스피릿 존은 완벽하게 빛으로 채워졌다. 광자 출력의 전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한 가지의 예외는 있었다.

‘수를 초월했다는 건가?’

수에 끝은 없다. 이루키가 1만 년 동안 수열식을 한다고 해도 수의 여정의 시작지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시로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

수열식은 수를 전개하여 정신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수를 초월해버린다면 정신은 어떻게 될까?

무한으로 확장된다.

마법사들은 이런 현상을 일컬어 불멸의 함수라는 뜻인 ‘이모탈 펑션’이라 부르지만 수도사인 에텔라는 또 하나의 명칭을 알고 있었다.

‘니르바나(열반).’

마법학교 수준에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쳐서도 안 되는 개념이다. 무한이란 유한의 대칭점에 있는 영역.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개체의 존재성은 소멸해버리기 때문이다.

에텔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시로네. 그러면 안 돼. 아무리 그것이 빛나 보여도, 아무리 찬란하게 보인다고 해도, 무한에 들어가는 순간 너는…….’

사라져 버리고 만다.

고승들은 오랜 고행을 통해 세계의 무상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지만 시로네는 아니었다. 세상을 알아 가고 꿈을 이루어야 하는 18살의 소년이 품기에 무한은 너무 위험했다.

‘기절 정도로 끝난 걸 보면 완벽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들어갔다면…….’

에텔라는 눈물을 훔치고 시로네에게 다가갔다. 시로네의 슬픈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시로네, 너…….”

“죄송해요, 선생님.”

“언제부터였니?”

“아주 긴…… 여행을 떠났어요.”

마치 수도사의 선문답 같은 대화였다. 아마도 진의는 시로네만이 알고 있으리라.

에텔라는 어떤 조언도 해줄 수 없었다. 시로네가 깨달았고 스스로 멈췄으니 선택권 또한 그에게 있어야 마땅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정말로 그럴 줄 몰랐어요.”

에텔라가 할 수 있는 건 다정한 눈빛으로 시로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래, 시로네. 선생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학생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괴음을 내질렀다.

“뭐어어라구요오?”

교사가 학생에게 사랑을 고백하다니.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될뿐더러 타이밍마저도 이상했다.

시로네는 경건한 마음을 담아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에텔라의 말에 담긴 깊은 뜻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서, 선생님! 지금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학교에 선생님 친위대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배신을 하시면……!”

에텔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친위대? 그게 뭔가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답니다.”

“뭐, 뭐야? 그런 거였어요? 하하하! 난 또!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선생니임!”

남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에텔라는 불쾌해하지 않고 학생들을 쓰다듬어 주었다.

“자, 시험을 끝내겠어요. 모두 모이세요.”

학생들이 이미지 존 앞에 도열했다. 최선을 다해 치른 시험인 만큼 결과와 상관없이 후련한 얼굴들이었다.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시험이 있는 날은 일찍 끝나니까 좋죠? 푹 쉬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즐겁게 수련하기로 해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에텔라가 수도사의 인사법으로 고개를 숙이자 학생들도 반은 재미로, 반은 존경의 표시로 그녀를 따라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에텔라는 학교에 시험 결과를 전하기 위해 먼저 산을 내려갔다. 반면에 학생들은 엄청났던 대결의 여운을 음미하는 듯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시로네! 너무 잘됐다! 분명 에이미도 좋아할 거야. 아니지, 자신의 기록이 깨져서 화내려나? 아무렴 어때! 남자 친구가 이겼는데! 호호호!”

시로네는 피곤한 얼굴로 세리엘의 수다를 견디고 있었다. 그녀의 말을 멈출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로네의 기도가 통했는지 세리엘이 기적처럼 말을 멈추고 어딘가를 돌아보았다.

이루키가 다가오고 있었다.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눈으로 지켜봤다. 과연 오만한 천재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이기죽거릴지 궁금했으나 이루키가 내뱉은 말은 의외로 싱거웠다.

“내가 졌다. 완패야.”

시로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럴 때는 겸손하지 않아도 돼. 특히 나 같은 천재의 패배 선언을 들었을 때는 말이야.”

“정말로 이겼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번 시험은 타깃팅 평가였어.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시전한 마법은 공간을 전부 맞췄잖아.”

“크크. 진짜 고리타분하네. 어차피 그것도 타깃팅이야. 광자 출력의 위력을 높여서 한꺼번에 제거한 거라고. 네가 이긴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따지자면 너도 마찬가지잖아. 폭발을 극대화시켰다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었어.”

이루키는 배꼽을 잡고 킥킥댔다.

“확실히 그런 방법도 있네. 하지만 그만한 규모의 폭발을 일으키려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고. 물론 아까는 나도 꽤나 필사적이었으니 반응식을 단축시켰을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좋은 성과는 내지 못했을 거야.”

시로네는 납득했다. 하지만 평소와 너무 다른 이루키의 모습에 차마 대꾸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상냥하게 설득할 수 있으면서 어째서 시비를 걸었던 것일까?

“설마 일부러 그런 거야? 나를 도발하려고?”

이루키는 흥미로운 의견이라는 듯 눈을 깜박거리더니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다.

“나는 폭발을 연구하지. 네 말을 빌리자면 도시에 사는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는 폭발 말이야.”

시로네의 미간이 살며시 구겨졌다.

“하지만 시로네, 너는 오해하고 있어. 폭발은 폭력적인 현상이 아니야. 폭력에는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법이지. 하지만 폭발에는 의지가 없어. 단지 인간의 기준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일 뿐이야.”

“의지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다루는 건 사람이니까.”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나는 폭발을 이렇게 정의하지.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 그런데 말이야, 시로네. 에너지란 생명력이야. 그렇다면 만약 인간이 폭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루키는 양 팔을 벌려 거대함을 표현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도시를 날려 버릴 만큼 강력한 폭발에는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담겨 있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겠지.”

시로네의 얼굴에 선한 감정이 깃들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말해 줬으면 좋았잖아. 괜히 싸울 일도 없었고.”

이루키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말했지. 이상은 이상일 뿐이라고. 1명의 마법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설령 내가 폭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것으로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이겠지. 하지만 시로네, 나는 그렇더라도 할 거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러면 안 돼.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너마저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이야.”

“하하! 맞아! 그래서 너한테 그런 거야!”

이루키는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냥 여기서 때려 칠까? 대충 클래스 파이브에서 놀다가 이것도 지루하면 던전이나 파고 들어가지 뭐. 어쩌면 나같이 위험한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시로네는 복잡한 심정으로 이루키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대체 뭘까? 이상주의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그도 아니면 정의내릴 수 없는 괴짜인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책임져야 해.”

“응? 책임?”

“너는 내 폭주를 막을 수 있어. 만약 먼 훗날에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이루키는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를 막아 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네 손으로 내 목숨을 끊어줘.”

이루키의 사고방식은 차갑다. 하지만 그런 만큼 자신이 추구하는 일의 명과 암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적임자는 이루키여야 한다고 시로네는 생각했다.

“알았어. 내가 너를 막아 줄게. 아니, 절대로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거야.”

네이드가 감격을 받은 듯 부들거리더니 두 사람의 목을 끌어안고 산을 내려갔다.

“으아아아! 너희들 정말 마음에 든다!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 보자!”

네이드에게 붙잡힌 시로네와 이루키는 서로를 돌아보며 웃었다. 클래스 파이브의 삼총사가 결성된 날이었다.

(2권 끝)

=======================================

# Volume 3

=======================================

## [49] 이상한 연구회(1)

시로네는 어두운 공간을 떠다녔다.

어떤 곳은 셀 수 없이 별이 많이 보였고, 어떤 곳은 오래도록 어둠만 이어졌다.

어둠 속에서는 마치 정지한 것처럼 느껴져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으리란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하나둘씩 별들이 나타나 하나의 점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치 공간이 수축하는 느낌이었다.

인간의 머리로 떠올릴 수 없는 별의 크기에 전율했다. 마지막 지점에서 충돌할 광경을 그려낼 수 없었다.

하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별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먼지로 분해되어 빨려 들어갔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시로네의 육신 또한 분해되어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시로네는 사라지지 않았다.

인간을 이루는 이 마지막 존재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을 지닌 채 세상의 시작으로 들어갔다.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진동하는 빛의 끈이 보였다. 거기에는 빛과, 시간, 중력과 만유인력이 통합되어 있었다.

마침내 끝에 도달하자, 아니 시작으로 회귀하자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다.

시로네를 이루고 있던 존재감이 옅어지기 시작하면서 극단적인 통합감이 밀려들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발과도 같은 통합이었다.

“으아아아아!”

시로네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식은땀에 젖은 옷이 비를 맞은 것처럼 축축했다.

사위는 적막했고 달빛에 번진 창가가 처연한 색으로 물들었다. 익숙한 책의 냄새가 났다. 책상에는 광자화이론에 관련한 책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후우. 또 악몽인가…….”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벌컥벌컥 들이켰다. 창문을 열고 초여름 밤의 선선한 바람으로 식은땀을 말렸다. 그런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밤마다 왜 이러는 거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스피드 건 시험에서 이모탈 펑션을 경험한 이후 날마다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다. 악몽은 아니지만 꿈에서 느끼는 감정만큼은 악몽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으으으으.”

시로네는 떨리는 몸을 끌어안고 팔을 쓸어내렸다. 자신을 이루는 무언가가 어긋난 기분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꿈만이 아닌 현실에서도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어떤 감각이 고도로 예민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그 감각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냄새를 더 잘 맡는 것도 아니고 촉각이 예민해진 것도 아니다. 시력이나 청각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어떤 감각기관이 새로 생겨났다.

“설마…… 귀신같은 건 아니겠지?”

아침을 알리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걸 확인한 시로네는 욕실로 들어가 몸을 씻었다. 고급반 실습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정상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따듯한 온기가 닿자 이상한 감각도 점차 사라져갔다. 하루 종일 이런 상태라면 신경쇠약에 걸릴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시로네는 가방을 챙겼다.

\* \* \*

시험 기간이 지나자 학교는 예전의 밝은 분위기를 되찾았다. 경쟁을 펼친 학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친구로 돌아가 희희낙락 수다를 떨었다.

근래의 화두는 시로네의 스피드 건 시험이었다. 이론시험과 달리 실습평가는 스포츠적인 요소가 섞였기에 누군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 열광하는 게 당연했다.

보통은 각 클래스 별로 주목받는 학생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첫 날에 치러졌던 스피드 건 테스트의 임팩트가 강해서 시로네의 그늘에 묻혔다.

마법학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1200점대의 학생이 등장했다. 그것도 두 명씩이나.

시로네와 이루키의 점수 차이는 불과 6점이었고 거기에 더해 상식을 깨는 역전극이었다. 그런 명경기가 첫날에 치러졌으니 후발주자가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다.

시로네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입학초기부터 유명세를 타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에이미의 남자친구로, 미래가 촉망받는 기대주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알페아스 마법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었다.

강의실로 향하는 중에도 시로네는 학생들의 환대를 받았다. 개중에는 클래스 포의 선배도 있었다. 조기진급 제도를 차용하는 마법학교에서 선후배 관계가 엄격한 이유는 그만큼 진금이 어렵기 때문이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한 시로네라면 언제라도 따라잡힐 수 있으니 그저 후배로 대하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에이미가 시로네를 이미 동급으로 인정한 건 탁월한 선견지명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나누는 통에 고급반 건물에 도착한 시로네는 벌써부터 녹초가 되었다.

“어? 시로네 선배님이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시로네 선배님. 저 선배님 팬이에요. 이제부터 선배님만 따라다녀도 되죠?”

클래스 식스의 여학생들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원래는 시로네의 조기진급을 가장 고깝게 여긴 클래스였다. 세븐에서 파이브로 급상승했으니 중간에 끼어버린 그들이 불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클래스 포의 선배들마저 장차 졸업반의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으니 지나간 일은 잊고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선배님. 오늘 수업 끝나고 뭐하세요? 이따가 친구들끼리 마법시연회 열기로 했는데 선배님도 오실래요?”

“휴일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선배님도 같이 가요. 제가 파트너 해드릴게요.”

“미안.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매일 같이 악몽을 꾸는데다 깨어있을 때도 으스스한 감각이 불현듯 찾아오는 바람에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여학생들도 에이미라는 넘을 수 없는 산의 존재를 알기에 아쉬워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떠났다.

“시로네, 시로네, 시로네! 시로네, 시로네!”

강의실의 문을 여는 순간 동급생이 시로네를 끌어당겼다. 책가방을 놓을 새도 없이 납치당한 시로네는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학기도 끝나 가는데 연구회 들어와라. 클래스 파이브 애들끼리 하나 만들 거거든. 어차피 수행평가는 자유주제잖아. 시간도 절약되고 재미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들어와.”

“흐음.”

시로네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여태까지 많은 제안을 받았지만 만약 연구회에 가입한다면 네이드와 이루키가 있는 초자연심령과학 연구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로네. 그러지 말고 고려해봐. 연구회 가입 안 하는 이유가 개인공부 때문이라며? 여기 너처럼 그런 애들 꽤 있어. 근데 수행평가는 해야 하잖아. 그래서 임시로 하나 만드는 거야. 어차피 변별력이 큰 항목도 아니니까 얼른 끝내버리고 해산하면 돼. 그러면 개인공부를 더 할 수 있잖아.”

“아하. 그러겠다.”

확실히 괜찮은 전략이었다. 수행평가는 자유주제기 때문에 이론 시험이나 실습 평가보다 변별력이 크지 않았다. 그렇다고 기존의 연구회에 가입했다가 수행평가만 끝내고 탈퇴하는 것도 얌체 짓이었다. 따라서 연구회가 없는 학생끼리 임시로 연구회를 만들어 수행평가를 해결하자는 제인이었다.

“야! 너희들 무슨 수작이야? 시로네는 안 돼! 시로네는 내 거란 말이야!”

네이드가 시로네를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다. 학생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특히나 네이드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는 매섭게 몰아세웠다.

“웃기고 있네. 너 그 이상한 연구회에 가입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시로네, 거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연구회에 안 들어와도 되니까 차라리 다른 연구회를 들어가. 내가 학교 다니면서 네이드가 수행평가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공식적인 활동은 극히 드물었다. 심지어는 학생들 대부분이 네이드에게 연구회가 있는 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어라? 네이드, 너 연구회 있어?”

네이드는 빠르게 눈을 굴리더니 특유의 처세술을 발휘해 위기를 모면했다.

“흥. 당연하지. 학교 최고의 인기인이 연구회 하나 없을까봐? 아무튼 시로네는 안 되니까 내가 데려간다.”

네이드는 시로네의 손목을 붙잡고 문으로 향했다. 시로네에게 연구회를 권한 학생이 크게 소리쳤다.

“야, 시로네! 진짜 잘 생각해야 돼! 거긴 절대 들어가지 마! 그리고 네이드, 너도 시로네 공부 방해하지 말고 그냥 편한 곳에 들어가게 해줘!”

“하하하하! 그런 말 해봤자 이미 시로네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밖에 없어! 우린 이미 금단의 선을 넘었다고!”

시로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 네이드. 지금 무슨 소리하는……?”

네이드는 항변의 기회를 주지 않고 문을 닫았다. 강의실의 학생들이 멍한 표정으로 그곳을 쳐다보았다.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네이드에게 소리친 학생이 머리를 벅벅 긁었다.

“큰일 났다. 네이드 저 자식, 진짜로 시로네를 끌어들일 생각인가 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아니, 이미 휘둘린 것 같은데? 그나저나 대체 어디로 데려 간 거야? 이제 수업인데.”

\* \* \*

시로네는 복도로 나오자마자 네이드의 손을 뿌리쳤다. 장난이라는 건 알지만 섬뜩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야!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한 거야?”

“하하하! 틀린 말은 아니잖아. 너는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실체를 봐버린 유일한 사람이니까.”

“연구회의 실체? 볼 것도 없던데 뭐.”

네이드는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시로네를 주저앉혔다.

“일단 좀 앉아봐.”

“알았어. 보채지 좀 마.”

시로네는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다시 좌우를 살핀 네이드가 목소리를 죽이고 말했다.

“연구회에 직접 들어온 사람은 너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발설하면 안 돼.”

“발설이나마나 누가 물어보지도 않잖아?”

“아무튼! 가뜩이나 회원이 없어서 운영진에서도 해체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가급적 조용히 지내야 하니까 초자연의 초자도 꺼내지 말라고.”

“알았어. 어차피 할 생각도 없었어.”

시로네의 눈에는 초자연 심령 과학 연구회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가를 아는 음지의 연구회원들은 호시탐탐 삼킬 기회만 엿보는 연구회였다. 또한 교사들은 어떻게든 해체를 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다.

“그나저나 너, 정말로 연구회에 가입할 거야?”

학기 말에 임시로 연구회를 개설하는 전략은 네이드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효율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로네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고민은 했었지. 왜?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당연하지. 수행평가가 변별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하고나 연구회를 하는 건 손해야. 게다가 너는 전교 탑을 노리고 있잖아. 1점이 중요한 거라고. 어설픈 곳에서 때우느니 차라리 혼자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연구회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지.”

졸업반을 목표로 하는 클래스 포에서는 특정 과목의 만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1점 차이가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흐음. 하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수행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시로네가 말했다.

“네이드. 혹시 말이야. 내가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네이드는 화색을 드러냈다. 시로네가 들어온다면 연구회에서도 삼총사의 결성이다. 시간 날 때마다 붙어 다니기는 하지만 이루키가 수업을 자주 빼먹는 터라 구색이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하지만 네이드는 선뜻 승낙할 수 없었다. 알페아스 마법학교가 설립된 지도 어언 45년 째. 대다수의 학생들은 졸업시험을 거쳐 사회로 나가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음지에는 또 하나의 사회라고 할 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기상천외한 일들을 벌이며 생활하고 있었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도 그런 곳 중의 하나였다.

“흐음. 괜찮겠어? 사실 우리 연구회는 음지에 가까워. 일단 초자연 심령과학이라는 게 매니악하잖아. 네가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만, 솔직히 친구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

네이드의 연구회에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건 조금 전 강의실에서 동급생들의 태도를 보고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적을 위해 연구회를 택하고 싶지는 않았다. 초자연 심령 과학이란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던 분야였다.

“꼭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야. 사실…… 내가 요즘 좀 이상하거든. 안 그래도 너희들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초자연 심령과학이라면 혹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 [50] 이상한 연구회(2)

네이드는 곧바로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때 수업 종이 울리면서 대화가 끊어졌다.

“선생님 오신다. 일단 들어가자.”

시로네는 연구회에 대한 일은 잠시 잊고 수업에 열중했다. 오후 5시 수업을 마지막으로 하루의 일과가 끝났다. 시로네는 네이드와 함께 가방을 챙기고 강의실을 나섰다.

“우선 이루키랑 같이 얘기를 들어보자.”

네이드는 시로네를 연구회로 데리고 갔다. 마법창고 이스타스에 도착한 시로네는 멍하니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번에 봤던 이스타스가 콜로니처럼 뭉쳐있는 형태라면 지금은 여러 개의 탑이 솟아 있는 형태였다.

“이거 진짜 볼 때마다 대단하다.”

“건물만 89채니까 패턴으로 따지자면 끝이 없지. 이루키가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타스 내부는 외형만큼이나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네이드는 복잡한 길을 종횡무진 다니며 연구실로 향했다.

“전부터 궁금했는데 어떻게 길을 찾는 거야? 계속 구조가 변하면 표시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

“후후. 그렇게 저차원적인 방법은 쓰지 않지. 말 그대로 전부 외우는 거야. 오래전에 연구회의 어떤 선배님이 이스타스의 설계도를 복원했거든.”

시로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단순히 건물 한 채의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패턴을 가진 복합 구조물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네이드가 통로의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저기 보면 점이 3개가 찍혀있지? 즉 이곳이 3번방이라는 뜻이야. 3번방이라면 세 번째 창고의 철문이 무슨 색인지를 보면 돼. 파란색이지? 그럼 이 장소의 이름은 3번방의 파란색이 되는 거야.”

시로네의 시선이 네이드의 손가락을 따라 움직였다.

“거기까지 확인하면 다음에는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창고의 개수를 세. 갈림길이 네 군데니까 창고는 네 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방의 숫자를 X, 색을 숫자로 치환한 것을 Y, 창고의 숫자를 Z로 치환한 다음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돼.”

“어떤 방정식?”

“선배들이 이스타스의 패턴을 분석해서 만든 방정식이야. 거기에 숫자를 대입하면 소수점 두 자리의 해가 나와. 그 숫자로 방위를 파악하는 거지. 따라서 이 방정식만 외우고 있으면 이스타스에서 길을 잃을 리는 절대 없어. 한마디로 수학적인 마스터 키라고나 할까?”

시로네는 학과 수업도 아니고 연구 활동에 이렇게까지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어마어마한 패턴을 자랑하는 이스타스. 그런데도 그 패턴을 전부 계산해 하나의 방정식으로 완성시킨 선배들. 비로소 이 연구회에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창고가 바뀔 때마다 계산을 해야 하면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처음에만 그렇지 날마다 숙달하다보면 익숙해져. 루틴이라는 거지. 세 달 정도 지나면 감각적으로 느낌이 올 거야.”

시로네는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다. 미로의 탈출 도면이 방정식이라니.”

“초대 회원 중에 이루키처럼 서번트 능력자가 있었나봐. 이루키도 처음 방정식을 봤을 때 엄청나게 아름답다고 말했어. 아무튼 이런 사실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돼. 마스터 키가 외부로 유출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 네이드가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히 연구회에 가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셈이었다.

초대부터 내려오는 선배들의 비생산적이고 광기어린 집착이 모여 있는 곳. 그게 바로 이스타스 미궁에 숨어있는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였다.

두 사람은 10분 정도 걸어 연구실에 도착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간판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문을 열자 여지없이 먼지구름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입을 막고 있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루키, 우리 왔다.”

네이드가 보지도 않고 말하자 칠판에 수식을 적어나가던 이루키가 돌아보았다. 그리고 시로네를 보더니 빙긋 웃었다.

“여어, 시로네. 어쩐 일이야? 이런 음습한 장소에는 다시 안 올 것 같았는데?”

예전의 일을 떠올린 네이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랬지. 그런데 이제는 가입하고 싶단다.”

“호오?”

이루키가 의외라는 듯 눈을 갈아 떴다. 그의 생각에도 모범생인 시로네가 몸담을 만한 곳은 아니었다.

“가입도 가입이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왔어. 너희들에게 상담을 좀 받을까 하고.”

“나를 이긴 천재께서 고민이라. 듣지 않아도 엄청나게 대단한 고민일 거 같은데?”

이제는 시로네도 이루키의 성격을 알기에 비꼬는 말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스피드 건 시험 이후로 뭔가 좀 변한 거 같아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좀 오싹해. 옆에 누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혹시 초자연이든 심령이든, 아무튼 관계가 있지 않을까? 너희들은 이런 쪽에 박식할 거 아냐?”

네이드와 이루키의 눈이 빛났다. 미지의 탐구자와 미지의 비판자로서 시로네의 말에 흥미가 동했다.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왔네. 자자. 일단 여기 앉으시고.”

네이드가 소파를 털자 엄청난 먼지가 피어올랐다. 시로네는 기겁하며 손을 휘저었다. 비로소 비정상적으로 쌓여있는 먼지의 정체를 깨달았다. 이루키의 분필가루였다.

“아니, 그냥 앉을게. 제발 이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면 평소에 치우든가.”

“자자. 한낱 미세먼지 따위에 굴하지 마시고, 연구회의 첫 번째 의뢰인이시여. 어서 용건을 말씀하시지요.”

네이드와 이루키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전문가처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기다리는 모습에 시로네는 기가 찼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간절한 심정으로 말을 꺼냈다.

“그게 말이야. 내가 요즘 이런 꿈을 꾸는데…….”

시로네는 매일같이 꾸는 꿈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상한 감각에 대해서도 말했다.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귀신같은 게 내 몸에 들어온 건 아니겠지? 혹시 비슷한 사례라도 들은 적 있어?”

예상 밖의 정적이 찾아왔다.

시로네는 침을 꿀꺽 삼켰다. 농담으로라도 무슨 말이든 할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의 표정은 전에 없이 심각했다.

“뭐야? 왜들 그래? 너희들 또 장난치는 거지?”

네이드는 난감하게 눈썹을 긁적였다.

“음, 그게 저기…… 듣고 보니 꽤 그러네.”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설명해봐.”

“네가 느꼈다는 그 감각 말이야. 오싹오싹하고, 보이지 않는데도 무언가가 느껴지는 그런 기분. 그건 심령학계에서 말하는 초상감이라는 거야.”

“초상감? 심령학계?”

생소한 용어가 나오자 시로네는 더욱 긴장했다. 네이드가 관자놀이를 짚으며 생각에 잠기더니 예시를 들었다.

“200년 전에 어떤 학자가 사형수에게 실험을 했어. 영혼전해라고 부르는 건데, 사람의 혼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면 전기로 분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지. 방법은 이래. 밀폐된 전도체의 금속 상자에 사형수를 가두어두고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하지만 너무 비인도적인 처사라서 중간에 실험이 중단되고 말았어. 덕분에 사형수는 목숨을 건졌지만 한 달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군. 문제는 지금부터야. 마침내 깨어난 사형수가 의식을 잃었던 동안에 일어났던 바깥의 정세를 전부 꿰고 있었던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지. 학자는 영혼의 이온화라는 가설을 세웠어. 영혼을 전기 분해시키자 전자기력이 발생해서 세상의 정보를 사형수에게 끌어당겼다는 거야. 물론 학계에서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지. 게다가 사형수가 목숨을 보전하려고 경비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얻었다는 소문도 돌았거든.”

“우와. 그런 실험도 있었구나.”

“정통파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심령과학계에서는 여전히 화두에 오르내리는 주제야. 게다가 정식 종교단체인 교령회에서는 트랜스 상태를 인정하잖아? 따라서 영혼의 이온화 또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지. 아무튼 그 사형수가 느꼈던 감각을 이쪽 분야에서는 초상감이라고 불러.”

시로네는 등골이 서늘했다. 초상감이라는 단어가 악몽과 연결되면서 정말로 그럴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을 말할 차례군.”

시로네는 생각에서 빠져나와 고개를 들었다. 논리적인 이루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고 보면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멋진 콤비였다.

“하지만 먼저 물어볼 게 있어. 초상감이 생긴 게 스피드 건 시험이 끝난 후라고 했지? 확실히 그날 너의 광자출력은 평소와 달랐어. 비밀이라면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들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로네도 이루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결과를 분석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니까. 게다가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을 뿐 딱히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시로네는 무한의 영역에 도달한 과정을 상세히 고했다. 수열식의 여정에서 발견한 깨달음과 대결의 압박감에서 자신도 모르게 각성해버린 수의 초월까지.

이루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개념자체는 이미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아마도 시로네는 금단의 문을 열어버린 모양이었다.

“이모탈 펑션이군.”

“이모탈 펑션?”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절대함수.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아주 위험할 거야. 전부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와 현상적으로 동일하니까.”

에텔라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에 시로네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를 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나도 생각만하고 있었지 정말로 거기까지 나가버릴 줄은 몰랐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루키가 무슨 소리냐는 듯 손가락을 저었다.

“오히려 그 반대야. 말했듯이 이모탈 펑션은 이미 학술적으로 연구되는 정신적 경지야. 정신은 지식과 달라. 머리로 안다고 누구나 너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쨌든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기분이 풀리는데? 하긴, 나를 이길 정도라면 이모탈 펑션은 되어야지. 킥킥킥.”

에텔라조차 경계하던 이모탈 펑션을 장기자랑의 묘기처럼 치부하는 이루키는 분명 괴팍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시로네를 오히려 안심시킨 것도 사실이었다.

“흐음. 아무튼 그게 이모탈 펑션이었단 말이지. 알았어. 이제야 좀 정리가 되네.”

“그래? 해답이 나온 거야?”

이루키는 대답대신 고개를 돌리고 벽을 바라보았다. 마치 백지의 벽면에 수식을 그려보는 듯했다.

“심령 쪽은 전공이 아니라서 초상감은 잘 몰라. 하지만 네가 매일 꾼다는 그 악몽 말이야. 그게 뭔지는 대충 짐작이 가. 그리고 어째서 그런 꿈을 꾸는지도.”

시로네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말해줘. 어떤 말이라도 좋아. 허무맹랑한 얘기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우선 꿈은 기억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하지만 너의 꿈은 아마도 기억이 그대로 투영되었을 거야. 심리적 퇴행현상이라고 불리는 건데, 최면에 들어간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선명하게 기억해 내는 것과 같은 원리지. 어찌됐든 너의 악몽이 그런 종류라고 가정한다면…….”

“가, 가정한다면?”

“네가 본 것은 아마도…… 우주일거야.”

“우, 우주?”

시로네도 우주가 뭔지는 알고 있다. 이 세상의 바깥에 있는 커다란 세계. 하지만 지식은 거기까지였다. 아니, 누가 알고 있을까? 태곳적부터 인류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일하게 우주를 경험한 종족은 드래곤뿐이었다. 680년 전 행성을 떠나기로 결심한 세인트 드래곤 그라미슈는 각 종족들의 대표가 참관하는 자리에서 우주로 향했다.

하지만 결국 13시간 만에 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당시 드래곤의 사체는 처참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각 종족 대표들은 그라미슈의 진언에 따라 사체를 분리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얻은 증거물은 훗날 우주론을 발전시키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

“내가 꿈을 꾼 그것이…… 우주?”

## [51] 이상한 연구회(3)

“내 전공이 계산물리학이잖아. 공간의 규모나 속도, 형태로 보았을 때 우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대륙에서 구현하기에는 수치가 너무 크거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꿈을 꾸지? 심리적 퇴행현상이라면 내 기억이라는 건데, 나는 우주에 가본 적이 없잖아.”

“아마도 그렇겠지만, 우주에 가지 않더라도 기억은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네이드의 전공이지.”

이루키의 말을 듣는 순간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초상감…….”

네이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혼전해 실험에서 사형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한 달 동안 일어난 각국의 정세를 알고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영혼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비둘기 같은 거라서 이야기를 듣고 왔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 그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봐. 눈이나 귀는 발생계통이 정확한 생물학적 기관이야. 영혼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영혼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 물질일 거야. 그것이 전기적으로 분해되면서 이상한 작용이 일어난 거지.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빠르게 날아가거나.”

이루키도 네이드의 말에 동의했다.

“전자(電子)는 관측과 측량을 동시에 할 수 없어. 기타 줄을 튕겼을 때 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같아. 진동의 범위 안에서 확률로만 존재하지. 이를 양자화라고 하는데, 만약 영혼이 이온화되었다면 설령 우주라도 상관없을 거야. 시간과 거리의 상관관계가 허물어진 세계니까.”

시로네는 천천히 고개를 주억거렸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지만 나름의 논리와 증거가 제시되자 두려움이 한결 사라진 기분이었다.

“음. 이제 감이 잡히는 거 같아. 정말 고마워.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원 다운데?”

“하하! 이 정도로 놀라서는 안 되지.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 저주에 걸린 건 아니니까. 이모탈 펑션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해보자.”

시로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좋아! 나도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에 들어갈 거야.”

네이드라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시로네가 들어오면 회원이 3명이 된다. 정식 연구회로 등재될 것이고 1년 전에 끊겼던 지원금도 나온다.

“우리야 언제든 환영이지. 이루키, 너도 동의하지?”

“흐음. 연구회의 비전을 위해 시로네는 확실히 좋은 영입이지. 하지만 운영진에서 인정해줄까? 워낙 악명이 높아서 반대하는 선생님이 많을 텐데?”

“그건 나한테 맡겨. 선생님들 몰래 서류만 쓱 넣고 오면 되니까. 자자, 바로 출발하자고!”

잠시라도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네이드가 연구실을 나서자 시로네도 웃으며 이루키의 뒤를 따랐다. 그러다가 문을 닫기 직전 연구실을 살펴보았다. 창고나 다름없고 먼지투성이지만 이제부터 자신의 연구회라고 생각하니 운치가 느껴졌다.

“하지만 청소는 해야겠지.”

시로네는 문을 닫고 바깥에서 불을 껐다. 적막이 감도는 어두운 방안에는 어떤 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소파의 먼지들이 시로네가 앉았던 곳을 중심으로 고요히 회전하고 있었다.

오버플로우(1)

교무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분주했다.

수업을 끝마친 교사들은 대부분 차를 마시거나 수다를 떨며 다음 수업시간을 기다리지만, 지금은 모든 교사가 합심하여 서류를 분류하고 있었다.

수십 장에 이르는 입회신청서를 하나하나 분류하여 보고서에 기재하고 다시 담당과로 넘기는 작업은 예상보다 손이 많이 갔다.

이제 막 수업을 끝마치고 돌아온 시이나도 군소리하지 않고 커다란 책상에 올려놓은 서류더미로 향했다.

“어머. 전부 입회신청서에요? 이번 주에 많이 몰리네요.”

“허허. 학기말이잖습니까. 이맘때쯤이면 늘 있는 일이죠.”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다음 학기까지 자유주제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수행평가는 연구회의 발표회로 대체될 수 있기에 연구회가 없는 학생들도 학기 말이 되면 임시적으로나마 연구회에 가입하는 게 근래의 추세였다.

작업을 거들고 있는 사드가 말했다.

“아이들이 잔머리만 느는군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연구회도 수행평가도 열정이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효율만 따지는 거 같아요.”

“하하! 예전과는 다르죠. 10년 전에 비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임시로 연구회를 개설하는 이유도 개인공부를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니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성과에만 집착하는 건 아닌지. 학창시절의 낭만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사드의 말에 공감하는지 교사도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서류를 챙긴 그가 담당과로 넘기려는데 시이나가 책상 아래에 떨어진 서류를 발견했다.

“여기 하나 누락됐네요.”

“어라? 언제 들어왔지? 수업시간에 놔두고 간 모양이군.”

“후후. 어지간히 급했나보네요.”

시이나는 어떤 학생이 잔머리를 굴렸나 서류를 살폈다. 그리고 이름을 확인하자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고쳐 썼다.

“이거…… 시로네라고 적혀있는 거 맞죠?”

교사가 얼굴을 배꼼 내밀어 확인했다.

“그렇군요. 아리안 시로네. 연구회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긴, 학생들이 너도나도 꼼수를 부리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사드가 신청서를 빼앗아 살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연구회, 꽤나 유명한 곳이잖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시이나는 사드에게 신청서를 건네받고 시로네가 가입한 연구회를 살펴보았다.

과연 유명하긴 유명한 곳이었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름이었다.

교사로 부임한 이후로 매년 이곳 출신의 졸업생들과 싸웠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라? 그러고 보니…….’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말썽꾸러기들은 대부분 전년도에 졸업하지 않았던가? 회원 숫자가 부족해서 지원금까지 끊어졌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났다.

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 연구소에 이루키도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서로 마음이 맞은 게 아닐까요?”

사드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타깃팅 시험 때 대단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런데 의외로 사이가 좋나보군요. 어울릴 성격이 아닌 거 같은데.”

시이나가 골이 지끈거린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시로네에게 뒤지지 않는 재능의 이루키가 꼬드겼다면 고집스러운 시로네도 마음을 돌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루키라니.

교내 제일의 꼴통이 아니던가. 같은 천재라도 시로네와 이루키가 추구하는 방향은 정반대였다.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잡아먹히거나 충돌이 일어나 공멸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 측에서도 굉장한 손해였다.

‘차라리 잘 됐어. 이쯤에서 악연의 고리를 끊자.’

시이나는 서류철을 펼치고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회장이 누구인지부터 살폈다.

예상대로 네이드였다.

근래 시로네와 가장 친하다는 두 사람이 속해있는 연구회.

이쯤되자 여태까지 연구회를 멀리하던 시로네가 가입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네이드의 담당교사는…….’

시이나는 교사들의 이름을 짚어가며 담당교사를 찾았다. 그리고 이름을 확인한 순간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하아. 하필이면…….’

\* \* \*

마법학교 외곽에 자리한 수련관.

에텔라는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몸담은 카르시스 수도회는 몽크견습생만 천 명이 넘어가는 왕국 최고의 수도회였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들어오지만 극히 일부만이 재능을 인정받아 수도사가 된다.

에텔라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다.

수많은 고위귀족, 심지어는 왕족마저 따돌리고 최연소 비숍의 자리에 오른 그녀.

주교라는 직위는 단지 실력이 뛰어나다고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에텔라가 선인들의 눈에 든 이유는 구도자로서의 천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살기로 맹세한 에텔라는 부와 명성을 외면하고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교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교육을 끝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기에 에텔라는 다른 교사와는 다르다. 우선 출신자체가 학파나 마법협회가 아닌 수도회였다.

마법사가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몽크는 세상을 분석하지 않고 통째로 마음에 품고자 한다.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해준 자연에 대한 무한한 감사,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사명감이 그녀를 이루는 전부였다.

에텔라는 천천히 눈을 떴다. 허공을 관통하는 눈동자에 이채가 어렸다.

스피릿 존을 통해 이곳으로 다가오는 한 명의 여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한 명의 여성이 다가오는 것이 스피릿 존을 통해 느껴졌다.

일반적인 스피릿 존으로는 대상의 성별까지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스피릿 존의 권위자인 조너였고 탐색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여타의 마법사보다 수준이 높았다.

보통의 스피릿 존을 공기로 비유한다면 조너의 스피릿 존은 액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매질의 밀도가 높기에 공감각을 훨씬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에텔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시이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미소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시이나 선생님.”

시이나는 에텔라가 미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조너가 구사하는 스피릿 존의 선명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익히 알고 있는 바였다.

“수행중이셨군요. 제가 방해라도?”

“아니에요. 이제 막 끝내려던 참이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시이나가 수련관을 찾아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 에텔라는 차를 데웠다.

방석을 깔았지만 마룻바닥에 앉는 건 시이나에게 생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중히 무릎을 꿇고 에텔라가 건네는 차를 공손히 받았다.

첫 잔을 마시는 동안에는 대화를 자제하는 게 수도회의 예의라고 들은 적이 있기에 시이나는 씁쓰름한 차를 비울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름이라 해가 긴 편인데도 어느새 황금빛 노을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시이나는 조금 더 빠르게 찻잔을 비웠다.

에텔라가 배려하듯 먼저 말문을 열었다.

“여기까지 찾아오실 정도면 가벼운 일은 아닌가보군요.”

“네.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그렇군요. 어떤 일인가요?”

“네이드의 담당이 에텔라 선생님이시죠?”

“네. 재기발랄하고 착한 학생이에요. 성적은 중상위권이지만 재능은 충분하죠.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그 아이가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회장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당연하죠. 혹시 네이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저질렀나요?”

시이나는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듯 상체를 세웠다.

“그 아이가 회장으로 있는 연구회를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담당교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거예요.”

에텔라는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차를 음미했다.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시이나 선생님의 뜻이라면 분명 학생을 위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예전부터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는 사건사고가 많았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악명을 떨친 연구회죠. 물론 그에 준하는 업적도 있었기에 학교 측에서도 내버려둔 것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서류를 뒤져보니 3년 동안 정식으로 개최한 발표회는 한 건도 없더군요. 오히려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정도의 짓만 일삼아왔죠.”

“하지만 시이나 선생님의 말대로 예전일 아닌가요? 지금 활동하는 학생은 네이드, 이루키, 시로네에요. 클래스 포에도 뒤지지 않는 그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관건이죠.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안 될까요? 게다가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는 알페아스 마법학교에서 제법 전통이 있는 연구회니까요. 마법협회장 가올드 씨도 그곳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 [52] 오버플로우(2)

“가올드 씨가 다녔을 때와는 달라요. 학생들은 꼼수를 부려서라도 수행평가에 열중하고 있는 시대에요. 그런 마당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낭만만 쫓다가는 뒤처지고 만다고요.”

“후후. 시이나 선생님답네요. 하긴, 세 사람은 학교가 기대하는 유망주이기도 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뒤떨어진다면 학교 측에서도 손해가 막심하겠죠.”

시이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재능 있는 학생들을 더욱 꽃피우게 해주고 싶다. 그것이 시이나의 교육관이었다.

반면에 에텔라의 교육관은 정반대였다. 결코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억지로 이끄는 법이 없다. 경쟁과는 뒤쳐진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녀가 담당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결코 시이나의 학생들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이기적인 것일까? 학창시절의 즐거움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재능의 낭비로 치닫는다면 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이나는 어렵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후우.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재능 있는 아이들이 어째서 다른 길로 새려고만 드는지. 또 시로네는 왜 그런 곳에 가입을 했는지.”

에텔라는 묵묵히 찻잔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로네가 열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아는 건 그녀뿐이었다.

시로네의 것이고, 시로네의 경지였기에 가급적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전담교사인 시이나에게까지 입을 다무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혹시 근래에 시로네에게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시로네요? 글쎄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래요. 연구회에 가입한 것도 네이드와 이루키가 꼬드겼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여태까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 스피드 건 시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텔라는 시로네가 타깃팅을 하면서 열반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시이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인가요? 그건 이모탈 펑션이잖아요.”

이모탈 펑션은 최고의 경지지만 그것이 최고의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지로만 따지면 길바닥 걸인이 마법사보다 깊은 도를 깨닫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직 학생에 불과한 시로네가 통제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개념이었다.

“어째서 미리 말씀해주시지 않았죠?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잖아요.”

에텔라는 세상에 큰 문제와 작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고 시로네는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다.

“시로네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 모르는 게 이상한 일이죠. 열반은 저조차 경험하지 못한 극상의 깨달음. 거기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텔라 선생님의 심정은 이해해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면 어떡하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오버플로우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에 천재적인 재능을 각성시키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온전한 정신이란 그릇에 담긴 물처럼 고요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넘쳐흐르게 되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광인이 되는 것이다. 천재들 중에 광오하거나 괴팍한 성격이 많은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오버플로우를 일찍 경험할수록 재능이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시이나의 입장에서는 천재를 추종하길 좋아하는 세간 사람들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시이나 또한 9살이란 어린 나이에 오버플로우를 경험했다. 그녀의 눈에 세상은 호기심으로 가득한 무지갯빛이 아니었다. 기계적인 규칙으로 점철되어 있는 회색빛 공간에 불과했다.

견딜 수 없이 두려웠다.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파묻혔다. 올리페르 학파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이나의 상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1년 동안 머물렀던 어둠의 세계를 기억한다. 그리고 기적처럼 어둠을 가르고 들어왔던 한 줄기의 빛도.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어주었던 금발의 소년. 그가 자신의 빛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시이나는 결코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을 터였다.

- 시이나. 이제 그만 나가자.

시이나는 당시를 회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기억은 말해주고 있다. 자신과 같은 길을 시로네에게 걷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로네는 짧은 시간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수많은 재인들과 교류하면서 자극을 받았고,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연속으로 한계를 돌파했다. 다른 것도 아닌 이모탈 펑션이라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

“에텔라 선생님. 저는 어렸을 적에 오버플로우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에텔라 선생님도 그러시겠죠?”

“네. 물론이죠.”

시이나는 우문임을 깨달았다. 마법사들이 공인 6급에 오르는 나이는 평균 28살. 그런데 두 사람은 고작 26살인 것도 모자라 벌써 6년이란 시간 동안 이 계층에 머물러 있었다.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시간이 평균 10년인 것을 고려하면 이미 6급에서조차 상위에 랭크된 마법사였다.

이 정도의 천재성이라면 오버플로우가 생기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7살 때 처음 경험했지요. 그래서 카르시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좋은 분들을 만난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시이나는 그녀의 경험이 자신보다 2년이나 빠르다는 사실에 살짝 울컥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오버플로우에 무너질 확률이 높다. 세상을 알기도 전에 뒤집어 쓴 무시무시한 공포감은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을 터였다.

“힘들었겠군요.”

“정말 두려웠죠. 수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마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7살이라면 세상을 알자마자 각성해버렸다는 얘기다. 국가 최고의 구도자들이 모여 있는 카르시스 수도원정도가 되었기에 에텔라가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시로네를 방치하는 거죠? 오버플로우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시로네와 저는 달라요. 7살, 8살이 아닌 18살이죠. 오버플로우가 위험한 건 정신을 담을 그릇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로네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이 있다고 봐요.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천재성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시로네는 더욱 성장할 거예요.”

에텔라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실제로 시이나가 마법적 재능이 폭주한 시기도 오버플로우를 지나고 나서였다.

하지만 기적 같은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중했던 사람은 빛을 잃고 말았다.

“시이나 선생님이 걱정하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버플로우에 걸렸다고 모두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에텔라는 독특한 케이스일 뿐이다. 일념삼천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그녀에게 오버플로우는 그리 큰 위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담아 시이나가 말했다.

“시로네의 그릇이 작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모탈 펑션을 각성한 상황이에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그런 일이 닥쳤을 경우 에텔라 선생님이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지기 위해 학생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시로네가 반드시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하지만.”

에텔라가 찻잔을 내려두며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평생 그 아이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시이나는 입을 다물었다. 에텔라의 각오는 교사를 뛰어넘어 수도사의 희생정신까지 도달해 있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하지 않았다면 자유로운 교육방침 또한 방치에 불과했을 터였다. 어쩌면 각오가 부족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었을까?

합장을 한 시이나는 고개를 숙여 작별인사를 했다.

\* \* \*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철문이 열렸다.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먼지에 시로네가 푸 하고 숨을 뱉으며 팔을 허우적거렸다. 그런 시로네를 뒤로하고 네이드가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가방을 팽개쳐두고 소파로 뛰어들었다.

이루키는 체스를 두고 있었다. 흑과 백을 번갈아가며 잡고 있었는데 생각할 틈조차 없이 손이 움직였다. 순식간에 한 판이 끝나자 다시 말을 정렬한 그는 다음 판을 시작했다.

“왔냐? 오늘은 어땠어?”

소파 등받이에 발을 올린 네이드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럭저럭. 딱히 재밌는 일도 없었고.”

시로네는 친구들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루키는 날마다 수업을 빼먹고 체스나 두고 있었고 네이드는 기껏 연구회에 와봤자 한다는 일이 잠을 자는 것뿐이었다.

“이루키. 너 오늘도 오후수업 빠졌지? 그러다가 유급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출석에서 빠진 만큼 성적을 올리면 되니까.”

얄미운 대답이지만 반박할 수 없는 건 이루키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루키는 이공계열 점수만으로 클래스 파이브에서 버티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인문계열 점수가 0점이라는 얘기였다. 전체 성적에서 평균 20점 정도는 우습게 올릴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니 여유를 부려도 무방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한 거 아닌가? 클래스 파이브에서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처음 봤어.’

날마다 수업을 빼먹는 이루키는 이공계열 점수만으로 낙제를 면하고 있고, 네이드조차 게으름을 부리면서도 성적은 중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기를 쓰고 공부하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연구회에 괜히 들어 왔나봐.”

“이거 왜 이러셔? 무르기는 없는 거 알지?”

“아니, 진심이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먼저 이상해질 거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연구회라면서 활동은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잖아. 그러면서도 성적은 나보다 좋고. 너희들처럼 뛰어난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괜히 더 불안감만 커지는 것 같아.”

“너 지금 그 농담이 웃기다고 생각하냐? 테스트에서 나한테 바가지로 쪽을 줘놓고 뭐가 어째?”

“그러게. 겸손도 심하니까 엄청 오만하게 들리네.”

네이드도 가세했다. 입학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로네의 성적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그들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였다.

“아니, 난 진심이야. 이제부터는 연구회 활동을 줄일래. 어차피 너희들 수행평가 할 생각도 없지?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겠어.”

이루키와 네이드는 그제야 진심임을 깨달았다. 누가 모범생 아니랄까봐 한시라도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럼 차라리 여기서 공부하는 게 어때?”

“응? 여기서?”

“그래. 우리도 너한테는 좀 미안하거든. 같이 놀고 싶기는 한데 방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 어쩌면 우리도 자극을 받을 지도 모르고.”

“흐음.”

생각에 잠긴 시로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괴상한 연구회에서 공부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자극이 된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테이블 위의 쓰레기를 바닥으로 쓸어버린 그가 가방을 올려놓고 말했다.

“알았어. 그럼 여기서 공부할게. 대신에 방해하면 안 돼.”

“헤헤. 걱정 마시라. 우리도 나름대로 바쁜 몸이거든.”

네이드는 말이 끝나자마자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그나저나 이제 뭐하지? 되게 심심하네.”

시로네는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앞으로 닥칠 난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에 화를 억누르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자 벌써 34판째 체스를 두고 있는 이루키가 바쁘게 폰과 비숍을 움직이며 네이드에게 말했다.

“할 일 없으면 그림책이나 보던가. 이번 달 거 가져왔어.”

“오오오! 정말?”

몸을 튕기듯 일어선 네이드는 테이블 아래의 쓰레기더미로 기어가 땅굴을 파듯 파고들었다.

‘그림책? 명화 모음집인가?’

발밑에서 움직이는 네이드가 거추장스러웠지만 시로네 또한 예술에 관심이 많았기에 일단은 내버려두었다. 쓰레기더미에서 빠져나온 네이드가 테이블 밑을 기어 나와 한 권의 책을 허공에 흔들었다.

## [53] 오버플로우(3)

“하하하! 그림책 최신호!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흘끔 시선을 돌려 그림책을 살핀 시로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표지부터 명화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여성의 나신이 목부터 허벅지까지 그려져 있고 재봉 라인을 따라 ‘여성인체 연구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도대체 그 이상한 책은 뭐야?”

“아하. 너는 모르겠네. 이게 바로 그림책이라는 거야. 마법학교에서도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이루키가 덧붙였다.

“한마디로 할 일 없는 인간들의 비생산적 유희라고나 할까? 큭큭큭!”

그림책이란 학생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어로 여성의 몸을 세미누드로 그린 것을 묶은 책이다.

당연히 정식 간행물은 아니고 학교에서 그림을 전공한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 발행하는 음란서적이었다.

간행하는 곳은 여성인체 연구회라는 곳으로 비공식 연구회였다. 그럼에도 아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단순한 세미누드를 넘어 마법학교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리기 때문이었다.

여학생, 여교사, 가끔은 남학생이나 남교사까지, 학교에 속해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라도 그들의 모델이 될 수 있었고 그렇기에 학교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학교 측에서 주기적으로 간행물을 압수하지만 점조직인데다가 신출귀몰하여 핵심인물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설에 의하면 여성인체 연구회의 수장이 졸업반에 있다는 얘기가 돌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다.

설명을 들은 시로네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루키나 네이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연구회였다.

“그럼 이루키도 이런 책을 본단 말이야? 의외네.”

이루키는 체스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가락을 흔들었다.

“단순한 정보수집이야. 여성인체 연구회는 수완이 좋아서 별의 별 소문들을 다 수집하고 다니거든.”

네이드가 그림책의 뒷장을 보여주었다. 이루키의 말대로 세세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었다.

여학생의 출신성분이며 신변잡기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에는 과한 노동력이었다.

굳이 세미누드를 고집하는 이유 또한 크레아스 도시의 시민법을 교묘히 피해나가려는 수작이었다. 그럼에도 체위가 음란해서 문외한이 보더라도 예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림책을 넘기는 네이드가 감탄사를 연발했다.

“우아아아! 이번 달은 진짜 끝내준다! 이루키, 나 여기 7페이지 뜯어가도 돼?”

“마음대로. 이미 정보는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시로네는 멍하니 네이드를 바라보았다. 대체 저걸 뜯어다가 어디다 쓰려고 저러는 것일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이드가 폭소를 터뜨렸다. 아마도 처음이지 않을까? 꼴통들의 집합소였던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소에 시로네 같은 모범생이 들어온 경우는.

“시로네. 너도 빨리 익숙해져라. 이곳에 있으면 수업보다 재밌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조금만 지내보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테니까.”

희희낙락 다음 페이지를 넘기던 네이드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리고 시로네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저기, 시로네. 절대로 충격 받지 마.”

“이번엔 또 뭔데? 더 충격 받을 게 남아 있어?”

“아니 그게, 여기 그림책에…… 에이미 선배님이 등장했는데.”

“뭐어? 이리 줘!”

시로네는 황급히 그림책을 뺏었다. 민망한 그림이 한 페이지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다. 실물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현실적인 그림이었다.

“시로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 저기, 그림이랑 얼마나 비슷한 거야? 그냥 평소부터 궁금했거든.”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루키가 어깨를 들썩이며 킥킥 웃음소리를 냈다.

“시로네 성격 보고도 모르겠어? 진짜로 사귀는 것도 아닌 거 같던데. 솔직히 아직 손도 못 잡아봤지?”

“흥. 댁들이나 잘하셔. 남의 연애사에 신경 쓰긴.”

시로네는 다시 그림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른 생각을 떠나서 굉장한 실력이었다. 종이 위에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모르는 내가 봐도 엄청난 재능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시로네는 페이지를 잡아 뜯었다. 에이미가 이런 책에서 지면을 장식한다는 건 정말이지 불쾌한 일이었다.

“으으으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로 페이지를 찢자 네이드가 배꼽을 붙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너 지금 뭐하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차피 얼굴 빼고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실제로 본 것도 아니잖아.”

시로네는 눈을 흘겼다. 상상이건 현실이건 에이미는 블랙 매지셔와 함께 싸운 친구였다. 할 수만 있다면 여성인체 연구회를 찾아내서 해체해버리고 싶었다.

“아무튼 이런 책은 그만 보고, 너희들 공부할 게 아니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자. 엄연히 연구회인데 하루 종일 이렇게 죽치고 있을 거야?”

이곳에서 공부하기란 애초에 텄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로네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럼 네이드의 발명품이라도 구경하는 게 어때? 만물박사 네이드의 특허목록 말이야.”

“아, 맞다! 아직 시로네에게는 안 보여줬지.”

네이드는 다시 테이블 아래로 기어갔다. 대체 쓰레기더미 안에 뭐가 있는지 호기심이 생긴 시로네는 허리를 숙여 안쪽을 살폈다. 놀랍게도 금고가 은폐되어 있었다.

“짜잔! 어때, 시로네? 이거 보여?”

시로네는 멍하니 눈을 깜박거렸다. 네이드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풍경이 아롱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 설마?”

“하하! 이게 바로 투명망토라는 거야!”

투명망토는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 빛을 굴절시켜 마치 빛이 투과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물건으로 책에서 읽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

“정말로 네가 만들었단 말이야? 이걸?”

시로네는 믿을 수 없었다. 마법공학에 대단한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망토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지닌 물건인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전기 마법은 전투 분야에도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산업적으로도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전기 마법사가 주로 구사하는 마법은 전격 마법이 아닌 환영을 만드는 일루전 계열의 마법이었다.

일루전 계열의 최고 마법이라면 투명화 마법인 인비저빌러티를 들 수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투명마법이었다.

비록 네이드의 오리지널 발명품은 아니지만 투명망토를 모방해서 생산까지 할 수 있다는 건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 수준의 공학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내 꿈이 마법공학자거든. 물론 시중에 나오는 고가의 투명망토에 비하면 상당히 허접해. 일단 재질도 하급이고 충전기술도 떨어져서 전기력을 주입한 이후 1시간 밖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하지만 이 정도면 나름 괜찮지?”

망토를 둘러쓰자 네이드의 모습이 스르륵 사라졌다. 투명망토의 품질은 빛의 굴절률에 달려 있다. 굴절률이 95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면 투명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1퍼센트 차이가 기술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현재 네이드의 실력으로는 100퍼센트의 굴절률을 낼 수 없지만 투명효과가 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완성도였다.

네이드가 걸음을 옮기자 흐릿한 경계선이 감지되었다. 하지만 정지했을 때만큼은 유심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시로네는 감탄의 연속이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법무구를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마법적 지식에 더해 연금술적인 지식까지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대단하다. 그 노력을 공부에 쏟았으면 성적도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하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마법보다는 물건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하거든.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 봐봐.”

네이드는 다시 금고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꺼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마차의 미니어처. 수정판에 그림을 올려두면 환영이 나타나는 홀로그램 비전 같은 것들도 완성도가 상당했다.

개중에는 이루키의 아이디어가 접목된 섬광탄이나 연막탄 같은 것들도 있었으나, 네이드의 특허목록에 속한 물건에는 한참을 못 미쳤다.

시로네는 열정적으로 물건을 소개하는 네이드의 모습에서 깨달았다.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같은 또래의 학생보다 앞서 있었다.

“이 마차의 동력장치는 초당 회전속도가 무려……. 응?”

정신없이 말을 이어나가던 네이드는 갑자기 방이 흔들리자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진동은 더욱 심해졌고 체스 판이 흔들리면서 말들이 좌우로 쓰러졌다.

이루키가 곧바로 뛰쳐나가 복도를 확인하고 돌아왔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그의 얼굴에 긴박감이 드러나 있었다.

“젠장! 선생님 떴다! 물건들 빨리 치워!”

“뭐야?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네이드는 능숙한 동작으로 그림책을 감추고 연구회의 비공식 운영자금인 연막탄 같은 것들을 한데 모아 금고에 처박았다. 교칙위반 물품이 처리되자 갈팡질팡하는 시로네를 소파로 데려가며 소리쳤다.

“시로네! 이쪽에 앉아! 불시검문이야!”

이스타스의 기관장치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깜빡이는 붉은 경고등이 조만간 연구회가 있는 창고가 1층으로 소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선생님이 오신다고? 그런데 앉아 있으면 어떡해? 인사드려야지.”

일어서려는 시로네를 네이드가 소파에 주저앉혔다.

“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해. 그림책이나 연막탄 걸리면 근신으로 안 끝난다고.”

“어? 어, 알았어.”

시로네는 특유의 심법으로 마음을 되돌렸다. 얼굴에서 한기마저 느껴질 정도의 마인드 컨트롤에 친구들은 다급한 와중에도 혀를 내둘렀다. 한바탕 전쟁을 치를 준비를 끝낸 그들은 이스타스가 지상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 \* \*

“후우, 짜증 나.”

시이나는 두통이 치미는 머리를 주물렀다. 이스타스에서 창고를 1층으로 끌어내리는 시간은 최소 3분. 도망은 물론 현장을 은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과거에는 몇몇 교사들이 이스타스를 가동하지 않고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에 급습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1시간 넘게 건물을 헤맸을 뿐 결국 연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반면에 회원들은 자유로이 연구실을 드나들었다. 어떤 방식일지는 대충 짐작이 갔다. 연구실을 중심으로 큐브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 동선을 유추하는 것이다.

이스타스는 마법창고로 상용화되어 있지만 제조회사는 여전히 설계도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20년 전의 어떤 학생이 풀어버린 것도 모자라 연구회의 은폐기술로 삼고 있으니 교사들로서는 황당할 따름이었다.

시이나는 이스타스의 형태가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까닥거렸다. 3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생각할수록 열 받네. 교사도 찾아내지 못한 패턴을 어떻게 찾아낸 거야? 아니, 찾아냈으면 건설적인 일에 쓰던가 해야지. 도대체 이 연구회들을 어쩌면 좋지?’

음지의 연구회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라면 학교에서 통제를 하면 된다. 하지만 그들의 지적 능력은 이미 학교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초자연 심령 과학 연구회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블랙 매지셔 같은 불량 클럽 정도는 가지고 놀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로네는 무슨 생각으로 입회한 걸까? 이모탈 펑션이라고 해도 이 아이들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더군다나 여기에 가입하면 수행평가도 엉망이 될 텐데.’

학교에서는 평범하지만 연구회에서만큼은 다른 음지의 아이들처럼 기민함을 뽐내는 네이드. 서번트 신드롬의 능력을 타고 났으면서도 심심할 때마다 수업을 빼먹는 클래스 파이브의 문제아 이루키. 거기에 이제는 교내 최고의 모범생인 시로네가 끼어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이 어떻게 똘똘 뭉쳐서 다닐 수 있는 것일까?

‘재능이 재능을 끌어당긴다는 건가. 하긴, 네이드와 이루키 정도라면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할 수 있겠지만…….’

## [54] 오버플로우(4)

시이나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모탈 펑션을 각성한 시로네는 오버플로우에 빠질 수도 있다. 에텔라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만에 하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다면 시로네의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다.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이스타스가 정지했다. 시이나는 지체하지 않고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간판이 걸린 철문을 벌컥 열었다.

희멀겋게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놀라는 기색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자 시이나는 다시 울화통이 터졌다.

그녀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다른 점이라면 지긋지긋하게 충돌했던 꼴통들이 이제는 전부 졸업했다는 것과, 그들이 있던 자리에 시로네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이었다.

‘어째서 이 연구회만 들어오면 학생들이 변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로네까지.’

평소라면 해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시로네지만 지금은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살짝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는 네이드의 옆에는 의자에 불량스럽게 등을 기대고 천장으로 고개를 쳐든 이루키가 있었다. 태도만으로도 교사들을 밀어내는 분위기에 시이나는 코웃음을 치며 들어갔다.

“선생님을 보고 인사도 안 해? 이것들이…….”

“토론에 열중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네요. 어서 오세요.”

네이드가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학생들의 자율조직체인 연구회는 교사들의 간섭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마법학교 커뮤니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심검문을 했으니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다.

‘흥. 학교는 학교고 연구회는 연구회다 이거지?’

하지만 기고만장한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이미 교사회의에서 연구회의 해체 승인이 떨어졌고, 담당 교사인 에텔라하고도 납득할 만한 선에서 합의를 본 상태였다.

“그나저나 무슨 일이신가요, 선생님? 요즘은 별다른 사고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연구회 일로 공문이 내려왔거든. 직접 전해주려고 찾아왔지.”

“그럼 어서 들어오시죠. 비록 누추하지만.”

네이드는 소파의 한 자리를 손으로 털어주었다. 아무것도 찔리는 게 없다는 태도였다.

“고맙구나. 기왕이면 차도 한 잔 내주지 그래?”

“제가 드리는 차를 믿고 마실 수 있겠어요? 아시겠지만 이스타스가 움직이면 아무도 이곳을 찾을 수 없다고요.”

시이나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비웃음을 지었다. 이런 허름한 창고에 차는커녕 냉수 한 잔도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비록 하는 짓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재치를 보이는 아이들이기에 밉지만은 않은 것이었다.

“그래. 듣고 보니 선생님도 좀 불안하구나. 그럼 본론만 빨리 말할게. 한 달 안에 연구실을 반납해 줬으면 하는데.”

네이드의 눈이 똥그래졌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곧바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간 그가 따지듯 물었다.

“네? 반납이라뇨? 갑자기 왜요?”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번 학기에 규정 회원 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운영했더구나. 학교 측에서도 이미 지원금을 끊은 상태고. 그러니 한 달 안에 정리를 해 주면 고맙겠어.”

“잠깐만요! 지금은 시로네가 들어왔어요! 3명부터는 정식 연구회로 인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활동이 전무하지 않니? 연구회를 살리고 싶으면 만기일인 한 달 안에 연구 성과를 내는 수밖에 없어. 물론 초자연 어쩌고 하는 분야에서 무슨 연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억지예요! 연구회라고 해서 꼭 발표회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상황이야. 연구실이 이스타스 내에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악명이 워낙에 높기도 하고 말이야. 연구회 중에 너희만큼 활동이 없는 곳도 드물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준 것도 에텔라 선생님이 부탁해서 그런 거야. 감지덕지하게 생각해.”

시로네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제야 조금씩 연구회에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다짜고짜 해체라니.

“하지만 연구회를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네이드가 황급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게 뭐죠? 뭘 하면 되는 데요?”

“시로네를 이 연구회에서 탈퇴시켜. 그러면 적어도 다음 학기까지는 눈 감아 줄게.”

“네에에에?”

시이나의 예상대로 네이드가 들고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시로네를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저희 세 사람은 학교에서도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라고요. 왜 자꾸 찢어 놓으려고 하세요?”

이루키가 말했다.

“혹시 제가 수업을 빼먹어서라면 걱정하지 마시죠. 공부에 있어서는 각자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니까요.”

시로네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연구회가 악명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루키와 네이드가 수업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두 사람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결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제발 선처해 주세요.”

시이나가 시로네를 각별히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네이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걸어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원칙을 고수하며 딱 잘라 말했다.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무엇보다 시로네, 이건 너를 위해 내린 결정이기도 해.”

“저를 위한 결정이라뇨?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로네, 요즘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시로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이드와 이루키도 시이나의 시선을 피했다.

시이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직감했다. 역시나 친구들에게는 모조리 털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 정말 못됐구나. 특히나 이루키, 너라면 시로네가 오버플로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어째서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았지?”

시로네는 이루키를 돌아보았다.

“이루키. 오버플로우가 뭐야?”

“그냥 뭐…… 별거 아냐. 현재 수준보다 높은 각성을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랄까? 나도 8살 때 했는데 뭐.”

시이나는 이루키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했다.

“오버플로우에 빠지면 정신이 붕괴될 수도 있어. 에텔라 선생님에게 이모탈 펑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만약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시로네는 입술을 물고 생각에 잠겼다. 지금도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초상감에 시달린다. 가끔씩은 이러다 미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었다.

시로네는 다시 이루키에게 물었다.

“어, 어땠어? 너 같은 경우에는?”

“흐음. 나는 진짜로 별거 없었어. 좀 무섭기는 했지.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너는 원래 그런 놈이라서 평생 그렇게 살면 된다고 했어.”

시이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을 지었다. 어린 아들이 울면서 말하는데 고작 해준다는 말이 그런 거라니. 하지만 이루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그럴 만도 했다. 어쨌거나 이루키의 괴팍한 성격이 형성되기까지 아버지의 방치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시이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이드에게 물었다.

“네이드. 친구로서 네 생각은 어떠니?”

“하하하. 글쎄요? 저야 뭐 오버플로우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요.”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시로네가 생각을 바꿀 것이라 기대했던 시이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위험성은 각인시켰으니 시로네도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이다.

“아무튼 그런 연유로 시로네는 연구회를 탈퇴할 거야. 너희들도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정하도록 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로네의 정신 상태니까.”

네이드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선생님의 판단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시이나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의 상태를 알고서도 고집을 부리는 건 우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너는 오버플로우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루키는 분명 허락할걸.”

“아뇨. 저도 좀 이상한데요? 어찌됐든 시로네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왜 선생님이 이토록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친구지간에 나오기에는 냉정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친구인 이유였다. 당사자인 시로네가 서운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사고방식이 똑같은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너는 시로네가 미쳐 버려도 좋다는 얘기야?”

“나쁠 이유도 없죠. 하지만 그보다는 시로네라면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바닥에서 최고가 되기로 한 이상 감수해야 할 일이에요.”

네이드가 말을 받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면 시로네를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야 상관없지만 본인은 꽤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요.”

네이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빛내며 덧붙였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이 시로네를 남자로 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요.”

물론 그런 소문은 퍼진 적이 없다. 하지만 교사에게 가장 약발이 잘 먹히는 것도 이 방법이었다. 시이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음지의 연구회와 다년간 충돌하면서 이보다 심한 루머에도 끄덕하지 않았던 그녀였다.

“그렇다고 해 두자. 그럼 이제 시로네를 내가 맡아도 되는 거겠지?”

교사라도 학생들이 교칙을 어기지 않는 이상 연구회의 학생을 임의로 탈퇴시킬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회장의 결정이 운영회보다 중요한 만큼 네이드의 승낙이 절실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이 학생을 남자로 보고 있다는 루머가 사실이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보인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야. 나는 양보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요? 그럼 저하고도 사귈 수 있겠네요?”

시이나는 상상조차하기 싫은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

“보세요. 선생님의 말은 모순이에요. 결국 시로네를 편애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로네는 착하고 정직한데다가 인기도 많으니까 그런 소문이 퍼질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너는 아니잖아?”

“……선생님. 저 지금 상처 받아도 돼요?”

“아니, 안 돼.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날 함정에 빠트려봤자 허사야. 설령 졸업반이라고 해도 나는 내가 가르치는 제자를 절대로 남자로 보지 않아. 하지만 시로네를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그런 오해를 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시로네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억지를 쓰고 있는 건 너희들이야.”

말문이 막힌 네이드 대신에 이루키가 나섰다.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어차피 오버플로우를 넘지 못하면 그냥 거기가 한계인 거예요.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로네를 믿어보는 게 합당한 일 아닌가요?”

“죽는 게 아니라고? 다른 문제라면 나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 하지만 이모탈 펑션이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

“그렇겠죠. 하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문제에 시이나 선생님이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건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

시이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내면의 아픔을 들킨 기분이었다. 어쩌면 이루키의 말이 틀리지 않을 지도 모른다. 어린 날에 불현듯 찾아왔던 어둠은 오버플로우보다 더 큰 상처를 그녀의 가슴에 새겼다.

“얘기를 듣고 보니 이건 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로네가 침묵의 사이를 틈타 말을 꺼냈다.

“저는 괜찮아요. 솔직히 무섭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요. 과연 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지. 오버플로우에 빠진다고 해도 결코 선생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시로네의 말은 시이나에게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게 했다.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해준 그 사람도 같은 말을 했었다.

- 시이나. 너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보는 거야. 아무리 무서워도 외면해서는 안 돼.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 저리 가! 오빠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나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었더라면…….’

## [55] 오버플로우(5)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시로네처럼 정직하고 순수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빛을 잃었다. 신이 특별히 아꼈던 천재가 한낱 겁쟁이였던 자신 때문에 빛을 잃고 말았다.

“그래. 너희들의 생각은 잘 알았다.”

시이나는 회상에서 빠져나왔다.

“시로네의 생각을 존중해서 탈퇴를 종용하지는 않을게.”

“아니, 그전에 회장의 생각은 언제쯤 존중해 주시나요?”

“후후. 말장난칠 여유가 있을까? 앞으로 한 달이야. 학교에서 납득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는 해체될 거야.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연구회가 너희들의 대에서 끝나고 마는 거야.”

네이드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러고 보니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선배들은 꼴통이라는 학교의 평가를 깨고 마법사회의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 특히나 현 마법협회장인 미케아 가올드는 대대로 자랑거리였다. 만약 자신들의 대에서 연구회의 명맥이 끊긴다면 사회에 나가 그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이다.

‘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한 달의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 연구회를 해체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초자연 심령 연구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회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귀신이나 신의 존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규명하겠는가? 막다른 길에 몰린 네이드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시이나에게 매달렸다.

“선생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발표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도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연구회는 존재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거! 논리만 신봉하는 마법사회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회라고요!”

시이나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일침 좀 가해보라는 얘기야.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이미 교사회의에 올라간 안건이니 철회는 불가능해. 모쪼록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시이나가 연구회를 나서자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신호로 아이들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마치 꿈을 꾸다가 일어난 것처럼 정신이 멍했다. 철컹철컹 소리를 내며 이스타스의 기관 장치가 연구실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놓기 시작했다.

게이지 대칭성(1)

한가로운 휴일.

여느 때라면 쉬는 날에도 도서관에 처박힐 시로네지만 지금은 중앙공원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이루키와 네이드도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아 하염없이 주스만 빨아댔다.

“지금 몇 시냐?”

“몰라. 어쨌든 밤은 아니야.”

“천잰데.”

썰렁한 정적이 이어졌다. 시로네가 한숨을 쉬자 연달아서 두 번의 한숨소리가 더 이어졌다. 결국 참지 못한 시로네가 벌떡 일어나 그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어떡할 거야, 연구회? 이러고 있을 시간에 발표할 주제라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냐?”

“그래.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학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만한 연구 과제가 뭐가 있을까?”

네이드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알기로는 발표회자체를 한 적이 없어. 물론 재밌는 사건들은 많이 저질렀지만, 어차피 그런 것을 학교에서 공식적인 연구로 승인해줄 리가 없잖아.”

초자연 심령과학이란 주제를 전문적인 영역까지 끌어올릴 방법은 없다. 만약 그런 방법이 존재했다면, 이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벤치에 앉은 시로네도 생각을 비웠다. 지나다니는 여학생들의 다리나 흘끔거리고 가끔 발육이 왕성한 여자가 보이면 고개를 돌렸지만, 기실 머릿속은 백지 상태였다.

“어라? 얘들아, 저기 봐라.”

네이드가 무심한 턱짓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학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녀가 정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이보리색 트렌치코드에 힐을 신었는데 펌을 먹은 보랏빛 머릿결이 허리까지 내려와 찰랑거렸다.

“생물학적으로 디자인이 괜찮군. 누구지?”

“졸업반 선배님인가? 보통 우리 또래 애들은 저런 어른스러운 옷은 안 입잖아?”

친구들이 품평하는 동안 시로네는 눈을 게슴츠레하게 뜨고 살폈다. 왠지 분위기가 익숙했다.

“혹시…… 시이나 선생님 아니야?”

“시이나 선생님?”

네이드가 상체를 내밀고 자세히 살폈다. 확실히 그랬다. 안경도 쓰지 않았고 트레이드마크인 단정하게 올린 머리도 풀어헤쳤지만 시이나가 분명했다.

“우와. 끝내준다.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그러게. 화장까지 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그나저나 시로네, 너는 어떻게 알았어? 이제 보니 은근히 여자 보는 눈이 밝은데?”

“응? 아니. 그냥 그래보여서.”

시로네가 한눈에 간파한 이유는 시이나가 머리를 풀에 헤친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밤에 선생님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었기에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런데 어디를 가는 걸까? 화장까지 하고 말이야.”

“오늘 선생님 비번이잖아. 휴일이기도 하고. 데이트라도 있나보지 뭐.”

“시이나 선생님은 남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았던가?”

“그래도 만나는 사람 정도는 있겠지. 여자나이 26이면 혼기가 꽉 찼다고. 선생님도 결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흐음. 그렇단 말이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겨 있던 네이드의 눈에 머릿속에서 터진 빛이 반짝였다.

“우리 따라가 볼까? 궁금한데?”

“따라가서 뭐하게? 선생님 사생활이잖아?”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여기서 죽치고 생각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머리는 터져버릴 거 같고. 어차피 휴일이니까 해지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될 거야.”

이루키는 회의적이었다.

“안 들키게 쫓을 수나 있고? 공인 6급의 마법사야. 스피릿 존이 아니라도 주변을 살피는 눈이 다를 텐데. 금방 들키고 말 걸?”

“그럼 이렇게 하자. 이루키 너는 선생님을 추적하고 시로네는 중간연락책을 맡아. 나는 연구실에 들렀다 올 테니까.”

시로네는 네이드의 생각을 간파했다.

“투명망토?”

“바로 그거야. 투명망토를 뒤집어쓰고 미행하면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데이트하러 가면서 스피릿 존을 펼칠 이유도 없고 말이야. 어때?”

“그거 괜찮은 생각이군. 좋아, 그럼 나는 지금부터 따라가고 있을게. 시로네 너는 중간에서 네이드를 데려와.”

이루키가 벤치에서 튕기듯 일어나 시이나를 뒤쫓자 시로네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이지 이런 쪽으로는 실행력이 발군인 아이들이었다.

“그럼 나는 투명망토 가지고 올게. 시로네, 절대로 이루키를 놓치면 안 돼. 포인트 체크하면서 움직일 수 있지?”

도시의 방향성은 길이라는 인공 구조물로 제약되어 있기에 포인트만 체크하면 대략적인 동선은 파악할 수 있다. 네이드하고도 너무 멀어지면 안 되는 만큼 중간 지점에서 회귀시점을 판단하는 게 중요했다.

시로네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끝나있는 자신이 싫었다.

“알았어. 대신 빨리 와. 10분 이상은 자신 없어.”

“하하! 역시 시로네! 너만 믿는다!”

네이드는 연구회로 달려갔고 이루키를 미행한 시로네는 10분 후에 되돌아와 네이드를 정문에서 픽업했다. 그때부터 빠르게 달려서 10분 후에 이루키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달려오자 이루키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데.”

“왜? 선생님 놓쳤어?”

“아니. 하지만 거의 놓칠 뻔했어. 이상하리만치 주변을 경계하고 있어. 전쟁터인 줄 알았다니까.”

“오호.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 혹시 우리처럼 금지된 물품으로 뒷돈을 챙기는 건 아니겠지?”

시로네가 한심하게 네이드를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그런 짓 하지 않아.”

“아무튼 일단 가보자. 이제부터는 투명망토가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가도 될 거야.”

세 사람은 투명망토를 덮어쓰고 시이나를 뒤쫓았다. 평민 구역으로 들어가자 꼭두새벽부터 장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로 길목이 바글바글했다. 덕분에 미행이 한결 수월해졌다.

시이나가 멈춘 곳은 2층 집이었다. 세 사람은 망토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누가 문을 열어주나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시이나가 주위를 둘러보자 거북이처럼 얼굴이 쏙 들어갔다. 세 사람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너무 경계하는데? 도대체 누가 사는 집이기에 이러지? 그냥 흔해빠진 평민주택이잖아?”

호기심에 사로잡힌 세 사람은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얼어있을 필요가 없을 듯했다.

젊은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시이나를 보자마자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저, 저럴 수가……!”

시로네 일행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충격을 받았다. 빙결의 시이나라는 별칭은 그녀의 전공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남자에게도 차갑게 대하는 성격으로 붙여진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설마 숨겨둔 남자가 있었다니.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현실임을 깨달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남자였지?”

“가보면 알겠지. 따라 들어가 보자.”

시로네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뭐어? 그래도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기에는 좀 그렇잖아? 알 건 확실히 알아야지.”

“선생님은 처녀니까 당연히 남자도 만날 수 있지.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루키의 생각은 달랐다. 여태까지의 정황으로 추론해봤을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선생님이 남자를 만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하지만 왜 숨겼을까? 학교에서도 공식적인 솔로잖아? 게다가 주변을 경계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바로 그거야. 그래서 확인해보자는 거지.”

시로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떡하려고?”

“지하 창고를 통해서 들어가면 돼. 걱정하지 마. 설령 걸린다고 해도 큰일이야 나겠어? 어차피 시이나 선생님이 들어갔으니 생판 모르는 남의 집도 아닌 거잖아.”

시로네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거…… 굉장히 우리 주관적인 생각 아니냐?”

“몰라. 아무튼 난 갈 거야. 궁금해서 미칠 것 같거든.”

네이드와 이루키가 자리를 뜨자 시로네도 한숨을 내쉬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동조하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두 사람을 내버려 둔다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입구에 도착한 네이드는 철문을 살펴보았다.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단단하게 잠겨있었다.

주머니에서 볼펜과 흡사한 장치를 꺼낸 그가 버튼을 누르자 날카로운 철침이 튀어나왔다. 네이드의 특허품목 중의 하나인 열쇠해제 장치였다.

자물쇠를 열려면 내부기관의 요철을 정확하게 압박해야 하는데 네이드의 장치는 100분의 1센티미터 단위로 철심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평민 주택정도는 손쉽게 딸 수 있었다.

자물쇠에 장치를 꽂은 네이드가 혀를 내민 얼굴로 이리저리 해보더니 손목을 뒤트는 순간 자물쇠가 딸깍 하고 열렸다.

문이 열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보이자 시로네는 허탈감에 빠졌다.

잠금장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안심하고 하룻밤을 보내지만, 결국 잠금장치 또한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망각하는 듯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 식료품 창고 특유의 양파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시로네가 철문을 닫을 동안 네이드는 일층으로 가는 문에 귀를 대고 바깥의 동향을 살폈다.

“좋아. 1층도 조용해. 한 번 올라가보자.”

투명망토를 덮은 세 사람은 얼굴만 동동 떠있는 유령 같은 모습으로 1층으로 향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인 마루가 나왔고 사람은 없었다.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자 복도의 끝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시이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해? 빨리 안하고.”

시로네와 네이드가 안면근육을 호들갑스럽게 움직이자 이루키가 입술에 손을 가져다댔다.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잠깐만.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일단 옷부터 벗고 있어.”

“아내는 언제 돌아와?”

“시장에 장보러 갔어. 아마 2시간은 넘게 걸릴 거야.”

네이드는 또다시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아니, 흥분을 넘어서 경악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로네도 느끼는 감정은 비슷했다. 시이나 선생님이 만나는 남자가 유부남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 [56] 게이지 대칭성(2)

“오늘은 안 입는 거야?”

“어. 조금 더 허리를 펴봐.”

“이렇게?”

“어, 그렇게. 다리는 살짝 들고. 응, 그렇지.”

세 사람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물론 성인이니 남녀 간의 정은 통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불륜이었다. 학교에 알려지면 시이나의 교사인생은 끝장이었다.

“그럼 시작할까? 움직이면 안 돼.”

“걱정 마. 지금까지도 잘 참았잖아.”

네이드는 분노한 얼굴로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한 시로네와 이루키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지만 남편을 빼앗긴 아내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끝내는 게 옳았다.

문고리를 붙잡은 네이드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완벽하게 현장검증을 할 수 있겠지만 존경했던 선생님의 그런 모습은 차마 보고 싶지 않았다.

문고리가 거칠게 돌아가고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방으로 쳐들어갔다.

“이 나쁜 자식! 시이나 선생님! 진짜 실망입니다!”

네이드의 외침이 정적에 파묻혔다.

눈을 감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로네와 이루키는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안의 풍경을 멀뚱하니 쳐다보았다.

침대에 앉아 있는 시이나가 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커다란 캔버스가 세워져 있었다.

“어? 어?”

시로네 일행은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모두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굉장한 오해와 착각과 왜곡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뭐야? 너희들 여긴 어떻게……?”

놀라기는 시이나도 마찬가지였다. 사적인 자리에 갑자기 제자들이 들어오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부끄러운 건 잠시였고 이내 미간을 찡그렸다.

“설마 미행한 거니?”

“네?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들은 그냥 공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이나 선생님이 갑자기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행했다는 거 아냐!”

“히익! 잘못했어요!”

시로네 일행은 동시에 목을 움츠렸다. 그녀의 성격대로라면 불호령만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더 이상의 불똥을 떨어지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뜨자 생각에 잠겨 있는 시이나가 보였다.

‘대체 어떻게 나를 따라온 거지?’

최대한 신경 써서 주변을 경계했다. 스피릿 존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고작해야 학생들에게 미행을 당할 정도로 그녀의 눈은 어설프지 않았다.

“뒤에 숨긴 건 뭐야? 이리 내놔.”

네이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시이나의 눈에서 살기 비슷한 것이 나오자 황급히 들고 있던 망토를 내밀었다. 그것을 사납게 낚아챈 시이나는 사라진 자신의 팔을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치마처럼 허리에 둘러보자 이번에는 허리부터 잘려나간 모습이 되었다.

“네이드. 이것도 네가 자랑하는 그 특허품이니?”

“네.”

“정말로 네가 만들었단 말이지?”

“하, 하지만 블랙마켓에는 내놓지 않았어요! 저도 그 정도 양심은 있다고요.”

“후우.”

시이나의 한숨에 세 사람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았다. 공인 6급의 마법사로써 미행을 당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잘못보다 자신의 미숙함이 더 컸다.

“그런데 이 방에는 왜 들어온 거야? 뻔히 들킬 거라는 걸 알면서? 실망했다는 건 또 뭐고?”

시로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미행을 했는데 선생님이 남자랑 포옹하는 걸 보고 따라 들어왔어요. 문밖에서 대화를 엿듣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그만…….”

“뭐? 부, 불륜?”

시이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그녀가 이토록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불륜이라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네이드가 질세라 받아쳤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대화를 듣고 어떻게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옷을 벗으라느니, 자세를 이렇게 해보라느니. 대체 저 사람은 누구에요?”

네이드는 여전히 캔버스 뒤에 숨어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저 말인가요?”

따듯한 목소리에 이어 의자가 끼익 밀리는 소리를 냈다. 잠시 후 남자가 캔버스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시로네 일행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금발을 허리까지 기른 20대 후반의 미남자였다. 하지만 정말로 놀란 이유는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었다. 남자의 두 눈에 허름한 헝겊이 감겨있는 게 보였다. 맹인이었다. 그것도 화가가.

‘뭐지?’

시로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매일 밤 느껴지는 초상감이 다시금 전신을 감싸기 시작했다.

‘왜 이러지? 하필 이럴 때. 낮에 이런 적은 없는데.’

솜털이 일어서고 뼈가 얼어붙는 듯했다. 덜덜 떨리는 손목을 붙잡고 길게 심호흡을 하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 네이드가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야, 시로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설마 선생님이 우릴 죽이기야 하겠냐?”

“응? 어, 아니야. 이제 괜찮아졌어.”

시로네는 점차 편한 기색을 되찾았다. 평상시의 초상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한기였지만 그런 만큼 사라지는 시간도 빨랐다.

“시이나, 그만하고 용서해 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더욱 용서할 수 없지. 미행이야 그렇다 쳐도 남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다고. 하여튼 못된 것만 배워먹어서.”

남자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네 제자잖아. 선생님이 집에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야.”

회심의 기회를 포착한 네이드가 끼어들었다.

“하하!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에요. 시로네는 거짓말 안 하니까 물어보세요. 그냥 남의 집이었으면 절대로 안 들어왔죠. 저희가 좀도둑도 아니고요.”

시로네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네이드가 정말로 저한테 그렇게 말 했어요.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시이나는 골치가 아픈 듯 머리를 짚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순진한 눈망울을 초롱거리는 게 가증스럽기까지 했다.

‘그렇게 순진한 놈들이 이런 짓을 저질러? 하여튼 영악한 것들…….’

투명망토로 모습을 숨긴 채 교사를 미행하고, 남의 집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와서 할 소리는 절대로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남자는 미소만 짓고 있었다. 무엇보다 시이나의 제자를 보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아르민이라고 합니다. 시이나와는 어릴 때부터 남매처럼 지냈죠. 저도 올리페르 학파에서 수학했거든요.”

아르민이 손을 내밀자 네이드가 냉큼 손을 맞잡았다.

“아하, 그러셨군요. 저희들의 바보 같은 오해를 사과드립니다. 기별도 없이 갑자기 방문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시이나가 사납게 소리쳤다.

“무단 침입이지! 이게 은근슬쩍 방문으로 바꾸려 드네?”

“헤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솔직히 저희들도 시이나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기분이 좋다고요.”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이상한 오해를 해서.”

시이나는 허리에 손을 얹고 콧김을 내쉬었다. 사적인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주친 상황이 어색한 건 그녀도 마찬가지였기에 한동안 정적이 이어졌다.

“일단 앉아서 얘기하고 있어. 차부터 내올 테니까.”

아르민이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가 정확한 걸음걸이로 문을 나서자 시로네 일행은 또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저분은 누구예요? 그리고 아까 옷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오해했잖아요.”

시이나는 의심이 가당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르민 오빠는 나와 동문이야. 올리페르 학파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기대를 모았던 사람이기도 하지. 지금은 화가가 됐지만 어릴 때부터 재능은 나보다 훨씬 뛰어났어.”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은 어째서……?”

시이나의 얼굴이 어두워지자 네이드는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아 찔끔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금세 표정을 풀고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오빠는 눈을 잃은 거야.”

“네? 선생님 때문이라고요?”

“9살 무렵 나는 오버플로우에 빠졌어. 세상의 이치를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두려워졌지. 날마다 울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직한 고통이었어.”

시이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나를 구해준 사람이 아르민 오빠야.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이끌어주었지. 그때 당시 아르민 오빠의 나이는 11살이었어.”

11살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어린 아이였다. 그런데도 시이나를 오버플로우에서 구원해주었다는 것은 아르민이 얼마나 뛰어난 인재였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었다.

“아르민 씨의 조언으로 오버플로우를 이겨낸 것이군요.”

시이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렇게 강한 아이가 아니었어. 올리페르 가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누리고 살았던 기고만장했던 꼬맹이였지. 당시에는 오빠가 싫었어. 항상 입버릇처럼 나에게 말하곤 했거든. 너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났어. 무서우니까 눈을 감는 거잖아. 견딜 수 없으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야. 후후. 생각해보면 그때는 나도 참 바보 같았지.”

시로네는 공인 6급의 마법사인 시이나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오버플로우를 이겨 내신 거예요?”

“아르민 오빠가 찾아오는 게 싫어서 산이나 들, 강가에 나가있고는 했어. 아르민 오빠는 나를 쉽게 찾아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또다시 도망쳤지. 그렇게 술래잡기가 이어지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야.”

시이나는 고통스럽게 미간을 찡그렸다.

“장마 기간이라 며칠 동안 비가 내렸어. 그런 궂은 날에도 나는 강가를 돌아다니고 있었지.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일인지도 몰라. 하지만 공교롭게도, 상류를 막고 있는 둑이 무너진 거야. 하류에 있던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강물에 휩쓸리고 말았어. 마을의 절반을 침수시킬 만큼 엄청난 홍수였거든.”

시이나는 17년 전의 일을 회상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강물에 잠기고 말았다. 죽기 살기로 발버둥을 쳐서 떠올랐을 때는 이미 그녀가 있던 강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상류에서 건물 잔해와 가축들이 떠내려오고, 하류에서는 날카롭게 부러진 나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시이나는 생애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다.

‘살려 줘요. 누가 제발……!’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다. 학파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사람들이 얼씬하지 않는 개천과 늪의 중간 지대였다. 지금은 강이 되어 있지만 어린 소녀가 이곳에 있으리란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할 것이다.

물은 빠르게 몸을 불려갔다. 도강은 불가능할 만큼 육지가 까마득하게 멀어 보였다. 조약돌이나 주우러 다녔던 실개천이 폭 25미터의 대형 급류로 변해버린 상황이었다. 물색은 시커멓고, 물살이 암석에 갈라지면서 수많은 소용돌이가 생겼다.

“사람 살려! 누가 좀 살려 주세요!”

시이나는 생애 처음으로 비굴한 모습을 드러냈다. 대륙 10대 학파인 올리페르의 외동딸이라는 자부심은 대자연의 힘 앞에서 권위를 잃고 말았다. 천부적인 재능도 광포한 강물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살려 달라고 외치는 것뿐이었다.

“시이나!”

신의 계시를 들은 것처럼 시이나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쳐들었다. 강물 위에 위태롭게 휘어진 나뭇가지에 아르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오빠!”

“손 내밀어!”

아르민은 수면 가까이에 손을 내밀었다. 시이나가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한 돌물에 휩쓸려 물속으로 잠겨들었다.

“시이나!”

시이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얼굴이 아닌 두 다리가 떠올라 있었다. 아르민은 지체하지 않고 입수했다. 급류를 타고 빠르게 잠영하여 시이나를 붙잡고 얼굴을 수면 위로 빼냈다. 물을 먹은 시이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푸하! 푸하!”

“시이나! 정신 차려! 강을 빠져나가야 돼!”

“사, 살려! 살려 줘!”

소용돌이 지대는 벗어났지만 그보다 험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르민은 스피릿 존을 확장시켜 장애물을 피해나갔다. 11살인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 [57] 게이지 대칭성(3)

“시이나! 눈 똑바로 떠! 정신 좀 차려 봐!”

“오빠! 사, 살려……!”

시이나는 냉정을 찾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어린 두 사람의 육체 능력으로 도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르민은 혼자서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대로 델폰스 지역까지만 가면 돼. 거기서부터는 삼각주라 수량이 줄어들 테니까. 현재 속도로 보자면 20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

20분? 아득한 시간이었다. 정신이 혼미한 시이나를 데리고 급류 속에서 20분을 버틸 수 있을까?

‘멍청하긴. 할 수밖에 없잖아.’

아르민은 정신을 다잡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괴기스럽게 일그러지는 기분이었다. 부러진 통나무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사력을 다해 몸을 뒤틀었다. 구정물이 눈에 들어가도, 거대한 바위가 덮쳐도, 날카로운 나무가 피부를 베고 지나가도, 그는 현실을 거듭하며 움직였다.

‘조금만…… 조금만 더!’

시이나의 조막만한 손이 허리를 꼬집는 게 느껴졌다. 연약한 생명이 자신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기분은 비참했지만, 그보다 더한 사명감이 정신을 각성시켰다.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목적지가 먼 하류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강 쪽으로 부러진 나무가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다.

“시이나, 잘 들어. 우리는 저걸 피해야 돼. 그러려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오빠가 너를 누를 거야. 숨을 꾹 참고 버틴 다음에 다시 올라가. 알았지?”

“오빠! 무서워! 난 못 해!”

“해야 돼. 할 수 있어. 날 믿어!”

“오빠! 오……!”

2개의 소용돌이가 맞물린 곳으로 들어가자 급류의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아르민은 어금니를 깨물었다. 목만 떠있는 시야로 홍수의 쓰레기들이 괴물처럼 덮쳐 왔다.

아르민은 발에 쥐가 날 정도로 자맥질을 했다. 날카로운 것들이 몸을 할퀴고 지나갔다. 지속적으로 피를 흘린 데다 체온이 떨어져서 의식이 혼미해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에 도착했다. 가까운 지점에서 살펴봐도 역시나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시이나! 간다!”

아르민은 다가오는 나무를 노려보며 타이밍을 쟀다. 그리고 충돌하기 직전 시이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지금이야!”

비명을 지르는 시이나의 목소리가 물속에 잠겼다. 시이나를 누르면서 떠오른 아르민의 시야에 물에 젖은 나무둥치의 날카로운 표피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의 온신경은 시이나를 짓누르는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무둥치 아래를 지나는 순간 힘을 풀었다.

‘됐다! 성공했어!’

아르민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무둥치를 바라보았다. 시이나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빠아아아!”

하류로 떠내려가는 시이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시이나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났다. 아이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델폰스 지역까지 떠내려간 나는 마을 주민에게 구출됐어. 삼림지대를 벗어난 덕분에 위험한 구조물은 없었고 기절한 아르민 오빠도 내가 있는 곳까지 떠내려왔지. 학파 사람들이 출동해서 치료를 했지만 진단 결과는 영구적인 안구 손상. 그 이후로 오빠는 시력을 잃었어.”

“그렇군요. 두 분에게 그런 사연이…….”

“오빠는 나에게 공포를 이기는 법을 몸소 가르쳐 주었어. 덕분에 나는 오버플로우를 이겨낼 수 있었지. 하지만 오빠는 빛을 잃었지. 학파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 그렇게 멈춰 버린 거야.”

시로네는 가슴이 먹먹했다. 인간에게 눈을 잃는다는 건 거의 전부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마법을 배우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가 얼마나 실망하고 괴로워했을지 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었다.

“오빠가 3년 전에 이곳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게 된 거야. 빛을 그리는 화풍을 개발하는 중이래. 그래서 내가 모델이 되기를 자청한 거야.”

“그랬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들이 괜한 오해를…….”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으로 오해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실례되는 행동이었다. 분위기가 어두워지려는 그때 아르민이 차와 다과를 내어가지고 왔다.

“내가 방해했나? 시이나가 옛날 일을 꺼내는 경우는 드문데 말이야.”

“오빠.”

“일단 차부터 들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아내의 비결이 들어 있어서 입에는 맞을 거예요.”

“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시로네 일행은 황송한 자세로 찻잔을 받았다. 화가로 전향했다고 하지만 무려 20년 전부터 마법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다. 불운한 운명을 탓할 수는 있어도 마법사 지망생인 그들이 아르민을 얕잡아 볼 수는 없었다.

캔버스로 돌아간 아르민이 뒤편의 자리를 권했다.

“자. 그럼 일단 나도 작업을 해야겠는데. 손님들은 이쪽에서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아, 예. 물론이죠.”

세 사람은 찻잔을 들고 엉거주춤 자리를 옮겼다. 시이나가 침대에서 자세를 잡자 네이드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저기 이런 질문 정말 죄송한데, 설마 누드화를 그리는 건 아니죠?”

아르민이 화가라는 걸 알았으니 어떤 예술을 하든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다만 제자가 보는 앞에서 그러기에는 시이나도 난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하하! 아무리 장님이라도 아끼는 여동생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아까 듣기로는 옷을 벗고 하자고…….”

“아, 그건 저겁니다. 시이나, 한 번 보여 줄래?”

시이나는 옷장을 열어 은박으로 만든 코트를 꺼냈다. 빛이 반사되면서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 만큼 눈이 부셨다. 시로네가 손으로 앞을 가리며 말했다.

“우와! 되게 밝네요.”

“스피릿 존만으로는 정확하게 사물을 보지 못하니까요. 인물이나 사물에 발광체를 입혀서 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은박 코트는 아주 좋은 도구죠.”

“독특하네요. 빛을 느껴서 그림을 그리다니.”

“눈을 잃은 대신 다른 화가들이 그리지 못하는 걸 그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이나를 그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좋은 후원자가 나타나서 며칠 내로 이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이나 본연의 느낌을 살려 보고 싶었어요. 코트를 입으면 아름다움이 퇴색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시이나의 뺨이 살그머니 붉어졌다.

“오빠도 참…… 주책없는 소리는.”

“하하! 뭐 어때? 내 머릿속의 너는 여전히 아홉 살짜리 꼬맹이라고.”

“알았으니까 빨리 작업이나 해. 케이라 씨 돌아오면 작업도 못 하잖아.”

시로네 일행은 미묘하고도 간지러운 기류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오누이 같은 사이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피가 통하는 혈육은 아니었다. 시이나가 불륜이라는 소리에 평소보다 과격하게 반응했던 이유에는 어쩌면 아르민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럼 시작할게. 느낌대로 그리는 거니까 평소보다 일찍 끝날 거야.”

시이나가 다소곳이 자세를 취하자 아르민은 목탄을 들고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뒤편에서 구경하는 시로네 일행은 실력에 감탄했다. 대충 그리는 것 같은데도 선들이 시이나의 외곽선을 그대로 따고 있었다.

“우와! 대단하다.”

“쉿.”

이루키가 검지를 들고 네이드에게 주의를 주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화가에게 치명적인 단점이니 평소보다 집중력이 많이 요구될 것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고개를 갸웃했다. 정말로 이상했다. 발광체가 없는데도 아르민은 시이나의 세밀한 특징까지 정확하게 캔버스에 옮기고 있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스피릿 존의 밀도가 그만큼 높다는 건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 디테일은…….’

스피릿 존이 상당한 밀도를 갖는다면 공감각을 통해서 정밀묘사가 가능할 수는 있다. 마치 진흙에 발자국이 찍히는 것과 같은 원리였다. 하지만 조너인 에텔라조차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림은 더욱 정밀해졌다. 시이나는 학교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르민은 식빵을 지우개처럼 사용해 그 미소를 화폭에 완벽하게 구현했다.

시로네는 속으로 감탄사를 연발했다. 화가가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입술이라고 들었다. 입꼬리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스피릿 존의 밀도가 아무리 높아도 맹인 화가가 이런 부분까지 캐치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소름이 돋으면서 다시금 초상감이 되살아났다.

“저기…… 아르민 씨.”

“네?”

아르민이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틀었다. 시로네는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잠시 고민했다. 만약에 잘못 짚은 것이라면 그에게 큰 실례를 저지르는 셈이었다.

“혹시 아르민 씨는…….”

하지만 물어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초상감의 서늘한 한기가 뼛속까지 침투하고 있었다.

“눈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아르민의 손이 우뚝 멈췄다. 차분하게 목탄을 내려놓은 그가 시로네를 돌아보며 말했다.

“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시로네는 말을 잃었다. 정말로 눈이 보인다는 것인가? 그런데 어째서 시이나 선생님은 모르고 있었을까?

시로네를 향해 완전히 돌아앉은 아르민은 두 눈을 가리고 있는 헝겊을 풀었다. 감겨 있는 눈 주위로 수많은 상처들이 새겨져 있었다.

‘다친 건 분명한데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처음부터 눈을 가리고 있었잖아? 그런데 보인다는 건 대체…….’

“저에게 궁금한 게 많겠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르민이 천천히 눈을 뜨자 시로네는 숨이 멎었다. 눈동자가 없었다. 대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텅 빈 안와에 밝은 빛이 가득 차 있었다.

“네, 네이드, 이루키! 저거 보여? 응?”

시로네는 다급한 마음에 네이드의 허벅지를 때렸다. 하지만 손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이 이상했다. 마치 사물을 만지는 것 같은 단단함. 고개를 돌려 친구들을 살핀 그가 경악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네이드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루키 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으로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황급히 걸음을 옮겨 시이나를 살폈으나 마찬가지였다. 마치 밀랍 인형처럼 굳은 채로 그곳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혼란에 빠진 시로네의 등 뒤로 아르민이 다가왔다.

“제 방에 손님이 찾아온 건 오랜만이로군요.”

“설마, 이건……?”

“네. 맞습니다. 스톱이라는 마법입니다.”

시로네는 얼이 빠진 표정으로 돌아섰다. 스톱은 광속을 구사하는 마법사만이 가능한 마법으로 역사를 통틀어도 이 경지에 도달한 자들은 손에 꼽았다. 한마디로 시간 마법의 절대적 경지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었다.

“앉으세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죠. 시간은 많으니까요.”

“하하…….”

시로네는 어색하게 웃었다. 확실히 시간이 멈췄다면 시간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 그림을 그리면서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시로네 군이 이 시간 역장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제가 눈치챌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죠?”

아르민은 안와에 박혀 있는 빛을 가리켰다.

“눈이라는 기관은 빛을 받아들여 시각적인 정보로 재구성하죠. 하지만 눈이 없는 저는 빛 자체로 세상을 느낍니다. 이건 꽤나 끔찍한 경험이에요. 보통 사람이 인식하는 사물의 형태가 저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데아라는 거군요.”

인간의 감각이 진실을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벽돌은 젤리처럼 말랑할 수도 있다. 불은 차갑고, 연인의 달콤한 키스는 고통을 수반할 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제대로 소개를 하죠. 저는 광안의 아르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겁의 성찰자라고 불리는 마법사입니다.”

“하지만 아르민 씨는 어렸을 때 마법을…….”

“네. 불행한 사고였죠. 올리페르 학파를 떠나서 15년 동안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았어요. 오로지 어둠뿐인 세상을요.”

## [58] 게이지 대칭성(4)

아르민은 당시를 회상했다.

“볼 수 없다는 건 공간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공간이 사라지니 시간마저 사라지더군요.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시간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그렇게 스톱 마법이 완성되었죠.”

시로네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많은 시간 마법사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스톱 마법의 요체를 들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감탄할 것 없습니다. 딱히 초월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스피릿 존의 반경 내에서만 가능하고 제약도 상당하죠.”

아르민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시이나를 돌아보았다.

“착한 동생이죠. 강한 척하는 만큼이나 마음이 여린 아이입니다. 시로네 군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하! 글쎄요. 여린 건 잘 모르겠지만 좋은 분이라는 건 확실하죠.”

“지금 보기에 어떤가요? 제 여동생이 아름답습니까?”

“어, 그야 당연하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만약 시간을 멈춘 상태에서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아르민의 말을 이해한 시로네는 얼굴을 붉혔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설마 아르민 씨…….”

“걱정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현재 우리들은 질량이 0으로 수렴하는 상태에요. 실제로 질량이 없으면 해체되어버리겠지만, 요지는 가속입니다. 그렇기에 스톱 마법을 광속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이드를 만졌을 때 딱딱했던 이유가 그거였군요. 질량이 없으니 옷깃조차 구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없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게 바로 스톱 마법의 진의입니다. 어떻게 눈치 챌 것을 알았냐고 물었죠? 간단합니다. 저 또한 시로네 군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깨달음이라면…… 설마?”

“네. 이모탈 펑션입니다.”

시로네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도 답을 내려주지 않았던 이모탈 펑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눈앞에 있다. 그것도 시간 계열의 최고위 마법사였다.

“이모탈 펑션은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본질은 하나이기에 시로네 군과 저의 파장이 공명하는 겁니다. 초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모탈 펑션이라는 건 뭐죠?”

“무한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로네 군은 그것을 개방한 것이고요. 마법사회에서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 언로커라고 부릅니다.”

잠시 생각하던 아르민이 질문을 던졌다.

“혹시…… 이모탈 펑션을 개방했을 때 자아가 해체되는 느낌을 받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지속되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정신이 수의 끝을 초월하게 되면 스피릿 존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에요. 그렇기에 언로커들은 고유의 스피릿 존을 통해 무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은 시로네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 어떡하죠? 최고의 마법사들도 조심하는데, 당시에 저는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인지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다 혼자 있을 때도 초상감이 느껴져요.”

아르민이 부드러운 미소로 시로네를 안심시켰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처음부터 제어할 수 있었다면 이모탈 펑션을 개방한 게 아니겠죠. 초상감은 시로네 군이 본인에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확장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저절로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얻은 것에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상태일 뿐이에요.”

“하지만…….”

못내 불안한 얼굴의 시로네를 보고 아르민은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긴, 알아서 깨닫게 된다고 아무리 말한들 현실로 느껴질 리가 없었다.

“좋아요. 그럼 말해드리죠. 시로네가 깨달은 것의 이름은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겁니다.”

“게이지…… 대칭성이요?”

“이 세상은 완벽하게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칭성이 깨져있죠. 그 괴리감을 시로네는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초상감의 원인일 겁니다.”

시로네는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계속 읊조렸다. 하지만 마법처럼 무언가가 떠오르지는 않았다.

아르민이 시로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결국 시로네 군은 도달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가 되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로네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오늘의 만남이 자신의 미래에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르민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시이나 선생님 말대로 오버플로우에 빠졌을 지도 모르겠어요.”

“언로커들은 같은 파장을 공유하는 만큼이나 유대감이 깊기도 하죠. 물론 그 유대감이 가끔은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지만요. 어쨌거나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군요.”

아르민은 다정한 미소로 시이나를 돌아보았다.

“이제는 슬슬 시간의 방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그림을 끝내야하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네. 거창한 별호도 있지만 일단 본업은 화가니까요. 오늘부터 짐을 정리해서 며칠 내로 떠날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시이나를 볼 수 없겠죠.”

“차라리 선생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르민은 고개를 저었다.

“시이나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설령 제가 마법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잃어버린 눈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죠. 게다가 이미 결혼까지 한 몸입니다. 시이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시로네는 아르민의 심정을 이해했다. 목숨보다 아끼는 동생이 과거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네. 저도 비밀을 지킬게요. 오늘 정말로 감사했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시로네.”

아르민은 헝겊으로 다시 눈을 가렸다. 그가 캔버스로 돌아앉자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네이드와 이루키의 숨소리가 들리고 시이나의 미소에 다시금 생기가 깃들었다.

시로네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조금 전까지 아르민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고양된 감정 속에서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림을 완성시킨 아르민이 캔버스를 시이나에게 돌려세웠다.

“어때? 잘 나온 거 같아?”

“그래, 예쁘네.”

“그동안 고생했어. 너를 그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

“오빠는. 우리가 무슨 남도 아니고…….”

시이나의 눈에 아쉬운 감정이 스쳐지나갔다. 그러다가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작별의 정을 나눌 새도 없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벌써 아내가 돌아올 시간인가? 평소보다 빨랐지만 깊게 생각할 정신이 아니었다.

“오빠.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너희들도 어서 나와.”

시이나는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한 그녀가 아르민의 아내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겁을 먹자 시로네 일행은 속이 상했다.

“여보, 그림 그려?”

케이라가 얼굴을 배꼼 내밀었다. 아르민의 성격만큼 차분한 사람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대 초반의 발랄한 여성이었다. 시이나와 눈이 마주친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시이나 씨? 그러고 보니 오늘이 오시는 날이었네.”

“안녕하세요, 케이라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혹시 일부러 저 피하는 거 아니죠? 호호호!”

시이나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았다.

“아, 오빠랑 작업은 끝났어요. 이만 가보려고요.”

“이왕 왔는데 급할 게 뭐 있어요? 저녁 먹고 가요.”

“말씀은 고맙지만 약속이 있어서…….”

“흐음. 이거 수상한데? 자기, 혹시 나 없을 때 시이나 씨랑 수상한 짓 한 거 아냐?”

“케이라, 말조심해.”

아르민의 미간이 구겨졌다. 시로네가 생각하기에도 경우가 없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몸가짐을 조심하는데 거기다 대고 수상한 짓이라는 말을 하다니.

얼굴이 달아오른 시이나는 코트를 입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을 나섰다. 속이 상한 시로네 일행도 케이라를 흘겨보며 뒤를 따랐다. 하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속이 좋은 건지 케이라는 눈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잘 가, 꼬마들아. 다음에 오면 누나가 맛있는 거 해 줄게.”

당연하게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냉랭한 태도에 케이라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어머? 내가 무슨 실수했나? 표정들이 왜 저래? 설마 자기 진짜로 여기서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장난 그만 치고 내려와. 인사는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치. 하여튼 여동생이라면 사족을 못 쓰지.”

아르민은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시이나도 이대로는 영 개운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시이나. 아내가 워낙에 왈가닥이라.”

“괜찮아. 아무튼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겠네. 그동안 잘 지내. 몸 건강하고.”

“그래. 너도 열심히 해. 그래도 제자들과 사이가 좋은 모습을 봐서 오빠는 안심이 된다. 솔직히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하하하!”

시이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을 아이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르민밖에 없을 것이다. 철없던 어린 날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시로네는 가슴이 뭉클했다. 왕국이 인정한 천재가 어째서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오버플로우에는 왜 그토록 집착했는지, 빙결의 시이나라는 별칭까지 얻으면서까지 남자들을 멀리했었는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럼 가 볼게. 혹시 여유가 되면 편지해.”

“그래. 자리 잡으면 기별할게. 그리고 시로네, 네이드, 이루키. 열심히 해라. 훌륭한 마법사로 성장한 너희들의 이름을 멀리에서나마 듣고 있을게.”

“네. 오늘 죄송했습니다.”

시로네 일행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아르민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일이 이토록 무사히 끝나지는 않았을 터였다.

아르민은 시이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문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던 케이라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르민, 그만 정신 차려. 감상에 젖어 있는 모습을 위쪽에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르민도 언짢은 표정으로 케이라에게 돌아섰다. 3년 동안 부부로 위장하며 살았지만 정말이지 정이 안가는 여자였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갖든 그건 내 마음이야. 임무보고나 해. 조사는 끝났나?”

“완벽해. 크레아스에는 더 이상 볼일 없어. 앞으로 15일 안에 캘버라로 가야 돼. 위험한 지대를 지나야 하지만 광안의 아르민이 있으니 별문제 없겠지?”

“쓸데없이 말 늘릴 필요 없어. 약속은 지킬 테니까.”

아르민이 딱 잘라 말했지만 케이라는 안심하지 못했다. 탁월한 통찰력과 천재적인 마법 실력으로 상부에서 발탁하기는 했지만, 언제라도 조직을 떠날 수 있는 자유분방한 남자였다.

“설마 시이나에게 말한 건 아니겠지?”

아르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에게 해코지하고 싶지 않아. 물론 어떤 방법으로도 영겁의 성찰자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 봤자 당신도 인간일 뿐이야. 조직을 배신하는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시이나는 물론 올리페르 학파까지도.”

섬뜩한 협박이었고 또한 사실이었다. 케이라가 속한 조직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힘과 권력, 잔혹함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이나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로네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오늘의 변수는 언젠가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 터였다.

“걱정할 필요 없어.”

케이라를 돌아본 아르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이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달빛 아래 시이나(1)

학교로 돌아가는 시로네 일행은 불안한 듯 시이나의 눈치를 살폈다.

아르민과 있었을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으나 언제 그녀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 [59] 달빛 아래 시이나(2)

하지만 시이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땅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의기소침한 그녀의 모습에 시로네는 마음이 무거웠다.

어린 날의 사고만 아니었어도 아르민과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터였다.

그렇다고 덜컥 결혼을 해버린 아르민을 탓할 수도 없었다. 아끼는 여동생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그는 스스로 시이나의 곁을 떠난 것이다.

네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투덜거렸다.

“쳇. 남녀 사이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할 수 없지.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젠장! 학교에서는 그렇게 쌀쌀맞더니, 솔직히 저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두 주먹을 움켜쥐고 분개하던 네이드는 걸음을 빠르게 옮겨 시이나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어, 응?”

“저희들 배고파요. 기왕 나왔는데 밥이라도 사주세요.”

시이나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그들이 저지른 가택침입은 학교에서 징계를 내려도 모자란 사안이었다. 그런 마당에 태연하게 밥을 사달라니.

“넌 참 속도 좋다.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니?”

“뭐 어때서요? 징계를 받더라도 배는 채워야죠. 어차피 마법도 먹고살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시로네가 끼어들었다.

“그래요, 선생님. 밥은 먹고 들어가요. 저도 배고파요.”

이루키가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하자면 일단 귀족 구역으로 빠지는 게 좋을 거 같군요. 어차피 학교도 가깝고, 그쪽에 아주 맛있고 비싼 식당을 알고 있거든요.”

시이나는 짜증을 낼 의욕마저 사라졌다. 제자들의 태도가 천연덕스럽기도 했지만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그녀 또한 이런 기분으로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오늘은 휴일이니까.

“좋아, 알았어. 나쁜 짓 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일단 밥은 먹자. 하지만 학교로 돌아가면 각오해야 할 거야.”

“히히! 네!”

네이드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윙크했다. 시이나의 기분을 풀어 주는 게 1차 목적이지만 시간을 끌면서 징계를 무마해보려는 여지도 계산한 그였다.

귀족 구역에는 온갖 고급스러운 가게들이 즐비했다. 이루키는 가장 휘황찬란한 가게로 시이나를 데려갔다. 6층 높이의 건물 앞에서 시로네는 입을 떡하니 벌렸다.

잘나가는 귀족들이 다니는 만큼 입구부터 남달랐다. 백상아를 통째로 조각한 기둥이 발코니 천장을 떠받쳤고, 환상의 신수를 조각한 대리석이 좌우를 기도처럼 지켰다.

레스토랑 골드 큐피드.

모든 음식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우와! 여기는 나도 안 와 봤는데. 오늘 완전 호강하겠네. 시로네, 빨리 들어가자.”

“어? 그게, 저기…….”

시로네는 시이나를 살폈다. 예상대로 썩은 미소를 지으며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가근방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니 그럴 만도 했다. 무엇보다 선생님을 벗겨 먹을 생각이 아니고서야 이루키가 이런 음식점을 고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시이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할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시원하게 입구로 들어갔다.

“그래. 여기서 먹자.”

“오오! 우리 선생님! 역시 배포가 남달라!”

네이드의 아부에 이루키가 동참했다.

“어리석긴. 이 정도로 선생님의 배포를 평가하면 곤란하지. 공인 6급의 마법사라면 이딴 가게야 화장실처럼 드나들 수 있으니까. 안 그런가요, 선생님?”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기나 해. 대신에 밥만 먹고 바로 학교로 가는 거다.”

귀족 전용 레스토랑이 처음인 시로네는 문턱을 넘어서부터 드러나는 규모에 놀랐다.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밖에서 보는 크기와 안에서 보는 크기가 완전히 달랐다.

공간의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테이블이 드문드문했고 한쪽에는 각양각색의 수정등으로 장식한 바가 자리했다.

당연히 손님들은 귀족이었고 차고 다니는 장신구만 봐도 크레아스에서 잘나가는 자들인 게 분명했다.

“시로네! 이쪽이야!”

넋을 잃고 있던 시로네는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테이블로 향했다. 네이드와 이루키도 이따금씩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긴장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제비머리를 한 느끼한 인상이었는데 시이나를 향하는 눈빛이 꽤나 끈적거리자 시로네 일행은 적잖이 불쾌했다.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밖에서는 염연히 남자가 여자를 에스코트해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웨이터는 학생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오직 시이나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골드 큐피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런 아름다운 분이 친히 가게를 찾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군요.”

수작을 거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시로네 일행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쳇. 최고급 음식점이라더니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선생님이 너 같은 바람둥이한테 관심이라도 줄까 보냐?’

네이드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의 시선이 메뉴판의 가격표를 샅샅이 훑었다. 가장 비싼 음식을 시킨다. 어린애 취급하는 웨이터에게 한 방 먹여줄 심산이었다.

이루키는 아무 생각 없이 코스 요리를 줄줄이 주문했다. 탄력을 받은 네이드가 또 다른 코스 요리를 시켰다.

시로네는 여전히 고심 중이었다. 사실 하나같이 모르는 메뉴뿐이었다. 올라리스 조림이라는 것이 고기인지 생선인지 몬스터 혓바닥인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하지만 눈치라면 빠지지 않기에 태연하게 네이드와 같은 것을 주문했다. 아무래도 이루키가 시킨 메뉴는 불안했다.

VIP들에게나 접대하는 메뉴가 줄줄이 나오자 웨이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들이 지불할 능력이 되는가였다. 모든 음식에 프리미엄이 붙지만 최저가와 최고가의 메뉴도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착각한 것이라면 예상가의 12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웨이터는 불안한 눈초리로 시이나를 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메뉴를 고르고 있었다.

“저는 다스코 코스로 주세요. 리무네스 한 병하고요.”

시이나는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기분이 울적할 때면 코냑을 마셨다. 리무네스는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증류수로, 가격은 비싸지만 뒷맛이 좋아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어? 선생님, 술 드시게요?”

“안 될 거 없잖아? 너희들은 남의 집에 자물쇠 따고 막 들어가는데 나는 술도 못 마셔?”

네이드가 멋쩍게 웃었다.

“하하. 그건 그렇죠. 아, 맞다! 선생님 오늘 비번이셨죠?”

웨이터가 혀를 내두르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시로네 일행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히죽거렸다. 하지만 점차 이성이 되돌아오자 그들의 눈동자에 불안감이 깃들었다. 네 사람이 전부 코스 요리를 시켰다고 생각하자 머릿속에 저절로 가격표가 떠올랐다. 그제야 괜한 호기를 부린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으나 시이나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이었다.

공인 6급 마법사의 수입은 귀족 사회에서도 상위 10퍼센트 안에 들어간다. 더군다나 왕국 5대 명문 중의 하나인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니 올리페르 학파의 재력에 손을 대지 않고서도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엄청 성공한 인생이구나. 우리 선생님.’

돈을 좇는 인생이 아닌 꿈을 좇는 인생.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산 꾼의 자식인 시로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코스 요리가 네 가지나 되는 바람에 음식이 끊이지 않고 테이블에 올라왔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질린 표정으로 이쪽을 흘끔거렸다.

시로네와 친구들은 신경 쓰지 않고 서로의 음식을 뺏어먹으려고 혈안이었다. 네이드와 이루키는 귀족이고 시로네 또한 식사 예절 정도는 익혔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품위 따위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포크와 나이프가 테이블 위를 날아다녔으나 시이나는 그저 맛있게 먹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배가 불러 풍미가 줄어들자 마법학교 학생답게 마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이나에게도 즐겁고 유익한 자리였다.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우울했던 기분도 풀어졌으니 네이드의 작전이 맞아떨어진 셈이었다.

“헤헤헤. 선생님, 이 불초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님에게 한 잔 올리겠습니다.”

“흥! 그런다고 내가 봐줄 것 같아? 먹는 자리라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돌아가면 각오해.”

“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자, 받으시지요.”

네이드의 탁월한 붙임성은 이런 자리에서도 빛을 발했다. 시이나도 딱히 싫지는 않은 듯 주는 대로 술을 받았다. 코냑은 상당히 독한 술이었기에 시이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후후, 괜찮아. 이 정도는 상관없어.”

“아무렴요. 공인 6급의 마법사이신데 고작 술 따위에 지실 분이 아니죠.”

네이드는 시이나가 무슨 말을 하든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었다. 포크를 삼지창이라고 해도 믿을 기세였다.

“어쭈? 아주 필사적이네. 하지만 정말로 괜찮아. 나, 술 센 편이거든.”

시로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받으며, 시이나는 다시 독한 술을 스트레이트로 넘겼다.

1시간 후.

“야, 너! 너 말이야, 너! 네이드.”

“넵. 선생님.”

식기가 치워진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린 시이나가 빨개진 얼굴로 흐느적거렸다. 반면에 시로네 일행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1시간 만에 코냑 한 병이 바닥을 드러냈다.

시이나의 혀는 꼬여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살짝 잃은 상태였다.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는 시로네 일행은 눈동자만 움직여 시선을 주고받았다.

‘일 났네. 선생님 취하셨다.’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웅얼거리던 시이나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다. 의자에서 떨어질세라 네이드가 황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제 돌아가야죠.”

“요 말썽꾸러기!”

고개를 번쩍 쳐든 시이나가 네이드의 볼을 사정없이 잡아당겼다. 찹쌀처럼 늘어나는 뺨에 네이드가 아픈 표정을 지으며 끌려갔다.

“아야야야! 아파요!”

“말 좀 잘 들으란 말이야. 나도 에텔라 선생님처럼 착한 선생님 되고 싶단 말이야. 이상한 데 정신 팔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하란 말이야.”

“네네! 알았어요, 선생님! 진짜 아파요!”

“그리고 시로네, 이루키. 너희들!”

“넵!”

시로네와 이루키가 이미 세운 허리를 더욱 곧게 펴고 바짝 각이 잡힌 자세를 취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재능만 믿고 설렁설렁 하려고 들면 용서 안 해. 나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아무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보세요.”

“후우우.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으음.”

시이나의 눈꺼풀이 반쯤 감기더니 고개가 떨어졌다. 그러다가 결국 두 발을 베개 삼아 테이블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다.

“선생님, 정신 차리셔야죠? 선생님? 아직 계산도 안 했는데요?”

“잠 와. 잘 거야.”

“선생님?”

시이나는 대꾸가 없었다.

네이드는 얼빠진 표정으로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대책이 있을 리 만무했다. 어떻게 난국을 타개할 것인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건너편 테이블에서 지켜보고 있던 2명의 남자가 걸어왔다.

“아가씨께서 많이 취하셨군요. 마차를 대기시킬까요?”

말쑥하게 생긴 청년이 시이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뒤에는 호남형의 남자가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로네 일행의 눈빛이 동시에 싸늘해졌다. 이곳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이들이 처음부터 시이나를 주시하며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선생님? 선생님. 정신 좀 차려 보세요.”

최대한 빨리 시이나를 깨워서 나가는 게 상책이었다. 하지만 상체를 세우는가 싶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시 테이블에 쓰러지고 말았다. 네이드의 말에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캐치한 남자가 눈을 빛내며 치근거렸다.

## [60] 달빛 아래 시이나(3)

“아하! 교육자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귀족 서열 제4계급의 코사인 실버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크레아스의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계시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에게 집까지 모실 수 있는 행운을 주신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시이나는 꼬물꼬물 상체를 세웠다. 하지만 실버를 바라보는 대신 양손으로 이마를 지탱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아, 귀찮게. 오늘은 좀 취하고 싶었는데.’

오늘 따라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 제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케이라에게 무시당하고, 이제는 이상한 남자들까지 들러붙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시이나의 입가에 쓴웃음이 지어졌다. 어쩌면 지금 자신의 꼬락서니가 딱 실연당한 여자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후후. 그래도 나 좋다고 해주는 사람도 있네. 성격 포악하고 인정머리도 없는 나 같은 여자를.’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르민이 3년 전에 케이라와 나타났을 때도 배신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았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 하지만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제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했군요. 이거 죄송합니다.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여성분을 만나는 바람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봅니다. 결례였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괜찮아요. 피곤하니 그만 가주세요.”

시이나는 정말로 피곤했다. 물론 공인 6급 마법사의 정신력이라면 술을 깨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알코올이 주는 비현실적인 몽롱함이 아직까지는 필요했다.

“여성을 혼자 두고 가는 건 기사도가 아니지요. 제가 마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기대세요.”

실버가 시이나의 어깨를 붙잡고 부축하려는 자세를 취하자 시로네 일행이 즉각 반발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함부로 손대지 말아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나는 모셔다 드리려는 거야. 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니 너희들은 그만 돌아가거라. 선생님은 마차를 타고 가면 되니까.”

실버는 우격다짐으로 시이나를 부축하려고 했다. 그러자 시로네가 그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시이나 앞에서는 착한 양이었던 실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여자에게 무시당하는 건 소기의 목적을 위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애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 그의 자존심이 용납지 않았다.

“어이, 건방진 꼬맹아. 이런 버리장머리는 어디서 배웠냐? 좋게 말할 때 이 손 놔라.”

“선생님이 싫다고 하시잖아요. 그만 가주시죠. 선생님은 저희들이 모실 거니까요.”

“어린놈의 자식들이 발랑 까져 가지고. 아까 보니까 술을 먹인 것도 너희들이던데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거 아냐? 너희들 학교 어디야? 전부 퇴학당하고 싶어?”

시로네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굳이 학교 얘기를 꺼낸 이유는 시이나를 압박하고자 하는 속셈이었다. 교사가 이런 자리에서 사고를 치면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이다.

이루키가 말했다.

“결국 아까부터 이쪽을 살피고 있었다는 얘기군. 그렇다면 더더욱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 주자면, 여기 계신 선생님은 당신 같은 인간이 찝쩍거릴 분이 아니야.”

“당신? 너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냐?”

“그럼 당신을 당신이라 하지 뭐라고 불러? 변태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실버는 알큰한 취기를 분노로 바꾸어 이루키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하지만 곧바로 옆구리가 찌릿하면서 손에 힘이 빠졌다. 인상을 구긴 실버가 배를 움켜쥐고 물러섰다.

“크으윽! 뭐야?”

네이드가 손바닥에서 전기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꺼져. 다음엔 아랫도리를 지져 버릴 테니까.”

여차하면 무력행사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호남형의 남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실버의 뒤로 다가왔다.

“어이, 저 녀석들 마법학교 학생들이다.”

“마법학교? 알페아스 마법학교?”

실버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마법학교는 일반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와 위상이 달랐다. 더군다나 알페아스 마법학교라면 전국에서 최고의 귀족들만 몰린다는 왕국 5대 명문이었다.

실버가 눈을 굴리며 사태 파악에 주력하자 이루키가 코웃음을 치며 그에게 다가갔다.

“듣자 하니 우리를 퇴학시키겠다고?”

“아니, 그게…….”

“나는 메르코다인 이루키다. 퇴학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시켜봐.”

“메, 메르코다인?”

마신 술이 전부 깨는 기분이었다. 크레아스가 아무리 지방도시라도 토르미아 왕국의 귀족 중에서 메르코다인이라는 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귀족 서열 제1계급인 것은 물론 국왕의 자문기관인 ‘용뢰’의 수장을 수백 년 동안 빼앗긴 적이 없는 최고의 식자 가문이었다.

실버의 동공이 급하게 흔들리자 이루키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어딜 가나 소위 ‘가문팔이’ 귀족들은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혐오하는 방식으로 실버를 겁박한 이유는 시이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수작을 부릴 강단도 없는 놈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교사라는 약점을 이용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에 싹수를 잘라 버린 것이었다. 물론 올리페르 학파인 그녀가 이 정도의 일로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았지만.

“가자고, 실버. 어이, 실버!”

호남형의 남자가 실버의 팔을 잡아당겼다. 실버 또한 체면치레를 하게 해준 친구에게 고마워하며 꽁지가 빠져라 줄행랑을 쳤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시로네 일행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시이나에게 대놓고 수작을 부린 걸 보면 자신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게 분명했다. 덩치도 왜소하니 더욱 우습게 보였을 터였다.

“여기 물 더럽게 안 좋네. 역시 간판만 보고는 모른다니까. 우리 다시는 오지 말자.”

“그래. 아무튼 그만 나가자. 날도 어두워졌으니까.”

“선생님. 괜찮으세요?”

“음. 괜찮아. 그만 가자.”

네이드의 부축을 받은 시이나가 힘겹게 일어났다. 갑자기 꼬인 날파리들 때문에 그녀도 짜증이 났으나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제자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겠는가? 공인 6급의 마법사라도 바깥에서는 귀족의 법도에 따라 에스코트를 받는 것에 익숙한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다.

갑자기 제자들이 귀엽게 보였다. 흔쾌히 저녁 밥값을 계산한 시이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하늘에 달이 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달빛이 쏟아져 내리자 시이나는 하아 하고 희열이 가득한 신음성을 내뱉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술 때문이겠지만, 어쩌면 오늘 새로운 도약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아르민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술 때문이겠지만…….

“아아, 기분 좋다.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시이나는 소녀처럼 달을 올려다보며 빙글빙글 돌았다. 이제 막 가게에서 나온 시로네 일행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을 술이 잠시나마 녹인 것일까?

보랏빛 머릿결을 풀어 헤친 그녀는 달빛 아래 아름다웠다. 트렌치코트가 우산처럼 펼쳐져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 또한 재미있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혀를 차거나 인상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시이나의 모습은 사랑스러웠다.

시로네 일행도 말리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취한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선생님이 저런 성격이었구나. 이거 의왼데?”

“혹시…… 우리 특종 잡은 거 아냐?”

이루키가 눈을 번뜩이며 생각에 잠겼다.

“흐음. 이게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지? 연구회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 무기.”

“제대로 엮기만 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 시이나 선생님이 위증하는 성격은 아니잖아. 아마 본인도 기억을 떠올리면 창피하지 않겠어?”

네이드와 이루키가 모략을 꾸미는 도중에 시로네가 시이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야! 저, 저기!”

같은 자리를 맴도는 시이나의 발걸음이 꼬이고 있었다. 회전력이 떨어진 팽이처럼 조만간 쓰러질 기세였다.

“잡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지면 낭패였다. 시로네가 그녀의 등을 떠받치고 네이드와 이루키가 양쪽에서 팔을 잡았다.

“선생님, 정신 차려 보세요. 선생님이 멀쩡하셔야 저희들이 학교에 들어가죠.”

“으음. 어지러워.”

시이나는 갈지자로 비틀거렸다. 코냑 한 병을 1시간 만에 비워 버리고 수십 바퀴를 빙빙 돌았으니 정신이 멀쩡하겠는가? 술이 아니라 벌주를 마신 셈이었다.

“야, 야! 안 되겠다. 시로네, 네가 좀 업어 봐.”

“뭐어? 왜 나야?”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 네가 제일 힘이 세잖아.”

시로네는 한숨을 내쉬었다. 18세 소년 3명이 모인 상황이지만 마법 수련에 전념하느라 다들 못 자고 못 먹어 체력이 또래보다 떨어졌다.

그나마 시로네는 어릴 때부터 산을 타고 나무도 했던 전적이 있어서인지 친구들보다는 완력이 있는 편이었다.

“할 수 없지. 그럼 선생님 좀 내 등에 업혀 줘.”

“너무 싫은 티 내지 마. 선생님을 업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할 거 같아? 나는 오히려 부러워 죽겠는데.”

네이드의 표정은 조금도 부러운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안도하는 눈빛으로 얄밉게 히죽거리고 있었다.

“쳇. 말이나 못하면.”

시이나를 등에 업은 시로네는 걸음을 옮겼다. 귀족 구역을 벗어나자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평민에게 여가 활동은 사치일 뿐이었다.

“근데 시이나 선생님 의외로 작다. 막상 업어 보니까 되게 아담하네. 평소에는 내 키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심리적인 문제겠지. 원래 선생님들은 커 보이잖아.”

“그런가? 근데 의외로 또 무거워. 점점 힘들어진다고.”

이루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크크크. 아무렴 사람인데 안 무겁겠어? 여자도 다 뼈와 근육과 살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마 깃털처럼 가볍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가벼우리라는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여자를 업기는커녕 손조차 잡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킬 수는 없었다.

“아냐!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근데 이거 진짜 힘들어. 나 학교까지 못 갈 거 같아.”

“네가 못 가면 우리도 못 가. 그냥 참고 걸어 봐.”

“마법을 사용하면 안 될까? 에어 마법으로 띄우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인데 그건 좀…….”

막상 떠올려 보니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았다. 결국 꼼짝없이 가마 노릇을 하게 된 시로네는 새삼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투덜거렸다.

“남자가 3명인데 여자 1명 못 들고 뭐가 이래? 이럴 때는 리안이 부럽다니까. 리안이라면 시이나 선생님을 업은 나를 업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차라리 스키마를 배울 것을 그랬어.”

네이드와 이루키는 침묵을 지켰다. 솔직히 가녀린 여자 하나 업지 못하고 있으니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기는 했다.

하지만 정말이지 여자는 생각보다 무거운 생물체였고, 책밖에 모르던 그들은 완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다.

“어쩌겠냐.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밖에 안 했는데. 머리 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는데 말이야.”

이루키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럼 머리를 써보면 되잖아. 지금 당장 스키마를 익히는 거야. 시로네, 어때? 할 수 있겠어?”

“그게 말이 되냐? 갑자기 스키마를 어떻게 해?”

“시도는 해볼 수 있지. 나 같은 경우 스피릿 존도 한 번에 했는데. 설마 너희들은 못 한 거야?”

네이드가 말했다.

“아니, 나도 한 번에 성공하기는 했어. 대충 감 잡고 시작하니까 바로 되던데. 시로네, 너는 어때?”

시이나의 무게에 낑낑대던 시로네가 고개를 들었다.

“응? 아, 나도 한 번에 하긴 했어. 사실 당시에는 그게 스피릿 존인지도 몰랐지만.”

스피릿 존인지도 모른 채 스피릿 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야말로 시로네답다고 생각한 이루키가 킥킥 웃었다.

“특이하긴 하네. 아무튼 그러니까 당장 해 보라는 거야. 기본 원리는 똑같지 않아?”

듣고 보니 이루키의 말이 그럴듯했다. 물론 적성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도전한다고 손해 보는 일은 아니었다.

“그럴까? 진짜로 한 번 해 볼까? 사실 팔이 뻐근해서 죽을 지경이거든.”

## [61] 달빛 아래 시이나(4)

네이드가 부추겼다.

“해 봐, 해 봐. 우선 무아의 상태에서 신체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거야. 그런 다음…….”

“나도 뭔지는 알고 있다고. 좀 기다려 봐. 집중 좀 하게.”

친구들이 입을 다물자 시로네는 눈을 감았다. 스피릿 존에 들어가기 직전의 무아의 상태. 거기에서 신체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온몸의 감각을 통찰로 깨우는 것이다!

“으으으…… 으아아아! 아, 안 돼. 더 힘들어지고 있어.”

이루키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바보야, 진짜로 되겠냐? 스피릿 존에 특화되었다는 건 스키마에 완전히 재능이 없다는 뜻이야.”

“푸하하하!”

네이드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리자 시로네가 도끼눈을 치켜뜨고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이씨, 나 안 해! 바꿔!”

결국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시이나를 업기로 했다.

하지만 네이드는 시로네가 걸어온 거리의 절반이 지나자 퍼져 버렸고, 이루키는 아예 열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후들거리는 팔로 다시 시이나를 들쳐 업은 시로네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야, 우리들 엄청 찌질해 보이지 않냐?”

“생각만 해도 되는 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시로네.”

네이드의 말을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그렇다고 자괴감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단지 너무 지쳐서 말하기가 귀찮을 뿐이었다.

학교에 도착할 무렵 시로네가 문득 말을 꺼냈다.

“저기 있잖아……. 우리 그건 그만두자.”

“그거라니? 어떤 거?”

“오늘 있었던 일로 시이나 선생님과 협상하는 거.”

“흐음.”

네이드 또한 양심에 찔리는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연구회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그렇지만 딱히 좋은 방법도 없잖아. 연구회를 살릴 방안이라도 생각났어?”

“없어. 하지만 그것과 이건 별개여야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오늘…… 시이나 선생님에게 굉장히 슬픈 날이었을 거 같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분이 그래.”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이었다. 어릴 때부터 마음에 담아 두었던 사람과 작별을 했다. 술 한 잔으로 끝난 것만으로도 시이나는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무 감상에 젖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머리 쓰는 일 빼면 시체잖아.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야지. 당장 연구회를 살릴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루키의 말 또한 설득력이 있었다.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험난함의 연속이다.

네이드도 슬그머니 마음이 기울었다.

“흐음. 솔직히 시이나 선생님은 상대하기 힘든 타입이야. 약점이 없잖아.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했겠냐? 둘도 없는 천운의 기회인 건 맞아.”

이루키가 맞장구를 쳤다.

“성격 까칠하지, 계획에 빈틈없지, 학생 관리 꼼꼼하지. 특히나 전에 들었잖아. 오버플로우를 막기 위해 시로네와 사귀고 어쩌고 하는 얘기까지 서슴없이 하셨지.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힌 적수를 상대로 우리가 뭘 어쩔 수 있겠어?”

‘이것들이……!’

눈을 감고 듣고 있던 시이나는 울컥했다. 기분도 울적하고 몸도 노곤하여 조용히 업혀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들어 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잖아.”

시로네가 말했다.

“어째서 선생님이 교사의 길을 선택했는지, 오버플로우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시이나 선생님은 우리가 선생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려는 거야.”

“그야 그렇지만…….”

“선생님이 어떤 일로 인해 교사가 됐든지 간에 진심으로 우리를 위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어때? 선생님의 고통스러운 과거까지 약점으로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잖아. 연구회 선배님들도 이렇게까지 망가진 후배의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으실 거야.”

이번에는 이루키도 반박할 수 없었다. 마법사는 언제나 효율을 추구하지만 너무 효율에 치우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

“……너는 꼭 이럴 때 정곡을 찌르더라.”

결정을 내린 네이드가 홀가분하게 말했다.

“좋아. 오늘 선생님의 일은 우리만의 비밀로 덮어 두자. 어때, 이루키?”

“연구회 일과 연계할 수 없다면 불만 없어. 솔직히 교육에 있어서 시이나 선생님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긴, 우리가 악당이지. 시이나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꼼꼼히 챙겨주는 선생님도 드문 데 말이야. 게다가 우리가 한 짓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봐주신 편이잖아.”

이루키가 말했다.

“이번만큼은 양보해 주지 뭐. 연구회 일이야 어차피 우리 3명이서 머리를 맞대면 뭐라도 해법이 나오지 않겠어?”

시로네가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다? 설령 내일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오늘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야. 절대로 발설하지 않기!”

“좋아! 낙찰!”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자 차라리 속이 편했다. 시로네 일행은 전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시로네의 등에 업혀있는 시이나가 언제부턴가 눈을 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법학교의 정문이 보였다. 반쯤 녹초가 된 시로네는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경비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아직 자정이 지나지 않았기에 야근 근무조가 퇴근하지 않고 있었다.

“어떡하지? 이 꼴로 돌아가면 무슨 소문이 날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우리는 무단 외출이잖아?”

“할 수 없지. 여기서부터는 마법을 사용하자. 내가 시이나 선생님을 띄울 테니까 네가 받쳐 줘.”

“잠깐만. 일단 선생님 좀 내려놓고. 이루키, 도와줘.”

무릎을 구부리는데 갑자기 등 위의 무게감이 사라졌다. 놀란 시로네가 뒤를 돌아보자 시이나가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술에 취한 모습은 사라지고 눈동자는 별빛처럼 또렷했다.

“서, 선생님?”

허탈해진 시로네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다. 걸을 수 있었다면 여태까지 고생해서 업고 온 자신은 뭐가 되는가?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내가 진짜로 취할 줄 알았니?”

시로네는 거친 숨을 내쉬며 울먹거렸다.

“그런데 어째서 여태까지……?”

“비싼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이 정도 고생도 안 하려고 그랬어? 아무튼 따라와. 곱게 들어가고 싶으면.”

시로네 일행은 귀신에 홀린 듯 시이나를 따라갔다. 그녀를 알아본 경비가 졸린 눈을 치켜뜨고 인사했다.

“아, 좋은 밤입니다, 시이나 선생님.”

“네. 수고하시네요.”

“그런데…… 학생들하고 함께 외출하신 겁니까?”

“네. 현장학습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교칙상 야밤에 학생출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교내에서 명망이 높은 시이나의 말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지레 겁을 먹은 시로네 일행은 빠르게 교문을 지나쳤다. 경비가 뒤에서 부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무사히 중앙 공원까지 도착하자 시이나가 몸을 돌려 그들을 노려보았다.

“히익!”

시로네 일행은 비로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돌아왔다는 것을.

“오늘 있었던 일은 그냥 넘어가 주겠어.”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이 나오자 시로네 일행은 놀란 눈으로 시이나를 깜박깜박 쳐다보았다.

“오늘부터 다시 한 달의 시간을 줄게. 그게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상 카드야.”

시로네 일행은 무슨 말인지 깨달았다. 유예기간을 초기화시켰다는 것은 진검승부를 해보라는 뜻이었다.

“한 달 안에 학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발표회를 열든 귀신을 데려오든 그건 너희들의 재량에 달렸어. 정말로 연구회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학교와 싸워서 원하는 것을 쟁취해. 그게 나의 교육관이고 내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시로네 일행은 울컥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시이나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네! 기대하세요! 반드시 학교를 놀라게 할 테니까요!”

“맞아! 쩔쩔매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생각해서 도전해보자!”

시이나는 자신감을 되찾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들의 의욕이 분기탱천할 때면 불안감이 먼저 더는 게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다.

‘후후. 열심히 해 보렴. 지긋지긋한 제자들아.’

보이지 않는 것(1)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연구회를 찾은 시로네는 소파에 누워있는 네이드와 이루키를 보고 힘없이 손을 들었다.

“안녕.”

“어제 잘 잤냐?”

“몰라. 잤는지도 모르겠어. 너희들은?”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어제도 밤새도록 회의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

시로네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은 무조건 결정해야 돼. 대책을 강구해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초자연 심령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잖아. 하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단 말이야.”

어젯밤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다. 말하기조차 지친 그들은 멍하니 한곳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비어서 백지가 된 기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시로네의 눈에 초점이 되돌아왔다.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네이드와 이루키가 벌떡 일어났다.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등장했던 패턴과는 확실히 달랐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딜레마가 이거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 그게 큰 문제지.”

“그러니까 내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보여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태까지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고 있었다고 할까? 차라리 보여 주지 않는 쪽으로 방법을 세워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여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발표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도 상통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를 깨달았는지 생각에 빠져들었다.

“검증할 수 없는 건,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군.”

“바로 그거지. 내가 연구회에 들어온 이유도 너희들이 무언가를 보여 줬기 때문은 아니야.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루키의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지어졌다.

“어째서 그 생각을 못 했지? 맞아, 검증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됐어. 우리도 모르는 걸 보여 줄 필요는 없었다고. 오히려 그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끔 만든다는 거지?”

네이드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해답이라고 확신했다.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 시로네를 끌어안고 뒹굴었다.

“시로네! 이리 와! 네가 우리 연구회를 살렸어! 내 첫 키스를 가져가도 좋아!”

“징그러! 저리가!”

시로네와 네이드가 소파에서 대거리를 하는 동안 이루키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어려운 건 이제부터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시로네의 말이 해법이지만 어쨌든 발표회의 성격을 갖추기는 해야 돼. 결국 가시적인 성과물은 필요하다는 거야.”

네이드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시로네도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렸다. 장난이나 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한 번 생각해보자.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가닥이 잡히자 떠오르는 방법은 무궁무진했다. 요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도록 만들 만한 무언가였다.

“청각적인 게 좋지 않을까? 설계도 쉽고.”

“효율적이긴 하지. 하지만 효과적이지는 않아. 학교 측이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도 생각해야 돼.”

“그렇다면 시각적인 것으로 하자. 가능하다면 청각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거야.”

“그럼 무엇을 시각화하지? 초자연? 심령?”

“초자연은 대중적이지 않아. 심령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드가 손을 들었다.

“나도 심령에 한 표. 영혼이나 귀신, 심령 현상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어떤 거?”

시로네가 말했다.

“귀신이 낫지 않을까? 강렬하니까.”

“하지만 유치하지 않으려나?”

네이드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루키는 시로네의 말이 옳다고 보았다.

“내 생각에도 귀신이 나아. 관건은 사람들의 생각에 강하게 침투해야 한다는 거야.”

“으으음. 아무리 생각해도 유치한데.”

시로네가 말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효과야. 다른 건 부차적인 문제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 [62] 보이지 않는 것(2)

“생각해둔 거라도 있는 거야?”

“심리 트랩을 설치하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시로네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작전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네이드와 이루키는 말이 없었다. 살짝 자신감이 떨어진 시로네가 말을 덧붙였다.

“굳이 이런 방식은 아니라도 일단 해두면 승산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 키워드를 사용한달지…….”

이루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시로네, 괜찮을 거 같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거 꽤나 오묘한데. 이 방법이라면 발표회를 복선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자 시로네 일행은 세부적인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남은 문제는 이거야. 어떻게 귀신을 만들지?”

기술적인 부분은 네이드의 전공이었다. 소파에서 일어난 그가 라이트닝 섀도를 시전하자 전기적인 잔상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네이드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닝 섀도를 시전하면 리얼한 귀신의 형상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무도 속아 주지 않겠지. 일단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되겠군. 귀신의 형상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떠오르는 건 이거야. 예를 들어 라이트닝 섀도를 움직이게 하려면 엄청난 속도로 마법을 시전하면 돼.”

네이드는 라이트닝 섀도를 연달아 시전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단절적이기는 했지만 잔상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군. 착시현상을 이용해서 실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하지만 마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더군다나 내 수준으로는 개체 수를 늘릴 수도 없고.”

시로네가 물었다.

“기계 장치를 이용하면 어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장치를 만든다고 해도 고려해야 할 게 산더미라고. 가장 큰 문제는 단지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속지 않는다는 거야. 정말로 귀신처럼 보이게 하려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

홀로그램 장치를 만든 적이 있는 네이드에게 귀신의 환영을 구현하는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가짜라는 걸 금방 눈치채고 말 것이다.

무언가를 고심하던 이루키가 말했다.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면 어떨까?”

“반응을 예측한다고?”

“복잡계 이론을 도입하는 거지. 대중의 행동패턴을 전부 분석해서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야. 마치 피드백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유발하는 방법. 하지만 가히 엄청난 정보량이야. 정보를 전달할 매개체와 통제장치가 필요해.”

“흐음. 정보 전달이라. 확실히 내 전기력으로는 한계가 있지. 그렇다면…… 아!”

네이드는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광자 출력! 시로네의 광자 출력이 있었어!”

“아하. 광자 출력으로…….”

시로네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타깃팅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익힌 마법이지만 마법사회의 첨예에서는 광자 출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연구가 한창이라고 들었다.

“이제 정리가 되는군. 네이드는 홀로그램 장치를 만들어. 나는 장치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짤 거야. 내 프로그램을 장치에 전송하는 게 시로네의 광자 출력이지. 아마 막대한 출력이 필요할 텐데, 할 수 있겠어?”

“반드시 해내야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어둠에 드리운 한 줄기 빛이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에 희망이 생긴 것만으로도 네이드는 감격스러웠다.

“할 수 있다. 연구회를 지킬 수 있어. 물론 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이야.”

“성공하면 학교가 뒤집어지겠지?”

“그 정도가 아닐걸? 난리가 날 거야. 난 여기에 걸어보겠어. 게다가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 크크크. 벌써부터 선생님들의 반응이 기대되는데?”

시로네 일행은 서로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존망을 걸고, 마법학교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려 하고 있었다.

\* \* \*

시로네는 광자 출력의 위력을 높이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출력의 세기를 키우는 한편 유지 시간을 늘리는 게 관건이었다. 질량이 없는 광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못하기에 공격마법으로 활용할 수가 없지만 이번에는 그런 특성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 이스타스의 아무 창고나 들어가서 훈련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시로네는 두 손을 내민 매지컬 액션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광자 출력을 시전했다. 한 줄기의 광선이 벽면에 둥그렇게 퍼졌다. 우선은 시간이었다. 이 상태로 10분을 버티지 못하면 출력을 높이는 건 꿈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광자 출력을 10분간 쏜다는 것은 클래스 파이브의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어차피 네이드의 홀로그램 장치도, 이루키의 복잡계 방정식도 마찬가지의 도전이었다.

‘내가 해내야 해. 내가…….’

시로네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3분이 넘어가자 의식이 흐릿해졌다. 스피드 건 시험 당시에는 단발적인 광자 출력으로도 겨우 1분을 버틴 정도였다. 그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성장이었으나 여전히 목표치에는 한참을 못 미쳤다.

“허억! 헉!”

갖은 힘을 짜내서 버틴 시간은 3분 20초. 앞으로 15일 안에 이 시간을 10분대로 늘려야 했다. 기록을 재고 난 뒤에는 반드시 20분을 쉬었다. 휴식을 소홀히 여기다가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훈련이었다.

주저앉은 시로네는 옆방에서 들리는 소음에 주의를 기울였다. 네이드가 용접작업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쉬는 틈을 타서 그쪽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옆방의 문을 열자 네이드가 온갖 부품 속에 파묻혀 있었다.

“여어, 왔어? 출력 시간은 어때?”

“그럭저럭. 20초 늘렸어. 그쪽은?”

“보다시피 아직도 엔진 작업 중이야.”

“시간에 맞출 수 있겠어?”

“맞춰야지. 걱정하지 마. 원래 프로토 타입은 시간이 걸려. 생산 공정에 들어가면 오류를 찾아도 바로잡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꼼꼼하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나저나 이루키가 말한 건 어떻게 됐어?”

“아, 그거? 어제 받았어. 이거.”

네이드는 손가락 굵기의 줄을 시로네의 발밑으로 던졌다. 외피는 고무 재질이었고 내부에는 석영처럼 투명한 막이 관통하고 있었다. 이루키가 용뢰의 수장으로 있는 아버지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공수한 물건이었다.

300개의 홀로그램 장치가 학교의 요소요소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니 시로네 혼자서 모든 장치에 광자 출력을 시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처음에 네이드는 거울을 떠올렸다. 시로네가 광자 출력을 시전하면 빛의 전반사 성질을 이용하여 기계 장치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실로 구현하기에는 빛이 휘어져야 하는 구간이 너무 많았다.

네이드는 거울이 훨씬 많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했다. 작은 호스에 거울을 붙여 빛이 지나가는 터널을 만들면 직선을 미분하듯이 빛이 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네이드는 자랑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만들 수만 있다면 그날부터 돈방석에 앉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루키가 산통을 깼다. 매달 도착하는 아버지의 편지에는 마법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가 적혀있는데 몇 달 전의 편지에 네이드가 말한 것과 똑같은 물건이 이미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명칭은 ‘광섬유’였다.

네이드의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법의 최첨단을 달리는 상아탑에서조차 이제 막 개발이 들어간 분야였기에 이루키조차 아까워했다.

하지만 막상 물건을 받고 분석하자 네이드는 고개를 저었다. 현재 자신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을 만큼 섬세한 공학기술이 집적되어 있었다.

‘그래도 상아탑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잖아. 네이드도 정말 대단하다니까.’

시로네는 광섬유를 들고 가까이에서 살폈다. 눈으로 보기에는 뭐가 대단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용케 구했네.”

용접을 마친 네이드가 빨개진 눈을 비비며 일어섰다.

“상아탑 쪽에서도 초기의 초기 단계라 성능은 기대할 수 없을 거야. 일단 시연부터 해 보자. 내가 테스터로 만들어 둔 게 있어.”

네이드는 개조한 광섬유를 시로네에게 넘겼다. 조금 전에 보여준 것과 다르게 끝에 투명한 구슬이 장착되어 있었다.

“이걸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붙잡고 광자 출력을 시전하면 돼. 효율은 내가 계산할 테니까 지금 해 봐. 대신에 전부 쏟아 내야 한다. 최대치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로네는 수정구를 움켜쥐고 광자 출력을 시전했다. 어차피 휴식 시간도 끝났으니 거칠 것이 없었다. 그의 손에 광원이 맺히더니 수정구가 창백하게 빛났다. 광섬유와 연결된 네이드의 장치에서 바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출력 한계치인 3분이 지날 때까지 계기판을 주시하고 있던 네이드가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아, 이루키의 말이 맞네. 이거 완전 초기 개발품인데? 하긴, 이 정도라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야 하나?”

“그렇게 안 좋아?”

“효율이 18퍼센트밖에 안 돼. 네가 쏘아 보내는 빛의 양의 18퍼센트만이 목적지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야.”

“18퍼센트…….”

듣는 순간 시로네도 허탈해졌다. 광자 출력을 10분간 유지하는 것조차 요원한 상황에서 전달 효율 18퍼센트라면 지금보다 다섯 배는 출력을 높여야 겨우 100퍼센트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였다.

“시로네, 할 수 있겠어? 네가 출력량을 높이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마법의 고출력 에너지는 기계로도 구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시로네는 배수의 진을 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 볼게. 연습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럼 나는 다시 연습하러 간다.”

“진짜지? 진짜로 해 주는 거지?”

문을 나서는 시로네가 고개를 틀며 소리쳤다.

“알았다니까!”

\* \* \*

시로네는 창고에 대자로 뻗어 숨을 헐떡거렸다. 반나절 동안 광자 출력을 시전한 여파는 정신을 넘어 육체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후아! 후아!”

광자 출력의 마지막 기록은 3분 20초. 아침에 쟀던 기록과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정신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도달한 기록이라 성과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시간 전에 2분 34초까지 기록이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막판에 기를 쓰고 덤빈 게 주효했다.

‘그렇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10분을 달성하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광자 출력은 사출식이라는 점에서 단발성 액티브 마법보다 정신력 소모가 월등히 빨랐다. 그런 마법을 10분간 유지한다는 건 프로들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하아, 모르겠다. 내일 멀쩡한 상태에서 다시 해봐야지.”

네이드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로네, 끝났어?”

“어. 오늘은 죽어도 못 해. 일단 좀 쉬어야겠어.”

“나도 스파크만 봤더니 피곤해 죽겠다. 자정이 넘었어. 이루키한테 돌아가자고 하자.”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되었던가? 계산해 보니 7시간 이상을 광자 출력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생명이 위험한 수준의 훈련량이었다. 만약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마법 수련 금지 처분을 내릴 터였다.

시로네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네이드의 몰골 또한 말이 아니었다. 눈은 퀭했고 오랫동안 전광에 노출되어서 얼굴색이 울긋불긋했다.

연구회로 돌아가자 이루키가 학교의 조감도를 펼쳐 두고 빠르게 펜을 놀리고 있었다. 작전 당일 날 발생할 변수를 고려하여 행동 패턴을 방정식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네이드는 그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시로네나 자신도 그렇지만 이루키 또한 엉덩이를 붙인 이후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듯했다.

“어때, 이루키? 계산은 잘돼?”

이루키가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럭저럭. 시간에는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이드는 자신의 과도한 욕심이 친구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다.

“너무 무리한 요구였나? 솔직히 전교생의 행동 패턴을 전부 계산한다는 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말 시키지 마. 지금 바빠.”

그 말을 끝으로 이루키는 입을 다물었다. 노트 위에 수식들이 무섭도록 빠르게 적혀 나가고 있었다.

## [63] 보이지 않는 것(3)

광기에 가까운 집착 그리고 희열.

시로네는 오싹했다. 모두 며칠째 잠을 잊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계산해보니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듯했다.

시로네가 한창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작업량은 아니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전보다 피곤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마치 고통이 마비된 듯한 감각이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농땡이를 부리더니, 막상 할 때가 되니까 무섭게들 하는구나.’

말 그대로 자는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자신의 분야에 매진하는 모습에서 시로네는 전에 없는 성취욕을 느꼈다.

“네이드, 지금 피곤해?”

“아니, 전혀. 아니, 피곤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 머리가 열린 기분이야.”

“나도 그래. 이루키는 작업 중이니까 우리는 대본부터 만들자. 포스터에 들어갈 문구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자잘한 것도 막상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 그럴까? 그러면 일단 내일 포스터부터 붙이자.”

“괜찮겠어? 아직 작업량을 예측할 단계도 아닌데.”

“감수해야겠지. 공표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 다급한 티를 내고 싶지 않거든. 심리전이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네. 그럼 나는 포스터 문구를 만들게, 너는 디자인 을 생각해 봐.”

두 사람은 테이블에 종이를 깔고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밤이 깊은 시각이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밝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끝나 갈 무렵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었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발표회 안내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이었다. 음지의 연구회답게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이름조차 생소했다. 특히나 포스터는 헛웃음이 나올 만큼 몰상식했다. 마법학교의 정경을 왜곡하여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마치 서커스단의 공연 포스터를 보는 듯했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 전격 발표회!

충격적인 폭로! 영혼의 정체를 알고 싶은 사람은 제7강연장으로 모이시오.

“심령과학? 뭐야 그게? 귀신같은 거 말하는 거야?”

“이런 연구회도 있었구나. 진짜 할 일 더럽게 없나 보다. 대체 누구지? 이런 바보 같은 연구회에 들어간 애들이?”

“어라? 얘들아, 이것 좀 봐.”

여학생이 포스터의 하단을 가리켰다. 연구회원들의 이름을 발견한 학생들의 눈이 똥그래졌다.

“시로네 선배님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명이인이라도 있나?”

“그럴 리가 있냐? 진짜 시로네 선배님이지. 여기 옆에 메르코다인 이루키랑 네이드 선배님도 있잖아.”

“그런데 3명이 전부야? 수행평가 때문에 만든 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무리순데. 어째서 이런 연구회를?”

“발표회가 언제지? 우리도 참석할까?”

“가보고는 싶네. 시로네 선배님이 있다니까 왠지 흥미가 생기는데? 혹시 정말로 귀신의 정체를 밝혀낸 거 아냐?”

“보면 알겠지 뭐. 깔깔깔! 아무튼 재밌겠다.”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발길을 돌렸다. 학술회가 아닌 연극 공연을 보러가는 분위기였다. 반면에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처럼 음지에서 활동하는 자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남들의 이목을 피해 모인 그들이 소곤거렸다.

“어떻게 된 거야? ‘초심령회’에서 발표회라니?”

“첩보로는 시이나 선생님하고 반목한 모양이던데. 한판 붙기로 한 거겠지. 하지만 별수 있겠어? 예전의 초심령회가 아니야. 영광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이루키는 서번트고 네이드의 수완도 무시할 수 없지. 신규 회원인 시로네 또한 블랙 매지셔를 해체시킨 전적이 있어.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크크크. 블랙 매지셔야 저급반 애들뿐이었잖아. 아무튼 지켜보자고. 초심령회가 없어지면 한바탕 전쟁이 치러지겠군. 이스타스의 두 번째 주인 자리를 놓고 말이야.”

“쉽지 않을 거야. 여성 인체 연구회가 예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으니까. 경제 연구회 ‘금화륜’도 블랙마켓을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어. 한몫 단단히 챙길 기회라는 거겠지.”

“흥. 우리 인형 수집회도 만만치 않아. 내 사랑스러운 포코를 걸고 맹세하지. 이스타스의 ‘상층부’는 우리의 차지야.”

전설로만 내려오는 이스타스의 상층부를 떠올린 그들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정은 저마다 제각각이지만 이번 발표회가 흥행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다.

반면에 당사자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은 오직 하나였다.

어째서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되는가?

하루가 200시간쯤 되었다면. 아니, 못해도 48시간만이라도 있었다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망상에 시간을 허비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세 사람은 하루를 최대한 잘게 쪼개면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

프로토 타입의 개발에 성공한 네이드는 시로네와 이루키가 보는 앞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홀로그램 장치는 밥그릇을 엎어놓은 듯한 반구형의 기계였고 외곽에 출력 단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이루키가 장치에 함수를 설정하는 동안 시로네는 광섬유의 수정 구슬을 쥐고 기다렸다.

“시로네, 광자 출력 시전해 봐.”

“괜찮을까? 아직 완벽한 수준이 아닌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일단 시연을 해야 보완할 점도 찾을 수 있으니까.”

“알았어.”

두 개의 수정 구슬을 각각 움켜쥔 시로네는 강력한 광자 출력을 시전했다. 홀로그램 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전기가 발생하더니 반투명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전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선명도는 한계가 있지만 네이드는 오히려 그편이 낫다고 보았다. 학생들이 상상하는 귀신의 모습 또한 이런 느낌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홀로그램이구나.”

귀신은 고대 갑옷을 입은 병사였다. 얼굴이 끔찍하게 문드러져 있었고 몸의 곳곳에 뼈가 드러나 있었다.

“일단 프레임은 괜찮네. 이루키, 이번엔 네 차례야.”

이루키는 네이드가 만든 컨트롤러를 작동시켰다. 버튼은 4개 밖에 없지만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패턴을 표현할 수 있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병사의 홀로그램이 여러 가지 동작을 선보였다. 병사가 창고를 걸어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루키는 만족스러웠다.

“일단 함수에 문제는 없네. 이대로 가도 되겠어. 이제 남은 건 시로네야. 괜찮겠어? 발표회 당일에는 장치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직접 시연해 본 시로네도 걱정스러웠다. 발전력은 네이드의 전기력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정보 전달력이었다. 고작 홀로그램 장치 하나를 가동하는데도 정신이 꽤나 피로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볼게. 그래도 유지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희망적이야. 그럼 이제 네이드는 대량생산에 들어가겠네. 이루키 쪽은 끝난 건가?”

“아니, 나도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아. 심리적 변화까지 고려하다가는 분석하는 데 1년은 걸릴 거야. 대략 5퍼센트 이상의 확률을 실질적인 변수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시간에는 맞출 수 있을 거야.”

“일단 나도 프로토 타입이 나왔으니 오늘부터 승부수를 띄워야지. 예행 연습할 시간은 없어. 남은 시간 동안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장 부담이 큰 사람은 시로네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장치가 몇 개 고장이 나더라도, 이루키의 함수가 조금 틀리더라도, 어쨌거나 작전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출력이 약해지면 작전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할뿐더러 학생들의 비웃음까지 사게 될 터였다.

‘리미트 10분.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발표회는 하나 마나야.’

창고로 돌아온 시로네는 여태까지의 훈련 과정을 되짚어보았다. 정신 강화는 리바운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추락과 상승을 지그재그로 하는 형태. 게다가 추락폭이 커질수록 상승폭도 커졌다.

“정신을 한계까지 몰아갈수록 강화의 폭도 커진다.”

시로네가 내린 결론이었다. 만약 육체수련에서 이런 방식을 차용하다가는 한 달도 견디지 못하고 몸이 부서질 테지만 정신에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탄력성이 있었다. 특히나 내구력이 강점인 시로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수련 방법은 없었다.

의식이 파괴되기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

그만큼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

‘더, 더 정신을 두들겨야 해!’

벽에 비친 광원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 \* \*

친구들과 약속했던 마지막 날이었다.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로네가 훈련 중인 창고는 광자 출력의 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양손으로 광자를 쏘는 시로네는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몸이 점점 비틀리고 두 다리가 고통에 버둥거렸다. 의식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쳐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으아아아아!”

시로네는 한 줌의 정신력까지 모조리 퍼냈다. 다음 순간 수도꼭지를 잠그듯 빛이 사라졌다. 암흑으로 변한 창고에서 무릎을 꿇는 소리가 쿵 하고 들렸다.

“허억! 허억!”

시로네는 무릎으로 기어가 톱니바퀴 시계의 버튼을 내리치고 시간을 확인했다.

10분 32초.

“하, 하하하…….”

허탈한 웃음이 나올 만큼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광자 출력을 무려 10분 이상 유지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천 번의 정신적 리바운드를 경험한 덕분이었다. 스피릿 존이 비약적으로 강해졌고 덩달아 주특기 마법의 위력도 클래스 파이브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철문이 열리면서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네이드가 들어왔다. 투명망토를 쓰고 학교 곳곳을 돌아다녀야 했던 그의 안색은 전보다 훨씬 안 좋아져 있었다.

“시로네, 훈련은 끝났어. 리허설 할 시간이야.”

시로네가 도달해야 할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걸 알고 있는 네이드는 일부러 성과를 묻지 않았다. 땀을 쏟아내던 시로네가 톱니바퀴 타임워치를 집어 던졌다. 그것을 받아든 네이드의 눈이 크게 떠졌다. 10분 32초. 경악할 만한 수치였다.

“너……. 진짜로 해낸 거야?”

엄지를 치켜세운 시로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목표 달성. 화끈하게 해 보자.”

\* \* \*

알페아스 마법학교 제7강연장.

발표회는 오후 5시였지만 1시간 전부터 강연장 앞은 사람들로 바글거렸다. 소문이 퍼지고 퍼져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발표회를 참관하러 대부분의 학생이 모였다.

“우와! 사람 많다. 나도 연구회 이름은 처음 들었는데. 역시 스타는 다르다고 할까?”

세리엘이 늘어선 줄을 보며 감탄했다. 시로네의 스피드 건 시험이 끝난 이후 졸업반으로 진급한 그녀였기에 연구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었다.

에이미도 의외라는 눈빛이었다. 클래스 파이브, 그것도 회원수가 3명밖에 안 되는 연구회가 이토록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다.

“사고를 좀 많이 쳤어야지. 어쨌거나 흥행은 성공했네.”

“시로네가 이루키랑 친하게 지낼 줄은 몰랐어. 죽네 사네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죽고 못 사는가 봐.”

두 사람이 줄을 서자 고급반 학생들이 술렁거렸다. 무려 졸업반의 선배들이 찾아온 것이다. 옷깃에 달린 클래스 쓰리의 배지만 보고서도 경외의 눈빛이 절로 켜졌다.

“와. 에이미 선배님이다. 이런 허접한 발표회가 졸업반 선배님들까지 참관할 일인가?”

“멍청아. 시로네 애인이 에이미 선배님이잖아. 세리엘 선배님도 고급반에 있을 때는 항상 붙어 다녔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 저기 선배님들은 뭔데?”

학생들의 시선이 한곳에 집중되었다. 에이미와 세리엘도 뒤를 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에이미, 저기 봐. 케이든이 왔네?”

클래스 투의 케이든이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었다. 주위에는 연금술의 리차드. 일렉트릭 몬스터 라이컨. 소나의 헤르시 등 고급반 아이들에게 거룩한 이름인 클래스 투의 실력자들이 다수 모여 있었다.

## [64] 보이지 않는 것(4)

하지만 클래스 투의 선배들조차도 이제 막 줄에 들어선 남자의 인지도에 비하면 조연에 불과했다.

기성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미남자가 한가로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클래스 원의 아르디노 페르미였다.

마법학교의 정점인 클래스 원이 등장하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세리엘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속삭였다.

“우리야 그렇다 쳐도, 클래스 투도 모자라서 페르미까지 온 것은 이상하지 않아?”

“시로네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지금 도착한 졸업반 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겠어?”

“음, 글쎄? 친해지기 어렵다는 거?”

“바로 그거야. 음지에서 활동하는 연구회일 거야. 블랙 매지셔 같은 거지. 물론 그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지만.”

“아, 맞다. 시로네가 들어간 연구회도 꽤나 악명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 하지만 페르미는 정말 의외네. 다른 애들은 몰라도 쟤는 인기 많잖아? 친절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더 기분 나빠. 항상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거든. 어쨌거나 무시하자. 졸업반끼리는 선배도 뭣도 아니니까.”

졸업반 30명은 모두 경쟁자였다. 매년 10명의 졸업생이 학교를 떠나고 졸업시험의 성적에 따라 클래스가 부여된다. 따라서 현재 클래스 원의 학생들은 작년 졸업시험에서 10위권에 들지 못한 자들이었다.

단순히 탈락자라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쟁이든 상위로 갈수록 실력의 차이는 줄어들게 마련. 클래스 원이라면 우열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 그날의 컨디션, 전략의 유무, 집중과 선택이 졸업과 탈락을 가르게 된다.

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페르미를 무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현재 마법학교의 선두에 서 있는 자가 클래스 파이브의 발표회를 찾았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다.

페르미의 등장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졌고 발표회 시간이 다가올 무렵에는 만석을 채우고도 남을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마침내 입구가 열리자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갔다. 앞줄은 교사들의 자리였고 학생들은 들어온 순서대로 자리를 채웠다. 일찍부터 와서 기다린 에이미는 무대와 가까운 곳에서 세리엘과 나란히 앉았다.

“대체 뭘 보여 주려고 이 난리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의 흥행은 이상했다. 고급반의 발표회에 클래스 원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에이미는 시로네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장내의 불이 꺼졌다.

\* \* \*

암실에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위를 샅샅이 훑고 지나가더니 중앙에 서 있는 소년을 비추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발표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네이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인간의 영혼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3초 정도가 지나자 동이 트듯 무대가 밝아졌고 무대의 뒤편으로 음산한 산의 정경이 드러났다.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했군요.”

알페아스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반적으로 발표회는 교사들 선에서 평가가 진행되지만 이번만큼은 알페아스도 특별히 참관하여 시로네의 성취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반면에 시이나는 아직까지 감흥이 없었다. 무대장치를 인공물이 아닌 전기 장막으로 대체한 건 멋진 발상이지만 내용이 허술하면 아무리 멋진 기술이라도 연구 발표회로서는 낙제점이었다.

무대의 끝으로 이동한 네이드가 내레이션을 했다.

“지금으로부터 520년 전. 알페아스 마법학교가 세워지기 전의 이곳은 작은 화전민촌이었습니다. 정복 전쟁으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던 시기죠. 오늘 저희는 전란을 피해 이곳 화전민 마을에 들어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암전이 지나가고 불이 들어오자 병사로 분장한 이루키가 절뚝거리며 무대에 등장했다.

“그어어어어! 배고파…… 배고파…….”

관객석의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하! 저게 뭐야?”

“그어어어, 라니. 이거 무슨 연극이야?”

네이드는 이루키의 대사가 없을 때마다 내레이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었다.

요지는 이랬다.

정복전쟁으로 피난을 온 것은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악령에게 몸을 빼앗겨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생살의 냄새를 맡고 화전민 촌으로 들어온 아귀들이었다.

아귀의 괴기스러움을 한껏 뽐내고 이루키가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자 어느새 남자 주인공으로 분장한 네이드가 등장했다.

“아아, 내 사랑 올리아! 당신 같은 고귀한 혈통이 어째서 이런 산중에서 고생을 해야만 하는 거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찬란했던 영광을 되찾아 주고 싶거늘, 그러지 못하는 게 한스럽구나.”

발성과 연기가 제법 괜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발표회인 줄 알고 찾아온 아이들은 정말로 연극으로 들어가 버리자 어리둥절했다. 게다가 네이드의 반대편에서 여장을 한 시로네가 무대로 달려 나올 때에는 기절초풍할 지경이었다.

“노아! 노아!”

와하하하하하!

학생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폭소를 터뜨렸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금발을 찰랑거리는 시로네는 정말로 여자 같았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어 라인을 강조하고, 옷 속에는 무엇을 넣었는지 가슴까지 나와 있었다.

“에, 에이미.”

황당한 세리엘이 에이미를 돌아보았다. 예상대로 썩은 미소를 지으며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설자인 네이드가 배우로 참여한 상황이었기에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상황을 전달했다.

단순한 플롯이었다.

노아와 올리아는 귀족 가문의 자제로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으나, 전쟁으로 가문은 풍비박산 나고 결국 화전민촌으로 들어와 사랑을 이어나간다는 내용이었다.

“보고 싶었소, 올리아. 내 사랑. 나의 모든 것. 그대를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노아.”

시로네와 네이드는 서로를 바라보며 허리를 껴안았다. 그다음에 펼쳐질 상황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다.

연극의 하이라이트인 연인의 키스신.

수많은 관객 중 가장 흥분한 사람은 단연 세리엘이었다.

“지, 진짜로 하는 거야? 응? 진짜로? 어떡하면 좋아.”

에이미도 전에 없는 긴장을 느끼며 침을 꿀꺽 삼켰다. 남자들끼리 진짜로 입을 맞추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연극이라면 혹시 모르는 일이었다.

관객들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로네가 눈을 감자 네이드가 얼굴을 천천히 내밀었다.

“크아아아아아악!”

네이드의 뒤편에서 갑자기 이루키가 나타나 목덜미를 깨물었다. 음향 장치에서 비명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놀란 관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누구도 이루키가 등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무대장치만으로 이런 연출을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로네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대본을 썼다. 투명 망토를 이용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긴장감이 고조되자 관객들은 점차 연극에 빠져들었다.

네이드를 쓰러뜨린 이루키는 살을 파먹는 시늉을 했다. 음향 장치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살이 씹히는 소리, 비명과 절규 소리가 뒤섞였다.

“안 돼! 노아! 노아!”

생살을 파먹은 병사가 사라지자 올리아는 죽은 노아를 품에 안고 절규했다. 이야기는 비극을 향해 치달렸고 반쯤 정신이 나간 올리나는 저주의 말을 퍼붓다가 가지고 있던 단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로를 향해 죽은 남녀의 모습에 학생들도 숙연한 분위기로 침묵을 지켰다.

암전이 지나가고, 해설자로 돌아온 네이드가 무대에 재등장했다. 모두가 그의 내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올리아가 일어나더니 정신 나간 웃음을 터뜨렸다.

“깔깔깔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 죽여 버릴 거야.”

관객들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올리나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다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무대 밖으로 사라지자 한 편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다.

네이드가 중앙으로 걸어와 설명을 이어나갔다.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발굴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입니다. 마법학교의 역사를 추적하던 중 찾아낸 오래된 일기장 덕분이지요.”

네이드는 한 권의 노트를 꺼내 들었다. 흙에 파묻혀 해진 520년 전의 노트. 하지만 사실은 며칠 전에 급조한 것이었다.

“심령과학에 일가견이 있는 저희 회원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고야 말았죠. 바로 당시의 원혼들이 여전히 이 학교를 떠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댕. 댕. 댕.

무대 뒤에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굶주린 아귀들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겠죠.”

아이들이 미간을 찌푸렸다. 학교에 몇 년을 다녔어도 귀신은커녕 수상한 사람조차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니까요. 초자연 심령과학에 의하면 영혼이란 믿는 자의 눈에만 보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주파수가 맞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발표회를 열기로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혼의 역사를 알게 된 여러분의 주파수는 이제 바로 맞춰졌습니다. 오늘부터 자정의 종소리가 울릴 때, 여러분은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드는 마지막으로 윙크를 날렸다.

“운이 좋다면 말이지요. 이상으로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네이드가 인사를 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자 적막이 장내를 감쌌다. 박수 소리조차 없었고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했다.

학생들은 배신감과 허탈함에 몸서리를 쳤다. 연구 발표회라고 해 놓고 기껏 한다는 게 고전적인 연극 공연이라니.

“뭐야? 그냥 장난이었던 거야? 난 무슨 대단한 거라도 보여 줄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우리가 멍청한 거지. 솔직히 귀신을 어떻게 증명하겠어? 완전 속았어. 에이, 괜히 왔네.”

“어차피 클래스 파이브 수준이지 뭐. 시로네니 이루키니 말이 많더니 막상 알맹이는 별거 없네. 야, 가자. 시간만 버렸다.”

학생들의 원성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노는 시간도 아껴 가며 공부하는 그들이었기에 이런 유치한 발표회에 날아간 시간이 아까워 죽을 지경이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가운데 마크와 마리아가 행렬을 거슬러 내려와 에이미와 세리엘에게 인사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래, 오랜만이네.”

“선배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발표회?”

마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특히나 시로네의 천재성을 알고 있는 그였으니 오늘의 발표회를 받아들이기가 더더욱 힘들었다.

하지만 에이미도 딱히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변명할 건수도 포장할 핑계도 없었다. 보이는 게 전부였고, 발표회는 이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세리엘은 여전히 시로네 편이었다.

“원래 준비한 게 있었는데 차질이 생겼나 보지. 시간이 급박했거나. 아마도 그런 걸 거야. 그치, 에이미?”

“어쨌거나 실패한 건 사실이잖아. 하여튼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짐작했어야 했는데. 우리도 그만 가자.”

에이미가 먼저 자리를 뜨자 세리엘이 입술을 내밀었다.

“어쩜 저리 애인에게 무심하담?”

“하하! 그게 에이미 선배님의 매력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가장 속상한 사람은 에이미 선배님일지도 모르죠.”

마크의 말을 듣고 보니 세리엘도 서운한 마음이 가셨다.

학생들이 강연장을 빠져나간 뒤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평가지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대체 어쩌자고 이런 짓을?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지.’

특히나 시이나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장 선생님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런 장난 같은 발표회를 열다니. 이번 사태를 어떻게 무마해야 할지 골이 지끈거릴 지경이었다.

## [65] 보이지 않는 것(5)

시이나는 평가지를 던져버리고 알페아스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직접 참관하러 오셨는데.”

“허허. 어려운 과제이기는 했지. 초자연 심령과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마음 쓰지 말게.”

“제가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페아스는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주고는 출입구로 걸어갔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다시 몸을 돌려 비어 있는 무대를 바라보았다. 수염에 감추어진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 정도로 끝날 거라면 시작도 안 했을 테지. 안 그러냐? 시로네?’

\* \* \*

“됐다. 1단계는 무사히 끝났어!”

관객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시로네 일행은 정신없이 연구회로 달려갔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다.

“확실히 먹힌 거 같지?”

“응.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

학생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발표회가 싱겁게 끝나리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랐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수록 심리적인 접근성은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가 계획한 심리적 함정의 요지는 바로 이것이었다.

집단 최면.

키워드는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일단 내용을 이해시킨다면 얼마나 유치한지는 상관없었다. 머릿속에 각인된 키워드가 그들을 공포로 인도할 테니까.

“시로네, 이제부터는 너에게 달렸어.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 명상 좀 하고 있을게.”

“반드시 성공해야 돼! 너만 믿는다!”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바통은 마지막 주자인 시로네에게 넘겨진 상황이었다.

“집중해야 되니까 떨어져.”

네이드가 어깨를 주무르려는 것을 만류한 시로네는 외진 곳에 의자를 두고 앉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6시간. 그 안에 정신적인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 올려야 했다.

‘하나. 둘. 셋.’

시로네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로 수열식을 천천히 진행시켰다. 네이드와 이루키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주었다.

광자 출력을 10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정신력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이번 발표회의 성패가 갈린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도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루키는 홀로그램의 원격조종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네이드는 시로네가 광자 출력을 쏟아부을 코어를 정비해야 했다. 모두가 분주하게 작업에 임하는 가운데,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자정이 다가왔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로네는 눈을 번쩍 떴다. 수열식을 5시간 동안 진행한 시로네의 정신은 잘 갈아진 명검에 비유할 만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네이드의 조용한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시로네, 갈 시간이야.”

시로네는 거칠 것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콜로세움으로 나가는 투사처럼 네이드의 뒤를 따라 나섰다.

\* \* \*

홀로그램 장치의 코어는 중앙 공원의 아래에 흐르는 하수도에 설치되어 있었다. 거대한 장치에서 뻗어있는 10여 가닥의 광섬유가 지상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다시 멀티어댑터를 거쳐 수백 가닥으로 퍼져나갔다.

자그마치 300여 대의 홀로그램 장치가 동원된 작전. 시로네는 네이드의 물량 생산력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런 만큼 부담감도 커졌다.

10분 동안 광자 출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실전은 처음이었다.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몰랐다.

자정까지 10분이 남았을 무렵 시로네는 프로토 타입보다 열 배는 커다란 기계 장치로 걸어갔다.

네이드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출력 단자를 넘겨주자 시로네는 양손으로 수정구를 쥐었다. 이루키가 타임 워치를 들고 시간을 쟀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된다. 종이 울리는 정확한 시간에 홀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했다.

“준비됐어? 이제 시작해야 돼.”

시로네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루키가 오른손을 든 채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결행시각이 되자 그의 손이 힘차게 떨어졌다. 동시에 시로네의 수열식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양손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위력이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했다. 한 달 사이에 광자 출력의 수준을 이만큼 끌어 올린 것에 친구들은 감탄했다.

‘더, 더 강하게!’

광원이 시로네를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해졌다. 네이드는 코어 장치로 달려가 전달효율을 살폈다. 놀란 표정으로 굳어 있는 그의 모습에 이루키가 답답한 듯 물었다.

“어때? 몇 퍼센트야?”

한참이나 말이 없던 네이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7퍼센트.”

“뭐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금 해내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반경이 너무 넓어.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시로네는 시작과 동시에 직감하고 있었다. 광자 출력을 시전하는 순간 마치 밑이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 공허한 감각이 정신으로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광섬유의 정보 전달 효율은 18퍼센트. 그 상태에서 병렬식으로 연결하는 바람에 전달력이 엄청나게 약해진 것이었다.

시로네는 몇 분이고 광자를 출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를 써도 출력 효율은 17퍼센트에서 더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루키는 더 이상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상태로 장치를 작동시켜 봤자 대부분의 홀로그램이 파편처럼 깨져 버리고 말 터였다.

5분이 지나자 네이드가 미소를 지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불가능한 목표에 도달한 시로네가 대견했다. 모든 것은 설계를 잘못한 자신의 탓이었다.

“시로네, 이제 됐어. 우리는 충분히 잘했어. 여기서 그만하자.”

시로네는 대답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 네이드도 이루키도, 연구회의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매진한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라니.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눈물을 머금고 패배를 인정해야 하다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로네는 독한 마음을 품고 눈을 감았다. 아직 모든 걸 쏟아부은 건 아니었다. 점차 손에 머무는 광원이 부풀어 오르며 시로네의 전신을 뒤덮기 시작했다.

“서, 설마?”

네이드는 시로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달았다.

이모탈 펑션.

자칫하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금단의 영역에 또다시 발을 들인 것이었다.

“시로네! 멈춰! 하지 마!”

네이드와 이루키가 시로네의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열반을 향해 치달리는 시로네의 정신은 어지간한 방해로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시로네의 광원은 이미 자신을 집어삼키고 외부로까지 확장된 상태였다. 이대로 놔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생각에 네이드가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시로네! 제발 그만해! 널 잃을 수는 없어! 연구회는 포기해도 되니까! 제발 그만해!”

네이드의 목소리에 시로네의 눈이 번쩍 뜨였다. 무섭게 정면을 노려보고 있는 시로네의 눈과 코, 입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네, 네이드…….”

“그래, 시로네!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고!”

시로네의 입가가 살며시 올라갔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시로네가 다시 눈을 감는 순간 거대한 빛이 터널을 가득 채웠다. 그의 정신력이 무한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말릴 수 없다.

네이드와 이루키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시로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무한의 영역에서 시로네는 그리운 감각을 느꼈다.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기분. 하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았다.

‘외면하지 않아. 똑바로 쳐다보는 거야.’

미지의 괴물이 혀를 날름거리며 시로네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었다. 시로네는 아르민의 조언을 상기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무한의 열쇠를 가졌다고 모두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아르민은 몸소 보여 주었다.

‘이겨 낼 거야. 반드시…… 제압하겠어.’

괴물의 아가리가 시커먼 목구멍을 드러내며 덮쳐 왔다. 시로네는 그 순간까지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목구멍 속의 어둠을 똑똑히 노려보고 있었다.

“크으으으으!”

세상으로 퍼져나가던 정신이 스피릿 존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극심한 두통이 치밀었다. 잡아낸 것이다. 시로네는 어금니를 깨물며 버텨 냈다. 한계를 넘어선 충만한 기운이 모조리 광자 출력으로 쏘아졌다.

“시로네! 괜찮아? 말 좀 해봐!”

“출력부터 확인해!”

시로네의 외침에 네이드는 코어를 돌아보았다. 출력 효율 22퍼센트. 0.1퍼센트도 까닥하지 않던 효율이 무려 4퍼센트나 올라 있었다.

“오! 올라간다, 올라가! 시로네!”

“으아아아아!”

시로네는 더욱 집중했다. 스피릿 존을 통해 들어오는 무한의 정신력이 팔을 타고 흘러가 수정구로 주입되었다.

네이드가 악을 질렀다. 출력 효율 36퍼센트!

‘더! 더 강한 힘이 필요해! 더!’

스피릿 존이 흔들렸다. 강인한 내구력으로도 밀려드는 정신력을 막아낼 수 없었다. 마치 수백 배나 압축되어 터져 나갈 듯한 느낌. 정신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으아아아아아아!”

출력 효율 59퍼센트.

“시로네! 조금만 더! 힘내!”

냉철한 이루키까지 악을 질렀다. 계기 장치의 바늘이 풍랑을 만난 듯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로네는 스피릿 존을 방어형으로 탈바꿈했다. 프레임이 얽히면서 으드득 하고 조여지는 환청이 들렸다. 압력을 견디는 힘과 거기에서 나오는 사출력이 손을 통해 빠져나가는 순간 세상이 꺼져 버리는 듯한 박탈감이 느껴졌다.

출력 효율 87퍼센트.

“으으으으으으!”

전신이 덜덜 떨리면서 뇌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시로네는 새삼 아르민이 얼마나 대단한 마법사인지 깨달았다. 무한의 힘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건 정말이지 정신 나간 짓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열반에 드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힘에 짓눌려 목숨을 잃게 될 터였다.

시로네는 유일하게 열려 있는 손바닥의 사출구로 모든 정신을 밀어 넣었다. 출구를 완전히 확장시켰음에도 광자의 위력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출력 효율 100퍼센트.

“으아아아아아아!”

시로네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는 순간, 코어의 램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네이드는 어처구니없는 결과 앞에서 전율했다. 광자 출력을 10분간 유지하는 힘으로도 고작 17퍼센트를 가리키던 굶주린 괴물이 지금은 배가 터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됐다, 됐어! 이루키, 시작해!”

정신을 놓고 지켜보던 이루키는 황급히 원격제어 장치를 붙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누르자 빛이 선을 따라 지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다시 수백가닥의 광섬유를 타고 거미줄처럼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댕. 댕. 댕.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 \* \*

“후우. 벌써 12시네.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숙소에서 공부를 하던 마리아는 책을 덮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폈다.

창문 밖에서 아련한 종소리가 들렸다.

자신도 모르게 발표회를 떠올린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잊어버리려고 할수록 더욱 신경이 쓰였다.

아귀들이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네이드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에이, 뭐야? 괜히 생각나게.”

굳이 세뇌시키지 않아도 키워드를 걸어두면 알아서 상상을 한다는 것을 시로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면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마리아는 으스스해진 몸을 쓸어내리며 침대를 향해 돌아섰다. 동시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동공이 흔들리고 강렬한 전기 자극이 등골을 타고 올라와 뇌를 강타했다.

“어…… 어…….”

썩어 있는 시체가 터덜터덜 방 안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

마리아는 덜덜 털리는 턱을 주체하지 못했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병사가 이쪽을 돌아보더니 팔을 들어 올리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꺄아아아아아악!”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똑같은 비명 소리가 복도를 타고 방방마다 울려 퍼지고 있었다.

## [66] 보이지 않는 것(6)

쨍그랑!

벽에 부딪힌 꽃병이 산산조각 났다.

꽃병을 집어 던진 에이미는 반대편 벽에 팔다리를 대고 숨을 헐떡거렸다.

“뭐야, 뭐야?”

종이 울리는 순간 진짜로 귀신이 나타났다. 이게 네이드가 말한 공명 작용이라는 건가? 처음에는 환각을 보는 줄 알았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분명한 실체였다.

“그어어어어…….”

귀신의 목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터지는 순간 에이미는 스키마를 발동해 문으로 달렸다. 부서지도록 문을 열자 수많은 여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뛰고 있었다.

에이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뒤편으로 수십 마리의 귀신들이 턱을 달깍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에이미! 살려 줘! 귀신이 나타났어!”

세리엘이 눈물 콧물을 쏟아 내며 소리쳤다. 에이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귀신을 믿은 적은 없다.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밤에 화장실을 가기가 꺼려지는 게 인간 본연의 속성이었다.

“으, 으으으!”

파도처럼 밀려드는 인파에 휩쓸린 에이미는 건물 밖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르르르…….”

산의 초입에 자리 잡은 적막한 수련관에 괴상한 신음성이 정적을 깨트렸다.

에텔라는 명상에서 깨어났다. 몸을 세우고 돌아서자 흉물스럽고 투명한 형체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세상의 악과 싸우는 구도자의 마음에는 특별한 감흥이 일지 않았다.

눈을 게슴츠레하게 뜬 에텔라는 코앞까지 다가온 귀신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귀신도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루키의 방정식이 얼마나 정확한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르르르…….”

“그르르르?”

에텔라는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손을 들어 병사의 코를 눌러 보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손은 그대로 관통하여 병사의 뒤통수로 빠져나갔다.

“하아! 하아!”

수증기가 얼어붙은 빙결의 장막 안쪽에서 시이나는 나신의 몸을 애처롭게 감춘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당직이 있는 날이면 여자 기숙사의 공중목욕탕에서 몸을 씻는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은 자정의 종소리가 들리는 것과 동시에 심장이 떨어져 나갈 만큼 놀랐다.

“뭐야?”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영혼의 주파수였다. 그렇다면 네이드의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어어어…….”

아귀의 병사가 얼음 장막을 뚫고 들어왔다. 덕분에 시이나는 냉정을 되찾았다. 홀로그램이라는 걸 간파한 게 아니었다. 자신의 빙결 마법을 이토록 쉽게 무력화 시킬 존재는 없다는 마법사로서의 자부심이었다.

“네까짓 게 감히…….”

시이나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예상대로 병사는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못하고 그녀를 관통해 지나갔다.

그러자 사태는 곧바로 파악되었다.

시이나는 천장과 벽면에 설치된 2개의 장치를 발견했다. 금화 크기의 직경을 가진 반구형의 장치에서 가느다란 광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시이나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욕실을 나섰다.

탈의실로 나온 순간 그녀의 몸에 묻어 있는 물기가 쩍 소리를 내며 얼어붙었다.

가볍게 몸을 털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얼음들이 사방으로 퍼졌다. 어느새 몸에는 물기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이것들이 진짜……!”

시이나의 눈매가 매섭게 찢어졌다.

\* \* \*

알페아스 마법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시커맸던 창문들이 연달아 빛을 내고 문밖으로는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오고 있었다.

사방 곳곳에서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사람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여 만들어진 홀로그램들은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었고, 혼이 나가 버린 학생들은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무작정 길을 내달리고 있었다.

“으아아아! 사람 살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인간이 극단적인 공포에 잠겼을 때 예측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은 의외로 단순했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감정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었다.

저급반의 아이들이 울며불며 엄마를 부르고,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어 있는 고급반의 학생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흐르는 쪽으로 합류하고 있었다.

고지대에서는 졸업반의 여학생들, 거기에 드문드문 남학생이 끼어 있는 인파가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었다.

귀신들은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뒤쫓는 듯 보였지만 하늘에서 지켜보면 대중을 한곳으로 집결시키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400명에 달하는 전교생이 북쪽에 있는 중앙 공원에 모여들었다.

사람과 건물사이에 갇혀 버린 학생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귀신들이 몰려들어서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꺄아아아악! 온다! 어떻게 좀 해 봐!”

“으아아아아! 덤벼! 덤벼 보라고, 이 자식들아!”

저마다 공포의 함성을 내지르는 가운데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칼을 쳐들고 그들을 덮쳤다. 울부짖던 아이들도, 비명을 지르는 여학생도, 호기롭게 나서는 남학생들도 예외 없이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병사들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육체가 섬광처럼 번뜩이더니 하나의 점을 향해 빨려들듯 하늘로 솟구쳤다.

“뭐, 뭐야?”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중앙 건물의 옥상 위로 향했다. 시로네가 옥상의 난간 위에 서 있었다. 네이드와 이루키가 뒤늦게 올라와 좌우에 포진했다.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은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헐레벌떡 공원으로 날아들었다. 저급반, 고급반, 졸업반을 가리지 않고 교직원이 전체가 출동한 현장이었다.

시이나가 씩씩거리며 인파를 가르고 나아갔다.

“너희들! 당장 내려오지 못해! 이게 무슨 짓이야!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잖아!”

네이드가 윙크를 하며 그녀를 반겼다.

“아, 시이나 선생님. 좋은 밤이네요.”

“좋은 밤은 무슨! 빨리 안 내려와? 내가 올라가면 죽일지도 모르니까 빨리 내려와!”

“그래도 일단은 발표회잖아요. 끝은 내고 가겠습니다.”

발표회? 이런 오밤중에 무슨 발표회? 네이드의 말에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뭐야? 그럼 전부 가짜란 말이야?”

“속았다! 이런 젠장!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여전히 정신이 얼떨떨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빠르게 사태를 파악한 소수의 학생들은 시로네 일행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 사기꾼 자식들아! 클래스 파이브 주제에 감히 우리를 속여? 이딴 건 발표회도 뭣도 아니야!”

“저런 자식들은 수행평가 빵점을 줘야 돼! 인마들아,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이런 사기를 쳐?”

쇄도하는 비난의 화살 앞에서도 시로네 일행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다가 욕설과 비난이 끊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네이드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에서는 발표회를 통해 귀신의 존재를 증명해 냈습니다. 한데도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당연하지! 있지도 않는 귀신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속여 놓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냐? 너희들은 분명 낙제할 거다.”

“맞아! 이건 질 나쁜 장난일 뿐이잖아! 이딴 식으로 속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나도 마음만 먹으면…….”

클래스 포의 남학생이 말을 멈추고 눈을 깜박거렸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깨달았는지 저마다 옆을 돌아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한 거지? 너는 알겠어?”

“아니, 감조차 못 잡겠어. 진짜 살아 있는 것 같았다고. 게다가 전교생 400명을 전부 속였잖아.”

아이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깨달았다.

수백 개의 홀로그램을 만든 것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움직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저 자식들……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학생들에게서 소요가 일어나자 시이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감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 또한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네이드의 탁월한 물량생산과 공학 기술, 무한의 영역에서 끌어온 광자 출력, 서번트 신드롬의 수만 줄에 이르는 방정식이 접목되었다는 사실을 당장 떠올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허허허허. 이번에는 우리가 한 방 먹은 거 같구먼.”

교사들이 일제히 뒤를 돌았다.

알페아스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시로네 일행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시이나가 고개를 저으며 다가갔다.

“교장 선생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 아이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금지된 구역에 불법 침입을 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일종의 홀로그램 장치를…….”

“호오? 시이나 선생도 모른다는 말인가?”

알페아스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 자신 또한 빛의 마법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이번 전략에 정보 전달 기술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바로 깨우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학생 수준에서 가능한 일일까?

어찌 보면 시로네 일행에게도 도박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알페아스는 그런 부분을 칭찬해 주고 싶었다.

시이나는 솔직히 인정했다.

“부끄럽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저 아이들이 교사를 설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허, 내가 말을 잘못했군. 한 방 맞았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닐세.”

“네? 그럼……?”

알페아스는 말을 아끼며 학생들을 올려다보았다.

“일단 지켜보세. 발표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으니.”

학생들은 여전히 시로네 일행이 사용한 트릭을 찾아내기 위해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순식간에 중앙 공원은 대규모 토론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의견을 나누면 나눌수록 미궁에 빠질 뿐이었다. 특히나 클래스 포의 학생들은 불쾌했다. 후배들이 만든 트릭에 꼼짝없이 속은 데다 메커니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만저만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었다.

“흥! 생각할 필요 없어! 뭐든 웃기는 수작을 부렸겠지. 요지는 이번 발표회가 엉터리라는 거야! 있지도 않는 귀신을 보여 줘 놓고 증명했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클래스 포의 학생들이 단합하여 동조했다.

“맞아! 이런 방식은 납득할 수 없어! 이건 심령과학이 아니라 그냥 쇼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네이드가 대표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아직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십니까?”

“당연하지! 귀신이라고? 이건 그냥 환영 마법의 일종이잖아! 진짜 귀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째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뭐야? 그야 당연히……!”

학생의 침묵을 시작으로 정적이 퍼졌다.

수백 명의 학생 중에 네이드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자신들은 왜 바보처럼 도망쳤는가?

정답은 간단했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영혼을 부정하지 못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바로 초자연 심령과학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미지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과연 지성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가 지성의 요람인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자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실제로 귀신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의 모두가 귀신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네이드의 말에 학생들은 처음으로 이번 발표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단순히 학교를 소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장난이 아니었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는 그들의 방식대로 완벽한 발표회를 선보인 것이었다.

“이상으로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관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로네 일행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위는 고요했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 [67] 보이지 않는 것(7)

하지만 잠시 후,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정체 모를 통쾌함을 느낀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푸하하하! 이거 진짜 걸작인데? 그래, 너희들이 해냈다!”

“맞아! 솔직히 나도 예전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 앞으로 재밌는 발표회 좀 많이 열어 줘!”

“오랜만에 땀 좀 흘렸네. 너희들이 이겼어! 최고야!”

돌변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교사들이 당황했지만 시로네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그것이 바로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다.

알페아스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은 채로 보여 준다. 과연 그런 방법이 있었군. 아이들이 훌륭하게 해냈구먼.”

“교장 선생님, 그럼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를 존속시킬 생각이십니까?”

“흐음. 그건 내 결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그래, 어떤가? 저 아이들의 논지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해 보게나.”

교사들 중에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시이나조차도 이번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에게 제대로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는 존재해야만 한다. 여기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드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교칙을 어긴 부분이 적발되면 그때는 어떡하죠? 반발이 꽤나 있을 텐데요. 이대로 연구회를 승인하기에는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들 중에는 시이나처럼 금지된 구역의 불법 침입을 확인한 자들이 꽤나 있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자 결국 즉석에서 교사회의가 열렸다.

시이나가 먼저 의견을 냈다.

“분명 아이들이 교칙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연구회의 존속 여부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해체에 앞장섰던 그녀가 연구회를 두둔하고 나서자 교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시이나는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다. 그들과 한 약속이었다. 시로네 일행은 요구한 부분을 충족시켰고 그녀가 할 일은 성과를 인정해주는 것뿐이었다.

교사들의 토론과 별개로 공원의 으슥한 곳에서는 음지의 연구회 일원들이 남몰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썩어도 준치라더니 아직 끝나지 않았군. 졸업한 선배들, 꽤나 당돌한 놈들을 남겨 두고 갔잖아?”

“전쟁을 벌일 일은 없겠어. 당분간 초심령회의 강세가 이어질 거야. 우리 개미 언어 연구회는 나서지 않기로 하지.”

“흥! 그래 봤자 클래스 파이브야. 언젠가 졸업반에 올라오겠지만 그때가 되면 나도 이 학교에 없을 테니까.”

“단언할 일은 아니지 않나?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는 저놈들과 경쟁할지도 몰라.”

“뭐야? 그럼 내가 저 자식들이 무서워서 도망친다는 거야?”

“모두 그만둬. 평소에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우리가 이러는 것도 웃기는 일이니까. 붙어 보고 싶으면 붙으면 되잖아? 물론 우리 숨바꼭질 연구회는 나서지 않을 테지만.”

“그렇게 말해 놓고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겠지. 너희들은 숨기 위해서라면 똥물에도 들어가잖아?”

“여기까지만 하자고. 사람들의 이목도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 있어 봤자 연구회의 명성에 흠집만 내는 일이야.”

마법학교의 음지를 지배하는 수장들은 이쯤에서 합의를 보기로 하고 졸업반 건물로 향했다. 그들이 뭉쳐 다니는 모습을 포착한 시이나의 미간이 구겨졌다.

‘어휴, 저 찌질한 것들.’

이제는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했다. 저급반, 고급반을 거쳐 졸업반에 들어갈 때까지 시이나를 무던히도 괴롭혔던 최악의 문제아들.

그럼에도 어쩌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이 내려 준 재능을 남용하여 귀신같이 꼬리를 감추기 때문이었다.

‘대체 이 학교에는 저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연구회를 인정하기 때문이야.’

선배에서 후배로, 그리고 그 후배가 다시 선배가 되어 후배에게 전하는 천재적인 꼼수들을 교사가 어찌 상대하겠는가?

시이나가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를 해체시키려던 이유도 네이드 일행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악의 근원을 애초에 잘라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지.’

시이나는 혀를 끌끌 차며 인파를 헤쳐나갔다. 그리고 옥상의 난간에 서 있는 시로네 일행에게 소리쳤다.

“교사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공표합니다.”

학생들의 박수갈채와 함성소리가 잦아들었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는 조만간 해체될 예정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공식적인 활동이 없는 데다 인원수마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의 발표회를 기점으로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의 의견과 다수의 교사들이 토의를 거친 결과, 네이드를 대표로 하는 3인의 연구회,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는 당분간 존속시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이나는 말을 이어 가려다 울컥했다. 몇 번을 생각해도 짜증이 솟구치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너희들 3명은 일주일간 근신 처분이다! 정학이라고, 이 멍청이들아!”

와하하하하하!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젖혔다. 연구회를 증명하기 위한 발상은 뛰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기계장치를 학교에 설치한 죄목이었다.

시로네와 네이드, 이루키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러다가 서로를 돌아보았다. 점점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동자에 환희의 쾌감이 차올랐다.

“됐다! 성공했어!”

“우하하하! 우리가 해냈다! 연구회를 지켰어!”

정학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였다. 신이 나서 부둥켜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시이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그들은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1퍼센트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진심으로 기뻤다.

“하하하! 야, 축하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봐라!”

“연구실이 어디야? 가끔 놀러 갈게!”

학생들이 축하의 말을 건넸다. 개중에는 시로네의 열렬한 추종자인 마크와 세리엘도 섞여 있었다.

“으아아아! 시로네 선배님은 역시! 저는 처음부터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다니까요! 역시 선배님은 저보다 한 수 위! 아니 두 수 위예요!”

“그러게. 이번 발표회에 연구회의 존망이 걸려있었다니, 진짜 꿈에도 몰랐어. 아무튼 이번에도 멋지게 해냈잖아? 안 그래, 에이미?”

이 순간을 가장 기뻐해야 할 에이미였지만 예상 외로 그녀는 부루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학 당한 게 뭐가 그리 기쁘다는 거야? 어째서 이런 한심한 짓을 하는 거지? 빨리빨리 공부해서 졸업반에 들어와도 모자란데.”

세리엘은 표현에 서투른 에이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시로네와 함께 졸업반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멋지지 않니? 물론 나더러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 하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다는 생각.”

세리엘은 시로네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해맑게 웃고 있는 시로네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걱정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에이미의 눈에 그리운 감정이 담겼다. 사실은 그녀도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 지금 시로네의 옆자리에 서 있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외면하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 졸업하려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난 절대로 너를 우러러보지 않을 거야.’

시로네와 함께 하고 싶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억누르며 에이미는 발길을 돌렸다.

‘그러니까…… 빨리 따라오란 말이야, 이 바보야.’

\* \* \*

새벽 4시.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퇴근하고 학생들과 교사들도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다.

시로네 일행은 역사적인 발표회가 있었던 중앙 공원의 풀숲에 드러누워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환호도, 왁자지껄한 소음도 사라졌지만 그들의 귓가에는 여전히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네이드가 쉬어 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해냈구나, 우리들.”

“그러게. 하지만 시로네에게는 좀 미안한데? 나야 근신을 밥 먹듯이 한다지만 시로네는 처음이잖아?”

시로네는 피식 웃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재밌었잖아. 너무나 재밌었어.”

“그래, 최고였지. 살면서 오늘 같은 날을 다시 겪을 수 있을까? 아직도 사람들의 환호성이 잊혀지지 않아.”

“우리 셋이 힘을 합쳤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지. 어찌 됐건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새로운 역사를 새겼으니까.”

시로네가 벌떡 상체를 세웠다.

“게다가 딱히 나쁜 일만은 아니야. 얻은 것도 많으니까. 이번 발표회로 광자 출력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 이 정도라면 졸업반에서도 먹힐 거 같아.”

“나도 그래. 광섬유의 지식도 얻었고 무엇보다 대량생산 공정을 혼자서 경험해봤어. 솔직히 굉장한 공부가 됐어.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400명의 행동패턴을 실전에 적용해보면서 얻은 게 많으니까. 시로네가 이모탈 펑션까지 끌어다 쓰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대단하지. 서번트 신드롬의 행동방정식이 없었다면 학생들은 절대로 속지 않았을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네이드가 고생을 바가지로 했지. 수백 개의 기계 장치를 오차 없이 설치했으니까. 그 집중력은 정말 대단해.”

신이 나서 떠벌리던 시로네 일행은 무언가를 깨닫고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잠시 썰렁한 바람이 지나갔다. 네이드가 일으켜 세웠던 몸을 도로 누이며 말했다.

“그만두자. 우리끼리 칭찬해서 뭐하냐?”

“그래.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선 안 되지. 성과를 누리는 거야 당연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시로네는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았다.

“더 올라가고 싶어. 가장 빛날 수 있는 별이 되어야 해.”

이루키도 같은 생각이었다.

“노닥거리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버린 거 같군. 슬슬 올라가야 할 때가 된 거 같아. 졸업반에 말이야.”

네이드가 텀블링을 하며 벌떡 일어섰다.

“좋아! 그럼 새로운 목표를 세우자! 최대한 빨리 클래스를 올리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졸업하는 거지! 사회에 나가서도 재밌게 놀자!”

시로네와 이루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달리는 거야.”

“크크크. 오랜만에 의욕이 불타는데?”

세 사람은 힘차게 손을 모으고 파이팅을 했다.

언젠가 최고의 마법사가 되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들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가장 밝은 유일한 별.

북극성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상에서(1)

숙소로 돌아온 시로네는 곧바로 쓰러져 잠에 빠졌다. 일주일 정학을 받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마음을 느끼기에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너무 막대했다.

하루가 그대로 넘어갔다.

아침의 피아노 소리도, 중천에 떠있는 태양도, 정학을 받은 시로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야. 시로네. 시로네.”

누군가가 몸을 흔드는 기척에 시로네는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흐릿한 두 명의 인영이 아른거리더니 네이드와 이루키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으음. 뭐야?”

“너도 참 대단하다. 아직도 자고 있냐?”

“몰라. 피곤해. 나가줘.”

“그러지 말고 일어나. 어차피 우리는 수업도 못 받잖아. 그러지 말고 놀러 가자.”

“놀러가다니?”

“이루키가 아는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술도 공짜로 주고 예쁜 여자들도 많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몫 제대로 챙겨서 오자고.”

시로네는 카지노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대꾸조차 하기 싫었다.

“너희들은 피곤하지도 않냐? 나는 죽겠는데.”

“우리도 하루 종일 잤어. 너 지금 27시간 째 자고 있는 거라고. 그러지 말고 3일만 있다가 오자. 이루키의 서번트 능력이라면 돈 버는 건 순식간이라니까?”

## [68] 정상에서(2)

시로네는 소위 전문가라고 자신하는 자들이 그런 곳에 가서 속옷까지 털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물론 이루키의 서번트 능력이라면 확률계산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을 테지만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확률은 그저 확률일 뿐, 도박에서 이기려면 승기를 느낄 줄 아는 승부사의 기질이 필요했다. 이루키가 야금야금 돈을 따다가 한 번에 털리는 광경이 빤히 그려졌다.

“안 가. 너희들이나 가. 난 도박 같은 거 안 해.”

“도박은 안 해도 돼. 예쁜 여자들이 술도 따라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런다는데, 정말 안 갈 거야?”

그 얘기를 듣자 더욱 가기 싫어진 시로네였다.

“어, 미안. 나 진짜로 너무 피곤해서 그래. 계속 자야겠어. 재밌게 놀다와.”

시로네의 입에서 미안이란 말이 나온 이상 생각을 돌릴 수는 없었다. 따지고 보면 이번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피로가 쌓인 사람은 시로네였다. 네이드나 이루키도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이 치중했던 작업은 육체노동과 지적노동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반면에 광자출력의 수준을 올려야 했던 시로네는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소모되는 고도의 훈련을 한 달 동안 이어나가야 했다. 게다가 막판에는 무한의 영역에 들어가 정신력을 쏟아냈으니 심신이 쇄약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푹 쉬어. 아무튼 우리는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 많이 따가지고 와. 나 맛있는 거 사줘.”

“하하하! 걱정 마시라!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마법처럼 갑부가 되어 있을 테니까.”

문이 닫는 소리를 들으며 시로네는 다시 침대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차피 갑부면서 호들갑은…….’

시로네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 \* \*

그날 밤.

“흐으으. 흐윽.”

시로네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자리를 뒤척였다. 기절하듯 잠에 빠졌을 때는 찾아오지 않았던 악몽이 수면 시간을 채우자 또다시 의식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흐으으…….”

시로네는 인상을 구기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공허한 박탈감이 강렬한 충격으로 시로네를 감쌌다.

이번에도 악몽은 한 점으로 빨려들고 있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우주의 시작에 도달했다. 빛이 보이고, 그 빛은 흔들리는 실로, 다시 거품으로 변해 시로네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오직 빛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 강력한 폭발이 터졌다.

“허어어억!”

시로네는 상체를 일으켰다. 커다랗게 떠진 두 눈이 기억 속의 잔상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잠옷이 축축한 느낌을 전한 뒤에야 천천히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짹짹 하고 새소리가 들리는 아침이었다.

“후우. 어쩐지 그냥 지나가는가 싶더니.”

여지없이 악몽을 꾸고 말았다. 이상한 감각이 전신을 감싸면서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하지만 시로네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아르민에게서 원인을 들었고 발표회 당일에는 무한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빠져나오기도 했다.

어느 정도 힘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자 시로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차분하게 주시했다.

‘꿈에서 보는 우주. 그것은 분명 우주의 시작을 나타내는 광경이야. 그리고 게이지 대칭성이라.’

비록 논리적인 정보는 없지만 어렴풋이 가닥이 잡혀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정리 작업일 것이다.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말했던 아르민을 떠올리자 마음이 안정되면서 초상감이 사라졌다.

시로네는 욕실로 들어갔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깊은 수면을 취했더니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다. 양치를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보니 이루키와 네이드가 들렀다 간 듯했다.

‘꿈인가? 아니면 진짜로 간 건가?’

카지노에 가서 대박을 치고 오겠다는 두 사람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차라리 같이 갈 걸. 이제 나 혼자서 뭐하지?’

양치질을 하면서 욕실을 나선 시로네는 문득 침대를 돌아보고 하던 행동을 멈췄다. 침대 위에 떠있는 작은 먼지들이 회전하고 있었다. 창문은 닫혀있었기에 대류현상은 아니었다.

이빨을 닦는 것도 잊은 시로네는 거품을 문 채로 달려갔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회전의 중심부로 손을 내밀어보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초상감이 강렬하게 느껴졌다.

“흐으으으윽!”

시로네는 양치거품을 토하며 상체를 구부렸다.

대체 무엇일까?

마치 이빨이 뽑힌 자리의 신경을 직접 만진 것처럼, 처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한 기분이었다.

‘이거다! 이미 알고 있지만 이름을 모르는 것. 그런데 대체 이게 뭐지?’

시로네는 미친 듯이 허공에 손짓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상한 감각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을 가라앉힌 시로네는 다시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에 몸을 씻고 나왔다. 그러는 동안에도 조금 전 발견했던 현상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바람도 아니고 기압도 아니고 온도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먼지가 움직일 수 있지?’

단지 떠다니는 게 아니었다. 분명 어떤 힘에 의해 회전력을 가진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1시간이 넘도록 생각에 잠겨 있던 시로네는 답답한 마음에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수업이 한창인 시간이라 건물 밖에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다.

생소한 기분을 느끼며 시로네는 정문으로 발길을 옮겼다. 정학을 일주일 받았으니 앞으로 남은 4일 동안은 무엇을 하든 자유였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이상 시로네는 이 시간을 특훈 뒤의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자신의 집이었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차를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도착할 거리지만 명분이 없었다. 엄마 아빠 나 정학 당했어요, 하고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오젠트 가문에 들르자니 리안도 레이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색하기만 할 것이다.

“아, 맞다!”

시로네는 퍼뜩 행선지를 깨닫고 손가락을 튕겼다.

바로 서점이었다.

물론 학교 도서관에는 차고 넘칠 정도로 책이 많지만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건 시로네의 오랜 꿈이었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다주신 낡은 책에 기뻐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한 권의 책에 즐거워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더 많은 책을 사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테무란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이 상당히 쌓여있는 덕분이었다.

평민 구역에서 책을 산다면 조금만 덜어서 쓴다고 해도 책을 바구니로 담을 수 있을 터였다.

‘그러고 보니 처음으로 사보는구나. 나만의 책.’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책을 좋아하는 시로네는 소유욕도 남달랐다.

결정을 내린 그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순식간에 귀족구역을 지나 평민구역으로 들어갔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수레를 타고 자주 왔던 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로네는 금화주머니를 두드리며 보무도 당당하게 서점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가 시로네를 알아보았다. 도시에 들어올 때마다 몇 시간이고 서서 안을 구경했던 아이였으니 얼굴이 기억에 남았다.

“어서 오세…… 어머, 시로네 아니니?”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래. 몰라보게 컸구나. 네 아빠도 요즘 통 안 보여서 다른 도시로 떠난 줄 알았는데. 올 때마다 항상 책을 한 권씩 사가셨거든.”

“이제는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려고요.”

“그래. 여전히 책을 좋아하는구나. 골라보렴.”

“네. 그럼 둘러볼게요.”

시로네는 흐뭇하게 웃으며 서점을 돌아다녔다. 책이 쌓여있는 곳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살펴본 바로는 내용에 상관없이 상태가 양호한 책이 비쌌다.

평민 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소수지만 크레아스 같은 대도시에서 인구수로 따지자면 그래도 제법 장사는 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역시나 학술적인 서적보다는 판매량이 좋은 소설이 많았고 간혹 있는 학술서도 기초적인 분야만 다루고 있었다. 알페아스 마법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예상보다 훨씬 고급서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비록 전공에 관련한 책은 없지만 어차피 책이라면 다 좋은 그는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마법사가 주인공인 소설책 한 권을 구입했다.

꽤나 인기 있는 서적이었는지 여러 권이 구비되어 있었고 품질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 돈에 여유가 있는 시로네는 가장 깨끗한 새 책을 고르고 금화를 내밀었다. 평민들이 다니는 서점이라 가격이 싼 편이지만 책이라는 건 원래 귀한 물건이었다. 더군다나 새 책이었으니 가격은 가장 낮은 품질의 10배에 달했다.

“어머, 이렇게 비싼 걸 사? 누구 심부름 온 거니?”

“아니에요. 사실 처음 사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깨끗한 걸로 읽고 싶어서요.”

“그래. 기특하구나. 책에 돈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말이야. 아무튼 열심히 읽으렴. 그래야 똑똑해지지. 머리가 똑똑해야 나중에 장가가서 마누라 고생 안 시킨단다.”

시로네가 천재들의 요람인 마법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아줌마는 서점주인의 자부심으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런 것조차도 기분이 좋은 듯 흔쾌히 들어주고 책을 들고 나왔다.

‘이게 내 책이구나.’

빌리는 것도, 남이 보았던 것도 아닌 나만의 책. 책의 무게감만 느껴보아도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다.

“어? 저거 시로네 아니야?”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시로네는 옆을 돌아보았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수레에 모여 있었다. 어딘가 낯이 익은 모습에 유심히 살펴보던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어? 알토르? 마틴? 루미나까지?”

어렸을 적에 어울렸던 화전민 촌의 아이들이었다.

“이야. 진짜 시로네야?”

아이들이 우르르 시로네에게 몰려들었다. 대부분 동갑이었고 차이가 나봐야 한두 살이었다. 하지만 안본 사이에 덩치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특히나 화전민 아이들의 리더인 알토르는 성인들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거구로 성장해있었다. 그나마 원래부터 왜소했던 마틴 정도가 시로네와 비슷했다.

알토르는 시로네의 머리부터 팔에 끼웠다.

“너 이 녀석!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말이야. 빈센트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도시에서 산다는 말만 하시고.”

“하하하. 미안해. 그렇게 됐어.”

오랜만에 당해보는 그들의 인사법에 정신이 얼얼했으나 시로네도 반갑기는 마찬가지였다. 앞 이빨이 토끼처럼 튀어나온 마틴이 시로네의 차림새를 살피더니 감탄스럽게 말했다.

“우와. 너 출세했다. 누가 보면 귀족인 줄 알겠네.”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귀족처럼 보인다는 말에 시로네는 의아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젠트 가문을 거쳐 마법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귀족의 냄새가 밴 모양이었다.

일행 중에 유일한 여자인 루미나가 말했다.

“시로네는 예전부터 귀족처럼 보였는데 뭐. 어쨌거나 잘 지내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이야.”

“응, 고마워 루미나. 너도 예뻐졌네.”

루미나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시로네가 기억하는 루미나는 주근깨가 많고 볼 살이 통통한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해졌을 뿐 주근깨도 사라지고 살도 쏙 빠져서 완연한 소녀의 모습이었다.

알토르가 폭소를 터뜨렸다.

“거짓말이 더 늘었네, 시로네! 하긴, 예전에도 네 말 발에는 당해낼 애들이 없었지. 이런 왈가닥 계집애가 뭐가 예뻐졌다고.”

“시끄러! 네가 뭔데 나더러 왈가닥이니 뭐니 평가하는 거야?”

루미나가 전에 없이 화를 내자 알토르는 머쓱해졌다.

“아니, 난 그냥 장난으로…….”

“됐어. 너랑 말하기 싫어.”

“그래! 말하지 마라. 나도 너 같은 계집애랑 다니는 거 창피하니까!”

시로네는 오랜만에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기분이 좋아졌다. 언뜻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화전민촌 아이들의 일상이었다.

## [69] 정상에서(3)

“그나저나 시로네. 너는 요새 뭐해? 도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가게에서 일이라도 하는 거야?”

“응? 아니, 그게…….”

시로네는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했다. 아버지가 함구한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할 만큼 매몰차게 그들을 대할 수가 없었다.

“사실은 마법학교에 다니고 있어.”

“무어어어어어?”

아이들이 하나같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질렀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시로네가 남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산 꾼의 자식이 마법학교에 입학을 하다니.

“어, 어떻게 된 거야? 진짜야?”

시로네는 예상보다 아이들이 놀란 것에 놀랐다.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부러 넉살을 떨어가며 말했다.

“하하. 그게 운이 좋았다니까. 귀족 가문의 도서관 사서로 일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그쪽 집안에서 좋게 봐주셔서 입학을 하게 됐어.”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더욱 정신이 멍해졌다.

아무리 사서로 일했다고 해도 귀족이 평민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시로네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했다.

“어, 어쨌거나 대단하다. 그럼 너 지금 마법을 배우는 거야?”

“우와! 마법! 마법 쓸 수 있어? 응? 해봐! 보여줘!”

아이들이 너도나도 달라 들어 소리치자 시로네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참이나 진땀을 빼야했다.

“그게…… 아직은 클래스가 낮아서 잘은 못 해. 게다가 학교 밖에서 마법을 사용하면 교칙 위반이고.”

알토르가 의심쩍은 눈길로 시로네를 흘겨보았다.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시로네의 고운 외모와 품성은 아이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알토르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민에게 가장 중요한 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시로네는 최고귀족들만 다닌다는 마법학교의 학생이 되어 있었고 자신은 여전히 화전민촌의 알토르일 뿐이었다.

“마법학교에 다닌다면 여기에는 왜 나온 거야?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어야 될 때 아냐?”

“아 그게…… 그냥 휴가를 받아서 나왔어. 며칠 전에 힘든 시험을 치러서 좀 쉬려고.”

이번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정학을 당했다고 말하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비록 좋은 일이라고 해도 부모님은 실망하실 게 분명했다.

아이들은 대부분 믿는 눈치였다.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 휴가를 줄 수도 있다고 쉽게 생각해버렸다.

루미나가 시로네의 옷깃을 붙잡으며 말했다.

“휴가면 며칠이나 쉬는데?”

“음, 글쎄? 한 3일 쯤?”

“그래? 그러면 집으로 갈 거야?”

“하하, 아니. 곧 학기가 끝나니까 집은 그때 가려고. 부모님도 바쁘실 거고.”

“하긴. 3일이면 오다가다 휴가 끝나겠다.”

산 꾼들이 얼마나 바쁜지는 같은 부모를 둔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틴이 말했다.

“그럼 갈 데는 정한 거야? 잠은 어디서 자려고?”

“음…… 그게. 아직 딱히 정한 건 없는데.”

루미나가 화색을 띠며 소리쳤다.

“그래?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예전에도 많이 자고가고 그랬잖아.”

시로네도 그 말에는 혹했다. 학교로 돌아가 봤자 정학을 당했으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숙소에 누워 시간이나 죽이는 일뿐이었다. 그렇다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싶지도 않았다.

“괜찮을까? 내가 가도?”

“호호호! 무슨 소리야? 우리들 아직도 하루걸러 한 번씩 친구들 집에 모여서 자는데.”

시로네도 기억이 났다. 공동체 생활이 익숙한 그들은 친구이자 형제였고 애인이자 가족이었다.

“그래, 그럼. 나도 오랜만에 아저씨들도 보고 싶으니까.”

“자자! 그럼 물건도 다 팔았으니 출발하자! 거하게 맥주 한 잔씩 하자고!”

알토르가 시로네의 머리를 팔로 감싸며 수레로 걸어갔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에 시로네가 앓는 소리를 했다.

“아야야. 아파.”

“하하하! 너 아직도 그렇게 비실비실해서 되겠냐? 훌륭한 마법사가 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시로네는 이런 알토르의 행동이 서열을 정리하고 리더의 권위를 되찾는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평생을 산 꾼의 자식으로 살면서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시로네였다.

알토르는 시로네를 수레에 번쩍 올려 태웠다. 아무리 왜소해도 성인 남자를 들어 올리는 건 어지간한 완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어릴 때 보던 친구가 괴물이 되었다는 생각에 멍 하니 쳐다보자 알토르가 시로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반갑다, 시로네!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

\* \* \*

수레를 타고 화전민천으로 들어온 시로네는 간만에 보는 정경에 감회가 새로웠다. 산등성이를 따라 늘어선 밭에 초록빛 새싹이 트고, 능선을 따라 늘어선 산간집촌의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화전을 가꾸는 사람들이 오솔길을 따라 들어오는 수레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마틴! 이제 오냐?”

“네, 아저씨! 여기 시로네도 같이 왔어요!”

“뭐어? 시로네? 빈센트는?”

“빈센트 아저씨는 안 왔고요. 그런데 아저씨, 그거 아세요? 시로네가 지금 마법학교에 다녀요!”

“뭐라고? 밥 먹고 다닌다고?”

“아뇨! 밥 먹는 게 아니라 마법학교에 다닌다고요!”

“껄껄껄! 원 실 없는 소리도.”

“……”

마틴은 입을 다물었고 아저씨는 다시 밭을 맸다. 알토르는 아저씨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데 평생 땅만 일구며 살아온 그가 어떻게 믿겠는가?

루미나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뭐야? 왜 안 믿어주는 거야? 시로네,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소문내줄게.”

“하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알토르가 말했다.

“빈센트 아저씨도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 괜히 나서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화전민 아이들의 리더답게 알토르는 말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다. 만에 하나 시로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경우 빈센트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빈센트 아저씨랑 거래가 끊기면 우리 집도 타격이 있으니까.’

공용 창고에 수레를 집어넣은 알토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화전민촌에서 유일하게 술을 파는 가게로 갔다. 흙바닥에 기둥을 세우고 테이블을 몇 개 세워둔 게 전부였는데, 약초꾼 아저씨의 아내가 부업으로 하는 일이었다.

“아줌마, 저 왔어요.”

“어서 오렴 알토르. 어머, 혹시 너 시로네 아니니?”

“그간 안녕하셨어요, 아줌마.”

“그래, 어쩜. 빈센트가 도시에서 일한다더니 거기서 만났나보구나. 아무튼 잘 왔어.”

아이들은 익숙하게 테이블 세 개를 붙였다. 상석에 앉은 알토르가 주문을 했다.

“일단 맥주 한 잔씩 주시고요, 안주는 늘 먹던 걸로요.”

시로네는 격세지감을 느꼈다. 예전에 어울렸을 때는 모두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른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있었다. 이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마법학교의 아이들은 아직도 어린애였다.

“어때, 시로네? 술은 좀 하냐?”

“응? 아, 아니. 난 아직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뭐어? 이제 봤더니 아직 꼬맹이네. 너 거기에 털도 안 난 거 아냐? 푸하하하!”

알토르의 농담에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여자인 루미나만큼은 정색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입이 저렇게 거칠어서야.”

대놓고 시로네 편을 들면서 면박을 주자 알토르의 얼굴이 은은하게 붉어졌다.

‘하긴…… 예전부터 그랬지.’

어릴 때부터 루미나가 시로네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들 어린애가 아니다. 힘이 있는 자가 멋진 여성을 갖는다. 알토르는 루미나의 짝은 차기 촌장인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컸기에 불쾌한 감정은 금세 취기에 휩쓸렸다. 시로네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웠다. 처음 마시는 맥주도 의외로 입에 맞아서 흥겨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

“예전에 하우란 누나가 시로네에게 달려든 거 알아?”

“야. 그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 하지 마!”

술기운이 올라온 시로네가 손을 휘저으며 마틴을 말렸다.

“뭐 어때? 이미 지난 일인데. 게다가 하우란 누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여기에 있지도 않다고.”

“아, 그래? 그건 다행이네.”

시로네의 말에 웃음이 터진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루미나가 술기운을 빌어 시로네에게 찰싹 달라붙었다.

“시로네는 그럼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야?”

“응? 글쎄. 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알토르는 루미나의 추파가 못 마땅했으나 딱히 말릴 방도가 없었기에 일부러 시로네에게 말을 걸었다.

“시로네. 근데 너 정말 마법학교에 다니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간단한 마법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음. 그게 말이지, 사실 마법을 늦게 배워서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져 있어. 마법자체가 워낙에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고.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교칙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서…….”

마법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엄연히 학생이었다. 정식 마법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학교 밖에서의 마법 사용은 교칙으로 엄금하고 있다. 예외가 있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타인의 신변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였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칙을 지키지 않고, 학교 측에서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교칙이 만들어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이다.

고작 12살에 골목길에서 만난 불량배들의 팔다리를 부러뜨린 시로네였다. 일전에 레스토랑에서 네이드가 전격 마법을 사용한 것도 상대가 조금만 세게 나왔더라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법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다. 인간의 정신으로 대자연의 힘을 이끌어내는 강대한 권력이었다.

시로네의 주특기인 광자 출력은 1g의 물리력도 갖지 못하지만 그것을 선보인 순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싹트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굳이 술자리에서 마법을 선보여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마틴이 마른육포를 질겅질겅 씹으며 물었다.

“그렇게 어려우면 마법사가 못 될 수도 있는 거야?”

“당연하지. 오히려 마법사가 되는 사람보다 못 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 그럼 만약 마법사가 못 되면 너는 어떻게 돈을 벌건데?”

“응? 어떻게……?”

마법사가 되겠다는 일면으로 달려왔기에 실패했을 때의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건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의 최대 관심사였기에 시로네가 대답을 못하자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학비는 누가 대주는데? 그것도 귀족들이 대줘?”

“어. 일단은 지원을 받고 있어.”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정말? 얼마나 주는데? 돈은 좀 모아놨어? 장가는 어떻게 가려고? 귀족하고도 사귀어 봤어?”

“아니,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그럼 거기도 가봤어? 그 여자들 많이 있는 가게 말이야. 귀족들은 그런데도 막 드나들고 그러잖아.”

“그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의 열성적인 질의응답에 알토르의 인상이 구겨졌다. 마치 시로네가 리더인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화전민촌의 서열은 단지 약한 애들을 때리고 눕히기 위해 정해지는 게 아니었다. 강력한 우두머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많은 몫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사회와 격리된 그들에게 불화는 집단의 붕괴를 뜻한다. 어렸을 때부터 리더를 정하는 이유 또한 그들이 커서 마을을 책임져야 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었다.

알토르가 시큰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해라. 무슨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 너희들은 시로네의 인생이 부럽냐?”

“당연히 부럽지. 귀족들이 돈을 준다잖아.”

## [70] 정상에서(4)

“그렇다고 해도 마법사가 되지 못하면 말짱 꽝이야. 그렇지 않냐, 시로네?”

“응? 아, 당연히 그렇지.”

“남의 돈에 기대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짓이야. 성공하면 상관없겠지만 실패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시로네 너도 그러면 안 돼. 부모님 생각을 해서라도 먹고 살 길은 마련해두고 마법을 배우든가 해야지. 부모님에게 평생 얹혀서 살 거야? 그렇다고 네가 힘이 세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마법사가 되지 않더라도 배운 지식이 있으니 취직은 할 수 있다. 어차피 평민이니 자존심만 굽히면 시로네를 부를 곳은 많았다. 하지만 알토르의 말대로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배수진인가? 자만인가? 만약 마법사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속이 울렁거렸다. 실패.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시로네도 예외는 아니었다. 화전민촌 아이들의 현실적인 물음에 시로네의 가슴이 차가워졌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알토르가 게임을 제안했다. 한편으로는 리더로서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제안이기도 했다.

“자자. 복잡한 이야기는 됐고. 어이, 시로네. 오랜만에 나랑 팔씨름 한 판 해볼까?”

“어? 나랑?”

“그래. 너 예전에는 의외로 통뼈였잖아. 아직도 그 통뼈가 남아있는지 한 번 보자고.”

아이들이 테이블을 두들기며 대결을 부추겼다.

“오오오! 전사 대 마법사다! 세기의 대결이야!”

술자리의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시로네도 우울한 생각을 접고 웃음을 되찾았다. 성인을 번쩍 드는 사람하고 팔씨름을 하라니. 자존심을 떠나서 황당할 따름이었다.

“어때? 술값내기?”

알토르가 두꺼운 팔뚝을 테이블에 올리자 시로네도 지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내기가 걸린 판이라면 지든 이기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남자의 자존심이었다.

“좋아. 한 번 해보자. 대신 봐주기 없기다.”

“물론이지.”

손을 맞잡는 순간 시로네는 돌덩어리를 쥐는 기분이었다. 광자화마법을 걸어서 넘겨버리면 술값은 거저먹는 셈이지만 어디까지나 재미있는 상상에 불과했다.

마틴이 심판을 자청했다.

“자자, 준비하시고…… 시작!”

시로네는 사력을 다해 힘을 쥐어짜냈다. 하지만 알토르의 완력이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편으로 넘어갔다. 테이블 밑으로 우당탕 떨어진 그는 팔꿈치를 쓰다듬었다. 완력이 아니라 숫제 괴력이었다.

“아야야야. 진짜 세네.”

“우와! 역시 알토르야. 시로네는 마법사인데 한 번에 넘겨버렸잖아?”

마법과 팔씨름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마법사라는 이름이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듯했다.

“당연하지! 알토르는 전에 곰도 사냥한 적이 있다고!”

권위를 되찾은 알토르가 그제야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시로네, 너 정말 약해졌구나?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거 이상한 내기가 되어버렸네. 술은 그냥 내가 살게 시로네.”

루미나가 다가와 시로네를 부축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한 감정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시로네, 괜찮아? 하여튼 알토르라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 어떡해?”

화전민촌의 일원인 그녀였으니 알토르가 과격하게 넘긴 이유를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산 꾼의 생활에 익숙한 건 시로네도 마찬가지였기에 서운하지는 않았다.

“괜찮아. 근데 알토르는 정말 세졌네.”

시로네가 일어서는 순간 금화주머니가 떨어졌다. 주둥이가 벌어지면서 이름도 사랑스러운 금화들이 또르르 굴렀다. 화전민촌의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어? 이거 금화다, 진짜 금화야!”

“뭐? 어디어디! 우와! 진짜! 다섯 개나 있네?”

테이블 끝에 있던 아이들까지 모여들어 금화에 넋을 빼앗겼다. 화전민촌에서 금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른들도 드물었다. 아직 소일거리로 푼돈을 버는 아이들에게는 황금빛 코인의 자태가 성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너 돈 엄청 많다. 금화를 왜 다섯 개나 가지고 다녀?”

시로네가 쑥스럽게 금화를 주우며 말했다.

“혹시 몰라서 많이 가져온 거야. 정말 사고 싶은 책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난감하니까.”

“하긴, 책은 비싸지.”

아이들은 시로네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예전에 빈센트와 함께 왔을　때도 언제나 옆구리에 책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모르는 화전민촌 사람들은 책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시로네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떨어진 금화의 개수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시로네. 그럼 이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네 거니까 막 사고 싶은 거도 사고 그러겠네?”

시로네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여태까지 돈을 허투루 쓴 적은 한 번도 없다. 알토르의 말대로 남에게 받은 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은 듯했다. 자칫하면 그들의 삶에 상처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돈을 써야 할 일은 거의 없어. 학교 수업이 너무 많아서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에이. 그래도 술값은 낼 수 있잖아? 내기에서 졌으니까.”

“내기? 아, 그렇지.”

시로네는 알토르가 내겠다고 한 말을 똑똑히 들었으나 금화를 보여 놓고 모르는 체하면 오히려 그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할 것 같았다. 알토르 또한 비록 아는 건 없지만 무식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흐름에 분위기를 맡겼다.

“알았어. 내게 낼게. 졌으니까 뭐.”

시로네의 말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아싸! 그럼 우리 금화 쓰는 거지? 시로네, 술값 미리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사실 한 번도 금화 만져본 적 없거든.”

“계산은 내가 해볼게. 나 금화 내보는 게 평생소원이었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어느새 아이들의 리더는 시로네가 되어 있었다. 루미나는 걱정스럽게 알토르를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얼굴에 비참한 심정이 드러나 있었다.

그럼에도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루미나와 똑같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시로네를 지켜봐온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로네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다.

“그만들 좀 해! 사내라는 것들이 금화 하나 보고 쫀쫀하게! 언제 철들래? 이제 그만 다른 얘기 좀 하자.”

루미나의 잔소리에 아이들이 슬그머니 자리로 돌아갔다. 시로네는 그녀가 고마웠다.

눈치 빠른 마틴이 화제를 바꿨다.

“그나저나 들었어? 어제도 뒷산에 나타났다는데.”

“아, 나도 들었어. 이러다가는 산짐승들이 남아나지를 않을 텐데. 대체 언제까지 먹어치우려는 거지?”

“새끼를 밴 카우베어일 거야. 식성이 엄청나거든.”

카우베어는 곰과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회색 곰이다. 특히 암컷이 새끼를 뱄을 경우 평소 포식양의 두 배나 먹어치우기 때문에 사냥꾼들에게는 골치가 아픈 동물이었다.

시로네도 사냥을 제법 해봤기에 관심을 드러냈다.

“카우베어가 여기까지 넘어왔어? 원래 산맥 뒤편에 서식하지 않아? 정말 골치 아프겠다.”

“말도 마. 우리 아빠는 사냥꾼인데 요즘 만날 허탕이라니까. 산짐승들이 씨가 마를 지경이니 할 수 없지.”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잡으면 되잖아? 카우베어는 딱히 난폭하지도 않으니까 다섯 사람 정도면 충분할 텐데?”

“요즘 벌목 철이라 사람이 부족해. 전부 나무하러 가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그래도 이동반경을 보면 이곳에서 새끼를 낳지는 않을 건가봐.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래.”

“그렇구나. 아저씨도 힘드시겠네.”

알토르가 눈을 반짝이며 손가락을 튕겼다.

“어이, 브레드. 그 카우베어, 우리가 잡아버리면 어떨까?”

“뭐어? 우리가? 위험하지 않겠어?”

“날 어떻게 보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난폭하기로 소문난 적색 곰도 질리도록 사냥해본 나라고. 그깟 카우베어쯤 아무 것도 아니야.”

알토르는 이번 사냥을 계기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을 생각이었다. 그가 시로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완력과 사냥기술이었으니 어찌 보면 신이 주신 기회이기도 했다.

“어이, 어때? 우리 모두 브레드를 도와주자고.”

“그,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사냥감을 구해오지 못하면 가족들은 쫄쫄 굶을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브레드의 사정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게다가 알토르라면 덩치는 작아도 흉악하기로는 제일이라는 적색 곰을 잡은 장본인이 아니던가.

“좋아! 그럼 내일 카우베어를 잡으러 가자!”

“우오오오! 피가 끓는다! 브레드, 걱정하지 마! 이 형이 곰의 마빡에 확실하게 화살을 꽂아줄게!”

“멍청이! 네가 되겠냐? 우리는 함정이나 파고 알토르에게 맡기면 돼.”

“내일 아침 출발이야! 시로네, 너도 올 거지?”

알토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리더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로네가 따라와야 했다. 그 사실을 아는 시로네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도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으니 내 몫은 할 수 있을 거야.”

“좋았어! 자 그럼 건배!”

거품이 출렁이는 맥주잔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 \* \*

다음 날 새벽.

시로네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사냥준비를 했다.

전문도구는 아이들이 나누어서 가져가겠지만 기본적인 장비는 개개인이 갖추어야 했다.

로프를 꼬이지 않도록 큼직하게 말아서 배낭에 걸고 활과 화살을 점검했다.

횃불을 만들 천과 아교를 챙기고 대못과 망치도 구비했다.

여분의 화살촉을 가죽 주머니에 담고 조난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건조식량과 호루라기까지 꼼꼼히 챙겼다.

배낭을 들어보자 익숙한 무게감이 기분을 즐겁게 했다.

사나이 시로네,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며 문을 열자 장비를 챙긴 아이들이 전부 문 앞에 모여 있었다.

“어이, 시로네. 너무 늦잖아. 이게 빠져가지고. 크크크.”

시로네는 머쓱하게 웃었다. 역시 현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모양이었다.

“하하, 미안. 오랜만에 하는 거라 손에 안 익어서.”

“아무튼 출발하자.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알토르가 선두에 나서고 시로네는 루미나와 함께 중간 그룹에서 뒤를 따랐다. 후방은 마틴이 지켰다.

카우베어 출몰 지역에 도착하자 해가 떴다.

루미나는 불을 피우고 요리를 시작했다. 아침은 양젖치즈를 녹인 옥수수 스프와 빵이었다. 시로네는 딱딱한 빵을 스프에 듬뿍 찍은 다음 꿀꺽 삼켰다.

“맛있다. 역시 루미나의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헤헤.”

루미나는 수줍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밥값이나 똑바로 하라고 호들갑을 떨었을 것을 생각하니 확실히 아이들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좋은 변화였고 시로네는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다 먹었으면 슬슬 출발하자. 아무래도 놈은 위쪽에 있는 거 같아.”

알토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 중턱으로 향했다. 그의 예상이 맞았는지 나무마다 곰이 영역표시를 해놓았다. 마틴이 발톱자국이 심각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 좀 봐. 나무가 아예 패였어. 엄청 힘이 좋은 가봐.”

알토르가 다가가 발톱자국을 유심히 살폈다.

“흥. 이 정도면 문제없어. 발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고.”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닐까?”

“곰의 힘은 정평이 나있지. 생각보다 빠르기도 하고. 하지만 카우베어는 움직임이 둔한 편이야.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충분히 사냥할 수 있어.”

시로네는 뒤늦게 발톱자국을 살폈다. 그리고 위화감에 살며시 미간을 찡그렸다. 나무에 새겨진 상흔일 뿐이지만 곰이 저곳에 영역표시를 하는 광경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이상하다. 힘으로 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오히려 아주 빠르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후려친 듯한…….’

알토르는 이쯤에서 활을 꺼내들었다. 화살을 장전한 상태에서 상체를 숙인 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으니 주의해. 조금만 더 올라가서 함정을 설치하자.”

알토르를 따르는 아이들은 발걸음을 죽이며 산을 올랐다. 이런 삶이 일상이어서인지 다들 능숙한 몸놀림이었다.

시로네는 스피릿 존으로 들어가 사방을 감지했다. 직경 40미터로는 능숙한 사냥꾼의 시야보다 못하지만 안 좋은 기분을 느낀 이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

그렇게 정상까지 다다를 무렵 상당히 불쾌한 기운이 공감각을 통해 전해졌다. 시로네가 걸음을 멈추고 느낌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쓰자 알토르가 돌아보며 물었다.

“시로네 뭐해? 여기는 함정을 설치 안 할 거야.”

“알토르. 뭔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난 아무 것도 못 느끼겠는데.”

알토르는 시로네의 의견을 사전에 차단했다. 아무리 시로네가 똑똑해도 사냥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전문가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열을 이탈해서 어딘가로 걸어갔다. 알토르가 화난 표정으로 뒤를 쫓았다. 산에서 독단적인 행동은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었다.

“시로네. 너 자꾸 이럴 거면 그냥 내려…… 윽!”

알토르는 전방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질겁했다. 이 순간만큼은 시로네도 말을 잃었다. 구토가 밀려들면서 아까 먹은 양젖치즈 냄새가 역류했다.

“이게…… 대체 뭐지?”

## [71] 정상에서(5)

산짐승들이 처참하게 찢어진 채 나뭇가지에 빨래처럼 걸려있었다. 개중에는 포악한 육식동물도 보였다.

뒤늦게 도착한 아이들이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을 지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산 꾼의 몫을 충분히 한 셈이었다.

“아, 알토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정말 카우베어가 한 짓이란 말이야?”

마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루미나는 차마 보지 못하겠는지 고개를 돌린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시로네는 누구보다 빠르게 결단을 내렸다.

“내려가자.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

“아니, 조금 더 가보자. 뭔지 알아야겠어.”

“알토르!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가자는 거야! 이런 게 산에 들어오면 사냥감이 전부 떠나버릴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굶어죽는 거야!”

“그건 알지만 너무 위험하잖아. 차라리 도시에 내려가서 신고를 하자.”

“신고? 너 귀족이랑 놀더니 머리가 이상해 진 거 아냐? 산 꾼의 처지를 누가 신경이나 쓸 거 같아?”

“바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이건 신경 안 쓸 만큼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고. 저기 짐승들을 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보고도 모르겠어?”

마틴이 끼어들었다.

“시, 시로네. 알토르. 저기 좀 봐.”

나무덤불이 바슬바슬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고 있었다. 시로네와 알토르는 동시에 화살을 장전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겨누었다.

부스스. 부스스.

이파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아이들도 저마다 무기를 꺼내들고 의문의 정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짐승을 도살한 자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시로네와 알토르의 화살은 원래의 표적에서 훨씬 위로 올라갔다.

“이, 이럴 수가…….”

용맹함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알토르의 목소리가 공포에 잠겼다.

“크르르르.”

신장 2미터가 넘는 늑대처럼 생긴 괴물이 구부정한 자세로 아이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가슴근육이 풍선처럼 부풀었고 허리는 가늘었다. 팔은 무릎까지 늘어졌고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손톱은 인간의 새끼손가락만큼이나 길었다. 무릎은 역관절로 꺾여있었는데 고양이처럼 긴 발바닥으로 몸을 떠받치고 있어 날렵해보였다.

마틴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모, 몬스터다.”

진화학자들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이 하나의 원천생물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몬스터는 계통학적으로 전혀 다른 원천생물에서 발생한 개체였다. 그렇기에 동물적인 특징만으로는 몬스터를 온전히 분석할 수 없다. 놈들은 여타의 동물들보다 강하고 민첩했으며 심지어는 지성까지 갖추고 있었다.

‘늑대의 외관에 이족보행. 울크다.’

시로네는 책에서 배운 지식을 떠올렸다. 울크는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대신 수백 가지의 감정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고, 부족 생활을 하는 만큼 사회성도 갖추고 있었다.

강인한 손톱과 빠른 기동성, 강력한 근력을 갖춘 밸런스 타입이라서 집단을 형성했을 때는 몬스터 헌터들도 싸우기를 꺼려하는 몬스터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어째서 이곳에 나타난 거지? 이 지역에는 몬스터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당장 떠오르는 경우는 하나였다. 부족 간의 전쟁에서 패한 울크들이 거주지를 옮겨 이곳까지 흘러든 것이다. 시로네의 생각을 증명하듯 울크의 몸에는 군데군데 상처가 나있었다. 털에는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엉겨있어 얼마만큼 피를 흘렸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거친 호흡소리가 알토르의 책임감을 일깨웠다. 리더로서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해야만 했다.

‘그래봤자 살아있는 생물이다. 마빡에 맞추면 즉사야.’

알토르는 심호흡을 하며 화살을 겨누었다.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크는 태연하게 나무에 손을 짚고 먹잇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성이 있다는 증거였다.

‘죽어라! 더러운 놈아!’

알토르의 화살이 바람처럼 날아갔다. 하지만 울크는 고개만 살짝 틀어 손쉽게 피해버렸다. 그러고는 비웃는 듯 목젖을 긁는 소리를 냈다.

“크르르. 크르르르.”

지근거리에서 화살을 피하는 동체시력에 아이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절망의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콰지지지직!

울크는 나무둥치를 아귀힘만으로 부서뜨렸다. 그리고 울토르를 향해 일갈을 내질렀다.

“크아아아앙!”

“제길! 도망쳐!”

통나무를 뜯어내버린 완력을 본 순간 알토르는 다시 화살을 장전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다.

모두가 정상을 향해 달려갔지만 시로네는 마지막까지 남아 울크에게 화살을 쏘았다.

“크아아아앙!”

시로네의 도발은 울크를 더욱 화나게 했다. 하지만 덕분에 아이들은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날렵한 동작으로 뛰어오른 울크가 시로네의 정수리를 손톱으로 내리찍었다. 동시에 시로네의 몸이 섬광으로 변하여 허공으로 솟구쳤다.

“크릉?”

순간 이동으로 허공에 떠오른 시로네는 높은 곳에서 울크를 내려다보았다. 깊은 산중이라 순간 이동을 연속으로 시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여기서는 안 돼. 정상으로 가야겠다.’

알토르는 힘에 부치는 아이들을 부축하고 뛰고 또 뛰었다. 내리막길을 선택하지 않은 건 옳은 판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가다가는 전부 굴러 떨어질 것이었다.

“빨리! 빨리 뛰어!”

무기고 짐이고 전부 던져버린 아이들은 혀를 빼물고 기다시피 산을 올랐다. 루미나가 소리쳤다.

“시로네는? 시로네가 안 보여!”

“시간을 벌고 있는 거야! 올라오기나 해!”

알토르가 아이들을 재촉했다. 시로네가 걱정스러웠지만 지금 상황에서 걱정 따위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선은 아이들만이라도 지켜야 했다.

“크아아아앙!”

아이들이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 내리막길에서 울크의 괴성이 올라왔다. 알토르의 미간이 구겨졌다. 몬스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시로네가 도망쳤거나 죽었다는 얘기였다.

“제길! 숨을 곳이 없어!”

산 정상은 평지에 가까운 공터였고 끝에는 벼랑이었다. 벼랑의 높이는 20미터에 불과했지만 벽을 타고 내려갈 시간이 없었다.

“알토르! 괴물이 왔어!”

울크가 손톱으로 땅을 끌어당기며 올라왔다. 태양빛에 반사되는 돌덩이 같은 근육이 선명히 보였다. 아이들에게서 떨어진 알토르는 자진해서 미끼가 되었다.

“여기다! 이쪽이야!”

하지만 사방이 절벽이라 도망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알토르는 비참한 심정으로 돌아섰다. 매일같이 단련한 근육도 몬스터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의 완력에 지나지 않았다.

“젠장! 나도 모르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워나보고 죽자는 생각에 주먹을 치켜드는 그때 눈앞에서 울크가 사라졌다.

“빨리 도망쳐!”

알토르는 놀란 표정으로 옆을 돌아보았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건만 어느새 시로네가 울크와 함께 뒹굴고 있었다.

“어, 어떻게?”

알토르는 시로네에게 달려가려고 했으나 또 다시 시로네의 모습이 빛으로 변해 사라지자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우와. 저, 저거 마법이지?”

순간이동을 처음 접한 아이들은 경악했다. 울크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시로네가 빛으로 번쩍이면 순식간에 표적을 놓치는 상황이 연달아 일어났다.

“크아아아앙!”

울크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몬스터의 분노는 짐승의 본능처럼 일차원적이지 않았다. 누구를 먹든 똑같은 고기라고 생각한 놈은 보란 듯이 몸을 틀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으아아아아!”

새파랗게 질린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마음 약한 루미나만이 도망칠 생각조차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루미나! 도망쳐!”

“아……. 아…….”

시로네는 울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광자 출력의 전지와 전능을 결합시켰다. 하지만 루미나가 있는 곳은 스피릿 존의 반경 바깥이었다.

‘아차! 닿지 않는다.’

시로네는 사방식을 타깃형으로 변환했다. 십자가의 형태로 존이 변하자 마침내 공감각에 울크가 잡혔다.

‘광자출력!’

빛이 번쩍 하고 튀어나가며 울크의 눈을 맞췄다. 갑작스러운 광채에 울크가 눈을 가리며 괴성을 내질렀다.

“됐어! 시로네가 처치했어!”

광선의 임팩트가 엄청났기에 아이들은 울크의 얼굴이 박살났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광자출력에 물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시로네는 울크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루미나! 빨리 뛰어! 시간이 없어!”

루미나는 황급히 몸을 날렸다. 하지만 이미 다리가 굳어서 통나무처럼 바닥에 쓰러질 뿐이었다. 시로네의 마법에 위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이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어떡하지? 그냥 빛만 쏘는 건가봐.”

“크아아아앙!”

시력을 되찾은 울크가 루미나를 덮쳤다. 날카로운 갈고리 손톱이 그녀의 머리끈에 걸렸다. 고무줄이 끊어지며 루미나의 머리가 풀어헤쳐졌다. 동시에 시로네가 울크의 허리를 붙잡고 순간이동을 시전했다. 하늘로 솟구친 섬광이 높은 고도에서 절벽 아래를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다.

“시로네! 안 돼!”

“크아아아앙!”

울크가 발버둥을 치려고 할 때마다 시로네는 순간 이동을 되풀이했다. 순간 이동의 방향성을 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엄금하는 위험한 시도지만 울크의 정신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어떡하지? 여기서 어떡해?’

이대로 추락해봤자 울크는 죽지 않는다. 광자화 상태에서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순간 이동이 끝난 지점에서 낙하에너지는 0이었다. 그렇다고 마법을 포기하고 추락하자니 울크의 발버둥을 버틸 재간이 없었다.

‘질량. 질량이 필요해……!’

그 순간 시로네의 몸에 오싹 소름이 돋았다.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초상감이었다. 수많은 상념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세계의 시작. 게이지 대칭성. 침대 위에 맴도는 소용돌이. 질량은 힘이 아니다. 우주의 활동을 여는 존재의 힘. 대칭성을 깨트리는 균열.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던 시로네가 인간의 정신으로 재구성되면서 느꼈던 결핍감이 초상감의 원인이었다.

전지와 전능의 불협화음.

잃어버린 파편의 이름은 중력이었다.

전지가 성립되자 여태까지 악몽을 통해 존재감을 알려왔던 전능이 정확히 맞물렸다. 마법의 발동조건이 갖추어지자 시로네는 울크를 광자화 상태로 바꾸어 아래로 내던졌다.

“크아……!”

비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지상과 충돌한 울크의 몸이 텅 소리를 내며 튀어 올랐다.

레인보우 드롭으로 착지한 시로네는 울크를 노려보았다.

즉사였다. 광자화 상태에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빛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하아. 하아.”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물질에 질량을 전달하고 소멸하는 또 하나의 원소가 있다.

인간이 관측할 수 없는 미지의 입자.

그것이 바로 시로네가 무한의 영역에서 깨달은 전지이자 게이지 대칭성이 깨져 보이는 이유였다.

“됐다. 드디어 알아냈어.”

시로네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감동에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날만큼 가슴이 벅차올랐다.

꺄아아아악!

그 순간 절벽 위쪽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시로네는 냉정을 되찾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설마……?”

그러고 보니 울크는 사회성을 갖춘 몬스터였다. 부족전쟁에서 패했더라도 단독으로 돌아다닐 확률은 낮았다.

“안 돼!”

시로네는 순간 이동을 시전하고 절벽 위로 날아올랐다. 정상에 도착하자 알토르 일행과 마찬가지로 몸이 굳었다. 수십 마리의 울크가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다. 부족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놈들의 사회성을 너무 얕봤어.’

아이들이 울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 어떡해. 우린 이제 다 죽었어.”

“난 장가도 못 갔는데. 이렇게 죽긴 싫어.”

시로네도 죽고 싶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지금은 울크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도 갖추고 있었다.

“괜찮아, 얘들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쩌려고? 그러지 말고 너라도 도망쳐. 너는 마법으로 도망칠 수 있잖아.”

“괜찮아. 이제부터는 교칙을 어긴 게 아니니까.”

시로네는 울크의 무리로 걸어갔다.

“시로네! 위험해!”

알토르가 불렀으나 외면했다. 그저 조금 전의 깨달음을 복기하며 울크들을 노려볼 뿐이었다.

족장으로 보이는 은색 털의 울크가 같잖다는 듯 고개를 까닥이자 오른팔 격인 울크가 튀어나왔다.

“크아아아앙!”

시로네는 손바닥에 광자를 집중시켰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더…….’

손에 모인 빛이 점차 창백해지더니 급기야는 눈이 부실만큼 강렬한 백광을 발산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울크는 빠른 속도로 시로네의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시로네는 적과의 거리를 재는 한편 손에 모인 광자의 성질을 바꾸는 데에 집중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마침내 도착한 울크가 손톱을 휘둘렀다.

시로네의 몸이 갑자기 1미터나 밀려났다. 단거리 순간 이동으로 거리를 벌린 그가 눈을 부릅뜨고 마법을 시전했다.

‘지금이다!’

압축시킨 광자를 집어 던지자 창백한 섬광이 울크의 복부에 처박혔다. 구체의 형태로 짓눌린 광자가 울크를 밀어내면서 다시 금빛 선이 되어 뻗어나갔다.

“크아아아앙!”

울크는 괴성을 내지르며 날아갔다. 그리고 다른 울크와 충돌해 산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마, 말도 안 돼. 방금 봤어? 저 거대한 몬스터가 수십 미터나 날아가 버렸잖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게 마법이라는 거야?”

시로네의 마법을 본 울크의 족장이 콧잔등을 끌어당겼다. 지능이 상당히 뛰어난지 인간의 언어가 새어나왔다.

“마…… 법……사…….”

수많은 울크의 눈동자가 시로네를 주시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오직 족장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자에 담긴 질량은 미세하지만 준아광속으로 뻗어나가는 속도에 무게를 실은 충격은 예상을 깨는 수준이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오직 시로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언로커의 마법…….

바로 포톤 캐논(광양자 포)이었다.

(3권 끝)

=======================================

# Volume 4

=======================================

## [72] 드림 온(1)

포톤 캐논.

광양자에 담긴 질량은 미소하지만 광자 출력의 빠른 속도로 타격하는 충격량은 일개 몬스터가 버틸 수준이 아니었다.

울크 족장의 눈이 불타올랐다. 인간과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그는 마법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됐어! 겁먹었나 봐! 시로네가 해냈다고!”

마틴이 소리쳤다. 하지만 알토르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 상대하는 건 일개 짐승이 아닌 몬스터였다. 이성이 있다고 하지만 놈들의 야수성도 우습게 볼 것이 아니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시로네가 강해도 인간일 뿐이야. 무리 사냥을 하는 짐승들은 한두 마리의 피해로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아.”

알토르의 분석대로 울크 족장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마법사의 능력은 파괴적이지만 집단의 폭력성은 고작 1명에게 겁을 먹지 않았다.

“크르르르, 죽……여……라…….”

“크아아아앙!”

튀어나오는 울크의 괴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할 수 있어. 정신만 차리면 이길 수 있다.’

시로네는 순간 이동으로 날아올라 포톤 캐논으로 지상을 폭격했다. 섬광이 우박처럼 내리꽂혔다. 포톤 캐논에 맞지 않더라도 땅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울크들을 강타했다.

그럼에도 울크의 위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집단을 이루었을 경우에는 숲의 왕이라 불리는 오거조차 한 수 접어주는 호전적인 종족이었다.

동족의 피해에 개의치 않고 저마다 뛰어오른 울크들이 시로네에게 손톱을 휘둘러댔다. 시로네는 황급히 지상에 착지했다. 그곳에도 일곱 마리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시로네는 스피릿 존을 사방식의 공격형으로 변환했다. 스피릿 존의 가시들이 울크에 닿는 순간 다연발 포톤 캐논이 쏘아졌다.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섬광이 뻗어나가고, 광자에 얻어맞은 울크들이 왔던 곳으로 튕겨나갔다.

“우와, 엄청나잖아…… 시로네.”

아이들은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다. 인간이 수십 마리의 울크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니. 영웅들의 무용담 같은 것은 세간에서 떠도는 허풍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로네의 전투를 보고 있노라면 어떤 이야기도 사실로 믿게 될 듯했다.

“하아, 하아.”

시로네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포톤 캐논을 다연발로 시전하는 순간 의식이 날아갈 듯했다. 광자 출력을 10분 이상 지속시키는 정신력으로도 버티기가 어려웠다. 포톤 캐논은 빛과 질량이 결합된 퓨전 매직이기 때문이다.

마법사는 전지를 장착할 수 있는 하나의 슬롯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번트 신드롬인 이루키라면 더블이 가능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아무리 고위 마법사라도 한 번에 하나의 마법만을 구사하게 된다.

따라서 단일 속성인 퓨어 매직을 주특기로 구사하는 마법사는 프로 세계에서 흔치 않았다. 대부분 두 가지, 심지어는 세 가지 속성을 결합하여 단일 마법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냉기와 바람의 결합인 시이나의 아이스 토네이도나 빛과 화염을 결합한 사드의 파이어 선이 대표적인 예였다.

퓨전 마법은 순간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만큼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했다. 그런 마법을 연달아 시전했으니 시로네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다.

‘큰일이다. 몇 발 안 남은 거 같아. 전부 쓰러뜨릴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울크는 골목길의 불량배들과 다르다. 짐승의 후각은 먹잇감의 감정을 귀신같이 읽어낸다.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인다면 곧바로 사지를 찢어 놓으려 할 것이다.

실제로 울크의 족장은 동족의 3분의 1을 잃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시로네가 지친 것을 깨달은 울크의 2차 부대가 돌진했다. 1차 부대와 비슷한 숫자지만 정신이 온전했을 때와 비교하면 느낌자체가 달랐다.

시로네는 다급한 마음에 포톤 캐논을 갈겼다. 선두에서 달려오던 울크의 뱃속에 광자 덩어리가 파묻혔다.

“크아아아아!”

거구의 육체가 바닥을 끌면서 밀려 나갔다. 하지만 전과 달리 쓰러지지 않고 두 다리를 땅에 박고 버텨냈다. 시로네는 아찔했다. 설마하니 이 정도로 위력이 떨어졌을 줄이야.

확신을 얻은 울크 족장이 총공격을 지시했다.

“크앙! 크앙! 크앙!”

울크들도 승기를 직감하고 우르르 달려들었다.

‘이렇게 된 이상…….’

시로네에게 남은 것은 이모탈 펑션뿐이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일전에 광자 출력을 시전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신력의 소모 단위가 높은 퓨전 매직을 무한의 영역에서 시전한다면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크으으으!”

이모탈 펑션을 개방하는 순간 시로네의 정신에 압력이 차올랐다. 머리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으아아아아!”

시로네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개방했다. 자아가 느슨해지는 기분과 함께 엄청난 힘이 밀려들었다.

스피릿 존이 빛으로 채워지는 순간 강렬하게 폭발했다. 질량파가 울크들을 밀어내면서 황금빛 파편이 흩날렸다.

손바닥에 빛의 구체를 띄운 시로네는 온힘을 다해 전방으로 쏘았다. 포톤 캐논이 백색의 섬광으로 뻗어나가면서 일대가 초토화되었다. 출력을 줄이지 않고 연거푸 포화를 갈기자 마치 빗자루로 쓸듯이 울크들이 휘둘렸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무한이 바다라면 시로네의 정신은 시냇물이다. 이모탈 펑션은 그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인 셈이다. 구멍을 뚫어 바닷물을 끓어다 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속되면 장벽이 무너질 터였다.

마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정신력이 다르기에 마법사는 상황에 따라 가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마법을 선택하게 된다.

가격에 비해 효과가 월등이 뛰어난 마법을 마법 사회에서는 오버 파워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는 시간 마법 스톱, 투명 마법 인비저빌러티, 연금 마법 인젝션, 치유 마법 힐 오브 올마이티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포톤 캐논은 어떨까?

시로네는 오버 파워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탁월한 공격 속도, 단발과 연사의 혼용, 심지의 빔의 형태까지 가능하다는 건 공격마법에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격에 비해 효율이 높다는 얘기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포톤 캐논은 비싼 마법이었다. 지금처럼 무차별로 시전하다가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먼저 죽고 만다!’

시로네는 포톤 캐논의 시전을 멈췄다. 포화 시간은 대략 3초에 불과했으나 사방에서 먼지가 피어올라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었다.

바람이 한바탕 휘몰아치면서 먼지들이 쓸려 나가자,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전율했다. 포톤 캐논이 휩쓸고 지나간 일대가 초토화되어 있었다.

울크들이 땅에 씹힌 듯 파묻혀 있고 도망친 놈들 또한 동족의 죽음을 슬퍼할 정신도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시로네는 포톤 캐논의 위력을 실감했다. 섬광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법을 시전한 당사자가 감탄할 정도였으니 당하는 쪽의 입장은 오죽하겠는가. 울크 족장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 마법사는 이길 수 없다.

“크르르, 우리…… 간……다. 보내…… 달라…….”

현재 시로네는 어떤 마법도 불가능할 정도로 녹초가 된 상태였다. 하지만 끝까지 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 한 번만 더 이 산으로 들어오면 이걸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울크 족장은 서툰 인간의 언어로 비굴한 감정을 전했다.

“안…… 온다. 강하……다, 마법……사.”

“가라.”

시로네가 손을 휘두르자 울크 족장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 다른 울크들도 미련 없이 족장의 뒤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울크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긴장이 풀린 시로네는 비틀거리다가 눈을 감고 쓰러졌다.

“시로네! 시로네!”

“쉿! 조용히 해. 놈들이 다시 올지도 몰라.”

알토르가 주의를 주자 아이들이 입을 틀어막았다.

알토르는 다시 시로네를 살폈다. 세상모르고 곤히 자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다.

화전민촌의 아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성했지만 시로네만큼은 어린 날의 모습 그대로인 듯했다.

‘마법사는 나이를 안 먹는다더니.’

처음에는 흔해 빠진 산 꾼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어디서 주워 온 자식. 시로네는 빈센트 아저씨와 조금도 닮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우습게 봤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어쩌면 시로네는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을까?

산 꾼과는 태생부터 다른 인간.

알토르는 시로네를 번쩍 들었다. 완력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시로네였지만 자부심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가벼운 몸 안에 담긴 지성의 무게만큼은 결코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내려가자. 사냥놀이는 끝이야.”

\* \* \*

“헉!”

잠에서 깨어난 시로네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누군가의 집이었다.

소파 등걸이에 손을 대고 주위를 살피자 아늑한 마루가 눈에 들어왔다.

모닥불에 타는 화로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기역 자로 꺾인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렸다.

“어? 시로네 깼다. 루미나, 시로네 일어났어!”

마틴이 소리치자 부엌에서 우당탕 요란스러운 소리가 밀려들었다. 잠시 후 벽 너머에서 루미나가 상기된 얼굴을 배꼼 내밀었다.

“여긴?”

시로네는 그제야 기억해 냈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자주 머물렀던 루미나의 집이었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내려왔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시로네의 곁을 지켰는지 사냥을 나갔던 차림새 그대로였다.

“시로네, 괜찮아?”

알토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로네의 몸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마법에 대해 무지했으니 이상 징후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시로네는 몇 가지 실험을 통해 머리에 이상이 없는지 살폈다. 기억은 온전했고, 정신도 괜찮은 듯했다.

“괜찮아. 피곤해서 쓰러졌나 봐.”

“후우, 다행이다. 우린 네가 잘못되는 줄 알았어.”

시로네는 괜한 걱정을 시켰다는 생각에 적잖이 미안했다. 물론 아이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지만.

“오랜만에 단잠을 잤더니 기분이 상쾌하네. 이제야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아.”

숙소에서 긴 수면을 취했지만 사실 피로는 별로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지긋지긋한 초상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겨낼 것이라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있던 것이 사라지자 그동안 얼마나 힘든 상태에서 버티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아르민 씨의 말이 맞았어. 포톤 캐논을 터득하자마자 감각이 되돌아왔어. 악몽도 꾸지 않았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오랜만에 느껴 보는 허기였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냄새 또한 굶주림을 자극하는 것에 일조했다.

시로네는 입맛을 다시며 루미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지금 뭐 만들어?”

“돼지고기 스튜. 엄마가 고기 사 왔거든.”

루미나의 엄마가 국자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시로네, 안녕?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하네요.”

“후후, 그런 소리 하면 섭섭하지. 우리 딸이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루미나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하지만 갑자기 눈빛이 슬프게 변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알토르는 그녀의 심정을 이해했다.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모두 깨닫고 있을 터였다.

시로네는 우리들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는 화전민촌의 아이가 아니었고 산 꾼의 자식도 아니었다.

시로네는 마법사였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알토르가 호탕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자, 자! 배고프다. 일단 밥이나 먹자.”

“와아아! 오랜만에 고기 먹겠다! 고! 기! 고! 기!”

루미나의 엄마가 커다란 통을 식탁에 올렸다.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스튜가 적정선을 넘어 출렁거리고 있었다.

루미나의 식구는 4명뿐이지만 화전민촌에서는 한 집에 모여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기에 식기는 충분했다.

## [73] 드림 온(2)

10여 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앉자 루미나의 엄마가 삶은 고기를 푸짐하게 덜어 주었다.

시로네는 눈치가 보였다. 이만큼 음식을 차리려면 돈이 제법 나갈 터였다. 값을 지불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건 그것대로 이상한 일이었다.

시로네의 마음을 읽었는지 알토르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몬스터의 가죽을 팔면 돈이 되니까.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가려고. 물론 네 허락부터 받아야겠지만.”

“응?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지. 아, 그리고 몬스터의 이름은 울크야. 손톱이랑 송곳니는 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

시로네라면 당연히 허락하리라 생각했다. 더군다나 다른 부위도 돈이 된다고 하니 예상보다 큰 소득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반가운 건 몬스터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세계에서는 지식 또한 돈이 된다.

이름조차 모른 채 시장에 내놓았다가는 덤터기를 쓸 것이 뻔했다. 어쩌면 무두질에 들어간 노력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그렇군. 아무튼 고맙다. 울크도 그렇지만 네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꼼짝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을 거야.”

대대로 밭을 일구고 산에서 나는 것들을 팔아 살아온 그들에게 터전이 사라진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시로네는 마을을 구한 영웅이었다.

“괜찮아. 나에게도 이곳은 소중한 곳이니까.”

시로네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울크의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진행되어 팔 수 없을 텐데도 아이들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아 주었다.

부유하지는 않다. 그렇기에 삶이 힘들고, 그래서 귀족보다 얼굴을 붉힐 일이 더 많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이들이 좋았다.

마틴이 고기를 우물거리며 말했다.

“그나저나 애써 얻은 휴가가 이렇게 되어 버려서 미안하네. 차라리 내일 같이 산에 올라가지 않을래? 껍데기랑 손톱이랑 전부 팔아서 그 돈으로 재밌게 놀자.”

노는 일이라면 화전민촌 아이들이 빠지지 않았지만 시로네는 아쉬운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분석하고 싶었다.

“아니야. 충분히 쉬었거든. 덕분에 피로도 풀렸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일 아침에 학교로 돌아가야겠어.”

\* \* \*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달이 뜬 밤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밤새 장비를 손질해야 되고 수레도 점검해야 했다.

시로네는 동산에 올라가 화전민촌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이 횃불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내일의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로 장난을 치며 즐겁게 떠드는 모습에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걸렸다.

“시로네, 여기 있었구나.”

“어? 알토르, 어떻게 찾았어?”

“그냥 여기 있을 거 같더라고. 무슨 생각 하고 있어? 내가 오는 것도 모르고.”

“예전 생각. 아버지랑 왔을 때 참 많이 뛰어놀았는데. 저기 밭에서는 술래잡기도 하고.”

“그랬지. 하지만 넌 혼자서 책을 읽는 시간이 훨씬 많았잖아. 물론 우리 때문이겠지만.”

“아니야. 그건 내가 워낙 책을 좋아해서…….”

알토르는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필요 없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예전부터 아이들은 너를 동경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질투가 난 적도 많았고. 지금 생각하면 너에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내가 이상했던 거야. 어쩌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 혼란한 시기였거든.”

화전민촌에서 시로네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는 부모의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실상은 열두 살에 마법을 접한 이후로 끝없는 번뇌와 고민의 연속이었다.

알토르는 짐작이 가는 바가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시로네의 마법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책만 보는 줄 알았던 소년이 사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하다, 시로네.”

“괜찮다니까.”

“아니, 그것 말고. 술자리에서 말이야. 내가 주제넘은 말을 했어.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릇이라는 게 있지. 내가 실수한 거야. 마음에 담아 두지 마.”

시로네는 어젯밤 알토르의 따끔한 지적을 떠올렸다.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 또한 마법을 선택한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할 부담이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축복받으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운아인지.”

“아니야, 시로네. 넌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남들도 너를 도와주는 거잖아.”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가 했던 말이 나의 현실이고, 그렇기에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야.”

알토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기 자신을 남처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화전민촌에 없었다.

“대단하구나, 마법사라는 건.”

마법사들의 사고방식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경외하는 것이리라.

시로네와 알토르는 화전민촌을 내려다보았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 \* \*

다음 날 아침.

어른들은 꼭두새벽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 남아 있는 건 아이들뿐이었다.

시로네는 루미나의 집에서 조식을 먹고 집을 나섰다.

아이들이 배웅했으나 그들 또한 울크를 해체할 작업 도구를 잔뜩 짊어진 채였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그들의 삶에서 시로네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만큼 막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잘 가, 시로네. 공부 열심히 하고. 꼭 마법사가 돼라.”

알토르가 악수를 청했다. 다른 아이들도 시로네에게 몰려들어서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시로네, 또 놀러 올 거지?”

“다음에 오면 마법학교 이야기 많이 해 줘.”

“하하! 알았어. 학기 끝나면 올게. 너희도 잘 지내고.”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마친 시로네는 루미나를 돌아보았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만큼은 얼굴이 어두웠다.

시로네도 루미나의 연정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남녀 사이의 일이라는 건 머리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루미나,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또 해 줄 거지?”

루미나는 그제야 웃음을 보였다. 초탈의 미소였다. 여기에서 더 바라는 건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자주 와. 마법사 됐다고 모르는 체하면 때려 줄 테니까.”

“그래. 꼭 다시 올게.”

화전민촌의 언덕길을 내려가던 시로네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잘 있어! 건강하고!”

시로네가 다시 돌아서서 멀어지자, 그제야 루미나는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시로네가 떠난다는 사실보다 슬픈 건 이제는 그를 좋아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는 현실이었다.

“야, 괜찮아?”

알토르가 루미나의 어깨를 짚으며 물었다. 루미나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 냈다. 알토르는 괜히 속이 상했다. 어릴 때부터 시로네를 향한 연심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진지했던 것인지는 몰랐다.

“쳇, 그렇게 서운하면 말이라도 해 보든가. 뭐하면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데려올까?”

“아니, 괜찮아. 시로네는 떠난 게 아니니까.”

루미나는 양손으로 번갈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그녀의 입가에는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시로네는,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루미나는 산과 숲의 신에게 기도했다.

그가 가는 길에 따스한 빛이 깃들기를.

\* \* \*

시로네는 학교로 돌아가는 동안 화전민촌이 던진 화두에 대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

오젠트 가문의 손님이 되었다고 해서, 마법학교의 학생들과 공부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이룬 건 아니었다.

실패를 교훈 삼아 꾸준히 정진하라는 말은 평민인 그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쉬지 않고 재능을 폭발시켜야 한다. 한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발전해야만 한다.

오젠트 가문의 지원으로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의 희생으로 마법이라는 고급학문을 공부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일까?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순순히 납득하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학교에 도착한 시로네는 연구회로 발길을 돌렸다. 마음이 심란해서 숙소에 들어가기가 영 내키지 않았다.

‘애들은 재밌게 놀고 있을까? 많이 잃지는 않았어야 할 텐데…….’

지금쯤 이루키와 네이드는 별천지인 카지노에서 신나게 배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제발 집문서만 걸지 않기를 바랐다.

이스타스의 미로를 지나 연구회가 있는 창고로 들어간 시로네는 철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틈을 타고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어라?”

문을 열어보니 이루키와 네이드가 소파에 앉아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토론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이루키는 전에 없이 흥분한 상태였다.

“이 멍청아! 영구 동력 기관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니까!”

“왜 그렇게 앞뒤가 꽉꽉 막혔냐? 내가 말하는 건 무한 동력이 아니라 제2종 영구기관이라고!”

“그건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되지!”

“그럼 이건 뭐야! 내가 만든 이건 뭐냐고!”

네이드는 테이블에 놓인 태엽 마차를 가리켰다. 사실 마차라 부르기에도 애매한 바퀴 달린 철 상자였다.

“어? 저기…….”

네이드는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태엽 마차를 들고 눈앞에 흔들었다.

“시로네! 네가 보고 말해 줘. 내가 이걸 만들었다니까. 일단 이렇게 태엽을 감은 다음에 바닥에 내려 두면……!”

마차가 원운동을 하며 움직였다. 그런데도 감았던 태엽이 풀리지 않고 있었다.

이루키가 도끼눈을 치켜뜨며 삿대질을 했다.

“야, 시로네! 속지 마. 저거 완전 사기야!”

“뭐가 사기야? 너도 언제 멈추나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금 나랑 이러고 있는 거잖아!”

“멍청아! 1~2시간 정도로 증명되는 거면 아무나 다 만들었지! 네가 만든 기관은 단지 효율성이 높은 것뿐이잖아! 태엽도 돌려 보니까 더럽게 빡빡하던데!”

“뭐가 어째? 미니어처라서 한계가 있는 거지 크게 만들면 성능을 100배는 높일 수 있다고!”

“얼마나 크게 만들 건데? 하늘만큼? 말에게 여물을 주고 끌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다!”

“가능성만 보여 주면 돼!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량화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은 결국 무너지는 거야!”

“이론 따위 알 게 뭐야! 만들어서 써먹으면 끝이지!”

수학자와 공학자, 두 사람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시로네는 눈을 깜박이며 듣고 있다가 마차를 살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마차에 열을 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 불현듯 조금 전의 고민이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아…… 그렇구나.’

언젠가는 저 태엽 마차도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번듯한 이름을 갖고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오만한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책을 사 주지 않았더라면, 오젠트 가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순간 이동 테스트가 없었더라면, 이루키와 네이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시로네는 없다.

아주 작은 확률로 발생한 우연의 연속. 그 모든 사건들이 시로네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잠시 혼자만의 감동에 심취해있던 시로네는 얼른 웃음기를 되찾고 친구들에게 물었다.

“그나저나 카지노는 어떻게 됐어?”

이루키하고 이마를 맞대고 있던 네이드가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되긴. 하루 만에 다 털리고 돌아왔지. 마지막 베팅만 걸렸어도 대박 터트릴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내가 스페이드일 거라고 말했잖아. 57퍼센트의 확률로 말이야.”

“웃기네! 네 말 들었다가 엄청나게 잃었잖아! 57퍼센트는 개뿔! 그게 복불복이랑 뭐가 달라?”

## [74] 드림 온(3)

“계속 밀어붙였어야지! 시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오차는 줄어드는 거 몰라?”

“그것도 총알이 있어야지! 네 전략대로 하다가는 집문서까지 걸어야 할 판이었다고!”

“봐 봐! 그렇잖아! 세상에 무한하게 소비할 수 있는 건 없어!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와!”

“아하하하!”

시로네는 웃음을 터뜨렸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두가 하나다. 그렇기에 성공과 실패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이라 손가락질하더라도, 가족 하나 부양하지 못하는 이상주의자라고 비웃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던가.

‘내가 아니라도 괜찮아. 나는…… 다른 누군가의 거름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시로네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자신을 이루게 해 준 모든 행운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꿈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이루키가 의아한 듯 물었다.

“시로네, 너 아까부터 왜 그렇게 실실 쪼개고 있어? 뭐 이상한 거라도 먹고 왔냐?”

시로네는 대답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거듭 다짐하며 걸음을 옮겼다.

“다녀왔어, 얘들아.”

\* \* \*

정학이 풀리기까지 2일이 남았다.

네이드와 이루키는 꼭두새벽부터 제4훈련장에 도착해 시로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 시간이지만 여름이라 사위는 밝았고, 두 사람은 연신 하품을 해 대며 입구를 쳐다보았다.

네이드가 잠이 덜 깬 얼굴을 비비며 말했다.

“아, 뭐야. 아침부터 불러내고.”

“뭐 보여 줄 거 있다고 하지 않았나?”

“갑자기 뭘 보여 줘? 여태까지 보여 준 것만으로도 기가 찰 지경인데.”

“글쎄. 고추에 문신이라도 새겼나보지.”

“푸하하하하!”

이루키의 말을 상상한 네이드는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는 사이 시로네가 훈련장으로 들어왔다.

“어라, 벌써 와 있었네. 그런데 네이드는 왜 저래?”

“몰라. 변태라서 그런가 봐.”

“푸하하하! 문신! 거기에 문신을……! 푸하하하!”

불안해진 시로네는 캐묻지 않았다. 보나 마나 둘이서 실없는 농담이나 주고받다가 저러는 것일 테니까.

“아무튼 시작하자. 빨리 보여 주고 싶으니까.”

“뭘 보여 주는데? 문신을? 푸하하하!”

이루키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그만해. 이제 안 웃겨. 그나저나 왜 여기로 불렀어? 보여 주고 싶다는 게 뭔데?”

“기다려 봐. 바로 해 볼게.”

훈련장의 중앙으로 걸어간 시로네는 바위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뭐야? 광자 출력? 출력을 높인 거야?”

시로네는 포톤 캐논을 시전했다. 백색섬광이 네이드와 이루키의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쾅!

둔탁한 굉음을 내며 바위가 터져나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심드렁하던 네이드와 이루키의 눈이 똥그래졌다. 턱은 빠져나올 듯 내려와 있었다.

빛이 강타한 자리가 넓적하게 함몰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가 흔적을 살폈다.

“뭐, 뭐야? 마술이야? 아니면 진짜 마법?”

“묘하군. 빛에 충격을 담다니. 광자 계열은 퓨전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로네, 어떻게 된 일이야?”

시로네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에 내가 터득한 신병기. 광자 출력이 아니라 포톤 캐논이야.”

“포톤 캐논이라. 뜻은 그럴싸하군. 원리는?”

“그게…… 말하자면 좀 길어.”

시로네가 말을 아끼자 네이드가 후다닥 달려왔다. 그리고 잠이 달아난 얼굴로 시로네의 어깨를 흔들었다.

“빨리 말해! 어떻게 한 거냐니까! 빛에 물리력이 담기다니,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빛과 전기는 사촌지간이기에 네이드는 시로네가 무엇을 해냈는지 확실히 깨닫고 있었다.

“말해 줄게. 그러니까…… 나랑 어디 좀 가지 않을래?”

\* \* \*

시로네 일행은 귀족 구역의 식당으로 들어갔다. 해산물 파스타로 허기를 채우는 동안 시로네는 포톤 캐논을 터득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침대 위에서 발생한 먼지의 소용돌이, 울크를 절벽 밑으로 집어 던졌던 상황, 그 순간 깨달은 포톤 캐논의 원리까지.

아르민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포톤 캐논은 시로네 고유의 발상이었기에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네이드와 이루키는 파스타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경청했다.

1시간에 걸친 설명이 끝나자 생각에 잠겨 있던 이루키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게이지 대칭성은 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지. 요지는 이거로군. 질량을 전달하는 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고 너는 그 입자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이고.”

시로네는 이루키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게이지 대칭성을 아들에게 알려 주다니. 용뢰의 수장답게 마법사회 전반에서 세워지는 최첨단의 이론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네이드가 말했다.

“한마디로 이모탈 펑션의 결과물이 질량이라는 거로군. 포톤 캐논을 터득해서 초상감도 사라진 거고.”

“응. 게다가 이제는 악몽도 꾸지 않아.”

이루키와 네이드는 생각에 잠겼다. 물질에 질량을 전달하는 입자라. 시로네의 깨달음은 엄청난 발견이었다.

특히나 포톤 캐논은 시로네만이 가능한 고유의 마법이었다. 어느 누구도 전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무한의 영역에서 직접 느낀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히 전지를 터득했다고 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굉장하다, 시로네. 이거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일일지도 몰라. 만약 특허를 낸다면 당장이라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발견이라고!”

네이드의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시로네의 이론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많은 발명품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랑 같이 도서관에 가 주면 안 될까?”

“응? 도서관?”

“학교 도서관은 징계 중이라 출입 금지잖아. 그래서 귀족 도서관에 가보려고. 포톤 캐논을 조금 더 연구해보려고. 하지만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너희가 데려가 줬으면 해서.”

“그거야 상관없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데 왜 혼자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평민은 귀족 도서관에 출입할 수 없다. 정학이 풀리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도 되지만 화전민촌에 다녀온 이후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정체성을 부정한다고 변하는 건 없다. 최소한 친구들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사실 나는 귀족이 아니야.”

파스타를 씹고 있던 네이드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이루키도 충격을 받은 듯 시로네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평민이야. 어릴 때 마구간에 버려진 것을 지금의 부모님이 키워주셨어. 아버지는 평범한 산 꾼이시고.”

마법의 세계에 뒤늦게 뛰어들기는 했지만 설마하니 평민이었을 줄이야. 특히나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구김살 없는 시로네의 모습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았다.

“미안해. 여태까지 말하지 않아서.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받아들일게. 하지만 더 이상은 속이고 싶지 않았어.”

네이드와 이루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을 통해 느껴지는 서로의 감정은 같았다.

이루키가 시로네를 돌아보며 먼저 말을 꺼냈다.

“충격적인 사실이긴 하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 걸? 어쨌든 너는 시로네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알았다면 모를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잖아.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친구들이라면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대에 불과했다. 막상 그들에게 인정을 받자 시로네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루키가 고개를 숙이고 킥킥거렸다.

“그래서 특별전형이었군. 마법을 늦게 배운 것도 귀족이 아니기 때문이었고. 하긴, 재능이 출신성분 따지면서 타고나는 건 아니지. 정말 대단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시로네의 감격에 겨운 모습에 네이드가 손사래를 쳤다.

“야야. 그렇게 심각할 거 없어.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선입견 없이 너랑 친구가 돼서 말이야. 미리 알았다면 며칠 전의 연구발표회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을 테니까.”

이루키는 생각을 접고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봤자 분위기만 처질 것이다.

“좋아, 도서관으로 가자. 노는 것도 지루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잘됐어. 제대로 학구열을 불살라 보자고!”

시로네와 네이드가 따라 일어서며 소리쳤다.

“좋았어!”

대마법사의 귀환(1)

토르미아 왕국의 수도 바슈카.

왕성을 감싸는 형세로 흐르는 지저 산맥에는 100년 전에 완공된 지하 70미터 깊이의 던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둠의 미궁이라 불리는 이곳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대마법사 빌토르 아케인의 은신처였다.

암흑 마법의 권위자인 아케인은 여러 국가와 싸움을 일삼다가 40년 전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에 아케인의 마법사 등급은 비공인 3급.

일단 3급 이상이 되면 공인, 비공인을 가리지 않고 대마법사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마법사의 급수는 업적과 명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마법협회에서는 특별한 채점 방식으로 이것을 관리한다.

10급에서 9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점수는 업적과 명성을 더해서 1,000점. 그리고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점수는 자그마치 2억 8천만 점이었다.

즉 3급의 마법사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업적과 명성을 쌓은 자들이었다.

위험 레벨 A등급의 마굴 소탕에 책정되는 업적이 500점, 왕성의 초청을 받아 왕을 알현하는 데 책정되는 명성이 100점인 것으로 비교하면 아케인이 얼마나 세상을 휘젓고 다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아케인은 40년 전, 89세의 나이에 비공인 3급 마법사의 자리에 올랐다. 당시의 점수를 보면 업적에 관한 부분이 1억 점, 명성에 관한 부분이 1억 8천만 점이었다.

업적보다 명성이 높은 이유는 그가 대륙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문제아였기 때문이다.

금지된 실험은 기본이고 어둠의 조직을 결사하여 아나키스트를 배출하는 등 국가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사고를 치고 다녔던 시대의 골칫덩이.

현재 일흔 살이 넘은 노인들은 아케인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정도였으니 그의 악명이 얼마나 드높았는지는 굳이 2억 8천만 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었다.

“푸우. 푸우.”

녹색 액체로 가득 차 있는 수정관 안에서 아케인은 눈을 떴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149세의 육신답게 거죽이 늘어져 있었다.

‘드디어……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암흑의 정수가.’

무려 40년 동안 모은 암흑의 힘이었다. 아케인은 이것을 흡수하여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생각이었다.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죽는 이유는 세포가 자기 복제의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케인은 생체 유지 장치를 통해 세포의 분열을 억제시키고 있었다.

희번득 눈을 돌린 아케인은 책상 위의 크리스털을 보았다. 처음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던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시커멓게 변해있었다. 하루에 한 번씩 인젝션 마법으로 크리스털에 암흑의 힘을 축적한 덕분이었다.

‘알페아스, 기다려라!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 주마.’

20대 초반의 알페아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로 아케인의 마력은 급격히 쇠퇴했다.

하지만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남은 그는 마침내 오늘, 예전의 힘을 되찾아 또 한 번 대마법사로 거듭나게 될 터였다.

생명 유지 장치의 녹색 액체가 배수구로 빠져나가자 떨어지는 수위와 함께 아케인의 허리가 굽어졌다. 당장이라도 관에 들어가도 될 법한 노쇠한 육체였다.

수정구의 전방이 잘려 나가듯 열리면서 아케인은 거친 숨을 헐떡이며 기어 나왔다.

“카니스! 아린! 게 있느냐!”

앳되어 보이는 소년과 소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암흑 마법을 익혀서인지 어딘가 음울한 분위기였다.

“부르셨습니까, 스승님.”

“옷. 내 옷을 다오.”

## [75] 대마법사의 귀환(2)

카니스는 연녹색 로브를 가져다주었다. 아린이 보고 있는 앞이었지만 아케인은 스스럼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테이블을 짚으면서 걸음을 옮긴 아케인은 의자에 앉은 뒤에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후우,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괜찮으십니까, 스승님?”

카니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창백한 피부와 대비되는 다크서클은 드러내지 않고도 암흑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했다.

‘멋진 눈이다. 그래서 제자로 삼은 것이지만.’

반면에 아케인은 아린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흑발과 흑안의 변이를 일으킨 것을 보면 재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이 여리고 판단력도 신통치 않았다.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에서는 악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커다란 두 눈에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노인의 알몸을 본 순간부터 눈동자가 떨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아케인은 혀를 끌끌 찼다.

‘쯧쯧, 저런 걸 어따 써먹어?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카니스의 단짝친구만 아니었어도 저런 유약한 소녀를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터였다.

7년 전의 그날이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고도 거동이 불편해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수도 바슈카로 들어갔다.

토르미아 왕국의 최대 도시답게 거리는 부유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빛의 이면에는 도시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처참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빈민굴 라둠.

양극화가 심한 수도답게 라둠의 주민들은 다른 도시의 거지들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이곳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뿐이었다.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생선 뼈다귀를 먹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아케인은 그곳에서 카니스와 아린을 찾아냈다.

일상이 전쟁인 라둠에서 열 살밖에 되지 않은 카니스가 아린과 살아남은 방법은 잔인해지는 것이었다.

카니스의 눈은 세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아케인은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던전으로 데려와 암흑 마법을 전수해 주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저건 틀림없이 물건이다.’

아케인은 카니스의 부축을 거부하고 일어섰다. 지긋지긋한 노화에서 벗어나는 날이었으니 오늘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똑똑히 지켜보아라, 암흑 마법의 위대함을.”

아케인은 검은 크리스털을 쥐고 눈을 감았다. 힘이 없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깃들어 있었다.

“크아!”

기합을 넣자 크리스털이 물컹해지더니 물줄기처럼 아케인의 주위를 휘감았다. 그리고 다시 먹구름처럼 뭉게뭉게 흩어지면서 전신을 뒤덮었다.

“크아아아아아!”

아케인은 괴물 같은 비명을 내질렀다. 40년 동안 모은 힘을 한 번에 흡수하는 것이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미 정신이 나가버렸을 터였다.

암흑 마법의 개념은 흡수와 동화.

아케인은 크리스털에 흡수시킨 어둠의 힘을 자신의 어둠과 동화시키는 방식으로 예전의 힘을 되찾았다.

“우오오오오!”

아케인의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불길처럼 이글거리더니 본체를 이탈하여 파편처럼 흩날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카니스와 아린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아케인의 모습에서는 여태까지의 노쇠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딱히 외모가 젊어지거나 허리가 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혈색은 홍조를 띠었고 눈동자는 생명력으로 충만했다.

건강을 되찾은 스승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느낀 카니스는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다.

‘이것이 스승님의 진짜 모습인가?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아케인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알페아스에게 당하기 전의 강력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가자. 오늘부터 아케인의 역사가 새롭게 써질 것이다.”

40년 동안 오늘을 기다려 온 아케인은 몰아치는 힘의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던전을 나섰다.

\* \* \*

아케인이 도착한 곳은 바슈카의 서쪽 감옥 ‘인페르노’였다. D급에서 B급 사이의 중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인 만큼 철통같은 보안을 자랑했다.

“정지! 누구냐! 여긴 출입 통제구역이다!”

경비들은 다가오는 자가 노인과 아이들이라도 허투루 대응하지 않았다. 일단 무기부터 뽑아 들고 경계하듯 소리쳤다.

“신분을 밝혀라! 불응할 시에는 체포하겠다!”

“새파란 애송이들이…….”

아케인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늘어나 경비들의 그림자와 합쳐졌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경비들은 눈을 까뒤집고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다. 그러다가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흥, 간식거리도 안 되는군. 카니스, 문을 열어라.”

카니스는 경비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인페르노의 정문을 개방했다. 마음만 먹으면 철문 정도는 구겨 버릴 수 있는 스승이지만 일을 크게 키울 생각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카니스의 예상은 곧바로 빗나갔다. 정문을 돌파한 순간부터 아케인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침입자다! 공격하라! 살인을 허가한다!”

“왕성에 연락해서 지원 요청해! 마법사다!”

경비들이 병장기를 꼬나들고 돌진해왔다. 하지만 암흑 마법사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케인의 그림자가 촉수처럼 늘어나 병사들의 그림자와 합쳐졌다.

“크으윽! 이건 뭐야?”

“몸이 안 움직여!”

경비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가 아케인이 손을 휘두르자 동료들을 향해 돌아서서 의지와 상관없이 창을 찔러대기 시작했다.

“으아아! 미쳤어? 위험하잖아!”

“나도 몰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들과 전혀 다른 눈을 타고난 그녀는 경비들의 공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카니스, 스승님께서 이런 곳에 올 거란 얘기는 없으셨잖아.”

의아하기는 카니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아케인을 향한 그의 신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일단 가 보자.”

아케인은 전장을 유유히 돌파하며 건물로 향했다. 경비들과 연결되어 있던 그림자가 툭 하고 끊어지자 난투를 벌이던 자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암흑 마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 지배였다.

어둠은 다른 어둠과 일체화를 이룬다. 그런 특성을 이용해 타인의 그림자에 침투하여 육체와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장점만 보자면 암흑 마법의 특성 자체가 오버 파워였다.

그럼에도 비주류로 치부되는 이유는 하나의 단점이 모든 장점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바로 빛에 약하다는 점이었다.

태양이 떠있는 상태에서 어둠은 한 뼘의 그림자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게다가 빛이 강할수록 암흑 마법을 시전하기 위해 더 많은 정신력을 소모해야 한다.

물론 밤이 되면 암흑 마법사의 역량은 극대화되지만 그것조차 케르고스라는 천재가 개발한 광자화 이론이 대중화되면서 빛을 잃어가는 추세였다.

대륙의 마법학교를 통틀어서도 암흑 마법을 전공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암흑 계열의 마법이 마법사회에서 얼마나 천대 받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카니스는 아케인이 암흑 마법의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최강의 정수는 온전히 자신에게 전해졌다.

‘그래, 스승님을 믿어야 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입구를 부수고 교도소로 들어간 아케인은 복도에서 경비들을 추가로 처리했다. 그리고 죄수들이 수감된 A-3동의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미 사건이 터졌음을 직감한 죄수들이 밥통으로 철창을 두드려댔다.

“어이! 누군지는 몰라도 꺼내 달라고!”

“이봐! 이 빌어먹을 철문 좀 열어 봐! 사례는 충분히 하지! 아니면 누구 하나 대신 죽여줄 수도 있어!”

아케인은 천천히 양손을 내밀었다. 교도소의 음산한 환경은 아케인이 장기를 뽐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다.

“어둠의 권능.”

복도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손의 형태로 변하더니 입체적으로 튀어나왔다. 수백 개의 손이 철창을 쥐고 잡아당기자 쇠가 뒤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겁을 먹은 죄수들이 벽으로 물러나는 순간 복도를 따라 철창이 순서대로 뜯겨 나갔다.

쾅! 쾅! 쾅! 쾅! 쾅!

어둠의 권능은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한 그림자를 수족처럼 부리는 마법이었다. 한 줄기 그림자로는 자갈 하나 드는 게 고작이지만 수백 쌍의 손이 공학적으로 움직이면 철창조차 쉽게 뽑아버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철문이 열리고 한참이 지나자 죄수들이 어기적어기적 모습을 드러냈다. 발목에 묵직한 쇠구슬이 달려 있었다.

“뭐야, 당신 마법사야? 거참 신통하구먼.”

“아무튼 고맙수다.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밤고양이 크라운이오. 이 바닥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아주지.”

아케인은 죄수들의 한심한 기운을 느끼고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40년 전만 해도 인페르노는 이렇지 않았다. 온갖 흉악범들로 가득했던 곳이 어쩌다가 이렇게 몰락해 버렸을까?

‘세월 참 무상하군.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뜻인가?’

아케인의 지론에 의하면 문명이 발전할수록 범죄자의 질은 떨어진다. 잔머리나 굴릴 줄 아는 사기꾼이 많아지고, 진짜 나쁜 놈들은 사회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이다.

“한심한 것들. 범죄자가 자기소개를 해? 철창이 사라졌다고 네까짓 것들이 여길 나갈 수 있을 거 같으냐?”

“뭐야,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기껏 좋게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죄수들은 수적인 우위를 믿고 뻗댔다. 함께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해서 같은 편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다.

“잘 들어라, 멍청한 것들아. 나를 쓰러뜨릴 자신이 없다면 그냥 감옥에 처박혀 있어라. 내 명을 어길 시에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죄수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이 노인네 지금 뭐라고 지껄이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순순히 돌아갈 거 같아?”

“밟아 버리자고!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가야겠어!”

자유를 되찾은 흥분에 죄수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깨달았다, 여전히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잠시 이성이 마비되었던 것일까? 어쩌면 몇 년을 차고 있었기에 의식하지 못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 어? 이런 젠장!”

죄수들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케인은 그들의 꼬락서니를 지켜보다가 콧방귀를 뀌었다.

자고로 악을 선택했다면 실력이 있어야 하고, 실력이 없다면 머리라도 좋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감옥에서 밥이나 축내는 기생충들이었다.

“어둠의 권능.”

“으, 으아아! 이게 뭐야!”

철창을 뜯었던 손들이 이번에는 죄수들을 칭칭 감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마치 거대한 젤에 파묻히듯 그들의 눈·코·입이 검은 장막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으으으읍! 으읍!”

“끄으으으으!”

입이 틀어막힌 죄수들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으드득으드득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들은 아린이 몸서리를 치면서 카니스에게 말했다.

“카니스, 복수를 하는데 꼭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린, 스승님을 부정하는 건 우리를 부정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라둠에서 당했던 일들을 잊었어?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 게다가 여기 있는 죄수들은 라둠에서 우리를 괴롭힌 것들과 똑같은 놈들이야.”

“하지만 약속했잖아. 라둠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기로. 이제부터 행복해지기로.”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스승님의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

복도를 채우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자 뼈가 부러진 죄수들이 기괴한 자세로 드러누워 꾸물거리고 있었다.

오만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던 아케인이 중얼거렸다.

“허약한 것들. 괜한 발걸음이었나? 아니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면 좀 나아지려나?”

인페르노에 수감된 범죄자의 숫자는 320명. 어쩌면 유독 이곳에만 저급한 놈들이 모여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 [76] 대마법사의 귀환(3)

철크렁. 철크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복도의 끝에 있는 감옥에서 쇠사슬 소리가 들렸다. 이리를 닮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아케인은 흥미롭게 눈을 빛냈다.

철창 하나 열렸다고 앞뒤 안 가리고 튀어나온 놈들하고는 생각자체가 달랐다. 게다가 족쇄에 더해 수갑까지 채워져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구먼. 기척은 숨긴 건가? 스키마가 제법이군.”

남자는 쓰러진 죄수들의 몰골을 살펴보더니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기가 막혀서. 당신 여기가 어딘지 알아? 서쪽 감옥 인페르노라고. 반역이라도 할 생각이야?”

“반역이라. 즐거운 일이지. 동참할 텐가?”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가게 해 준다면 못 할 것도 없지.”

“보지는 못했어도 귀는 열려 있었을 텐데? 날 쓰러뜨리지 못하면 자유는 없네.”

“하아, 빡빡하기는.”

남자는 수갑으로 구속된 팔을 들어 머리를 긁적였다. 팔뚝 사이로 비치는 눈동자가 예리하게 빛나는 순간 그가 예고조차 없이 몸을 날렸다.

철구의 무게조차 뛰어넘는 스키마의 도약력으로 발을 휘두르자 아케인의 얼굴에 쇠구슬이 정통으로 처박혔다.

“스승님!”

펑!

남자는 질린 표정으로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했다. 사람을 때렸는데 이런 소리가 나다니.

“쳇, 짜증 나는 마법이네.”

아케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쇠구슬이 강타한 얼굴 반쪽이 시커먼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암흑 마법의 흡수력을 극대화시켜 충격을 빨아들이는 다크 스킨 마법이었다.

“그럭저럭 쓸 만하군. 너는 합격이다.”

아케인이 어둠의 권능을 시전하자 바닥에서 일어선 그림자가 남자의 족쇄와 수갑을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라. 팔다리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남자가 대꾸하기도 전에 그림자가 칼날처럼 세워지더니 빠르게 회전했다. 순식간에 쇠사슬이 끊어졌고 그럼에도 남자의 피부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한계가 없는 조형술과 섬세한 조작이야말로 암흑 마법의 진수였다.

“자유를 얻어서 좋겠군.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 왜 이러셔? 합류하겠다는 말은 한 적 없는데?”

웃고 있는 남자의 입꼬리가 살며시 떨렸다.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소처럼 끌려간다면 탈옥을 한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너를 움직이는 건 돈이겠지. 나를 도와주면 큰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다.”

마법사가 부자라는 건 상식 중의 상식.

게다가 남자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간이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후후, 큰돈이라. 어중간한 금액이면 중간에 관둘 거야.”

남자는 아케인의 뒤를 따라 감옥을 나섰다. 그렇게 인페르노에 1명의 탈옥자가 발생했다.

\* \* \*

시로네 일행은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노트에 정리한 다음 여관을 빌렸다. 이틀 동안 토론을 벌인 덕분에 포톤 캐논의 원리에 대해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질량은 왜 존재하는가?”

질량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은 세상이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태초에 질량이 있었다. 마치 이 세상은 어떤 새로운 일들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처럼.

“질량은 무게가 아니야. 무게는 중력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지. 우주에는 방향이 없잖아. 그렇다면 질량은 무엇일까? 응집력? 하지만 그것조차 완벽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

네이드가 물었다.

“그렇다면 뭐라고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은 명백했다. 하지만 명백할 뿐 또렷하지는 않았다.

“존재성.”

“응?”

“이 공간에 있다는 증거. 그게 바로 질량이 아닐까?”

생명은 생물체만의 암호다. 어쩌면 질량이야말로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진정한 존재의 증명서일지도 모른다.

“흐음. 듣고 보니 그럴 듯하네. 이를테면 창조주의 의지나 숨결 같은 거로군.”

네이드의 말을 들은 이루키가 손가락을 튕겼다.

“신의 입자.”

“응? 뭐라고?”

“신의 입자 말이야. 괜찮지 않아? 시로네가 발견한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부르는 거야.”

“오호, 괜찮은데? 시로네, 네 생각은 어때?”

시로네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루키가 만든 단어가 아닌 원래 있던 것을 발굴한 것처럼,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전지에 정확히 들어맞는 기분이었다.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건 중요하지.”

“맞아. 마법사의 전능은 느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좋지.”

그런 의미에서 신의 입자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토의가 일단락되자 이루키는 침대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하루 종일 책을 파느라 눈알이 빠져나올 지경이었다.

“후우, 분석은 이걸로 끝내고 내일 학교로 돌아가자. 모레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시작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 두자고. 설마 벌써 약속을 잊은 건 아니겠지?”

네이드가 맞장구를 쳤다.

“당연하지. 이번 학기에 클래스 포로 올라가는 것. 이제부터는 미친 듯이 공부할 거야. 최악의 상황에서는 시로네가 먼저 졸업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꺼낸 말이었지만 네이드와 이루키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대로는 시로네가 먼저 졸업을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신의 입자의 발견은 대단한 성과였다.

“시로네, 혹시 졸업해도 1년 더 다닐 생각은 없지?”

“하하! 무슨 소리야? 지금 상황에서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이 가장 큰 건 나라고. 적어도 너희는 상위권이잖아.”

시로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성장 속도만 놓고 보자면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사방식조차 몰랐던 학생이 반년 만에 졸업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잠이 안 와서. 공부 좀 하다가 잘게.”

“어? 그, 그럼 나도!”

이루키가 침대에서 일어나 책을 펼치자 네이드도 질세라 구석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공부를 시작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놀고 보자는 친구들이 학구열을 불태우자 시로네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이내 따스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

시로네는 세 사람 중 마지막으로 책을 펼쳤다.

\* \* \*

왕국 교육 학술 모임 교사회.

교사회에서 주관하는 왕국 학술회는 마법학교와 검술학교, 각 종파의 수도회, 학파, 연금술 재단, 엘리트 예술인 99인회 등 사회·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모여 왕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사드는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대표로 학술회에 참석했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와 순기능에 대한 토론이 며칠 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의 정신을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아오, 제기랄. 저것들은 잠도 없나? 집에 좀 가자.’

제비뽑기에서 걸리는 바람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정말이지 질색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내로라하는 불량배였던 그는 자발이고 나발이고 교육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의였다.

괜찮은 여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특히나 건너편 원탁에 앉아 있는 여성은 완벽한 이상형이었다.

푸른빛 머릿결이 고불고불 흘러내리고, 정장을 입고 있어도 감출 수 없는 장난기까지 모든 게 매력적이었다.

‘참하게 생겼네. 오젠트 레이나라고 했던가?’

왕국 최고의 예술인 집단인 99인회 소속으로, 선율의 피아니스트 메르헨의 제자 자격으로 참석한 음악가였다.

저녁 7시를 기해 토론회가 끝났다.

교사회에서 주최한 이브닝 파티가 열리자 토론의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참석자들은 와인을 홀짝이며 각 분야의 인사들과 교류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특히나 레이나 주변에는 교사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미녀는 괴롭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로군.’

사드는 말이라도 건네 보려고 차례를 기다리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대부분 경색할 지경의 권위적인 말이거나 짓궂은 농담이었다.

레이나는 살가운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응해주었다. 사드에게는 의외의 모습이었다. 99인회의 악명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밝은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예술은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고 그렇기에 대중을 장악하는 힘만큼은 권력가들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특히나 예술의 비판적 기능의 특성상, 예술가들 중에는 옹고집인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

하지만 레이나는 그런 소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듯 사회 각층의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있었다.

‘하아, 시이나 선생도 저 성격 반만 닮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와인을 홀짝이고 있을 무렵, 대화를 끝마친 레이나가 사드를 향해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사드 선생님.”

“아, 네! 어라? 그런데 저를 아시나요?”

“그럼요.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교사시잖아요. 오젠트의 본가가 크레아스에 있거든요.”

“아하! 그렇죠. 깜박하고 있었네요. 반갑습니다.”

동향의 반가움에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드의 예상대로 레이나는 밝고 재밌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시로네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레이나 씨가 어떻게 시로네를? 아, 그렇군요.”

시로네의 입학 테스트 채점 교사였던 사드는 출신을 적는 곳에 오젠트 가문으로 적혀 있었던 것을 떠올렸다.

“시로네가 오젠트 가문의 게스트였죠. 역시 명가답게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시군요. 시로네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근래 사고를 치긴 했지만요.”

“네? 사고라니요? 어떤 사고요?”

레이나가 똥그랗게 눈을 뜨자 사드는 아차 싶었다. 오젠트 가문에서 밀어주는 학생이 정학을 당했다는 걸 알면 그녀의 자존심이 구겨질 터였다.

“아하하! 별거 아닙니다. 원체 뛰어난 학생이다 보니 사소한 일도 크게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 의미의 사고지요.”

“아하, 그런 거였군요.”

레이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드의 이야기만 듣고서도 시로네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짐작이 갔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친구들도 많은 편인가요?”

“물론이죠.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고 인기가 좋아요. 가끔은 저도 부러워 죽겠다니까요. 하하하!”

“호오. 그럼 혹시…….”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려던 레이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원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마음속의 질문자는 후원자의 이름만을 빌리고 있지 않았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도?”

“아니에요. 잘 지내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이네요.”

“하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알페아스 마법학교는 명문이니까요.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후후, 그렇죠. 제가 주제넘었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건방을 떨었군요. 저와 함께 크레아스로 가시는 건 어떤가요? 아침에 출발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근사한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레이나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공연 일정이 잡혀서 바슈카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런…….”

사드는 서운함을 숨기지 못했다. 평소대로라면 뒤끝 없이 떠나보내겠지만 정말로 놓치기 아까운 여자였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공연은 꼭 보고 싶습니다. 일정을 알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슈카로 찾아가겠습니다.”

“어머, 저야 영광이죠. 사실 걱정했거든요. 수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공석이 많아지면 어떡하나 했어요.”

“아, 바슈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페르노에 암흑 마법사가 습격을 해서 B급 수배자를 탈옥시켰다고 하더군요. 지금 수도는 계엄령에 버금갈 정도로 보안이 삼엄한 상태예요.”

“암흑…… 마법사요?”

사드의 미간이 구겨졌다. 수많은 뉴스 중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희귀한 사건이었다.

요즘 세상에 암흑 마법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하필이면 인페르노를 습격했다? 그것도 고작 B급 수배자 1명을 빼내기 위해서?

암흑 마법사, 인페르노, B급 수배자.

사드의 머릿속에 역사의 한 장면이 스치고 지나갔다.

## [77] 대마법사의 귀환(4)

“조금 더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있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건 일주일 전이에요. 탈옥수는 루카스라는 남자고 붙잡히기 전에는 앵무 도적단의 부단장이었대요. 단장은 현재 수배 중이고요.”

“탈옥수 말고 인페르노를 습격했던 사람의 인상착의 같은 건 알 수 없습니까?”

“음, 글쎄요. 저도 소문만 들어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고 들었어요. 2명의 종자가 있었던 거 같고요. 암흑 마법으로 죄수들을 빼냈다고 하던데. 그 뭐였더라, 어둠의 뭐라고 했던 거 같은데…….”

“어둠의 권능?”

“네, 맞아요! 역시 마법학교 교사시네요.”

레이나가 치켜세웠으나 사드는 듣지 못했다. 암흑 마법. 그것도 고등 기술인 어둠의 권능을 시전하는 노인이 인페르노를 습격했다.

‘설마?’

사드는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 보겠습니다.”

“네? 아, 네.”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킨 건 본능에 가까웠다. 사드의 눈에는 이미 파티장도 아름다운 여자도 보이지 않았다.

‘빌어먹을! 하필이면 내가 출장 중일 때!’

탈옥이 일주일 전이라고 했다. 바슈카에서 쉬지 않고 이동했다면 크레아스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마차! 마차!”

저택을 나선 사드는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아무 마차에나 올라탔다. 그리고 마부석의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크레아스까지! 최대한 빨리!”

“소, 손님, 이곳의 마차는 전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에 없는 분은 모실 수가…….”

고위 관리를 태울 마차였으니 어지간한 금액으로는 마음을 돌릴 수 없을 터였다.

사드는 품을 뒤져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꺼냈다.

“자! 받으시오. 갈 겁니까, 말 겁니까?”

박스 시트에 뿌려진 금화의 개수를 센 마부는 즉각 표정을 고치고 출발할 채비를 했다.

“신속히 모시겠습니다. 밤을 넘기는 거죠?”

“수면도 휴식도 필요 없소! 빨리만 가 주시오!”

경쾌한 말발굽 소리가 밤공기를 두드렸다.

“젠장! 늦지 말아야 하는데.”

사드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이마를 짚었다. 마음 같아서는 공간 이동으로 도약하고 싶으나 좌표도 환경도 모르는 타지에서 연달아 시전하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랐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냉정을 되찾게 했다. 상황이 파악되자 이번에는 의문이 들었다.

대체 무슨 속셈으로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일까?

사드는 그를 만난 적도, 얼굴을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알페아스에게 들은 끔찍한 인연은 기억 속에 생생했다.

“빌토르 아케인…….”

정면을 응시하는 사드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 \* \*

새벽 4시를 넘긴 시각,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산 중턱에 있는 훈련장에 카니스 일행이 들어왔다.

마법학교에 다닌 적은 없지만 대마법사의 제자답게 최고급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망스러운 목소리가 적막을 깼다.

“휘유, 잘 지어 놨네. 아주 금화로 도배를 했구먼. 땅값은 얼마 정도 하려나?”

카니스는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다. B급 수배자 루카스가 앵무새가 새겨진 쌍검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소리를 죽여. 경비들이 순찰을 돌 수도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야? 베어 버리면 되지. 묻어 버리면 되고.”

카니스는 더욱 기분이 나빴다. 스승님의 뜻에 따라 동행하고는 있지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다.

“착각하는 거 아냐? 넌 우리에게 고용된 거야. 작전에 차질이 생긴다면 너부터 가만두지 않겠어.”

“후우, 무서워라. 요즘 애들은 좋겠어. 대단한 스승 만나서 어른한테 막말도 하고.”

루카스는 훈련장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더 이상 작전을 방해하지는 않았기에 카니스도 분노를 억눌렀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승님의 복수다. 마음에 안 들어도 참는 수밖에.’

루카스가 하품을 하며 물었다.

“그나저나 우리는 왜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어차피 학교로 내려가야 하잖아.”

아린이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다.

“스승님이 마법을 시전할 거예요. 광역 마법이라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자신 있으면 먼저 내려가도 되지만요.”

루카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케인의 마법만큼은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크크, 너무 성내지 말라고, 꼬마 아가씨. 귀여운 얼굴이 못생겨 보이잖아.”

“흥, 남이야 어떻게 생기든 말든.”

“그러지 말고 아저씨랑 연애나 할까? 마법보다 더 재밌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얼굴이 붉어진 아린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치려는 그때 카니스가 대화를 끊었다.

“조용. 이제 시작이다.”

카니스 일행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아케인이 달의 중심에서 플라이 마법을 시전한 채로 떠있었다.

플라이는 에어 계열의 두 갈래인 프레스와 블로우를 동시에 구사하는 퓨전 마법이다. 우선 프레스 계열의 마법으로 주위에 단단한 공기압을 형성시킨 다음 블로우 계열의 마법으로 바람을 일으켜 양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였다. 비행이라는 메리트 덕에 오버 파워로 분류되지만 실시간으로 바람이 변하기 때문에 섬세한 감각이 필수였다.

어둠이 몰려와 달을 가리자 정신을 집중하고 있던 아케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전지와 전능을 결합시킨 그는 사지를 활짝 펴며 필생의 역작인 어비스 노바를 시전했다.

굉음도 없고 무시무시한 후폭풍도 없었지만 암흑의 기운이 학교를 뒤덮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마법학교의 외곽으로 퍼져나간 어비스 노바의 이펙트가 사라지자 다시 달이 나타나면서 사위가 밝아졌다.

“후우. 후우.”

아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대마법사인 그조차 9할의 정신력을 소모해야 하는 거대 마법이었다.

‘당분간은 끌어올리기 힘들겠군.’

아케인은 방향을 틀어 산으로 향했다. 플라이 마법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분노는 더욱 강해졌다.

어비스 노바가 퍼진 이상 그를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제자까지 키우지 않았던가?

“크크크, 기다려라, 알페아스. 40년 전의 굴욕을 너에게도 맛보게 해 줄 테니까.”

암흑의 밤이 지나가고, 동쪽 산기슭에서 희부연 빛이 차오르고 있었다.

어둠의 불청객(1)

정학 마지막 날이었다. 여관에서 새벽 까지 공부한 시로네 일행은 아침이 훌쩍 지나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부스스한 모습에 잠시 서로를 놀려대던 그들은 목욕을 했다.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점심시간이 끝나 있었다. 수업 시간이라 교정은 한산했고 청소부들이 돌길을 쓸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걸로 마지막이네, 우리의 휴가.”

“휴가는 무슨. 정학이 휴가냐?”

“그래도 재밌게 놀았잖아. 이제 뭐 할 거야?”

시로네가 숙소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일단 들어가서 방부터 정리하려고. 내일부터 수업이니까 오늘 청소해 놔야지.”

“하여튼 깐깐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는 연구회에 있을 테니까 심심하면 와.”

“그래. 이따 보자.”

친구들과 헤어진 시로네는 숙소로 돌아왔다. 발표회 준비 기간 동안 신경을 쓰지 못해서 방이 난장판이었다. 소매를 걷고 청소를 시작한 그는 수업 교재를 순서대로 책장에 꽂아 넣는 것을 끝으로 손을 털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일주일간의 정학.

하지만 나름대로 얻은 건 있었다. 아니,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의 깨달음이었다.

‘드디어 정상 수업이구나.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진도가 늦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당분간 연구회 활동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수업에 전념할 생각이었다.

‘네이드나 이루키도 마찬가지겠지.’

여관에서 봤던 친구들의 눈동자는 학구열에 불타고 있었다.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클래스 포로 진급한다는 확실한 목표가 생긴 덕분이었다.

알페아스 마법학교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전반기 성적을 반영하여 진급자를 결정하는데 커트라인은 무려 전 과목 80점 이상이었다. 평균 80점이 아닌 모든 과목의 점수를 80점 이상 얻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난이도였다.

물론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지만 어느 학생을 막론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다. 개인의 적성에 따라 취약한 과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교육 방침은 확고했다.

전공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분야의 지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섭렵하는 것.

그렇기에 마법학교 졸업생이라면 각 계열의 기초 마법은 전부 활용할 수 있다고 봐야 했다. 또한 마법 사회의 일선에서 졸업생 출신을 우대하는 이유였다.

현직 마법사들이 모두 마법학교를 졸업하는 건 아니었다. 마법사의 제자가 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어둠의 루트로 마법을 익힌 비마법학교 출신의 비율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장점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실전에 적합한 마법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법학교 출신에 비해 마법의 이해가 부족하고 발전 가능성이 적다는 단점도 있었다.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마법학교 출신이 취업에 유리한 건 사실이었다. 이렇듯 학교가 제시한 80점은 현대의 사회정세를 고려한 기준이었다.

“하아. 그럼 뭐야? 나 같은 경우는 평균 30점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거네.”

시로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든 이곳은 학교였다.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0점 이상의 전지가 필요했다.

지식의 뼈대를 활용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게다가 발표회를 준비하고 신의 입자를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을 보강하면 상당히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라도 진급할 수 있는 확률은 대략 30퍼센트 정도가 아닌가 싶었다.

‘아니, 오히려 대단한 거 아니가? 반년 만에 클래스 포로 진급하는 건데 30퍼센트라면.’

시로네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오히려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확률이 아닌가? 네이드와 이루키가 진급하고 자신만 클래스 파이브에 남는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다.

게다가 클래스 포에 들어가면 졸업반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에이미와의 약속도 지키게 되는 셈이었다.

“헉! 맞다! 에이미!”

발표회가 끝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당시에는 너무 들떠서 그녀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 인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무심했어.’

에이미는 힘든 도전을 할 때마다 응원해주었던 고마운 친구였다. 이번에는 자신이 힘이 되어 주리라. 그런 생각을 하며 숙소를 나서는 시로네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다.

“후후! 깜짝 놀라겠지?”

\* \* \*

시로네는 양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졸업반으로 향했다. 하나는 에이미의 것, 다른 하나는 세리엘의 것이었다. 에이미의 커피 심부름을 했었던 과거가 떠오르자 절로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면 악연 같은 인연이었다.

열두 살에 골목길에서 만난 불량한 소녀가 지금은 친구가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시로네는 졸업반의 언덕을 올라갔다. 강철문이라 불리는 아치가 입구에 버티고 있었다. 먼발치에서만 보았을 때는 몰랐으나 생각보다 훨씬 커다란 구조물이었다.

‘이곳이 마법학교의 정점.’

마법사의 정신을 상징하는 구조물의 아래를 지나가는 시로네의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숙연해졌다.

6교시 수업이 끝나자 졸업반 학생들이 밖으로 나왔다. 시로네는 중앙 현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에이미와 세리엘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에이미! 에이미!”

졸업반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으나 에이미와 세리엘은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자 장난기가 발동한 시로네는 살그머니 뒤로 가서 에이미의 눈앞에 커피를 내밀었다.

“짜잔! 깜짝 선물!”

에이미가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시로네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세리엘에게도 커피를 내밀었다.

“자, 선배님 것도 있어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세리엘이 고개를 갸웃했다. 에이미도 눈을 깜박거리더니 이내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뭐야, 너? 누군데 우리한테 커피를 주는 거야?”

## [78] 어둠의 불청객(2)

시로네는 에이미가 장난으로 되받아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미안해. 깜짝 놀랐지? 놀라게 해 주려고 말 안 했어. 졸업반 수업은 어때?”

에이미는 경계의 눈빛을 드러냈다. 그러다가 시로네가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자 황급히 그의 팔을 때렸다. 들고 있던 커피 두 잔이 날아갔다.

시로네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장난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에이미의 얼굴 또한 진짜로 화난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 누군데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세리엘에게는 선배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는 반말이야?”

세리엘도 이건 아니다 싶은지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너 고급반이니?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그렇지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아니지 않아? 그리고 선배한테는 존댓말을 써야지. 뭐야, 이게? 날라리도 아니고.”

시로네는 어안이 벙벙했다. 에이미와 세리엘은 마치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세리엘 선배님, 저예요, 시로네. 저 모르세요? 에이미, 나 정말 몰라? 장난치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학생이면 제발 공부 좀 해라. 짜증나게 때와 장소도 구분 못 해?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에이미는 시로네의 멱살을 붙잡았다. 정말로 짜증이 났다. 졸업반이 되면 귀찮은 남자들과도 작별인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쫓아올 줄이야.

‘한동안 조용하다 싶더니 또 시작이네. 이게 전부 그 자식이 변변치 않아서 그런 거야.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헛짓거리나 하고 다니더니…….’

속으로 중얼거리던 에이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라? 그 자식? 그게 누구지?’

분명 치근대는 남학생들이 떨어진 이유에 어떤 인물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멱살이 붙잡힌 시로네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에이미의 눈빛에는 어떠한 친밀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아니…… 이건 아니야.”

시로네는 멱살을 잡고 있는 에이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아야.”

에이미가 손목을 쥐고 아픈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런 모습조차 밉다는 듯 소리쳤다.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싫으면 차라리 싫다고 말을 해! 이런 식이면 나도 기분 나쁘잖아!”

“너! 저리 가!”

세리엘이 시로네를 밀쳤다. 다른 누구도 아닌 세리엘이었기에, 시로네는 저항조차 못하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내 친구를 왜 못살게 구는 거야? 그것도 선배한테! 너 클래스 어디야? 정말 혼나 볼래?”

시로네는 세상을 다 잃은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세리엘 선배님…….’

에이미의 둘도 없는 단짝친구. 뛰어난 실력으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연애소설을 보면서 눈물을 질질 짜기도 하는 천생 소녀였다. 시로네는 기억하고 있다. 힘든 도전을 할 때마다 열성적으로 응원해주던 그녀의 모습을.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눈동자는 불에 타는 듯하고 앙다문 입술에는 적개심이 배어있었다.

시로네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시로네는 미끄러지듯 일어서 내달렸다. 1초라도 더 이곳에 있다가는 미쳐 버릴 것 같았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까불면 선생님한테 말해 버릴 테니까!”

손나팔을 만들어 소리친 세리엘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인상을 찡그리며 에이미에게 말했다.

“어휴, 뭐 저런 애가 다 있니? 얼굴은 순하게 생겼으면서 엄청 집요하네. 어머, 에이미. 너 괜찮아?”

“응? 아, 괜찮아.”

생각에 잠겨 있던 에이미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함은 남아 있었다. 멀어지는 시로네의 모습에서 묘한 그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체 누구지? 정말 나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그냥 미친 척하고 부딪쳐 본 거겠지. 요즘 저런 애들 많다니까. 언감생심 누구를 넘보려고.”

“그런가?”

“아무튼 나는 들어가 볼게. 에이, 오랜만에 너랑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애 때문에 쉬는 시간 다 지나갔네.”

같은 졸업반이라도 전공이 다르기에 서로 짬을 내지 않으면 안부를 묻는 시간도 내기 어려운 그들이었다.

세리엘이 교실로 들어가자 에이미도 뒤를 따랐다. 하지만 현관으로 들어가다 말고 시로네가 달려간 곳을 돌아보았다.

“…….”

수업종이 울릴 때까지, 그녀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 \* \*

‘어째서 그러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뭐냐고!’

시로네는 미친 듯이 달렸다. 강철문을 지나 고급반 건물에 도착하자 수업종이 울리면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갔다.

“마크! 마크!”

마리아와 노닥거리고 있던 마크가 고개를 돌렸다. 시로네는 한달음에 달려가 그에게 물었다.

“마크! 나 알지? 내가 누구야! 빨리 말해 봐!”

마크는 당황한 듯 마리아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마리아도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저기…… 누구세요?”

시로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나야. 나라고.”

“그러니까 누구신데요? 말을 해야 제가 알죠.”

“나야! 시로네라고! 클래스 파이브! 너랑 같이 시험도 봤잖아! 정말 몰라?”

마크의 인상이 구겨졌다. 하지만 클래스 파이브라는 소리에 따지지는 못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왜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대체 자기더러 뭘 어쩌라는 건가? 성질대로라면 받아 버리고 싶었지만 남들의 이목이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다.

“너희, 수업 시작했는데 안 들어가고 뭐 하고 있어?”

시이나가 복도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시로네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저예요, 시로네!”

시이나 선생님이라면 자신을 잊을 리가 없다. 그녀는 강하니까. 공인 6급의 마법사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시로네? 그런 학생은 고급반에 없는데. 너 누구니?”

“선생님, 저 모르세요? 시로네예요.”

시이나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모르는 이름, 모르는 얼굴이었다.

“뭔가 착오가 생긴 거 같은데. 신입생이 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 너 정말 우리 학교 학생이야?”

마크와 마리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졸지에 수상한 사람이 되어 버린 시로네는 덜컥 겁이 났다.

“죄,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얘! 잠깐 거기 서!”

시이나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시로네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렸다.

“흐윽, 흑…….”

길 잃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한없이 나약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게 느껴졌다.

이스타스로 들어간 시로네는 세 번이나 길을 잃은 끝에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에 도착했다.

‘친구들은 괜찮을 거야. 당연하지, 왜 아니겠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농담을 주고받지 않았던가? 세상 모두가 잊어도 그들만큼은 기억해주어야 마땅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네이드와 이루키가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로네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이드, 이루키, 나야. 나 시로네야.”

친구들은 대답 없이 눈만 깜박거렸다. 여태까지 막아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면서 시로네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했다.

“왜 말이 없어? 너희는 나 기억하고 있지? 잊어버린 거 아니지?”

네이드는 이루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머리를 긁적이며 시로네에게 다가왔다.

“저기…… 너 누구냐?”

시로네의 눈동자에 눈물이 가랑거렸다.

“나 정말 몰라? 아까까지 같이 있었잖아. 어제도 그제도 같이 공부했잖아!”

“미안한데 우리는 너 몰라. 혹시 다른 연구회에서 염탐하라고 보냈냐? 괜히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 줘.”

이루키가 퍼뜩 깨달은 듯 소리쳤다.

“잠깐!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이스타스의 길을 어떻게 찾았지? 빨리 말해!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너희…….”

시로네의 아랫입술이 삐죽 튀어나왔다. 이제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참고 싶지도 않았다.

“푸…….”

네이드의 입에서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러더니 배를 부여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봤냐? 이 표정 봤어? 이거 완전 걸작이다!”

“봤어! 봤어! 완전 겁에 질려 가지고 너, 너희……. 푸하하하! 시로네, 날 웃겨서 대체 어쩌자는 거야?”

네이드는 너무 웃어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으흐흐, 으흐흐흐! 아, 생각할수록 미치겠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크하하하!”

시로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뭐야, 나 기억하는 거야?”

“무슨 헛소리야? 갑자기 악몽이라도 꾼 거야? 너 지금 얼굴 표정 완전 웃긴 거 알아? 푸하하하!”

시로네는 맥이 탁 풀리고 말았다. 가슴에 얹혀있던 바위덩어리가 마침내 굴러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에이, 씨! 그럼 말을 해야 할 거 아냐! 도대체 왜 모르는 척한 거야?”

“들어올 때 표정이 하도 웃겨서 장난 좀 친 거지. 네가 이랬잖아. 나, 나야. 시로네라고.”

네이드가 시로네의 흉내를 내자 이루키가 다시 바닥을 치며 포복절도했다. 나무랄 기력조차 없는 시로네는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후아,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일단 앉아 봐. 무슨 일인데?”

소파에 앉은 시로네는 조금 전의 상황을 열성적으로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어 피식거리던 아이들도 시이나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표정이 진지해졌다.

“흐음, 시이나 선생님까지 모른단 말이지? 선생님이 장난을 쳤을 리는 없고 말이야.”

네이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야?”

“정신 계열 마법이라면 가능하지. 물론 전교생의 기억을 조작하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가능하다니까. 내가 직접 당하고 왔잖아.”

가슴을 두드리는 시로네를 이루키가 진정시켰다.

“알았어. 흥분하지 마. 단지 그렇다는 거니까. 어쨌든 네 말은 믿어. 사람들이 너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는 거지.”

네이드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 이 대목이 상황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시로네를 잊지 않은 이유라면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지. 이틀 동안 학교에 있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없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로네 일행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없는 사이에 누군가 전교생은 물론이고 교사진의 정신까지 조작했다? 당장은 납득이 안 가는 가정이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일지도? 사례를 보면 역사적으로 유사한 일들이 꽤 있거든.”

이루키는 회의적이었다.

“글세. 난 그런 사례도 마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종류라면 우리가 기억을 잃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지?”

“이스타스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우리는 시로네랑 헤어진 뒤로 계속 여기에 있었잖아.”

시로네가 물었다.

“그게 이스타스랑 무슨 관계가 있어?”

“예전부터 이스타스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거든. 물론 소문이기는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 보자는 거야. 우리의 신변에도 관계된 일이니까.”

이루키가 말했다.

“말인즉슨, 우리도 기억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로군.”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슬프겠지만 자신들이 기억을 잃는 것도 문제였다.

네이드가 용기 있게 말을 꺼냈다.

“그래도…… 나가 보는 게 좋겠지?”

“하긴, 숨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

친구들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이미 끔직한 일을 겪었던 시로네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너희들까지 나를 잊으면 어떡해? 그때는 정말 미쳐 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하자. 미리 표시를 해 두는 거지. 기억을 잃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끔.”

## [79] 어둠의 불청객(3)

네이드는 펜을 들고 손바닥에 무언가를 적었다. 지켜보던 친구들도 똑같이 글귀를 새겼다.

- 나는 기억을 잃었다. 키워드를 아는 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키워드는 북극성.

시로네 일행은 만족스럽게 손바닥을 펼쳤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면 설령 기억을 잃더라도 협력하게 될 것이다.

“자, 됐지? 이제 나가 보자.”

자신감을 되찾은 시로네는 이스타스를 벗어났다.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교정을 오가고 있었다. 냉정을 되찾고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평소라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돌아다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바쁘게 걸음을 옮기면서도 동선이 뒤죽박죽이라는 점이었다.

“얘들아, 저 사람들…….”

“알아. 나도 느꼈어. 목적지가 없어. 그냥 되는대로 걸어 다니고 있을 뿐이잖아?”

네이드는 인파 속에서 아는 사람을 찾았다. 클래스 파이브의 동기인 게이브였다.

“야, 게이브. 너 대체 어디 가는 거야?”

게이브가 다가왔다. 그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무미건조한 말투로 되물었다.

“누구야, 너는?”

네이드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하지만 이미 시로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들었기에 개의치 않고 궁금한 점부터 물어보았다.

“아니, 됐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내가 어디를 가?”

네이드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지금 계속 가고 있었잖아. 목적지가 어디야?”

“내가?”

게이브는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여기는…… 어디지?”

“야, 정신 차려. 대체 왜 그러는데? 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봤냐고.”

“혹시 너…… 나 알아?”

“당연히 알지. 모를 리가 있냐.”

게이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갑자기 다가온 그가 네이드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댔다.

“그럼 말해 줘! 내가 누구야? 아니, 여긴 도대체 어디야? 나…… 내 이름은 뭐지?”

겁에 질린 게이브가 머리를 감싸 쥐자 네이드는 천천히 물러서서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다행히도 게이브는 공격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쳐가고 있었다.

“이건 무슨 소리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주위를 돌아보며 소리치던 게이브의 혀가 점차 꼬이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충격을 받은 시로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게이브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은 것이다. 반면에 이루키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는지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환청인가?”

시로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뭐? 자신의 목소리?”

“언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습관적으로 말은 내뱉지만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게이브는 언어 체계를 완벽하게 잊어버린 상태였다. 결국에는 음절마저 까먹은 듯 원시인처럼 소리를 내질렀다.

시로네 일행은 오싹했다. 정신이 퇴화되는 속도로 봤을 때 상당히 빠르게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게이브의 목소리가 잦아들더니 눈동자의 생기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운동능력까지 상실했다. 그와 동시에……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췄다.

마법학교에 무서운 정적이 찾아왔다. 마치 밀랍 인형을 세워둔 것처럼 누구에게서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어쨌거나 우리는 무사하군. 낙관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조사해 볼 여지는 있겠어.”

시로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마치 아르민의 스톱 마법처럼 세상이 멈춘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확실히 흐르고 있었다. 게다가 사람들이 가끔씩 눈을 깜박이는 걸 보면 얼어붙은 것도 아니었다.

“생각이…… 멈춰 버린 거야.”

마법의 일종이라면 스톱보다 위험한 효과였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어린아이도 이 자리의 모두를 해칠 수 있었다.

세 사람은 인파 속으로 들어가 몇 가지 실험을 거쳤다. 후배에게 간지럼을 태우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간지럼을 멈추면 곧바로 굳은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자 눈꺼풀을 깜박였다. 신경은 살아 있다는 얘기였다.

“호오, 생각만 정지했다는 거로군. 이거 특이한데?”

“그렇다면 체력도 한계가 있다는 얘긴데. 서 있는 상태로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야.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거지?”

“그 전에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가 먼저겠지. 일단 조금 더 돌아다녀 보자.”

시로네 일행은 북쪽으로 향했다. 마법 수준이 높은 졸업반 선배들과 선생님들도 같은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오르막길에 도착하자 졸업반 학생들이 강철문의 아치를 우르르 빠져나오고 있었다.

시로네 일행은 수풀에 몸을 숨겼다.

모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졸업반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경계하기에 충분한 이유였다.

졸업반의 인파 속에 못 보던 얼굴이 보였다.

시로네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녀와, 마법학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쌍검을 차고 있는 남성이었다.

루카스가 휘파람을 불며 너스레를 떨었다.

“휘유, 살면서 처참한 광경은 많이 봤지만 이런 살풍경은 처음이네. 전부 좀비가 되어 버렸잖아?”

어비스 노바는 노바에 노출된 사람의 기억을 24시간 내에 차단하는 마법이다. 기억이 없이는 사고도 불가능하기에 무생물화 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기억이 차단되는 순서는 가장 최근의, 가장 인상적인 기억부터였다.

기억이 차단당한 자들을 인솔하는 건 아린의 임무였다. 정신 계열 마법에 특화되어 있는 그녀는 시로네 일행이 게이브와 마주쳤던 교정까지 졸업반 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포획의 그림자.’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마법을 시전했다. 그녀의 그림자가 촉수처럼 구불구불 흐르면서 사람들의 그림자를 꿰나갔다.

사방식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 하지만 정신 계열의 마법사에게는 정석이라고 불리는 촉수형이었다.

촉수형은 스피릿 존을 가느다란 실처럼 풀어서 사용하기에 사방식에 비해 훨씬 변화가 자유롭다.

하지만 그런 만큼 시간은 오래 걸려서 고급반 학생들의 그림자를 전부 지나가려면 최소 20분 이상이 걸렸다.

아린이 작업을 하는 동안 루카스는 여학생들이나 품평하면서 시간을 때웠다. 귀족이라 하나같이 피부가 뽀얗고 좋은 향기가 났다. 독사의 눈으로 몸매를 훑어보던 루카스는 취향에 맞는 여성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오호라. 이것 봐라?”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눈동자가 또렷한 소녀였다. 붉은빛이 감도는 앞머리가 한쪽 눈을 가리듯 흘러내리는 복고풍 스타일이었지만 외모는 학생들 중 최고였다.

“성격은 좀 있겠군. 난 사나운 여자를 좋아하지.”

루카스의 손이 에이미에게 뻗어나가는 순간 카니스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돌려세웠다.

“루카스, 그만해라. 품위 없는 짓은 자제해.”

“뭐? 루카스, 그만해라? 너 지금 나한테 한 소리냐?”

“쓸데없는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푸!”

루카스는 맥 빠진 웃음을 터뜨렸다. 앵무 도적단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던가?

“어이, 뭐가 그렇게 심각해? 듣자하니 어차피 복수극이라던데. 재미 좀 보자는 게 뭐가 어때서?”

“스승님의 긍지를 되찾기 위한 복수다. 질 나쁜 짓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용서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여기서 붙기라도 할래?”

“고용계약을 파기하겠다.”

“하하! 꼬마야,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케인에게 고용된 거지 너에게 고용된 게 아니야.”

“뭐든 마찬가지야. 아린이 포획의 그림자를 시전하는 중이다. 작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어. 물론 거기에 불만을 품는다면…….”

카니스의 눈동자에 심연의 회오리가 일어났다.

“이 자리에서 죽여 주마.”

루카스는 입맛을 다시며 물러섰다. 앵무 도적단의 부단장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마법사를 처치한 그는 스피릿 존에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다.

“나 참. 관두자. 어쨌거나 돈을 못 받으면 나만 손해니까.”

“분명히 말하지. 한 번만 더 우리의 일을 방해하면 그때는 나도 참지 않을 거야.”

“거 동업자끼리 더럽게 깐깐하네. 스승이란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대체 어디 간 거야?”

“스승님은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간단한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라는 뜻이야.”

아케인은 현재 은신하여 어비스 노바로 소진한 정신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알려봤자 좋을 게 없기에 카니스는 사실을 숨겼다.

“눼눼, 어련하시겠어요.”

얼버무리듯 답하고 몸을 돌린 루카스의 눈빛이 짧은 순간 강렬하게 빛났다.

‘흥, 어디 숨어서 쉬고 있겠지.’

루카스는 마법사의 등가교환에 대해 빠삭했다. 수백 명의 기억을 차단하는 마법이라면 평범한 마법사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아무리 대마법사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온전한 힘을 내지 못할 게 분명했다.

‘허세 부리는 것도 지금뿐이다, 꼬마야. 이런 재밌는 기회를 내가 놓칠 리가 없잖아?’

아린의 작업이 끝나자 졸업반과 고급반 학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시야에서 멀어진 뒤에야 시로네 일행은 수풀에서 빠져나왔다.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전교생을 어딘가로 데려갈 생각인 듯했다.

“대체 저것들은 누구야?”

“생각할 시간이 없어. 당분간은 별일 없을 거 같지만 저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게다가 선생님들까지 붙잡혀 있었잖아.”

시로네가 말했다.

“여자애가 시전한 마법은 암흑 마법인 거 같던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도 저들이 벌인 짓일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겠지. 이 정도 규모의 마법을 시전하려면 일단 존의 크기부터 엄청나야 돼.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너무 어리고, 한 놈은 무기를 든 것으로 보아 마법사가 아닐 가능성이 커.”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봐야겠지. 일단은 추적에만 집중하자. 만약 누군가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 나서도 늦지 않아.”

“마법학교를 장악하다니. 정신 나간 놈이야. 더군다나 암흑 마법이라…….”

알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을 품은 채, 시로네 일행은 불청객들의 뒤를 밟아나갔다.

\* \* \*

에텔라는 어제와 똑같은 복장으로 수련관에 머물러 있었다. 가부좌를 튼 채 미동조차 하지 않던 그녀의 눈썹이 꿈틀했다. 미간이 구겨지고 콧잔등이 일그러졌다. 어금니를 깨문 그녀의 목에 핏줄이 서더니 몸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드드드드드드드.

에텔라의 몸을 따라 건물이 흔들렸다. 벽면과 천장이 진동하면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번쩍 눈을 뜬 그녀는 거친 숨을 토해 내며 앞으로 쓰러졌다.

“하아! 하아!”

새벽녘에 찾아온 심마와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던 에텔라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대체 뭐였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머릿속에 침투하여 기억을 차단하는 종류였다. 암흑 마법은 정통학파에 속하지만 마법에 담긴 악의는 에텔라의 경계심을 극단으로 치닫게 할 만큼 강렬했다. 카르시스 수도회의 율법이 아니었자면 그녀 또한 꼼짝 없이 기억을 잃고 말았을 터였다.

‘암흑 마법이다. 하지만 교내에서 엄금하고 있을 텐데.’

에텔라는 시간을 확인했다. 여름이라 대낮처럼 밝았지만 학교 수업이 끝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12시간 이상 심마에 갇혀 있었다는 말인가?’

에텔라의 지고지순한 정신력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마법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수업을 완전히 빼먹었는데도 아무도 이곳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에텔라는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수련관을 뛰쳐나갔다.

\* \* \*

마법학교 상공에 섬광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지상으로 휘어져 곤두박질쳤다. 충격음조차 없이 1명의 남자가 착지했다.

## [80] 어둠의 불청객(4)

“제길! 늦었나?”

밤새도록 마차를 타고 달려온 사드는 크레아스에 들어오자마자 공간 이동을 시전해 정문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경비들은 우두커니 서 있을 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암흑 마법이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승님부터 찾아야해.’

사드는 교사 숙소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열 걸음을 가기도 전에 하늘에서 공간이동 특유의 굉음이 들렸다.

경계심이 발동한 사드가 스피릿 존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에텔라가 빛을 타고 내려왔다.

“에텔라 선생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출장에서 돌아온 사드가 학교에서 일어난 사태를 알고 있다는 듯 질문을 던지자 에텔라는 의아했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기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암흑 마법에 당한 것 같아요. 학생들과 교사들까지 전부 기억을 잃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사드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지, 왕국 5대 명문 중의 하나인 알페아스 마법학교를 급습하다니.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말씀해주세요.”

“스피릿 존으로 탐색해보니 전교생이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방향을 봐서는 건널 수 없는 다리 쪽인 것 같아요. 인솔자는 3명이고, 그들을 미행하는 3명이 있어요. 교사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저만 겨우 빠져나온 것 같아요.”

아케인의 암흑 마법은 대마법사의 반열에 올랐지만 에텔라 또한 카르시스 수도회의 비숍이니 그녀의 정신을 지배할 수는 없었을 터였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한 사드가 아는 것들을 설명했다.

“빨리 말씀드리죠. 이번 일을 저지른 자는 빌토르 아케인. 40년 전 세상을 어지럽혔던 대마법사입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째서 마법학교에……?”

사드는 입술을 깨물었다. 스승인 알페아스의 좋지 않은 개인사였다. 하지만 현재 의지할 사람은 에텔라뿐이었고 그녀의 인격이라면 편견 없이 받아들여 줄 터였다.

“빌토르 아케인은, 교장 선생님의 스승입니다.”

에텔라는 눈을 깜박거렸다. 하지만 사드의 예상대로 들은 것 이상의 내용은 상상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하지만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자들 중에 아케인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학생들부터 구하는 게 좋겠어요.”

“안 됩니다. 에텔라 선생님도 느끼셨겠지만 정신 마법에 걸리면 쉽게 풀 수가 없어요. 학생들을 하나씩 구하려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말 겁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미행하는 세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시로네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시로네요?”

에텔라의 말을 듣는 순간 사드도 퍼뜩 떠올렸다. 아케인의 마법이 시전된 시점은 대략 24시간 전후일 것이다. 그 시간대에 학교 밖에 있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정학을 당한 시로네 일행뿐이었다.

“외모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질로 느끼기에는 시로네, 네이드, 이루키 같았어요.”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라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머리가 좋은 애들이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아이들에게 맡기고 에텔라 선생님은 아케인을 찾아 주십시오.”

“사드 선생님은 어쩌시려고요?”

“저는 교장 선생님을 찾겠습니다. 스승님을 찾아서 암흑 마법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에요.”

에텔라는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아케인을 찾을 게요.”

사드는 산등성이를 돌아보았다. 마법학교의 부지가 워낙에 넓어서 아케인이 어디에 있을지 감조차 오지 않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당했습니다. 이 정도의 거대 마법이라면 정신력이 상당히 소진했을 겁니다. 아마도 인적이 없는 곳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산을 중심으로 찾는 게 빠를 겁니다. 조너 모드에서 확장했을 때 스피릿 존의 반경이 얼마나 되죠?”

“음, 대략 직경 2킬로미터 정도요.”

어림잡아 계산한 사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섯 군데 정도 포인트를 잡으면 괜찮을 겁니다. 훈련장을 기준으로 순찰해 주세요. 저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네. 아케인을 붙잡은 다음 학생들을 구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케인은…….”

사드는 말을 삼켰다. 상대가 강하다는 말을 해 봤자 그녀의 사명감만 불태울 뿐이다. 카르시스 수도회의 비숍이자 국가가 인정한 조너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는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알페아스의 제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드는 스승을 대신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에텔라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 학교의 교사인걸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사드가 순간 이동을 시전해 학교 쪽으로 날아가자 에텔라도 심호흡을 끝내고 정신을 집중했다.

수열식이 초고속으로 올라가면서 스피릿 존이 팽창했다. 조너만의 독특한 확장형이 펼쳐지면서 2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감각을 통해 느껴졌다.

‘우선은 제26훈련장으로.’

에텔라의 몸이 빛으로 변하면서 산 정상으로 날아갔다. 한 번의 공간 이동으로 1킬로미터를 주파한 그녀였다.

마법사의 전투(1)

카니스 일행은 건널 수 없는 다리의 스타트 지점에 기억이 차단당한 사람들을 결집시켰다.

임무를 끝낸 아린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비스 노바에 걸린 상태라고 해도 수백 명의 인간을 정신 지배로 이동시키는 일은 엄청난 중노동이었다.

수풀에서 카니스 일행을 지켜보던 네이드가 말했다.

“왜 하필 이곳일까? 다리하고 절벽뿐인데.”

“모르겠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루키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다.

“절벽, 정신 지배, 악당. 이 세 가지의 요소만 놓고 보자면 답은 명백하지. 절벽으로 떨어뜨릴 심산이야.”

“뭐어? 그런 미친 짓을 왜 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학생을 떨어뜨려 봤자 득이 될 게 없으니까.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라면 어떨까? 원한이나 복수 같은 거 말이야.”

시로네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정말로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나서야 해. 어쩌면 싸워야할지도 몰라.”

10분 동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학생과 교사들은 정신 지배에 당한 상태로 멀뚱히 서 있었고 카니스와 아린은 절벽 바깥을 내려다보며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카니스? 학교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알페아스는 데려오지 못했잖아?”

“어쩔 수 없지. 스승님도 알페아스를 만나면 특히 조심하라고 했잖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

“그래도…… 왠지 혼날 거 같은데.”

카니스는 언짢은 얼굴로 아린을 돌아보았다.

“아린. 스승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런 일로 절대 혼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루카스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거액을 준다는 말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마법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를 줄은 몰랐다.

임무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미리 받은 계약금도 적은 편이었다. 게다가 아케인은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어이. 너희들 스승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혹시 도망친 것은 아니겠지?”

무려 왕국 5대 명문을 급습한 사건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류 귀족임을 감안하면 이번 일이 무사히 끝난다고 해도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터였다. 설령 대마법사라 해도 겁을 먹고 도망쳤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었다.

“스승님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너 따위가 입에 올릴 분이 아니니까.”

“하아.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루카스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긁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독사의 눈빛으로 카니스를 노려보았다.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정상치를 넘어서는 적의가 밀려들자 정신감응력이 뛰어난 아린이 황급히 물러섰다. 반면에 카니스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이 눈빛이라면 라둠에서 수없이 당해 본 바였다.

‘사안蛇眼인가.’

시선으로 간뇌를 타격하여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것으로 훈련보다는 실전경험과 타고난 성향을 통해서 발현되는 스키마 기술 중의 하나였다. 사안을 구사하는 것만 보더라도 루카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어리다고 봐주는 건 끝이다. 지금부터는 말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계약이 어쩌고 하더니, 일 처리가 늦어지는 건 너희들 쪽이잖아?”

카니스도 이번에는 반박하지 못했다. 어째서 스승님이 오지 않는 것일까? 누구보다 오늘을 기다렸던 그가 시간에 늦는다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카니스가 침묵을 지킨 채 투지를 거두자 루카스도 사안을 풀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한 팀이었고, 무엇보다 잔금을 받아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처음부터 따라오는 게 아니었는데.’

루카스는 어비스 노바에 걸린 자들을 돌아보았다. 신진대사는 정상이기에 이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스태미나가 약한 사람들부터 쓰러지기 시작하면 처리하기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봐, 차라리 지금 죽여 버리는 게 어때? 기절이라도 하면 곤란하잖아. 일일이 집어 던질 수도 없고.”

루카스는 전문 칼잡이로 고용되었다. 다수의 생명을 거두는 데에는 마법사가 좋지만 생존자들의 목을 하나하나 따기에는 칼잡이만한 게 없었다. 결국 체력이 고갈되면 전부 루카스의 몫이 되니 미리 숫자를 줄여 놓으려는 생각이었다.

“스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돼. 알페아스가 보는 앞에서 이들을 몰살시키는 게 작전의 핵심이다.”

“쳇, 그럼 즐기기라도 하자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전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들이잖아.”

카니스는 역겹다는 듯 그를 노려보았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릴 명분이 없었다. 라둠 출신인 그는 루카스 같은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 결국 루카스는 원하는 걸 하고야 말 것이다. 그게 몸서리치도록 짜증 났다.

“쓰레기 같은 놈.”

루카스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첫 번째 사안에서 카니스를 죽였어야 했다. 인간의 뇌는 충격에 적응하기 때문에 같은 대상에게 사안을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졌다.

“크크크, 내가 왜 너를 싫어하는지 알아? 무슨 대단한 신념이라도 있는 척 군다는 거야. 너나 나나 범죄자일 뿐이야. 오늘이 지나면 너도 수백 명을 몰살시킨 살인자가 되는 거라고.”

“대단해지고 싶어서 신념을 지키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너 같은 인간이 역겨울 뿐이야.”

“하하? 그래? 진짜 역겨운 게 뭔지 알아? 약하면서 입만 산 놈들이지. 네가 역겨워하면 어쩔 건데?”

루카스는 정면을 돌아보더니 시이나의 목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일그러진 그녀의 몸을 한 손으로 번쩍 들고 건널 수 없는 다리의 절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일단 1명 죽이고 나면 알게 될 거야. 너도 나랑 똑같은 쓰레기라는 걸 말이야.”

루카스가 팔을 내밀자 시이나의 두 다리가 절벽 밖에서 대롱대롱 흔들렸다. 입에서는 연신 컥컥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여자도 괜찮네. 죽이긴 아깝지만 뭐…….”

루카스는 손에 힘을 풀고 시이나를 떨어뜨렸다. 동시에 그의 눈동자에 스파크가 튀었다. 솜털이 서는 듯한 기분. 스키마 유저만이 느낄 수 있는 스피릿 존 특유의 자극이었다.

‘어디지?’

예민한 신경계가 스피릿 존의 집중점을 포착했다. 공중으로 날아오르자 오른쪽 무릎이 있던 자리에 펑 하고 폭발이 일어났다. 정통으로 맞았다면 뼈가 끊어졌을 터였다.

루카스는 착지와 동시에 공중제비를 넘으며 물러섰다. 스피릿 존의 반경을 짐작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거리를 벌려두는 게 대 마법사 전의 정석이었다.

## [81] 마법사의 전투(2)

순간 이동을 시전한 네이드와 이루키가 건널 수 없는 다리의 절벽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이나가 당한 굴욕을 지켜보았던 두 사람의 눈빛은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다.

“너 따위가 감히 선생님을…….”

“뭐야, 멀쩡한 놈들도 있었잖아? 하여튼 마법사들이란…….”

루카스도 기분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였다. 명색이 대마법사라는 자가 표적을 놓치는 실수를 하다니. 게다가 정신이 멀쩡한 인간은 전부 자신이 처리해야 할 몫이었다.

“그 여자가 선생이었냐? 미안하군. 지금쯤이면 거의 도착했을 거다. 땅바닥에 말이야. 크크크.”

루카스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절벽 아래에서 시이나를 끌어안은 시로네가 순간 이동으로 올라왔다. 그의 눈빛도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다. 얼마나 타락해야 사람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

“용서하지 않겠어.”

루카스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일이 늘어나는 상황이 짜증날 뿐이었다.

“어이. 어쩔 거야? 이것도 작전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

루카스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잔금을 치룰 때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카니스 또한 회피하지 않았다. 아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리더는 그였다.

“아린, 물러서 있어.”

“하지만 카니스…….”

“너는 나설 필요 없어. 사람들을 통제하는 임무에 집중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정신 지배를 건 상태에서 전투까지 하기란 무리였다. 아린이 사람들 속으로 숨어들자 홀가분해진 카니스가 시로네 일행에게 다가갔다.

“너희는 뭐야? 어떻게 정신 지배에서 빠져나왔지?”

이루키가 말했다.

“암흑 마법이야 이미 시대에 뒤처진 마법 아닌가? 파훼법 정도는 널리고 널렸어.”

“허튼소리.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었다면 뒤편에 있는 놈들도 걸리지 않았겠지.”

‘그건 그렇지…….’

카니스는 고개를 들어 태양을 살폈다. 산 정상이라 여전히 빛이 강한 시간대였다. 하지만 대마법사의 제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조건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던 루카스가 소리쳤다.

“어이, 어떡할 거야? 이런 건 계약에 없었다고. 돈을 두 배로 준다면 처리해 줄 수도 있는데.”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나 혼자 처리한다.”

“그럼 그러시든지.”

루카스는 입맛을 다시며 물러섰다. 마치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였지만 속마음은 정반대였다. 관심 없는 척 기다리고 있다가 전투가 시작되면 뒤에서 베어버린다. 그러면 끝이었다.

“빨리 덤벼라. 바쁜 몸이니까.”

시로네와 카니스가 천천히 거리를 좁혔다. 공감각을 통해 느껴지는 카니스의 스피릿 존은 대략 직경 50미터의 구체로 시로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기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너희들은 저 검사를 막아줘.”

시로네의 말에 이루키는 루카스를 돌아보았다.

“저 사람? 분위기를 보니까 나서지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시이나 선생님을 절벽으로 떨어뜨릴 만큼 악독한 놈이야.”

시로네가 차가운 눈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저 사람이 하는 어떤 말도 믿지 마.”

이루키는 침을 꿀꺽 삼켰다. 머릿속의 회로를 실전태세로 전환한 시로네는 평소하고는 눈빛부터가 달랐다.

시로네는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다. 광자 출력은 공격 마법 중에서도 발군의 발동속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암흑 계열 또한 속도에서는 뒤지지 않았다.

카니스의 눈에서는 어떤 시그널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오랑우탄의 검은 동공처럼 불확실한 미래만이 맴돌고 있었다.

인간의 것이 아니다. 수없이 생존을 거듭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지극히 동물적인 눈.

어떤 삶을 살면 저런 눈을 갖게 되는 것일까?

두 사람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리고 새가 푸드덕 날아오르는 순간 동시에 움직였다. 광자 출력과 어둠의 권능이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눈을 어지럽혔다.

시로네는 순간 이동을 시전해 솟구쳤다. 수직으로 따라오던 어둠의 권능이 태양빛에 녹아내렸다.

카니스는 조소를 지었다. 그가 노리는 것은 시로네의 본체가 아닌 지면에 묻어 있는 그림자였다. 암흑 마법의 속성을 뒤늦게 떠올린 시로네는 황급히 절벽 밖으로 이동했다. 그림자가 1,000미터 아래로 사라지자 타깃을 놓친 어둠의 권능이 불길처럼 소멸했다.

광자 출력이 속사포처럼 쏘아지자 카니스는 섀도 월을 시전했다. 눈앞에 두꺼운 그림자의 벽이 벌떡 일어나더니 광자를 전부 빨아들였다.

‘엄청난 완력이다. 어둠으로 빛을 막아내다니.’

자연의 순리를 역행할 정도의 암흑력. 수천 번의 리바운드를 통해 광자 출력의 위력을 키웠던 시로네는 카니스의 정신적 완력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어때?’

손 안에 광자를 집중시킨 시로네는 이를 악물고 집어 던졌다. 포톤 캐논이 쏘아지자 카니스는 방어벽의 두께를 극대화시켰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 잠시, 섀도 월이 폭발하면서 섬광이 쳐들어왔다.

‘뭐야, 이건?’

오싹함을 느낀 카니스는 본능적으로 다크 스킨을 시전했다. 그의 육체가 검게 변하는 것과 동시에 포톤 캐논이 복부를 강타했다.

“컥……!”

다크 스킨이 흡수할 수 있는 충격의 한계치는 충돌 순간에 이미 넘어버렸고 충격파가 내장을 뒤흔들었다. 두 다리를 띄운 채로 날아간 카니스의 몸이 숲에 파묻혔다.

“카니스!”

아린은 믿을 수가 없었다. 빛에 물리력이 담기다니. 빛은 순수한 에너지일 뿐이다. 만약 소량의 물리력이라도 담겨 있다면 태양이 있는 곳의 행성은 전부 박살이 났을 터였다.

루카스의 표정 또한 처음으로 심각해졌다. 빛줄기가 빠르게 날아와 상대를 타격하는 마법. 만약 카니스의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피할 확률은 반반이었을 것이다.

‘재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똥 밟은 것인지도.’

루카스의 눈에 살기가 감돌았다. 수지맞는 장사는 아니지만 잔금은 치러야하지 않겠는가? 시로네를 주시하는 그의 쌍검이 부르르 진동했다.

\* \* \*

에텔라는 건널 수 없는 다리에서 800미터 떨어진 산맥의 어디쯤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40년 전에 비공인 3급 대마법사에 오른 아케인이 있었다.

아케인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휴식을 취했더라도 어비스 노바를 시전하면서 소진한 정신력은 아직 6할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였다. 아케인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여성의 진가를 깨닫고 눈을 가늘게 떴다.

‘호오, 이것 봐라?’

꺼벙하게 보이는 커다란 안경을 썼다. 가슴도 풍만하게 발달해서 전투라고는 모를 것 같은 순한 양 같은 외모였다.

하지만 피부로 느껴졌다. 단지 서 있는 것뿐인데도 신체를 관통하는 모든 기운이 막힘이 없었다.

특히나 그녀의 눈동자는 압권이었다. 희로애락구애오욕의 팔정을 초월한 자가 아니고서는 낼 수 없는 선인의 정신이 동공을 통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구도자였다.

그것도 마법학교의 교사로 있기에는 너무나도 뛰어난.

‘어비스 노바를 파훼할 만하구먼.’

에텔라 또한 태어나기도 전에 대마법사로 이름을 알린 암흑 마법의 권위자를 앞에 두고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고명은 익히 들었습니다.”

“어디 수도회인가?”

아케인은 듣지 않고도 에텔라가 수도사임을 짐작했다. 하지만 이어진 대답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카르시스 수도회의 비숍 에텔라라고 합니다. 일찍이 암흑 마법으로 이름을 날린 분이 어째서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르시는지요.”

“비숍이라.”

아케인은 황당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서른도 되지 않은 나이에 비숍의 직위를 갖는다는 건 그가 전성기를 보냈던 시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나 카르시스라면 교구가 2.000개에 이르는 대륙에서 손에 꼽히는 수도회였다. 그리고 비숍은 하나의 교구를 책임지는 직위로 최소한 일개 도시의 수장과 맞먹었다.

“알페아스는 어디 있나?”

에텔라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 또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조차 적에게는 정보가 될 수 있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 솔직히 말해도 상관없네. 그 영악한 애송이가 순순히 내 마법에 당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으니까.”

환갑이 넘은 알페아스를 영악한 애송이라고 칭하는 것만 봐도 눈앞에 서 있는 대마법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새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왜 찾으시죠? 은원 관계라면 직접 만나서 푸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학생들을 정신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물러가 준다면 제가 자리를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껄껄껄! 내가 없는 동안 애송이가 꽤나 평판을 쌓았나 보구나. 하지만 아이야, 알페아스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오만한 놈이지.”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호오, 그렇단 말이지?”

아케인은 장난스럽게 턱을 쓰다듬었다. 따지고 보면 그의 기억 속의 알페아스는 한창 청춘을 불태우던 20대의 애송이에 국한되어 있었다.

“궁금해지는구나. 대체 그 애송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존경을 받는단 말이냐? 어디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에텔라는 아케인의 작전을 파악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태양이 떨어질 시간대였다. 암흑 마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밤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 보려는 꼼수였다.

“어둠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만두시죠. 교사로서 더 이상의 악행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

아케인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찡그렸다. 120살이나 덜 먹은 어린애가 감히 자신을 시간이나 끄는 마법사로 취급하다니.

어둠의 권능을 시전하자 아케인의 그림자가 나무들을 집어삼켰다. 나뭇가지가 우수수 흔들리더니 둥치가 한 점을 향해 휘어지기 시작했다.

“고작 해 따위가 떴다고 너에게 겁을 먹은 것 같았더냐? 그렇다면 이 아케인을 아주 우습게 본 것이니라.”

에텔라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수백 미터 반경에 있는 나무들이 일제히 기울어지면서 네트처럼 얽힌 거대한 돔을 구조했다. 하늘이 닫히자 사위가 밤보다 어두워졌다.

“죽어라. 괘씸한 것.”

아케인이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쑥 하고 꺼졌다. 암흑 마법의 특기인 다크 포트였다. 어둠과 동화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거리개념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었다.

기척조차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다크 포트의 가장 뛰어난 강점이었다. 후미를 제압한 아케인이 어둠의 권능을 시전하는 순간 에텔라의 몸이 섬광으로 변해 멀어졌다. 수십 개의 그림자 손이 허공을 할퀴었다.

아케인이 다시 다크 포트를 시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초고속 전투가 펼쳐졌다. 마치 수십 명의 아케인과 에텔라가 있는 듯했다. 아케인이 에텔라를 좁은 반경에 몰아넣자 에텔라는 서 있는 자리에서 극한의 속도로 순간 이동을 연계했다. 그녀의 상체가 무수히 겹쳐 보이면서 그림자 손이 실체 없는 잔상을 관통했다.

‘카르시스 수도회의 비숍. 과연 제법이다.’

노기를 품고 있던 아케인조차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정신의 거대함은 자신에게 못 미치지만 기술과 감각만큼은 연령대를 훨씬 초월한 경지였다.

“그렇다면 약한 부분을 찔러주어야겠지.”

에텔라의 눈동자가 당혹감에 흔들렸다. 어둠의 권능이 강화되면서 수천 개가 넘는 손이 동시에 날아들고 있었다.

가히 끝을 알 수 없는 마법력.

조너의 탐색 능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마법이라 불릴 만하지만 그렇더라도 수천 개의 손을 전부 피할 수는 없었다.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손목을 붙잡자 에텔라는 급하게 동작을 멈췄다. 이 상태에서 순간 이동을 시전하다가는 팔이 뜯어져나가고 말 것이다.

“우으으으……!”

그림자의 장력은 마치 고무처럼 질겼다. 하지만 에텔라의 완력도 만만치 않았다. 이를 악물며 팔을 잡아당기자 그림자의 중간 부분이 우직 하고 뜯어졌다.

‘체술도 있는가? 튼튼한 아이로군.’

아케인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그쪽이 취향이라면 맞춰 주도록 하지.”

## [82] 마법사의 전투(3)

살기를 느낀 에텔라는 옆을 돌아보았다. 허공의 암흑에서 엄청난 속도로 그림자가 튀어나와 그녀의 턱을 강타했다.

‘주먹?’

이어서 수십 개의 그림자 주먹이 날아들었다. 에텔라는 몸을 웅크리고 두 팔로 급소를 가렸다. 둔탁한 타격음이 산중을 울리는 와중에도 마치 뿌리를 내린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호오? 이래도 버텨?’

여느 사람이라면 전신의 뼈가 부러졌을 터. 하지만 가드 사이로 보이는 에텔라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맷집은 인정한다만 그만 끝내자꾸나.”

그림자 손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로기 상태의 에텔라를 붙잡았다. 손목과 발목을 붙잡은 어둠의 권능이 힘을 가하자 그녀의 사지가 바깥으로 펼쳐졌다. 큼직한 안경은 금이 간 채로 기울어져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케인은 포이즌 커터를 캐스팅했다. 회전하는 어둠에 독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퓨전 마법보다 훨씬 어렵다는 트리플 믹스 마법이었다.

칼날처럼 예리한 마법이 공기를 가르며 쇄도했다. 즉사의 술법임을 직감한 에텔라는 온힘을 다해 그림자를 끊어낸 다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소리를 내질렀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수풀을 쓰러뜨리면서 질주하는 고주파의 굉음이 아케인의 어둠을 연기처럼 파쇄시켰다.

수도사의 기술인 파마의 함성이었다.

카르시스 수도회의 선조인 카르시스 융은 일찍이 인간의 정신을 깨우는 각성은 굉음과 함께 밀려든다고 했다. 파마의 함성은 굉음을 일으켜 악한 마법을 깨트리는 정법이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천둥소리에 놀라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굉음에 파묻힌 아케인은 전율했다. 피부가 찌릿찌릿하고 머리털이 곤두섰다. 130년의 인생에서도 몇 번 접하지 못한 파마의 함성을 불과 스물 중반의 여성이 구사할 줄이야.

‘크크크, 이래서 이 바닥을 못 떠난다니까.’

최고의 재능이 하나의 능력을 극한으로 갈고 닦아 명검처럼 가다듬은 정신을 휘두른다.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무수한 파괴와 생성, 재생성을 거듭해 나가며 마법은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지. 아무렴.’

아케인은 포이즌 커터를 다시 캐스팅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에텔라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능을 끊어내고 공간 이동을 시전했다. 섬광이 휘어지듯 날아가는 것과 동시에 포이즌 커터가 빛의 잔상을 관통했다.

“휘우.”

아케인은 휘파람을 불었다. 강한 인간일수록 도망칠 때의 굴욕감은 큰 법이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후퇴할 수 있는 판단력 또한 전투에서는 중요했다.

아케인은 에텔라가 서 있던 자리로 향했다. 완벽하게 피하지 못했는지 핏물이 떨어져 있었다. 독이 스며들었다면 멀리까지 도망치지는 못했을 터였다.

“말괄량이 아가씨가 고생깨나 하겠구먼.”

40년 만에 강적을 만난 아케인은 즐거웠다. 조너의 스피릿 존, 어둠의 권능을 끊어내는 체술, 수도사의 지고한 정신까지 삼위일체를 다 갖춘 천재를 보게 된 것이다.

‘공인 6급의 마법사라고 했던가?’

나이에 비해 높은 직급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적인 기준이 통용되지 않는 자들이기에 천재인 것이다. 교사니 구도자니 하는 사명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에텔라의 현재 직급은 훨씬 높았을 것이다.

“미르히 알페아스. 그 애송이가 존경을 받는다고?”

아케인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신 지배가 풀리자 나무들이 굽었던 허리를 펴면서 어둑해진 하늘이 드러났다.

“부끄럽지도 않느냐, 알페아스? 너보다 뛰어난 인간에게 존경이나 받고 있다니. 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이냐.”

제자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아케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숲에 깔린 어둠이 그가 가야할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 \* \*

‘제길! 도대체 어디에 계신거야?’

사드는 점점 초조해졌다. 있으리라 확신했던 숙소에 알페아스는 없었다. 그렇다고 적에게 잡히지도 않았다면 이제 남은 곳은 한군데뿐이었다.

“스승님!”

교장실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곳에도 알페아스는 보이지 않았다.

사드는 포기하지 않고 책장에 진열된 책들을 살폈다. 오래전부터 알페아스가 이곳에 개인적인 공간을 꾸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기관장치가 있을 텐데. 책을 전부 살펴볼 수도 없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선에 한 권의 책이 포착되었다. 고리타분한 마법 서적 사이에 끼워진 책의 제목은 ‘어둠을 보다’였다. 스승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드는 이것이야말로 알페아스의 추억과 직결되는 통로임을 확신했다.

책의 윗부분을 끌어당기자 묵직한 기관장치가 돌아가면서 책장이 좌우로 갈라졌다. 벽 너머에 터널이 뚫려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드가 계단을 내려가자 기울어진 책이 돌아오면서 책장이 닫혔다. 철문을 열자 수정등이 달린 작은 방이 나왔다. 낡은 선반 위에 수많은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골동품 가게라고 해도 믿을 만큼 예스러웠다.

여성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다. 빼어나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순하고 단아한 인상이었다.

‘저분이 바로…….’

사드는 넋을 잃은 채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알페아스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사람을 빨아들이는 마력이 있는 듯했다.

“누구냐?”

사드는 흠칫 하며 몸을 돌렸다. 구석의 의자에 알페아스가 무릎을 짚고 앉아 있었다.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이 평소와 전혀 달랐다.

“스승님! 역시 무사하셨군요!”

“너…… 날 알고 있나 보군.”

다가서던 사드가 걸음을 멈췄다. 알페아스의 말을 듣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기억을 잃으셨군요.”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알페아스 또한 아케인의 마법에 걸린 게 분명했다. 하지만 공인 4급의 마법사답게 기억을 완전히 잃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이곳으로 피신한 듯했다.

사드의 말을 들은 알페아스는 청동 거울로 다가갔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흠. 기억을 잃은 건가? 나는 또 갑자기 미래로 와버렸나 생각했지. 어쨌거나 18살의 얼굴이 이런 늙은이로 변해 버리다니. 상당히 짜증나는군.”

사드의 눈이 크게 떠졌다. 18살이라면 대략 40년의 세월이 차단당했다는 얘기였다. 알페아스가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미 미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 기억을 잃었다……. 차라리 다행이군. 인생을 도둑맞은 건 아니니.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가 기억을 잃은 거야?”

“어떤 마법사가 스승님을 해하기 위해 암흑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스승님은 가까스로 벗어난 것이고요.”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이지만 알페아스는 개의치 않는 태도였다.

“그래? 지금 내 나이가 몇이지?”

“아, 예순셋입니다.”

“예순셋이라. 그렇다면 난 뭐가 됐지?”

“네?”

“어떤 마법적 성과를 이루었는가 묻는 거다.”

“아, 훌륭한 성품의 인격자로서 현재는 마법학교의 교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알페아스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미르히 가문의 빛이라고 불리는 천재가 남을 가르친다니. 자신의 성격을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선생님이 됐다는 말인가?”

“네. 모두가 스승님을 따르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푸하하하하! 푸하하하하!”

알페아스는 광오한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갑자기 늙어버린 모습에 짜증이 나기도 했으나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 자신의 업적을 들을 생각을 하니 설레기까지 했다.

“나도 제법 철이 든 모양이군. 교장이라. 그렇다면 이곳은 왕궁인가? 왕자님은 왕위를 계승하셨고?”

사드는 불안해졌다. 알페아스가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간극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여긴 사립학교입니다. 스승님이 직접 설립하신 알페아스 마법학교입니다.”

“사립?”

알페아스의 인상이 구겨졌다. 천재적인 사유의 알페아스라면 최소한 왕족은 가르치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사립이라니? 대체 40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난 몇 급이지?”

“네? 아, 그게 저기…….”

사드는 머뭇거렸다. 알페아스가 소싯적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수많은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솔직하게 현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빨리 말해! 몇 급이냔 말이다! 내 나이가 예순셋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1급인가? 아니면 2급?”

사드는 죽을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4급입니다…….”

알페아스는 비틀거렸다. 늙어 버린 신체로 감당하기에는 충격이 너무 컸다. 하지만 이내 타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멍청한 놈! 한심한 자식!”

알페아스는 머리를 때리며 자책했다. 신이 내려준 재능으로 40년을 바쳤다면 적어도 2급은 되어야 했다. 그런데 3급도 아니고 4급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얼마나 얼빠진 생각을 하며 살아왔기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과거를 알아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결심을 내린 알페아스가 사드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암흑 마법 풀 수 있지? 내 제자라고 했으니 광자 마법은 익혔을 거 아냐?”

“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스승님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사드는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아닐까?

젊은 날의 실수로 알페아스는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기억을 잃은 것으로 과거를 청산할 수 있다면 평생의 회한거리는 사라지는 셈이었다.

“스승님, 꼭 기억을 되찾아야 하겠습니까?”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기억이니 당연히 되찾아야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것만 수정하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더 높은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스승님. 지금 상황이 납득이 안 가시겠지요. 신이 내린 재능이라 불리던 미르히 가문의 빛이, 고작 공인 4급의 교장직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말리고 싶습니다. 스승님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괴로움을 안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그만 자유로워질 때도 됐습니다. 어쩌면 이건 신이 내린 면죄부가 아닐까요?”

18살로 회귀한 알페아스지만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지 정도는 알고 있다. 또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대로 인정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방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겨 있던 알페아스는 문득 벽에 걸린 초상화를 발견하고 물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여기 내 방이 아닌가?”

“스승님 방이 맞습니다.”

“그래? 내가 저 그림을 걸었다고? 미녀도 아니고 눈은 왜 저렇게 흐리멍덩해? 어딘가 모자란 여자처럼 말이야.”

사드는 감정이 북받쳤다. 알페아스에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터라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은…….’

알페아스는 짜증난 얼굴로 그림에서 시선을 뗐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납득이 가는 게 하나도 없었다.

“기억을 되찾겠다. 내 계획과 너무 어긋난 미래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스승님, 재고해 주십시오. 인생이란…….”

“어이, 너.”

알페아스가 오만한 눈을 치켜뜨며 사드의 말을 끊었다. 사드는 스승의 말에 한 치의 거짓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저 모습이 바로 젊은 날의 알페아스였다.

“내 제자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영광이고,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로 파문이다.”

“네?”

알페아스는 진심이었다. 천하의 알페아스다. 40년의 기억을 잃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지성의 결정체였다.

“그깟 지나와 버린 기억 따위를 되찾는다고 뭐가 대수라는 거지? 너같이 한심한 제자는 필요 없어.”

## [83] 마법사의 전투(4)

“그렇지 않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승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을 되찾아도 예전의 알페아스로 되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같은 인생을 두 번 산다고 하여 언제나 도착지가 같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내 판단은 언제나 옳다. 그렇기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오직 나일뿐이다. 마지막 기회다. 광자화 마법을 걸어.”

사드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알페아스의 천성이 원래의 인격을 되찾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곳에 앉아 주십시오.”

사드는 구석의 의자를 가져와 알페아스를 앉혔다.

“시작하겠습니다. 광자화 마법을 걸기는 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스승님의 몫입니다.”

“하하! 내 몫을 신경 쓸 깜냥은 되고? 쓸데없는 걱정은 말고 빨리 하기나 해. 기억을 되찾으면 아주 혼쭐을 내 주마.”

사드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마법을 시전했다. 어비스 노바에 빛이 스며들자 약간의 졸음이 밀려들었다. 알페아스는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에 빠져들었다. 18세에서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명과 암, 선과 악(1)

덤불에 파묻힌 카니스는 복부에 퍼진 충격파가 남아 있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었다.

아린이 정신감응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는 암흑 계열의 물리 마법을 집중적으로 수련했다.

힘을 흡수하는 것 또한 물리력이었고 그런 만큼 그가 시전하는 다크 스킨의 충격 흡수량은 상당히 높았다. 성인이 휘두르는 해머도 다크 스킨 앞에서는 어린애 주먹질밖에 되지 않는 정도였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당한 포톤 캐논의 위력은 예상을 훨씬 초월하는 파괴력이었다. 무엇보다 빛에 어떻게 물리력이 담길 수 있는지 분석조차 불가능했다.

“키키키. 제대로 당했구나, 카니스.”

탁한 목소리가 귓가를 자극했다. 카니스 외에는 산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현실이었다.

“하비……. 내가 뭐에 당한 거지?”

“알 수 없지. 하지만 내가 느끼기론 질량이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온 질량이 복부에 박힌 거야.”

“질량? 빛은 질량이 없어.”

상극의 속성을 공부하는 건 전투 마법사의 기본이기에 카니스도 광자화 이론에 대해 알고 있었다.

“물론 빛은 질량이 없지. 하지만 에너지는 있어.”

실제로 운동하는 광자에는 극소량의 질량이 있다. 이를 운동질량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태양풍이었다.

“하지만 그건 수학적 환원일 뿐이야. 강풍이 불면 몽둥이에 맞는 느낌이 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지.”

“네 말대로 일리가 있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잖아. 그렇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아니, 무언가 하나 빠졌어. 이 정도의 위력을 내려면 질량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해. 하지만 그런 건 세상에 없지.”

하비라는 목소리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놈은 찾았나 보지 뭐.”

카니스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와 하비는 엄연히 다른 개체지만 생각을 공유하는 하나이기도 했다. 카니스의 불쾌한 감정을 읽었는지 하비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굉장한 놈이야. 독특한 놈이고. 마법학교에도 이런 인재가 있었군.”

그제야 만족한 카니스는 몸을 일으켰다. 적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승리로 가는 첫 번째 단추였다. 처음으로 만난 호적수.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듯했다.

“이길 수 있겠지, 하비?”

“크크크. 카니스, 네가 원한다면…….”

을씨년스러운 목소리가 어둠에 스며들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은 없어.”

카니스는 비정상적으로 긴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시로네가 있는 산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 \* \*

시로네는 한참이나 숲의 어둠을 응시했다. 카니스가 다크 스킨을 시전한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뇌에 도달하지 못하고 망막에만 새겨진 정보가 경계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카니스가 숲을 가르고 걸어 나왔다. 시로네의 예상이 옳았음이 증명되자 네이드가 인상을 찡그렸다.

“젠장. 진짜로 멀쩡하잖아?”

“네이드. 해가 졌다.”

밤이 되면 암흑 마법의 위력은 극대화될 것이기에 이루키는 조명 마법을 시전했다. 파이어 선에 훨씬 못 미치는 밝기였기에 네이드가 힘을 보탰다. 두 개의 발광체가 10미터 상공에서 빛났다. 하지만 마법사가 고속으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무리였다.

“쳇. 이래도 어두운데?”

그 순간 카니스가 조명 마법을 시전했다. 암흑 마법사가 시전한 빛의 마법이 두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게 했다.

“무슨 생각이지? 조명 마법이라니.”

“뭐가 어때서? 어떤 계열이라도 광자화 이론은 필수로 배우지. 순간 이동의 기본 원리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암흑 마법사에게 빛은 약점일 텐데? 어째서 제 살을 깎아먹을 짓을 하냐는 거야.”

“하하하! 하하하하!”

카니스는 폭소를 터뜨렸다.

“역시나 마법학교 출신들은 멍청하고 고지식하군. 어떤 계열이든 약점이 없는 마법은 없어. 중요한 건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지. 조명 마법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아린, 한 발 더 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던 듯 신중한 성격의 아린도 순순히 조명마법을 시전했다.

4개의 발광체가 모이자 제법 낮과 같은 밝기였다. 하지만 카니스는 만족하지 못하고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독특한 전지를 구사하는 빛의 마법사. 그의 조명 마법이라면 원하는 무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어이, 너도 한 발 쏴주지? 기대하고 있는데.”

시로네는 조명 마법을 할 줄 몰랐다. 순간 이동에서 레인보두 드롭, 광자 출력에서 포톤 캐논까지 기술적 진화를 이루는 동안 여타의 마법에 투자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야? 설마 못하는 거냐? 어이가 없군. 빛의 마법사가 조명 마법도 시전하지 못하다니.”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마법 끈은 짧은 주제에 기연을 얻어 한 가지 마법에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서커스 같은 것이라면 꽤나 유명해질 수 있겠지만, 마법은 묘기가 아닌 살인기술이다. 온갖 심리와 전술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하나밖에 하지 못하는 시로네 같은 유형은 죽기에 딱 좋았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군. 좋은 대결이 될 줄 알았더니, 이도저도 아닌 애송이일 뿐이었잖아?”

카니스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로네의 머리 위로 펑 하고 발광체가 떠올랐다. 다른 사람의 조명 마법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밝은 빛이었다.

네이드와 이루키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배운 적도 없는 조명 마법을 바로 시전했다. 한계를 모르는 통찰력보다도 그의 분노가 먼저 느껴졌다.

시로네는 카니스의 스피릿 존으로 성큼 들어갔다. 전교생을 인질로 붙잡아놓고 좋은 대결 운운한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 됐어? 뜻대로 해 줬으니 뭐든지 해봐.”

카니스는 조금 전의 생각을 철회했다. 단순히 서커스를 잘하는 마법사가 아니다. 하지만 상관있을까?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자신은 더 강하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의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뭐든지? 그 말 후회하게 될 거다.”

어둠의 권능을 시전하자 발밑의 그림자가 시로네를 향해 급류처럼 질주했다. 하늘로 날아오른 시로네는 손바닥 위에 광자를 띄웠다. 대단한 거라도 할 줄 알았더니 여태까지의 패턴과 똑같은 공격이었다.

‘고작 허세나 떨려고 날 화나게 해?’

시로네가 포톤 캐논을 시전하자 카니스의 몸이 그림자 아래로 쑥 하고 사라졌다. 이번 것은 조금 새로웠으나 어차피 책에서 배운 이동 마법일 뿐이었다. 두더지처럼 사방에서 나타나는 카니스에게 폭격을 퍼붓자 산 정상이 초토화되었다.

‘잡았다!’

카니스의 동선을 전략적으로 분석한 시로네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곳에 예측사격을 가했다. 포톤 캐논이 떨어지는 자리에 뒤늦게 카니스가 나타났다. 회피 불가능. 게다가 다크 스킨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위력이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카니스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일어섰다. 마치 인간의 그림자를 길게 늘인 것 같은 외형이었고 그것이 포톤 캐논을 양손과 배로 받았다. 손바닥 사이에 끼인 광자가 펑 소리를 내며 그림자로 흡수되었다.

당황한 시로네는 지상으로 착지했다. 그림자가 포톤 캐논을 파괴했다. 그것은 곧 어둠이 빛을 압도했다는 뜻이었다.

“키키키, 화려한 등장. 나 어땠어?”

“어떻게 저럴 수가? 어둠이 빛을 삼키다니…….”

네이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암흑력이 강해도 빛을 제압할 수는 없었다. 횃불을 피웠는데 주변이 조금도 밝아지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인가?

카니스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는 괴물체는 조명 마법이 지상을 비추는 와중에도 전혀 행동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

얼굴이 작은 반면 어깨와 가슴은 거대했다. 허리는 범처럼 가늘었고 팔은 원숭이처럼 길었다. 손바닥은 방패처럼 넓적한데다 손가락은 칼날처럼 가늘고 길었다. 신체 밸런스가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은 인위적인 창조물이라는 증거였다.

“크크, 내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어이, 애송이. 네가 쏜 광자는 정말 맛이 좋더구나.”

그림자가 말을 하자 시로네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게다가 빛이 아닌 광자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지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얘기였다.

카니스가 자신의 그림자를 소개했다.

“암흑 마법의 정수. 최강의 마도 생물체 하비스트다.”

“마도 생물체라고?”

연금술과 마도공학이 합쳐진 마도 생물학의 진수. 책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보는 느낌은 실로 기괴했다. 더군다나 어떤 책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는 지적 생물체였다.

“키키키! 저 녀석 완전히 얼이 빠졌는데? 이거 왜 이래, 꼭 마도 생물체 처음 본 촌뜨기처럼?”

걸걸한 입담을 과시한 하비스트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경솔하고 괴팍한 괴물일까? 아니,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성질의 생물체였다.

“하비스트는 빛에 면역이다. 또한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내가 죽지 않는 한 하비 또한 소멸하지 않아.”

“고럼, 고럼! 우리는 둘이자 하나! 하나이자 둘이지! 물론 얼굴은 내가 더 잘생겼지만 말이야. 진짜라니까! 엄청 잘생겼는데 보여 줄 방법이 없네. 케헤헤헤!”

하비스트가 농담을 지껄였으나 시로네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빛에 면역이라면 암흑 마법사의 유일한 단점마저 사라진 셈이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직까지 외부인의 도움은커녕 알페아스의 위치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이었다.

카니스는 당황하는 시로네의 모습에 만족했다. 조명 마법 이후에 하비스트를 선보인 효과가 탁월했다. 이 또한 하비스트의 전략이었다. 경망스러운 말투와 태도는 완벽한 연기. 실제로 하비스트는 카니스보다도 지적인 생명체였다. 아케인의 지식을 통째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하비스트는 쉬지 않고 카니스와 뇌파 패턴을 교환하고 있었다.

- 카니스. 숲으로 들어가자. 여기서는 우리가 불리해.

- 쉽게 따라와 줄까?

- 급한 건 저쪽이야. 게다가 루카스는 상당히 강하다. 그를 움직이게 한다면 우리 쪽의 전력이 상승할 거야.

- 마음에 들지 않아. 저런 자식의 도움 따위 받고 싶지 않다고. 아까도 네가 말리지 않았다면 한판 붙었을 거야.

- 널 위해서야, 카니스. 놈은 강한 데다 멍청하지도 않아. 수치의 총량만 놓고 봤을 때는 네가 밀린다. 소모적인 감정싸움에 너를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

루카스는 라둠에서 카니스를 괴롭혔던 악당들의 또 하나의 얼굴이었다. 그런 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다고 생각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 카니스. 심장박동수가 1.7배 빨라졌다. 아드레날린 수치가 증가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내가 한 말 때문에 화난 거라면 사과할게.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한 마도 생물체의 배려가 카니스의 심장을 진정시켰다. 차갑고 냉철한 하비스트가 있는 한 그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 아니야, 하비. 미안해. 네 판단이 옳아. 시작하자.

## [84] 명과 암, 선과 악(2)

잡념을 지운 카니스는 시로네를 노려보았다. 고생이라고는 해 본 적도 없을 거 같은 반반한 외모에 속이 뒤틀렸다.

‘흥. 너는 내가 악당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카니스의 그림자에서 어둠의 권능이 피어올랐다. 조명 마법에 깎이면서도 재생 속도가 엄청났다.

‘나에게는 너희들이야말로 악이다!’

어둠의 권능이 질주하자 시로네는 광자 출력으로 지면을 깨끗이 닦아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장착한 포톤 캐논을 집어 던졌다. 하비스트가 가로막으면서 몸으로 받았다. 포톤 캐논이 몸통으로 파고들자 텅 하고 하비스트의 몸이 숲으로 밀려나갔다. 하지만 충격은커녕 기다란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시로네를 도발했다.

“크크크. 들어와, 들어와.”

암흑 마법사에게 숲은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지만 시로네는 지체 없이 숲으로 돌진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수십 발의 광자를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갈겨댔다.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백여 발의 조명탄이 숲의 천장을 뚫고 올라왔다. 네이드와 이루키는 대낮처럼 밝아진 하늘을 황당하게 쳐다보았다.

“저 자식, 제대로 발동 걸렸네.”

“본인도 알고 있는 거겠지. 시로네가 저놈을 막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지는 게임이야.”

이루키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루카스가 시로네의 뒤를 따라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눈앞에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그가 빠르게 몸을 날렸다. 아토믹 봄이 펑 소리를 내며 폭발하고, 순식간에 10미터를 물러난 루카스가 무시무시한 눈으로 이루키를 노려보았다.

“너 이 자식…….”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어처구니가 없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마법사 수련생 따위가 B급 범죄자를 상대하겠다고 나서다니. 루카스가 쌍검을 뽑자 스르렁 물소리가 났다. 스피릿 존을 통해 전달되는 그의 기질은 마치 불타는 장작처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스키마로 강화할 수 있는 육체의 범주는 무궁무진하지만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대부분 검증된 빌드를 사용한다.

한쪽에 치우친 빌드는 몸을 망가뜨린다. 예를 들어 신경계에 너무 많은 강화를 하게 되면 근육이 신경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파열하게 되는 식이었다.

현재 루카스가 사용하는 빌드는 미토콘드리아 빌드로 생물체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강화하여 순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체력의 소모가 빠르다는 단점이 있지만 육체의 전반적인 부분이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는 매력적이었고 그렇기에 대다수의 유저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빌드였다.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루키는 네이드의 상태를 살폈다. 차가운 눈으로 루카스를 바라보는 모습이 5년 전의 여름을 떠올리게 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두 사람은 충돌했다. 지금 네이드가 웃을 수 있는 건 기적에 가까웠다. 아마도 그는 다시는 예전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얼굴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다.

“조심해, 네이드. 저 녀석 스키마 유저야.”

“알고 있어. 화력을 높여서 초반에 제압하자.”

루카스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조심이라는 말은 웅덩이를 피하거나 위태로운 다리를 건널 때 쓰이는 말이지 조만간 칼날에 목이 떨어져나갈 상황에 쓰일 말이 아니었다.

“하아. 요즘 애들이란…….”

머리를 긁적이던 루카스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동시에 네이드와 이루키의 사이에 황금빛 섬광이 탄생했다. 순간 이동의 빛이 번쩍이고 루카스로부터 10미터 떨어진 자리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루키는 가슴팍을 살폈다. 옷이 예리하게 베어져 있고 가슴에 그어진 선에서 핏물이 새어나왔다.

“괜찮아?”

“치명상은 아니야. 하지만 정말 빠르다.”

마법이 초월적인 힘이라도 마법사의 육체는 엄연히 인간의 것이었다. 마법의 효과를 제외하면 스키마 검사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검사도 마찬가지였다. 마법의 위력은 스키마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 학생 수준의 마법이라도 정타를 허용하면 목숨을 잃게 될 터였다.

네이드와 이루키는 화력을 집중시켰다. 아토믹 봄의 연쇄 폭발이 뱀처럼 이어지고 네이드는 루카스의 동선을 계산하고 예측사격을 가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훈련했던 기계적인 패턴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에 정타를 맞출 수 없었다.

‘젠장! 어린 것들이 제법인데?’

루카스라고 상황이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미토콘드리아 빌드의 특성상 체력이 초 단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에너지 대사율을 최대로 끌어올리자 속도가 훌쩍 뛰었다. 넓은 반경을 순식간에 우회한 그는 이루키의 측면에서 뛰어올라 쌍검을 휘둘렀다. 반대편에서 달려온 네이드가 양손을 내밀었다. 일렉트릭 쇼크 마법이 복부를 강타하면서 교류 진동이 초당 60번의 속도로 육체를 흔들었다.

“이루키! 지금이야!”

이루키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스턴 상태에 빠진 루카스의 안면부에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기폭 반응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루카스는 사력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근육이 탄화된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제길! 제길!’

고작 애송이들을 상대로 죽을 위기에 처하다니. 아니, 정말로 죽는 건가? 예상 밖의 상황에 처하자 현실감마저 상실하는 기분이었다.

이루키는 끝났다고 확신했다. 기폭 반응까지 일어났으니 성급한 판단은 아니었다. 하지만 갑자기 스피릿 존이 사라졌다.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다리부터 마비되기 시작했다. 어느새 발밑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연결되어 있었다. 아린의 솜씨라는 것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이런 제길!’

루카스는 죽을힘을 다해 교류 진동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자신에게 굴욕을 선사한 네이드에게 달려들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의 분노는 사상 최대치에 달했고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사안이 번뜩였다.

“네이드! 도망쳐!”

네이드는 사안에 걸린 상태에서도 양손에 전기를 발전시켰다. 루카스가 쌍검을 벌리고 좌우합격을 시도했다.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짓쳐드는 순간 네이드의 양편에 예상치 못한 두꺼운 얼음기둥이 솟구쳤다.

캉 소리를 내며 쌍검이 얼음에 박혔다. 루카스의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렸다. 그의 검술은 바위도 쪼갠다. 그런데 고작 얼음 하나를 절단하지 못하고 막혀버린 상황이었다.

천천히 돌아선 루카스의 눈에 아는 얼굴이 비쳤다. 조금 전에 절벽 아래로 던졌던 교사라는 여자였다.

“시이나 선생님!”

네이드가 화색을 보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시이나는 말이 없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미건조한 눈동자로, 오직 루카스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 \* \*

“하아. 하아.”

나무둥치에 기댄 에텔라의 무릎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구부러져 있었다. 장장 30분간 추격전을 벌인 그녀였다. 그럼에도 아케인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없었다.

‘독이 퍼지고 있어. 더 이상 치료를 늦출 수 없다.’

자리에 앉은 에텔라는 수도복의 허리 부분을 찢었다. 배꼽 위를 지나가는 상흔에서 시커먼 피가 흐르고 있었다. 포이즌 커터에 당한 상처였다. 호흡법으로 독이 퍼지는 걸 막고 있지만 임시요법에 불과했다. 상처를 빨아내 독을 빼내야하지만 입술이 닿기가 여의치 않은 부위였다.

에텔라는 양손을 엉덩이 뒤로 넘겨 나무둥치를 붙잡은 다음 깍지를 꼈다. 고개를 숙이면서 허리를 구부리자 척추에서 우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척추기립근으로 척추를 늘이자 엉덩이가 땅 위로 떠오르면서 허리가 급격히 휘었다. 나선의 형태로 몸을 말자 비로소 배꼽 아래에 입술이 닿았다.

에텔라는 몸에 스며든 독소를 전부 상처로 밀어냈다. 그리고 허파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상처를 쭉 빨아냈다. 독이 빠지는 순간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다. 미간을 찡그린 그녀는 고개를 힘껏 쳐들었다. 입 밖으로 독을 내뱉자 새까만 핏물이 풀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풀이 말라붙었다.

에텔라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비뚤어진 안경을 벗어 바닥에 던진 그녀는 조금 전에 찢었던 수도복을 주먹에 칭칭 감고 맞부딪혔다.

“후우. 이제 좀 살겠네.”

흔들리는 스피릿 존이 내구력을 되찾으면서 주위의 기운이 공감각을 통해 전해져왔다. 눈을 크게 뜬 그녀는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지면에서 수십 개의 시커먼 손들이 먹물을 짠 듯 솟아올랐다.

‘어느새 여기까지…….’

탐색의 전문가인 조너를 쉴 틈 없이 추격할 수 있다는 것은 암흑의 대마법사가 어둠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민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독은 제거했나 보군. 볼수록 마음에 드는구나.”

어둠의 장막을 가르고 아케인이 등장했다. 하지만 에텔라도 더 이상은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할 마음이 생겼나? 그렇다면 사양하지 않고 즐기기로 하지.”

에텔라가 주먹에 힘을 밀어 넣자 음양파동권의 진력이 충만하게 차올랐다. 아케인은 그녀의 변화를 금세 포착했다. 스피릿 존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다.

마법사는 스피릿 존을, 검사는 스키마를 다룬다. 하지만 수도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단련한다. 몽크의 존재 의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케인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처음부터 하나의 분야에 집중했더라면 대륙에서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었을 터였다.

‘안타깝구나. 세상의 꼭대기에 설 수 있는 재능이 어째서 구도를 택했는고? 하긴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말을 해 봤자 우문이겠지만.’

아케인은 손을 내밀고 주문을 외웠다. 스키마를 구사하는 상대라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따로 있었다.

“어둠의 권속.”

숲의 그림자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거미들이 기어나왔다. 사람의 머리통만 한 거미가 바글거리는 광경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그어어어어어!

하지만 어둠의 권속의 진가는 이제부터였다. 아케인의 옆에 신장 3미터가 넘어가는 다크 골렘이 일어섰다.

얼굴이 어깨에 파묻혔고 털실로 두른 듯 몸통과 사지가 퉁퉁 불어 있었다. 팔은 길고 다리는 짧았다.

어둠의 권속은 정신력을 100퍼센트 물리력으로 변환하는 그림자 수하를 부리는 마법이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어둠의 권능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마도 생물체처럼 빛에 면역은 아니지만 해가 떨어진 밤이라면 이보다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전투병기는 없었다.

“가라, 나의 권속들이여.”

포문을 연 것은 다크 스파이더였다. 가뜩이나 많은 숫자가 한데 엉키자 몇 마리가 움직이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했다.

에텔라는 잽을 휘두르며 사방팔방으로 거미들을 튕겨 냈다. 이어서 거미가 뭉친 곳에 스트레이트를 날리자 펑 소리를 내며 그림자가 비산했다.

그아아아아!

흩날리는 거미를 뚫고 다크 골렘이 쳐들어왔다. 에텔라가 날다람쥐처럼 몸을 날리는 순간 두꺼운 팔뚝이 지면을 후려쳤다. 땅바닥이 물결처럼 파문을 일으키면서 급기야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 대지 마법 이럽션을 버금케 하는 위력에 에텔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마법사의 정신력이 전부 물리력으로 변환되었으니 완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두 손을 땅에 박은 골렘이 고개를 틀었다. 그리고 해머를 휘두르듯 두 팔로 원호를 그리면서 재차 공격했다.

쾅! 쾅! 쾅! 쾅!

두 주먹을 풍차처럼 휘두르는 연계 공격에 에텔라는 막무가내로 후퇴했다. 속도와 유연성에 파괴력까지 갖춘 극강의 병기가 다크 골렘이었다.

언제까지고 후퇴만 할 수는 없기에 에텔라는 도주 끝에 땅을 지르밟고 다크 골렘에 맞섰다.

그아아아아!

장벽처럼 일어서는 다크 골렘의 품으로 뛰어든 에텔라는 옆구리에 주먹을 질렀다.

퍼엉!

거구의 골렘이 휘청거렸다. 등가교환이 발생하면서 아케인의 정신으로 충격이 밀려들었다.

## [85] 명과 암, 선과 악(3)

‘허허. 이게 사람의 주먹인가?’

가히 마법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권격. 더군다나 단발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에텔라는 숨을 멈춘 채로 연거푸 주먹을 내지르고 있었다. 묵직한 어둠을 타격할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으나 상대가 받는 충격은 그의 몇 배에 달했다.

아케인은 이를 악물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에텔라의 주먹은 위력도 대단하지만 충격의 성질이 독특했다. 표면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충격파를 발생시켰다. 문제는 충격파가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간섭 작용이었다.

‘파동 계열이다. 이건 위험한데.’

그아아아아아!

다크 골렘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순간 연타를 퍼붓던 에텔라의 눈이 빛났다. 한 걸음을 더 들어간 그녀가 손바닥으로 골렘의 명치를 강타하자 거대한 파문이 퍼지면서 대략 400회의 간섭작용이 발생했다. 이는 에텔라의 정권보다 무려 400배나 강한 충격파가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뜻이었다.

폭탄을 삼킨 듯 골렘이 들썩하더니 시커먼 육체가 울룩불룩 부풀었다. 조만간 터질 듯했다.

“크으으으으!”

아케인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정신을 지탱했다. 스피릿 존이 깨지면 다크 골렘이 붕괴하고 만다. 충격파와 씨름하던 골렘의 떨림이 잦아들자 에텔라는 입술을 짓깨물었다.

‘역시 부족했나? 조금 더 중첩시켰어야 했는데.’

음양파동권은 물결파를 이용하는 권법으로 상대의 몸에 파문을 중첩시킨 다음 강력한 파동을 밀어 넣어 폭사시킨다.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마지막 타격이 들어가면 충격량은 무시무시했다.

하지만 아케인은 버텨냈다. 다크 골렘이 받은 충격량은 스키마 권법가가 내지른 일격의 400배에 달했지만 대마법사인 아케인의 정신력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제법이구나, 꼬마야.”

“다음은 이 정도로 안 끝날 겁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시죠.”

“껄껄껄! 아직 여력이 남아 있단 거로군. 그거 참 다행이구나. 나도 오랜만에 제대로 몸을 풀겠어.”

아케인이 손을 들자 다크 스파이더들이 모조리 다크 골렘의 육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점차 커져가는 다크 골렘이 급기야는 하늘을 가린 수해의 천장을 뚫었다.

에텔라는 정신이 아찔했다. 지금 보이는 다크 골렘이야말로 아케인이 수많은 국가와 대립한 악명의 정체였다. 중소 규모의 도시 정도는 며칠 만에 끝장낼 수 있을 터였다.

“어때, 근사한가? 파동권인지 뭔지, 열심히 두들겨야 할 게야. 내 골렘의 심연은 바다보다 깊으니까 말일세.”

신장 10미터가 넘어가는 거대 골렘이라면 충격파가 퍼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다. 하지만 에텔라는 바스러질 정도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세상의 빛이 되리라. 기다리는 것이 죽음일지라도 나아가야 했다.

그아아아앙!

다크 골렘이 굉음을 내지르며 걸어왔다. 덩치가 커졌는데도 속도는 그대로였다.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어둠의 권속이 오버 파워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쿵!

다크 골렘의 주먹이 에텔라가 서 있는 곳을 내리찍었다. 지진파가 발생하면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수백 마리의 두더지가 땅 밑을 지나는 듯 지면이 갈아졌다.

쿵! 쿵! 쿵!

연거푸 주먹이 찍혔다. 충격파가 대지를 흔들면서 주위를 초토화시켰다. 여섯 번째로 주먹이 내리꽂히는 순간, 에텔라가 방향을 틀어 골렘의 팔뚝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어깨까지 달려가 두 팔을 교차하며 뛰어내렸다. 추락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권격이 골렘을 두드렸다.

드드드드드드드!

음양파동권의 오의인 천수관음 번뢰격이었다.

“크으으으!”

아케인의 뇌에서 쉬지 않고 스파크가 터졌다. 초당 30회가 넘어가는 충격이 밀려들고 있었다. 1초에 발생하는 파문의 개수를 대략 300개로 잡으면 착지까지 2초가 걸린다는 가정 하에 600개의 파문이 퍼질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대략 3,000회의 간섭 작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음양파동권의 진수는 마지막 타격인 장법에 있었다. 만약 거기까지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간섭, 굴절, 반사의 속성을 전부 고려한다면 2초 후에 발생하는 간섭의 횟수는 자그마치…….

‘6만 8천 회.’

에텔라의 일격보다 6만 8천 배나 증폭된 충격이 내부에서 폭발하게 된다. 아케인은 머리털이 곤두섰다. 하지만 감정과 다르게 입꼬리는 기괴하게 올라가 있었다.

“크크크! 이제야 돌아온 기분이 드는군.”

도망칠 생각은 없다. 적이 강하다면 그보다 더한 힘으로 짓눌러 버리면 그만이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그리워했던가. 수많은 천재들과 자웅을 겨루었던 과거의 영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아아아아아!

다크 골렘이 허리를 꽈배기처럼 뒤틀었다. 지상에 도착한 에텔라 또한 양손을 옆구리로 끌어당겼다. 천수관음 번뢰격의 마지막 식인 강뢰장의 기운이 손바닥으로 밀려들었다. 다크 골렘의 주먹이 회전을 머금으며 쳐들어오자 에텔라는 이를 앙다물고 두 손바닥을 쭉 내밀었다.

‘강뢰장!’

퍼어어어어어엉!

산맥의 중턱에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

반경 20미터의 나무들이 모조리 뽑혀 나가면서 울창했던 숲이 황무지로 변했다.

\* \* \*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에텔라는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별빛을 맞으며 눈을 깜박거렸다.

“…….”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니,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온 것일까.

그녀가 날아온 자리의 나무들이 모조리 부러져 있었다.

처참한 흔적의 마지막에 대자로 뻗어 있는 에텔라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근육이 의지와 상관없이 톡톡 튀었다. 손끝과 발끝에는 아예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스승님…….’

에텔라는 전투 불능 상태였다.

‘대마법사는 정말 강하네요.’

음양파동권의 오의로도 대마법사가 시전하는 어둠의 권속을 막아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앙에 가까운 마법이라는 건 이런 것인가?

악을 멸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조금 더 파동을 중첩시켰더라면, 천수관음의 오의를 완벽하게 통달했더라면, 강뢰장의 위력을 더욱 끌어올렸다면.

“흑. 흐윽…….”

에텔라는 부들거리는 팔을 들어 눈을 가렸다.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분합니다, 스승님.”

에텔라의 흐느낌이 산중에 울려 퍼졌다.

군상(1)

시로네와 카니스는 숲의 복잡한 지형 속에서도 서로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다. 격렬하기보다는 신중했고 화력전보다는 심리전의 성향이 짙었다. 빛과 암흑의 대비되는 속성상 미묘한 균형이 깨지면 전세는 순식간에 기울 수 있다. 누가 먼저 펀치를 날리느냐의 문제였다.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는 쪽은 카니스였다. 암흑 마법의 특성상 카운터를 노리고 있지만 시로네는 결코 틈을 내주지 않고 전술적인 움직임만으로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뇌파 교환을 통해 하비스트의 생각이 넘어왔다.

- 확실히 제법이군. 전투 상황에서 이 정도로 냉철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지.

- 속아 주는 셈 치고 붙어 볼까? 변수를 만들어야 해. 이대로 끌려다닐 수는 없어.

- 흐음. 거울 체스 같은 상황이군.

상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옮기는 전략은 중반까지는 전력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곧바로 빈틈을 찌르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선공을 내어준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다.

‘흔들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쪽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카니스는 선공을 잡는 게 유리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신 채널을 통해 뜻을 전달했다.

- 하비. 네 생각은 어때?

- 응? 아,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불리해질 거야. 적극적으로 나가자.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이 평소보다 늦자 카니스가 다크 포트로 거리를 벌리며 물었다.

- 무슨 일이야?

- 아니, 조금 전에 지진파가 느껴져서. 여기서 2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야.

진동을 느끼는 감각이 고도로 발달한 하비스트는 진동을 통해 보고, 듣고, 심지어는 맛까지도 분별할 수 있었다.

- 지진파?

- 지금도 계속 전달되고 있다. 이 정도 충격이라면 아케인 밖에 없어. 아마도 어둠의 권속을 시전한 거 같다.

- 스승님이? 하지만 어둠의 권속은 비장의 무기잖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지?

- 좋은 뜻과 나쁜 뜻이 있겠지. 좋은 뜻은 영감탱이의 상태가 지극히 쌩쌩하다는 것. 나쁜 뜻은 그럼에도 어둠의 권속을 시전할 만큼 강한 상대를 만났다는 것.

- 강한 상대라면…… 알페아스인가?

-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지. 아무튼 지금 움직여야 해. 아케인이 알페아스를 찾았다면 우리도 이곳을 정리해 두는 게 좋아.

- 알았어. 시작하자.

카니스는 간격을 좁히고 들어갔다. 예상을 깨고 시로네도 지지 않고 맞부딪혀왔다. 흐름의 변화를 즉각 캐치하여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가히 동물적인 피드백이었다.

카니스는 어둠의 권능을 시전했다. 그림자의 형태는 마법사 특유의 개성이 부여되고 카니스의 것은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양면 톱날이었다.

시로네가 포톤 캐논을 연사하자 풍파에 시달리는 바위처럼 어둠의 권능이 깎여나갔다. 확실히 빛은 어둠의 천적이었으나 카니스는 암흑 마법을 고수했다. 각 계열의 기본 마법은 전부 구사할 수 있지만 잔기술로 상대할 수준이 아니었다.

‘버티자. 이 정도 위력의 마법을 언제까지고 구사할 수는 없어. 버틸 수 있다면 반드시 흐름은 바뀐다.’

카니스의 예상대로 시로네의 정신적 피로도는 각일각 쌓여가고 있었다. 아무리 속성상 우위에 있더라도 암흑 마법의 수비력은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다.

‘더 강한 위력이 필요해.’

광자는 활동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로네는 손실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광자를 압축시켜 질량을 늘렸다. 정신력 소모가 심한 방법이지만 위력은 한층 강해졌고 백광의 구체가 어지러이 흔들리며 크기를 키워나갔다.

카니스는 즉각 변화를 감지했다.

- 뭐지?

- 위력이 세졌군. 내가 맡을게.

카니스의 앞을 가로막은 하비스트는 복부에 힘을 주는 자세를 취했다. 거대한 포톤 캐논이 배에 처박히자 양손을 덮쳐 광자를 짓눌렀다. 하지만 광자는 으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텅 소리를 내며 하비스트의 몸이 숲을 관통하고 날아갔다.

카니스의 얼굴이 황당하게 변했다.

- 하비. 괜찮아?

- 그럭저럭. 더럽게 묵직한데. 이거 살인 병기잖아.

시로네는 정수리 위에 포톤 캐논을 띄웠다. 이어서 양쪽 어깨 위에도 광자를 탄생시켰다. 도합 세 발의 포톤 캐논이 막대한 질량을 머금으며 흔들리자 하비스트가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듯 양 팔을 펴고 소리쳤다.

“키키키키! 간지럽군! 고작 이게 네 필살기냐?”

“아니. 지금까진 연습.”

“…….”

하비스트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초탄보다 두 배는 강력해진 포톤 캐논이 쏘아지자 섬광이 지나가는 자리의 거목들이 옆구리가 터져나갔다. 카니스의 정신 채널이 극한으로 빨라지면서 하비스트의 생각이 흘러들었다.

- 카니스. 이건 피하자.

- 한 번 피하기 시작하면 주도권을 뺏길 거야.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야.

- 못 막을 거 같아!

- 막을 수 있어. 내 정신력을 흡수해.

- 이런 제기랄! 진짜 골칫덩이야, 넌!

카니스의 정신력을 흡수하자 하비스트의 육체가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배가 열리면서 맹수의 아가리처럼 변한 그림자가 세 발의 광선을 향해 괴성을 내질렀다.

“크아아아아아!”

빛이 어둠을 강타했다.

\* \* \*

크레아스는 따듯한 남쪽 도시. 그리고 지금은 여름이었다. 하지만 건널 수 없는 다리의 정상에는 설원의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루키와 네이드는 옷깃을 여몄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시이나와 루카스의 모습이 흐릿했다.

“으. 엄청 추워. 어떻게 된 거야? 어째서 시이나 선생님이 마법을 시전한 거지?”

“정신이 돌아오신 게 아닐까?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각성했을 수도 있고.”

## [86] 군상(2)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이 마법은 뭐야? 선생님답지 않아. 이대로는 전부 얼어 죽는다고.”

네이드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 이곳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다. 기억을 잃은 그들이 영하 20도의 추위에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만큼 루카스를 압박하는 효과는 탁월했다. 체세포가 냉각되면 미토콘드리아 빌드의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길! 미치겠네!”

특히나 루카스가 있는 곳은 강풍까지 불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았다. 말초신경부터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수준급의 빙결 마법사들이 기본적으로 블리자드를 깔고 전투를 시작하는 이유였다. 살상력은 대단치 않지만 광범위 마법인데다가 냉각이라는 고정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대 검사 전에서는 필수였다.

“하여튼 짜증 나. 마법사들은.”

별의별 희한한 마법으로 검사들을 괴롭히는 마법사들에게 진저리가 나는 루카스였다. 하지만 포기할 때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상태가 정상인 것만은 아니었다.

날카로운 얼음의 창이 눈보라를 뚫고 날아오자 루카스는 황급히 몸을 날렸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빌드가 약화되는 바람에 온전히 피하지 못하고 옆구리를 스치고 말았다.

“빌어먹을!”

대부분의 생물체는 저온에서 활동성이 떨어지기 마련. 게다가 추위를 무릅쓰고 검을 휘두르는 바람에 손끝에는 벌써 홍반성 동상의 증상까지 생겼다.

‘기온이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정말 다 죽이려는 건가?’

스키마 유저가 동상에 걸릴 정도라면 학생들은 이미 얼어 죽었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루카스만이 블리자드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어느새 반경이 좁아진 눈보라가 그를 집중마크하며 따라붙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루카스는 눈보라를 가르고 등장한 시이나에게 이빨을 드러냈다.

“너 미쳤어? 언제까지 이 거지 같은 눈보라를…….”

루카스는 말을 멈췄다. 시이나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감정도, 생각도, 심지어는 자아도.

“설마…….”

루카스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마법을 기억하고 있다.

말 그대로 육뇌肉腦.

검사들이 끝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기술을 체득하듯 시이나 또한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도 특정 뇌파의 패턴을 구현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반복, 또 반복. 필경 태어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자신의 정신을 죽음으로 몰아붙였을 터.

‘이 여자, 대체 얼마나 수련을 한 거지?’

머리털이 곤두섰다. 실력을 떠나 그녀가 걸어온 수라의 길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젠장! 똥 밟은 정도가 아니잖아, 이건.’

이쯤에서 빠져야 한다. 아무리 금화가 좋아도 목숨 앞에서는 그저 금속쪼가리에 불과했다.

루카스는 남은 힘을 전부 끌어내 도망쳤다. 블리자드만 벗어나면 뒤쫓지는 못할 터였다. 하지만 생각은 망상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 공인 6급의 마법사에게 등을 보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시이나가 손가락을 들고 루카스를 가리키자 잠시 후 루카스가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파묻혔다.

“끄아아아아!”

고통은 없었다. 하지만 스키마의 인체도식에는 마치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두 다리가 사라져있었다. 루카스는 허리를 뒤틀어 다리를 살폈다. 딱딱하게 냉동되어버린 다리에는 조금의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 말도 안 돼.’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던 앱솔루트 제로(절대영도)였다.

빙결 마법 최고의 전지라고 할 수 있는 보존응축을 통해 입자의 활동성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마법이다.

시이나는 앱솔루트 제로의 영역을 깨달음으로써 불과 20살의 나이에 공인 6급 마법사에 올랐다.

하지만 그런 그녀조차도 국소적인 효과밖에 낼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마법이었다.

‘빌어먹을! 허접스러운 학교라더니…… 학생이고 선생이고 전부 괴물이잖아!’

시이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다음 마법을 캐스팅했다. 보존 응축의 전지에서 파생한 고등 마법 글레이셔 보밍(빙하 폭격)이었다. 하늘에 거대한 얼음덩어리 수십 개가 탄생하자 루카스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다리가 얼어서 피할 방법조차 없다. 그저 목숨을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는.

네이드와 이루키는 학생들에게 뛰어갔다. 광역 마법은 아니지만 빙하의 크기가 워낙에 커서 안심할 수 없었다. 각기 다른 지점에서 빙결되는 얼음덩어리가 무거운 질량만큼이나 천천히 서로를 밀어내자 아몬드 형태의 빙하 한 덩어리가 학생들 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아린에게 달려간 네이드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꺄악! 뭐하는 거야!”

“학생들을 대피시켜! 안 그러면 전부 죽어!”

“안 돼!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이루키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내가 할게!”

“어쩌려고?”

이루키는 대답할 여유조차 없이 이를 악물었다. 과연 가능할까? 자그마치 수십 톤이 넘어가는 빙하였다. 아토믹 봄으로 터뜨린다고 해도 수십 개로 쪼개진 파편이 문제였다. 빙하의 크기로 계산컨대 최소 1,000개 이상으로 쪼개지 않으면 사람 머리하나 박살이 나는 건 일도 아니었다.

‘해 보는 수밖에…….’

운동량은 수학으로 예측할 수 있다. 빙하를 쪼개고, 다시 쪼개고, 또다시 쪼개는 물리량을 전부 계산한다면 추락하기 전에 폭사시킬 수 있을 터였다.

“간다아아아!”

이탈형 스피릿 존이 빙하의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가용한계치의 기폭과정을 거쳐 아토믹 봄이 폭발하자 빙하가 들썩하더니 쩍 하고 갈라지면서 일곱 개의 덩어리로 분리되었다.

이루키는 더블 스피릿 존을 발동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아토믹 봄을 연사하여 빙하를 터뜨렸다.

퍼퍼퍼퍼퍼퍼퍼퍼펑!

얼음의 꽃이 만개했다. 빙하가 터지면서 파편으로 분리되고, 다시 그 파편이 폭발하면서 불꽃처럼 비산했다.

네이드와 아린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연쇄 폭발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후두두 쏟아지는 얼음 알갱이를 깨닫고 학생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우박처럼 자잘한 파편이 쏟아졌으나 다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아린의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렸다. 아케인은 언제나 마법학교 학생들을 폄하했다. 도전 정신도, 전투 의지도 없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 나약한 학생들. 하지만 그녀가 직접 겪은 마법학교 학생들의 수준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게 마법학교구나. 어라?’

아린은 고개를 돌렸다. 외간 남자의 가슴팍에 안겨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막무가내로 네이드를 밀치며 소리쳤다.

“저리 가! 뭐 하는 거야!”

엉덩방아를 찧은 네이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 내가 뭐! 기껏 도와줬더니!”

“네가 왜 날 도와줘! 우린 적이야!”

“누가 뭐래? 빨리 정신 지배나 풀어! 너 정말로 이 사람들 다 죽일 거야? 그러고도 네가 제정신이야?”

아린은 입술을 잘근 물었다. 오늘이 지나면 역사에 기록될 대학살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만 두렵지 않았다. 어차피 라둠에서 카니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비참함의 막장까지 떨어졌을 운명이었다.

“상관없어. 카니스를 위해서라면 세상 전부가 죽어도.”

네이드는 아린의 눈에 담긴 허무와 비소를 읽었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눈빛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영차.”

이루키는 눈밭에 쓰러진 시이나를 등에 업었다. 그리고 루카스를 돌아보았다. 과연 악인에게도 신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는 아슬아슬하게 몇 미터의 간격을 두고 빙하 사이에 처박혀 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악을 질렀는지 턱이 빠져 있었고 눈에는 흰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두 다리를 잃었으니 도적질도 불가능하다. 결국 탈옥 7일 만에 인페르노의 침침한 감옥으로 되돌아갈 팔자였다.

퍼엉!

숲에서 터진 굉음에 네이드와 이루키가 고개를 돌렸다. 굵직한 광선이 수해를 뚫고 치솟고 있었다.

“우와. 뭐가 저렇게 커?”

“포톤 캐논이다. 깨달음이 있었나본데?”

숲이 우수수 흔들리더니 시로네가 내뱉어지듯 튀어나왔다.

진창에서 빠져나온 듯한 몰골에 아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카니스가 승기를 잡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하비스트가 긴 팔로 좌우의 나무를 쓰러뜨리자 카니스가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다. 시로네의 상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몰골이었다.

이루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호각……인가?”

“말도 안 돼. 시로네의 포톤 캐논은 전투 중에 진화했잖아. 그런데도 이길 수 없다고?”

시로네가 땅을 짚고 일어서며 말했다.

“못 이기겠어.”

친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쩌면 시로네를 만난 이후로 처음 들어 본 말이 아닐까?

“뭐, 인마? 약한 소리 하지 마.”

“약한 소리가 아니야. 저 자식…… 진짜로 강해.”

시로네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대마법사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욱 납득이 갔겠지만, 모르더라도 마법 하나하나에서 그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지고 싶지 않다는 의지. 인간을 부숴 버리겠다는 의지. 자신이 최고라는 걸 증명하려는 의지.

포톤 캐논의 위력을 극대화시켰으나 카니스의 정신력을 빌린 하비스트는 그조차도 흡수시켰다.

이후부터는 난타전이었다. 어둠의 권능과 포톤 캐논의 교환으로 살을 깎는 소모전을 치렀다.

결국에는 카니스가 카운터를 성공시켜 시로네를 숲 밖으로 밀어낸 상황이었다.

‘저렇게 강하면서…… 어째서 사람들을 해치려는 거지?’

어떤 이유에서건 악을 선택했다면, 그럴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하지만 악이 강하다는 건 인정할 수 없었다. 강함이란 실수가 아닌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지? 학생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힘에서 밀리니까 입으로 터는 건가? 나약한 귀족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군.”

사실이 아니기에 시로네는 발끈하지 않았다.

“대답해. 네가 지금 하려는 짓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끔찍한 짓이야. 적어도 이유는 들어야겠어.”

“역사? 누가 그딴 걸 신경 쓰지? 버림받은 자들은 그저 하루를 살기 위해 버티는 거야.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궤변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은 없어. 누구에게나 참기 힘든 고통쯤은 하나씩 끌어안고 사는 법이라고.”

“너. 땅에 떨어진 배설물을 먹어 본 적 있냐?”

시로네는 입을 다물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카니스…….’

아린의 눈이 슬픔에 잠겼다. 라둠에서 살아 보지 않은 사람은 라둠이 어떤 곳인지 절대로 모른다.

그곳은 세상과 유리된 또 하나의 세계였다.

카니스와 아린은 그곳에 버려졌었다. 언제부터 함께였는지, 어째서 두 사람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정신이 들 때부터 그곳에 있었고, 다른 친구들이 죽거나 팔려 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살아남았다.

카니스는 어릴 때부터 영민했다. 비록 힘없는 어린아이였지만 재능과 독기가 만났을 때 인간이 얼마나 강해지는가를 몸소 보여주었다.

악당들로 득시글거리는 라둠에서 카니스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오늘 하루 아린을 지키는 것.

라둠에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영유아기를 지난 여자였다.

식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곳에서 힘없는 여아는 발생과 동시에 섭취당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린은 무려 열 살까지 라둠에서 생존했다.

라둠의 유일한 여성.

그 섬뜩한 상징을 지켜 낸 사람이 카니스였다.

그는 언제나 미친개처럼 짖어 댔다. 아린을 노리는 적이 나타나면 죽을 각오로 달려들었다.

아린을 데리고는 어떤 조직에도 몸담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루하루 쓰레기통을 뒤지며 연명했다.

정말로 웃긴 점은 라둠에는 쓰레기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이다. 남들이 버린 오물 찌꺼기를 얻기 위해 살이 찢어지는 것을 마다하고 싸웠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 끝에 카니스는 겨우 곰팡이가 핀 빵 반쪽을 얻어낼 수 있었다.

## [87] 군상(3)

아린이 3일째 굶고 있다. 또한 그녀가 3일을 굶은 대가로 카니스는 20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헉! 헉! 해냈다! 내가 차지했어! 빵을 얻었다고!’

카니스는 정신없이 골목길을 달렸다. 추격자를 따돌린 뒤에야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다.

의식이 흐려지고 느껴지는 건 공복감뿐이었다. 얼마나 굶었는지는 이제 기억나지도 않았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한 조각의 빵.

카니스는 광기에 물든 눈으로 침을 꿀꺽 삼켰다.

먹고 싶다. 이걸 입안에 넣고 싶다.

‘그래, 내가 힘을 내야 아린도 살지.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아린은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정말이지 대단한 발상 같았다.

이보다 더 합리적일 수가 있을까? 일단 이것을 먹고 남는 힘으로 다시 음식을 구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카니스는 턱을 벌리고 빵을 입에 가져다 댔다. 말라붙었던 침이 홍수처럼 새어 나오고 손이 벌벌 떨렸다.

“크윽!”

카니스는 눈을 질끈 감으며 빵을 품 안에 넣었다. 전부 거짓이었다. 이딴 빵 하나로 무슨 체력이 생기겠는가.

‘버텨야 돼. 몸이 망가지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정신이 무너지면 끝이야.’

카니스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주변을 살폈다. 돌이라도 위장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

누군가 골목 어귀에 갈겨 버린 대변을 향해 그는 기어갔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기도 전에 손을 뻗어 입안에 우겨 넣었다.

“우엑! 우엑!”

혀에서, 입에서, 위장에서, 몸 전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니스는 집어삼켰다.

돌보다는 낫다.

돌보다는 똥이 나았다.

한참이나 위장과 씨름한 카니스는 힘없는 걸음걸이로 은신처로 돌아왔다. 여전히 속이 역했지만 아린을 보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빵을 내밀었다.

“아린, 짜잔! 이거 구했다.”

“어, 진짜네? 우와, 대단하다.”

“하하, 요령을 알았거든. 앞으로는 더 많이 구할 수 있을 거야. 얼른 먹어.”

아린은 서글픈 눈으로 빵을 바라보았다. 함께 음식을 구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라둠에서 여자의 몸으로 밖에 나가는 건 자살행위였다.

카니스 이외에는 누구와도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덕분에 대인 기피증이 생겼지만 그게 대수겠는가? 적어도 그녀는 누군가의 음식물이 되어 위장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카니스도 같이 먹자.”

“나는 됐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었어. 아까는 커다란 지네가 있어서 영양 섭취 좀 했지. 너는 그런 거 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지.”

“나도 먹을 수 있다니까. 언제까지 아이 취급할 거야?”

카니스는 다정한 눈으로 아린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아린, 나도 알고 있어. 너는 용기 있는 아이니까.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지옥 같은 라둠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적어도 너만큼은 사람답게 먹일 수 있기 때문이야. 네가 나처럼 된다면 미쳐 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서 먹어.”

평소에도 수십 번씩 들었던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면 언제나 못 이기는 척 빵을 깨물던 아린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아린은 떨리는 눈동자로 카니스의 입가를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묻어 있었고, 냄새가 풍겼다.

“카니스, 너…… 뭐 먹었어?”

카니스는 전에 없이 당황했다.

“어? 아하하! 이거 케이크야. 크림이 떨어져서 핥아 먹었는데 묻었나 보네. 말 안 해서 미안. 너무 배고파서……!”

짝!

카니스의 얼굴이 매섭게 돌아갔다. 뒷골목 것들한테 수없이 맞았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따귀는 처음이었다.

“아, 아린…….”

아린은 카니스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쁜 새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가축이야? 날 사육하는 거야? 그래 놓고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뭔데!”

“아린,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나한테 내리는 벌이라고!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다 필요 없어! 이딴 거 필요 없단 말이야!”

아린은 빵을 집어 던져 버렸다. 먼지 위를 구르는 빵을 바라본 카니스가 화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린! 무슨 짓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구했……!”

아린이 카니스의 얼굴을 끌어당기며 입맞춤을 했다. 입술에 묻은 것을 핥아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달콤한 입맞춤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 교환도 아니었다. 그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 두 생물체가 서로를 동정하는 행위였다.

카니스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깨달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참아 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흐윽! 흐으으으윽!”

“다시는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네 곁에 있을 수 없어.”

“미안해, 아린. 떠나지 마. 너만이 내 가족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야.”

“그래. 살자, 카니스. 우리 반드시 살자.”

서러움이 북받친 카니스는 대답조차 못하고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린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날, 카니스가 바닥에 떨어진 빵 한 쪽을 전부 먹을 때까지.

카니스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읊조리듯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지옥에서 살았다. 하지만 스승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먹을 걸 주셨고, 아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암흑 마법의 진수인 하비스트까지 주셨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비스트에게 향했다. 평소에는 수다스러운 마도 생물체였지만 이번만큼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알겠어.”

시로네가 말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 남들보다 힘들게 살았다고 나쁜 짓이 옳은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나는 변호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다. 너희가 믿는 정의가 얼마나 얄팍한지, 너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나와 아린을 구원해 준 것은 네가 말하는 그 잘난 정의가 아니야. 나는 내가 믿는 것을 행하는 것뿐이야.”

“사람을 해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너의 과거도 결코 위로받을 수 없을 거야.”

“킥! 위로? 끝까지 멍청한 소리만 하는군. 지금 상황을 말해 줄까? 스승님은 이 학교를 통째로 없애 버리실 거야. 거기에는 네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 너는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어. 너 자신 외에는.”

시로네가 손 위에 광자를 띄우자 하비스트가 넓적한 손바닥을 펼쳐 카니스의 전방을 가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반대편 팔까지 뻗어 카니스를 감쌌다.

“뭐 하는 거야, 하비?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

“위험해. 기질이 이상하다.”

카니스는 콧방귀를 뀌었다. 숲에서의 일전으로 시로네의 실력은 이미 확인했다. 마법학교 학생치고는 괜찮은 재목이지만 그래봤자 온실 속의 화초에 불과했다.

“흥. 어차피 나에게는…….”

카니스의 표정이 멍해졌다. 손바닥 위에 떠 있는 포톤 캐논이 무서운 속도로 진동하고 있었다. 숲에서 시전했던 포톤 캐논보다 더욱 강화된 위력. 하지만 실력을 숨겼다고 보기에는 그의 부상 정도가 심각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능력이 있으면서…….’

카니스와 하비스트의 분석은 대체로 옳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시로네가 무한의 영역을 개방한 언로커라는 점이었다.

“마지막 기회야. 정신 지배를 풀어.”

카니스는 인상을 구겼다. 더 이상 시로네를 얕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웃기는 소리.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는 스승님의 뜻에 따른다. 내 신념을 꺾을 수는 없어.”

시로네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이모탈 펑션의 힘으로 강화된 포톤 캐논의 위력은 여태까지와 차원이 달랐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카니스가 학생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에게도 선택권은 없었다.

“모두의 기억을 돌려놔. 그러지 않으면…….”

포톤 캐논이 폭발하듯 빛을 발산하더니 시리도록 차가운 백광의 구체로 돌변했다.

“널 해칠 수밖에 없어.”

\* \* \*

알페아스의 머리에 광자화 마법을 걸고 있는 사드의 이마는 벌써부터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빌토르 아케인. 짜증 나는 인간이지만 그가 시전한 마법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후우. 이토록 강력한 정신 지배라니. 이거면 요즘 시대에도 먹히겠는데?’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 제아무리 대마법사의 칭호를 받았다고 해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마법은 몇 세대를 진화했고 암흑 마법은 도태되어 갔다.

하지만 어비스 노바는 첨단 마법의 수혜자인 사드로서도 분석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전지가 집약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20분이 지나자 비로소 빛의 기운이 암흑의 핵심으로 침투하는 게 느껴졌다. 그때부터 사드는 최고의 정신력으로 빛을 밀어 넣었다.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알페아스의 기억이 빛의 흐름을 따라 찬란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 \* \*

40년 전. 수도 바슈카.

토르미아 왕국에는 전에 없던 마법 열풍이 불었다. 12대 국왕 아돌프 12세는 무력을 숭상하던 선대와 달리 지성미가 넘치고 인자한 성품이었다.

국왕에 즉위한 그는 군사 항목에 국한되어 있던 마법부서를 독립시키고 수많은 인재를 끌어모았다.

지방은 물론 타국의 인재들까지 바슈카로 유학을 왔고 덕분에 수도의 거리는 매일같이 지성의 목소리가 넘쳤다.

마법학교를 졸업한 푸릇푸릇한 마법사들이 대낮부터 술집에 모여 토론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원색이 강조된 집시풍의 의상이 유행이었다.

여자들에게는 목선을 드러낼 만큼 짧은 머리가 지성의 상징이었다. 반면에 남자들의 머리는 허리까지 길었다.

주점에서는 학문적인 충돌로 파벌이 생겼으며 되지도 않는 주먹싸움을 치르다가 경비에게 끌려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했다.

바슈카에서 가장 유명한 주점이라면 토속풍의 술집인 ‘고대 신들의 고향’이 있었다.

거대한 홀에 200개나 넘어가는 테이블. 중앙의 연설대에는 수시로 사람들이 올라가 마법적 견해를 설파하곤 했다.

온갖 소리가 모여들었고 떠드는 주제도 다양했다.

마법논쟁이 주를 이뤘지만 귀족들 사이에서 떠도는 가십도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고대 신들의 고향이었다.

낭만의 시대였다.

알페아스는 황금빛 젊은 날을 그렇게 추억하고 있었다.

“어머, 얘들아! 왔어, 왔어! 알페아스 님이 오신다고!”

한 여성이 술집 입구에서 호들갑을 떨자 테이블 쪽의 여자들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며 문 쪽을 돌아보았다.

“안녕, 아가씨들! 오늘도 여기는 시끌벅적하네!”

금발을 허리까지 기른 미청년, 알페아스가 고대 신들의 고향에 들어왔다. 옆에는 유행과 동떨어진 반삭의 머리를 한 청년이 동행했다. 리안의 할아버지 오젠트 클럼프였다.

검사인 클럼프가 투명 마법을 시전했을 리는 없지만 여자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알페아스에게 달라붙었다.

“기다렸어요, 알페아스 님! 오늘은 어떤 마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일단 목부터 축여야지. 내 혀는 술에 젖지 않으면 금방 굳어버리거든.”

“깔깔깔! 아이 웃겨. 알페아스 님은 정말 재밌어요.”

지금의 제자들이 들으면 썰렁하겠다고 야유하겠지만 당시의 알페아스는 무슨 말을 해도 통하는 인기인이었다.

제1계급 가문의 자제인 데다 마법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 거기에 잘생긴 외모와 세련미까지 갖추었으니 세상에 그를 싫어할 여자는 없지 않았을까?

반면에 남자들은 알페아스를 아니꼽게 쳐다보았다. 남을 질투할 만큼 속 좁은 인간이 아닌 사람조차 알페아스를 평할 때는 시선이 곱지 않았으니, 그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공분을 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미르히 가문의 빛.

당시에 알페아스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칭호였으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별명은 따로 있었다.

오만한 알페아스.

## [88] 군상(4)

마법 세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페아스가 신에게 선택받은 인간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재능을 발산한다는 데 있었다.

일단 논쟁이 붙으면 끝장을 봤고 상대가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르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인정을 끌어냈다.

알페아스의 행동에 악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작해야 클럼프 정도였다. 오만하다기보다는 순수하다. 열정이 과해서 사람들이 질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알페아스는 자신이 실수했을 경우 뒤끝 없이 인정하고 상대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이었다.

다만 문제는, 그럴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알페아스는 맥주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지루한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렸다. 클럼프는 그가 또 다시 사고를 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지만 이제 말릴 기운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사로프! 대낮부터 한 잔 걸치러 온 거야?”

알페아스가 쌍수를 들고 반기는 사로프는 수도 토박이로, 알페아스의 몇 안 되는 라이벌이었다. 매번 논쟁에서 지지만 알페아스만 아니라면 광자 계열의 최고 유망주는 그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연히 사로프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으나 알페아스는 개의치 않고 다가갔다.

“아, 맞다. 사로프, 이번에 왕성에 논문을 제출했더라? 잠깐 읽어 봤는데 아주 흥미롭던데?”

“뭐? 네가 내 논문을 왜 봐?”

“당연한 거 아냐? 나도 전공이 광자 계열이고, 왕실 사서는 내 열렬한 추종자니까. 아무튼 잘 봤어.”

“그, 그래? 어떻던가?”

당시의 젊은 마법사들 사이에서 최고로 치는 건 논문을 인정받아 용뢰 예하의 마법부서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일단 논문이 채택되면 개인 연구실은 물론 연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대 주기 때문에 마법사로서는 이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었다.

인생을 건 필생의 역작을 일주일 전에 제출한 사로프였으니 라이벌인 알페아스의 의견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빛의 특성을 잘 짚었더군. 흠잡을 데가 없었어. 에너지 집적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한 방 먹은 기분이었고.”

사로프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다. 하지만 알페아스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오류가 있더군. 빛의 파동성 말이야. 그건 명백히 말해 틀린 학설이지.”

“무슨 소리야? 빛이 파동이라는 건 이미 실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네.”

“그렇긴 하지만 나는 견해가 달라. 최근의 실험 결과를 보면 파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 어쩌면 빛은 입자에 가까울 수도 있어.”

“흥! 알페아스,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가십까지 들먹이나? 수많은 비평가들이 입자성 실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짚어 냈어!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파동은 어찌 설명할 텐가?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는 알페아스가 살았던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파동이라는 학설이 대세이기는 했지만 소수의 학자들은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었고, 알페아스 또한 그런 사람들 중의 1명이었다.

“자네야말로 비평가들의 말을 믿나? 나도 입자성 실험 과정의 오류를 찾아냈다는 자료를 봤어. 하지만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잖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오류가 아닐까?”

술이 오른 사로프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 안 그래도 논문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알페아스가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됐네! 누가 자네더러 내 논문 평가해 달라고 했나? 자네야말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어디 써서 내 보시지! 그 엉터리 같은 논리로 세상이나 실컷 웃겨 보란 말일세!”

“나는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설령 지금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더 보강하면 되지 않는가? 중요한 건 논문이 아니라 사실을 깨닫는 것 아니겠어?”

사로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너 이번에 떨어졌다.’가 아닌가?

“꺼져! 앞으로 자네하고는 말조차 섞지 않을 테니!”

알페아스는 입맛을 다시며 테이블로 돌아왔다. 전공이 같은 라이벌과의 논쟁은 서로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히 불쾌한 표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클럼프는 그런 알페아스가 걱정스러웠다.

처음 만난 건 바슈카의 여관에서였다. 클럼프 또한 크레아스에서 상경했기에 유학파들끼리 의기투합했고, 그렇게 함께 다닌 지가 어언 1년이었다.

솔직히 말해 재수가 없기는 했다. 검사인 자신이 봐도 그런데 경쟁자인 마법사들은 오죽하겠는가?

“알페아스, 너 무슨 쌈닭이냐? 남들이 못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왜 꼭 나서서 고치려 들어?”

“남이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지. 그게 바로 지성이라고.”

“나 참.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 오만한 알페아스란다. 그게 요즘 네 별명이라고.”

“하하하! 그거 좋은데? 미르히의 빛 같은 닭살 돋는 별명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

마법은 재능의 영역이고 알페아스는 차고 넘칠 만큼의 재능을 부여받았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재능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겸손은 가식일 뿐이었다.

“이런 것도 천재의 숙명이지. 자, 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술이나 마시자고. 어이, 라프네. 안주 좀 팍팍 신경 써. 이 친구는 곰보다 더 많이 먹거든.”

“호호호! 알페아스 님이 원하신다면야 얼마든지 드려야죠!”

술집 종업원 라프네의 눈에 사랑이 듬뿍 담겼다. 하는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이 여자 또한 알페아스에게 푹 빠진 모양이었다. 모든 여자를 연인처럼 대하는 알페아스의 태도에 클럼프는 골이 지끈거렸다.

그렇다고 무슨 찐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자들을 휘어잡고 있는 바람에 기회를 놓친 남성들도 부지기수였다. 굳이 마법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곳의 남자들에게 알페아스는 공공의 적인 셈이었다.

“이제는 라프네 씨까지? 차라리 제대로 된 연애를 해라. 도대체 넌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후후, 알다시피 내가 만인의 연인이잖아. 그리고 딱히 작업을 거는 것도 아니야. 다 내 살인 미소에 녹는 거지.”

알페아스가 턱을 만지며 싱긋 웃어 보였다. 확실히 여자들이 미치도록 좋아할 외모였다.

정말로 저렇게 웃으면 효과가 있을까? 여자 쪽하고는 영 인연이 없는 클럼프는 실험 삼아 입꼬리를 올려 보았다.

“어때? 이렇게 하면 나도 살인 미소가 나오나?”

“오, 그래! 진짜 살인 미소인데? 살인자 미소. 푸하하하!”

“너 죽을래?”

“하하하! 장난이야. 사실 제법 근사했어. 이따가 파티에서 그 미소 꼭 장착하라고. 여자들이 뿅 하고 반할 테니까.”

“파티? 그거 꼭 나도 가야 되나? 나는 마법사도 아니잖아.”

오늘 저녁 바스타드 가문에서 젊은 마법사들의 밤이라는 주제로 파티를 연다. 마법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가문이지만 당시에는 별의별 명목으로 파티를 여는 게 귀족들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 중의 하나였다.

“마법사만 오라는 법 있나? 사회 각층에서 다 모일 테니까 너도 인맥 좀 만들어 둬. 실력도 실력이지만 연줄도 중요한 법이야.”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좀 웃긴데.”

“어쩌겠어. 일단 높이 올라가야 뜻도 펼치는 거지. 아무튼 무조건 따라오라고. 혹시 알아, 거기서 네 반쪽을 찾게 될지?”

검에 대한 의욕으로 충만한 클럼프는 인맥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말에는 혹할 수밖에 없었다.

알페아스의 말대로 누가 알겠는가? 지방에서 올라온 촌뜨기 검사가 세련된 도시 처녀와 사랑에 빠질지.

갑자기 감기가 왔는지 클럼프가 연신 헛기침을 해 댔다.

“흠흠! 그럼 어디 구경이나 해 볼까?”

\* \* \*

수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의 하나인 바스타드의 저택은 어떤 귀족의 건물이라도 왕성보다 사치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법의 경계선에 걸친 듯 화려하고 휘황찬란했다.

300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홀의 천장을 수놓고 있었고 대리석에 금박 장식이 달린 테이블에는 세계 각지에서 공수한 산해진미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악사들의 연주에 맞추어 귀족들은 파트너와 춤을 췄고 한편에서는 나이 지긋한 정치가들이 와인을 곁들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젠트 클럼프라고 합니다. 혼자 오셨나요?”

“꺄악!”

클럼프를 보자마자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소도둑처럼 생긴 남자가 변태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살인자의 미소였다. 클럼프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고 알페아스가 폭소를 터뜨리며 다가와 등을 두들겼다.

“푸하하하! 하란다고 진짜로 하냐? 아이고, 배야.”

“젠장! 네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그나저나 너는 어디에 있다가 지금 오는 거야?”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하도 말을 걸어서 말이야. 저쪽에서 말동무 좀 해주고 왔지.”

클럼프는 알페아스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세련미가 넘치는 도시 여성들이 알페아스를 흘끔거리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빌어먹을. 내 앞쪽보다 네 뒤쪽이 더 잘생겼나 보다. 전부 너만 보고 있잖아.”

“하하! 신경 꺼.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일단 왔으니 배 터지게 먹자고.”

지방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진미들이 많았기에 클럼프도 벼르고 있던 차였다. 기왕 외톨이가 된 거 여자들 눈치 안 보고 실컷 배나 채워야겠다고 생각하며 테이블로 향하자 알페아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단순하지만 긍정적인 이 친구가 좋았다.

클럼프가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우는 동안 알페아스는 5분 간격으로 찾아오는 귀족들을 상대하느라 진땀을 뺐다. 특히나 바스타드 가문의 가주까지 친히 왕래했을 때는 모든 귀족들이 알페아스를 바라보았다.

“반갑네. 자네가 요즘 뜨고 있다는 신성, 알페아스로구먼.”

“알아봐 주셔서 영광입니다. 멋진 파티군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껄껄! 젊은 지성들과 사귀는 건 내 기쁨이지. 앞으로도 자주 보세네.”

“네. 불러만 주신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재밌게 즐기게.”

대화는 짧았지만 바스타드 가문의 수장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마법사와 두 마디 이상을 나누었다는 건 굉장한 호감의 표시였다.

만족스럽게 돌아선 알페아스는 입안에 미친 듯이 고기를 우겨 넣는 클럼프를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주체할 수 없는 혈기를 음식으로 푸는 게 분명했다.

“네놈의 턱은 지치지도 않냐? 그렇게 먹은 게 다 어디로 가는 거야?”

클럼프는 고기를 우물거리며 이두박근을 가리켰다. 알페아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다. 수많은 여성들의 시선이 느껴졌으나 그에게는 지루할 뿐이었다. 입술을 푸르르 떨며 재밌는 일이 없나 살펴보는데 홀의 건너편에서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는 여성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응?”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마법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집시풍의 의복이 아닌 간소한 드레스였고, 무엇보다 지성의 상징인 짧은 머리를 거부하고 흑발을 허리까지 드리우고 있었다. 한 손에는 접시를, 한 손에는 포크를 들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격식과 품위를 중시하는 이곳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어라? 저 사람. 가주의 장녀잖아?”

클럼프의 말에 흥미가 동한 알페아스는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고개만 살짝 돌리며 물었다.

“가주의 장녀?”

“넌 그런 것도 모르고 파티에 온 거냐? 하여튼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놈이라니까.”

“몰라. 됐으니까 설명이나 해봐.”

“이름은 바스타드 에리나. 올해 나이 19세. 바스타드 가문의 유일한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지.”

“골칫거리? 하하, 성격이 왈가닥이라서?”

“아니. 지능이 좀 떨어져.”

알페아스는 그제야 클럼프를 돌아보았다.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바슈카에서 만난 이 곰 같은 친구는 악질적인 농담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으니까.

## [89] 군상(5)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다더군. 그래서 지적 연령이 10살 정도야. 방에서도 못 나가게 한다는데 어떻게 파티에 온 거지?”

알페아스는 복잡한 심정으로 에리나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타인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청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무도회의 자리가 흔히 그렇듯 그녀 또한 파트너를 찾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누구하나 그녀에게 선의의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어색한 표정으로 한 차례 인사만을 하고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그마저도 바스타드 가문의 권세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알페아스는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가주를 흘끔거렸다. 예상대로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로 분을 삭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소리쳤다.

“내가 에리나 데려오지 말라고 했지? 당장 끌어내!”

“여보, 참아요. 에리나도 파티를 좋아하잖아요. 괜히 끌어내려다 소란이라도 부리면 낭패예요. 내버려 두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데려갈게요.”

“에잉! 낯부끄러워서. 우리 가문의 수치야, 수치!”

알페아스는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에게 수치라니. 물론 제1계급 귀족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 알페아스 또한 제1계급 가문에서 태어나 미르히의 빛이라는 소름 돋는 별칭까지 얻은 마당이었으니까.

‘딱 우리 집 꼰대를 보는 것 같네. 하여튼 귀족들이란.’

알페아스는 음악이 세 번 바뀔 때까지 에리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녀는 순수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는 듯했다.

하지만 마법사들이 어떤 인간인가? 무지를 악으로 치부하는 거만한 종자들이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돌아서서는 덜 떨어진 에리나를 조롱하는 게 눈에 보였다.

“클럼프. 잠깐 들고 있어 봐. 아니, 너 마셔.”

잔을 넘긴 알페아스가 무도회장으로 몸을 돌리자 클럼프가 황급히 불러 세웠다.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자리에서는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덜떨어진 것들이 문자 좀 배웠다고 아가씨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잖아. 바슈카 최고의 인기인인 내가 나서서 그녀의 위상을 좀 세워 줘야겠어.”

클럼프의 곰 같은 괴력이 알페아스를 돌려세웠다.

“알페아스. 너, 그거 나쁜 짓이야. 에리나 씨에게 동정은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저 사람들만으로 충분해. 더 이상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

클럼프는 진심이었다. 평소의 꺼벙한 눈은 사라지고 정의로움에 불타는 안광을 내뿜고 있었다. 알페아스는 미소를 지으며 클럼프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여튼 단순하다니까.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봐? 지금까지 나는 어떤 여자도 거짓으로 대한 적이 없다고. 모든 죄악은 차별에서 생긴다. 이런 말 몰라? 배려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인생은 철창에 갇힌 새가 되는 거야.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 둬.”

“너 진심이냐? 정말로 할 거야? 어이, 이봐!”

무도회장을 횡단하던 알페아스가 클럼프를 돌아보며 자타가 공인하는 살인 미소를 지어보였다.

“걱정하지 마. 난 만인의 연인이니까.”

알페아스가 도착했을 때 에리나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알게 모르게 전부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일상인 모양인지 우울한 기색조차 없이 사과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무도회군요.”

에리나가 사과를 우물거리다 말고 알페아스를 돌아보며 눈을 깜박거렸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 눈빛만 봐도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순수했다.

너무나 순수해서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투영하는 기분이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안녕하세요! 에리나예요!”

에리나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았을 때하고는 확실히 반응이 달랐다.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하긴. 먼저 말을 걸어 주는 사람은 처음일 테니.’

알페아스는 정중히 허리를 숙이고 인사했다.

“마법사 미르히 알페아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는 바람에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무도회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에리나는 멍하니 턱을 벌렸다. 사과 조각 하나가 입안에서 굴러 떨어졌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뭔 일이더냐?’하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갑자기 에리나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몸을 돌려 알페아스를 지나쳐버렸다.

알페아스는 황당했다. 시쳇말로 ‘까였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너무 정상인의 기준으로 다가갔던 것일까? 정신을 차린 그는 황급히 몸을 날려 에리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자,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미안해요. 에리나 씨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에리나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저 땅만 바라보며 탈출로를 찾기 위해 발을 구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페아스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빠져나가려는 길목마다 가로막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알았어요. 춤추는 게 싫으면 우리 이야기하죠. 대화를 나누자고요.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혹시 별자리에 관심 있어요?”

“저 갈래요. 방에 들어갈래요. 엄마한테 혼나요.”

“엄마한테 왜 혼나요? 아무도 당신을 혼내지 않아요. 당신은 파티에 왔고, 이렇게 제가 파트너 신청을 하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말 걸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방에 들어갈래요.”

알페아스는 답답했다. 아니, 초조했다. 수많은 여자의 마음을 얻어냈던 기술은 사라지고 그저 에리나와 한 번만 더 눈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 내 얼굴을 봐요. 이게 어떻게 나쁜 사람의 얼굴이에요?”

알페아스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동시에 에리나가 경기를 일으키며 비명을 내질렀다.

“꺄아악! 싫어!”

장내의 모든 귀족들이 에리나를 돌아보았다. 누가 보더라도 알페아스가 험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광경이었다.

“엄마! 도와줘! 엄마!”

“에리나! 날 봐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

초청 받은 마법사 중에는 알페아스의 라이벌 사로프도 있었다. 알페아스의 황당한 짓거리를 구경하던 그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또라이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바슈카 여자들 다 휘어잡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능아한테까지 집적거려? 출세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군.”

대부분의 귀족들이 같은 생각이었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바스타드 가문의 장녀였다. 그녀를 꼬드긴다면 장래는 탄탄대로나 마찬가지였다.

유일하게 알페아스의 진심을 아는 사람은 클럼프뿐이었지만 일이 이 지경이 되자 그도 손을 놔 버렸다.

‘에라, 정신병자 같은 놈. 네가 싼 똥이니 네가 치워라.’

에리나는 발작에 가까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온정신인 사람이라면 가족들 앞에서 그만 놓아주겠지만 알페아스는 악착같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에리나, 잠깐만요. 나를 봐요. 나를 보라고요.”

“엄마! 무서워, 엄마!”

“에리나!”

알페아스가 고함을 치자 에리나의 움직임이 흠칫 멈췄다. 하지만 전보다도 훨씬 두려운 떨림이 전해져왔다.

“제발 한 번만 내 얼굴을 봐 줘요. 이렇게 부탁할 게요.”

에리나는 공포에 잠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불타는 알페아스의 눈동자가 보였다. 뜨거운 기운이 빨려들어 그녀의 심장마저 뜨겁게 달구는 듯했다.

“자,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전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게요. 하지만 파티잖아요. 춤추고 싶지 않아요?”

에리나의 표정에 숨길 수 없는 설렘이 깃들었다. 크리스털에 깨지는 빛의 입자, 악사의 음악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며 떠드는 소리들. 그녀는 단지 다른 사람들처럼 웃고 싶었을 뿐이었다.

“에리나 씨.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오늘 밤 제 파트너가 되어 주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들을 생각도 없었다. 에리나의 손을 잡은 알페아스는 홀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처럼 아장아장 다가왔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겼다.

눈치 빠른 악사들이 연주를 재개하자 알페아스는 에리나를 리드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귀족들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심지어는 에리나의 부모까지도 할 말을 잃고 바라보았다.

알페아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에리나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악에 몸을 맡겼다. 품위하고는 거리가 먼 춤사위였다. 하지만 본능적이고 열정적이었다. 팽이처럼 돌다가 중심을 잃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럴수록 에리나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렇게 10분이 지났을 무렵 에리나는 처음으로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 \* \*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파티에서 거의 깽판을 치다시피 하다가 도망치듯 빠져나온 알페아스와 에리나는 정신없이 숲을 내달렸다.

동산의 끝에 오른 알페아스는 혀를 빼물고 숨을 몰아쉬었다. 굴욕적이게도 에리나는 그다지 지친 기색이 아니었다. 여자보다 체력이 약하다니. 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무진장 쏟아질 것 같은 밤이었다.

에리나는 의외로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다. 하지만 말이 많기로는 바슈카에서 소문난 알페아스가 아니던가? 분위기가 식을 틈이 없을 정도로 쉬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에리나가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어떤 주제를 꺼내도 그녀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가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을 때면 알페아스는 더욱 신이 나서 폭포수처럼 말을 털어놓았다.

결국에는 이야기가 근래 고민하는 광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사로프는 파동으로 정의했지만 알페아스는 틀렸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자성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다. 그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부였다.

“참 희한하죠? 빛은 정말 이상한 성질이에요. 간섭 실험에서는 파동성이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알페아스는 자신의 이야기에 너무 심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을 멈췄다. 정신없이 떠들다 보니 듣고 있는 사람이 에리나라는 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다. 그녀는 잔디에 쪼그려 앉아 동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하하! 너무 떠들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 것도 처음인 거 같아요. 보통은 질리기 마련인데.”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에리나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다. 그리고 알페아스는 마치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은 사람처럼 눈을 깜박였다.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도대체 나는 이 여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미지의 세계였다.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여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알페아스는 외면했다. 마치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사람처럼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하하! 부끄러운 얘기지만 명색이 마법사인지라 논문을 써야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에리나 씨의 생각은 어때요? 빛은 파동일까요, 입자일까요?”

에리나는 알페아스의 태도에 서운해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 [90] 군상(6)

“빛은 아름다움이에요.”

“네? 뭐라고요?”

알페아스가 되물었다. 광자학을 모르는 건 당연했지만 이런 식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빛은 아름다워요. 꽃도 아름답고요. 우리도 아름다워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빛은…… 아름답게 들리지 않아요.”

알페아스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언어로 주물이 불가능한 순수한 사념의 형태의 직격이었다.

“그, 그렇군요. 하지만 어째서 빛이 아름다울까요?”

알페아스에게 빛은 그저 광자였다. 하지만 에리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빛은 어둠을 보여 주거든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밤하늘을 보죠?”

세상이 고요해졌다. 마치 우주처럼.

알페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로 원하던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어째서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 했을까.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이토록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아름답기 때문에.

그 어떤 모순도 모순이 아니게 된다.

“아름다움이군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에리나 씨.”

에리나가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미소를 본 순간 알페아스는 결심했다.

오늘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기로.

알페아스는 에리나에게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가장 정중한 몸짓으로 오른손을 내밀었다.

“저의 빛이 되어 주세요.”

40년 전의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의 고백은 알페아스에게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기억이었다. 어비스 노바의 장막이 걷혀가는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걸렸다.

역전된 주종(1)

카니스는 시로네의 손바닥 위에서 타오르는 백색 광채를 노려보았다. 가히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물론 그는 거리낌 없이 죽음을 향해 치달을 수 있는 호전성이 있었다. 다만 죽더라도 본전은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 하비. 나는 싸우자는 쪽이다. 붙어보자.

- 저 마법. 얼마나 빠를까? 피할 수 없을지도 몰라.

- 네가 막으면 되잖아.

- 막을 수 없으면 네가 죽는다. 네가 죽으면 나도 소멸하지. 결국은 싸워야겠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

생각의 속도로 의견을 교환하는 건 전투에서 엄청난 메리트였다. 하지만 의견이 극과 극으로 나뉠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단점도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대치의 분위기를 깬 건 예상치 못한 목소리였다. 절벽에서 그림자가 물처럼 밀려들더니 앙상한 몰골의 노인이 어둠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마법사 아케인이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아케인의 인상이 구겨졌다. 에텔라에게 전력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의 상황이 이미 정리되었을 것이란 확신 때문이었다.

아케인은 카니스를 믿고 있었다. 아니, 장확히는 카니스에게 종속되어 있는 하비스트를 믿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상황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루카스는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있고 카니스와 하비스트는 애송이 1명에게 겁박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아케인은 아량이 넓은 성격이 아니었다. 카니스의 사과를 무시하고 차갑게 돌아선 그는 시로네를 노려보았다.

‘낯이 익다 했더니.’

알페아스와 닮았다. 얼굴이나 외형보다는 전체에서 느껴지는 기질이 비슷했다. 대마법사의 시선을 받고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패기도 마찬가지였다.

“당신이 이번 일을 계획한 거야?”

“어린것이 건방지구나. 이름이 뭐냐?”

“살인자에게 이름 따위 말하고 싶지 않아. 당장 정신 지배를 풀고 학교를 떠나.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허허허.”

아케인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누군가를 죽이는 기준은 분노가 아니라 얼마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가였다. 그런 의미에서 시로네는 당장 목을 따 버려도 좋은 잘 익은 과일이었다.

“미안하지만 정신 지배는 풀어 줄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알페아스의 제자들은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살기를 느낀 시로네는 전신에 소름이 돋는 느낌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포톤 캐논을 쏘고 말았다.

명백한 오발탄이었다.

아케인은 가볍게 몸을 틀어 포톤 캐논을 회피했다. 그리고 마법이 소멸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야 돌아섰다.

“스피릿 존의 반경 52.7미터. 제법이구나. 나이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설령 광자라도 질량이 담긴 이상 속도는 물리계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다. 하지만 광자 출력의 기본적인 속도가 있으니 어지간한 비행물체보다는 훨씬 빨랐다. 찰나의 순간 포톤 캐논을 회피하고 스피릿 존의 반경까지 측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각이 아니었다.

시로네는 이를 악물고 다시 광자를 압축시켰다. 역량을 파악할 수 없는 고수를 만났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절벽 아래로 자유 낙하하는 것을 막으려면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만두세요, 시로네.”

산속에서 에텔라가 걸어 나왔다. 옷이 찢어져서 맨살이 드러나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투성이였다.

“섣불리 덤비지 마세요. 아케인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아케인의 미간이 구겨졌다. 그녀와의 전투는 즐거웠지만 이미 밟아서 더러워진 음식은 기억에서 지운 지 오래였다.

“패배자가 낯짝도 두껍구나. 목숨을 건졌으면 소중히 아껴야 할 것을.”

시로네 일행은 충격을 받았다. 설마 에텔라 선생님이 뼈밖에 남지 않은 노인에게 패했다는 말인가? 카르시스 수도회의 비숍. 스피릿 존의 권위자인 조너. 공인 6급의 마법사. 그녀를 수식하는 칭호는 어느 하나 허투루 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말도 안 돼. 에텔라 선생님이…….”

네이드는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품었다. 물론 세상에는 5급도 4급도 있겠지만 에텔라보다 강하다는 게 대체 어떤 경지인지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시로네가 에텔라를 부축하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그럭저럭. 하지만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죠?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빌토르 아케인. 40년 전 비공인 3급에 오른 대마법사야.”

시로네 일행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법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비공인 3급이 어떤 위치인지 알고 있다.

마법사의 급수는 10단계로 분류되지만 진급을 위해 쌓아야하는 명예와 업적 포인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이 뛰는 특정구간이 존재한다.

바로 7급에서 6급, 4급에서 3급이었다.

6급이 마법사회의 간부급이라면 3급은 왕국의 핵심 시설의 수장을 맡을 수 있는 직위였다. 공인 4급의 마법사인 알페아스조차 사립학교의 교장인 것을 생각하면 아케인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오른 마법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케인은 교장 선생님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구나. 제자에게 하소연해 봤자 너만 더 비참해질 뿐이다.”

“승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교사니까요.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전력으로 덤벼도 이기지 못한 나를 이제 와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허세가 지나치군요. 아케인.”

아케인의 인상이 무섭게 변했다.

“분명 저는 당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전투에 치중할 정신력은 남아 있지 않을 텐데요?”

에텔라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실제로 어둠의 권속을 시전한 아케인의 마법력은 정상적인 상태의 1할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마법사의 1할이었다. 녹초가 된 에텔라와 솜털이 보송한 애송이들을 쓸어 내기에는 충분한 힘이었다.

“시대가 변하기는 했구나. 귀여워서 오냐오냐해 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주둥아리를 나불거려?”

아케인은 마법력을 끌어 올렸다. 알페아스를 죽이기 위해 남겨 둔 1할이지만 상관없었다. 골치 아픈 계산 같은 건 그의 인생관과 어울리지 않았다.

“스승님,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카니스가 끼어들었다. 어비스 노바는 평범한 마법사는 시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막대한 정신력을 소모하는 거대 마법이다. 그런 마법을 시전한 데다 전투까지 치렀다면 아무리 스승님이라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터였다.

아케인은 언짢게 카니스를 돌아보았다. 설령 제자라도 권위에 도전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흥미로운 표정으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어이, 애송아. 너 또한 알페아스의 제자렷다?”

“살인자 주제에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크크큭! 그러하냐? 꽤나 존경하는가 보구나.”

시로네는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알페아스는 마법에 눈을 뜨게 해준 장본인이자 평민인 그를 마법학교에 입학시켜 준 은인이었다.

“당신이 대마법사든 3급이든 상관없어. 교장 선생님에 비하면 당신은 마법사도 아니야.”

“푸하하하! 푸하하하하!”

아케인은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알페아스. 얼마나 가식을 떨며 살아온 거냐?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자격 따위 너에게 없다는 것을.’

결정을 내린 아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제자들의 싸움을 보는 것도 즐겁겠지. 카니스. 놈과 겨루어 봐라.”

“네. 감사합니다, 스승님.”

카니스는 비로소 안도했다. 여태까지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하비스트의 생각은 달랐다.

- 카니스. 다시 생각해라. 아케인에게 맡기는 게 나아.

-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스승님을 실망시켰어. 이제는 죽더라도 시로네를 이겨야 해.

당장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

- 하비스트. 대답해. 아무리 너라도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우리는 무조건 싸우는 거야.

하비스트는 끝까지 대답이 없었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아케인이 지켜보고 있는 이상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다크 포트를 이용해 시로네가 있는 자리까지 순식간에 이동하자 시로네는 순간 이동을 시전해 절벽 밖으로 날아올랐다. 가급적 학생들에게 여파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흥! 공중전을 하자는 건가?”

어둠이 깔린 밤하늘이라면 다크 포트로 움직이는 카니스에게도 불리한 필드가 아니었다.

1,000미터의 낭떠러지 위에서 두 사람은 매 싸움을 연상시키는 비행을 펼치며 각자의 화력을 퍼부었다.

시로네는 전면에 7개의 광자를 응집시켜 한꺼번에 쏘아 댔다. 무한의 영역에서 발동하는 포톤 캐논은 전보다 몇 배나 강한 위력을 냈으나 그런 만큼 반발력도 엄청났다.

마법을 시전할 때마다 순간순간 의식이 멀어졌다. 상대방을 위협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신력까지 붕괴시키는 무한의 영역은 확실히 양날의 검이었다.

“저게 대체…….”

에텔라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광자 출력은 그녀로서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포톤 캐논의 현란한 빛줄기가 밤하늘을 갈랐다. 마치 검은색 캔버스에 황금색 펜을 휘젓는 듯한 광경이었다.

이루키와 네이드는 광선에 넋을 빼앗겼다. 단발로도 강력한 포톤 캐논을 무차별로 난사한다는 건 시로네라는 인간을 무기화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다.

“역시 엄청나다. 하지만 저래도 괜찮을까?”

“믿어 보는 수밖에. 발표회 때도 잘했잖아.”

“하지만 그때하고는 다르잖아. 지금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상황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을 수도 있어.”

에텔라가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시로네가 전에도 이모탈 펑션에 들어간 적이 있단 말이야?”

“네? 아, 그게 사실…… 요즘에는 심심할 때마다 하는 거 같던데요.”

에텔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조심하는 척조차 하지 않다니. 하긴, 그런 열정이 아니라면 이토록 빠른 성장도 불가능했을 터였다.

## [91] 역전된 주종(2)

폭주하는 포톤 캐논의 섬광을 회피하는 카니스는 전에 없이 당황스러웠다. 어째서 지치지 않는 것일까? 마치 정신력의 리미트가 끊어진 듯했다.

- 하비! 이대로는 당하겠어!

하비스트에게서는 여전히 어떤 의견도 전달되지 않았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기에 불길했다. 게다가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의견의 충돌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전투 중에 침묵을 지킬 만큼 어리석은 마도 생물체가 아니라는 것은 카니스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 하비스트! 대답해!

정신 채널에 신경을 곤두세운 카니스의 곁을 포톤 캐논이 스쳤다. 황급히 허리를 틀기는 했으나 분명 늦은 반응이었다. 피한 것이 아니라 맞히지 않은 것이었다.

“뭐지?”

시로네에게서 10여 개의 섬광이 쏘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준이 정확하지 않았다. 카니스는 비로소 깨달았다. 수많은 섬광들이 다크포트로 이동할 수 있는 어둠을 전부 소멸시키고 있었다.

‘이런 미친……!’

맞힐 수 없다면 붙잡아 놓고 패겠다는 전략이었다. 일리는 있지만 너무 무식하지 않은가? 포톤 캐논처럼 정신력 소모가 심한 마법을 벌써 200발 이상 쏘아 대고 있다. 그런데도 지치기는커녕 섬광의 개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었다.

‘대체 얼마나 정신력이 거대한 거지?’

그런 생각을 하자 오싹 소름이 돋았다. 수십 발의 포톤 캐논이 카니스의 시야를 가득 채우자 마음속에서 절망감이 차올랐다. 섬광의 다발이 다크 포트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면서 들어오고 있었다.

‘이건 피할 수 없다. 끝이야.’

분하고 원통했다. 죽는 것보다도 스승님이 보는 앞에서 빛의 마법사에게 패했다는 사실이 더욱 두려웠다.

- 짜증 나는군. 아케인.

- 하비?

공중전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정신 채널이 열렸다. 하비스트는 카니스의 앞을 가로막고 포톤 캐논을 몸으로 받아냈다. 연속으로 들어오는 충격파에 마도 생물체의 전신이 떨리면서 기괴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표면만으로 흡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 하비스트는 몸체를 활짝 열고 포톤 캐논을 통째로 삼켰다. 몸이 들썩하더니 범처럼 가느다랬던 허리가 풍선처럼 부풀었다. 체내의 흡수력을 풀가동해 광자를 소화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차 몸이 수축하면서 고유의 형태로 되돌아갔다.

“컥……!”

카니스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상체를 구부렸다. 하비스트가 포톤 캐논을 흡수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정신력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힘을 빌리는 것은 주종의 계약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 하비스트?

- 정신 차리고 준비해!

카니스의 정신력을 모조리 빨아들인 하비스트는 시로네에게 날아가 손톱을 휘둘렀다. 근접전이 익숙하지 않은 시로네는 궁지에 몰렸다. 하비스트의 속도는 순간 이동으로 회피하는 동작을 따라잡을 정도로 기민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심지어는 카니스보다 훨씬 강한 듯했다.

시로네와 같은 생각을 한 에텔라는 아케인을 돌아보았다. 감정이 없는 눈으로 전투를 지켜보는 그의 모습에서 상황의 전말을 알 수 있었다.

‘빌토르 아케인. 당신 정말 잔인한 사람이군요.’

최고의 마도 생물체를 카니스에게 붙인 이유는 제자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복수에 불타는 그에게 제자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하비스트의 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료통. 그것이 카니스의 존재의의였다.

시로네가 순간 이동의 연계 속도를 높일수록 하비스트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카니스의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정신력이 탈탈 털린 바람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배신감과 박탈감 같은 감정만이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 하비스트. 어째서?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누가 주인이었는지 깨달은 카니스의 눈빛에서 생기가 죽어갔다. 지나온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눈물이 차올랐다.

시로네는 지상으로 피신했다. 칼로 베인 듯 잘려나간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포톤 캐논도 통하지 않는다. 이모탈 펑션을 개방하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비스트와 함께 내려온 카니스는 땅바닥에 손을 짚었다. 동공의 초점이 엇나간 상태였다. 하비스트는 신경 쓰지 않고 시로네에게 돌진했다. 카니스의 정신력이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전투를 끝내야 했다.

칼날처럼 예리한 하비스트의 손톱 공격을 피하면서 시로네는 생각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기를 잡았던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 당했다.

주종의 역전.

카니스의 보조에 불과했던 하비스트가 전면에 나서면서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가 없는 마도 생물체. 전장에서 이보다 까다로운 적이 또 있을까? 카니스라는 연료통에서 생명을 빨아먹으며 움직이는 전투병기였다.

‘전투병기……?’

시로네는 퍼뜩 착각을 깨달았다. 하비스트의 지성미에 가려 여태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종의 역전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했다. 적이 생물에서 무생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법도 그에 맞추어 변해야 했다.

전략을 전면 수정한 시로네는 포톤 캐논을 취소하고 광자 출력을 시전했다. 포톤 캐논이 위험한 이유는 생물체를 파괴하는 충격력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하비스트에게 물리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면 한계치를 뛰어넘는 에너지로 소멸시키면 된다.

광자 출력은 퓨어 매직인데다가 질량조차 없기 때문에 포톤 캐논보다 구사가 자유로웠다. 더군다나 아직 이모탈 펑션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 교내에 설치된 300개의 홀로그램 장치에 100퍼센트 효율로 빛을 전한 시로네의 힘이 한곳으로 집중되자 사람의 몸을 덮어 버릴 크기의 광선이 쏘아졌다.

“크으으으으!”

하비스트는 빛에 파묻히다시피 밀려났다. 물리력은 없지만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몸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빛에 면역인 탓에 광자의 성질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광자에 담긴 에너지만이 그를 깎아낼 수 있었다.

‘더욱 강한 에너지가 필요해.’

시로네는 광자화 이론의 대표적인 공식인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의 제곱이라는 수식을 떠올렸다. 신의 입자는 질량을 부여하는 전지다. 그렇다면 광자화 이론의 공식을 역전시켜서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했다.

광자 출력의 전지를 질량을 기준으로 재구성했다. 그것을 이모탈 펑션의 전능과 결합시키자 질량이 실시간으로 에너지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론과 현실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을 때 느끼는 쾌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고 미지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은 시로네는 전율을 느꼈다.

“저, 저게 뭐야?”

전투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광자 출력이 피처럼 붉은빛을 내면서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마법인지는 모르지만 색감만으로도 위협적이었다.

이루키는 용뢰의 수장인 아버지에게 들었던 빛의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저거…… 혹시 레이저 아냐?”

“레이저? 그게 뭔데?”

“빛 에너지가 고도로 증폭된 상태야. 섬광 계열의 궁극적인 진화라고나 할까? 하지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레이저는 재능이나 노력이 아닌 완력의 문제였다. 최소한 10년 이상 정신적 리바운드를 해야 광자가 레이저로 증폭될 정도의 완력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수학적으로 우회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의 입자를 기준으로 광자화 이론을 재구성한 시로네는 완력이 아닌 질량변환으로 에너지를 증폭시켰다. 고유의 전지가 새로운 루트를 개발한 셈이었다.

“크아아아아!”

하비스트가 고통에 몸부림쳤다. 레이저는 광자 출력에 비해 극히 가늘었지만 집적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다. 색감은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다. 정말로 위험한 건 적색 파장의 외부에 있는 비가시 열선이었다. 단일 파장의 레이저가 분자를 진동시키면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하비스트!”

카니스가 고통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악을 질렀다. 막대한 충격이 뇌리를 강타한다는 것은 고작 2초 만에 하비스트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치를 넘었다는 뜻이었다. 시로네의 새로운 마법 레이저 펄스 캐논의 위력이었다.

하비스트는 에너지를 소화시키려고 사력을 다했으나 분자의 진동속도가 너무 빨랐다. 흡수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덩치가 불어나더니 급기야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에텔라는 아케인의 반응을 살폈다.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표정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자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카니스! 그만 포기하세요!”

거대하게 부푼 하비스트의 다음 상태는 무엇일까? 소멸일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끔찍한 결말일지도 모른다.

“닥쳐! 난 싸울 거야!”

“당신은 아케인에게 속고 있어요. 하비스트는 당신의 종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비스트의 종속이었던 거예요. 아케인은 당신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카니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면 거짓말이다. 대마법사의 최종결과물인 마도 생물체가 자신의 것이 된다고 들었을 때부터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사실을 인정하면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이긴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 너희들 따위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있던 곳은 세상의 지옥이라 불리는 라둠이었다. 아케인에게 그는 소모품일 뿐이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하비스트에게 그는 연료통에 불과했다.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오직 세상을 증오하는 마음만이 남았다.

‘카니스…….’

아린은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카니스는 언제나 그런 아이였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자신을 괴롭히는 것밖에 없는 불쌍한 아이였다.

“스승님! 카니스를 살려 주세요! 제발!”

스승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카니스를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사정했다. 하지만 아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하비스트에게 지시를 내릴 뿐이었다.

“여기서 끝내라. 하비스트.”

에너지 포화 상태인 하비스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동으로 소리를 내려다가는 폭발해버릴 터였다. 그리고 그것이 아케인이 바라는 결과였다.

- 카니스. 잘 들어라.

- 하비스트.

- 아케인은 나를 폭사시킬 생각이다. 아마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폭발에 휘말리겠지. 그러면 너도 나도 끝이다.

아린은 학생들의 정신지배를 풀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아케인에게 달려들었다.

“카니스를 살려 줘! 안 그러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린!”

카니스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스승님에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둬.”

“카니스! 이 인간은 우리들을……!”

“그래. 스승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 주셨어. 라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카니스의 말은 진심이었을까? 하지만 이제와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의 분노는 자신의 죽음마저 후련하게 느낄 정도로 강렬하게 불타고 있었다.

“그래! 다 같이 죽는 거야!”

카니스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참으로 더러운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 마지막까지 구역질나는 최후를 맞이하리라.

“크아아아아아!”

분자가 끓어오르면서 하비스트의 몸에 거대한 기포가 부글거렸다. 이제는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아케인은 학교 전체를 폭파시킬 생각이었다.

“시로네! 멈춰! 하비스트가 폭발해!”

무아지경에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던 시로네는 에텔라의 말을 듣고 급하게 출력을 멈췄다. 하지만 이미 하비스트의 몸에서는 기폭반응이 진행되고 있었다. 기괴하게 각도를 뒤트는 모습이 2차, 3차의 폭발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했다.

“하하하하! 잘 가라! 나 같은 쓰레기하고 함께 죽어서 기분이 더럽겠군! 이것으로 전부 끝내는 거야!”

- 카니스. 미안하다.

카니스의 얼굴이 굳었다.

- 주종 계약을 해제하겠다.

하비스트는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모조리 흡수하고 계약을 해제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박탈감을 느낀 카니스가 충격을 받은 얼굴로 바닥에 쓰러졌다.

“어, 어째서…… 하비…….”

하비스트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폭발까지 몇 초나 남았을까? 3초? 2초? 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는 과정 속에서 진동의 형태로 스며들어 있는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하비. 하비. 하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던 목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아쉬웠다.

‘크크크. 카니스. 너는 그게 문제야. 쓸데없이 강한 척을 한다는 거.’

애초부터 없는 생명이기에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걱정스러웠다. 정신 채널을 통해 전해 받은 배신감은 지금도 한 몸인 것처럼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었기에, 하비스트는 그저 바랐다.

카니스가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상에 목소리가 닿지 않을 고도 2킬로미터 상공에서, 그림자 얼굴의 입가가 괴기스럽게 찢어졌다.

“그래도 재밌었잖아. 카니스.”

퍼어어어어어어엉!

세상의 어둠을 파괴하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4권 끝)

=======================================

# Volume 5

=======================================

## [92] 빛을 잃은 천재(1)

“네 이름은 하비스트다.”

아케인의 말에 검은 구슬이 진동했다. 분자 결합력이 느슨해지면서 검은 물질이 연기로 피어올랐다. 어둠에서 태어난 괴물체가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하비스트.”

“몇 가지 검사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시험관에 들어가 있도록 해라.”

아케인은 3미터 높이의 유리관을 가리켰다. 인간이라면 10분도 버티지 못할 만큼 좁은 곳이었지만 마도생물체에게는 시간의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날 밤 카니스와 아린이 실험실에 잠입했다. 아케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터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하비스트를 발견한 순간부터 사라졌다.

신장 2미터의 인간형 그림자.

가느다란 허리에 역동적으로 넓은 어깨가 카니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이것이 스승님의…….”

대마법사가 150년에 걸쳐 완성한 마도 생물학의 진수. 게다가 아케인의 기억을 물려받아 지성까지 겸비한 마도 생물체였다.

카니스와 달리 아린은 흉물을 본 것처럼 몸을 떨었다.

“으으. 되게 이상하네. 인간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마도 생물체가 무섭게 생기지 않으면 누가 겁을 먹겠어? 내가 보기에 이 형태는 정말 대단해. 전투적이잖아.”

“그래도 난 이상한데…….”

카니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기다려라, 하비스트.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주마.’

아케인은 자신과 아린 중에 하비스트의 주인을 고른다고 했다. 물론 아린은 소중한 친구지만 이런 일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반드시 자격을 증명해보일 것이다.

“카니스, 그만 나가자. 스승님이 오실지도 몰라.”

“응? 어, 그래.”

아린은 불을 끄고 나가는 카니스의 뒤를 따랐다. 그러다가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진동하는 하비스트의 폭발적인 감정이 전해져왔다.

“엄마야!”

아린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 연구실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시절 라둠의 창고에 갇혀 지냈던 그녀로서는 하비스트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린은 용기를 내어 연구실을 찾았다. 하비스트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유리관 안에 갇혀있었다.

“많이 답답한가요?”

대답이 들리지 않자 아린은 유리관의 장치를 살피며 스위치를 찾았다.

“잠깐이라면 밖으로 나오게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어째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아린은 흠칫 물러섰다. 공포를 절로 불러일으키는 스산한 목소리였다.

“벌써 한 달이나 갇혀 있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불편하게 여기는 건 인간이다. 나는 시간을 인지할 수 없어. 영원히 이대로 갇혀 있어도 상관없다.”

아린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가 느끼는 하비스트의 파장은 억눌리고 답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뭔가 떠오르셨나요?”

“글세.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 표현이 적합하지 않군. 나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학습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지.”

“바로 그런 걸 답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비스트는 생각에 잠겼다. 과연 그러한가?

“너는 어떻게 내 감정을 읽을 수 있지?”

“헤헤. 어쩌다보니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저는 라둠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라둠. 토르미아의 수도 바슈카의 빈민굴. 고난도 은폐 시설과 극심한 인구 변동. 대륙에서 영토를 잃은 아인종의 소굴로 추정.”

라둠에서 살았던 아린조차도 처음 듣는 얘기였다.

“하비스트 씨는 많은 걸 알고 있네요.”

“너에게는 어떤 정보가 있지?”

“대화를 하자는 건가요?”

“그렇군.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겠군. 아직 나에게는 정신을 공유할 주인이 없으니.”

아린은 밤새도록 하비스트와 대화를 나누었다. 유년기 시절의 대부분을 혼자서 보내야 했던 그녀가 누군가와 이토록 이야기를 나눈 적은 처음이었다.

두 달에 걸친 실험이 끝나고 하비스트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아케인은 유리관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하비스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나와라. 너는 카니스와 공명하게 된다. 하지만 종속의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이야. 이유는 차차 설명해주마.”

하비스트는 대답이 없었다. 초인적인 연산 속도의 마도 생물체가 반응이 늦다는 건 의외의 일이었기에 아케인이 고개를 돌렸다.

“왜? 걸리는 거라고 있나?”

“어째서 카니스지?”

“흐음. 싫다는 건가? 정신 공명을 하지 않는 네가 벌써부터 취향이 생겼다는 게 이상하군.”

“너의 기억을 물려받은 내가 너에게 종속되는 건 메리트가 없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카니스는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하다. 내 조언을 들을 것 같지 않아. 그런 성향은 전투에서 약점이 되겠지.”

“물론 그렇기는 하지.”

“반면에 아린은 다르다. 그녀는 10년 동안 라둠에서 살았고 카니스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 그에 따른 반발로 정신감응도가 엄청나게 민감하다.”

“초경을 말하는 건가?”

초경이란 어떤 사물이든 처음 보는 것처럼 인지하는 독특한 뇌파 패턴이었다. 아린은 유아시절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자랐고 그 상태로 뇌가 굳었다.

따라서 그녀는 보통 사람들처럼 사물을 구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물에 담긴 느낌을 파악하는 것만큼은 절대적이었다. 불편한 점은 많아도 정신 계열 마법사에게는 최고의 재능인 셈이었다.

아린의 재능이 카니스보다 특별하다는 건 아케인도 알고 있었다.

“아린은 안 돼. 그 아이는 마음이 너무 여려.”

“이해할 수 없군. 초경은 다른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녀라면 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아케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같은 기억을 공유하면서도 형태가 다르니 판단 또한 다른 것인가?

“어쩌면 네 말이 더 합리적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아린은 안 돼. 너는 카니스에게 가는 거다.”

\* \* \*

“크크크크크!”

추락하는 하비스트는 몸을 들썩였다.

“그런 거였군, 아케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아케인이 뛰어난 마법적 재능을 가진 아린을 포기하고 굳이 카니스를 선택한 이유를.

‘똑같은 고집쟁이였어.’

하비스트의 추락은 무게를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초라해보였다.

“하비스트!”

카니스는 하비스트에게 달려갔다. 얇은 종잇장처럼 쪼그라든 하비스트의 몸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어 차마 눈으로 보기가 힘들었다.

“왜! 왜 그랬어! 난 죽어도 상관없었다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배신하지를 말든가! 도대체 왜!”

“크크크.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내 주인이잖아.”

카니스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도 생물체는 말이야, 주인이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야.”

“하비스트…….”

카니스의 고개가 떨어졌다. 사는 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고 싶었다. 왜 살고 싶지 않겠는가? 그것이 인간이었다. 하비스트는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기에 주종의 계약을 끊고 자폭을 결심한 것이다.

“미안해, 하비스트. 나는…….”

하비스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마도 생물체는 주인이 원하는 걸 하면 된다. 그렇게 설계되었기에 죽음 또한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카니스와 자신의 콤비 플레이를 제압한 시로네의 전투력에 대한 흥미가 더 컸다.

‘흐음. 이상한 마법을 쓰는군. 하지만 단순히 마법에서 밀린 게 아니야.’

확실히 강한 적이었다. 상대를 제압하는데 머뭇거림이 없다. 그렇다고 호전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결과만을 지향하는 전투방식은 마도생물체를 닮아 있었다.

‘감정이 복원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아마도 초인적인 통찰력이겠지. 문제에서 해답까지 이르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분석을 끝낸 하비스트는 입가를 찢었다. 무언가에 절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연계에서 흔히 발현되는 성질은 아니었다.

‘크크크. 아케인, 고생깨나 하겠구나.’

아케인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뜻대로 움직여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 현재의 상황에 염증을 느낀 그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한심하구나, 카니스.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닥쳐.”

시로네가 말을 끊었다. 평소와 다른 과격한 언사에 친구들의 눈이 커졌다. 반면에 아케인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너무 황당하면 화조차 나지 않는 법이었다.

“껄껄껄! 참으로 기운찬 아이로구나. 어떠냐? 내가 제안을 하나 할 테니…….”

“닥치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들려?”

이번에는 아케인의 얼굴도 굳을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닥쳐. 한마디만 더하면 박살을 내 버릴 테니까.”

시로네의 몸이 은은한 붉은 빛으로 발광했다. 레이저. 위력은 이미 확인한 바였다. 에너지 흡수에 특화된 하비스트를 에너지 과잉으로 폭발시킬 정도라면 대마법사라고 해도 당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켜보는 친구들은 피가 마를 수밖에 없었다. 상대는 세상을 호령한 대마법사고 시로네는 일개 학생에 불과했다. 이런 식의 도발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대체 어쩌려고 저러지? 이러다가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냐?”

“아니. 괜찮을 겁니다.”

네이드와 이루키가 동시에 에텔라를 돌아보았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케인에게는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상성에서 밀려요. 조금 전 시로네의 마법이 에너지를 집약시킨 종류라면 현재의 아케인은 시로네의 마법을 막아낼 수 없어요. 자신이 물릴 가능성이 생긴 이상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로네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이드는 다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마법사에게 배짱을 부리는 건 시로네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여튼 영악하다니까.’

아케인은 순순히 인정했다.

“그래. 지금의 너라면 나를 제압할 수도 있겠지.”

일순 주위가 고요해졌다. 대마법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하지만 비굴함에서 비롯된 생각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적색 파동. 입자를 진동시키는 원리인 것 같은데, 그건 참으로 암흑 마법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나는 지친 상태에니 너를 막아 내기란 제법 힘들 것 같구나.”

아케인은 시로네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어떠냐? 대마법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

“뭐가 어떠냐는 거야?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마법, 재미있지?”

시로네는 미간을 구겼다. 아케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마법이란 그런 것이란다. 공정하지도 않고, 이래야 한다는 규칙도 없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다. 도시하나를 날릴 수 있는 운석 마법사가 시시껄렁한 용병 마법사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게 마법의 세계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당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죗값이라도 치르겠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케인의 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흰자가 보이고 표정은 귀신같았다. 칼날처럼 예리한 살기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졌다.

“전투는 해봐야 안다는 얘기란다.”

시로네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실력이나 수준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투기. 수많은 사선을 넘은 자만이 풍길 수 있는 죽음의 기운이었다.

“상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어떠냐? 나랑 상대해 보겠느냐?”

여태까지 당당했던 시로네의 입술이 처음으로 침묵을 지켰다. 솔직한 심정으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케인의 투기는 그만큼 압도적이었다.

‘과연 물건은 물건이로다.’

집요하게 약점을 공략하더니 그것이 사라지자 곧바로 태세를 전환한다. 고집이 없다는 것이다. 사고가 물처럼 유연하고 시야는 모든 방향을 향해 열려있다. 카니스가 패배한 이유를 조금은 알듯했다.

## [93] 빛을 잃은 천재(2)

“좋은 판단이다. 10개 중 1개를 얻었다는 이유로 9개를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어떤 상황이라도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생각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야. 전투도 마찬가지.”

“착각하지 마.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

“껄껄! 근성까지 갖추었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 내가 맞혀 볼까? 너는 실전에서 성장하는 타입이다. 틀에 박힌 것들만 가르치는 학교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어떠냐? 나랑 같이 가지 않을 테냐? 그렇다면 최고의 마법사로 만들어주마.”

“헛소리하지 마. 당신 같은 살인자보다는 이곳의 선생님들이 훨씬 존경스러워.”

“그렇다면 말해 보거라. 여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광자 대포? 적색 파동? 그것도 아니라면, 이모탈 펑션에 대한 조언이라도 해 주더냐?”

시로네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어떻게 그걸……?”

아케인은 폭소를 터뜨렸다. 이 맛에 교사를 하는가 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두고 마음껏 헛소리를 지껄여 댈 수 있으니까.

“참으로 희귀하지. 희귀하고말고. 이모탈 펑션이라는 게 보통 경지인가? 그러나 아이야, 네가 모르는 곳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많이 살고 있단다. 그곳에서 신명 나게 어울리다 보면…….”

아케인이 한쪽 눈을 살며시 찡그리며 웃었다.

“언로커도 그리 희귀한 건 아니란다.”

시로네는 마른 침을 삼켰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선을 넘어야 언로커를 희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실력을 떠나 누적된 경험치 자체가 다른 인물이었다.

“100년 동안 7명 만났지. 4명은 제법이었고 3명은 죽였다. 언로커의 특징은 독특함이지. 왜곡의 가능성은 무한대. 하지만 단련되지 않은 독특함이란 더 큰 안정감 앞에 죽는 법이다.”

분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다. 개성이란 객관적 전력을 무시하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공법 앞에서 허무하게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었다.

“개성을 무시하고 똑같은 것만 가르치는 학교에서 네가 배울 것은 없다. 너는 너만의 장기를 예리하게 가다듬어야 해. 나라면 그걸 해줄 수 있다.”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 마법을 배우는 게 아니야. 당신과 똑같은 인간으로 치부하지 마.”

아케인은 시로네의 눈에서 갈등을 읽어 냈다. 당연한 일이다. 마법에 대한 집착과도 같은 성취욕이 없었다면 지금이 위치까지 오르지도 못했을 테니까.

“지금은 모두가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인간은 원래부터 대단한 자에게 호의적이다. 딱히 너라는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야. 그런 가식적인 자들과 언제까지고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케인의 말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 미간을 찡그렸다.

하지만 시로네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강해져라. 그들이 영원히 너를 무시할 수 없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짓밟을 것이다. 과연 그런 상황이 닥쳐도 멋들어진 변명으로 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

아케인은 손가락 세 개를 펼쳤다.

“3년. 그 안에 너를 대륙의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실력으로 키워주마. 3년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으로는 아니다. 너의 개성을 극대화시킨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최소한 시로네에게는 헛소리가 아니었다. 언로커인 그가 대마법사의 지도를 포기하고 학교에 남아서 좋을 일은 거의 없었다. 기껏해야 마법사회에서 취직하기 수월한 정도?

“당신의 말이 옳아.”

이루키와 네이드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시로네…….”

사실이라면 부정할 필요가 없다. 언로커는 마법사회에서도 독특한 위치였고 마법학교의 평준화교육으로는 실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

“어쩌면 당신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따라가지 않을 거야. 학교는 내가 싸워야 할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담긴 곳이야. 선생님, 친구들, 소속감. 당신이 나에게 이런 걸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케인은 인상을 썼다. 알페아스가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는 몰라도 학생들을 세뇌시킨 능력만큼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막상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강하지 않았다면 너는 학교에서 그저 그런 아이에 불과했을 것이다. 강함을 증명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게야.”

“정말로 그게 전부라면, 당신은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지?”

“뭐라?”

“그렇게 싸워서 대마법사가 된 당신에게 지금 남은 건 뭐야? 모두가 당신을 싫어하잖아. 사실은 당신도 외로운 거 아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증명을 못하는 거잖아.”

아케인은 붉어진 얼굴로 이를 뿌드득 갈았다.

“헛소리를 지껄이는구나. 강자는 외로운 법이다. 약하기에 뭉치려 드는 것이지. 지금 상황을 보아라. 모두가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다. 내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다.”

“아니. 당신은 누구도 돌봐 주지 않는 살인자일 뿐이야.”

살인자라는 말에 아케인의 눈에 광기가 휘몰아쳤다.

“하하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알고 있느냐? 나에게도 한때는 동료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주위 사람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지. 그게 바로 네가 존경하는 알페아스다.”

시로네는 믿지 않았다. 에텔라에게 두 사람이 원한관계라는 얘기를 들은 터였다. 그가 알고 있는 알페아스는 결코 남을 파멸로 이끌 사람이 아니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말은 듣지 않을 거야. 살인자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살인자라. 그 알페아스가…… 나랑 똑같은 살인자라고 해도 말이냐?”

시로네는 눈을 부릅떴다. 이번만큼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교장 선생님에 대해 뭘 알아?”

“껄껄껄! 당연히 알지. 그 애송이는 내 제자였으니까.”

“뭐……라고?”

시로네는 할 말을 잃었다. 알페아스는 소싯적부터 빛의 마법의 선구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암흑 마법을 구사하는 자가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도 아이러니를 느꼈는지 아케인은 아련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도 그날의 일이 어제처럼 생생했다. 문득 무언가 떠올랐는지 그가 생각을 멈추고 에텔라를 돌아보았다.

“알페아스는 결혼했는가?”

“아뇨. 평생 홀로 지내시면서 교육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아케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지나갔다. 40년을 증오한 알페아스지만 유일하게 동정할 거리가 남아 있다면 에리나의 일이었다.

“아는지 모르겠네만 알페아스는 결혼한 적이 있네.”

에텔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가 알기로 알페아스는 미혼이었다. 설령 결혼을 하고 헤어졌더라도 가문의 결합인 만큼 기록상에는 남아 있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서류상으로도 미혼인데요.”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한 모양이로구먼. 그래도 알페아스는 결혼했네. 3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에리나라는 여성이었지. 훌륭한 여자였어. 누구보다 빛났고 아름다웠네.”

“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한을 살 만한 일인가요?”

“당시에 알페아스는 광양자설을 인정받아 잘나가는 신예 중의 하나였지. 황제에게 골드서클상을 받았으니 그 위상을 짐작하겠지? 용뢰의 마법부서에 취직이 확정되었고 바스타드 가문의 여성과 살림도 차렸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지. 하지만 그에게도 근심은 있었네.”

아케인이 자신의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내인 에리나의 지능이 조금 떨어졌네. 열 살 아이의 수준이었지.”

“그랬군요.”

“하지만 알페아스는 신경 쓰지 않았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했지. 그의 사랑은 결코 동정이나 가식이 아니었어.”

아케인의 기억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아케인이 세상을 호령하고, 마법 세계에 입문한 알페아스가 초신성으로 불리던 시기였다.

“올해의 골드서클상! 미르히 알페아스!”

그랜드 홀에 팡파르가 울렸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오색종이를 맞으며 알페아스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 해에 최고의 업적을 기록한 마법사에게 수여되는 골드서클상. 일단 입상만 하면 용뢰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수많은 귀족가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축하하네, 알페아스. 나는 당연히 자네가 탈 줄 알았어.”

“앞으로 잘 부탁하네. 설마 출세했다고 동문을 잊지는 않겠지?”

수많은 마법사들이 알페아스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앞으로 그의 주가가 끝없이 상승할 터이니 미리부터 눈도장을 찍어두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탐탁지 않은 시선도 분명 존재했다. 특히나 마지막까지 입상을 두고 접전을 펼쳤던 사로프의 얼굴은 똥을 씹은 듯 구겨져 있었다.

“흥. 저능아 하나 잡아서 출세했군. 미르히와 바스타드의 결합이니 저걸 어떻게 이겨?”

“그러게 말일세. 정말이지 약은 친구야. 하지만 어쩌겠는가, 결과가 이리 나온 것을. 우리도 앞으로는 알페아스에게 말을 가려서 해야 하네.”

사로프도 알고 있었다. 어쨌거나 마법사회를 떠날 수 없는 이상 알페아스와 친해지는 게 상책이었다.

“어쩔 텐가, 사로프? 따로 만나면 더 이상해져. 지금이라도 은근슬쩍 묻어서 화해를 청하는 게?”

“아니, 그럴 기분이 아니야. 나는 괜찮으니 자네라도 다녀오지 그러나?”

“심정이야 마찬가지지. 그냥 나중에 하세. 1명보다야 둘이 나을 테니까. 술이나 마시러 갈 텐가?”

“그래야겠어. 이곳에는 더 머물고 싶지 않아.”

사로프는 친구들을 데리고 왕성을 빠져나갔다. 사로프 또한 아깝게 골드서클상을 놓친 최종 후보였지만 어느 누구도 패자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클럼프가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인파 속의 알페아스를 끌고 나왔다. 알페아스는 한숨 돌리겠다 싶었으나 이내 클럼프의 팔뚝에 얼굴이 끼워져 우악스럽게 흔들렸다.

“으하하하! 이 자식! 해냈구나! 내 친구가 골드서클을 받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는구먼!”

“아파! 아프다고!”

알페아스가 비명을 질렀으나 클럼프의 축하는 멈출 줄 몰랐다.

“재수 없게 똑똑한 척할 때는 진짜 확 패 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보니 천재였잖아? 해냈어, 인마!”

알페아스는 머리가 어지러워 죽을 것 같았지만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골드서클이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 이런 짜릿한 고통을 맛보겠는가?

“자, 자! 좋은 날이니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 보자고. 술집은 예약해 놨으니 뇌는 놔두고 위장만 들고 가면 돼.”

비로소 헤드 락에서 빠져나온 알페아스가 미안한 듯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 바로는 안 될 거 같은데?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뭐? 주인공이 빠지면 무슨 재미로 건배를 해?”

“집에 다녀오려고. 아내에게 메달을 걸어 주고 싶어서.”

클럼프도 그것까지는 말릴 수 없었다. 1년 전에 결혼한 에리나지만 양가 가문의 반대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서민 구역의 작은 신혼집에서 생활하는 형편이었다.

발단은 미르히 가문이었다. 유학까지 보낸 아들이 바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승낙을 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바스타드 가문도 지지 않고 대응했다. 같은 제1계급 귀족이라도 지방과 수도는 엄연히 차이가 나는 법이니 딸내미가 조금 모자라도 꿀리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알페아스와 에리나는 친구들만 모인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군. 제수씨가 있었지. 차라리 모셔 오는 게 어때?”

“됐어. 어떤 아내가 남편이 고주망태로 노는 걸 좋아하겠냐? 그냥 잠깐만 다녀올게.”

“짜식, 눈치는 있구먼. 그럼 빨리 다녀와.”

“금방 올 거야. 먼저 술집에 가 있어!”

알페아스는 도망치듯 왕성을 빠져나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느라 체력이 고갈되었지만 오늘만큼은 숨이 차오르지 않았다.

‘됐다! 내가 해냈어!’

왕국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상을 탔다. 이정도 성과라면 미르히 가문도 다시 자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테니 에리나와 정신 혼인식을 치루는 것도 꿈은 아니었다.

“여보, 나 왔어.”

수상자가 결정되는 날이라는 걸 에리나는 알고 있다. 다른 집이라면 깜짝 파티라도 준비했을 테지만 그녀는 어제와 똑같이 부엌에서 나왔다.

“왔어요? 밥 먹었어요?”

## [94] 빛을 잃은 천재(3)

알페아스는 그런 그녀가 좋았다. 열 살의 지능이라도 사고 자체가 열 살인 것은 아니다. 남편이 수상에 실패해서 상심했을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그녀의 씀씀이에 눈물이 핑 돌았다.

“여보, 나…….”

알페아스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 메달을 꺼내 들었다.

“내가 해냈어! 내가 탔다고! 골드서클상이야!”

에리나는 언제나 차분하고 침착하지만 이번만큼은 세상을 담을 것 같은 영롱한 눈동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알페아스가 입이 닳도록 말하던 그날이 정말로 온 것이다.

“축하해요. 당신이 탈 줄 알았어요.”

“에리나, 당신 덕분이야. 전부 당신이 해낸 거라고. 이리 와 봐. 내가 걸어 줄게.”

알페아스는 골드서클의 진정한 주인은 에리나라고 생각했다. 물론 우직한 클럼프는 이해하지 못했다. 에리나의 동심어린 말보다 그 진의를 해독한 알페아스가 대단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알페아스는 알고 있었다. 에리나의 머리에서 나온 작은 발상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코드가 되리라는 것을.

“당신이 받은 상이야. 당신의 생각이 세상을 놀라게 했어.”

알페아스가 입술을 내밀며 다가오자 에리나가 새색시처럼 몸을 빼내며 말했다.

“밥 먹어야죠. 빨리 와요.”

“아, 미안. 클럼프가 파티를 열어서 가 봐야 할 거 같아. 밥은 나중에 먹을게.”

“아, 그래요.”

에리나도 이번에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알페아스가 개구쟁이처럼 웃더니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아껴야 된다는 말씀.”

“꺄악!”

알페아스는 에리나를 안은 채로 2층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올라갔다.

“잠깐만요! 이러다 빵 태우겠어요.”

“타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타버릴 테니까!”

알페아스가 수상한 이후 하루에도 수십 장의 초청장이 날아들었다. 하나같이 내로라하는 귀족이나 기관에서 보낸 것들이었다. 모두와 어울리는 것은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필요한 인맥 외에는 거절하면서 몸값을 올린 덕분에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다.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오늘도 알페아스는 연금술 재단에서 초대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마법 재료 물동량의 40퍼센트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니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로프와 친구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부터 알페아스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은 초조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로프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아, 자존심 상하는군.”

“자존심이 문젠가? 가치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 알페아스 말일세. 그냥 마법만 잘하는 인간이 아니었던 게지. 미리부터 예상했어야 했는데.”

사로프도 후회막심이었다. 골드서클상을 수상했을 때 어떻게든 인파에 섞여 앙금을 해소했어야 했다. 수상을 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건만 알페아스의 명성은 기가 질릴 정도로 높아져 있었다. 이 모든 게 그의 탁월한 정치적 수완 덕분이었다. 이제는 알페아스도 사람을 가리는 만큼 사로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에이 제기랄. 고개 숙이지 않으려다가 무릎까지 꿇게 생겼으니.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생각을 해 봤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였다. 그나마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민망함은 조금 덜하리라는 게 위로라면 위로였다.

“슬슬 들어가세. 말은 내가 할 테니.”

사로프가 선두로 나서서 알페아스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알페아스 있나? 나 사로프일세.”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에리나였다.

“누구세요?”

“아, 부인께서 계셨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페아스의 학우인 사로프라고 합니다. 알페아스 집에 있습니까?”

“아니요. 남편은 나갔어요. 연금술 재단에요.”

연금술 재단에서 만찬회가 열린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술자리가 아니니 오래 걸리지는 않을 터.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며 사로프는 정중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요? 사람들 이목도 있고 해서…….”

집까지 찾아온 것도 민망한데 문 앞에서 기웃거리다가는 구설수에 휘말릴 게 분명했다.

“네, 들어오세요.”

사로프는 친구들과 거실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보기에 안쓰러웠는지 에리나가 그들을 식탁으로 불러 안주와 술을 대접했다.

“식사라도 하고 계세요. 남편은 거기서 먹고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친절하시군요.”

적잖이 민망해진 사로프는 선물을 가져오지 않은 걸 후회했다. 혹시 몰라서 사 두기는 했으나 막상 들고 가려고 하자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실력으로 뒤진 게 아니다. 아무리 알페아스와 에리나의 양가 가문에서 연을 끊었다고 해도 제1계급의 이름값이 있는데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로프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술을 넘기자 빠르게 취기가 올라왔다. 처음에는 긴장을 하면서 버텼으나 에리나의 지적 수준을 피부로 느낀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버렸다.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한때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야. 내가, 바로 내가!”

“누가 아니래? 세상 참 불공평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죽을 쓰고, 어디 누구는 연줄이라도 잡아서 출세하고! 이미 마법은 죽었어!”

친구의 말에 사로프의 한쪽 눈썹이 샐쭉 올라갔다. 친구가 저격하는 자는 다름 아닌 알페아스였다. 하지만 내버려두었다. 어차피 에리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갑자기 술이 달았다. 어쩌면 처음으로 알페아스를 이긴 게 아닐까? 아내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비난을 할 수 있다니.

‘흥, 그 자식이 나에게 얼마나 모욕을 줬는데. 이 정도는 약과지, 약과.’

사로프는 한술 더 떠 에리나에게 말을 걸었다.

“안 그렇습니까, 제수씨? 마법이라는 게 말이죠, 실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수씨도 동의하시죠?”

“네, 전 잘 몰라요.”

“하하하! 그럼요. 모르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 말은 다 사실이라고요.”

사로프는 승리의 쾌감을 맛보았다. 알페아스를 비판한 데다 아내까지 비꼬았다. 사로프의 의도를 포착한 친구들이 테이블을 두들기며 동참했다.

“제수씨, 분위기도 그런데 노래나 한 곡 불러 보시죠?”

“그래요! 알페아스의 성공도 축하할 겸으로다가 노래 한 곡 뽑아 보세요.”

에리나의 미소가 굳어졌다.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진다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읽는 건 언제나 약자의 몫이었다. 에리나 또한 사로프 일행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남편의 친구들이기에 애써 받아주고 있는 것뿐이었다.

“나 사는 고향 밀이 여물면…….”

에리나가 노래를 시작하자 사로프 일행이 박수를 치며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녀는 떨리는 음색으로 꿋꿋이 노래를 이어 나갔다.

하지만 세 소절을 부르기도 전에 거실 쪽에서 냉기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고개를 돌렸다. 알페아스가 붉어진 얼굴로 주먹을 쥐고 서 있었다. 사로프는 술이 번쩍 깼다. 정신이 돌아오자 비로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 깨달았다.

“미, 미안하네. 우리가 술이 너무 과했던 모양이구먼.”

“이 개자식아!”

성큼성큼 다가온 알페아스가 주먹을 휘둘렀다. 정통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사로프가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러자 친구들이 벌떡 들고 일어나 소리쳤다.

“알페아스! 이 무슨 험한 짓인가! 아무리 화가 났기로서니……!”

“아니, 됐네. 그만두게.”

사로프가 손을 들어 친구들을 말렸다.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나는 고작 이 정도였던가? 경쟁자의 아내나 희롱하면서 위안을 삼는 패배자일 뿐이었던가?

“꺼져, 죽여 버리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오늘 일은 미안하게 됐네.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으이.”

사로프와 친구들은 알페아스의 집에서 쫓겨났다. 불청객이 빠져나간 거실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알페아스는 치솟는 분노를 막을 길이 없었다. 그들이 어째서 에리나에게 노래를 시켰는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자식들이 여기 있는 거야?”

에리나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남편이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다.

“말해! 왜 저 자식들을 들인 거냐고!”

“미안해요. 당신 친구라서, 좋아할 줄 알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딴 자식이 왜 내 친구야? 진짜 친구하고 구분도 못 해? 그래 놓고 노래나 부르고 있어? 당신 정말 바보야!”

알페아스는 거칠게 몸을 틀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얼굴이 후회로 일그러졌다. 결코 써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절대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고 말았다.

‘쓰레기 같은 자식. 나는 사람도 아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아니, 설령 되돌린다고 해도 같은 소리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화를 억누를 수가 없어 미칠 지경이었다.

“방금 말은 잊어버려. 내가 실수했어.”

“여보,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에리나의 말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가 사과를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 울분을 내던져야 하는가?

“바람 좀 쐬고 올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미안해. 오늘은 먼저 자고 있어.”

알페아스는 집을 나갔다. 그것만이 지금 상황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클럼프가 머무는 여관을 찾아간 그는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취하지가 않았다. 취기가 올라올수록 사로프는 기억에서 지워지고 에리나가 받았을 상처만이 떠올랐다.

“빌어먹을. 난 쓰레기야. 남편 자격이 없어. 나만 믿고 따라온 여잔데. 내가 그딴 식으로 말을 해버리다니.”

클럼프는 딱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도 남자이기에 알페아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더라. 이제 미래도 창창하고, 나쁜 시간도 다 지나갔잖아. 오늘을 계기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냐?”

알페아스가 묵묵부답이자 클럼프는 전부터 생각했던 얘기를 꺼냈다.

“그러지 말고, 이참에 아이라도 가져 보는 게 어때?”

알페아스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다. 하지만 이내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를 짐작한 클럼프가 놀란 눈을 치켜떴다.

“뭐야, 너,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무슨 헛소리야? 우린 부부라고. 에리나가 아무리 어려도 알 건 다 알아.”

“쳇, 누가 뭐래? 제수씨가 아니라 네가 고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비리비리해 가지고 말이야. 크크크.”

웃을 기분이 아닌 알페아스는 술잔을 응시하다가 씁쓸히 술을 털어 넣었다.

클럼프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 참.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애 낳고 알콩달콩 살면 그만이지.”

“에리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

“아니. 사실 그렇잖아. 출산은 끔찍한 고통인데 에리나가 참을 수 있을지. 육아 문제도 있고.”

알페아스의 말을 곱씹던 클럼프는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열 살 지능의 여성이 산고를 견딜 수 있을지의 문제였다. 지능은 인간을 통제하는 크나큰 힘이다. 알고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모른 채 당하는 건 천지 차이였다.

“알페아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도 알고 있었잖아. 결혼을 생각했을 때부터…….”

“그래, 알아. 후회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후회하지 않아. 난 에리나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녀가 아니라면 어떤 영광도 의미가 없다고.”

클럼프는 연거푸 두 잔을 목구멍에 털어 넣었다. 자신도 답답한데 당사자는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어쩔 생각이냐? 이렇게 푸념이나 늘어놓는 건 너답지 않아. 똑똑한 놈이 왜 그래?”

알페아스는 술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순간, 취기에 저항하는 그의 눈동자가 총명하게 반짝였다.

## [95] 빛을 잃은 천재(4)

아케인은 어젯밤 누군가가 자신의 던전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대마법사의 던전에 재물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들이야 부지기수였으니까. 지금쯤이면 몬스터나 함정에 당해 시체로 변해있을 터였다.

아케인은 잠시 머물던 생각을 지우고 다시 연구에 집중했다. 근래 그가 파고드는 분야는 암흑 마법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정신없이 논문을 써 내려가던 손길이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빠른 속도로 기관 장치들이 해제되고 있었다. 보통 놈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대어가 걸렸나?”

한번 틀어박히면 몇 년이나 두문불출하는 아케인에게 던전의 침입자는 좋은 오락거리였다. 게다가 오늘은 제법 괜찮은 인간이 미끼를 문 모양이었다.

쿵 소리가 나며 철문이 열리자 아케인은 시계를 살폈다. 정확히 32시간 28분 5초. 입구에서부터 이곳까지 기관 장치를 해체하고 도달한 시간이었다.

“대마법사…… 빌토르 아케인이십니까?”

피투성이의 사내였다. 준수하게 생겼고 눈은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돈이나 탐할 놈으로는 보이지 않는구나. 누구냐?”

“미르히 알페아스라고 합니다. 만날 도리가 없어서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호오?”

아케인의 눈썹이 올라갔다. 던전에 처박혀 있다고 바깥 정세까지 외면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은밀한 루트를 통해 이미 알페아스의 광양자설을 접한 그였다.

“빛의 마법사가 암흑 마법사를 찾아오다니. 참으로 특이한 일이군. 일단 앉게. 치료해 주지.”

아케인은 생체 유지 장치를 가동했다. 녹색 액체로 채워진 반구형의 장치에 들어간 알페아스는 물에 잠기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푸하! 하악!”

알페아스는 수면 위로 상체를 일으켰다. 까딱하면 질식할 뻔했다. 그런데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었을까? 의문을 품은 채 고개를 돌리자 아케인이 책상에 앉아 논문을 집필하고 있었다. 대륙을 어지럽힌 대마법사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학구적인 풍모였다.

“치료 감사드립니다. 좋은 장치군요. 원리가 궁금한데요.”

“말 돌릴 것 없다. 그렇다고 네가 불청객이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날 찾아온 이유를 말해 보거라.”

호기심과 흥미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터였다.

알페아스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암흑 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호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알페아스가 제자를 간정하다니. 천하의 아케인일지라도 흥미가 동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문에 듣기로 암흑 마법에 기억을 담는 연구를 하신다던데, 아내에게 제 기억을 주고 싶습니다.”

아케인의 눈이 번뜩였다. 어차피 서로의 전공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니 긴말은 필요치 않았다.

“기억 조작에 관해서는 꽤나 연구를 했지. 하지만 자네가 요구하는 건 차원이 다르네. 인격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옮겨야 하는 작업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흑 마법의 흡수성과 광자의 정보 전달 능력을 합친다면 가상의 지성을 구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흐음, 광자 마법으로 신경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기억을 부여한다?”

확실히 참신한 발상이었다. 여태까지의 광자 마법은 시간 마법이라 부를 만큼 효용이 제한적이었지만 광양자설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정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리라는 게 아케인의 예상이었다.

“이론을 검토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인 점이 있네. 자네의 아내는 실험을 허락한 건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사연이 있나 보구먼.”

알페아스는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아케인은 그의 심정을 이해했다. 게다가 제안은 확실히 천재적이었다. 그로부터 하루 동안 두 사람은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론적인 토대에 합의하기에 이르자 아케인도 헛된 망상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다.

“좋네. 정말로 인생을 걸어 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자네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하지. 하지만 가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게야.”

대마법사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만 알페아스 또한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였다. 용뢰의 마법부서에 취직이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내팽개치고 침침한 연구실로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알페아스는 다른 노선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에리나가 불행하다면 자신도 불행하다. 그는 오로지 에리나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알페아스는 에리나와 상담을 했다. 인생이 걸린 문제라 자리에는 클럼프도 착석해 있었다. 알페아스가 강조한 부분은 에리나의 지적장래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클럼프는 말이 끝나자마자 반대했다.

“알페아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쩌자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은 범죄자잖아?”

“마법사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진짜로 중요한 건 그가 대륙에서 암흑 마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인간의 기억과 뇌 구조에 대해서도 박식해. 손해 보는 일은 아닐 거야.”

“아니, 손해야. 너는 지금 뭔가에 홀린 거야. 인간의 뇌에 기억을 심는다고?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클럼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 나는 멍청해! 너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천재도 아니야! 하지만 이런 나라도 한 가지는 알지. 넌 지금 굴러들어 온 복을 차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용뢰에 들어가는 것도 취소될 거야. 가문은 어쩌고? 너희 가문에서는 정말로 너를 버릴 거라고!”

알페아스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수없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다.

“상관없어. 그딴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용뢰고 가문이고 다 필요 없어. 에리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행복할 수 있어.”

에리나는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알페아스의 마지막 말로 결정은 난 셈이었다. 남편이 행복하다면 에리나 또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다.

“여보, 할게요.”

“제수씨! 이건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믿으니까요. 알페아스는 저를 행복하게 해 줄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골드서클을 받은 마법사야. 그리고 내 스승은 대마법사라고. 우리가 손을 잡으면 당신의 약점 따위는 손쉽게 고쳐 버릴 수 있어.”

클럼프는 매일같이 찾아와 알페아스를 설득했으나 부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알페아스는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에리나와 함께 아케인의 던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반갑네. 빌토르 아케인이라고 하네.”

“안녕하세요. 남편이 신세를 졌습니다.”

에리나는 깍듯이 인사했다. 이제부터는 남편의 스승이니 행동을 허투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케인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다독였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이래봬도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에 몰두한 나일세. 큰 결정을 한 게야. 성공만하면 수많은 정신 질환자들을 고칠 수 있어. 자네의 남편 또한 용뢰에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명성을 얻게 될 걸세.”

대마법사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성공의 보상으로 남편이 포기한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다면 에리나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알페아스는 던전에 상주하며 아내에게 기억을 이전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개인 던전을 운용할 만큼 아케인은 실험에 전문가였다. 그의 합리적인 보살핌 속에 에리나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던전에서 보낼 수 있었다.

“여어, 제수씨. 좀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클럼프가 음식을 챙겨 가지고 찾아왔다. 실험에 바쁜 두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에리나까지 쓴 음식을 먹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괜찮아요. 조만간 실험이 끝난대요. 그러면 남편도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클럼프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2년 동안 이런저런 검사를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참으로 잘 참아 주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 지능이 좀 떨어지면 어떠한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그녀의 마음은 결코 저급한 게 아니었다.

클럼프가 왔다는 기별에 알페아스가 방을 찾았다. 에리나의 말대로 박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인지 찾아올 때마다 얼굴이 야위어있었다.

“왔어? 매번 고마워.”

“실험은 어때? 진척이 있어?”

“거의 완성했어. 임상 실험까지 무탈하게 성공했지. 다음 달이면 에리나도 지긋지긋한 괄시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야.”

“다음 달? 그렇게 빨라?”

“무슨 소리야? 자그마치 2년이야. 스승님과 날마다 밤을 새워 가면서 연구했다고. 어쨌든 그날은 자네도 와야 돼. 그때는 음식 말고 술이나 왕창 가져오라고.”

한 달이라는 기간은 모두에게 길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은 흘러갔고 고대하던 실행의 순간이 다가왔다.

에리나는 침대에 누워 기다렸다. 아케인과 알페아스가 기계장치를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클럼프가 그녀의 곁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말을 걸어주었다.

“제수씨, 기분이 어때요? 오늘이 지나면 제수씨는 알페아스의 기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이불에 오줌 싼 기억까지도요. 혹시 다른 여자에게 한눈팔지는 않았는지 잘 떠올려 보세요. 하하하!”

클럼프의 농담에 에리나도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다.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날이었고, 실험 장치도 문제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럼 시작할게, 에리나.”

알페아스는 에리나의 옆에 누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기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기억도, 수치스러운 기억도, 그녀라면 상관이 없었다.

“여보,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맙지. 정말 잘 견뎌 줬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이도 낳고.”

알페아스는 자신의 미소가 어색하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긴장감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아케인이 다가와 두 사람의 머리에 기계장치를 달았다. 마도공학, 마도 생물학, 연금술, 광자역학, 인체 생물학 등 모든 분야의 보고가 총집결된 실험이었다.

“시작하겠네. 긴장 풀고. 금방 끝날 게야.”

아케인이 장치를 가동할 준비를 하자 클럼프는 구석으로 걸어가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철컹 하는 소리를 내며 기관 장치가 내려갔다. 수십 개에 달하는 세부 기관이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고 크리스털이 빛을 내며 풍광을 어지럽혔다.

알페아스는 머릿속으로 침투하는 암흑 마법을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핵심 원리는 단순했다. 알페아스의 기억을 암흑 마법을 통해 흡수시킨다. 그리고 광자 출력으로 전송하여 에리나의 기억에 덮어씌우면 되는 것이다.

“허억!”

에리나의 눈이 크게 뜨였다. 막대한 정보량이 들어오면서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알페아스가 기억하는 생애 최초의 기억부터 조금 전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까지, 그를 이루는 모든 시간들이 빛의 속도로 전송되고 있었다.

에리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알페아스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고민, 결혼의 기대감, 신혼의 행복감. 어떤 편견도 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마음이 온전한 상태로 전해져 왔다.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에리나는 눈을 감았다. 후회는 없다. 세상에 태어나서 분에 넘칠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알페아스를 만나서…… 다행이었다.

빛이 사라지면서 실험이 끝났다. 아케인이 계기판을 확인했다. 정보 전송률 100퍼센트. 모든 기억이 완벽하게 전달되었다.

“여보! 여보!”

알페아스는 에리나를 돌아보았다. 파리한 안색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 [96] 빛을 잃은 천재(5)

“스승님! 어떻게 됐죠? 실험은 성공한 건가요?”

“그래, 성공했어! 우리의 마법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알페아스는 기뻐할 수 없었다. 아무리 봐도 에리나의 상태가 이상했다.

“그런데 아내가 왜 이러죠? 여보! 정신 좀 차려 봐!”

다시 한 번 계기판을 살핀 아케인은 충격을 받았다. 각 항목들의 밸런스는 정상이었지만 전체적인 신체 리듬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생명 그 자체가 꺼져가는 듯했다.

“이, 이게 어째서? 분명 임상 실험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여보! 에리나! 눈 좀 떠 봐!”

에리나가 반쯤 눈을 뜨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저는 괜찮아요.”

“에리나!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어디가 안 좋아?”

“단말 신경에서부터 거부반응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뇌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나 봐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조금만 더 연구하면…… 허억!”

에리나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경련했다.

“여보! 말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 볼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 줄 테니까……!”

알페아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 자신의 지적능력이 저주스러웠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에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아는 건 자신도 알고 있었다.

“여보…… 손을 잡아 줘요.”

알페아스는 아내의 손을 세게 움켜쥐었다. 1퍼센트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면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다.

“에리나,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에리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여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당신이 뭐가…….”

“바보라서.”

알페아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아내를 바꾸려 들다니.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름답다는 그녀의 말을 어째서 잊어버린 것일까?

“아니야…… 왜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나야! 내가 바보였어! 바보는 나였다고!”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에리나는 비로소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합리성이 지배하는 멋진 세계. 그는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짧은 순간이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그의 기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여보! 눈 좀 떠 봐! 제발…… 내가 잘못했어, 여보!”

에리나의 눈이 감기자 알페아스가 얼굴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으아아아아! 여보! 여보!”

아케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인간의 뇌가 동물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처음부터 인체 실험을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의미한 가정이었다. 에리나가 자신을 실험하는 데 내건 조건은 단 하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얻은 데이터는 인류를 위해 귀중하게 쓰일 터였다.

‘미안하네. 자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이.’

퍽 하고 둔탁한 소리가 터졌다. 고개를 돌리자 알페아스가 머리에 벽을 박아 대고 있었다.

“으아아아!”

이마가 충돌할 때마다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벽이 부서지는지 머리가 부서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뭐? 미르히 가문의 빛? 빛? 빛!”

쿵! 쿵! 쿵!

연거푸 머리를 박은 알페아스의 몸이 고무공처럼 튕겨 나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내를 놔두고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끔찍함이 속을 뒤집어 놓았다.

“오만한 알페아스!”

알페아스는 다시 벽으로 돌진했다.

쿵!

클럼프가 알페아스를 붙잡았다. 이대로 두다가는 꼼짝없이 죽을 터였다.

“알페아스!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놔! 빌어먹을! 으아아아아!”

클럼프의 완력으로도 알페아스를 막아 내기가 힘들었다. 마치 영혼을 불살라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쇼크가 치밀었는지 동공이 말리면서 의식이 멀어져갔다.

“에리나……. 에리나…….”

기절한 상태에서도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에 클럼프도 눈물을 흘렸다.

\* \* \*

에리나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가문의 식구들만이 모인 자리였고 알페아스는 친족들에 의해 참석을 저지당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후사도 없다. 결국 두 사람은 남남인 채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알페아스는 장례식장 앞에 하염없이 주저앉아있었다.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걸음을 옮겼다.

도착한 곳은 아케인의 던전이었다. 2년 동안 수많은 실험을 했던 기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에리나…….”

알페아스는 기름통을 들고 실험실 곳곳에 뿌렸다. 기름이 튈 때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와 웃고 떠들던 순간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했다.

기름통이 바닥을 드러내자 알페아스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지식이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잔인한 실험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왔느냐, 알페아스?”

아케인이 실험실로 들어왔다. 알페아스가 장례식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결국 그에게는 이곳이 아내의 무덤인 셈이었다.

“에리나의 일은 유감이구나. 당분간은 심신을 챙겨라. 그런 다음 다시 나와…….”

아케인은 무언가를 깨닫고 고개를 돌렸다. 기계장치에서 새어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심한 기름 냄새였다.

“알페아스…… 너 설마?”

알페아스는 어두운 눈빛으로 일어섰다. 파이어 마법 한 방이면 실험실은 통째로 날아가 버릴 터였다.

“안 돼! 이 무슨 짓이냐!”

“스승님,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나약해졌다는 건 이해하마! 하지만 아니야! 실험은 거의 성공했어! 에리나의 유지를 잊었느냐? 이곳을 지우는 건 에리나의 희생마저 외면하는 짓이야!”

“다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없는 지금……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더라도 안 돼! 이건 너와 에리나의 것만이 아니다. 내 평생의 지식 또한 집적되어 있어!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서류들이야.”

알페아스는 화염 마법을 시전했다. 아케인이 암흑 마법으로 흡수시켰지만 발화점 이상으로 올라간 온도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다.

화염이 방 안을 뒤덮었다.

수천 장에 달하는 서류도, 정밀한 마법 장치도, 취급하기 어려운 연금 물질도 변성되어 갔다.

무심하게 불꽃을 바라보던 알페아스는 던전을 나섰다.

하지만 아케인은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불을 꺼야 한다. 아니,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실험 데이터만큼은 지켜야 한다.

“안 돼, 안 돼!”

불 속을 오가며 아케인은 서류를 챙기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가 결국 기화 물질을 담아둔 상자에 불이 옮아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실험실이 통째로 날아갔고, 지하 던전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전해졌다.

무섭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불이 땅굴을 질주했다.

“으아아아! 알페아스! 용서하지 않겠다, 알페아스!”

아케인은 이를 뿌드득 갈았다. 필생의 역작을 완성하기 직전에 자료를 소실했다는 게 죽는 것보다 억울하고 분했다.

“반드시…… 반드시 살아남아 주마. 그리고 복수하리라. 기다려라, 알페아스!”

아케인은 불에 타들어 가면서도 알페아스를 증오했다. 오만한 알페아스는 끝까지 오만했던 것이다.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남은 그는 힘을 비축하는 한편 인맥을 총동원에 대륙을 뒤졌다. 하지만 알페아스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알페아스가 다시 세상에 등장한 건 그로부터 7년 후.

크레아스 도시에 있는 오젠트 가문의 본가였다.

“알페아스! 야, 인마!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클럼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알페아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깔끔했던 얼굴은 어디가고 광인처럼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누더기를 걸친 차림새에 피부는 까맣게 익어있었다.

클럼프는 알페아스를 욕실로 데려가 직접 씻겨주었다. 수많은 상처가 몸에 새겨져 있었다. 검사였기에 구별이 가능했다. 맹수에게 당한 상처, 고문을 당해 생긴 상처, 명백한 자해의 상처.

“죽을 곳이라도 찾아 돌아다닌 거냐?”

알페아스는 젖은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입을 열었다.

“딱히 죽을 생각은 없었어. 그렇다고 살 생각도 없었지만. 그냥 되는대로 돌아다녔어.”

“그래…….”

“얘기 들었어. 공인 검사가 됐다며. 축하한다.”

“우리 사이에 축하는 무슨. 또래 중에선 내가 제일 늦었어, 인마.”

클럼프는 머쓱하게 받아쳤다. 친구가 오지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동안 이루어 낸 성과가 딱히 자랑스럽지 않았다.

“미안하다.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신세 좀 지자.”

클럼프는 알페아스의 말라비틀어진 등을 쓸쓸하게 쳐다보았다.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마법사회의 초신성으로 불리던 그가 지금은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아는 귀족 하나 없는 부랑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목욕을 끝낸 클럼프는 시녀들에게 식사를 준비시켰다. 하지만 위장마저 쪼그라들었는지 알페아스는 음식을 많이 넘기지 못했다.

클럼프는 알고 있었다. 단지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찾아올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페아스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간 그는 술을 한 잔 내놓았다. 알페아스는 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만 7년 전의 모습처럼 총명한 눈빛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말해 봐. 방황은 끝났으니까 세상에 나타난 거겠지. 너도 재기해야 될 거 아냐.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도와줄게.”

알페아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1억 골드만 빌려줘.”

“1억…… 골드?”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다.

물론 클럼프는 공인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가주 승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설령 가주가 되었다고 해도 출자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 번에 빌려 달라는 것은 아냐. 4년에 걸쳐 인출할게. 재무사를 고용해. 월 한도를 700만으로 잡으면 별다른 타격 없이 운용이 가능할 거야. 이자도 낼 테니까. 단, 복리는 안 돼. 대신 연이율 20퍼센트로 맞춰 주지. 원금 상환은 1년 뒤부터 가능할 거야.”

상환 방식은 빌려주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만 클럼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아는 알페아스라면 이곳에 오기 전부터 최적화된 거래 조건을 생각해 왔을 테니까.

결국 4년 뒤에 원금 제외하고 8천만 골드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대체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가 더 궁금했다.

“어쩔 생각인데? 새로운 마법이라도 개발한 거냐?”

알페아스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나에게 열정은 없어.”

“그렇다면 1억 골드로 뭘 하려고?”

“학교를 지을 거야.”

“뭐? 학교?”

클럼프는 눈을 똥그랗게 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오직 자신이 최고라고 여긴 알페아스가 남을 가르치겠다니.

“너 대체 무슨 생각을…….”

알페아스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본 클럼프는 말을 맺지 못했다.

“다시는…… 나 같은 인간이 나와서는 안 돼. 죽기 직전까지 속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야. 한순간의 실수로 재능이 짓밟히지 않도록, 내 고통을 갉아먹으며 살아갈 거야.”

알페아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다. 그럼에도 흘러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클럼프의 눈도 붉어졌다.

바스타드 에리나. 아마도 알페아스는 그녀를 잊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에 결정은 쉬웠다.

알페아스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누군가의 성장으로 승화될 수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성공보다 행복을 꿈꿨던 이 친구도 먼 훗날에는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었다.

“빌려주마. 1억 골드.”

알페아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학교를 크레아스 도시에 세웠다. 공사 기간 동안 마법사 일을 하며 이자를 갚아 나갔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교사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4년 후.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교장 미르히 알페아스는 오젠트 가문에 1억 8천만 골드를 완납했다.

\* \* \*

어비스 노바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자 알페아스는 천천히 눈을 떴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지만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거슬러 되풀이한 40년의 세월은 그토록 길고 무거웠다.

## [97] 빛을 잃은 천재(6)

“스승님…….”

사드는 선뜻 말을 걸지 못했다. 과연 알페아스는 예전의 알페아스인가? 인간은 미래를 모르기에 희망을 갖는다. 하지만 알페아스의 기억에는 희망이 없었다. 그 어떤 행복한 기억도 끔찍한 고통에 파묻혀 버릴 뿐이었다.

알페아스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한 방울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고맙구나, 사드.”

인자한 말투에 사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로 괜찮으신 거죠?”

“아무렴. 너에게 험한 말을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게 예전의 나란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스럽죠. 저는 스승님이 잘못되실 것 같아서 차라리 그대로 계셨으면 하고…….”

알페아스는 사드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너다운 판단이었다. 어쩌면 그게 좋았을 수도 있겠지.”

“스승님, 그럼…….”

사드는 다시 불안해졌다. 어쩌면 처음의 생각대로 밀고 나갔어야 했는지 모른다. 알페아스에게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탈출의 기회였을 테니까.

“그래. 결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 하지만…….”

알페아스는 에리나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처음 무도회장에서 만나 고백했던 순간을 떠올리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오직 한순간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란다.”

“그렇군요.”

사드는 비로소 안심했다. 알페아스는 예전의 그와 한 치의 다름이 없는 알페아스였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던 에리나란 여인은, 그렇게 알페아스의 가슴속에 고통으로, 하지만 내칠 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스승님, 이번 일을 저지른 자는 아케인입니다. 현재 에텔라 선생이…….”

“당했을 때부터 직감은 하고 있었다. 설명을 들을 때가 아니구나. 일단 움직이자.”

알페아스가 문으로 걸어가자 사드가 뒤를 따랐다. 1차 고비는 넘겼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전교생이 아케인의 마수에 걸린 상황이었다.

‘제발 늦지 않아야 할 텐데.’

무한으로(1)

알페아스의 과거를 알게 된 시로네 일행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가슴이 아릴 만큼 슬픈 사랑이야기였다.

“교장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공인 4급의 마법사에 명문 학교의 교장.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시절의 알페아스는 정말로 대단했다. 약관의 나이에 광양자설을 입증한 골드서클 수상자. 특히나 기억 전이 실험은 마법사회에서도 이제야 연구가 들어간 진보적인 생각이었다.

“분명 알페아스는 천재였다. 하지만 나약했지. 조금만 버텼어도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야. 하지만 사소한 정으로 모든 걸 망쳐 버렸다. 나는 그런 알페아스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시로네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케인은 세상이 인정하는 악당이지만 또한 마법사였다. 적어도 에리나의 실험에서만큼은 그는 훌륭한 조력자였을 뿐이었다.

“그래. 교장 선생님이 당신의 자료를 훼손시킨 건 위선일지도 몰라.”

아케인의 살기가 누그러져 있었기에 시로네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알페아스의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긴, 네 눈에는 공인 4급이 대단해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최고의 자리에는 오를 수 없다. 에리나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법은 마법인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알페아스는 자격 미달이었다.”

시로네는 고개를 저었다. 무엇이 옳은지는 역사가 말해주겠지만 알페아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만약 실험을 더 진행했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겠지. 당신은 거리낌 없이 인체 실험을 자행했을 테니까.”

“부정하지 않으마. 하지만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구할 수 있다. 어차피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게 지성의 도리 아니겠느냐? 만약 네 눈앞에 정신지체아를 둔 부모가 있다면 어쩔 테냐? 그때도 가식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아케인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찡그렸다. 하지만 시로네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었다.

“당신 말대로 1명의 희생으로 만 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합리적인 선택이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1명을 희생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만 명이 죽는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시로네는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다.

“만 명이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인간인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사람의 목숨을 저울질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한 거야. 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날도 오겠지. 당신이 하려는 짓은 인간의 위에 서려는 독재자와 다르지 않아.”

아케인은 시로네가 자신의 대척점에 있음을 깨달았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없다? 누군가는 이를 선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수긍할 인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선악의 중간에서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을 찾아 헤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로네는 선의 가장 끝에 있었다. 잔혹한 살인마도, 인류를 구원한 성자도 모두 탈인간적이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대중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너의 삶도 평탄하지만은 않겠구나. 여기서 죽는 것도 너에게는 축복일 것이다.’

마법사는 지성을 기반으로 선과 악을 선택한다. 악의 효율성이야말로 인류를 발전시킨다고 믿는 아케인에게 시로네는 반드시 싹을 잘라내야 하는 미래의 수적이었다.

“우리는 어울릴 수 없는 부류로구나. 애석하지만 죽어 줘야겠다.”

시로네는 흠칫 물러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력이 쇠한 것이 확실히 느껴졌던 아케인이지만 지금은 진정한 대마법사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놀랐느냐, 애송아? 마법이란 오묘한 것이지.”

마법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마법사가 퓨어 마법을 시전할 때의 정신적 피로도는 일반인이 48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했을 때와 맞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케인은 이런 산술적 계산을 무시하고 순식간에 힘을 끌어올렸다.

“이것으로 끝내자. 고통은 없을 것이다.”

아케인의 몸에서 그림자가 솟구치더니 검은 장막이 하늘을 뒤덮었다. 거대한 크기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카니스가 선보였던 어둠의 권능과는 스케일부터가 달랐다.

아케인이 오른손을 치켜들자 장막이 주먹의 형태로 뭉쳤다. 시로네는 순수하게 감탄했다. 주먹의 크기로 미루어보았을 때 추락했을 경우 분지의 절반이 날아갈 정도였다.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어.’

어둠의 권능을 수치화하면 단위 정육면체(가로, 세로, 높이 1센티미터)에서 발휘되는 힘은 대략 0.1N으로, 개미의 턱관절보다 조금 나은 정도다. 하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천 톤에 달하는 막대한 힘으로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만 추태를 멈추시오, 스승님.”

분지에 있는 모두의 시선이 절벽으로 돌아갔다. 알페아스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이어서 한 줄기의 빛이 굉음을 내며 휘어들더니 사드가 알페아스의 옆에 착지했다.

“사드 선생님!”

시로네 일행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알페아스와 사드가 도착한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사드는 어둠의 권능을 올려다보더니 파이어 선을 시전했다. 화염 줄기가 이중 나선의 형태로 솟구치더니 거대한 불덩어리로 모여들었다.

“우와…….”

주위의 풍경이 백광으로 탈색되자 눈조차 뜰 수 없었다. 하지만 아케인은 망막이 타 버릴 정도의 빛을 암흑 마법의 힘으로 상쇄시켜 똑바로 노려보았다.

“흐음.”

파이어 선을 향해 손바닥을 펼치자 하늘에 떠 있는 어둠의 권능이 똑같은 동작을 취하며 움직이더니 거대한 불덩어리를 움켜쥐었다.

치이이이이이!

시로네는 몸을 떨었다. 무언가가 이토록 거대한 소리로 타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다시 세상이 어둠에 잠기자 사드가 인상을 찡그리며 스피릿 존을 공격형으로 변환시켰다.

“쳇! 짜증 나는 영감탱이……!”

알페아스가 손을 들어 말렸다.

“그만두거라, 사드.”

“하지만 스승님…….”

“내 일이다. 나와 아케인의 일이야. 여기서부터는 나에게 맡기려무나.”

알페아스는 느긋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아케인도 파이어 선을 꺼트린 채로 머무는 어둠의 권능을 장막의 형태로 되돌려 하늘에 펼쳤다.

“늙었구나, 알페아스. 하긴, 시간의 마법사도 세월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인 게지.”

알페아스는 40년만의 인사를 무시했다. 적어도 아직은…… 어리석고 얼빠진 두 노인네가 과거의 일을 청산할 때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지나 부상을 당한 이루키와 네이드, 시로네를 살핀 그는 마지막으로 에텔라를 돌아보았다. 이미 아케인과 충돌했음이 분명한 피멍이 새하얀 피부에 번져 있었다.

“고생했구나, 에텔라. 내가 부도덕한 탓이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학생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알페아스는 고개를 저었다. 마법, 체술, 심법,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녀가 교사 면접을 보러 왔을 때는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를 고용한 자신의 판단이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학생들 모두가 무사한 지금의 상황은 없었을 터였다.

“교장 선생님. 조심하세요.”

시로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기력이 소진한 아케인이라면 공인 4급의 알페아스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의 아케인은 단언컨대 최고의 상태였다.

알페아스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웃음을 지었다.

“걱정하지 말거라. 등가교환의 원칙에 어긋나는 마법은 없으니까.”

“하지만 아케인은 분명 정신력이…….”

“그래. 회복되었겠지. 하지만 그것 또한 마법이란다.”

“마법이라고요?”

“어비스 계열의 마법은 기억을 통제하지. 아케인이 창조했고 아케인이 가장 잘 구사하는 마법이란다. 정확합니까, 스승님?”

아케인은 콧방귀를 뀌었다.

“치매는 아닌 모양이구나. 참고로 말하자면 네가 당한 마법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어비스 노바라는 마법이다. 효과는 직접 겪었으니 말할 필요 없겠지.”

“훌륭한 마법이었습니다. 덕분에 예전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죠.”

“허세 떨지 말거라. 겁에 질려 도망이나 친 주제에. 보나마나 눈물이나 질질 짜고 있었겠지.”

“바로 맞혔습니다. 하지만 스승님도 안 본 사이에 많이 약해지셨군요. 100살이나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어비스 메모리까지 시전해야 할 정도로 고전하다니요.”

아케인은 화내지 않았다. 알페아스가 침착하면 자신도 침착하다. 40년 묵은 증오는 고작 말 같은 것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알페아스는 폭풍전야의 여운을 즐기듯 시로네에게 고개를 돌렸다.

“시로네. 마법을 시전하려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집중이 필요하단다. 보통 사람이 1시간에 걸쳐 집중한 결과물을 1초에 써버리는 셈이지. 그래서 아케인은 이렇게 한 것이란다.”

알페아스가 검지로 관자놀이를 두드리며 말했다.

“바로 자신의 머리에 시전한 것이지. 기억을 지우는 마법을.”

“아…….”

그런 방법이 있었다. 뇌를 사용한 기억을 지워버리면 정신적 피로도는 사라진다. 물론 기능적으로 과부화가 걸릴 수밖에 없지만 한 번 정도라면 충분히 정신력을 회복할 수 있을 터였다.

알페아스는 시로네의 심정을 이해했다. 빌토르 아케인. 비주류인 암흑 마법으로 100년의 세월을 전장에서 버틴 마법사였다. 과거의 원한이야 어찌 됐든 실력만큼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대담하고 멋진 기술이지. 아케인은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마법사란다. 그러니 너도 기억해 두거라. 최후의 수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결코 전투마법사라 할 수 없다는 것을.”

## [98] 무한으로(2)

아케인이 아니꼬운 표정을 지었다.

“흥. 네가 내 칭찬을 하다니.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

“괜찮겠소? 정신력이 복원되었다고는 하나 결국 뇌의 착각에 불과. 여기서 더할 생각이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법에 공짜는 없다. 어비스 메모리로 회복된 정신력은 자칫 뇌사를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를 걸고 이루어낸 등가교환이었다.

“그래서? 결국 날 막아 보겠다는 거냐?”

“물러가 준다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두가 무사하기에 제안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집념을 버리지 못한다면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요.”

“크크크. 예나 지금이나 혓바닥은 일품이로구나. 생각해 주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밖에 모르지. 내가 물러나면 네놈의 과거가 덮어질 줄 아느냐? 이미 늦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는 물론이고 어비스 노바에 당한 학생들도 귀는 열려 있으니, 너는 더 이상 교장으로 있지 못할 것이다.”

시로네는 기억을 잃은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마법이 풀리면 이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모두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전투가 무사히 끝나더라도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껄껄! 이제야 상황파악이 되느냐? 차라리 여기서 전부 죽여 버리는 건 어떠냐? 그렇다면 내가 대신 덮어써줄 용의도 있건마는?”

알페아스는 살며시 입꼬리를 올렸다.

“원 농담도.”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는 건 어떠냐? 나야말로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에리나가 남긴 유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 보거라. 내가 이룬 결과물을. 마도 생물체 하비스트다!”

시로네 일행은 아케인이 가리킨 곳을 돌아보았다. 하비스트가 걸레짝처럼 널브러진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뭐, 약간 볼품이 없어지기는 했다만. 어쨌거나 실험은 성공했다. 네가 나를 도운다면 더욱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터. 또한 그것이야말로 에리나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다.”

에리나의 이름을 들은 알페아스의 눈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다.

“스승님. 제발 철 좀 드시오.”

아케인도 비로소 살기를 드러냈다. 시시껄렁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전부 의미 없는 말에 불과했다. 처음부터 어울릴 수 없는 악연이었다.

“네까짓 게 나를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교장? 웃기지도 않는군. 똑똑한 척하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알페아스.”

허공에 펼쳐진 어둠의 권능이 다시 주먹의 형상으로 뭉쳤다. 그에 맞서 알페아스도 천천히 양손을 들고 마법을 시전할 준비를 했다.

“아니, 이것이 옳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알페아스는 손바닥 사이에 광자를 압축시켰다. 빛의 마법사라면 누구나 시전할 수 있는 광자 출력을 보자 아케인이 불쾌한 듯 코웃음을 쳤다.

“그딴 것으로 나를 막겠다고? 약해졌구나, 알페아스.”

“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오.”

“껄껄! 가장 싫어하는 말이 아니었던가? 해 보기 전에 알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알페아스는 어디 갔느냐?”

“마법사는 미래를 사는 자. 비록 총기는 떨어졌으나 나도 늙기만 하지는 않았소. 내가 당신의 40년을 계산하지 못했을 것 같소?”

“호오. 오늘을 예견했다? 그래서 준비한 게 고작 광자 출력이냐?”

“이것으로 끝냅시다.”

알페아스는 양손을 하늘로 쳐들었다. 그러자 손바닥 사이의 광자가 압축되면서 먼지보다 작아졌다. 동시에 아케인이 주먹을 휘둘렀다. 거대한 어둠의 권능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이것으로 끝낸다. 40년의 울분을 모조리 쏟아 내는 일격이었다.

시로네 일행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어둠의 권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막상 가까이서 보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알페아스의 양손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두 팔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이어지더니 수십 개의 잔상으로 쪼개지기 시작했다. 지켜보는 자들의 눈빛에 하나같이 의아함이 담겼다.

‘뭐지?’

알페아스의 잔상은 지독히도 느리게 움직였다. 손바닥에 압축되어 있던 광자가 순간 사라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둠의 권능은 아직 거리의 절반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로네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아니, 숨을 쉬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다. 티끌보다 작은 한 방울의 광자만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광자는 거대한 어둠에 퐁당 빠져들었다. 물결처럼 일어난 파문이 느려진 시간만큼이나 천천히 진폭을 일으키며 멀어져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번쩍!

세상을 백지로 만드는 강력한 빛의 폭발이 일어났다.

어둠의 권능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퍼져나갔다. 마법학교 전체로 퍼지는 광채가 중심부부터 약해지더니 고리의 형태로 소멸했다.

시간이 정상으로 되돌아오자 시로네 일행은 황당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조차 사라진 밤하늘에 창백한 달이 떠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마법이야?’

포톤 캐논처럼 물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샤이닝처럼 지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찰나의 순간 최강의 빛을 폭발시키도록 만들어진 마법이었다.

아케인의 인상이 일그러졌다.

“알페아스…….”

“빅뱅이라는 마법이라오. 협회에 올리기에는 부끄럽지만, 작별 선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40년 동안 도망만 다닌 것은 아니었구나.”

아케인은 알페아스의 노림수를 깨달았다. 암흑 마법의 대항마로 개발한 마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알페아스는 오직 이 순간, 이 상황만을 상정하고 40년 동안 빅뱅을 갈고닦은 것이다.

“제법이었다, 너치고는.”

아케인의 두 무릎이 쿵 하고 땅을 찍었다. 어비스 메모리의 후폭풍으로 뇌의 기능이 심각할 만큼 떨어진 상태였다.

“좋겠구나, 알페아스. 50년을 건 베팅이 성공했다. 천하의 아케인을 이겼으니 명성이 오를 터. 꿈에 그리던 대마법사라도 되고 싶은 게냐?”

알페아스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순간에서도 우열에 집착하는 호승심. 그게 오늘날의 아케인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스승님은 더 이상 대마법사가 아니오. 그렇게 불렸던 건 벌써 50년 전입니다. 10급의 새내기가 2급의 대마법사가 되고도 남을 시간이지요. 우리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야망을 갖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어찌 그걸 모르시오?”

아케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다. 비록 패했으나 제자에게 훈계를 들을 정도로 살아온 세월이 멋없지는 않았다.

“어째서 네가 오만한 알페아스인 줄 아느냐? 재수 없이 불행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진실을 말해 주마. 너는 천재가 아니다. 불행에서 도망이나 치는 덜떨어진 마법사일 뿐이야.”

아케인은 부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늙었다고? 나는 네 나이에 대마법사에 올랐다. 솔직히 말하는 게 어떠냐? 자신이 없다고. 더 이상 올라갈 자신이 없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더냐?”

“오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오. 나이를 먹었으면 그에 맞는 성찰이 있어야 할 터. 하지만 스승님은 지금도 달콤한 야망만을 좇는 소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껄껄껄! 어리석은 알페아스여!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게냐?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아라. 이 세상에 응당 그래야 한다는 정언명령 따위는 없는 게야!”

아케인의 몸에서 다시금 무시무시한 기운이 폭발했다. 어비스 마법으로 또다시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을 깨달은 알페아스가 놀란 눈을 치켜떴다. 한 번의 어비스 메모리는 뇌가 버티겠지만 두 번째는 거의 절대적인 확률로 죽음이었다.

“어리석은 영감탱이! 죽으려고 작정했소?”

아케인은 비웃음으로 응수하고 어둠의 권능을 시전했다. 발밑의 그림자가 분지를 덮을 만큼 확장되더니 기억을 잃은 학생들을 허공으로 들어 올려 절벽으로 이동시켰다.

이번만큼은 알페아스도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그만 두시오! 무의미한 살생일 뿐이오! 이런다고 대체 당신에게 무엇이 남는단 말이오!”

“승자의 만족감이 남는다.”

“바보천치 같으니! 그 나이를 먹고도 이기고 싶소! 당신이 언제까지고 소년인 줄 아냔 말이요!”

“어리석은 알페아스여. 똑똑히 들어라.”

생의 마지막 순간, 아케인은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법사는…… 영원한 소년이다.”

어둠의 권능에 붙잡힌 400명이 바가지로 퍼 올리듯 절벽 바깥으로 날아갔다. 알페아스는 이해할 수 없었다. 목숨과 맞바꾸어서 얻은 정신력을 이런 어리석은 짓에 써버리다니.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오? 이런 철딱서니없는 신념이 무엇을 가져다준단 말이오?’

어쨌거나 지금은 아케인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빅뱅 마법에 전력을 쏟아부은 알페아스는 황급히 옆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학생들을 구하게!”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사드가 섬광으로 변해 날아갔다. 시로네가 뒤를 따르고 이어서 네이드와 이루키도 절벽으로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무려 400명이었다. 어차피 전부를 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사치일 정도로 상황은 다급했다.

절벽의 중턱으로 내려온 사드는 에어 계열의 마법으로 공기의 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의 벽을 만들어야 하기에 두께는 얇아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내구력이 약한 부분에 구멍이 뚫리면서 학생들이 아래로 쏟아졌다.

사드보다 밑에서는 이루키와 네이드가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을 돌리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 어린아이부터 졸업반 성인들까지 우수수 추락하는 모습에 눈물이 차올랐다.

“빌어먹을! 젠장, 젠장!”

이루키는 부옇게 아른거리는 시야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하더니 한 줄기의 섬광이 수직으로 내려왔다.

“시로네!”

섬광은 이루키마저 지나치며 계속 아래로 내려갔다.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시로네의 눈에 붉은 머리의 소녀가 들어왔다.

“에이미!”

시로네의 목소리를 들은 에이미는 시선을 돌렸다. 어비스 노바에 걸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반응이었기에 시로네는 일말의 희망을 담아 재차 소리쳤다.

“에이미! 정신 차려!”

‘정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을 차단하는 어비스 노바에 걸리면 생각의 소스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에이미! 에이미!”

그럼에도 에이미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카르미스 가문의 에이미이기 때문이다.

“에이미! 정신 좀 차려 봐!”

‘귀찮다구우. 제발 이러지 마아.’

“나야! 시로네란 말이야!”

‘시로네?’

무슨 뜻이었더라? 모르는 단어였다. 하지만 에이미는 자꾸만 뇌를 간질이는 세음절의 말을 놓아버릴 수 없었다.

‘뭐지, 뭐지? 뭐였더라. 되게 궁금하네.’

에이미는 계속 생각했다. 대뇌 피질에 전기가 퍼지며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하나의 패턴이 번쩍 터지면서 시로네의 의미가 몸으로 밀려들었다.

‘아, 맞다. 시로네! 시로네였다.’

에이미는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는 듯 숨을 크게 내쉬었다. 동시에 눈이 붉게 타오르면서 홍안의 능력이 발동했다. 어비스 노바가 순식간에 타들어가고 기억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이런 멍청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특질은 홍안. 학술적으로는 자기상 기억이라고 한다.

카르미스 가문의 사람들은 붉은 눈이 발현되면 특정시점으로 자신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

이를 테면 검을 들어 베는 동작을 저장해두고 오차 없이 똑같은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는 게 가능하다. 게다가 스키마처럼 느낌의 영역이기에 오류의 수정 또한 즉각적이었다.

‘한 번의 실수는 발전의 밑거름, 두 번의 실수는 가문의 수치’라는 명언이야말로 그들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뭐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에이미는 자기상 기억을 토대로 신경 레벨에서 오차를 분석했다. 현재 중력가속도의 영향권에 있다. 몸의 중심은 87.6도 기울어졌고 심장박동은 1.6배나 빨랐다.

‘추락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이 없었다. 시로네가 섬광을 타고 내려오는 게 보였다. 그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어떻게 시로네를 잊을 수 있단 말인가.

## [99] 무한으로(3)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먼저 다가와 주었는데, 커피를 건넸었는데,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쳐 버리고 말았다. 후회로 점철된 장면들을 외면하듯 에이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온힘을 다해 소리쳤다.

“시로네!”

시로네는 미소를 지었다. 에이미가 기억을 되찾아서 다행이었다.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시로네로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고마워, 에이미.”

시로네의 눈물이 에이미의 뺨에 떨어졌다.

‘왜 울어, 시로네?’

에이미는 불안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러다가 시로네의 눈빛에서 점차 생의 의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시로네! 안 돼!”

“미안해. 약속을 못 지켜서.”

에이미를 끌어안은 시로네는 이모탈 펑션은 완전히 개방했다. 의식이 무한으로 확장되면서 자아가 물에 풀어지듯 옅어지기 시작했다.

‘모두 안녕…….’

아버지, 엄마, 오젠트 가문의 식구들, 학교의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에 시로네는 웃을 수 있었다. 거대한 빛이 절벽 아래를 충만하게 채웠다. 추락하는 학생들, 이루키와 네이드, 사드까지 광채에 휩싸여 모습을 감췄다.

다음 순간 거대한 섬광이 수직으로 솟구쳤다.

무려 400명의 인원을 동시에 이동시키는 매스 텔레포트였다.

‘아아, 그렇구나.’

땅바닥에 드러누운 아케인은 절벽 위로 치솟은 섬광이 수십 갈래로 분산되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확신이 들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평생을 놀아도 아쉬운 놀이터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냐, 알페아스?’

한 세상을 풍미했던 전설의 대마법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스승님?”

아케인의 주검 앞에서 카니스는 멍해졌다. 그래도 제자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는 유언조차 남기지 않은 채 끝까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떠나 버렸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우리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아케인에게 달려간 카니스는 멱살을 흔들었다.

“일어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내가 죽으면 되잖아! 왜 나만 남겨 두고 가 버리는 거야!”

아린은 슬픈 눈으로 카니스에게 다가갔다. 초경에 비친 그의 모습은 구정물 같은 액체로 이루어진 사람의 형상이었다. 그 형상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액체처럼 퍼졌다가 다시 사람의 형태로 솟아오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아니야, 카니스.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를 이용했어. 천하의 악당이라고.”

“크크크,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제야 깨달은 모양인데.”

하비스트가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카니스. 전부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아케인도, 나도, 그리고 언젠가는 아린도 죽겠지.”

하비스트를 노려보던 아린은 황급히 카니스에게 고개를 돌렸다. 역시나 충격을 받았는지 사람의 형상이 붕괴되면서 질펀한 물로 풀어져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다.

“왜? 내가 뭘 어쨌는데? 라둠에서 살아서? 재수 없는 자식이라서?”

“나약하니까.”

하비스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언제까지 남들이 알아주기만 바라면서 살 거냐? 이래서 살아야 한다느니, 이래서 죽어야 한다느니, 그런 건 없는 거야. 아케인은 자신의 인생을 살다 간 것뿐이라고.”

아케인은 악의 신념을 지키는 대가로 목숨을 버렸다. 하비스트는 자폭을 선택하면서까지 마도 생물체로서의 계약을 이행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거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눈을 가린 채 마음대로 날뛰는 망아지에 지나지 않았다. 온갖 껍데기로만 이루어진 삶이었던 것이다.

“스승님처럼…….”

“그래, 그리고 저 소년처럼.”

400명의 학생들이 널브러진 중심에 시로네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끝까지 신념을 지켜냈다.

카니스는 하비스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좀 어때?”

“어떠냐고 한들, 죽겠지. 생명에 기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아린이 말했다.

“나랑 주종의 계약을 맺으면 돼. 카니스는 정신력을 소진해서 버틸 수 없을 거야."

하비스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뭐? 어째서? 이대로는 소멸하고 말 거야!”

“내 주인은 카니스니까.”

하비스트의 말이 카니스의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다. 이제는 자신도 신념의 기치를 세워야 할 때였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자칫하다가는 둘 다 목숨을 잃게 될 터였다.

“하비스트. 너를 종속으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두 번의 배신은 용서하지 않겠다.”

“크크크. 알아 모시죠. 주인님.”

“카니스! 너무 위험해! 만약 잘못되면……!”

아린은 말을 멈췄다. 액체로 이루어진 카니스의 형상에 진흙이 스며들면서 단단해지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될까? 그녀가 초경으로 바라보았던 시로네의 모습처럼.

카니스는 하비스트에게 손을 가져다댔다. 종속의 계약이 진행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하비스트가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의식이 어둠에 잠기면서 그의 눈이 스르륵 감겼다.

카니스 일행과 떨어진 곳에 알페아스는 침통하게 서 있었다. 구사일생으로 학생들을 구하기는 했지만 잃은 게 너무나 많았다.

“교장 선생님.”

에텔라 또한 같은 마음이었다. 오늘을 기점으로 마법학교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억을 되찾은 학생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알페아스가 저지른 40년 전의 실수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에텔라, 나는 죄인일세.”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는 삶이라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악입니다.”

알페아스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아케인과 마찬가지로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암흑 마법을 대마법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일세. 하비스트는 기억 전이 분야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 어비스 노바는 마법협회에 규정 마법으로 등록될 것이야.”

아케인의 주검 앞에서 알페아스는 손을 모으고 죽음을 애도했다.

“언제나 소년이었던 대마법사 아케인. 당신이 걸어온 마법의 길은 후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눈을 뜬 알페아스는 홀가분해 보였다. 반면에 에텔라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전교생이 목숨을 위협당한 사건이었으니 학교 내에서 수습할 문제가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나 또한 처우를 기다리는 처지일 뿐. 징벌의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보다는 오늘의 영웅을 치하하는 게 어떻겠나?”

알페아스는 시로네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보면 볼수록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는 소년이었다. 설령 자신이라도 400명을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큰일 났어요!”

시로네가 쓰러진 곳에 에이미가 울먹거리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알페아스와 에텔라는 걸음을 재촉했다. 멀리에서 이루키와 네이드가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에이미가 먼저 소리쳤다.

“시로네가 숨을 쉬지 않아요!”

신을 만나다(1)

시로네는 거대하게 퍼져나갔고 또한 옅어졌다. 세상에 대한 미련마저 망각한 채 모든 것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때 어떤 강력한 힘이 그를 한 점으로 끌어당겼다. 인간에게 생명 이상의 것이 있다면, 영혼의 하이재킹이라 불러도 무방한 사건이었다.

“헉! 헉!”

시로네의 정신이 재조립되면서 이모탈 펑션을 시도하기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죽음의 공포에 잠시 전율한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몸 상태를 살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이상은 없는 듯했다.

“여긴 어디지?”

백색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단색의 풍경이 무한히 펼쳐진 이곳에서는 거리감을 느낄 수 없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았으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굉장히 묘하다. 마치 오감이 마비된 기분이야.’

시로네는 문득 독특한 생각을 떠올렸다. 실험삼아 천천히 무릎을 구부린 다음 계단을 오르듯이 발바닥을 내딛어 보았다. 놀랍게도 몸이 떠올랐다.

“어라?”

시로네는 끝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본 그는 말문이 막혔다.

“…….”

높은 곳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어디로 이동하든 조금 전과 같은 백색의 풍경일 뿐이었다.

“거리가 없구나.”

계측할 수 없다면 공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시로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 보았다. 예상이 맞았다. 어디로 움직여도 이동한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움직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멋지네요. 공간의 의미를 간파하다니. 역시 이곳에 올 자격이 있어요.”

시로네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차피 이곳에는 방향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누구죠? 저는 죽은 건가요?”

백색 풍경의 틈새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걸어 나왔다. 거리감이 발생하자 풍경이 순식간에 변했다.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신전이 시로네를 짓누를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스케일이었다. 고대의 신전도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 수백 개의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하나의 높이가 대략 2킬로미터에 달했다.

“여기는 대체…….”

“반가워요, 시로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물색의 머릿결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여성이었다. 시로네는 태어나서 이토록 아름다운 여자를 처음 보았다.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재의 가치. 사랑에 빠진 남성이 자신의 연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듯 이곳에서 그녀의 가치는 절대적이었다.

“아차!”

시로네는 황급히 앞을 가렸다. 발가벗은 것도 모른 채 당당하게 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후후.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이곳은 당신의 세계가 아니니까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원래의 세상에 머물고 있답니다.”

여자가 손을 휘두르는 것으로 순식간에 옷이 입혀졌다. 시로네는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살펴보다가 결국 자포자기하고 말았다. 당장 떠오르는 건 한 가지였다.

“여긴 저승인가요?”

“아뇨. 저승은 아니랍니다. 당신이 살던 곳과 다른 스폿(점)일 뿐이죠.”

시로네는 고개를 갸웃했다. 점은 공간이 없는 1차원이다. 점이 움직여 선이 되고, 선이 움직여 면이 되고, 면이 움직여 비로소 3차원 공간이 되는 것이다.

“설마……?”

시로네는 조금 전에 머물렀던 백색의 공간을 떠올렸다.

“맞아요. 그게 스폿입니다.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녀의 말대로라면 거리감을 느낄 수 없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1차원에 갇혔더라도 자신의 육체는 3차원이다. 오른팔과 왼팔의 거리를 잴 수 있다면 공간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아하. 1차원에 3차원이 들어 있다는 거군요.”

“역시 통찰력이 대단하군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시공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세상이라도 멀리서 보면 한낱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점이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무한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시로네는 비로소 차분해질 수 있었다.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이라면 설령 저승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럼 당신은 누구죠?”

여자는 백치처럼 웃었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시로네에게는 그것조차 아름다웠다. 그녀가 바로 이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저는 신이랍니다.”

\* \* \*

마법학교는 일대 혼란 상태였다.

아케인의 시신을 수습하고 학생들을 숙소로 돌려보내는 작업에만 꼬박 8시간이 걸렸다.

학생들은 여전히 기억을 차단당한 채 각자의 방에 누워있었다. 교사진이 기억을 되찾으면 작업에 탄력이 붙겠지만 전교생이 정신을 차렸을 때 발생할 소요를 생각하면 골이 지끈거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의 용의자인 카니스와 아린마저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결국 의무실로 이동한 시로네를 돌보는 사람은 네이드와 이루키, 에이미뿐이었다.

사실 돌본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시로네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고 심장 또한 멈춰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 [100] 신을 만나다(2)

“시로네…….”

에이미는 울어서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시로네의 손을 붙잡았다. 교사들도 현재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시로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에이미는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다. 시로네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집착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네이드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선배님, 걱정하지 마세요. 시로네는 돌아올 거예요.”

“맞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 도대체 왜 죽어? 매스 텔레포트를 시전했다고 죽을 거였으면 처음부터 발동이 안 됐어야지. 시로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해.”

이루키가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자신도 밤새도록 곁을 지키고 있지만 죽은 자를 살았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세상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아케인도 살았어야지. 마법을 시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수 있어.”

“아케인과는 상황이 다르잖아! 시로네는 이모탈 펑션을 완전히 개방한 거야. 그건 뇌 기능의 저하와는 아예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어쨌거나 용량을 초과한 건 똑같아. 인간은 어떤 변수로도 죽을 수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째서 죽었는지를 따지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

네이드가 인상을 찡그렸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여자 친구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었다. 그가 쏘아붙이려는 순간 에이미가 싸늘한 눈으로 이루키에게 다가갔다.

“너, 예나 지금이나 재수 없기는 마찬가지구나.”

이루키는 테이블에 턱을 괸 채로 에이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카르미스 가문이라. 하긴, 홍안이라면 정신 계열 마법에는 면역이겠군.’

홍안은 대륙에서도 유명한 특질이다. 그들의 정신을 침해할 수 있는 건 안티 매직 정도가 유일할 터이니 어비스 노바에서 빠져나온 것도 이해가 갔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였고 이내 관심 없다는 듯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자신의 기분이 안 좋다고 남을 비난하는 건 안 좋은 버릇이야.”

“아니. 너야말로 분위기에 초를 치고 있잖아. 너 뭐야? 정말 시로네의 친구 맞아? 어떻게 시로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죽었다고 했지.”

“그게 더 나쁜 말이잖아! 그리고 너, 클래스 파이브 주제에 어따 대고 반말이야?”

“기분 나쁘면 학생회에 회부해. 징계 따위 받으면 그만이니까.”

에이미는 참지 못하고 다가갔다. 그리고 이루키의 멱살을 붙잡고는 스키마의 힘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이루키의 두 다리가 지면에서 떨어졌다.

“다시 말해 봐. 하지만 이번에는 똑바로 말해야 할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이루키의 눈동자에는 감정이랄 것이 없었다. 그저 텅 비어 버린 눈동자로 에이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에이미도 속이 뒤집히면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었다.

“내가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해. 시로네는 죽지 않았다. 안 그러면 시로네 옆에 나란히 눕게 될 테니까.”

“시로네는 죽었어.”

“시로네는 죽지 않았다! 빨리 따라해!”

“시로네는 죽었다고.”

에이미의 홍안이 깜박거렸다. 자기상 기억으로 권격의 정확도를 설계한 그는 이루키의 3, 4번 치아를 노리고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이루키는 표정조차 변하지 않았다. 가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니 정확히 입술 앞에서 멈출 예정이었다.

예상대로 에이미는 타격 직전에 동작을 끊었다. 울분이 담긴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바라보며 이루키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아, 다행이다.”

“웃기지 마! 재수 없는 서번트.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주먹을 멈춘 의미도 모르겠지.”

에이미는 이루키를 때릴 수 없었다. 아무리 미워도 시로네의 친구였으니까.

“주먹을 멈춘 의미라. 쓸데없이 힘만 뺐다는 정도?”

에이미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래서, 그 터진 입으로 시로네도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거 알아? 너 같은 인간은 친구를 사귈 자격도 없어.”

“그럴지도. 하지만 너희는 자격이 있고?”

“뭐가 어째? 이게 진짜……!”

에이미는 재차 멱살을 끌어당기며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러자 이루키가 처음으로 인상을 찡그리며 멱살을 붙잡고 있는 손을 뿌리쳤다.

“에이, 씨!”

에이미가 손을 털면서 바라보자 이루키는 침대로 걸어가 시로네를 가리켰다.

“한심한 건 너희야. 이게 진짜로 살아 있는 걸로 보여? 숨도 쉬지 않고 심장도 멈췄어! 그런데 사실은 살아 있을 거라는 둥,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긴 거라는 둥, 그딴 헛소리나 지껄이는 너희가 무슨 친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라고! 시로네가 이런 상황인데 날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루키는 평소에 볼 수 없던 흥분한 모습으로 소리쳤다.

“살았다고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 같아? 그딴 헛소리 할 정신이 있으면 차라리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할 말을 찾아 입술을 깨물던 에이미는 결국 깨닫고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루키의 말이 옳았다. 시로네는 수학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네이드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이루키, 어떻게 살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을 리가 없잖아.”

“흥, 그게 너희들의 한계인 거야.”

이루키는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의무실에 정적이 흘렀다. 에이미가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가리자 네이드가 다독였다.

“선배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루키도 답답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됐어. 저런 자식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죽은 자를 살릴 방법을 생각하라고? 그게 더 큰 상처라는 걸 왜 모르는 거야?”

네이드도 그 말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루키다운 행동일 수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의무실을 나선 이루키는 복도를 걷다가 인상을 썼다.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니스는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아린은 불안한 듯 시선을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를 주동한 인물인 만큼 엄격하게 감시해야 하지만 현재 그들에게 신경을 쓸 만큼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게 문제였다.

물론 이루키도 마음의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도망치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즉에 도망쳤을 터였다. 그래 봤자 마법협회의 눈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사람 염장이라도 지르러 왔나? 아니면 이제 와서 사과라도 하려고?”

카니스가 등을 튕기며 벽에서 떨어졌다.

“둘 다야. 염장도 지를 겸 사과도 하러 왔다. 전투 중에 죽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무의미한 일로 시로네가 희생한 건 찝찝하니까. 하지만 시기를 잘못 잡은 거 같군.”

에이미와 싸우는 소리를 밖에서 들은 모양이었다. 이루키는 괜한 꼴을 보여줬다는 생각에 짜증스럽게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잘 생각했다. 지금 들어가 봤자 좋은 꼴 못 볼 거다. 의무실에 있는 여자애가 네 다리부터 부러뜨리고 시작할 테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 봐라. 난 간다.”

카니스는 앞을 지나치는 이루키를 시선으로 따라갔다.

“그딴 건 상관없어. 시기를 잘못 잡았다는 건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얘기야.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슨 사과를 하겠어?”

걸음을 멈춘 이루키는 카니스를 돌아보며 무섭게 눈을 부릅떴다.

“뭐?”

“너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이야. 죽은 건 죽은 거지. 송장을 눕혀 놓고 호들갑 떠는 꼴을 보니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서 말이야.”

이루키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죽다 살아난 주제에 말은 잘하는군. 그건 누구 생각이냐? 너? 아니면 그림자?”

“……여기서 한판 해 보자는 거냐?”

“시로네는 말이야,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꽤나 거슬리는 친구야.”

이루키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자 카니스의 미간이 구겨졌다.

“사실 나는 엄청 이상하고 나쁜 놈이거든. 그래서 스스로 제약을 걸기로 했지. 말하자면 시로네는 내 자물쇠 같은 존재란 말이야.”

“흥. 나약한 발상이군.”

“그런가? 하긴, 시로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은 안 했을지 모르지.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시로네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이루키에게서 무언가를 느낀 아린이 흠칫 물러섰다.

“왜냐하면 나는 시로네랑 다르거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미친 짓이라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로네가 반드시 살아서 나를 말려 주기를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카니스를 노려보는 이루키의 눈동자가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했다. 대뇌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안구를 통해 비치는 것이었다.

“만약 시로네가 이대로 끝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부터 죽여 버릴 테니까.”

카니스의 정신 채널이 열리면서 하비스트의 뇌파가 전해져왔다.

-카니스, 경고 레벨이다. 타깃팅에 걸렸어.

-알아. 서번트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 정도가 아니야.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스피릿 존의 움직임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의 정신 채널보다 1만 배 이상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카니스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하비스트와의 의견 교환은 생각의 속도보다 빠르다. 거기서 1만 배가 더 빠르다는 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안 되는 속도였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지?

-도시에서 3초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정보량이다. 상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는 범죄자의 신분이야. 여기서 사고를 일으키는 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여지가 있어.

카니스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이런 고집이야말로 그가 아케인의 수제자로 발탁된 이유였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다. 하비스트가 필사적으로 말리는 가운데 아린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당신도 시로네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이루키의 스피릿 존이 사라졌다. 초경을 통해 살기를 보고 있던 아린은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이루키는 마음을 다스렸다. 누구보다 냉철해야 한다. 감정에 휩쓸려 일을 그르치는 건 의무실에 있는 바보들만으로 충분했다.

“시로네는 죽었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도 나오지 않아. 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야.”

“아뇨. 당신은 시로네가 살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저 방에 있는 두 사람보다 더.”

이루키는 인상을 썼다. 서번트는 사건의 인과율을 계산하는데 최강의 능력이었다. 거기에 비논리적인 감성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지껄이는 거야?”

“저에게는 초경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물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인식하죠. 그래서 저는 사물의 형태를 기억하지 못해요. 매번 다르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제 눈에는 당신의 감정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죽은 건 죽은 거야. 감정이 끼어들 여지 같은 건 없어.”

“아뇨. 달라요.”

아린은 고개를 저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울고 있잖아요.”

이루키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린의 말대로, 초경 앞에서는 백 마디의 말이 무소용이었다.

그날 밤.

의무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에이미는 울다 지쳐 간이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네이드는 구석에 의자를 두고 선잠을 자고 있었다.

이루키는 시로네에게 다가갔다. 자는 것과 죽은 것은 느낌부터가 다르다. 차갑게 식어있는 시로네의 얼굴을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침이 되면 교사들이 시로네를 살피러 올 것이다. 장례를 치를 게 우선 방부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시로네를 살릴 방법은 없다고 봐야 했다.

이루키는 감정을 추스르고 품 안에 숨긴 메스를 꺼냈다.

‘반드시 널 살려 줄게.’

에이미와 네이드를 살폈으나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벌써 2일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제야 이루키는 메스를 들이댔다.

달빛에 반사되는 칼날이 시로네의 피부를 가르고 들어갔다.

## [101] 신을 만나다(3)

시로네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곳이 저승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개연성을 확보한 상태지만, 신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당신이 신이라고요?”

“믿기지 않나요?”

“글쎄요. 신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있어도 이 정도로 인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를 닮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이든 인간의 생각과 형태가 녹아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아요. 식물도, 동물도, 산이나 바다도 신을 닮았죠. 하지만 정도는 달라요. 기준은 창조성. 이를테면 다람쥐는 바위보다 창조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꽤나 신을 닮았어요. 그리고 시로네. 당신은 그중에서도 가장 신과 닮은 사람 중의 한 명이죠.”

여자는 손을 내밀어 시로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시로네. 나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지 않겠어요?”

시로네는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생소했다. 무엇보다 이곳은 저승이 아니라는 여자의 말이 뇌리에 남았다. 어쩌면 작은 희망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자는 의외라는 듯 시로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애석하지만 시로네, 돌아갈 방법은 없어요. 삶을 마치기로 한 건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닌가요? 이제 와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 각오했던 일이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정신을 되찾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아, 저기……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물론이죠. 신이라는 건 개념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이름이 없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후후, 무엇이든지요.”

“어째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자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것만으로도 신전이 요동치는 기분이었다.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어떤 말도 사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로네는 여자의 눈빛에서 읽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돌아갈 방법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돌아갈 방법이 있든 없든, 제가 없다고 한 이상 돌아갈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이유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 하는군요, 시로네. 제가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또 거짓말!”

여자의 어깨가 움찔했다. 시로네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당황하자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신전의 풍경이 일렁거렸다.

“당신, 정말로 신이 맞나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 물론 인간이 상상하는 신의 형태가 진짜 신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자의 반응은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여자는 무언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로네. 우리는 신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해가 생겼군요. 신은 당신의 생각만큼 숭고한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세상의 설계자일 뿐이죠.”

여자가 손을 내밀자 손바닥 위에 유리구가 떠올랐다. 유리구 안에는 작은 마을의 풍경이 담겨 있었고 드문드문 사람들이 서 있었다.

“보다시피 저는 마을을 창조했어요. 물론 모형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유리구에 손가락을 넣어 말에게 여물을 주고 있는 농부를 근처의 밭으로 옮겼다.

“자, 농부가 이동했죠. 공간이 변했다는 것은 시간을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시로네가 살던 세상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이죠. 저는 지금 이 마을의 신이 된 거에요.”

여자는 유리구를 시로네의 눈앞으로 내밀었다.

“신이란 결국 자신이 몸담은 차원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설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이 절대자로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재밌는 점이죠. 이 농부는 자신이 근처의 밭으로 이동한 것에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여자는 다시 유리구를 끌어와 양손바닥으로 떠받쳤다. 두 팔을 활짝 펼치자 마을이 순식간에 확장되면서 신전을 뒤덮었다.

시로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느새 마을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두 사람은 오솔길의 끝과 끝에 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밭을 매고 있는 농부에게 다가갔다.

“이 농부는 제가 만든 세계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르고 있어요.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이모탈 펑션이군요.”

“맞아요. 이모탈 펑션은 감각을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이 마을은 유리구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에 유리구를 넘어선 세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자는 농부의 어깨를 짚었다. 농부가 빛으로 변하면서 하늘 전체를 뒤덮었다. 그 상태에서 여자가 주먹을 내밀자 풍경이 축소되면서 마을 전체가 다시 유리구에 담겼다.

시로네는 가만히 유리구를 바라보았다. 농부에게서 퍼져 나온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농부는 이모탈 펑션을 통해 전체로 확장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는 없죠. 그것은 시로네, 당신도 마찬가지에요.”

시로네는 농부의 상태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만약 여자가 하이재킹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자신 또한 무의미한 빛으로 퍼져 버렸을 터였다.

“저에게 원하는 게 뭐죠?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시로네.”

여자는 유리구를 손바닥 사이에 두고 짓눌렀다. 그러자 유리구가 축소되면서 검은 점으로 압축되었다.

“스폿…….”

“네.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의 정체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세상도 결국 하나의 점에 불과하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시공간 매트릭스입니다.”

여자는 직접 보여 주었다. 유리구의 풍경이 점으로 사라지더니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세계……. 그러다가 손바닥을 맞붙이자 유리구가 사라졌다. 수십억 개의 세계가 한순간에 소멸했다.

“제가 만든 시공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시공을 창조하세요. 그렇게 되면 완벽한 우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 혁신을 원하고 있는 듯했다. 딱히 거북스러운 제안은 아니었다. 죽음을 감수한 대가로 다른 세계의 신이 된다면 괜찮은 결말이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왜죠? 거절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텐데요.”

“제가 당신의 시공에 들어간다면, 또다시 나와 같은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눈에 언뜻 슬픔이 스쳐지나갔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는 잠시였고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되돌아와 시로네에게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당신이 창조한 세계에요.”

“하지만 당신은 신이 아니에요.”

여자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적개심이 떠올랐다.

“당신은 저와 같은 세계에 몸담고 있는 인간이에요. 제가 완전히 해체되기 전에 이곳에 데려왔다는 게 증거죠. 정말로 신이라면 세상 밖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시로네, 내 말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을 부른 건 목적이 있어서예요. 거절하겠다면 지금이라도 해체의 과정을 밟을 수도 있어요.”

여자의 능력으로 재구성된 정신이다. 그러니 되돌리는 것도 자유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 이상 시로네는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었다.

“분해되지 않을 겁니다.”

여자는 시로네에게 손을 내밀고 해체의 전능을 시전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해체되지 않았다. 이미 스피릿 존으로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를 맞혔군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여자의 팔이 천천히 내려왔다.

“이제 알겠어요. 스피릿 존 또한 스폿이었던 거군요.”

스폿은 시공간 매트릭스의 원리에 의해 무한히 파고들 수 있었다. 정신체인 시로네가 또 다시 스피릿 존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이곳은…… 당신의 스피릿 존이고요.”

시로네는 빛의 에너지를 집약시켰다. 여자가 불쾌한 듯 인상을 찡그렸다. 시로네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적색 광채가 흉흉한 기운으로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금강승(1)

시로네 사망 5일째.

학생들은 모두 기억을 되찾았다. 특히나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보통 사람보다 정신력이 특출한 재인들이었기에 예상보다 후유증이 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정한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괴인들에게 학교가 점령당한 사건은 보안 시설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특히나 기숙사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의 규정상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양이었다.

학생 중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것도 학교의 유망주로 기대를 받은 아리안 시로네였다.

시로네는 이루키와 네이드의 요청으로 영안실이 아닌 의무실에 있었다. 상식적으로는 장례를 치러야 하지만 교사진들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아직까지 학생회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시로네의 사망 판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로네를 망령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을 회피할 작전을 짜고 있는 셈이었다.

물론 이런 방식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현재 그들은 교사 회의실에 모여 사안의 긴박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시로네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학부형에게도 말해야 하고요.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훗날 학교의 방침이 비난을 받을 겁니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학생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퍼지면 여파가 엄청날 거예요. 여태까지 쌓아 온 명성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학생을 살았다고 거짓말합니까? 결국에는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학교가 취해야 할 입장은 양심선언을 하는 겁니다. 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자는 게 아닙니까?”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진다는 건 왜 모릅니까? 현재 아케인의 제자들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범죄자를 놓친 것 또한 치명적인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현재 시로네의 장례를 미루는 교사들은 두 부류로 나뉜 상태였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자들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학생들의 분노를 수급하자는 쪽이었다.

반면에 정말로 시로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당시의 현장에 직접 관여했던 에텔라와 사드, 그리고 시이나 또한 시로네의 사망을 의심하는 입장이었다.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학생회가 소집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사들도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교사진이 조급해하는 데에는 학생회의 영향도 컸다. 수많은 가문을 등에 업은 학생들이 학교를 고발하기 시작하면 손을 쓸 적기를 놓치고 말기 때문이다.

“나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네.”

대다수의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교장 선생님!”

알페아스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했다. 시간을 끌수록 학교는 불리해진다. 하지만 그에게는 학교의 존폐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바로 시로네의 정확한 상태였다.

시로네는 죽었는가?

지성의 상징인 마법학교에서 발의하기에는 허무맹랑한 안건이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다. 만약 죽은 사람이 시로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의심이라도 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어쩌면 시로네만이 특별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알페아스는 머릿속 한 구석에 박혀 있는 미묘한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 [102] 금강승(2)

“시로네의 일을 속단하고 싶지 않네. 우리는 현재 언로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일세.”

알페아스와 의견을 같이 하는 에텔라가 첨언했다.

“시로네는 3개월 전에 이모탈 펑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극단적으로 개방했죠. 수도회에서는 이모탈 펑션을 정신적 승화 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는 지금 수도회의 입장을 들으려는 게 아니오. 최대한 빨리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들은 에텔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모탈 펑션은 수준이 아닌 경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배움이 깊은 교사라도 깨달음의 영역에서는 길바닥의 걸인보다 깊다고 자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에텔라에게 면박을 준 교사는 알페아스에게 직접 말했다.

“교장 선생님, 생각을 고치십시오. 외람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교장 선생님의 은원 관계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저희에게 학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대로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알페아스는 좌중을 둘러보았다. 수십 개의 눈초리가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었다.

“최악의 사태? 자네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사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폐교 명령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최악의 사태란 그런 게 아니지.”

어떤 교사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말했다.

“교장 선생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것보다 최악의 사태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학교에 있어 최악의 사태란, 학생들과 교사들이 전부 사망했을 경우일세.”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알페아스를 향하고 있던 시선들이 하나둘씩 엇갈렸다.

“시로네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살지 못했네. 또한 그 사망자의 명단에는 자네들도 포함되어 있을 터.”

알페아스는 학생의 죽음을 기리기는커녕 이용만 하려는 교사들의 근성이 실망스러웠다.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나. 그게 비록 1퍼센트도 안 되는 가능성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아이이지 않나. 그렇다면 적어도 해 볼 때까지 해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설령 학교가 문을 닫더라도 시로네의 생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교사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하지만 교장 선생님, 우리에게 학교가 어떤 존재입니까? 시로네도 안쓰럽지만 이대로 문을 닫는다면…….”

“학교는 문을 닫지 않을 걸세.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야. 그러니 시로네를 위해 힘써 주게. 우리도 그 아이를 위해 이 정도는 희생해야 하지 않겠나?”

교사들은 알페아스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어떤 이유로든 학생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교사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마법학교 학생회.

거대한 회의실에 클래스별로 학생회의 위원들이 모였다. 밥그릇 걱정을 하는 교사들과 달리 감수성이 예민한 그들은 알페아스의 과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장 아미라입니다. 이번 사태에 관련하여 협의를 이끌어 내고자 자리를 열었습니다. 모쪼록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투의 아미라가 단상에서 회의를 선포했다. 기후 마법을 전공으로 하는 그녀는 올해 스물두 살로, 졸업 예정자 1순위에 속한 재인이었다.

학생회의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인물인 만큼 토론의 분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먼저 발언권을 신청한 쪽은 학교의 입장을 두둔하는 보수파였다.

“클래스 스리의 세리엘입니다. 교내에 알페아스 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의 명예는 학생의 명예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진을 공격하는 건 훗날 졸업생에게도 안 좋은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포의 카스입니다. 세리엘 위원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이번 안건은 교사의 도덕성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설령 40년 전의 일이라고 해도 범죄행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학교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미라는 카스의 의견에 동조했다. 하지만 의장답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쳤다.

“클래스 식스의 올리비아입니다. 현재 주요 쟁점은 시로네의 사망 여부입니다. 알다시피 시로네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 측은 아케인과 동조한 용의자 중에서 2명을 놓쳤고 교장의 고발 또한 미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로, 학생회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미라가 분노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다. 현재 교사들은 시로네의 상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알페아스의 고발을 늦추고 있었다.

세리엘이 반박했다.

“교사진의 의도를 너무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요? 시로네는 심장이 뛰지 않고 있지만 부패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모탈 펑션을 개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아탑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고려한다면 교사진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교사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이모탈 펑션이었으니 그들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이모탈 펑션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아미라도 마찬가지였다. 마법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건가?

마법이란 지식 기반의 현상이었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서 이게 최고라고 한들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와 닿지 않았다.

“저기, 클래스 텐의 베로니카인데요.”

여덟 살 아이가 손을 들었다. 학생회는 클래스별로 대표를 뽑기에 어리다고 해도 발언의 무게는 똑같았다.

“네. 말씀하세요, 베로니카 위원.”

“알페아스 할아버지가 무슨 잘못했나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에 아미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서 클래스별로 분리하자고 건의했던 건데.’

베로니카가 훌쩍이며 말했다.

“알페아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베로니카 위원. 이건 학교의 명예에 관련된 문제예요.”

“하지만…… 모두 실수를 하잖아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술렁였다. 확실히 지금의 발언은 상당한 파문이 있었다. 뜻밖의 수확에 보수파가 베로니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태의 추이를 관망했다.

“저도 엄마한테 자주 혼나요. 하지만 크게 혼나지는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알페아스 할아버지는 실수를 했지만 여태까지 학교를 잘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기회다 싶은 마크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클래스 세븐의 마크입니다. 저도 베로니카 위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학교의 보안을 신뢰하고 현상 유지를 주장했던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도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진도 사태를 방조하겠다는 입장이 아닌 이상 학생회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했어, 마크.’

세리엘이 테이블 아래로 엄지를 들자 마크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신호를 보냈다.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아미라는 각자의 발언을 통해 표를 예측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급반은 학교의 편을 들고 졸업반은 학교를 비판하는 추세였다. 고급반의 표는 반반이었다.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

이대로는 알페아스를 고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어떻게든 역전의 계기를 잡아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저급반은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 불길을 진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클래스 원의 아르디노 페르미입니다.”

여태까지 듣고만 있던 페르미가 손을 들자 좌중의 시선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졸업반의 서열 1위이자 차기 졸업 예정자 1순위였으니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건 당연했다.

세리엘은 불안한 듯 페르미를 살폈다. 흑갈색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사무적인 기성복을 입고 있는 청년. 하지만 권위적인 차림새에는 지독한 장난기가 숨어 있었다.

충분히 졸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이지만 어째서인지 번번이 탈락. 차기 학생회장도 유력시되었지만 결국 기권을 하면서 아미라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유일하게 아는 거라면 분탕을 좋아하고 만인의 투쟁을 즐기는 성향이라는 정도였다.

“이 자리의 모두는 시로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겠죠. 따라서 그의 사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숙연해졌다. 시로네가 전교생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는 그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세리엘은 초조해졌다. 그녀가 알기로 페르미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성격이 아니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저 또한 시로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진은 그런 시로네를 방패로 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판단은 월권이 아닙니다. 시로네의 넋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죠.”

“무슨 넋을 지킨다는 거죠? 시로네는 아직 죽은 게……!”

“벌써 5일이나 지났습니다. 시로네의 심장은 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 시로네를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다.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다.

“모두가 시로네를 그리워하고 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져 보죠. 이 중에서 정말로 시로네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세리엘은 페르미의 전략을 깨달았다. 감정과 이성을 분리시키면 죄책감은 사라지고 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학생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잔인한 게 아니라 상식입니다. 헌데도 교사들은 여전히 시로네가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 단체처럼 말이지요.”

세리엘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분명 시로네의 상태는 이상한 점이……!”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모탈 펑션에 대한 보고서는 읽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법적 경지와 생물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시로네의 시신에 방부 처리를 해 두었다는 첩보도 입수했습니다.”

“그, 그건……!”

알페아스의 지시였다. 이모탈 펑션이 정신에 관여한다면 육체적 손실은 이곳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선견지명이었다.

하지만 소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어떻게 페르미가 접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미라가 매섭게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방부 처리라고요? 페르미 위원의 말이 사실인가요?”

세리엘은 페르미를 노려보았다. 순진무구한 미소를 보자 더욱 짜증이 솟구쳤다.

‘나쁜 자식.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그냥 소란을 일으키고 싶은 것뿐이잖아.’

“세리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세리엘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할 수도 있었던 싸움이 한순간의 실수로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답을 원하시면 정식으로 청문회를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입을 다문다는 자체가 긍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직접 말을 내뱉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다. 묵비권의 중요성은 반론의 여지를 두는 것이다. 어떤 변수가 상황을 뒤집을지 모르는 만큼 미리부터 쐐기를 박는 어리석은 짓은 할 필요가 없었다.

아미라는 시간을 끌지 않았다. 역전에 역전의 분위기라면 지금이 최선의 포인트였다. 회의를 마무리 지은 그녀가 표결에 들어갔다.

“그럼 이제부터 비밀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세리엘의 예상대로였다.

\* \* \*

“알페아스는 사퇴하라! 감찰부의 조사를 받아라!”

“시로네의 장례를 진행하라! 죽은 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교사가 할 짓이 아니다!”

학생회의 결정에 동참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의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 [103] 금강승(3)

선두에 서 있는 아미라가 학생들을 독려했다.

“학교는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공표해야 합니다.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을 기소하는 것만이 마법학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옳소! 알페아스는 사퇴하라! 시로네의 장례를 진행하라!”

그들의 고함소리는 의무실 창문을 넘어 에이미 일행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세리엘이 들어왔다.

“에이미, 큰일 났어!”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쟤들 왜 저래?”

에이미가 당황하는 건 당연했다. 학생 회의가 끝날 무렵이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모여들어서 시로네의 장례를 치르라고 성화였다.

“졸업반 애들이 작당하고 교장 선생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 시로네만큼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페르미 그 자식이 분탕을 치는 바람에…….”

에이미는 보지 않고도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페르미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다. 결국 학생회는 교장의 퇴임으로 가닥을 잡은 듯했다. 하지만 그들을 정 없다고 탓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학교의 수장이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면 털고 가는 게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었다. 그렇기에 페르미의 행태가 짜증 났다. 학생회의 분노를 촉발시킨 건 교사진의 미온적 대응이지만 결국 도화선에 불을 놓은 건 페르미였다.

“나쁜 자식. 자기도 시로네 덕분에 살았으면서.”

“이제 어떡하지, 에이미?”

에이미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어떡하긴. 버텨야지.”

알페아스는 시로네를 당분간 지켜보자고 했다.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인 그가 교사들을 설득시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창문 밖을 살피던 네이드가 이루키를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이제 만족하냐? 저기 너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떼로 몰려들었는데. 너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원한다면 그렇게 해 줄까?”

이루키도 지지 않고 받아쳤다. 그날의 싸움 이후로 여전히 서먹한 두 사람이었다.

세리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만들 좀 해. 우리끼리 싸운다고 무슨 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힘을 합칠 때야.”

“쳇! 이루키 이 자식이 힘을 합칠 거 같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만하라니까. 그리고 이루키 너도 자중해.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 한마디 말로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여기에 있어.”

“어차피 나갈 생각도 없어요.”

이루키는 테이블에 얼굴을 파묻고 생각에 잠겼다. 시로네가 사망한 지 벌써 5일째였다.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었다.

‘학생회가 움직였다면 교사진도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앞으로 48시간 정도인가…….’

의무실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랭해졌다. 모두 이번 사태에 시달리며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었다.

에이미는 시로네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상식적으로 죽었다고 봐야 했다. 그런데도 희망을 붙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적일까?

‘제발, 제발 돌아와, 시로네…….’

에이미는 시로네의 생환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춘 지 5일 째인 지금 확신의 영역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영역이었다.

\* \* \*

여자는 시로네의 몸에서 나오는 적색 빛을 예의 주시했다. 고에너지를 방출해 입자를 진동시키는 원리라면 어떤 물체든 파괴시켜 버릴 터였다.

“시로네, 이러지 마요. 그 마법은 너무나도 파괴적이에요. 당신의 성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이곳에 묶어 둘 생각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전 돌아가야 해요.”

“나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시로네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한 심정이었다. 같은 차원의 존재라고 해도 스스로를 신이라 칭할 정도로 강한 능력을 지닌 자였다. 아무리 못해도 아케인보다 높은 경지라고 봐야 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굴까? 그리고 이곳은 어디인가?

시로네는 생각을 멈췄다. 적어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아니었다.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준다고 한들 가능할 리가 없어요. 그건 당신을 또 한 번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그렇더라도 시도는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자는 시로네의 마법이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레이저의 위력만큼은 우습게 볼 수준이 아니었다. 이 세계가 파괴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했다.

“좋아요. 뜻대로 해 드리죠.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제 뜻에 따라 주세요.”

“돌아가는 방법이 뭐죠?”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할 텐가요?”

얼마나 무서운 난관이 있기에 으름장을 놓는 것인지는 몰라도 시로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 좋을 대로 사용하세요.”

여자는 시로네의 눈앞에 유리구를 만들었다. 안쪽에 시커먼 어둠이 회전하고 있었다.

“시로네.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왔던 과정을 역으로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순수한 정신에서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인간이란 온갖 불쾌한 요소의 집합체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인간도 무엇도 아닌 이상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릴 거예요.”

여자는 시로네의 실패를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 보이는 어둠은 시공을 관통하는 스폿입니다. 통상 블랙홀이라고 하죠. 당신은 이곳을 통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리구가 소멸하면서 시로네의 정면에 거대한 어둠이 탄생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간단해요. 들어가면 됩니다. 당신의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스폿이니까요.”

“고마워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시로네는 진심이었다. 하이재킹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녀가 아니었다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터였다.

“섣부른 감사는 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이 성공하리란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 만약 포기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다시 걸어오면 돼요.”

과연 그런 상황이 올까? 죽었으면 죽었지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시로네도 미리부터 단정 짓지는 않았다.

“그럼 가 볼게요.”

여자는 졸린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좋은 여행 되시길.”

시로네는 구체로 첫 발을 내딛었다. 처음 스폿에 들어왔을 때와 느낌이 비슷했다. 예상대로 시로네는 출구를 찾아내지 못했다. 아무리 걸음을 옮겨도 변하는 게 없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본 시로네는 깜짝 놀랐다. 여자가 여전히 졸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 있다. 극한의 중력에서만 발생하는 사상의 수평선에 갇혀 버린 것이다.

‘벗어날 수 없어. 이곳을 빠져나가기란 절대로 불가능하다.’

시로네는 비로소 여자의 말을 이해했다. 시간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영리한 만큼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빨랐다. 시로네는 비참한 심정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에게 되돌아가야 한다.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느니 적어도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잠깐. 어쩌면…….’

시로네는 문득 발길을 멈췄다. 사상의 수평선에서 시간은 영원히 붙잡혀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바로 광자화 마법이었다.

준아광속, 아광속, 광속, 초광속.

광자 마법사가 분류하는 속도는 네 가지였다. 시로네가 계산하기에 사상의 수평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빛보다 빠른 초광속의 속도가 필요했다.

‘초광속…… 과연 가능할까?’

시로네의 수준은 고작해야 준아광속. 신의 입자를 더하면 아광속까지는 가능할 듯싶었지만 그래봤자 초광속에는 훨씬 못 미쳤다.

‘생각해보자.’

방법이 나왔으니 시간은 문제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그의 눈빛이 변했다. 할 수 있다. 육체가 없는 지금이라면 초광속을 내는 게 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모탈 펑션.’

빛의 속도로도 넓은 우주를 여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한의 확장 속도는 순식간이다. 어쩌면 이모탈 펑션이야말로 초광속에 도달하는 핵심 열쇠일 지도 몰랐다.

어쨌거나 일단은 돌아가는 게 우선이었다. 시로네는 심호흡을 하고 광자화 마법을 시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모탈 펑션을 개방했다.

효과가 곧바로 나타났다. 준아광속, 아광속, 광속으로 가속되는 떨림이 스피릿 존을 붕괴시킬 만큼 강하게 전해졌다.

“으으으으……!”

그럼에도 초광속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시간보다 빠르다는 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 전지를 통한 마법의 시전은 불가능했다. 남은 건 이모탈 펑션의 완전 개방이었다. 또 다시 소멸할 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지만 그는 지체 없이 의식을 전체로 확장시켰다.

시로네를 이루는 형태가 팍 하고 터지면서 미립자로 분해되었다. 마침내 빛보다 빠른 무언가가 사상의 수평선을 넘어 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됐다!’

시로네는 여전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모탈 펑션을 완전 개방했더라도 블랙홀 내에서는 어떤 입자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멀리 출구가 보였다. 저곳에 자신의 육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다! 드디어 간다!’

그때 갑자기 속도가 줄기 시작했다. 시로네의 입자들 사이로 의미 불명의 입자들이 달라붙었다. 입자들은 결합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냈고 마치 목소리처럼 작용하면서 시로네의 정신을 어지럽혔다.

-섭식. 섭식. 섭식. 섭식. 섭식. 섭식. 섭식. 섭식.

-번식. 번식. 번식. 번식. 번식. 번식. 번식. 번식.

갈수록 무거워지는 시로네의 눈에 출구가 멀어져가는 게 보였다. 입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단순한 의미가 고차원적인 의미로 진화해나갔다.

-아아, 탄생이라니. 가장 낮은 존재라니.

-죽고 싶지 않아. 필멸자의 삶.

시로네는 여자가 말했던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욕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은 채로 세상에 내동댕이쳐지는 존재.

어쩌면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배 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지지 않아!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야!”

-어디로? 너를 반기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

“내가 있는 세상으로!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들은 너를 죽일 거야. 섭식과 번식을 방해할 거야. 너를 기다리는 건 욕망의 충돌과 고통스러운 투쟁, 반드시 도착하는 죽음의 여정일 뿐이야.

“으아아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 어떤 말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시로네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결합이 진행되어 갈수록 떠도는 소리는 커져갔다.

인간이란 결국 수많은 소리로 이루어진 존재였다. 마치 합창에 독주가 파묻히듯 시로네는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섭식. 섭식. 섭식. 섭식. 섭식. 섭식. 섭식. 섭식.

-번식. 번식. 번식. 번식. 번식. 번식. 번식. 번식.

\* \* \*

시로네 사망 7일째.

학생회는 여전히 농성 중이었다. 정확히는 아미라를 따르는 급진파의 인물들이었다.

그에 대항하여 보수파 학생들은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을 막고 있었다. 중도파 쪽에서도 파벌이 나뉘면서 결국 시위대의 총원은 두 배로 불어났다.

전교생의 대부분이 건물 앞에 모인 상황이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를 하는 바람에 시로네를 지키는 친구들은 신경과민에 걸릴 지경이었다.

“시로네의 장례를 집행하라!”

“집행하라! 집행하라!”

“알페아스는 마법협회의 심판을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세리엘은 귀를 틀어막았다. 창문을 닫고 있어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냐? 왜 자꾸 시로네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세리엘의 말에 보조 침대에 얼굴을 박고 졸고 있던 에이미가 고개를 들었다.

“저 애들도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 평소에 시로네를 싫어하던 애들도 참가했을 테고.”

“시로네가 잘난 게 시로네 잘못이야? 자기들 속이 좁은 걸 가지고.”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시로네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배척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거야.”

## [104] 금강승(4)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이루키가 말했다.

“그사이 도통이라도 하셨나? 어제까지만 해도 쫓아가서 두들겨 팬다고 하더니.”

에이미는 화를 낼 기운도 없었다. 아마 이루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주일 동안 시달린 스트레스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었다.

에이미가 침대에 턱을 괴며 말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알겠더라고. 그래도 지금은 시로네를 위해 싸워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

창문으로 농성을 지켜보던 네이드가 끼어들었다.

“그래봤자 우리 편은 거의 저급반 아니면 고급반이에요. 반대로 농성하는 쪽은 대부분이 졸업반이에요. 진짜로 쳐들어온다면 막아낼 수 없어요.”

세리엘이 말했다.

“그래도 당장은 괜찮을 거야. 우리에게는 교사진이 있잖아.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시이나 선생님하고 에텔라 선생님도 우리 편이니까.”

“그건 선배님이 몰라서 그래요. 저것들…… 어제부터 행동이 수상쩍다고요.”

“응? 어떤 점이?”

세리엘이 네이드를 돌아보며 물었으나 대답은 이루키가 했다.

“몇 명이 안 보이는 거 같더군요. 특히나 아미라와 페르미가 빠진 게 이상해요. 적어도 1명은 남아서 선동을 해야 하는데.”

에이미가 발끈하며 소리쳤다.

“야! 너 세리엘에게는 존댓말하면서 왜 자꾸 나한테는 반말이야?”

이루키는 귀찮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어차피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시로네의 여자 친구라면 자신에게도 친구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을 뿐이다.

의무실의 문이 열리면서 알페아스가 시이나와 에텔라를 대동하고 들어왔다. 학생회의 집요함에 교사들의 얼굴도 하루가 다르게 삭아 가고 있었다.

“고생이 많구먼. 시로네 군은 어떤가?”

“보다시피…… 그대로예요.”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제는 알페아스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만약 어떤 절대자가 나타나서 시로네가 살아난다고 말한다면 1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시로네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시로네에게 마법을 걸겠네.”

에이미와 세리엘이 길을 열어 주었다. 알페아스는 시로네의 가슴에 손을 대고 슬로 마법을 시전했다. 육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부 처리였다.

마법을 끝낸 알페아스는 다시 물러났다. 이제 시로네는 또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 언제까지? 지금은 교사들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의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시이나는 시로네를 빤히 바라보다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었다. 장래가 촉망되는 마법사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 버리다니.

‘그래서 내가 말려야 한다고 했는데.’

시로네는 오버플로우를 잘 넘겼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건 이모탈 펑션의 잦은 접촉이었다. 당시에 에텔라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제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만약 시로네가 잘못된다면, 그녀는 한평생 시로네의 넋을 위로하며 살아갈 터였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세리엘이 소리쳤다. 에이미와 네이드도 창밖을 살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시이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아미라와 페르미가 의무실 쪽으로 문서를 들이밀고 있었다.

“알페아스 마법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모든 교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시이나는 골치가 지끈거렸다. 결국에는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학생회는 초강수를 두었다. 알페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 대한 처벌까지도 강행하겠다는 뜻이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학생 측의 가문이 개입하면 학교는 수습할 여지도 없이 붕괴되어 버릴 터였다.

시이나가 창문을 열자 시위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야? 학생들을 선동해서 학교를 흔드는 게 학생회가 할 일인가?”

아미라가 창가를 향해 걸어갔다.

“선동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거고요. 하지만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시로네가 사망한 지 7일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교사진은 누구 하나 공표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시로네는 죽지 않았어. 가사 상태에 빠졌을 뿐이야.”

“심장이 뛰지 않는 가사 상태란 있을 수 없어요.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의 마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학생회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다. 정확한 예측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결과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학생회는 어째서 시로네를 방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모탈 펑션이었다. 마법학교의 학생이라도 열반의 경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야. 현재 시로네는 슬로 마법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있는 상태야.”

시이나는 순순히 시인했다. 학생회는 물론이고 입구를 막고 있는 반대파의 아이들까지 술렁거렸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섣부르구나, 아미라. 혐의라는 건 시로네를 방패막이로 삼아 교사들이 빠져나갈 생각을 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야.”

“선생님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것을 판단할 어떠한 정황상의 근거도 들은 게 없습니다. 학생회는 교사진의 이런 대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사진은 시로네의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어. 또한 빠져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야.”

“선생님, 시로네의 죽음은 저희에게도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학생회는 소중한 모교가 이런 식으로 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현재 교사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우리 또한 신중히 생각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린 거야.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너희의 판단이겠지.”

아미라는 시로네의 말을 음미했다. 자신이 놓친 무언가를 교사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인간이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존재니까.

하지만 백번을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로네는 이미 죽었다. 아니, 솔직히 죽었든 살았든 모든 교사가 그를 감싸고돈다는 것만으로도 고까운 기분이었다.

‘이대로 가는 게 맞나? 나는 합리적인 상태인가? 혹시라도 시로네가 살아난다면? 하지만 절대로 그럴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데…….’

아미라 또한 학생회장이라는 직책만 아니라면 고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꺾여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당하게 된다.

지켜보고 있던 페르미는 아미라가 갈등하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결국 타협점은 찾을 수 없다는 거로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최후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이나는 언짢은 표정으로 페르미를 바라보았다. 교사 생활 4년 동안 저런 학생은 처음이었다.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면서도 그것을 감추는 데에 더욱 능숙한 인물이었다.

거짓을 신봉하고, 그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걸 즐긴다. 이 또한 마법사에게 필요한 능력일지도 모르나 학생이 갖추어야 할 소양은 아니었다.

“흥, 고소장을 접수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봐. 결국 후회하는 건 너희가 될 거야.”

“좋아요, 그렇게 하죠! 우선 시로네의 시신을 수습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리의 힘으로 시로네를 구출하는 겁니다!”

페르미는 졸업반의 아이들을 앞세워 의무실로 전진했다. 이미 군중심리에 휘말린 그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로네의 장례를 치르고 교사들을 고발합시다!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잠시만! 이러지들 마세요!”

마리아를 위시한 시로네 파의 학생들이 막아섰다. 하지만 별다른 효력을 내지 못하고 금세 길이 열렸다. 페르미가 있는 쪽은 대부분이 하늘같은 선배인 졸업반이었다. 실력 행사로 들어간다면 수적인 우위는 의미가 없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같은 학교 학생의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마크가 특유의 강단으로 길목을 버티고 섰다. 하지만 하늘같은 졸업반이 보기에 클래스 세븐의 후배는 대화를 나눌 가치조차 없었다.

그 순간 3층에서 유리창이 깨졌다. 파편이 떨어지자 학생들이 우르르 물러섰다. 네이드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플라이 마법의 바람이 지면의 먼지를 밀어내자 시위대가 인상을 찡그렸다.

천천히 고개를 쳐든 네이드의 눈동자에 살기가 이글거렸다.

“전부 꺼져, 죽여 버리기 전에. 누구도 시로네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미라도 생각을 접고 행동에 나섰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기세에서 밀리면 여론마저 밀리게 된다.

“이게 무슨 짓이야?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 몰라? 그리고 선배에게 죽여 버린다고? 어디서 배워 먹은 말버릇이야?”

네이드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시로네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시로네를 데려가고 싶어? 그렇다면 전부 들어가. 대신에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

네이드의 머리 위로 푸르스름한 볼트가 떠오르더니 주위에 강력한 낙뢰를 뿌렸다. 전격 마법 라이트닝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무시무시한 건 네이드에게서 피어오르는 플라즈마였다.

아미라가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며 거리를 벌렸다.

‘고급반이 어떻게 플라즈마를…….’

플라즈마 마법을 시전하려면 초고온의 전지를 구축하거나 가상의 초고온을 전능으로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의 방식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 모든 플라즈마 마법사들은 후자에 속하는데,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만큼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이루키는 언짢은 눈빛으로 네이드를 내려다보았다.

‘멍청한 놈. 여태까지 참아 왔으면서.’

네이드의 과거사를 아는 사람은 교내에서 이루키뿐이었다. 5년 전만 해도 네이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면을 썼다. 그런데 지금 그 가면을 벗어버린 것이다. 오직 시로네를 지키기 위해.

‘이러면 내가 좀 미안해지잖아.’

이루키는 씁쓸하게 웃으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아무도 모르게 의무실을 빠져나갔다.

시위대는 사뭇 당황스러웠다. 졸업반에도 일렉트릭 몬스터라고 불리는 라이컨이 있기에 플라즈마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있었다.

네이드가 아미라를 노려보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꺼져.”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미 죽은 친구를 지키는 게 너에게 무슨 의미야?”

“시로네는 죽지 않았어.”

네이드는 부릅뜬 눈으로 눈물을 흘렸다.

“네 까짓 게 뭘 알아? 시로네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지껄이는 거야!”

네이드의 눈물을 본 아미라는 그를 동정했다. 하지만 뜻을 굽힐 생각은 없었다.

“물리적인 충돌을 원하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제압하겠다.”

아미라가 한 발짝 물러서며 두 주먹을 단전에 모았다. 회백색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기후 계열의 일종인 클라우드 마법이었다. 전기하고는 상성이 아주 좋았다. 아니, 아미라의 수준이라면 네이드의 전기를 구름에 충전시켜 되받아칠 수도 있을 터였다.

“하여튼…… 그러게 뒷감당도 안 되는 짓을 왜 해?”

이루키가 현관에서 걸어 나왔다. 네이드는 인상을 구겼다. 또 무슨 딴죽을 걸려고 나타난 것일까? 하지만 이루키가 멈춘 곳은 아미라가 아닌 네이드의 옆이었다.

“뭐야? 방해하지 마. 이건 내 싸움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싸움이기도 하지.”

“너는 저쪽 편 아니었냐?”

네이드의 말투는 퉁명스러웠다. 친구 사이에 앙금이 남은 건 아니지만 시로네가 죽었다고 판단하는 이루키가 이번 전투에 끼어들 이유는 없었다.

## [105] 금강승(5)

“애도 아니고 편 가르는 거냐? 나도 진심이다. 저놈들이 시로네를 데려가는 건 싫으니까.”

아미라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친구를 지키려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래 봤자 고급반이었다. 대부분이 졸업반인 이쪽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오냐오냐해 주니까 너희들이 진짜로 대단한 줄 알아? 우리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아미라를 시작으로 시위대 전원이 스피릿 존으로 들어갔다. 졸업반 수준의 강력한 존이 네이드와 이루키의 공감각을 통해 전해졌다.

‘크크크. 크크크크.’

그들의 대치를 지켜보는 페르미는 남몰래 어깨를 들썩거렸다. 지금의 상황이 우스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 싸워라, 싸워. 마음껏 망가져라.’

페르미는 모든 이윤은 혼란과 대립에서 창출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최고의 블루 오션이다. 소수의 승자가 다수의 패자를 착취하지 않는다면 부의 축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페르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감정을 거세하면 된다. 인간의 약점은 결국 감정이었다.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슬퍼해라. 분노해라. 자신만이 옳다고 소리쳐라. 그렇게 판을 키우는 거야. 물론 그 판돈은 전부 다 내가 먹겠지만.’

의무실에서 상황을 살피던 시이나의 시선에 페르미에게 꽂혔다.

‘전부 네 녀석의 소행이지. 몹쓸 녀석 같으니.’

화가 치밀었지만 비난할 수는 없었다. 페르미의 철학 또한 어설프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페르미는 시로네가 처한 상황마저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알페아스가 시이나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먼.”

“교장 선생님.”

“여기까지인가 보네. 학생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나.”

에이미가 소리쳤다.

“교장 선생님! 안 돼요! 그러면 시로네는요?”

“에이미, 미안하구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시로네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니. 사실은 잘 모르겠단다.”

충격을 받은 에이미는 그대로 굳어 버렸다. 알페아스가 그녀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에이미, 누구도 시로네의 상태를 알 수 없단다. 다만 믿고 있는 것뿐이지. 나 또한 시로네가 돌아오리라 믿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하지만 보거라. 이제는 상관없는 아이들까지 싸우고 있지 않으냐?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은 제자들이 싸우는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구나.

알페아스에게는 시로네만큼이나 다른 학생들도 소중했다. 그런 학생들이 지금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스피릿 존을 펼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로네만을 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직접 내려가서 말하겠네. 시로네의 부모님에게 알리고 장례 절차를 밟게. 징계 건은 그 후에 논하기로 하지.”

에이미는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세리엘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에이미, 어떡해? 시로네, 시로네가…….”

에이미의 마음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결국 시로네는 돌아오지 않았다. 알페아스가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시로네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시로네…….”

건물 앞의 분위기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모두가 스피릿 존을 펼친 상태였고 누구라도 결정만 내리면 치명적인 마법을 구사할 수 있었다.

아미라는 다시 회의감이 들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일까? 동문끼리 서로 스피릿 존을 겨누고 살인적인 마법을 시전하는 게 어떤 논리보다 앞설 수 있을까?

그녀는 입술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네이드와 이루키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네이드는 이미 전투태세 만만이었으나 이루키는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을 듯했다.

“너, 이루키지? 서번트 능력자.”

이루키는 대답이 없었다.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네 친구는 너무 감정적이야. 하지만 너는 다를 거 아냐.”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 감정적이라서.”

“거짓말. 아니, 그렇더라도 상관없어. 너는 알고 있잖아? 정말로 친구가 살아 있다고 생각해? 그게 네가 내린 결론이야?”

“흐음, 결론이라. 그렇다면 답은 하나지.”

시선을 내리고 생각에 잠긴 이루키가 아미라를 노려보며 말했다.

“시로네는 죽지 않았어.”

네이드는 놀란 표정으로 이루키를 돌아보았다. 의무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시로네가 죽었다고 주장하던 그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루키, 너…….”

이루키는 여전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미라의 실망감은 더해졌다. 교내에서 가장 이성적인 인물이라 여겨졌기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고급반의 애송이일 뿐이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설득시킬 논리도 있는 거겠지?”

“당연하지.”

아미라는 잠시 눈을 깜박거렸다. 듣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근거를 대 봐. 시로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이 4시니까…… 정도로 말해둘까?”

댕. 댕. 댕. 댕.

시계탑에서 종이 울렸다.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을 계측한 건 이루키가 서번트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초씩 세어나가면 되는 일이다.

네이드는 근래 이루키의 말수가 줄어든 이유를 깨달았다.

‘초를 재고 있었군. 하지만 대체 언제부터?’

아미라는 시계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깨닫고 고개를 돌렸다.

“이제 알았어. 너는 그냥 미쳤어. 시간하고 시로네의 죽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루키는 대답이 없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었다.

‘4시 7초. 8초. 9초.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미라는 생각을 끝마쳤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 감정적인 네이드와 원래부터 미친 이루키를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려는 자체가 헛수고였다.

“우리는 시로네를 데려갈 거야. 졸업반을 상대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지.”

마법학교 최고수들이 뿜어내는 기운에 네이드의 눈동자에 살의가 차올랐다. 그때 익숙하지는 않지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재밌게들 놀고 있군. 나도 좀 끼워 주는 게 어때? 이런 건 내 전공인데 말이야.”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목소리의 정체는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건물에 드리워진 그늘에서 2명의 남녀가 솟아올랐다. 카니스와 아린이었다.

아미라의 눈에 불똥이 튀었다.

“너희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구속시키겠어!”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어차피 도망칠 생각도 없지만.”

카니스는 콧방귀로 응수하고 이루키에게 다가갔다.

이루키가 짜증난다는 듯 미간을 찡그렸다.

“너무 늦었잖아.”

“4시까지 오라며?”

“27초나 지났어.”

카니스는 울컥했지만 애써 분을 가라앉혔다. 어찌 됐든 은원 관계를 청산하는 게 먼저였다.

“여기 있다, 부탁한 거.”

이루키는 카니스가 건넨 서류를 빠르게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그제야 의아함을 느낀 네이드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루키, 그건 뭐야?”

“용뢰의 소견서. 시로네의 조직 샘플을 채취해서 보냈거든.”

“뭐어? 대체 언제? 아니, 그보다도 어떻게 수도에서 5일 만에 올 수가 있어?”

마차로 가도 4일은 걸리는 거리였다. 게다가 용뢰에서 분석할 시간도 필요했으니 실질적인 왕복 시간을 따지자면 48시간 이내였다.

“카니스에게 부탁했어. 바슈카의 지리도 빠삭하고.”

카니스는 그간의 고생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시간에 맞추기는 했지만 죽음을 각오한 여정이었다. 낮에는 마차를 탔고 밤에는 다크포트로 이동했다. 속도는 밤이 더 빨랐지만 마법력을 극한까지 소진하느라 의식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무튼 이걸로 시로네에게 진 빚은 없는 거다.”

카니스는 시로네의 죽음에 딱히 미안한 감정은 없었다. 하지만 아케인의 만행으로 시로네가 희생당한 일에 대해서는 제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뭐,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시로네에게 그렇게 말은 해 둘게.”

상황이 이상하게 흐르자 아미라는 불안해졌다. 특히나 용뢰라면 이루키의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왕국 최고의 조직체였다.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메르코다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러설 것 같아?”

메르코다인이라면 확실히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학생들의 가문도 결코 허접하지 않았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힘 싸움이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차명을 썼으니까. 내 이름이 적히면 꼰대가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거든. 그보다 중요한 건 여기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닐까?”

“흥!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마법 같은 구절이라도 적혀 있다는 거야?”

이루키는 서류를 덮고 처음부터 읽어 나갔다.

“제목. 이모탈 펑션과 생체 활동 정지에 관한 소견서.”

제목을 들은 시위대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3층 의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이루키의 이어지는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피험자의 조직 세포 샘플 분석 결과. 비역학적 가사상태. 사망 24시간 이후에 채취한 샘플에 유기체 특유의 변형이 발견되지 않음. 데이터 첨부함.”

이루키는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상기 데이터를 토대로 피험자는 생체 활동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상태를 기능의 정지, 즉 생명의 부재로 확장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라는 듯 이루키가 강조했다.

“용뢰에서는 심장박동 정지에 관해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 첫째, 심장의 기능이 정지한 상태. 둘째, 심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태. 셋째, 심장이 정지하지 않았으나 현상적으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

아미라가 황당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첫 번째 케이스는 몰라도 나머지는 말이 안 되잖아!”

이루키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다음 장을 넘겼다.

“용례 설명. 심장의 기능이 정지한 상태에서 생물체는 사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모탈 펑션에 한하여 두 가지의 새로운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케이스 1. 정신적 확장이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육체는 정신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기능을 정지할 가능성이 있음. 보고서 첨부.”

이루키는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읽었다.

“케이스 2. 정신적 확장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관찰자의 시간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 즉, 생명 활동은 정상이나 시공간의 장벽으로 인해 외부에서 그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함. 보고서 첨부.”

이루키는 더 이상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페이지를 휙휙 넘겨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다.

“이상의 마법학적인 소견을 토대로 피험자, 그러니까 현재 의무실에 누워 있는…….”

용뢰의 소견서가 시위대의 눈앞으로 내밀어졌다.

“아리안 시로네는 결코 사망했다고 볼 수 없음.”

여태까지 수많은 소리를 냈던 시위대 모두가 침묵을 지켰다. 그들 또한 마법사이기에 알고 있다. 용뢰가 분석한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루키. 너 대체 언제부터…….”

이루키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네이드를 돌아보며 피식 웃었다.

“어때? 내가 찾아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

네이드는 머쓱하게 입술을 내밀었다. 정말로 있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모두가 슬픔에 잠겨 헛된 희망을 품고 있을 때, 이루키는 혼자서 외롭게 싸워 왔던 것이다.

“자, 직접 확인해 봐.”

이루키는 아미라에게 소견서를 건넸다. 말없이 받아 든 그녀가 살핀 것은 소견서의 첫 장이었다. 용뢰의 인장이 확실히 찍혀 있었다.

더 이상의 투쟁은 무의미했다. 왕국 최고의 학술 기관이 교사들의 판단이 옳다고 증명하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해 봤자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줄 공산이 컸다.

“고생이 많구나, 아미라.”

알페아스가 건물 입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교장 선생님.”

## [106] 금강승(6)

단단하게 박혀있던 아미라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강철 같은 심지도 막상 알페아스의 얼굴을 보자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다.

왜 아니겠는가? 이불에 오줌을 싸던 시절부터 따르던 사람이었다.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수고를 하게 해서.”

아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흘러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아냈다.

“교장 선생님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분일수록 잘못을 덮어 두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마저…….”

“왜 모르겠느냐. 여기 있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단다. 너희가 바로 학교의 미래다.”

알페아스는 안쓰럽게 아미라를 바라보았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길러 낸 업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할 따름이었다.

다시 고개를 든 아미라는 촉촉한 눈으로 알페아스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모습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번만 나를 믿어 주지 않겠니? 시로네의 일이 마무리되면 투명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마. 설령 어떤 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결코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야.”

아미라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로 돌아오실 거죠? 제가 존경하는…….”

“그럼. 나를 벌하는 데 한 치의 속임도 없을 것이다. 평생의 명예를 걸고 너희에게 약속하마.”

아미라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알페아스 앞에서는 절대로 울 수 없었다. 어린 시절보다 훨씬 성숙하게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 말씀하시니 학생회에서도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안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명예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페아스는 흐뭇하게 웃었다. 야물고 똑똑한 학생으로 자랐다. 혀 짧은 소리로 ‘교장 던댕님!’ 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한 것이다.

‘에리나, 내 인생도 헛된 것만은 아니었는가 보오.’

학생회장이 결정을 내리자 시위대도 즉각 해산했다. 입구를 점령한 보수파도 뿔뿔이 흩어져서 건물 앞은 순식간에 황량해졌다.

유일하게 남아 있던 페르미가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에이, 잘나가다가 막판에 망쳤네.”

알페아스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껄껄! 이번에는 뜻대로 안 된 모양이로구나, 페르미.”

“할 수 없죠. 솔직히 교장 선생님이 나서는 건 반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만 졸업해야지? 너도 내년이면 스물두 살이야.”

“글쎄요. 아직은 여기만 한 돈벌이도 없어서.”

“그러하냐?”

페르미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페아스는 그저 훌쩍 커 버린 제자가 대견할 뿐이었다.

“게다가 아직은 여기가 재밌거든요. 그럼 이만.”

별다른 안부도 전하지 않은 채, 페르미는 경례를 하고 멀어졌다. 아마 오늘 이후로는 학생회에 출입하지도 않을 터였다. 평화로운 곳은 돈이 되지 않으니까.

의무실로 향하는 이루키와 네이드는 말이 없었다. 심각하게 다툰 건 5년 전 이후로 처음이었기에 아직까지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네이드는 이런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

“야! 너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나까지 속일 필요는 없잖아? 너만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거지?”

“웃기고 있네. 슬픔의 바다에서 접영하고 있는 놈이랑 무슨 작전 토의를 해? 게다가 정보가 유출되면 그쪽에서도 수단을 강구할 거라고.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그래, 나 바보다! 아주 자기만 잘났지!”

화를 내든 욕을 하든 대화의 물꼬가 트이자 어색했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루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나저나 너는 어때? 아무리 성질이 나도 그렇지 예전 성격을 드러내서야 되겠냐?”

네이드도 후회가 막심한지 머리를 감쌌다.

“아, 몰라. 나도 그때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아무튼 싸움은 안 했으니까 됐어.”

“하긴 내가 워낙 멋있었으니까. 너는 이미 기억에서 지워져 있을지도 모르지.”

“웃기고 있네. 결국 다 계산했던 거구만?”

“크크크, 뭐 어때? 나한테 절이라도 해라.”

두 사람의 대화는 의무실의 문이 열리면서 끝났다. 에이미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루키는 난감하게 머리를 긁적였다. 네이드라면 모를까 에이미를 편하게 대하기에는 아직 어려웠다.

“뭐, 일단 이렇게 됐어. 어쨌든 시로네는 지켰으니…….”

대충 얼버무리려는 그때 에이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고마워, 이루키…….”

이루키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쳇, 됐어.”

감정에 약한 그는 도망치듯 의무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 하나의 감정 덩어리인 세리엘이 두 팔을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루키는 권투의 위빙 기술로 세리엘의 품을 피해 시로네에게 피신했다.

‘으, 이래서 여자는 질색이라니까.’

문 앞에서 만난 세리엘과 에이미가 서로를 부둥켜안고 방방 뛰기 시작했다. 거기에 네이드까지 가세하여 의무실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우아아! 살았어! 이제 시로네는 살았다고!”

간만의 밝은 분위기에 이루키의 입가에도 살며시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서류상으로 사망을 유예시켰을 뿐 상황이 나아진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시로네는 여전히 잠든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졸업한 뒤에도 함께하자는 약속이 생생하건만 당사자가 죽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돌아와라. 언제까지든 기다려 줄 테니까.’

\* \* \*

시로네는 정신을 되찾았다. 정확히는 미친 상태에서 다시 미쳤다. 그의 정신은 N극과 S극 사이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동전처럼 정상과 광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천 번을 미친 듯했다. 뒤집혀지려는 정신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해보지만 밀려드는 거대한 자극은 시로네의 본질에 침투하여 성향을 바꿔놓았다.

“너는 주어온 아이야. 너의 부모는 네가 아닌 누구라도 괜찮았겠지.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을까? 그럴 때마다 후회했겠지. 괜히 주워 왔다고 말이야. 친부모였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는 사생아야. 이 세상 누구라도 양자가 될 수 있지. 그들은 너의 부모가 아니야.”

시로네의 입자가 흔들리면서 영혼의 울음소리가 퍼졌다.

오오오오오오오!

“너의 본질은 비열한 포식자. 우월한 능력으로 모두를 짓밟는 존재. 너의 힘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실패를 부르지. 너는 세상에 불필요한 종양이야.”

오오오오오오오!

시로네는 다시 미쳤다. 정신에서 악취가 나는 기분이었다. 이대로 결합이 끝나면 과연 나는 무엇으로 재구성될까? 악귀? 야차? 악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미치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계치에 다다르자 극과 극을 회전하는 시로네의 머릿속에 두 가지의 성향이 동시에 공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세계였다.

어떤 마약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극상의 정신 상태에서, 시로네는 마침내 자신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찾아냈다.

바로 원점이었다.

순환의 테두리를 극한이라고 한다면 원점은 극한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가능성이 담겨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스폿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스피릿 존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태극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법사는 그것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무한.

시로네의 눈이 번쩍 뜨였다. 스피릿 존이 머릿속으로 빨려들더니 초광속으로 흩날리던 수많은 입자들이 정신체로 복원되기 시작했다.

무한의 중심에서 시로네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를 괴롭히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정신체의 강도가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조여들었다.

수천 번의 번뇌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금강승의 경지.

금강불괴였다.

시로네는 찬란하게 타오르는 몸으로 출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혼란스러움은 없었다. 걸음을 옮기자 출구의 따스하고 밝은 빛이 그의 몸에 스며들면서 하나가 되었다.

작고 투명한 유리구슬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손바닥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구슬 안에는 조금 전에 머물렀던 신전이 담겨 있었고, 그곳에서 여자가 시로네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결국 떠나는군요. 시로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여자가 순순히 보내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래서일까. 이제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시로네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혹시 외로웠던 것은 아닌가요?”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눈을 깜박이다가 이내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시로네는 상냥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신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저 당신이 떠나는 게 조금 서운할 뿐이에요. 아주 조금요.”

“저를 되살려줘서 고마워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한순간 여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기억해 두세요.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금강승의 경지에 오른 당신은 더 이상 저에게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로네는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다른 차원의 시공간으로 정신이 빨려 들기 시작하면서 따스한 빛이 느껴졌다.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교장 선생님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시로네는 의문스러웠다. 그녀가 어떻게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을 알고 있을까? 하지만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고 정신체가 스르륵 녹으면서 시로네의 육신으로 빨려들었다.

\* \* \*

시로네 사망 10일째.

“으음.”

에이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젖히자 우두둑 소리가 났다. 매일 같이 밤을 새우느라 몸은 움직여도 뇌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기분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친구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물을 마시고 세안을 끝마친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시로네에게 다가갔다.

“시로네. 오늘은 돌아올…….”

에이미는 꺽 소리를 내며 숨을 멈췄다. 심장 뛰는 소리가 고막까지 전해져왔다.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면서 어깨 목 얼굴까지 부르르 떨렸다.

시로네가 눈을 뜨고 있었다.

“어? 어?”

에이미는 바닥에 이불을 깔아 두고 자고 있는 네이드와 이루키를 불렀다.

“여, 여기…… 여기, 여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최소한 소리라도 내야겠는데 목구멍이 턱 하고 막힌 기분이었다. 에이미는 최후의 수단을 시도했다. 숨을 크게 들이쉰 그녀가 눈을 질끈 감고 내질렀다.

“꺄아아아아아아아!”

의무실이 떠나갈 듯한 비명 소리에 네이드와 이루키가 벌떡 일어났다.

“뭐야! 뭐야!”

일상으로(1)

알페아스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손을 내밀었다. 시로네가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공인 4급의 마법사인 그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시로네는 슬로우 마법에 걸려 있는 상태다. 아마도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데에만 밤을 다 보냈을 터. 정말로 그가 살아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법을 푸는 수밖에 없었다.

시로네의 가슴에 손을 댄 알페아스는 시간을 되돌렸다. 하지만 시로네는 여전히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후의 일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하늘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는.

“허억!”

그때 시로네가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다.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반면에 시로네는 마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시로네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공기의 양에 기겁했다. 슬로우 상태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색으로 가득 찬 한 폭의 추상화였다. 풍경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알페아스의 뒤로 울먹이는 에이미와 친구들이 있었다.

## [107] 일상으로(2)

시로네의 입장에서 시간은 많이 흐른 편이 아니었다. 이모탈 펑션에 들어간 이후 여자를 만났고 블랙홀을 통해 빠져나오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벌써 10일이 지난 상태였다.

시로네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다.

“하하. 안녕?”

“안녕 같은 소리 하네, 이 짜쉭이!”

“아욱!”

에이미가 시로네의 얼굴을 주먹으로 돌렸다. 충격은 없었지만 힘에 밀려 침대에 쓰러진 시로네는 울상을 지으며 돌아보았다.

“아야! 갑자기 왜 그래?”

에이미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쁜 놈아, 이렇게 걱정시켜 놓고…… 나쁜 자식!”

시로네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게 급했고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무언가를 깨닫고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에이미의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시로네가 돌아왔다!”

네이드와 이루키가 에이미를 앞으로 밀어내며 시로네를 침대에 파묻었다. 의도치 않게 시로네의 품에 안겨버린 에이미가 빨개진 얼굴로 소리쳤다.

“꺄악! 야, 저리가!”

“으아! 아파! 아프다고!”

시로네도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사실은 고통보다는 민망하기 때문이었다. 이대로는 나중에 에이미를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힘껏 몸을 뒤틀자 친구들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후우, 대체 뭐야?”

침대에 앉아 있는 시로네는 마치 폭격을 당한 난민 같았다. 바닥에서는 추락한 에이미가 아픈 등을 어루만지며 네이드와 이루키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다.

“환영 인사 한번 거창하구나. 역시 젊음이 좋은 게지.”

시로네는 알페아스를 보고 표정을 고쳤다. 그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시로네는 네이드에게 가장 궁금한 점을 물었다.

“아케인은 어떻게 됐어? 다른 친구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에이미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던 네이드가 황당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자그마치 10일이나 죽어 있었다고!”

“뭐? 10일? 그것도 죽어 있어?”

“당연하지, 인마! 심장이 안 뛰는데 어떻게 살아 있냐?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봐.”

시로네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을 해야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의무실 문이 열리면서 교사들이 들어왔다. 시이나는 시로네가 깨어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물론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막상 눈으로 접하자 충격이 컸다.

시로네처럼 무한을 깨우치지는 못했지만 정신이 해체된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게 인간으로서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도 잘 돌아왔어. 고맙구나.’

시이나는 미소를 지으며 에텔라를 곁눈질했다. 10일 동안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온 그녀였다. 예상대로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시로네에게 다가갔다.

“시로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또…….”

에텔라는 시로네의 말을 들을 새도 없이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죄송해요. 제 탓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어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사제 간의 아름다운 포옹이었으나 당하는 시로네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었다. 에텔라가 너무 세게 끌어안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부끄러움은 둘째 치고 정말로 질식할 것 같았다.

“저, 저기 선생님…….”

“응?”

“죄송한데요. 살려주세요.”

“어마!”

시로네에게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자 에텔라는 황급히 몸을 떼었다.

“미안해요.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시로네는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이런 느낌 또한 현세의 것이었다. 되돌아왔다는 사실이 마냥 좋은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돌아왔다는 실감이 나네요.”

친구들의 눈이 샐쭉해지자 실수를 깨달은 시로네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너 이 자식, 뭐가 어쩌고 어째?”

에이미가 달려와 시로네의 볼을 잡아당겼다.

“왜? 나는 그렇게 현실감이 없든? 응?”

“아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네이드와 이루키가 폭소를 터뜨렸다. 알페아스는 시로네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아무도 몰래 의무실을 빠져나왔다. 이제부터 가장 바빠질 사람은 자신이었다.

“교장 선생님.”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빠져나온 시로네가 의무실의 문을 닫고 걸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거 같구나. 친구들에게 경과도 듣고. 어차피 당분간은 휴교 상태가 이어질 것 같으니 말이다.”

“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응? 궁금한 것이라니?”

시로네는 겪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고했다. 무한의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블랙홀을 통해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경위까지.

처음에는 알페아스도 흥미롭게 들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얼굴이 굳어갔다. 특히나 시로네가 여자의 능력에 대해 설명했을 때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가 나를 알고 있다고 했느냐?”

“네. 교장 선생님에게 안부 전해 달라고 했어요. 흐릿한 기억이긴 하지만, 그렇게 들었던 거 같아요.”

시로네는 괜한 얘기를 꺼냈나 싶었다. 알페아스의 표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

“그래, 누군지 알 것 같구나.”

“네? 알고 계시다고요?”

시로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알페아스는 분명 뛰어난 마법사지만 여자는 삶을 초월한 곳에 머물고 있었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사람 모두를 자신이 만났다는 건 묘한 일이었다.

하지만 알페아스의 생각은 달랐다. 우연이 아닌 필연. 시로네가 그녀를 만난 건 이모탈 펑션을 깨달은 순간부터 정해진 일이었다.

“대체 누구죠, 그 여자는?”

“아드리아스 미로. 당시에는 시공의 미로라고 불렸지. 스케일 마법을 전공한 내 제자란다.”

시로네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알페아스의 제자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특히나 신의 권능으로 생각했던 그녀의 능력이 사실은 마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충격이 컸다.

“스케일 마법이 뭐죠?”

알페아스는 설명할 말을 고르면서 눈썹을 긁적였다.

“시로네. 마법사회에서는 이모탈 펑션에 도달한 자들을 언로커라고 부른단다.”

“네.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얘기가 쉽겠구나. 미로 또한 언로커란다. 어릴 때부터 탐구심이 대단했지. 그녀는 끝도 없이 파고들어 갔다. 우주보다 더 큰 세계를, 입자보다 더 작은 세계를. 스케일 마법이란 시공의 무한함을 깨달은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마법이란다.”

시로네는 미로를 만났을 당시를 떠올렸다. 확실히 그녀의 주요 능력인 유리구슬은 시공간의 상대성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있었다.

“미로 씨는 저를 쭉 지켜보았다고 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걱정할 필요 없다. 미로는 너와 다른 차원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모탈 펑션을 개방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같은 차원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 미로는 아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째서 굳이 저였을까요? 언로커는 희귀하지만 아케인의 말에 의하면 그리 적은 숫자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저보다 뛰어난 언로커들이 많을 텐데요.”

알페아스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뜸을 들였다.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극비사항이었다.

“미로는,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초대 회장이다.”

시로네는 미로의 얼굴을 떠올렸다. 현재 자신이 몸담은 연구회를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도 놀랍지만 초대 회장이라면 거의 20년 전의 인물인데도 나이를 거의 먹지 않은 듯했다.

“미로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았어.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고 보았다. 동기들과 합심하여 이스타스에 연구회를 개설했지. 현재 토르미아 마법협회장인 미케아 가올드도 초창기 멤버 중의 한 명이란다.”

시로네는 당시의 멤버들을 상상해보았다. 네이드의 말에 의하면 마법 창고 이스타스의 마스터 키는 이루키와 똑같은 서번트 능력자가 만들었다고 했다. 미로는 아닐 테고 가올드도 아닐 것이다. 초창기 멤버들이 얼마나 뛰어난 재인들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시로네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알페아스도 18년 전의 일을 회상했다. 미로는 착한 아이였다. 그날의 사건만 아니었다면. 문득 빼먹은 사실이 있음을 깨달은 그는 다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시로네, 혹시 학생들의 총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니?”

대답을 듣기 위해 물은 것은 아닌 듯 알페아스는 바로 말을 이었다.

“물론 총원은 항시 변하지. 누군가는 졸업하고, 휴학을 하고, 징계를 받으니까. 하지만 총원이 몇 명이든 이 학교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지.”

알페아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미로는 졸업하지 않았단다. 여전히 이 학교에 머물고 있어.”

시로네는 침을 꿀꺽 삼켰다. 마치 학교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을 들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머물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분명 그녀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순간 시로네의 머릿속에 스케일 마법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설마……?”

알페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미로는 이스타스에 있다. 물론 스케일 마법으로 만들어진 상위 차원이지. 아는 사람들은 그곳을 상층부라고 부른단다.”

알페아스는 시로네의 어깨를 짚었다.

“시로네, 약속해 주렴. 오늘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상층부는 네가 알아서 좋을 일이 아니다. 절대로, 절대로 상층부에 관여해서는 안 돼.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시로네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미지의 세계. 언로커. 스케일 마법. 모든 정보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물론 앞뒤 가리지 않고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일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거짓말이 되고 말 터였다.

알페아스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정 미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케르고 유적에 대해 조사하는 것 정도는 허락해주마. 너를 달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게 아니다. 곧바로 상층부에 파고들기에는 너무 위험해. 그러니 이것만은 꼭 지켜주렴.”

시로네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알페아스가 이 정도까지 엄격하게 말리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또한 차근차근 접근하기를 원하는 건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스타스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니 으스스한데요. 연구회에서 잠도 못 잘 거 같아요. 갑자기 나타날 지도 모르잖아요.”

“걱정하지 말거라. 미로는 절대로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시로네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토록 확신을 한다는 것은 증명할 방법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분이신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알페아스는 슬픈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딱히 확신을 가지고 꺼낸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미로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미로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픈 곳이니까.”

\* \* \*

알페아스와 카니스, 아린은 마법협회의 조사를 받기 위해 수도 바슈카로 떠났다.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협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휴교가 이어질 것이라 했다.

시로네는 의무실에 입원했다. 10일이나 심장이 안 뛰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료진의 판단이었다. 시로네도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친구들과 모여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시로네, 미안해. 많이 서운했지.”

세리엘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기억을 되찾은 그녀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시로네가 커피를 사온 날 매몰차게 그를 밀친 일이었다.

“아니에요. 마법 때문에 그런걸요. 세리엘 선배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어?”

“정말로 괜찮아요. 너무 마음에 담아 두지 마세요.”

세리엘의 눈망울이 사슴처럼 순해졌다.

“시로네는 정말 다정해.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내 몸을 요구할 거야?”

“네에?”

## [108] 일상으로(3)

시로네의 얼굴이 황당하게 변했다. 친구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에이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미간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다.

“세리엘, 요즘 너 무슨 책 읽어?”

“응! 바로 이거!”

세리엘은 기다렸다는 듯 소설책을 꺼냈다. 도색적인 빨간색 커버에 《원초적 올가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게 요즘 서점가에서 가장 뜨거운 책이야. 유부남 귀족이 시녀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 제가 당신의 접시를 깨뜨렸네요. 이제 어쩌실 거죠? 제 몸을 요구할 건가요? 그러니까 귀족이 그녀를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그만! 됐어. 거기까지!”

에이미가 손을 들어 중지시켰다.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왜 그래? 이제부터 재밌는 대목인데.”

“세리엘, 아무리 소설을 좋아해도 제발 현실과 혼동하지는 마. 그런 책들은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걸로 독자들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흥! 네가 안 봐서 그래. 너도 한 번만 읽어 보면 이 세계에 푹 빠질걸. 말 나온 김에 이거 빌려줄까?”

세리엘이 《원초적 올가미》를 내밀자 에이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그녀의 요구를 받아 줬다가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감상평에 시달리게 될 터였다.

시로네가 쿠션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하아. 의무실도 오늘이 마지막이네. 그동안 찾아와 줘서 고마웠어. 세리엘 선배님도요.”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솔직히 졸업반에서 공부하느라 죽을 맛이었거든. 에이미나 나나 한숨 돌릴 수 있어서 좋았지 뭐.”

에이미도 부정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순위 경쟁을 하느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던 참이었다. 그런 만큼 임시 휴교는 졸업반 학생들에게 단비와도 같았다.

세리엘이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걱정돼. 솔직히 이번 결정은 의외였어. 크레아스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직접 마법협회의 감찰을 받으시겠다고 했잖아.”

알페아스는 자진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륙에서 명망이 높은 만큼 얼마든지 사태를 무마시킬 수도 있었을 테지만 학생회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결국 마법협회에서도 가장 악독하다는 감찰3부로 안건이 넘어간 상태였다.

“감찰3부는 마법협회에서도 특검이라고 불리지. 인맥이고 뭐고 무조건 법대로 한다더라고.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이라도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거야.”

시로네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교장 선생님은 40년 동안 고통을 안고 사셨어. 이번 기회로 조금이나마 짐이 덜어질 수 있다면, 나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네이드가 말했다.

“일단 경과부터 지켜보자. 우리가 대체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공인 4급의 마법사 알페아스잖아. 휴교가 끝나면 다시 바빠질 테니까 쉴 수 있을 때 푹 쉬어 두자.”

“응. 그게 좋겠어.”

시로네는 창가를 돌아보았다.

오후의 태양이 나른한 빛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 \* \*

수도 바슈카.

지저 산맥에서 내려다본 바슈카의 정경은 왕성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핵심 기관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퍼진 구조였다. 수도의 주민들은 지저 산맥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이야말로 국가를 상징하는 기관이라고 말한다.

그중의 하나가 마법협회였다. 18층에 달하는 건물은 토르미아 왕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마법사들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마법사회의 감찰 및 첩보 임무까지 전담하고 있는 국가의 중추부였다.

마법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견학하고 싶은 장소지만 알페아스와 카니스 일행의 인솔 책임자로 낙점된 사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이었다.

“스승님,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내가 원한 일이다. 유일하게 후회되는 거라면 너무 오래 끌었다는 것뿐이지.”

알페아스의 결심은 확고했다. 사드 또한 딱히 기대를 가지고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협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기에, 스승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페아스는 즐거운 표정이었다. 카니스와 아린을 데리고 들어간 그는 감찰부에 자수했고,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독실에 갇혀 하루를 대기했다.

다음 날이 되자 알페아스가 먼저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카니스와 아린은 마법 장치로 도배가 된 격리 시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력 제어 장치는 스피릿 존으로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하비스트조차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3시간 정도가 지나자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카니스, 아린. 나와.”

아직 공식적으로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마법협회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두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먼저 조사를 마친 알페아스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리라.

카니스와 아린은 묵묵히 지시에 따랐다. 조사실이 있는 복도에 진입하자 알페아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다. 카니스는 무심하게 그의 곁을 지나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로가 교차하기 직전 알페아스가 간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미안한데, 잠시 대화할 시간을 주겠소?”

“아, 네.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됩니다.”

카니스는 자신을 대할 때와 완전히 다른 간수의 태도에 콧방귀를 뀌었다. 알페아스가 대접을 받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유명하기 때문이다. 마법 실력으로는 아케인보다 떨어지는 그가 승자의 여유를 부리는 게 기분이 나빴다.

간수들이 자리를 피해주자 알페아스가 말했다.

“너무 긴장할 거 없다. 몇 가지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나오면 된다.”

“착각하는 거 아냐? 우리는 당신이 가르치는 순해 빠진 학생이 아니야.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어. 어떤 상황이 닥치든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

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카니스는 분명 또래 아이들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기에 잃어버린 부분도 많았다. 알페아스는 아직 미래가 창창한 두 사람에게 그것을 되찾아 주고 싶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를 보자고 한 것이다.”

“무슨 소리야?”

“이번 일이 무사히 끝나면 마법학교에 입학하는 게 어떠냐?”

카니스는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은 기분이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인가? 생사를 넘나들며 마법을 배운 자신에게 온실 속의 화초들과 섞이라고 하다니.

“웃기지 마. 스승님이 약해서 진 게 아니야. 어비스 노바만 아니었다면, 아니 정식으로 붙었다면 당신 따위는 한 방에 날릴 수 있었어.”

“그럴 수도 있었겠지.”

알페아스는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을지도 모르지.”

카니스는 입술을 깨물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만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카니스, 악이란 그런 것이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들이밀어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야. 너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어둠이 아닌 밝은 미래를 주고 싶구나.”

“어째서 당신이 나를 신경 쓰지? 동정하는 건가?”

“나 또한 아케인의 제자였다. 너에게는 사형이 되는 셈이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인연도 영원히 이어지는 법. 네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도와주도록 하마.”

카니스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 와 새로운 인생이랄 게 무에 있을까? 배운 거라곤 전투뿐이었고, 그렇기에 전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알페아스가 복도를 멀어져가자 간수가 카니스와 아린은 다시 붙잡고 조사실로 끌고 갔다. 인페르노의 감옥을 상상했던 것과 달리 조사실은 정갈하고 깔끔했다. 왜소한 남자가 등을 지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뒷모습만으로는 은발이라는 것 외에는 확인할 게 없었다.

“조사관님,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카니스와 아린입니다.”

“아, 이쪽으로 오시죠.”

쇠를 가는 듯 섬뜩한 목소리. 악명 높은 감찰3부의 현장을 뛰어다니는 자답게 칼날과도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카니스와 아린은 테이블을 돌아들어가 조사관을 마주 보고 앉았다. 예상과 달리 무서운 인상은 아니었다. 고양이처럼 턱이 뾰족했고 가느다란 실눈으로 웃고 있었다.

“감찰3부 조사관 사키리라고 합니다. 카니스와 아린, 본인 맞으시죠?”

“맞습니다.”

카니스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린에게서는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조사관의 심기를 거슬려서 좋을 것은 없기에 카니스가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아린, 왜 그래?”

아린은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고 있었다. 카니스는 사키리를 바라보는 아린의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뭘 봤기에 이 정도로 놀라는 거지?’

“카니스, 읽을 수가 없어…….”

초경의 아린이 사물의 느낌을 읽어내지 못할 리는 없다. 따라서 원래부터 느낌이 없거나 인위적으로 느낌을 지웠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아린이 바라보는 사키리의 모습은 기괴했다. 전신이 거울처럼 매끈한 금속 재질이었고, 계란형의 얼굴에는 이목구비조차 없었다. 손과 발은 원뿔처럼 삐죽해서 미세한 감정조차 읽어 내기가 불가능했다. 감정을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초경의 형태였다.

“이런, 숙녀분이 놀라셨나 보군요. 초경이라고 하죠, 그거? 마법은 차단시켰지만 고유의 특질까지는 막아 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물론 두 분이 난동을 부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키리는 흥미가 동했는지 펜을 내려 두고 다리를 꼬았다.

아린은 원뿔형의 다리가 꼬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꽈배기처럼 배배 꼬였다가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사람, 장난치고 있어.’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집중.”

아린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거울처럼 매끈한 조사관의 얼굴이 원뿔의 형태로 뾰족하게 늘어나 그녀의 미간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해 주시죠. 일단은 공무 중이니까요. 아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겁에 질린 아린은 자신이 대답을 했는지조차 몰랐다. 미간을 겨누는 날카로운 원뿔은 아마도 사키리의 매서운 눈빛일 것이다. 이토록 깔끔한 형태로 드러나는 초경은 처음이었다. 어떤 범죄자라도 이 사람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니스와 아린은 비로소 현실을 직시했다. 왕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권위적인 사법 기관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이 풀이 죽은 채로 기다리자 바늘처럼 뾰족하던 사키리의 얼굴이 다시 매끈한 금속질의 계란형으로 되돌아왔다.

“뭐, 일단 알페아스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서를 작성하기는 했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죠.”

사키리는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사항을 점검했다. 아린과 카니스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자 사키리가 만족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정리하며 말했다.

“네. 대부분 진술이 일치하네요.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딱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감찰부 조사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안일한 말이었다. 하지만 사키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말을 이었다.

“결국 일종의 세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케인은 당신들의 불행한 삶을 이용해서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시킨 거예요.”

“뭐?”

카니스의 눈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차라리 악당이라는 말이 나았다. 사키리의 발언은 카니스가 살아온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스승님은 한 번도 무언가를 강요한 적 없어. 내가 했고, 내가 저지른 일이야.”

조사관의 강함을 알고 있는 아린은 카니스가 화를 내자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초경으로 바라보는 사키리의 형태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악질적인 수법이군요. 구원해 주고, 존경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이런 게 필요한데 말이야, 물론 꼭 네가 해 줬으면 하는 건 아니야.”

카니스는 조사관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은 죗값을 치르러 이 자리에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뇌라니. 정신병원에라도 처넣을 생각인가?

## [109] 일상으로(4)

“그래서 날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세뇌당한 걸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야…… 무죄판결이 나겠죠, 두 사람 전부.”

카니스의 표정이 멍해졌다. 자신은 아케인을 따라 인페르노에서 범죄자를 탈옥시켰다. 또한 마법학교 수백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린 장본인이었다. 설령 핵심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무죄라는 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판결이었다.

“무죄……라고? 우리가?”

“아, 물론 세뇌당한 사실을 인정하면 그렇죠. 어쨌거나 현재 협회에서는 세뇌의 가능성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니까요.”

인정하면 풀려난다. 자유의 몸이 된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린 또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번만큼은 카니스도 피가 말랐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협회의 판단이었다. 범죄자를 잡아들여도 모자랄 판국에 어째서 풀어 주겠다고 난리인 것일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키리는 마치 이제 막 떠올랐다는 듯 서류철을 뒤졌다. 어쩌면 진짜로 그랬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아린은 조사관의 감정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

“아케인의 전담 변호사가 공문을 보냈더군요. 익명을 요구했습니다만 공증은 끝난 상태입니다. 일단 좀 보시죠. 그의 재산 내역과 유서 그리고 상속에 관련한 서류입니다.”

“유서?”

사키리는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카니스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아케인의 유서는 별다를 게 없었다. 담담한 필체로 사후에 처리할 사안들을 적어 놓았을 뿐이었다.

그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문서]모든 재산을 카니스에게 양도함

‘스승님…….’

사실은 따듯한 사람이었다거나, 남몰래 제자를 챙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대했던 태도에도 거짓은 없었을 터였다.

아케인은 유서로 그 사실을 증명했다. 제자의 목숨 따위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그는 카니스를 유일한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유서를 내려놓은 카니스는 재산 내역을 확인했다.

각종 던전을 포함한 부동산과 마법 기재와 같은 현물, 값비싼 아티팩트와 진귀한 약초 그리고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1, 10, 100, 천, 만…….’

카니스는 마지막에 적힌 재산의 총액을 세어 보았다.

‘48억 골드…….’

대마법사 아케인이 150년 동안 모아 온 재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거액이었다. 그런 만큼 카니스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뜬금없이 무죄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48억 골드라는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키리가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지요,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케인이 카니스 군에게 유산을 상속한 건 분명 제자를 인정하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마법협회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세뇌라는 것은 그런 거잖습니까? 거짓된 자아를 주입하는 거죠. 결국 카니스 씨는 아케인에게 속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지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어떻게든 무죄방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속은 받지 못한다? 아케인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키리는 처음으로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초경은 털끝만큼도 변화가 없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케인이 상속한 대상은 세뇌당한 카니스 군이지, 세뇌당하지 않은 카니스 군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돈은 불법 자금으로 넘어가서 협회에 환속될 텐데, 그 전에 카니스 군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죠. 세뇌를 당했다고 인정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사키리는 한 장의 서류를 추가로 내밀었다. 카니스는 허무한 눈동자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상속 포기 각서.

세뇌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무죄가 된다. 아케인에게 이용당한 희생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케인이 물려준 재산은 고스란히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될 터였다.

결국 협회는 애송이 2명을 잡아들이느니 48억 골드라는 실속을 택한 셈이었다.

“시간을 드릴 수도 있지만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의 자의성을 의심하는 심증이 되니까요. 사실 말이 됩니까? 당연히 세뇌를 당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카니스 군과 아린 양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싸우다 죽는 건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사관은 무죄라고 한다.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이곳도 라둠과 다를 게 없구나.’

바깥세상 또한 태양이 내리쬐는 온실이 아니었다. 법이라는 허울을 둘러 쓴 거대한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전장일 뿐이었다.

카니스가 대답을 주저하자 사키리는 혀를 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시간을 좀 드리죠. 1시간 정도…….”

“서명하겠습니다.”

무릎이 반쯤 펴진 사키리가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사키리는 손수 자신이 사용하는 만년필을 건넸다. 카니스는 포기 각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다.

서걱서걱 펜이 종이를 긁어 나갔다. 사키리는 흐뭇한 미소로 펜을 건네받은 다음 각서를 확인했다.

“자유의 몸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끝난 마당이니 하는 얘기지만 잘 선택한 겁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일이 더 복잡해졌을 테니까요.”

변호사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어쩌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을까?

아니, 사키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마법협회가 호락호락한 곳이었다면 처음부터 포기 각서를 들이밀지도 않았을 터였다.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지?”

“글쎄요. 뭐, 일단 나가면 되겠죠. 자유의 몸이니까요.”

카니스와 아린은 시쳇말로 개털이 된 셈이었다. 하지만 사키리는 알 바 아니라는 듯 서류만 챙겨서 몸을 돌렸다.

“출소 절차 같은 건 어디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마치 귀찮은 외판원을 쫓아내는 듯한 태도에 카니스는 속사정을 알 수 있었다.

처음부터 마법협회는 자신들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케인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귀찮음을 무릅쓰고 2시간 정도를 할애한 것뿐이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더욱 비참한 건,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협회의 강력함이었다. 대륙의 국가들과 당당히 일전을 벌였던 아케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카니스는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제는 자명해졌다. 자신은 전투 마법사다. 그리고 싸우는 방법을 알았으니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다.

“이봐, 당신.”

사키리가 문 앞에서 고개를 돌렸다.

“부르셨습니까?”

“당신도 마법사지?”

“흐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마법협회의 직원들은 모두 마법사니까요.”

“몇 급이지?”

“공인 5급입니다만?”

카니스는 적의 수준을 상상할 수 있었다. 마법협회의 조사관은 공인 5급이었고, 저런 남자였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대로 주저앉지 않아.”

“그렇군요. 그래야죠. 그럼 가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을 내 부하로 만들고 말 거야.”

문고리를 돌리던 사카리의 동작이 멈췄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카니스를 돌아보며 가느다란 눈웃음을 지었다.

“그것 참 열심히 공부해야겠군요. 사실 이 자리도 경쟁률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라서. 하지만 만의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키리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말했다.

“그때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의 이례적인 태도에도 카니스는 반응이 없었다. 사키리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실리주의인지 깨달을 뿐이었다. 고개 한번 숙인다고 해서 돈이 드는 건 아니다. 어차피 미래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사키리가 나가자 아린이 미소를 지으며 카니스를 돌아보았다. 어쨌거나 무죄가 되었으니 나쁠 건 없었다. 48억 골드를 품에 안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카니스, 잘 선택한 거야.”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많아.”

카니스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지금 그의 심장은 아케인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강렬하게 뛰고 있었다.

“아린, 우리 강해지자.”

“응…….”

아린은 사키리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카니스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여기가 자신들의 끝은 아니기에, 그녀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조사실을 나선 사키리는 감찰관실로 직행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일처리는 쉽게 끝난 셈이었다. 아케인이 죽은 게 컸다. 법적인 충돌도 없었고, 알페아스가 여죄를 인정한 것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감찰관실은 대리석으로 바닥을 깐 고급스러운 방이었다. 감찰3부의 전설인 철의 감찰관이라 불리는 남자가 뒷짐을 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감찰관님, 이번 사건에 대한 결재 서류입니다.”

“책상에 두게.”

사키리는 책상에 서류철을 올려두었다. 여느 때라면 이대로 돌아가겠지만 이번만큼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서 돌아섰다.

“알페아스 건은 이대로 괜찮습니까?”

“왜? 상부에서 말이 나올 거 같은가?”

“자격정지 6개월이면 약한 편이기는 하죠. 하지만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의 일인 데다 상해의 의도가 없었고 48억 골드를 보석으로 환산한다면 적당한 합의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어째서 물어보지?”

되묻는다는 것은 예상대로라는 뜻이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낸 것 같아 사키리는 입맛을 다셨다. 하지만 기왕 말이 나왔으니 번복하는 것도 악수였다.

“속죄의 의미가 들어간 것은 아닌지 싶어서요.”

감찰관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사키리를 바라보았다.

“알페아스에게 미안한 짓을 하기는 했지. 하지만 한 번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죄인의 징계를 정한 적은 없다네.”

“죄송합니다. 실언했습니다.”

“그만 나가 보게.”

사키리는 쩔쩔매며 황급히 감찰관실을 나섰다. 범죄자에게는 악명 높은 조사관이지만 협회에서는 그도 상관의 눈치를 보는 마법사일 뿐이었다.

감찰관은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문장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만년필을 꺼내 결재란에 가져다 댔다. 수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이제는 그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당시를 회상하면 알페아스의 집에서 얻어맞은 턱이 아직도 욱신거리는 기분이었다.

“쳇. 그러게 선물을 가져갔어야 했다니까.”

에리나에게 실수를 한 이후 한 번도 알페아스를 찾아간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졌다는 사실만은 용납하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광양자이론은 진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당시에 알페아스가 얼마나 천재적인 업적을 이룩했는지 이제는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크크. 늦게나마 주는 선물일세. 골드서클은 자네의 것이 맞았어.”

감찰관은 자신의 서명을 서류에 새겨 넣었다.

아르디아노 사로프.

학기 말의 성적표(1)

마법학교 학생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기인 학기말이 돌아왔다. 반년 동안의 성과물이 한 장의 종이에 함축된다. 진급과 낙제를 결정하는 건 단두대처럼 무시무시한 커트라인이었다.

알페아스는 마법 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교사 자격정지 판결을 받았다. 법적효력이 발동하는 건 다음 학기부터였고 현재는 교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콜리가 임시로 교장 대행을 하고 있었다.

화단의 잡초를 정리하던 알페아스는 허리를 펴고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귀여운 제자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시로네, 이루키, 네이드. 이제는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고뭉치였지만 그렇기에 더욱 장래가 기대되는 아이들이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허허. 교장이라 부르면 안 된다고 했잖느냐. 지금은 그냥 소일거리나 하는 할아버지란다.”

“에이. 반년만 지나면 다시 교장 선생님인데요 뭐.”

알페아스는 그저 웃고 말았다.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주는 제자들에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과분하다는 생각에 면이 서지 않았다.

## [110] 학기 말의 성적표(2)

“그래. 너희는 어떠냐? 휴교가 끝나서 죽을 맛이지?”

네이드의 얼굴이 금세 울상으로 변했다.

“미칠 거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전 과목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죽을 맛이에요.”

“껄껄! 이번 기회에 진급이라도 해 보게?”

클래스 파이브에서 클래스 포로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과목에서 80점 이상을 내는 것이었다. 평균 80점이 아니란 점에서 난이도는 최상급이었다.

“당연하죠. 학생이면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렇구나. 뭐, 열심히 해 보려무나.”

격려의 말을 기대했던 네이드는 얼빠진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알페아스의 교육 방침은 확고했다. 학생은 경주마가 아니다. 초원에 풀어 두면 알아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될 터였다.

“저희가 좀 도와 드릴까요?”

소매를 걷은 시로네가 잡초 뽑는 일을 거들러 다가왔다.

“허허, 늙은이의 유일한 낙을 뺏길 수야 없지. 잡초는 내가 뽑을 테니 너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렴.”

네이드의 눈에 실망의 기색이 담겼다. 잡초 뽑기를 핑계로 조금이나마 현실에서 도피하려던 생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숙소로 발길을 돌린 시로네 일행의 얼굴에 근심이 담겼다. 이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케인이 습격한 이후 학교는 여전히 어수선했고 예전처럼 공부에 집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답답한 마음에 네이드가 울화통을 터뜨렸다.

“아. 미치겠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공부! 도저히 집중이 안 돼.”

“원래 크게 한 번 터뜨리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법이지. 발표회 끝나고서도 그랬잖아.”

이루키의 말에 시로네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래도 나보다는 낫잖아. 나는 80점 이상으로 올려야 할 과목이 너희들보다 두 배는 많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

“내가 유리한 건 수학뿐이지. 인문 계열은 빵점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네이드가 제일 유리해.”

“무슨 소리야? 나는 딱히 강한 과목이 없잖아. 시로네나 너는 실기에선 무조건 톱을 노릴 건데, 나는 그것도 안 되니까 제일 불리한 거지.”

클래스 파이브의 실기 시험은 마법보다 스피릿 존의 운용이 주요 평가항목이었다. 이모탈 펑션의 시로네와 서번트 신드롬의 이루키라면 어떤 실기든 상위권이 가능하다. 반면에 네이드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스피릿 존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점점 골치가 아파지네. 우리 그냥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할까?”

네이드의 제안에 두 사람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모범적인 시로네마저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니 의욕이 꺾이긴 한 모양이었다.

“어라? 얘들아, 저기…….”

시로네가 중앙공원 쪽을 가리키자 고개를 돌린 네이드와 이루키의 눈이 크게 떠졌다.

“뭐야? 어떻게 쟤들이 여기 있어?”

카니스와 아린이 교정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로네 일행과 눈이 마주치자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카니스가 손을 들며 아는 체를 했다.

“여어. 벌써 수업 끝이야? 시설이나 환경은 괜찮은데, 애들을 너무 살살 다루는 것 같군.”

“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이드가 앞을 가로막았다. 물론 두 사람이 무죄로 풀려났다는 사실은 사드에게 들었지만 인연은 거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니, 끝나야만 했다. 그런데 어째서 학교를 거닐고 있단 말인가?

시로네가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학교에 무슨 볼일이라도?”

카니스는 대답 없이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학교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라면 알페아스도, 교사들도 아닌 시로네였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인물. 그를 넘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해져봤자 제자리걸음일 뿐이었다.

“똑똑히 들어라. 너랑 다시 맞붙게 된다면 결과는 저번과 정반대가 될 거야.”

시로네가 대답하기 전에 네이드가 먼저 받아쳤다.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넌 시로네를 이기려면 10년은 멀었어.”

“너야말로 나를 상대하려면 10년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네이드의 인상이 구겨졌다. 시로네가 생사를 헤매고 있을 당시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살의가 뇌리를 스쳤다. 그러자 쓸데없이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이루키가 상황을 정리했다.

“그만해. 다른 건 됐고, 여기에는 왜 온 거야?”

“왜 오기는? 앞으로 지낼 곳이라 견학하고 있는 거지.”

“뭐어?”

예상치도 못한 말에 시로네 일행의 눈이 똥그래졌다.

“말 그대로야. 마법학교인지 뭔지,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네이드가 두 팔을 걷고 쏘아붙였다.

“마법학교를 우습게 여겨도 유분수지! 누가 너 같은 애를 받아 준대?”

카니스가 손가락을 들고 지적했다.

“선배님.”

“뭐?”

“선배님이라고 불러라. 알아봤더니 너희 클래스 파이브던데. 나는 클래스 포니까.”

시로네 일행은 벙 쪘다. 아마도 두 사람을 받아 준 건 알페아스일 터였다. 하지만 입학하자마자 클래스 포라니.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드문 경우인 건 사실이었다.

“뭘 그렇게 놀라지? 우리는 대마법사의 제자들이다. 마법의 기본은 전부 배웠어. 너희처럼 한가한 놈들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게 웃기는 거지.”

시로네 일행은 울컥하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10년 이상을 아케인과 지내면서 숙달시킨 마법이라면 확실히 클래스 포라고 해도 성에 차지 않은 감이 있었다.

“그러니 앞으로 깍듯이 선배님이라고 불러 주길 바란다.”

“웃기네! 어차피 다음 학기부터 다닐 거 아냐? 그때쯤이면 우리도 클래스 포로 진급할 거라고!”

“그래? 너희 의외로 성적이 형편없던데? 솔직히 실망했어. 이런 덜떨어진 놈들에게 고전을 했다니 말이야.”

카니스가 학교에서 가장 먼저 조사한 건 시로네 일행의 성적과 교우 관계였다. 선두를 다투리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클래스 파이브, 그것도 중위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고급반의 어느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치고 올라올 수 있으리라는 평가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차였다.

시로네 일행이 대꾸하지 못하고 어금니를 깨물자 카니스는 만족한 얼굴로 몸을 돌렸다.

“어쨌거나 열심히 해 봐라. 후배로 들어온다면 귀여워해 줄 테니까. 하하하!”

멀어져가는 카니스의 그림자가 시로네 쪽을 향해 늘어나더니 하비스트가 두 팔을 들고 양손의 중지를 세웠다. 약이 바짝 오른 세 사람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다.

시로네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오늘 노는 거 취소다.”

“그래. 카니스가 선배라니. 나는 학교를 그만뒀으면 뒀지 죽어도 그 꼴은 못 봐.”

“흥, 그만두기는 왜 그만둬? 보란 듯이 진급해서 콧대를 눌러 줘야지.”

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진급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학기 말 평가는 난관을 뚫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반년이란 긴 시간의 총결산이었으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다.

“내가 전에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시로네가 심각한 표정으로 운을 띄웠다.

“내 수준에서 진급이 가능한 확률이 30퍼센트 정도였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때 말이야.”

이루키처럼 수학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시로네의 통찰력 또한 신뢰도가 높으니 친구들은 그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자 네이드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솔직히 큰소리는 쳤어도 생각해 보니 쉬운 일이 아니네. 시로네가 30퍼센트 정도라면 나는 한 50퍼센트 되려나? 이루키는 60퍼센트 정도고.”

“아니. 나는 58.7퍼센트 정도야. 물론 진급은 학기 말 성적을 중점으로 평가하지만, 솔직히 수업 하나도 안 들었거든.”

세 사람은 저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학기부터 꼼짝없이 카니스와 아린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판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런 건 어떨까?”

시로네의 제안에 네이드가 눈을 빛내며 돌아보았다.

“뭔데?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솔직히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야겠어.”

이루키가 말했다.

“방식을 바꾸자는 거지?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내가 말한 30퍼센트라는 건 열심히 공부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하지만 공부가 아닌 시험만을 노리면 50퍼센트 이상은 될 수 있을 거 같아. 그렇다는 말은, 너희에게는 70퍼센트, 80퍼센트도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흐음. 시험을 목표로 한다? 뭔지 알겠어.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지?”

“바로 그거야. 어차피 80점만 넘으면 돼. 잘하는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어.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범위도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 열여섯 과목을 크게 분류하자면 네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어. 인문 계열, 수리 계열, 과학 계열, 실기 계열.”

시로네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 가며 설명을 이었다.

“다행이라면, 적어도 한 계열 정도는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계열이 겹치지 않아. 나는 인문, 이루키는 수리, 네이드는 과학. 실기는 어차피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루키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요컨대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는 거군. 각자의 장기인 분야는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자는 거지?”

“맞아. 시험에서 80점을 넘을 수 있는 요령을 핵심적으로 전수한다면 확률이 훨씬 높아져. 이거라면 50퍼센트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봐.”

이루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시로네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것을 보아하니 카니스와 아린을 선배로 두는 게 신경 쓰이기는 하는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괜찮은 발상이었다. 또한 3명이 동시에 진급을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결과는 없었다.

“찬성이야.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연구회로 가서 계획부터 세우자. 어때?”

“좋았어!”

투지에 불타는 세 명의 소년이 이스타스로 달려갔다.

\* \* \*

시로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다.

시간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의식하지 않은 사람에게 1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만, 1시간을 10분으로 쪼개어 세는 사람에게는 제법 긴 시간이었다.

시로네는 학기 말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모조리 1시간 단위로 쪼갰다. 언제나 시간을 머릿속에 붙잡아 두는 것으로 시간의 누수를 막는 전략이었다.

거기에서 얻은 강력한 효율성으로 시험을 저격한다.

과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문제유형을 정복하고, 출제의 의도와 풀이과정을 분석했다. 그런 면에서 스터디 그룹은 효과적이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 덕분에 시로네 또한 모의고사의 평균점수를 70점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물론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막상 공부를 해보니 특정 과목이 취약한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진짜로 소질이 없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나 이루키는 인문과 수리의 차이가 너무 심했다. 시로네가 직접 출제한 문제지를 정신없이 풀어나가던 그는 불과 30분 만에 펜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켰다.

“다 풀었어.”

“어디 봐 봐.”

시로네는 이루키가 푼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갔다. 정답을 확인할수록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인문 계열의 교사들이 이루키의 얼굴만 봐도 질색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시로네는 황당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야, 어떻게 ‘너는 파스타 먹어라, 나는 파스타 먹을게.’가 말이 되냐? 보조사의 용법 내가 설명해 줬잖아.”

“왜 말이 안 돼? 너는 파스타 먹어! 나는 파스타 먹을게! 딱 떨어지잖아? 각자가 독립된 주체임을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어? 아, 그…….”

그럴 듯하다고 느낀 시로네는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그게 아니야. 언어는 수학이 아니라고. 증명의 도구가 아니라 표현의 도구란 말이야! 따라서 문장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지!”

“젠장, 그딴 게 뭐야? 수학 최고!”

“시끄러! 고집부리는 거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너도 이상하다고 느끼잖아?”

## [111] 학기 말의 성적표(3)

“물론 이상하지. 하지만 그건 감각의 영역일 뿐이야. 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라고.”

이루키의 수학에 대한 자부심은 가히 엄청났다. 얼마나 꼴 보기 싫었으면 인문 교사들이 시험지를 0점 처리했겠는가?

시로네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진급 안 할 거야?”

“흐윽! 젠장!”

이루키도 그 말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죽으면 죽었지 카니스의 후배로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이루키가 다시 문제풀이에 열중하자 시로네는 자리로 돌아와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진짜 시험에서 이래버리면 끔찍하다 진짜.’

네이드가 문득 떠오른 듯 책에서 시선을 떼고 물었다.

“아, 그러고 보니 다음 주에 실기 시험이네. 너희 연습은 많이 했어?”

시로네와 이루키가 동시에 되물었다.

“무슨 시험인데?”

“이런 젠장. 뭔지도 모르고 있었냐? 정신 박동 테스트잖아. 스피릿 존 지구력 평가.”

“딱히 연습할 필요 있나? 시로네나 나나 충분히 80점 이상 받을 수 있잖아. 왜, 너는 불안해?”

“아니. 그래도 실기는 변수가 많잖아. 다른 항목과 다르게 상대평가고. 남들이 더 잘하면 우리 점수가 떨어진다고.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아, 괜찮아. 시간도 없는데.”

이루키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문제 풀이에 전념했다. 클래스 파이브 수준에서 스피릿 존을 다루면 얼마나 다루겠는가? 실기 시험은 무조건 통과라고 생각하는 이루키였다.

시로네가 수학 문제를 풀며 말했다.

“나도 넘길래. 도저히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네이드도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앞의 두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음. 어떡하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으면 부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룰을 이용하는 셈이었다.

‘몰라. 어차피 10등 안에만 들면 되니까.’

네이드는 생각을 접고 공부를 시작했다. 각자의 몫인 33.3퍼센트를 해내지 못하면 스터디 그룹의 효율성은 파괴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지만 어차피 결과물이란 남이 따주는 게 아니었다.

\* \* \*

이미지 존 실습장.

원래라면 고급반 통합 수업이 치러지는 시간이지만 현재 모인 학생은 클래스 파이브 밖에 없었다.

시로네를 수차례나 궁지로 몰아넣었던 악명 높은 실습평가 기간이었다. 특히나 학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학생들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미지 존으로 들어간 에텔라는 언제나 그랬듯 직경 20미터의 스피릿 존을 펼치고 설명을 시작했다.

“오늘 평가할 항목은 정신 박동 테스트입니다. 스피릿 존의 변화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에텔라는 양손을 좌우로 뻗어 먼 곳을 가리켰다. 재질을 파악할 수 없는 시커먼 봉이 높게 솟아있었고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조각되어 있었다.

“평가 기준은 봉의 끝과 끝의 거리인 직경 20미터. 그 이하의 스피릿 존이라면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20미터를 넘지 못하는 참가자는 없겠지만요.”

에텔라는 스피릿 존을 수축시켰다. 존의 부피를 측정하는 전광판의 숫자가 2세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지자 소리장치에서 부저가 울렸다.

“부저가 울리면 한 사이클입니다. 측정시간은 30초이며 스피릿 존의 박동횟수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기록계를 켜두고 실습하는 일은 별로 없었으니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에텔라가 신호를 보내자 이미지 존의 정신박동 모드가 작동했다. 동시에 에텔라의 스피릿 존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심장처럼 펄떡거렸다.

“우와…….”

직경 20미터의 스피릿 존이 직경 2미터 이하로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펼쳐지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딱히 사이클이 빠른 건 아니지만 수축·확장을 반복하는 형태가 폭발을 연상시키듯 강렬했다.

펑! 펑! 펑! 펑!

이미지 존의 기능 중의 하나인 사운드 머신에서 확장의 속도를 계산해 폭발음이 터졌다.

단순히 흥을 돋우기 위해 소리를 구현하는 게 아니었다. 무형의 이미지 존을 오감으로 파악하는 건 마법수련에 최상의 효율을 제공했다.

30초가 지나자 알림판에 30점이라는 숫자가 떴다. 1초에 한 번씩 박동을 한 셈이었다.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진급 커트라인에 들려면 최소 90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1초에 3회의 박동. 아이들은 에텔라의 시연을 기준으로 여태까지 준비한 전략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시연을 끝낸 에텔라가 뒷짐을 지고 말했다.

“실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존을 고속으로 변환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 박동은 그 기본이 되는 훈련이니 실기가 끝나더라도 꾸준히 정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치렀던 스피드 건 시험의 성적을 토대로 후열부터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역시나 한두 달 만에 실력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운 일인지 대부분의 순위는 저번과 비슷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성적을 기록하고, 최하 점수가 48점인 가운데 네이드의 차례가 돌아왔다. 스피드 건 시험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한 그였기에 시로네와 이루키보다는 훨씬 먼저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네이드, 잘해라.”

“후우, 긴장되는데.”

시로네와 이루키의 응원을 받으며 이미지 존으로 들어간 네이드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시작 신호음과 함께 눈을 뜨며 스피릿 존을 팽창시켰다. 마치 전력을 다해 뛰는 사람의 심장처럼 존이 빠른 속도로 박동했다.

“우와! 이게 웬일이야, 네이드가?”

아이들의 눈이 똥그랗게 뜨였다. 10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50점을 돌파하고 있었다. 초당 5회의 박동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박력으로 다가왔다.

“원래 중위권 아니었어? 이 정도면 무조건 상위권에는 진입하겠는데?”

“시로네랑 놀더니 실력이 엄청 늘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연구회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게. 요즘 저 애들 무섭게 공부하잖아? 날마다 농땡이 부리던 이루키도 수업 한번 안 빼먹고.”

30초가 지나고, 네이드의 성적이 나왔다. 173회. 마지막 10초에 가속을 한 게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수고했어요, 네이드.”

에텔라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점수를 기록했다. 자신이 전담하는 제자가 일취월장했으니 기분이 더욱 좋았다.

‘하긴, 처음부터 이 정도는 예상했지만.’

네이드는 쑥스러운 듯 혀를 내밀며 돌아왔다. 친구들과 하이 파이브를 한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후아, 긴장돼서 죽는 줄 알았네.”

“잘했어. 일단 하나 통과했네. 우리 둘만 남았군.”

네이드에게 자극을 받았는지 이후의 참가자들도 사력을 다해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173점보다 높은 점수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네이드가 1위를 고수하는 가운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이루키가 이미지 존으로 들어갔다. 긴장한 기색 없이 서 있던 이루키는 시작과 동시에 서번트 능력을 발동했다.

확장과 수축의 메커니즘을 미리 설계해두고 기계처럼 반복하는 방식은 실전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을 테지만 시험에 있어서는 최고의 효율을 냈다.

그리하여 얻은 점수는 210점.

아이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점수를 바라보았다. 속도의 가감 없이 초당 7회의 박동을 기계처럼 찍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였다.

“하아, 역시 대단하네. 정신마저 방정식인가? 저 자식, 아마 이것도 제대로 한 게 아닐 거야.”

“할 수 없잖아. 서번트니까. 이번만큼은 시로네도 이기기 힘들겠는데?”

그때 뒤편에서 달아오른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가 들렸다.

“흥, 별것도 아닌 점수 가지고 떠들어 대기는. 클래스 파이브는 한심한 놈들의 집합소인가보군.”

발끈한 학생들이 뒤를 돌아본 순간 저마다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다음 학기부터 입학하기로 되어있는 카니스와 아린이 실기평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던 에텔라가 물었다.

“응? 거기 두 사람, 무슨 일이죠?”

“교장 선생님이 견학을 해도 좋다고 해서요.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쪽으로 와요. 여기가 잘 보이니까.”

카니스의 미간이 구겨졌다. 저 여자가 정말로 스승님과 호각을 다퉜다는 말인가? 전투 때는 경황이 없었지만 막상 수업을 지켜보니 바보처럼 순한 성격이었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니면 진짜 바보 아니야?’

어쨌거나 시험에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카니스는 아린을 데리고 참가자들의 뒤편에 섰다.

“어때, 아린? 네가 보기에?”

“심박동心搏動 수련은 질리도록 많이 했지. 스승님이 무조건 끌어올리라고 하셨으니까. 나라면 250점은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거야.”

아린은 정신 계열의 마법사. 특히나 존의 형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촉수형을 자유자재로 다루어야 하니 스피릿 존의 지구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역시 아케인의 제자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아린의 말을 들은 학생들은 절로 위축되었다. 그들 또한 귀족 가문의 자제였지만 마법사를 목표로 한다면 누구나 대마법사의 직계 제자를 꿈꾼다. 출신은 빈민굴이라도 마법만 놓고 보자면 두 사람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셈이었다.

‘흥. 하지만 우리도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마지막 차례인 시로네가 이미지 존에 들어가자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그를 응원했다.

기억을 되찾으면서 시로네가 카니스를 제압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본때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시로네는 이미지 존의 중앙에서 심호흡을 했다. 이루키가 210점을 맞았으니 언저리만 되어도 진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시로네의 눈빛은 전과 달라져 있었다. 확고한 목표가 생긴 이상 카니스가 아니더라도 적당히 시험을 치를 생각은 없었다.

에텔라의 신호를 기점으로 장치에 불이 들어오자 시로네는 시작부터 최고치로 스피릿 존을 박동시켰다.

이루키처럼 정확한 설계가 없다면 1초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리듬감이라는 아주 정확한 인체 시계가 있었다.

시로네는 존의 박동 횟수를 리듬에 얹어 가속시켰다. 사운드 머신에서 드럼 라인에서나 들릴 법한 연타가 터졌다.

퍼퍼퍼퍼퍼퍼퍼펑!

아이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시로네의 시연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스피릿 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1초에 한 번 정도였다.

“저럴 수가……. 저게 초당 몇 회야?”

수 겹의 스피릿 존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서 눈으로 세기란 불가능했다. 학생들은 10초가 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전광판에 120점이란 엄청난 숫자가 찍혔다.

“초당 12회…….”

직경 20미터짜리의 구체가 1초에 12번 수축하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까? 단지 눈으로 보고 있을 뿐, 누구도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다발로 터지는 폭성과 엄청난 속도로 카운트되는 숫자만이 시로네의 정신이 펄떡이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카니스와 아린마저 넋을 잃고 시연을 지켜보았다. 특히나 아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 정도로 박동이 빨라지면 속도를 떠나서 정신이 먼저 붕괴되어 버린다.

가장 작은 원에서 가장 큰 원까지 얼마나 빨리 뻗어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수축시켰을 때의 충격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박동의 핵심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시로네가 선보이는 시연은 속도와 내구력 모두를 극대화시킨 최고의 경지였다.

‘금강불괴.’

에텔라는 시로네의 경지를 한눈에 파악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저 아이의 가능성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다.’

시로네가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이제는 에텔라도 확신하지 못했다. 여기쯤이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저기까지 멀어져 있었다.

## [112] 학기 말의 성적표(4)

‘원래부터 강했던 정신적 내구력이 월등히 상승했다. 이제는 이모탈 펑션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정도야.’

시로네의 장기는 사방식의 방어형이었다. 대부분의 방어형이 그렇듯이 시로네 또한 수비적인 성향의 마법사가 되리라 예상했던 게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모탈 펑션이 성향을 뒤집었다. 이제 그의 강점인 내구력은 공격력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20초가 지날 무렵 시로네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가속을 시도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소리가 터지면서 점수가 340점을 돌파했다.

삐-!

측정시간이 끝나고 부저가 울렸다. 시로네는 잠시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지만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 점수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410점.

평균을 내자면 초당 13.6회의 박동으로 30초를 버틴 셈이었다. 더군다나 마지막 5초는 초당 15회가 넘고도 남을 만한 연타였다.

“진짜 엄청나다. 요즘 들어서 쟤들 왜 저래? 이러다가 진짜 다음 학기부터 선배님 되는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진급은 힘들걸. 이론 성적은 중위권이잖아. 짧은 시간에 점수를 올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시로네는 카니스를 돌아보았다. 이래도 선배가 될 수 있겠냐는 무언의 선포였다.

“정말 대단하다, 저 아이.”

아린은 순수한 마음으로 감탄했다. 이모탈 펑션을 통한 무한의 정신력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내구력. 거기에 빛에 질량을 입힐 수 있는 독특한 마법 성향까지.

특별히 신이 사랑하는 마법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흥, 이 정도는 되어야 숙적이라고 할 수 있지.”

카니스의 투지도 전에 없이 불타올랐다. 처음에는 속성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로네가 선보인 시연은 그런 착각을 깨고도 남았다. 지금이라면 완력의 대결에서도 밀린다.

한참이나 시로네를 노려보던 카니스는 거칠게 몸을 돌렸다.

“가자, 아린. 견학은 끝난 거 같다.”

학생들은 멀어지는 카니스와 아린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이 후련했다. 시로네가 클래스 파이브의 수준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대마법사의 제자를 뭉갰다는 만족감은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시로네, 진짜 끝내줬어. 시험은 망쳤지만 기분은 좋네. 대마법사의 제자면 다야? 어디서 감히 마법학교의 클래스 파이브를 무시해?”

“시로네도 그렇고 이루키에 네이드까지. 너희들 진짜 이번에 진급할 생각이야?”

“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시로네는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3등을 차지한 네이드는 실기시험에 통과했다는 사실에 한껏 기분이 들떠있었다.

“하하하! 당연하지! 깍듯이 선배 대접할 준비나 하라고! 자, 자! 지금부터 미리 연습해 보자. 불러 보라고, 선배님!”

학생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아주 자만이 하늘을 찌르네! 콱 떨어져 버려라!”

“네가 선배면 나는 차라리 학교 안 다니고 만다!”

“이론에서 탈락하면 쪽팔려서 어쩌려고 큰소리야? 절대 진급 못 하도록 밤마다 기도해 주마!”

그러거나 말거나 네이드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웃어젖혔다. 모든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였기에 버틸 수 있는 야유였다.

시로네와 이루키는 몰래 자리를 빠져나갔다.

‘어휴, 창피해.’

마지막 실기 시험이 끝났다.

\* \* \*

여름이 가고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었고, 초목들도 색동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더웠고 아이들은 학기의 마지막을 불태우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 두고 있었다. 수업은 저번 주를 기해 끝났고 남은 건 기말시험뿐이었다.

시험은 클래스 텐부터 하루마다 순차적으로 치러진다. 그리고 마침내 6일째 되는 날, 클래스 파이브의 학생들은 터질 듯한 심장을 달래며 고사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시로네 일행 또한 조식을 깨작거리고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시험은 정확히 12시간 동안 치러지며 쉬는 시간은 5분이었다. 평범한 학교에 비하면 가히 중노동에 가까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마법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지식만큼이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다.

시험문제는 A, B, C형으로 분류되는데, 문제는 같지만 정답의 배열이 달랐다. 부정행위 방지 및 요행으로 답을 맞히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였다.

시로네는 A형, 이루키는 B형, 네이드는 C형이었다. 각기 다른 시험장을 배정받은 그들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복도에 나와 긴장을 풀고 있었다. 이번 시험으로 반년 동안의 성과가 결정되는 만큼 천하의 악동들이라도 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다.

네이드는 춥지 않은 날씨에도 연거푸 몸을 떨고 있었다.

“으으. 죽겠다. 시로네, 너는 어때?”

“토할 거 같아. 한 문제만 실수해도 끝장이야. 특히나 수리 계열은.”

“침착하자고. 어쨌든 시간은 충분해. 긴장은 시험지부터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이루키의 말에 두 사람은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시험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울릴 때는 누구라도 낯빛이 창백해질 수밖에 없었다.

“자, 들어가 보자. 이따가 웃는 얼굴로 보자고.”

“그래. 파이팅!”

세 사람은 12시간 후를 기약하고 각자의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실.

시로네 일행은 성적을 채점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시험지는 유출이 불가능하지만 이루키는 시험문제를 완벽하게 복원했다.

서번트의 기억력은 망각을 모른다. 마치 머릿속의 서랍에 서류 뭉치를 넣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았다.

이루키가 문제를 부르면 네이드가 받아 적었고 시로네는 정답을 찾았다. 그렇게 아침이 밝을 때까지 작업을 한 뒤에야 전 과목의 시험지를 복원할 수 있었다.

이미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세 사람은 각기 흩어져 답을 대입하기 시작했다.

이루키가 복원한 시험지는 B형이었기 때문에 시로네가 찾은 정답과 일대일로 맞춰 보아야 했다.

“후우, 긴장되네. 나 몇 과목은 망친 것 같기도 한데.”

네이드가 앓는 소리를 했다. 하지만 약한 과목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였다.

“나도 그래. 막상 해 보니까 이거 진짜 잔인하다. 다른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한 과목만 미달하면 끝인 거잖아?”

시로네는 전에 없이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의 통찰로도 진급을 장담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것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잖아. 자, 자! 일단 평가는 나중에 하고 채점부터 끝내자고.”

그렇게 다시 몇 시간이 흐르고, 점차 성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네이드가 주먹을 치켜들며 일어섰다.

“아싸! 됐다! 평균 82점! 전 과목 80점 돌파했어!”

딱히 고득점은 없었으나 모든 과목을 균등하게 끌어올려 82점이라는 성적을 냈다. 예전에는 클래스 포를 우습게 알던 악동이었지만 막상 진급을 하고 보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이루키와 시로네는 딱히 말이 없었다. 진정으로 축포를 터뜨릴 시점은 3명 모두 진급이 확정되었을 때였다.

채점을 끝낸 이루키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땀을 닦았다.

“후우. 됐네. 87점. 언어에서 80점짜리가 하나 나왔어. 한 문제라도 더 틀렸으면 끝날 뻔했다고.”

“우와! 그럼 너도 통과야? 축하해! 클래스 포!”

“이 정도야 뭐. 어쨌거나 기분은 나쁘지 않네.”

네이드와 이루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마지막 한 명만 통과하면 그들의 첫 번째 숙원인 동시진급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로네는 반응이 없었다. 이루키는 채점을 하는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시로네, 왜 그래? 시험 망쳤어?”

가까이서 바라본 시로네의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했다. 무슨 일이 터진 게 분명했다.

네이드가 초조한 기색으로 물었다.

“왜 그러는데? 너는 몇 점이야?”

“86점…….”

“우와, 엄청 잘 봤잖아?”

네이드는 진심으로 놀랐다. 전원 진급이라는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막상 귀로 듣자 기적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시로네는 평민의 아들로 공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그런데 고작 반년 동안의 노력만으로 평균 86점을 받은 것이다.

평균 87점을 얻은 이루키가 서번트 능력으로 수리 계열을 만점으로 패스한 것과 비교한다면 시로네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루키도 같은 생각인지 고개를 갸웃했다.

“잘…… 본 거 아냐? 망친 과목이라도 있어?”

“그게, 그걸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니? 무슨 뜻이야? 정확히 말해봐.”

시로네는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았다.

“이루키.”

“응?”

“수학 증명에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 답이 뭐야?”

“아, 그거? 두 가지 수학식을 연계해서 증명하는 거지? 그거 답 엄청 길잖아.”

거기까지 말한 이루키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너 설마……?”

“어, 기억이 안나. 어떤 증명을 정답으로 생각했는지. 다시 풀어 보긴 했는데 똑같아. 그때도 분명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했거든.”

“몇 점인데? 그거 틀리면 몇 점이야?”

“78점…….”

이루키와 네이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마지막 객관식 문제의 점수는 2점짜리. 따라서 한 문제의 결과로 진급과 유급이 갈리게 된다.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답은 몇 번으로 썼는데?”

“3번. 근데 나는 A형이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네이드는 황급히 시험지를 빼들었다. 하나의 보기만 스무 줄에 달하는 극악의 증명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이 문제는 틀렸다. 아마도 클래스 파이브에서 쉽게 풀었던 사람은 이루키밖에는 없을 터였다.

시로네가 머리를 움켜쥐며 괴로워했다.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생각했어. 10초 남겨 두고 갈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시간이 촉박할 경우 한두 번쯤은 있는 일이다. 어릴 때부터 마법학교에 있었던 네이드와 이루키도 그 심정이 어떨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급이 걸린 문제였다. 여기서 떨어지면 또다시 반년을 클래스 파이브에 머물러야 했다.

네이드는 조바심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

“젠장!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어쩌려고?”

“직접 가서 확인해야지. 시이나 선생님에게 물어보자. 전담교사시잖아.”

시로네도 이대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 결정을 내린 세 사람은 연구회를 나와 고사장으로 향했다.

채점하느라 꼬박 하루가 걸렸기에 현재는 클래스 포의 시험이 진행 중이었다. 점심시간을 틈타 건물로 들어온 시로네 일행은 초조하게 교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30분 정도가 지나자 시이나가 복도를 걸어왔다. 세 사람은 경주하듯 그곳을 향해 뛰어갔다.

“선생님! 선생님!”

“응? 너희 왜 여기 있어? 클래스 파이브 시험은 어제 끝났잖아?”

“수학 증명 A형 객관식 마지막 문제요! 그거 정답이 뭐예요?”

시이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의 전공은 화학이지만 문제지는 최소 3회까지 검토를 하기에 채점은 전교사가 참여한다. 물론 전공이 아니라도 그녀의 실력이면 학생 수준의 수학이야 우스웠다.

“갑자기 그건 왜?”

“빨리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네이드의 눈빛에서 다급함을 읽은 시이나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떠올렸다.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 그녀의 기억에도 남아 있었다.

“아, 그거? A형이면 2번이잖아?”

“2번…….”

망치에 얻어맞은 듯 시로네의 몸이 굳었다. 자신이 쓴 정답은 3번. 결국 틀리고 말았다. 점수는 78점. 단 2점 차이로 진급이 무산된다고 생각하자 숨이 턱 막혔다.

“2번…… 2번…….”

같은 말을 중얼거리던 시로네가 갑자기 뒷목을 잡았다. 그러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뒤로 넘어갔다. 복도에 쓰러지기 직전 네이드가 황급히 부축했다.

“시로네! 괜찮아? 정신 차려! 너 금강불괴라며!”

“2번? 어째서…… 어떻게 그게 2번…….”

“선생님, 가 볼게요! 수고하세요!”

시로네는 끌려가는 중에도 똑같은 소리만 중얼거렸다. 가만히 지켜보며 눈을 깜박이던 시이나가 피식 웃으며 교무실로 향했다.

“하여튼 쟤들은 지치지도 않나? 날마다 기운이 넘치네.”

교무실은 채점하는 교사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시이나 또한 자리에 앉아 채점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서랍을 열어 수학 증명 시험지 A형을 꺼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라고 했지?”

시이나는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았다. 잠시 눈으로 풀이를 해 보던 그녀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 3번이네.”

아리안 시로네. 진급 확정.

## [113] 학기 말의 성적표(5)

카이젠 검술학교.

토르미아 왕국의 수도에 자리한 카이젠 검술학교는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답게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기사들을 다수 배출했다.

공인1급 검사만 해도 10명 이상이었고, 그중에는 검호의 칭호를 부여받은 자도 3명이나 되었다.

철의 신념. 용기의 상징.

토르미아 왕국에서 기사를 꿈꾸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카이젠 검술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곳에는 입학시험이 없었다. 대신에 한 달의 수습과정을 거치며 그 기간 동안 생도의 자질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입학을 결정한다.

한 학기에 몰려드는 생도는 무려 300명. 그중에서 입학이 가능한 자는 오직 30명뿐이었다.

이 30명 안에 당당하게 속한 리안은 현재 카이젠 검술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시가지 전투 훈련장.

시가지의 풍경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훈련장은 카이젠의 자랑거리였다.

해골처럼 광대가 튀어나온 교사가 계단에 앉아 있는 1학년 학생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오늘의 실기 과목은 무브먼트다. 그중에서도 너희 1학년은 중심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할 것이다.”

교사의 이름은 파르카 쿠안.

공인 6급의 검사로, 전쟁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기 전에는 죽음의 마술사라 불리던 검의 고수였다.

“중심이동은 검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검의 3박자인 속도, 힘, 정확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쿠안은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소년을 가리키며 물었다.

“너. 검사의 무게중심은 어디냐?”

“네! 배꼽입니다!”

“틀렸다. 너, 말해 봐.”

쿠안은 상어처럼 눈이 쫙 찢어진 생도를 가리켰다. 답을 몰라도 곧바로 일어서야 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렸다가는 시험이고 뭐고 얼차려를 받을 테니까.

“네! 발바닥입니다!”

“틀렸어. 너.”

“거, 검입니다!”

“엎드려. 팔굽혀펴기 200회 실시.”

“실시!”

생도는 열에서 이탈하여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테스트를 앞두고 체력을 소진하는 건 끔찍한 일이지만 검술학교의 교사들은 그딴 건 안중에도 없었다.

쿠안은 허리춤에 채워진 장검을 뽑아들었다. 끝이 부채처럼 펼쳐져있고 상대적으로 검신은 가늘어보였다.

“검사의 무게중심은 어디인가? 정답은 바깥이다. 이를 스키마 용어로 외중력이라고 한다. 따라 해, 외중력.”

“외중력!”

생도들은 소리치는 와중에도 분노하고 있었다. 한 학기 동안 들어 본 적도 없는 용어를 시험 직전에 설명해 주다니.

“여태까지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귀찮아서다. 물론 너희 같은 꼴통이 알아먹을 리도 없겠지. 하지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관계로 외중력에 대한 평가도 추가하기로 하겠다. 알겠나?”

“네!”

생도들의 대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우렁찬 함성에는 살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평가 항목을 바꾸면 반년 동안 개처럼 구른 자신들의 노력은 뭐가 되는가?

‘아, 진짜 어떻게 해 버리고 싶다. 저게 무슨 교사야?’

“딱 한 번만 시연한다. 잘 보고 평가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저마다의 생각이야 어쨌든 원래부터 조용하던 콜로세움에 적막이 흘렀다.

“나가면서 베고 물러서면서 벤다.”

쿠안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베기를 선보였다. 다리를 절뚝이는 탓에 볼품은 없었지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무시무시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검술의 무브먼트다. 육체의 힘은 중심을 이동시키고, 중심의 이동은 검의 파괴력을 끌어올린다. 게다가 스키마로 근력을 향상시킨다면 검의 파괴력은 기하급수로 높아질 수 있다.”

생도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시험을 앞둔 그들의 긴장감은 더없이 높았다.

“……라는 저급한 생각이나 하고 있겠지. 하지만 이런 발상으로 실전에 접근했다가는 3초 안에 죽는다.”

‘재수 없어.’

생도들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명심해라. 아무리 파괴력이 강해도 무브먼트에서 밀리면 승부는 하나 마나다. 따라서 검사들은 상황에 따라 무게중심을 무브먼트에 사용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쿠안은 발바닥으로 땅을 내리찍었다. 그런 다음 한쪽 다리를 띄우자 몸이 바닥을 향해 쓰러졌다.

생도들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쿠안의 중심축이 70도 이상 기울어져 있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허리에 줄이라도 묶어 놓지 않는 이상 인간이 저런 자세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다.

“스키마로 증폭된 힘은 무게중심의 이동을 극대화시킨다. 현재 나의 중심은 몸의 바깥에 있다. 이것을 외중력이라고 한다.”

쿠안의 몸이 오뚝이처럼 벌떡 일어섰다.

“외중력을 이용하면 무브먼트의 가능성이 무한해진다. 이를테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쿠안은 다시 발바닥으로 땅을 때리면서 뒤를 향해 쓰러졌다. 지면에 등이 닿을 정도까지 기울어진 그의 육체가 원뿔을 그리며 회전했다.

“외중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중력이 아니다. 단지 극단적으로 강한 관성일 뿐이다. 따라서 외중력에 회전을 먹이면 육체도 회전한다.”

쿠안이 검을 바깥으로 내밀자 회전이 느려졌다. 하지만 점차 기울기가 되돌아오면서 구심력에 의해 가속이 붙었다.

스스스스스스!

수직으로 일어선 쿠안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했다. 그러다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절도 있는 자세로 회전을 끝냈다.

생도들은 경악의 눈으로 쿠안을 바라보았다. 만약 저 자리에 자신이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발목이 먼저 잘려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가속되는 칼날에 난도질당해 수십 조각으로 썰렸을 것이다.

방어는 불가능하다. 인간이 대기의 압력 차이로 발생하는 토네이도를 막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그만큼 폭발적인 외중력. 비유를 한다면 칼날이 달린 기계장치가 회전하는 것과 흡사한 기술이었다.

‘이것이 죽음의 마술사.’

상대가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게 죽음을 준다고 하여 붙여진 별칭이었다.

“이것이 오늘의 실기 평가다. 장애물 통과가 첫 번째, 시가전 무브먼트가 두 번째다.”

“교관님, 질문 있습니다.”

“엎드려. 팔굽혀펴기 200회 실시.”

생도는 열을 이탈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생각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반드시 기억해라.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교관은 제군의 부모가 아니다. 칭찬받고 싶어 안달이 난 눈동자로 쳐다보지 마라. 역겨우니까. 알겠나?”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해 봐.”

얼차려를 끝낸 생도가 악을 지르며 손을 들었다.

“교관님! 질문 있습니다!”

“말해 봐.”

“시가전 무브먼트는 무엇을 평가하는 항목입니까!”

“그건 이제부터 설명한다.”

생도는 머쓱해졌다. 사실 질문을 한 동기는 쿠안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안은 존경심조차 나약함의 발로라고 생각했다.

“시가전 무브먼트. 귀찮으니 짧게 하고 끝낸다.”

쿠안은 건물로 들어갔다. 인형의 집처럼 전방이 트여 있어서 설명을 듣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외중력이 빛을 발하는 장소는 복잡한 지형이다. 특히나 시가전은 공간마저 협소하기 때문에 무브먼트의 수준으로 승부가 갈린다고 할 수 있다.”

쿠안은 마룻바닥을 발로 찍었다. 하지만 외중력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땅을 찍는 이유는 힘을 발생시켜 중심을 옮기기 위함이다. 이를 퍼스트 임팩트라고 한다. 물론 실전에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을 시간은 없지만 애송이인 너희는 반드시 땅을 찍는 게 좋을 것이다.”

비하와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쿠안의 무위에 감탄한 학생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퍼스트 임팩트로 땅을 찍지 않는다. 내 힘으로 여기를 찍으면 마루가 박살이 날 테니까. 스키마에서 외중력 계열은 다양한 퍼스트 임팩트를 구사하는데, 그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근진동을 이용하겠다.”

쿠안은 상체의 근육을 수축시켜 진동을 발생시켰다. 그 상태로 뛰어올라 벽에 손을 댔다. 팔꿈치를 구부려 관성을 조절하자 3초 이상 공중에 떠 있는 긴경이 연출되었다.

“우와아아아.”

생도들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당연히 ‘엎드려!’가 나와야 할 상황이지만 쿠안은 귀찮은지 설명을 이어 갔다.

“퍼스트 임팩트로 외중력을 만들면서 도약한다. 물론 이런 경우 외중력은 벽의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이를 응용하면 이런 무브먼트도 가능하다.”

쿠안은 벽면을 따라 걸었다. 천천히 고개가 들린 생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직의 위쪽을 바라보았다. 쿠안이 천장에 두 다리를 대고 거꾸로 서 있었다.

“외중력이란 결국 관성의 힘을 이용해 중력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내 몸에는 현재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쿠안이 천장을 걸어가는 모습은 경이를 넘어 기괴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는 마술 같은 게 아니었다.

벽을 타고 달리는 정도라면 스키마가 불가능한 서커스단의 곡마대원도 가능하다. 다만 쿠안은 더 강하고 정밀한 힘으로 관성을 극대화시켰을 뿐이었다.

외중력이 소멸하자 쿠안의 몸이 중력을 따라 추락했다. 시연을 끝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생도들의 표정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전부 엎드려. 팔굽혀펴기 200회 실시.”

“실시!”

생도들이 아차 싶은 얼굴로 엎드렸다. 정식입학생이라면 대부분 스키마를 다룰 수 있으니 불가능한 횟수는 아니다. 하지만 1학년인 그들이 구사할 수 있는 강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기에 200회라면 꽤나 뻐근한 얼차려였다.

“하면서 들어라. 첫 번째 실기는 수평장애물이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높이가 낮아진다. 마지막 단계는 외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시간은 20초. 장애물은 진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장애물을 피하는 머저리는 없으리라 믿는다. 부상을 당하면 카이나 교관의 치료를 받을 것이다.”

카이나는 검술학교 최고의 서저리였다. 마법사에 힐러가 있다면 검사에는 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서저리가 있었다. 문제는 수술의 고통이 극악하다는 점이었다. 특히나 절단 환자 같은 경우는 신경계까지 이어 버리기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졸도하기 일쑤였다.

‘젠장!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무섭잖아!’

“시가전 무브먼트는 간단하다. 외중력을 만들어 벽에 의지한다. 오래 버틸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알겠나?”

“네!”

독기가 바짝 오른 생도들의 표정을 살펴보던 쿠안은 평가지를 챙기고 자리를 옮겼다.

“1번부터 시작한다. 호명하지 않을 테니까 눈치껏 나오도록. 대기하는 자들은 쉬어.”

리안은 자리에 앉아 턱을 괴었다. 한 사람당 최소 3분이 걸리기에 시간은 넉넉하다고 할 수 있었다.

“어때, 잘할 수 있겠어?”

검술학교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리안은 대수로울 것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금발이 파도처럼 흘러내리는 미모의 여성이었다. 큰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팔다리가 쭉쭉 길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체형이었다.

엘자인 테스.

왕국에서 명망이 높은 엘자인 가문의 외동딸로, 식민지 사령관인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 검술학교에 입학한 여성이었다.

얼굴은 귀엽게 보면 귀엽고 사납게 보면 사나웠으나 성격만큼은 어떻게 보든 사나웠다. 실력도 출중하여 1학년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그녀는 숱한 남자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천성적인 무골이었다.

“빨리 앉아라. 교관한테 들키면 사형이다.”

“호오, 천하의 리안도 교관은 무서운 모양이네? 어차피 채점하느라 정신없잖아?”

“알 게 뭐야? 뒤에도 눈이 달린 양반인데. 그나저나 갑자기 자리는 왜 옮긴 거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혹시 긴장하고 있을까 봐 풀어 주려고 왔지.”

“내가 언제 긴장하는 거 봤냐?”

“후후. 하긴,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으니 긴장할 건수라도 있겠어? 속편한 꼴등이네.”

검술학교 생도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리안은 입술만 삐죽 내밀고 말았다. 테스는 미소를 지었다. 어지간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는 그의 성격은 분명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는 점이었다.

이런 남자가 어째서 꼴등을 도맡아 하는 것일까?

1학년 중에서 가장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단연 리안이었다. 아니, 거의 혹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혹한 훈련량을 날마다 소화하고 있었다.

## [114] 학기 말의 성적표(6)

그런데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한 달 전에 스키마를 터득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일지 의문일 정도로 강화의 속도가 느렸다.

“아무리 내가 꼴등이라도 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지. 막상 도전하면 의외로 일이 잘 풀릴 줄 누가 알겠어?”

“후후, 그래, 너다운 말이네.”

테스는 리안이 긴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팔다리가 절단될 수도 있는 시험을 앞두고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리안이 태연하다는 건 묘한 기분이었다.

‘하긴, 그때도 그랬지.’

테스가 리안을 알게 된 건 수습 기간 때였다.

검사들이란 천성적으로 전투를 좋아한다. 그런 아이들이 300명이나 모였으니 첫 날부터 분위기는 살벌했다. 교관들도 막사 내의 일에는 딱히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상대로 몇몇 이리들이 이빨을 드러냈다.

서열정리는 순식간이었다.

스키마를 익힌 자들이 1그룹, 육체능력이 강한 자들이 2그룹, 이도저도 아닌 자들이 3그룹이었다. 문제는 3그룹에도 들지 못한 생도였다. 검에는 관심도 없지만 부모의 등쌀에 떠밀려 들어온 소년들이었다.

1그룹의 리더인 리차드 파이거는 그런 소년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원래부터 성질이 포악한데다 합법적으로 살인기술을 가르치는 사관학교에 들어왔으니 고삐가 풀려버린 것이다.

테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실력으로는 1그룹이나 수습생 중에 10명 남짓한 여성들은 서열경쟁에서 자유로웠다.

당시 리안의 서열은 2그룹의 중간이었다.

이 정도라면 괴롭힘을 당할 위치는 아니지만 리안은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가 검술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하나였다. 졸업 따위는 상관없다. 어떻게든 실력을 키워서 시로네에게 어울리는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푸하하하! 야, 달려! 더 빨리!”

“히히힝! 히히힝!”

어느 날 막사 안에서 1그룹의 생도들이 약한 아이들의 등에 올라타 경주를 벌였다. 몽둥이를 들고 말의 역할을 하는 소년들의 엉덩이를 신나게 때려 댈 때마다 말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중에는 인상을 찌푸리는 생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제 경마를 보듯 응원에 열중이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돈이 걸린 경주였다. 게다가 자칫 싫은 티를 냈다가는 저들의 아래에서 기는 사람이 자신이 될 수도 있었다.

“더 빨리! 이긴다! 이긴다!”

선두를 달리는 파이거는 신이 났다. 어떤 일에서건 패배를 용납지 않는 성격답게 아무리 장난으로 하는 경주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였다. 결승선이 눈에 들어오자 몽둥이질이 더욱 강해졌다. 경주마가 된 생도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어야만 했다.

“히히힝! 히힝!”

“아싸! 내가 1등……!”

결승선을 통과하려는 순간 파이거의 눈에 흐릿한 잔상이 보였다. 이어서 강한 충격이 콧잔등을 강타했다.

“아욱!”

부지불식간에 걷어차인 파이거가 경주마의 등에서 떨어졌다. 그사이에 후발 주자들이 속속들이 결승선을 통과했다.

“적당히 해라. 여기가 너희 놀이터냐?”

파이거는 욱신거리는 코를 붙잡고 푸른 머리의 소년을 노려보았다.

“너 이 자식……!”

오젠트 리안.

파이거가 알기로 2그룹에서도 어중간한 실력이었다. 스키마조차 익히지 못한 놈에게 일격을 당했다는 걸 깨닫자 자존심이 상했다.

“뭐야, 너? 죽고 싶어?”

리안은 대답이 없었다. 말을 아끼는 천성은 검술학교에 들어와서도 변하지 않았다. 할 얘기가 없다면 어떤 말도 지어내지 않는다.

“이 자식 봐라…….”

파이거가 살기를 드러내며 일어섰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생도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물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 테스 또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이곳은 검술학교였다. 전쟁기술을 배우기 위한 집단에서 약자를 위해 나서봤자 변하는 건 없다. 결국은 힘의 서열대로 상황은 정리될 터였다.

“어라, 리안이잖아? 결국 사고를 쳤네.”

테스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와 같은 여성생도, 하지만 남자들보다 머리하나가 더 큰 소녀가 벽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저 아이 이름도 알아? 별로 강해 보이진 않는데.”

“약해. 근데 고집은 세지. 저번에 2그룹 애들끼리 모여서 돈을 좀 걷었어. 파이거 생일이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안 낸 사람이 바로 리안이야.”

“아하, 그래서 찍힌 거야?”

“벼르고 있기는 했겠지. 하지만 솔직히 놀랐어.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다혈질이네.”

“흐음…….”

그제야 테스는 리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생각도 없어보였다.

‘저런 애도 있네. 확실히 왕국은 넓구나.’

감흥은 거기서 끝이었다. 점령지 사령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수많은 괴짜들을 보며 자라온 그녀였다.

제아무리 신념을 내세워봤자 검이 강하지 않다면 부러지고 마는 게 이 바닥의 철칙이었다.

“크크크. 이 자식이 벙어리가 됐나? 후회해도 늦었어. 설마 이런 짓을 해놓고 사지 멀쩡하길 바란 건 아니겠지?”

“밖으로 나가자. 교관이 알면 평가에 좋지 않으니까.”

파이거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놈이 오히려 교관의 눈을 피해서 싸우자고 하다니.

“오냐, 원대로 해주마. 따라와. 다른 놈들도 전부 따라와라. 나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파이거는 리안을 건물 뒤편의 공터로 데려갔다. 1그룹부터 3그룹은 파이거의 뒤편에 자리했고 리안 쪽에 서 있는 건 그룹 외의 아이들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싸울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었다. 단지 파이거의 무리에 속하지 못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리안을 원망하고 있었다.

“야, 두들겨 맞기 싫은 놈들은 이쪽으로 넘어와.”

파이거가 면죄부를 건넸다. 생도들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리안의 옆을 지나치며 우르르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푸하하하! 한심한 것들. 어이, 리안. 이제 어떡할 거냐? 다 도망가고 너밖에 안 남았다.”

“숫자 따위에 의존하다니. 애초부터 싹수가 노란 놈이군.”

“뭐가 어째?”

“싸울 수밖에 없다면 싸우는 게 기사다. 너 같은 건 기사가 될 자격조차 없어.”

파이거는 콧방귀를 뀌었다.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개 잡듯이 물고 뜯는 게 기사다. 기사도란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을 드높이는 포장지에 지나지 않았다.

“좋아, 어디 주둥아리만큼 주먹도 강한지 보자. 직접 상대해 주마. 안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혼자 하겠다는 건,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뜻이니까.”

리안은 주먹을 들고 전투자세를 취했다. 반면에 파이거는 산책을 하듯 설렁설렁 걸어왔다.

“한 대 맞아 주마. 먼저 쳐 봐라.”

파이거가 손가락을 까닥거리자 리안은 주먹을 날렸다. 그 순간 공격을 피한 파이거가 리안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뱃가죽이 찢어지는 고통에 리안의 눈이 커졌다. 묵직한 바위가 복부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이것이 스키마로 강화된 주먹인가?

“멍청아. 내가 왜 맞아 줘?”

리안을 조롱하는 파이거였지만 일격에 끝내지 못했다는 건 의외였다. 너무 방심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이번에는 전심을 다해 연타를 퍼부었다.

리안은 기색할 지경이었다. 맨손 대결이지만 스키마자체가 살인무기였다. 마치 중장비 병사에게 두들겨 맞는 듯했다.

파이거의 주먹이 복부에 처박히자 리안의 다리가 지면 위로 떠올랐다.

다시 착지했을 때는 아무리 맷집이 좋은 리안이라도 서있지 못했다. 무릎부터 구부러진 리안의 육체가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쳤다.

‘그럼 그렇지…….’

파이거는 리안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그 순간 리안이 화살처럼 튀어나와 품으로 파고들었다.

‘뭐야? 아직도 버텨?’

파이거는 당황했다. 리안은 스키마를 익히지 못했다. 또한 제대로 들어갔다는 건 주먹의 감촉으로도 알 수 있었다. 스키마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이미 정신을 잃었어야 정상이었다.

리안은 파이거의 배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얼굴을 노려 봤자 쉽게 피해버릴 터였다. 하지만 넓은 등으로 상대의 시야를 가리고 아래에서 공격을 한다면 파이거라도 섣불리 반격을 할 수 없었다.

작전은 주요했고 파이거는 연달아 물러섰다. 주먹이 꽂힐 때마다 복부가 욱신거렸다.

‘뭐야, 이 자식?’

파이거의 입장에서는 이겨 봐야 본전이었다. 스키마조차 다루지 못하는 놈하고 난전을 펼쳤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개자식이!”

파이거는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다. 리안의 어깨를 붙잡고 밀어낸 다음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러 댔다. 둔탁한 타격음이 공터를 울렸다. 생도들은 창백한 얼굴로 일방적인 구타를 지켜보았다.

파이거가 정신을 차렸을 때, 리안은 걸레처럼 구겨진 상태로 쓰러져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절하지 않았다. 리안의 손가락이 꼼질거리자 파이거의 눈에 불길이 타올랐다.

“으아아아! 짜증 나!”

파이거의 발길질이 리안을 폭격했다.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1그룹의 아이들이 달려왔다.

“야, 그만해! 이러다 진짜 죽어!”

“놔! 죽여 버릴 거야! 죽어, 이 자식아!”

리안의 반응이 점차 둔해지더니 마침내 움직임이 멈췄다. 파이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생도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보자 조금은 분이 풀리는 듯했다.

“똑바로 들어! 나한테 개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밧줄 가져와!”

리안은 하의만을 남기고 홀딱 벗겨졌다. 단단한 근육질의 몸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파이거는 이쯤에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밧줄로 묶인 리안을 높다란 나무 위에 매달았다.

새우처럼 구부러진 리안의 얼굴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졌다.

“푸하하하! 완전 낚싯대에 거는 지렁이잖아? 그러게 주제도 모르고 왜 까불어?”

“크크크. 아, 진짜 쪽팔리겠다. 재수 없게 잘난 척하더니 제대로 걸렸네.”

이곳저곳에서 조롱의 언사가 쏟아져 나왔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라도 한 듯한 기세였다.

테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리 약자가 봉이라도 사람에게 저런 수치를 주다니.

게다가 이 자리에는 같은 또래의 여자들도 있었다. 리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으…….”

리안은 정신을 차렸다.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상태도 아니었다. 수많은 생도들이 킬킬거리고 있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태도였다.

테스는 리안과 눈이 마주쳤다.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다. 지금 그의 상태로서는 동정조차 상처가 될 테니까. 하지만 리안은 예상을 깨고 미소를 지으며 윙크했다.

“아, 이거 미안하네. 숙녀들도 있는데 말이야.”

테스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을 고수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다.

“푸하하! 지금 뭐라는 거냐? 이 상황에서도 허세를 떨고 있네. 그냥 바보였잖아?”

“야야! 솔직해져라. 죽도록 얻어터진 주제에 잘난 척 하면 네가 뭐 있어 보일 것 같아? 너 지금 완전 웃기다고.”

“쪽팔리지? 쪽팔리지? 여자들 앞에서 그 꼴이라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다.”

리안은 생도들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조롱에도 그의 눈빛은 잔잔했다.

“괜찮아. 쪽팔려도.”

“푸하하! 하긴, 너 같은 놈들은 평생 그러고 살아야지. 아니면 혹시 변태 아니야? 너 지금 은근히 즐기고 있지?”

리안은 담담하게 말했다.

“금방 잊을 수 있을 테니까.”

정적이 찾아왔다.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정적을 지배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니 부끄럽지 않아. 시간이 흐르다보면 오늘 같은 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정말 잊을 수 있겠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 모두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싸워보지도 않고 꼬리를 말아버린 너희들의 모습은 아마 평생을 따라다닐 거다. 그리고 후회하겠지. 그때 싸워봤더라면, 그때 일어섰더라면. 하지만 알고 있잖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생도들의 얼굴이 파르르 떨렸다. 파이거의 폭력과는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었다.

## [115] 학기 말의 성적표(7)

“패배는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아.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수치는 금방 잊을 수 있다. 하지만 겁에 질려 도망친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전쟁터에서도, 너희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검사의 신념은 목숨과도 같다. 한 번 꺾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야.”

더 이상 리안을 조롱하는 자는 없었다.

“비겁했던 기억 따위 누구나 가지고 싶지 않은 거야. 검사라면 더더욱. 아마도 오늘을 회상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질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훗날 당당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리안이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싸우란 말이야! 이 멍청이들아!”

리안의 외침이 생도들의 가슴을 관통했다. 피가 끓어올랐다. 실력은 제각각이지만 전장의 귀신, 최강의 검사, 강철의 기사로 불리고자하는 욕망은 똑같았다.

수백 명의 투지가 동시에 끓어오르는 게 피부로 전해져왔다. 공기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파이거를 바라보는 눈에 예전과 같은 공포는 없었다.

파이거를 위시한 1그룹은 위기감을 느끼고 저마다 살기를 뿜어냈다.

“닥쳐! 패배자의 말 따위는 아무도 듣지 않아! 나를 쓰러뜨리고 싶어? 그렇다면 덤벼봐. 저기 매달린 놈과 똑같이 만들어 주겠어!”

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만지작거렸다.

“흐음.”

오젠트 리안.

검술학교 입학 후보생.

“좋았어.”

테스는 땅을 박차고 몸을 날렸다. 파이거를 뛰어넘은 그녀가 밧줄을 풀자 쿵 하고 떨어진 리안이 아픈 몸을 구물거리며 가부좌를 틀었다.

“리안이라고 했지? 나는 테스다. 함께 싸우자.”

테스가 악수를 청했으나 리안은 그저 쳐다만 보았다. 밧줄로 묶여 있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테스의 등장은 아이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 그룹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훈련 중에 선보이는 실력은 파이거와 호각이라고 평가받는 그녀였다.

“나도 싸우겠어! 이대로는 못 참겠다고!”

“여자도 나서는데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너도나도 리안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1그룹을 제외한 모든 생도들이 한데 뭉쳐서 소리쳤다.

“본때를 보여 주자! 저 망나니들을 학교에서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파이거 일행은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제아무리 스키마로 근력을 높이더라도 이 많은 숫자를 상대할 수는 없었다.

“이 자식들이! 진짜 죽고 싶어!”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 자식아!”

2그룹에서 힘 좀 쓰는 소년이 먼저 선공을 가했다. 턱이 돌아간 파이거가 인상을 찡그리며 소년을 노려보는 순간, 수십 명이 달려들어 그를 땅바닥에 패대기쳤다.

“자, 잠깐! 그만해!”

현실을 직시한 파이거가 소리쳤으나 아이들의 울분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이곳저곳에서 1그룹의 생도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룹 외의 소년들까지 나서서 그들을 작신작신 두들겨 패는 상황이었다.

“사, 사람 살려! 교관님! 교관님!”

테스는 무심하게 전장을 응시하는 리안을 돌아보며 웃었다.

“후후, 이거 미안한데? 남이 차려 놓은 음식에 포크만 꽂은 거 같아서.”

“됐어. 영웅 노릇은 질색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쪽으로 부른 거고.”

“어라? 너 정말 모르고 그런 거야?”

리안이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자 사실임을 깨달은 테스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너 바보냐? 교관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놔둘 리가 없잖아. 지금 상황도 전부 보고되고 있을 거라고.”

테스의 예상은 정확했다. 파이거는 골절상을 입어 퇴출 조치를 받았고, 그와 동조한 다른 1그룹의 아이들도 수습 기간을 채웠으나 입학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리안은…… 훈련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합격자 30명 중의 1등으로 카이젠 검술학교에 입학했다.

리안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던 테스가 입꼬리를 올리며 배시시 웃었다.

“그랬던 리안이이~ 지금은 꼴찌를 맴돌고 있지요.”

“시끄러. 갑자기 옛날 일은 왜 들먹여? 누가 1등 시켜 달라고 했나?”

“후후, 그래도 참 대단해, 나라면 자괴감에 빠졌을 법도 한데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하는 거 보면.”

“자괴감 같은 소리 하네. 그딴 건 졸업한 지 오래다.”

“그래도 걱정되지 않아? 어쨌든 입학을 했으니 졸업은 해야 하고 검사로서 이름도 알려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거 아냐?”

“……아주 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무슨 소리! 진짜로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궁금하기도 하고. 너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뭔지 말이야.”

리안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원동력이라. 따지고 보면 다른 생도들에 비해 속이 편한 입장이었다.

“검사로서 이름을 날리면 좋지만 그러지 못해도 상관없어. 나는 강해지기만 하면 되니까. 주군을 위해서 말이야.”

“주군? 무슨 소리야?”

“아, 나는 기사 서약을 했거든.”

테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옆집 꼬마에게 누구랑 결혼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약혼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기분이었다.

“진짜야? 아직 스무 살도 안 됐는데?”

기사 서약이란 검사가 평생을 거쳐 한 번만 할 수 있는 맹약이다. 따라서 주군을 선택할 때는 미래와 장래성을 꼼꼼하게 따지기 마련이었다.

“괜찮겠어? 어떤 사람인데?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테스는 분명 유명한 사람이리라 짐작했다. 전쟁 영웅, 왕성의 장관, 그도 아니라면 지방 도시의 영주. 아무래도 인생을 통째로 맡기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로네.”

“시로네? 흠, 시로네라……. 모르겠는데? 뭐 하는 분인데?”

“내 친구. 지금 고향에 있는 마법학교에 다니고 있어.”

테스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턱을 벌렸다. 친구라니. 게다가 정식 마법사도 아니고 학생이라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무리 친해도 기사 서약을 할 필요는 없잖아. 어라, 설마……?”

테스는 문득 불안해졌다. 있었다, 유명하지도 않고 장래성도 없는 사람에게 기사 서약을 하는 경우가.

“시로네라는 아이…… 여자야?”

“미쳤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재능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기사 서약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래? 흐음.”

테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 나는 시로네가 최고가 될 거라고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건 거야.”

오늘 따라 리안이 달라보였다. 까놓고 말해서 소년들 간의 의기투합이라는 건데, 어지간히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서야 기사 서약까지 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도대체 누구지? 시로네라…….’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번뜩였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시로네라는 좋은 건수가 생긴 것이다.

“나도 한번 보여 주면 안 돼? 그 시로네라는 아이.”

“뭐? 네가 내 친구를 왜 봐?”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한마디로 직장 먼저 잡아 두고 학교 다니는 거잖아?”

“그렇다고 뜬금없이 말이 되냐? 게다가 시로네는 크레아스에 있어. 여기랑 엄청 멀다고.”

“뭐 어때? 며칠만 있으면 학기도 끝나는데. 어차피 우리 가족은 점령지에 있어서 만날 사람도 없단 말이야. 크레아스에 놀러 가면 되지. 맞다, 거기 남쪽에 섬 하나 있잖아? 관광지라서 평소에 가 보고 싶었는데. 시로네랑 같이 놀러 가자.”

미리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테스의 말은 막힘이 없었다. 리안도 거기까지 듣자 생각이 달라졌다. 물론 테스와 단둘이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시로네가 끼어든다면 얘기가 달랐다.

“흐음, 시로네랑……. 하지만 셋이서 가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사교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특히나 여자한테는.”

리안의 긍정적인 태도에 테스는 눈을 반짝였다. 평소에는 귓등으로도 안 듣던 그가 돌변하자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기도 했다.

“시로네도 1명 데려오라고 해. 마법학교에 아는 여자들 있을 거 아냐. 2 대 2로 놀러 가는 거지. 쌍쌍 여행. 어때?”

쌍쌍 여행이라. 재밌게 들리기는 했다. 무엇보다 학기가 끝나고 시로네랑 놀 궁리만 하고 있던 리안이었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뭐, 일단 생각 좀 해 보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테스는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그럼 휴가를 위해 마지막 실기 평가를 화려하게 끝내 볼까?”

대부분의 생도들이 실기 평가를 끝내고 어느덧 테스의 차례가 돌아왔다.

“47번 엘자인 테스. 평가 준비 끝!”

장애물 통과의 출발선에 선 테스가 소리치자 쿠안이 손가락을 구부리며 신호를 보냈다.

“출발해.”

테스는 림보처럼 낮아지는 장애물을 전력질주로 돌파해나갔다. 하지만 앉은키보다 낮은 칼날의 장애물 앞에서는 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다.

남들보다 일찍 스키마를 터득한 그녀지만 외중력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스키마의 특성상 성장기의 시절에 스키마를 통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있다고 한들 권장하는 방식도 아니었다.

테스는 침착하게 퍼스트 임팩트를 가했다. 땅을 찍고 올라오는 충격파가 스키마를 통해 전해졌다.

‘여기에서 무게중심을 밖으로 뺀다!’

외중력은 마법이 아니다. 단지 중력을 이겨 내는 강력한 관성을 만들어 내는 것뿐이었다. 그런 자신감으로 테스는 상체를 젖혔다.

‘됐다!’

테스의 몸이 부채꼴의 동선을 그리면서 칼날의 아래를 빠져나왔다. 요행이 아니었다. 여태까지 외중력을 이용하지 않고 해 왔던 모든 훈련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47번 엘자인 테스. 장애물 통과 끝!”

테스가 두 팔을 벌리고 보고하자 생도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해냈다. 이거 진짜 되잖아?’

쿠안의 지도가 헛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교육을 시킨 것이었다.

‘성격파탄자라도 교사는 교사네.’

시가전 무브먼트까지 완벽하게 해낸 테스는 당당하게 1위에 올랐다. 참가자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 성적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을 듯했다.

“52번 오젠트 리안. 평가 준비 끝!”

리안의 차례가 되자 쿠안의 미간이 구겨졌다.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기대감이 들게 만드는 묘한 생도였다.

“해 봐.”

리안은 땅을 박차고 돌진했다. 스키마가 필요치 않은 장애물은 발군의 수준으로 통과했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다.

‘퍼스트 임팩트!’

땅을 강하게 밟으면서 상체를 젖혔다. 동시에 쿠안의 눈빛이 번뜩였다.

리안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칼날이 어째서인지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라?’

쿠안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 리안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바닥을 데굴데굴 구른 리안은 한참이나 일어나지 못했다. 힘겹게 상체를 일으킨 그의 앞으로 성난 교관이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이 자식아! 너 미쳤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스키마는 어따 팔아먹고 칼날에 목을 들이밀어?”

정신을 차린 리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스키마…….”

“무슨 헛소리야? 너 스키마가 뭔지 몰라? 스키마 안 되는 놈들은 실기에서 열외야!”

“아닙니다!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근력 강화 검사를 했고 통과 판정 받았습니다!”

“뭐, 인마? 근력 강화? 어디서 거짓말을…….”

근력 강화는 체중의 두 배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스키마의 여부를 검증하는 검사였다. 주위를 둘러보던 쿠안은 리안의 무게를 계산해서 적당한 것을 찾아냈다.

“야, 너 여기 와서 이거 들어 봐.”

훈련장을 건축하고 남은 큼직한 돌덩어리였다.

리안은 심호흡을 하고 걸어갔다. 솔직히 근력 강화 검사 때도 사력을 다해서 통과했던 만큼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후우우우!”

돌덩어리를 껴안은 리안은 온 힘을 다해 허리를 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중심을 잡고 팔을 번쩍 들자 묵직한 돌이 머리 위로 떠올랐다.

쿠안은 리안의 몸을 손끝으로 눌러 보았다. 진동을 통해 근섬유의 작용이 전달되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런 빌어먹을.’

스키마가 아니었다.

수많은 생도들을 키워 봤지만 이토록 재능이 없는 놈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소질이 달려도 최고 시설에서 교육을 받으면 스키마 정도는 하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리안은 그조차도 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재능이 없으면 내치면 그만이다. 세상에 검사 지망생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하지만 쿠안은 리안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놈이었다.

‘대체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이런 놈은 밉지 않다. 아니, 1명의 검사로서 존경해야 마땅한 의지력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모든 걸 막고 있었다. 재능이 없다.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 해 보겠는데 아예 전무했다.

“리안, 미안한 얘기지만, 너는 스키마를 터득하지 못했다.”

생도들의 표정이 황당하게 변했다. 쿠안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얘기가 나온 건 반년 동안 처음이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돌덩어리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대체 뭔데요?”

쿠안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건…… 바보처럼 강인한 네놈의 근력일 뿐이야.”

리안은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그가 들고 있던 돌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오젠트 리안. 꼴등 확정.

(5권 끝)

=======================================

# Volume 6

=======================================

## [116] 예상치 못한 손님(1)

마법학교의 전반기가 끝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분위기는 훈훈했다.

교사들도 제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집에 돌아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육체 훈련을 주로 하는 검술학교에서는 수련만큼이나 휴식을 중요한 소양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정신을 단련하는 마법학교라고 해서 그 사실을 간과하는 건 아니었다.

정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연히 인간에게 장착된 기능이었다. 아무리 끈기 있는 학생이라도 과열된 머리를 식히는 여유는 필요했다.

다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알페아스 마법학교에서는 발표회를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로 논문을 써올 것을 요구한다.

물론 시로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에서 개최한 ‘보이지 않는 것’의 발표회로 최고점을 받은 그는 홀가분하게 방학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방학 당일, 시로네는 텅 비어있는 제3수련장을 찾았다.

매일같이 영창 소리와 마법의 폭성으로 시끄러웠던 곳이지만 지금은 고즈넉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제3수련장은 수련장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1,600미터 트랙이 외곽을 돌았고 8등분으로 쪼개진 구역에는 각종 마법 효과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시로네는 이동 마법 훈련장으로 들어갔다. 순간 이동, 플라이, 다크포트, 에어 워크 등, 마법사가 구사할 수 있는 이동 마법은 무수히 많다. 그 모든 마법을 수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황량한 공터면 충분했다.

시로네는 그곳에서 반년 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았다.

‘우선은 이동 마법.’

시로네가 주력으로 하는 이동 마법은 순간 이동이었다. 거기에서 더욱 발전하여 곡선 이동이 가능한 레인보우 드롭과, 좌우 이동을 고속으로 구사하는 패트롤 기술까지 습득했다.

성과 중에서는 광자 출력도 빼놓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마법에 불과했지만 신의 입자를 깨달으면서 강력한 공격마법인 포톤 캐논으로 탈바꿈했다.

덕분에 빛을 장시간 유지시키는 섬광마법까지 손쉽게 터득할 수 있었다.

시로네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진화를 거듭했다. 포톤 캐논을 수학적으로 역행하여 레이저를 개발한 것이다.

단일 충격량은 포톤 캐논이 높겠지만 레이저의 누적 데미지는 무한에 가까웠다. 레이저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면 그 어떤 단단한 물체도 파괴시켜 버리는 무시무시한 마법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꽤나 열심히 했구나.’

시로네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은 건 전공마법에 대한 수준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시로네의 광자화 이론은 준아광속을 넘어 아광속의 영역에 올라있었다. 시로네가 수련장을 찾은 이유 또한 아광속의 마법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공간 이동을 시전해보기 위해서였다.

“과연 어떤 기분일까?”

순간 이동과는 차원이 달랐다. 공간 이동부터는 시공간이 접히는 빛의 특수성을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들었다.

스피릿 존을 펼치자 공감각을 통해서 주변의 풍경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하나의 지점에 의식을 집중한 시로네는 아광속의 수준으로 광자화마법을 펼쳤다.

전지와 전능을 결합시키고 중심을 기울이는 순간 육체가 빛으로 증발했다. 섬광이 하늘 높이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지상으로 추락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시로네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거친 숨을 내쉬었다.

“허억! 돼, 됐다!”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순간 이동과는 눈에 들어오는 풍경 자체가 달랐다.

순간 이동을 시전하면 세상이 구겨지면서 밀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공간 이동은 마치 세상이 접혀 버린 듯 하늘과 땅이 회전하는 기분이었다.

‘이것이 공간 이동이구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래가지고는 전투에서 사용할 수가 없겠어.’

공인 6급의 마법사인 에텔라조차 아케인과의 대결에서는 순간 이동을 주력으로 삼았다고 들었다. 결국 전투 시에는 공간 이동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방증이었다.

공간 이동이 진짜로 빛을 발하는 시점은 전투가 아닌 이동하는 상황에서였다.

장거리를 움직일 경우 순간 이동을 시전하면 엄폐물에 충돌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스피릿 존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대부분은 10미터 이내의 간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공간 이동은 엄폐물에 상관없이 말 그대로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스피릿 존의 반경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어야 했다.

현재 시로네의 스피릿 존의 직경은 대략 50미터. 학생들 중에서는 수준급의 크기였지만 공간 이동과 같은 고급마법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다.

결국 스피릿 존에 비해 마법수준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었다. 보통은 스피릿 존의 수준에 마법이 따라가기 마련이지만 언로커인 시로네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이론의 장벽을 뛰어넘어 버린 것이다.

‘밸런스가 비대칭이 됐네.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가?’

물론 스피릿 존의 성장폭도 작은 것만은 아니었다. 크기는 입학 초기와 비슷하지만 내구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년 전의 수준으로 존을 펼치라고 한다면 직경 100미터도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태로 고등 마법을 시전하다가는 존이 깨져 버리고 만다. 따라서 존의 반경은 여전히 50미터라고 생각하는 편이 합리적이었다.

‘하하, 이 정도 크기의 존으로 공간 이동을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겠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실전에서 공간 이동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존의 직경이 200미터는 되어야 했다.

마법사가 급한 임무를 받고 10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순간 이동으로 도달하려면 무려 1,000회를 시전해야 한다. 하지만 존의 직경이 200미터인 마법사는 단지 50회의 공간 이동만으로 거리를 주파할 수 있다.

분초를 다투는 실전의 현장에서 950회의 시전 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효율이었다.

“강력한 마법만 배운다고 전부가 아니구나. 스피릿 존이 받쳐 주지 않으면 뛰어난 마법사는 될 수 없어.”

게다가 스피릿 존을 수련한다고 해도 반경만 넓히는 게 능사가 아니었다.

주요 마법이 작동할 수 있을 만큼의 내구력을 갖춘 상태에서 크기를 키워야 한다. 게다가 마법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밀도까지 신경 써야 했다.

“세상에나…….”

시로네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길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기분이었다.

존의 반경과 내구력, 전지와 전능, 응용력과 숙련도, 실전 경험과 판단력 등, 마법사가 익혀야 할 소양은 끝도 없었다.

무엇보다 시로네를 전율시킨 것은 이 모든 소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밸런스를 이루면서 상승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런 사실을 깨닫자 자신이 추구하는 길이 무엇인지, 마법이란 어떤 것인지 그 형태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로네는 희열을 느꼈다.

무한에 가까운 마법 세계에서 흐릿하게나마 실체를 느꼈다는 건 성장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시이나, 에텔라, 아케인도 마찬가지다. 모두 엄청난 수행을 거쳐 그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물론 험난한 길이겠지만 결코 끊어진 다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할 수 있다. 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클래스 포의 진급에 성공했으니 다음 학기부터는 언제라도 졸업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되면 꿈에 그리던 마법사가 되는 것이다.

“내가 마법사가…….”

시로네는 상상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때는 평생을 산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토록 원하던 꿈이 현실로 실현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마법 하나 다루지 못한다고 동기들에게 구박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례적인 순간 이동 시험까지 치르지 않았던가?

“하하!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한심했네.”

시로네는 이동 마법 훈련장을 벗어나 제4구역에 있는 절삭 마법 수련장으로 들어갔다.

마법적인 절삭력을 시험하는 곳으로, 점성이 강한 원통 모양의 타깃이 마법진 위에 떠있었다.

시로네는 타깃에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윈드 커터.”

영창과 동시에 강풍이 휘몰아쳤다. 날카로운 바람이 타깃을 할퀴자 철썩 소리를 내며 원통이 이등분되었다.

에어 계열의 전공자는 점성을 최대치로 맞추고 훈련한다지만 처음 시도하는 시로네는 마법이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흡족했다.

“헤헤, 이 정도는 간단하지.”

현재 시로네의 전지는 입학 초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있었다.

전 과목을 80점 이상으로 통과했으니 기본 마법인 윈드 커터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전지를 안다고 해서 모두가 전능을 해내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 시도한 마법을 곧바로 발현시킬 수 있는 이유는 시로네의 성향이 분석보다는 통찰에 가깝기 때문이다.

마법사는 크게 이론파와 감각파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어떤 작업을 처음 시도할 때는 감각파가 이론파보다 습득이 빠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시로네는 그 성향이 너무나도 뚜렷한 측에 속했다. 일전에 아케인이 시로네를 두고 실전에서 배우는 타입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반년의 성과를 복습한 시로네는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제법 마법사다워진 듯했다.

“야, 시로네!”

“어라?”

트랙을 돌아보자 네이드와 이루키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뛰어가려던 시로네는 문득 재밌는 생각을 떠올리고 걸음을 멈췄다.

그런 다음 스피릿 존을 타깃형으로 변환시키고 친구들과의 거리를 계산해 공간 이동을 시전했다.

낑 하고 쇠가 긁히는 소리를 내며 시로네의 몸이 순식간에 두 사람의 앞에 떨어졌다.

“깜짝이야! 뭐야, 방금 뭐 한 거야?”

네이드가 화들짝 놀라며 물러섰다. 이루키도 예상치 못했는지 눈을 크게 떴다.

“설마 공간 이동? 학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습하고 있었던 거야?”

시로네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당분간은 수련장에서 연습을 못 하잖아. 마지막으로 복습 좀 하려고 들렀어.”

“하지만 공간 이동은 오늘 처음 성공한 거잖아? 근데 되게 신기하다. 한 번만 다시 해 봐.”

네이드가 호들갑을 떨자 이루키가 혀를 찼다.

“뭐가 신기해? 처음 보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 우리 또래가 시전하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선생님들이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로네가 하니까 기분이 다르네.”

“하긴, 공간 이동은 졸업반 선배들한테도 어려운 마법이니까.”

괜히 전공자라 불리는 게 아니었다. 순간 이동은 마법사의 기본이지만 공간 이동부터는 전공 계열에 가까웠다.

물론 순간 이동과 마찬가지로 공간 이동 또한 오버 파워로 분류되기에 공인 6급의 수준이라면 필수적으로 익힌다.

하지만 아무리 전공자라도 학생 수준에서 아광속을 구사하는 건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딱히 쓸데가 없어. 이동 거리가 너무 짧아서.”

“왜 쓸데가 없어? 적어도 네이드는 놀라게 했잖아.”

“뭐야? 내가 언제 놀랐다고 그래? 나도 플라즈마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보여 줘?”

네이드가 발끈했지만 이미 패는 드러난 시점이었다. 이루키가 귀찮은 듯 손을 휘저으며 시로네에게 말했다.

“됐어. 아무튼 요약하자면 이거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단한 마법을 시전해보며 자아도취에 빠져있었다 이거지?”

시로네는 얼굴을 붉혔다. 반년 동안의 성과를 복습한 것뿐이지만 어떤 의미로는 이루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뭐, 너 정도면 충분히 그래도 돼. 이번 학기에 가장 큰 성장 폭을 보인 사람이니 너니까 말이야. 어쨌거나 이제 만족했으면 인사드리러가자.”

“아, 맞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나 몇몇 학생들은 시로네 일행처럼 학교에 남아 있었다. 학기 중에 고생한 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세 사람은 수련장을 벗어나 교사진이 머무는 건물을 찾았다. 기숙사의 문이 전부 열려 있고 청소부들이 방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시로네는 회의장을 찾았다. 예상대로 수많은 교사들이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찻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 [117] 예상치 못한 손님(2)

“어라? 너희, 아직도 안 가고 뭐 해?”

어색하게 서 있던 시로네 일행은 시이나가 알은체를 하자 회의실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아, 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요. 한 학기 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교사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껄껄! 교내 최고의 말썽쟁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 웃음이 나오는구나. 어쨌거나 너희도 시달리느라 고생했다. 방학 중에는 열심히 놀아. 자고로 학생은 노는 것도 잘해야 하는 법이야.”

시로네 일행에게 자리를 내준 시이나가 차를 따라 주며 덕담을 건넸다.

“3명 모두 진급 축하해. 다음 학기부터는 더 바빠지겠네? 쉬는 것도 좋지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 개학하면 꼼꼼히 지켜볼 테니까.”

역시나 시이나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떠든다는 이유로 교실을 얼려 버리는 선생님치고는 상냥한 말이었다. 학기가 끝나면서 교사들도 긴장이 풀린 듯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시로네가 찻잔을 들고 차를 음미하는데 옆에 서 있던 사드가 에텔라에게 물었다.

“에텔라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식사라도……?”

시로네는 하마터면 입 밖으로 차를 내보낼 뻔했다.

아무리 바람둥이라지만 수도사에게 찝쩍거리다니.

에텔라도 당황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죄송해요. 휴가 중에는 교구 관리를 해야 돼서요.”

“아아, 그렇군요. 에텔라 선생님과 같은 미녀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당장 카르시스 수도회에 입회하고 싶습니다.”

에텔라는 얼이 빠졌다. 미치지 않고서야 수도회의 비숍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선을 추구하는 그녀답게 끝까지 예의를 지켰다.

“후후, 아쉽네요. 그럼 사드 선생님은 휴가 중에 뭐 하실 건가요?”

시이나가 대답을 가로챘다.

“흥, 어디 가서 여자나 후리고 다니겠죠.”

사드의 미간이 구겨졌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자꾸 사사건건 시비일까? 학기가 끝나는 날까지 푸닥거리를 치르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모양이었다.

화를 내면 지는 것이기에 사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다.

“하하, 이 나이에 사랑에 빠지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저야말로 시이나 선생님이 걱정이네요. 그 까칠한 성격 탓에 짝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뭐긴요. 매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매력이. 딱 보면 알아요. 여태까지 남자랑 데이트도 해 본 적 없죠? 그게 바로 까칠한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이나가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다.

“넘겨짚지 말아요! 나도 남자 정도는 사귀어 봤으니까!”

예상 밖의 발언에 교사들이 일제히 시이나를 돌아보았다.

아르민과의 애달픈 관계를 알고 있는 시로네와 친구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진짜예요? 언제요? 어떤 사람이랑 사귀었어요?”

사드가 배를 붙잡고 웃었다.

“하하! 얘들아, 그 말을 믿니? 그냥 부끄러워서 둘러댄 거야. 안 그렇습니까, 시이나 선생님?”

“저를 우습게 여기는군요. 정말로 사귀어 봤다고요!”

“그래요? 그럼 누군데요? 이름 정도는 물어도 실례가 안 되겠죠?”

시이나는 이빨을 뿌드득 갈며 사드를 노려보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남자한테만은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았다.

“마…….”

“마?”

일동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마법하고 사귑니다.”

시이나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사람이 오기를 부리다 보면 이성을 벗어난 말도 서슴없이 나온다더니 지금의 상황이 딱 그 짝이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얼굴이 빨개진 교사들이 고개를 돌렸다.

사드 또한 자리를 피하고 싶었으나 간신히 참아 내며 대답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전 마법에 평생을 바칠 생각이에요. 그게 나쁜 일인가요!”

“아뇨,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한 모양입니다.”

사드는 뜨거운 차를 후루룩 들이마시고 시이나에게서 몸을 돌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로네 일행은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다.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교사들의 일상이었다.

“모두 안 돌아가고 여기 있었구먼.”

“엇, 교장 선생님!”

알페아스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교사 자격이 정지되는 바람에 숙소에 머물고 있다가 학생들이 얼추 빠져나가자 들른 참이었다.

“악동들도 있었구나. 한 학기 동안 고생했다.”

“교장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죠.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허허, 아직도 내가 교장인가? 다음 학기부터는 마법협회에서 파견한 임시 교장 선생님이 오실 거란다. 그분에게도 지금처럼 잘 대해 주렴.”

네이드의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올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굳이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들먹이지 않아도 알페아스 정도면 최고의 교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러다가 다음 학기에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껄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이번 학기에 너희가 이룬 성과는 대단한 것이니까. 다음 학기에도 잘할 수 있을 것이야.”

교사들이 차를 비우고 하나둘씩 짐을 챙기자 시로네 일행도 떠날 채비를 했다.

“교장 선생님, 그럼 개학하고 뵐게요.”

“그래.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즐겁게 쉬다 오려무나. 아, 그리고 시로네는 잠시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니?”

친구들을 따라 문을 나서던 시로네가 몸을 돌렸다.

네이드가 엄지로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저희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야, 시로네, 우리 복도에 있을게.”

“어, 알았어.”

텅 빈 회의실에서 시로네는 알페아스를 독대했다.

그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기에 시로네도 긴장하며 말을 기다렸다.

“내가 보자고 한 이유는 미로의 일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시로네는 미로의 모습을 떠올렸다.

진급이 확정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녀의 인상은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어떤지 궁금하구나. 아직도 미로에 대해 조사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네. 부모님과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가급적 시간을 내 보려고요. 어차피 방학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듯도 해서요.”

“그렇구나.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알페아스는 순순히 허락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아 있었다.

“그것 때문에 부르셨나요?”

알페아스는 비로소 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아니,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단다. 당시에 미로의 상태가 어땠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상태라면…… 정신 상태 말인가요?”

“그래. 정신도 그렇지만, 어쨌든 네가 본 미로의 모습을 자세히 듣고 싶구나.”

시로네는 당시의 일을 회상했다.

만난 시간은 짧았지만 워낙에 큰 사건이었기에 그녀와 나눈 사소한 대화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흐음, 생각해 보면 감정이 조금…… 급변하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원체 신비한 분이라서 넘어갔지만요.”

“어느 정도였지? 심각할 정도였느냐?”

“아뇨,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가끔 오싹할 때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요.”

알페아스는 나지막한 한숨을 내쉬었다.

시로네의 짧은 삶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전해져 왔다.

“외로워 보이더냐, 미로가?”

“당시에 저도 같은 걸 물어보았는데, 미로 씨는 신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신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흐음.”

알페아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어쩌면 미로는 시로네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들에게 전하는 것인가…….’

시로네는 알페아스를 유심히 살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심각한 얼굴인 것일까?

하지만 깊게 파고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유적도 조사하지 않을게요.”

알페아스는 그제야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러고 보니 사람을 앉혀 두고 너무 생각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응? 아니다. 케르고 유적은 관광지이니 기회가 되면 가 보거라. 미로가 사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게다.”

“그 말씀은, 그곳에 정말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관광지잖아요?”

“껄껄! 다 말해 주면 재미가 없지. 다만 절대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너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조사도 허락해 준 것이니까.”

시로네는 말에 뼈가 있음을 깨달았다.

알페아스는 학생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적당한 위험이라면 방조할 수 있는 장난꾸러기 같은 성향도 가지고 있었다.

“네. 열심히 조사해 볼게요.”

알페아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온 시로네는 복도에서 기다리는 친구들과 조우했다.

“시로네, 무슨 얘기 했어?”

“전에 말해 준 미로 씨에 대해서.”

“아하, 그러고 보니 너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지? 케르고 유적이라고 했던가?”

“맞아.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보니 더 궁금해졌어. 시간 내서 가 보려고.”

“아쉽네. 우리도 같이 가 주고 싶은데.”

“아니야. 방학 중에는 가족하고 보내야지.”

“쳇, 애도 아니고 누가 그것 때문에 그런대? 집에 안 들어가면 반 죽으니까 문제지.”

네이드가 상상만으로 끔찍하다는 듯 혀를 빼물었다.

이루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용뢰의 수장이었으니 바깥에서는 경거망동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도 되게 궁금하다. 미로라는 사람이 우리 연구회의 회장이었다니, 따지고 보면 내 직속 선배님이잖아? 그럼 혹시 나도 보고 계셨을까?”

네이드의 동심을 이루키가 박살 냈다.

“시로네가 말했잖아. 이모탈 펑션에 들어가지 않으면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 아마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의 중간 차원쯤에 머물고 있는 거겠지.”

“에이,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뭐, 죽기 전에는 볼 수 있을지도. 아무튼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군. 모두 잘 지내라고.”

이루키가 가리키는 곳에 세 대의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메르코다인 가문에서 보낸 휘황찬란한 쌍두마차였다.

“오호, 역시 제1급 귀족. 클래스가 다르네.”

“시끄러. 다 돈 낭비야. 게다가 저건 느려 터지기까지 하다고.”

세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얼마 후면 다시 볼 사이지만 막상 헤어질 시간이 돌아오자 서운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시로네, 이루키. 보고 싶을 거야. 이번처럼 방학이 싫은 적은 처음이야.”

“괜찮겠냐? 버틸 수 있겠어?”

이루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이드의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그는 현재 네이드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네이드는 밝게 웃었다.

저번 학기하고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시로네를 만나면서 즐거웠던 추억들을 한 아름 담고 가기 때문이리라.

“문제없어. 일단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다음 학기부터 제대로 놀아 봐야지.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

반년 동안 희로애락을 나누었던 세 사람은 각자의 마차로 걸어가며 손을 흔들었다.

“좋았어! 그럼 개학 날에 보자!”

\* \* \*

일주일 전.

카이젠 검술학교 또한 다른 검술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반기 훈련을 마쳤다.

리안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으나 원체 긍정적인 성격인지라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누나의 집에서 짐을 찾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왕궁 쪽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제기랄, 그 마녀를 또 만나야 하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할아버지 집에 맡겨 둘걸. 성적표 보면 죽이려고 들 텐데.’

리안은 부디 레이나가 출타했기를 바라며 저택의 문을 열었다.

왕궁에서 인정받는 예술가답게 저택은 크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리안에게는 쓸데없이 도주로만 길어진 셈이었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홀을 지나치는데 리안의 기대를 짓밟듯 피아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젠장! 집에 있었잖아?”

건반 소리가 워낙에 커서 목소리마저 묻혀 버렸다.

레이나는 홀의 한편을 장식하고 있는 그랜드피아노에 앉아 오로지 연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 [118] 예상치 못한 손님(3)

선율의 피아니스트 메르헨의 제자가 되면서 그녀의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스키마에 감도는 미세한 공기압력마저 감지할 만큼 예민해졌고, 손가락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르게 건반 위를 도약하고 있었다.

그 대단하다는 왕족들도 찬사를 보낸다는 레이나의 연주.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던 리안에게는 살인적인 소음일 뿐이었다.

“젠장, 마녀가 더 강해졌군. 하지만 그 정도로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레이나는 연주 소리 외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아랫입술을 삐죽 내민 것을 보니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밤을 새웠는지 머리는 푸석했고 눈은 퀭했다.

팬티만 입고 있어서 넓적다리가 훤히 드러나 보였다.

실제로 그녀는 17시간째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었다.

대륙에서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장송곡이었는데, 근래 들어 난관에 부딪쳐 애를 먹고 있었다.

예술가에게 장벽이란 저주이자 축복과 같다. 실력이 향상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레이나는 며칠이고 밤을 새우며 장벽을 뛰어넘곤 했다.

리안은 새로운 희망을 엿보았다.

누나 몰래 방으로 들어가 짐만 챙길 수 있다면 그다음에는 창문으로 뛰어내리든 벽을 부수든, 탈출하면 그만이었다.

‘좋아, 침착하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리안은 그랜드피아노의 사각지대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이대로 계단까지만 갈 수 있다면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물론 레이나는 동생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희망의 빛이 리안의 눈을 밝히는 순간, 이번에도 여지없이 연주를 뚝 하고 끊어 버렸다.

‘아우, 제기랄.’

레이나가 시선조차 돌리지 않고 말했다.

“너, 아까부터 뭐 하니? 요즘 검술학교에서는 사람 웃기는 법도 가르치나 보지?”

“쳇, 봤으면 알은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그리고 대체 그 꼴은 뭐야? 다 큰 처녀가 무슨 팬티 바람으로 피아노를 쳐? 예술을 모독하지 말라고.”

“또 까분다. 아주 저게 덜 맞았지.”

협박조의 말과 달리 레이나는 치마부터 주워 입었다.

연습 중에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옷을 하나씩 벗어 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족들뿐이었다.

“크크크, 그래도 동생 앞에서 부끄럽기는 한 모양이지? 아욱!”

리안이 웃음을 터트리는 순간 레이나의 발바닥이 얼굴을 강타했다.

리안도 열심히 수련을 쌓았지만 여전히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속도였다.

“젠장. 더럽게 뭐 하는 거야? 퉤퉤!”

입을 털어 내는 리안에게 레이나가 손을 내밀었다.

“내놔, 성적표.”

리안의 얼굴이 굳었다.

역시나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도, 도대체 누나가 내 성적표에 왜 그렇게 신경을 써? 이제 나도 다 컸다고. 아야야야!”

레이나가 리안의 귀를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안 내놔? 오늘 아주 죽어 볼래?”

“아, 알았어! 여기, 여기!”

리안은 속주머니에 있는 성적표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그런 다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 버렸다.

“어휴! 저게 덜 맞았지. 대체 언제 철들려고.”

레이나는 성적표를 주워 들고 눈앞에 펼쳤다.

훈련 과목의 점수가 차례대로 내려오고, 마지막에는 전교생의 숫자와 전체 등수가 적혀 있었다.

등수를 확인한 레이나의 손이 부들거렸다.

꼴등!

꼴등에서 두 번째도 아니고 진짜로 꼴등이었다.

‘말도 안 돼. 아무리 한심해도 열심히는 하는 앤데.’

레이나는 성적표를 뒤집어 전담 교사 의견란을 확인했다.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동자가 충격에 휩싸였다.

귀하의 자녀가 최하의 성적으로 학기를 마치게 되어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해 드립니다.

현재 리안은 스키마를 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교사진은 근력이 상승함으로써 생긴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상 스키마라는 현상으로, 극히 드물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따듯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휴, 진짜! 내가 못 살아!”

레이나는 성적표를 구겨 버리고 씩씩대며 계단을 올라갔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곰처럼 앉아서 짐을 챙기는 리안이 보였다.

“야! 꼴등이잖아!”

“아, 몰라. 그렇게 됐어.”

“게다가 상상 스키마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상상임신 같은…… 뭐 그런 거야?”

“그런가 보지 뭐.”

리안은 마치 남이 당한 일처럼 대답하고는 하던 일을 이어 갔다.

성적표를 공개한 순간부터 모든 번뇌에서 초탈한 상태였다.

레이나는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리안을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리안의 등짝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어휴, 이 화상아! 죽어라, 죽어!”

“아야! 아파!”

“이게 그렇게 어렵니? 그냥 스키마만 열면 되는 거잖아!”

“몰라!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나도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아무튼 갈 테니까 저리 비켜. 마차 시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가긴 어딜 가? 집에 딱 붙어 있어! 여기 일 마무리되는 대로 할아버지랑 내려갈 거니까 너도 그때 같이 가!”

“안 돼! 나 약속 있단 말이야!”

“약속? 네 주제에 무슨 약속? 이 성적을 보고도 놀고 싶은 생각이 드니?”

리안은 울컥한 마음에 하마터면 시로네 카드를 써먹을 뻔했다.

하지만 끝끝내 참았다. 레이나에게는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다름 아닌 쌍쌍 여행이었다.

시로네가 여자와 함께 간다는 말을 들으면 레이나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못 가도록 방해할 게 분명했다.

‘못생긴 게 질투심만 많아 가지고.’

처음에는 시로네와 누나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뜯어 말려도 모자랄 기분이었다.

이런 마녀보다는 조신하고 차분한 여자가 시로네에게 훨씬 잘 어울렸다.

“무슨 약속인데? 빨리 말 안 해?”

“여자랑 약속이야. 놀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여자? 검술학교에 다니는 놈이 무슨 여자를 만나?”

“거기도 여자 있어. 엘자인 테스라고, 누나도 엘자인 가문 알지? 거기 딸이야.”

오래전부터 외교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엘자인 가문이라면 레이나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엘리트 집안의 딸이라면 콧대가 높을 터였다.

교내 꼴등을 하고 돌아온 동생하고 여행을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솔직히 말해! 너 다른 꿍꿍이속이 있는 거지?”

“몰라, 신경 꺼! 그럼 난 간다!”

레이나의 잔소리 공격에도 아랑곳 않고 배낭을 채워 넣는 일에 열중했던 리안은 기회가 오자마자 후다닥 일어서서 도망쳐 버렸다.

“야! 거기 안 서?”

레이나가 문밖으로 나섰을 때 리안은 이미 2층 계단을 뛰어내려 현관으로 달리고 있었다.

스키마를 발동한다면 못 따라잡을 거리는 아니었으나 레이나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내버려 두었다.

어릴 때부터 밥이었던 리안쯤이야 10만 리 밖에서도 조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후후. 그래, 열심히 마차 타고 가 봐라.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보자.”

도망치는 리안의 등 뒤로 레이나가 성적표를 흔들어 대고 있었다.

\* \* \*

친구들을 배웅한 시로네는 오젠트 가문에서 보낸 마차로 걸어갔다.

본가의 부집사 테무란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대도서관을 정리할 때 시로네를 못살게 굴었던 인물답게 반년이 지난 지금도 깐깐한 인상 그대로였다.

하지만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물론. 입가에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련님. 훌륭히 해내셨군요.”

“부집사님도 오랜만이에요.”

처음에는 도련님이란 소리가 듣기 어색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에는 딱히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쑥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마차에 앉은 두 사람은 시로네의 집으로 향할 때까지 담소를 나누었다.

특히나 시로네는 오젠트 가문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어 반가웠다.

“우와, 벌써 공인을 땄다고요?”

리안의 친형인 오젠트 라이는 공인 시험에 합격했다.

물론 10급의 검사가 흔히 그렇듯이 여유를 부릴 형편은 아니었고, 일선에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네. 게다가 레이나 아가씨는 왕궁 제7음악대 악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승승장구하고 계시죠. 가주님은 여전히 공무에 바쁘시고, 큰 어르신은 조만간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리안의 큰형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뭐 하시는 분인가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공인 6급의 검사라고만 알고 계십시오. 주제넘은 조언이지만, 본가에서도 장남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젠트 가문의 성품을 떠올렸을 때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만한 가정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꺼낼 수 없는 이야기라면, 정치적인 사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안은 잘 지내죠? 조만간 보게 될 테지만.”

테무란의 대답은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짧았다.

“반년째 연락 한 번 없으십니다.”

“하하하! 리안답네요.”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마차는 어느새 산속으로 접어들었다.

시로네는 창문을 열고 고향의 풍경을 만끽했다.

알록달록한 숲의 정경이 벌써부터 그의 귀환을 환영하는 듯했다.

마차는 시로네 집의 안마당까지 들어왔다.

일전에 테무란이 시로네를 데리러 왔을 때의 바로 그 장소였다.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찾아뵐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시로네는 설레는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허름하지만 정감 있는 통나무집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효도할게요.’

집으로 다가갈수록 부모님 생각이 더욱 많이 났다.

여태까지 고생한 어머니와 자신을 마법학교에 보내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아버지.

시로네는 문을 열어젖히며 북받친 감정으로 소리쳤다.

“엄마! 아빠!”

“우하하하! 맞아, 맞아! 역시 맥주는 돼지고기에 먹는 게 최고지!”

“아버님도 그러십니까? 저도 양고기에는 맥주가 안 맞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양고기는 비린 맛이 나서 술맛이 떨어져. 자, 자! 그런 김에 한 잔 더 하자고!”

시로네는 멍하니 거실을 바라보았다.

예상보다 축제 분위기여서 놀랐지만 진짜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빈센트와 술잔을 나누는 거구의 소년 때문이었다.

전에 비해서 키가 훌쩍 컸고 머리는 짧아졌다. 하지만 강인한 인상만큼은 분명히 리안이었다.

“시로네! 왔구나!”

리안이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온 사람은 빈센트였다.

끌어안는 순간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어지간히 많이 마신 모양이었다.

“어이쿠! 우리 아들 왔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으, 술 냄새.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리안이 우리 집에 있어요?”

“너를 보려고 2일 동안이나 머물렀단다. 나무하는 것도 도와주고 사냥도 같이 다녔단다. 어때? 재밌지 않았느냐, 리안?”

“하하하! 물론이죠, 아버님! 역시 진정한 사나이는 사냥을 할 줄 알아야죠!”

시로네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설령 아들의 친구라도 귀족에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었다.

도대체 2일 동안 무슨 의기투합을 했기에 점심시간도 되기 전부터 두 사람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시로네는 수염을 비벼 대는 빈센트의 품에서 빠져나와 리안에게 소리쳤다.

“너 연락 두절이었다면서? 본가에는 들렀다가 온 거야?”

“아니, 본가에 왜 가? 이곳이 바로 주군의 집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버님?”

“웃기는 소리 하네! 너 또 무슨 사고 쳤지?”

“내, 내가 무슨 사고를 쳐?”

아닌 척 잡아떼지만 리안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집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이었다.

시로네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들어갔다.

‘하아, 이게 아닌데…….’

기대했던 부자 상봉이 술판으로 끝나 버리다니.

하지만 전보다 야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울지 않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머, 시로네 왔구나. 이리 오렴, 내 새끼.”

올리나는 포근한 가슴으로 시로네를 끌어안았다.

역시나 세상에 믿을 건 엄마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시로네는 비로소 취향에 맞는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엄마, 저 없는 동안 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고생은 무슨. 오젠트 가문에서 많이 도와줬단다.”

올리나는 시로네의 등을 토닥이는 한편 빈센트를 흘겨보았다.

반년 만에 아들이 왔는데 술에 취해 있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 [119] 예상치 못한 손님(4)

눈치 없는 리안이 올리나의 타는 가슴에 부채질을 했다.

“아버님,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무나 하러 가죠. 시로네가 온 기념으로요!”

“푸하하! 그럴까? 좋아, 사나이들 셋이서 제대로 한번 불태워 보자!”

“여보! 술 마셨으면서 무슨 나무예요? 일단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와요.”

“엄마, 괜찮아요. 갔다 올게요.”

시로네는 흔쾌히 수락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회포를 푸는 것도 괜찮을 듯싶었다.

반면에 올리나는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빈센트가 술이 세기는 하지만 취한 상태에서 산을 오른다는 건 난다 긴다 하는 산꾼에게도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괜찮겠니? 그러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점심 먹기 전까지는 돌아올게요.”

예전 같았으면 올리나의 말에 따랐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무시무시한 울크들과 맞서 아이들을 지켜낸 적도 있으니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터였다.

올리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생소했다. 확실히 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이나 행동거지에도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인가? 착한 아들이긴 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올리나의 허락이 떨어지자 세 남자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벌목구역으로 떠났다. 특히나 리안은 그간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빨리했다.

이틀 동안 빈센트의 집에 머물렀던 리안은 시로네의 어릴 적 일화를 들었다. 그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대목은 천둥패기였다. 본가에서 시로네와 대결할 무렵 검살에 당해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기에 관심이 더했다.

벌목구역에 도착한 리안이 소리쳤다.

“자! 그럼 사나이답게 나무를 한 번 패 볼까? 어때, 시로네. 나랑 내기 할래? 지는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덩치가 전보다 커진 리안은 양손 도끼를 한 손으로 쥐고도 무리가 없었다. 과장해서 리안이 고목나무라면 시로네는 그 옆에 서있는 다람쥐 꼴이었다.

“좋아. 그러지 뭐.”

시로네는 순순히 승낙했다. 리안과의 내기라면 진 적이 없었다. 패자가 도전해오는데 승자가 도망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리안이 도끼를 들고 빈센트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빈센트도 팔짱 밑으로 엄지를 치켜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럼 먼저 한다.”

리안은 있는 힘껏 도끼를 휘둘렀다. 쿵 소리가 나면서 나무둥치가 우수수 흔들렸다.

가히 살인적인 파괴력. 반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우와, 대단하다. 그게 스키마야?”

“응? 아하하! 당연히 아니지! 나무 패기 정도에 스키마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리안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으나 시로네는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리안은 다시 도끼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시로네를 돌아보며 한쪽 눈을 찡긋했다.

“진짜는 이제부터라고.”

리안의 도끼가 껍질이 터져나간 부위를 재차 강타했다. 쩍 하고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한 번에 나무가 쓰러졌다.

“천둥패기…….”

시로네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천둥패기를 성공시켰다는 건 리안 또한 검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우하하하! 어때, 시로네?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호기롭게 소리친 것과 달리 리안의 심장은 널뛰고 있었다. 솔직히 실패할 확률도 조금은 있었기 때문이다.

검술학교에서 검살을 배웠지만 사람을 상대로는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졌다.

하지만 빈센트에게 천둥패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한 덕분에 나무를 대상으로는 열에 아홉은 성공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린 참이었다.

“대단하다. 내가 하는 천둥패기랑은 박력부터 다르네.”

“이 정도야 당연한 결과라고 할까? 어쨌든 내기는 내기야. 내가 두 번의 시도로 성공했으니 너는 한 번에 쓰러뜨려야 할걸!”

빈센트가 호탕한 웃음을 터트렸다.

“하하! 시로네, 열심히 해 봐라. 동점을 이루면 한 사람이 이길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다. 이거 산 하나를 전부 깎아도 모자라겠는데?”

빈센트는 시로네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했다. 리안의 힘도 대단하지만 어릴 때부터 시로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자, 내 도끼를 써.”

“아니, 괜찮아. 그냥 이대로 할게.”

시로네는 나무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빈센트와 리안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도끼도 없이 무슨 수로 두꺼운 나무를 쓰러뜨린단 말인가.

시로네는 위치를 가늠해 보더니 스피릿 존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기본 마법이라 할 수 있는 윈드 커터로 나무를 타격했다.

나무둥치의 내부에서 탁! 하고 짜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

지켜보던 두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자 시로네는 천천히 나무를 밀었다. 그러자 깔끔한 절단면을 드러내며 통나무가 넘어갔다.

“야호! 내가 이겼다!”

신이 나서 펄쩍 뛰는 시로네와 달리 빈센트와 리안은 턱이 빠진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어떻게 아무런 타격 없이 나무가 베어질 수 있을까? 마법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 저게 마법이구나.’

리안은 시로네가 베어 버린 나무 밑동을 살폈다. 검술 수련생이라도 이토록 매끈하게 자르지는 못할 터였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마법이야?”

“윈드 커터라는 거야. 바람을 일으켜서 공기를 예리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

빈센트는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물론 마법학교에 보냈으니 마법 하나는 배웠으리라 어림짐작하고 있었지만 고작해야 서커스단의 진기명기 정도를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통나무를 한 번에 베다니. 이것은 다루기에 따라서는 살인병기나 마찬가지였다.

“허허. 믿을 수가 없구나. 아빠도 가르쳐 줄 수 있니? 그 마법으로 나무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겠는데?”

빈센트의 순박한 말에 시로네는 난처하게 웃었다.

“기본적인 마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윈드 커터를 익히면 벌목이야 하루에 백 그루도 넘게 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마법사도 나무를 해서 돈을 벌지는 않았다.

설령 천 그루를 한다고 쳐도 마법사의 하루 일당이 훨씬 높기 때문이었다. 천 그루의 가치가 낮은 게 아니라 마법사의 급여가 높은 것이었다.

시로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분이 좋아졌다. 입학했을 당시만 해도 실패의 두려움이 컸으나 이제는 설령 졸업을 못 하더라도 가족을 건사할 기술이 있으니 안심이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모탈 펑션을 개방한 마법사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시로네에게 가족이란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다.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 소원을 말할게. 리안이 나무를 집까지 옮겨 주는 거야.”

“쳇! 할 수 없지. 어차피 내가 들려고 했다고.”

리안은 쓰러진 나무를 토막으로 쪼갠 다음 지게를 지고 돌아갈 채비를 했다.

내기에는 졌지만 산을 내려오는 리안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있었다.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로네는 몸소 증명해 보였다.

‘대단하구나, 시로네. 물론 오늘 보여준 게 너의 전부는 아니겠지?’

집으로 돌아가자 올리나가 갖가지 음식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말 그대로 산해진미로, 육해공에서 볼 수 있는 먹을거리들이 전부 올라온 듯했다.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시로네는 그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들은 당연히 생략했으나 그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답이 결국 3번이었던 거예요. 하하하! 덕분에 다음 학기부터는 클래스 포로 진급하게 됐어요.”

“아하, 그렇구나.”

예상과 달리 빈센트와 올리나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아직 더 해야 할 말이 있나 생각해보던 시로네가 비로소 깨달은 듯 손을 벌리며 말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제야 두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학교를 다녀 본 적이 없으니 시로네의 말을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성취가 기쁜 건 다른 부모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아하! 그렇단 말이지? 축하한다, 시로네!”

“장하다, 우리 아들. 엄마는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올리나가 식탁보를 들어 눈물을 훔쳤다.

리안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풍경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시로네의 차분한 성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나저나 리안, 진짜로 여기에 왜 온 거야?”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두 분에게 허락을 구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 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빈센트는 적잖이 걱정되었다. 귀족 가문의 아들이 산꾼에게 무슨 허락을 구한다는 말인가?

“시로네랑 놀러 가도 되나요? 한 일주일 정도요.”

시로네가 황당한 듯이 고개를 돌렸다.

“뭐, 놀러? 나도 모르는 일을 왜 네가 말하는 거야? 어디 가는데?”

“갈리앙트 섬. 걱정하지 마. 내가 미리 계획을 짜 두었으니까.”

“어라? 갈리앙트라고?”

시로네는 눈을 크게 떴다. 근래 머릿속의 화두였던 장소가 리안의 입에서 나오자 깜짝 놀랐다.

“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꼼짝없이 갇혀 있었잖아. 이번 기회에 바람 좀 쐬자고. 크레아스에서 가깝기도 하고. 재밌을 거야. 갈리앙트 섬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 중의 하나니까.”

“게다가 케르고 유적도 있잖아.”

이번에는 리안이 놀랐다.

“응? 알고 있었어?”

“아니, 유적이 있다는 사실 말고는 몰랐어. 호오,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구나. 이거 의외네.”

며칠 전부터 지도를 뒤졌던 시로네는 케르고 유적이 갈리앙트 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유적이라고 해서 막연한 느낌이었는데 막상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보기로 결심한 기억이 났다.

시로네는 엄마의 눈치를 보았다. 방학 중에 한 번은 가볼 생각이었지만 반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곧장 놀러 간다고 말하면 실망감이 클 터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올리나는 시로네의 뜻에 따랐다.

“다녀오렴. 우리는 적극 찬성이란다.”

“하지만 엄마, 이번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 일을 도와 드리려고 했는데…….”

빈센트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이놈아! 전쟁터라도 갔다 왔냐? 학교 다니다가 온 건데 방학 중에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사내자식이 너무 부모만 찾으면 그것도 못써.”

시로네는 찔끔한 표정으로 입술을 내밀었다. 물론 마법학교도 엄연히 학교지만 그곳에서 겪은 위험은 전쟁터에 육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럼, 기간을 열흘로 잡아도 돼요?”

“응? 열흘씩이나? 상관은 없다만, 그렇게 오래 구경할만한 곳은 아닐 텐데?”

“아, 사실은 따로 조사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리안이 질린 표정을 지었다.

“거기서도 공부냐? 너도 참 대단하다, 정말.”

오젠트 가문에 있는 역사책을 모조리 독파한 시로네였으니 휴양지에서 공부를 하는 건 일도 아닐 터였다.

‘흐흐흐,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걸. 거기서 과연 공부가 눈에 들어올까?’

비장의 한 수를 떠올린 리안은 남몰래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다렸다.

\* \* \*

시로네는 여행 가방을 챙겨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리안도 오늘까지는 머물기로 했기에 두 사람은 바닥에 이불을 깔아두고 나란히 누웠다.

“그나저나 말해 봐. 왜 집에 안 간 거야?”

“응? 아, 그게…….”

리안은 말끝을 흐렸다. 레이나가 동생을 파악하고 있듯이 리안도 누나를 잘 알았다. 아마도 성적표를 집으로 발송하여 자신을 잡아두려고 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시로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최선을 다했기에 꼴등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사소한 가정사 문제로. 하하하.”

시로네는 더 이상 따지고 들지 않았다.

“아무튼 잘됐어. 어차피 방학 기간에 한 번은 가려고 했거든.”

“케르고 유적이라고 했지? 무슨 조사를 하려는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 휴가는 휴가대로 즐길 거니까 괜찮아. 일단은 너랑 섬에서 놀고 나중에 나 혼자 남아서 조사하려고.”

리안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케르고 유적은 관광지였다. 그런 곳에서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라면 시로네가 자신을 먼저 돌아가라고 할 리가 없었다.

## [120] 예상치 못한 손님(5)

“그런데 시로네…… 정말로 섬에서 뭔가 할 생각이라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응? 무슨 문제?”

“사실 이번 휴가, 쌍쌍 여행으로 준비를 했거든.”

“쌍쌍 여행?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말이야?”

“응. 내 파트너는 이쪽으로 오기로 되어 있어. 먼저 말을 했어야 하는데. 설마 네가 유적지를 조사하겠다고 할 줄은 몰라서.”

시로네는 어두컴컴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쌍쌍 여행이라. 그렇다면 자신도 파트너를 데려와야 한다는 소리였다.

“알았어. 나도 1명 데리고 올게.”

리안은 의외라는 듯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그가 아는 시로네는 여자 속옷만 봐도 얼굴을 붉히는 숙맥이었다. 파트너를 구하는 게 최대의 난관일 것이라 생각하고 말을 아꼈던 것인데 예상을 깨고 손쉽게 승낙을 했다.

“너…… 여자한테 인기 좋나 보다?”

“응? 그런 건 아냐. 하지만 같이 갈 사람은 있어. 사실 고민 중이었거든.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물어봤을 거야.”

리안은 눈을 빛냈다. 어떤 의도로 꺼낸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마음에 둔 여자가 있다는 게 아닌가?

“하하! 우리 집 마녀가 들으면 서운하겠는데?”

“레이나 누나? 누나가 왜?”

“크크, 아니야. 그나저나 궁금해서 죽겠네. 어떤 여자야? 예뻐?”

“응. 예쁘긴 예쁜데…… 같이 와 줄지는 모르겠어. 어쩌면 단번에 거절당할 수도 있고.”

“안 돼, 무조건 데려와야 돼. 내일 가서 승낙을 얻어 와. 그동안에 나는 집에 돌아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시로네는 대답을 미루었다. 리안이 파트너를 데려온다면 자신도 데려와야 한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평소의 성격대로 유추하자면 아주 높은 확률로 면박을 당하고 쫓겨날 공산이 컸다.

이런 저런 걱정이 시로네의 마음을 옥죄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고 친구들과 함께였다. 게다가 듣기로 갈리앙트 섬은 남국의 흥취가 있는 유명한 관광지라고 했다.

시로네는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로운 만남(1)

시로네는 귀족거주 구역에서 리안과 헤어졌다. 출발은 내일이었기에 오늘 안에 파트너를 구해야 했다.

이쪽 지리에 어두운 탓에 물어물어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주거적인 편의만을 위해 지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여기가 카르미스 본가구나.’

학교에서는 낯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던 사이지만 막상 집으로 찾아간다고 생각하자 덜컥 겁부터 났다. 정문의 경비들까지 수상하게 바라보고 있어 더욱 긴장이 되었다.

“어……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로네가 다가오자 검을 붙잡은 경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자신도 모르게 반응한 탓이었다. 수없이 많은 난관을 거치면서 시로네의 기도는 범인을 압도할 만큼 성장해 있었다.

“혹시 에이미 있나요?”

경비의 인상이 굳어졌다. 에이미가 또래의 남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은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본가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아, 저는 시로네라고 하는데요. 마법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

경비는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는 듯 상관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상관의 얼굴이 심드렁해졌다.

분명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카르미스 본가에서 20년째 생활하는 그에게는 딱히 생소한 사건도 아니었다.

‘하아, 귀찮게. 방학하자마자 또 시작이군.’

어쨌거나 본가에서 외부인을 엄금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상 보고는 할 수밖에 없었다.

상관이 턱짓으로 알리라는 뜻을 전하자 경비가 직접 말을 몰아 저택으로 향했다.

시로네는 초조한 마음으로 정문에서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상관은 시로네를 곁눈질로 흘끔거렸다.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괜찮은 듯 보이지만 어차피 저택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터였다.

여태까지 수많은 남자들이 퇴짜를 맞았다. 심지어는 왕족과 먼 친척 정도 되는 사람이 에이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적도 있었다.

대륙 전체에 이름이 알려진 카르미스 가문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다.

10분 정도 기다리자 경비가 말을 타고 부랴부랴 돌아왔다. 상관은 근심어린 부하의 얼굴만 보고서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럴 때면 곤란한 건 언제나 문지기 경비들이다. 분에 못이긴 귀족이 뺨이라도 걷어붙이면 꼼짝없이 얻어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상관은 부하의 짐을 덜어줄 생각에 없는 말을 지어냈다.

“어떻게 됐나? 듣기로는 오늘 중으로 급히 처리할 일이 있으신 것 같던데.”

“저기, 들어오시랍니다.”

“음, 그렇군.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 응? 뭐라고?”

상관이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보고를 하는 경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에이미 아가씨께서 모셔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 집에 있었나 보네요. 다행이다.”

시로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에이미가 출타 중이라면 평민인 그가 저택에 들어갈 방법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분홍빛 마차가 정문에 당도했다. 인자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차에서 내리자 경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카르미스 가문의 집사장 아델이었다.

마중 나온 사람을 발견한 시로네가 경비에게 물었다.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아, 네! 카르미스 가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관은 황급히 군인의 예를 올렸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출입을 허가한 건 그렇다 쳐도 아델이라니? 시로네가 어떤 인물이든, 설령 대단한 집안의 자제라도 카르미스 가문의 집사장이 마중을 나올 이유는 없었다.

아델이 움직이는 경우는 가문에 큰 행사가 있거나 가주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뿐이다.

‘대체 누구지? 아가씨의 친구라고 했으니 가주의 손님은 아닐 테고. 오늘 무슨 행사라도 있나? 아니,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아델은 지팡이를 짚으며 시로네에게 걸어왔다. 대저택을 관할하는 집사장치고는 순한 인상이었다.

“카르미스 저택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집사장 아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로네라고 해요.”

“그렇군요. 외람된 말이지만 저택으로 모시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신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시로네 님이 맞는지 말이지요.”

시로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아델을 바라보았다.

“아가씨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로네라면 데려오라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로네여야만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에게 시로네 님이라는 증거를 보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시로네는 부아가 치밀었다. 시로네라면 데려오라는 말은 에이미의 투덜대는 말투에 불과할뿐더러, 거기서 더해 봤자 이름을 사칭할 수도 있으니 알아보라는 정도였다.

그것을 얼마나 확대해석해야 신분을 증명해 달라는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제가 저 자신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저는 시로네예요.”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카르미스 가문의 집사장입니다. 출입자의 신분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한 그만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에이미에게 데려다주면……!”

시로네는 말을 멈췄다. 인자했던 아델의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정체불명의 기운이 가슴과 등을 압박했다. 장기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카르미스 가문은 다른 가문과의 비교를 거부하는 최고의 귀족입니다. 또한 저 아델은 집사장으로서 가주님의 명만을 따르지요. 그런 제가 직접 아가씨의 손님을 모시게 된 이상 그에 준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시로네는 아델이 삐딱하게 구는 이유를 깨달았다. 결국 일개 집사가 해도 될 일을 자신이 하게 되어 불쾌하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기분 나쁜 티를 낼 수 없는 건 폐부를 짓누르는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탓이었다.

‘으…… 드디어 시작이다. 프레싱.’

경비들은 시로네에게 동병상련을 느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아델은 부하들이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불러다 놓고 프레싱을 걸기 일쑤였다.

비정상적으로 증폭시킨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프레싱.

물리적인 고통을 주지는 않지만 점차 증폭되는 스트레스는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제대로 당할 경우 주요 장기가 파괴될 수도 있는 위험한 기술이었다.

‘호오, 이것도 버틴다는 말인가?’

시로네는 긴장했을 뿐 딱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태연자약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내는 모습에 약이 오른 아델은 프레싱의 강도를 서서히 올렸다.

원래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가문만 믿고 까부는 애송이를 깜짝 놀라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은 교훈이 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시로네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깨달았다. 주요 원인은 분노였다. 아델의 적개심이 시로네의 분노를 끌어 올리고 있었다.

‘침착하자. 그래 봤자 감정일 뿐이야. 제어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바윗덩어리를 매달고 바다에 가라앉는 사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압력은 더해지고 호흡은 곤란해졌다.

하지만 시로네는 발버둥 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관조했다.

프레싱의 유지시간이 사망의 임계점을 넘어가자 아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뭐지, 이 아이는?’

프레싱에서 빠져나오려면 같은 강도로 감정을 증폭시켜야 한다.

카르미스의 홍안이라면 감정 자체를 리셋시킬 수 있겠지만 자기상 기억이 없는 시로네가 이 시간대까지 멀쩡하다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인내심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인데.’

프레싱을 파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꽃노래도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듯, 어떤 성인군자도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면 평정심을 잃고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시로네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아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상황을 가정했다. 바보거나, 미쳤거나, 수도사거나.

아니, 수도사 중에서도 최소 금강승의 경지에는 도달해야 했다.

‘금강승?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직 스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아니던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델은 정답을 맞힌 셈이었다.

무한의 영역에서 시로네는 인간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횟수만큼 미친 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깨우친 절대적 중심.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감정 따위야 얼마든지 무시해 버릴 수 있었다.

아델은 프레싱을 풀었다. 어떤 방법으로 여태까지 버텼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감히 알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눈앞에 서 있는 소년은 아가씨의 친구가 분명했다.

아델의 얼굴이 인자한 인상으로 되돌아오자 시로네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참으로 무서운 기술이다. 금강불괴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심장이 터져버렸을지도 몰랐다.

아델이 가슴에 손을 얹고 허리를 숙였다.

“어리석은 노인네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경비들은 어리둥절했다. 시로네의 표정에 변화가 없기에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사장이 겸손한 태도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닌가.

“저택에 돌아가면 저의 행동을 꾸짖어 주십시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노여움을 푸셨으면 합니다.”

“가문의 사람들이 저를 의심한 게 아닌가요?”

“네. 지시를 확대해석한 것도, 시로네 님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도 모두 저의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가주님께서는 시로네 님을 모셔 오는 데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라도 했나요?”

미소를 지은 아델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에이미 아가씨를 태어날 때부터 보필했지만 남자를 집 안에 들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하여 주제도 모르고 무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시로네는 김이 빠졌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시험해 보기 위한 연기였다는 게 아닌가?

하지만 딱히 꾸짖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귀족의 저택, 그것도 본가에 찾아오려면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해야만 한다.

오젠트 가문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시로네는 아델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짐작하고 있었다.

## [121] 새로운 만남(2)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에이미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가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차에 타시지요.”

마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다.

오젠트 가문이 대직도로 가풍을 표현했다면 카르미스 가문의 가풍은 자유분방인 듯했다. 규격과 통일성을 무시한 개성적인 작품들이 정원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정말 멋지네요. 꿈나라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신다니 기쁩니다. 카르미스 정원은 대대로 구성원 모두의 취향을 반영하죠. 구역을 정해 두고 입맛에 맞게 꾸미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고유의 가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공 분수는 에이미 아가씨가 열 살 때 제안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무지개 분수라고 부르죠.”

시로네는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원뿔 모양으로 세워진 분수가 물을 분사하자 물방울이 산란을 일으켜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났다.

“하하! 무지개 분수라. 에이미답네요.”

아델은 정원을 구경하는 시로네의 모습을 인자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번 학기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에이미의 얼굴이 전보다 밝아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카르미스 가문에는 홍안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덕분에 무엇을 해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두각을 드러내지요. 그 사실을 알기에 가족 간에는 어지간하면 간섭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케인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가 들어왔으나 가주님은 아가씨의 안위만 확인하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지시를 내리셨죠.”

시로네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딸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건인데도 내버려두라니. 카르미스 가문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범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가족 간에 애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향인 것인데, 늦둥이인 에이미 아가씨는 그런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죠.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에는 방황을 하기도 했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시로네는 에이미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열두 살 무렵 골목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원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었고 과거사에 담긴 정황까지 알게 되자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요 며칠 아가씨를 보면 어릴 때와는 많이 달라지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가문의 다른 도련님들처럼 자신의 일을 즐기게 되었다고 할까요? 아마도 시로네 님 덕분이겠지요. 감사합니다.”

시로네는 고개를 숙이는 아델의 모습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하긴, 에이미를 태어날 때부터 돌봐온 사람이라면 고용인의 감정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시로네를 깐깐하게 평가한 이유도 거기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물론 귀여운 손녀딸을 빼앗긴 듯한 질투심도 상당부분 작용했겠지만.

“저 때문에 체면을 구겨서 죄송해요. 집사장님이 마중을 나올 일은 아니었는데.”

“시로네 님은 착하시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이미 아가씨는 출입을 허락하셨고, 저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집사였으며, 가주님께서 당장 아무나 가 보라고 지시를 내렸을 뿐이니까요.”

시로네는 카르미스 가문의 사람들이 궁금했다. 집사장조차 끔찍하게 에이미를 생각하는데 가족들은 얼마나 깐깐하게 자신을 대할 것인가? 생각하면 두렵기도 했다.

“으. 긴장되네요. 문전박대 당하지나 않았으면 좋겠어요.”

“껄껄! 예상을 뛰어넘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향이 그런 것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십시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 마차가 목적지에 당도했다.

시로네는 아델을 따라 저택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예술 작품으로 꾸며진 화려한 홀이 그를 반겼다. 좌우에는 달팽이관처럼 고불고불한 계단이 4층까지 이어져 있었다.

“가주님, 에이미 아가씨의 친구분이 도착…….”

“꺄아악! 대박! 진짜 남자야!”

에이미와 똑같이 생긴 여성이 자신의 뺨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가문의 안주인인 이시스였다.

소싯적에 왕국에서 이름을 알린 무용수답게 쉰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젊어보였다. 하지만 그래서일까? 행동하나하나에 철이 없다는 느낌이 뚝뚝 묻어 나왔다.

“뭐? 시로네가 남자였단 말이야?”

“나도! 나도 볼래!”

거실과 이어진 복도에서 두 명의 남자가 달려왔다. 장남 다이안과 차남 아레스였다.

다이안은 30대 중반답지 않게 젊은 외모였고 두 살 터울인 아레스는 풍성한 턱수염을 기르고 있어 맨얼굴을 짐작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로네를 빤히 바라보았다. 충격에 휩싸인 눈동자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

“어,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의 친구 시로네…….”

“자, 인사는 생략하고 빨리 이쪽으로 와요. 여보, 에이미의 남자 친구가 왔어요.”

이시스는 막무가내로 시로네의 손목을 붙잡고 소파에 앉혔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로네조차 이름을 알고 있는 카르미스 가문의 가주 샤코라였다.

정치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으나 온갖 비리에 환멸을 느껴서 은퇴했다고 들었다.

“흐음.”

샤코라가 신문을 내리자 이지적인 외모가 드러났다. 가족 중에서 가장 키가 컸고 나이답지 않게 신체의 밸런스도 완벽했다.

시로네는 사자 굴에 뛰어든 토끼처럼 식은땀을 흘렸다. 마치 예술품을 감평하듯 자신의 몸을 훑어보는 시선들이 견딜 수 없이 부담스러웠다.

남자들의 눈빛이 붉게 빛나자 시로네는 침을 꿀꺽 삼켰다. 세 사람이 동시에 홍안을 발동하는 모습은 사뭇 공포였다.

‘으, 기억하고 있다. 날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어.’

자기상 기억의 능력을 알고 있는 시로네는 족쇄가 채워진 기분이었다. 아마도 저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까지고 이 순간을 떠올릴 수 있을 터였다.

“저기, 안녕하세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시로네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다시 인사를 건넸다. 그제야 남자들의 눈에서 홍안이 사그라졌고, 기다렸다는 듯 이시스가 찰싹 달라붙었다.

“우와, 잘생겼다. 이거 의왼데? 너 진짜로 에이미의 친구니?”

“네, 맞는데요.”

“오호? 그럼 너도 졸업반이야?”

“아뇨. 저는 클래스 파이브예요.”

“으음?”

이시스가 미간을 찡그렸다. 형제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당황한 시로네는 한마디를 더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클래스 포예요.”

“아하!”

갑자기 세 사람이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똑같은 표정, 똑같은 반응이었다. 시로네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처음부터 클래스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던 모양이다.

‘여긴 도대체 어디지? 이 사람들은 대체…….’

시로네는 문득 아델의 말을 떠올렸다.

-예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아델의 조언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로네의 생각과는 다른 의미로 예상을 뛰어넘는 가족이었다. 유쾌하면서도 엉뚱한 기질이 있다고 할까?

“에이미하고는 언제 만났어? 사귀는 사이 맞지? 응? 학교에서도 손잡고 다니는 거야?”

“예? 아니, 그게…….”

시로네는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이곳에서는 에이미의 입장이 우선이니 말을 아끼는 편이 좋았다.

“무슨 구경났어? 당사자도 없는데 가족끼리 둘러싸고 뭐 하는 거야?”

위층에서 내려온 목소리가 붕괴 직전의 시로네를 구원했다. 에이미가 2층 달팽이 계단에서 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남 아레스가 수염을 씰룩거리며 말했다.

“어라? 옷 갈아입었네? 시로네가 왔다니까 정신없이 방으로 뛰어가더니.”

에이미는 사전에 오해를 차단했다.

“어쩌라고? 그럼 잠옷 차림으로 만나리? 아무튼 전부 해산. 아빠, 친구랑 얘기해도 괜찮지?”

“그러려무나. 처음으로 데려온 남자 친구 아니냐? 나중에 억울하지 않도록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게 카르미스의 가풍이니까. 하하하!”

샤코라의 짓궂은 농담에도 에이미는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조금만 휘둘리면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니 아예 틈을 내주지 않는 게 중요했다.

시로네가 달팽이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도 이시스의 질문은 이어지고 있었다.

“에이미, 솔직히 말해. 애인이지? 사귀는 사이지? 응?”

에이미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듯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딸에게 피를 물려준 엄마는 에이미만큼이나 집요했다.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 봐. 둘이 무슨 사이야? 두 사람 사귀는 거 맞지? 그렇지?”

“어!”

결국 참지 못한 에이미는 사납게 소리치고 방으로 향했다.

이시스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이번만큼은 샤코라도 놀랐는지 시선을 들어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방으로 들어온 시로네와 에이미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시로네는 우선 방부터 둘러보았다. 서재는 마법 서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길이 닿지 않는 구석에는 펼쳐 보지도 않은 연애소설 몇 권이 처박혀 있었다.

‘하하! 저건 세리엘 선배님이 빌려준 것이겠지.’

학교에서는 알아주는 여장부라지만 방은 의외로 여성스러웠다. 특히나 침대에 앉아 있는 커다란 인형에 눈길이 갔다. 사납게 눈이 찢어진 곰 인형이었다.

“인형이 있네. 그것도 곰 인형.”

“그래서 뭐? 내 방에는 인형 있으면 안 돼?”

“아니, 그냥 너랑 닮은 거 같아서. 하하!”

에이미는 쳇 하고 혀를 차며 입을 다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 또한 가족 외의 남자에게 방을 보여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 학교에서야 사귀는 척을 하지만 가족들에게도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어서 저러는 거야.”

에이미의 말마따나 자유분방하고 독특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실없는 소리는 됐고. 갑자기 우리 집에는 웬일이야? 무슨 할 얘기라도 있어?”

“사실은 그게…….”

시로네가 말을 꺼내려는데 문이 스르륵 열렸다. 좁은 문틈 사이로 이시스의 얼굴이 슬금슬금 들어왔다,

“어머, 한창 좋을 때 방해했나? 차라도 들면서 하라고.”

이시스는 곰실곰실 발을 옮기며 테이블에 차를 내려놓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눈은 시로네에게 못 박혀 있었다.

시로네가 다시 말을 꺼내려는데 또다시 문이 열리며 이번에는 다이안이 들어왔다.

“과자를 좀 내왔는데…….”

다이안의 시선 또한 시로네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몸은 앞으로 걸어가는데 고개는 옆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에이미는 한숨을 내쉬었다. 생전 이런 적이 없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재밌기도 할 것이다.

기상천외한 일 외에는 관심조차 없는 오빠들이지만 여동생의 남자 친구가 집에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알았어. 그냥 전부 들어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다 아니까.”

에이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발바닥이 방문을 왈칵 밀었다. 두 손으로 접시를 들고 서 있는 아레스가 보였다.

“과일이 좀 있어서…… 하하.”

“됐으니까 들어오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소개하지 뭐. 시로네, 괜찮지?”

“아, 물론이지.”

그리하여 샤코라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시로네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다.

“여기는 시로네고, 마법학교의 유망주야. 그리고 시로네, 이쪽은 우리 엄마. 젊을 적에는 무용수셨어.”

“그렇구나. 어쩐지 아름다우시더라.”

“호호호! 에이미가 날 닮았지. 하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빠지면 곤란해. 내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아, 네.”

시로네는 알겠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 말고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쪽은 큰오빠 다이안. 공인 5급의 검사고 왕성에서 궁수단장을 맡고 있어. 정치적인 문제로 잠시 아빠한테 상담을 받을 게 있어서 고향에 내려온 것이고.”

에이미의 말이 끝나자 가족들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무리 애인이라도 집안 내부 사정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 결국 태연한 척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녀 또한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 [122] 새로운 만남(3)

‘후후, 이 소년이 내 딸을 긴장시킨다는 거지? 천하의 에이미를.’

카르미스 가문의 성향 자체가 개방적이지만 에이미의 성격은 특별하게 대범했다. 어렸을 때부터 건달패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단지 귀족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형제들도 같은 생각인지 시로네를 빤히 바라보았다. 오빠들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여동생이 외간 남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자 질투가 나기도 했다.

“여기는 둘째 오빠 아레스. 그리고 하는 일은…….”

에이미는 오히려 궁금하다는 듯 되물었다.

“도대체 오빠는 하는 일이 뭐야?”

“하하하! 나는 탐험가야. 유적을 발굴하거나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제작하지. 알포네스 산맥의 용의 둥지나 코로나 왕국 북방 한계선에 있는 수정동굴이 대표적인 내 작품이야.”

“아, 그렇군요. 알포네스 산맥은 저도 알아요.”

각종 드래곤의 서식지로 알려진 알포네스 산맥은 문학작품에서도 나올 만큼 위험과 모험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일전에 리안도 용의 기사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알포네스 산맥에 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엄청 위험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낭만에는 위험이 도사리는 법이지. 나는 내 일에 만족해. 지도제작에 성공하면 보수도 괜찮고. 에이미는 싫어하는 것 같지만.”

“제발 그 수염만이라도 깎아. 백수도 아니고 집에 처박히면 몇 달 동안 나갈 생각을 안 한다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어차피 이번에 탐사대가 꾸려져서 2년간은 못 돌아올 테니까. 사랑하는 동생 얼굴이라도 보려고 여태까지 기다린 거야.”

“흥…….”

에이미는 가당치도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에 시로네는 피식 웃었다. 백수니 어쩌니 해도 사실은 탐험가인 오빠가 걱정되는 것이었다.

한번 모험을 떠나면 족히 1년은 넘게 걸리니 생사 확인조차 못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그런 모험을 꼭 해 보고 싶은걸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할 거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질리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 졸업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특별히 탐사대에 넣어 주마.”

“어휴, 됐어! 괜히 애한테 바람 넣지 말고 소개 끝났으면 다들 나가.”

에이미가 축객령을 내리자 가족들이 불붙은 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가 재밌는 것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나갈 수야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에이미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 설마 어른들의 선을 넘은 건 아니겠지?”

“예? 아니, 저기 그건…….”

“에이미 성격이 보통이 아닐 텐데 어떻게 접근한 거야? 말로 녹였어? 아니면 남자답게 으슥한 곳에서 입맞춤을 빡……!”

에이미의 눈동자가 붉게 타올랐다.

“나가라고 했다?”

후다닥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새 방에는 에이미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쳤는지 아직도 문이 덜컹덜컹 움직이고 있었다.

‘집에서는 어떤 성격인지 알 만하네.’

북적거리던 방이 썰렁해지자 정적의 대비 효과가 커졌다.

말을 꺼낼 기회를 놓친 시로네는 쑥스러운 듯 방을 두리번거렸다.

에이미 또한 차를 마시는 척 얼굴을 감추고 생각에 잠겼다. 어색해서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대체 왜 온 거지, 이 자식?’

그녀라고 할 말이 있을 리가 없다. 설령 중요한 용건이 있더라도 시로네가 집까지 찾아온다는 건 정말이지 예상 밖이었다.

“뭐야? 왔으면 말을 해! 심심해서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시로네는 풍경에서 시선을 떼고 에이미를 바라보았다.

“아, 사실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데 막상 오니까 기별도 없이 찾아와서 예의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 가족들에게 죄송하네.”

“됐어. 친구 집에 오는 게 뭐가 어쨌다고. 그나저나 부탁이라는 건 뭔데?”

“혹시…… 시간되면 나랑 놀러 가지 않을래? 갈리앙트 섬에.”

에이미는 찻잔을 든 채로 굳어 버렸다. 예상은 물론이고 상상조차 해 보지 못했다. 시로네가 먼저 놀러 가자는 말을 꺼내다니. 그것도 여자랑. 그것도 섬에.

“그러니까, 나랑 너랑 섬에 들어가자고?”

“사실은 리안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먼저 제안을 했어. 그런데 리안은 친구를 데려온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가 줄 친구가 필요해. 그러니까 4명이서 가는 거지.”

“호오? 혹시 리안이 데려온다는 친구…… 여자야?”

“그런 거 같아. 어라? 어떻게 알았어?”

에이미는 대답 없이 차를 삼켰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상황이 정리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커플 여행이라 이거네. 리안이라는 자식, 음흉하구만. 응? 잠깐만, 커플 여행?’

에이미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거기에 나를 데려간다고? 도대체 왜?’

위장 연애를 하던 당시에도 목석처럼 흔들리지 않던 시로네가 갑자기 커플 여행을 제안하니 당황스러웠다. 단순히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부탁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졸업반은 마법학교의 마지막 경쟁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치열한 공부가 필요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로네가 집까지 찾아와서 부탁을 할 정도라면 특별한 속내가 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나를 데려가려는 이유가 뭐야? 고급반에도 친구들 있잖아? 나 졸업반인 거 알지? 다른 졸업반 애들이 방학 중에 얼마나 특훈을 하는지도. 그런데 왜 하필 나야?”

에이미는 물어봐 놓고도 대답이 두려웠다. 설마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다. 찻잔을 입에 가져다 대는 손이 미약하게 떨려 왔다.

“에이미,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푸우우우!”

에이미는 마시던 차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뿜어 버렸다. 찻물에 얻어맞은 시로네는 소나기에 당한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바보 멍청이가!”

에이미가 소매로 입을 닦으며 소리쳤다. 홍시처럼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나 수건을 챙겨 가지고 돌아왔다.

“이걸로 얼른 닦아! 불결해 죽겠네, 진짜!”

“……얼굴에 뿜은 건 너잖아. 아무튼 얘기를 계속하자면, 혹시 내가 전에 얘기했던 미로라는 사람 기억하고 있어?”

“응? 미로?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 초대 회장이라던 그 사람 말이지? 이모탈 펑션이 진행되는 중에 만났다고 그랬잖아.”

“맞아. 근래 세운 가설인데, 나는 이모탈 펑션이 초광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녀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 교장 선생님이 케르고 유적을 조사하는 정도라면 괜찮다고 허락하셔서, 리안이 제안한 김에 한번 가 볼까 하는데.”

에이미는 그제야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케르고 유적이라면 갈리앙트 섬에 있는 유명한 유적이자 관광지가 아니던가.

“아하, 그래서 거길 같이 조사해 보자 이거지?”

“물론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들어 보면 단순한 관광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가 함께 가 준다면 나도 안심할 수 있을 거 같아.”

리안이 쌍쌍 여행을 제안한 이상 파트너는 여자여야 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을 빼고라도 에이미는 시로네가 알고 지내는 친구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홍안의 특이성도 엄청난 강점이지만 매일같이 강자들과 경쟁하면서 졸업반의 중위권에 안착한 그녀의 실력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위험을 헤쳐 나갈 수 있을 터였다.

“흥! 당연하지! 초자연 어쩌고 하는 애들과 나는 격이 다르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로네가 곤란한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렸다. 사실은 에이미도 알고 있었다. 단지 강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끌어들일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시로네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에이미를 구했다. 짧은 순간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은 두 사람의 신뢰를 한층 강화시켰다.

그렇기에 부탁할 수 있다. 위험을 알고서도 동행을 부탁하는 건 생명을 나누었던 관계이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런 것이라 이거지…….”

에이미는 창가로 걸어가 생각에 잠겼다. 둘이서 떠나는 여행은 아니기에 부담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에 가 보고 싶었다.

이번 여행으로 얻을 것도 많겠지만 그보다는 시로네와 무언가를 한다는 게 재밌을 것 같았다.

‘짜식, 보는 눈은 있어 가지고. 좋아, 어차피 빚진 것도 있으니 이번에는 내가 기 좀 살려 주지 뭐.’

에이미는 천천히 돌아섰다.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시로네를 보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표면적으로는 여자를 데리고 외박을 하는 일이다. 감언이설로 포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남자 쪽에서 저렇게 무슨 짓을 할 것처럼 굳어 있으면 어떤 여자도 따라나서지 않을 터였다.

‘열두 살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대체 이 아이는 언제 클까? 어쩌면 모든 성장 에너지가 마법에 집중되어 버린 탓일 수도 있었다.

에이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섬으로 가자.”

\* \* \*

“안녕하십니까! 리안의 친구, 엘자인 테스라고 합니다!”

오젠트 가문을 찾은 테스가 씩씩하게 예의를 갖췄다. 그녀의 옆에는 리안이 초조한 기색으로 서 있었다.

여태까지 리안이 시로네의 집에 죽치고 있었던 이유는 테스를 방패막이로 삼아 본가로 쳐들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검술학교에서 꼴등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쉬이 놀게 해 줄 부모는 결단코 없을 테니까.

하지만 친구를 앞세운다면 얘기가 달랐다. 특히나 그 친구가 검술학교 1등의 모범생이라면 충분히 약발이 먹힐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음, 엘자인의 명성은 익히 들었네. 아버님은 건강하신가?”

“네. 점령지에 머무시는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검을 연마하고 계십니다.”

사실 엘자인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다. 또한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리안의 아버지 비쇼프는 족히 그럴 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검으로 일가를 이룬 분은 다르시군.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네.”

테스의 아버지인 엘자인 베론은 섬광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검의 고수였다.

오젠트 검술이 패도적이라면 엘자인 검술은 섬뜩하고 예리하다.

누구의 솜씨가 높은지는 검을 다루는 자에 달렸으나 검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자부심만큼은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리안, 너답지 않게 좋은 처자를 사귀었구나.”

“사귀는 거 아니야. 그냥 친구야.”

테스가 찌릿한 눈초리로 리안을 흘겨보았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리안과 여행을 떠나려면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갈리앙트 섬으로 휴가를 가고 싶다고?”

“어. 검술학교에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심신을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해. 아, 이따가 시로네도 올 거야. 여기서 바로 출발하려고. 가도 되지?”

“가는 거야 상관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한 거냐? 개인 과외까지 시켜도 말을 안 듣던 놈이 그런 소리를 하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하! 그런 얘기 할 거 같아서 가져왔지. 드디어 나도 스키마를 열었다고!”

리안은 회심의 물건을 꺼냈다. 성적표는 레이나에게 빼앗겼지만 근력 강화 검사를 통과한 검증서는 가지고 있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밝혀진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였지만 자초지종을 모르는 비쇼프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흐음, 진짜로 통과했구나. 축하한다.”

비쇼프는 성격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모라면 누구나 못난 자식이 더 눈에 밟히는 법이다. 그렇게 애를 써도 성공시키지 못한 스키마를 보란 듯이 해냈으니 마음속으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을 터였다.

“자, 이제 약속대로 해 줘. 할아버지가 스키마를 터득하면 준다고 한 검, 그거 가져가도 되지?”

“물론이다. 스키마를 열었으니 너도 이제부터 오젠트 검술을 익혀야겠지. 그런데 성적표는 어디 있냐? 자신만만한 걸 보아하니 꽤나 괜찮은 모양인데.”

## [123] 새로운 만남(4)

“아…… 성적표? 그건 누나가 가지고 있어.”

“레이나가? 왜? 가지고 오지.”

“몰라. 할아버지 보여 준다고 뺏어 갔어. 그 마녀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빨리 검이나 줘. 어릴 때부터 그거 가지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리안이 간절하게 원하는 검은 오젠트 가문의 검술에 특화되어 있는 직도였다. 보통의 장검보다 두 배는 무거운 대검인 데다가 키가 훤칠하게 크지 않고서는 다루지 못할 만큼 날이 길었다.

리안은 검을 배울 때부터 오젠트 가문의 직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특히나 자신의 것이라고 침을 발라 둔 검은 할아버지가 직접 사용하던 검이었다.

클럼프는 예전부터 리안에게 검을 물려주기를 원했다. 친손 중에서 청발의 혈통을 이어받은 건 레이나와 리안이었는데, 여자인 레이나를 제하면 자신의 검을 다룰 사람은 리안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은 할아버지 방에 있다. 그런데 놀러 간다면서 갑자기 검은 왜 찾아? 테스야 먼 길을 왔으니 그렇다 치지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아무튼 지금 가지고 올게.”

리안은 할아버지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스키마조차 터득하지 못한 그가 다루기에는 과분한 검이었지만 이번 여행에 반드시 챙겨 갈 생각이었다.

시로네는 유적을 탐사하려는 게 분명하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르듯이 시로네가 위험한 곳으로 뛰어든다면 자신이 그 곁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젠트 가문의 대직도.’

리안은 할아버지의 방에 걸려 있는 대검을 황홀하게 올려다보았다. 스키마를 열기 전에는 휘두르기조차 어렵다는 오젠트 가문의 혼이 담긴 형태.

물론 지금도 스키마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리안은 한 손만으로 검을 들고 눈앞으로 끌어왔다.

‘묵직하다. 하지만 휘두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야.’

상상 스키마라는 말도 안 되는 판정을 받았을 때 리안도 속이 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건 좌절하는 법이 없는 그답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스키마든 아니든 근력 강화 검사를 통과한 이상 무력은 같다. 언젠가는 스키마를 열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버틸 만하다는 입장이었다.

워낙에 무거운 검이라 철로 만든 검집에 넣고 다니는 건 불편했다. 리안은 소가죽으로 만든 그물 형태의 검집을 등 뒤에 차고 직도를 꽂았다.

이런 차림이라면 사람들의 눈에 띄겠지만 검을 차고 다니는 게 불법은 아니기에 상관없었다.

도시에서 지정한 특별 구역을 제외하고 나름의 규칙만 지킨다면 누구라도 검을 찰 수 있었다.

평민은 섹터 레벨 C, 귀족은 섹터 레벨 B, 왕족은 섹터 레벨 A라는 식이었다.

리안은 보무도 당당하게 직도를 차고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가 주목을 받을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집사장 루이스가 대문을 열고 보고했다.

“가주님, 시로네 도련님이 왔습니다.”

에이미와 함께 홀에 들어온 시로네는 우선 비쇼프에게 인사부터 올렸다.

겉으로는 깐깐하고 무뚝뚝하지만 아들이 온다는 말에 월차까지 내고 집에 있을 정도로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시로네의 입장에서도 마법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준 후견인으로, 학교생활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살림에도 미흡함이 없도록 챙겨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셨죠?”

“그래.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이번에 클래스 포로 진급하게 되었어요.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리안의 과거를 떠올린 비쇼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클래스 포라니. 마법학교에 입학한 지 반년 만에 클래스 포에 들어가려면 대체 재능의 크기가 얼마여야 될까?

물론 자식끼리 비교할 만큼 어리석은 부모는 아니다. 다만 1명의 검사로서, 기사 서약을 한 리안이 시로네의 성에 차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뿐이었다.

“네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어쨌거나 지원을 한 보람이 있구나. 이번에 리안이 주제도 모르고 아리따운 숙녀랑 여행을 간다던데, 너도 가는 거냐?”

“네. 함께 가기로 했어요.”

“옆에 계시는 숙녀분은 파트너고?”

비쇼프는 붉은 머리의 소녀에게 눈을 돌렸다. 낯이 익기는 한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카르미스 에이미입니다.”

비쇼프의 눈이 반짝였다. 리안과 테스는 물론이고 집사장 루이스까지 신기한 듯 에이미를 돌아보았다.

제1급 귀족인 카르미스 가문은 왕국으로만 따지자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성향과 홍안의 재능은 왕국을 넘어 대륙 전체에 퍼져있었다.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업적이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었다.

비쇼프 또한 귀족서열이 가문의 권력을 나타낸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세상에는 온갖 아첨과 비열한 수단으로 높은 계급에 오르는 귀족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정통성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풍마저 바꿔 가며 출세에 목을 맨다. 하지만 엘자인이나 카르미스는 그런 부류와는 격을 달리했다.

정통성이란 신념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법이다. 왕국이 세워진 이후부터 오로지 한길만을 택했던 그들의 자긍심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자, 자.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일단 가자고. 배 시간에 맞추려면 지금 출발해야 된다니까!”

리안이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비쇼프에게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초조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아마도 지금쯤 레이나가 보낸 급행 우편이 화살처럼 날아오고 있을 터였다.

성적표가 공개되는 순간 천국은 멀어지고 지옥도가 펼쳐지리라는 건 자명했다.

“아빠, 그럼 갔다 올게. 한 열흘 정도 걸릴 거야.”

“그래. 그동안 훈련하느라 고생했으니 재밌게 놀다 오거라. 아, 그리고 이건 여비에 보태 써라.”

비쇼프가 묵직한 금화 주머니를 던졌다. 안을 들여다본 리안은 깜짝 놀랐다. 여태까지 아버지에게 이토록 많은 돈을 받아 보기는 처음이었다.

실제로 비쇼프는 기분이 좋았다. 기사 서약을 했을 때만 해도 아들 하나 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던 스키마를 터득한 데다 좋은 친구도 사귀었다.

게다가 리안의 주인이 될 시로네도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착착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훈련 또한 실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리안은 죄책감이 들었으나 지금은 그런 마음조차 사치였다. 오직 살아서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알았어. 그럼 친구들이랑 갔다 올게. 아, 테무란. 항구까지 가는 마차 좀 대기시켜 줘.”

“알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테무란은 리안을 배웅하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0분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도련님.’

테무란은 품속에 넣어 둔 봉투에 신경을 기울였다. 수도에서 이제 막 도착한 레이나발 급행 우편이었다.

\* \* \*

오늘따라 집사들의 업무가 많아서인지 노는 마차가 한 대도 없었다. 전용 마차는 있었지만 안장을 얹고 정비를 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리안은 정비 따위 필요 없다고 했으나 수레바퀴의 나사 조임만큼은 검사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자칫 사고라도 나게 되면 모든 죄는 마차 관리인이 덮어쓰게 되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마구간 근처에서 마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동안은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서로가 초면일 때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분석이 오가고 있었다.

테스는 우선 시로네를 살폈다. 마법사 지망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리안이 기사 서약을 했다기에 피 끓는 열혈남아를 떠올렸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 의외로 여리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카르미스 가문의 에이미도 흥미로웠다. 대륙의 스타라고 불리는 카르미스. 과연 그 집안의 사람들은 어떤 성격일까?

결국 테스가 먼저 말을 건넸다. 적어도 마차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색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일단 통성명이나 할까? 엘자인 테스라고 해.”

“난 카르미스 에이미. 만나서 반가워.”

“아, 나는 아리안 시로네.”

테스는 시로네하고도 악수를 나누었다. 하지만 성을 듣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외교에 특화된 엘자인 가문답게 어지간한 귀족 가문의 성은 다 알고 있는 그녀였다. 하지만 아리안이라는 가문은 스쳐 지나가듯 들은 적도 없었다.

“아하, 아리안이구나. 음, 저기…… 본가는 크레아스에 있는 거야?”

테스는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돌려서 물었다. 그녀의 생각을 읽은 시로네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 나는 본가가 없어. 평민이거든.”

“어? 평민이라고?”

테스의 눈이 똥그랗게 커졌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헛소리를 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리안이 평민에게 기사 서약을 할 리가 없지 않은가?

테스는 에이미를 돌아보았다.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건 그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 거야? 리안은 대체 무슨 생각이지? 에이미는 또 왜? 카르미스 가문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평민의 파트너로 따라올 수가 있어? 이거 커플 여행 아닌가?’

시로네를 겪어 보지 못한 테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로네에게 놀란 만큼이나 리안의 결정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다.

설령 시로네가 대단한 능력을 갖춘 아이라도 신분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냥 친구도 아니고 평생 동안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기사 서약이었다.

‘어떤 의미로는…… 리안답기는 하네.’

테스가 한참이나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자 시로네가 먼저 말을 건네주었다.

“미안해. 불편하다면 차라리…….”

“아, 아니야. 실례는 내가 했지. 솔직히 너무 깜짝 놀라서 경황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상한 건가? 모두 태연하니까 꼭 내가 나쁜 애 같잖아, 호호호!”

테스는 황급히 분위기를 무마했다. 평민이든 귀족이든 리안의 주군이었다. 그렇다면 자신 또한 허투루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테스,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시로네는 테스가 어떤 성향인지 느낄 수 있었다. 역시나 리안이 선택한 여자답다고 할까?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남을 웃게 만드는 건 진심 어린 배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얘기는 많이 들었어. 리안의 애인이라고.”

“어머, 무슨 소리야? 정말로 애인처럼 보였어? 우리가 그렇게 잘 어울리나? 호호호!”

테스는 시로네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반면에 리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반드시 깨트려야 하는 착각이다. 하지만 테스가 시로네에게 잘해 주는 게 좋았기에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에이미는 의외라는 듯 리안을 돌아보았다. 섬으로 가자는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어떤 음흉한 인간이 이런 계획을 세웠나 했는데 예상보다 우직하고 배려심도 깊었다.

‘오로지 검으로만 일가를 이룬 오젠트 가문. 흑발 중에 천재가 1명 있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청발이네.’

귀족 서열은 제2계급으로 로열패밀리는 아니지만 그것은 타협을 모르는 우직한 성품 탓이었다.

이런 가문을 정치계에서는 ‘순수’라고 부른다.

중립을 지칭하는 말로 평시에는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에 대란이 일어났을 경우 순수의 표가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 정국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세력이었다.

에이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테스는 시로네와 에이미를 살펴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귀여운 외모인데다가 눈에 총명한 기운이 번뜩였다. 게다가 실제 성격은 어떨지 몰라도 똑같이 한 고집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떤 관계야? 이제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린다. 애인 사이?”

테스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며 묻자 에이미는 살짝 울컥했다. 마치 고만고만하게 작은 애들끼리 어울린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진 탓이었다.

## [124] 새로운 만남(5)

확실히 테스는 거구의 리안과 짝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몸매가 엄청났다. 팔다리도 길쭉길쭉하고 키가 커서인지 허리 라인도 굴곡이 깊었다.

반면에 자신은 누가 봐도 마법사였다. 키는 평범했고 체구도 또래에 비해서 마른 편이었다.

물론 육체의 아름다움이 매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머리 하나가 더 높은 테스의 박력 앞에서 초라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우리도 그냥 친구 사이야. 특별히 부탁해서 함께 가 주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테스는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귀족서열 제1계급의 소녀가 평민의 파트너로 따라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감정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리안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사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건 시로네가 파트너를 찾지 못할 경우였다.

신분의 문제도 있지만 성격이 내성적이라 자칫하면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딱히 여자에 관심이 없는 그조차 놀랄 만큼 아름다운 소녀를 데리고 왔다.

리안은 자고로 여자란 에이미처럼 보호 본능을 유발시키는 앙증맞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반해서 테스는 자신을 능가하는 실력의 소유자였으니 연애 감정을 느낄 턱이 없었다.

비록 스키마의 능력일 뿐이라고 해도 자신보다 강한 여자에게 끌리는 남자는 별로 없는 것이다.

‘잘해 봐라, 시로네.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마.’

리안이 작전을 짜는 동안 정비를 끝낸 마차가 도착했다. 각자의 짐을 챙긴 네 사람이 마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이놈! 리안~!”

저택에서부터 퍼져 나오는 엄청난 데시벨의 목소리. 소리를 타고 전해지는 살기만으로 리안은 짐작했다, 모든 게 들통 났다는 것을.

“이런 젠장! 얘들아, 뛰어!”

“뭐? 마차는?”

“타고 가면 늦어! 뒤를 봐! 무조건 담을 넘어야 해!”

세 사람은 저택 쪽을 돌아보았다. 하늘까지 솟구친 황토색 회오리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정황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시로네 일행은 뛰기 시작했다.

“리안! 어떻게 된 일이야?”

“젠장! 성적표가 도착했나 봐! 나 사실 꼴등 했거든! 아빠가 우릴 죽일 거야!”

“진짜? 진짜로 죽여?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출발하자. 놀러 가는데 이게 뭐야?”

“자신 있으면 해 보든지. 난 뛸 테니까. 참고로 말하면 우리 아빠 공인 4급 검사야.”

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테스가 스키마를 발동해 앞으로 튀어 나가고 그 뒤를 에이미가 따랐다.

뒤로 처진 시로네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분명 앞으로 달리는데 바람은 뒤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공기를 밀어내면서 달린다는 건 비쇼프의 속도가 인간의 한계치를 초월한다는 얘기였다.

“리안! 우리 잡힐 거 같아!”

“할 수 없지! 내가 자폭할게! 너희들 먼저 섬에 가서 놀고 있어!”

리안이라면 족히 그러고도 남았다. 하지만 친구를 버리고 여행을 갈 수는 없는 노릇. 시로네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한 가지 해법을 떠올렸다.

“에이미! 순간 이동으로 가자! 리안, 움직이면 안 돼!”

시로네는 리안을 붙잡고 광자화 마법을 걸었다. 두 사람의 몸이 번쩍하고 빛나는가 싶더니 곧바로 섬광이 되어 앞으로 튀어 나갔다.

순간 이동을 처음 경험해 본 리안은 정신이 아찔했다.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며 모든 풍경이 자신에게 밀려드는 기분이었다.

바로 마법사의 시야였다.

에이미도 시로네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테스를 붙잡고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두 줄기의 섬광이 엄청난 속도로 정원을 질주했다. 자칫 엄폐물에 부딪쳐 박살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로네와 에이미는 일말의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꽤나 멀어졌다고 생각한 시로네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결국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어야 했다.

회오리바람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엄폐물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오고 있었다.

머릿속에 오젠트의 상징인 대직도가 떠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에이미! 이쪽으로 와!”

시로네가 울창한 숲의 한가운데에서 급정지를 하며 소리쳤다. 그러자 에이미도 한 턴을 취소하는 것으로 시로네와의 거리를 좁혔다.

숲을 파괴하는 회오리바람이 100미터 거리에서 닥쳐오고 있었다.

테스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이제 어떡해? 그냥 잡히려고?”

“나를 붙잡아! 날아갈 거야!”

시로네는 스피릿 존의 반경을 최대한으로 넓혔다. 그래 봤자 정원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었다.

속도에서 이길 수 없다면 순간적으로 좌표에서 사라져 버리면 된다.

“간다!”

친구들이 도착하자 시로네는 공감각을 통해 안전한 장소를 물색했다. 당분간 시전할 일이 없을 줄 알았던 마법을 이토록 빨리 실전에서 쓰게 될 줄이야.

숲의 외곽을 목표로 공간 이동을 시전하자 네 사람의 몸이 빛으로 불타오르더니 하늘로 빨려 들었다.

동시에 엄청난 바람이 인영과 함께 밀려들어 그들이 있던 자리를 쓸어버리고 지나갔다.

비쇼프는 리안을 붙잡지 못한 손을 안타깝게 움켜쥐었다. 간발의 차이였다.

“이런……!”

비쇼프는 몸을 180도 돌리면서 두 다리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마치 빙판 위를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의 몸이 십여 미터를 밀려났다.

뒤꿈치 너머로 체중의 20배에 달하는 흙더미가 올라왔다. 그의 육체가 얼마나 막대한 물리력을 머금었는지 알 수 있는 광경이었다.

비쇼프는 자신이 달려온 길을 착잡하게 바라보았다. 땅이 갈아지고 나무는 아무렇게나 부러져 있었다.

이 모든 게 리안 때문이다. 감히 아비를 속이다니.

“상상 스키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꺼내 들었다.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오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못난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다. 대체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스키마에 준하는 근력을 갖는단 말인가.

‘노력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나저나 시로네는 벌써 공간 이동까지 터득한 모양이었다. 프로들도 어려워하는 마법인 만큼 반년 만에 이룬 성과치고는 엄청난 성장이었다.

시로네와 리안. 리안과 시로네. 비쇼프는 한 운명으로 묶여 있는 두 소년의 미래를 떠올렸다.

재능과 성향은 천지 차이지만, 그들이 움직였던 걸음의 숫자만큼은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같지 않을까?

“좋은 추억이겠군, 이것도.”

비쇼프는 성적표를 어깨 너머로 던져 버리고 저택으로 발길을 돌렸다.

섬. 갈리앙트(1)

오젠트 저택의 담장을 뛰어넘은 시로네 일행은 전력을 다해 귀족 구역을 벗어났다.

공간 이동을 시전한 덕분에 비쇼프의 예상 좌표에서 벗어났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다.

스키마 고수의 무브먼트는 어지간한 순간 이동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동물적인 활동 반경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번화가에 들어와서야 시로네 일행은 한숨을 돌렸다. 아직도 비쇼프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설마하니 아들에게 상처를 입힐까 싶었지만,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모습에는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시로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여기까지 와 버렸으니 돌아갈 수도 없고.”

“상관없잖아? 여비는 두둑하게 받았으니까. 마차를 빌려서 항구로 가자.”

리안은 아버지만 없다면 두려울 게 없었다. 언젠가는 혼나게 되겠지만 즐거운 여행을 앞두고 우중충한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마구간이었다. 여행자에게 말을 팔기도 하지만 마부를 고용해 목적지까지 태워 주는 운송업도 겸하고 있었다.

배 시간에 맞추려면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었기에 리안은 당장 출발시킬 수 있는 4인승 마차를 빌렸다.

리안과 테스가 나란히 앉았고 시로네와 에이미가 마주 보는 자리에 착석했다. 평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리라 내부가 비좁았기에 바짝 붙어 앉아야 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차가 출발했으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긴장은 금세 풀어졌다.

테스는 손부채로 땀을 식히며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마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울창한 숲을 순간 이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상당한 수준의 마법사였다.

하지만 단지 마법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귀족 중에서도 차고 넘쳤다. 리안이 기사 서약을 할 만큼 강력한 충격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다.

“맞다. 그런데 두 번째 마법은 뭐였어? 순간 이동치고는 느낌이 이상하던데.”

“아, 그건 공간 이동이야. 시간 축을 따라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웠을 거야.”

“뭐? 그게 공간 이동이었다고?”

테스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친구들도 마법학교에 다니지만 공간 이동을 터득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이론만 안다고 가능한 마법이 아닌 탓이다. 정신적 완력의 문제였고, 시간과 노력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대단하다. 기연 같은 걸 얻은 거야? 아,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간 이동은 프로들만 사용하는 마법으로 알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마법을 배우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테스는 시로네가 어린 시절 기연을 통해 마법 세계에 입문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평민이 마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없기 때문이었다.

시로네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였지만 딱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기에 착각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맞아. 리안이 아니었다면 마법학교에 다닐 수 없었을 거야. 오젠트 가문에서 마법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

“역시 그랬구나. 아,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귀족들이랑 경쟁을 했으니 공부 외적으로도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텐데.”

“하하!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에이미가 많이 지켜 주기도 했고.”

“흥,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는 말도 안 했던 주제에.”

에이미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려 버렸다.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시로네의 겸손한 대답이 답답한 그녀였다.

테스는 평민에 불과한 시로네가 자신의 노력으로 고급 마법을 익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알고 지낸 적이 없으니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시로네가 걸었던 험난한 여정을 기연이란 말로 넘겨짚는 양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에이미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 준 사람은 리안이었다.

“그래 봤자 고작 반년 전의 얘기야. 시로네는 마법을 배운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거든.”

“뭐어, 반년?”

테스는 목이 부러질 정도로 리안을 돌아보았다. 이번만큼은 그녀도 머릿속이 깜깜해졌다.

어떤 수단으로도 반년 만에 공간 이동을 터득할 수는 없다. 이는 검사의 사고방식과는 별개로 귀족 사회에 퍼져 있는 상식 중의 상식이었다.

테스는 슬그머니 건너편을 돌아보았다. 시로네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에이미는 여전히 삐딱하게 턱을 괴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테스는 그제야 실수를 깨달았다.

검사와 마법사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에 성격도 정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검사들이 느낀 대로 말하고 듣는다면 마법사들은 말의 행간에서 수많은 의미를 추론한다. 에이미의 입장에서는 시로네를 폄하하는 태도로 보였을 가능성이 다분했다.

“어머나, 미안해. 그런 것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만 주절주절 떠들었네.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나라도 애인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 화가 났을 거야.”

에이미의 얼굴이 빨개졌다. 분명 마법사는 언어를 다루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런 식의 직접적인 사과에는 갓난아이처럼 면역력이 없었다.

“내, 내가 뭘?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애인 아니라니까! 그냥 친구야.”

퉁명스럽게 대꾸하기는 했지만 에이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풀려 있었다.

“처음 만난 사이니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테스가 솔직하기는 해도 악의는 없으니까 이해해. 앞으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돼.”

리안은 성격대로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오히려 시로네와 에이미는 대답을 못하고 쭈뼛했다.

따지고 재는 것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검사들의 솔직담백한 대화법이 심히 부담스러웠다.

## [125] 섬. 갈리앙트(2)

테스는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애썼다. 검술학교에서 억세고 야무진 동료들만 보다가 마법학교 학생들을 만나니 나이는 같아도 동생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에이미도 대단하더라. 스키마는 언제 터득한 거야?”

“마법학교 들어가기 전에, 2년 정도 수련한 적이 있었어.”

“호오, 어릴 때 스키마를 익히는 경우는 드문데. 성장에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잖아?”

“딱히 운동을 한 건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테스는 그 말만 듣고도 깨달았다. 정신 영역인 스피릿 존에서는 영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스키마는 육체를 혹사시키는 방식이라 미성숙한 나이에는 익히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홍안의 자기상 기억이라면 힘든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육체를 정밀하게 통제하는 게 가능할 터였다.

“아하, 홍안을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구나. 정말 최고네.”

“그래 봤자 대단한 것도 아니야. 빌드도 없는 데다 근력만 조금 강화시키는 정도지. 너에 비하면 어린애 수준일걸. 아까 보니까 정말 빠르던데.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으면 순간 이동을 시전하지도 못할 만큼 벌어졌을 거야.”

“에이, 나야 전공자지만 너는 마법사잖아? 더군다나 리안은 아직도 스키마를 못 하는데 뭐. 이제 보니 카르미스 가문이 대륙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

시로네가 깜짝 놀라며 리안을 돌아보았다.

“리안, 너 스키마 못 배웠어? 그럼 우리 집에서 장작을 팬 건 뭐야? 난 아무 말도 안 해서 스키마인 줄 알았는데?”

“호호호! 리안이 그랬어? 쿠안 선생님 말을 빌리자면 바보 같이 강인한 근력일걸. 검술학교에서 어땠는지 알아? 마지막 시험에서…….”

“아, 진짜! 남의 사생활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리안이 황급히 말을 끊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시로네에게만큼은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덕분에 분위기는 좋아졌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학교생활을 털어놓았다. 분야는 달라도 다 같은 학생이기에 대화는 끊어질 줄을 모르고 이어졌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 가고 있었다.

\* \* \*

크레아스 항구에 도착한 시로네 일행은 갈리앙트 섬으로 가는 배편을 찾았다.

제6번 도크에 정박해 있는 대형 갈레아스가 출항 준비를 끝마친 듯 돛을 펼치고 있었다.

왕국의 모든 학교가 비슷한 시기에 방학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평소보다 많았다. 인파에 휩쓸리듯 배에 올라탄 시로네는 3층 갑판에 자리를 잡았다.

아래층에 여객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처음 타 보는 배였기 때문에 경치를 구경하며 가는 것도 재밌는 일이었다.

파도가 철썩이고 짠 내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다. 항구가 지평선 아래로 잠긴 뒤에야 일행은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몇 시간 정도 걸릴까?”

“듣기로는 크레아스 항구에서 배로 5시간 거리라던데.”

“그렇구나. 조금만 늦었으면 내일 출발했을 수도 있었겠다. 섬에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시로네의 말대로 갑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장사꾼들이 절반이었으나 귀족 차림의 관광객들도 있었다. 또한 크레아스가 아닌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제법 보였다.

“리안의 말대로 유명한 섬인가 봐. 어떤 곳일까?”

“내가 조사해 가지고 왔어.”

에이미가 기다렸다는 듯 수첩을 꺼냈다. 이제는 모두와 친해진 테스가 허물없이 말을 걸었다.

“오호? 역시나 꼼꼼한 성격.”

“그러게. 나는 찾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시로네가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자 에이미가 못마땅한 듯 노려보았다.

“너는 유적 탐험한다면서 사전 조사도 안 한 거야?”

“하하! 아니, 그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행자가 있다. 막무가내로 떠나는 사람과 치밀하게 조사하고 떠나는 사람.

전자는 미지의 낭만을, 후자는 효율을 따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에이미는 후자에 속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 떠나는 여행이니 모든 게 신기하고 생소할 따름이었다.

“일단 우리가 가는 갈리앙트 섬에 대해 말해 줄게. 부지면적은 1,500제곱킬로미터. 반달 모양의 섬이고 북쪽은 천혜의 절벽이라 배는 남쪽의 항구로 돌아들어 가야 할 거야. 서쪽에는 주민들이 사는 곳과 휴양지가 섞여 있고 케르고 유적은 섬의 동쪽에 있어. 케르고 유적지는 2천 년 전에 문명을 이룩했던 케르고인의 신전이래.”

“케르고인?”

“응. 지금은 멸망했지만 소수의 원주민들이 섬 중앙의 자치 지구에 머무르고 있어. 까무잡잡하고 키가 작은 편인데 눈이 움푹 들어가 있고 동공이 작은 게 특징이야. 아, 그리고 앙케라를 찬미하는 문신을 얼굴에 새기고 있대.”

“앙케라가 뭐야?”

“케르고인이 믿는 고대신의 이름이야. 그리고 음…… 원주민들은 루프라는 단단한 나무뿌리를 씹는데 그게 환각 작용을 일으키나 봐. 그래서 그들은 루프를 신의 각성제라고 불러. 트랜스 상태에서 접신을 했던 거지. 멸망의 원인은 종교적 갈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각에서는 루프를 너무 남용하는 바람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설도 있는 모양이야.”

“그렇구나. 신기하네. 환각제가 문명을 멸망시키다니.”

“신의 이름 아래 남용을 했기 때문이겠지. 맞다, 오빠에게 들었는데 유적지 관리인은 대부분 케르고인이라서 볼 수 있을 거래. 대신에 원주민 자치 구역은 외부인 출입 불가라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아, 하지만 오빠는…….”

“응? 오빠는 뭐라고 하셨는데?”

시로네가 궁금한 듯 되물었다. 에이미가 말한 오빠란 아마도 탐험가인 아레스일 것이다. 세계 곳곳을 다녔던 만큼 케르고 유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오빠는 이렇게 말했어. 문명의 멸망은 학자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입장료보다 더 중요한 걸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로네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흐음, 그렇다면 케르고 유적보다도 더 대단한 게 자치 구역에 있다는 뜻인가?

“확실하지는 않아.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거든. 수수께끼를 내면 뭔가 더 있어 보이는 줄 안다니까.”

“하하! 하지만 나는 이런 게 더 재밌는데? 입장료보다 중요한 것이라. 대체 그게 뭘까?”

시로네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알페아스도 그렇고 아레스의 말을 들어 봐도 케르고 유적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시로네가 어린아이처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자 리안도 다른 의미로 기분이 좋았다. 주군이 의욕 탱천이라면 수호 기사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진다. 유적지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든 반드시 시로네를 지켜 낼 생각이었다.

“시로네, 그런데 언제 가 볼 생각이야? 도착하자마자 바로 갈 건 아니잖아?”

“응. 일단은 휴가니까 재밌게 놀아야지.”

“그럼 숙소부터 잡아야겠네. 항구에서 내리면 휴양지로 이동하자. 서쪽 해변에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볼거리도 많고 유명한 해산물 음식점도 많아.”

한시라도 빨리 남국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테스가 주먹을 불끈 쥐고 흥분에 몸을 떨었다.

“으으으, 재밌겠다!”

도착하려면 아직도 4시간 이상이 남았다. 하지만 여행의 짜릿함은 시간을 금세 잡아먹었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섬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와! 보인다! 갈리앙트 섬이야!”

뱃머리에 서 있던 승객들이 먼 섬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시로네 일행은 갑판의 선두로 달려갔다.

갈리앙트 섬의 북쪽 절벽이 그들을 반겼다. 울창한 수해를 검으로 쪼갠 듯 수직의 암벽이 불쑥 솟아 있었다.

승객들이 흥에 겨워 소리쳤다.

“드디어 도착했네! 진짜 멋있는데?”

“와! 물색 너무 좋다! 빨리 수영하고 싶어!”

하지만 장사꾼들은 여전히 짐을 깔고 누워 있었다. 항구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섬을 돌아 30분을 더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갈리앙트 항구.

항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배에서 내리는 상인들과 배로 달려오는 섬의 상인들이 엉켜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은 늦게 내릴 수밖에 없었고 시로네 일행 또한 인파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육지를 밟았다.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건 남국의 따듯함이었다. 크레아스는 벌써 초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지만 갈리앙트 섬은 여전히 여름이었다.

장사치들이 빠지고 난 항구에는 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가게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다.

“자, 자! 돌고래 여관으로 오세요! 섬에서 가장 싼 숙박료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누라 음식 맛도 끝내준다고요!”

“남국 정통의 해산물을 드시고 싶은 분! 저희 식당으로 오세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마차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짐 들어 드립니다! 건장한 짐꾼 다수 대기 중!”

시로네 일행은 호객꾼의 목소리에 파묻혀 정신이 없었다.

대놓고 다가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지만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었다. 일단 성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게다가 입고 있는 옷이며 무기도 전부 고급이었으니 호객꾼들이 눈독을 들이는 건 당연했다.

물론 개중에는 정직한 상인들만 있는 건 아니었다. 도크의 건너편에 있는 골목에서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몇몇의 무리가 사냥감을 물색하는 중이었다.

“후후후. 자아, 오늘은 누구를 벗겨 먹어 볼까?”

지스라는 소년이 인파를 바라보며 눈을 빛냈다. 그의 뒤편에는 2명의 친구들이 같은 곳을 살피고 있었다.

이들이 바깥의 호객꾼과 다른 점은 가게를 가진 점주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결국 세치 혀만으로 돈을 버는 뒷골목의 악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육지의 악동과 섬의 악동은 기질부터가 다르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공간에서 세상이 정해 놓은 규정을 지키다가는 빵 쪼가리 하나 얻을 수 없는 게 그들의 삶이었다.

특히나 지스는 어릴 때부터 반골 기질이 심해 갖은 구박을 받으며 자랐다.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귀족에게 얻어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경험도 이제는 돈을 버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일 뿐이었다.

“우와,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람 진짜 많다. 지스, 오늘 우리 한몫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는데?”

“그래 봤자 저들 중의 절반은 개털이야. 겉만 번지르르하지. 제대로 골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스는 신중하게 손님을 물색했다. 하지만 하루치 상납금을 벌어야 하는 친구들은 초조하기 그지없었다.

“지스, 빨리 골라. 다른 사람들이 다 낚아채 간단 말이야.”

“알았어. 기다려 봐.”

지스는 매의 눈으로 항구를 쭉 훑어보았다. 하지만 전체를 살피기도 전에 3번 도크에서 시선이 멈췄다.

비슷한 또래의 네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붉은 머리의 소녀가 지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작은 얼굴에 담긴 이목구비가 얼마나 또렷한지 멀리 있는 이곳에서도 예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야야, 됐다! 저 일행으로 하자. 보이지? 남자 둘, 여자 둘.”

“진짜? 저기 덩치 큰 애도 있는데? 게다가 검도 차고 있잖아? 그냥 다른 사람 고르자.”

“이것들이 진짜. 내가 누구냐? 항구의 지배자 지스 님 아니냐. 저런 놈일수록 겁쟁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미쳤다고 관광지에 검을 차고 오겠어?”

“으, 좀 위험한데. 설마, 지스 너…… 또 처음 보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는 정신병이 도진 건 아니지? 만약 용병이면 어떡해?”

“마! 딱 보면 몰라? 학생이잖아. 학생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손끝 하나 못 댄다고. 강하게 나가는 작전으로 할 테니까 보조 잘해라. 귀족이라고 절대 굽실대지 말고. 저런 애들은 기선을 제압해야 돼.”

지스는 친구 둘을 이끌고 골목을 벗어났다. 도크로 가는 와중에도 다른 호객꾼이 채갈까 조마조마했지만 소녀의 얼굴이 점차 선명하게 들어오자 그런 생각조차 날아가 버렸다.

‘뭐야, 이 여자애? 진짜 예쁘다…….’

타지의 여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 섬 소년의 당연한 낭만이었다. 하지만 사랑을 넘어서 숭고한 기분까지 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스는 황급히 정신을 가다듬고 다가갔다. 이대로 두다가는 다른 호객꾼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 [126] 섬. 갈리앙트(3)

“여어, 갈리앙트에 온 걸 환영해. 휴가 온 거야?”

지스는 친근한 말투로 손을 들었다. 아무리 귀족이라도 호구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이 바닥의 매뉴얼이었다.

어떤 의미로는 목숨 걸고 돈을 버는 셈이지만 설령 사달이 난다고 해도 한 달 정도 숨어 버리면 그만이었다.

바다 건너에서 놀러 온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해코지를 가하려고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네,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시로네가 웃으며 반겼다. 반면에 에이미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다. 어린 날 뒷골목을 호령하면서 어둠의 세계를 접해 본 그녀는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접근했는지 알고 있었다.

“보아하니 학생인 거 같은데. 어디 학교야? 분명 명문 학교겠지?”

“알페아스 마법학교요.”

“아하! 나 거기 알아. 가까워서 꽤나 많이들 놀러 오거든.”

에이미는 아차 싶었다. 학생이라는 걸 밝혀서도 안 되지만 출신 학교까지 말해 버리면 날 잡아 잡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이쪽 분들은 마법사치고 덩치가 좋네.”

“뭐야? 우리는 카이젠 검술학교 출신이야! 검사니까 키가 큰 거지, 멍청아!”

지스의 예상대로 테스가 발끈했다. 자신의 몸매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녀였지만 리안과 패키지로 묶어서 덩치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하하! 미안.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칭찬한 건데 이상하게 받아들였나 보네.”

지스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인생 막장들이 귀족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정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귀족은 구속받을 일이 꽤나 많은 위치였다. 알페아스 마법학교와 카이젠 검술학교는 기강이 세기로 유명하다. 관광지에서 사고라도 치게 되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터였다.

“아무튼 잘 왔어. 나는 현지 가이드인 지스라고 해. 나를 고용하면 관광은 물론 숙식까지 전부 해결할 수 있어.”

“아직 저희끼리 얘기가 안 끝나서요. 생각 좀 해 볼게요.”

시로네는 여태까지 접근한 호객꾼들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지스 패거리는 그들과 달랐다. 이미 약점을 잡힌 이상 집요하게 달라붙어 고용을 강매했다.

“아, 이거 왜 이래? 좋은 학교 다니니까 돈도 많을 거 아냐?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어차피 돈 쓰려고 온 거잖아?”

시로네도 그제야 단순한 호객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리안과 테스의 눈빛도 차갑게 가라앉았다.

검사의 눈빛과 마주친 지스의 친구들이 움찔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지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후후, 어차피 우릴 어쩌지는 못할걸.’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호객꾼을 했던 그는 내륙의 정보에 빠삭했다.

알페아스 마법학교는 외지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걸 엄금하고 있다. 마법학교가 그랬으니 기사도를 강조하는 검술학교는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물론 성질 더러운 학생에게 걸려 얻어맞은 적도 있지만 먹고살려면 감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스의 줄타기 실력은 이미 경지에 달해 있었다.

“그러지 말고 나만 믿어. 갈리앙트 섬에서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테니까. 자, 가자고. 무슨 남자가 강단이 없어? 아리따운 아가씨들 앞에서 팍팍 돈 좀 뿌리라고. 응? 갈 거지? 그럼 내가 짐 든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상의 좀 할게요.”

“후우, 알았어. 근데 여기까지 와서 거절하면 진짜 나쁜 거야.”

지스는 이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있었다.

시로네는 난감한 듯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이런 적은 처음인 데다가 지스의 태도가 화를 내기도 애매한 선을 타고 있어 매몰차게 대할 수가 없었다.

“어떡하지? 저 사람에게 맡겨야 하나?”

“학교 이름을 알아서 그래. 저것들 우리가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뻗대는 거야.”

에이미의 말을 들은 테스는 약이 올랐다. 비열한 수단이긴 하지만 확실히 효과적이었다. 원래라면 진즉 주먹이 나가야 할 성격이건만 지금도 분을 참고 있다는 게 방증이었다.

반면에 리안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가 머릿속에 박아 둔 유일한 기준은 시로네의 안전이었다.

“나는 별로 상관없어. 시로네가 원한다면 따를 뿐이야. 만약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를 부리면 두들겨 패 버리면 돼.”

리안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기사 서약을 하고 시로네와 처음으로 나온 외지. 언젠가는 이런 상황을 무수히 접할 터이니 훗날을 위해서라도 이런저런 상황을 미리 경험해 두는 게 좋았다.

“아~ 팔 아파. 빨리 결정해 주면 안 돼? 지금 이러는 것도 다 돈이라고.”

“저 자식이 진짜!”

지스에게 다가가려는 테스를 시로네가 말렸다. 학교의 명예가 걸린 이상 불필요한 폭력사태는 피하고 싶었다.

“알았어요. 고용할게요. 얼마면 돼요?”

“하하! 잘 생각했어. 너희니까 특별히 싸게 해 줄게. 5골드만 줘.”

“네에? 5골드요?”

시로네는 눈을 똥그랗게 떴다. 고작 가이드를 고용하는데 5골드라니. 터무니없는 바가지였다. 섬의 물가는 모르지만 아무리 비싸도 1골드는 넘지 않을 듯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5골드만 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해 준다니까? 마차 빌려 와 주지, 숙식 잡아 주지, 관광지 구경시켜 주지. 이 정도면 싼 거야.”

에이미는 짜증이 났다. 시작부터 소란을 떨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보니 약점 하나 잡았다고 속옷까지 벗겨 먹으려는 속셈이었다.

어차피 저들은 제대로 가이드를 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설령 해 준다고 하더라도 5골드면 시세의 열 배는 뻥튀기한 금액이었다.

‘하아, 이래서 초장에 잘랐어야 하는데.’

에이미는 옛날 일을 떠올리며 후회했다. 어째서 잊고 있었을까? 이런 부류는 강하게 짓밟지 않으면 오히려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골드는 좀…….”

“여긴 관광지라고. 시세보다 비싼 건 당연하지.”

“음, 아무리 그래도…….”

“됐어. 그냥 줘 버리고 다른 데 가자.”

에이미는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저런 자들을 달고 다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한번 물러서면 약점을 빌미로 점점 더 큰돈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다.

“자, 여기 5골드. 줄 테니까 받고 꺼져.”

에이미는 지스의 발밑으로 금화를 뿌려 버렸다. 찬란한 황금빛 동전이 발밑을 통통 튀었다.

“우와! 금화다! 진짜 금화!”

지스의 친구들이 허겁지겁 땅에 떨어진 금화를 주웠다. 반면에 지스는 굳어 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돈을 뿌렸으면 친구들과 똑같이 돈을 주워 달아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그녀의 시선 앞에서 도무지 땅바닥을 기어 다닐 수가 없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거지냐?”

“언제는 달라며? 가이드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어?”

“저기, 잠시만. 일단 흥분은 하지 말고……”

시로네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했다. 바가지를 씌운 것은 화가 나지만 에이미 또한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다.

“시로네, 됐어. 덤비라고 그래. 제까짓 게 어쩔 거야? 이것들 그냥 사기꾼이야. 구경시켜 준다는 핑계로 돈을 더 뜯어낼걸. 갱생이 안 되는 인간쓰레기들이라고.”

지스의 친구들이 찔끔했다. 말 그대로 그런 장사였다.

시로네가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에이미, 그만해.”

“뭘 그만해? 받아 주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잖아? 차라리 여기서 본때를…….”

“그래도 그만해.”

에이미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시로네도 귀족이 아니었으니 조금 전의 광경을 보고 불편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들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말라 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을 터였다.

지스는 이를 악물고 분을 참았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 온 인생이었다. 아무리 귀족에게 모욕을 당해도 마음까지 꺾인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다.

“지, 지스. 그만 가자. 돈 받았잖아.”

“내놔.”

“응? 뭘?”

“금화 내놓으라고.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싶어? 섬의 사나이로서 자존심도 없냐고.”

지스는 친구들에게서 일일이 금화를 빼앗았다. 과연 묵직한 무게가 들고 있는 것만으로 설다.

하지만 그는 욕망을 억누르듯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싸늘한 눈으로 에이미를 돌아보았다.

“흥, 오만한 귀족들. 5골드를 턱턱 던지니까 진짜 부럽네. 그건 어떤 기분일까? 나는 상상조차 못 하겠지?”

지스는 보란 듯이 턱을 치켜들고 에이미의 발 앞에 금화를 뿌렸다. 동전들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주변을 굴러다녔다.

“아하? 이런 기분이구나? 끝내주네. 얘들아, 가자.”

지스는 친구들을 데리고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에이미는 놈들의 뻔뻔함에 기가 찼다. 하지만 이미 싸울 대상은 사라진 뒤였다.

“어휴, 저것들을 그냥. 시로네, 왜 말린 거야? 저런 놈들은 본때를 보여 줘야 해.”

“알고 있어. 하지만 정 싫다면 화를 내거나 거절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

“무슨 뜻이야? 내가 돈이 많다고 사람을 깔본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 상황처럼 되어 버렸잖아.”

“저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도 어릴 때 당해 봤잖아?”

시로네는 입술을 말아 물었다. 어쩌면 에이미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가 개차반이래도 그녀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은 보고 싶지 않았다.

“됐어. 가기나 해. 마차부터 잡자.”

시로네가 말이 없자 에이미는 먼저 몸을 돌려 걸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테스가 난감한 듯이 머리를 긁적였다.

“이런. 상황이 애매하게 됐네.”

\* \* \*

3번 도크의 골목길로 들어온 지스는 친구들과 티격태격했다. 배가 들어왔을 때 한몫 잡아야 하건만 이제는 손님도 다 빠져나가고 없었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곤 말다툼밖에 없었다.

“지스! 그 돈을 돌려주면 어떡해! 5골드면 며칠은 상납금을 안 내도 되는 돈이잖아.”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눈앞에서 돈을 팽개치는데 거지처럼 그 돈을 받으란 말이야?”

“그러면 좀 어때? 어차피 돈은 돈인데.”

“난 그렇게 못 해. 망할 계집애!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지스는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뭐가 기분 나쁘다는 것일까?

물론 보란 듯이 돈을 뿌려 버린 여자의 행동은 그들에게도 굉장한 굴욕이었지만 어차피 귀족들의 오만한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지스, 너 솔직히 말해 봐. 그 여자한테 반한 거지?”

“뭐야? 내가 그런 계집애를 왜 좋아하냐?”

“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잖아. 하지만 그 아이는 귀족이야. 어차피 이루어질 수도 없고, 5골드를 쉽게 내놓는 걸 보면 귀족 서열도 엄청 높을 거라고.”

“그래서 뭐? 제까짓 게 귀족이면 다야? 나는 지스야. 항구의 지배자가 될 몸이라고!”

그 순간 골목 으슥한 곳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구두 밑창에 박은 징이 땅과 충돌하면서 내는 특유의 소리에 지스는 머리털이 곤두섰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항구에서 이런 걸음 소리를 내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다.

“여어, 지스.”

중키의 중년 사내였다. 강파른 인상에 독사처럼 매서운 눈빛. 지스 패거리가 몸담고 있는 프리먼 조직의 행동대장 팔코아였다.

지스는 어깨를 떨었다. 팔코아는 잔인했다. 폭력을 즐기는 성향답게 맞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수가 틀리면 10명이든 100명이든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때렸다. 갈리앙트의 또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아, 팔코아 형님. 안녕하세요.”

팔코아는 질겅질겅 턱을 놀리며 지스에게 어깨동무를 했다. 역겨운 냄새가 지스의 코를 확 찔렀다. 약물중독자인 그는 루프를 한시도 입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내놔. 돈 받았지?”

“아, 그게…… 어, 없습니다.”

“없어?”

팔코아의 눈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다. 이대로는 사달을 치르리라는 생각에 지스의 친구들이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사, 살려 주세요! 저 애들이 우리 마차 안 탄다고 했어요! 끝까지 달라붙었는데 협박하는 바람에…….”

“그래? 그럼 아까 던진 건 뭐야? 그건 돈이 아니고 똥이야?”

지스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모르는 척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모양이었다.

독사의 송곳니에 물린 개구리의 기분이 이럴까? 공포감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하아, 요 깜찍한 것들을 어쩐다?”

## [127] 섬. 갈리앙트(4)

시로네 일행은 항구 밖에서 마차를 빌려 서쪽 휴양지로 갔다. 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해변은 멀리서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수많은 가게들이 즐비했고 산을 따라 숙박업소가 산촌 가옥처럼 지어져 있었다.

리안이 빌린 곳은 산의 중턱에 위치한 별장이었다. 귀족 전용의 건물답게 네 사람이 머물기에 충분한 부지였고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도 만족스러웠다.

시로네는 테라스에서 바다를 구경했다. 푸른 바다가 포말을 일으키며 백사장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한가로이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항구에서 있었던 불쾌한 시비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시로네 일행은 짐을 정리하고 벽난로에 불을 피웠다. 그런 다음 거실에 모여 잠시나마 여독을 풀었다.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가 될 때까지 간식 빼고는 먹은 게 없었기에 배가 고팠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하던 테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손바닥을 맞부딪쳤다.

“아하, 우리 차라리 해 먹을까?”

리안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어? 네가 요리도 할 줄 알아?”

“후후, 당연하지. 검사라고 요리도 못하는 줄 알았어?”

“난 또 뭐라고. 군대식 전투식량이면 사양이야.”

“이게 진짜 사람을 뭐로 보고! 나 제대로 요리할 줄 안다니까?”

리안은 그제야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선머슴 같은 그녀가 요리에 자신이 있다고 말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야말로 테스가 원하던 것이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리안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면 이번 여행은 대성공이었다.

“최고로 맛있는 요리를 해 줄 테니까 재료만 사 오면 돼. 어때?”

“흠, 그럴까? 사실 첫날부터 나가서 먹기는 좀 그렇지? 시로네 너는 어때?”

“나도 괜찮아. 원래 밖에 나와서 해 먹는 음식이 맛있잖아.”

에이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나도 할까, 요리?”

모두의 시선이 에이미에게 집중되었다. 물론 그녀는 테스와 다르기에 요리를 못할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깍쟁이 같은 성격의 그녀가 남자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들겠다고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테스는 여자의 후각으로 에이미의 심중을 간파했다.

‘정확히 말하면 시로네겠지? 후후, 보이는 거랑 다르게 되게 귀여운 성격이네?’

테스는 적극 찬성이었다. 이 기회에 두 사람이 화해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다.

“좋아. 요리 대결을 펼치자! 리안 대 시로네! 두 사람은 재료를 구해 오고 우리는 요리할 준비를 할게. 어때?”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고, 시로네와 리안은 여자들이 적어 준 재료 목록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남자들이 사라지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나란히 서서 식기를 씻던 테스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에이미를 돌아보며 물었다.

“처음이지?”

“응? 무슨 소리야?”

“딱 보면 알지. 시로네랑 처음 싸운 거잖아? 말다툼하면서도 당황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던데 뭐.”

에이미는 황급히 식기로 시선을 되돌렸다.

“싸운 거 아니야, 싸운 게 처음도 아니고, 사랑싸움은 더더욱 아니라고.”

마법사다운 3단 부정에 테스는 깔깔대며 웃었다.

마법사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 음흉하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귀엽다고 해야 할 듯싶었다.

“그래도 재료 목록은 꼼꼼하게 챙기던데? 호오, 이제 보니 간질간질 눈치 보는 중인가?”

에이미는 식기를 씻는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어차피 여자끼리였으니 못할 말은 아니었다. 결국 테스의 추궁에 항복해버린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시로네는…… 가끔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호오, 희미하다? 그거 참 시적이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한지 에이미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사실이야. 투명해진다고 해야 하나? 마치 눈앞에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아마도 시로네가 다른 사람과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야.”

“다른 시야? 설마 이상한 곳에 눈이 달린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잖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관점까지 시야를 확장시키기도 해. 보통 그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부르지.”

“흐음, 그렇게 따지면 나는 절대로 인격자는 아니네. 다른 사람의 생각 같은 건 당최 알 수가 없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시로네는 달라. 상냥하고 배려심도 깊지만 가장 큰 요인은 남들과 다른 시야라고 생각해.”

테스는 깨달았다는 듯 웃음살을 볼록였다.

“아하! 그러니까 요지는 그 양아치들을 두둔하고 에이미의 편을 안 들어 줬다는 거네. 그렇지? 맞지?”

에이미는 난처한 듯 뺨을 긁적였다.

“그야 뭐……. 하지만 단순히 착해 빠진 녀석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야. 하지만 시로네는 달라. 어떤 의미로는 인격자하고도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거든.”

“다른 시야? 그것 말고 무슨 시야가 더 있어?”

에이미는 검지를 들어 천장을 가리켰다.

“전지적인 시점이랄까?”

“전지적……?”

“응. 시로네가 전지적 시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시로네는 희미해져. 우리하고도 다르고 어떤 인간과도 달라져 버리지. 그것은 아마 자신의 존재마저도 한낱 점으로 보이는 극단적으로 높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야.”

에이미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시로네가 전교생을 살리기 위해 망설임 없이 이모탈 펑션을 개방했던 순간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살과는 차원이 달랐다.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것보다 수천 배나 힘든 일이었다.

“시로네가 투명해지면…… 자신과 타인의 경계선이 허물어지지. 자신조차 남들과 똑같은 1명의 인간에 불과해지는 거야. 그 시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봤을 때 시로네를 지배하는 건 뭘까? 나는 균형이라고 생각해. 저울의 한쪽이 조금이라도 기운다면 시로네는 망설임 없이 반대편에 올라탈 수 있을 거야. 설령 그 저울이 죽음일지라도.”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건 문자 그대로 선각자잖아?”

“하지만 사실이야. 왜냐면 내가 그 균형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거든. 아니, 마법학교의 학생들 모두가 시로네에게 목숨을 구원받았어.”

테스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1명의 학생이 전교생의 목숨을 구했다니. 대체 얼마나 더 놀라야 시로네에 대해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에이미의 얼굴에 쓸쓸한 감정이 스쳐지나갔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시로네가 나를 말렸을 때, 어쩌면 나 또한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시로네는 나와 달라. 아니, 누구하고도 다르지. 그렇기에 마법사로서 뛰어난 것이지만 가끔은 서운하기도 해.”

테스가 에이미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에이미, 그렇게 생각하지 마. 시로네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 그래서 커플 여행인 줄 알면서도 너에게 부탁을 한 것이잖아. 너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흔해 빠진 사람과는 달라. 언제까지나 카르미스 에이미라고.”

테스의 진심 어린 격려에 에이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변하는 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조차 냉정하게 내쳐 버리는 시로네에게 과연 타인의 존재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에이미, 차라리 시로네에게 말해 버려. 왜 내 편을 안 들어 줬냐고. 너무너무 서운하고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올 거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에이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시로네도 알고 있을 거야. 내 말에 반박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을 했기 때문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 조만간 풀릴 테니까. 그냥 네 말대로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래.”

직설적인 성격의 테스는 답답했다. 일단 감정이 상했으면 당사자를 불러 놓고 끝장을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에이미는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는 것으로 끝을 맺어 버렸다.

“후우, 마법사들의 사고방식은 도무지 모르겠어.”

\* \* \*

시로네와 리안은 잡화점 골목에 도착했다. 각자의 종이에 적힌 재료 목록이 달랐기에 미로처럼 뻗어 있는 상가를 전부 돌아보다가는 저녁때를 놓칠 것 같았다.

시로네는 따로 움직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헤어지자. 물건을 사고 별장으로 돌아가면 될 거 같아.”

“그럴까? 하지만 혼자서 들 수 있겠어? 무거울 텐데.”

시로네는 황당한 표정으로 리안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힘이 없기로서니 마늘 양파 후추도 못 들까? 기사 서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장바구니까지 걱정해 주는 건 사양이었다.

“됐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나 길 잃어버리지 마. 요리 대결인 거 알지? 지는 사람이 설거지하는 거야.”

“좋아! 에이미랑 사이좋게 설거지하게 해 주지. 제발 지기를 바라는 게 좋을 거다. 에이미랑 화해하고 싶으면 말이야.”

“화해는 무슨. 싸운 것도 아닌데.”

“응? 항구에서 싸운 거 아냐? 그래서 지금은 서로 어색해하는 상황이잖아?”

“에이미는 그렇게 속 좁지 않아.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이야. 서로의 주장을 교환하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하! 바보야, 그걸 싸웠다고 하는 거야.”

시로네는 말을 말아 버렸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리안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자괴감이 들었다.

“아무튼 됐어. 나는 일단 채소부터 사러 갈 테니까, 별장에서 봐.”

“그럼 나는 고기부터 끊어야겠다. 먼저 간다!”

시로네는 정육점을 향해 돌진하는 리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달려가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많은 고기를 끊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시로네는 에이미가 적어 준 쪽지를 확인했다. 무슨 요리인지는 모르지만 딱히 구하기 힘든 재료는 없었다.

하지만 재료의 가짓수는 리안보다 많았기에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시로네는 30분 정도를 돌아다니며 대부분의 재료를 사들였다. 그러면서 관광도 겸했는데, 휴양지여서 그런지 가게들도 이색적이고 신기한 게 많았다.

상품을 내걸고 게임을 하는 자판이 흥행했고 각종 공연이나 거리 행진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하나의 상업 지구가 이 정도로 유흥에 치중하려면 가히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이 쉬지 않고 들어와야 했다.

말마따나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 났고 대륙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운 웃음소리가 남국의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와, 재밌는 가게들이 많구나. 내일은 여기서 놀아야겠다.’

장을 끝마친 시로네는 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눈앞의 상점에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성이 떠밀리듯 바닥에 쓰러졌다.

“꺄응!”

“꺄응?”

이상한 비명 소리에 시로네의 고개가 기울어졌다.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가까이 다가갔다.

이십 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단발머리였고 눈썹을 따라 앞머리를 일자로 냈는데 어여쁜 얼굴 덕분에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다.

“왜,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는 두 팔로 가슴께를 가렸다. 술집 여성처럼 가슴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눈썹도 가늘고 눈매도 날카로웠지만 거구의 남자를 앞에 두고 있는 표정은 초식동물처럼 순해 보였다.

“크크크, 이거 왜 이래? 같이 놀자는데.”

“저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관광지에서 그렇게 입고 돌아다닌다면 물어보나 마나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니까?”

여자를 겁박하는 인물은 가모스라는 남자로 갈리앙트 섬에서 유명한 재력가였다.

엄청난 거구였는데 다만 근육과는 거리가 멀어서 비계로 이루어졌고 특히나 복부 비만이 심각했다.

하지만 돈의 힘은 무시무시한 모양인지 좌우에는 기골이 장대한 경호원을 대동하고 있었다.

“좋게 말할 때 따라와. 솔직히 너도 뺄 입장은 아니잖아?”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가모스가 여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려가는 와중에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관광객들은 타지에서 위험한 일에 엮이기 싫어한다. 또한 현지인들은 가모스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 [128] 섬. 갈리앙트(5)

“이봐요! 그만두세요!”

시로네가 한 걸음을 내디디며 소리쳤다.

가모스는 황당한 표정으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어떤 주제도 모르는 놈이 튀어나왔나 했더니 아직 스물도 안 된 소년인 데다가 양손에는 장바구니까지 들고 있었다.

“뭐야, 넌? 어린노무 자식이 어디서 까불어?”

“그 여자분 풀어 주세요. 사람들도 다 보고 있고 금방 경비가 올 거예요.”

“푸하하하! 경비? 너 내가 누군 줄이나 알아?”

“누군 줄 알면 뭐가 달라져요?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직접 가서 경비들을 불러오겠어요.”

“흐음…….”

가모스가 손에 힘을 풀자 황급히 빠져나온 여자는 시로네의 등 뒤로 숨었다. 한낱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기댈 사람이라고는 수많은 인파 중에서 시로네밖에 없었다.

“살려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가모스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별 거지 같은 게 사람을 짜증 나게 하는군. 어이, 꼬마야, 나는 이곳 갈리앙트 섬의 무역상이다. 저 여자는 내 물건을 훔쳤단다. 그것도 고급 도자기를 훔치려다가 깨트려 먹었다고.”

“네? 도자기요?”

시로네는 눈을 깜박거렸다. 만약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뒤에 서 있는 여자는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몸으로 보상을 받으려 했다는 것인데, 잘잘못이야 가리면 그만이지만 딱히 누군가를 편들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그래. 물론 그걸 빌미로 몸을 요구하긴 했지. 하지만 물건을 파손시켰으니 어떤 식으로든 변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 경비를 불러 봤자 잡혀가는 건 저 여자라고.”

시로네가 뒤를 돌아보자 눈이 마주친 여자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인가요?”

“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 도자기가 꼭 필요했어요. 정말이라고요.”

“하하하! 도자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세상에 없단다. 필요하다면 돈이겠지. 나는 돈을 벌게 해 주려던 것뿐이야. 이제 알겠지, 꼬마야? 저런 여자하고는 얽히지 않는 게 좋다. 물론 하룻밤 상대를 찾는 중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경하던 사람들이 가모스를 따라 폭소를 터뜨렸다. 딱히 웃음이 나올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요소로 중첩되어 있던 긴장감이 한 번에 풀린 탓이었다.

“친구들이랑 놀러 온 모양인데 맛있는 요리나 해 먹으렴. 어른들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다가는 이런 꼴을 당한단다.”

여자가 시로네의 팔을 흔들며 사정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면 저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차라리 자수를 하는 건 어때요? 경비에게 말하면 해결될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저 인간은 이 섬을 꽉 잡고 있다고요. 제발 저를 믿어 주세요.”

“도자기값이 얼마죠?”

“가격은 잘 모르지만, 아마 50실버 정도 할 거예요.”

시로네는 생각에 잠겼다. 여자를 위해 50실버를 내놓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배상을 해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누군가의 죄를 심판할 권리가 없듯이, 누군가의 죄를 사면해 줄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다.

시로네는 결정을 내리고 가모스에게 다가갔다.

“도자기값은 제가 대신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니 여자분은 풀어 주세요.”

가모스가 의외라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물론 50실버라면 귀족에게 큰돈은 아니다. 하지만 갈리앙트에서 막강한 위치인 자신과 대립하면서까지 여자를 지키려는 속내는 무엇일까?

“오호라, 이제 보니 네가 차지할 생각이로구나? 하긴 너 같은 애송이가 어디서 저런 미녀를 50실버에 구하겠어?”

시로네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호색한으로 취급하는 가모스의 말에 기분이 불쾌했다.

“그런 생각 없어요.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줄 알아요?”

“그렇다면 왜 나서는 거냐? 저 여자는 도둑질을 했다. 경비에게 넘겨 버리면 그만이야.”

“이 여자분이 무슨 짓을 저질렀든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50실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은 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여자분에게 무언가를 더 하려는 속셈이라면 이 돈을 받고 끝내 주세요.”

시로네의 말을 들은 여자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빛냈다. 반면에 가모스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50실버 내는데 무슨 생각이 이리도 복잡하단 말인가?

“여기, 50실버에요. 이제 여자를 용서해 주시죠.”

가모스는 시로네의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는 은화를 빤히 바라보았다.

솔직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놓치기 아까운 여자이기도 했거니와 시로네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가 미녀에게 혹해서 눈이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변상은 필요 없다. 어차피 넘치고 넘치는 게 돈이니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 뭔데요?”

“네가 여자를 위해 희생하는 멋진 사나이라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저 여자를 대신해서 나에게 사과를 할 수도 있겠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고개를 숙이란 말이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이목이 시로네에게 집중되었다. 타인을 위해 굴욕을 감수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시로네는 선뜻 걸어 나갔다.

“알았어요. 그걸로 용서해 주신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고개를 숙여.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올리란 말이야.”

시로네는 깊숙이 허리를 구부렸다.

“이 여자분이 도자기를 훔친 것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흐음.”

남자는 거만하게 눈을 내리깔며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니 한 걸음을 내디디며 어퍼컷을 휘둘렀다.

시로네는 눈앞에서 솟구치는 주먹을 보고 반사적으로 물러섰다. 거구의 손등이 바람 소리를 일으키며 코앞을 스쳐 지나갔다.

“무, 무슨 짓이에요?”

가모스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시로네를 가리켰다.

“보아라. 피했잖느냐? 넌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게 아니야. 네가 주먹을 맞았다면 저 여자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는 피했다. 맞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야. 이제 알겠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봐. 너는 그저 착한 척 흉내를 내고 있는 것뿐이야.”

사람들은 가모스의 말에 수긍했다. 정말로 여자를 구할 생각이었다면 눈을 질끈 감고 얻어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피했다. 결국 가식을 떨었다는 얘기였다.

여기저기에서 경멸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그럼 그렇지. 온갖 폼은 다 잡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나는 또 무슨 대단한 성자라도 납신 줄 알았지 뭐야?”

“하여튼 요즘 애들은 너무 나댄다니까. 저러면 자기가 엄청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아요.”

시로네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피한 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아직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다 너에게 실망하고 있어. 언제는 대단한 정의의 사도처럼 굴더니 전부 가식이었다는 거잖아!”

시로네의 얼굴이 황당하게 변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는 설령 가식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뭐? 그건…….”

가모스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조롱의 말을 퍼부었던 사람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물러서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여자는 확신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다.

‘내 짐작이 맞았어. 이 아이…… 마법사다.’

마법사는 ‘누가 정답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들이 따지는 건 ‘무엇이 정답인가?’였다.

이 소년은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는다. 사실을 인정하고 정답을 추론하는 방식은 마법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체계였다.

여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사람들에게 조소를 날렸다.

‘흥, 누구 하나 도와줄 생각도 안 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것들, 그래서 너희가 안되는 거야.’

어쨌거나 이제는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시로네와 가모스에게 집중되어 있는 틈에 빠져나가는 게 최선이었다.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인 여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한편 가모스의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다. 등장부터 지금까지 사사건건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소년은 이제 자신의 인생관까지 모독하고 있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꼬마야, 넌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 같다.”

가모스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인의 탈을 벗은 본래의 목소리였다. 그러자 눈치 빠른 경호원들이 허리에 차고 있던 진검을 뽑아 들었다.

살기는 관념에 불과하지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예리하게 벼린 장검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죽음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뭘 보고만 있어? 빨리 가서 흠씬 두들겨 패 버려!”

가모스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좌우에서 달려들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여차하면 베어 버릴 태세였다.

그 순간 경호원의 눈에 팍 하고 흙먼지가 튀었다. 이어서 또 다른 돌멩이가 날아와 다른 경호원의 이마를 강타했다.

시로네는 돌이 날아온 지점을 돌아보았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에 조금 전의 여자가 한 무더기의 돌멩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그녀는 연거푸 돌팔매질을 퍼부었다. 그러다가 경호원들이 주춤 물러서자 시로네의 손목을 붙잡고 골목길을 내달렸다.

“도망치자! 이쪽으로 따라와!”

“어? 저기…….”

시로네는 여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모르는 체했던 건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본 가모스는 여자의 죗값보다도 훨씬 가혹한 일을 치르게 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돌아온 거예요?”

“빨리! 저것들하고 얽히면 골치 아파진단 말이야!”

두 사람은 미로처럼 뻗은 골목길을 내달렸다. 여자가 복잡한 길을 꿰뚫고 있는 덕분에 두 사람의 모습은 경호원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시장 쪽에서 가모스의 목소리가 넘어왔다.

“전부 쫓아가서 잡아! 아주 요절을 내 버리겠어!”

\* \* \*

창고는 폭력의 열기로 후끈후끈했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리고 있는 지스의 옆구리로 팔코아의 발길질이 사정없이 내리꽂혔다.

맞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공포에 질려서 어디를 맞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자극과 비자극만이 느낄 수 있는 전부였다.

“버러지 같은 자식. 맞으니까 기분 좋지? 응? 기분 좋을 거야. 그러니까 더 맞아라.”

지스의 친구들은 창고의 구석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지만 눈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나가서 벌어 올게요! 이러다가 진짜로 죽겠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너희가 맞을래?”

친구들의 몸이 굳었다. 짝눈을 살벌하게 뜨고 있는 팔코아의 얼굴이 악귀처럼 보였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지스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팔코아는 일부러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더욱 두려웠다.

지스의 머리채를 붙잡은 팔코아가 힘껏 들어 올렸다. 힘이 풀린 상태에서도 지스는 벌떡 일어섰다.

머리를 맞은 것도 아니건만 눈동자가 풀려 있었다. 정신적 충격만으로 뇌가 마비된 기분이었다.

“사, 살려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프냐? 아파? 말해 봐. 아파? 아파?”

팔코아는 지스의 뺨을 연거푸 때렸다. 딱히 힘이 들어간 공격이 아닌데도 지스는 얻어맞을 때마다 경련을 일으켰다.

친구들이 그 모습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으아, 저 미친 자식. 이러다가 진짜 사람 잡겠네.’

팔코아는 지스를 땅바닥에 패대기쳤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굳이 따지자면 입에 넣은 루프의 약효가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랄까?

“자존심이 상해서 5골드를 돌려줬다고? 잘났군. 정말 잘났어, 지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스는 억울했다.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나 무서웠다. 팔코아의 광기 앞에서 자존심은 무용지물이었다.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 [129] 섬. 갈리앙트(6)

“5골드를 잃었단 말이야. 줬던 걸 도로 가져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지. 그 여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야.”

팔코아는 지스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턱이 들린 지스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젖혀 버리면 척추가 끊어질 수도 있었다.

“아프냐? 아플 거야. 나 힘 엄청 세거든.”

“살려…… 주세요.”

“내가 안 아프게 해 줄까? 이걸 씹어 봐. 그럼 하나도 안 아플 테니까.”

지스는 힘든 와중에도 시선을 돌렸다. 팔코아의 손에 나무뿌리가 들려 있었다.

섬에서 나고 자란 그는 알고 있었다. 원주민들의 각성제인 루프였다. 접신을 하기 위해 쓰이던 약물인 만큼 중독성은 여타의 마약과 비할 바가 아니었다. 케르고인도 루프의 과다 사용으로 멸망했다는 설이 있지 않던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은…….”

지스는 간절히 애원했다. 일단 루프에 중독되어 버리면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 했다.

시궁창 인생을 전전할 것이고,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도 결국에는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팔코아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지스에게 건넨 루프를 자신의 입에 넣었다.

중독성이 어쨌다는 것인가? 루프 없이 못 산다면 평생 애용하고 살면 그만인 것이다.

“천하의 겁쟁이로구먼. 이건 신의 각성제라고. 아무튼 이제 어떡할 거야? 데려올래?”

“네? 데려오라니요? 누구를요?”

“그 빨간 머리 계집애 말이야. 삼삼하던데. 아마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크크. 물론 중고가로 내놓아야겠지만.”

지스는 경악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귀족을 인신매매하겠다니. 하지만 루프에 중독된 팔코아의 정신 상태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팔코아는 프리먼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 하바리에 불과한 지스가 접선할 수 있는 최고위의 인물이기도 했다.

대장인 프리먼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가 내린 강령 중에는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 하지만 그런 짓을 했다가는 조직에서 쫓겨납니다. 행동강령에…… 아욱!”

징이 박힌 구두가 지스의 턱을 돌렸다. 정신이 핑 하고 돌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팔코아는 지스의 머리를 붙잡고 들어 올렸다.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스의 초점이 돌아왔다.

“아니면 어떡할래? 네 여동생 데려올래?”

“그, 그건…….”

지스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맛을 짐작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여동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에게만큼은 이런 더러운 세계를 보여 주고 싶지 않았다.

“아, 말 안 했던가? 사실은 내가 네 여동생 좋아하거든. 이번 기회에 소개 좀 시켜 주라?”

루프를 씹고 있는 팔코아의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

\* \* \*

시로네와 여자는 30분 동안 골목을 달린 끝에 가모스의 경호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단련한 자들답게 속도가 빨랐으나 사각을 이용한 심리전으로 뺑뺑이를 돌린 게 주효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얼마나 달렸는지 입에서 피 맛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여자는 헐떡이는 시로네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흘렸다.

“후후, 의외로 체력이 좋네? 곱상하게 생겨서 뛰다 포기할 줄 알았더니.”

“포기하면 잡히잖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저기…… 괜찮아요?”

“난 마르샤야. 도망치는 일에는 이골이 나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어디 들어가서 쉬자. 목이 말라서 맥주라도 마셔야겠어. 답례로 한잔 살게.”

시로네는 의아했다. 쫓기는 처지임에도 마르샤는 긴장하는 기색이 없었다.

게다가 맥주를 마시자는 건 돈이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도둑질은 왜 한 것일까?

“아, 저는 그만 가 봐야 할 거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은 돌아다닐 수 없어. 내가 아는 가게에서 기다리자. 가모스는 포악하지만 멍청해서 금방 잊거든. 1시간만 버티면 노는 데 정신 팔려서 추격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무서워서 그래. 잠시만 옆에 있어 주면 안 될까?”

마르샤가 혀를 빼물고 눈을 찡긋했다. 앙증맞은 외모에 홀린 것은 아니지만 시로네는 결국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무엇보다 지금 가모스에게 붙잡히면 일이 돌이킬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알았어요. 하지만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래 머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 가모스의 부하들이 포기할 때까지만 기다리자. 이쪽으로 와.”

마르샤는 골목을 돌고 돌아 으슥한 술집으로 시로네를 안내했다. 누가 이런 곳까지 찾아와 술을 마실까 싶었지만 의외로 사람들로 북적였다.

“흐음, 여기는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를 않네.”

“자주 다니던 곳 아니었나요? 아까 아는 술집이라고…….”

“아, 예전에는 자주 왔지. 갈리앙트 섬은 3년 만이야. 이곳에 친구가 살고 있거든.”

“그랬군요. 길을 너무 잘 알아서 현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후후, 한번 본 길은 절대 잊지 않지. 도망은 내 삶의 일부걸랑.”

마르샤가 시로네를 데리고 바에 앉자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일제히 돌아보았다. 아름다운 여성과 어린 소년의 조화가 이질적인 탓이었다.

“사람들이 쳐다보네요.”

“신경 쓰지 마. 여기는 섬의 문제아들만 오는 술집이거든.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이곳으로 정보가 접수되니까, 가모스가 언제 포기하는지도 알 수 있어.”

“그러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부하들이 이곳으로 들이닥칠 수도 있잖아요.”

“가모스는 섬을 지배하는 사람이지 사고뭉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곳은…… 일종의 레지스탕스 같은 거야. 운명 공동체라고나 할까?”

시로네는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면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시스템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가능한 경우라면 협약이나 규율. 하지만 어째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시로네가 빤히 바라보자 마르샤는 난처한 듯 눈웃음을 지었다.

“어휴, 정말 못 당하겠다. 그래, 맞아. 여기 술집은 갈리앙트 자치 정부와 결탁하고 있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설령 관리라도 눈감아 주게 되어 있다고.”

“역시 그랬군요. 하지만 정부가 어째서 그런 짓을 하죠?”

“돈이지. 자금 세탁, 비자금 조성, 로비 자금 유통 등. 아일랜드 게이트라고 부르는 게 이런 거야. 폐쇄적인 섬의 특성이 만들어 낸 체제라고 할까? 협의가 있었어. 음지에서 자금을 유통해 주는 대가로 범죄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지. 상부상조. 뭐,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아니겠어? 히히!”

마르샤는 입에 문 나뭇개비를 까닥거렸다. 갈매기처럼 구부러진 그녀의 눈웃음이 어딘가 모르게 서글퍼 보였다.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이지 뭐야? 범죄자를 처단하자고 말들은 많지만 결국 그들의 배를 불려 주는 건 범죄자거든. 삼킬 수 없을 만큼 큰돈을 잘게 부수어서 소화시키기 쉽게 해 주는 거지. 사회의 미생물 같은 존재랄까? 미생물이 없으면 생물은 죽어.”

시로네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18살 소년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채로웠다.

“너무 심각한 얘기만 했네. 시로네라고 했지? 섬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해수욕도 하고, 유적지도 구경하고 싶어서요.”

“케르고 유적지? 예전에 가 본 적이 있지. 아아, 그때는 젊었는데 벌써 스물일곱 살이야. 이러다가 노처녀로 늙어 죽을지도 몰라. 너는 몇 살이야?”

“18살요.”

“어머, 생각보다 많네? 너 되게 동안이구나.”

“누나도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데요. 아,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 다 누나에서 시작하는 거지. 나중에 애인이 되면 아무렇게나 불러도 좋아, 호호호!”

시로네는 어처구니없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18살 소년에게 27살의 여성은 넘볼 수 없는 어른이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마르샤는 예상보다 훨씬 지적이고 합리적인 여성이었다.

대화는 즐거웠고, 경계심이 풀어진 시로네는 항구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짐작이 가는 바가 있는지 마르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길바닥 호객꾼에게 걸렸구나. 악질이긴 하지. 그래도 5골드는 좀 심했다.”

“네. 결국에는 친구랑 의견 충돌이 벌어져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돌아가면 혼나겠네요.”

마르샤는 시간을 확인하더니 바텐더에게 물었다.

“가모스 건은 어떻게 됐어?”

바텐더가 못 들은 사람처럼 컵만 닦자 마르샤는 은화 한 닢을 놓았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텐더의 입이 열렸다.

“10분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쫙 퍼졌다고 하더군. 아마 40명 정도가 길목을 전부 틀어막고 있을 거야.”

“으, 아직도? 그 인간 참 끈질기네.”

“원래 가모스 경보는 금방 꺼져. 오늘따라 뚜껑이 열렸나 보지.”

마르샤가 시로네를 돌아보며 배시시 웃었다. 시로네 또한 할 말이 있을 턱이 없었다. 가모스의 머리 뚜껑을 날려 버린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

마르샤는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아무튼 길바닥 호객꾼은 적당히 상대하고 피하는 게 좋아. 나름대로 조직에 속해 있는 애들이거든. 일단 얽히기 시작하면 뒷감당이 힘들어져.”

“그렇군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어요.”

“후후, 알 필요가 있나? 어차피 놀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 하지만 관광객들의 즐거움 속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섬은 좁고 폐쇄적이야. 제한된 재화를 나누려면 내륙보다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로네는 머릿속에 새겨들었다. 열흘 동안 섬에 체류할 생각이었으니 당분간 수많은 호객꾼을 만날 터였다.

마르샤의 조언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처럼 대했다가는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다분했다.

시로네는 문득 깨닫고 마르샤를 바라보았다.

대화를 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다정하고 위트가 넘쳤으며 상대의 말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신중함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왜 좀도둑질을 하는 것일까? 바텐더에게 선뜻 팁을 던지는 걸 보면 돈도 부족하지 않은 듯했다.

“저기,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싶지만 너무 궁금해서요.”

마르샤는 의자를 젖히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후우, 언제 물어보나 긴장했네. 하지만 시로네. 여자의 스리 사이즈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아뇨! 그게 아니라요! 왜 도자기를 훔친 거예요?”

“응?”

“좀도둑질을 할 분은 아닌 거 같아서요. 그리고 돈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잖아요. 딱히 유용한 물건도 아니고 도자기를 왜 훔쳤는지…….”

“흐음.”

마르샤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 그냥 훔치고 싶어졌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지. 도벽이라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난 고아였거든. 네 살 때 부모가 나를 버렸어. 용병단의 남자가 주워다 키웠는데, 그 사람이 내 양부가 됐지.”

예상치도 못한 말에 시로네는 가슴이 떨렸다. 마르샤 또한 자신처럼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 용병단은 이상한 놈들로 우글거리는 곳이거든. 내가 열한 살 때였던가, 용병단에서 포악하기로 유명한 놈이 나에게 손을 대려고 했어. 다행히 양부가 먼저 발견해서 두들겨 패 버렸지만.”

“당연하죠. 딸이 그런 일을 당할 뻔했는데.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후후, 과연 그럴까?

“네?”

마르샤는 슬픈 눈으로 바를 내려다보았다. 왠지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진 느낌이었다.

“날마다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을 받았지. 양부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옷도, 과자도, 장난감도. 결국 나를 사육했던 거야. 그때부터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했어. 어느 날은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혔는데 순순히 변상을 하더라고.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돌변해서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기절할 때까지.”

“너무하네요. 변상을 할 능력이 된다면 처음부터 사 줬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누나는 왜 사 달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양부가 바라는 게 그거였으니까. 자신에 대한 굴종. 내가 할 수 있는 저항이라고는 날마다 물건을 훔치는 것뿐이었어. 물론 걸린 날은 죽도록 얻어맞았고. 끔찍한 일상이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전부 포기해 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양부에게 이렇게 말해 버렸어.”

마르샤는 당시를 회상하듯 턱을 받쳤다.

“날 죽여도 좋아.”

## [130] 섬. 갈리앙트(7)

시로네는 가슴이 먹먹했다. 얼마나 폭행을 당했으면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그 말은 일종의 주문이 되었지. 양부가 때릴 때마다 이렇게 말했거든. 날 죽여도 좋아. 그러면 양부는 화난 표정으로 때리는 걸 멈추고 나가 버렸어. 후후, 그냥 그렇게 살았어. 열두 살 때도, 열세 살 때도, 내가 집을 나온 열일곱 살 때까지.”

“지금의 저랑 비슷한 나이네요.”

“그래, 세상에 눈을 뜰 만한 나이지.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깨달아 버린 거야, 양부가 여태까지 나에게 저질렀던 행동의 의미를.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렇기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겠지.”

시로네도 이제는 짐작할 수 있었다. 마르샤의 양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생각을 한 것이었다.

“바보같이. 하고 싶으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저질러 버리지. 그랬으면 17년 동안 지저분하게 얽히지도 않았을 거 아냐.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심한 겁쟁이였던 거야. 그때부터 나는 품속에 칼을 숨기고 다녔어. 어느 날 나를 때리는 양부의 눈을 봤어. 어휴, 불쌍해서 못 봐주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해 버린 거야.”

마르샤는 절제된 감정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날 안아도 좋아.”

“……양부는 그렇게 했나요?”

“후후,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기에는 반전이 없더라. 그 인간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덮쳤고, 나는 칼로 목을 찔렀어. 솔직히 아무런 느낌도 안 들더라고. 그런 다음 집을 나왔고 이리저리 세상을 전전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 온 거야.”

시로네는 가슴이 먹먹했다. 책으로만, 또는 소문으로만 접했던 이야기를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듣자 알 수 없는 울분이 차올랐다.

“음, 저기,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괜찮아! 지금은 먹고살 만해졌거든. 양부는 죽었지만 도벽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 이것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어휴.”

마르샤가 해맑게 웃자 시로네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잊을 수 없는 고통이라면 끌어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누나는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이겨 내고 있는 거잖아요. 도벽도 금방 없어질 거예요.”

“고마워, 이해해 줘서. 만약 오늘 밤에 날 어떻게 해 볼 생각이었다면 제대로 먹혔어.”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알아. 괜히 얼굴 붉히기는. 너 같은 남동생 하나 있으면 심심하지는 않겠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마르샤 누나가 정말로 친누나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히히! 그래, 고마워.”

시로네는 진심이었다. 일전에 리안과 레이나의 사이를 보면서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누나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기분일까? 그녀의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시로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 사이 방에 들어갔던 바텐더가 나왔다.

세부적인 구조는 모르지만 그가 나온 방에서 온갖 정보가 수집되는 듯했다.

“가모스 경보 해제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았는지 저택으로 돌아가 파티를 연다는군.”

“휴우,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마르샤가 샐쭉한 눈으로 시로네를 흘겨보았다.

“흥, 나랑 있기가 그렇게 싫었나 보지? 조금 전만 해도 애기 같은 목소리로 마르샤 누나, 제발 저의 친누나가 되어 주세용, 이랬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시로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자에 익숙하지 않은 그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배를 부여잡고 기다리는 별장의 식솔들을 위해서라도 이만 자리를 떠야 했다.

“저는 돌아가야 할 거 같은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설마 바다 한가운데서 도망이라도 칠까 봐? 심심하면 놀러 와. 나는 이곳에서 지낼 생각이니까.”

“하하! 네, 그럼 가 볼게요.”

시로네가 부리나케 술집을 나서자 마르샤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독한 술을 주문했다.

예상했던 대로 여태까지 기회를 엿보던 2명의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다.

“새끈하구먼. 당신에게 취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술값이 더 나왔지 뭐야.”

“방을 잡는다고? 여기는 여자 혼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야. 어때, 같이 들어가 줄까?”

마르샤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꺼져. 죽여 버리기 전에.”

“뭐야? 너 말 다 했어? 오늘 제대로 한번 당해 볼래?”

남자가 테이블에 올라온 술병을 거꾸로 쳐들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사람들이 바를 돌아보았다.

시선이 집중되자 마르샤는 들리지 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간드러진 웃음소리를 냈다.

“호호호! 좋아, 방으로 가지 뭐. 그런데 고작 2명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 친구들 있으면 더 데려오지 그래?”

“뭐, 뭐야?”

“데려와. 10명? 아니, 20명도 상관없지. 밤이 새도록 놀아 줄 테니까 데려와 보라고. 난 중간에 끊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남자들은 이유조차 모른 채 불쾌해졌다. 하지만 마르샤는 알고 있었다. 번식 경쟁이 강화될 때 수컷은 본래의 나약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뭐, 뭐야, 젠장. 미친 여잔가 봐. 가자고.”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마르샤는 멀어지는 남자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몸을 돌렸다.

어느새 주문했던 술이 올라와 있었다. 한 번에 넘기자 목구멍에서 불이 훅 솟구치면서 정신이 뜨거워졌다.

“후우, 역시 이래야 술이지. 바텐더, 한 잔 더.”

바텐더는 새 잔을 내놓는 대신 직접 다가와 마르샤의 잔에 따랐다.

“……그 마르샤인가?”

“후후, 그럼 다른 마르샤도 있나?”

“마법협회에서 수배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잘도 피해 다녔군. 아예 들어온 건가?”

“아니. 금방 갈 거야. 정리하려고 잠깐 온 것뿐이야.”

“가급적 조용히 진행해 줬으면 좋겠군. 너 정도의 거물이 소란을 부리면 섬이 어지러워져. 우리는 협약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 협력한다고 약조하면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게 해 주지.”

“됐어. 처음부터 여기서 잘 생각도 없었거든.”

바텐더는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맥주잔을 닦았다. 한참이나 침묵을 지키던 그가 무심히 말을 던졌다.

“소년이 서운해하겠군.”

“후후. 괜찮아. 원래 그 나이에는 실연도 당하고 그러는 거야.”

“마음에 들어 하는 줄 알았는데?”

“재밌기는 했지. 하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위험했어.”

마르샤는 어깨를 끌어안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쩜 그렇게 역겨운 인간이 있을 수 있지?”

우선하는 것(1)

별장은 마치 사람이 없는 듯 조용했다.

에이미는 벽난로 옆의 소파에 앉아 있었고 리안과 테스는 그녀의 눈치를 보느라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시로네가 오지 않고 있었다. 장을 보러 간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으니 바다에서 생선을 꺼내 오는 게 아닌 이상 이미 돌아왔어야 할 시간이었다.

“시, 시로네가 늦네?”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일 겸 말을 꺼낸 테스는 화들짝 놀랐다. 평소보다 자신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에이미는 미동조차 없이 어둠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으, 완전 살얼음판이네.’

테스는 으슬으슬 몸을 떨었다. 실제로 한기가 느껴질 만큼 에이미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물론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커플 여행이라는 의미를 떠나서라도 두 사람에게는 설레는 첫 휴가가 아니던가?

‘시로네, 너무 무심했어. 이번 일은 나도 실망이야. 쳇!’

가재는 게 편이라고, 테스는 에이미의 편을 들었다.

여자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에이미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시로네에게 양보했는지.

항구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선뜻 요리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남자들은 그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겠지만 여자가 보기에는 ‘너와 빨리 화해하고 싶어.’라는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행동이었다.

그런데 시로네가 리안보다 1시간이나 늦고 있었다. 길을 잃었다면 그럴 수도 있기에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에이미는 그런 사소한 부분마저 책임감 있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아우, 배고파.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나가서 찾아볼까?”

리안이 눈치 없게 배를 붙잡고 중얼거렸다. 하기야 하루에 몇 끼를 정해 놓고 먹는 애가 아니니 1시간의 유예라면 오래 참은 편이었다.

“됐어. 그러다가 괜히 엇갈려.”

“그래? 그럼 내가 사 온 감자 먹어도 돼?”

테스가 도끼눈을 치켜뜨며 소리쳤다.

“넌 왜 그렇게 속이 없니? 에이미 생각 좀 해.”

“뭐가 그렇게 심각해? 시로네는 나보다 살 게 더 많았다고.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뭐.”

테스는 울컥했다. 시로네가 자신의 파트너는 아니지만 이미 에이미와 공명한 그녀는 리안마저 미워 보였다.

“시로네가 살 게 많아도 너보다 똑똑하니까 더 빨리 와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너는 구석에서 감자를 퍼먹든 파를 씹어 먹든 알아서 해.”

“왜 그렇게 성질이 나 있어? 내가 뭐 어쨌다고.”

리안은 곰처럼 머리를 긁적였다. 자신을 욕하는 소리에도 무신경해 버리니 딱히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에이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분위기를 망쳐서 미안했는지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냥 너희들부터 요리해서 먹어. 나는 시로네가 오면 같이 먹을게.”

“그럴 수야 없지. 요리 대결이었잖아.”

“하지만 리안이 배고프잖아. 어차피 시로네가 늦은 탓이야. 우리가 진 걸로 하지 뭐.”

테스가 울먹이는 표정으로 에이미를 달랬다.

“괜찮아, 에이미. 사실 나는 배 하나도 안 고파. 저 식충이만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리안은 구석에서 진짜로 생감자를 씹고 있었다. 스키마도 못 하면서 완력은 그에 준하는 남자였다.

무지막지한 근력을 유지하려면 칼로리 소모량이 정상인보다 몇 배는 높을 것이니 어찌 보면 딱하기도 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침묵이 이어지자 에이미는 의자에 발을 올리고 뺨을 무릎에 기댔다.

‘왜 안 오지? 정말 무슨 일이 있나?’

약속을 안 지킬 아이가 아니다. 그렇다고 실수를 저질러 시간을 지체할 만큼 어리석은 머리도 아니었다.

아마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네가 나를 데려왔잖아. 너 말고는 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인데.’

쓸쓸했다. 친해지기는 했지만 리안과 테스는 파트너로서 교감이 통하는 관계였다. 그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에이미에게 없었다.

쿵쿵. 쿵쿵.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테스의 얼굴이 밝아지고 리안도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움켜쥐었다.

“시로네야? 잠깐 기다……!”

테스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에이미가 문으로 걸어갔다. 눈을 치켜올린 그녀가 성질대로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야! 너 도대체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야…… 응?”

에이미는 문을 열어젖힌 채로 눈만 깜박거렸다.

시로네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다. 확실한 건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항구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지스가 서 있었다.

“뭐야? 네가 여기를 왜 찾아와?”

지스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필이면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이 여자일 줄이야.

낮의 일을 떠올리면 이가 갈렸지만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생소한 모습을 보자 또다시 가슴이 벌렁거렸다.

정신을 다잡은 지스는 뻔뻔한 태도로 별장의 내부를 살펴보았다. 팔코아에게 맞은 복부가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와아, 여기 진짜 좋네. 귀족은 역시 다르다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수소문해서 찾았지. 항구의 지배자 지스가 마음만 먹으면 그 정도는 일도 아니야. 이제 알았지, 내가 섬에 얼마나 빠삭한지?”

“그래서? 고작 그 재주 하나 보여 주려고 찾아왔다고?”

## [131] 우선하는 것(2)

“하하!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낮의 일은 내가 잘못한 거 같아서. 솔직히 바가지를 씌우기는 했잖아.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받는데 욕심이 과했나 봐. 명예 회복하게 해 줘. 내가 진짜로 재밌는 데 구경시켜 줄게.”

테스가 허리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일없어. 가뜩이나 심기 불편해 죽겠는데. 에이미, 그냥 쫓아내 버려.”

“그렇다네. 그럼 안녕.”

에이미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지스가 다급한 표정을 드러내며 손을 밀어 넣었다.

짜인 각본 따위는 없었지만 이 바닥에서 이골이 난 그답게 말은 빨리 튀어나왔다.

“자, 잠깐만! 친구들이 오기 싫으면 너 혼자 와도 돼.”

“내가 왜? 이거 좀 수상한데?”

“좋아!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나 사실…… 엄청 혼났어.”

“누구한테?”

“길바닥 호객꾼이라도 협회가 있거든. 내가 했던 행동이 윗사람들 귀에 들어갔나 봐. 그래서 무례를 범한 손님에게 섬을 안내해 주라고 했어. 소문나면 관광객들이 호객꾼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말이야. 그냥 잠깐만 들렀다가 가 주면 안 될까? 안 그러면 나 완전히 밥줄이 끊긴다고. 정말로 거지처럼 구걸을 해야 될지도 몰라.”

“흐음.”

에이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지레 겁에 질린 지스는 초조하게 그녀의 판결을 기다렸다.

“좋아, 잠깐 바람이나 쐬고 오지 뭐.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지스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물론 그것을 위해 찾아온 것이지만 이토록 쉽게 승낙을 받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반면에 듣고 있던 테스는 황당했다. 설마하니 저런 호객꾼의 말에 넘어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시로네의 일로 마음이 상한 것이리라 생각한 그녀는 황급히 에이미의 뒤를 따라갔다.

“에이미! 어쩌자고 따라가? 저 자식을 어떻게 믿고?”

“괜찮아.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돌아올게.”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시로네는 어떡하고?”

“됐어. 알아서 하라고 그래. 리안도 배고플 텐데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차라리 잘됐지 뭐. 나는 밖에서 먹고 올 테니까 리안하고 오붓하게 보내.”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한 에이미는 현관으로 내려갔다. 테스가 끝까지 설득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진짜 꼭 가야겠어? 그럼 빨리 돌아와야 해? 바람만 쐬고 와. 늦으면 우리가 찾으러 간다?”

“알았다니까. 리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시로네 돌아오면 쫄쫄 굶겨 버려.”

리안은 신중했다. 아귀처럼 굶주린 모습은 사라지고 심각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과연 그녀를 보내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끌려가는 거라면 모를까 당사자가 가고 싶다는데 나서서 말리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다.

“지스라고 했지? 가자.”

“응? 어, 그래!”

지스는 넋이 나가 있었다. 소녀풍의 블랙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2층 계단을 내려올 때부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에이미까지 외출하자 별장은 썰렁했다. 머리가 복잡해진 테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아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바보야, 넌 여자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다른 사람의 파트너가 에스코트하면 에이미가 얼마나 비참해지겠어? 그나저나 도대체 시로네는 어디 간 거야?”

창가로 걸어간 리안은 에이미가 마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닷가 상공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 \* \*

지스는 에이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를 마차에 태웠으니 작전은 8할 이상 성공했다고 봐도 좋았다.

“자,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어이, 출발해!”

마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삐를 흔들자 쌍두마가 객실을 뒤흔들며 튀어 나갔다.

지스는 쉬지 않고 입을 놀렸다. 괜히 토박이가 아닌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사소한 것까지 줄줄이 읊어 대고 있었다. 야채 가게 사장이 과부랑 바람이 나든 말든 알 게 뭐란 말인가?

에이미는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의 야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에 골몰하느라 지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지스도 그 사실을 깨닫고 말을 멈추었다.

사실은 이렇게 에이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녀의 표정은 낮에 화를 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팔코아는 정말로 이 아름다운 소녀를 팔아넘길 생각일까?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으나 일단 마차에 태워 놓고 보니 두려움이 엄습했다.

“오래 걸리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에이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공교롭게도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지스는 화들짝 놀라며 말을 지어냈다.

“아, 그러니까…… 좀 멀어. 갈리앙트에서 최고로 좋은 곳이라서. 진짜야, 가 보면 알아.”

“그래? 나를 찍은 보스가 거기로 데려오래?”

지스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설마 처음부터? 그렇다면 도대체 마차에는 왜 탔으며 어째서 여태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지스의 얼굴은 굳은 상태에서 풀릴 줄 몰랐다. 머릿속이 창백해져서 어떤 거짓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그러니까…….”

“속일 필요 없어. 눈만 봐도 아니까. 겁에 질려서 사정을 하는데 모르는 게 바보지. 아무튼 잘해 봐. 속아 주는 건 이번 한 번뿐이니까.”

“속아…… 준다고?”

“그래. 무엇 때문에 희생양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 일 끝나면 그만둬. 네가 하도 불쌍해서 구해 주는 거야.”

지스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뭐! 내가 불쌍해?”

“그럼 불쌍하지 부럽겠니?”

“이, 이게 진짜……!”

지스가 화를 내기도 전에 에이미가 물었다.

“너, 나한테 금화를 던졌지?”

“그, 그건…….”

지스는 시선을 회피했다. 낮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흠칫했다. 그 행동 때문에 팔코아에게 죽도록 맞았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다.

“너 같은 애들은 이 바닥에서 오래 못 버텨. 지키고 싶은 게 많은 인간은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진다고.”

“쳇,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한 귀족이.”

“적어도 너보다는 많이 알지. 한때는 나도 이쪽에서 기웃거렸으니까. 물론 너보다 훨씬 높은 위치였지만.”

지스는 입술을 짓깨물었다. 결국 그런 것이다. 아무리 자존심을 세우고 목청을 높여도 그녀와 대등한 높이에서 마주 보는 건 불가능했다.

“동정하는 거야?”

“그래.”

“동정 따위 받고 싶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이 바닥 떠. 이게 너한테 있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지스는 패배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만약 그녀가 동정을 해 주지 않았다면 자신과 동생은 지금쯤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터였다.

“쳇.”

지스가 혀를 차자 에이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눈꺼풀을 부드럽게 가라앉혔다.

“너 같은 애는 싫지 않아.”

“뭐?”

“나한테 동전을 뿌린 거 말이야. 사내라면 그 정도 강단은 있어야지. 그냥 뒷골목 양아치였다면 난 절대로 이 마차에 타지 않았을 거야.”

지스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제길.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이래서 귀족은 마음에 안 들어. 아까도 그래. 누구는 조롱하고 누구는 말리고. 순 제멋대로라니까.”

턱을 받치고 있는 에이미가 씩 웃었다.

“아, 시로네? 그 아이도 평민이야. 그래서 너를 말렸을 거야.”

“뭐? 평민?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었단 말이야?”

지스의 눈이 커졌다. 처음에는 농담이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아름다운 소녀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남자랑 다닐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 평민.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중요하려나?”

“하지만 파트너 아니었어? 커플 여행처럼 보이던데?”

“맞아, 파트너야. 나를 바다 건너 오지의 섬에 데려와 놓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내 파트너.”

에이미는 고양이 같은 입술로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련하게 멀어지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자 지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다.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냥 땅에 떨어진 금화를 주울 걸 그랬다. 그랬다면 설령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지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젠장! 빌어먹을! 나를 동정해서 위험을 무릅쓴다고? 위험이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이 소녀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팔코아는 프리먼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 프리먼 조직이 무엇이던가? 무시무시한 정예병을 거느리고 있는 갈리앙트의 지배자였다.

지스가 어릴 때만 해도 섬의 상권은 여러 조직이 분할해서 거느리고 있었다. 가끔씩 세력 다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힘의 균형이 깨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5년 전에 프리먼 조직이 섬에 상륙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세력을 확장시켰고, 기존에 있던 조직들은 힘조차 쓰지 못하고 해체당했다. 급기야는 연합이 결정되어 프리먼 조직에 맞섰으나 허무하리만치 간단하게 깨져 버렸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개월.

프리먼 조직은 단 3개월 만에 모든 조직을 해체시킨 괴물들이 모인 전투 집단이었다.

‘팔코아뿐만이 아니야. 내 윗선의 건달들은 전부 무시무시한 놈들이다. 나는 지금 그런 곳에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거야.’

지스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녀를 말리고 싶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법학교 학생이니까 도망 정도는 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여동생은 아니었다. 팔코아가 마음만 먹는다면 길바닥 호객꾼의 동생쯤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릴 수 있었다.

‘내가 지켜야 해. 동생만큼은…… 반드시!’

\* \* \*

마르샤와 헤어진 시로네는 해변에 도착했다. 쉬지 않고 달려서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였다. 별장이 산의 중턱에 있는지라 오르막을 올라야 했다.

“후아, 오늘 일진이 왜 이러지? 계속 달리는 일만 생기네.”

해가 떨어진 시간이니 리안과 테스는 음식을 하고 있을 터였다.

만약 에이미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비보를 전해야 한다. 장바구니를 놓고 왔다는 비보를.

‘이러나저러나 죽기는 매한가지구나.’

시로네는 이를 악물고 오르막길을 내달렸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쓰러질 듯 입구로 걸어간 시로네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문을 두드렸다.

“리안, 에이미, 테스. 나 왔어. 문 좀 열어 줘. 으악!”

갑자기 문이 열리자 시로네는 앞으로 넘어졌다. 예상보다 훨씬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시로네!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온 거야? 에이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 미안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자. 다리가 후들거려서.”

별장에 음식 냄새는 나지 않았다. 차라리 셋이 먼저 먹었으면 했던 시로네는 더욱 미안해졌다.

“나 때문에 많이 기다렸지? 그런데 에이미는 어디 있어?”

테스는 막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랐다. 기다리다 지쳐서 놀러 갔다고 할까? 아니면 시로네라는 남자에게 실망해서 지스를 따라갔다고 할까?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아, 이거 난감하네.”

테스가 말을 못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감정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싫어서였다.

하지만 리안은 사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다.

“항구에서 만났던 지스라는 놈하고 같이 나갔어.”

“응? 지스?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웠던 그 사람 말이야? 에이미가 왜 그 사람을 따라가?”

“모르지. 너를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놈이 찾아왔어. 낮의 일 때문에 보답을 하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마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어.”

“에이미가 순순히 따라간 거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테스가 끼어들었다.

“그래! 이게 다 네가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 에이미 혼자서 얼마나 외로워했는데. 말해 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로네는 대답을 미뤘다. 지금은 그런 것이나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가 보자. 어딘지 알아?”

“우리야 모르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잘해 주든가.”

“나 때문에 나간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에이미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데!”

“에이미는 다혈질이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아. 설령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해도 그 사람을 걱정시킬 일은 하지 않는단 말이야. 차라리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죽도록 팼으면 팼지.”

테스의 얼굴이 멍해졌다. 에이미를 잘 아는 시로네의 말이니 아마도 맞을 것이다.

게다가 생각해 보니 그런 것도 같았다. 화를 잘 내지만 속마음은 여리고, 까칠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려가 많은 성격이 아니던가?

“그,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고작해야 호객꾼이잖아. 에이미는 마법학교에서도 발군이라며?”

## [132] 우선하는 것(3)

물론 에이미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생각이 달랐다. 불과 30분 전에 마르샤에게서 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들은 참이었다.

항구의 호객꾼은 나름의 세력이 있다. 특히나 길바닥 호객꾼은 강력한 조직의 말단 부하들이라고 했다.

“지스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 설령 아니라고 해도 섬은 폐쇄적이고 위험한 곳이야. 육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섬에서 행방불명되는 귀족들도 많잖아. 에이미가 무사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

리안은 가죽 검집에 직도를 장착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 가자, 시로네. 어디든 안내해. 방해하는 놈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고마워. 사실은 내가 늦어서 그런 건데.”

“그것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일단은 에이미의 안전을 확인하는 게 먼저야.”

테스는 두 소년을 지켜보았다. 저것이 바로 기사 서약으로 맺어진 자들의 대화였다. 아직은 흉내 내기에 불과하지만 기사를 꿈꾸는 그녀에게는 부러운 광경이기도 했다.

“잠깐 기다려. 나도 같이 갈 거야. 너희만 에이미를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세 사람은 별장을 나와 해변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광활한 백사장 앞에서 테스는 자신감이 떨어졌다.

“어디에서 에이미를 찾지? 이 시간에 지스라는 놈이 데려갈 만한 데는 상업 지구밖에 없을 텐데.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흩어질까?”

“그건 안 좋은 방법 같아. 어차피 셋이서 상업 지구 전체를 돌 수는 없으니까. 무엇보다 이곳 지리도 잘 모르잖아.”

“그러면 어떡해? 찾을 방법이 없잖아? 차라리 저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고 말지.”

시로네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지 말고 항구로 가자. 분명 조직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다면 조직원에게 물어보면 에이미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을 거야.”

“항구? 거긴 남쪽이잖아? 거기까지 가는 시간에 여기를 뒤지는 게 더 빠르지 않아? 어차피 에이미도 항구에는 없을 거라고. 관광지도 아니니까.”

“아니, 항구로 가는 게 맞아. 에이미의 상황을 단순하게 나누어보면 두 가지야. 첫째, 에이미는 무사하다. 둘째, 에이미는 무사하지 않다. 만약 무사하다면 우리가 항구로 간다고 해도 손해는 없어. 하지만 무사하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항구로 가야 해. 에이미가 무사하지 않다는 건 지스의 조직과 충돌할 경우밖에 없기 때문이야. 따라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도 우리는 일단 항구로 가서 조직원들과 접선을 해야 해.”

“그…… 그래. 그렇겠다.”

테스는 최면에 빠진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생각보다 사람이 말이 더 빠르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리안은 생각하지 않았다. 시로네가 항구로 가자고 한 순간부터 이미 마차를 빌리고 있었다.

마부에게 돈을 지불한 리안이 타라는 손짓을 하자 시로네와 테스가 달려갔다. 그리고 질주하는 마차에 몸을 던져 객실로 들어갔다.

마부가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속도를 높였다.

“역시 젊음이 좋구먼. 이 시간에 급한 일이라도 있나 보지?”

“네. 빨리 좀 가 주세요!”

“좋아! 그럼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도 힘 좀 써 볼까! 끼랴!”

밤이라서 차로는 한산했다. 금화를 자원 삼아 마부는 마차가 덜컹거릴 정도로 말을 몰았다.

마차는 20분 만에 항구에 도착했고, 마부는 5년 만의 대기록이라면서 떠들어 댔다.

세 사람은 항구로 달려갔다.

대부분의 배들이 도크에 정박해 있었고 사람이 타고 있는지 창문 틈새로 빛이 새어 나왔다. 아마도 선원들이 카드 게임이나 하고 있을 터였다.

가까운 바다에 떠 있는 배도 의심이 들었지만 어차피 구석구석 발로 뛰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

시로네는 항구에 있는 술집을 중점적으로 수색했다. 대부분이 조직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선원인 경우가 많았다.

“어떡하지? 이래서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어. 적어도 1명은 있을 거야.”

시로네는 끈기 있게 술집을 탐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선술집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어 처음에는 몰랐지만 분명 낮에 지스의 옆에 있던 호객꾼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저기, 저 두 사람! 지스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 맞지?”

“그렇군. 이제부터는 나에게 맡겨.”

리안이 주먹을 어루만지며 걸어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력보다는 인상이 더 먹어 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이, 너희 나 기억하지?”

“뭐야? 시비 거는 거냐? 지금 기분 개떡 같으니까…… 헉!”

혓바닥이 꼬인 발음으로 쏘아붙이던 소년이 리안을 알아보고 일어섰다.

리안의 덩치 또한 위협적이지만 정말로 놀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다. 팔코아에게 붙들린 지스가 무슨 짓을 하러 갔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저, 저기…… 그게 그러니까.”

“알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하자. 나는 사람 있는 곳에서 난폭해지고 조용한 데서 착해지는 성격이거든. 어떡할래?”

호객꾼은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를 흘끗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교차하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문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젠장! 튀어!”

그들은 미친 듯이 발을 굴렀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문은 다가오지 않았다.

‘뭐지? 왜 이러지? 꿈인가?’

도주의 긴장감이 사라진 뒤에야 그들은 두 다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지막 기회를 주마. 좋게 따라올래 아니면 이 자리에서 거꾸로 심어 줄까?”

한 손에 하나씩 소년을 들어 올린 리안은 힘을 과시하듯 팔을 내밀었다.

소년들은 기겁했다. 팔을 뻗은 상태에서 남자 두 사람의 무게를 버틴다는 것은 완력을 넘어서 괴력에 가까웠다.

“가, 갈게요. 갈 테니까 제발 힘쓰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일이 쉬웠다. 리안은 방파제 쪽으로 호객꾼을 데려갔고 그곳에서 대략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팔코아라는 놈이 에이미를 데려오라고 시켰다 이거지?”

“네. 지스는 죽도록 얻어터졌어요. 저희도 죽을 뻔했다고요. 팔코아한테는 덤비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자식 완전 또라이란 말이에요.”

“상관없어. 내 주먹에 맞은 또라이치고 제정신 안 돌아온 놈 없으니까. 에이미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장소 알고 있지?”

“진짜로 장소는 몰라요! 믿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 친구에게 물어보지. 2명이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1명만 살기를 택하겠다 이거로군.”

두 소년은 두려운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솔직히 고문을 견딜 만한 정신력도 없었다. 하지만 리안은 오로지 말로써만 그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검술학교에서 취조 기술을 배운 덕분이었다.

“정말로 몰라요. 하지만 짐작 가는 곳은 있어요.”

시로네와 테스가 가까이 다가왔다. 리안도 어설픈 수사관 흉내를 그만두고 호객꾼의 멱살을 흔들었다.

“거기가 어디야? 빨리 말해!”

“와, 왕궁요.”

“왕궁? 무슨 헛소리야?”

“술집 이름이에요. 갈리앙트에서 가장 큰 술집요! 아무 마차나 잡아타도 데려다줄 거예요! 저기, 절대로 우리가 말했다고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저흰 죽어요!”

리안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돌아섰다. 시로네와 테스도 이미 달릴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다.

항구를 벗어나자 마차 한 대가 대기하는 게 보였다. 공교롭게도 여기까지 자신들을 태우고 온 마차였다.

“아저씨! 마부 아저씨!”

짐칸에 앉아서 곰방대를 물고 있던 마부가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애마와 멋진 질주를 만끽했던 손님들이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여어, 벌써 구경 끝났나? 달리는 것도 빠르니 구경하는 것도 빠르구먼. 허허허!”

“아저씨, 지금 출발요! 급해요!”

“암, 급하지. 청춘은 급하고말고! 자, 어서 타게!”

마부는 피 끓는 열정으로 짐칸에서 뛰어내렸다.

일단 말부터 출발시킨 마부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절로 커졌다.

“그래, 이번에는 어딘가!”

시로네, 리안, 테스가 동시에 소리쳤다.

“왕궁요!”

\* \* \*

주점 왕궁.

왕궁이라는 간판을 내걸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으리으리한 주점은 섬에서 가장 빛나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4층 높이의 건물은 돈 낭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 빛을 반사시키는 온갖 금은보화가 장식되어 있고 일반인은 구경도 할 수 없는 마법 수정등이 발광했다.

시로네 일행은 건물이 발산하는 부에 압도당했다. 마치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시로네가 주점으로 걸어가자 예상했던 대로 입구를 지키고 있던 기도가 앞을 막아섰다.

“이봐, 여긴 무기를 착용할 수……!”

리안은 말을 듣지도 않고 기도의 목을 떠밀었다. 리안과 비슷한 덩치였으나 근력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숨이 막혀 버둥거리던 기도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시로네 일행이 가게로 들어가고 난 뒤였다.

술집 안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헐벗은 여자들이 춤을 추며 돌아다니고, 폭언과 욕설, 갖은 음담패설이 허공을 가로질렀다.

테스는 인상을 찌푸렸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휴양지인 갈리앙트지만 해가 떨어지면 이렇듯 탁한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곳으로 변하는 것이다.

“정말 이런 곳에 에이미가 있을까? 사람들도 많고 게다가 저 여자들은 또 뭐야?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게. 확실히 에이미가 좋아할 만한 곳은 아니네. 하지만 자진해서 따라간 만큼 감수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리고 조심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경비가 출동하지 않을 테니까.”

마르샤에게 섬의 정세를 들은 시로네는 확신하고 있었다. 활용 방법은 다르지만 이곳 또한 정부와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 중의 하나일 것이다.

1층에서 에이미를 찾을 수 없자 2층으로 올라갔다. 살벌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3층은 십자형 복도에 철문이 설치된 방들이 줄줄이 들어차 있었고 4층은 최고 귀족이 머무는 VIP 룸이었다.

각 층을 전부 뒤진 리안은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찾기는 힘들겠는데. 홀에는 없고 도박장에도 없어. 3층을 뒤지자니 방마다 전부 들어가야 하고 4층은 경호원들로 바글거려.”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었다.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이 잡듯 뒤질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사건을 일으킬 것인지.

물론 세 사람의 결정은 후자였다. 악의적인 음모로 에이미가 끌려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곱게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저기다! 저 자식들이야!”

입구에서 호된 꼴을 당한 기도가 시로네 일행을 가리켰다. 그러자 뒤편에 있던 사내가 소매를 걷으며 다가왔다.

리안은 사내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 고개를 쳐들어야 했다.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거대한 남자였다.

“해결사라는 건가?”

뒤가 구린 가게는 손님들을 가려 받게 마련이다. 보통은 기도의 선에서 걸러지지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깽판을 치는 자들도 꽤나 많았다. 그런 자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게 해결사의 임무였다.

“뭐야, 이거?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들이잖아? 아니, 그러고 보니 이 계집애는 그냥 꼬맹이는 아니구먼.”

해결사가 테스를 내려다보며 주먹코를 벌름거렸다. 보통 사람과 다르게 높은 시야를 가진 그는 테스의 풍만한 진가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조망할 수 있었다.

“흐흐흐, 너 정도면 이 가게에 딱 어울리는 손님이지. 어디 보자, 아저씨가 평가해 줄까?”

해결사의 손이 테스를 향해 내밀어졌다. 손바닥을 펼친 것만으로 눈앞에 그물이 펼쳐진 기분이었다.

테스는 해결사의 가운뎃손가락을 덥석 움켜쥐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꺾어 올렸다.

“으아아아!”

거구의 덩치가 우스꽝스럽게 몸을 꼬았다. 팔이 완전히 펴지고 가운뎃손가락은 손등에 닿을 만큼 휘어진 상태였다.

“아파! 아프다고!”

“흥!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아무리 여자라도 내 팔 힘이 네 중지손가락보다는 세거든? 덩치만 믿고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으아악! 이 계집애가!”

고통을 참지 못한 해결사가 반대편 주먹을 내질렀다. 그러자 테스는 잡고 있던 손가락을 놓고 번개처럼 몸을 뒤틀며 팔꿈치를 휘둘렀다.

경쾌한 단타가 해결사의 턱 끝을 때리고 지나갔다. 완벽한 타이밍이라 마치 상대방이 일부로 다가와 맞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해결사의 뇌가 진동하면서 의식이 끊어졌다. 테스가 비켜서자 거인의 몸이 고목나무처럼 쾅 하고 쓰러졌다.

## [133] 우선하는 것(4)

“이, 이럴 수가…….”

기도는 얼이 빠졌다. 갈리앙트 섬에서 가장 덩치가 크기로 유명한 해결사가 여자의 일격에 쓰러질 줄은 예상치도 못했다.

리안은 탁탁 손을 터는 테스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남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나 있겠는가?

엘자인 검술은 정교한 공격으로 유명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급소를 찌르도록 훈련받은 그녀는 힘의 세기나 덩치의 격차를 한순간에 없애 버릴 수 있는 기교파였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턱 끝에 도달하는 건 살인적인 집중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운이 좋은 줄 알아. 테스가 검을 뽑았다면 너는 이미 죽었어.’

시로네는 미동조차 없는 해결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마법사와 쌍벽을 이루는 검사의 움직임인가?

리안의 완력이 아방가르드하다면 테스의 타격은 완벽한 예술 작품을 보는 듯했다.

“우와, 진짜 멋있다, 테스.”

“헤헤! 괜찮았어? 시로네는 역시 보는 눈이 있다니까. 조오기 옆에 서 있는 누구랑 다르게 말이야.”

리안은 듣는 둥 마는 둥 기도에게 다가갔다.

기도는 겁에 질려 두 다리를 떨고 있었다. 리안이 목을 붙잡고 들어 올리자 마지막 발악을 했다.

“큭! 너희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어딘지 아니까 찾아왔지. 숨바꼭질하는 걸로 보여? 에이미 지금 어디 있어?”

“젠장! 에이미가 누구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죽이는 대신 심장을 멈추게 해 줄까?”

“제기랄! 진짜 모른다니까! 정 궁금하면 네놈들이 찾아보든지!”

“이 자식이 진짜!”

리안의 눈에 불이 치솟았다. 가뜩이나 초조해 죽겠는데 염장을 지르고 있었다.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겁박하려는데 시로네가 다가왔다.

“리안, 됐어. 모르는 걸 물어봐서 뭐해?”

“그럼 어떡해? 진짜로 방마다 돌아다닐 거야?”

“아니, 알고 있는 걸 물어보면 되지.”

“알고 있는 거? 어떤 거?”

시로네와 눈을 마주친 기도는 흠칫 놀랐다.

리안과는 또 다른 성질의 분노. 한기가 치솟으면서 뼈마디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팔코아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

\* \* \*

주점 왕궁. 지하 1층.

아는 사람들은 이곳을 신전이라고 부른다. 물론 신 따위는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은 신을 보기도 하는데, 루프가 일으키는 환각 작용 때문이었다.

결국 4층의 VIP 룸은 소문만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들락거리는 곳이고 진짜배기는 모두 지하에 있었다.

신전이란 각종 마약이 유통되고 각성제인 루프 또한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이를테면 쾌락에 미친 자들의 공간인 셈이었다.

신전은 17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전체 면적은 1층보다 1.5배나 넓었다.

언제나 만석이지만 4번 방만은 손님에게 개방하지 않는데, 프리먼 조직의 행동대장이자 왕궁의 사장인 팔코아의 방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놈에게 물었지. 죽은 다음에 묻힐래, 묻히고 나서 죽을래? 그러니까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으흐흐,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 그놈이 뭐라고 해요?”

팔코아가 죽는시늉을 하며 소리쳤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으아아아! 미치겠네! 제~발 살려!”

“푸하하하! 너무 웃어서 배 아파! 제~발 살려 주십시오!”

팔코아의 부하들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광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지스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친놈들. 대체 이게 뭐가 웃기다고 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야.’

“어머, 자기야. 자기는 왜 술 안 마셔?”

지스는 파트너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이곳에서 술을 마셔 버리면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스는 살며시 고개를 틀어 팔코아의 파트너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데려온 에이미가 앉아 있었다.

물론 그녀 또한 팔코아의 웃음 코드를 이해하지 못했고 무미건조한 얼굴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네.’

보통의 여자라면, 그것도 소녀라면 살벌한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에이미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 시끄러워. 지루해. 돌아가고 싶다.’

에이미는 앞에 놓인 술로 입술을 축였다. 귀족이기에 주도를 배웠지만 술을 즐기는 성향도 아니고 원래부터 마시지도 않는다. 지루해서 홀짝거린 양을 더해 봤자 술병 밑바닥이나 덮을 정도였다.

하지만 술은 술인지 기분이 붕 뜨면서 조금은 감성적인 생각에 빠져들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물론 지스가 딱했기 때문에 따라와 준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지금쯤은 돌아왔겠지?’

시로네는 어째서 늦은 것일까? 어쩌면 또다시 쓸데없는 소란에 휘말린 것일 수도 있다.

시로네의 전지적 시점으로 내려다봤을 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후후, 흉내라도 내고 싶었던 건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도 다를 바가 없었다.

항구에서 만났던 망나니가, 물론 아예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 망나니가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술자리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에이미는 그럴수록 짜증이 났다.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실력 행사를 해 버리고 나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예상과 달리 팔코아는 매너를 지켰다.

‘대체 무슨 생각이지? 차라리 내가 먼저 움직일까?’

에이미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무렵, 팔코아 또한 에이미를 의식하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

에이미는 고위 귀족일 것이다. 외모만으로는 보완할 수 없는 귀족 특유의 고고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팔코아는 여유 만만이었다. 그에게는 귀족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무기가 있다.

아니, 이거 하나면 설령 왕이라도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다.

바로 루프였다.

지금도 신전에서는 수많은 고위 귀족이 루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때를 봐서 조금씩 루프로 길을 들이면 제아무리 자존심 강한 귀족이라도 버틸 수가 없을 터였다.

“자, 자. 건배하자고, 건배!”

그 순간 판자 너머에서 우당탕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종업원들의 고함 소리가 터졌다.

“너희들 뭐야! 컥!”

“야! 막아! 거기 사장님 계시는 방이야!”

문이 벌컥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다.

습격자의 얼굴을 확인한 지스는 귀신을 본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항구에서 본 에이미의 친구들이었다.

팔코아의 인상이 대번에 구겨졌다. 진상 손님이야 돈만 몇 배로 내면 용서해 주겠지만, 자신의 텃밭인 신전이 침입당하는 건 자존심의 문제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팔코아가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주위에 앉아 있던 직속 부하들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놈들의 성질머리를 아는 여성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해 버렸다.

“시로네?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어?”

에이미가 눈을 똥그랗게 뜨며 물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대답을 미루었다. 미칠 듯이 간질거리는 기운이 등골을 타오르고 있었다.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4자로 꼬고 있는 놈이 팔코아일 것이다. 딱히 괴물처럼 생긴 건 아니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

‘강하다, 저 사람…….’

살기를 드러내는 건 쉽다. 정말 죽일 생각으로 노려본다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상대를 겁박할 수 있다. 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살기를 풍기는 건 쉽지 않았다.

오직 살인의 프로만이 낼 수 있는 기운이었다.

‘에이미…….’

어째서 에이미는 저런 자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일까?

차와 커피를 즐기는 그녀의 앞에 찻잔이 아닌 술잔이 있었다. 바닥도 더럽고 냄새도 탁했다. 그녀의 방에서 보았던 것은 이곳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건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다.

“돌아가자, 에이미.”

에이미는 울컥했다.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내뱉은 말이 고작해야 ‘돌아가자, 에이미.’라니. 기다릴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으면서 이토록 당당한 태도는 뭘까?

에이미는 조금 전 시로네를 보고 반가워했던 자신에게 화가 났다. 현재 시로네는 자신을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인간의 눈높이인가, 아니면 저 높은 하늘 위인가?

그녀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다. 그렇기에 시로네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다.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는 게 자신이었다.

“너, 너희!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가!”

주점의 종업원들이 모조리 몰려왔다. 하지만 악귀 같은 팔코아의 방까지는 차마 들어오지 못했다.

시로네는 기가 찼다. 부하들조차 두려워하는 사장이라니. 대체 이 사람의 악은 얼마나 깊고 진한 것일까?

팔코아가 귀찮다는 듯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너희 뭐야? 내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에이미를 데려가려고 왔다. 그녀를 풀어 줘.”

“푸, 누가 들으면 납치라도 한 줄 알겠네. 아무리 귀족이라도 조심해야 할 건 있는 법이야. 특히나 이런 곳에서는 말이지.”

시로네의 예상이 맞았다. 이곳은 섬 정부의 비호를 받는 치외법권 지대였다.

“뭐 하냐? 꼬맹이들 돌려보내라.”

“어디로 돌려보낼까요, 형님?”

팔코아가 픽 하고 숨을 내뱉으며 말했다.

“지옥으로.”

4번 방에 있던 직속 부하들이 몸을 풀며 다가왔다. 여태까지 지나쳤던 종업원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기도였다.

테스가 검을 뽑을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시로네, 조심해. 이것들 전부 스키마 유저야.”

시로네의 눈에 이채가 서렸다. 눈썰미가 좋은 테스의 말이었으니 아마도 사실일 터였다.

물론 검술학교 학생의 대부분은 스키마를 열 수 있다. 하지만 내륙도 아닌 섬에 거주하는 건달들이 1명도 빠지지 않고 스키마가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도대체 누구지? 고작 술집 사장이 어떻게 이런 실력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야?’

시로네는 정면을 가로막고 있는 부하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마어마한 감정이 시로네의 마음을 강타했다.

“큭!”

“시로네, 조심해! 프레싱이야!”

스키마 체식에서 ‘눈의 기술’에 해당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지만 프레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기술이었다.

반응이 직관적이라 실전에 쓰이기에 좋고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는 방법만 알면 쉽게 터득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시로네는 당황하지 않았다. 상대의 적개심이 폐부를 짓누르는 순간 카르미스 가문의 집사장 아델에게 당한 것과 같은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감정의 질은 차원이 달랐다. 아델의 프레싱이 단순히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들의 프레싱은 오로지 생명을 끊기 위해 밀려들고 있었다.

리안이 직도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

“너희가 감히!”

“리안! 기다려!”

시로네가 소리치자 팔코아의 부하들이 의아한 듯 눈을 치켜떴다. 무려 10명의 살기가 동시에 가해지는 프레싱이다. 말을 내뱉기는커녕 이미 심장이 멈췄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것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이 상황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은 에이미뿐이었다.

‘금강불괴. 어떤 의미로는 내 홍안하고도 맞먹는 능력이지.’

프레싱으로는 시로네를 휘두를 수 없다. 아니,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저들의 수준으로는 턱도 없었다.

시로네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마치 대기가 밀리는 듯 부하들이 똑같은 보폭으로 물러섰다.

물론 시로네라고 감정을 흘려보내기가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다름 아닌 수없이 많은 전투를 경험한 10명의 베테랑이 주입하는 압력이었다.

감정에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추정하건대 지면에 손발이 묶인 채 멀리서 달려오는 마차를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마차가 눈앞까지 도착했고, 거대한 수레바퀴가 자신의 시야를 가득 채우는 순간의 공포였다.

현실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시간은 0.1초에 불과하겠지만 현재 시로네는 똑같은 감정을 20초가 넘도록 느끼고 있었다.

## [134] 우선하는 것(5)

한마디로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감정의 강도가 아니었다. 금강불괴가 1퍼센트만 흔들려도 신경계 쇼크로 심장이 정지해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에이미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 1퍼센트조차 흔들리지 않기에 금강불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니까.

시로네는 마침내 테이블까지 부하들을 밀고 나갔다. 그 꼬락서니를 지켜본 팔코아가 분노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뭣들 하고 있어! 당장 목을 그어 버려!”

부하들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장검을 일제히 뽑아 들며 돌진해 왔다.

“젠장! 쪽팔리게 애한테 칼을 쓰게 되다니!”

그 순간 시로네의 몸에서 빛이 번쩍하고 뿜어져 나왔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섬광이 부하들의 시야를 멀게 만들었다.

“크윽! 뭐야!”

눈의 기술을 익힌 자들답게 암순응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만큼 빨랐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하들도, 팔코아도 그저 시로네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뭐야? 빛을 내서 어쩌겠다고?”

시로네는 손바닥을 뒤집어 빛의 구체를 띄웠다. 황금빛 광자가 엄청난 속도로 압축되면서 창백하게 탈색되었다.

“시로네, 너 설마?”

진동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광자의 박력 앞에서 에이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질량을 빛에 준하는 속도로 가속시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마법. 바로 포톤 캐논이었다.

“시로네! 너 그건……!”

밀폐된 공간에서 포톤 캐논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누군가는 직경을 당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에이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로네는 백색 구체를 쳐들었다. 그리고 전심력을 다해 땅바닥에 꽂아버렸다.

섬광이 내리꽂히는 순간 눈앞에서 천둥이 친 듯 엄청난 굉음이 퍼져 나가며 방 안을 뒤흔들었다.

“크윽! 뭐, 뭐야, 이거!”

방 안에 있던 자들이 귀를 틀어막았다. 충격파가 지면을 타고 퍼져 나가면서 지하의 구조물들이 덜덜 떨렸다. 천장에서 먼지 더미가 푸수수 쏟아졌다.

부하들은 마치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경황이 없었다. 지하를 벗어나지 못한 굉음의 메아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조직원들은 시로네의 마법이 가해진 장소를 돌아보았다. 의외로 바닥은 깊게 파이지 않았다. 하지만 납작하게 눌린 범위는 직경 4미터가 넘어갔다.

“뭐야, 여기…… 지하 아니냐?”

부하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곳은 갈리앙트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물이라고 해도 좋을 신전이었다. 지하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구력에 치중한 설계 공법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신전의 바닥에는 두꺼운 강철판이 깔려 있었다.

그 강철판이 방만하게 눌려 버릴 정도라면 지하 전체가 흔들렸던 것도 이해가 갔다. 한마디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충격력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베테랑답게 부하들은 우는 표정을 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대한 거리를 떨어뜨리고 시로네를 경계했다.

그 모습에 팔코아의 인상이 또다시 구겨졌다.

10명의 프레싱을 이겨 낸 것도 그렇지만 지금의 마법은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자신마저도 처음 보는 종류였다.

“너…… 도대체 누구냐? 어디 라인이야?”

대륙을 잇는 마법사들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라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로네는 마법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를 알지 못했다. 그저 당당하게 자신의 출신을 밝힐 뿐이었다.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다니는 시로네다.”

지스는 화들짝 놀라며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귀족에게 출신은 황금 줄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항구에서 호되게 당했으니 시로네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런데 어쩌자고 자신의 출신을 밝힌 것일까?

“학생? 어처구니가 없군. 고작 학생 주제에 설쳤다는 건가? 어이, 그거 아냐? 내가 학교에 고발하면 너는 그날로 끝장이야. 아마 쫓겨날 거다.”

“고발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예상과 다른 반응에 팔코아의 눈썹이 씰룩거렸다.

“징계든 퇴학이든 상관없어. 그딴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테니까. 물론 학교는 나에게 중요한 곳이지. 하지만 세상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얼마든지 있는 거야. 그리고 에이미는…….”

시로네는 팔코아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정한 모든 순위에 우선한다.”

에이미는 눈을 깜박거렸다. 점점 빨라지는 눈꺼풀의 속도가 그녀의 심장박동 수를 나타내고 있는 듯했다.

“징계 같은 건 얼마든지 받아도 좋아. 고소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에이미는 1초도 여기서 머물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더 내 친구를 이런 더러운 곳으로 끌고 온다면 그때는 정말 박살을 내 버리겠어.”

스르릉 하고 리안의 직도가 물소리를 내며 뽑혀 나왔다. 보통 사람의 키만 한 대도가 전방을 향해 뻗은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엄청났다.

“역시 시로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니까.”

리안은 여태까지 선뜻 검이 뽑히지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다. 작은 균열이 빙산을 무너뜨리듯이, 징계라는 사소한 걸림돌이 신념을 어지럽힌 모양이었다.

“네 말이 맞아, 시로네. 징계가 무서워서 친구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농담이겠지. 오젠트 리안은 한순간도 그딴 식으로 살아 본 적이 없어.”

리안에 이이서 테스의 세검이 뽑혀 나왔다.

“호호호! 엘자인 테스도 마찬가지! 시로네 파의 마스코트 에이미를 이런 날건달 소굴에다 두고 갈 수는 없지!”

리안이 어이가 없다는 듯 테스를 돌아보았다.

“언제부터 시로네 파야?”

“어휴, 이럴 땐 좀 그냥 넘어가. 하여튼 눈치가 없어.”

리안에게 쏘아붙인 테스는 에이미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생각에 골몰하고 있지만 볼이 전보다 상기되어 있었다.

테스의 입가에 다정한 미소가 걸렸다.

‘좋겠구나. 에이미.’

테스 또한 여자였기에 그녀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시로네에게 에이미는 전지적 시점에서 내려다보는 한낱 점이 아니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무엇이었다.

부하들의 접근을 기세로 밀어낸 시로네는 에이미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처음의 말을 되풀이했다.

“돌아가자, 에이미.”

생각을 끝마친 에이미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응.”

에이미가 일어나자 팔코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핏덩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소란을 떨더니 이제는 마음대로 나가버리고 있었다.

‘천하의 팔코아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나?’

대륙의 추적자를 피해 조직원 전체가 섬에 숨어든 지도 어언 5년째.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게 지루할 뿐이었다.

덕분에 뇌는 약물에 절었고 피밖에 모르던 정신에도 기름이 꼈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대륙을 횡단하며 수많은 자들을 베어 버린 팔코아였다.

당시의 그는 누군가를 베기 위해 존재하는 생물체였다. 설령 대장이라도 팔코아의 실력을 무시하지 못했고 그렇기에 여태까지 추방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어이, 설마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미가 걸음을 멈추고 팔코아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소란을 부리면 당신도 곤란할걸. 지하의 손님들은 약물중독자인 데다 당신의 최고 자금줄일 테니까. 고소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하지만 우리 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마도 이 가게는 문을 닫게 될 테니까.”

“고작 그거 믿고 설쳤던 건가? 미안하지만, 이 섬에서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내륙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팔코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에이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홍안. 카르미스였군.’

대륙에 유명한 카르미스 가문은 팔코아도 알고 있었다. 특정 시점의 상태를 저장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

어떤 마약으로도 중독시킬 수 없고 어떤 약물도 침투하지 못한다. 카르미스 가문이 괜히 정신계 무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잡을 수 없는 고기였단 건가? 저 계집, 전부 다 알고 따라온 거로군.’

팔코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를 갈았다.

카르미스 가문이라면 귀족 서열 제1계급이니 그녀가 손을 쓴다면 5년 동안 공을 들인 아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루프를 유통시켜서 벌어들이는 자금은 어마어마하다.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팔코아라도 돈에는 민감했다. 돈이 없으면 루프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크크! 건방진 계집애. 이 굴욕은 반드시 갚아 주마!”

“할 수 있으면 해 보든지. 하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학교 신경 안 쓰고 제대로 놀아 볼 생각이거든.”

팔코아에게 확실하게 쏘아붙인 에이미는 시로네 일행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걱정시켜서 미안해. 이제 그만 가자.”

잠시라도 이곳에 더 있기 싫은 그들은 걸음을 빨리해 지상으로 올라왔다. 길목마다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다.

주점을 나서자 공기가 확연하게 달라진 게 느껴졌다. 테스가 두 팔을 펼치며 밤공기를 들이마셨다.

“후아, 기분 좋다. 에이미 덕분에 관광 제대로 했네. 갈리앙트 섬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왕궁을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돌아다녔잖아.”

“하하하! 그거 듣던 중 맞는 말이네. 게다가 백사장도 갔고, 항구도 들렀다가 상업 지구까지 돌았으니 유적지 빼고는 다 가 본 셈인가?”

리안의 말을 들은 에이미가 화들짝 놀랐다.

“뭐? 너희 항구까지 갔다 왔어?”

“응. 시로네가 조직원을 붙잡고 물어보는 게 빠르다고 해서. 정신없이 달렸지. 열정 넘치는 마부 아저씨 아니었으면 시간에 못 맞출 뻔했어.”

에이미는 시로네를 살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자 슬쩍 시선을 피했다. 아직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하에서 들었던 시로네의 말이 떠올랐다. 곡해할 필요 없이 친구의 소중함을 말한 것이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째서 몰랐을까? 절벽에서 추락하던 당시 시로네가 유일하게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았던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에이미는 그것의 의미를 깨달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

“에이미, 늦어서 미안해. 돌아가서 얘기해 줄게. 오는 길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

“흥, 별로 궁금하지도 않거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이미 화는 풀렸다. 하지만 에이미는 이대로 화를 내는 편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건 똑바로 해 두자고. 설마 너 오늘 일로 이상한 상상 하는 건 아니지? 공주를 구해 준 백마 탄 왕자, 뭐 그런 거 말이야.”

“응? 아닌데?”

“도와주러 와 준 건 고맙지만 나는 붙잡힌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따라간 거야. 네가 안 도와줘도 그딴 놈들은 나한테 상대도 안 된다고.”

“하하! 알아. 나는 클래스 포고 너는 졸업반인데 누가 누굴 걱정하겠어?”

시로네가 흔쾌히 수긍하자 에이미는 오히려 힘이 빠졌다.

“흥, 뭐…… 알면 됐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테스가 배를 붙잡고 까르르 웃었다. 이제야 에이미가 원래의 에이미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리안이 상업 지구로 발길을 돌리며 소리쳤다.

“배고프다! 돌아가는 길에 야식이나 사 먹을까?”

“야식? 좋아! 너무 좋아! 야호!”

\* \* \*

지스는 주점을 치우느라 자정이 넘은 시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얻어맞고 긴장하고 노동까지 했더니 체중이 두 배는 불어난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 덕분이었다.

에이미는 팔코아의 마수에서 무사히 벗어났다. 물론 자신 또한 별다른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다.

시킨 일을 제대로 했으니 아무리 팔코아라도 두들겨 팰 수 있는 명분이 없을 터였다.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겠지.’

에이미의 얼굴이 실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여태까지 지스가 만난 여자들 중에서 그녀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다. 그토록 대단한 사람이 어째서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 것일까?

‘시로네? 그 애도 평민이라고 그랬지.’

지스는 시로네가 술집에서 했던 말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 [135] 우선하는 것(6)

당시에는 겁에 질려 끼어들지도 못했지만 마음만은 시로네와 똑같았다.

하지만 시로네가 에이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리고 에이미가 그 부름에 응답했을 때, 지스는 꿈에서 깨어났다.

자신은 결코 시로네가 될 수 없었다.

“쳇, 자기도 평민이면서 되게 멋있는 척하네.”

차라리 마법 조금 배웠다고 설치는 인간이었으면 질투심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만 방자한 귀족들을 대할 때면 가끔은 평민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하지만 시로네 또한 평민이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다.

지스는 마차에서 에이미가 지었던 슬픈 미소를 떠올렸다. 시로네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아니, 절대 모를 것이었다. 아무 사이도 아닌 자신의 앞이었기에 드러냈을 속마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다시금 속이 쓰려 왔다.

“젠장! 하필 평민이야? 무슨 핑곗거리도 만들 수가 없잖아!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집 앞에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 버린 지스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루의 깊숙한 곳에 촛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여동생이 여태까지 기다린 모양이었다.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

“유나야, 왜 안 잤어? 내일 일은 어떻게 나가려고?”

“그럼 오빠도 안 들어왔는데 잠이나 자라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바빠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지스는 유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여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어디 가서 빠지는 인물이 아니었다. 게다가 배운 건 없어도 현명하고 심성이 착했다.

유나는 지스의 자부심이었다. 그렇기에 자신과 같은 초라한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성공 따위는 바라지도 않지만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꾸릴 수 있는 아이였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솔직히 말해.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이잖아. 안 그러면 내일 아침밥 안 해 준다?”

“하하하! 아이구, 무서워라. 그냥 자존심 상하는 일이 좀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어휴, 그놈의 자존심은 맨날 상해? 썩어서 먹지도 못하겠네. 아무튼 일단 씻어. 오빠한테서 땀 냄새 장난 아니야.”

지스의 눈길이 절로 따스해졌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설령 남들처럼 대단하지 못한들 어떠한가? 유나만 있다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다.

지스는 유나를 끌어안았다. 똑같은 냄새를 공유하는 가족의 체취가 두려움에 떨었던 하루의 피곤함을 날려 버렸다.

“아우, 냄새!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일단 씻으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유나야. 오빠는 꼭 항구의 지배자가 될 거야.”

“치! 아직도 그 소리야? 항구의 지배자가 뭔데? 그래 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

“하하! 그렇긴 하지.”

유나는 피식 웃으며 지스의 품에 안겼다. 사실은 땀 냄새가 싫지 않았다. 한 방울의 땀마저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은 게 없었을 테니까.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오빠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지스는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밤 구경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고대의 유적(1)

시로네 일행은 새벽부터 분주했다. 여자들이 씻는 동안 남자들은 집을 청소했고 남자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가자 여자들은 거울 앞에 앉아서 머리를 말리고 몸단장을 했다.

목욕을 끝내고 나온 시로네와 리안은 여자들의 방을 들여다보고 시간이 멈춘 줄 알았다. 에이미와 테스가 여전히 거울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남자들이 먼저 아침을 먹었다. 어젯밤에 시내에서 사 온 음식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울 무렵 동이 텄다.

여자들은 그제야 옷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방문을 들락거릴 때마다 옷이 확확 바뀌었다.

리안은 테스와 에이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그래, 여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어 갔다.

하지만 분명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것으로 갈아입어 놓고 잠시 후에 또 입고 나오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정말로 한번 해보자는 것인가? 이건 보는 사람의 기억력을 시험하겠다는 명백한 도전이 아닌가 말이다.

“아, 그냥 아무거나 좀 입어. 드래곤 잡으러 가냐? 방어력도 없는 헝겊 쪼가리에 왜 그렇게 신경을 써?”

테스는 경악에 찬 눈동자로 리안을 쳐다보았다.

“어우, 진짜 저질! 너희가 옷차림에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가 더 꾸미는 거잖아.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입 다물고 있어.”

에이미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시로네, 이거 이상하지 않아?”

“아니, 예쁜데! 에이미는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그래? 흐음.”

에이미는 딱히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테스는 그런 에이미가 부러울 따름이었다.

“제발 너도 시로네 좀 보고 배워라. 어휴, 밉상.”

테스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자 리안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대체 자신이 무엇을 어쨌다고 저러는 것인가? 마음속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건 검사의 미덕이자 자랑거리였다.

“시로네,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냐? 나도 좀 가르쳐 주라.”

“응? 간단해. 뭘 입어도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으하하하하!”

리안이 배꼽을 잡으며 뒤로 넘어졌다.

오전 11시.

옷을 갈아입은 여자들은 배낭을 점검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나이프, 나침반과 로프까지 꼼꼼히 챙겼다.

거울을 보고 만족한 테스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됐어! 유적 탐사 준비 완료!”

“그럼 이제 잘까? 내일 아침에는 꼭 출발하자고.”

리안의 뼈 있는 농담에 테스의 얼굴이 빨개졌다.

“내가 뭐 얼마나 늦었다고 그래? 그리고 에이미도 같이 준비했단 말이야.”

“갑자기 에이미가 왜 나와? 에이미가 무슨 인질이냐?”

“그러는 너야말로 후줄근한 외출복에 무식한 대검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멀리서 보면 완전 원시인 같거든! 분수를 알아야지.”

에이미가 인질로서 사명을 다했다.

“리안, 미안해. 사실은 내가 늦은 거야. 테스는 나보다 빨리 준비했어.”

“하하! 괜찮아. 에이미는 오래 준비한 티가 나니까.”

테스의 눈이 도끼처럼 사나워졌다.

“뭐야? 그럼 나는 하나도 안 예쁘다 이거야?”

“흐음, 어디…….”

리안은 테스를 훑어보았다.

글쎄, 원래부터 예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꼭 치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로 공을 들인 모양이었다. 평소와 달리 향수까지 뿌렸으니 심미안이 없는 리안이 보기에도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 뭐. 예쁘다고 말해 줄 정도는 되네.”

“응?”

받아칠 말을 산더미처럼 쌓아 두고 있던 테스의 머릿속이 한순간에 무장해제당했다.

리안의 입에서 예쁘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졌다는 사실에 더 빨개졌다.

“내, 내가 뭐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꾸민 줄 알아! 이 멍청이! 원시인!”

“그래. 알았으니까 제발 여기서 좀 나가자. 해 떨어지면 구경도 못 한다고.”

리안이 친구들을 바깥으로 내몰았다. 그리하여 시로네 일행은 일어난 지 5시간 만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시로네의 처음 계획은 에이미와 단둘이 유적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예상보다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따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그들은 백사장에 늘어선 마차 중에 아무거나 잡고 동쪽으로 향했다.

섬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가야 했기에 꽤나 고단한 여정이었다. 하지만 마차에서 수다를 떠는 네 사람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어? 얘들아, 저기 봐!”

시로네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차도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울창한 숲을 이룬 산이 보였다.

마치 낙타의 혹처럼 산맥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저 산맥의 끝자락에 케르고 유적이 있다고 했다.

“토아 산이구나. 오빠한테 들었는데 원래 갈리앙트는 화산섬이었대. 바다 밑에서 새어 나온 용암이 굳어서 섬이 된 거지. 500년 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은 휴식기에 들어갔다는데 다시 활동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대.”

“그렇구나. 케르고 유적도 화산재에 파묻혀서 절반밖에 안 나와 있다고 하던데.”

“맞아. 갈리앙트 자치 정부에서 유적지 복원을 제안했지만 원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어. 아마 유적지에 가면 얼마나 매몰됐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어째서 반대했을까? 유적을 복원해 준다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냐?”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어쩌면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고. 갈리앙트 자치 정부는 섬에 들어온 지 100년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꽤나 비밀이 많구나. 정말로 흔한 관광지만은 아닌 모양이야.”

“아무래도 그렇지. 현존하는 유적 중에 원주민이 직접 관리를 하는 곳은 극히 드무니까. 케르고 유적은 역사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아.”

시로네는 에이미의 설명을 토대로 다시 산을 살폈다.

토아 산의 정글은 오직 케르고인의 것이었다. 갈리앙트 정부도 원주민 자치 구역에는 얼씬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로네는 갑자기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산의 깊숙한 곳에서 야생의 시선이 느껴지는 건 단순한 착각일까?

마차는 케르고 유적지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했다. 마부가 여기서부터는 마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일러주었다.

시로네는 마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많은 가게들이 보였다. 마사회와 지역 상회 간의 독점 협약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뭐야! 내 돈 주고 마차를 탔는데 왜 못 가? 그럼 이 많은 짐은 어떡하라고?”

뒤를 이어 도착한 마차에서 배가 나온 중년인이 마부에게 성질을 냈다. 마차에서 내린 아내와 두 딸들도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운송업체 계약이 그렇습니다. 짐은 유료 보관소가 있으니 거기에 맡기시면 됩니다.”

“이런 날강도들 같으니라고! 저렇게 길이 뻥 뚫려 있는데 못 간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여기서 땡전 한 닢이라도 꺼낼까 보냐!”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좋은 여행 되십시오.”

마부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닌 듯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고 말을 몰아 떠나 버렸다.

결국 중년인은 양손에 짐을 들고 유료 보관소로 향했다. 그러다가 딸들이 간식 가게를 가리키자 짐을 놓고 군것질거리를 사 주었다.

시로네는 중년인의 모습이 남 일 같지 않았다.

“우리도 미리 알았더라면 짐을 줄였을 텐데.”

“상관없지 않을까? 관광지에 큰 위험이 도사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잖아. 어디까지나 탐험이 목적이니까.”

리안은 멀어지는 중년인을 돌아보았다. 딸들의 애교에 기분이 풀렸는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유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얌체 같기는 하지만 머리 썼네. 관광객이라면 돈을 안 쓸 수가 없겠어.”

“그렇긴 하지만 꼭 상술이라고 볼 수만은 없어. 관광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원주민들도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에이미의 말에 수긍한 시로네 일행은 도보로 이동을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보고라더니 역시나 관광객이 많았다. 유적지에 다가갈수록 숫자는 점점 불어났고, 요금소에 도착하자 병목현상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와, 저기 보여?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저기 아치에 서 있는 남자 보이지? 내 생각에는 아마도 원주민 같아.”

시로네는 에이미가 가리킨 곳을 돌아보았다. 중키의 남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의복은 문명화되어 있었으나 정면을 노려보고 있는 눈빛만큼은 분명 야생의 것이었다.

테스가 어울리지 않게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으, 무섭게 생겼다. 얼굴에도 문신을 했잖아?”

## [136] 고대의 유적(2)

“응. 실제로도 강해 보여.”

“그러게.”

시로네와 에이미도 동의했다. 단순히 문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예민한 감각은 남자의 모습에서 실제로 잠재해있는 무력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리안의 생각은 달랐다.

“흥, 눈에 힘준다고 없던 힘이 생기지는 않아. 겁먹을 필요 없다고.”

리안의 감각은 남들보다 떨어졌다. 그렇기에 스키마를 열지 못하는 것이지만 시로네는 오히려 그 모습에서 든든함을 느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리안은 우직하게 친구들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좋아! 유적 탐험 시작이다!”

요금소를 지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케르고 유적지는 신을 모시던 사원으로 동서 2킬로미터, 남북 2킬로미터의 정사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육교를 통해 200미터의 해자를 건너면 기다란 익랑이 펼쳐졌고 참배로를 따라 500미터를 더 지나서야 중앙 사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와, 진짜 엄청 크다. 이게 정말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란 말이야?”

“아까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화산재에 파묻혀서 이 정도지 실제로는 몇 배나 더 크대.”

시로네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화산 폭발이 500년 전의 일이니 화산재는 표층보다 아래에 형성되어 있을 터였다.

앞서가고 있던 에이미가 시로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시로네, 뭐 해? 중앙 사원도 둘러봐야지.”

시로네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의아해진 에이미가 시로네에게 다가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에이미, 스피릿 존으로 들어가 봐.”

“스피릿 존? 갑자기 존은 왜?”

그 순간 깨달은 에이미가 손바닥을 내리쳤다.

“아아, 그렇구나!”

마법사는 스피릿 존으로 감각을 확장시킬 수 있다. 만약 유적지 아래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면 공감각에 걸리지 않을 리가 없었다.

“알았어. 해 볼게.”

에이미는 스피릿 존으로 들어갔다. 공감각으로 지하를 탐색하던 그녀의 미간이 점차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5초 정도가 지나자 결국 무언가를 깨달은 듯 존을 풀어 버렸다.

“시로네, 이거…….”

“응. 아무것도 안 잡혀. 최소한 암반이라도 있을 텐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화산재 층이 두꺼워서 그런 거 아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쩔쩔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던 시로네가 눈치를 채고 소리쳤다.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에이미라면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장기는 사방식 중에서도 사거리가 긴 타깃형이기 때문이었다.

타깃형은 십자가 존이라고도 불리는데, 두 선의 교차점에 마법사가 위치하며 그것을 빠르게 자전시켜 특정 목표물을 신속하게 명중시키는 형태였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졸업반에 들어간 에이미는 전공을 선택하면서 타깃형을 스나이퍼 모드로 발전시켰다.

스피릿 존의 형태가 완벽한 일자인 스나이퍼 모드는 비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마법사가 존의 끝에 위치한다는 게 특징이었다.

이런 형태를 지향성 존이라고 하는데, 존의 회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타깃형보다 최소 네 배나 긴 사거리를 낼 수 있었다.

존의 반경을 직경 500미터까지만 확장시켜도 타깃형에서는 1킬로미터가 넘는다. 거기서 다시 스나이퍼 모드로 들어가면 무려 4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에이미의 기본 반경은 직경 68미터. 타깃형으로 전환하면 143미터였고 스나이퍼 모드로 들어갔을 시 500미터가 넘어갔다.

“좋아, 해볼게.”

에이미는 수열식과 동시에 존으로 들어갔다. 사방식의 변환이 고속으로 이루어지며 축이 90도 기울어진 십자가로 우뚝 섰다.

‘스나이퍼 모드!’

에이미의 존이 쏟아져 내리듯 아래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앙다문 이빨 사이로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존이 길어지는 만큼 내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방해거리가 없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땅 밑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존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어지고 있었다.

에이미는 더욱 필사적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에 닿았다고 생각한 순간, 존이 박살 나면서 의식이 흔들렸다.

“헉! 헉!”

“에이미! 괜찮아?”

시로네는 황급히 에이미를 부축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괜찮아. 이거 아무래도 힘들겠어. 300미터까지는 뚫었는데 그 이하로는 불가능해. 거기서부터는 무슨 바다에 실을 던진 것처럼 그냥 떠다녀 버려.”

시로네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에이미의 존은 결코 내구력이 약하지 않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존을 연약한 실에 비유하고 있었다.

“그래도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냈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성과라면 성과겠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내구력을 유지하면서 존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 최소한 수준급의 조너가 아니라면 스피릿 존으로 탐색은 불가능하겠어.”

시로네가 느끼기에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유적지의 지하는 탐색할 엄두도 내지 못할 듯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레스 오빠한테 말해 보는 건데. 오빠가 속해 있는 탐사대 정도라면 이곳을 탐색할 만한 조너도 있을 거야.”

“아니면 에텔라 선생님에게 부탁하거나.”

에텔라는 수도사답게 내구력에 특화된 조너였다. 이런 지형을 탐사하기에는 제격인 인물이었다.

“에텔라 선생님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도달한 곳쯤은 손쉽게 뚫어 버릴 테니까.”

리안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런 거라면 굳이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듣기로 교장 선생님이 힌트를 줬다면서. 그분의 말씀에는 스스로 알아보라는 뜻도 들어 있지 않을까?”

시로네와 에이미는 서로를 돌아보며 입을 다물었다. 효율만 따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의미를 망각할 때가 있었다.

에이미는 솔직히 인정했다.

“리안의 말이 맞아. 하지만 너무 아깝잖아. 여기만 뚫으면 유적을 조사할 필요도 없어. 차라리 이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 보는 건 어때?”

시로네는 에이미의 마음을 이해했다. 미로에 대한 힌트를 찾기 위해 떠난 여행이지 유적에서 탐험놀이나 하려고 온 게 아니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강구해 보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더 궁금해져. 이제는 직접 눈으로 봐야 만족을 할 거 같아.”

지하에 대한 막연한 상상만을 남겨 둔 채 시로네 일행은 탐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케르고 유적은 정말로 흔한 관광지에 불과했다.

진지하게 조사하는 그들을 비웃듯 아저씨들이 잡담을 나누고 아이들이 바람개비를 돌리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에이미,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지?”

“묻지 마. 나도 지금 자괴감 느끼는 중이니까.”

마지막 루트인 중앙 사원까지 둘러보고 나온 일행은 결국 조사를 중지했다. 지상의 유적에서는 특이한 점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해가 안 돼. 교장 선생님은 이곳에 가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수천 년 전의 유적이 미로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어쨌거나 지하에 뭔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 역시 스피릿 존으로 탐색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리안이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빛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스피릿 존으로 뚫을 수 없다면 차라리 직접 땅을 파서 들어가면 어떨까? 결국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시로네와 에이미는 어처구니없다는 듯 리안을 바라보다가 다시 대화를 이어 나갔다.

“원주민과 접촉해 보는 건 어때? 현지인과 함께 살고 있으니 공용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흐음, 그러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차라리 통역사를…….”

리안이 억울한 듯 소리쳤다.

“야! 왜 대꾸도 안 해 주는 거야? 땅을 파자니까!”

테스가 끼어들었다.

“바보야, 자치 정부도 손을 못 대는 유적인데 무슨 수로 삽을 꽂아? 그런 짓을 했다가는 문화유산훼손죄로 중형을 받는다고.”

리안에게 핀잔을 준 그녀는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탐문이 가장 좋지만 그것도 당장에는 힘들 거 같아. 통역사도 찾아야 하고 원주민 자치 지구의 출입 허가증도 필요하고.”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 당장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들어 볼래?”

“어, 정말? 말해 줘! 어떤 건데?”

리안이 혼자 창피를 당할 순 없다는 듯 미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설마 몰래 땅을 파잔 얘긴 아니겠지?”

테스는 필사적으로 화를 억누르고 말을 이었다.

“……아무튼. 내가 생각한 방법은 이래. 너희가 유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나는 다른 쪽을 좀 둘러봤거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

“특이한 점? 그게 뭔데?”

테스는 주변 정경을 시선으로 훑었다.

“사람들을 자세히 봐. 대부분이 관광객이지만 간혹 아닌 자들도 있어. 무리를 지어 다니고, 무장을 했으며, 유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

세 사람은 주위를 살폈다. 확실히 그랬다. 분명 많지는 않지만 무장을 한 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 저들은 용병이야. 관광 명소에 어째서 용병들이 돌아다닐까? 개중에는 상당히 강해 보이는 자들도 있어. 결국 이 유적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용병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고?”

“바로 그거야. 어차피 원주민과 접촉하는 건 시간도 걸리고 또 말을 안 해 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용병들은 달라. 이곳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야.”

시로네는 테스의 눈썰미에 감탄했다. 다른 사람이 유적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녀는 혼자서 외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테스의 출신을 안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령관과 외교관을 배출한 엘자인 가문.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간자였다.

물론 적국의 입장에서는 간첩이지만 세계 각국에 침투하여 보내오는 정보들은 토르미아 왕국의 외교 전략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었다.

‘확실히 괜찮은 생각이다. 아니,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생각이야.’

시로네는 테스의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다.

“좋아. 그러면 이제부터 용병을 미행하면 되는 건가?”

“미행? 흐음, 솔직히 자신 없는데. 수준급 용병에게 걸리면 골치 아파져. 특히나 감각계 스키마라면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지. 나 혼자 미행한다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구나. 나는 기척을 숨기는 방법조차 모르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후후, 굳이 찾아다닐 필요 있을까? 용병이라면 널리고 널린 곳이 있잖아?”

“응? 그런 곳이 있어? 어딘데?”

테스가 윙크를 하며 어딘가를 가리켰다.

“낮술이나 한잔할래?”

\* \* \*

유적지의 남서쪽 내벽에는 판잣집으로 만든 여러 가게들이 이어져 있었다.

음식점, 술집, 부식 가게 순이었는데, 일반 상점에 비하면 초라한 규모지만 벌이는 훨씬 좋았다.

유적지 내부에 있는 데다가 물가마저 비쌌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편하다는 이점 하나로 이곳을 찾았다.

시로네 일행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대낮부터 술을 마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했지만 두 테이블을 빼고는 전부 자리가 차 있었다.

시로네 일행은 구석을 선택했다. 시로네의 옆에 에이미가 앉고 건너편에는 리안과 테스가 자리했다.

“술, 마실 거야?”

“아무래도 시키긴 해야겠지? 술을 파는 곳이니까. 하지만 안주 위주로 먹자.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게 낫겠어.”

테스가 주문했다. 갈리앙트 섬의 전통주와 함께 뜨거운 국수, 다진 고기가 나왔다.

아침을 부실하게 먹은 네 사람은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먹는 데 치중했다.

그 순간 옆에서 킥킥 웃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비웃음이 계속 이어지자 울컥할 수밖에 없었다.

## [137] 고대의 유적(3)

“저 자식들, 지금 우리 보면서 웃는 거 맞지?”

“됐어. 고개 돌리지 마. 술 취해서 저러는 거야.”

테스가 리안의 다리를 두드리며 진정시켰다. 술집에서 용병들이 싸우는 일이야 예사지만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끝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저것들 아직도 반응이 없네. 설마 안 들리는 건 아닐 테고. 너희보고 웃는 거야, 멍청이들아.”

“저 자식 검 좀 봐. 무식하게 크잖아? 옆에 여자도 크기는 장난이 아니구만. 어딘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푸하하하!”

리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아도 친구를 조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자 테스가 리안의 손목을 붙잡았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당장이라도 테이블을 엎어 버릴 기세였다.

시로네는 국수를 먹으면서 기억을 더듬었다.

들어오면서 봤을 때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용병은 4명이었다. 남자가 셋, 여자가 하나. 궁수가 포함되어 있는 듯했고 여자는 무기가 없는 걸로 보아서 마법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궁수에 마법사. 제법 탄탄한 그룹이네.’

용병들의 조롱이 쉬지 않고 이어졌다.

“저 금발 머리 이제는 괜히 먹는 척하네? 제발 한 번만 돌아봐주라. 술병 날릴 준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기분이 무지 더럽거든? 그래서 피 좀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우, 그만해. 애들 놀리는 게 재밌니?”

여자가 말렸으나 진심은 담겨 있지 않았다. 대놓고 조롱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즐기는 게 취향인 모양이었다.

“어이, 꼬맹이들. 싸울 용기도 없냐? 여자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지? 아마 저 자식들 자기가 엄청 세다고 허풍치고 다녔을걸.”

“여보세요? 들리세요? 들리면 대답 좀 하세요, 아니면 직접 가 드릴까요?”

리안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참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리안은 결국 움직이지 못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로네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시로네…….’

기사 서약으로 맺어진 시로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고작 이 정도 굴욕도 참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로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셈이었다.

‘그래, 이것도 수행이다. 나는 수습 기사로서 이번 여행에 참여한 거야. 오히려 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막상 각오를 다지자 거짓말처럼 버틸 만해졌다. 말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리안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0분 정도가 지나자 용병들이 떠날 채비를 했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술자리의 안주로는 제격인 애송이들이었다.

“크크, 살다 살다 이렇게 비굴한 놈들은 처음 보네.”

“어휴, 됐어. 약한 애들이니 당연히 무서웠겠지. 불쌍하지도 않니?”

“야! 너희 좋겠다. 안 맞아도 되니까. 평생 그렇게만 살아라. 장수할 거다.”

용병들이 술값을 지불하고 사라졌다. 그러자 여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던 가게의 주인이 테이블로 달려왔다.

“너희 괜찮냐? 천하의 못된 놈들. 순진한 애들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다니.”

“저 사람들을 아시나요?”

“근래 들어 자주 오지. 술을 퍼마시고는 자네처럼 싸우기 싫은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다네. 오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어쨌거나 잘 참았어. 이럴 때는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시로네는 눈을 빛냈다. 유적지에 무언가가 있지 않다면 마법사가 끼어 있는 파티가 찾아올 리가 없었다.

테스는 리안을 다독였다. 우직한 그들은 시로네처럼 자신마저 속이는 능력은 없었다. 말 그대로 깡으로 참았던 상황이었다.

“잘했어, 리안. 사고 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위험하기는 했지. 하지만 어쨌든 다시 만나게 될 거잖아? 그걸 위해 참은 거 아냐?”

“맞아. 우리도 출발하자.”

시로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술값을 지불하고 가게를 나왔을 때 용병들은 중앙 사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시로네 일행은 미행 대신에 높은 곳에서의 감시를 택했다. 궁수의 스키마 빌드는 대부분 감각계이기 때문에 거리를 좁혔다가는 들킬 공산이 컸다.

사원 건물 4층으로 올라간 시로네는 용병들을 살펴보았다. 의외로 서른이 넘지 않은 자들로 구성된 젊은 파티였다.

야무진 체형의 검사가 리더인 듯했다. 허리에 차고 있는 검은 테스가 디자인만 보고도 장인의 이름을 떠올릴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철검이었다.

그의 옆에는 둔기를 든 거한이 위치했고 후열에는 장발을 기른 남자와 로브를 입은 여자가 따르고 있었다.

“전사가 둘. 그중에 1명은 검사. 궁수가 하나, 마법사가 하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 관광지인데도 대열을 갖추고 있어. 실전 경험이 많은 파티야. 미행하지 않은 건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

용병들은 중앙 사원의 동쪽에 있는 계단식 제단으로 걸어갔다. 시로네는 그곳을 기억해 냈다. 특이하게도 원주민이 지키고 있어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던 장소였다.

원주민에게 다가간 용병들 중에서 궁수가 손짓발짓을 섞어 말을 했다. 아마도 케르고 언어를 할 줄 아는 듯했다.

원주민은 무뚝뚝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는 게 분명했다. 시로네 일행은 지금이 적기임을 깨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원주민이 장치를 가동하자 제단에 직사각형의 균열이 일더니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두꺼운 석문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어둠의 장벽이 드리워진 입구가 나타났다.

“잠깐만요!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던 용병들이 굳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긴장은 금세 사라지고 짜증이 밀려들었다. 술집에서 괴롭히던 애송이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뭐야? 네놈들 언제 따라온 거야?”

“아저씨, 저희도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리 꺼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낸 곳인데! 여기가 어딘 줄이나 알아?”

“그러지 말고 좀……!”

시로네가 재차 간청을 하는 순간 리더가 검을 뽑아 들었다. 발검의 속도가 빠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없이 반복한 끝에 몸에 밴 자연스러움이 발군이었다.

“죽고 싶냐? 우리가 만만해 보여? 안 꺼지면 여기서 전부 목을 따 주겠어.”

시로네는 전과 달리 물러서지 않았다. 술집에서는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똑바로 눈을 마주 보고 있었다. 그 대비 효과가 리더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 자식들이……!”

제단을 지키는 원주민이 말했다.

“일행인가?”

리더는 살기를 거두고 궁수를 돌아보았다.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궁수밖에 없었다.

“이 자식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일행이냐고 묻는데?”

“흥! 일행은 무슨. 지금 처리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

궁수가 리더의 말을 전하자 원주민의 눈이 부릅떠졌다. 마치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분이 차오른 그가 고압적인 어투로 말했다.

“전사는 아무 곳에서나 싸우지 않는다. 신성한 제단을 피로 어지럽히는 자는 절대로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다.”

궁수가 입맛을 다시며 통역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 같아. 여기서 싸우면 안 들여보내 준다고 하네.”

“쳇! 운 좋은 꼬맹이들. 두 번이나 목숨을 건지는군.”

리더는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는 듯 착검과 동시에 제단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다른 일행도 뒤를 따라 어두운 문으로 들어갔다.

시로네 일행은 잠시 동안 자리를 지켰다. 함께 들어갔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원주민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신경 쓰였다.

“시험을 받고 싶다면 들어와라. 천사의 눈동자가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글쎄. 기왕 왔으니 편히 놀다 가라는 거 같은데? 쫓아낼 생각이었으면 문을 닫았겠지.”

시로네는 눈치를 보며 걸음을 옮겼다. 원주민에게서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그제야 확신을 가진 네 사람은 심연처럼 어두운 문으로 들어갔다.

순식간에 8명이 사라졌지만, 그 사실을 아는 관광객은 아무도 없었다.

미로의 시공(1)

제단으로 들어온 시로네는 일단 구조를 살폈다.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횃불이 켜져 있어 안은 어둡지 않았다.

정사각형의 구멍이 땅속으로 꺼져 있고 내벽을 따라 계단이 직각 나선처럼 내려가고 있었다.

아래를 살피니 벌써 나선을 두 바퀴나 돌아간 용병 일행이 보였다.

시로네는 걸음을 빨리했다. 어쩌면 두 번째 관문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용병들과 거리를 벌리는 건 좋지 않았다.

결국 8명이 집단을 이루어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다.

리더는 막대한 돈을 주고 산 정보에 무임승차한 애송이들에게 짜증이 났다.

하지만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게 우선이었으니 싸울 생각은 잠시 접어 두었다.

용병 파티의 후미를 맡고 있는 궁수가 뒤따르는 시로네에게 물었다.

“너희 제정신이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째서 이런 곳을 들락거려?”

“그럼 형은 이곳에 왜 왔는데요?”

“뭐야, 설마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거야?”

“네. 모르는데요.”

궁수는 황당한 듯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적지에 숨겨진 문이 존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

유적지 지하에 무언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여기까지가 유적지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였다.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말해 주면 안 돼요? 이곳은 왜 들어온 거죠?”

궁수는 어찌할까 고민했다. 숨겨진 문을 찾기 위해 정보 시장을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다.

게다가 암호는 정보 등급이 높아서 20골드라는 거금까지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문을 통과한 이상 정보의 가치는 소실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거기까지 생각한 궁수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이러면 어떨까? 너희가 문을 들어왔다는 건 보안 등급이 높은 암호를 뚫었다는 얘기야. 돈으로 환산하자면 족히 100골드 정도는 될걸. 그래서 말인데, 너희에게 정보를 팔게. 질문 하나당 5골드에 말이야. 어때?”

“괜찮아요. 어차피 내려가면 알게 될 텐데요 뭐.”

시로네가 생각할 필요 없다는 듯 말하자 궁수는 열이 뻗쳤다.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어린애에게 조롱당한 기분이었다.

‘이런 싸가지없는 꼬맹이가……!’

그 순간 리더가 걸음을 멈췄다. 선두가 정지하자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순서대로 속도를 줄였다.

“아니, 듣고 보니 그게 좋겠군. 우리가 여길 찾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걸 날로 삼키려고 들면 안 되지. 여기서 내려가고 싶다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해.”

시로네는 에이미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자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리더에게 말했다.

“그럼 안 내려갈게요. 저희는 여기에 있을 테니까 내려가서 일 보세요.”

“이런 개……!”

리더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해 버렸다.

술집에서 고개도 못 돌릴 때 알아봤어야 했다. 비리비리한 것들이 입만 살았다는 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질문 하나에 1골드라면 거래에 응할 생각도 있어요.”

“응? 1골드?”

리더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어차피 저들에게서 본전을 챙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몇 골드라도 버는 게 이득이 아니겠는가?

“좋아. 질문 하나당 1골드다. 먼저 1골드를 내.”

시로네는 금화 주머니를 뒤적거려 1골드를 꺼냈다. 용병들과 떨어져 따로 조사를 해도 될 일이었지만 친구들은 시로네의 판단을 존중했다.

시로네는 이 상황에 1골드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다. 지하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른다. 1골드로 미리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면 절대로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예를 들어 용병들만 알고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경우 저들이 함정에 빠트리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지하의 위험도와 탐색 난이도를 대충은 예상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왜 온 거죠?”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할 경우 말을 지어낼 여지가 있었기에 시로네는 핵심적인 부분을 파고들었다.

## [138] 미로의 시공(2)

하지만 리더 또한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다.

“원주민을 만나러 왔다. 됐지?”

“그것도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설명은 해 주셔야죠. 계약 위반이에요. 이런 식이라면 저는 더 이상 안 물어볼래요.”

리더는 아차 싶었다. 시로네를 약 올릴 생각만 하다가 너무 일찍 장사를 접은 셈이었다.

눈치 빠른 여자 마법사가 추가로 설명했다.

“우리도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왜냐면 진짜로 원주민을 만나러 왔을 뿐이거든.”

“그렇군요.”

시로네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들도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일단 함정에 빠질 위험은 없어진 셈이었다.

나름 괜찮은 장사라는 생각에 시로네는 1골드를 더 꺼냈다.

“원주민은 왜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1골드요.”

돈을 받은 궁수는 갈등하듯 입맛을 다셨다. 솔직히 남에게 밝히기 부끄러운 얘기였다.

“루프를 구하기 위해서야. 시장에서도 유통되지만 여기서는 훨씬 싼값에 대량으로 살 수가 있지. 그걸 팔아서 모험 밑천을 마련할 생각이야. 자, 이러면 대답이 됐나?”

시로네는 잠시 충격에 빠졌다. 유적지의 비밀과는 상관없는 루프 밀매의 장소였다니.

하지만 용병들 또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이곳을 찾았기에 단정하기에는 일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예상하고 전혀 다른데? 마약을 파는 곳이라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일반인에게는 마약이지만 원주민에게는 제사 도구야. 따라서 신성시하는 물건일 터. 그렇다는 말은 결국…….’

생각을 끝마친 시로네가 물었다.

“혹시 이곳은 원주민 자치 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 아닌가요?”

“뭐? 너 어떻게 그걸…… 아차!”

실수를 깨달은 궁수가 인상을 찡그렸다. 돈을 받지도 않고 대답을 해 버렸다.

그러자 시로네가 주머니를 뒤져 1골드를 꺼냈다. 급해서 물어보기는 했지만 속임수를 쓸 생각은 없었다.

“아, 여기 1골드요. 먼저 물어서 죄송해요.”

궁수는 시로네가 내민 손을 빤히 바라보았다.

물론 1골드는 쉽게 벌 수 없는 돈이지만 나름의 경력을 쌓은 용병이라면 벌벌 떨 만한 금액은 아니었다.

“쳇! 됐어. 내가 실수한 거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계약이 그런 거잖아요.”

“알아! 그냥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다는 거야. 젠장,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직 나도 멀었다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서비스였다고 생각할게요.”

시로네는 미련 없이 금화를 집어넣었다. 안 받겠다는데 굳이 괜한 낭비를 하는 건 건전한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궁수는 괜히 부아가 치밀었다. 언제부턴가 밤톨만 한 아이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에 나도 하나 물어보자. 어떻게 알아차린 거야? 사실 그 내용은 극비인데.”

“루프는 원주민에게 신성한 물건이니까요. 게다가 루프를 팔아서 큰돈을 마련할 만큼 마진이 엄청나다면 방만하게 풀린 것도 아닐 거고요. 결국 원주민 중에서도 권한을 가진 사람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가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자치 구역밖에 없잖아요.”

궁수는 할 말이 없어졌다. 돈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발견한 게 케르고 유적이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루프를 조사하고 정보 시장을 뒤져서야 얻어 낸 결론이 시로네의 짧은 말에 전부 담겨 있었다.

“쳇!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는구나. 질문은 더 없냐?”

“네, 없어요. 이제 내려가서 확인하죠 뭐.”

궁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시로네가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짐작했다. 아마도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더 이상 해 줄 말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시로네 일행은 그로부터 20분 동안을 내려갔다. 나선으로 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깊이였다.

계단의 끝에 도착하자 외길의 복도가 이어졌다. 10미터 앞에 설치된 철문에 2명의 원주민이 서 있었다.

바깥의 원주민과 다르게 상체를 드러내고 있었고 바지 아래로 맨발이 보였다.

배꼽에서 시작된 문신이 가지를 치면서 올라가 얼굴까지 이어졌는데 멀리서 보기에도 무시무시했다.

시로네는 저곳이 자치 지구는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적어도 몇 킬로미터는 걸어야 토아 산의 정글로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용병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통역을 맡은 궁수가 리더의 옆자리로 위치를 바꿨다.

케르고 언어로 몇 마디 암호를 교환하자 원주민이 스위치를 내렸다.

철로 만든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문이 좌우로 열렸다.

“우와…….”

시로네는 마치 낯선 세계에 떨어진 듯 눈을 빛냈다.

석재 벽으로 세공된 팔각형의 방이었다. 입구의 건너편에 철문이 보이고 3명의 남자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중앙에는 방의 형태와 똑같은 팔각형의 제단이 납작하게 깔려 있었는데, 8개의 모서리 위쪽에는 대략 직경 30센티미터 정도의 구체가 둥둥 떠 있었다.

시로네는 기억을 떠올렸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구체였다.

“어라, 저건?”

궁수가 의아한 듯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으면서 눈에 익은 것이 있을 확률은 극히 희박했다.

“왜 그래? 저게 뭔지 알고 있냐?”

“저건, 분명 미로의…….”

리더가 입술을 이기죽거렸다.

“흥, 네가 뭔데 아는 척이야? 왜, 아랫도리에 달린 쌍방울이라도 생각났냐?”

리더는 술집에서부터 시로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싸울 용기도 없으면서 여자 앞에서는 목에 힘이나 주고 다니는 인간을 증오했다. 왜냐하면 그는 목에 힘을 줄 여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미로? 방금 미로라고 했나?”

입구를 지키던 원주민이 물었다. 언어를 모르는 시로네도 미로라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상황이 궁금해진 궁수가 선심 쓰듯 통역을 더했다.

“미로를 아냐고 물어보는데?”

“네.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궁수가 그렇다고 말하자 원주민의 눈매가 일그러졌다. 문신이 휘어지면서 마치 전설 속의 도깨비를 보는 듯했다.

“만났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에요. 진짜로 만났어요.”

원주민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하지만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는지 금세 홀가분한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는다. 오로지 천사의 눈이 너를 지켜볼 것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철문을 닫아버리자 시로네도 아쉬움을 접고 돌아섰다. 어차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었다.

용병들이 중앙으로 걸어가자 반대쪽 철문에서도 1명의 원주민이 다가왔다.

보아하니 3명의 원주민 중 2명은 문지기였고 지금 다가오는 남자만이 다른 역할을 맡은 듯했다.

문신의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보통의 케르고인이 빨간 문신을 하는 반면 이 남자의 문신은 백색이었다.

“여기는 성취와 희생의 방이다. 천사의 여덟 눈동자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케르고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미로의 시공을 통과해야 한다.”

미로라는 말을 들은 시로네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궁수는 더 이상 통역을 해 줄 생각이 없는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미로? 방금 미로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네 통역사도 아니고 왜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하는데?”

“어차피 동료들에게 말할 거잖아요. 빨리 말해 줘요.”

“싫어. 이제부터는 서로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도 할 일이 있어서 온 거니까.”

백색 문신의 남자는 팔짱을 끼고 그들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시로네가 통역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 손짓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너희 중에 고대어를 익힌 자가 있는가?”

“아, 내가 조금 할 줄 알아.”

“그렇다면 통역해라.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다. 천사의 눈동자는 미로의 시공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이것들은 우리 일행이 아니야. 무엇을 판단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분리시켜 달라고.”

“아니. 성취와 희생의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너희는 하나다. 성취할 것인가 희생할 것인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젠장! 재수 없게 걸렸군. 이런 애송이들을 데리고 뭘 어쩌라고.”

대화가 길어지자 마법사가 다그쳤다.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빨리 말 좀 해 봐.”

할 수 없이 궁수는 여태까지 들었던 얘기를 전달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용병들은 짜증을 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시로네 일행을 떨쳐 놓고 왔어야 했다.

“천사의 눈동자가 판단한다고? 실력을 평가한다는 뜻인가? 그것도 싸잡아서 저 애송이들하고 같이? 이거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냐?”

마법사가 불만을 터뜨리자 에이미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이봐요, 자꾸 애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호호호! 아, 그러니? 무임승차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빌붙을 생각은 아니고? 분명히 말해 두는데 너희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흥! 마음대로 하시죠. 어차피 당신들하고는 같이할 생각도 없으니까.”

마법사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누구던가? 용병 세계에서 신진 마법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루키 중의 일진이었다.

질 떨어지는 용병과는 아예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동료들도 비슷한 또래에 급이 맞는 자들로만 꾸렸다.

반면에 세상물정 모르는 저 어린애들은 어디에서 검술이나 배우고 마법이나 익힌 학생인 게 분명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전은 천지 차이였다. 목숨을 쉽게 던져야 하는 용병, 그중에서도 신진이라고 평가받는 실력이라면 공인 마법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었다.

‘흥, 두고 보자, 애송이들. 여기만 넘어가면 눈물을 짜면서 빌게 해 줄 테니까.’

어쨌거나 여자들의 기 싸움 덕분에 자잘한 감정들은 묻어둘 수 있었다.

8명이 다음을 기다리며 돌아보자 백색 문신의 남자가 설명을 시작했다.

“관문을 넘는 조건은 두 가지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거나, 1명의 희생을 통해 1명을 보낼 수 있다.”

통역을 듣자마자 시로네가 질문을 던졌다.

“입증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입증하나요?”

“야! 너 자꾸 끼어들지 마! 통역 안 해 준다!”

“같이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빨리 물어보기나 하세요.”

할 말이 없어진 궁수는 이를 뿌드득 갈며 통역했다. 백색의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더했다.

“전사의 후예여, 심판의 제단에 올라가 8개의 구슬 중 하나에 장기를 펼쳐라. 신의 언어가 답할 것이다. 붉은 빛이 떠오르면 불합격. 백색의 빛이 떠오르면 합격이다.”

시로네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 냈다. 아예 궁수를 개인 통역사로 고용한 듯싶었다.

“참가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이를테면 한 사람이 몇 번이고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해도 상관없다. 통과자가 나오면 모두가 케르고로 갈 수 있다. 통과자가 1명도 나오지 않는다면 돌아가야 한다. 이는 미로의 의지이자 케르고인의 사명이다.”

“성취와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희생이라는 건 뭐죠?”

“한 사람의 피로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

거기까지 들은 시로네는 생각에 잠겼다.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1명만 성공해도 전원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동료의 희생으로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한 사람의 목숨에 하나씩이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 잔인한 짓까지 해서 케르고에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단순히 루프를 구하기 위해서 동료를 죽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 그 이상의 뭔가가 케르고에 있다는 건데. 결국 용병들도 이 지하에 있는 진짜 비밀을 모르고 온 거야.’

시로네는 다시 통역해 달라는 눈짓을 보냈다. 여태까지 수집한 정보들이 유용했기에 궁수도 군소리 없이 동의했다.

“희생에 제약이 있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데려온달지,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용한달지.”

“아니. 방에 들어온 순간 너희는 하나다. 모두가 동의하기 전까지 결코 문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질문은 무의미하다.”

## [139] 미로의 시공(3)

시로네는 상황을 깨달았다. 예상보다 구속적이고 위험한 규칙이었다.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묶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케르고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숨을 걸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다.

“뭐야?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 이건 어때? 애송이들 넷을 처리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네.”

리더가 시로네를 돌아보며 입가를 찢었다. 겁에 질린 모습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지만 시로네는 한심할 따름이었다.

규칙을 들은 이상 이제부터는 싫더라도 협력하는 게 옳은 길이었다.

처음부터 감정만 앞세우는 리더는 조직을 궤멸시킬뿐더러 동료의 목숨마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은 그래도 중간은 하는 것 같던데.’

예상대로 동료들이 말리고 나섰다. 성취를 달성하면 무조건 통과할 수 있으니 희생을 고려하는 건 차후의 문제였다.

“됐어. 이제 슬슬 시작하자.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쳇! 운 좋은 줄 알아라, 꼬마야.”

백색 문신의 남자는 제단의 옆으로 향했다. 그리고 8개의 구체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에서 팔짱을 꼈다.

“내 설명은 이것으로 끝이다. 한 사람씩 나와서 능력을 입증해라.”

시로네 일행과 용병 패거리는 저마다 시선을 교환했다. 누가 먼저 시작하는 게 이득인지를 셈하는 것이었다.

리더가 철검을 뽑아 들고 시로네를 가리켰다.

“어이, 너희가 먼저 해. 물론 기대도 안 하지만 우리가 감이라도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그러면 혹시 모르지. 케르고로 데려가 줄지.”

“싫은데요. 왜 그걸 그쪽에서 독단적으로 정하죠?”

“뭐가 어째? 너 말이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당장 죽여 줄까! 널 죽이고 들어가 줘?”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이제부터는 의견을 통합해야 해요.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나갈 수도 없다는 말 못 들었어요?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시도한 사람에게 핸디캡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티 매직 같은 트랩이 발동할지도 모른다고요. 모두가 처음인 이상 신중하게 판단해서 순서를 정해야죠.”

“이, 이 건방진 꼬맹이가……!”

리더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모양새도 미워 죽겠지만 반박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성질났다.

하지만 여자 마법사는 생각이 달랐다. 물론 별다른 제약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가 보지 않은 이상 생각할 수 있는 변수는 전부 고려하는 게 좋았다.

“저 아이의 말이 맞아. 순서를 정하자. 그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

시로네는 제단에 있는 미로의 시공을 돌아보았다. 스폿이라는 현상을 경험해 본 그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얼추 예상할 수 있었다.

“저 구체는 아마도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흡수시킬 수 있을 거예요. 화력이 높은 마법사를 뒤로 빼고 전사들이 먼저 하는 게 정석이겠죠.”

“꼭 그렇게 난폭한 것이어야만 할까? 단정 짓는 이유는?”

“전사의 후예가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기니까요. 게다가 제단을 살펴보면 정해진 목표물에 무언가를 실시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은 타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납득했어. 그러면 순서를 정하자. 우선 검사부터 시작할까?”

마법사가 말하며 리더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는 기분이 상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나중에 하겠어. 저딴 애송이가 뭘 안다고 나불대는 거야? 이건 간단한 게임이야. 그냥 나가서 때려 부수면 되는 거라고.”

“후우, 우리 쪽 리더는 이렇다는데? 어떡할래?”

“됐어요. 그럼 우리 쪽에서 검사를 보낼게요.”

시로네는 자신의 편에 있는 검사를 돌아보았다. 리안과 테스 모두 검사였다. 하지만 누가 나갈지는 보지 않고서도 예상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시도가 끝나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만큼 막중한 임무인 데다 위험한 역할이었으니 리안이 테스를 먼저 보낼 리가 없었다.

“내가 먼저 할게. 물론 내 차례에서 끝나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하하!”

“하여튼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무튼 조심해. 방심하지 말고.”

테스의 응원을 받은 리안은 제단의 중심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밖에서 봤을 때와는 확실히 느낌이 달랐다. 팔방위의 구슬이 전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야! 빨리해! 벌써 겁먹었냐?”

리안은 리더의 말이 들리지도 않았다. 시로네가 자신을 지목했을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파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나는 선봉이다. 내 차례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전부 얻어야 해. 그렇지, 시로네?’

리안은 북쪽의 구체로 걸어갔다. 멀리서 봤을 때처럼 투명하지는 않았다. 희뿌연 안개가 차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흐음, 횟수의 제한은 없다고 그랬지?”

구체에 얼굴을 들이댄 리안은 손등으로 똑똑 두드렸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조금씩 힘을 높여 가며 반복했다.

어느 순간 구슬의 안개가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투명한 구슬에 1이라는 숫자가 떴다.

“어? 숫자다?”

시로네는 백색 문신의 남자에게 들었던 설명을 떠올렸다.

“아, 신의 언어라는 게 숫자라는 뜻이었구나. 리안, 혹시 모르니까 일단 떨어져.”

리안은 무덤덤하게 두어 걸음을 물러섰다. 잠시 후 구체가 붉은 빛을 발하면서 장내를 밝혔다.

불합격이라는 뜻이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었으나 그게 전부였다. 3초 정도를 더 지켜보았으나 딱히 위협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아하, 백색의 빛이 떠오르면 합격이라는 거지?”

규칙을 이해한 리안은 제단의 중앙으로 돌아가 비로소 직도를 뽑아 들었다.

거구의 리안에게 가려져 있던 실제 검의 크기가 드러나자 용병들은 화들짝 놀랐다. 저게 전부 철이라면 스키마가 아니고서는 들 수 없는 무게였다.

“리안! 있는 힘껏 때려 버려!”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린 테스가 팔을 돌리며 응원했다. 시도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다.

“걱정 마. 일격에 부숴 버릴 테니까.”

리안은 양손으로 검을 쥐고 자세를 낮추었다. 부끄럽게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물려준 검으로 개시를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것도 양손을 사용해 전심으로 휘두르는 공격이라니.

“좋았어! 그럼 간다!”

리안은 전속력으로 돌진해 대검을 내리찍었다. 모두가 예상했던 강력한 굉음 대신에 둥 하고 낮은 음파가 들렸다.

미로의 시공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반작용도 없었다. 모든 힘을 흡수해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으으으!”

리안은 미로의 시공을 내리찍은 자세를 유지했다. 전신의 힘이 빨려 들어가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보다는 구슬에 떠오를 숫자가 궁금했다. 과연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구슬이 투명해지더니 241이라는 숫자를 드러냈다. 1이 떴을 때의 타격력과 비교해보면 제법 괜찮게 해낸 것 같았다.

하지만 구슬은 안타깝게도 붉은 빛을 내뿜었다.

“아, 진짜 아깝네! 시로네,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

리안은 약이 올랐다. 처음에는 탐색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불합격 판정을 받자 마치 무시를 당한 것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괜찮아? 다리가 풀려 보이는데.”

“아, 이거? 힘을 전부 빨아들이더라고. 육체에 무리를 주는 건 아니라서 위험하지는 않아. 조금만 지나면 회복될 거야.”

시로네는 새로운 정보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하, 그렇구나. 핸디캡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네. 흐음.”

“그나저나 진짜 열 받네. 스키마만 할 수 있었어도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리안의 말에 용병 패거리의 전사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하! 스키마도 못 하면서 여태까지 설친 거냐? 이거 어이가 없군. 비켜, 이번에는 내가 해 주지.”

전사가 들어오자 리안은 할 수 없이 제단을 벗어났다. 하지만 걸어오는 와중에도 ‘한 번만 더.’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애송이가 241이 나왔지? 그럼 나는 2,000 정도를 노려 볼까?”

전사는 소매를 걷고 주 무기인 도리깨를 훙훙 휘돌렸다. 허리춤에는 손도끼도 차고 있었지만 리안의 시도를 본 바로는 도리깨가 충격을 주기에 용이할 듯했다.

전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온몸의 근육을 키웠다. 근섬유가 크게 굵어진 건 아니었지만 몸 전체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자 덩치가 눈에 띄게 부풀었다.

“테스, 저 사람…….”

“맞아. 스키마 유저야. 아마도 근력 강화 계열의 빌드를 탄 것 같아. 하긴, 전사라면 당연한 선택이지만.”

“으아아아아! 간다아아아!”

전사는 덩치만큼이나 우렁찬 함성을 내지르며 돌진했다. 그러면서도 손은 도리깨를 빠르게 회전시키고 있었다.

양손무기는 아니지만 회전력을 더하게 되면 그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었다.

전사는 천하의 원수를 죽이듯이 도리깨를 내리찍었다.

둥 하는 저음과 함께 동작이 정지했다. 리안처럼 힘의 박탈감이 전신을 무력화시켰다.

“후우! 후우! 끝났어! 제대로 들어갔다고!”

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보기에도 기술이 화려했기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248이라는 숫자가 떴다.

“뭐, 뭐야? 말도 안 돼! 248? 저 애송이보다 고작 7점 높다고? 이거 고장 난 거 아냐?”

테스가 발검의 자세를 취하며 제단으로 걸어갔다.

“그게 무슨 구멍가게 장난감인 줄 알아요? 빨리 내려와요! 이미 빨간불 들어왔거든요!”

“아니, 인정 못 해!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할게!”

“알았으니까 나오라고요! 체력이나 회복하고 도전하든 말든 해요!”

전사는 억울한 듯이 얼굴을 구기며 몸을 돌렸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힘이라면 져 본 적이 없다. 거기에 근력 강화 빌드를 했는데도 248이라니.

“응? 잠깐만.”

전사는 황당한 듯이 리안을 돌아보았다. 저 애송이는 스키마를 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241점이라니. 말인즉슨 육체의 힘만으로 조금 전 자신과 같은 위력을 냈다는 소리였다.

“뭐, 뭐야? 말도 안 돼! 너 스키마 못 하는 거 맞아? 거짓말 친 거지?”

“그게 뭐 자랑이라고 거짓말을 해? 실패했으면 조용히 다음 차례나 지켜보자고.”

리안은 불합격을 받은 시점에서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싶지 않았다. 지금 관심이 가는 건 친구인 테스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였다.

테스는 제단의 중심에 서서 검을 뽑았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서늘한 소리가 났다. 교본과도 같은 우아한 동작에 사람들이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흐음, 해보긴 하겠는데, 세검이라 불리하지 않을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을 거야. 힘을 전부 흡수해 버리거든. 직도를 내리쳤을 때는 반발조차 느끼지 못했어. 아마 검이 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있는 힘껏 찔러 볼까?”

“불안하면 내 검으로 할래? 무겁긴 해도 스키마를 이용하면 다룰 수 있잖아?”

테스는 검날을 세우고 손가락으로 구부렸다. 팅 하고 튕겨 나간 세검이 벌새의 날갯짓처럼 빠르게 진동했다.

“아니, 내 검술로 해 볼래. 솔직히 이거, 꽤나 흥미롭거든.”

테스는 제단의 끝으로 걸어가 미로의 시공을 사선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섰다.

스키마를 통한 집중의 가속. 구슬에 급소는 없겠지만 신체의 동선을 압축시켜 발생하는 속도는 온전히 힘으로 전환된다.

테스는 기합보다 무서운 무음으로 돌진했다. 밸런스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그녀답게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각도였다.

목표물에 도착하는 순간 그녀의 육체가 잔상을 일으키듯 흔들리더니 땅 밑을 스치는 세검이 비행하듯 떠올랐다.

완벽한 팡트 동작으로 구체를 찌르는 순간 검 끝에서 섬광이 터지는 착각이 들었다.

보통의 검술은 중간 지점에서 최대 가속을 내지만 찌르기를 중심으로 하는 테스의 검술은 검의 ‘끝 속도’에서 극점을 찍는다.

이러한 특성이 스키마를 통해 극대화되면서 짜릿한 눈의 착각이 발생한 것이다.

## [140] 미로의 시공(4)

테스 또한 힘의 흡수를 경험했지만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동작을 되감으며 착검했다.

거리 조절, 가속의 최대치 등 모든 게 완벽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구체로 집중되었다.

숫자가 떴다. 442. 처음으로 400대를 넘긴 상황이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테스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빤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숫자가 사라지며 구슬이 적색으로 물들었다.

“후우, 안 되네. 아쉽다.”

테스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렸다. 한 번 더 해 보겠다고 외치던 두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으나 따라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이다.

“이런 젠장! 저거 진짜 고장 난 거 아냐? 사브르로 찔렀는데 어떻게 둔기보다 더 나와?”

전사가 고래고래 악을 질렀다. 괴력 하나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이니 여자에게 패한 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테스의 입장에서는 한심할 따름이었다.

“똑같이 탈락했는데 그런 걸 따져서 뭐해요? 그리고 힘을 키우는 거랑 힘을 다루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돌덩이만 들지 말고 기술도 좀 연습하시죠?”

“뭐야! 지금 내 힘을 무시하는 거야? 이 근육 안 보여? 너 이런 거 있어?”

테스는 혐오스러운 장면을 본 듯이 고개를 돌려 버렸다. 마초랑 섬세함을 논하느니 소하고 대화를 하는 게 속 편할 듯했다.

“검사 라인은 끝났나? 그러면 이번엔 내 차례로군.”

궁수가 등 뒤의 장궁을 뽑아 들고 나섰다.

이전까지의 결과를 확인한 바로는 물리력만 갖고는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들 것 같았다.

화살 또한 물리 공격이지만 궁수는 자신 있었다. 비록 돈이 드는 방법이라 속이 쓰리지만 장기 하나 선보이지 않는다면 비웃음을 사지 않겠는가.

“그걸 사용할 생각인가 보네.”

마법사의 말대로 궁수는 등 뒤의 화살을 꺼내 화살촉을 제거했다. 그리고 바지에 달려 있는 단단한 가죽 주머니에서 독특한 형태의 화살촉을 꺼냈다.

촉이 날카롭지 않고 아몬드처럼 둥그스름했는데 흔한 철색이 아닌 보랏빛이었다.

“흐음, 좋았어. 이번에는 이걸로 해 볼까?”

에이미는 독특한 색상의 화살촉을 보고 눈을 빛냈다. 확실히 저것이라면 보통의 화살보다 훨씬 강력한 충격을 낼 수 있었다.

“시로네, 저것 봐. 마정탄이야.”

“어? 저게?”

마정탄에 대해서는 시로네도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자연계에서 극소량만 추출되는 마정석에 마법을 주입한 물건이었다.

마정석의 발생 원리는 미스터리지만 고유의 자연현상에 반응하는 화학작용임은 분명하다는 게 정설이다.

이를테면 번개의 마정석은 천둥 번개가 자주 치는 건조한 고원이나 열대우림에서 채취가 가능했다.

그렇게 채취한 광물은 특정 현상에 대해 친화력을 보이는데, 마도공학자들은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 마정석에 마법을 저장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물론 이 정도는 성공은 성과라고 불릴 수도 없는 실험실 과학에 불과했다.

마정석을 실생활에 활용하려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재료공학, 그 재료를 다양한 형태로 소비시키는 기계공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정석이 채굴되어 사회로 소비되는 일련의 공정은 가히 하나의 산업이라고 표현할 만큼 수많은 인력과 막대한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산업에서 수위를 다투는 분야가 바로 살상 무기인 마정탄이었다.

“저게 그 비싸다는 마정탄이구나. 우리들이 사용하는 마법하고 비교하면 어때?”

“딱히 위력이 세거나 그렇지는 않아. 마법사가 아니라도 마법을 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엄청난 거지. 아마 저거 하나에 1골드는 할 거야. 실제로 화살촉에 들어가는 마정탄의 무게는 10그램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야.”

시로네는 혀를 쏙 내밀었다. 달랑 활시위 한번 튕기는데 1골드라니. 그렇다면 역사책에 나온 궁수 3천 명의 마정탄 포화는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일까?

“대단한 물건이네. 나 같으면 아까워서 써먹지도 못할 거 같아.”

“우리야 마법사니까 본전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실전에서 마정탄이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야.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서 마정탄 한 발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자세히 알고 있네? 수업 시간에도 그런 건 안 가르쳐 주던데.”

“나도 최근에 알았어. 큰오빠가 집에 온 이유가 궁수 부대 마정탄 납품 건 때문이거든. 1년 전부터 업체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은데 어느 단계에서 돈이 새어 나가는지 몰라서. 궁금하던 차에 네이드에게 물어봤는데 공정 과정부터 제조 기술까지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

“응? 네이드? 언제 그런 걸 물어봤어?”

“너 깨어나고 휴교한 적이 있었잖아. 소문으로 듣자 하니 투명 망토를 제작했다던데, 그 정도면 엄청난 기술이야. 네이드라면 마정탄도 만들 수 있을걸.”

“뭐? 저 비싼 걸 직접 만든다고?”

“뭐야, 몰랐어? 너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 맞니?”

“하하, 그게……. 하지만 네이드는 항상 이상한 것만 보여 주거든. 절대 멈추지 않는 마차나 열두 가지 웃긴 춤을 추는 인형 같은 거 말이야.”

“하긴, 기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국가 독점사업이라 면허를 따지 않으면 불법 무기 제조로 잡혀가. 그래도 나중에 심심하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 봐. 네가 부탁하면 아마 만들어 줄 거야. 마정석이야 연금술 재단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시로네와 에이미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궁수는 마정탄의 제어장치를 풀었다.

충격 반응식 마정탄은 위험 지대를 지날 때가 아니면 반드시 안전장치를 걸어 두어야 한다. 마차에 치이거나 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다리 한쪽이 날아가 버릴 테니까.

“어이, 이제부터 마정탄을 사용할 거야. 라이트닝 애로우라는 거지. 가까이 있으면 당할지도 모르니 물러서.”

시로네 일행은 구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졌다. 미로의 시공이 마법력을 흡수시킬 거라는 예상은 했으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

궁수가 시위를 바짝 당기자 주위의 긴장감마저 올라가는 듯했다. 잠시 후 팅 하고 손을 놓는 순간 화살이 피리 소리를 내며 미로의 시공에 처박혔다.

마정탄이 반응하면서 강력한 라이트닝 볼트를 퍼트렸다.

하지만 푸른빛의 전기는 오로지 구슬 안쪽에서만 발생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마법력까지 빨아들이는 모양이었다.

구슬이 3초 정도 번쩍번쩍하더니 잠잠해졌다. 과연 돈값을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사람들은 숫자가 뜨기를 기다렸다.

1,020.

무려 네 자리의 점수가 뜨자 궁수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하지만 결과는 여지없이 불합격이었다. 천이 넘는 점수를 내고도 성과를 얻지 못하자 궁수는 본전 생각을 하며 제단을 내려왔다.

“쳇! 뭐야, 돈만 버렸잖아?”

“딱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보아하니 몸은 멀쩡한 거 같은데, 괜찮아요?”

에이미의 말에 궁수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 검사들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으나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응? 그러네. 궁수의 근력까지 빼앗지는 않는 모양이야. 미로의 시공은 타격 데미지만을 측정하는 모양이군.”

“그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죠. 어떡할 거예요? 다시 해 볼래요?”

궁수는 구슬을 빤히 살폈다. 어쨌거나 최고점을 냈으니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돈을 낭비하는 일은 사양이었다.

“싫어. 어떤 속성을 써도 크게 차이는 안 날 거고, 이걸로는 합격할 거 같지도 않아. 마정탄만 아깝지.”

에이미는 순순히 동의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마법사 차례인가? 시로네, 누가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너 아니면 나?”

용병 쪽의 마법사가 비웃음을 지으며 에이미를 가리켰다.

“네가 해 보는 게 어때? 그다음이 내 차례니 누가 더 센지 확실히 비교가 될 거 같은데.”

에이미도 거리낄 게 없다는 듯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보니 저 여자하고 풀어야 할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다.

“좋아요. 시로네, 그럼 내가 먼저 한다?”

“응. 실력을 보여줘. 파이팅!”

시로네는 에이미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녀의 전공은 공격 마법에 특화되어 있는 화염계열. 게다가 단발의 위력을 강조하는 타깃형이었다.

마법의 종류는 무수히 많고 발전 속도에 따라 유행이 변하지만 화염 속성은 언제나 위력 부문의 수위권에 들어가는 마법계의 강자였다.

하지만 에이미는 신중했다. 제단에 서서 어떤 마법을 전개할 것인지를 계산하는 중이었다.

‘의외로 까다롭네. 스나이퍼 모드를 쓰기에는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그냥 타깃형으로 공격을 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위력이 떨어질 테고.’

절대영도가 한계인 빙결 계열과 달리 화염 계열은 온도 상승의 한계치가 없다.

그 무한한 가능성에 이끌려 수많은 마법사들이 화염을 선택하지만 수준 높은 마법사도 섭씨 1천 도의 장벽을 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화염은 강하다. 행성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1천 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생물도, 나무도, 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도 열의 에너지에 타 버리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속성은 없듯이 화염 계열의 마법에도 단점은 존재했다.

바로 가벼움이었다.

에너지 총량은 엄청나지만 묵직함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통은 에어 계열을 접목하여 타격력을 보완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플레임 스트라이크였다.

‘하지만 플레임 스트라이크의 특성상 거리가 멀수록 위력이 배가되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염에 치중하는 게 나으려나?’

미로의 시공은 충격이 아닌 마법적 위력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퓨어 계열로 승부를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었다.

거기에 부합하는 마법을 생각하던 에이미는 결정을 내렸다.

‘파이어볼.’

에이미의 양 손바닥 위로 2개의 불길이 타올랐다. 원래는 구체지만 불의 속성상 위로 치솟는 물방울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마법으로 만든 불이 현실의 불과 다른 점이라면 역시나 밀도였다. 즉 화염 마법사들은 불의 밀도를 조절해 온도를 높인다. 게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화염이 퍼지는 반경 또한 키울 수 있었다.

에이미는 화염을 든 자세에서 손목만을 돌렸다. 그러자 용암처럼 시뻘건 불덩이가 꼬리를 늘어뜨리며 날아갔다.

화염이 덮치자마자 미로의 시공이 불길을 들이마셨다. 어마어마한 불의 소용돌이가 구슬 내부를 끊임없이 순환했다.

마침내 점수가 나오자 사람들이 탄성을 터뜨렸다.

3,270.

여태까지의 최고 기록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 이 점수를 넘기란 어려울 듯했다.

궁수는 시로네 일행이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마정탄의 위력이 더해진 일렉트릭 애로우가 1,020이었다. 그런데 기본 마법인 파이어볼의 위력이 그 세 배가 넘어간다는 건 마법적 수준부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에이미는 인상을 확 구겼다.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듯 미로의 시공이 사납게 적광을 내뿜고 있었다.

“뭐야! 도대체 어쩌라고?”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실패하자 약이 올라 미칠 것 같았다.

“호호호! 애송이가 그렇지 뭐.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잠깐 기다려! 스나이퍼 모드로 해 볼게. 도대체 얼마를 요구하는 건지 오늘 끝장을 보겠어.”

시로네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제단으로 향했다. 승부욕이 남다른 에이미는 직접 가서 말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터였다.

“일단 진정해. 화가 나서 집중이 흐트러지면 점수가 더 안 나올 거야.”

“아우, 진짜! 시로네, 나 무조건 다시 할 거야. 알았지?”

제단에 올라간 마법사가 에이미를 돌아보며 말했다.

“공교롭게도 동일 계열의 마법사였네? 나도 화염 마법이거든. 네 수준에 맞춰 주는 의미에서 파이어볼로 시도해 줄게.”

‘흥, 웃기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면서.’

에이미는 콧방귀로 응수했다. 어쨌거나 탈락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 대꾸하는 것조차 짜증이 났다.

## [141] 미로의 시공(5)

마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양 손바닥 사이에 불의 구체를 탄생시켰다.

에이미와 달리 하나의 구체였으니 밀도를 높이기는 훨씬 용이할 터였다.

‘화력을 집중시키겠다 이거지? 아주 이기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

에이미의 예상대로 마법사는 긴장하고 있었다. 물론 마법의 위력을 수치로 계산한 적이 없으니 몇 점이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일렉트릭 애로우의 세 배를 터뜨리기란 어렵지 않을까 싶었다.

“타하!”

마법사가 양손을 거세게 내밀었다.

마법사의 통제 아래 있는 스피릿 존에서는 관성이 무시되기 때문에 마법을 시전하는 데 특별한 모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발사 자세를 취했다는 건, 일말의 집중력이라도 높여 보려는 마법사의 발버둥이었다.

에이미는 파이어볼을 시선으로 좇았다. 미로의 시공이 불을 머금으면서 화염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마법사는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구슬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했다.

점수는 1,330. 일렉트릭 애로우보다 고작 310점 높은 수치였다.

순수하게 육체 능력만을 평가받는 검사에게는 엄청난 차이지만 현상을 응용하는 마법의 영역에서는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이럴 수가. 아냐! 이건 화력이 분산되어서 그래. 적어도 2,000은 넘길 수 있다고.”

마법사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없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났다. 무슨 수를 써도 그녀는 에이미의 수치를 넘길 수 없었다.

궁수는 이곳을 통과하기는 이미 글렀다고 생각했다. 3,000점을 넘긴 적발의 소녀가 여기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일 테니까.

용병 세계에서 신성이라 불리는 마법사도 1,330이다. 그런데 그녀보다 두 배 이상의 마법력을 선보였다는 건 최소한 동급 나이에서 최강의 재능이라는 걸 뜻했다.

리안과 테스도 생각하는 건 비슷했다.

시로네의 실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에이미는 학교에서 시로네의 선배였다. 졸업반인 그녀가 실패했으니 시로네라고 해도 그 이상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유일하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에이미뿐이었다.

“시로네, 진지하게 해야 돼. 어쩌면 근소한 차이라 못 넘은 것일지도 몰라.”

“알았어. 최선을 다해 볼게.”

리더가 입술을 이기죽거리며 비꼬았다.

“하! 최선을 다하면 뭐해? 결과가 나와야지. 이미 끝났어. 접고 돌아가자고.”

시로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린 리더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깨달았다. 천사의 눈이라 불리는 미로의 시공. 그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제단을 만든 것일까?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통찰은 잠시 접어 두어야 할 때였다. 지금은 제단의 일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시로네는 눈을 감고 수열식을 행했다. 정면에 미약한 빛의 점이 탄생했다. 이어서 수를 셀 수 없는 광자들이 중심으로 밀려들면서 크기를 키워 갔다.

“뭐, 뭐야? 광자 출력? 저걸로 무슨 충격을 내?”

마법사가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시로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일반적인 광자 출력으로는 볼 수 없는 박력 때문이었다.

수열식을 끝낸 시로네가 눈을 번쩍 뜬 순간 주먹 크기의 백색 구체가 성질나 죽겠다는 듯이 진동을 일으켰다.

시로네는 이를 악물고 포톤 캐논을 갈겼다. 아광속으로 뻗어 나간 빛줄기가 미로의 시공을 박살 낼 듯이 강타했다.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던 용병들도 섬광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떨리는 심정으로 점수를 기다렸다.

4,783.

예상치도 못한 숫자가 떠오르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특히나 마법에 조예가 있는 마법사와 궁수는 경악할 지경이었다. 시로네가 시전한 마법이 다름 아닌 광자 출력이기 때문이었다.

빛에 특별한 화력은 없다. 오직 속도와 질량의 곱으로만 정의되는 충격량이 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도 4,783점이 나왔다. 동료와 비교해 보자면 근력 강화 빌드를 택한 20명의 전사가 온 힘을 다해 내리쳤을 때의 충격과 맞먹는다는 얘기였다.

“도, 도대체 저것들 뭐야?”

용병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시로네의 마법이 어떤 원리인지는 몰라도 일단 맞으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동료 중에 없다고 봐야 했다.

하지만 모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엄청난 위력으로 타격했는데도 미로의 시공이 보란 듯이 적색 빛을 뿜으며 불합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로네는 힘이 쭉 빠졌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구슬일까?

어쩌면 5,000점이 합격의 마지노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톤 캐논으로는 이보다 위력을 높일 수는 없을 듯했다.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에이미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가리고 웃었다.

“호호! 내 심정이 이해되지? 나도 그랬다니까. 하지만 정말 몇 점이 나와야 통과인 거야?”

“모르겠어. 레이저로 해 보면 괜찮을 거 같기도 한데.”

“아, 그러네! 레이저는 에너지를 누적시킬 수 있잖아.”

시로네의 레이저는 분자를 진동시켜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파괴력을 낸다. 이론상으로는 파괴하지 못할 게 없는 만큼 이런 평가에는 제격이었다.

“하지만 다음 차례가 있으니까. 일단 한 바퀴 돌고 나서 시도해 봐야겠어. 뭐 해요? 안 할 거예요?”

시로네가 리더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똥 씹은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

순서가 진행될수록 치솟는 점수를 보자 차마 나설 생각이 들지 않았다. 검사인 그가 낼 수 있는 점수라고는 기껏해야 200점 언저리일 테니까.

“쳇! 됐어. 이미 끝났다고! 돌아갈 일밖에 없어.”

리더는 다급한 몸짓으로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아무리 문고리를 돌려도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의아하게 여긴 일행이 뒤를 돌아보자 백색 문신의 남자가 말했다.

“너희는 하나다. 한 사람이 평가를 받았다면 모두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

궁수의 통역을 들은 일행은 비로소 이해했다. 단순히 의지만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마저 일치해야 하는 규칙이었다.

“아! 짜증 나게! 해 보나 마나 한 걸 왜 자꾸 시키는 거야?”

리더의 입에서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렇구나. 이건 정말 잔인한 규칙이다.’

시로네는 소름이 돋았다.

어째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백색 문신의 남자가 설명한 모든 규칙은 하나의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동료 간의 신뢰.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평가 방식이 아닐 수 없다. 화력만을 놓고 보자면 검사보다는 마법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사가 마법사보다 약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설령 마법사가 바위를 부수고 땅을 가른다고 해도 검사는 그 마법사를 단칼에 벨 수 있는 생물학적인 전투에 특화된 자들이었다.

게다가 마법의 위력을 측정하는 것도 문제였다. 원거리 마법이 전문인 에이미가 스나이퍼 모드를 시도했더라면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을 터였다. 하지만 이곳은 그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별다른 수단을 발휘할 수 없는 좁은 팔각형의 제단, 그리고 8개의 구체.

‘어째서 8개지? 단지 외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8명이서 하나의 구체만 놓고 평가를 치렀지 않나?’

무엇보다도 이상한 점은 신의 언어였다. 미로의 시공은 충격량을 측정해서 수치를 숫자로 나타낸다.

도대체 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케르고로 가는 자를 분별하기 위함이라면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나타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전공의 장기에 따라 점수의 편차는 엄청나게 커진다. 그런 상태에서 반드시 모두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

거기에서 발생하는 감정은 하나였다.

‘점수에 대한 집착. 동료가 자신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불안해진다.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 무시하게 된다. 서로의 역할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불화는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규칙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1명의 희생을 통해 1명을 보낼 수 있다.

시로네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미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건 서로를 죽이게끔 만들어 놓은 평가였다.

“시로네, 저 사람 끝나면 그냥 나가자.”

에이미가 속삭였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그녀의 눈에도 긴장감이 드러나 있었다.

리안과 테스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전우애를 강조하는 그들이었기에 이런 분위기에 민감한 것은 당연했고, 명백히 검사에게 불리한 평가였으니 규칙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빨랐을 터였다.

예상대로 리더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용병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전과 다른 게 느껴졌다.

“후, 후, 으아아아아!”

리더는 호흡을 고를 틈도 없이 내달렸다. 돌진하고는 있지만 시로네의 눈에는 마치 그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 보였다.

스키마는 제대로 열렸는지. 검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 목표물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달리던 그는 걸음이 꼬이고 말았다.

짧은 헛숨을 들이쉬며 고꾸라지듯이 검을 휘두르자 정확도가 떨어진 검이 구체의 옆을 때리고 튕겨 나갔다.

“큭! 젠장!”

미로의 시공을 지나 제단 밖으로 벗어나려던 리더는 황급히 중심을 잡고 뒤를 돌아보았다.

32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다. 동료들은 마치 굉장한 굴욕을 당한 것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다.

“뭐, 뭐 어때! 어차피 통과도 안 되잖아! 했으니까 됐지? 그만 나가자고!”

리더는 쓸데없는 강짜를 부리며 제단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의 발길은 동료들과 떨어진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저 파티는 끝났어. 아마 여기를 나가면 해체되겠지.’

시로네는 이쯤에서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신뢰가 깨진 용병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더할 수는 없었다.

“저기…… 통역 좀 해 주세요.”

시로네는 궁수에게 부탁했다. 갈 때 가더라도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궁수도 지금 상황에 허탈감을 느꼈는지 순순히 허락했다.

“그래. 뭐라고 물어봐 줄까?”

“지금까지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 있나요?”

백색 문신의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통과를 위한 관문이다. 함정 따위가 아니야.”

“미로의 시공에서 몇 점이 나와야 통과할 수 있죠?”

“천사의 여덟 눈동자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남자는 처음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결국 모든 건 미로의 시공이 결정한다는 얘기였다.

시로네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곳에 온 사람들 중에서 통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정확히는 모른다. 여러 명이 오기도 하고 1명이 오기도 하지. 내가 지켜본 바로는 열 번 중에 한 번은 통과하는 것 같다. 대부분 혼자 왔을 때 통과하는 비율이 높더군.”

시로네는 화들짝 놀랐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다.

처음에는 통과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미로가 이곳을 설계한 목적이 단순히 실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닐 거라는 가정 때문이었다.

물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백색 문신의 남자는 분명 통과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도 10퍼센트라는 엄청난 비율로.

미소를 짓고 있는 시로네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시로네, 갑자기 왜 그래?”

“교장 선생님은…… 진짜 개구쟁이야.”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에이미가 의아한 듯 되물었으나 시로네는 대답할 정신이 아니었다. 알페아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미로가 사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게다.

대충이 아니라 확실히 알았다. 이 정도 난관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미로에 대해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죄송해요, 교장 선생님. 하지만 알아 버리고 말았어요.’

시로네는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여행 기간 안에 이곳을 통과할 생각이었다.

에이미는 대답이 없는 시로네를 바라보며 짐작했다.

‘포기하지 않았구나, 시로네.’

그렇다면 자신도 포기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저 시로네를 돕기 위해 따라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미로라는 여자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 [142] 미로의 시공(6)

“자, 이제 그만 나가자고! 불만 없지? 어이, 이 철문 열어!”

리더가 철문을 쾅쾅 두드렸다. 자존심은 구겨진 데다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모두 동의하는가?”

남자가 물었지만 딱히 통역은 필요 없었다. 용병들은 두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다.

그들의 심정은 처참했다. 이곳에 들어온 것은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었다. 루프로 한몫 챙기려다가 의리만 상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했다.

“얘들아. 빨리 나가자. 이쪽으로 와.”

용병들의 태도는 전과 달라져 있었다. 허탈감도 컸지만 아이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닌 이상 눈치를 보는 게 좋았다.

하지만 시로네 일행은 걸음조차 떼지 않고 용병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법사는 슬그머니 불안해졌다. 불길한 예감은 어째 틀리지 않는지 에이미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나가기 싫은데요?”

용병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다. 그들의 눈동자에 분노, 당혹감, 두려움 등 갖은 감정이 교차했다.

그나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마법사가 화를 삼키며 달래는 어투로 말했다.

“왜 나가기 싫은데? 이미 끝났잖아? 우리도 너무 피곤해서 이제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거야 그쪽 사정이죠. 이곳에 들어온 이상 전체는 하나. 몰라요? 우리의 의견도 안 묻고 제멋대로 나가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마법사는 속이 상했으나 지금은 에이미의 비위를 맞춰 주는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 내가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어. 그러니까 나가자.”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곳을 통과해서 케르고로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법이 있었다.

이곳은 성취와 희생의 방. 반드시 성취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백색 문신의 남자가 나직하게 말했다.

“나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너희의 실력을 입증하고 싶다면 미로의 시공을 통과해라. 희생을 증명하겠다면 4명의 희생으로 4명을 보내면 된다.”

“응? 뭐라고 하는 거지?”

리안이 묻기 무섭게 궁수가 통역했다. 물론 완벽하게 왜곡되고 변형된 언어였다.

“아, 볼일 다 봤으면 빨리 가라는 말이야.”

에이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라, 이상하다? 나는 분명 이렇게 들었는데. 4명의 희생으로 4명을 보내면 된다.”

궁수의 눈동자에 충격이 깃들었다.

“너…… 설마 원주민어를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예요? 처음 왔을 때 들은 말인데. 우리가 무슨 바본 줄 알아요? 한번 들은 말도 기억 못 하게?”

궁수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아, 그런 것인가? 아닌데? 처음 들어 보는 말을 기억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

“어쨌거나 4명의 희생이라. 하나, 둘, 셋, 넷. 딱 4명 되네요.”

용병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저 소녀는 진짜로 누군가를 희생시킬 생각이었다.

리안과 테스도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특히나 테스는 귀여운 에이미가 무섭게 돌변하자 발을 동동 굴렀다.

“시로네, 정말 괜찮은 거야? 히잉, 에이미 너무 무서워.”

“괜찮아. 일부러 저러는 거야.”

“일부러 저런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두고 봐. 에이미가 알아서 잘해 줄 테니까.”

용병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싸운다면 필패다. 리안과 전사는 호각이고 테스는 리더보다 강하다.

게다가 마법사의 전투에서 압도당했고 시로네의 광자 마법 앞에서는 궁수의 존재도 무용지물이었다.

“덤벼 보세요. 희생하기 싫은 얼굴들인데. 어쨌거나 그쪽도 최선을 다해야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술집에서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에이미가 약 올리듯 고개를 갸웃했다.

“으흠?”

궁수는 어설픈 대응으로는 사태를 무마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시로네 일행이 있는 곳으로 걸어간 그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를 우습게 보고 실수를 저질렀다. 한 번만 용서해 줘. 어이, 너희도 와서 사과해.”

궁수가 고개를 숙인 채 돌아보자 남은 세 사람도 마지못해 걸어왔다. 하지만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 사과를 하는 태도만큼은 정중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건방졌어. 용서해 줘.”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그러니 술집에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없던 일로 해 주면 안 될까?”

에이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흐음, 도무지 모르겠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 술집? 설마, 그 술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나는 못 봤지?”

용병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자존심을 구기다 못해 땅으로 팽개쳐져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이번만큼은 시로네도 에이미의 집요함에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

‘에이미를 화나게 만들면 저런 꼴을 당하게 된다.’

술집에서 조롱을 당할 때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에이미와 테스였다.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시간. 복수를 하기 전까지는 설령 수십 년이 지난다고 해도 잊어버릴 에이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효율에 집착하는 마법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설령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점을 100퍼센트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는 게 마법사였다.

그렇기에 흔히들 마법사를 괴팍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간미가 없는 마법사도 많다.

하지만 그런 집요하리만치 효율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여태까지 마법은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더러 뭘 어쩌란 거야? 제기랄.’

용병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빨을 뿌드득 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에이미는 그제야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같이 나가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이곳에 들어오려면 암호를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 암호가 뭐예요?”

궁수는 깨달았다. 저 아이들은 다시 도전할 생각이었다. 수많은 조사를 거쳐 충분한 가능성을 검증한 뒤에 다시 이곳에 들어올 생각인 것이다.

“케르티아, 로 호이마. 아크라시아, 위드미아 벤젠. 이게 암호야.”

“무슨 뜻이죠?”

“나의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에이미는 백색 문신의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궁수가 알려 준 고대어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발음했다.

“케르티아, 로 호이마. 아크라시아, 위드미아 벤젠?”

출구를 지키고 있는 원주민들이 에이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궁수는 기분이 팍 상했다. 아니, 어떤 의미로는 감탄했다고 해야 하나? 그녀의 치밀함에는 기가 찰 지경이었다.

“젠장! 사람을 좀 믿어! 내가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겠어?”

“누가 뭐래요?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아무튼 알았어요. 고마워요.”

에이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희희낙락한 얼굴로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카멜레온처럼 감정의 색깔이 확확 바뀌는 모습에 테스가 혀를 내둘렀다.

“암호를 알아내려고 한 거였어? 진짜로 싸우는 줄 알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아?”

“후후, 어차피 다시 올 거라면 알아 두는 게 좋잖아. 아무튼 우리도 나가자.”

시로네 일행과 용병 패거리 모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백색 문신의 남자가 철문 옆에 있는 장치를 잡아당겼다.

입구가 격한 진동을 일으키며 나가는 길을 인도했다.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용병 패거리가 먼저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그때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 모두 패잔병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구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시로네 일행도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치 지구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문제는 이제부터 전략을 세우면 되는 일이었다.

그보다는 오늘 경험했던 미로의 시공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미로의 시공. 대체 미로는 왜 장치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째서 이런 잔인한 규칙을 세운 것일까? 케르고에 무엇이 있기에? 애초부터 케르고와 미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지? 알고 싶다. 어쩌면 미로는…….’

시로네가 미로를 분석하는 동안 뒤를 따르는 에이미도 자신만의 생각에 심취해 있었다.

‘유적을 조사하는 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가능한 모든 전략을 세우자. 시로네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스피릿 존으로 지하를 탐색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는 없지. 통과를 한다고 해도 통역의 문제가 있어. 밖에 나가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현지인 중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테스도 이곳이 인상 깊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자신의 무력을 수치화시켜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 상당한 성과였다.

‘세검의 충격량이 둔기보다 셀 수가 있구나. 하지만 결국 마법에는 미치지 못했어. 검사가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일까? 시로네의 마법이 5,000에 근접했다는 건 어림잡아 내 일격의 열 배란 얘긴데. 합격 기준을 대략 두 배로 했을 때 아빠라면 충분히 가능하려나? 으, 커트라인만 알면 목표를 세울 수 있을 텐데. 시로네가 다시 온다고 했으니 그때 가서 더 조사해 봐야지.’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리안 또한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지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나가서 뭐 먹지?’

그렇게 30분 정도를 걸은 끝에 시로네 일행은 지상의 제단에 도착했다.

안에서 문을 두드리자 원주민이 문을 열어 주었지만, 지하에서 학습한 관성으로 일행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바깥으로 나오자 상쾌한 공기가 폐부를 닦아 냈다. 불과 몇 시간의 여정이었는데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오늘의 것이 아닌 듯했다.

시로네 일행과 용병 패거리는 반대방향으로 쪼개졌다. 하지만 시야에서 사라진 건 아니었다. 시로네 일행은 여운을 음미하고 싶었고 용병 패거리는 붕괴 직전이었다.

시로네가 일과를 정리했다.

“이제 어떡할까? 예상보다는 성과가 있었으니 오늘의 유적 탐사는 이걸로 끝낼까?”

에이미도 대찬성이었다.

“그러자. 간만에 힘을 썼더니 피곤하다. 일찍 들어가서 대책을 세워야지.”

리안이 굉장한 걸 발견한 듯 말했다.

“그 전에 국수나 한 그릇 때리는 게 어때? 아까 거기 맛있던데.”

테스의 시선이 리안을 찔렀다.

“너는 국수를 먹고 또 먹니? 적어도 막국수 정도는 나와 줘야지. 그래서 단순하다는 거야.”

“뭐가 어째? 내가 얼마나 고심해서 내린 결정인데!”

“그러면 뭐해? 빙 돌아오면 제자리인데.”

리안과 테스가 메뉴로 싸우고 있을 때 용병들이 다가왔다. 시로네 일행은 대화를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았다.

전사, 마법사, 궁수는 있는데 리더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용병들은 선뜻 말을 못 하고 눈치를 주고받았다. 결국은 마법사가 적임자로 발탁되어 떠밀리듯 앞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녀 또한 이런 상황이 영 어색했는지 말이 나오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저기…… 혹시 너희 우리 용병단에 들어오지 않을래?”

“용병단요?”

“응. 알고 보면 용병이란 직업도 좋은 점이 많아. 명예는 물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특히나 너희 실력이면 당장에 스타로 떠오를걸. 보다시피 조금 전에 리더는 탈퇴해 버려서…… 아, 물론 새로운 리더는 네가 해도 괜찮아. 지시를 내리면 우리는 무조건 따를 거고 다른 사람도 들어온다면 정말로 잘 대접할게. 어때?”

시로네는 마법사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듯 곧바로 말했다.

“싫어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서서 가 버리자 친구들도 미련 없이 시로네의 뒤를 따랐다.

“그냥 국수 먹자니까. 솔직히 맛있었잖아?”

“싫어. 너 그냥 무조건 배부터 채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조금만 참으면 훨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용병들은 멀어지는 시로네 일행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법사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하더니 시름 섞인 한숨이 새어 나왔다.

“어휴, 박복한 내 인생.”

(6권 끝)

=======================================

# Volume 7

=======================================

## [143] 앵무라는 이름(1)

주점 왕궁에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다. 프리먼 조직에서도 오직 팔코아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

바로 루프 제조장이었다.

“건방진 꼬맹이들! 이대로 끝날 거 같아?”

팔코아의 옆에 서있는 지스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팔코아의 기행을 보아 왔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었다.

‘도대체 뭘 어쩌려고 이러는 거지? 갑자기 나는 왜 데려온 거야?’

평소와 다름없이 항구에서 호객꾼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던 지스는 팔코아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이곳에 도착했다.

시로네 일행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떠난 지 이미 하루가 지났건만 팔코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은 듯했다.

“크크크,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팔코아는 괴기스럽게 입가를 찢으며 웃었다. 머릿속에서는 얄미운 시로네 일행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역시나 가장 미운 쪽은 에이미였다.

팔코아가 건넸던 루프가 섞여있는 술을 한 입에 털어 넣으며 보란 듯이 홍안을 드러낼 때는 팔코아도 돈이고 뭐고 바로 검을 뽑아들 뻔했다.

지스는 공포에 질린 채로 팔코아를 곁눈질했다.

지금 팔코아가 조물거리고 있는 건 루프를 분말로 만드는 장치였다.

루프의 뿌리를 압축시켜 즙을 낸 다음 수분이 전부 빠져나갈 때까지 갈면 고운 가루만이 남는다.

하지만 그것을 마약이라 부를 수 있을까?

원래 루프란 나무뿌리를 씹어서 침과 함께 중화시키는 게 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것은 오로지 효능만을 극대화한 유독성 화학물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지스, 다시 갔다 와야겠다.”

“어, 어디를요?”

“에이미라는 계집애한테 말이야. 한 번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겠지. 못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너도 눈이 달려 있으면 내 상태가 어떤지 알 테니까.”

지스는 침을 꿀꺽 삼켰다. 물론 그가 복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엇나가리라는 건 예상 밖이었다.

지스는 에이미가 굉장한 집안의 자제라는 걸 눈치로 짐작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에게 마수를 뻗쳤다가는 갈리앙트 정부고 뭐고 섬이 초토화되는 건 시간문제였다.

“설마……그녀를 중독시킬 생각이세요?”

“중독? 멍청한 자식. 그 여자는 절대 중독되지 않아. 아무렴. 대륙에서 이름을 날린 홍안의 지배자가 이깟 루프에 중독되면 쓰나.”

“그렇다면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괜히 긁어 부스럼만 낼 거예요.”

지스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팔코아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팔코아는 이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이런 머저리 같은 자식.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절대 중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어?”

팔코아는 가루로 정제된 루프를 기름종이에 담았다. 그리고 미리 받아 놓은 물컵에 전부 쏟아부었다.

지스는 절로 숨이 멎었다.

루프를 이용한 적은 없지만 사용법은 알고 있다.

보통 뿌리 하나면 2시간 정도는 충분히 씹고도 남는다. 하지만 지금 팔코아가 물에 탄 양은 그 세 배에 달했다.

게다가 수용액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6시간이 걸리는 약효를 한꺼번에 받게 될 터였다.

“서, 설마…….”

“그래, 바로 그거지. 다시 한 번 이걸 먹이는 거야. 그 계집애는 분명 자신만만하게 받아들고 마실 거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루프라면 꼼짝없이 죽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는데요? 죽으면 팔 수도 없잖아요.”

“크크, 상관없어. 시체라도 가져와.”

팔코아는 루프 수용액을 유리병에 담았다. 음료수가 들어간 병에 수용액이 녹아들자 예쁜 비취 빛깔이 나는 칵테일처럼 보였다.

“자, 받아. 간단한 일이야. 할 얘기가 있다고 끌어낸 다음 이걸 먹여. 그리고 마차에 실어서 데려오면 되는 거야. 할 수 있지?”

지스는 충혈된 눈으로 유리병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에이미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모금이라도 마신다면, 그때는 끝이었다.

“뭐 해, 안 받아? 아니면 네가 마시고 싶은 거냐?”

팔코아의 살기가 지스를 찍어 눌렀다. 그 살기가 마치 손처럼 형태를 이루면서 목을 콱 하고 움켜쥐는 듯했다.

“그만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뭐?”

팔코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루프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나? 그건 아닐 것이다. 한시도 루프를 입에서 떼어놓지 않은 덕분에 루프의 약효마저 이제는 둔감해진 상태였다.

“방금 뭐라고 그랬냐? 다시 말해 봐.”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 오히려 침착해질 때가 있다. 팔코아가 지금 그랬다.

화를 내는 건 나중이었다. 우선은 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애송이가 한 말이 진짜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했다.

지스는 선뜩 목에 걸린 말이 꺼내지지 않았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빈다면 반쯤 죽는 정도로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스는 차마 팔코아에게 무릎을 굽힐 수 없었다.

-너 같은 애는 싫지 않아.

마차에서 자신을 향해 미소 지으며 건넸던 한마디가 지스를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어째서일까? 그저 나약하다는 걸 인정해 버리면 되는데.

팔코아에게 잘못을 구하는 순간 에이미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뱉었던 말을 철회하고 싶어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만하라고, 이 지저분한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약물에 찌들어서 사리 분간도 못하는 자식! 너 같은 놈은 쓰레기라는 말도 칭찬이야!”

지스는 현기증이 났다. 쾌감과 공포가 뒤섞이자 정신이 주체되지 않으면서 의식이 멀어졌다.

하지만 그는 내뱉었다.

마치 시로네처럼.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지스의 얼굴을 향해 팔코아의 주먹이 전광석화처럼 휘둘러졌다.

“크윽!”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다. 지스에게 기다리는 건 지옥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미래였다.

“이런 미친놈이! 대가리가 어떻게 됐나!”

팔코아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지스를 두들겨 팼다.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구타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죽여 버릴 듯이 지스의 몸을 걷어차고 있었다.

만약 스키마까지 열었다면 지스의 몸은 정육점에 내걸린 고기처럼 짓뭉개졌을 터였다.

“죽어! 죽어! 죽어!”

지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온몸이 박살 나는 기분도 잠시,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통증의 영역을 벗어난 충격만이 전해져왔다.

“후우, 그래. 너 같은 놈은 그냥 죽여도 재미가 없지.”

팔코아는 이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지스에게 더욱 커다란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는 암시였다.

“컥! 컥!”

팔코아는 지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들어 올렸다. 목뼈에 금이 가는 기분이었으나 그런 걱정조차 하지 못할 만큼 지스의 상태는 엉망진창이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지스가 나서 주지 않으면 에이미를 함정에 빠트릴 수가 없지만 팔코아는 자질구레한 상황을 따지는 게 귀찮아졌다.

“감동이야, 지스. 너 같은 지질이가 이런 용기를 다 내고. 그 계집애한테 꽂힌 모양인데, 원하는 대로 그녀는 건들지 않으마. 어때, 기쁘지?”

“제,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스는 눈물을 흘렸다. 이미 팔코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유나라고 했던가? 네 여동생 이름 말이야. 앞으로 너는 오늘 한 결정을 평생 동안 후회하게 될 거야.”

“안 돼요. 제발 유나만큼은…… 컥!”

팔코아는 지스의 머리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마치 공처럼 지스의 얼굴이 쿵 하고 바닥을 튕겨서 올라오더니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그 한 번의 일격으로 지스는 의식을 잃었다.

“크크크, 어쨌든 재밌게 됐군.”

물론 지스의 여동생으로 목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에이미를 용서해줄 생각은 없었다. 유나를 아지트로 데려와 괴롭힌 다음 지스를 협박할 생각이었다. 여동생의 목숨을 걸고 위협을 하면 지스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유나라는 계집애를 아지트로 데려와!”

부하들에게 분노의 일갈을 내지른 팔코아는 루프의 뿌리를 통째로 씹어 버렸다.

\* \* \*

시로네 일행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져 있었다. 거리가 거리인지라 중간에 멈춰서 저녁까지 해결을 하고 돌아오는 참이었다.

성취와 희생의 방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느낀 점은 많았다.

네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각자의 마음에 담아 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게 되었다.

“어머, 군인이 된다고?”

에이미의 장래희망을 들은 테스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가 군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물론 화염 계열의 마법사인 데다가 스나이퍼 모드를 갈고닦았으니 전투 마법사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테스가 아는 에이미는 겉보기와 달리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전장에 나가서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리는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았다.

“솔직히 걱정된다. 에이미는 여성스러운 직업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으응? 내가 여성스러운 직업을? 그런 얘기는 학교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테스는 에이미의 학교생활이 얼마나 씩씩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잘 읽어내는 그녀는 에이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다.

“후후, 내가 첩보 작전에는 일가견이 있거든. 에이미라는 소녀는 사실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적이라는 거 말이야.”

에이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여성스럽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강하게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아무리 씩씩한 성격이라고 해도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인만큼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 타깃형이 장기라서 화염 계열을 선택했거든. 그러다보니 전공에서 가장 유리한 직업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물론 군인이란 직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꼭 전장에서 싸우는 것만이 군인은 아니니까.”

“그렇지. 보급 장교도 있고. 작전 사령부에 들어가면 미래도 창창하니까. 맞다! 혹시 이런 건 어때?”

테스가 문득 생각난 듯 손뼉을 치며 말하자 에이미가 호기심어린 눈으로 물었다.

“응? 어떤 거?”

테스는 검지와 중지를 뻗어 야밤에 백사장을 걷고 있는 누군가를 겨누는 시늉을 했다.

“첩보원 말이야. 에이미 정도면 사고 능력도 발군이고, 거기다가 장거리 타격이 특기라며? 무엇보다 너는 첩보 작전에 가장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가장 중요한 무기? 그게 뭔데?”

에이미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장래를 고민하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장점이 또 하나 있다는 것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예쁜 얼굴. 여성 첩보원에게는 미모가 필수 사항이거든. 세상의 어떤 남자도 미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테스가 말괄량이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에이미가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에이, 그게 뭐야. 난 또 괜히 기대했네.”

“후후, 미안해. 하지만 꼭 장난으로만 꺼낸 얘기는 아니야. 국가첩보원을 뽑을 때 우선순위로 두는 게 인상이거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에서 에이미의 인상은 완전히 먹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 내가 우리 가문에 적극 추천해 줄게.”

“돼, 됐어. 나는 내 마법 실력만 믿을 거야.”

에이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말은 퉁명스럽게 해도 예쁘다는 칭찬이 싫지만은 않은 눈치였다.

‘아유, 귀여운 것. 거봐, 얼마나 여성스러워?’

테스에게 에이미는 괴롭히는 재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친구였다.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까 생각하던 테스가 문득 진짜로 궁금한 점을 떠올렸다.

“그런데 말이야,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당연히 공인 시험부터 치르고 직장을 구해야지.”

“아니, 시로네 말이야.”

“시로네? 시로네가 왜?”

## [144] 앵무라는 이름(2)

에이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깜박이다가 테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눈치 채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네. 시로네가 내 졸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잖아. 시로네는 아직 클래스 포고, 너는 졸업반이고. 게다가 네 실력이면 분명 내년에는 졸업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너는 수도로 떠나 버릴 거 아냐?”

수도로 떠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에이미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 먼 훗날의 일도 아니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호오, 그래?”

에이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으나 테스는 그녀의 말투에서 진심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을 유지하던 에이미가 테스의 예상대로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았다.

“그래도…… 약속은 했어. 반드시 나를 따라잡기로. 그런 조건으로 말도 편하게 하라고 했단 말이야.”

테스는 의외라는 듯 입을 모으고 호오 소리를 냈다. 그런 얘기까지 오갔다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갖는 감정이 그렇게 가벼운 것만도 아니었다.

“흐음. 물론 시로네도 대단하지. 하지만 클래스 포도 반년 만에 올라간 거라며? 아무리 천재라도 그렇게 쉽게 졸업을 할 수 있겠어?”

사실은 에이미도 알고 있었다. 여태까지 시로네가 이룬 성과는 보통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마법조차 모르고 살았던 18살의 소년이 반년 만에 클래스 포에 올랐다.

여기서 더 많은 걸 바라는 건 욕심일지도 모른다.

에이미는 앞서가고 있는 시로네의 등을 바라보았다. 시로네는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까? 정말로 졸업을 해 버리면, 시로네는 과연 자신을 그리워할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걸음을 먼저 내딛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벌써 몇 걸음을 앞서서 내딛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재능을 한계까지 불태워가며 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에이미였지만 그럼에도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따가운 시선으로 시로네의 등을 째려보며 마음속으로 전했다.

‘빨리 쫓아오란 말이야. 뒤처지면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여자들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끝낸 두 사람은 걸음을 재촉하여 시로네와 리안을 따라잡았다.

다시 하나로 뭉친 시로네 일행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별장으로 향하는 언덕을 올랐다. 그러던 중 갑자기 테스가 멈춰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쉿. 조용.”

“갑자기 왜……?”

에이미가 테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처음에는 또 다시 그녀의 장난기가 발동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사브르 검술을 훈련하는 테스는 스키마 중에서도 감각 계열의 빌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궁수만큼은 아니지만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도는 일반인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시로네와 리안이 뒤늦게 분위기를 눈치 채고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테스는 그들에게도 손가락을 올려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별장 앞에 누군가가 있어. 폐활량을 봤을 때 남자야. 평균 체형이라면 아마도 키는 170에서 175 사이.”

리안이 등 뒤에 걸린 직도의 손잡이를 잡았다. 어젯밤에 왕궁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기에 침입자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적의는 느껴지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 대비는 해 둬.”

테스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가자 남은 세 사람도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별장에 도착하자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로네 일행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진했다. 하지만 몇 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실루엣이 그만 힘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서로를 돌아본 시로네 일행은 황급히 문으로 달려갔다.

한밤의 방문객은 지스였다. 어디서 맞고 왔는지 얼굴에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시로네가 지스의 옆구리를 잡고 부축했다. 단지 손이 닿은 것만으로도 지스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구겼다.

“크윽! 아, 아파!”

“괜찮아? 누구한테 이렇게 당한 거야?”

“저, 저리 비켜!”

지스는 시로네를 밀쳐 냈다. 자신이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알면 화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에이미의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스는 문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다. 시로네가 다시 부축을 하려고 다가가는 순간 그가 고통스럽게 입꼬리를 올리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시간까지 놀다 온 거야? 아주 팔자가 늘어지셨네.”

지스의 상태가 몹시 위독해보였지만 테스는 끝까지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어젯밤에도 이상한 방법으로 에이미를 꼬드겨서 위험에 빠트린 장본인이었다. 아무리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믿어 줄 생각은 없었다.

반면에 에이미는 서슴없이 다가갔다. 지스를 신뢰한다기보다는 이 바닥의 룰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일의 전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야? 말해 봐. 팔코아가 그런 거야?”

지스는 에이미에게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들어 시로네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막상 당당하게 시로네를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괜찮았다.

인생 막장까지 떨어지면서 지켜 낸 에이미의 목숨이다. 적어도 자초지종을 설명해야하는 1분 정도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어이, 너. 똑똑히 들어. 네 여자 잘 지켜라.”

“무슨 소리야?”

시로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하자 지스는 무섭게 인상을 찡그렸다. 마차에서 에이미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더욱 성질이 났다. 자신이 갖지 못한 걸 다 갖고 있는 시로네 때문에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에이미 말이야, 이 자식아! 그딴 식으로 일을 저질렀으면 끝까지 지켜 주라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에이미가 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지스는 팔코아의 지시를 떠올렸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절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데려오란다, 죽여서라도. 치사율의 루프를 음료수에 타서 그걸 에이미에게 가져다주래. 어차피 에이미는 마실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미친……!”

리안이 호랑이처럼 눈을 부릅뜨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분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물론 에이미는 팔코아의 수작임을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과 홍안의 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어쩌면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테스가 오한에 몸을 떨었다.

“미쳤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간 놈이었잖아.”

시로네의 목소리도 전에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음료수는…….”

“쓰레기통에 처박았지. 내가 못 하겠다고 했어. 이제 알았냐? 내가 에이미를 지킨 거야.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내가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켰다고! 알아들었어, 이 멍청아?”

시로네 일행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수 없고,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다.

시로네가 무릎을 꿇고 지스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스, 우리는…….”

“그러니까!”

지스는 시로네의 말을 끊으며 소리를 빽 질렀다. 사력을 다해 소리치자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 고통이 치밀었다. 하지만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스는 납작 엎드렸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처박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도와줘.”

시로네 일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 있는 지스를 내려다보았다.

“여동생이…… 여동생이 잡혀간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게로 갔는데, 집에 돌아갔다고 해서 집으로 가봤더니 거기에도 없어. 그래서 찾으러 다녔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제발 여동생 좀 찾아 줘. 이렇게 부탁할게.”

시로네 일행에게 간청한 지스는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며 제발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시로네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스며드는 기분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엉망이 된 상태로 얼마나 거리를 헤매고 다녔을까. 뒷골목 출신의 여동생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모두의 무관심 속에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다녔을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여동생. 내 여동생. 내 전부…….”

“짐작 가는 데라도 있어? 동생이 잡혀간 곳 말이야.”

지스는 고개를 쳐들었다. 도움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찾아왔지만, 도와주고 싶다고 해도 섬의 지배자인 프리먼 조직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무리 마법사라고 해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부탁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간청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로네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여동생이 잡혀간 곳을 물어봐주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스는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해 봤자 고작해야 이 정도뿐이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한 듯이 지켜보던 에이미가 지스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됐어. 하던 대로 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하잖아. 일단 들어가자. 상처부터 치료하면서 얘기해.”

“하, 하지만 여동생이…….”

“바보야! 급하다고 무턱대고 덤볐다간 우리가 먼저 당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납치를 당했다면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어. 뭐하면 날아서라도 갈 테니까 일단 치료부터 해.”

에이미는 지스를 부축하며 별장의 문을 열었다. 유나라는 소녀도 걱정스럽지만 지금은 상처를 살피는 게 먼저였다.

지스가 침대에 눕자 테스가 그의 옷을 벗겼다. 수많은 전투 보조 기술을 익힌 그녀는 한눈에 지스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 피멍의 형태로 보아 갈비뼈가 상한 게 분명했다.

테스는 지스의 몸 이곳저곳을 눌러 보았다.

“으윽! 아, 아파.”

“당연히 아프지. 이렇게 얻어터졌는데. 정말 인정사정없이 쳤네. 조금만 참아. 장기도 확인해야 하니까.”

테스는 있는 힘껏 지스의 배를 짓눌렀다. 피부와 근육으로 보호되고 있는 장기는 이 정도로 우악스럽게 들어가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웠다.

“으으으으으!”

미칠 듯한 고통일 텐데도 지스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치료가 끝나야 유나를 구하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다행이야. 갈비뼈에 금이 갔고 나머지는 단순 타박상이야. 장기도 무사하고. 너 의외로 몸이 튼튼하네.”

지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싸움은 못했으나 수많은 귀족들에게 덤벼댔던 탓에 얻어맞는 일에는 이미 이골이 나있는 그였다.

테스가 붕대로 압박을 하는 동안 지스는 상황을 설명했다.

유나의 퇴근 시간과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하면 납치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후로 추정되었다.

“아지트로 데려갔을 테니까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시간에 맞추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 나는 그저 유나가 살아 있기만 한다면…….”

에이미가 지스의 말을 끊었다.

“아니, 괜찮아. 놈들은 마차로 이동할 테니까 우리가 말을 빌려서 타고 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아지트가 정확히 어디야? 여기서 꽤나 먼가 본데.”

“나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 섬의 북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확실한지는 몰라.”

“아니. 아마도 거기가 맞을 거야.”

시로네는 분명 그곳이 아지트일 것이라 확신했다. 섬의 북쪽은 천혜의 절벽이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섬을 우회하여 남쪽의 항구에 정박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북쪽이라면 케르고 자치 지구와 가까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아지트로 활용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었다.

“좋아, 그럼 출발하자.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지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령 상처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시로네를 보낼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표정이 어두운 이유는, 상관없는 이들을 사지로 떠밀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정말 괜찮아? 도와 달라면서 이런 말 하는 거 우습지만, 놈들은 정말 강해.”

에이미는 콧방귀를 뀌었다. 굳이 지스의 여동생이 아니라도 팔코아라는 인간은 언젠가 손을 봐줄 생각이었다.

## [145] 앵무라는 이름(3)

“흥, 그래 봤자 깡패들이지. 아무 걱정 말고 우리가 돌아오기나 기다려.”

지스는 자신이 아는 바를 털어놓았다. 동생을 구하러 떠나는 그들에게 겁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이대로 보냈다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놈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3개월 만에 섬을 장악했어. 단순한 조직이 아니야. 팔코아의 직속 부하에게 듣기로는 섬에 오기 전엔 앵무 도적단이라고 불렸던 거 같아.”

“앵무 도적단?”

시로네의 눈이 크게 뜨였다. 에이미도 이번만큼은 의외라는 듯 생각에 잠겼다.

앵무 도적단이라면 아케인과 함께 학교에 쳐들어왔던 루카스라는 남자가 속해 있던 도적단이었다.

에이미는 루카스라는 남자의 무용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 어비스 노바의 효과가 풀리면서 떠오른 기억으로는 이루키와 네이드의 협공으로도 어찌하지 못했던 강적이었다.

만약 시이나의 돌발적인 난입이 없었다면 학생 전원이 무사한 상황은 꿈도 꾸지 못했을 터였다.

어쨌거나 정체를 알았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무고한 소녀의 목숨이 걸린 만큼 한시라도 빨리 떠나는 게 중요했다.

“괜찮아. 우리는 앵무 도적단의 부단장과 싸워서 이긴 적도 있으니까.”

지스는 눈물을 삼키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고마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주다니.”

여태까지 지스가 만난 귀족들은 뒷골목 패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세계의 부와 명성을 독점하고 있는 그들이 어두컴컴한 음지의 인간에게 무엇 때문에 눈길을 주겠는가.

하지만 이들은 달랐다. 얄팍한 언변으로 바가지나 씌울 궁리나 했던 자신을 위해 싸워 주려고 하고 있었다.

“이 은혜를……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지스의 계속되는 감사에 난처해진 에이미가 허리에 손을 얹고 한숨을 내쉬었다.

“됐다니까. 따지고 보면 네가 날 구해 준 셈이잖아.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건 우리야.”

“하지만 이런 위험한 일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제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게다가 네가 남자답게 부탁까지 하니까 들어주는 거야.”

지스는 황당한 표정으로 에이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남자답다는 말이 지금 상황과 어울릴 수가 있는가?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하는 것 아닌가?

“쳇, 동정하는 거라면 그만둬. 남자답기는 무슨.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토록 비굴하게 빌겠어? 자존심 다 구겨졌다고.”

“무슨 소리야? 동생을 되찾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부탁한 거잖아.”

“그야 그렇지만…….”

에이미가 미소를 지으며 지스의 이마를 살짝 밀었다.

“바로 그런 게 납자답다는 거야, 바보야.”

에이미가 그 말을 남겨두고 멀어지자 지스는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하지만 참아야 할 것 같았다. 벌써부터 울어버리면 그들의 각오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리안이 지스의 어깨를 다독이며 에이미의 뒤를 따랐다.

“걱정하지 마. 내 친구를 구해 줬으니 네 여동생도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테스가 덧붙였다.

“대신에 돌아오면 제대로 구경시켜 줘야 해. 수고한 값은 톡톡히 받아 내겠어.”

시로네가 문 앞에서 지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를 믿어. 반드시 여동생을 무사히 데려올 테니까.”

결국 지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붕대로 감싼 상처를 신경 쓸 정신도 없이 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시로네 일행을 향해 소리쳤다.

“조심해! 진짜로 조심해야 돼! 무사히 안 돌아오면 진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시로네 일행은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빨라지는 그들의 발걸음이야말로 백 마디의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었다.

\* \* \*

시로네 일행은 서쪽 상업 지구에서 네 필의 말을 빌렸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마차를 타고 추격하다가는 시간에 맞출 수가 없다는 테스의 의견이었다.

지스에게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실제의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뒤늦게 알게 된 프리먼 조직의 정체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앵무 도적단의 부단장 루카스는 B급 범죄자였다.

범죄자들의 급수는 범죄의 경중만이 아니라 무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설령 도시를 어지럽힌 연쇄살인마라도 무력이 강하지 않은 정신이상자라면 서쪽 감옥 인페르노에 갇히지 않는다.

시로네는 꽤나 심각한 일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확실히 뭔가 이상했다. 아케인 사건이 끝나고 듣기로는 앵무 도적단의 단장은 A급 범죄자로 현재 수배 중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 그들이 싸워야하는 프리먼 조직의 프리먼은 누구란 말인가?

“에이미, 정말로 그 앵무 도적단이 맞을까? 뭔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아?”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수배 중인 조직이 어떻게 관광지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지? 가뜩이나 아케인 건으로 앵무 도적단에 대한 추적이 강화되었을 텐데.”

에이미의 오른편에서 말을 타고 달리던 테스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앵무 도적단이 아니야.”

“응?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앵무 도적단은 아마도 토르미아 왕국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명칭일 거야. 놈들의 원래 명칭은 앵무 용병단이야.”

“용병단? 용병이었다고? 그렇다면 루카스도?”

“그건 알 수 없어. 하지만 놈들이 어떻게 도적단이 되었는지는 알지.”

“어째서인데?”

시로네가 곧바로 물어왔다. 하지만 테스는 그에게 말을 해주기가 두려웠다.

내용만 놓고 보자면 별것 아닌 흔한 이야기였다. 다만 앞으로 치열하게 싸워야하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정보가 시로네의 전의를 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스,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줘.”

에이미까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요청하자 할 수 없이 테스가 설명을 시작했다.

“앵무용병단과 관련해서 대륙에서 꽤나 이슈였던 사건이 하나 있어. 혹시 너희, 7년 전 아이론 왕국에서 일어난 화병花甁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어라? 나 알아. 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어.”

시로네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러했다. 아이론 왕국의 귀족 모임에서 상원 귀족 발테스가 누구라도 자신보다 용기가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 아끼는 화병을 주겠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하원 귀족 무스가 도전했다. 그가 실행한 방법은 포상으로 걸었던 화병을 벽에 집어 던져버린 것이었다.

겉으로는 술에 취한 귀족 간의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안을 파고들면 오랫동안 곪아 왔던 정치적 갈등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아이론의 귀족 체계는 양원제야. 상원은 왕의 의지를 전하고 하원은 평민을 대표하지. 덕분에 아이론은 부국이 되었지만 귀족들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야.”

평민을 정치에 끌어들이면 귀족의 권위는 약해진다. 하지만 주체성을 갖는 평민이 늘어나면 국가의 부는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상원의 힘은 권력에서 나오고 하원의 힘은 세금에서 나와. 결국 두 파벌의 싸움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거야. 하원 귀족인 무스가 건방을 떨자 발테스는 속이 끓었지. 당시에는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앵무 도적단, 아니 앵무 용병단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화병 사건이 있고 3개월 후에 무스의 영지에 내전이 발발했어. 정체모를 군대가 침략을 했거든. 여기서부터는 첩보를 통해서 들은 사실인데, 내전을 일으킨 자가 발테스래. 사병이 아닌 용병들을 고용해서 무스를 친 거야.”

“그렇다면 설마, 거기에 속해 있던 용병이……?”

“맞아. 그들이 바로 앵무 용병단이야. 물론 수많은 용병단이 참전했지만 앵무 용병단은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며 무스의 수비벽을 돌파해 들어갔어. 하지만 내성 돌파만을 앞두고 있을 무렵, 갑자기 발테스의 사병들이 후방에서 밀려들어 와 오히려 용병단을 기습한 거야.”

시로네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용병을 고용하여 적을 치게 만들고, 다시 사병으로 용병을 친다. 그렇게 되면 승리와 결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발테스는 처음부터 무스를 처단할 생각은 없었어. 평민의 지지를 받는 하원의 힘은 예상보다 막강하니까. 다만 혼쭐을 내 주고 싶었던 거겠지. 결국 처음부터 용병들은 버리는 패였던 거야. 영지를 습격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처단한다, 완벽한 작전이지.”

“하지만 그렇게 끝나 버리면 하원 귀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물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드러낼 수 없어. 어쨌거나 상원은 왕의 비호를 받는 귀족들이니까. 아마도 협약이 있었겠지. 무스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건 발테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일 거야.”

거기까지 들은 리안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찡그렸다.

“결국 용병들만 버림받은 건가? 정치인들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기사도에 어긋나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나는 가문에서 이보다 더 한 첩보들을 많이 접했어. 세상은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아.”

테스의 말에 모두들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언젠가 세계의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곳으로 진출해야만 한다. 화병사건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남의 일도 아니었다.

“어찌 됐건 그렇게 버려졌어. 무스의 영지를 공격했던 용병들은 반역죄란 명목으로 모조리 처형당했고 자연스레 앵무 용병단도 와해됐지.”

에이미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토르미아 왕국으로 망명을 왔을 테고.”

“맞아. 용병단은 와해됐지만 실력 있는 소수의 인원은 전장을 빠져나왔어. 여기서부터는 추론이지만, 반역자로 몰린 그들이 용병단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적단으로 전락했고 결국 범죄자로 몰리자 섬으로 흘러들어 오게 된 거겠지.”

테스의 추론은 합리적이었으나 시로네는 왠지 꺼림칙했다.

무엇보다 국가반역죄로 도피하는 그들이 앵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나름의 자본과 권력, 굉장히 뛰어난 리더가 필요했다.

“단지 명칭이 같을 수도 있잖아? 사실 세상에는 수많은 길드가 있고 앵무라는 이름이 생소한 것도 아니니까.”

테스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녀가 우려했던 상황이 오고야 말았다.

“시로네, 저번에 네가 얘기해 준 여자 있지?”

“응? 마르샤 누나?”

에이미를 왕궁에서 구출한 이후 야식을 먹을 때 시로네는 마르샤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세세한 일화까지 털어놓은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양부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했던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다.

“나도 지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억측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당시 앵무 용병단을 이끌던 단장의 이름이 떠올라 버렸거든.”

“단장의 이름? 프리먼이 아니야?”

“클레이 마르샤. 그게 바로 단장의 이름이야.”

테스가 마침내 털어놓자 시로네의 표정이 멍해졌다. 친누나처럼 다정했던 마르샤와 용병단의 단장 마르샤가 머릿속에서 제대로 합쳐지지 않고 있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용병 손에 키워졌다는 이야기에 혹시나 했지. 그러다가 지스의 말을 듣고 확신했어. 이 섬을 지배하는 자들은 7년 전 아이론 왕국에서 배신당한 A급 용병단의 잔당이야.”

“그럴 리가 없어. 마르샤 누나가 어떻게……? 내가 그때 설명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니야.”

“정말이야?”

테스는 강렬한 눈빛으로 시로네를 노려보았다. 평소의 그녀와는 달랐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첩보원의 눈동자였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마르샤 말이야.”

시로네는 입술을 짓깨물었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그녀를 믿어 주려고 해도, 그의 통찰력은 이미 모든 걸 의심하고 있었다.

“미안해. 네 말이 맞을 거야. 분명…… 그런 것 같아.”

하나씩 따져보면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진다. 귀족과 범죄자의 결탁을 이야기하며 비소를 지었던 그녀의 반응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 [146] 앵무라는 이름(4)

테스는 시로네의 빠른 입장변화가 오히려 불안했다. 그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는 그동안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시로네는 기분에 따라 상황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냉혈한은 더더욱 아니었다.

단지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알고 있을 뿐,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터였다.

테스는 시로네의 현재 상태가 전투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시로네,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지스의 여동생을 구하러 가는 거야. 마르샤가 어떤 사람인지는 직접 확인해 보면 그만이야.”

시로네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테스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만큼 각오는 강해졌다.

만약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그녀가 정말로 악인이라면 여태까지의 감정을 잊고 전심력을 다해 쓰러뜨릴 생각이었다.

“걱정하지 마. 실수 같은 건 하지 않아.”

시로네는 말의 옆구리를 박차며 빠르게 밤공기를 가르고 나아갔다.

강행 돌파(1)

서쪽에서 북쪽의 아지트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에 원주민 자치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유나를 납치한 자들은 토아 산을 크게 우회하여 아지트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창고처럼 허름한 건물에서 팔코아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반쯤 풀린 동공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 그의 발밑에는 씹다가 뱉은 루프의 껍질이 널브러져 있었다.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온 부하들은 팔코아에게 고개를 숙인 다음 유나가 담겨 있는 포대를 바닥에 던졌다.

꿍 하고 찍는 소리가 났으나 비명 소리는 새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포대의 안쪽에서 극심한 떨림이 느껴지고 있었다.

발작처럼 흔들리는 진동의 폭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팔코아가 턱짓을 하자 부하가 칼을 꺼내 들고 포대를 찢었다. 마치 누에고치를 벌린 것처럼 눈물과 땀에 절어 있는 유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겁에 질려 주위를 돌아보던 유나의 눈에 절망이 담겼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밤새도록 달려왔다는 것은 시간이 말해 주고 있었다.

눈앞에는 정상이 아닌 듯한 남자가 풀린 동공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입구 쪽에는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도망칠 곳마저 차단한 상태였다.

“사, 살려 주세요.”

“너희는 나가 봐.”

대장의 말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부하들은 팔코아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문을 열고 사라졌다.

유나와 단둘이 남게 되자 팔코아가 루프를 질겅거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너,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모, 몰라요. 제발 집에 보내 주세요.”

“미안하지만 안 돼.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만들 생각이거든. 왜냐하면 네 오빠가 너를 팔았기 때문이지.”

유나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 버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지스를 믿고 있었다. 세상에 어떤 오빠가 여동생을 이런 자에게 팔아 치운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는 저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냐? 그런데 왜 네가 지금 여기에 있을까? 나는 지스에게 굉장한 걸 선물하고 너를 받았어.”

팔코아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목숨을 살려 주었으니 억만금을 건넨 셈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덤으로 에이미를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까지 보장해주었으니 지스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럴 리가 없어! 오빠가 날 팔았을 리가 없어!”

유나는 공포를 이겨 내기 위해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리쳤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왔다는 사실보다도 오빠가 자신을 팔았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다.

“오빠한테 보내 줘요! 직접 만나서 물어보겠어요!”

“어이, 꼬마 아가씨.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는 집에 못 돌아가. 평생 돌아갈 수 없어. 선택지는 두 가지야. 나에게 죽든가 스스로 목숨을 끊든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꺄악!”

팔코아가 기습처럼 다가와 유나의 손목을 붙잡았다. 저항할 수 없는 완력으로 끌어당기자 유나는 강제로 일으켜져 팔코아의 품에 안겼다.

“저리 가, 이 나쁜 자식아!”

잠시 동안 가녀린 소녀의 저항을 음미해보던 팔코아는 유나의 팔을 꺾으면서 돌려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양 볼을 손아귀로 움켜쥐며 위협했다.

“초반부터 너무 힘 빼지 마라. 앞으로 비명을 지를 일이 넘치고 넘칠 테니까.”

그 순간 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차가운 목소리가 창고에 나직하게 깔렸다.

“팔코아. 인신매매는 규율 위반이다.”

“프리먼.”

팔코아는 불쾌한 듯이 인상을 찡그렸다. 앵무용병단에서 유일하게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남자, 아가도 프리먼이 가라앉은 눈으로 창고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190센티미터가 넘는 키에 하얀 롱코트를 걸친 그의 인상은 창백함 그 자체였다. 눈썹은 완전히 밀어 버렸는지 남아 있지 않았고 입술은 병든 사람처럼 파리했다.

프리먼 조직의 전신인 앵무 도적단의 부단장을 맡았던 인물로써 스키마의 고수인 데다가 마정탄을 이용한 기술을 사용한다. 하지만 단순한 신체 능력만으로도 루카스를 압도한다는 게 조직 내의 정설이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여태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돈이라도 떨어졌나?”

팔코아가 불쾌하단 듯이 말했다. 앵무 용병단 시절부터 프리먼은 명실상부한 2인자였으나 팔코아는 조직 내에서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유일한 자였다.

부단장과 행동대장의 갈등은 섬에 들어온 뒤로 더욱 심해졌다. 도적단으로 전락했으면서도 예전의 용병단 규율을 그대로 지키려는 프리먼의 욕심 때문이었다.

반역자로 몰린 수십 명의 부하들을 먹여 살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프리먼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조직을 5년간 이끌어 온 사람이 팔코아였다. 섬의 터줏대감들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루프를 유통하여 남긴 자금으로 조직을 유지시켰다.

프리먼이 팔코아의 악행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다. 앵무의 이름을 달고 있다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프리먼은 바지대장에 불과했지만 인신매매와 폭력을 이용한 약탈만큼은 단호하게 처단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다.

“조직의 규율을 알고 있을 텐데? 인신매매는 앵무 용병단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행동이다.”

“앵무 용병단? 언제부터 우리가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살게 됐지? 지금 이 꼴을 봐라.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면 조직이 여태까지 버텼을 거 같아?”

“미쳤구나, 팔코아. 조직을 위해 나름대로 수고한 부분은 방법에 상관없이 칭찬해 주마. 하지만 분명히 알아 둬라.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엄연히 나다.”

“그딴 건 상관없어. 난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처음부터 그러기로 했던 거 아닌가? 이제 와서 윗대가리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팔코아의 당당한 행태를 지켜보던 프리먼에게서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약한 생물이라면 노출된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만큼 강렬한 기운이었다.

하지만 팔코아는 그 탁한 기운을 마치 스스로 몸에 칼을 박듯이 빨아들였다.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받아내고 있었다.

“크크크, 어이구, 무서워라.”

프리먼은 난감했다. 이토록 호전적인 인간에게 고통과 분노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촉진제일 뿐이었다.

‘이 정도까지 들개가 되어 버린 건가.’

루프가 아니더라도 팔코아는 처음부터 욕망으로만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다만 그 욕망이 전투와 살인에 치우쳐 있었기에 용병단과의 궁합이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섬에서 술집 사장이나 하고 있는 지금은 욕구불만 상태였다. 루프를 씹고 술과 여자에 취해도 광기의 본능을 달래기에는 무리였다.

“사, 살려 주세요, 제발.”

유나가 몸을 떨며 사정하자 그녀를 바라보던 프리먼이 다시 팔코아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제는 앵무의 자존심까지 저버렸는가?”

“자존심? 어이, 내가 하나 말해 줄까? 앵무 용병단은 이미 끝났어. 단장은 떠나 버렸고 부하들도 한계라고. 너도 그만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와.”

팔코아는 보란 듯이 유나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럼에도 프리먼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는 팔코아도 살기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순간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앵무를 지탱해 왔던 두 기둥 중의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무너지고 만다.

제대로 붙는다면 누구도 승부를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팔코아는 프리먼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만만했다.

“그만 나가 보는 게 어때? 부하에게 말해 둘 테니 돈 좀 받아 가. 당신도 그만 인정하고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거야.”

“어이구, 아주 살판났네, 살판났어.”

문이 열리면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음속에 꽂히는 목소리에 팔코아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시선에 무언가를 담기도 전에 턱을 얻어맞고 얼굴이 돌아갔다.

“크윽!”

이어서 강력한 발길질이 팔코아의 복부를 강타했다. 팔코아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유나 또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젠장. 재수도 더럽게 없지.”

팔코아는 침을 뱉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동물적인 반사 신경을 가진 그가 두 번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의식중에 반격을 억눌렀기 때문이다.

클레이 마르샤. 한때 수백 명의 용병 위에 군림했던 앵무 용병단의 단장이 서 있었다.

“진짜 단장인가?”

“그럼 가짜 단장도 있냐? 똥개 자식이 몇 년 풀어 줬다고 맛이 가 버렸네.”

팔코아는 화내지 않았다. 아니, 화를 내기는커녕 적개심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용병단의 일원에게 마르샤란 그런 존재였다.

앵무 용병단의 1대 단장으로서 몇 년 사이에 용병단을 A급으로 끌어올리려면 무력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르샤는 뛰어난 수완으로 그것을 해냈다. 게다가 조직에서 유일하게 A급 범죄자로 등재될 만큼 실력 또한 막강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팔코아는 그런 자질구레한 이유 따위로 마르샤를 따르는 게 아니었다.

그는 마르샤라는 여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다.

타락한 성모.

마르샤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그녀가 끌어안는 인간 군상 중에서 정상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 천성적으로 피를 탐할 수밖에 없게끔 태어난 자, 전장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방법조차 없는 사회의 낙오자.

팔코아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누구도 자신의 정신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사회 바깥으로 밀어내려고만 할 때, 마르샤는 그를 끌어안아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앵무 도적단에서 마르샤는 누나이자 어머니였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단장이라도 분통이 터지는 건 사실이었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 나타나서 이 무슨 행패란 말인가.

“빌어먹을. 어디 처박혀 있다고 온 거야? 너는 단장도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너, 약쟁이 됐다며?”

팔코아의 얼굴이 굳었다. 풀려 있던 동공도 이 순간만큼은 조금이나마 또렷해졌다.

5년 동안 수없이 들어 본 말일 테지만, 어째서인지 처음으로 그 말을 들은 기분이었다.

약쟁이. 과연 그러한가? 전장의 악귀라 불리던 자신이 이제는 약쟁이가 되어 버린 것인가?

프리먼이 다가와 마르샤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단장님.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루카스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했어. 그 놈은 보나마나 은신처를 불어 버릴 테니까. 조만간 이곳도 정리해야 할 거 같아.”

프리먼에게 설명한 마르샤는 팔코아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다가오자 지레 찔린 팔코아는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팔코아,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인신매매는 안 된다고.”

팔코아의 미간이 구겨졌다. 생각해 보니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잘못은 조직을 내팽개치고 떠나 버린 마르샤에게 있었다.

## [147] 강행 돌파(2)

마법협회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어떻게 기별 한 번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부하들에게 돈의 맛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미 조직은 와해됐을 터였다.

“헛소리하지 마!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이 아닐 텐데? 우리는 앵무 용병단도 도적단도 아니야. 그냥 섬에 처박혀 있는 건달패거리일 뿐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망나니처럼 굴겠다는 건가?”

“흥! 내가 벌었어! 내가 벌어서 조직을 유지시켰다고! 칭찬은 못 할망정 나를 비난해? 그러면 당신은 그동안 어디 뭘 했지?”

“거기까지 네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만약 내가 세운 규율에 따르지 않을 거라면 지금 당장 앵무라는 이름을 버려라.”

“푸하하하! 그걸 협박이라고 하는 건가? 좋아, 버려 주지! 앵무? 우리는 지금 프리먼 조직이야! 당신이 그렇게 도망쳐 버린 이후로 앵무란 이름은 걸어 본 적도 없다고!”

“좋아. 이 순간부터 너는 앵무가 아니다.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긁어서 이곳을 떠나.”

“단자아아앙!”

팔코아가 분노의 일갈을 터뜨렸다. 아무리 마르샤라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었다. 그녀의 앵무지만 자신의 피도 섞여 있었다. 최강의 용병단이라는 명예는 고작 돈 따위와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

“앵무를 포기할 수 없다면 내 말에 따라. 착하게 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하는 게 있다면 싸워서 뺏어라. 약한 자들을 갈취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팔코아는 씩씩거렸다. 자신이 앵무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서도 이용하는 마르샤가 얄미워 죽을 것 같았다.

“나는 갖고 싶은 건 반드시 갖는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언젠가는 당신도 내 것이 될 거라고.”

마르샤는 화를 내기는커녕 미운 아이를 달래듯 나긋나긋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들으니 참신하네. 아무튼 열심히 해 봐. 나는 오는 남자 안 막고 가는 남자 안 붙잡는 성격이니까.”

팔코아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마르샤를 노려보았다. 마치 눈동자에 불이 붙은 듯했다.

실제로도 그는 강력한 눈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르샤는 안색조차 바뀌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쳇! 재수 없는 건 여전하군. 난 관두겠어. 나가서 술이나 먹을 거야.”

“꼼짝 말고 아지트에 붙어 있어. 조장급 이상 모여서 회의할 거니까. 그리고 이 시간부로 약은 금지한다. 만약 하다가 걸리면 진짜 나한테 죽을 줄 알아.”

팔코아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창고를 나가 버렸다. 하지만 마르샤는 알고 있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할 것이고 약은 입에도 대지 않을 것이다. 피가 넘실대는 전장으로 그를 데려다줄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부하들이 사라지자 프리먼은 마르샤에게 부단장이 아닌 고향 친구로 되돌아와 새롭게 인사를 건넸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도망치니까 연락을 못 하지. 너희는 생각이 없니? 내가 쉽게 잡히기라도 할까 봐? 그나저나 팔코아는 어떻게 된 거야? 저래 가지고 써먹기나 하겠어? 미치긴 했어도 칼만 잡으면 날아다녔었는데.”

“팔코아만을 탓할 수는 없어. 놈에게서 전장을 뺏은 건 우리야.”

“후후, 아니, 나겠지.”

“그래도 놈이 있어서 여태까지 군자금이 조성된 거야. 네가 돌아오면 언제라도 타국으로 떠날 수 있게끔 준비는 해 두었다.”

마르샤는 마음에 들지 않는지 볼을 부풀렸다. 팔코아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끌어왔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결국 인간이란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앵무 용병단의 위상도 이제는 옛말이었다.

열일곱 살 때 집을 나오면서, 고향 친구인 프리먼과 여태까지 꾸려 온 용병단이었다.

정치인들의 수작에 넘어가 평생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앵무의 가치만은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이제는 딱히 그들과 다를 바도 없지 않은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념을 걸고 싸우기 이전에 가진 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였다.

“하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에 배신당한 몸이다.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프리먼, 설마하니 너도 망가진 건 아니겠지?”

프리먼은 입을 다물었다. 양심에 찔리는 건 없다. 다만 어릴 때부터 흠모했던 친구에게 의심을 받는다는 게 서운할 따름이었다.

“나에게는 조직도 무엇도 상관없어. 앵무라는 이름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직 네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야.”

소름이 돋은 마르샤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프리먼의 감정 따위야 앵무라는 명찰을 달았다면 비루먹는 개도 알고 있을 것이다. 딱히 감동적일 것도 없는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그가 짜증나 죽을 지경이었다.

“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란다고? 도대체 왜?”

“너는…….”

마르샤가 뻔히 알면서도 면박을 주기 위해 되묻자, 프리먼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적합한 말을 찾느라 고민했다.

“우리의 단장이니까.”

마르샤는 콧방귀를 뀌었다. 대답을 들어보니 프리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듯했다. 예나 지금이나 짜증나는 성격이 그대로였으니까.

‘어쨌거나 돌아왔으니 재정비를 해야겠지.’

마르샤는 조직을 이끌고 타국으로 망명하여 새 출발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하들이 산적하게 싸질러 놓은 똥부터 치우는 게 순서였다.

“흐윽! 흑!”

마르샤는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유나가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끔찍한 일은 모면했으나 마르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에게 함부로 다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상처를 입을 만큼 감성적인 게 여자였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이는 어디서 데려왔어?”

“팔코아가 데리고 있는 놈 중에 길바닥 호객꾼이 있어. 그놈의 동생이라더군.”

“미친놈. 이제는 부하의 여동생까지 손을 대려고 해?”

“모르지. 제대로 꼭지가 돈 모양이던데.”

“그래? 내가 모르는 사정이라도 있어?”

프리먼은 부하에게 들은 얘기를 전해 주었다. 지스와 에이미 사이에 얽힌 일화부터 시로네가 왕궁에 쳐들어온 사건을 지나 유나를 끌고 오게 된 사정까지.

흥미롭게 듣고 있던 마르샤는 시로네의 얘기가 나오자 눈을 빛냈다.

“호오, 이제 보니 나도 알고 있는 얘기네?”

“알고 있다고? 어떻게 네가 이 사건을 알아?”

마르샤는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매만졌다.

“역시 나는 천재라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얽히게 되어있는 게 인생이지.”

“대체 무슨 일이야? 나에게 말해 봐.”

“아니, 뭐…… 사소한 해프닝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마르샤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프리먼도 추궁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심심할 때마다 이쪽저쪽을 들쑤시고 다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또한 그런 방식이야말로 그녀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마르샤는 수많은 안건을 프리먼에게 전달받았다.

특별히 골치가 아픈 일은 없었다. 팔코아가 벌어들인 자금만으로도 타국에서 새 출발을 하기에 충분했고 프리먼의 부대도 전투력이 그리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괜찮네. 수고했어. 그런데 재산은 그냥 정리하지 말까?”

“팔코아가 모은 자금이 그렇게 걸리나?”

“좀…… 그렇잖아? 앵무의 재도약을 하는 시기인데 초장부터 약을 팔아서 번 돈으로 조직을 일으켜 세운다는 게.”

“너답지 않군. 어차피 돈은 돈이다. 나도 벌어들인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고작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땅에 묻는다는 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나도 알아. 어쨌든 이 안건은 이따 회의 때 말하기로 하고, 우선은…….”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면서 단원이 들어왔다. 마르샤와 프리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이곳은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오지다. 따라서 숨을 헐떡이면서까지 달려올 일은 없어야 했다.

마르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배탈 났어? 화장실 여기 없는데?”

“어? 단장님? 돌아오셨습니까?”

마르샤를 발견한 단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한지라 반가울 틈도 없이 보고부터 올렸다.

“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습격입니다!”

“습격? 갑자기 무슨 습격? 정부 쪽이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애들인데 4인조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마법사 2명과 검사 2명인 것 같습니다.”

마르샤는 거기까지만 듣고서도 누군지 알아차렸다. 항구에서 싸웠던 길바닥 호객꾼의 동생을 그들이 구하러 온다는 건 분명 이상했지만, 마르샤는 한 가지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후후, 하긴, 그 정도로 역겨운 꼬맹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습격하는 아이 중에 시로네라는 이름이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 저도 이름은 잘…….”

프리먼이 어느새 말투를 바꾸어 정중하게 말했다.

“단장님, 차라리 여자를 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직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귀찮은 일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고지식한 남자도 드물 것이란 생각을 하며 마르샤는 정황을 분석했다.

“흐음, 여자를 내준다. 그건 좀 꼴이 우습지 않아? 납치를 해 놓고 찾으러오니 돌려준다는 거 말이야. 아니면 뭐야, 여기까지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단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이곳을 요새화시켰습니다. 마법진과 마법 무구를 활용한 전술적인 부분도 완벽합니다. 어지간한 실력자가 아니고서는 1차 관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 겁니다.”

“그럼 상관없잖아? 가서 죽여. 이 소녀는 내가 돌보고 있을 테니까. 몇 년 쉬게 해 줬더니 아주 감들을 잃었나 봐? 완전 어리바리한데?”

마르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프리먼은 부하를 향해 즉각 출동 준비를 시켰다.

단장 앞에서 군기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특히나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억울했다.

“전 병력 훈련 위치로. 실전 상황이다.”

“네!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프리먼의 부하들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병장기를 챙기고 부대를 편성한 다음 각자의 위치로 향하는 데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마르샤는 그제야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걸터앉았다.

“그래도 제법 열심히 했네. 여태까지 놀고먹은 줄로만 알았더니.”

“모두가 오늘을 기다렸으니까. 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야.”

“흥, 언제까지 내가 젖 먹이고 트림까지 시켜 줘야 돼? 이제는 알아서 할 때도 됐잖아. 그나저나 너는 뭐 해? 안 싸울 거야?”

“나는 이곳에 남는다. 너의 곁을 지키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마르샤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프리먼을 올려다보았다. 물론 용병단의 초기 멤버로써 그가 경호원 역할을 수행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르샤는 소름이 올라오는 팔을 쓸어내려야 했다.

“진짜 구질구질해서 못 봐 주겠네. 이런다고 내가 널 멋있다고 생각할 거 같아?”

프리먼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마르샤의 옆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르샤의 얼굴이 분노에 붉어졌다. 어릴 때부터 이런 점이 싫었다. 감정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고집불통처럼 굴어서 짜증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야!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나가라고! 네가 무슨 내 서방이라도 되는 줄 알아?”

마르샤는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들어 프리먼의 엉덩이를 걷어차 버렸다.

그러자 마치 관성이라도 걸린 듯 프리먼은 한 발을 내디딘 김에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창고를 나가 버렸다.

모두가 떠나자 마르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기지개를 켰다.

오랜만의 전투에 흥분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궁금한 건 시로네였다.

시로네는 마르샤가 가장 역겨워하는 부류였다.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양부 또한 결국에는 본성을 드러냈다. 고아에게 베풀었던 자비는 사실 추악한 욕망의 발로였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르샤는 각성했다.

## [148] 강행 돌파(3)

“후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유나야? 그 꼬맹이가 날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 죽겠거든.”

“살려 주세요. 집에 보내 주세요.”

유나는 마르샤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녀가 조직의 1인자라는 건 부하들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럼 집에 보내 주실 건가요?”

“당연하지. 지금은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다 정리되면 보내 줄게.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네? 어떤 부탁요?”

유나에게 다가간 마르샤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점차 유나의 눈이 감기며 초점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어? 어?”

유나는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고막에서 이명이 들리더니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말았다.

앞으로 넘어지려는 유나를 받아든 마르샤는 다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후후, 이제부터 재밌는 놀이를 시작할 거거든.”

\* \* \*

팔코아의 부하들은 거칠고 난폭했다. 공포라는 게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지 변변찮은 공격은 몸으로 때우면서 검을 휘둘러 대고 있었다.

“벽력진으로 공격한다! 돌격!”

주요 공격 전략은 게릴라전이었다. 순서를 정해 지그재그로 공수를 교대하여 체력을 분배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시로네 일행에게는 끔찍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게릴라전의 요체는 기습이 아닌 후퇴에 있었다. 놈들은 전면전을 펼칠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했다.

“벽력진을 해제한다! 일단 후퇴해!”

“어딜 도망가려고!”

에이미가 황급히 플레임 스트라이크를 연사했다. 그 순간 적들의 몸이 빛나더니 섬광으로 변해 하늘로 솟구쳤다. 공기가 찢어지는 고음이 천공을 수놓았다.

“아우, 짜증 나! 또 놓쳤잖아.”

에이미가 안타깝다는 듯 발을 구르자 리안이 그녀의 어깨를 짚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적들도 총력전이야. 놈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있으니 당장은 유나도 무사할 거야. 그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

시로네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일단 상태부터 파악하자. 부상당한 사람은?”

부상의 여부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만 한다. 동네 싸움이라면 코피만 흘려도 알아차리겠지만 생명을 건 전투에서는 아드레날린에 맞서는 엔도르핀이 너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다.

네 사람은 서로의 몸 상태까지 확인해 준 뒤에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깨닫고 안도했다.

하지만 피해가 없는 건 적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선을 다해 몰아세워도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귀신같이 도망쳐 버리고 있었다.

“여태까지 1명도 쓰러뜨리지 못했어. 이건 앞으로의 전투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에이미가 여태까지 분석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켜봤는데, 아마도 놈들이 차고 있는 팔찌에 비밀이 있을 거야. 공간 이동을 발동하는 마법 장치인 게 분명해.”

시로네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마정탄하고는 다르잖아. 공간 이동은 마법사를 이동시키는 마법이야. 스피릿 존이 없으면 목적지를 설정할 수 없을뿐더러 발동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

에이미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어쩌면…… 마법진과의 연동일 가능성도 있어.”

마법진은 공간에 특수한 이미지를 각인시켜 자체적으로 마력을 발산하게 만드는 도식이다. 따라서 마법진의 힘을 빌리면 비마법사들 또한 마법을 구사하는 게 가능했다.

“물론 마법무구로 공간이동을 시전할 수는 없어. 하지만 특정 위치에 기록한 마법진과 연동시킨다면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마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로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테스는 다른 쪽으로 신경이 쓰였다.

“몰락한 용병단에서 가능한 일일까? 내가 알기로 마법진은 인력은 물론이고 자금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던데. 게다가 공간 이동은 고위 마법이잖아?”

“맞아. 아마도 중급 마법진일 거야. 마법진 하나만 그리려고 해도 최소한 5명의 마법사가 하루 종일 작업을 할 경우의 노동력이 필요해. 하지만 이들이라면 가능할 거야. 팔코아는 루프를 독점하고 있어. 유적에서 만난 용병들도 그랬잖아. 루프의 마진이 엄청나다고. 결국 약을 팔아서 기지를 요새화시킨 거지.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설명 가능해.”

“대체 그 자식들은 약을 팔아서 얼마나 남긴 거야? 마법진 하나 가지고는 턱도 없는 반경이잖아?”

테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녀의 의문을 토대로 시로네는 여태까지의 전투를 복기해 보았다.

첫 번째 전투가 치러졌던 계곡에서 처음으로 적들이 도주했다. 숲 속에서도 후퇴가 있었고, 이곳에서 또다시 공간 이동을 시전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가야 할 거리까지 계산하자면 최소한 수백 개의 마법진이 그려져 있을 거야.”

“수, 수백 개?”

테스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5명의 마법사가 하루 종일 매달려야 가능하다는 중급 마법진. 그런 것이 수백 개라면 대체 이 땅에 얼마만큼의 금화를 뿌렸다는 얘기인가?

“설마 그렇게까지 돈지랄을 했겠어? 거리만 놓고 보면 수십 개만으로 충분해. 정말 수백 개의 마법진이 깔려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놈들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 순간 테스는 자신의 말에서 깨닫고 손바닥을 내리쳤다.

“아! 그렇구나!”

“맞아. 이제 알겠어? 네 말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잡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북쪽 숲 전체를 네트워크화시켰어.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는 수적으로 열세인 우리가 먼저 지치게 돼. 정상까지 가지도 못하고 쓰러질 거야.”

마약을 팔아서 기지를 강화시킨 그들에 대한 적개감이 한층 강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는 냉철하게 해법을 강구해야 할 때였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차라리 마법진을 지워 나가는 건 어때? 어떤 장소에서 싸워도 적들이 도망쳐버린다면 급하게 덤빈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에이미는 고개를 저었다. 테스의 의견은 상식적이었으나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다.

“어려운 일이야. 마법진이란 공간에 새겨진 기록이야. 따라서 제거하려면 단순히 그림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초토화시켜야 해. 수백 개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며칠이 걸릴지 몰라.”

비로소 상황을 이해한 테스는 입술을 짓깨물었다. 소수가 집단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든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놈들은 그 방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다.

시로네가 예상을 깨고 테스의 의견에 손을 들었다.

“아니, 시도해 볼 가치는 있겠어. 하나 정도는 지워 보자.”

“해 보자고? 수백 개 중의 하나를 지워 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우리의 입장은 그렇지만 놈들의 생각은 다를지도 몰라. 그토록 많은 노력을 들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 마법진 하나의 손실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놈들이 몰려들 수도 있어.”

“아하, 그렇구나! 고도의 심리전!”

테스는 시로네의 작전을 금세 알아차렸다. 흔히 전쟁은 돈으로 하는 파워 게임이라고 하지만 자금이 우월한 쪽이 언제나 승자인 것은 아니었다. 전쟁에는 인간의 심리가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킬 것이 많을수록 심리는 약화된다. 예를 들어 100골드의 거금으로 1명의 정예병을 키운다고 한들 써먹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었다.

그런 상황이 전쟁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기도 한다.

전쟁을 하려고 돈을 쏟아부었으면서도 오히려 그 돈이 아까워서 정예병을 투입시키지 못하다가 결국 싸구려 병사들에게 성이 함락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에이미는 시로네의 작전을 분석했다. 적들을 쫓아갈 수 없다면 오히려 끌어당기면 된다는 얘기였다. 이 상황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전략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원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효율을 따져 봐야 하는 상황이야. 사실 마법진 파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는데, 마법진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

리안이 직도를 역수로 쥐고 힘껏 땅에 박았다.

“내가 검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마법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마법진은 단순히 개념을 구현한 표식에 지나지 않으니까.”

에이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파한 시로네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공간 자체가 지워질 만큼 파괴하지 않으면 마법진의 개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마법진을 파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클리어 마법으로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개념이 분해될 때까지 마법진을 박살 내거나. 전자는 우리가 불가능하고 후자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지.”

테스는 에이미가 어째서 이 방법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지 깨달았다.

“결국 이런 거네. 하나의 마법진을 파괴하는 데 드는 노동력이 막무가내로 전진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맞아. 최소한 10분 내로 파괴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로 목적지까지 가는 게 좋다고 보여. 물론 적들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기본 의도 자체는 좋은 생각이지만.”

작전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공유되자 오히려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명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았다. 리안이 시로네를 돌아보며 의중을 물었다.

“어떡할래, 시로네?”

시로네 또한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질이 잡혀 있는 이상 한시라도 빨리 가는 게 좋지만 거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구출이라는 임무 자체를 실패할 여지가 있었다.

“마법진을 파괴하자. 내가 해 볼게.”

마침내 결정을 내린 시로네가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자 에이미는 의외라는 듯 그를 돌아보았다.

통찰력이 강점인 시로네는 확률에 얽매이는 성격이 아니지만 승산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었다. 그녀가 생각하기로는 10분 안에 마법진을 파괴할 확률은 10퍼센트 미만이었다.

“정말 괜찮겠어?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마법이 없잖아?”

현재 시로네가 구사하는 마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단연 포톤 캐논이었다. 하지만 빛에 질량을 담는 정도로는 대지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물론 초고속으로 연사한다면 하나 정도는 10분 안에 파괴할 수도 있을 터였다. 다만 그로 인해 소진된 정신력은 앞으로의 전투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면 레이저가 있지만, 에이미는 그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국소적으로 에너지를 집중시켜 분자 진동을 일으키는 마법은 내구력과 상관없이 물질을 파괴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범위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해 볼게. 나에게 생각이 있어.”

어떤 식으로 마법진을 파괴하겠다는 것인지 에이미는 상상이 가지 않았으나 지금은 시로네의 말에 따르는 게 좋았다. 다양한 변수를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시로네의 통찰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그보다 더 정확한 결론을 얻고 싶다면 이루키 정도의 인물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없는 이상 시로네의 예상이 빗나간다면 불가항력이라고 봐야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결론지은 에이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나랑 테스가 한 조로 이동하고, 시로네와 리안이 한 조로 이동해. 서로 간의 간격은 50미터. 순간 이동으로 주변을 뒤지자. 마법진을 찾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간격만 신경 쓰다가는 다른 엄폐물에 부딪힐 수가 있어. 숲에서 순간 이동을 하는 건 위험하니까.”

순간 이동의 스페셜리스트인 시로네도 숲을 가로지르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시로네의 노파심이 불쾌하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설마 나를 초자연 어쩌고 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시로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한 말이지만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다. 에이미 또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마스터한 졸업반이었고, 더군다나 홍안까지 있으니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했다.

## [149] 강행 돌파(4)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하려는 그때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테스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잠깐만.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응? 확인이라니?”

“아마도 이번 작전이 성공한다면 적들과 전면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 그래서 리안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

리안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테스는 전에 없이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리안, 너 사람 죽여 본 적 있어?”

사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리안은 검을 걸친 채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꼭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일까?

기사라면 누구나 막연하게는 다짐을 하고 있다. 검이란 사람을 베기 위한 도구다. 그런 도구를 평생 휘두를 각오라면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없는데. 너는?”

“몇 번 있어. 아버지랑 산적 토벌을 갔을 때.”

“그래?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야?”

“리안, 죽을 각오와 죽일 각오는 완전히 달라. 마법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는 직접 이 손으로 사람을 베어야 한다고.”

시로네 일행이 상대하는 적은 동네 건달이 아니었다. 타국에서 이름을 떨쳤던 앵무 용병단. 그들 모두가 수없이 전쟁을 경험해 본 프로들이었다.

“물론 나는 너의 용기를 믿어. 검사가 평생 검에 피를 안 묻힌다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이 처음이라면 전투 중에 흔들릴 수도 있어.”

리안은 흠 하고 숨을 내뱉으며 생각해 보았다.

전투 중에 흔들린다. 물론 사람을 베는 건 딱히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스, 살인은 위험하고 복잡한 문제야. 그래서 네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돼. 하지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바보야,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거잖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언제나 죽여 왔어.”

테스의 눈빛이 흔들렸다. 리안은 직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수없이 죽어도 보았다.”

그 순간 리안이 강렬한 눈동자로 테스를 돌아보았다.

“재능이 없다고, 검을 포기하라고 할 때도,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도, 나는 검을 휘둘렀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적을 죽였고, 수없이 많은 적에게 죽었다.”

리안의 직도가 북쪽을 향해 뻗혔다. 만약 리안이 조각상이라면 검의 무게에 못 이겨 앞으로 쓰러졌을 테지만, 그는 다리에 뿌리가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테스, 알겠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설픈 각오로 검을 쥐어 본 적이 없어. 눈앞에 적이 있든 없든 간에 언제나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렀단 말이야.”

모두는 리안의 말에 담긴 각오를 읽을 수 있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리안이 미소를 지으며 직도를 등 뒤에 꽂았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시로네의 검이야. 시로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베어 나갈 뿐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

바로 이것이었다, 검에 재능이 있는 수많은 자들을 제쳐 두고 테스가 리안을 선택한 이유.

리안은 둔감하다. 그렇기에 스키마도 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 그 자체의 무게에서 나오는 인간의 각오라는 것은 재능이나 실력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잠시 동안 리안을 바라보고 있던 테스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를 돌아보았다.

“좋아! 이제 걱정이 사라졌어. 그럼 시작해 보자.”

테스의 말에 시로네와 에이미도 불타올랐다. 리안의 말이 투지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럼 에이미, 우리가 먼저 갈게.”

시로네가 리안을 붙잡고 광자화 마법을 걸었다. 섬광이 번쩍하며 두 사람이 숲으로 사라지자 에이미와 테스가 곧바로 뒤를 쫓았다.

울창한 숲 속을 두 줄기의 섬광이 지나가는 광경은 현란함의 극치였다. 마치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예각과 둔각을 오가며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숲을 주파해 나갔다.

마법진의 위치는 모르지만 적들의 동선을 계산하면 대략적인 거리가 잡혔다.

그렇게 10분 정도 숲을 떠돈 끝에 첫 번째 마법진의 위치를 찾아냈다.

마법진 또한 마력체이기에 스피릿 존의 반경 안에만 들어온다면 선명하게 존재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스텔스 마법이 부여된 상태라면 탐색의 난이도는 극상을 찍는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은 용병단이라도 거기까지 정비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급 마법진에 동원되는 마법사 전부를 합해도 스텔스 마법사를 고용하는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으니,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장사를 할 수는 없는 셈이었다.

리안이 울창한 덤불을 직도로 베며 길을 열자 잔디가 깔린 공터에 그려진 마법진이 보였다.

실제로 마법진을 처음 보는 시로네는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에 놀랐다.

에이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중급 마법진이네. 만드느라 진짜 고생했겠다.”

반경 5미터가 넘어가는 마법진이 스피릿 존에 반응하듯 적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내부에 파문처럼 퍼져 있는 다양한 크기의 원에는 예술 작품이라고 봐도 될 법한 아름다운 도식이 새겨져 있었다.

“기다려봐. 내가 좀 살펴볼게.”

졸업반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익힌 에이미는 마법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마법진의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마력의 강도를 나타내는 빛깔이다. 두 번째는 함수의 집적도이고, 세 번째는 내부에 그려진 마법진들의 연결성이었다.

에이미가 보기에 이곳의 마법진은 빛깔과 집적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연결성 자체는 아주 우수했다. 말인즉슨 공인 단체의 힘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다.

“후우, 이거 골치 아프게 됐네. 아무래도 정식으로 등록한 마법 업체가 새긴 거 같아.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라 음지의 마법사를 섭외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게 중요한 문제인 거야?

“정식 업체의 특징이라면 정석대로 설계하기 때문에 연결성이 좋다는 거야. 한마디로 마법진의 내구력이 높다는 거지. 이런데도 정말 10분 안에 가능하겠어?”

“일단 시도는 해 봐야 할 거 같아. 사실은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뭐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네가 생각이 있다고 해서 실행한 작전인데.”

“미안. 하지만 어느 정도 확신은 있어.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성공한다면?”

시로네는 잠시 동안 고개를 들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더니 대략적인 수치를 털어놓았다.

“어쩌면 10분이 아니라 1분 안에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몰라.”

“뭐야? 1분?”

에이미의 눈이 똥그랗게 커졌다. 다름 아닌 중급 마법진이었다. 전문적인 해체반이 아니고서는 1분 안에 마법진을 무력화시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정식 업체가 출동하여 새기는 마법진은 내구력이 장점이다. 따라서 강력한 물리 마법을 시전하여 지면을 자갈의 크기로 분쇄한다고 해도 개념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에이미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콩알의 크기로 지면을 갈아 버려야 하는데, 시로네에게 그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마법은 없다고 알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데? 확실히 알고 있는 거야? 적당히 부수는 건 효과가 없어.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면 마법진이 분해되어서 더욱 곤란할 수도 있다고.”

“그렇구나. 일단 해 볼게.”

에이미는 점차 불안해졌다. 대답을 들어 보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게 분명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실패하면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한 셈이었다.

시로네는 마법진의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위력을 고려했을 때 하늘에서 수직 공격을 가할 줄 알았던 에이미가 예상과 다른 모습에 고개를 갸웃했다.

“거기서 어쩌려고? 제자리에서 충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거라 위험할 수도 있어. 반경 밖으로 물러나 있어.”

시로네의 말에 따라 세 사람은 뒤로 물러섰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기대감도 그에 못지않았다. 만약 성공만 한다면 불리한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법진이 파괴될수록 적들은 점차 활동 반경이 좁아지게 될 터였다.

그렇다면 마법사 둘을 보유하고 있는 이쪽이 화력 면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전투를 끝내는 것이 가능했다.

시로네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허리를 구부린 다음 주먹으로 땅을 겨누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치열한 전장에서 이렇게 나른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에이미는 달랐다.

처음에는 시로네의 모습을 회의적으로 지켜보던 그녀의 눈동자는 어느새 충격에 휩싸여 있었고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시로네 너…….”

테스는 이상하다는 듯 에이미를 돌아보았다. 분명 자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건만 에이미의 얼굴은 마치 괴물을 본 듯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에이미, 왜 그래? 시로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저걸 이용할 줄은……. 아니, 생각해 보니 그런 수가 있었구나.”

“도대체 뭔데?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 봐.”

“일단 멀리 떨어지는 게 좋겠어. 저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에이미가 걸음을 물러서자 리안과 테스가 그녀를 따라 장소를 옮겼다.

그러는 와중에도 검사들은 의아함을 느꼈다. 에이미가 물러선 거리가 조금 전 물러선 거리의 두 배를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설명해 봐. 도대체 뭐가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는 거야. 시로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이야.”

“느껴진다고? 어떤 게 느껴지는데?”

“스피릿 존. 지금 시로네의 스피릿 존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에이미는 말을 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강력한 내구력을 지녀야 스피릿 존이 이토록 빨리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수 있을까?

‘분명 정신 박동이야. 하지만 너무 빠르잖아. 이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에텔라 선생님 수준인데.’

현재 에이미가 느끼는 시로네의 정신 박동은 초당 10회를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클래스 파이브의 정신 박동 테스트에서 얻은 점수는 410점. 초당 13.6회로 30초를 주파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보다 두 배는 빨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에 최대 확장 반경이 직경 20미터라면 현재는 마법진의 직경인 5미터면 충분했다. 왕복 거리가 짧아진 만큼 박동 속도는 빨라져야 정상이었다.

문제는 그것을 정신력이 버텨 줄 수 있는가였다.

‘할 수밖에 없어. 더욱 정밀하게 조절하자.’

시로네가 미간을 살며시 찡그리자 곧바로 변화를 느낀 에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더, 더 빨라지고 있어.”

반경이 좁혀 들면서 정신 박동의 횟수가 초당 15회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1초 동안 1에서 15까지 세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보통의 마법사라면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정신이 붕괴되어버릴 터였다.

하지만 금강불괴를 이용한 시로네의 내구력은 현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다.

마침내 스피릿 존의 최대 확장반경이 마법진의 테두리와 일치했다. 남은 과정은 현재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마법을 시전하는 것이었다.

정신 박동과 마법 시전의 이중고를 견디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다. 시로네는 이를 악물면서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회심의 마법을 시도했다.

‘광폭!’

박동하는 스피릿 존에 질량이 담긴 광자를 가득 채워 넣자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

스피릿 존에 빛의 색감이 입혀지면서 비로소 리안과 테스도 시로네의 정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콰콰콰콰콰콰콰콰!

빛의 구체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자 지면에 점차 균열이 갔다. 급기야는 거대한 바위로 쩍 하고 쪼개지더니 다시 수천 개의 덩어리로 박살이 나 버렸다.

## [150] 강행 돌파(5)

시로네의 광폭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물리력을 담은 광자가 수천 개의 돌덩어리를 계속 두들기면서 좁쌀 크기의 자갈이 될 때까지 분쇄시켰다.

“크으으으으!”

시로네는 땅이 붕괴되는 지점을 따라 점차 바닥으로 파묻혀 가고 있었다.

테스트 당시에 비해서 존의 직경이 4배나 짧아지면서 속도는 월등하게 치솟았다. 금강불괴의 시로네조차 위기감을 느낄 지경이었다.

그로부터 20초가 지나서야 광폭의 시전이 멈췄다. 시로네가 스피릿 존으로 탐색해 보니 더 이상 마법진의 마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후우, 에이미, 이 정도면 괜찮을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시로네를 지켜보던 세 사람 모두 똑같은 표정으로 넋을 잃고 있었다.

에이미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제발 상식적인 마법 좀 쓰자, 시로네.”

“뭐야? 나름 열심히 궁리한 건데. 어쨌거나 마법진은 파괴된 거지?”

“응? 어. 아마도 그럴 거야.”

에이미는 스피릿 존으로 들어가 주위를 확인했으나 사실 그럴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다.

공감각이 아니라 눈으로만 봐도 마법진이 있던 주위가 초토화되어 있었다.

에이미는 시로네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반구형으로 함몰되어 있는 지형을 살핀 뒤에야 시로네의 신규 마법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깨달았다.

‘정신 박동을 이용한 광자의 증폭이구나. 실습 기간에 생각해 낸 마법이겠지. 그나저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이잖아?’

비록 사정거리가 좁다는 단점이 있지만 땅을 가루로 분쇄해 버리는 파괴력 앞에서는 단점의 축에도 끼지 못했다.

금강불괴의 수준에서 펼치는 정신 박동과 이모탈 펑션을 이용한 신의 입자, 섬광 마법 샤이닝의 삼박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마법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떠올린 거야?”

“응? 아니,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쓸 줄은 몰랐어. 내 장기가 사방식의 방어형이잖아. 그래서 방어 마법을 하나 익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정신 박동이 떠올라서 거기에 신의 입자를 접목해 본 거야.”

“아,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방어 마법이라는 거지?”

“어, 방어 마법.”

에이미는 시로네를 한 대 쥐어박아 주려다가 참았다. 그녀가 아는 방어 마법 중에 가장 파괴적인 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질량을 담은 빛의 장막을 엄청난 속도로 튕겨 내서 반탄력을 일으키는 마법이다.

단발의 위력은 포톤 캐논보다 떨어지겠지만 초당 20회의 속도로 갈겨 버리면 주위에 남아날 물건이 없을 터였다.

어쨌거나 엄밀히 분류를 하자면 방어 마법이 맞다.

다발적 공격 마법은 산탄으로 분류되지만 광폭은 그 숫자를 아득히 초월하여 장막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방어 마법으로 등재할 공산이 컸다.

“시로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테스가 달려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광폭은 여태까지 그녀가 본 마법 중에서 가장 패도적이고 우악스러웠다.

그 중심에 휘말렸던 시로네였으니 멀쩡히 서 있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괜찮아. 생각만큼 위험한 마법은 아니야.”

“위험한 마법이 아니라고? 나는 너까지 부서지는 줄 알았단 말이야.”

“하하! 정말로 괜찮아. 마법사를 다치게 하는 마법을 방어 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시로네의 말대로 광폭은 마법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파괴력은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방어 마법이 배리어의 두께로 내구력을 발생시킨다면 광폭은 독특하게도 최소 반경과 최대 반경을 왕복하는 운동량으로 반탄력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최소 반경을 마법사의 바깥쪽으로만 설정한다면 마치 태풍의 눈에 서있듯 어떤 경우에도 광폭에 휩쓸리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쨌거나 본격적으로 해 보자. 이제 리듬을 알았으니 더 빨리 시전할 수 있을 거야. 30초면 마법진을 깨는 데 문제없어.”

뒤늦게 정신을 차린 에이미가 곧바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래, 이 마법이라면 얼마든지 마법진을 부수면서 갈 수 있겠어. 최대한 전투를 피하면서 마법진부터 파괴하자. 적을 도발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참지 못할 때 일제히 반격하는 작전이야. 어때?”

이견이 있을 턱이 없었다.

시로네 일행은 남자와 여자로 조를 이루어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두 줄기의 섬광이 두 번째 먹잇감이 될 마법진을 찾아 종횡무진 숲을 날아다녔다.

\* \* \*

“광폭.”

시로네를 중심으로 빛의 폭발이 일어났다. 광자의 장막이 지면을 두들기자 마법진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파괴되었다.

시로네 일행은 벌써 7개째 마법진을 파괴하는 중이었다.

그동안 전투를 치르면서 적들의 숫자도 7명이 줄었으나 베테랑답게 시로네 일행의 전략에 쉽사리 넘어오지 않았다.

고가의 마법진이 파괴될 때마다 이를 뿌드득 갈면서도 사태를 견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파괴된 마법진의 숫자가 15개를 넘어갈 무렵 마침내 적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산에 있는 마법진이 전부 파괴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었다.

“젠장! 저것들 대체 언제까지 저럴 거야?”

“슬슬 위험한데. 특정 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법진은 3개 정도가 한계야. 이런 식이라면 조만간 활동 반경이 급격히 좁아지게 될 거야.”

“조장! 어떡하죠? 저것들이 우리 살림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같은데.”

10인대의 조장 또한 속이 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북쪽 숲을 요새화시키기 위해 프리먼 조직이 쏟아부은 돈은 5년간 벌어들인 재산의 절반에 달했다.

이 상태로 내버려 두다가는 설령 승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부 다 불러 모아. 가둬 놓고 잡는다.”

전령이 마법진을 타고 각 지역의 조장들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다른 조장들도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였는지 곧바로 응답이 왔다.

전투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건 시로네 일행도 즉각 감지할 수 있었다. 적들의 움직임은 물론 눈빛조차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게릴라 전법으로 괴롭히던 전략대신 수십 명이 동시에 포위하는 연합 전법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포위망이 노리는 건 시로네 일행의 궤멸이 아니라 어딘가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비록 수적인 우위가 있다고는 하나, 마법사가 둘이나 포함된 파티를 상대로 전면전을 치를 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다.

테스는 적들의 전술적 변용에 감탄했다. 확실히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어 본 솜씨가 아니었다.

“이건 이것대로 문제네. 우리를 가두고 어딘가로 끌고 가고 있어. 마법사를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해.”

시로네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적들이 전력을 다해 부딪쳐 온다면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도착해서 유나를 구출해야만 했다.

“괜찮아. 그곳에서 격파하자. 일단은 힘을 비축해 두는 게 좋겠어.”

“하지만 함정이라면 위험하잖아?”

“내가 어떻게든 뚫을게. 나한테 맡겨 줘.”

시로네는 달리는 속도를 높여 선두로 치고 나갔다. 스키마라면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었지만 테스는 그의 박력 앞에서 추월할 엄두를 못 냈다.

“휘유. 남자네, 시로네.”

테스에게 지금의 시로네는 분명 낯설었다. 언제나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만 봐 왔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전투를 치르면서 가장 걱정했던 사람도 시로네였다.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리안에게 물었지만 사실은 시로네 또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가자 시로네는 완전히 딴사람처럼 변해있었다.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적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흠집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갖추었다.

이는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시로네만의 독특함이었다.

투쟁에 있어서 난폭함과 잔인함은 미덕일 수도 있지만, 시로네가 전투를 치르는 모습은 오직 효율만을 반복해서 연산하는 기계장치를 보는 듯했다.

테스의 감정을 짐작한 리안이 남몰래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처음 시로네를 만났을 때의 감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로네와 연무장에서 펼쳤던 진검 승부는 지금 생각해도 오싹할 정도였다.

시로네의 통찰력은 죽음의 공포마저 이해해 버린다. 오로지 검을 휘두르는 것만을 생각하며 달려들던 그 모습에는 리안조차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났다.

“테스, 기억해 둬. 저게 시로네야. 한번 발동이 걸리면 누구도 말리지 못하지.”

리안과 다르게 에이미는 조금 걱정스러운 듯 시로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물론 그녀도 시로네의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그를 움직이는 요소에는 유나와 마르샤라는 강력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듯했다.

“아무리 그래도 함정이 있을 텐데 너무 무모한 거 아냐? 전략을 분석할 시간도 없이 직진으로 달리고 있잖아.”

“마법진을 파괴하느라 시간이 지체됐어. 시로네가 한다면 나는 말리지 않겠어.”

리안이 시로네에게 한 표를 던지며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테스는 에이미의 의견에 동의했다. 달리는 와중에도 주위를 분석하던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에이미, 지형이 조금 이상해. 남자들은 불이 붙은 모양이니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자.”

“응, 그게 좋겠어. 그런데 지형이 이상하다는 건 무슨 소리야?”

“만약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지대가 아니라면 우리는 조만간 계곡으로 들어갈 거야. 함정을 파 놓기에는 적격인 장소지. 위험할 수도 있어.”

자연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다. 인간은 기호에 맞게 사물의 형태를 변화시키지만 자연은 절대로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여태까지 지나온 산맥의 줄기를 이어 봤을 때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는 형세였다.

게다가 습기가 높아지고 관목보다는 선태류가 많아진다는 건 분명 계곡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얘기였다.

‘그럼에도 물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 자식들, 계곡을 막았군.’

전방을 막아 놓고 양쪽에서 협공한다. 전쟁에서는 정석에 가까운 공격이었다.

테스는 갈등했다.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적의 손에 놀아나다가는 이쪽이 먼저 전멸할 수도 있었다.

“에이미,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일단 시로네를 멈춰 세우자.”

에이미도 군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테스의 예상대로 점차 길목이 좁아지고 절벽은 우회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가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여태까지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던 적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말할게. 시로네! 잠깐 기다려!”

에이미의 목소리는 전해지지 않았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로네가 리안을 데리고 순간 이동을 시전했기 때문이다. 달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싶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어찌됐건 추격을 해야 하는 에이미는 테스의 허리를 껴안고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하지만 그녀가 시로네를 따라잡기는 무리였다.

순간 이동이라는 마법에만 국한시키자면 에이미의 실력은 시로네에 준하는 정도이지 추월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다.

빠르게 돌진하는 시로네는 뒤편에서 에이미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법을 멈추지는 않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섬광이 이어지면서 시로네와 리안은 순식간에 계곡의 초입으로 파고들었다.

거기에서 순간 이동을 멈춘 시로네는 얕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를 달렸다.

덩달아서 따라온 리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시로네, 왜 그렇게 급해? 내가 봐도 이곳은 함정이야.”

“그래서 급하게 온 거야. 어떻게든 내가 함정을 파괴해야 돼. 함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광폭을 이용한다면 적들의 공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거야.”

“뭐?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꼼짝없이 발이 묶이겠지.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작전의 난이도가 몇 배는 올라갈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죽을 수도 있어. 차라리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꾸 그러면 너도 놔두고 갈 수밖에 없어.”

리안은 시로네가 급하게 거리를 벌린 이유를 깨달았다. 혼자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 낸다고 한다면 테스나 에이미가 허락을 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시로네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승산이 높은 쪽으로 걸어 보고 싶은 것이다. 유나를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작용한 듯했다.

## [151] 강행 돌파(6)

“리안, 갔다 올게. 테스와 에이미에게 설명해 줘.”

“어? 야, 시로네!”

리안이 불러 세우기도 전에 시로네는 순간 이동을 시전해 엄청난 속도로 멀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에이미와 테스가 리안을 따라잡았다.

“리안! 시로네는 어디 갔어?”

“먼저 앞질러 갔어. 조금 전에.”

“대체 무슨 생각인데? 뭐라고 하면서 갔어?”

“광폭으로 함정을 미리 소모시켜 놓을 생각인가 봐. 네가 허락하지 않을까 봐 혼자서 가야겠다고 하던데.”

“당연하지! 그런 무식한 방법을 누가 허락해! 게다가 광폭은 운동성 방어막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지금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혼자서 갔다고.”

에이미는 짜증이 났다. 독단적으로 행동해서가 아니다. 시로네가 선택한 작전이 효과로 따졌을 때는 가장 뛰어난 게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너무 위험했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확률이 낮아도 승산을 보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패산을 따져야 했다.

“실패하면 죽는 거란 말이야! 이 바보가!”

자리에 없는 시로네에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른 에이미는 리안과 테스의 허리에 손을 대며 말했다.

“안 되겠어. 말리는 건 무리니까 일단 보조하자. 모두 긴장해. 최고 속도로 쫓아갈 테니까.”

에이미는 상체를 숙이면서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강렬한 섬광이 개울물을 가르며 시원하게 쏘아져 나갔다.

\* \* \*

아지트로 가는 유일한 길목인 계곡의 상류는 높이 20미터의 성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현재 10여 명의 부하들이 포진해 있었고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던 팔코아의 부하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적들이 오고 있다! 함정을 가동시킬 준비해!”

“예상보다 훨씬 빠른데요? 전부 가동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조장은 혀를 찼다. 어떤 놈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영특했다. 함정을 우회할 길이 없는 이상 최단거리로 달려와 손을 쓰겠다는 전략이었다.

“상관없어. 처음부터 수백 명을 몰살시키려고 만든 함정이야. 절반만 가동해도 4명을 묻어 버리는 데는 충분할 거야.”

조장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200미터 거리에서 홀로 달려오는 소년을 보자 이번만큼은 당혹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

“뭐야? 어째서 혼자야?”

“급한 마음에 먼저 달려온 모양입니다.”

조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적이 혼자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자신의 마음에 작용하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았다.

함정을 발동시키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심리전에 뛰어나군. 기껏 1명을 잡으려고 광범위 함정을 쓰는 건 아깝지.”

“그럼 어떡하죠? 나가서 싸울까요?”

“뭘 어떡해? 빨리 함정 발동시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저 녀석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목숨 걸고 도박을 한 건 인정하지만 우리를 너무 물로 봤어. 마법사 2명 중에서 1명만 잡아도 전세는 기운다. 아끼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이, 지금 시작한다! 모두 준비해!”

시로네는 계곡을 가로막고 서 있는 성벽 위를 노려보았다. 10여 명의 적들이 활을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화살 공격?’

시로네는 의아했다. 고작 10명의 궁진으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적들은 거침없이 화살을 쏘아 보냈고, 시로네는 달리기를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보통의 화살과 다를 바가 없어보였다. 다만 촉의 빛깔이 제각각일 뿐이었다.

‘마정탄이다!’

순간 이동을 시전한 시로네는 반사적으로 물러섰다. 만약 케르고 유적에서 마정탄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상황이었다.

“시로네!”

그 순간 후방에서 들린 에이미의 목소리에 시로네는 후퇴를 멈췄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했다는 사실로 에이미가 얼마나 초조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정탄이 지상에 추락했다.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 굉음이 계곡을 뒤흔들면서 포연이 시로네 주변에 짙게 깔렸다.

시로네는 놈들의 전략을 깨달았다. 시야를 차단시킨 다음 함정으로 끝장을 내 버릴 생각이었다.

“에이미! 오지 마!”

시로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에이미는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다. 포연이 번지지 않은 곳에서는 계곡 위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진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 투석기와 비슷한 무시무시한 기관 장치가 절벽을 따라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바퀴가 달려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족히 몇 사람이 달려들어야 움직일 수 있는 크기였다.

“지금이다! 모조리 퍼부어 버려!”

조장의 명에 따라 팔코아의 부하들이 장치를 가동시켰다. 무지막지한 바윗덩어리가 지렛대의 힘을 빌려 계곡 아래로 던져졌다.

V 자 계곡의 단면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들이었다.

위력을 보아하니 소수를 막기 위해 만든 함정이 아니다. 말 그대로 최후의 결전지에서 적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비장의 무기였다.

“시로네!”

에이미가 한스럽게 외쳤으나 이미 때는 늦은 시점이었다. 거대한 바위들이 하나 둘씩 포연 속으로 푹푹 추락해 들어가고 가고 있었다.

에이미는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찍 하고 으깨지는 환청을 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강력한 파공음이 터지면서 환청을 날려 버렸다.

느릿느릿 계곡을 매우고 있던 포연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빛의 구체에 둘러싸인 시로네의 모습이 드러났다.

‘광폭!’

시로네를 중심으로 광구가 번쩍번쩍 빛났다. 최고 직경 20미터의 스피릿 존은 바위보다 거대했다.

그런 거대한 빛이 미칠 듯한 속도로 폭주하자 지켜보는 사람들은 눈이 멀어 버릴 지경이었다.

질량을 담은 빛은 사력을 다해 반탄력을 도모했다. 하지만 바위 또한 만만치 않은 중량으로 맞섰다.

거칠게 흔들리면서 광폭을 뚫고 내려오는 바위들이 금방이라도 시로네를 압사시켜 버릴 듯했다.

하지만 절반을 내려오는 순간 바위가 수십 조각으로 쪼개졌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로네의 광폭이 바위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중형 바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났다.

작게. 더 작게.

시로네는 암석이 먼지가 되어 버릴 때까지 광자의 속사포를 퍼부어 댔다.

결국 바위였던 물체가 시로네의 근처까지 도달했을 때는 작은 알갱이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조차도 빛의 사이클에 휘말리면서 바깥으로 날아가 버렸다.

바위가 지상에 추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초였고, 그것은 먼지로 분해되기까지 걸린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사이에 일어난 수천 개의 사건들이 인간의 인지 속에 압축되면서 마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켰다.

사방으로 퍼진 먼지가 푸스스스 소란을 일으키며 바닥에 내려앉았다.

계곡에 음산한 바람 소리가 맴돌았다.

팔코아의 부하들은 지금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빛이 번쩍하더니 바위가 먼지처럼 터져 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전부였다.

시로네는 먼지로 뒤덮인 개울을 밟아 나가며 성벽을 노려보았다. 함정을 가동시켰던 부하들이 속속들이 되돌아오는 게 보였다.

조장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10년이 넘게 전장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마법이 있다는 건 풍문으로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젠장! 도대체 저 꼬맹이는 뭐야!”

“조장! 어떡하죠?”

“마정탄 준비! 갈겨 버려!”

부하들이 신속하게 화살의 촉을 분리하고 마정탄을 결합시키자 그 모습을 매섭게 노려보던 시로네가 눈앞에 정신력을 집중했다.

광자의 구체가 펑 하고 탄생하더니 주위의 빛을 빨아들이며 강력하게 진동했다.

“조장님! 저기 보십시오! 저건 위험합니다!”

주점 왕궁에서 시로네의 기술을 미리 경험했던 자가 조장에게 소리쳤다.

과연 조장이 보기에도 사람의 얼굴보다 커다란 빛이 압축되는 게 심상치 않았다.

“에잇! 서둘러! 빨리 마정탄을 갈기란 말이야!”

부하들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으나 마법이 먼저였다.

시로네와 성벽 사이에 마치 일자의 섬광이 갑자기 태어난 듯 줄이 그어졌다.

콰아아아아아앙!

포톤 캐논이 철문에 정통으로 처박히면서 고막을 찌르는 철음성이 귀를 괴롭혔다.

마정탄을 조립하던 부하들이 인상을 찡그리며 허리를 숙였다. 성벽 위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만큼 강력한 충격이었다. 마법이 사라진 뒤에도 철문이 우웅 소리를 내고 있었다.

“뭐, 뭐야? 부서진 거야? 확인해!”

부하가 지상과 연결된 계단으로 내려가 성문을 살폈다. 두꺼운 철판이 전체적으로 휘어지기는 했지만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성과조차 승전보로 느꼈는지 부하가 밝은 기색으로 소리쳤다.

“성문은 무사합니다!”

“좋아! 이번에는 우리가 공격할 차례다.”

포톤 캐논의 공격이 허사로 돌아가자 테스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마법으로는 성문을 부술 수 없겠어. 리안, 우리가 성벽 위로 올라가자.”

공성전에서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둘 중의 하나를 성공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공성 병기나 마법을 이용해 성문을 파괴한 다음 병력을 밀어 넣는 것이다.

하지만 성문을 파괴할 수 없다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 적들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테스나 리안과 같은 검사가 해야 할 임무였다.

“좋아. 우리가 올라가는 게 낫겠어.”

리안은 편하게 달릴 수 있게끔 직도를 등 뒤에 꽂아 넣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출발하려고 상체를 숙이는 순간 에이미가 말렸다.

“잠깐, 기다려 봐.”

“지체할 시간이 없어. 적들이 정비하기 전에 쳐야 돼. 지금이 기회라고.”

테스의 판단은 옳았다. 화염 계열인 에이미는 충격력에 약한데다 시로네의 포톤 캐논 또한 두꺼운 철문에는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에이미는 시로네에게 하나의 무기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이는 마법이었다.

“괜찮아. 시로네가 알아서 할 거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테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로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시로네의 몸에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뭐, 뭐야? 저거 위험한 거 아냐?”

인간은 붉은색을 보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것이 출혈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테스조차 섬뜩한 적광을 보기가 두려울 정도였으니 적들의 경계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조장, 대체 뭐죠, 저건?”

시로네는 붉은 빛의 섬광을 앞으로 쏘아 보냈다. 한 줄기의 레이저가 찰나라고 부를 만큼 빠르게 철문에 도달하여 표면을 달구었다.

“으악! 뭐야?”

포톤 캐논의 강력함을 이미 맛보았던 부하들이 지레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파나 굉음은 없었다.

성벽 아래에서 성문을 살핀 조장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지금의 마법은 단지 철문을 비추고 있을 뿐 어떤 위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좋아! 지금이다! 마정탄 준비!”

함정에서 복귀한 부하들까지 합치면 인원은 40명이 넘는다. 이 정도의 숫자라면 마정탄 폭격으로 시로네 주변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

모든 부하들이 조준을 끝마치자 조장이 손을 아래로 내리며 소리쳤다.

“사격 개……! 응?”

쿠쿠쿠쿠쿠쿠쿠쿠!

그 순간 성벽이 거칠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조장은 물론이고 활시위를 놓으려던 부하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성벽 밖으로 허리를 구부려 철문을 살핀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 조장님! 저거……!”

철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급기야는 철문에서 시작된 진동이 성벽 전체를 타고 퍼져나가며 구조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팔코아의 부하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레이저가 닿은 부위의 철이 들끓더니 마치 공기 방울처럼 불룩불룩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어서 성벽이 뿌리째 뽑혀 버릴 듯 흔들리더니 급기야는 폭성과 함께 철문이 터져 나가고 말았다.

## [152] 강행 돌파(7)

조장은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어지간한 공성 병기로도 끄떡없는 철문이 뚫려 버리다니.

“젠장! 직사로 갈겨!”

임시방편에 가까운 지시가 떨어졌다. 이미 성문이 뚫렸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 내지 못하면 전세는 급격이 저들의 쪽으로 기울 터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부하들도 직접 시로네를 겨냥하고 시위를 잡아당겼다.

“발사!”

혼신의 힘을 다해 쏘아 보낸 마흔 발의 마정탄이 시로네의 주변을 향해 날아들었다.

빠르게 쇄도하는 화살을 보고서도 시로네는 움직이지 않았다. 순간 이동의 반경만으로는 폭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 이동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마흔 발의 화살이 추락하는 순간, 시로네의 몸이 섬광으로 변해 하늘로 치솟았다.

끼이이이이잉!

공간 이동의 소음이 퍼지는 즉시 강력한 폭격이 시로네가 있던 자리를 초토화시켰다.

테스는 망연자실하게 폭격을 바라보았다. 계곡에 메아리치는 천둥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치 전쟁터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시, 시로네…….”

폭발의 규모는 엄청났고 폭음도 정신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렇기에 누구도 시로네가 공간 이동을 시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에이미는 예외였다. 궁수에게는 화살이 나는 소리가 가장 선명하고, 검사에게는 검이 부딪치는 소리가 가장 또렷하게 들린다고 한다.

그렇기에 마법사인 에이미는 폭발의 굉음 속에서도 공간 이동 특유의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시로네는 무사해. 우리도 들어가자.”

에이미는 포연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예상대로 폭격 지점을 벗어나자 성문 앞에 서 있는 시로네가 보였다.

공간 이동은 빛이 휘어진다. 따라서 섬광이 하늘로 치솟는 것처럼 보이는 건 착시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시로네가 하늘로 치솟는 게 아니라 공간이 구부러지는 현상이었다.

게다가 그런 착각 또한 먼 거리에서만 관측이 가능할 뿐, 지근거리에서 본다면 그저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게 정상이었다.

이것이 바로 마법사들이 공간 이동의 시전 여부를 소리로 감별하는 이유였다.

“푸하하하!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고!”

“흔적조차 안 남았잖아! 이제 무서울 건 없어. 얘들아, 전원 돌격 준비!”

팔코아의 부하들이 활을 내려놓고 병장기를 챙겼다. 가장 위협적이던 위력을 선보이던 마법사가 죽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테스는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 시로네가 저승사자처럼 철문 앞에 서 있는데 적들이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뭐야, 쟤들 왜 저래?”

“너처럼 공간이동의 소음을 못 들은 거야. 시로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팔코아의 부하들이 착각을 바로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로네가 천천히 물러서면서 성벽의 사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들 귀신을 본 듯 놀랐다.

“조, 조장님! 저기……!”

조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분명 폭격에 맞아 사지가 이탈했어야 할 시로네가 보란 듯이 성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너, 너 이 자식!”

본격적인 공성전을 치르기에 앞서, 시로네는 적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스의 여동생을 풀어 줘.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돌아가겠다.”

조장은 멍하니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이 난리를 쳐 놓고 돌아가겠다고? 어디를 돌아가? 여기가 무슨 유원지 입장료 받는 곳인 줄 아나?

“살려서 돌려보낼 것 같으냐? 공성전의 진면목은 성문이 뚫렸을 때부터다. 네가 망가뜨린 마법진이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네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죽여 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괴롭혀 주마.”

“더 의상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처음부터 너희가 잘못한 일이잖아. 그러니 이쯤에서 끝내 줬으면 좋겠어.”

“푸하하하! 뭐? 끝내달라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 전장에서 살고 전장에서 죽는 앵무 용병단이다! 얘들아, 가자! 철저히 도살해라!”

“우아아아아아!”

병사들이 호기롭게 칼을 쳐들며 소리쳤다.

말이 통하지 않자 시로네는 한숨을 내쉬며 성벽의 사각지대로 걸어갔다.

“고맙게도 알아서 들어오는구나! 얘들아, 당장 내려가서…… 응?”

그 순간 조장이 말을 멈췄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계곡 위에서 떨어지는 바위를 가루로 부숴 버린 요상한 마법이었다. 과연 이곳의 성벽이 바위보다 단단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어, 어이, 잠깐만……!”

조장은 계단으로 달려가 성문을 살폈다. 예상대로 시로네가 철문에 뚫린 구멍으로 파고들어서 주먹을 아래로 내리고 있었다.

“야, 야, 인마, 장난이지? 설마 너…….”

조장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다.

“야! 하지 마! 이게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성벽인지 알아? 어이!”

시로네는 마법의 예열을 끝마치고 층계참에 서 있는 조장을 흘끗 돌아보았다.

그 눈빛을 대면한 조장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피해! 전부 뛰어내려!”

조장이 계단을 올라가며 소리치는 순간 시로네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광폭.”

콰콰콰콰콰콰콰콰콰쾅!

직경 20미터짜리의 광폭이 초당 15회의 속도로 박동했다.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이 성벽이 흔들리자 팔코아의 부하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역시나 거대 구조물이기에 내구력은 상당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광폭을 멈추지 않았다. 어차피 물질의 내구력에는 한계가 있다.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면 결국은 부서지게 마련인 게 물리의 법칙이었다.

철문이 해머로 두드리는 듯 깡깡 요란한 소리를 내고 성벽에는 번개가 치는 듯 균열이 질주했다.

균열은 연속해서 가지를 뻗어 가며 성벽 전체에 침투했고 마침내 지반이 흔들리면서 붕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장은 정신이 없었다.

베테랑이었고 공성전도 제법 경험해 보았지만 성문이 파괴된 적은 있어도 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무식한 전법은 처음이었다.

“으아아아! 알았어! 우리가 졌다! 그만해!”

조장이 악을 질렀으나 질량을 담은 광자가 성을 타악기 삼아 두드리는 탓에 목소리는 1미터도 퍼져 나가지 못했다.

‘젠장!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정말이지 위험했다.

이대로 성이 붕괴되면 40명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으으으으!”

시로네는 콧잔등을 찡그리며 광폭에 집중했다. 가속도 감속도 없는 균일한 리듬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깥으로 쳐 내고 있었다.

성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에서 테스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성벽의 중심부가 일부 파괴되고, 이어서 히스테리적인 균열이 벽을 따라 퍼졌다. 왼쪽이 살짝 주저앉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오른쪽이 균형을 맞추듯 내려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쿠르르르르르릉!

성의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 저건 그냥 인간 병기잖아?”

리안도 테스의 감상에 동의했다. 여태까지 시로네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마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컸다.

그랬던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부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같은 마법이라도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확실히 굉장하군. 시로네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야.”

에이미가 미소를 지으며 그 말에 동의했다. 전투가 마법사의 전부는 아니지만 자존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시로네는 어지간해서는 일을 키우지 않으니까.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전투 능력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 이 정도면 졸업반에서도 충분히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을걸.”

테스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역시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게지. 하여튼 겉과 속이 다르다니까.’

에이미는 시로네의 성장이 진심으로 기뻤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어쩌면 시로네와 함께 졸업을 하는 게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

‘따라와 주었구나, 시로네.’

광폭이 끝났을 때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있었다. 계곡 쪽에 지은 성벽은 그나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앙은 거대한 바위가 굴러간 듯 폭삭 주저앉은 상태였다.

“끄으으으…….”

돌에 파묻힌 병사들이 신음 소리를 내며 꿈틀거렸다.

온전한 사람은 1명도 보이지 않았다. 시로네를 말렸던 조장도 성벽의 붕괴를 피하지 못하고 팔이 부러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망연자실했다.

5년 동안 북쪽의 아지트를 다지느라 갖은 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말도 안 돼. 고작 1명에게 궤멸이라고? 앵무 용병단이?”

시로네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조장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시로네의 강렬한 눈빛을 대면하자 억누를 수 없는 공포가 치솟았다.

“당장 지스의 여동생을 데려와!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히익!”

조장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가렸다. 그러자 부러진 팔이 시계추처럼 떨어져 눈앞에서 흔들거렸다.

“끄으으으……!”

기괴하게 꺾인 자신의 팔을 발견한 조장이 눈을 까뒤집으며 그대로 기절해 버렸다.

시로네 일행.

1차 관문 통과.

\* \* \*

“우와. 굉장하구나, 시로네.”

마르샤는 성벽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로네의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닥에 손수건을 깔아 두고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소풍을 나온 소녀처럼 한가로웠다.

부하들이 당한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그 슬픔 또한 안고 살아가는 게 용병이 아니던가. 정치인들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 수백 명을 잃은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저렇게 강하면서 감쪽같이 사람을 속였네. 아니, 강하니까 여유 만만이었던 건가?”

마법에 소질이 있는 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의 활약을 보일 줄은 예상치 못했다.

특히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시로네의 모든 마법이 독자적인 전지에서 응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언로커라…….’

마르샤는 기분이 좋았다.

시로네가 강한 사람이라는 게 좋았고 타인의 아픔을 감싸려고 드는 가식적인 인간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신나는 일은, 조만간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년이 자신의 손에 묵사발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다.

“날 잡으려면 10년은 멀었어, 애송아.”

마르샤는 기지개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팔찌가 강렬하게 빛나더니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북쪽의 절벽으로 날려 보냈다.

두 번째 만남(1)

시로네 일행은 북향을 거듭했다. 팔코아의 부하들 대부분이 1차 관문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쪽이야.”

숲에서 길을 찾는 건 에이미의 몫이었다.

천연의 미로에서 정신을 놓고 달리다 보면 방향감각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에이미에게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테스는 에이미야말로 첩보전에 두각을 드러낼 소질이라는 걸 간파했다.

‘과연. 홍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구나.’

에이미의 자기상 기억은 특정 시점의 상태를 완벽하게 복구한다. 따라서 의식을 잃지만 않는다면 어떤 장소로 옮겨져도 정확히 방위를 짚어 낼 수 있었다.

“에이미, 저쪽에 산길이 있어.”

시로네의 말을 듣자마자 에이미가 방향을 틀어 숲을 벗어났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지대의 정상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었다.

테스는 지면의 상태를 확인했다. 제법 시간이 지난 듯보이지만 마차가 지나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여기서부터 놈들의 생활권이야. 공성전으로 따지면 내성으로 진입한 셈인가?”

숲 속을 뛰느라 지쳤던 그들에게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병력을 해치웠지만 간부라 불리는 자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길만 따라가면 아지트가 나올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에이미는 단정 짓듯 말했지만 사실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인솔자로서 친구들의 의욕을 북돋아야 하는 사명감으로 꺼낸 말이었다.

현재 자기상 기억에 기록된 전투의 무브먼트와 곡선의 이동 거리를 총 합해보면 전투가 시작된 지점부터 대략 12킬로미터를 움직였다. 직선으로 변환해 보면 지도상으로 7킬로미터 이상을 전진한 셈이었다.

## [153] 두 번째 만남(2)

“확실히 근처까지 온 건 맞아. 앞으로 1킬로미터 정도만 가면…….”

에이미가 설명을 하려는 그때 숲에서 맹렬한 소음을 내며 불덩어리가 튀어나왔다.

“기습이야! 피해!”

시로네 일행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지면에 처박힌 불꽃이 공기를 살라 먹으면서 크기를 키우다가 열기로 흩어졌다.

“파이어볼?”

“에이미! 조심해!”

2차와 3차 공격이 동시에 날아들었다.

하지만 에이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투 자세를 취하고 불꽃을 노려보더니 똑같은 개수의 플레임 스트라이크로 불덩어리를 꿰뚫어 냈다.

“나와! 비겁하게 기습이나 하고!”

“실력이 제법이군. 여기까지 온 것도 요행은 아니었어.”

시로네 일행은 산길을 돌아보았다. 숲에서 1명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리안과 비슷한 키였지만 민첩함이 느껴지는 호리호리한 몸매였다.

눈썹이 없는데도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자신감, 창백한 인상이 마치 뱀을 닮은 사내였다.

“누구야, 당신은?”

“앵무 용병단의 부단장. 아가도 프리먼.”

부단장이라는 말에 시로네 일행의 얼굴에 긴장감이 깃들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목적지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시로네, 여긴 내가 맡을게. 내가 신호하면 리안과 테스를 데리고 절벽으로 가.”

“그럴 수는 없어. 너무 위험해.”

“그러는 너는 어쩌고? 혼자서 함정에 뛰어든 거 잊었어? 자꾸 이런 식으로 나 무시할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 혼자가 아니야. 숲에 20명 정도가 잠복하고 있잖아.”

에이미 또한 스피릿 존으로 이미 확인한 바였다. 하지만 그렇기에 시로네를 먼저 보내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목이 잡히면 1차 관문에서 지원 병력이 올 시간을 벌어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시로네를 설득시키려는 에이미가 손을 들어 프리먼을 가리켰다.

“시로네, 저 남자의 무기를 봐. 건이야.”

시로네도 고개를 돌려 유심히 살펴보았다. 분명 책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생긴 무기를 쥐고 있었다.

활로 쏘는 마정탄은 촉을 교체해야 하지만 건은 온전히 마정탄만 사용하도록 특별하게 제조된 무기였다.

소량의 마정탄을 장전하여 전방으로 쏘아 보내는 장치로, 디자인을 보아하니 실린더의 회전으로 연사가 가능한 리볼버 방식이었다.

“알겠어? 너도 건이 뭔지는 알 거 아냐? 화살보다 빠르게 탄을 교체할 수 있고, 직사 무기야. 충격 이후에 터지는 화살과 달리 이미 발현된 상태에서 쏘아지기 때문에 중장거리 전투에 특화되어 있어. 아마 숲에 숨어 있는 놈들도 모두 저 무기를 사용하고 있을 거야.”

시로네는 에이미의 말뜻을 이해했다.

“알았어. 그럼 여기는 너에게 맡길게.”

리안과 테스가 의아한 눈초리로 돌아보았다. 건의 설명을 들었지만 그럴수록 더 위험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시로네는 마음을 바꾸어 에이미를 홀로 남겨 두려는 것일까?

“파이어 월로 놈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 줄게. 그 틈에 돌파해.”

“알았어. 리안, 테스, 준비하고 있어.”

시로네의 판단이라면 리안은 따를 뿐이었다. 동료를 혼자 놔두고 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끌며 토론을 할 상황도 아니었기에 테스 또한 침을 꿀꺽 삼키며 튀어나갈 준비를 했다.

“지금이야! 가!”

정신 집중을 끝낸 에이미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시로네가 방향을 잡고 달리자 좌우에 리안과 테스가 따라붙었다.

예상대로 숲의 사방에서 건을 이용한 불꽃이 날아들었다.

에이미는 파이어 월을 거대한 원의 형태로 시전했다.

땅이 죽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발밑에서 시작된 불꽃이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면서 숲까지 침투했다.

이어서 정신력을 증폭시키자 불의 장벽이 거칠게 타오르면서 적들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동시에 시로네가 리안과 테스를 붙잡고 공간 이동을 전개했다. 사정거리는 고위 마법사에 비해 짧지만 적들의 눈앞에서 깜짝 사라지는 용도로는 충분한 효과였다.

공간 이동의 소음을 들은 에이미는 그제야 파이어 월의 시전을 중지하고 숨을 헐떡였다.

마력 잡아먹는 식충이라고 불리는 파이어 월은 장벽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신력을 계속 쏟아부어야 했다.

강력한 위력으로도 오버 파워가 아닌 이유는 이렇듯 시전에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프리먼은 순수하게 감탄했다. 눈앞에 서 있는 소녀는 고작해야 10대였다.

그가 알기로 저 나이에 이 정도 규모의 파이어 월을 시전하는 마법사는 극히 드물었다.

“기특하구나. 동료를 위해 희생하다니.”

“흥! 희생 같은 소리 하네.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보낸 거야.”

“그런가? 꽤나 지친 거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쪽도 사정이 급해서 기다려 줄 수는 없겠군.”

프리먼의 말이 떨어지자 수하들이 등장했다.

숲에서 타는 불을 누구 하나 끄지 못한다는 건 이들 중에는 마법사가 없다는 방증이었다. 하지만 모두 스키마 유저였고 프리먼과 마찬가지로 건을 쥐고 있었다.

스키마와 마법을 혼용하는 전투 방법. 전장에서는 이런 자들을 거너라고 부른다.

거너의 전투를 지켜본 적은 없지만 에이미는 예상할 수 있었다. 자신 또한 원거리 마법 능력과 스키마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먼의 부하들이 실린더를 열고 마정탄을 채워 넣었다. 실린더에는 최소 여섯 발의 마정탄이 들어가는 듯했다.

양쪽으로 도합 열두 발의 마법을 장착할 수 있고 적의 숫자는 20명. 따라서 적들의 화력이 재장전되는 사이클은 마정탄 이백마흔 발이라는 얘기였다.

“미안하지만, 너희의 철없는 모험도 여기서 끝이다.”

프리먼의 말이 떨어지자 부하들이 건을 쳐들었다.

확실히 부하는 대장 하기 나름인지 팔코아가 거느리는 자들하고는 성향이 달랐다.

방심이나 호기 따위는 부리지 않았고 오직 상대를 제거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에이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이번 전투에서 시로네가 주로 활약했기 때문이겠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리도 박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고작 20명으로 나랑 총격전을 벌이겠다고?”

에이미는 아랫배에 힘을 주듯 다리를 오므리면서 마법을 시전했다.

한바탕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그녀의 주변으로 주먹 크기의 돌들이 떠올라 화르르 소리를 내며 불이 붙었다.

“이번에는 너희가 상대를 잘못 골랐어.”

에이미의 눈동자가 붉은빛으로 타올랐다.

\* \* \*

테스는 달리는 와중에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시로네의 말을 믿고 따라오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한 작전이었다.

거너가 마법사보다 화력에서 뒤진다고는 해도 검사에 버금가는 육체 능력을 지닌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에이미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속이 바짝 탔다.

“시로네,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어떨까? 에이미가 걱정돼.”

“괜찮을 거야. 시간을 끌면 불리해져. 1차 관문에서 생존한 병력이 추격해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든 아지트에 빨리 도착하는 게 우선이야.”

“그건 알지만 에이미는 어쩌고? 차라리 네가 적들을 해치우고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테스의 생각을 간파한 시로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않아. 마법사의 실력은 단순하게 위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다르고 계열에 따라 다르지. 거너를 상대할 때는 나보다 에이미가 몇 배는 강할 거야.”

테스는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물론 그녀가 졸업반이라는 건 알지만 이곳에 도착해서 지켜본 시로네의 무용은 가히 엄청났다.

그런 시로네보다 몇 배나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수적인 우위라는 게 있잖아.”

검사답게 테스는 물리력에 중심을 두고 생각했다.

물론 전투에서 숫자로 산술되는 물리력의 총합은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마법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전지와 전능의 결합으로 수많은 현상을 이용하는 마법사에게 적의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치중하는 것은 자신이 갈고닦은 능력이 최선의 효율을 드러내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뛰어난 계산 능력이었다.

“광자의 특성과 화염의 특성은 달라. 게다가 사방식의 장기도 다르고. 에이미는 원거리에 특화된 마법사야. 그게 홍안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도 에이미가 자신의 영역에서 그들을 상대한다면…….”

시로네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절대로 에이미를 이길 수 없어.”

테스는 침을 꿀꺽 삼켰다. 평소에 시로네와 에이미를 대할 때면 고집 세고 철없는 동생을 돌보는 기분이지만 실전에서는 얼음장처럼 냉정해지는 그들이었다.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 어쩜 그렇게 딱 부러질 수가 있니?”

“그건 테스가 오해하는 거야. 나야 말로 테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걸.”

“치. 내가 뭐. 사실 성도 네가 부쉈고, 나는 도움을 준 것도 없는데.”

시로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차피 검사와 마법사의 숙련도는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정신 계열에서는 나이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신체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두각을 드러내는 법이기 때문이다.

테스와 리안은 앞으로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 자루의 검에 신념을 실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 나갈 터였다.

“시로네, 도착했다.”

숲을 벗어나자 천혜의 절벽 너머로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풍경이 드러났다.

절벽의 동쪽에 벽돌집이 보였다. 아마도 저곳이 아지트인 듯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을 거쳐야 했다.

행동대장 팔코아가 시로네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스는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판단한 성격대로라면 진즉에 칼을 차고 전장으로 뛰쳐나갔어야 정상인 인물이었다.

“뭐야. 저 자식 아직도 여기에 있었던 거야?”

“크크크, 초장에 박살 내는 게 훨씬 재밌긴 하지. 하지만 이쪽도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마르샤의 지시가 있었다. 성미에 맞는 작전은 아니었지만 팔코아는 순순히 따랐다. 사회의 악이라고 치부되던 자신을 전장의 영웅으로 만들어 준 사람의 말이었으니까.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군그래. 단장의 말이 맞았어. 너희가 찾는 여자는 저쪽 건물에 있다.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 보든지.”

팔코아가 길을 열어 주는 척 몸을 돌려세웠다. 하지만 시로네 일행은 움직이지 못했다. 왕궁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질의 살기가 길목을 틀어막고 있었다.

테스는 에이미의 심정을 이해했다. 결국 이 정도의 고수와 싸우려면 이쪽도 어느 정도의 모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를 교란시킬 생각이야. 여기는 나랑 리안이 맡을게. 시로네 너는 들어가서 유나를 데리고 와.”

시로네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러겠다는 반응에 테스는 에이미가 어째서 미소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서운하기는커녕 마음이 따듯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차가운 세계만도 아니구나. 신뢰를 받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시로네의 실력이라면 혼자서 빠져나가는 정도는 일도 아니었다. 잠시 눈치를 보다가 공간 이동을 시전하자 그의 몸이 섬광이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팔코아는 시선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테스는 깨달았다. 처음부터 시로네를 보낼 작정이었다.

“어째서?”

“뭐, 단장의 지시도 있고, 게다가 나는 여자가 있는 쪽이 훨씬 좋거든.”

팔코아가 검을 뽑아 들고 테스를 가리켰다. 탁한 기질의 남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약에 취해 휘청거리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팔코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테스는 리안에게 작전을 설명했다.

“놈은 스키마 유저야. 내가 놈을 막는 동안 네가 공격해.”

팔코아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기도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스키마 유저인 테스가 방어를 하는 게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었다.

“그건 안 돼. 내가 막을 테니, 네가 공격해.”

“바보야, 네가 어떻게 막아? 이런 말 하긴 싫지만 너 혼자 저놈을 막는 건 무리야.”

“무리라면 죽는 수밖에 없겠지.”

“뭐?”

테스가 황당한 듯 눈을 치켜떴다. 하지만 리안은 진지했다. 또한 싸움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전투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저놈을 이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거야. 목숨이나 건사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테스는 반박하지 못했다.

“네가 막으면 시간은 끌 수 있겠지. 하지만 알잖아? 그래서는 이길 수 없어. 결국 둘 다 죽는다고. 따라서 어떻게든 내가 막는다. 그사이에 너는 공격에 집중해.”

리안의 말이 옳았다. 칼을 무디게 하고 방패를 강화시켜 봤자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다.

결국 목숨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칼을 예리하게 가다듬는 게 정론이었다.

## [154] 두 번째 만남(3)

“버틸 수 있겠어? 놈의 스키마는 생도 수준이 아닐 거야.”

“그렇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잖아? 해 보는 수밖에.”

리안이 오젠트의 상징인 대검을 지면에 늘어뜨리고 천천히 전진했다. 반대로 테스는 팔코아의 시선 밖으로 벗어나듯 옆으로 움직였다.

2인 합격의 정석과도 같은 진열이었지만 팔코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전장의 악귀라 불리던 자신이 이깟 애송이들에게 휘둘린다면 그의 칼에 생명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비웃겠는가?

리안이 우직하게 대검을 내밀며 말했다.

“덤벼라. 받아 주마.”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팔코아는 지척까지 다가와 있었다. 상상을 뛰어넘는 순간 가속도였다.

“크하하하하하!”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장검을 방어한 리안은 코끝이 찡했다. 검끼리 부딪친 게 아니라 숫제 해머로 내리치는 충격이었다.

“뭐야? 벌써 포기야?”

팔코아는 미친 듯이 대검 위를 갈겨 댔다. 충격이 떨어질 때마다 리안의 무릎이 구부러졌다. 그러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땅에 대고 말았다.

“크윽!”

직도를 쥐고 있는 팔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 순간 팔코아의 발길질이 명치를 가격했다.

리안의 몸이 공처럼 바닥을 뒹굴면서 멀어져 갔다.

“리안!”

테스가 안타까운 외침을 토해 냈다. 이미 상황은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팔코아의 예상을 깨고 리안은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웠다.

상식을 벗어난 완력도 그렇지만 맷집 또한 리안의 장기 중 하나였다.

“후우, 대충 알았어. 이 정도란 말이지?”

팔코아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리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검을 똑바로 겨누며 상대를 도발했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얼마든지 덤벼 봐.”

“크크크크, 죽여 주마.”

팔코아의 입가가 귀밑까지 찢어졌다.

전장의 악귀라 불리던 당시의 모습 그대로였다.

\* \* \*

시로네는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용병단이 사용하는 장소답지 않게 정갈한 거실이 드러났고 태양이 내리쬐는 창문 아래로 화분이 줄줄이 장식되어 있었다.

“지스의 여동생은 어디 있지?”

시로네는 방마다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세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문고리를 잡은 채로 굳어 버리고 말았다.

방에서 좋은 향기가 났다. 붉은 양탄자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침대와 책상들이 규격에 맞게 배치되어 있었다.

시로네는 침대에 앉아 있는 여성을 바라보았다. 테스의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막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마주하자 충격이 엄청났다.

“어머, 왔구나, 시로네. 잘 지냈어?”

“마르샤 누나…….”

마르샤는 분명 유나를 납치한 조직의 단장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다정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집에 잘 들어갔어? 친구랑은 화해했니?”

시로네는 목구멍까지 나왔던 대답을 삼켰다. 마르샤는 자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유나를 넘겨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머, 왜 그래, 시로네, 무섭게. 누나한테 화난 거야? 그때 속인 건 미안해.”

마르샤가 교태를 부리며 다가오자 시로네는 똑같은 거리를 벌리며 물러섰다.

“후우, 정말 화났나 보네. 어떻게 하면 누나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

“지스의 여동생을 돌려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아하! 그런 거였어? 어머, 진작 말하지. 나와 싸우려는 줄 알고 오해했잖아. 하긴, 착한 시로네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정말 다행이야.”

시로네는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다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듯 그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유나는 어디 있죠?”

“2층에 있어.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도 좋아.”

시로네는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마르샤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아, 맞다. 그런데 덮어 줄 옷이라도 가져가야 하는 거 아냐?”

시로네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마르샤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웃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의 알몸을 보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미리 말해 주는 거야. 너무 놀라게는 하지 마. 정신이 이상해졌을 수도 있거든. 내 부하들이 워낙 거칠게 대해서.”

시로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갈수록 마르샤는 말을 더 빨리했다.

“나도 옆에서 봤는데 비명 소리가 장난 아니더라. 하긴, 나라도 그건 못 참았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어. 그런데 시로네, 그거 알아? 전부 내가 시킨 일이다? 그래도 너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착한 시로네니까. 그렇지?”

시로네는 입을 굳게 다물고만 있었다. 그 사실이 마르샤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으로 다가왔다.

“어때, 시로네, 기분이?”

“무슨 기분?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시로네는 더 이상 마르샤를 존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마르샤에게 정말이지 통쾌한 사건이었다.

“호호호! 진짜 화났나 보네?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네가 그랬잖아, 언젠가는 내 도벽도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어? 차라리 그때 따끔하게 나를 혼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는 유나를 납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 솔직히 너 엄청 재수 없었거든.”

시로네는 완전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는 유나가 문제가 아니었다. 마르샤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응? 대답해 보라니까? 기분이 어때? 막 미칠 거 같아? 좋아서 죽을 것 같던 누나가 갑자기 이러니까 비참해? 이제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꼭 입으로 들어야만 안심이 되는 건가?”

시로네가 물음에 마르샤의 웃음소리가 끊겼다.

“당신이 정말로 그걸 원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 그런데 어째서 내 감정에 신경을 쓰지? 내가 실망했을까 봐 두려워서?”

“헛소리하지 마! 나는 너를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줄까?”

마르샤의 얼굴이 굳었다. 마치 언어의 선택권을 빼앗긴 사람처럼 시로네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밉지 않아. 내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니까.”

마르샤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했다. 당황하던 얼굴이 점차 실망감으로, 그러다가 마침내 분노로 바뀌었다.

“헛소리 지껄이지 마. 정말 그렇다면 날 용서할 수 있어? 지스의 여동생을 짓밟은 나에게 예전처럼 웃어 줄 수 있어?”

“아니. 당신은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 만약 정말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하! 설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어쩌나? 내 말은 진짜야. 올라가서 확인해 봐.”

“설령 사실이라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시로네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누구보다 그 괴로움을 잘 알고 있을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슬플 뿐이야.”

마르샤의 눈에 불똥이 튀었다. 인상이 사납게 일그러지고 앙다문 이빨이 뿌드득 갈렸다.

차라리 정말로 유나를 짓밟았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을 지껄이는 시로네가 짜증 났다.

“너! 진짜로 기분 나빠!”

시로네는 다급하게 물러섰다. 공감각으로 침투하는 마르샤의 존이 따끔함을 느낄 만큼 날카로웠다.

별 모양의 존.

사방식 중에서 공격형만의 독특한 감각이었다.

마르샤의 공격에 대비하는 시로네는 방어형으로 맞섰다. 하지만 2층에 있는 유나가 걸렸다.

시가지는 마법사에게 꽤나 까다로운 환경이었다. 단순히 스피릿 존의 반경을 줄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검사의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주력으로 사용하던 장검을 버리고 단도로 싸우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과연 어떤 계열의 마법사일 것인가…….’

시로네는 마르샤를 관찰하는 한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즉각 회피할 수 있도록 광자화 마법을 미리 걸어 두었다.

하지만 마르샤의 마법은 시로네의 예상을 넘어섰다. 그녀가 눈을 치켜뜨면서 날카로운 비명을 터트리자 엄청난 굉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크윽!”

정신에 충격을 받은 시로네가 휘청했다. 마치 바늘이 귀를 뚫고 들어가 반대쪽 귀로 빠져나온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전해졌다.

‘음향 대포. 소리 마법사였구나. 이건 위험하다.’

소리 계열의 마법사는 음을 연구하는 자들이다. 굳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도 공기를 진동시켜 다양한 음파를 만들어 내는데, 대표적인 공격 마법으로는 마르샤가 시전한 음향 대포가 있었다.

음향 대포의 음압은 150데시벨이 넘어간다. 지근거리에서 당하면 고막이 찢어지고 귀가 멀어 버릴 정도의 위력이었다.

음의 파장을 증폭시키는 지향성 마법이기에 레이저처럼 넓은 반경으로 퍼지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대응이 어려운 마법 중의 하나였다.

‘여기서는 불리하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로네와 에이미의 효율이 극단적으로 나뉘듯이, 소리를 다루는 마르샤에게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투란 텃밭이나 마찬가지였다.

시로네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냈다. 마침내 선택한 방법은 좁은 공간에서의 초고속 순간 이동이었다.

패트롤과 레인보우 드롭을 섞어 가며 방 안을 돌아다니자 복잡한 섬광의 패턴이 마르샤를 교란시켰다.

시로네는 그녀의 배후를 제압하자마자 포톤 캐논을 시전했다. 하지만 사각에서 쇄도하는 마법을 마르샤는 몸을 뒤트는 것으로 손쉽게 피해버렸다.

‘어떻게?’

뒤에 눈이 달려 있지 않은 이상 사각에서의 공격을 알아차릴 방법은 없다.

아니, 설령 눈이 달렸다고 해도 이 거리에서 포톤 캐논을 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후후, 놀란 얼굴이네? 설마 그게 밑천의 전부는 아니겠지?”

“설마…… 소나?”

“이야, 역시 마법학교 출신답네. 공부 열심히 하나 봐?”

소나는 소리를 읽는 능력이다. 본래 수중에서만 사용이 극대화되지만 마법사들은 전능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의 존을 매질화시킬 수 있었다.

소나의 고수가 가진 탐색 능력은 밀도 면에서 조너를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로네가 포톤 캐논을 시전하는 것과 동시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증폭 마법은 짜증 나. 너무 볼품이 없잖아.”

시로네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얘기였다. 자신이 익힌 마법을 폄하하는 마법사는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건 마음에 든단 말이야.”

소나까지 익혔다면 굳이 소리를 증폭시킬 필요조차 없다. 마르샤가 두 팔을 펼치자 전방의 공기가 진동하면서 음향 대포가 양쪽에서 날아들었다.

시로네는 황급히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하지만 그의 반사 신경보다 소리가 더 빨랐다.

높은 데시벨의 음파가 머릿속을 뒤집어 놓자 마법이 풀려 버렸다. 이렇듯 정신을 집중시켜야 하는 마법사에게 음향계열은 참으로 위험한 마법이었다.

마르샤는 사이드루킹 마법으로 건물 전체를 아울렀다.

마치 돌고래처럼 스스로 음파를 발사하여 반향음을 읽어 내는 마법으로, 엄폐물에 관계없이 존재·방향·거리 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탐지 마법이었다.

시로네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음향 대포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사이드루킹의 즉각적인 탐지로 포톤 캐논마저 손쉽게 피해 버리고 있었다.

‘정말 이상하다. 음향 계열은 굉장히 전문적인 마법인데. 어떻게 용병 출신인 마르샤가 소리 마법을 구사할 수가 있지?’

소리 계열의 마법사들은 오로지 한평생 소리만을 연구하고 수집한다.

설령 기연을 만났더라도 학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전지 자체가 불가능한 까다로운 마법이었다.

“아주 볼만한 얼굴을 하고 있네. ‘어떻게 네까짓 게?’라는 감정이 훤히 들여다보여.”

## [155] 두 번째 만남(4)

마르샤가 다시 음향 대포를 발사하자 시로네는 양손으로 귓바퀴를 짓눌렀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마법도 귀를 막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았다.

“으아아악!”

하지만 시로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여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력의 음향 대포가 손등을 뚫고 들어왔다. 만약 귀를 막지 않았다면 고막이 터져 버렸을 터였다.

“후우, 너무 누나를 무시한다. 학교는 못 다녔어도 수열식 정도는 할 줄 알아.”

마르샤는 마법사회의 분류에 의하면 비마법학교 출신이지만 수많은 마법사를 해치운 베테랑이기도 했다. 실전에 중요한 이론은 경험으로 터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밴시의 비명.”

마르샤가 스피릿 존을 진동시키자 음이 늘어지는 듯한 괴상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시로네는 갑자기 일어난 현상에 두려워하며 벌떡 일어섰다. 눈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망막에 먹칠을 해 놓은 것처럼 세상이 어두컴컴했다.

‘뭐지? 이건 무슨 마법이지?’

소리 마법사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갖가지 소리를 수집한다. 그 중에서도 밴시는 고산지대에 사는 날개가 달린 인간형 몬스터로 여자의 상반신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특유의 고주파를 쏘아 보내 사냥감의 눈을 멀게 하고 잡아먹는데 마르샤는 소리 마법을 이용해 그 음역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시로네는 초조해졌다. 스피릿 존으로 상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좁은 공간은 음파의 반향으로 어지러웠고 마르샤 또한 음파의 진원지로서 소리로만 느껴지고 있었다.

시로네의 감각이 마비되는 동안 마르샤는 어느새 그의 옆에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귀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이 거리에서 음향 대포에 직격당하면 뇌 기능이 정지할 터였다.

‘잘 가라, 시로네.’

그 순간 시로네의 존이 난폭하게 진동했다. 소나의 민감도로 위기를 포착한 마르샤는 곧바로 물러섰다. 동시에 광폭이 터져 나오며 방 안의 기재를 밀어냈다.

시로네는 눈을 질끈 감은 상태로 사방에 레이저를 둘렀다.

레이저를 빠르게 휘감는 것으로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하지만 1차 관문에서 위력을 확인했던 마르샤는 책상 아래로 주저앉았다.

엄폐물에 숨은 마르샤는 눈으로는 전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나의 탐색 능력을 이용하면 시로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느껴낄 수 있었다.

‘어라?’

마르샤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시로네가 정확히 이쪽을 향해 포톤 캐논을 눈앞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좁은 방 안에서 메아리치는 밴시의 비명은 어지간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마르샤는 레이저가 방 안을 휘감았던 것을 기억해 냈다.

‘설마? 소리를 벴어?’

음파의 진동은 어지간한 마법으로 교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고효율의 에너지 증폭식인 레이저라면 음파를 베어 버리는 것도 가능했다.

마르샤는 레이저의 원리를 몰랐지만 시로네는 음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대응력의 차이. 마법학교가 전공 외에도 수많은 학문을 가르치는 이유였다.

“이런……!”

시로네는 또렷한 눈을 치켜뜨며 마르샤가 있는 곳에 포톤 캐논을 날렸다. 동시에 마르샤가 날다람쥐처럼 튀어나와 옆으로 굴렀다.

콰아아아앙!

묵직한 빛의 구체가 건물의 벽을 관통하며 뻗어 나갔다.

\* \* \*

숲 속의 전투는 전쟁을 방불케 했다.

프리먼의 부하들은 마정탄의 가격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까운 줄 모르고 건을 발사하는 통에 주변 일대의 풍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리는 쪽은 오히려 그들이었다. 20명이었던 숫자는 어느새 7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에이미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제길!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기다! 방금 저쪽을 지나갔어!”

숲의 깊은 곳에서 불타는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미처 돌아보지 못한 거너의 뒤통수에 직격하자 스키마를 열고 있는 상태에서도 의식이 날아갔다.

“제길! 일부러 탄 계열의 마법을 쓰고 있어.”

“귀신이 따로 없군.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데도 정확도가 엄청나.”

거너에게 중요한 건 기동성과 정확성. 에이미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압도하고 있었다.

안정적으로 플라이 마법을 구사할 수 있는 것도, 타기팅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한 것도, 그녀가 홍안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었다.

“후우, 이제 6명 남았나. 아니지, 프리먼까지 7명이네.”

에이미는 다시 주변의 돌을 공중에 띄웠다. 그러자 돌멩이가 붉게 달아오르더니 용암처럼 확 하고 불이 붙었다.

광자 계열에 광자화 이론이 있다면 화염 계열에는 점화 이론이 있었다. 이그나이트라고 불리는 것으로, 화염 계열의 근간을 이루는 마법이었다.

이그나이트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화염의 성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열을 발생시키는 히트, 불을 피우는 플레어, 사물에 불을 붙이는 번, 넓은 범위를 태우는 블레이즈, 폭발을 일으키는 버스터였다.

번 계열의 화염으로 돌을 달구는 것은 파이어 콜이라는 것으로 암석을 용암처럼 불태워 날리는 마법이었다.

화염 마법사에게 있어 번 계열은 중요하다. 화염의 단점인 가벼움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스키마를 운용하는 거너를 상대하기에는 제격이었다.

“다시 가 볼까?”

하늘로 날아오른 에이미는 파이어 콜을 무자비하게 떨어뜨렸다.

운석 폭격인 미티어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위쪽이다! 전부 퍼부어!”

거너들이 하늘로 건을 들고 마정탄을 쏘아 댔다. 하지만 자기상 기억으로 오차를 조절하는 에이미는 회피 능력과 정확도에서 적들을 가지고 노는 수준이었다.

플라이 마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시시각각 대기가 변하는 공중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에이미는 하늘에 정지한 듯 떠 있었다. 엄청난 속도로 자기상을 백업시키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붉은빛을 빠르게 발광하고 있었다.

서로의 탄이 교환될 때마다 적들의 숫자는 하나씩 줄어들어 갔다.

프리먼의 부하들이 2명만 남게 되자 에이미는 마지막 남은 파이어 콜을 모조리 퍼부었다.

이번에는 정밀 조준도 필요 없었다. 몸을 돌려 도망치려는 적들의 머리와 등에 불타는 돌이 퍽퍽 소리를 내며 처박혔다.

그제야 에이미는 플라이 마법을 해제하고 공터에 착지했다.

20명의 거너들이 순식간에 궤멸. 이제 남은 건 프리먼뿐이었다.

“부하들이 당했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네. 너무 냉정한 거 아냐? 아니면 겁쟁이인가?”

“싸우는 걸 싫어하는 게 겁쟁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프리먼의 말에 에이미는 눈살을 찌푸렸다. 만약 심리전이라면 꽤나 고도의 기술이었다.

하지만 프리먼은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프리먼이 온다. 겁쟁이 프리먼이 온다.

-프리먼을 울리면 마르샤가 온대요. 여자한테 도움이나 받는 머저리 같은 놈.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던 프리먼이 의외의 말을 건넸다.

“그만두자.”

“뭐? 방금 뭐라고 했어?”

에이미는 황당했다. 승전보를 눈앞에 두고 있건만 갑자기 그만두자니. 게다가 이런 얘기는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터였다.

“단장이 걱정이야. 아무래도 내가 가 봐야 할 거 같다. 그녀가 쓰러지는 걸 원치 않아.”

“흥, 누구도 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착하게 살았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녀는 절대로 패해서는 안 돼.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프리먼은 에이미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혼잣말을 중얼거리듯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단장은 강하다. 친구들이 죽을 수도 있을 거야.”

“흥, 시로네는 더 강해. 절대로 그런 여자에게 지지 않아.”

“지고지순하군. 네 남자를 믿는 건 좋지만 후회하게 될 거다.”

에이미는 순애보로 오인받는 게 불쾌한 듯 주먹을 들고 소리쳤다.

“웃기고 있네. 그리고 내가 시로네보다 더 강해, 이 자식아. 절대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쓰러져 줘야겠어.”

“그런가.”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깨달은 프리먼은 두 자루의 건을 양손에 쥐고 스키마를 발동했다.

에이미를 바라보고 있던 그의 모습이 잔상처럼 흐려지더니 자취를 감추었다.

에이미는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존을 통해 배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황급히 몸을 뒤틀었다.

프리먼의 발 차기가 턱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에이미는 난감한 듯 어금니를 깨물었다.

‘이런…… 실수했어!’

거너였기에 원거리 공격을 할 줄 알았건만 접근하여 백병전을 시도했다. 확실히 마정탄에만 의지했던 부하들과는 사고방식이 달랐다.

“흥! 나도 본격적으로 상대해 주지!”

에이미가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잡자 허공으로 뛰어오른 프리먼이 마정탄을 연사했다. 폭발력을 이용한 불덩어리가 마치 점선처럼 에이미를 향해 떨어졌다.

하지만 에이미 또한 플레임 스트라이크를 연사하여 전부 무력화시켰다.

무한히 넓은 좌표에서 점과 선을 일치시키기란 극히 어려운 일. 두 사람의 정밀도는 박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상에서 재차 충돌한 두 사람은 초근접전의 화력 대결을 펼쳤다. 하지만 역시나 지근거리에서는 거너가 유리했다.

“그렇다면……!”

에이미는 방어 마법인 파이어 미스트를 펼쳤다.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불그스름한 연기가 가스 덩어리처럼 주위를 감쌌다.

프리먼이 범위 밖으로 이탈하자 에이미는 여기서 끝내기 위해 플레임 스트라이크를 연사했다. 10여 개의 화염의 창이 쇄도하며 공기를 불태웠다.

퍼퍼퍼퍼퍼퍼펑!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순간 이동을 반복해 프리먼의 주위를 맴돌면서 끝도 없이 마법을 갈겨 댔다.

수십 개의 플레임 스트라이크가 한 점을 향해 쳐들어오는 순간 프리먼이 눈을 부릅뜨며 스키마를 열었다.

눈의 기술 중 하나인 컴파운드 아이.

프리먼이 보고 있는 풍경이 마치 곤충의 눈으로 보듯 조각조각 나뉘었다.

개별적으로 분석된 정보가 도착하자 프리먼의 허리가 버들가지처럼 이리저리 휘어졌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플레임 스트라이크가 옷깃조차 스치지 못하고 시간의 순서대로 교차해 지나갔다.

에이미는 평범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홍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분명 거너에게 특화된 눈의 기술이었다.

그녀는 전략을 바꿔 숲으로 숨어들었다. 상대가 수준급의 거너인 이상 근접전에서는 당할 재간이 없었다.

다만 에이미에게는 저격이라는 또 하나의 특기가 있었다. 300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멀어진 그녀는 프리먼을 살폈다. 차분하게 실린더를 열고 마정탄을 교체하는 모습이 보였다.

‘흥, 언제까지 한가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에이미는 타깃형의 스피릿 존을 스나이퍼 모드로 변형시켰다. 존이 원뿔의 형태로 쭉 뻗어 나가면서 프리먼의 얼굴을 겨냥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특성상 거리가 늘어날수록 위력은 증폭된다. 바람 마법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어 터널이 생기기 때문이다.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면 물체가 비행할수록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다. 300미터에서 쏘는 플레임 스트라이크라면 근거리의 최소 네 배에 가까운 위력을 낼 터였다.

에이미가 마법을 시전하자 화염의 창이 에어 터널로 빨려 들어가면서 프리먼에게 쇄도했다.

200미터를 주파하는 시점에서 에이미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가속도대로라면 남은 100미터를 이동하는 속도는 지나온 200미터의 네 배가 넘어갈 터였다.

결국 프리먼은 절대로 반응할 수 없다.

예상대로 프리먼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에이미는 경악하고 말았다. 플레임 스트라이크가 프리먼과 한참이나 떨어진 지점에 처박혔기 때문이다.

‘내가 실수를 했다고?’

그 순간 에이미는 깨달았다. 정신에 침투한 이상한 감각을.

“안티매직…….”

프리먼의 건에 안티매직 마법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체감하기로 3퍼센트 정도겠지만 300미터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오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안티매직은 그녀에게 위험하다. 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홍안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마법이기 때문이다.

## [156] 두 번째 만남(5)

에이미는 프리먼이 예상보다 전술적임을 깨달았다.

스키마의 고수에 컴파운드 아이, 게다가 안티매직 3퍼센트는 저격마저 무력화시켰다.

근·중·원의 모든 거리에서 자신의 전투를 펼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거기 숨어 있었나?”

프리먼은 마정탄을 장착한 건을 들고 날아올랐다. 나무를 밟으면서 거리를 제압하는 과정은 빠르다 못해 단절적이었다.

이어지는 전투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었다.

에이미가 계속 저격을 시도했으나 프리먼을 맞히기에는 요원했다. 홍안을 아무리 백업시켜도 어떻게든 3퍼센트의 오차는 발생하고 만다.

중거리까지 접근하면 나름대로 상대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프리먼의 텃밭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

에이미는 포기하지 않고 저격을 고수했다. 하지만 회피할 필요조차 없는 프리먼은 하품이 날 지경이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상관없다. 저격은 맞을 턱이 없고 접근한다면 컴파운드 아이로 피해 버리면 그만이었다.

“마법사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투 초반에는 탄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마법사가 유리하지만 무한히 마법을 시전할 수 없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승세는 거너에게 기울 수밖에 없었다.

플레임 스트라이크의 속도가 전보다 느려지자 프리먼은 본격적으로 먹잇감을 잡기 위해 움직였다.

에이미는 더 이상 마법을 시전할 정신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머릿속이 탈색되는 기분이었다. 전지에 전능이 달라붙지 않고 있었다.

“하아. 하아.”

하지만 에이미는 일말의 정신력까지 쥐어짜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플레임 스트라이크를 시전했다.

프리먼은 쇄도하는 마법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탄도 전문가인 거너답게 이미 타격 지점이 미세하게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프리먼은 두 자루의 건을 치켜들고 방아쇠에 검지를 걸었다. 상대는 플라이 마법조차 유지하지 못할 터였다. 이제는 평범한 소녀라고 생각해도 무방했다.

펑!

그 순간 강력한 충격이 프리먼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감정이 드러났다.

의문과 경이.

분명 플레임 스트라이크는 타격 지점에서 10미터나 이탈한 상태였다. 그런데 어째서 자신에게 충격이 올 수가 있다는 말인가.

생각은 거기까지였다. 급소를 가격당한 프리먼은 쿵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추락했다. 대자로 뻗어 버린 그의 얼굴에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르샤…….’

힘겹게 나무에 달라붙어 지상으로 내려오던 에이미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피로감이 엄청났다. 일반인이 4일 동안 밤을 새워 작업한 것 이상으로 정신이 지친 상태였다.

하지만 도박과도 같은 모험이 성공했기에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헉! 헉! 됐다. 이겼어.”

에이미의 마지막 공격에서 스나이퍼 모드의 사거리는 사실 100미터도 되지 않았다.

프리먼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플레임 스트라이크는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을 터였다.

하지만 프리먼은 돌진했고 그게 패착이었다. 무려 200미터의 거리를 포기한 에이미가 남은 정신력으로 시도한 것은 사방식의 이탈형이었다.

플레임 스트라이크만을 잡아 두는 존으로 궤적을 바꾸어 프리먼을 강타한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3퍼센트의 안티매직으로는 공격을 피할 수 없다.

여태까지 돌을 집어 던졌다면 이번에는 직접 손에 쥐고 때린 것과 같은 이치였다.

“어쨌거나 이겼으니 다행이지. 죽었으면 창피해서 하늘나라도 못 갈 뻔했어.”

친구들의 전투가 한창일 것이기에 정신을 회복할 여유조차 없었다. 에이미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힌 자세로 절벽을 향해 힘든 발걸음을 내디뎠다.

\* \* \*

프리먼의 얼굴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화상의 고통에 의식이 돌아온 직후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마르샤에게 가야 하는데.’

에이미의 불꽃이 끊임없이 피부를 태웠지만 프리먼의 육체 또한 그에 맞먹는 속도로 세포를 수복하고 있었다.

살아 있는 것도 죽어 있는 것도 아닌 고통과 안식의 갈림길에서, 프리먼은 마르샤와 함께했던 어린 날의 시절을 떠올렸다.

“어? 프리먼이다. 겁쟁이 프리먼.”

“팔자 눈썹 프리먼! 빨리 안 울어? 울어 보란 말이야!”

프리먼은 언제나 놀림거리였다. 왜냐하면 겁쟁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겁쟁이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는 자신의 심각하게 기울어진 팔자 눈썹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다.

“하, 하지 마.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울어 보라고. 널 울리면 마르샤가 오거든. 예쁜 마르샤 말이야.”

“마르샤는 괴롭히지 마!”

“멍청아, 마르샤가 골목대장인데 누가 괴롭혀? 게다가 마르샤는 재밌거든! 아무튼 빨리 울기나 해. 에잇, 에잇.”

“으아아아앙! 마르샤!”

프리먼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도망쳤다.

아이들은 그를 울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뭇가지로 얼굴을 찔러 대는 건 예사였고 심할 때는 돌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야! 마르샤한테 여기로 오라고 해! 같이 전쟁놀이할 거니까.”

아이들은 마르샤와 놀기 위해 프리먼을 울렸다. 그럼에도 프리먼은 언제나 마르샤의 집으로 달려갔다.

따돌림을 당하는 그가 갈 곳이라고는 그녀의 집밖에 없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쓸쓸한 집 안이었다. 용병인 그녀의 아버지는 집 안에 가구조차 들이지 않았다. 일을 나가면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돌아와서는 꼭 한 번씩 마르샤를 두들겨 패곤 했다.

마르샤의 방문을 열자 텅 비어 있는 방 안의 구석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침대도 책상도, 그 흔한 담요조차 없는 방에 먹다 남은 빵과 우유 한 잔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르샤, 히잉, 애들이 나 때렸어.”

언제나 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그녀. 하지만 예쁜 얼굴. 마르샤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프리먼을 반겼다.

“어휴, 너는 맨날 당하면서 질리지도 않니?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왜 어울려?”

“어울리는 거 아냐. 어떻게든 날 찾아내서 괴롭힌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가서 말해 줄게. 걔들 어디에 있어?”

프리먼이 콧물을 닦으며 말했다.

“안 가면 안 돼? 너 나갔을 때 아저씨 들어오면 얻어맞잖아.”

“어차피 맞는 건 똑같은데 뭐. 애들한테 너 괴롭히면 같이 안 놀아 줄 거라고 말할게.”

“싫어! 너도 그 자식들하고 놀기 싫으면서 나 때문에 억지로 놀아 주는 거잖아. 마르샤가 그런 자식들한테 웃어 주는 거 싫단 말이야.”

“어이구, 고마워라. 그러면 좀 강해지든가. 도움받는 주제에 큰소리는.”

마르샤가 프리먼의 이마를 콕콕 찔러 댔다. 거기에 불쾌해진 프리먼이 문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그래도 싫어! 가지 마!”

“오늘따라 왜 그래? 다른 애들한테도 그렇게 큰소리 좀 쳐 보지. 어라, 혹시 너 나 좋아하니?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노는 거 질투하는 거야?”

프리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심장 뛰는 소리가 귀까지 들리고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웃겼는지 마르샤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야, 농담이야, 농담. 하여튼 간은 콩알만 해 가지고…….”

“그래! 너 좋아한다! 어쩔래? 계집애야!”

마르샤는 멍하니 프리먼을 쳐다보았다.

“나는 너 좋아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좋아해 달라고 말이라도 했어?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인데 왜 네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야? 나 같은 겁쟁이는 누구를 좋아해서도 안 되는 거야?”

감정 표현에 서툰 프리먼이 전에 없이 흥분하여 소리치자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마르샤가 양손을 내밀면서 진정시켰다.

“그, 그래, 알았어. 미안해. 좋아하는 거야 당연히 네 자유지.”

“이, 씨! 진짜! 너까지 사람 바보 취급하고!”

어린아이 달래듯 하는 마르샤의 태도에 프리먼은 더욱 화가 났다. 그러자 마르샤가 피식 웃으며 프리먼의 손목을 붙잡고 데려와 자신의 지정석에 앉혔다.

“바보 취급 안 했어. 그러니까 흥분 좀 가라앉혀.”

마르샤는 넝마 같은 망토를 둘러쓰고 나갈 채비를 했다.

프리먼은 고래고래 악을 질렀던 게 무안했던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슬그머니 시선을 올렸다.

“진짜로 걔들이랑 놀 거야?”

“아니, 따끔하게 혼내 주기만 하고 돌아올게. 이따가 나랑 같이 놀자.”

마르샤의 말에 프리먼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진짜? 빨리 와야 돼!”

“그래. 배고프면 빵이랑 우유 먹어. 난 다 먹었으니까.”

마르샤가 집을 나서자 다시금 적막이 찾아왔다. 프리먼도 가난한 방의 풍경에 동화되어 다시금 표정이 시무룩해졌다.

‘에이, 이거 주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프리먼은 주머니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냈다. 세 달이나 잔심부름으로 푼돈을 벌어서 구입한 물건이었다.

마르샤는 한 벌의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양부가 모든 걸 가로채 가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잔데 거울은 있어야지. 아저씨도 참 이상해. 저렇게 예쁜 딸을 두고 왜 그러나 몰라.”

마르샤가 좋아할 것이란 생각에 프리먼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결코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심각할 정도로 처진 팔자 눈썹.

이 눈썹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울보라는 별칭을 얻었고,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 정말로 울보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이상한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세월이 흘러 마르샤와 프리먼도 17세가 되었다.

프리먼은 여전히 동네에서 겁쟁이였지만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판은 좋았다.

하지만 진지하게 어울리는 사람은 마르샤뿐이었다.

그가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이유는 마르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다.

물론 아무리 물건을 사다 줘도 그녀의 아버지가 전부 가져가 버리는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선물을 사다 주면 마르샤는 정말로 기뻐했다.

프리먼은 마르샤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웃음을 잃어버린 듯했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 양부라는 사람이 근래 들어 더욱 심하게 마르샤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

프리먼 또한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병신이란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프리먼은 결국 알게 되었다. 마르샤에게 가해졌던 손찌검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이었다는 사실을.

“마르샤, 마르샤?”

그날 밤에 마르샤의 집을 찾은 건 어쩌면 운명이었다. 낮에 만났던 마르샤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우울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 탓이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마르샤가 나오지 않자 불안감은 더해졌다.

프리먼은 할 수 없이 창문을 넘었다. 어차피 가져갈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대부분 창이 열려 있었다.

“어라, 마르샤? 방에 있었네? 그런데 왜 대답을…….”

프리먼은 달빛에 비친 방 안의 풍경을 보고 굳어 버렸다. 무릎을 꿇은 채 넋이 나가 있는 마르샤가 보였다.

그녀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고 칼날에서 떨어지는 핏물이 바닥을 타고 한 구의 시체로 흘러들어 가고 있었다.

“마, 마르샤…….”

프리먼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달려갔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마르샤가 정신을 놓고 있다면 자신이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어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깨를 붙잡고 몇 번이나 흔든 끝에 마르샤는 정신을 되찾았다.

멍하니 프리먼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아빠가…… 나를 덮치려고 했어.”

프리먼은 할 말을 잃었다.

말수도 없고 눈도 음침해서 변태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부모가 아니던가?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벌어지자 역겨운 감정이 밀려들었다.

“도망치자. 아저씨는 용병이잖아. 동료들이 알면 복수하러 올 거야.”

프리먼의 말이 옳았다. 영리한 마르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신을 차렸다. 한시라도 빨리 집을 벗어나야 했다.

마르샤는 문득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무것도 가져 본 적이 없기에, 이곳을 떠나는데 챙겨야 할 물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프리먼은 마르샤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을 벗어났다. 두 사람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을의 입구까지 내달렸다.

“헉! 헉! 이제 됐어. 일단은 안심해도 될 거 같아.”

“응. 마을 밖까지 쫓아오지는 못하겠지.”

마르샤는 숨을 헐떡이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양부의 동료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녀는 세상 끝까지라도 도망칠 자신이 있었다.

## [157] 두 번째 만남(6)

“프리먼, 고마워.”

“헤헤, 이 정도 가지고 뭘.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빨리 나가자. 어딜 가든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말에 마르샤는 당황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프리먼, 미안해. 떠나는 건 나 혼자야. 너를 데리고 가지는 않을 거야.”

“뭐야? 어째서? 여자 혼자 어디서 뭘 하려고? 바깥세상은 위험하단 말이야.”

“괜찮아. 이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돼! 싫어! 나도 따라갈 거야! 절대로 너 혼자서는 못 가.”

마르샤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프리먼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비록 자신의 양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피가 통하는 진짜 아버지였다.

“프리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마르샤의 직설적인 말에 프리먼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하지만 내가 너를 남자로 받아들일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나를 따라가는 건 너에게도 불행이야.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어.”

프리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잔인하다. 정말 잔인하다, 마르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프리먼은 두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다.

마르샤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녀의 곁을 맴돌아 봤자 결국에는 자신만 상처를 받게 될 뿐이었다.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너랑 같이 갈 거야.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병신이란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것도 싫어. 이건 내 의지야.”

마르샤는 화가 났다. 답답한 프리먼의 성격이 짜증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이 멍청아!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널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뭐? 좋아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는 그냥 좋아할 테니까! 네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든 애를 낳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것까지 뭐라고 할 자격은 너한테 없단 말이야!”

마르샤도 악에 받쳐 소리쳤다.

“아, 그래? 잘됐네. 어디 평생 나만 쳐다보다가 홀아비로 늙어 죽어라. 사실대로 말해 줄까? 네가 따라오는 건 나한테 짐이야.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죽이는 겁쟁이를 내가 언제까지 돌봐 줘야 해? 나만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난 겁쟁이 아니야! 내가 널 지킬 거야!”

“그러니까 무슨 수로 날 지킬 건데!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으아아아아!”

프리먼은 땅을 향해 악을 질렀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뾰족한 돌을 집어 들고 자신의 눈썹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마르샤가 화들짝 놀라며 프리먼을 말렸다.

“뭐 하는 거야, 이 멍청아!”

“놔! 놓으란 말이야!”

프리먼은 막무가내였다.

벅벅 하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마르샤는 기가 막힌 듯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프리먼은 완전히 눈썹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돌을 문지르고는 바닥에 던져 버렸다. 다시 일어난 그의 얼굴은 수라처럼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때? 이러니까 나도 무서워 보이지? 내가 겁쟁이였던 건 다 눈썹 때문이야. 이제 누구도 나를 못 건들걸. 그러니까 너한테 짐도 안 될 거야.”

“너…… 미쳤니?”

마르샤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프리먼은 진심이었다.

눈썹을 밀어 버린 그의 인상은 확실히 무서웠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해질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옆에만 있게 해 주면 안 돼? 절대로 너한테 좋아해 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같이 가게 해 주면 안 돼?”

“너……. 어휴, 이 멍청아.”

마르샤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조차도 한숨에 밀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마르샤.”

프리먼의 눈이 번쩍 뜨였다. 화상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어느새 완벽하게 재생되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야 했다. 약속했으니까. 마르샤가 죽기 전까지는 생명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지금 갈게. 기다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삶으로 돌아오는 데 쏟아 낸 에너지는 무지막지했다. 육체는 무거웠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프리먼은 쉬지 않고 걸었다.

마르샤가 있는 곳으로.

클레이 마르샤(1)

에이미는 이를 악물며 산길을 달렸다. 정신력은 생각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마법을 시전하기에는 무리인 상태였다.

그렇다고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프리먼은 처리했으나 여전히 팔코아라는 또 1명의 강적이 남아 있었다.

“후우! 조금만 더!”

목적지가 눈에 보이자 에이미는 더욱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을 올라온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을 접하고 눈을 크게 떴다.

만신창이가 된 리안이 팔코아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에이미가 놀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다.

테스가 전속력으로 달려와 팔코아에게 세검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테스의 눈빛은 전에 없이 사나워져 있었다. 이대로라면 리안마저 검에 꿰뚫리고 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무언의 합의를 끝냈는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마침내 테스의 사브르가 팔코아를 꿰뚫었다. 리안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어깨가 경련을 일으켰다.

잠시 후 리안의 입에서 핏물이 퍽 하고 터져 나왔다.

\* \* \*

에이미가 도착하기 20분 전.

팔코아의 공격은 현란함의 극치였다. 하지만 그것은 기교가 아닌 난폭함에서 드러나는 야수 같은 폭력성이었다.

리안은 기술을 생각할 수 없었다. 충격을 감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계치까지 체력을 써 버린 상태였다.

팔코아가 빈틈을 발견하고 리안의 허벅지를 베었다.

‘리안!’ 하고 외치는 테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상보다 잘 버틴 리안이지만 하체를 당한 이상 힘의 반절이 날아간 셈이었다.

친구의 부상에 분노한 테스가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팔코아는 가히 전장의 악귀라 불릴 만했다.

죽지만 않으면 어디를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대부분의 무브먼트를 공격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러자 오히려 테스의 공격 빈도가 떨어졌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명언이 새삼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전투가 진행될수록 리안과 테스의 몸에 생채기가 늘어나고 있었다. 치명상은 피하고 있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 10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육체는 거의 걸레짝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변해 있었다.

“크하하하! 이제 끝인가? 간만에 재밌었는데 말이야.”

팔코아의 말을 무시하며, 테스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리안을 돌아보았다.

“리안, 괜찮아?”

“어, 버틸 만해. 너는?”

테스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뭐가 버틸 만하다는 것인가? 그의 몸 전체에 팔코아의 검이 지나간 흔적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태어나서 이토록 속상한 적은 처음이었다. 저딴 쓰레기 같은 자식이 도대체 뭔데 리안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말인가.

테스는 사브르의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팔코아의 숨통을 끊어 버릴 생각이었다.

“이야아아아!”

테스는 사브르를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돌진했다. 엘자인 가문 특유의 돌진 자세였다.

하지만 전력의 격차는 오의로도 메울 수 없었다.

테스의 전진 속도는 굉장했지만 팔코아는 그것을 능가하는 속도로 물러서고 있었다.

거리를 벌리자 의도하는 바가 한눈에 들어왔다. 사악하게 입가를 찢은 팔코아가 갑자기 땅을 박차며 전진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솜씨로 테스의 사브르를 흘려 냈다.

“허억!”

팔코아는 테스의 옆으로 돌아들어 가 무릎으로 그녀의 늑골을 후려쳤다. 폐가 짓눌리면서 테스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차단당했다.

“크크, 제법이었어. 하지만 여전히 풋내가 나.”

팔코아의 장검이 테스에게 떨어져 내렸다.

테스는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목을 베기 위해 내려오는 검의 궤적이 또렷하게 보였다.

하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다. 시간이 느려진 만큼 그녀의 몸 또한 느려져 있었다.

‘미안해…… 리안. 적어도 한 방은 갚아 주고 싶었는데.’

그 순간 리안이 황소처럼 돌진해 팔코아에게 태클을 걸었다.

“으아아아아!”

팔코아의 두 다리가 둥실 떠올랐다. 하지만 리안의 태클은 실패였다. 떠 있는 상태에서도 무시무시한 밸런스로 기립 자세를 취한 팔코아는 그대로 바닥에 착지했고 리안의 뒷목을 끌어당기며 무릎을 쳐올렸다.

“커억!”

충격이 명치를 뚫고 위장을 지나 등 밖으로 튀어 나갔다.

이것이 전쟁에 미쳐 살았다는 악귀의 전투 능력인가. 어떤 방법으로도 팔코아를 흔들 수 없을 듯했다.

“구질구질하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여자는 내가 잘 돌봐 줄 테니까.”

멀어져 가던 리안의 의식이 되돌아왔다. 평소에는 티격태격하지만 테스는 좋은 친구다. 한 사람의 검사로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너 같은 자식한테…….”

팔코아의 옷깃을 붙잡은 리안이 온 몸을 불태우듯 힘을 주며 잡아당겼다.

“내 친구는 못 넘겨, 이 자식아!”

“크윽!”

마치 파도에 휩쓸린 듯 리안에게 끌려가면서도 팔코아는 의아했다. 힘이 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스키마에 필적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힘이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리안은 팔코아의 뒤로 돌아들어 가 레슬링 기술을 걸었다.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끼우자 두 팔이 들떠 버린 팔코아는 검을 휘두를 수가 없었다.

“이 자식이!”

팔코아가 광배근을 키우며 두 팔을 아래로 내렸다. 리안의 콧잔등이 일그러졌다. 마치 어깨에 밧줄을 묶고 말들이 끌어당기는 듯 육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크으으으으!”

하지만 팔코아는 벗어날 수 없었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전투 중에 경험한 상대는 자신보다 완력이 세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 있는 것인가.

“젠장! 이 자식이! 이거 안 놔!”

“흐흐! 벗어나 봐. 이게 상상 스키마라는 것이다, 자식아.”

마법사는 정신을, 검사는 육체를 단련한다. 하지만 신체 능력의 강화가 지상 목표인 검사에게도 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뇌였다.

어쩌면 생각은 육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떤 스키마 유저들은 뇌의 도식을 복원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도 한다.

리안은 모르고 있었지만 상상 스키마라는 이름은 그들에 의해 붙여진 것이기도 했다.

팔코아를 풀어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그렇다면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작용 또한 달라질 것인가?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할 경우, 생각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을진대,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강화시킨다면 그 효과는 얼마만큼 증폭될 수 있는가?

리안은 움직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육체에 특정 지시를 내려 놓고 그 상태로 고착화시켜 버린 것이다.

일종의 정신적 잠금장치.

상상 스키마는 스키마가 아니라는 게 정설이지만, 현재 리안의 무지막지한 완력은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으아아아! 놔! 놓으란 말이야, 이 자식아!”

팔코아는 미친 듯이 몸을 흔들었다. 생물에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리안의 육체는 마치 석화되어 버린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

“테스! 찔러!”

“하, 하지만…….”

테스는 리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팔코아를 이길 기회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테스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리안을 죽이다니. 같이 죽으면 죽었지 자신의 손으로 그를 찌르는 짓은 할 수 없었다.

“리안…….”

“으아아아! 빨리! 오래 버틸 수 없어!”

리안의 몸 이곳저곳에서 위험신호가 전해져 왔다. 정신이 내린 지시를 육체가 100퍼센트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 한계는 명백했다. 아마도 팔코아가 빠져나온다면 리안의 몸은 산산조각 부서진 상태가 된 이후일 터였다.

“테스! 빨리 해!”

“이야아아아!”

테스는 눈물을 흘리며 돌진했다. 리안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 허튼 감성으로 시기를 놓쳐 버리면 리안을 천하의 바보로 만드는 꼴이었다.

에이미가 도착한 건 바로 그 시점이었다.

“테스! 안 돼!”

## [158] 클레이 마르샤(2)

에이미의 외침이 터지자마자 테스의 세검이 팔코아의 심장을 찔렀다. 이어서 리안의 눈이 크게 뜨이며 입에서 핏물이 터져 나왔다.

테스의 검술에 실수는 없었다. 사브르는 정확히 팔코아의 심장을 관통했고 조만간 기능이 정지할 터였다.

팔코아는 죽음을 직감했다. 딱히 두렵지는 않았다.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쾌락에 가까운 마약이 아닌가 싶었다.

“마르샤.”

죽음을 앞둔 팔코아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놀랍게도 단장의 이름이었다. 주마등이라도 느끼는 것인지 그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날 전장으로 데려다줘.’

테스가 세검을 뽑아내자 팔코아의 몸이 뒤로 넘어갔다. 쿵 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지고, 이어서 리안이 육체의 고통을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리안! 괜찮아?”

에이미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리안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여어, 에이미. 전부 해치우고 온 거야?”

“말해 봐. 어디를 어떻게 다친 거야? 테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같이 찌를 수가 있어?”

에이미가 서운하다는 듯 테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테스는 세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눈을 찡긋했다.

“후후, 무슨 소리야? 날 뭐로 보고. 이래 봬도 간격 조절에는 자신이 있다고. 찌른 건 팔코아의 몸통뿐이야. 리안은 무사해.”

에이미는 황당한 표정으로 테스를 바라보았다.

“저기…… 리안 가슴에서 피나는데?”

“뭐어!”

테스가 눈을 똥그랗게 치켜뜨며 리안을 살폈다. 에이미의 말대로 가느다란 핏물이 쭉쭉 새어 나오고 있었다.

“리안! 리안! 괜찮아? 정신 좀 차려 봐!”

얼굴이 창백해진 테스가 귓가에서 앵앵거리자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되돌아온 리안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몸을 일으켰다.

“호들갑 떨지 마. 그냥 조금 찌르고 들어온 거야.”

“미안해, 리안.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조금만 얕았어도 팔코아는 쓰러지지 않았을 거야. 그때는 우리 둘 다 위험했겠지. 너의 판단이 옳았어.”

“히잉, 하지만…….”

리안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친구의 안위가 걱정된다고 해도 미흡한 것보다는 깊은 게 낫다. 그렇기에 테스도 최고의 집중력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으X!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 보자. 시로네가 걱정돼.”

한창 싸우는 중에도 건물 안에서는 기괴한 소리와 폭음이 들렸었다. 단장과 싸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최소한 팔코아의 전투보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터였다.

그 순간 건물의 벽이 쾅 하고 부서지면서 시로네가 튀어나왔다.

“시로네!”

시로네는 바닥에 처박히기 직전 순간 이동을 시전해 10미터를 물러섰다. 광자화 상태가 풀리면서 착지의 자세를 취한 시로네가 땅을 끌며 밀려났다.

“시로네, 괜찮아?”

“오지 마!”

시로네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언제나 냉정하던 시로네가 이례적으로 흥분했다는 사실에 친구들은 발바닥에 못이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소리 마법이라 다가오면 위험해.”

마르샤의 소나는 표적 공격과 범위 공격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었다. 전투로 녹초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 세 사람이 왔다가는 강력한 소리 마법에 휘말릴 게 분명했다.

“제법이네. 나를 상대로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거야.”

허리를 굽히고 건물을 빠져나온 마르샤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팔코아의 시체 앞에서 스르륵 사라지고 말았다.

팔코아가 죽었다.

비록 정신이 좀 이상한 남자였지만 인생 막장들끼리 모여 참으로 재밌게 활개치고 다녔다. 대륙에 이름을 날린 앵무라는 이름에는 그의 피가 3할은 스며들어 있었다.

‘후회는 없겠구나, 팔코아.’

마르샤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마약에 찌들어 심장마비로 죽는 것보다는 칼부림 끝에 죽는 게 훨씬 멋진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남자였다.

하지만 감상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고작해야 학생에게 당했다는 건 의외였지만 5년 동안 마약에 중독된 팔코아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마르샤는 다시 시로네를 상대하는 데 집중했다. 1차 관문을 돌파했을 때 짐작했지만 직접 상대해 보니 역시나 마법의 조합이 상당히 균형적이었다.

순간 이동은 수준급이었고 핵심 공격 수단인 포톤 캐논의 위력도 마음에 들었다.

레이저는 공성 무기로 제격인 데다가 방어 마법인 광폭도 타이밍을 요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격 마법으로 변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1명의 마법사가 오랜 고심과 진화 끝에 맞춰 놓은 밸런스.

무엇보다 마음에 든 점은 어떤 마법사에게서도 익힐 수 없는, 오직 시로네만이 가능한 고유의 마법이라는 것이었다.

‘언로커의 마법이라. 재밌겠네. 갖고 싶어졌어.’

마르샤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시로네 또한 개활지로 나온 상황에서의 변수를 분석하고 있었다..

건물 안에서 수많은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딱히 없었다. 무엇보다 인질이 다칠 위험이 없으니 마음껏 위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어.”

“후후, 시로네, 너는 나를 용서하게 될 거야.”

“무슨 근거로? 당신이 한 짓은 인간의 도를 넘어섰어.”

“그게 말이야, 사실은…….”

마르샤가 개구쟁이처럼 혀를 내밀며 소리쳤다.

“다 뻥이였지롱!”

시로네 일행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마르샤가 건물에 대고 소리쳤다.

“유나! 이제 나와도 좋아!”

소리가 증폭되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바다를 향해 쩌렁쩌렁 퍼져 나갔다.

잠시 후 건물의 문이 열리더니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가 걸어 나왔다.

“설마, 저 여자애가 유나?”

“맞아, 유나야. 보다시피 아무런 탈 없이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어때, 시로네? 이제 화 풀렸어?”

시로네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의 뛰어난 통찰력으로도 마르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어머, 아직도 모르겠어? 누나가 동생에게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렇게 화내면 쓰나? 내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용서해 줘. 응?”

유나가 시로네 일행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마르샤 언니는 저를 구해 주셨어요.”

리안이 답답한 듯 입을 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멍청한 나 대신 대답 좀 해 줘 봐.”

하지만 에이미도 테스도 말이 없었다.

명백한 조롱이다. 그것은 분명했다. 문제는 동기였다. 도대체 마르샤는 어떤 의도로 이런 짓을 꾸민 것일까?

시로네가 생각하는 것도 그에 관한 부분이었다.

단지 장난이었다고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앵무 용병단이 궤멸했다. 팔코아는 죽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로 그렇다면…… 유나를 이쪽으로 보내 줘.”

일단은 지스의 여동생을 구출하는 게 우선이었다. 하지만 마르샤는 예의 장난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유나야, 다시 들어가 있어. 이따가 오빠한테 보내 줄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건물로 들어가 버렸다.

시로네는 약이 바짝 올랐다. 대체 마르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일까?

목적도 의미도 느낄 수 없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분탕을 치고 싶은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후후, 왜 그래? 유나는 무사하잖아. 그러면 된 거 아냐? 아, 혹시 정의의 사도처럼 네가 직접 데려가고 싶었던 거야?”

“그건 아니지만…….”

“이제 알겠지? 누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쁜 건 너야, 시로네. 네가 나를 구역질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너한테는 유나를 넘겨주지 않을 거야.”

시로네는 스피릿 존으로 들어갔다. 마르샤의 칼날처럼 예리한 공격형 존이 어느새 자신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흥! 이제는 당하지 않아.”

호기롭게 소리친 시로네지만 실상 마음속은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다. 마르샤는 싸워야 하는 동기를 제거해 버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호전적인 살의를 퍼트리고 있었다.

‘침착하자. 나에게 적의를 보내고 있어. 싸울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해.’

상대를 기만하는 전술이라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인질도 무사한 상황이니 일단 전투에 들어가면 건물 안에서처럼 밀리지는 않을 터였다.

하지만 시로네의 예상을 깨고 마르샤는 스피릿 존을 풀어 버렸다. 그리고 마치 무장을 해제하듯 두 팔을 벌리며 시로네에게 말했다.

“날 죽여도 좋아.”

시로네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지금 그녀가 내뱉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양부에게 얻어맞을 때마다 외웠다던 마법의 주문이었다.

그렇기에 마르샤는 진심이었다. 정말로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하는 게 분명했다.

‘대체 뭐야, 마르샤.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 \* \*

마법협회 조사실.

공인 5급 마법사이자 조사관인 사키리는 이마에 맺혀 있는 땀을 닦았다.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라가 있었고 상의의 단추는 절반 이상이 풀려 있었다.

분명 지친 자의 몰골이었다. 하지만 쇠몽둥이를 쥐고 있는 팔뚝은 여전히 힘이 넘치는 듯 불끈 갈라져 있었다.

“후우, 쉬었으니 다시 시작해 볼까?”

“끄으으으…….”

바닥에 쓰러진 루카스가 신음 소리를 냈다.

아케인을 따라 마법협회를 급습했던 앵무 도적단의 부단장. 하지만 당시에 시이나의 빙결마법인 절대영도에 당해 두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다.

몇 시간을 얻어맞았는지 모른다.

스키마로 몸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진즉에 사망하고도 남을 만큼 시달린 상태였다.

“간다. 이 악물어라.”

사키리는 다시 쇠몽둥이를 휘둘렀다. 쏟아지는 매찜질에 루카스는 두 팔로 엉금엉금 바닥을 기어가다가 제풀에 지쳐 뒹굴었다.

“으아아아! 제발 그만해! 대체 뭐라도 물어보고 때리라고! 내가 다 말한다고 했잖아!”

“기다려. 천 대는 채워야 할 거 아니냐.”

“미친 자식아!”

사키리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셌다. 다섯 대가 남았다. 이제는 네 대. 세 대.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옆구리에 질러 버린 그는 속 시원하다는 듯 쇠몽둥이를 내동댕이쳤다.

떨그렁 떵떵 소리를 내며 몽둥이가 바닥을 굴렀다.

“후우, 개운하다. 오늘 운동 다 했네.”

“흐으으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루카스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앵무 용병단이 도적단으로 전락하면서 영입한 인물이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단숨에 부단장의 자리까지 오른 그였다. 아케인과 대면한 순간에도 기가 죽지 않았던 천하의 악당.

하지만 사키리의 앞에서는 땅바닥에 달라붙은 껌 딱지 신세였다.

사키리는 루카스의 머리채를 붙잡고 의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험하게 내동댕이쳐진 루카스가 의자에 매달리자 사키리가 책상의 반대편에 앉으면서 말했다.

“빨리 앉아. 남은 팔도 잘라 버리기 전에.”

루카스가 두 팔로 몸을 세워 가까스로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사키리는 한참이나 말이 없이 수사원들이 작성한 서류철을 꼼꼼하게 살폈다.

“수사관 나리, 그만 감옥으로 다시 보내 줘. 마르샤가 있는 곳을 말해 줄 테니까.”

“필요 없어. 그 여자가 어떤 여잔데, 아직까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제기랄! 그럼 도대체 나는 왜 두들겨 팬 거야?”

서류철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사키리가 짜증 난다는 듯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범죄자가 뭔지 알아? 살인범? 가정파괴범? 아니, 탈옥범이야. 국가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간덩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B급 범죄자 따위가 탈옥을 해? 너는 이제 인생 끝났어. 앞으로 평생 태양을 못 볼 거야.”

루카스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사키리의 말은 협박이 아닌 사실이었다.

천 대를 때리겠다고 해 놓고 진짜로 해 버린 조사관의 성향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아무튼 시작하자. 말 잘 듣는 게 좋아. 지금 내 딸이 네 살이야. 한창 아빠 앞에서 재롱부릴 나이지. 그런데 며칠째 집에도 못 가고 있거든! 살 놈은 좀 살자. 알았지?”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지?”

“다른 건 다 됐고, 마르샤라는 여자.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전부 실토해.”

사키리가 원하는 정보는 그것뿐이었다.

클레이 마르샤. 정치범이라 A급 범죄자치고 큰 소란을 부린 적은 없지만 그런 만큼 붙잡기 힘든 여자였다.

가장 큰 문제는 첩보들이 중구난방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때는 불의 마법사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빙결 마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철두철미한 성향이었다. 조사원들을 최대한 가용해서 수색하는데도 이동 루트를 명확히 짚어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키리는 루카스를 호출했다. 처음부터 작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었다.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마르샤가 있는 곳이 아닌 마르샤 그 자체였다.

## [159] 클레이 마르샤(3)

“뭐든지 좋아. 네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분다면 곱게 감옥으로 돌려보내 주지.”

루카스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잔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중이었다.

앵무 용병단이 아닌, 앵무 도적단일 때 입단한 루카스는 마르샤와 별다른 의리가 없었다. 따라서 아는 사실을 실토하는 건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자백을 하고 나면 지하 깊숙한 감옥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터였다.

“거래를 하는 건 어때?”

“거래? 무슨 거래?”

“마르샤에 대한 모든 걸 말해 주겠다. 그 대신 형량을 줄여 줘. 죽기 전에 나올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원하는 정보를 내놓으마.”

“허…….”

사키리는 얼빠진 표정으로 루카스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며 두 발을 동동 굴렀다.

“하하하하!”

와당탕 하고 책상이 옆으로 넘어갔다. 벌떡 일어난 사키리가 악을 지르며 다가왔다.

“이런 미친 자식이!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발을 들어 차 버리자 루카스의 몸이 의자와 함께 넘어갔다. 그러고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쓰러진 루카스를 작신작신 밟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루카스도 필사적이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매한가지다. 여기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쳐! 아무리 쳐 봐! 나는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거래를 하자고!”

사키리의 발길이 우뚝 멈췄다.

도대체 나쁜 놈들은 어째서 하나같이 뻔뻔할까? 그렇게 감옥에 가기 싫으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말이다.

“아아, 진짜 환장하겠네.”

사키리는 숨을 가라앉히며 돌아섰다.

겁에 질린 상태에서도 루카스는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다. 발길질을 멈췄다는 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대화의 창구가 열릴 듯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키리는 조사실의 문을 열고 무시무시한 지시를 내렸다.

“야, 여기 마법 제한 장치 해제해.”

마법 제한 장치는 안티매직과는 다르다. 그것은 애초부터 마법의 발동 자체를 막는 기술이었다.

물론 그 또한 마법의 일종이었지만 제1급 대마법사들이 설계한 마법진을 파훼할 수 있는 도적놈들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았다.

루카스는 침을 꿀꺽 삼켰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키리 또한 최후의 발버둥인 게 분명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언젠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키리는 차분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웅 하고 공기가 가라앉는 소리가 났다.

무엇이 변했는지 루카스는 알 수 없었으나 사키리는 한결 가벼워진 듯 고개를 꺾으며 다가왔다.

“마르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해라. 사실을 묵비하거나 위증할 시에는 견딜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할 것이다.”

“나, 나는 말하지 않아. 절대로 말하지 않아.”

사키리는 신경 쓰지 않고 루카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차분히 눈을 감더니 주문과도 같은 말을 외웠다.

“심판하는 자로서 명하노니, 언령은 언령에 답한다. 진실의 천칭은 오직 그대에게만 있다.”

루카스의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평범한 조사관이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다. 사키리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이런 빌어먹을!”

그로부터 10분이 지났다.

“으아아아아아!”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루카스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을 때에도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다.

“알았어! 말할게! 전부 말할 테니까 제발 이것 좀 그만둬!”

소리치는 순간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조사실의 구석에 구겨져 있는 루카스는 겁에 질린 듯 몸을 웅크리며 사키리를 올려다보았다.

“너의 선택이다. 편해지고 싶다면 순순히 털어놔.”

루카스는 체념했다. 침묵을 지키는 것도 거짓말도 용납되지 않는다.

사키리의 마법 ‘진실의 천칭’ 앞에서는 어떤 범죄자라도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마르샤는 영리하지. 그리고 실수가 없어. 일단은 밀리는 척하면서 상대의 장기를 전부 드러내게 만들어. 하지만 절대로 자신을 미워하지 못하도록 트릭을 깔지.”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군.”

“크크, 사기꾼? 아니,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야. 그녀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알아?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녀의 인생 자체가 거짓이라고.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그녀를 붙잡지 못할 거야.”

“흐음, 어떤 성향인지는 알겠군. 하지만 겨우 그 정도로는 첩보가 이토록 어지럽게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사키리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어째서 첩보가 오락가락했는지.

“설마? 혹시 그녀는…….”

“그래. 당신과 동류의 인간이지.”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며 루카스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르샤는…… 규정외식자다.”

\* \* \*

시로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분석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인물이었다.

“죽여도…… 좋다고?”

“후후, 그래. 내가 밉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여도 좋아.”

시로네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어차피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자신의 신념을 고수할 뿐이었다.

“유나가 무사하다면 나 또한 당신과 싸워야 할 이유는 없어.”

마르샤의 입가에 균열처럼 희미한 미소가 새겨졌다.

이어서 공격형의 스피릿 존이 찌르고 들어오자 시로네는 즉각적으로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어라?’

시로네는 당황스러웠다. 스피릿 존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순간 이동이 풀려 버린 것이다.

그 순간 음향 대포의 굉음이 지나가면서 고막이 불에 탄 듯 뜨거워졌다.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시로네가 바닥을 뒹굴자 리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뭐야? 갑자기 시로네가 왜 저러는 거야?”

음향 대포는 음파를 압축시키기 때문에 소리가 방만하게 퍼지지 않는다. 따라서 떨어져 있던 친구들은 단지 고음의 비명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저건 음향 대포야. 소리마법의 일종.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냐.”

에이미의 말에 테스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시로네가 당했잖아.”

에이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로네는 분명 순간 이동으로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마법이 발동되기 직전에 광자화가 풀려 버리고 말았다.

“저건 당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빼앗긴 거지.”

“빼앗겨? 뭘 빼앗겼는데?”

에이미는 공감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르샤가 시로네의 스피릿 존을 마치 이슬처럼 빨아들인 순간을.

“아마도…… 정신력.”

“말도 안 돼. 다른 사람의 정신력을 어떻게 빼앗을 수가 있어?”

에이미는 황급히 시로네에게 걸음을 내디뎠다.

A급 범죄자 클레이 마르샤.

만약 짐작대로라면 저 여자는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었다.

“시로네! 조심해! 저 여자, 규정외식자야!”

시로네가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음향 대포의 위력으로 양쪽 귀에서 피가 흐르는 듯 축축했으나 금강불괴의 정신력은 여전히 건실했다.

“이게…… 규정외식이라고?”

“어머, 규정외식도 알아?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 역시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니까.”

마법사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마법을 개발해 내고 협회는 그것은 규정 마법으로 등록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로 등록할 수가 없는 마법도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규정외식이었다.

규정외식의 전지는 독특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실제의 사실이 아닌 오로지 개인의 맹목적인 사상으로만 전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만의 룰을 만들고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마법사였다.

시로네는 시이나의 수업시간에 들었던 규정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전능은 믿음입니다. 광자의 속도가 네 가지로 분류되고 화염의 온도가 변하며, 중온에서도 플라즈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유는 마법사의 전능이 전지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이나는 칠판에 규정외식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생소한 단어의 등장에 학생들이 술렁거렸으나 그녀는 개의치 않고 설명을 이어 갔다.

“하지만 세상에는 전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즉, 전지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전지 자체를 뒤틀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사용하는 마법을 규정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제 직업은 무엇이죠?”

“당연히 선생님이죠.”

“맞아요. 저는 교사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서 제가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손을 들어 보세요.”

당연히 손을 드는 학생은 없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건 모순이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특징입니다. 육체와 달리 정신은 어떤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흡수시켜 새로운 형태의 덩어리를 이루죠.”

시이나가 강조하듯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즉, 타인의 생각은 남에게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를 이루는 모든 생각은 타인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규정외식의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이나는 교단 아래로 내려가 학생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나를 교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죽는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시이나의 말이 진지했기에 부정해 보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결국 불가능했다.

정신은 부정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화할 뿐이었다.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놀라지 마세요.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입니다. 저는 규정외식자가 아니에요.”

학생들의 허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시이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교단으로 올라갔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외식자라도 원론적인 개념을 주입하여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규정외식 또한 결국에는 마법. 등가교환의 원칙은 언제나 성립하기 때문이죠.”

남학생이 손을 들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전의 규칙이 등가교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 말이에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이란 이성의 산물이에요. 그 정도로 정신이 나간 사람은 애초에 마법을 다룰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있다고 한들 여러분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에 침투조차 못하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규정외식에는 상당한 제약과 대가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은 만들 수 있겠죠. 나를 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에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규정외식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당연하듯이 규정외식자는 자신만의 룰을 남에게 주입하여 당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나를 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반한다.”

“하하! 그것도 당연한데요?”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시이나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나에게 반한 자는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내 말에 따르는 자는 내 앞에서 죽어야 한다.”

강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것이 바로 규정외식의 기술 중 하나인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약을 걸어 규칙을 확장시킵니다. 논리가 비약되는 부분은 전능으로 연결해 버리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걸리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저런 마법도 있단 말인가? 만약 정말이라면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법사였다.

“하지만 규정외식이 진짜로 까다로운 이유는 제약이 아닌 대가입니다. 조금 전에는 원론적 개념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했지만, 대가가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지금 바로 해 보겠습니다. 나를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 [160] 클레이 마르샤(4)

이제는 학생들도 진지해졌다. 모두 시이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기 위해서는 나와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

남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서, 선생님, 그런 예시는 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는 대가로 강력한 능력을 얻습니다. 바로 등가교환이죠. 대가를 밝히는 것 또한 대가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규정외식자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전지를 전능의 힘으로 타인에게 주입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규정외식자란 보통의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다.

“배운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착과 편향성으로 발현되는 정신의 특이성. 규정외식은 마법사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로네가 알고 있는 규정외식의 전부였다. 당시에는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당해 보니 혼란의 극치였다.

무엇보다 스피릿 존이 갑자기 사라진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제약과 대가로 발동한다고 해도 시로네가 그녀에게 무엇을 한 적은 없었다.

‘아니, 있다! 분명 나는…….’

시로네는 조금 전의 상황을 퍼뜩 떠올렸다.

-날 죽여도 좋아.

바로 이 순간이었다. 마르샤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마법의 주문.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마르샤의 전능이 자신의 정신에 침투해 규칙을 발동시킨 것이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규정외식자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제 자신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침착하자. 스피릿 존이 사라졌을 뿐이야. 정신만 바짝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규정외식은 가능과 불가능의 가치를 저울에 재는 것과 같다. 따라서 능력의 기이함만큼이나 감수해야 하는 대가는 클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날 죽여도 좋아.’라고 했을 경우 그녀는 꽤나 긴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를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만약 그때 공격했더라면 마르샤는 죽었다.

그런데 왜 공격하지 못했을까? 유나 때문인가? 아니, 유나는 무사하다.

생각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마르샤를 만났을 때부터 이미 함정에 빠진 상태였던 거야.’

모든 사건이 마르샤의 각본 아래에서 짜인 일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시로네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을 술집으로 데려간 것도, 유나를 이용해 도발했던 것도, 유나를 건들지 않은 것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해서?”

마르샤는 시로네의 생각을 꿰뚫은 듯 통쾌하게 웃었다. 그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즐거워서 미칠 지경이었다.

“호호호! 물론 그렇지. 아, 물론 너를 만난 건 우연이야. 나는 우연도 필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거든. 어떤 상황에서든 밑밥은 깔아 둬서 나쁠 거 없잖아. 이런 철두철미함이 나의 매력이랄까?”

시로네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타깃으로 삼아서 접근한 게 아니다. 살아오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전을 걸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작은 가정 하나만으로.

이런 치밀함이 바로 마르샤가 마법협회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럼 시작해 볼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르샤는 여유 만만하게 미소를 지으며 시로네에게 다가왔다. 반면에 시로네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순간 이동을 시전해 보지만 여전히 발동이 되지 않았다.

분명 영원히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정신력을 빼앗는다는 개념은 시로네에게 지극히 생소한 규칙이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마법이 어디 있어?’

시로네는 인생 최고의 위기를 느꼈다. 마르샤의 규정외식은 분명 위험했다.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모탈 펑션 자체를 봉쇄해 버리기 때문이었다.

“호호! 잘 받을게, 네 정신력.”

시로네가 순간 이동에 사용하려던 정신력이 전부 마르샤에게 흘러들어 갔다. 그 힘을 이용해 마르샤는 다시 음향 대포를 발사했다.

“큭!”

시로네는 몸을 돌려 도망쳤다. 마법사가 이런 상황에 몸으로 달린다는 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지만,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음향 대포에 당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후후, 자존심을 버린 건 칭찬해줄게. 하지만 이미 싸움은 끝났어. 내 박탈에 걸린 이상 말이야.”

규정외식 박탈.

그녀는 타인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훔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시로네에게 시전한 마법은 약탈이라 불리는 것으로, 스피릿 존의 정신력을 훔치는 능력이었다.

시로네는 가능한 최대한 멀리 떨어졌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다.

‘날 죽여도 좋아.’라는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신력을 빼앗긴다면, 등가교환으로 봤을 때 시간제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다.

‘됐다!’

예상대로 약탈이 풀리며 정신력이 되돌아왔다. 배후의 상황을 살필 수 없었던 시로네는 몸을 돌리자마자 광폭부터 시전했다.

천둥이 연거푸 내리치듯 사방이 번쩍번쩍 빛났다.

마음먹고 개활지에서 시전한 광폭은 효력은 둘째 치고 이펙트가 상상 이상이었다.

“휘유, 멋있네. 정말 대단해.”

시로네는 마르샤를 노려보았다.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사람을 물로 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어쨌거나 시간의 제약이 있다면 더 이상 약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같은 수법에 또 걸릴 바보는 없었기 때문이다.

“간다!”

시로네는 순간 이동을 시전해 마르샤에게 쇄도했다. 하지만 마르샤는 여전히 여유가 넘쳐흘렀다. 그리고 자신의 스피릿 존에 시로네가 들어오는 순간 손을 내밀며 중얼거렸다.

“규정외식. 강탈.”

동시에 시로네의 순간 이동이 풀려 버렸다. 관성을 따라 바닥에 떨어진 시로네가 몇 미터를 미끄러졌다.

“크윽! 뭐야?”

또다시 마법이 풀려 버리고 말았다. 이번에도 정신력을 빼앗긴 것인가? 하지만 스피릿 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어? 어?”

시로네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마법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당황하는 시로네의 모습을 지켜보던 테스가 에이미를 돌아보며 물었다.

“뭐야? 시로네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거야?”

“모르겠어. 스피릿 존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순간 이동이 풀렸다는 건…….”

그 순간 에이미는 퍼뜩 깨닫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니, 아닐 것이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시로네가 저 경지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에이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시로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몸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마법을 시전할 수가 없어.”

“후후, 바로 그거야. 규정외식 강탈은 약탈에 걸렸을 경우에만 가능하지. 물론 상대의 마법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하는 제약도 있고 말이야.”

마르샤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물론 상대를 조롱하는 것 이상의 정보는 절대로 전하지 않았다.

시로네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되지 않았다. 설령 그런 제약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마법을 무조건 빼앗아 버린다는 건 등가교환의 원칙상 절대로 불가능했다.

“우와, 이런 멋진 마법이 생기다니. 너무 기뻐. 소리 마법은 짜증 났거든. 고마워, 시로네. 너는 정말 착한 동생이야.”

마르샤의 눈앞에 빛의 구체가 모여들었다. 빛에 질량을 부여하는 마법, 포톤 캐논이었다.

시로네는 황급히 옆으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묵직한 섬광이 시로네가 있던 자리를 강타했다.

땅바닥의 파편들이 시로네의 얼굴을 따갑게 때렸다. 자신의 마법으로 당하는 기분은 정말이지 끔찍했다.

“후아, 이거 정신력 소모가 엄청나네? 어떻게 다뤘던 거야? 정말 대단하다, 시로네.”

시로네는 벌떡 일어나서 마르샤를 노려보았다.

이번만큼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억울함이었다. 자신의 모든 마법을 빼앗겨 버린 원통함이 몸을 떨리게 했다.

“하지만 멋져. 언로커의 능력이라니.”

흐뭇한 표정을 지은 마르샤는 더욱 시로네를 약 올릴 생각으로 레이저까지 선을 보였다.

지면을 긁으면서 다가오는 레이저를 보면서도 시로네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었다. 순간 이동조차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에이미가 달려와 시로네를 붙잡고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그녀 또한 정신력이 바닥이었기에 먼 거리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리안과 테스가 달려와 두 사람을 막아섰다.

마르샤는 조롱하듯 그들을 지켜보았다.

검사들은 망신창이였고 에이미는 순간 이동을 시전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더군다나 유일한 희망이었던 시로네마저 마법을 빼앗기고 평범한 소년이 되어 버렸다.

“그러게 내가 뭐랬어? 나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니까.”

확실히 비참한 상황이기는 했다. 특히나 시로네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엄청났다. 보통 사람이라면 마르샤를 욕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졸도해 버렸을 터였다.

“시로네, 정신 차려. 아직 전투가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마법이, 내…… 마법이.”

시로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에이미는 이해했다. 만약 자신이 당했다면 화병으로 쓰러져 버렸을 지도 몰랐다.

마법사에게 마법은 전부나 다름없다. 그것을 통째로 남에게 넘겨 버렸다고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시로네! 일어나! 계속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시로네는 비틀거리면서도 몸을 일으켜 세웠다.

강인한 정신력답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본능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컸다.

“대체 어떻게? 어떻게 싸우란 말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마법을 이렇게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마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등가교환에 따르면 분명 엄청난 리스크가 걸려 있을 거야.”

시로네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여태까지 마법을 빼앗겼다는 것에 정신이 팔려 눈치채지 못했지만 마르샤의 강탈은 절대로 그냥 발동될 수가 없다.

우선 약탈에 걸려야 한다. 그리고 훔치려는 마법을 눈으로 보아야 한다. 분명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이 두 가지 제약으로도 말이 되지 않을 만큼 마르샤의 규정외식은 오버 파워였다.

에이미는 필사적으로 시로네를 설득시켰다.

“쉽게 빼앗겼으니 쉽게 되찾을 수 있어. 아니, 빼앗긴 것보다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겠지. 그게 등가교환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

“알았어. 해 볼게.”

시로네는 다시 용기를 되찾았다. 그렇다고 딱히 수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대로 넋 놓고 주저앉아 울기만 할 수는 없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듣고만 있던 리안이 말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걸 빼앗는다면, 안 본 마법은 사용할 수 있잖아? 집에서 보여 줬던 윈드커터 마법이랄지.”

“아, 그렇구나.”

그 순간 시로네의 머릿속에 강렬한 생각이 침투했다. 그렇다. 엄밀히 따져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약탈보다 강탈이 낫다. 적어도 스피릿 존은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보는 수밖에 없어. 고마워, 리안.”

에이미가 시로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내가 순간 이동으로 접근해 줄게. 거기서부터는 윈드커터로 어떻게든 해 봐.”

에이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빛을 내며 허공을 가르자 마르샤도 순간 이동을 시전해 멀어졌다.

강탈로 빼앗은 마법은 상대의 전지를 그대로 구현할 뿐이기에 발동 원리를 모르는 이상 응용은 불가능했다.

그렇기에 시로네의 순간 이동을 훔친 마르샤라도 패트롤 기술이나 레인보우 드롭은 시도할 수 없었다.

에이미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현란한 움직임으로 마르샤에게 접근한 그녀가 시로네를 집어 던졌다.

시로네는 마르샤에게 손을 내밀며 윈드커터를 시전했다. 전공이 아닌 마법이기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서는 맞히기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그런 단점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했다. 마르샤가 예상보다 훨씬 멀리까지 거리를 벌렸기 때문이었다.

‘뭐지?’

마르샤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아무리 익숙하지 않은 마법이라 해도 윈드커터에 대항해 포톤 캐논이나 광폭 같은 것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기를 택했다. 그것도 아주 멀리.

“강탈의 제약은 설마……?”

하나의 가능성이 시로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 [161] 클레이 마르샤(5)

“마법을 빼앗긴 사람과 접촉하면 강탈이 풀린다?”

마르샤에게서 대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로네는 이것이 정답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위화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만약 강탈의 제약이 접촉이라면 거리를 벌리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마르샤가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신의 입자를 이용한 수많은 마법을 훔쳤고 반대로 자신은 윈드 커터 하나에만 의지해 싸워야 한다.

충분히 싸워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녀는 겁에 질리듯 수십 미터 이상을 멀어져버렸다.

‘규정외식이란…….’

시로네는 눈을 번쩍 떴다. 이제야 모든 게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찾았다! 정신적인 빈틈. 마르샤도 완벽한 건 아니야.’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였다. 접촉하면 강탈이 해제된다. 단순히 그 제약만으로 상대의 마법을 빼앗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녀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결국 거기에 더해 한 가지의 대가가 추가로 걸려 있는 것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규정외식을 만들어 낸 트라우마에 밀접한 것일 터였다.

‘규정외식자는 정신적인 편향성을 지닌 존재. 이런 막대한 능력을 보유하려면 처음부터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트라우마를 걸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그녀는 접근하지 못한다. 시로네가 강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과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건 훔친 마법을 다시 빼앗기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두려운 건 강탈 해지와 동시에 발생하는 끔찍한 대가였다.

‘하지만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마법을 훔쳤을 터. 당시에는 어떻게 이겨 낸 거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빨리 나왔다. 시로네는 답을 찾자마자 곧바로 마르샤에게 덤벼들었다.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마르샤는 지원 병력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가장 끔찍한 고통을 걸고서 얻어 낸 능력 박탈.

그 대가를 시로네가 발동시킬 위험이 있는 이상 마르샤는 절대로 싸우려 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말해 그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강탈이라는 마법은 발생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이치였다.

시로네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어떻게든 지원 병력이 오기 전에 마르샤를 붙잡아야 했다.

“흐윽!”

마르샤가 신음 소리를 내며 멀어졌다. 시로네와 거리가 조금만 좁혀져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난스럽던 말투도 애교 넘치던 표정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있다! 마법을 되찾을 수 있어!’

희망의 빛을 발견한 시로네는 계속해서 마르샤를 쫓았다. 물론 순간 이동을 시전하는 마법사를 발로 쫓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 간 도둑을 눈앞에 두고 멈춰 있을 수는 없었다.

“시로네! 위험해!”

테스의 목소리에 시로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굉음을 내며 10여 개의 섬광이 허공을 질주해 떨어졌다.

마르샤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았다. 반면에 시로네는 달릴 힘조차 잃어버릴 만큼 허탈해졌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판이었다. 생존한 부하들이 마법진을 이용해 순식간에 도착해 버린 것이다.

“호호호! 드디어 왔구나. 이제 다 끝났어!”

20명에 달하는 스키마 유저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르샤를 둘러쌌다. 저 틈새를 파고 들어가 마르샤를 붙잡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시, 시로네…….”

에이미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정말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시로네는 이제 마법사의 꿈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

‘말도 안 돼. 정말로 마법을 좋아했는데. 그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시로네는 모든 걸 내려놓은 듯이 마르샤를 바라보았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공허한 얼굴이었다.

“어머, 시로네? 왜 나를 그렇게 봐? 아, 마법 때문에? 괜찮아. 너는 어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우면 되지. 물론 내가 뺏은 마법은 평생이 걸려도 사용할 수 없겠지만.”

“소리 마법도 다른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거겠지?”

“후후, 그렇지, 뭐. 알잖아, 나 도벽 있는 거. 언제는 나를 이해한다더니 갑자기 쩨쩨하게 왜 그래? 도자기값으로 50실버도 선뜻 내줬으면서 마법은 못 주겠어? 왜?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남한테 마법을 주는 건 너무너무 아까워?”

에이미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닥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시로네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마르샤는 시로네의 마법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의 인생마저 짓밟아 버리려는 생각인 듯했다.

“호호호! 그게 가식이라는 거야.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 속으로는 별의별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챙겨 주는 척 하는 거, 역겨워 죽겠다고!”

마르샤는 세상을 욕하고 있었지만 시로네의 귀에는 오직 1명을 향해 욕을 하는 것으로 들렸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고아였던 마르샤를 데려와 열일곱 살이 될 때까지 키웠다. 하지만 그 기나긴 세월이 추악한 욕망으로 빚어진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얼마나 좌절을 맛봤을까?

그렇기에 규정외식은 무섭다. 능력의 발현 자체가 인간의 트라우마를 원천으로 삼기 때문이다.

보통의 마법사에게 전능은 전지를 보강하는 힘이다. 하지만 규정외식자는 전능으로 전지를 왜곡시켜 버린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상마저 뒤틀려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규정외식.’

그 비틀린 인간성이 마법의 힘을 빌려 세상에 구현된다. 이제야 마법협회가 규정외식을 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누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마르샤의 눈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대체 누가 누구를 불쌍하다고 하는가?

세상 전부를 끌어안을 듯 가식을 부리다가 마법을 홀라당 빼앗겨 버린 시로네야말로 불쌍한 인간이었다.

“흥! 이제는 회유책인가? 죽이려고 달려든 주제에. 그런다고 내가 널 봐줄 거 같아?”

“사실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어. 누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호호! 드디어 인정을 하는군! 이제 알았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세상에는 전부 나쁜 인간들밖에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누나한테 갈게.”

마르샤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이곳에 올 수 있을 리가 없다. 20명의 부하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으니까.

“누나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가식이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래도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믿고 있어. 누나가 진심으로 상처를 보여 준다면 말이야. 그러니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거짓이 아닌, 누나의 진짜 아픔을 봐야만 하겠어.”

“헛소리하지 마. 누가 너 따위에게 동정을 받는다는 거야?”

“누나를 가두고 있는 껍질을 깨 버릴 거야. 그리고 직접 확인할 거야. 누나의 상처가 얼마나 곪아 있는지.”

“오지 마! 오지 마!”

마르샤는 끔찍하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깃털만 내려앉아도 비명을 지를 듯이 아픈 상처였다. 그런데 그 상처를 벌리겠다고? 그것도 모자라 손으로 헤집겠다고?

“대신에 절대로 누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어떤 고통이든 내가 다 끌어안아 줄 테니까.”

시로네의 말이 끝나는 순간 부하들이 칼을 뽑아 들고 마르샤의 앞을 가로막았다.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해! 목을 베어 버려.”

그물처럼 서 있는 적들을 빤히 바라보던 시로네는 고개를 돌려 리안을 불렀다.

“리안, 내 옆을 지켜 줘.”

네 사람 중에서 가장 부상이 심한 리안은 움직이는 것도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군소리 없이 일어나 직도를 어깨에 걸쳤다.

리안의 뒤를 따라 테스가 달려왔다.

“잠깐만! 내가 할게. 리안보다는 내가 덜 다쳤으니까.”

“괜찮아, 테스. 이건 내 주군이 나에게 지시한 일이야.”

“하지만 이런 몸으로는…….”

시로네는 테스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다.

“테스, 내 옆을 지키는 건 리안이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피를 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피, 피를 봐?”

시로네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리안에게 말했다.

“리안, 나에게 덤비는 사람들은 모조리 베어 버려.”

리안은 시로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마법을 빼앗겼고 자신은 걷는 것조차 힘든 상태다. 이대로 적진을 향해 들어간다면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었다.

“좋아. 나에게 맡겨.”

하지만 리안은 순순히 시로네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검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인이 지시한다면 그저 목숨을 걸고 행하면 되는 일이었다.

마르샤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상처를 확인하겠다고? 고통을 같이 나누겠다고? 헛소리, 개소리였다.

시로네는 그저 마법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혓바닥을 놀리고 있는 것뿐이다.

그게 인간이다. 아무리 호의를 베푸는 척해도 결국 속에서는 제 욕심만 채우려고 드는 게 인간인 것이다.

“죽여! 당장 저 꼬마를 죽이라고!”

마르샤의 외침과 동시에 20명의 부하들이 동시에 튀어나갔다. 스키마의 체식으로 강화된 그들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고 흉흉한 검을 위로 쳐들었다.

리안은 직도의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설령 목이 잘리더라도 걸음을 옮길 생각이었다.

선두를 달려오던 검사가 뛰어올라 시로네의 정수리를 향해 장검을 내리그었다. 그와 동시에 리안 또한 이를 악물며 검을 휘두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검사의 몸이 빛으로 변하더니 하늘로 솟구쳤다.

날카로운 공간 이동의 소음이 천공을 갈랐다.

마르샤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반대편에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에이미와 테스도 마찬가지였다.

“뭣들 하고 있어! 전부 공격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조장의 명에 따라 3명의 검사가 동시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시로네에게 검을 휘두르기도 전에 빛으로 변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마르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시로네가 다가오고 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부하들이 굉음을 일으키며 날아가 버리고 있었다.

‘뭐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유일하게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건 마법사인 에이미였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굉장해. 마법적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였을 줄이야.”

시로네는 대체 언제부터 이 순간을 예측하고 있었을까?

마르샤의 부하들이 왔을 때부터? 강탈의 제약을 깨달았을 때부터? 아니, 아마도 리안에게 윈드커터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였다.

“뭐야, 에이미? 지금 시로네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저건 마법이야. 시간의 속도를 늦추는 슬로 마법.”

전지로만 머물던 이론을 전능과 곧바로 결합시키는 건 시로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솔직히 에이미도 이 정도까지 해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마르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온갖 거짓과 음모에 휩쓸려서 힘을 잃었던 시로네의 통찰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올라 마르샤의 계산을 집어 삼키고 있었다.

“슬로? 저게 슬로라고?”

테스는 다시 전방을 살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었다. 적들이 시로네의 지척에 접근하는 순간 예외 없이 굉음을 타고 날아가 버리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시로네의 스피릿 존에 속해있는 리안이 바라보는 광경은 달렸다.

시로네의 스피릿 존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순간 그의 몸이 빛으로 번쩍하더니 지루할 만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광속의 경지에 오른 자들은 존의 시간을 왜곡할 수 있다. 물론 알페아스처럼 극단적으로 시간을 늦추는 경지는 아니었지만 시간의 상대성을 두 배 이상 벌리는 정도는 시로네의 수준에서도 충분했다.

‘뭐야? 베면 되는 건가?’

리안은 느릿느릿 다가오는 적을 향해 검을 휘두를 준비를 했다. 적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대로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팔찌에 걸린 공간 이동 마법을 통해 자리를 이탈했다.

적이 상대하기도 전에 도망쳐버리자 리안은 싱겁다는 듯 콧김을 내뿜으며 다시 시로네의 뒤를 따랐다.

끼이잉! 끼이잉! 끼이잉!

공간 이동 특유의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렸다. 이제 마르샤의 앞을 막아서는 부하는 세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조차 시로네가 다가오자 자리를 이탈해 버리고 말았다.

다시금 혼자가 된 마르샤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었다. 끔찍한 상상만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오지 마! 오면 죽어 버릴 거야! 내가 죽으면 절대로 마법을 되찾을 수 없어!”

## [162] 클레이 마르샤(6)

“나도 이제는 모르겠어. 누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야? 왜 모든 게 거짓인 거야?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왜 말해야 하지? 어차피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잖아! 정말로 나를 위한다면 이대로 떠나! 그럼 널 믿을게! 응?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

“대체 뭐가 진짜냐고 묻잖아!”

시로네의 일갈에 마르샤의 어깨가 흠칫 솟구쳤다.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을 하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떠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냐! 그렇게 온갖 거짓으로 세상을 칠하고 있으니까…….”

마르샤의 지척까지 접근한 시로네가 주먹을 치켜 올리며 소리쳤다.

“누나가 얼마나 아픈지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

그 순간 뒤편에서 강렬한 일갈이 들렸다.

“마르샤! 안 돼에에에!”

에이미와 테스는 뒤를 돌아보았다. 눈이 뒤집힌 프리먼이 엄청난 속도로 시로네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분명 얼굴에 직격을 당했는데.”

에이미는 귀신을 본 듯 놀랐다. 플레임 스트라이크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얼굴이 불에 탄 상태에서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가 지나가게 둘 줄 알고……!”

테스가 앞을 가로막는 순간 프리먼이 뛰어올랐다. 가히 엄청난 도약력으로 테스의 키를 훌쩍 넘긴 그가 건을 꺼내며 시로네에게 날아들었다.

리안이 몸을 돌리며 프리먼을 향해 직도를 휘둘렀다.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여기서 프리먼을 놓치게 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었다.

“으아아아아아!”

프리먼에게도 예외 없이 슬로 마법이 걸렸다. 리안의 검에 두 쪽이 나리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마르샤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마르샤를 시로네에게서 떨어뜨려 놓아야 했다.

그 순간 리안과 프리먼이 똑같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동작을 정지했다. 리안의 검은 프리먼을 베지 못했고 프리먼도 시로네에게 도착하지 못했다.

배후의 상황을 감지하고 있던 시로네가 갑자기 슬로를 풀어 버렸기 때문이다.

온과 오프 모드에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 마법만이 갖는 장점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로네의 주먹은 거대한 궤적을 그리며 휘둘러지고 있었다.

마르샤는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깨부수러 오는 잔혹한 소년의 주먹을.

시로네의 주먹이 마르샤의 얼굴에 작렬했다. 고개가 돌아간 마르샤는 마치 거대한 충격에 당한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마, 마르샤.”

프리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르샤 또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녀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시로네는 마법이 되돌아왔음을 깨달았다. 반면에 마르샤의 정신에는 이제 어떤 마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르샤…….”

프리먼이 침통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공간 이동 마법진에서 되돌아온 부하들이 건물 뒤편에 나타났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마르샤가 쓰러져 있다.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괜찮아?”

마르샤에게 묻는 프리먼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눈에 보일 만큼 턱이 움찔거렸다.

“그래, 괜찮아.”

마르샤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인간은 초연해지는 법인가?

웃고는 있지만 감정이랄 것이 대부분 휘발된 상태였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고 껍질만 남아 있는 듯했다.

에이미는 동정할 생각이 없었다. 다름 아닌 시로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 내려던 장본인이었다.

“자업자득이야! 설마 이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상대의 마법을 훔치는 능력, 분명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마르샤는 화내지 않았다. 등가교환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리란 각오를 마음먹지 않았다면 마법은 처음부터 발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 강탈의 해제 조건은 내 몸에 손을 대는 것. 그러면 마법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마르샤는 시로네가 서있는 곳으로 돌아앉았다.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날 안아도 좋아.”

테스가 황당한 듯 인상을 찡그렸다.

“뭐, 뭐야?”

차마 대가로 걸 게 없어서 이딴 걸 걸다니. 도대체 무슨 여자가 이리도 경망스럽단 말인가.

하지만 시로네는 알고 있었다. 강탈이란 죽음에 준하는 대가를 걸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능력.

그날 밤 양부를 죽여야만 했던 주문이야말로 그녀에게는 죽기보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의 재현이었다.

이제야 사정을 짐작한 리안이 불쾌하다는 듯 말했다.

“대체 이게 무슨 대가라는 거야? 시로네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만약 시로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

프리먼이 말했다.

“그러면 마르샤는 죽는다. 그녀가 정한 룰에 따라 시로네가 거절하는 순간 생명을 잃게 되지.”

죽는다는 말이 나오자 테스는 말이 엉키는지 허둥지둥 손을 휘저었다.

“그, 그렇더라도 할 수 없는 일 아냐?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에이미, 너도 뭐라고 말 좀 해 봐.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치?”

“나에게 묻지 마. 시로네가 결정할 일이야.”

에이미의 마음도 심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시로네는 이런 식으로 여자를 상처 입힐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숨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였다.

“알겠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직접 대가를 치르게 할게.”

시로네는 결정을 내리고 마르샤에게 걸음을 옮겼다. 이번만큼은 에이미도 심장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프리먼이 갑자기 시로네를 가로막았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말았다. 차마 어쩔 수 없는 순애보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리를 비켜 줄 수밖에 없었다.

“부탁한다. 마르샤를 살려 다오.”

마르샤는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처음 수술대에 오르는 사람처럼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지긋지긋한 트라우마. 도려내고 싶어도 자신의 것이라 어찌할 수 없었던 원수 같은 기억을 누군가가 인두로 지져 주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았다.

“프리먼, 미안해.”

마르샤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다.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는 프리먼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섰다.

시로네는 마르샤의 옆으로 다가갔다.

트라우마는 현재도 미래도 전부 과거의 사건에 잡아 두기 때문에 위험하다. 어쩌면 그녀는 그날 이후로 미래를 살아 본 적이 없는지도 몰랐다.

“단둘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부탁할게.”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충분하니까.”

마르샤는 눈을 뜨고 시로네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했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희망 고문을 하다가 죽여 버릴 생각인지도 몰랐다.

‘하긴…… 그런 짓을 해 버렸으니.’

마법을 강탈하고 수없이 약을 올렸다. 아마도 시로네는 인생의 막장을 경험했을 터였다. 이런 식으로 분을 풀려는 마음도 이해는 갔다.

시로네는 마르샤의 등을 떠받치고 상체를 끌어왔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다. 무엇을 요구하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뿐이었다.

마르샤의 얼굴을 가슴에 품은 시로네가 그녀의 귓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을 안았습니다.”

마르샤는 그저 눈만 깜박거렸다. 그러다가 시로네의 생각을 깨닫고 인상을 찡그렸다.

대체 이게 무슨 어린애 장난이란 말인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누나를 안았어요. 안아 달라면서요.”

“장난치지 마. 이런 걸로 끝날 거 같아? 조롱하는 거야?”

“말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놔! 값싼 동정 받고 싶지 않아! 이러면 네가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해? 그냥 날 안으란 말이야! 나한테 열 받아 있잖아! 실컷 복수하란 말이야!”

마르샤는 대가의 규칙에 의해 시로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설령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시로네는 놓아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나쁜 자식! 가식 덩어리! 쓰레기 같은 자식!”

“누나는 좋은 사람이야.”

마르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로네가 말했다.

“누나는 아케인과 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설령 그게 거짓일지라도, 그러면 된 거야. 다른 사람의 속마음 따위, 누나가 아니라도 누구도 몰라. 나도 모른단 말이야.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야. 아무도 믿지 못해도 자기 자신은 믿을 수 있으니까. 누나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똑같이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도 분명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뭘 알아!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지껄이는 거야!”

마르샤는 악에 바쳐 시로네의 말을 부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놀란 표정으로 말을 멈추었다.

지금도 마음은 조금도 슬프지 않다. 그런데 어째서 눈물이 흐르는 것일까?

“어? 왜 이래? 왜 갑자기 눈물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었기에 감정이 열리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흐르는 것일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밀봉상태로 방치해 두었던 기억이 의식으로 올라오면서, 마르샤는 마침내 자신의 트라우마와 처음으로 맞닥뜨렸다.

17세의 어느 날이었다.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마르샤에게 양부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고 있었다.

언제나 같은 상황, 언제나 같은 폭력.

마르샤는 등 뒤에 감추어 놓은 단도를 의식했다. 차가운 촉감이 피부를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았다.

“날 안아도 좋아.”

양부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치켜떴다.

마르샤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양부의 동공에 차오르는 괴물 같은 감정을.

마르샤는 단도를 움켜쥐었다. 그가 다가오고 있었다. 찌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가 상상하는 아버지는, 기억 속의 아버지하고는 달랐다.

마르샤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아버지는 그녀의 얼굴을 가슴에 파묻고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주었다.

“지금까지 마안했다, 마르샤. 너는 내 딸이야.”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

그 한마디를 떠올린 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10년을 억눌러 온 감정이 터져 나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흑! 흐윽!”

시로네에게 안긴 마르샤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으아아앙! 아빠! 아빠아아아!”

시로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을 뿐이었다.

“아빠! 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아빠!”

사실은 이렇게 안아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아무리 난폭한 사람이었어도,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 준 그 사람이 끝까지 아버지로 남아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괜찮아요, 누나. 이제 괜찮아요.”

마르샤의 과거가 부서지고 있었다. 조금은 더 단단해진 기억으로 재구성되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으아아아앙! 아빠! 아빠……!”

프리먼은 시간을 확인했다.

그녀가 정한 규칙이 이미 적용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마르샤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상황인 거야?”

마르샤와 시로네 사이에 오갔던 감정이 무엇인지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터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프리먼이 설명해 주었다.

“강탈은 해제됐다. 시로네가 그녀의 마법을 해지시켰어.”

“말도 안 돼. 날 안아도 좋아가 정말 그냥 안으면 끝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 대가가 어디 있어?”

프리먼은 대답을 머뭇거렸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에이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로네는 닫혀 있는 마르샤의 마음을 열었다. 그녀가 규정외식으로 둘러놓은 껍질을 박살 내고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다.

“시로네는 강탈을 해제한 게 아니야. 강탈이 발동되는 조건 자체를 취소시켜서 마르샤의 권능을 끊어 버린 거지. 이제 마르샤의 박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프리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시로네에게 마르샤의 진짜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그는 모든 걸 끌어안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 우리의 완패다.’

“으아아앙! 으아아앙!”

마르샤의 눈물은 마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 또한 알고 있는 것이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기억들이 10년 만에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늦은 점심(1)

전투가 끝나고 20분이 지났다.

앵무 용병단의 부하들은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고 리안도 테스의 응급조치에 따라 부상 부위를 치료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마르샤는 여전히 시로네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간헐적으로 몸을 떨면서 여운을 만끽하고 있었다.

## [163] 늦은 점심(2)

“후우, 후우.”

한참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에이미가 더는 봐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이봐요! 그만 좀 비키면 안 돼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들이 보면 우리가 깡패고 그쪽이 피해자인 줄 알겠어요.”

시선을 돌려 에이미를 바라보던 마르샤는 그녀의 가슴에 불을 지르듯 입술을 삐죽 내밀면서 더욱 깊숙이 시로네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에이미는 인내심의 심줄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이 여자가!”

프리먼이 마르샤를 가로막으며 부탁했다.

“내버려 둬. 우느라고 지쳤을 거야.”

에이미는 황당한 듯 프리먼을 쳐다보더니 삿대질을 했다.

“당신도 뭔가 착각하는 거 아냐? 지금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이겼으니 망정이지 시로네는 인생 끝날 뻔했단 말이야!”

에이미가 정말로 화난 건 그것이었다. 단지 결과가 좋으면 그만인가? 만약 시로네가 오늘의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일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마법을 빼앗긴 시로네의 마음도 그렇지만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에이미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다.

“미안하다. 앵무 도적단으로 활동하면서 치른 범죄는 전부 내가 지시한 일이다. 마르샤는 단지 협회의 추적자들과 대결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조차도 죄라고 한다면…….”

에이미가 팔짱을 끼며 되물었다.

“한다면?”

“그녀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시로네에게 안겨 있던 마르샤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씩씩대며 다가와 프리먼의 엉덩이를 걷어차 버렸다.

“웃기고 있네! 누구 혼삿길 막을 일 있어?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허리가 휘청한 프리먼이었으나 여전히 고목나무처럼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마르샤의 앙탈에는 어릴 때부터 이골이 나 있는 그였다.

“마르샤 누나.”

시로네의 목소리를 들은 마르샤의 어깨가 흠칫 들썩였다.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프리먼에게 애먼 화풀이를 한 이유도 이런 상황이 두려워서였다. 결국 그녀는 몸을 돌리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저기…… 이번 일은 미안하게 됐어. 물론 용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맞아요. 누나는 용서가 안 돼요.”

마르샤가 놀란 표정으로 몸을 돌렸다. 시로네의 눈빛이 차가웠다. 조금 전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모습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소녀를 납치하고 이용했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마르샤는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여태까지 살면서 약자를 괴롭힌 적은 없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유나를 납치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시로네이기 때문이었다.

“그래, 그렇겠구나. 생각해 보니 천하의 악당이었네.”

“맞아요. 누나는 천하의 악당이에요.”

시로네는 서슴없이 말했다. 생각해 보면 그런 성격이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면서도 분란이 없는 건 성정 자체가 선하기 때문이지 사실을 현혹하거나 위증을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가 볼게요. 누나가 잘 이겨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시로네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멀어져 갔다. 마르샤를 동정하고 이해하는 것까지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잘못했어!”

그 순간 마르샤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시로네는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도자기를 훔쳤을 때와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그녀는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가 버리면 어떡해? 나는 이제 시작인데. 적어도 다시 만날 기약은 줘야지!”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던 시로네가 몸을 돌렸다. 여전히 눈빛이 매서웠기에 마르샤는 형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조했다.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유나에게 사과해요. 오빠인 지스에게도 미안하다고 잘못을 빌어요. 남매가 당한 피해도 전부 보상해 줘야 해요.”

“당연하지! 사실 나도 이런 건 싫어한단 말이야. 변명은 안 하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따로 용서를 구할 거야.”

“그렇다고 해도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누나가 했던 짓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마르샤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가랑가랑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뚝 하고 떨어질 듯했다.

“하지만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면 과거를 잊어 줄 수는 있어요.”

마르샤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면서 시로네에게 안겼다.

“으아아앙! 내가 잘못했어!”

시로네는 품에 안겨 우는 마르샤를 달래 주지 못했다.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보는 선택이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보다 힘든 삶을 살기도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념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건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시로네는 그녀를 용서해 보기로 했다.

그녀의 변화가 시작된 지점이 자신이라면, 적어도 그 모습을 지켜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클레이 마르샤…….’

그래서일까? 시로네는 문득 깨달았다.

강하고 무섭게만 보였던 마르샤가, 사실은 품에 안고도 남을 만큼 작은 여자란 사실을.

\* \* \*

마르샤는 시로네 일행을 건물로 데려갔다. 두 마법사가 대결을 펼쳤던 장소인 만큼 제대로 남아 있는 기물이 하나도 없었다.

친구들은 시로네가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2층으로 가자. 싸웠더니 배고파. 내가 음식 좀 해 줄게. 솜씨는 별로지만.”

그나마 2층은 머물 만한 상태였다. 화분 몇 개가 바닥에 깨져 있는 정도였다.

시로네 일행은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자리에는 유나도 앉아 있었다. 긴장감이 풀렸는지 처음과는 다르게 안색이 좋아져 있었다.

새벽에 출발해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한 끼도 먹지 못했다. 음식을 기다릴 만한 허기가 아니었기에 마르샤는 당장 먹을 수 있는 수프와 빵을 대접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정신없이 배를 채웠다. 리안의 부상 정도는 음식을 먹을 상태가 아니었지만 일행 중에서 가장 많이 먹은 듯했다.

“이제 규정외식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시로네가 이번 전투에서 가장 인상을 받은 부분은 역시나 규정외식이었다. 언로커만큼은 아니겠지만 마법사회에서 희귀한 특성인 것만은 분명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 물론 박탈은 불가능하겠지만 사실 마음에 새겨진 상처라는 게 그리 쉽게 아무는 건 아니거든.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되겠지.”

“그렇군요. 으음.”

시로네가 말끝을 흐리자 눈치 빠른 마르샤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런 악질적인 마법은 만들지 않을 테니까. 규칙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어.”

시로네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 또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의 정보였다.

“그럼 생각해 둔 규칙이라도 있어요?”

“아직은 딱히 없어. 어디 보자…… 마법학교에 다니고, 금발 머리에 잘생긴 남자를 홀리는 마법이라도 개발해 볼까?”

시로네는 불안한 미소를 지었다. 규정외식자의 괴팍함을 겪은지라 장난으로만 넘길 수가 없었다.

에이미의 따끔한 눈총을 받은 마르샤가 손을 저으며 안심시켰다.

“후후, 걱정하지 마. 시로네는 아니니까.”

“호오? 그래요? 그럼 누군데요?”

“있어. 마법학교에 다니고, 금발 머리에, 잘생긴 남자가.”

에이미는 말을 말아 버렸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규정외식자와 말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었다.

프리먼이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눈썹이 없는 남자를 꼬셔 보는 마법은 어때?”

“푸웁!”

마르샤는 입에 넣은 수프를 다시 접시에 담아 버리고 말았다.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이런 자리에서 저런 뻔뻔한 말을 할 줄은 예상치도 못했다.

“무슨 헛소리야? 너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냐?”

“왜 그래? 나라고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눈썹이 없는 인간이 세상에 너랑 원숭이 말고 또 있겠니?”

“원숭이는 인간이 아니잖아.”

“아니! 네가 원숭이란 얘기야! 그러고 보니까 너, 졌겠다? 한심한 겁쟁이 같으니라고. 내가 리버스 테크닉 트리 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앙? 앙?”

마르샤가 포크로 프리먼의 관자놀이를 꾹꾹 찔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에이미는 퍼뜩 떠오르는 바가 있었다. 확실히 프리먼이 자신의 플레임 스트라이크에 직격을 당하고서도 멀쩡하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리버스 테크닉 트리?’

스키마를 훈련하는 자들은 여러 장의 스키마를 중첩하여 빌드 업을 시킨다. 가장 기본이 되는 빌드가 밑바닥에 깔리고 옵션으로 선택한 빌드가 위에 올라가는 식이었다.

그것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게 리버스 빌드였다.

스키마 유저들은 이를 ‘반전’이라고 부르는데, 목숨이 위급할 시에만 선택하는 수비적인 빌드라고 할 수 있었다.

기동성과 정확도가 생명인 거너들은 보통 감각 계열이나 신경 계열의 강화를 베이스로 한다.

따라서 방어 능력에 관련한 재생 계열의 빌드나 세포 활성화 빌드는 상대적으로 옵션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

프리먼 또한 거너였으니 그리 다르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마르샤의 말을 들어 보면 그는 처음부터 수비적인 빌드, 즉 반전의 빌드로 싸운 셈이었다.

그렇다면 플레임 스트라이크에 얼굴이 타버리고도 멀쩡한 것이 이해가 된다.

‘하긴……. 마지막에 마르샤를 구할 때의 속도는 엄청났지.’

아마도 그것이 반전되지 않은 거너로서의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막상 그렇게 생각하자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에이미의 기분을 의식했는지 프리먼이 말했다.

“반전이 아니었다면 상대도 다른 전략을 짰겠지. 강하고 약하고는 없어. 상황에 맞게 할 뿐이고 용기도 실력의 일부분이다. 에이미가 나보다 강했어. 그것뿐이야.”

마르샤는 턱을 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겁쟁이 팔자 눈썹 프리먼이 이제는 제법 남자다운 말도 할 줄 알게 되었다.

적에게 칭찬을 받자 에이미는 괜히 뻘쭘해졌다.

“아니, 뭐…… 아저씨도 굉장했어요.”

“고맙군. 하지만 난 아저씨 아니야. 마르샤랑 동갑이다.”

“그래서요? 저기, 동갑이어도 저한테는 아저씨인데요?”

프리먼은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빵을 뜯는 데 열중했다. 어째서 시로네는 마르샤에게 누나라고 부르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소심한 성격인 그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시시덕거리는 분위기가 지나가자 마르샤가 다시 표정을 고치며 진지하게 말했다.

“어쨌거나 시로네, 너도 마법사를 목표로 한다면 규정외식자는 경계하는 게 좋아. 사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조금 더 말해 주세요.”

“흐음, 사실 내가 사용했던 박탈은 그리 효율적인 마법은 아니야. 상대방의 마법을 빼앗는다는 것 자체가 오버 파워이긴 해도 가능성에 대한 도전일 뿐이지 전투에 효과적인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

시로네가 생각하기에도 목숨을 거는 대가로 어떤 능력을 얻게 된다면 박탈은 선택하지 않을 듯싶었다.

타인의 능력을 갈취한다는 자체에만 너무나 많은 제약이 걸리기 때문이다.

“나는 조금 특이한 경우지. 물론 규정외식자들 대부분이 특이하지만, 처음부터 전투를 염두에 두고 만든 마법은 아니니까. 다른 규정외식자들은 나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응용력이 강한 규정외식을 사용할 거야.”

“그렇군요.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누나랑 싸울 때 정말 오싹했어요. 이모탈 펑션을 봉쇄하는 방법이 세상에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후후, 그때는 미안. 하지만 그 말이 맞아. 마법의 세계에 불가능한 건 없어. 절대적인 것도 없지.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내 약점을 간파했기 때문이지?”

“네. 규정외식의 발동 자체가 트라우마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트라우마를 집요하게 공략하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거야. 다른 말로 하자면 제약과 대가의 논리 싸움이지. 규정외식자를 상대할 때는 전투력보다도 그들이 발휘하는 마법의 기재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 물론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번에 배운 게 많아요.”

시로네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세상은 넓고 뛰어난 사람은 부지기수라는 걸 깨달은 전투였다.

## [164] 늦은 점심(3)

“하아, 어쨌거나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나도 이제는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껍질을 깬 것은 분명했다. 이제 남은 건 과거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껴가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일이었다.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듣기로 추적자가 있는 거 같던데.”

프리먼이 말했다.

“우린 떠날 거다. 용병으로 시작했으니 용병으로 살아야지. 부하들도 그것을 바랄 거야. 물론 이 나라에서는 어처구니없게 도적단으로 몰려 버렸지만.”

마르샤의 눈빛이 슬픔에 잠겼다. 용병은 싸우는 존재다. 그녀 또한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각오가 있기에 동료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웃을 수 있는 것이었다.

대의를 위해, 혹은 얄팍한 정의를 위해 싸워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언제나 당당했고 싸움을 걸어오는 적을 피하지 않았다.

마르샤는 적어도 그들에게 용맹한 전사였다는 칭호 정도는 주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도적단의 명찰을 달고 무덤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르샤의 심정을 이해한 테스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실 도적과 용병은 한 끗 차이일 뿐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기사와 용병도 한 끗 차이고요. 각자의 신념을 위해 싸우다가 묻히는 존재죠. 정치적으로 도태당한 쪽은 악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전세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리안도 생각하는 건 비슷했다. 학문을 연마하는 시로네나 에이미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꿈꾸는 자라면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우리 가문도 위협을 받던 시절이 있었지. 중립을 지킨다고 말이야. 그러고 보면 테스 너희 아버지도 힘드시겠어.”

“그렇지, 뭐. 이곳에서 아버지는 영웅이지만 식민지에서는 침략자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런 거야. 그게 바로 정치인 거고.”

마르샤는 미소를 지었다. 리안과 테스가 자신을 위해 일부러 그런 얘기를 털어놓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세상을 의심하는 그녀지만, 이제는 진실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도 나름 믿게 되었다.

‘따듯한 아이들이구나. 시로네의 친구들답네.’

마르샤는 게으른 고양이처럼 식탁에 턱을 괴고 쓰러졌다. 오랜만의 평화에 심취한 그녀가 검지만 치켜들어 시로네를 가리켰다.

“그런데 너희는 어떡할 거야? 앞으로 열심히 관광 다니려나?”

“아, 우리는 케르고 유적에 갈 거예요.”

“케르고오? 청춘 남녀가 거길 가서 뭐하게?”

“그게 실은…….”

시로네는 자신들이 섬에 온 이유를 말했다. 흥미롭게 듣고 있던 마르샤가 놀랐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호오, 유적지에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사실 나는 섬을 떠나 있어서 자세히 몰랐어. 프리먼, 너는 알고 있었어?”

“어느 정도는. 원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는 케르고 자치 구역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네?”

“네. 하지만 성취와 희생의 방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 들어가면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마도 그렇죠. 한 가지 생각해 둔 게 있기는 한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들은 프리먼이 말했다.

“그거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네? 성취와 희생의 방요?”

“아니, 꼭 그곳을 통하지 않더라도 자치 구역에는 들어갈 수 있어. 팔코아가 그쪽과 루프를 거래했던 것 같다. 프리먼 조직의 통행증을 보여 주면 들여보내 줄 거야. 어쨌거나 그런 쪽으로는 꽤나 유능한 녀석이었으니까.”

시로네 일행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원주민 자치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이었다.

에이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렇게 되면 통로가 다르지 않나? 처음부터 두 가지 루트가 존재한다면 굳이 시험의 관문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다. 분명한 건 두 가지 루트 모두 도착하는 장소는 같다는 것이다. 이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에게 이미 확인한 사실이야.”

여기까지 듣자 시로네도 의아했다. 최소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면 다른 구역으로는 보내 줄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똑같은 장소인데 한 곳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테스가 말했다.

“알 수 없지. 어쩌면 전통일 수도 있고. 오래된 문화일수록 그런 게 남아 있잖아. 또 한 가지 가정이라면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자치구역에 별 것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실제로 우리도 얘기를 듣고서는 성취와 희생의 방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잖아?”

프리먼이 말을 끝맺었다.

“어쨌거나 직접 확인해 보면 될 일이겠지.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가 통행증을 만들어 주마. 당장도 가능할 거야.”

“네, 부탁드릴게요.”

시로네는 일단 받아 두기로 했다. 아직 어떤 루트를 이용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원주민 자치 구역에 접근할 방법은 많을수록 좋았다.

부하를 불러 통행증을 끊어 달라고 지시한 프리먼이 다시 시로네 일행에게 말했다.

“들어가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원주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 부하 중에서는 없으니까.”

“어라? 그럼 팔코아는 어떻게 거래를 한 거죠?”

“섬에 들어온 이후로 팔코아는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했다. 엄밀히 따지자면 기존의 용병단이 그와 어울리지 않았다고 봐야겠지. 물론 팔코아가 죽었으니 사조직은 와해되겠지만, 당시에는 그쪽 밀매상과 자주 어울렸던 모양이야. 그중에 통역하는 놈이 있었던 모양이다.”

“흐음, 그렇다면 우리도 통역관을 구해야겠군요.”

유나가 슬그머니 손을 들었다.

“저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응? 괜찮아. 무슨 말이든 해도 돼.”

“사실은 오빠가 케르고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에이미가 관심을 드러냈다.

“어머, 지스가? 어떻게 배운 거야?”

“오빠는 어릴 때부터 저를 보살피려고 여러 일을 했거든요. 항구 호객꾼이 되기 전에는 관광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배운 거 같아요.”

프리먼이 말했다.

“잘됐군. 그럼 지스에게 부탁을 하지.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마르샤가 돌아온 이상 섬에 머무르는 건 위험해. 마법협회에서 여전히 우리를 쫓고 있으니까.”

시로네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국가적 단위에서 추격을 받는 마르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일단락되었고 해가 저물기 전에 시로네 일행은 건물을 나섰다.

마르샤는 공간 이동이 가능한 팔찌를 그들에게 채워 주었다.

사용 방법은 단순했다. 팔찌 또한 자체적으로 스피릿 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법을 시전하듯 좌표를 떠올리면 되는 것이었다.

시로네는 마르샤가 채워 준 팔찌를 살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마법무구와 마법진을 연동시킨다는 건 정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었다.

서로 다른 공간에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스피릿 존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술.

이것은 마르샤가 보여준 스폿을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다.

즉 스폿에 있는 사람은 공간에 생긴 하나의 구멍만을 보고 있겠지만, 반대로 바깥쪽에서는 입구와 출구라는 두 개의 스폿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시공의 미로. 어쩌면 이 세상은 이미 거대한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건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녀는 알페아스의 제자였다.

거기서 더 들어가자 케르고 유적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게다가 시공간 마법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마법 무구에 접목되어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로네는 문득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교장선생님의 말대로 자신은 지금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찾으려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로네가 생각에 잠긴 사이 마르샤가 다가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산 아래에 마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야. 떠나기 전에 한 번은 더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조심해. 그리고 돌아가면 꼭 회복 마법사를 찾아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알았어요. 신경 써 주셔서 고마워요.”

“호호!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마르샤가 입을 가리며 시로네의 팔을 때렸다.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거짓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자신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가 볼게요. 혹시라도 섬에서 볼 수 없다면 마법학교로 연락 주세요.”

“걱정 마. 클레이 마르샤는 언제 어디서든 너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마르샤가 팔을 걷어붙이며 씩씩하게 말했다. 역시나 누군가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프리먼이 보좌하고 있었다. 친구라고 하기에는 한쪽이 너무 우월한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런 구도도 나름대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로네가 숲으로 들어가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마르샤가 물었다.

“케르고 유적이라. 괜찮을까?”

“아마도…… 괜찮지 않겠지.”

마르샤가 미간을 찌푸리며 프리먼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프리먼은 언제나 그렇듯 담담하게 할 말을 했다.

“하지만 이겨 낼 거야. 강한 아이들이니까.”

마르샤는 애달픈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숲속에서 탄생한 공간 이동의 소음이 천공을 갈랐다.

위험한 거래(1)

시로네 일행이 마차를 타고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느덧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거실을 서성이던 지스는 문이 열리자마자 뒤를 돌아보았다.

“아아…….”

지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세상에 하나 뿐인 여동생 유나가 상처 하나 없이 무사히 별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오빠!”

“유나야!”

지스는 울상을 지으며 유나를 껴안았다. 남매는 서로를 얼싸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련이었다. 정신력의 단단함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시로네조차 무릎을 꿇고 싶었던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을 만큼 강적이었다.

그런 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했으니 지스와 유나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응. 나는 괜찮아. 오빠들이랑 언니들이 구해 줬어. 오빠는 이게 무슨 꼴이야? 얼마나 다쳤기에 붕대를 감고 있어?”

“나는 괜찮아. 너만 돌아오면 하나도 안 아파.”

사실 지스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유나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다.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유나가 느꼈을 두려움이 몇 배는 컸을 테니까.

지스는 감동에 젖은 눈으로 시로네 일행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진심이 넘치다 못해 흐를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테스가 괜찮다는 듯 지스의 어깨를 두드렸다. 프리먼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 생색을 내는 건 나중의 일이었다.

“호호! 이런 건 얼마든지 잊어도 돼. 출발할 때 내가 한 얘기만 기억해준다면 말이야. 정말로 고마우면 이제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응? 그게 무슨 소리야?”

테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지스가 눈을 깜박거렸다. 시로네 일행은 물론이고 유나마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 \* \*

피곤에 지친 유나를 재우고 방에서 나온 지스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약초를 달인 차를 홀짝인 그는 잠시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재개했다.

“그러니까 케르고 유적을 통해서 자치 지구로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통역관이 필요한 거고.”

“응. 유나의 말을 들어 보니까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어서.”

“일상 회화 정도라면 문제없어. 내가 가이드해 줄 수 있을 거야. 흐음, 하지만 원주민 자치 지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스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턱을 쓰다듬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

“아니, 괜찮아. 얼마든지 안내할게. 다만 무슨 일 때문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은 특별한 곳이야. 비밀스럽다는 게 아니라, 갈리앙트 정부에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구역이라고. 그래도 괜찮겠어?”

## [165] 위험한 거래(2)

“응? 정부에서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갈리앙트 정부와 원주민 자치 지구는 행정기관이 다르잖아. 우리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물론 그렇기는 해. 명목상의 통제일 뿐이지. 다만 그렇게까지 막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면 미안해.”

“아니, 괜찮아. 우리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가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어. 물론 지스 네가 가이드를 해 준다면 말이야.”

“당연하지! 가이드 하면 바로 지스 아니겠어?”

자신 있게 가슴을 때린 지스는 고통에 헛숨을 들이켰다. 고통이 가라앉을 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그런데, 내 몸 상태가 이래 가지고 제대로 돌아다닐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그건 걱정하지 마. 내일 프리먼 씨가 소개해 준 회복 마법사에게 찾아갈 거야. 거기에 가면 대부분의 외상은 고칠 수 있을 테니까.”

“우와, 회복 마법사? 그거 치료하는 데 엄청 비쌀 텐데?”

지스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자 에이미가 게슴츠레하게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제시한 가이드 비용보다는 싸겠지.”

지스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렇게 따지니 자신이 얼마나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는지 피부로 와 닿았다.

“하하, 갑자기 왜 그래?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시로네는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어쨌거나 오늘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어. 정신력이야 자고 나면 회복되겠지만 리안과 테스는 회복 마법을 받기 전까지는 불편할 테니까.”

“응? 아니, 나는 괜찮아. 이미 상처는 다 나았으니까.”

테스의 말에 일행 모두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확실히 그녀의 뺨이나 팔에 나 있던 검상들이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다.

“우와, 어떻게 한 거야? 프리먼 씨가 했던 거랑 비슷한 건가?”

“응. 나는 두 번째 스키마를 미토콘드리아로 잡았거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세포 기관이야. 미토콘드리아 스키마를 이용하면 순발력, 재생력, 지구력과 같은 기본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해. 그래서 재능이 뛰어나지 않은 검사들은 미토콘드리아를 기본 빌드로 많이 선택하지. 아마도 왕국 병사나 용병들은 미토콘드리아 빌드를 많이 사용할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두 번째 빌드니 기본 빌드니 이런 건 뭐야?”

이번에 앵무 용병단과 일전을 치르면서 검사들에게 수많은 린치를 당했던 시로네는 스키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다.

확실히 마법 전투하고는 양상이 달랐다. 앞으로 유적지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이상 전투에 관련한 정보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두는 편이 좋았다.

“빌드라는 건 테크닉 트리를 말하는 거야. 흔히 스키마를 설명할 때 가상의 육체를 떠올려 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익힐 때는 그런 것과는 감각이 달라. 몸을 이루는 세포가 각성되면서 선명도를 넓혀 가는 식이거든. 그럼 여기서 문제. 검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 빌드를 중첩시키는 것일까?”

에이미와 리안은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스키마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테스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풀이를 맡기려는 생각이었다.

“글쎄. 가상의 도식이라고 한다면 팔이나 다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거 아닐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육체의 밸런스를 조율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신경계만 계속 개발하면 근육이 터져 버린다고. 반대로 근력만을 개발한다면 주먹을 휘둘렀을 때 주먹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던 거거든. 육체를 강화시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밸런스를 잡는지.”

“마법하고 비슷할 거야. 아마 너도 정신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특별한 패턴이랄지.”

“응. 사방식이라고 불러. 수열식 같은 것도 있고.”

“검사들도 마찬가지야. 그게 바로 빌드라는 거지. 가상의 도식을 여러 장 만들어서 계속 겹친다고 보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미토콘드리아 스키마를 가장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는 근력 강화 스키마를 깔고, 다시 그 위에는 눈의 기술을 깔고, 이런 식이지. 베이스를 완성시킨 상태에서 테크닉 트리를 타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서 육체가 파괴될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가장 효율이 높은 건 베이스 스키마야. 밑바닥에 깔아 놓은 스키마의 효율이 100이라면 두 번째 장은 50, 세 번째 장은 25. 이런 식으로 대폭 감소해.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테크닉 트리의 고수가 아니라면 실전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어. 단,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전이라 불리는 기술이 있어.”

“에이미가 말했던 프리먼 씨가 사용하는 기술이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방식처럼 특정 패턴을 만들어 두는 건가?”

“아니, 스키마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반전이 가능한 이유는 스키마를 체감하는 시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야.”

테스는 테이블에 손을 내밀고 종이를 들어다가 옮기는 동작을 재현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투명한 종이를 세 장 겹친다고 해 보자. 그리고 내려다보면 우리의 시선은 순서대로 종이를 투과할 거야. 이걸 1, 2, 3이라고 부른다면 반전은 시점을 역전시켜서 아래에서 위로 보게 만드는 거야. 3, 2, 1. 이렇게. 이것 외에도 이탈, 투과, 접기, 교차 등 테크닉 트리에 관련한 수많은 기술이 있어.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스키마를 쌓아 올리는 것을 빌드라고 부르는 거야.”

시로네는 감탄했다. 단순히 육체 능력을 키우는 게 검사인 줄 알았건만 이제 보니 마법사에 준할 정도로 기술적이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테스는 두 번째 테크닉 트리에 미토콘드리아 스키마를 올렸다는 거네. 효율은 첫 번째에 비해 절반인 것이고.”

“맞아. 사실 미토콘드리아 빌드가 대중적이긴 한데, 스키마 효율을 100퍼센트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육체의 활동성을 집중시키는 건 아까운 면이 있어. 말 그대로 육체와 육체의 대결이 아니라면 말이야. 따라서 제대로 검을 수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기술에 가장 적합한 스키마를 고르지. 나 같은 경우는 신경계 빌드를 선택했어. 세검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밀함이니까.”

시로네도 이제는 이해가 됐다. 같은 세검에 같은 스키마 능력을 지니고 싸운다면 신경계 빌드가 미토콘드리아 빌드를 압도할 터였다.

“성취와 희생의 방에서 만났던 용병들도 제법이라는 게, 미토콘드리아 빌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전사는 근력 강화 계열인 것 같고 궁수 같은 경우는 감각계 빌드였을 거야.”

“응? 신경계와 감각계가 다른 거야?”

“비슷하기는 하지만 강화 부분이 달라. 쉽게 설명해서 내부감각과 외부감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 같은 신경계 빌드는 내부감각이야. 따라서 육체의 동작을 누구보다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지. 반대로 감각계 빌드는 외부감각이야. 눈, 코, 귀와 같은 원감각과 혀나 촉각과 같은 근감각을 말해. 궁수는 원감각을 익히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그들의 시각이나 후각, 청각은 남들보다 몇 배나 예민한 거야. 물론 나도 세 번째 빌드는 감각계를 채택하고 있고.”

“음, 그래서 궁수가 있으면 미행이 힘들다고 한 거였구나.”

“맞아. 어쨌든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빌드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물론 각각의 스키마를 열심히 갈고닦는 건 기본이고. 미토콘드리아 빌드를 채택했어도 수행이 부족하면 세 번째 테크닉 트리에 미토콘드리아를 선택한 검사보다 육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알겠어, 스키마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왜 그걸 인체 도식이라고 부르는지.”

“결국 또 하나의 자기상이라고 보면 돼. 이를테면 환각 통증이라는 현상이 있잖아. 팔이 절단된 사람인데도 팔이 지나가는 공간에 물체가 놓여 있으면 무의식중에 통증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스키마의 실체야.”

얘기를 듣다 보니 시로네와 마찬가지로 에이미도 느끼는 바가 많았다. 처음에는 검사의 설명이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맡겼으나 점차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자신조차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테스, 우리 아빠는 스키마를 몇 장이나 중첩시킨 거야? 어릴 때 기억에는 기술이 엄청나게 많던데. 각 장마다 효율이 떨어진다면 대략 네 번째 장부터는 빌드 업을 하나 마나 아니야?”

“맞아. 보통은 그렇지. 하지만 거기에도 방법이 있어. 두 번째 테크닉 트리의 효율을 100으로 만드는 방법.”

이미 스키마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시로네가 관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오, 정말? 어떤 건데?”

“검사들은 체득이라고 불러. 아까 말했듯이 스키마를 설명하려면 자신의 외형이 그려진 그림자를 연상하면 돼. 스키마를 연다는 것은 검은 부분을 투명하게 걷어 낸다는 거겠지. 하지만 솔직히 육체를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말하자면 한 장의 스키마에 있는 검은 부분을 전부 다 벗겨 낸 사람 말이야.”

“음, 확실히 그건 힘들 거 같은데.”

“맞아. 엄청난 수련과 천재적인 재능이 필요하지. 하지만 세상에는 그걸 해낸 사람들도 있어. 완벽하게 투명해져서 결국 자신의 몸과 융화되어 버리는 것. 따라서 특정 스키마를 체득한 사람은 결국 그 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다섯 장의 스키마를 체득한 사람이라면 여섯 번째 스키마의 효율이 100이 되는 거지. 하지만 이건 시간과 노력의 문제야. 재능이 있다면 단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아.”

시로네는 참았던 숨을 토해 냈다. 어릴 때부터 마법사가 꿈이긴 했지만 리안과 진검 대결을 펼쳤을 당시에 검의 무한함에 대해 깨달은 적도 있었다.

마법사와 검사. 스피릿 존과 스키마. 과연 이 세계를 양분하는 무력이라고 칭해지는 이유가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 테스.”

시로네의 진심 어린 칭찬에 테스가 볼을 붉혔다.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뭐. 나야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사실 마법시인 너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응.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이제는 오늘 같은 상황이 와도 전보다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테스는 이미 회복이 됐고, 내일은 지스와 리안만 회복 마법을 받으면 되겠네.”

시로네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나 테스는 순간 무언가를 깨닫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고 보니 검사와 스키마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리안이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있었다.

테스는 슬그머니 리안을 돌아보았다. 평소대로 무덤덤하게 듣고 있었으나 시선은 자신의 몸에 머물러 있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육신이었다.

마지막에 상상 스키마로 팔코아를 압도하기는 했지만 결국 스키마를 터득하지 못한 약점은 컸다.

지금도 회복은커녕 상처가 더 악화되어 가는 기분이었다.

‘제길! 어째서 나는…….’

테스는 리안을 안쓰럽게 쳐다보았으나 한편으로는 긴장감에 심장이 뛰었다. 본의 아니게 리안에게 상처를 준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다.

‘자존심이 상했겠구나. 가장 속상할 사람이 너일 텐데.’

친구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리안이 황급히 표정을 고쳤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하하! 괜찮아. 치료 마법 같은 거 없이도. 난 단단하니까.”

확실히 리안은 엄청난 힘으로 몸을 두드리는데도 아픈 내색은커녕 표정조차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다. 오로지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물론 그 정신력 자체는 경이로울 지경이었지만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전투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터였다.

그럼에도 리안에게 회복마법을 받으라고 재차 권유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야하는 비참함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아니었다. 이번 여행에서 리안은 진지하게 수호 기사 임무를 수행했다. 리안이 진지하다면 자신도 같은 각오로 그를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166] 위험한 거래(3)

“리안, 고집부리지 말고 내일 회복 마법을 받자.”

“괜찮다니까! 치명상을 입은 데도 없고. 물론 테스가 찌른 부분은 이상하게 조금 아프지만 말이야. 하하하!”

“리안, 네가 쓰러지는 순간이 내가 죽는 순간이다.”

리안의 웃음이 뚝 그쳤다.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시로네와 리안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다.

“시로네, 나는…….”

“알아. 너는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 주겠지. 하지만 찰나의 선택이 일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도 있어. 가급적 네가 더 많이 나를 위해 칼을 맞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린다면 나도 내 뒤를 맡기는 걸 재고할 수밖에 없어.”

일견 이기적이고 냉정한 얘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아니, 친구에게 칼을 맞아 달라는 말은 분명 냉혹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리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리안은 불이다. 그 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얄팍한 칭찬이 아니라 비참한 현실 그대로를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리안은 입꼬리를 지그시 올렸다. 속에서 뜨거운 불이 치솟으면서 잡다한 감정이 모조리 불타 버리는 기분이었다.

“걱정하지 마, 시로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몸을 완벽한 상태로 돌려놓겠어! 내가 지키는 한 누구도 너한테 닿지 못할 거야.”

리안은 지금 당장이라도 회복마법을 받을 기세였다. 덕분에 지옥에서 해방된 테스는 남몰래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후우. 고마워, 시로네. 진짜 고마워.’

테스는 언젠가 리안이 최고의 검사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설령 불타는 검이 된다고 해도, 그 검을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시로네밖에 없으리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 \* \*

아침 일찍부터 시로네 일행은 별장을 나섰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구역에 마법사 길드가 하나 있었다. 프리먼 조직이 섬을 장악한 탓에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나 회복 마법사를 보유하고 있는 덕분에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휴양지의 특성상 마음을 풀어 놓고 놀다 보면 부상을 당하기가 십상이었다.

평민들은 민간요법이나 의원을 찾지만 귀족들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회복 마법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상처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1에서 10골드까지 책정되어 있었는데 프리먼의 입김이 들어간 덕분인지 적당한 가격에 치료가 진행되었다.

회복 마법은 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 상처를 자연 치유한다. 이는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의원과는 달랐다.

스키마 유저 중에 응급수술을 집도하는 서저리라는 직업이 있기는 하지만 마법사는 인위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편이었다.

고위 마법으로 들어가면 이론이 복잡해지지만 단순히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뛰어났다. 인간의 육체는 스스로 고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회복 마법사의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는 않은 듯했다. 지스와 리안의 상처도 가벼운 편이 아니라 모든 치료가 끝나기까지는 2시간이 걸렸다.

시로네는 깨끗하게 상처가 아문 리안의 모습을 보고 새삼 마법의 위력을 실감했다.

물론 2시간이라면 실시간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룹에 회복 마법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전투력 차이는 가히 어마어마할 터였다.

별장으로 돌아온 시로네 일행은 다시 짐을 정비하고 문밖으로 나섰다.

회복 마법은 상처를 재생할 뿐이라 컨디션 자체를 끌어 올리지는 못했으나 워낙에 강골인 리안인지라 활력이 넘쳐흘러보였다.

지스 또한 맷집에는 자신이 있는 모양인지 그다지 피곤한 기색을 내지 않고 흔쾌히 배낭을 짊어졌다.

리안은 지스의 가방을 보고 의아했다. 안내자의 역할인 지스는 자치 구역 들어가면 헤어질 예정이었기에 딱히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 그 짐은 뭐야?”

“아, 이건 도시락이야. 치료하는 동안 유나가 만들어 놨더라고. 이래 봬도 음식 솜씨가 끝내줘. 음식점에서 일하니까.”

“오호, 프로였단 말이야? 잘 됐다. 지금 먹자.”

침을 흘리며 리안이 다가서자 테스가 리안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핀잔했다.

“방금 먹고 무슨 밥을 또 먹어? 일단 유적지로 가자. 어두워지면 곤란하니까.”

이미 한 번 가본 장소였기에 빨리 출발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여자들도 군소리하지 않고 평소보다 채비를 일찍 끝냈다.

유적지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착하자 마부가 여지없이 말을 멈췄다. 시로네 일행도 이제는 익숙했기에 마차에서 내려 유적지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전에 왔을 때와 달라진 점은 없었다.

와글거리는 인파, 표정 없이 주위를 경계하는 원주민, 용병들을 만났던 술집도 그대로였다.

유적지 외곽으로 향한 그들은 공원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다. 유나가 싸 준 도시락은 남은 재료를 다진 다음에 쌀을 불려서 만든 주먹밥이라는 것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섬에서는 꽤나 인기라고 했다.

시로네가 먹어 보니 과연 맛이 색달랐다. 온갖 재료가 어우러지면서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났다.

양이 적을까 싶었지만 막상 위장으로 들어가자 빵보다는 묵직한 맛이 나서 좋았다.

지스는 프리먼이 전해 준 쪽지에 적힌 매뉴얼을 살폈다. 간략한 정보였지만 몇 년 동안 조직에서 일한 그는 어떤 식으로 거래가 치러지는지 금세 이해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성취와 희생의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반대편이었다. 그곳 또한 문명화된 의복을 입고 있는 원주민이 지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누구냐?”

“프리먼 조직에서 왔는데요. 언제쯤 출발할 수 있나요?”

원주민은 지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통행증을 꺼내 보이자 곧바로 아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원주민어로 몇 마디를 주고받은 지스가 시로네를 돌아보며 말했다.

“차편이 도착하려면 기다려야 한다는데? 1시간 정도?”

“응? 차편이라니?”

“아마도 광차를 타고 가야 할 거야.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 어쨌거나 차가 도착하면 다시 오라고 하네.”

테스가 모두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떡하지? 1시간 정도 이곳에서 기다릴까? 아니면 조금 더 둘러보든지.”

시로네는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대로 자치 구역에 들어가도 되는 것일까? 만약 그래도 되는 것이라면 성취와 희생의 방은 어째서 존재하는 것일까?

테스의 말대로 전통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럴 확률은 낮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미로의 숨결이 닿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시험의 관문을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어.”

시로네가 갑자기 얘기를 꺼내자 친구들이 예상치 못한 듯 그를 돌아보았다. 편하게 자치 구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굳이 그런 고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이미는 시로네와 생각이 비슷했다. 유적의 지하에는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두 가지 루트가 하나의 장소로 향하고 있더라도 길이 2개라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다만 문제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불가능한 일에 욕심을 부리다가는 괜히 시간만 잡아먹는 꼴이 되고 말 터였다.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혹시 레이저로 시험해 볼 생각이야?”

“응. 가능하다면 해 보고 싶어.”

“만약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어떡할 거야? 광차가 우리를 기다려 줄지도 모르고. 성취와 희생의 방으로 들어가면 꽤나 시간이 걸릴 텐데?”

“사실 실패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시로네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에이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실패해도 상관없다니?”

“한 가지 짚이는 게 있거든. 물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건 어떨까? 내가 희생과 성취의 방에 들어갈게.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다렸다가 광차를 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시간도 맞출 수 있고 두 가지 루트를 다 경험해 볼 수 있잖아.”

에이미는 시로네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성취와 희생의 방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 시로네였으니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무엇보다 혼자서 시험을 치른다면 시간도 크게 소모되지 않을 터였다.

“좋아. 그럼 일단 시험의 루트 쪽으로 가보자.”

에이미의 동의하에 일행은 동쪽의 제단으로 향했다. 전에 용병들과 들어왔을 때의 원주민하고는 다른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

“시로네, 암호 기억하고 있지?”

“응. 너희는 물러서 있어. 전에도 괜히 옆에 있다가 일행으로 오해받았잖아. 이번에는 혼자서 들어갔다 올게.”

“그래. 별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조심해.”

시로네는 제단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세 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는지 제단의 안쪽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단으로 접근하는 시로네를 바라보고 있던 원주민은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자 몸을 돌렸다. 그리고 기관 장치를 작동시켜 석벽을 열어 주었다.

‘다른 사람이 도전했나 보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도전자가 많은가?’

시로네는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했기에 두근거리는 기분으로 제단 쪽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얼굴을 확인한 순간 기겁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어, 어라?”

시로네의 뒤편에 서있던 에이미도 어깨를 흠칫 하며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야! 쟤들이 어떻게 여기에?”

“왜 그래, 에이미? 아는 애들? 혹시 친구야?”

“흥! 친구는 무슨! 원수들이지!”

에이미의 반응을 보아하니 딱히 좋은 관계는 아닌 듯싶었다. 더욱 궁금해진 리안과 테스는 제단에서 나온 남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멀리에서 보기에는 남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특징이 비슷했다. 검은 머리에 검은 동공, 창백한 얼굴에 대비되는 어두운 느낌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로네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케인의 제자인 카니스와 아린이었다.

‘어째서 저들이 이곳에?’

물론 어디를 돌아다니건 그들의 자유였다. 하지만 흔한 관광지도 아니고 미로의 시공이 있는 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불길함을 자아냈다.

시로네 일행을 발견하고 놀란 것은 카니스와 아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모양인지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다.

“역시 너희도 있었구나.”

카니스가 비웃는 얼굴로 다가왔다. 반면에 아린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생을 라둠에서 갇혀 살았던 그녀는 사회생활이 익숙하지 않았다.

비록 일전을 벌였던 사이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동급생이었으니 어떻게든 인사를 건네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아, 안녕, 시로네?”

아린은 모든 용기를 쥐어 짜내 시로네에게 손을 들었다. 그러자 카니스가 사납게 찢어진 눈으로 아린을 흘겨보았다. 실수를 깨달은 아린이 얼른 손을 내렸으나 예상외로 시로네는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었다.

“그래, 안녕. 잘 지냈어?”

“어? 응. 그냥 뭐…….”

아린은 카니스의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상대가 진심으로 반겨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적대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런 생각으로 천천히 고개를 든 순간, 시로네의 초경을 접한 아린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멍하니 벌렸다.

‘그때도 대단했지만 지금은 더 선명해졌네. 참으로 신기한 사람이야.’

한편 시로네 또한 카니스와 아린의 등장에 생각이 많아졌다. 어쨌거나 제단에서 되돌아 나왔다는 건 결국 천사의 눈동자가 그들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뜻이었다.

‘역시 쉽지 않구나. 미로의 시공.’

대마법사의 제자인 만큼 카니스와 아린은 강했다. 무엇보다 실전 경험에서만큼은 마법학교의 어떤 사람보다도 월등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시로네는 일전에 그를 제압했지만, 속성의 수혜를 받으면서까지 싸웠음에도 고전했던 상대인 것만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 희생과 성취의 방에서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미로의 커트라인이 얼마나 높은 곳에 그어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 [167] 위험한 거래(4)

에이미가 그들에게 걸어왔다. 아마도 시로네와 같은 생각을 한 듯 입가를 가리며 카니스의 약을 올렸다.

“호호호! 설마 탈락한 거야? 하긴, 너희가 그럼 그렇지.”

시로네야 전투에서 이겼으니 앙금이 없을지 몰라도 에이미는 두 사람에게 당한 게 많았다.

당한 건 반드시 갚아준다는 사고방식대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방을 날린 것이었다.

하지만 카니스는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흥, 그러는 너희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 보니 졸업반도 별거 아니군.”

“웃기고 있네! 내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떨어진 사실을 안다는 건 너희도 시험을 봤다는 얘기니까. 만약 너희가 성공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헤매고 있지도 않았겠지. 혹시 너 바보냐?”

“이 자식이! 새파란 후배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그런 후배에게 꼼짝없이 끌려다닌 건 누구더라? 게다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루카스를 말리지 않았다면 넌 죽었을지도 몰라.”

에이미의 눈에 살기가 깃들었다. 어비스 노바에 노출되었을 당시 루카스에게 낙점이 되어 욕을 치를 뻔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분노가 차올랐다.

“이 자식이……!”

시로네가 말릴 틈도 없이 에이미는 카니스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다.

스키마의 힘으로 얼굴을 갈겨주려는 순간 카니스의 뒤편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솟구치더니 시커먼 손톱이 어깨를 타고 넘어왔다.

에이미는 반사적으로 물러섰다. 카니스를 끌어안듯이 보호하고 있는 하비스트가 입가를 찢으며 웃었다.

“키키키! 오랜만이야, 언니. 성격은 여전하군.”

“꺄아악! 저게 뭐야!”

관광객들이 하비스트를 보고 기겁하며 달아났다. 시로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귀족들에게 마법의 이펙트는 생소한 게 아니지만 갑자기 인간 형태의 그림자가 벌떡 일어나는 건 차원이 다른 기괴함이었다.

테스마저 하비스트를 보고서는 넋이 나가 있었다.

“세상에. 그림자가 말을 하잖아? 리안, 너 저런 거 본 적 있어?”

작은 얼굴에 대비되는 넓은 어깨, 범처럼 가느다란 허리. 사람의 형상이지만 팔은 인간보다 두 배는 가늘고 길었다. 손바닥은 방패처럼 커다랬으며 손톱은 검처럼 뾰족했다.

“아니,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시로네는 구면인가 본데.”

하비스트는 손바닥을 넓적하게 벌려서 카니스의 몸통 대부분을 방어하고 있었다. 충격 흡수에 특화된 하비스트 앞에서는 에이미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키키, 피차 접근은 조심하자고. 이런 곳에서 피를 보기는 싫으니까.”

“저게…….”

에이미가 재차 돌진하려는 순간 시로네가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손가락 끝에서 적색의 광자가 압축되더니 당장이라도 쏘아질듯 잔상을 보이며 흔들렸다.

이번에는 하비스트가 침묵을 지켰다. 일전에 자신을 폭사시켰던 레이저라는 기술이었다.

“에이미에게 사과해. 남의 상처를 들추는 건 안 좋은 짓이야.”

“상처?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상처라고? 더군다나 나는 저 여자를 구해 준 사람이야. 하여튼 귀족들의 사고방식이란.”

“그런 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정하는 거야. 남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켰으면 사과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너야말로 언제까지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볼 거야?”

“흥! 온실 속의 화초에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카니스의 도발에 이어서 하비스트가 상체를 거대하게 부풀리며 모두를 위협했다. 동시에 시로네의 레이저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아린은 스피릿 존을 촉수형으로 변화시켜 시로네에게 천천히 내보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정신적인 방해로 레이저를 풀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존이 닿기도 전에 시로네의 앞을 에이미가 막아섰다. 아린이 난감하다는 듯 눈매를 찌푸렸다. 홍안의 능력 앞에서는 대부분의 정신계 마법이 무용지물이었다.

마도 생물체, 레이저, 정신 마법, 자기상 기억.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마법들이 물고 물리며 띠처럼 돌고 있었다. 누구 하나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고 각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긴장감에 테스가 리안의 팔을 붙잡고 우는 시늉을 했다.

“뭐야, 쟤들. 무서워.”

리안의 생각은 테스와 달랐다. 세상 사람들은 마법사들을 두고 기괴하다고 말한다. 결국 상식을 벗어날수록 마법사로서의 정체성은 강화된다는 이야기였다.

리안은 시로네가 그런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잘하고 있구나, 시로네.”

“뭐, 뭐야?”

테스가 황당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마치 변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리안은 대답 없이 마법사들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등 뒤의 직도를 꺼내 들며 말했다.

“어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멀리서부터 달려온 테스가 리안의 등 뒤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그의 입술을 덮으며 말했다.

“제발 눈치 좀 있어라.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으읍! 놔! 시로네! 우읍!”

시로네와 에이미, 카니스와 테스는 리안과 테스의 몸싸움을 황당한 듯이 지켜보았다.

덕분에 전투의 긴장감은 한층 누그러졌고 하비스트도 부풀렸던 상체를 쪼그라뜨렸다.

레이저의 빛이 약해지자 아린의 스피릿 존이 풀렸다. 에이미의 홍안이 원래의 색으로 되돌아왔다.

사실 핏대를 세우며 싸울 일은 아니었다. 에이미가 카니스의 속을 긁었다면 카니스는 그 감정에 하나 더 얹어서 카운터를 먹였을 뿐이다.

“쓸데없는 소모전은 그만두자. 너희하고 싸우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니까.”

카니스가 하비스트를 그림자로 흡수시키며 말했다.

상대방이 먼저 휴전을 제안하자 에이미 또한 전의를 누그러뜨리고 이성을 되찾았다.

긴장이 해소되자 카니스는 이곳에서 시로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그나저나 어때? 실패했는데도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건 케르고 자치 구역에 들어갈 방법을 찾았다는 건가?”

시로네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에이미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왜 그걸 가르쳐 줘야 하지?”

이번만큼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었다. 어떤 의미로는 목숨을 걸고 얻어 낸 정보인 만큼 신뢰할 수 없는 자에게 함부로 발설할 사안이 아니었다.

“너무 경계할 거 없어. 자치 구역에 들어가는 방법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아마도 루프 밀매 루트를 타려는 생각이겠지?”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에이미는 굉장히 놀랐다. 카니스는 프리먼 조직이 루프를 거래하는 창구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굳이 성취와 희생의 방으로 들어가 시험을 치르고 나온 것일까?

생각에 잠겨있는 에이미를 빤히 바라보던 카니스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 궁금하면 내가 알려 줄까?”

“흥! 누가 궁금하데?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거든!”

“아하, 그래? 아린, 어때?”

카니스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잠시 딴생각을 하고 있던 아린이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응? 아, 거짓말이야.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 막 퐁당퐁당 뛰고 있거든.”

“이익……!”

에이미는 분한 표정으로 이를 악물었다. 퐁당퐁당 뛴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초경의 능력자인 아린에게 감정을 숨기는 건 불가능했다.

그 순간 아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다.

시로네 일행의 시선이 아린에게 집중되었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졌다.

카니스가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린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린,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카니스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마법학교를 떠난 이후 장시간 여행을 했고, 어느덧 여비가 떨어져서 벌써 3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자신은 얼마든지 굶어도 되지만 아린은 아니었다. 10년 동안 라둠에서 그녀를 지켰던 관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카니스는 자존심을 굽히고 시로네에게 말했다.

“혹시 너희…… 먹을 것 좀 있냐? 아린이 밥을 못 먹었어. 나는 괜찮으니까 어떻게 안 되겠어?”

시로네는 그제야 카니스의 행색을 살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을 했는지 의복이 허름했고 잠도 산에서 잔 것처럼 흙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케인이 물려준 유산을 전부 빼앗겼다고 그랬지…….’

정신 박동 테스트 이후로 카니스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들에게는 먹고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터였다.

실력은 충분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마법사는 일거리를 찾기가 힘들다. 의뢰인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물론 원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범죄에 관련된 일이었다.

하지만 카니스는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사회와 싸워서는 절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에이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단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우리가 전에 갔던 술집이 있으니까 가자. 거기 국수 맛있어.”

“아니야! 난 정말 괜찮아!”

아린이 손을 저었다. 사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카니스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차마 따라갈 수 없었다.

에이미가 아린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갔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배 속에서 천둥이 치는데. 체력이 있어야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카니스, 너도 따라와.”

“나는 됐어. 아린만 데려가면 돼.”

“시끄럽고, 따라오라면 따라와. 배고픈 후배들에게 선배가 합 한 끼 사주는 건 당연한 거야.”

시로네가 카니스의 등을 떠밀며 말했다.

“그래, 카니스. 일단 들어가자. 어차피 너랑 할 얘기도 있고.”

카니스는 못 이기는 체 따라나섰고 에이미는 용병들을 만났던 술집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여섯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시로네는 카니스와 아린을 리안에게 소개했다. 대마법사의 제자라는 말에 리안은 조금 놀랐지만 시로네에게 졌다는 에이미의 친절한 설명에 내심으로 안도했다.

우선은 배를 채우는 게 급선무였다. 카니스와 아린은 정말로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국수 두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조금 전에 유나의 도시락을 먹었던 시로네 일행은 먹는 모습만 지켜봐도 배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국물까지 싹싹 들이마시는 모습에 시로네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태생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든 그들 또한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를 채운 두 사람이 이제야 살 것 같다는 듯 입맛을 다시자 시로네가 은근히 운을 띄웠다.

“우리도 그렇고 너희도 생각이 복잡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털어놓고 얘기하자. 너희는 여기에 왜 온 거야?”

“카니스는 예전부터 유적에 관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유적 탐사를 하는 중이야.”

“아, 카니스의 꿈이 고고학자였어?”

“쳇, 쓸데없는 말은.”

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카니스는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린에게 그만 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비록 사회성은 떨어지지만 아린 또한 물어본다고 넙죽 대답할 만큼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다. 필요한 정보를 감추면서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이었다.

사실 두 사람이 섬에 들어온 것은 유적 탐사가 아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로네가 필요했다.

“우리도 물어보자. 너희들은 왜 온 거야?”

카니스가 에이미를 가리키며 물었다. 어차피 네 사람의 리더는 시로네겠지만, 그에게는 가급적 원하는 게 있다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에이미도 심리전이라면 보통은 넘었다. 아린의 초경을 피해가면서 사실을 감추는 방법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후후. 당연히 케르고 자치 구역에 가려고 온 거지. 너희처럼 말이야.”

“흥,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흐음, 그러는 너는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에이미는 가식적인 눈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속은 답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알고 있다. 분명 알고 있다고, 이 자식.’

카니스는 루프 밀매 루트가 아닌 시험의 루트를 택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곳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난감하네. 이것들한테 어떻게 정보를 캐내지?’

카니스와 아린은 전에 만났던 용병들과는 달랐다. 게다가 초경이 있는 이상 심리전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고 봐야 했다.

여태까지 듣고만 있던 시로네가 정공법으로 물어왔다.

“카니스,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면 안 돼? 사실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

에이미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결국 명백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럴 바에는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편이 좋았다.

예상과 달리 카니스는 담백하게 받아들였다. 시로네 일행은 절대 눈치 채서는 안 되지만, 사실 카니스와 아린은 시로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좋아. 하지만 대신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뭐든지 물어봐. 아는 거라면 대답해 줄게.”

“너희가 자치 구역으로 가려는 이유. 그 이유가 미로의 시공에 대해 알고 싶기 때문인 거야?”

시로네의 눈이 크게 떠졌다. 미로의 시공은 친한 친구들과 교장선생님 밖에 모르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알았어? 미로에 대해 알아? 아니, 케르고 유적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시로네가 다급하게 물어오자 카니스는 오히려 여유를 부리며 턱을 괴었다.

“글쎄. 적어도 너희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고 봐야겠지.”

시로네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몰두했다. 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었을까? 그것도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다. 카니스의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마도 생물체의 존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케인의 지식이구나.”

## [168] 위험한 거래(5)

“아…….”

시로네의 말을 듣고 에이미도 알아차렸다. 어째서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비스트는 아케인의 모든 기억을 물려받은 마도 생물체였다.

세상을 호령했던 대마법사 빌토르 아케인.

그 사람이라면 케르고 유적에 대해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시로네와 에이미는 눈에 확신을 담아 카니스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카니스의 태도는 여전히 어중간했다.

“흠, 내 생각을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반반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야?”

카니스는 말을 아꼈다.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케르고 유적지에 얽힌 비밀은 시로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에이미가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차피 말해야 할 거면 지금 말해 달란 말이야.”

“이해할 수 없군. 왜 내가 그래야 하지? 설마 밥값 타령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 하지만 다른 이유로도 너는 털어놓을 수밖에 없을걸. 너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협상을 시도할 필요조차 없잖아?”

카니스는 입을 다물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물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던 바였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좋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데? 통행증을 말하는 거야?”

“그런 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정신계 마법을 이용하면 종이만 건네도 돼. 아린의 정신감응 능력은 언어의 영역까지 지배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시로네는 두 사람이 통역관조차 없이 제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쪽 루트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실패했고 그렇기에 너희의 도움을 빌리려는 거야. 그런 의미로 너희와 협상을 하고 싶어.”

에이미는 카니스의 말을 분석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의문이 뻗어 나갔다.

“근데 너는 몇 점 나왔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카니스가 눈을 깜박거렸다. 그러다가 살그머니 시선을 돌리며 대답을 회피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

“어머, 왜? 얼마나 나왔는데? 응?”

“내가 왜 말해줘야 하지? 그렇게 알고 싶다면 그쪽부터 말해 보시지?”

“아니, 너부터 말해 봐. 그러면 나도 말해 줄게.”

“싫어. 너부터 말해.”

시로네가 듣기를 포기하고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밤이 새도록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터였다.

“됐고. 하던 이야기나 계속하자.”

서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황이었는지 에이미와 카니스는 냉큼 입을 다물었다.

상황이 일단락되자 카니스가 전보다 퀭해진 눈으로 말을 이었다.

“어쨌거나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거야. 시험의 루트. 즉 성취와 희생의 방을 네가 통과한다면 그때 다시 나랑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에이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너 또한 통과하지 못해서 이러는 거 아냐? 만약 시로네가 통과한다면 굳이 너를 데리고 들어갈 필요가 없지. 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당장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말을 믿어. 절대로 너희에게 손해 보는 거래는 아닐 거야.”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 봐. 핵심을 밝히지 않더라도 증명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지 않으면 이 거래는 무효야. 목적도 모르고 너에게 이용당할 수는 없으니까.”

카니스는 갈등하는 눈으로 아린을 돌아보았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아린이 승낙하자 할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이렇게 말해 주지. 너희, 미로에 대해 알기 위해 자치 구역에 간다고 했었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가야겠어?”

“응. 우리는 미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그렇다면…… 아마도 내가 가진 정보가 너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정적을 느끼며 시로네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목숨을 구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도대체 자치 구역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일까?

“분명히 말하는데 내 정보가 없이 미로의 시공에 접근한다면 너희들은 100퍼센트에 가까운 확률로 죽을 거야. 하지만 나랑 손을 잡으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한마디로 너희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거야.”

“그……!”

에이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런 협박이 통할 거 같아? 이건 증명이 아니야. 겁을 주는 것뿐이잖아. 프리먼 조직도 들락거렸던 곳이야. 아무리 위험한 곳이어도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말했잖아. 자치 지구에는 별다른 위험이 없어. 문제는 시험의 루트를 통해서 들어갈 경우야. 그리고 시로네.”

카니스는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네가 희생과 성취의 방에서 시도하려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어. 너, 미로의 시공에서 이모탈 펑션을 개방할 생각이지?”

시로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침묵을 지키던 시로네가 한참 후에야 말을 털어놓았다.

“맞아. 성취와 희생의 방을 처음 보았을 때 구조 자체가 독특했어. 전사의 위력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여덟 방향으로 미로의 시공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단지 장식이라고 하기에 그곳의 분위기는 너무 진지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한 거야. 천사의 눈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무력 같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카니스가 옳은 판단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이 맞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응? 너는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말했잖아, 반반이라고. 하지만 나도 이모탈 펑션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카니스, 네가 원하는 건 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다시 하자. 여기까지 털어놓은 것도 네가 언로커이기 때문이야. 일말의 가능성을 믿고 꽤나 많은 정보를 제공한 거라고.”

“으음, 어떡할까?”

시로네와 눈이 마주친 에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거나 카니스를 만나기 전부터 시험의 관문을 도전해보기로 한 이상 거래를 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은 없었다.

에이미가 상황을 정리하듯 지시를 내렸다.

“좋아. 그럼 시로네는 성취와 희생의 방으로 들어가. 우리는 통행증을 이용해서 자치 구역으로 먼저 가 있을게. 여기까지는 문제없는 거지?”

에이미는 다시 한 번 확인을 요구했다. 그만큼 카니스가 꺼내 든 카드가 강렬하다는 방증이었다.

“문제없어. 어차피 밀매 루트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일 뿐이야. 1명만 미로의 시공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돼.”

에이미는 골이 지끈거렸다.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은데 가진 정보가 워낙에 없으니 모든 게 흐릿했다.

“후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시로네가 합격하면 알 수 있겠지. 그럼 슬슬 출발하자. 지금 걸어가면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거야.”

술집을 벗어난 일행은 두 패로 나뉘었다. 에이미 일행과 카니스 일행이 합쳐졌고 시로네는 홀로 제단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그럼 시로네, 잘하고 와.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에이미는 걱정스러웠다. 일전에도 이모탈 펑션을 무리하게 개방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 버리지 않았던가?

“응. 무리하지 않을 거야. 해 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할게. 에이미야말로 조심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목숨에 대한 얘기까지 나온 이상 노파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에이미는 고개를 돌려 파티의 스펙트럼을 확인했다. 강한 근력의 리안, 민첩한 테스, 게다가 방어에 특화된 카니스와 정신 계열의 아린까지 합류했다.

적일 때는 미워 죽을 것 같던 두 사람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몫을 할 마법사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한편으로는 든든한 기분도 들었다.

“우리야 뭐…… 걱정할 일은 없을 거 같아.”

“하하! 그렇기는 하네. 전력이 보강돼서 다행이야.”

에이미는 웃어넘길 수 없었다. 시로네 또한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듯했다.

시로네가 자리를 떠나 제단으로 향하자 에이미도 친구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린, 우리도 가자.”

에이미 일행이 거리를 벌리자 카니스가 아린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 시로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아린? 왜 그래?”

“저기, 카니스……. 혹시 시로네는 금발이야?”

아린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은 보통의 인간과 다르다. 특정 사물의 형태와 이름을 결합시키지 못하기에 무엇이 진짜 형태인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금발인 시로네를 금발로 인지한다는 것은 확실히 특이한 상황이었다.

“시로네? 응, 금발이야. 왜? 어떻게 보이는데?”

아린은 눈을 깜박이다가 몸을 돌렸다.

“아니, 딱히 이상한 건 아니야. 그만 가자.”

카니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에이미를 뒤쫓았다. 아린 또한 걸음을 옮기며 묵묵히 생각에 담겼다.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아, 그렇구나. 저 아이는…….’

아린은 한참이나 시로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 \* \*

시로네는 서쪽 제단에 도착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눈으로 노려보는 원주민에게 다가가 암호를 말했다.

“케르티아, 로 호이마. 아크라시아, 위드미아 벤젠.”

고개를 끄덕인 원주민은 기관 장치를 작동시켜 문을 열어 주었다. 시커먼 입구로 몸을 들이밀자 횃불이 켜진 나선형의 계단이 나왔다.

시로네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전에 와 봤던 곳이지만 혼자여서인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계단을 내려가자 예의 통로가 나왔다. 원주민들이 무언가 말을 건네며 시로네를 안내했다.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눈치로 알 수 있었다. 어차피 의례를 위한 규율 같은 것이었기에 따로 소통을 더 할 필요는 없었다.

통로의 끝에 설치된 철문을 넘어가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넓적한 제단에 팔각형으로 떠 있는 8개의 구체. 천사의 눈동자라 불리는 미로의 시공이 시로네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지기는 바뀌었지만 얼굴에 백색 문신을 한 남자는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아닐 지도 모른다. 케르고인의 얼굴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었다.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성취와 희생의 방이다. 천사의 여덟 눈동자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케르고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미로의 시공을 통과해야 한다.”

남자의 설명이 끝나기를 기다린 시로네는 제단으로 올라갔다. 이모탈 펑션을 시험해 보기 전에 레이저로 미로의 시공을 타격해볼 생각이었다.

시로네는 마음껏 질러 보기로 결심하고 눈앞에 레이저를 집중시켰다. 섬뜩한 붉은 빛을 발하자 무뚝뚝한 백색 문신의 남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로네는 사력을 다해 레이저를 쏘았다. 평소보다 미로의 시공에 숫자가 뜨는 시간이 늦었다. 아마도 계속해서 충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듯했다.

마침내 미로의 시공에 숫자가 떴다. 처음 시로네가 확인한 숫자는 고작 200이었다. 그러다가 초 단위로 숫자가 바뀌면서 마침내 자릿수가 올라갔다.

400에서 782. 1,311에서 2,643. 급기야는 4,874를 지나 6,822까지 치솟았다.

희망을 발견한 시로네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숫자가 초기화되면서 다시 72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미로의 시공자체에 시간제한이 걸려 있는 듯했다. 집계의 사이클이 두 바퀴를 돌자 결국 최대치의 점수인 6,822가 마지막으로 떠올랐다.

미로의 시공이 적색 광채를 뿜으며 방안 곳곳에 시로네의 불합격 판정을 알렸다.

“후우.”

시로네는 허탈한 듯 숨을 내쉬었다. 레이저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미로는 에너지 누적에 대한 꼼수조차 예상하고 제약을 걸어놓은 게 분명했다.

가장 분한 건 시로네가 기록한 개인 최고 점수임에도 합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시로네는 문득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카니스의 말이 떠올랐다. 대체 교장선생님은 어디까지 예상하고 유적 탐사를 허락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백색 문신의 남자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실력을 입증하고 싶다면 미로의 시공을 통과해라.”

시로네는 두려움을 털어 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미 친구들도 자치 지구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 아니던가?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남자는 팔짱을 낀 채로 묵묵히 기다렸다. 허락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시로네는 제단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이모탈 펑션.

이 방법으로 안 된다면 더 이상은 무리다. 카니스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깔끔하게 포기할 생각이었다.

“후우.”

시로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피릿 존으로 들어갔다. 방어형의 존이 확장되면서 여덟 방향에 떠 있는 미로의 시공을 집어삼켰다.

마지막으로 스피릿 존의 테두리를 점검한 시로네는 눈을 치켜뜨며 이모탈 펑션을 개방했다.

“허억!”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력이 흘러들더니 모조리 미로의 시공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있었다.

‘이, 이런……!’

정신력의 흡수 속도가 엄청났다.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순식간에 존이 쪼그라들었을 터였다. 하지만 흡수되는 양만큼이나 무한의 영역에서 힘이 밀려들면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시로네는 통제가 불가능한 지금의 상황이 두려웠다. 마치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이쪽과 저쪽의 힘을 이어주는 하나의 문이 되어 버린 기분이었다.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상태라면 전과 똑같이 의식이 분해되어 버리고 만다. 미로의 의지로 재조립되는 행운은 다시는 없을 터였다.

“으으으으으!”

시로네는 방어형의 프레임을 최대치로 구조해 존을 와짝 당겼다. 팽팽한 지탱감이 느껴졌지만 정신적 방출이 워낙에 강했기에 형태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거기에서 다시 금강불괴로 들어가 필사적으로 버텼다.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고, 이대로 흩어져 버리지 않기만을 기도했다.

그 순간 미로의 시공 8개가 찬란하게 빛났다. 8줄기의 섬광이 동시에 시로네 쪽으로 쏘아지더니 그를 중심으로 백색의 광구로 커지면서 제단을 완전히 뒤덮었다.

“허어어어억!”

시로네는 강렬한 박탈감에 전율했다. 마치 이모탈 펑션을 처음 열었을 때와 흡사한 기분이었다.

“오, 오오오오!”

원주민들은 빛에 휩싸인 시로네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시로네의 몸이 천장까지 떠올라 있었다.

마치 환상이라도 펼쳐지는 듯 눈꺼풀은 깜박이지 않았고 무엇을 보는 것인지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리고 있었다.

무한에 가까운 정신을 빨아들인 미로의 시공은 다시 그 정신력을 이용해 시로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8개의 구체가 한계치까지 힘을 머금어야만 보여 줄 수 있는 어떤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원주민들이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다.

“라! 앙케! 라!”

그 순간 눈이 멀어 버릴 정도의 광채가 폭발하면서 제단이 있는 방을 완전히 채웠다.

원주민들이 고개를 돌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다시 빛이 사라졌을 때, 시로네는 어느새 제단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헉! 허억!”

시로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존재하는 곳이 맞는 것일까? 미로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고 언로커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환상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이모탈 펑션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시로네는 문득 생각에서 빠져나와 고개를 돌렸다. 제단으로 몰려든 모든 원주민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왜, 왜들 이러세요?”

시로네는 황당한 목소리로 그들을 말렸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복종의 자세만을 취하고 있었다.

백색 문신의 남자가 시로네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라의 의지를 전하시옵소서, 신의 사자시여.”

(7권 끝)

=======================================

# Volume 8

=======================================

## [169] 1. 케르고 자치 구역 (1)

시로네를 성취와 희생의 방으로 보낸 에이미 일행은 동쪽 제단에 도착했다.

지스가 통행증을 보여 주자 원주민이 석문을 열어 주었다.

광차가 도착했다는 말을 지스가 통역했다.

에이미 일행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카니스와 아린은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린의 정신감응 능력 중의 하나인 텔레파시로 원주민의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광차를 운용하느라 지하는 깊지 않았다.

화산재로 뒤덮인 흙을 따라 철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광차를 대기시킨 원주민이 껌을 씹으며 반겼다.

온화한 표정이었으나 케르고 특유의 강렬한 눈빛은 여전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한 듯 이질적이었다.

섬뜩한 기분을 느낀 건 지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호객의 프로답게 웃는 얼굴로 다가갔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자 원주민이 받아 주었다.

“루프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새로 연락책이 된 지스예요.”

“지스? 이런 일을 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케르고인은 한눈에 기질을 파악했다. 루프 밀매는 경우에 따라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반면에 지스는 연락책치고는 순해 보였다.

“팔코아는 어디 있어? 항상 그가 직접 와서 가져갔는데.”

“아,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다고? 사망?”

손날로 목을 치는 시늉을 하자 지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주민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팔코아는 강하다. 또한 케르고의 성향과 닮은 구석이 있는 사내였다. 그런 자를 대신해 들어온 연락책이 지스라는 것에 의심이 들었다.

“통행증은 가지고 있겠지?”

“물론이죠. 자, 여기 봐요.”

미소가 사라진 원주민이 통행증을 낚아챘다.

에이미 일행은 절로 긴장되었다. 통행증만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경계심이 심했다.

게다가 자신들은 루프를 사러 온 게 아니었다.

팔코아는 죽었고 더 이상의 루프 거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을 원주민이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뻔했다.

통행증은 진짜였다.

원주민의 의심은 눈에 보이는 증거 앞에서 별다른 힘을 내지 못했다.

원주민은 일행을 광차로 안내했다.

여섯 명을 태우고도 남을 만큼 큰 광차였다. 지렛대의 힘으로 광차를 밀어내는 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주민은 시소를 붙잡고 광차를 움직였다.

원래는 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 리안이 도와주려고 했으나 그가 눈을 부라리는 바람에 머쓱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광차를 움직이는 완력은 확실히 대단했다. 하지만 여기서 토아 산까지는 20킬로미터가 넘는다. 도착지까지 힘을 쓰다가는 탈진하고 말 터였다.

철로가 내리막으로 접어들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배 속의 공기가 일제히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평탄한 길이 나왔으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세하게 기울기를 조절하여 중력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확실히 이런 원리라면 마차보다 빠르게 자치 구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으으으! 이거 엄청나게 빠르잖아.”

“그러게. 잘 잡고 있어야겠어.”

광차의 흔들림이 심했다.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뒤집어지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다.

에이미 일행은 슬그머니 주저앉았다. 그러자 원주민이 입술을 이기죽거리며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렸다.

소음이 심해서 들을 수는 없었지만 좋은 말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광차가 커브를 틀면서 한쪽 바퀴가 뜨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는 그리 급한 커브가 아니었으나 가속도가 너무 빠른 탓이었다.

아린은 광차의 턱을 붙잡고 반대편 손으로는 카니스의 옷깃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직선 루트에 들어설 즈음 지스에게 물었다.

“언제쯤 도착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20분은 더 걸릴 거 같은데. 나도 여기는 처음이라서.”

“하지만 이야기 정도는 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아까 얘기 들었잖아. 이곳은 팔코아가 왕래할 정도로 비밀스러운 루트야. 하바리들은 얼씬도 못할뿐더러 간부들조차 별로 아는 게 없다고.”

아린은 대략 20분 전후를 계산했다. 토아 산에 도착하기 전에 일행에게 능력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다.

텔레파시 마법은 도청과 자백의 경계선에 있다.

정신파로 지배하면 속마음까지 침투할 수 있으나 능력을 들키는 단점이 있었다.

정신 계열 마법의 특성상 능력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계를 하기 때문에 효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미약한 정신파를 보내 수면 위로 떠오른 생각을 도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스피릿 존을 뻗어 원주민의 그림자로 침투했다. 그리고 5개의 촉수를 추가로 뻗어서 지스를 제외한 일행에게 연결시켰다.

준비를 끝낸 아린이 원주민에게 물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리죠?”

케르고어가 들리자 원주민은 아린을 돌아보았다. 마주 보는 상황이었다면 입 모양과 발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겠지만 그런 실수를 할 아린이 아니었다. 광차의 소음이나 빠른 속도감도 정신을 분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다. 하지만 거기서 더 들어가야 한다. 자치 구역 쪽은 경사가 심해서 광차로는 갈 수 없어.”

에이미 일행은 원주민의 언어가 통역이 되자 깜짝 놀랐다. 하지만 표정이 변하는 사람은 없었다. 감정을 얼굴에 드러낼 만큼 미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스의 통역을 들은 그들은 통역 솜씨가 그리 뛰어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아린의 텔레파시 능력이 뛰어난 것일지도 모른다.

-아린, 네가 한 거야?

에이미가 아린을 지목한 이유는 조금 전에 저절로 홍안이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스피릿 존이 침투하는 느낌을 표현하자면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정도가 고작이었다.

만약 자기상 기억이 아니었다면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각을 도청당했을 것이다.

-응. 내가 정신 채널을 연결했어.

-설마 내 마음을 읽는 거야?

아린이 아주 사적인 속마음까지 읽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했다.

다행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정신 계열의 대마법사라면 졸업반 수준은 손쉽게 지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상 기억은 잡아낼 것이다.

아린이 에이미를 어려워하는 이유에는 홍안의 소유자라는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건 일종의 터널 같은 거야. 정신 계열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12단계의 심층으로 분류하는데 이건 11단계의 표층 심리에 해당하는 거야. 최종 필터를 거쳐서 나온 생각만 전달되기 때문에 속마음을 알 수는 없어.

-그럼 12단계는 뭐야?

-그건 표층보다 위쪽에 있는 이성의 영역이야. 억지 미소나 가식 같은 것들. 어쨌든 강하게 거부하면 채널은 끊어질 거야. 물론 싫다고 하면 내가 알아서 끊겠지만.

-아니야. 표층 심리만 읽는다면야 굉장히 편한 능력이네. 이 상태를 유지하자.

-고마워. 지스는 제외했어. 현재 다른 사람들의 송신 채널은 막아 놓은 상태야. 이제부터 열게. 대신 내색하면 안 돼.

아린이 송신 채널을 열자 리안과 테스의 생각이 흘러들었다.

-……나도 말하고 싶다니까! 왜 나는 말 못 하게……! 어라? 이제 들리네.

-나도. 테스, 내 목소리 들려?

-어. 들린다, 들려.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에이미는 아린의 능력이 얼마나 편한 기능인지 깨달았다.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정신 채널에서는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마법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마법이라는 것도 흥미로웠다.

암흑 마법은 비주류다. 뛰어난 응용력이 있는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어둠의 속성은 빛에 약하다.

게다가 정신 계열은 자신보다 정신력이 높은 상대에게는 시도하기가 까다로운 마법이었다.

하지만 아케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카니스와 아린은 암흑 마법으로 대마법사에 오른 아케인의 직계 제자들이었다.

‘멋지다. 이건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되겠어. 아차!’

에이미는 아린의 눈치를 살폈다. 감정이 격앙되다 보니 속마음이 표층까지 올라오고 말았다.

아린이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에이미의 계산적인 생각에도 그저 기뻤다.

사람의 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욕망에 치중하고 이기적이다.

평생 그런 감정을 읽으며 살아왔던 아린에게 호의가 담긴 속마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쨌거나 텔레파시 마법은 위급한 상황이나 심지어는 전투 중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카니스와 아린의 합류가 더욱 든든한 이유였다.

-호호호! 이거 되게 재밌다! 에이미, 저 원주민 짜증 나지 않아? 아까 은근슬쩍 내 가슴골을 훔쳐보더라니까?

-그랬나? 나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슬슬 배가 고픈데. 가면 먹을 것 좀 있으려나?

정신 채널이 잡담과 험담, 투덜거림으로 채워졌다.

마법에 생소한 리안과 테스는 필요 없는 생각까지 쥐어짜 내며 어떻게든 채널을 이용하려 들었다.

이런 생각은 엄밀히 말해 생각이라 부를 수 없다. 환경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시끄러워 죽겠네. 아린, 볼륨 좀 줄여. 아니면 그냥 꺼 버리든가.

카니스가 말하자 정신 채널에 오가는 목소리의 볼륨이 줄어들었다. 마치 귓가에 대고 소곤소곤하는 느낌이었다.

집중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도 않았기에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다.

한창 수다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테스가 반기를 들었다.

-뭐야, 왜 소리를 줄여? 잘 안 들리잖아. 빨리 키워 줘.

-전략적인 얘기 아니면 정신 채널 이용하지 마. 여기가 여자들 수다방인 줄 알아? 그리고 아린의 능력이야. 네가 뭔데 소리를 키우라 마라야.

테스는 쳇 하고 혀를 찼다. 그래도 표정이 변하지 않은 걸 보니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잡담이 지나가자 아린은 능력을 선보인 이유를 밝혔다.

-알다시피 텔레파시 마법이라는 거야. 지스라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어. 외부인이라서 내 능력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고, 설령 신뢰할 수 있다고 해도 내 능력에 반응하면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스는 원주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티만 내지 않는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듯했다.

-그런데 이거 진짜 편한 능력이다.

-흥, 동맹의 보상 중의 하나로 알아 둬. 시로네가 시험의 관문을 통과했는지는 모르지만 파티를 맺게 된다면 아린의 능력을 이용하는 건 필수니까.

파트너를 자랑하는 카니스의 모습이 고까웠지만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아린이 텔레파시를 시전한 이유는 너희에게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어서야.

-밝히지 않은 사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에이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시로네의 합격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임시 동맹 관계에서 뒤늦게 변수가 생긴다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별건 아니야. 일부러 감춘 게 아니라 딱히 알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어쨌거나 얘기를 하자면, 아린과 내가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려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너희의 예상과 다르게 케르고의 원주민들은 외부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적대적이지.

확실히 별일은 아니었다. 그들이 박수를 치며 환대해 주리란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적대적일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자치 정부와 케르고 부족은 공생 관계를 선택했고 유적지에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원주민들이 꽤나 많았다.

-그들이 외부인에게 적대적인 이유는 갈리앙트 정부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100년 전에 섬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상당한 보수를 약속했어. 원주민들도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협상을 했지.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관광사업이야. 그거 알아, 처음에는 원주민 자치 구역도 개방되어 있었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교류가 단절되고 말았지.

-흐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네. 우리 아빠도 식민지에 처음 들어갈 때 반발이 심했거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 부분도 있지. 하지만 갈리앙트 정부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 [170] 1. 케르고 자치 구역 (2)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그래?

-관광사업으로 큰돈을 벌어들인 갈리앙트 정부는 더욱 욕심을 부렸어.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고안해 냈지. 바로 인간 관광이야.

정신 채널에 적막이 흘렀다.

인간 관광이라는 말에서 모두는 예상했다.

특히 테스는 예상 정도가 아니었다. 정치학을 배운 그녀는 갈리앙트 정부와 케르고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했구나.

-그래. 갈리앙트 정부는 케르고 유적, 문화를 넘어서 케르고인을 관광 상품으로 취급한 거야. 물론 그 사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훨씬 후의 일이야. 처음에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원주민을 세워 뒀다고 하더군. 그러다가 소유욕이 발동한 거야. 인간 사냥으로 이어졌지. 용병들이 소년·소녀들을 붙잡아서 비싼 값에 귀족에게 팔았어.

-전쟁이 안 일어난 게 다행이네.

-문명에 뒤처진 자들의 숙명이지. 물론 케르고의 무력은 약하지 않아. 적어도 갈리앙트 정부보다 약하지는 않지. 하지만 정치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어. 아이들이 잡혀가고 있고 그렇다면 범인은 갈리앙트 정부가 분명한데, 증거가 없는 거야. 그 증거를 없애는 데 상당한 돈을 썼겠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일 정도로 인간 사냥이 심각했다더군. 속수무책이었어. 심증만으로 싸움을 걸자니 관광 자본에 의지하는 원주민들은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결국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 유적지를 개방하는 대신 자치 지구의 출입을 봉쇄한 거야. 그렇게 그들은 문을 닫아 버렸고 지금에까지 오게 된 거지.

에이미는 부족의 아들딸들이 귀족에게 팔려 갔다는 걸 알면서도 유적지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 케르고의 애환이 절절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은 위험하게 변했다. 그 사실만이 중요했다.

카니스가 말을 꺼낸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원주민 중에도 악당은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놈들이 있기에 루프가 밀매되는 거니까. 어쨌든 자치 구역에 있는 원주민은 우리를 좋게 보지 않을 거야.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

-그렇다면 시로네도 위험한 거 아냐?

-아니, 그럴 일은 없어. 케르고가 유적지를 개방한 첫 번째 이유는 돈이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거든. 그들에게 성취와 희생의 방의 의미는 남달라. 케르고는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구를 기다리는데?

-글쎄. 천사……일까?

-천사?

에이미가 되물었으나 카니스의 대답은 없었다.

아린은 시간이 됐음을 확인하고 정신 채널에 공표했다.

-미안해. 정신력을 아껴 두고 싶어서 채널을 닫을게. 앞으로 다시 접속이 되어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겠지.

텔레파시도 마법이기 때문에 정신력을 소모한다. 특히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은 파이어 월처럼 지속적으로 정신을 갉아먹었다.

정신 채널이 닫히자 에이미는 정면을 바라보았다. 청각이 열리면서 철로의 울음소리가 고막을 채웠다.

광차가 동굴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

도착한 곳은 지하 도시였다.

도식적인 멋은 없지만 개미굴처럼 갈라진 터널과, 터널의 접점마다 확장된 광장은 자연과의 공생에서 얻은 놀라운 성과였다.

에이미는 관광객으로 돌아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설레는 마음도 잠시, 그녀의 눈동자가 당혹감에 흔들렸다.

케르고의 삶은 풍경과 동떨어져 있었다. 모두가 굶주렸고 비쩍 말라 있었다. 케르고인이 외부인에게 적대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예상 밖이었다.

전쟁 난민과도 같은 노인들이 터널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걸을 수 없는 노인들은 토벽에 기대어 자식이 맡겨 놓은 자식을 안고 눈을 감았다.

살풍경이 자아내는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이곳은 개미굴이다. 그리고 저들은 개미였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노인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한 걸음을 더해 가며 멀어지고, 구석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들이 나무껍질을 엮어 소쿠리를 만들고 있었다.

“여기가 정말 케르고 자치 구역이란 말이야?”

에이미의 물음에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유적지라는 값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부족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카니스는 이름 모를 분노를 느끼며 아린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지옥이라 불리는 라둠에서의 삶을.

두 사람은 굶는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저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들이었다.

“어이, 이쪽으로 와라.”

광차를 운전한 원주민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외부인에게 지금의 광경을 보이고 싶지 않은 표정이 역력했다.

급류처럼 휘어지는 길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막혀 있는 터널이었다. 벽에 걸린 횃불 하나만이 주위를 밝히고 있었다.

에이미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다. 먼 거리를 우회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란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모를 듯했다.

원주민은 한 남자의 앞으로 에이미 일행을 데리고 갔다.

팔짱을 끼고 입을 굳게 다문 남자는 이것이 진짜 케르고인이라고 주장하는 듯 상상과 일치하는 외모였다.

상체의 근육이 리안보다 발달했고 얼굴에는 시커먼 문신을 새겼다. 양쪽 귀에는 맹수의 송곳니로 만든 귀걸이를 차고 있었다.

지스가 말을 걸자 그는 자신을 마하투라고 소개했다.

에이미는 일전에 전사의 후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하투라는 발음이 있다는 걸 떠올렸다.

이름이 전사인 마하투는 실제로도 전사였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마하투야. 루프를 기르고 신전에 납품하는 사람이래.”

에이미는 흑색 문신이 루프를 관리하는 자들의 색상일 것이라 짐작했다. 백색이 의식을 집행하는 자라면 흑색은 의식을 준비하는 자가 아닌가 싶었다.

아린이 텔레파시를 시도하지 않았기에 에이미 일행은 지스가 통역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테스는 옳은 판단이라고 여겼다. 마하투의 기질을 보건대 보통의 강자가 아니다. 스키마의 감각계라면 텔레파시를 감지할 위험이 있었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하투의 말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다.

에이미가 돌아보자 아린이 미소를 지었다.

-결국은 시도한 거야? 저 사람 꽤 강해 보이는데. 너 보기와 다르게 깡이 세구나.

-아니. 마하투에게 텔레파시를 시전한 게 아니야.

-어라? 그럼 어떻게 통역이 되는 거지?

아린은 살그머니 지스를 가리켰다.

에이미는 그제야 깨달았다. 마하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지스에게 텔레파시를 시전한 것이다.

표층 심리의 언어만 도청할 생각이라면 굳이 화자에게 접촉할 필요가 없다. 아린의 능력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이었다.

“팔코아가 죽었다고?”

“그래. 프리먼 조직은 루프를 구매하지 않을 거야. 조만간 섬을 떠날 생각이거든.”

지스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총책임자를 만났으니 사실을 감출 방도가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마하투의 안색이 안 좋아졌다. 고까운 시선으로 에이미 일행을 쳐다본 그가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저들은 뭐지?”

“아, 루프를 사려는 건 아니고, 이곳에 일이 있어서 들어온 거야.”

“일? 루프 거래를 제외하면 외부인은 이곳에 출입할 수 없다는 걸 모르나?”

“그거야 알지만, 어쨌든 거래 철회는 알려야 하잖아. 그리고 여기 통행증도……! 어이쿠!”

마하투는 지스를 떠밀고 걸어왔다. 앙다문 턱이 실룩거리고 눈에서는 불이라도 튀어나올 듯했다.

일행을 살펴보던 그는 대화의 상대로 에이미를 점찍었다. 리더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만이 도발적인 눈을 치켜뜨고 있었다.

“프리먼 조직에서 보냈다고? 그렇다면 조직원인가?”

지스가 달려와 통역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무를 다하는 것을 보면 책임감은 보통이 넘었다.

물론 에이미는 아린을 통해 말을 이해한 상태였다. 그러나 밝힐 수는 없었기에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프리먼과는 잘 아는 사이야.”

“얼마나 잘 알지? 생명을 걸 수 있는 사이인가?”

“물론이지.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사실 생명을 걸고 싸웠으니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잔금을 대신 치를 수도 있겠군.”

“잔금? 무슨 잔금?”

“팔코아는 얼마 전 선금만 내고 루프 8킬로그램을 가져갔다. 거기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못했어.”

팔코아의 얼굴을 떠올린 에이미는 코웃음을 쳤다. 허세는 있는 대로 떨더니 쫀쫀하게 외상 거래나 하고 있었다니.

어쨌거나 받을 돈이 있다 하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생명은 걸어도 돈을 빌려줄 사이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얼마나 밀렸는데?”

“1만 골드.”

“뭐? 1만?”

에이미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다. 통역을 한 지스도 단위를 착각했는지 헷갈리는 눈치였다.

하지만 에이미는 아린의 텔레파시를 통해 1만 골드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고작해야 나무뿌리 8킬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만 골드라니. 아니, 선금을 치렀다고 했으니 최소 1만 골드 이상이라는 얘기였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모르긴 해도 팔코아는 5년 동안 거금을 주고 루프를 구입해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케르고인의 생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루프 8킬로그램만 팔면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1년 동안 배 터지게 먹여 살릴 수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지스가 마하투를 설득했다.

“잔금에 관한 것은 조직에 돌아가서 보고하겠어. 루프를 되돌려주든 잔금을 치르든 알아서 해 줄 거야.”

확신이 서지 않는 지스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동의를 구했다.

테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예를 중시하는 마르샤와 프리먼이라면 반드시 잔금을 지불할 것이다.

그녀의 응원에 힘을 얻은 지스가 당당하게 말했다.

“자, 이제 됐지? 잔금은 나중에 낼 테니까 일단은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 줘.”

“이해가 안 되는군. 너희는 그럼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온 거지?”

에이미가 말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 성취와 희생의 방에 들어갔거든. 아마 조만간 이곳으로 올 거야.”

그녀의 말투는 전보다 까칠했다. 거액을 벌면서도 동족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는 모습에서 마하투나 팔코아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성취와 희생의 방이라고?”

마하투는 일행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외모가 아닌 기질을 평가한 그가 조롱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꿈도 크군. 포기하고 돌아가. 네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흥!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뻔하지. 너 같은 애송이들을 부르려고 세운 제단이 아니다. 수많은 얼치기들이 케르고 유적을 찾아오지. 루프를 사기 위해, 황금을 얻기 위해. 친구를 제단에 보내고 너희가 와서 우기면 허락할 줄 알았나? 잔머리나 굴리는 수준에서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해.”

“당신이라고 뭐 잘난 줄 알아? 이곳에서 밀매된 루프로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됐는지 생각은 해 봤어?”

“루프는 신성한 물품이다. 그걸 마약으로 남용하는 건 너희야. 그리고 어리석은 외부인의 사정 따위 내가 알 필요도 없지. 너희는 언제나 그랬다. 우리의 것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뺏어 가려고 했지. 하지만 여기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친구가 성취와 희생의 방을 통과했는지 알기 전까지는.”

“너희 실력으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어. 이곳에 온 솔직한 목적을 말해라.”

광차를 운전했던 원주민이 말했다.

“어쩌면 도둑일 수도 있지. 금을 훔치려는.”

원주민의 표정에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는 없었다. 루프 거래가 아니라면 에이미 일행은 그가 가장 증오하는 외부인, 그것도 귀족일 뿐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군. 더더욱 들여보내서는 안 되겠어.”

“저것들의 몸을 수색해 보는 건 어떨까? 무기 같은 걸 숨겨서 들어왔다면 부락민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마하투는 비록 적이라도 여자의 몸을 만지고 싶지는 않았다. 전사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함구하는 이유는 동료가 말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 [171] 1. 케르고 자치 구역 (3)

외부인들은 갖은 변명과 핑계를 일삼으며 케르고를 짓밟았다. 검문검색이라는 명목으로 순결을 잃은 여성도 부지기수였다. 동료의 증오심이 아무리 엇나가도 외부인의 편을 들기란 무리였다.

“지금부터 검사를 시작하겠다. 너부터 이리 와서 팔을 들어.”

에이미는 거절과 경계를 동시에 담아 자리를 지켰다.

만약 남자가 고수가 아니었다면 모욕을 당한 순간 배를 올리쳤겠지만 살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전투가 벌어진다면 소란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 저지르기에는 장소가 좋지 않았다.

“보고 있자니 너무하는군.”

리안이 에이미의 앞을 가로막았다.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야 에이미가 낫겠지만 상대방이 여자의 수치심을 건드릴 생각이라면 자신이 나서는 게 옳았다.

“팔코아는 죽었어도 프리먼의 조직은 건재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프리먼의 위세를 빌린 리안의 전략은 재치가 있었다. 에이미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케르고인은 예상보다 훨씬 호전적이었다.

역린을 건드린 듯 마하투의 얼굴이 붉어졌다.

“도전인가? 얼마든지 덤벼라. 케르고인은 도망치지 않는다.”

-모두 물러서. 마하투의 정신이 집중되고 있어.

아린이 정신 채널을 통해 알렸다.

말이 끝날 시점에는 모두가 느꼈다. 둔감한 리안조차 위화감을 간파할 정도의 투기였다.

에이미는 스피릿 존을 겨누었다. 마하투의 투기가 어디까지 치솟는지에 따라 전투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뿌우우우우우!

그때 동굴 저편에서 뿔 나팔 소리가 들렸다.

구불구불한 터널 안쪽까지 들린다면 얼마나 큰 소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팔 소리가 동굴 전체로 퍼져 나가자 마하투는 놀란 눈으로 입구를 쳐다보았다.

동료의 반응은 그보다 더 심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떨고 있었다.

“마하투, 이건 진곡의 나팔이야. 대체 어떻게 된…….”

동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하투가 몸을 날렸다.

“제길! 어째서 진곡의 나팔이! 전쟁이라도 터졌단 말인가?”

진곡의 나팔은 케르고 부족이 설정한 최고 등급의 경계경보였다. 이 소리를 듣는 즉시 모든 부족원은 소리의 근원지로 집결해야만 한다. 어떤 계층이든 예외는 없었고 불참할 경우 징벌을 받게 된다.

원주민이 사라지자 에이미 일행도 혼란에 빠졌다.

“뭐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인데?”

“일단 가 보자. 막다른 곳에 있는 건 위험하니까.”

에이미 일행은 동굴을 벗어나 소리가 들리는 곳에 도착했다.

7개의 터널이 중앙에서 만나는 거대한 광장이었다.

원주민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숫자가 많아서 무슨 일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웅성거리는 소음이 합쳐져 말소리를 전하기 힘들었다. 정신 채널을 기대해 봤지만 아린은 단상만 쳐다보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우리를 구원할 신의 사자가 오셨도다!”

단상의 노인이 소리쳤다. 그러자 족히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며 한목소리를 냈다.

“신의 사자를 맞이합니다.”

마치 세상이 꺼지는 듯 인파가 주저앉았다. 단상까지 시야가 트였고 노인의 앞에 서 있는 시로네가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던 시로네의 눈이 에이미와 마주쳤다. 불과 2시간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만 황당한 상황을 너무 많이 겪었기에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

“에이미.”

신의 사자를 외치던 자들이 소리를 죽였다. 정적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나가고, 몇몇 사람이 에이미를 쳐다보았다.

그중에는 마하투도 포함되어 있었다. 에이미는 그의 얼굴이 당혹감에 물드는 모습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시로네.”

원주민의 시선이 다시 시로네에게 향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시로네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했다.

“에이미,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시로네를 보며 에이미는 눈썹을 긁적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난들 알겠니?

@

시로네가 걸음을 옮기자 인파가 대나무 쪼개지듯 갈라졌다. 절을 하는 자세에서도 일사불란하다는 것은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시로네의 얼굴은 초췌했다. 2시간 동안 모르는 언어에 노출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보통은 말이 안 통하면 대화를 포기하기 마련이나 제단의 집행자들은 한시도 시로네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절을 하는 바람에 결국 한마디도 안 하고 왔어. 여기 사람들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몰라. 우리도 이제 왔단 말이야. 시험에는 합격한 거야?”

“어, 그런 거 같기는 한데, 문제가 좀 있어.”

“문제라니? 무슨 문제?”

미로의 시공에서 보았던 장면을 설명하려면 말이 장황해진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고 상황도 좋지 않았다.

뿔 나팔을 불었던 노인이 시로네에게 다가왔다.

노인의 뒤편으로 마하투가 따라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신의 사자라면 미로의 시공 8개를 전부 개방시켰다는 얘기인데,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달리 솜털이 보송한 소년이라는 게 충격적이었다.

-신의 사자에게 절대복종을.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었다.

외부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믿음과는 차원이 달랐다. 백성이 왕에게 복종하듯, 케르고인에게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었다.

마하투는 걸음을 빨리하여 시로네에게 다가갔다. 정말로 신의 사자라면, 노인과 대면하기 전에 에이미 일행에게 무례를 저질렀던 죗값을 치러야 했다.

“경외하는 신의 사자시여, 외람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의 동료입니까?”

지스가 통역을 위해 다가오자 마하투가 손을 들어 말렸다.

“아니, 누군가 정신 계열의 마법을 쓰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있다면 신의 사자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 다오.”

마하투가 그 사실을 깨달은 시점은 에이미의 언성이 높아졌을 때부터였다.

보통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면 말이 단순하고 짧아지게 마련이지만 몇몇 부분은 꽤나 정확하게 케르고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린의 스피릿 존이 마하투의 그림자에 스며들었다.

시로네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당황했지만 어떤 능력인지를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끝났다는 뜻으로 이해한 마하투가 조금 전의 질문을 다시 했다.

“신의 사자시여, 이분들이 동료가 맞습니까?”

“네. 제 친구들이에요.”

마하투는 침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았으나 시로네의 친구에게 무례를 범한 건 일족의 운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실수였다.

케르고가 멸망한 건 루프나 내란, 화산 폭발 때문이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케르고인은 천사를 화나게 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소년은 천사의 후예였다.

대대로 전해지는 500년 전의 이야기는, 현시대를 사는 케르고인의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은 공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마하투의 표정이 변해 갔다. 낭패감에서 공포로, 그러다가 각오를 마친 듯 원래의 표정을 되찾은 그는 부서질 정도로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일행에게 크나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무례요? 무슨 무례요? 설마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겠죠?”

광신도에 가까운 그들의 행동에서 경계심이 발동한 시로네는 대번에 쏘아붙였다. 혹시라도 친구들에게 손을 댔다면 용서치 않을 생각이었다.

“아, 별일 아니야. 그냥 티격태격 좀 했어. 왜 알잖아,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에이미의 말은 은어에 가까웠다.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정이 복잡하니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마하투는 감격스럽게 에이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종족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자신을 케르고 부족의 장로 하시드라고 소개한 노인은 시로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미로 님의 전언을 보고 오셨습니까?”

시로네는 성취와 희생의 방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다. 워낙에 빠르게 지나가서 파편으로 떠 있는 정보들이지만 하나하나가 생생했다.

시로네가 고개를 끄덕이자 장로는 지팡이를 짚으며 돌아섰다.

광장에 모인 원주민들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케르고에 신의 사자가 왕림하셨다!”

시로네 일행은 귀를 막았다. 하시드의 말이 떨어지자 원주민들이 전사의 고함 소리를 질러 댔다.

동굴 안이 소리로 가득차서 천장을 터뜨릴 듯했다.

환희의 함성 속에서 울음소리가 간간이 섞였다. 인파 사이로 헐벗은 자들이 다가와 시로네에게 무릎을 꿇었다.

“신의 사자님, 저희 아이가 아파요. 고쳐 주세요.”

아린의 채널이 마하투하고도 연결되어 있기에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시로네에게 없었다.

여자의 옆으로 기어 온 노인이 양손을 모아 앞으로 내밀며 애원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속속들이 도착했다.

“저에게 영생을 내려 주십시오!”

“저의 딸 아토레만은 양보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린은 귀를 막는 것도 모자라 눈까지 감아 버렸다. 초경을 통해 전달되는 광경이 온통 붉은빛이라 마치 들끓는 용암을 보는 듯했다. 사람들의 열망을 더 받아들였다가는 정신이 붕괴될 듯했다.

“카니스! 마음의 소리가 너무 커!”

“채널을 닫아.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니까.”

시로네는 인파에 갇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아린이 텔레파시를 취소하여 통역이 불가능했지만 감정의 파문은 끝없이 밀려들어 심장을 조였다.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했다. 키워드는 광기일 것이다.

시로네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하시드와 마하투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슬픈 눈으로 동족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모두 조용하라!”

남자의 고함 소리가 터지자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건장한 전사를 좌우에 대동한 젊은 남자가 북쪽의 터널에서 걸어왔다. 덩치는 크지 않았지만 풍선처럼 빵빵한 근육은 경호하는 자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머리는 길어서 뒤로 넘겼고, 얼굴에는 황금빛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아린은 그제야 감은 눈을 떴다.

초경을 통해 바라본 원주민의 감정은 경외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두려워하고 있다. 철권의 통치자를 대하는 상황에서 흔히 보이는 초경. 남자는 케르고의 수장인 것이 분명했다.

시로네에게 다가온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케르고의 족장 카둠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시로네는 친구들의 의중을 물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치 구역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스의 임무였다.

시로네는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다.

“이제 우리끼리 할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

지스는 딱히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다는 게 시로네 일행이 그를 신뢰하는 이유였다.

악수를 나누며 지스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조심해. 자치 구역은 내가 알고 있는 케르고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응. 별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통역해 줘서 고마워.”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지. 일이 끝나면 우리 집에 들러. 유나랑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 놓고 있을 테니까.”

시로네는 카둠에게 지스를 유적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너도나도 시로네의 지시를 따르고 싶어 안내역을 자청했다. 아린이 믿을 만한 사람을 골랐다.

지스는 우람한 전사를 따라 케르고 자치 구역을 떠났다.

카둠은 시로네 일행을 동굴로 안내했다.

20분을 걸어도 목적지는 나오지 않았다. 만약 이 길이 막다른 골목이라면 어떤 여행자도 주저앉고 말 것이다.

복잡한 설계가 들어간 것만이 미로는 아니다. 자치 구역의 미로는 스케일로 압도하고 있었다.

## [172] 1. 케르고 자치 구역 (4)

다행히 출구는 있었다. 공기의 맛이 달라지면서 사방 계단식 제단의 중턱으로 빠져나왔다.

토아 산의 정글이 발밑으로 수해를 이루고 있었다.

해발 20미터에서 내려다보는 숲은 광활했고 드문드문 케르고의 부락이 보였다.

제단의 반대편으로 돌아가자 황금으로 만든 궁전이 보였다. 케르고의 족장이 기거하는 집이었다. 궁전으로 들어가자 기다란 홀에 테이블이 2열로 깔려 있었다.

시로네가 상석에 앉고 오른편으로 에이미와 리안, 테스, 카니스와 아린의 순서로 자리를 잡았다.

왼편에는 족장 카둠과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뿔 나팔을 불었던 하시드는 참석하지 않았다. 말석에는 마하투도 있는 것을 보아 그의 서열이 낮지 않은 듯했다.

음악이 연주되고 케르고 전통 음식이 올라왔다. 맛을 보기도 전에 전사들이 2인 1조로 큼지막한 궤짝을 짊어지고 들어왔다.

전사들이 궤짝의 뚜껑을 개봉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화와 보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게 뭐죠?”

“케르고의 약소한 선물입니다. 부디 받아 주십시오.”

개수로 가치를 환산하는 수준은 넘어섰고 무게로 달아야 했다. 5개의 궤짝을 합하면 최소한 1톤은 나갈 듯했다.

에이미가 불쾌한 표정으로 음식을 내려놓았다.

유적지의 수입이 아니다. 루프를 밀매하여 벌어들인 돈이다. 그리고 저 돈이면 부족민 전체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다.

“시로네, 설마 받을 생각은 아니겠지?”

“이유도 모르고 저런 큰돈을 받을 수는 없지. 그냥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

시로네가 해명을 요구하자 카둠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떤 성인군자라도 1톤이 넘는 금화를 보게 되면 호흡부터 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로네는 마치 금화가 돌이라도 되는 양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시로네라고 해서 재물에 초탈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할 만큼 미련하지 않을 뿐이었다.

카둠은 당황하지 않았다. 해명을 하는 대신 박수를 치자 두 번째 공물이 들어왔다.

재물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이것에는 꼼짝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성취와 희생의 방에 있던 남자처럼 흰색 문신을 얼굴에 새긴 자들이 들어왔다. 시로네는 신관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들이 좌우로 비켜서자 젊고 아름다운 케르고 여성들 십여 명이 들어왔다.

시로네를 포함한 소년들이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들의 나이에서는 접하기 힘든 풍경이었다.

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리따운 여성들이 관능적인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멀리서 보기에는 제법 화려한 춤이었으나 눈앞까지 다가오자 음탕하기 짝이 없었다. 여성들의 눈이 흐리멍덩한 것으로 보아 트랜스 상태에 빠진 듯했다.

“어떻습니까? 케르고의 여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녀입니다. 신의 사자에게 바치는 두 번째 공물이지요. 모쪼록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시로네는 옆자리가 후끈해짐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에이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카둠의 호의는 역효과였다.

신녀의 군무는 매혹적이었으나 시로네에게는 루프에 취한 여성들의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유 없는 호의는 위협으로 느껴지는 법이기에, 카둠의 속내를 분석하는 그의 마음은 차가워져만 갔다.

시로네의 반응이 완고하자 카둠은 비로소 근심이 들었다.

언로커의 정신은 범인보다 지고하지만 그렇다고 성인군자는 아니다. 이모탈 펑션이란 열반을 향한 과정일 뿐이지 해탈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욕 칠정에서 자유로운 자라면 처음부터 성취와 희생의 방을 기웃거리지도 않았을 터. 시로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군요.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신의 사자를 맞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전통을 따른 것뿐입니다.”

시로네는 그 말이 더욱 기분 나빴다. 자신과 같은 경지의 언로커들이 얼마나 난잡하게 놀았기에 전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인가?

“그들이 이런 걸 좋아하던가요?”

“기록에 의하면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전통일 뿐입니다. 케르고는 부족사회지만 신관의 힘이 큽니다. 신관은 사제와 전사로 나뉘는데, 사제 중에서도 여성들은 신녀가 됩니다. 케르고의 규율에 의하면 신녀는 아름다워야 하며 평생 동안 순결을 지켜야 하지만, 천사의 아이를 갖기 위해 단 한 번 동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녀들은 천사의 후예인 시로네 님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만약 제가 이 여성들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죠?”

족장이 대가 없이 출혈을 감수할 리가 없다. 전통이라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관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화의 양은 부족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게다가 시로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구애의 춤을 추는 여성들도 케르고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미래의 어머니였다. 결국 부족의 재력과 미래를 시로네에게 송두리째 넘긴 셈이었다.

“케르고인은 위대한 라의 자식입니다. 또한 천사의 후예는 케르고 부족과 신을 이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지요. 저희의 믿음을 신에게 전해 주십시오.”

“신이라면 앙케라를 말하는 것인가요?”

“앙케, 라입니다. 영원불멸의 라라는 뜻이지요.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한 권능으로 지금도 저희를 굽어살피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내용을 걷어 내면 결국 거래를 하자는 얘기였다.

금화와 여성을 대가로 받고 신에게 가서 부족의 뜻을 전한다.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모탈 펑션과 연관이 있는 건 분명했다.

대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정신 채널이 바빠졌다.

테스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돈도 돈이지만 시로네가 에이미를 두고 다른 여성과 동침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에이미는 대가를 받자는 쪽이었다. 그리고 시로네도 찬성이었다.

-시로네! 어쩜 그럴 수 있어? 남자는 다 짐승이라지만 너만은 믿었는데.

-흥분하지 마. 시로네에게 무슨 생각이 있나 보지. 에이미도 그러자고 했잖아.

-웃기시네! 리안 너도 같은 남자라고 편드는 거야? 나는 절대 찬성 못 해. 에이미, 너도 뭐라고 말 좀 해 봐. 솔직히 짜증 나지 않아?

-물론 짜증 나지. 부족민은 굶어 죽는데 잔치를 벌이는 것도 불쾌하고. 하지만 그런 건 시로네가 통제하면 되는 문제잖아. 우선은 정보를 더 캐 보는 게 중요하니까 승낙을 하자.

시로네 일행이 생각을 교환하는 동안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다. 뿔 나팔을 불었던 하시드 장로였다. 먹고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장로들을 쳐다보던 그의 눈에 핏줄이 섰다.

마하투가 눈치를 보며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

“오셨습니까, 장로님.”

“쯧쯧, 한심하기는. 대체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음악이 꺼지자 춤을 추던 소녀들이 탈진해 쓰러졌다.

하시드는 발이 3개인 사람처럼 지팡이를 짚으며 시로네에게 걸어갔다.

카둠이 고압적인 말투로 접근을 막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 신성한 연회를 망치다니요.”

“신성한 연회? 바깥에서는 부족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굶어 죽고 있다. 더 이상 헛한 일에 돈을 썼다가는 정말로 부족이 망하고 말아!”

“케르고의 전 족장이자 고결한 신분인 장로께서 그런 망언을 하다니 놀랍군요. 조금 전의 발언을 회의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부족민은 신의 사자의 등장으로 희망에 부풀어 있으니까. 하지만 거기까지다. 그들이 원하는 건 행복이지 신의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일개 장로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족장은 저입니다. 케르고는 신의 은총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산에 틀어박혀 외부인의 눈치나 보면서 사는 게 아닌, 예전의 찬란했던 문명을 재현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시드는 수염을 씰룩거리다가 혀를 차고 돌아섰다.

어쨌거나 족장은 카둠이었다.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충돌이 심해지면 500년 전의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장로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결국 연회는 끝났다.

카둠은 시로네 일행을 데리고 제단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옥상은 넓었고 북쪽에 7미터 높이의 동상이 서 있었다. 달빛을 받고 있는 거인의 모습에서 위압감이 느껴졌다.

카둠은 동상이 있는 곳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별은 하나였다.

“북쪽 하늘에 저 별무리가 보이십니까? 그것을 8자로 연결한 다음 2개의 원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가장 밝은 별을 찾아보십시오.”

보여 줄 것이 있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별자리 강의를 들을 줄이야. 시로네 일행은 내키지 않았지만 시간을 들여 카둠이 가리킨 별을 찾아냈다.

카둠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저 별이 바로 케르고의 고향입니다.”

“네? 고향요?”

시로네가 생각하는 고향은 태어난 곳이었다. 도시로 상경한 젊은이들이 향수에 젖어 그리워하는 곳을 말한다. 멀리 떨어진 밤하늘의 어딘가는 결코 아닌 것이다.

“케르고인은 저곳에 우리를 창조한 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지만 영혼은 저 하늘로 날아가지요. 하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저 별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시로네는 난감했다.

천국은 관념적인 장소다. 타지의 여행자에게 관광 명소를 소개하듯 말하는 곳이 아닌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째서 저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시로네 님은 신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시로네는 신을 믿지도, 믿지 않지도 않았다.

마법사의 사고는 분석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시로네에게 신이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케르고의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 이전의 신화지요. 태초에 거인이 살았고 거인의 피와 살로 인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가록으로, 칠백여든두 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식 데리스는 982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 테서스는 1,320년을 살았지요.”

라의 창세기도 다른 종교의 신화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역사 이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명은 실제의 수명이 아닌 가문의 지배 기간을 뜻한다고도 한다.

엘자인 1세, 엘자인 2세, 그렇게 13세 정도 가문이 번성하면 신화에는 1천 년을 산 엘자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럴듯한 얘기였다.

토르미아 왕국만 해도 국왕의 이름이 대대로 세습되어 오고 있었다. 현재 왕은 아돌프 12세였다.

카둠은 암기 실력을 뽐내듯 생전 처음 들어 보는 자들의 수명을 줄줄이 읊었다.

신화의 시대가 끝나자 이번에는 역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 선각자 하네스가 이곳에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라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요. 아마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어째서 우리가 화산재에 파묻힌 케르고 유적을 복원시키지 않는지.”

시로네는 에이미의 스나이퍼 모드로도 뚫을 수 없을 만큼 두꺼운 장벽이 유적지의 중간층을 관통하고 있음을 떠올렸다.

“세계에는 수많은 고대 유적이 존재하고 이곳 또한 그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적지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천국을 자유롭게 오갔던 것 같습니다. 유적의 지하 시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대체 지하에 무엇이 있기에 그러죠?”

이쯤 되자 시로네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카둠은 호기심에 사로잡힌 시로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유적의 지하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망치로 맞은 듯 머리가 띵했다. 천국이라니. 설마하니 북쪽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말하는 것인가?

그곳은 우주에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리였다.

“신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한 건가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카둠이라는 족장은 광인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 [173] 1. 케르고 자치 구역 (5)

친구들의 표정 또한 심상치 않았다. 유일하게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건 카니스와 아린이었다.

“케르고 자치 구역을 개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하에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건 오로지 천사의 능력을 이어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을 기다려 온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시로네는 이모탈 펑션을 통해 미로의 시공까지 갔던 경험이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스케일이 달랐다. 마법사가 만든 세계와 천국은 달랐다. 카둠은 신이 있는 곳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천사는 신과 인간을 이어 주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신의 의지를 전하여 왔지요. 언로커는 천사의 힘을 물려받은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케르고의 영광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부족은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로네는 대답하지 못했다. 신을 만나고 오라니. 하늘에 떠 있는 별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동안 케르고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화산 폭발의 재앙이 찾아왔고 내란까지 치렀지요. 외부인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부족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족민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후예가 케르고를 부흥시켜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에이미가 삿대질을 하며 물었다.

“어째서 식량을 사지 않는 거죠?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앙에 의지하는 건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아요. 루프의 밀매 수입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고요.”

“케르고의 사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열악합니다. 갈리앙트 정부와 나누는 유적지의 수입만으로는 2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루프를 팔아서 버틴다고 한들 100년 전처럼 외부인에게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족장으로서 신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기도하며 거금을 비축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과 여자라니, 그런 방식으로 신의 사자를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기록을 통해 방법을 모색한 것뿐입니다. 케르고의 역사에 의하면 어떤 신의 사자는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 1억 골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단 말을 듣고 시로네는 깜짝 놀랐다. 게다가 장사치도 아니고 1억 골드를 내놓으라고 했다니, 목숨보다 돈이 좋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아니, 어쩌면 천국에 가는 것조차 두렵지 않을 정도의 실력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무사히 돌아왔나요?”

“물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신의 사자가 동료들과 천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위대한 라의 의지를 전해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죠? 입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불가능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천국의 문은 이모탈 펑션으로 작동합니다. 문이 있기에 이모탈 펑션도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천국에는 이모탈 펑션으로 작동시킬 매개물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어떤 방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돌아오며 수지맞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적막이 감돌았다.

신이 존재한다는 미지의 공간조차 장사 수단으로 넘나들 정도의 강자들이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건 자신의 실력으로 돌아오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카니스의 말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는 죽음보다 심각한 문제였다.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나는 게 아니다. 시공간을 통과하여 어딘가에 있는 별에 도착하는 일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케르고를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황금을 원한다면 드리겠습니다. 케르고의 여성을 원한다면…….”

“아뇨,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거 같아요.”

연회에서는 얘기나 들어 보자는 식으로 승낙했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랐다.

솔직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죽음의 공포와 맞먹는 강렬한 호기심은 들었다.

최선의 대답을 떠올린 시로네는 친구들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이 말했다.

“생각을 좀 해 볼게요.”

@

제단에 홀로 남은 카둠은 별을 바라보았다.

시로네 일행에게 보였던 비굴한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토아 산의 지배자답게 턱을 치켜들고 서 있던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시선을 돌렸다.

제단의 입구에서 노인이 기침을 하며 걸어왔다. 장로 하시드였다.

“정말로 그들을 보내실 겁니까?”

하시드가 존대를 하자 카둠의 인상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아들에게 그런 말투는 좋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니요? 제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잖습니까,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묘한 상황이이였다. 물론 호호백발의 하시드가 건장한 카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기괴했다.

카둠은 본색을 드러냈다. 번뜩이는 안광 속에 200년을 넘게 살아온 자의 경륜이 엿보였다.

“흥,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냐? 카둠의 죽음은 사고였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제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캉이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카둠의 이름을 빌려 또다시 족장이 되지도 못했겠지요.”

카둠은 하시드를 향해 돌아섰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버지, 저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소년이 신의 사자라고 해도 우리 부족이 원하는 건 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재물은 이곳에 남는다. 원하는 걸 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를 줘도 상관없지만, 실패한다면 처리해 버리면 그만이야. 모든 게 케르고를 위한 일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버지는 200년 전에 신의 사자를 통해 300년의 수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케르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시드는 경멸하듯 카둠을 노려보았다.

자식은 노쇠하여 걸음조차 떼기 힘들지만 아버지란 사람은 단단한 근육과 매끈한 몸매로 청춘을 만끽하고 있었다.

300년의 수명을 얻은 뒤로 족장은 폭주했다. 수명을 늘리기 위해 각지의 언로커를 수소문했고, 막대한 자금을 썼다. 부족의 재산이 줄어들자 루프까지 외부인에게 팔았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영생이다. 영원한 젊음이다.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수많은 언로커가 떠났으나 돌아온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영생에 집착하면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로 님은 일찌감치 그 사실을 깨닫고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닥쳐라! 나만큼 부족을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족장은 없다. 네가 족장이던 시절의 케르고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잊었느냐? 너는 실패한 지도자일 뿐이야. 케르고에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케르고 그 자체인 것이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카둠을 바라보며 하시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강하다. 이백 살이 넘는 능구렁이에 강력한 무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호언장담한 대로 그는 부족을 일으켜 세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그를 마지막으로 케르고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

시로네 일행은 숙소로 향했다.

광장에서 서북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동굴은 복잡했으나 이스타스를 제집처럼 드나들던 시로네에게는 그저 귀찮은 갈림길이 많은 지역에 불과했다.

숙소는 커다란 방이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침대가 있었다. 게다가 침대 옆에는 수납장까지 구비되어 있었다.

외부인 전용의 방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묵었을까? 그들은 천국으로 떠났을까? 아니면 이제는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족장의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라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모두는 말이 없었다.

여장을 풀고 수납장에 정리한 사람들은 카니스를 돌아보았다. 신의 사자, 천국, 케르고의 사정. 이제는 그가 아는 것을 털어놓아야 할 차례였다.

“나는 약속을 지켰어. 그러니 설명을 해 봐.”

“말 그대로야. 다 들었잖아.”

에이미는 시로네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카니스를 마주 보며 쏘아붙였다.

“천국이라니,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한단 말이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솔직히 나도 확신은 못 하고 있어. 게다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시로네에게 듣는 게 빠를 것 같은데. 하시드가 너에게 물었잖아. 미로의 시공에서 무엇을 본 거야?”

에이미가 시로네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랬었지. 시로네, 말해 봐. 어떤 것을 본 거야?”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겠지.”

카니스의 짐작이 정확했다. 시로네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었다.

“맞아. 어딘가의 장소였어.”

바다가 있었고 숲이 보였다. 원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중심에 첨탑이 서 있었다.

시로네는 첨탑 위의 빛으로 빨려 들어갔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새 제단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여기까지가 내가 본 광경의 전부야. 만약 그곳이 천국이라면 카둠의 이야기도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겠지. 그래서 판단하기 전에 카니스의 말을 들어 보고 싶어. 너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하비스트가 카니스에게 돌아왔다. 평소에는 쉬지 않고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 그였지만 지금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내 스승님 아케인은…… 천국이라는 곳에 갔다 온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시로네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케인이 천국에 간 적이 있다. 알페아스에게 배신을 당한 이후 50년 동안 던전에 틀어박혔으니 시기는 훨씬 전일 터였다.

“아케인도 케르고 유적에 왔다는 거야?”

“아니. 다른 곳이었을 거야. 카둠의 말대로 세계 곳곳의 유적지는 어떤 식으로든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물론 소속 국가에서 통제하는 상황이지만 80년 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케르고 유적은 특이하지.”

80년 전이라면 아케인의 나이가 60세에 불과할 때였다. 인간의 수명에 비하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149세의 아케인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생각하면 마법의 위력은 전성기 시절이라고 봐도 좋았다.

“천국에 무엇이 있는데? 거기는 도대체 어떤 곳이야?”

“그건 나도 몰라.”

시로네는 눈을 가늘게 떴다.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아케인이 천국을 경험했다면 카니스는 천국에 대해 알아야 했다. 아케인의 지식을 하비스트가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하비스트가 설명을 보충했다.

“카니스의 말이 사실이다. 아케인은 천국에 대한 기억을 지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그가 천국에 간 적이 있다는 것뿐이다.”

“스스로 기억을 지웠다고?”

“그래. 완벽하게 지워 버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 아마도 그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케인의 인물 됨을 아는 시로네는 믿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인정하는 3급의 대마법사가 기억을 지우면서까지 감춰야 했던 비밀이 대체 뭘까?

“카니스, 천국이란 뭐지? 정말로 신이 살고 있는 곳이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러니 나를 그곳에 데려다줘.”

“아니, 나는 생각이 좀 변했어. 네 말이 맞았어. 너무 위험해. 호기심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니, 네 생각은 상관없어. 내가 제안했던 거래는 나와 아린을 그곳에 보내 달라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솔직히 너희도 보내고 싶지 않아. 일단 들어가면 원래의 문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했잖아. 게다가 내가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천국의 문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족장은 절박해 보였으니까.”

## [174] 1. 케르고 자치 구역 (6)

시로네의 말이 맞았다. 성취와 희생의 방의 난이도만 봐도 알 수 있듯 케르고인이 원하는 건 어중이떠중이가 아니었다.

미로의 시공에서 힘을 증명하거나 8개 전부를 동시에 개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수준이 아니면 천국의 문은커녕 자치 구역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카니스, 그걸 꺼낼 때가 된 것 같다. 시로네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없어.

-하지만 의외인데. 이 정도로 겁을 먹을 줄이야.

-좋게 봐주자면 통찰력이겠지. 들은 정보를 토대로 촉이 움직이는 것 같다. 어쨌든 시작해 보자고.

하비스트의 의견을 수렴한 카니스는 모두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넌지시 말을 꺼냈다.

“만약 나에게……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떡할래?”

2. 거핀의 문 (1)

방 안에 전기가 흐르는 듯 시로네 일행의 눈에 빛이 번뜩였다. 새로운 국면이었다.

시로네가 천국을 위험으로 인식한 이유는 돌아올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출구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자세히 말해 봐. 돌아올 방법이라는 게 뭔데?”

“알다시피 우리는 스승님이 물려준 재산을 마법협회에 강탈당했어.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지. 그렇다고 알페아스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고. 어쨌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던 중에 하비스트가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냈어. 너희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린과 여행했지. 대마법사 빌토르 아케인이 절대로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비밀 장소를 찾아낸 거야. 기억을 지웠기 때문에 마법협회에서도 이곳만큼은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지.”

“그 비밀 장소에 이곳으로 돌아올 방법이 있었다는 거야?”

“아니. 이건 그 정도가 아니야. 직접 보여 줄게.”

아린이 품속에서 정육면체의 상자를 꺼냈다.

표면에 음각과 양각으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검은색에 가까웠는데,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무지갯빛을 냈다. 큐브처럼 틈새가 벌어져 있어서 손으로 돌리면 돌아갈 듯했다.

테스는 아린이 들고 있는 물건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난반사를 일으키는 색감과 모방이 불가능한 문양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들은 터였다.

“저건 고대 유물이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표면에는 마법적인 힘이 깃든 문양이 새겨져 있지. 강력한 잠금장치 때문에 봉인을 풀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어. 내 말이 맞지?”

“맞아. 덧붙이자면 이것은 잠금장치가 풀려 있다는 거지.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테스의 눈빛이 번뜩였다.

엘자인 가문에서 고대 병기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알기로 고대 유물의 봉인을 푸는 건 국제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다. 어떤 국가에서 유물의 잠금장치를 해제한다면 그 나라는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좀 봐도 돼?”

시로네가 말하자 아린은 고대 유물을 넘겨주었다. 친구들이 시로네의 침대로 몰려들었다.

시로네는 표면을 문지르고 틈새도 살펴봤다. 이리저리 돌려 보고 있는데 어떤 장치를 건드렸는지 중심선을 기준으로 큐브가 벌어지더니 유리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깜짝 놀란 시로네가 큐브를 압박했으나 고정이 되어 버린 듯 닫히지 않았다.

유리관의 내부에 해독할 수 없는 문자가 떠올랐다.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모르는 이상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었다.

“우와, 예쁘다.”

반면에 테스는 눈을 빛냈다. 어릴 때부터 동화 대신 유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그녀는 가슴이 벅찼다.

시로네에게 큐브를 건네받은 그녀가 카니스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야? 아무리 봐도 사용 방법을 모르겠네.”

“나도 자세히는 몰라. 아린이 찾아냈거든. 이리 던져 봐.”

테스는 큐브를 떠받치고 조심스럽게 넘겼다. 하지만 카니스는 이미 실험을 거친 듯 긴장감 없이 아린에게 던졌다.

아린이 큐브를 다루는 모습을 지켜본 시로네는 그녀가 재수 좋게 사용 방법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 유물을 처음 보게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물건에 기초하여 추론하려 들 것이다. 시로네 또한 큐브나 폭탄을 떠올렸다. 하지만 형태의 강박이 없는 그녀는 사물의 특이점을 찾아내는 게 가능했다.

초경의 위력을 실감한 시로네는 아린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나도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것들을 누르면 작동이 되더라고.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누르면 되는 것 같아.”

유리관에서 붉은 빛이 튀어나와 방 안을 피처럼 붉게 물들였다. 아린이 바닥에 내려놓자 에이미가 베개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다.

“뭐야? 폭발하는 거야?”

베개가 폭발을 막는 데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듯 베개 너머로 눈을 빼내고 반응을 기다렸다.

삐삐 하는 기계음이 빨라지더니 음으로 이어지면서 붉은 빛이 사라졌다.

고대 유물을 집어 든 아린이 큐브가 놓였던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다.

“여기까지가 공간 입력이야. 큐브가 놓여 있는 곳을 기억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해 볼게.”

큐브를 만지자 유리관이 이번에는 푸른 빛을 뿜었다.

아린은 적당한 곳이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시로네 근처에 고대 유물을 놓았다.

유리관이 백광으로 변하더니 큐브의 허공에 거대하고 검은 구체가 태어났다. 아린이 조금 전에 가리켰던 장소에도 같은 형태와 크기를 가진 구체가 떠 있었다.

“어라, 이건?”

시로네는 깜짝 놀랐다.

미로의 시공에서 보았던 블랙홀이었다. 공간을 압축시켜 관통하는 능력. 이 능력이 목표로 하는 바는 명백했다.

“이제야 알겠어. 이건 포탈이야. 시공간을 관통하는 포탈.”

“바로 맞혔어. 메타게이트라는 장치지. 이 장치가 우리의 비장의 무기가 되어 줄 거야. 우선 하비스트로 시범을 보여 주지.”

카니스는 검은 구체에 선뜻 몸을 던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생명이 없는 하비스트는 이런 실험에 제격이었다.

하비스트가 블랙홀에 손을 넣자 다른 편의 블랙홀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에이미와 테스가 침대 위로 펄쩍 뛰었다.

포탈과 포탈의 거리는 3미터. 하비스트는 3미터나 분리된 채로 양쪽에 걸쳐 있는 상태였다. 만약 사람으로 실험했다면 더욱 기괴한 풍경이 연출되었을 터였다.

“크크크크, 이거 할 때마다 재밌는데?”

“하비스트, 위험해. 이제 그만 나와.”

아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실험에 의하면 포탈이 유지되는 시간은 1분이었다.

하비스트가 빠져나가고 포탈이 사라지자 카니스가 다시 큐브를 주워 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때? 특정 지점의 장소를 기억해서 시공간을 연결시키는 워프 장치야. 이곳의 위치를 기억시켜 놓은 다음 천국에서 사용하면 언제라도 되돌아올 수 있지.”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하면서 시로네 일행의 마음속에 파문이 일었다.

테스가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

대마법사 아케인이었기에, 그런 그가 목숨을 걸고 천국에 다녀왔기에 소유하고 있었을 고대의 유물. 그것만으로도 국가 1급 기밀은 충분했다.

더욱 대단한 건 봉인이 풀려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물건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지면 외교적으로 마찰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앵무 용병단이 사용했던 마법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

한 명의 간자가 왕성에 침투하여 메타게이트를 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병력이 물밀듯이 쳐들어올 것이고 왕국은 전복될 위기에 놓일 것이다. 고대 유물이란 그런 것이었다.

에이미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쓰임도 쓰임이지만 금전적으로 가치를 매겨도 상상을 초월했다.

아케인이 카니스에게 얼마의 유산을 남겼는지는 몰라도 이 물건 하나가 그 몇 배에 해당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거…… 팔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궁금한 것도 사실이었다.

솔직히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다. 100억? 1천억? 팔 수만 있다면 훗날 12대 손녀딸이 매일 밤 에이미의 초상화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카니스가 비밀을 고수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테스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마치 감정사처럼 턱을 괴고 메타게이트를 살펴보던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솔직히 이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최소한 국가 단위는 되어야지. 돈도 돈이지만 파장이 엄청날 테니까.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이상적인 구매자라면 상아탑 정도가 있을 거야.”

토르미아 왕국에 거주하는 마법사라면 마법협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타국에도 마법협회가 있다.

하지만 상아탑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계정세와 상관없이 마법을 탐구하는 자들이었다. 초국가적인 단체였고, 무력은 전 세계와 싸워도 밀리지 않았다.

“상아탑은 세상의 첨예라고 불리는 곳이잖아. 고대 유물이라도 그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마법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일단은 물건이니까.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70년 전 엑스마키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어.”

“엑스마키나?”

“코트리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고대 병기의 이름이야. 아빠에게 들었는데, 코트리아에서 엑스마키나의 보안을 강화하려고 이전 작업을 했었대. 원래의 위치에서 30미터 떨어진 신축 벙커로 이동시키는 작업이었는데, 국제사회가 난리가 난 거야. 당장이라도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지. 무슨 뜻이지 알겠어? 고대 병기가 단지 30미터를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무시무시하네. 어떤 무기인데?”

“엘자인 가문도 첩보전에 참여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어떤 형태인지, 얼마나 큰지, 심지어 발동 원리조차 몰라. 하지만 당시의 주변국의 반응으로 유추하건대 맵 병기일 확률이 높을 거야.”

“맵 병기?”

“현장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야. 최고 수뇌부가 지도를 놓고 결정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야. 아직 봉인은 풀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모르는 일이지. 벌써 70년이나 흘렀으니까.”

맵 병기는 인간미가 없다. 지도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 누가 살고, 어떤 문화를 향유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려져 있지 않다. 삼각자와 컴퍼스, 연필만으로 계산되는 세계였다.

카니스는 남의 물건을 놓고 품평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다.

스승님의 유물을 팔 생각은 없다. 함구한 이유는 자신의 희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 고대 유물을 공개하면서까지 천국에 가고 싶다는 의지였다.

“음, 엑스마키나라. 그리고 이것은 메타게이트.”

시로네는 중얼거리다 말고 카니스를 돌아보았다.

“어라,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알고 있어? 아케인은 기억을 지웠다고 했잖아?”

“쪽지에 적혀 있었어. 단어의 나열에 불과했지만. 비밀 장소를 발견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유추하지 못하게끔 한 거겠지. 스승님다운 치밀함이야.”

“다른 건 뭐가 적혀 있었는데?”

“딱히 대단한 건 아냐. 천국에 대한 설명은 조금도 없었어. 그만큼 밝히고 싶지 않으셨나 봐. 하지만 우리는 탐색할 수 있어. 바로 메타게이트가 있기 때문이지. 어때, 이 정도면 이모탈 펑션에 대한 거래가 될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었다. 공포로만 다가오던 천국이 작은 설렘으로 변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랬다. 카니스와 함께라면 생환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하지만…… 그가 얻는 건 무엇일까?

“어째서 천국에 가려는 거야? 단지 아케인이 갔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잖아. 그렇다고 자세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천국에 가려는 동기를 들어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정일 가능성을 끝까지 따져 보는 시로네의 모습에서 카니스는 오히려 신뢰감이 들었다. 위험한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덜떨어진 마법사보다는 시로네와 동행하는 게 몇 배는 효율적일 테니까.

## [175] 2. 거핀의 문 (2)

“스승님이 천국에 갔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80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천국에 가기 전의 스승님과 천국에서 돌아온 스승님은 마법협회에서 지정한 등급 자체가 달라. 즉, 천국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대마법사가 된 거야. 마법사라면 누구나 대마법사가 되기를 원하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

시로네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천국에서 돌아온 아케인이 3급이 되었다면 그를 각성시킨 무언가가 천국에 존재한다는 얘기였다.

시로네가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자 카니스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일말의 정보까지 털어놓았다.

“스승님의 쪽지에 적힌 건 대부분 단어였지만 마지막에는 유일하게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

“어떤 문장인데?”

“이런 글귀였지. 그곳은 모든 것의 원점. 스키마의 원류와…….”

리안의 눈이 빛났다.

“스키마?”

카니스는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망각된 고대 마법…….”

에이미가 되물었다.

“고대 마법?”

“침묵하고 있는 고대 병기들을…….”

테스가 소리쳤다.

“고대 병기!”

카니스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희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냐?”

“호호호! 미안. 빨리 말해 봐.”

테스가 너스레를 떠는 게 짜증 났지만 카니스는 결국 문장을 전부 읊었다.

“이 메타게이트에 두고 떠난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천국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끔 남겨진 메모였다.

아케인의 기억을 물려받은 하비스트조차 대륙을 헤맨 끝에 찾아낸 비밀 장소. 최후까지 연막을 쳤다는 것만 봐도 그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건…… 어쩔 수 없는 악동의 기질이 아닌가 싶었다.

한 줄의 문장에 지나지 않지만 쪽지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우선 천국에는 스키마와 마법이 있다. 따라서 인간이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 게다가 고대 유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터였다.

아케인은 문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세상의 검사와 마법사들이여, 메타게이트 너머에 고대 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렇다면 고대의 유물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역사책에도 유물에 대한 기록은 없다.

시로네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감을 잡았다.

“고대 마법. 고대 유물. 모든 것의 원점.”

“그래. 스승님은 알고 계셨던 거야. 인간은 언제부터 스키마를 익히고 마법을 부렸을까? 생물적인 원리라면 동물에게서도 스키마가 발현이 되어야 해. 하지만 아무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스키마와 스피릿 존의 탄생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알겠어?”

“인간은 처음부터 깨닫고 있었다. 모순적이긴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바로 그거야.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이 있기 전부터 스키마와 마법은 존재했다. 카둠은 천국을 고향이라고 불렀어. 신화에 불과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신화를 나침반 삼아서 나아가야 해.”

역사 이전의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학자도 밝혀내지 못한 인류의 기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하늘의 별 어딘가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전부 말했어. 결론은 그곳에 가겠다는 거야. 스승님의 유지를 잇는 것은 물론이고 마법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나와 아린은 여기에 대해 합의를 끝마쳤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원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나, 나도 갈래!”

에이미가 합류 의사를 밝혔다.

마법사에게 마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었다. 또한 카니스와 아린이 같은 학교의 라이벌이 된다는 사실도 마음을 움직이는 데 일조했다.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는 몰라도 메타게이트가 있지 않은가? 돌아올 방법이 있음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다.

“에이미가 가면 나도 갈래! 시로네, 우리 가자!”

테스가 에이미의 편을 들었다. 주인 없는 고대 병기가 기다리고 있다는데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메타게이트 하나만으로도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고대 병기는 세상에 없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 거리에 뒹구는 돌멩이 하나만 주워 와도 본전이라는 생각이었다.

“아니. 난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거야. 나도 가지 않을 거고. 너무 위험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시로네의 말에 모두 얼빠진 표정을 지었다.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아까웠다. 세상의 어떤 마법사에게도 찾아오지 않는 기연이었다. 아케인 또한 천국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대마법사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던가?

“위험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카니스에게 돌아올 방법이 있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출구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희를 위험에 빠트리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카니스는 이를 갈았다.

시로네의 박애 정신은 건널 수 없는 다리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때부터 알았다. 그렇기에 갖은 전략을 짜서 여기까지 상황을 끌고 온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철벽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무서우면 가지 마. 하지만 우린 거래를 했어. 너는 나와 아린을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할 거야.”

“아니. 나는 너도 보내지 않을 거야.”

“이 자식아! 이제 와서 배신을 때리는 거냐?”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는 너도 우리 학교에 입학한 동급생이야. 내가 문을 열어서 너를 사지로 내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가 내 목숨 걱정해 달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잖아!”

언제나 시로네의 의사를 존중하는 에이미지만 이번만큼은 카니스의 편을 들었다.

“그래, 시로네. 좋은 기회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이 정도 위험은 감수했던 거 아냐? 너는 미로에 대해 알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잖아.”

시로네의 언성이 높아졌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 만약 너라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자고 할 수 있어? 우리를 데리고 조금 전에 봤던 별로 가자고 할 수 있겠어?”

‘아니, 죽어도 못 하지.’

그런 문제였다. 위험과는 별개의 문제.

시로네가 혼자서 왔다면,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갖추어졌다면 당장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언로커로서 친구들의 목숨을 떠안고 들어가는 건 철없는 짓이었다. 시로네는 적어도 이들 중에서는 가장 어른스럽게 판단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생각에 잠겨 있던 에이미가 시로네의 이마에 딱밤을 날렸다. 얼얼한 이마를 부여잡은 시로네가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녀가 말했다.

“당연히 나는 천국으로 가자고 할 거야. 이건 세상에 둘도 없는 기회니까.”

에이미는 거짓말을 했다.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또한 냉철한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렇다면 부담을 덜어 주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이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야. 메타게이트가 있더라도 그곳이 어딘 줄 알고? 갔다가 바로 돌아올 것도 아니잖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걸 왜 모르는 거야?”

“그럼 너는 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온 거야?”

“뭐? 그건…….”

“네가 말했잖아, 나라면 안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집까지 찾아온 거 아냐? 아니면 뭐야, 설마 여자 하나 끼고 관광이나 하려고 그런 거였어?”

에이미는 공격적으로 쏘아붙였다. 효과가 있는지, 시로네의 말문이 막혔다. 하루가 아까운 졸업반을 섬으로 데려왔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있었다.

테스가 가슴을 두드리며 에이미의 의견에 일조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문을 여는 사람이 너라고 해도 따라가고 말고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라고. 거기까지 네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게다가 어차피 갈 거라면 나와 리안도 충분히 전력에 보탬이 될 거야.”

어떤 파티든 검사는 중요하다. 그들에게는 마법사가 가지지 못한 용맹함과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들이 창출해 낸 1초의 기회가 마법사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게 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시로네가 갈등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카니스는 메타게이트를 숨겼다. 하지만 노크의 주인은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시로네가 출입을 허락하자 마하투가 들어왔다. 불청객이라면 불청객이었다.

시로네 일행이 멀뚱히 바라보자 마하투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다.

“낮에는 죄송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괜찮아, 다 잊었으니까.”

물론 에이미는 잊지 않았다. 하지만 마하투가 방문한 이유가 사과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넘어가기로 했다.

예상대로 마하투가 본론을 꺼냈다.

“천국에 가실 겁니까?”

시로네는 대답하지 않았다. 친구들의 강력한 설득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생각은 여전히 의문부호였다.

“가지 마십시오.”

친구들의 눈살이 구겨졌다.

족장의 말에 의하면 시로네는 케르고 부족의 흥망을 쥐고 있는 열쇠였다.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하투가 말린다는 건 의외였다.

시로네가 거의 넘어왔다고 생각했던 카니스는 마하투가 초를 치자 언짢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가지 말라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마하투는 두 팔을 교차했다. 숨을 들이마시자 근육이 부풀더니 눈에서 강렬한 기운이 뿜어졌다.

압도적인 프레싱이었다.

시로네 일행은 몸이 뒤로 넘어가는 착각을 느꼈다. 어쩌면 넘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살기까지 실었다면 숨조차 쉬지 못했을 터였다.

모욕을 줄 생각은 아니었던 마하투는 금세 프레싱을 풀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죄송합니다. 주제넘게 서투른 실력을 뽐냈습니다.”

마하투의 사과를 진심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강함에 절대적인 건 없지만 고수와 하수의 경계선은 엄연히 있는 법이다. 마하투의 수준이라면 자신의 강함을 스스로 알고 있을 터였다.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취와 희생의 방에서 실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로네는 마하투의 의도를 깨달았다. 자신의 힘을 기준으로 천국의 난이도를 알려 준 것이다.

전사와 마법사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설득력은 충분했다.

“케르고인도 시험을 보는 거야?”

“물론입니다. 성취와 희생의 방에서 힘을 증명하면 케르고의 전사들에게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네. 반드시 언로커가 있어야 하죠. 화산재에 묻힌 천국의 문이 복원되었을 때 수많은 자들이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로 님은 성취와 희생의 방을 만들어 실력을 검증받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언로커는 예외지만 실력으로 통과할 정도가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미로의 이름이 마하투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어떻게 미로를 알죠? 설마 직접 만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대부분 그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로에 대해 알기 위해 여기에 온 거예요.”

“과연, 그러셨군요.”

마하투는 시로네가 금화나 여자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다. 미로와 얽혀 있는 사람이라면 방탕한 언로커들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케르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를 따르는 무리와 천사에게 대항하는 무리의 갈등이었죠. 반反천사파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부족은 멸망 직전으로 내몰리고 말았죠. 천사파의 사람들은 화산 폭발을 천사가 내린 재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프가 내란을 일으켰다는 학자들의 견해는 틀렸다. 천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케르고의 수뇌부만이 공유하는 1급 비밀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로부터 250년이 지나서 한 명의 외부인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맥클라인 거핀. 시로네 님과 같은 언로커였습니다. 그는 화산재에 파묻힌 케르고의 유적을 복원했고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 문을 거핀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건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250년 전의 분란이 다시금 조장되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는 천사를 따르는 파벌이 승리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거죠. 그게 바로 현재의 케르고입니다.”

## [176] 2. 거핀의 문 (3)

“그 파벌의 현재 수장이 카둠 족장이군요.”

시로네는 연회에서 느꼈던 두 가지 시선을 떠올렸다. 언로커를 환대하던 장로들은 천사파일 것이고 고깝게 쳐다보던 쪽은 반천사파일 것이다.

그런 분류법으로 따졌을 때 족장의 아버지인 하시드는 반천사파였다. 그리고 마하투도.

“카둠 족장은 케르고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루프를 밀매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습지만, 신의 사자에게 부족의 운명을 맡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반천사파의 혈통으로, 원래는 노예가 되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갈리앙트 자치 정부가 저지른 인간 관광에 대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희생당한 대부분이 반천사파였죠. 저의 어머니 또한 외지인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에이미는 마하투에게 남아 있던 일말의 앙금을 지우기로 했다.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외지인에게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100년 전 케르고 부족은 문명의 침투로 흔들렸습니다. 갈리앙트 자치 정부가 인간 사냥을 시작하면서 반천사파의 분노가 거세졌죠. 세 번째 내란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였고, 멸망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되돌린 분이 계십니다. 무분별한 천국행을 막기 위해 성취와 희생의 방을 설계하여 내란을 종결시킨 사람. 그분이 바로 미로 님입니다.”

시로네는 미로의 모습을 떠올렸다. 감정의 변화가 심해 보이는 눈동자에서 섬뜩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미로의 시공에 들어가기 전의 그녀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사실 지금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비하면 훨씬 낫지요. 미로 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저 또한 일개 노예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로는 지금 어디에 있죠?”

시로네는 그녀가 이스타스의 중간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취와 희생의 방을 설계한 이후, 미로 님은 거핀의 문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없었지만 듣기로는 거핀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남겨 두었다고 합니다.”

에이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잠깐만. 거핀은 250년 전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죠?”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분명 그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시로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거핀의 문을 설치했다는 건 스케일 마법을 구사하는 언로커라는 얘기였다. 미로가 공간적인 면이 강하다면 거핀은 시간 쪽이 아니었을까?

영겁의 성찰자 아르민이 떠올랐다. 그 또한 스톱 마법으로 100년 이상을 사색한 이였으니 거핀도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 있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대마법사 아케인조차 생체 능력만으로 150년을 버티지 않았던가.

카니스는 미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설계한 성취와 희생의 방은 천국행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단서였다.

“그렇다면 미로의 시공을 통과한 사람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지? 시로네가 왔으니 그 사람들도 함께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듣고 보니 시로네도 궁금했다.

미로의 시공에서 힘을 증명한 사람들. 그들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도 있었다.

“동행 여부는 신의 사자가 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팀이 2년 전에 천국으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이라는 것은 충격이었다. 예상보다 잦은 빈도로 사람들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

카둠이 이 사실을 감춘 이유는 천사파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욱 많은 자들이 천국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에이미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케르고인은 모두 라를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에게 대항하는 파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반천사파이지만 최초의 내란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모릅니다. 500년 전 화산 폭발로 대부분의 기록이 소실되었죠. 그것을 잃어버린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화산 폭발이 천사의 능력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뿐이죠.”

마하투의 이야기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설령 돌아올 방법이 있다고 해도 신중해야 하는 문제였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가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말릴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여태까지 미로의 시공을 통과했던 자들은 모두 저보다 강했다는 사실을요.”

마하투는 돌려 말했지만 결국 그들이 시로네 일행보다 강하다는 얘기였다. 그런 자들조차 천국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로네 일행은 생각에 잠겼다. 마하투는 진심이 전해졌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공물에 흔들리지 않는 시로네 님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흔한 속세의 욕망이 아닌 어떤 뜻을 가지고 오신 것이겠지요. 그렇기에 저도 사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관여할 일이 아니나, 모쪼록 신중히 판단해 주십시오.”

“네. 중요한 정보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마하투가 방을 나가자 정적이 찾아왔다.

천국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시로네를 설득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시로네의 통찰이 옳았다. 오직 시로네만이 결정할 수 있고, 남은 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셨던 것일까?”

생각의 말미에 떠오른 사람은 알페아스였다. 시로네가 언로커라는 걸 알고 있는 그는 어째서 케르고 유적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준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아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미로는 교장 선생님의 제자였다고 했잖아. 그녀의 행적 정도는 들으셨겠지.”

“그럼에도 허락한 이유는? 만약 우리가 처한 현실이 교장 선생님의 예상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그런 문제도 있네. 어디까지 예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너라면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신 게 아닐까? 나라도 그럴 테니까. 결국 문제는…….”

카니스가 메타게이트를 던지며 말했다.

“내가 변수였다는 거로군.”

알페아스는 카니스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했다. 설령 예상했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루트를 찾아냈으리라고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었다.

우선 출구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었다. 유독가스로 차 있는 세계만 아니라면 가자마자 죽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바보 같기는 하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는 이상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간과할 수 없었다.

새벽이 되도록 시로네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

다음 날 아침 시로네 일행은 신전의 지하로 내려갔다. 족장 카둠이 인솔하고 하시드와 마하투가 뒤따랐다.

에이미는 이곳이야말로 스피릿 존으로 탐색이 불가능했던 유적지의 비밀 공간일 것이라 생각했다.

최하층에 도착하자 화산 폭발의 흔적이 남아 있는 통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었다. 벽면을 따라 박힌 보석들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동이 나타났다. 벽을 따라 신관들이 서 있고, 중앙에는 석문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어디하고도 연결되지 않은 문의 모습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시로네는 문에 도착했다.

거핀의 문. 250년 전의 언로커인 맥클라인 거핀에 의해 재탄생한, 천국으로 가는 입구였다. 붉은 구술이 박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로선의 틈새가 파여 있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카둠과는 계약을 끝낸 상태였다. 그의 요구는 단순했다. 천사의 서고인 잉그리스에 가서 케르고의 족장 카둠의 의지를 전하면 된다는 것이다.

천사의 서고라니. 카둠은 신에게 도달하는 여정이 아니니 어렵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신이고 천사고 불가능한 임무라는 생각만 들었다.

시로네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다.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가기로 결정한 이상 편하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에이미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로네는 문의 중심에 있는 구슬에 손을 가져다 댔다.

심호흡을 하고 이모탈 펑션을 개방하는 순간 구슬에서 백색의 섬광이 튀어나왔다.

“오, 오오오오!”

경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반천사파인 마하투조차 무릎을 꿇고 앙케 라를 외치고 있었다.

시로네는 더욱 힘을 집중시켰다.

처음 생각과 달리 단순한 석벽이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이라 생각했던 문의 스크래치가 붉은 빛을 내면서 해독할 수 없는 마법 문자로 드러났다.

마법이 작용하면서 석벽이 주사위 크기의 입방면체로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중력과 무관하게 해체되던 조각들이 가루처럼 잘게 부수어지고 마침내 빛에 흡수되었다.

문에서 백색의 광채가 튀어나와 시로네를 집어삼켰다.

“거핀의 문이 열렸다! 천사를 찬양하라!”

신관들이 엎드려 앙케 라를 외쳤다.

시로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광채에 휩싸인 그가 들을 수 있는 건 심장이 뛰는 소리뿐이었다.

처음으로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한 걸음이지만, 영겁의 거리였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강하고 따스한 손이 어깨를 짚었다. 리안이었다.

그래, 혼자가 아니다. 리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테스의 섬세함, 에이미의 영특함, 카니스의 방어력과 아린의 정신력. 하비스트도 지금은 든든한 아군이었다.

이 정도면 훌륭한 파티가 아닌가? 조금 긴장이 풀렸다.

시로네는 문으로 발을 내디뎠다.

시로네 일행이 제단을 떠나자 백색 광채가 회색의 입자로 뭉치면서 석벽이 복구되기 시작했다.

떠돌아다니던 입방면체가 각자 위치를 찾아 조립을 끝내고 마법 문자가 빛을 잃어 갔다.

석벽이 닫힌 자리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공동은 고요했다.

@

시로네는 이를 악물었다. 오색찬란한 빛이 주위를 질주하고 있었다.

이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 끝이 있기는 한가? 눈을 어지럽히는 빛의 선율은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포신에서 튀어나온 대포알이 된 것처럼 시야가 확 트였다.

일행의 심정은 똑같았다. 유황불이 타오르는 세계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공기는 맑고 시원했다. 하지만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은 순간 비명이 터졌다.

거핀의 문이 땅에 있었으니 땅으로 나올 것이란 생각은 얼마나 멍청한가.

그들은 구름보다 높은 하늘에 떠 있었다. 바다의 끝과 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고도였다.

마법사들은 순간 이동을 시전했지만 허사였다. 여전히 거핀의 문에 영향을 받는 상태인지 자유낙하보다 빠르게 지상으로 떨어졌다.

바다가 밀려나고 울창한 숲이 보였다.

시로네는 저 멀리 숲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를 발견했다. 미로의 시공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파문처럼 2개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인 성이었는데 안쪽 동심원을 기준으로 파이처럼 여섯 등분으로 구역이 분리되어 있었다.

상공에는 무당벌레를 닮은 기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사람의 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도시마저 모습을 감추고 급기야 숲으로 추락했다. 수해를 뚫고 내려오자 흙이 보였다. 이대로 처박히면 즉사였다.

마법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 땅에 굴러다니는 자갈이 망막에 닿을 무렵에야 거핀의 문은 그들을 놓아주었다.

3. 속된 자의 숲 (1)

천국 외곽. 연옥.

시로네는 주위를 살펴볼 여유도 없이 머리부터 어루만졌다. 얼굴부터 떨어졌으니 머리가 박살이 나야 정상이었다.

찰나의 순간 의식을 잃었던 것도 같지만, 어쨌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친 곳 없이 두 다리를 땅에 대고 서 있었다.

테스가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말했다.

“우리 살아 있는 거야? 아니면 죽은 건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배가 고픈 걸 보니.”

이런 상황에서도 배가 고프다는 건 리안의 대범함을 드러내는 말이었으나, 실상은 테스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를 쓴 것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닐지도 몰라.”

시로네가 전공을 살려 설명했다.

“그러니까 공간 이동 같은 거지. 단순히 터널을 통해 여기로 온 것이고, 공간이 접히면서 다양한 풍경을 보았던 것 같아.”

결국 공간 이동이다. 다만 이동한 거리가 상식을 초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현상이었다.

## [177] 3. 속된 자의 숲 (2)

일행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파리가 긴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위에서 볼 때는 빈틈이 없을 것 같았지만 빛은 일말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그늘에 이끼와 버섯이 자라고 흙에서는 수분의 축축함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원래의 세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의 비밀은 암석의 크기였다.

공간의 나이는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의 암석은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작은 돌멩이도 있었지만 집채만큼 커다란 바위들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누군가 옮겨 놓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살던 곳과 재질이 다를 수도 있지. 이를테면 시간이 지나도 깎이지 않을 정도의 내구력을 지니고 있다든가.”

카니스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고대 유물은 원래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광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고대 유물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 이전의 물건이라는 뜻이다. 천국의 것이라면 영겁의 세월을 견뎌 낸 바위야말로 살아 있는 증거였다.

“결국 여기가 천국이라는 건가?”

“스피릿 존부터 확인해 보자.”

에이미의 말에 각자 마법의 시전 여부를 점검했다. 스피릿 존은 전능의 영역이지만 물리적으로 동떨어진 세계에서 전지가 어긋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다행이랄까? 마법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지? 자, 이제 좋은 구경 했으니 그만 돌아갈까?”

모두가 테스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는지 그녀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저었다.

“아하하, 노, 농담이야.”

“아니. 나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리안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다.

그 사실을 방증하듯 시로네 일행은 도착한 지점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시로네가 작지만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다.

“일단 움직이자. 하늘에서 떨어졌든 공간이 휘었든 도시를 봤잖아. 그쪽으로 걸어가면 되지 않겠어? 적어도 문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문명이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 물론 그 법이 상식에 통용되는 것인지는 미지수였지만,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숲 속에서 밤을 보내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도시를 찾아?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에이미가 눈동자를 붉혔다. 자기상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읽은 그녀는 리안이 서 있는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방위상으로 봤을 때 저쪽에 도시가 있을 거야.”

에이미의 자기상 기억은 특정 시점을 완벽하게 복원해 낸다. 천문학적인 거리를 날아온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그녀의 능력이 수학적이지 않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었다. 나침반이 공간에 상관없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그녀 또한 어떤 변수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일종의 자석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에이미를 따라가며 일행은 풍경에서 들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났지만 어째서인지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상이라는 걸 깨닫고 걸음을 멈추는 그때 숲에서 풀들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감각이 예민한 테스가 사브르를 뽑아 들고 몸을 돌렸다. 리안이 대검의 손잡이를 붙잡은 상태로 그녀의 옆에 섰다.

“뭐야, 테스?”

“몰라. 누군가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 같아.”

에이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누군가가 확실해? 어떤 것이 아니고?”

테스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소리가 인간과 흡사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애초에 이곳에 사람이 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어떤 괴물체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행의 긴장감이 한계까지 올라갔다.

스스스스! 스스스스!

초목이 흔들리는 소리가 가깝고 빠르게 들려왔다. 테스는 이곳을 노리고 다가오는 중임을 확신했다.

마법사들이 스피릿 존으로 들어가고 리안은 대검을 뽑아 들고 늘어뜨렸다. 정체가 뭐든지 간에 숲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쳐올릴 생각이었다.

심호흡을 하며 상대를 기다리던 리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소리의 빈도로 봤을 때 지금쯤이면 도착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만 무성하게 들릴 뿐 상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리안, 물러서는 게 좋겠어.”

테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생각했을 때 가능한 경우는 하나였다. 예상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였다.

검을 쳐올릴 자세를 유지한 리안이 뒷걸음질을 치는 그때 쿵! 쿵! 땅이 울렸다.

마침내 수풀을 해치고 놈이 모습을 드러냈다.

“뭐, 뭐야, 이건?”

시로네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고개를 꺾을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린 채로.

거인이었다.

그것도 신장 8미터의 거인. 헐벗은 상태였으나 군데군데 천 쪼가리가 걸쳐져 있었다.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왔고 얼굴에는 보기 흉할 정도로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그에 반해 육체는 청년처럼 튼실했다.

테스는 급소를 찾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사타구니를 살폈다. 밋밋했다. 얼굴도 남성처럼 보였고 가슴도 나오지 않았지만 생식기는 달려 있지 않았다.

“저기……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

아린이 말했다. 거인의 탐색을 리안에게 맡긴 테스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왜 그래?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야?”

“어떤 게 더 안 좋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시로네 또한 아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초경은 현재의 거인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 화를 내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슬퍼하고 있는 건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가장 놀란 사람은 카니스였다. 뒤편에 실체화되어 있는 하비스트도 고개를 갸웃하며 거인을 살폈다.

“아린이…… 감정을 읽을 수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 이론상 불가능한 일이다.

초경의 능력은 세상 만물의 특징을 동등한 위상으로 끌어내린다.

마법협회의 사키리처럼 감정을 차단한다면 최소한 그런 초경이라도 보여야 정상이었다.

거인의 감정을 읽을 수 없다는 건 분명 기이한 일이었다.

“연옥에 오는 자……. 신을 부정한 자여…….”

거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통역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일행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린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해독할 수가 없어.”

초경은 물론이고 텔레파시마저 통하지 않는다. 아린은 눈뜬장님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상대의 표정조차 읽을 수 없었기에 그녀는 카니스의 눈을 빌렸다.

“카니스, 저 거인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정신감응에 특화된 아린이 살기조차 감지할 수 없단 말인가? 메타게이트가 있더라도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유는 경험을 무력화시키는 아린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린, 아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에이미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판단을 맡겼다.

“아린, 이제 우린 어떡하면 돼?”

“어, 어떡하긴. 당연히 도망쳐야지!”

아린이 후다닥 도망치자 에이미는 얼이 빠졌다.

카니스가 그녀의 뒤를 쫓고, 다른 사람들도 후퇴하기 시작했다.

가장 반응이 늦었던 에이미는 거인을 돌아보았다. 높이 2미터에 가까운 묘목을 뽑아 들고 추격해 오고 있었다.

“그아아아아!”

거인의 굉음은 음향 대포와 맞먹었다. 에이미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뒤늦게 몸을 날렸다.

거인이 휘두른 묘목의 뿌리가 그녀의 옷깃을 스쳤다.

“덩치가 크니까 따라오지는 못할 거야! 일단은 도망쳐야 해!”

“그런 건 빨리 말해야 될 거 아냐!”

스키마로 아린을 따라잡은 에이미가 소리쳤다. 다행히 일격을 무사히 피했지만 조금만 반응이 늦었더라도 등짝이 갈라졌을 터였다.

“미안해! 나도 이럴 줄은 몰랐단 말이야.”

아린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천국에 들어온 이상 한 팀이었다. 전투 마법사가 아닌 그녀가 파티에 기여할 부분은 적의 성향을 감별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리더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 기능이 마비된 지금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운명 공동체였기에 아린을 탓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앞으로가 걱정스러웠다.

아린의 정신 계열 능력은 엄청난 메리트였다. 고작 거인 한 명에게 통하지 않은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여행의 시작부터 꼬여 버린 건 사실이었다.

땅이 울리는 소리에 시로네는 뒤를 돌아보았다. 크다고 느릴 것이란 생각은 오판이었다. 거인은 지척까지 따라붙은 상태였다.

아린의 정신 채널로 테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로네, 지시를 내려 줘. 차라리 순간 이동으로 도망치면 안 돼?

-그건 위험해. 우린 아직 이곳이 어딘지를 모르잖아. 더 큰 위험과 마주친다면 거기서 전멸이야.

-하지만 계속 도망칠 수도 없잖아? 솔직히 지금도 주위에 뭐가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는 하지. 그럼 이곳에서 싸우자. 거인부터 잡는 게 순서인 거 같아.

시로네가 전투 노선을 택하자 리안과 테스가 몸을 틀어 거인을 향해 튀어 나갔다.

시로네를 중심으로 좌우에 에이미와 카니스가 위치를 잡았고 아린이 최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리안이 전위 기사답게 먼저 공격을 시도했다.

신장 8미터의 적과 싸우는 건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았다. 머리 위쪽에서 가해지는 공격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반대로 노릴 수 있는 부위는 고작해야 무릎 아래쪽이었다.

리안은 아킬레스건을 노렸다.

대검이 휘둘리는 순간 거인이 나무둥치를 휘둘렀다. 중간 지점에서 무기끼리 충돌하면서 나무둥치가 찢어지듯 잘려 나갔다.

베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거인의 완력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무기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일격의 충돌로 리안은 3미터를 날아갔다. 가까스로 착지했지만 그럼에도 두 다리가 땅에 끌렸다.

오른팔의 경련을 느낀 그는 왼손으로 대검의 날을 붙잡고 전투 자세를 취했다.

거인의 완력은 대단했다.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건 빠르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리법칙에 어긋나잖아.”

신장 8미터의 생물이 신체를 지탱하려면 인간보다 수백 배나 강한 근력이 필요하다.

서 있는 것조차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건만, 전투적인 움직임은 맹수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이단을…… 처단한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토해 낸 거인이 토막 난 묘목을 테스에게 집어 던졌다.

1미터 길이의 묘목이 땅에 처박히는 순간 테스가 땅을 찍으며 날아올랐다.

투척의 자세를 취하고 있던 거인이 연결되는 동작으로 주먹을 내질렀다. 허공에 떠 있는 테스가 피할 방법은 없어 보였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관성을 무시하듯 전방으로 날아오르며 거인의 주먹 위에 착지했다.

외중력이었다.

거인의 팔뚝 위를 돌진한 그녀는 사브르로 왼쪽 눈을 베고 뛰어내렸다. 그리고 거인이 눈을 가리며 상체를 쳐들자 일행에게 소리쳤다.

“지금이야!”

시로네가 포톤 캐논을 쏘았다. 괴물의 덩치를 고려했을 때 정신력을 아낄 상황이 아니었다.

대포알의 크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빛이 거인의 복부를 직격했다.

포톤 캐논을 품에 안듯 거인의 몸이 휘어지면서 두 다리가 떠올랐다.

거인이 밀려나는 광경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일전에 똑같은 기술에 당했던 카니스가 환각통을 느끼며 눈을 찡그렸다.

시로네 일행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면과 수평을 이루던 거인의 다리가 내려오더니 발바닥으로 땅을 짓누르면서 정지했다.

모두 말을 잃었다.

포톤 캐논을 몸으로 받아 냈다. 성취와 희생의 방에서 5,000에 근접한 파괴력을 냈던 마법이 아니던가? 철문이라면 몰라도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물이 버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세상에…… 어떻게 저걸 맞고 멀쩡할 수가 있어?”

거인의 인상은 구겨져 있었다. 주름이 선명해진 얼굴이 기괴할 정도로 무서웠다.

그 순간 측면에서 에이미의 파이어볼이 날아와 거인의 얼굴을 불태웠다.

에이미의 판단은 주효했다. 불은 세포의 천적. 아무리 근력이 강하더라도 구워 버리면 그만이었다.

수염까지 타고 있는 거인이 얼굴을 붙잡고 휘청거렸다.

불꽃에 갇힌 거인의 얼굴을 확인하자 소름이 돋았다. 녹아서 흘러내리는 피부 안쪽에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고 있었다.

테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저건 스키마잖아? 거인이 어떻게 스키마를?”

## [178] 3. 속된 자의 숲 (3)

아린이 어둠의 권능을 시전했다. 거인이 상처를 입은 지금이야말로 능력이 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아린이 사용하는 어둠의 권능은 식물처럼 가지를 뻗어 내는 형태의 그림자였다. 거인의 그림자로 파고든 가지들이 넝쿨처럼 올라와 발목을 붙잡았다.

아린은 정신 충격 마법인 멘탈 쇼크를 시전했다.

텔레파시가 도둑이라면 멘탈 쇼크는 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트라우마까지는 무리지만 공포증 정도의 충격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다.

멘탈 쇼크의 진정한 강점은 마인드 컨트롤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아케인의 장기이기도 했던 마인드 컨트롤은 상대의 육체를 조종하는 마법이지만 성공하기가 까다롭다.

100퍼센트 확률에 근접하려면 상대 정신력의 20배에 해당하는 집중력이 요구된다.

결국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략과 전술에 따라 때때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멘탈 쇼크가 성공했을 경우였다.

거인을 마인드 컨트롤로 지배할 수만 있다면 숲에서는 두려울 게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카니스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결과를 주목했다.

멘탈 쇼크는 실패였다.

얼굴에 불이 붙은 거인이 더욱 난폭한 동작으로 일행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아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텔레파시, 멘탈 쇼크, 마인드 컨트롤. 정신 계열의 3대신기라 부르는 것들이 거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초경의 그녀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무력감이었다. 여린 감성에 불이 치솟았다.

‘왜지? 왜 안 통하는 거지? 그냥 덩치가 큰 인간일 뿐이잖아?’

“아린! 피해!”

카니스가 아린을 막아서며 섀도 월을 시전했다.

그림자가 일어서는 것과 동시에 거인의 주먹이 그림자에 처박혔다. 섀도 월의 어둠이 가루처럼 흩날렸다. 마법의 흡수량을 초과하는 충격을 낸 것이다.

하지만 거인도 힘을 빼앗겼는지 더는 밀고 들어오지 못했다.

하비스트가 거인의 팔목을 타고 혈관이 지날 법한 부위를 손톱으로 베었다.

스키마를 터득했다면 인간의 육체와 흡사할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맞았다.

팔꿈치가 접히는 부분의 혈관이 잘리면서 피 분수가 솟구쳤다. 하지만 상처는 금세 아물었다. 오히려 고통에 자극을 받았는지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진짜 강하다. 세상에 이런 생명체가 있다니.’

시로네는 순간 이동으로 거인을 유인하자 리안이 포를 뜨듯 거인의 뒤꿈치를 베었다.

카니스가 어둠의 권능을 시전했다. 톱니 형태의 그림자는 공격에 특화되어 있지만 발목을 휘감은 상태에서도 근육을 자를 수가 없었다.

거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전부인 카니스가 소리쳤다.

“엄청난 괴력이야! 뭐든지 빨리 해 봐!”

에이미의 플레임 스트라이크가 거인의 얼굴을 폭격했다. 하지만 불타고 있는 마당에 불을 더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바람의 힘이 더해지긴 했지만 물리력만 비교하면 포톤 캐논보다 약한 위력이었다.

시로네는 광자를 압축시켰다. 모두가 포톤 캐논이라고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예상보다 발동 시간이 길었다.

빛의 덩어리가 물컹하게 일그러지는 모습을 발견한 카니스가 짜증을 터뜨렸다.

“젠장! 뭐 하는 거야! 집중하란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야.”

아린이 말했다.

“광자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물리력으로 쓰러뜨릴 수 없으니 절삭력으로 변환한다. 열로도 충격으로도 소용이 없다면 예리함을 만들면 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옳은 판단이었다.

하지만 카니스는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빛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

시로네도 느끼고 있었다. 방출하려는 빛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 광자를 압축시키는 힘의 방향에 차이를 두면 가능하리라 여겼지만 정신의 소모량이 터무니없이 많았다.

이빨 사이로 신음이 새어 나왔다. 흔들리는 정신을 금강불괴로 조이면서 집중의 강도를 높이자 광자가 납작하게 찌그러졌다.

원반의 형태로 변한 포톤 캐논이 거인을 향해 쇄도했다.

어둠의 권능을 힘으로 끊어 낸 거인이 허리를 뒤틀었다. 빛의 칼날이 옆구리를 베고 지나가자 상처가 한 뼘이나 벌어지면서 핏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다.

어쨌거나 치명타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일행은 검사고 마법사고 눈을 뒤집으며 달려들었다.

사브르로 찌르고 대검으로 두들겨 팼다. 화염으로 태우고 그림자의 톱으로 써는 등 별짓을 다 하자 거인의 몸이 뒤로 넘어갔다.

공격은 계속되었지만 손칼만 가지고 드래곤을 해체하는 기분이었다. 근섬유 한 가닥만 해도 강철의 강도였다.

에이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아, 하아. 죽었지? 죽었을 거야, 응? 그렇지?”

“몰라. 죽었겠지. 불안하면 한 번 더 할까?”

테스가 몸서리를 쳤다.

“아니, 더 이상은 못 하겠어. 잔인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둠의 권능으로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진짜 안 잘리네. 살부터 발라내는 건 어때?”

카니스의 말이 결정타였는지 전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물러섰다. 어쨌거나 거인은 움직일 기미가 없었고 시로네가 낸 상처도 재생되지 않으니 놔두는 게 상책이었다.

테스가 시로네에게 엄지를 쳐들었다.

“멋졌어, 시로네. 이번에도 새로운 마법이네?”

“운이 좋았어. 거인이 피했다면 두 번은 없었을 거야.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

카니스는 못마땅했다. 포톤 캐논은 충격 위주의 마법이다. 그런데 형태를 바꾸어 절삭력으로 변환시킨다? 발상 자체는 굉장하지만 암흑 마법사로서 밥그릇을 뺏긴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흥, 이겼으니 망정이지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어. 우리가 팀으로 움직이는 이상 개인의 정신력은 파티의 정신력에 수렴해. 실패했다면 전투 불능이었다고. 마법사의 신체마저 방패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열 이탈은 위험하단 말이야.”

“나도 알고 있어. 생각보다 효율이 나빠서 나도 당황했다고.”

카니스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쏘아붙이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노선을 선회한 통찰력은 확실히 재능이었다.

아린도 같은 생각인지 시로네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초경으로 지켜보다가 말했다.

“예전에도 느꼈지만 저 아이, 정말 발상이 자유로워.”

도박이지만 확률이 높은 도박이었다.

승리에 도달하기 위해 포기할 것과 그러지 않을 것을 택하는 통찰력. 10개 중에 1~2개만 틀려도 지금의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터였다.

“쳇, 원래부터 순발력은 좋은 놈이었으니까.”

카니스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찌 됐건 지금은 팀이었고 인정할 것을 부정하는 건 열등감의 소치였다.

“그으으으.”

거인의 신음 소리를 내자 시로네 일행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아직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으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였다.

의견을 교환할 필요도 없이 숲으로 내달렸다.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세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거인하고는 두 번 다시 싸우지 않을 생각이었다.

@

에이미는 홍안과 테스의 감각, 자연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아린의 능력까지 더해지자 별다른 위기 없이 길을 잡을 수 있었다.

도착한 곳은 암벽 지대였다.

그림자가 많다는 게 카니스와 아린의 마음에 들었다. 시로네의 마법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암흑 마법은 어둠에서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여기라면 안심이군. 여차하면 다크포트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크포트는 여러 명을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

암흑 마법에는 광자화 마법처럼 효과를 전이시키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암흑의 마법사 외에는 그림자를 타고 이동하는 게 불가능했다.

카니스는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최소한 전술적으로 도움은 되겠지. 여기라면 혼자서도 적들을 유인할 수 있으니까.”

테스가 순번대로 돌아오는 물통을 넘겨받으며 말했다.

“스키마를 사용하는 거인이라니. 여기 너무 위험한 거 아냐? 게다가 아린의 정신 마법이 소용없다는 것도 불안하고.”

“미안해. 내가 도움이 못 돼서.”

아린이 고개를 숙이자 테스가 양손을 휘저었다.

“아니야. 거인은 나도 감당이 안 되던 것을 뭐. 어쨌거나 이겼잖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겼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고 보니 천국도 별거 아니네, 호호호!”

테스가 분위기를 풀었으나 마법사들은 오히려 얼굴색이 어두워졌다.

임기응변이 몸에 밴 검사와 달리 마법사는 예상 밖의 상황이라는 것을 싫어한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여 마침내 지배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게 그들이었다.

광자의 형태를 변형하는 마법은 파티를 운용하는 전략에 들어 있지 않았던 목록이었다.

변수에 변수가 더해지면 결국 전멸로 간다는 것을 아는 그들은 개인의 발상에 의지하여 얻어 낸 승리가 기쁘지 않았다.

“조금 전의 전투에서 우리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어. 도착하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쯤에서 복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때?”

시로네가 운을 띄우자 에이미가 말했다.

“난 처음치고는 괜찮았다고 봐. 승리했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말은, 어쨌든 시로네는 해법을 찾아냈고 앞으로 그 해법은 여러 상황에 접목될 여지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같은 적을 만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어.”

에이미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었다.

물론 카니스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쪽이었다. 하지만 욕심으로 거짓된 의견을 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아마도 시로네는 조금 전의 전략을 다시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

“맞아. 너무 위험해. 광자를 압축시키는 시간도 그렇고 효율도 떨어져.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시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발상은 그럴듯했어. 광자에 질량을 담을 수 있다면 빛 또한 물질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형태의 변형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카니스가 시로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시도하려고 했던 방식이 암흑 마법의 전유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판이야. 정신을 세공하는 건 너하고는 상극이라고. 암흑 마법의 특성이니까. 암흑 마법은 충격력은 떨어지지만 형태의 변형을 통해 공학적인 힘을 발휘해. 나 같은 경우는 톱니, 아린 같은 경우는 나무덩굴.”

아린이 어둠의 권능으로 시범을 보였다. 땅 위로 솟아오른 그림자가 정교한 사과나무의 형태로 변했다. 거기에 더해 크기를 조절하여 입체미까지 드러내고 있었다.

시로네가 감탄하자 아린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마법사들은 사방식을 쓰지만 암흑 마법은 정신 세공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사방식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걸 모델링이라고 불러. 얼음이나 어둠처럼 안정성이 좋은 계열은 조형이 쉬운 반면에 불이나 빛은 활동성이 너무 강해서 모델링이 어려운 거야.”

에이미가 동의했다.

“생각해 보니 나도 그러네. 불꽃의 형태까지 조절하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에어 계열의 속성을 접목해서 마법을 구사하는 거고.”

“맞아. 하지만 빛은 화염보다 더 어려워. 아니, 이론상 모델링이 불가능해. 다른 속성에 빛의 특징을 더할 수는 있어도 빛에 다른 속성을 더할 수는 없는 것과 같아. 물론 시로네는 신의 입자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특수한 경우일 뿐이야. 덕분에 어느 정도의 모델링은 성공했지만 그조차도 실전에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시로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면 앞으로 거인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레이저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거인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레이저는 내구력에 상관없이 물질을 파괴할 수 있지만 에너지 축적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에게는 효과가 낮았다.

세상에 없는 마법이었기에 망정이지 하비스트가 레이저의 특성을 미리 알았다면 저번처럼 쉽게 당하지는 않았을 터였다.

“문제는 우리가 만난 적이 거인 하나뿐이라는 거야. 이 세계에서 거인은 얼마나 강하지? 그걸 알 수만 있다면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179] 3. 속된 자의 숲 (4)

리안의 지적에 시로네가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냈다.

“그렇구나. 생각해 보자. 생물이 있다는 건 섭식을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따졌을 때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피라미드형이지. 거기서 포식자의 분포만을 추출해서 통계를 내 본다면 대략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시로네는 여자의 몸처럼 굴곡이 심한 피라미드를 그렸다.

하위 포식자, 중간 포식자, 상위 포식자 사이에 소수의 돌연변이 포식자가 끼어 있는 형태였다.

육식동물만 표기한 것이기에 최하층과 중간층이 동등한 분포를 나타냈다.

“여기 돌연변이 포식자는 뭐야?”

“포식자 중에는 사냥으로 먹이를 구하지 않는 종이 많으니까. 함정을 이용한달지, 아니면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섭식하는 생물이 있을 수 있지. 우리 세계에서 원숭이 같은 종류 말이야.”

“그렇군. 그럼 거인은 어디에 위치해 있지?”

“중력도 비슷하고 공기도 있으니까 생물적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가정하고 따진다면 여기쯤일까? 중간 포식자와 상위 포식자 사이.”

“호오, 거인이 돌연변이 포식자야? 저렇게 강한데?”

“음, 상위 포식자일 가능성도 있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는 셈이지만, 전투 방식이 너무 원시적이라고 할까? 고양이 같은 경우만 봐도 사냥 방식 자체는 세련되어 있잖아. 하지만 나무를 뽑아서 휘두르는 건 사냥에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돌연변이 포식자로 분류했어.”

테스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하위 포식자와 중간 포식자 사이의 돌연변이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문제 아니야? 이 숲에 있는 대부분의 포식자가 거인보다 강하다는 얘기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언어를 사용한 것 같았거든. 조금이나마 지성이 있다면 중간 포식자보다 아래일 수는 없을 거야.”

카니스가 말했다.

“그렇군. 그럼 우리가 최초에 만난 거인은 상위 30퍼센트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 물론 다른 분포에 속해 있을 확률도 없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어쨌거나 개체 수가 많지는 않을 거야. 감각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거인보다 강한 적을 마주칠 확률은 10퍼센트 미만이 될 것 같은데.”

상황을 정리한 에이미가 결론을 내렸다.

“그럼 문제없는 거 아냐? 여섯이서 싸우면 못해 볼 상대는 아니야. 다친 사람도 없고.”

시로네는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에이미의 말이 맞다. 하지만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 확률이란 신기루에 불과한 것도 사실이었다.

천국에 도착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돌릴 수 없게 만들고 있는 듯했다. 어떠한 개연성도 없는 착각일 뿐이지만 어차피 모두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터였다.

결국 아직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설령 지금보다 더 큰 위험이 닥치더라도.

“좋아, 일단 성벽까지는 가 보자. 나도 여기에서 포기하기는 싫으니까.”

배낭을 짊어지고 출발할 채비를 하는 그때 숲에서 폭음이 들렸다.

테스의 청각이 여자의 음성을 감지했다.

거인의 습격보다 위험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정말로 여자라면 지성적인 존재라는 얘기였다. 그녀에게서 들을 수 있는 정보는 무한대에 가까울 터였다.

서로를 돌아보며 의사를 교환한 시로네 일행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숲으로 뛰어들었다.

@

키이잉! 킥! 킥!

육족보행마 독각귀가 거친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갑각류에 속하는 독각귀는 삼각뿔처럼 뾰족한 6개의 다리를 땅에 박으며 움직이는 생물이었다. 연보랏빛의 몸체는 갑각으로 둘러싸여 있고 얼굴의 중심에 왕눈이 하나 박혀 있었다. 이마에 난 기다린 외뿔은 유니콘의 뿔보다도 길고 단단해 보였다.

“레나! 이쪽으로 몰아!”

“알았어! 조심해, 언니!”

카냐와 레나가 독각귀를 앞뒤에서 포위했다.

흑발을 허리까지 늘어뜨린 여성이 카냐였고 눈이 크고 예쁘장한 아이는 그녀의 여동생 레나였다.

천국의 신민인 메카라는 종족으로 갸름한 턱 선과 작은 코, 초승달처럼 얇은 입술은 다른 종족에 비해 동안을 자랑했다.

그녀들의 나이는 열일곱 살과 열네 살이지만 얼굴만 보고서는 누가 더 어린지 구별을 못 할 정도였다.

독각귀의 후미를 제압한 레나는 사각을 노리고 검을 휘둘렀다. 날에 수많은 선들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검은 복잡한 조립 방식으로 만들어진 무기답게 효력이 대단했다.

독각귀의 등판을 후려치자 팡 하고 충격파가 터지며 갑각의 파편이 튀었다.

벌써 세 번째 공격을 받은 독각귀가 예의 괴성을 지르며 옆으로 움직였다. 그에 맞춰 레나도 몸을 날렸다.

독각귀의 외눈은 반경 330도를 살필 수 있을 만큼 시야가 넓지만 레나는 유일한 30도의 사각을 고수하고 다시 갑각을 후려쳤다.

흥분한 독각귀가 방향을 틀며 돌진하자 이번에는 손목에 차고 있는 카이트실드 형태의 방패를 내밀었다.

장난감처럼 작은 방패였지만 뿔이 충돌하자 그보다 몇 배나 거대한 방패의 환영이 튀어나와 독각귀를 밀어냈다.

몸이 뒤집어진 독각귀가 풍뎅이처럼 여럿 다리를 허우적거렸다. 가까스로 중심을 찾아 일어섰지만 충격이 가시지 않는지 자꾸만 오른쪽으로 비틀거렸다.

카냐는 아크를 겨누었다.

활의 형태와 흡사했지만 철로 만들어졌고 활시위가 없었다. 대신에 잡아당길 수 있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끌어당기자 활의 끝과 끝에서 적색 빛이 튀어나와 독각귀를 겨누었다.

삼각측량으로 목표물을 조준할 수 있는 무기였다.

영점을 잡아 주는 이상 발사체가 빗나가는 일은 없다. 카냐는 적색 빛이 모여드는 붉은 점을 독각귀의 얼굴에 맞췄다.

위기감을 느낀 독각귀가 어지러운 와중에도 좌우로 움직였다. 그러자 카냐도 독각귀의 움직임에 맞추어 허리를 틀었다.

레나가 다시 사각으로 사라지자 겁에 질린 독각귀는 카냐에게 뛰어들었다.

카냐는 독각귀의 외눈을 겨누고 손잡이를 놓았다. 철사가 빠르게 감겨들어 가면서 아크의 중심에서 작은 구술이 튀어 나갔다.

독각귀의 눈을 파고들어 간 구슬이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켰다. 독각귀의 몸이 덜컥 흔들리더니 땅으로 고꾸라졌다.

내장이 녹아 버렸을 테지만 여전히 소름 돋는 비명을 질러 대고 있었다.

레나가 검을 역수로 들고 갑각의 틈새를 찔렀다. 펑 소리를 내며 독각귀의 몸이 소금을 튀긴 것처럼 솟아올랐다.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전투를 끝낸 카냐가 아크를 내리고 땀을 닦았다.

“후우, 힘들었다. 이번에는 좀 질긴 놈이었어. 그렇지?”

“응. 언니는 괜찮아?”

“보다시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상하네. 어째서 독각귀가 나타났지? 서식지하고는 거리가 있을 텐데.”

“혹시 우리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그럴 리가. 드론도 정확히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걸. 어쩌면 숲의 율법이 변했는지도 몰라.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그래도 엘릭서는 챙겨야지. 혹시 들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레나는 독각귀의 몸에 올라탔다. 갑각을 벌리고 손을 쑥 집어넣자 녹아 버린 내장이 죽처럼 뜨끈했다.

징그러운 감촉이지만 레나는 당돌하게 혀를 내밀며 무언가 잡힐 때까지 휘저었다.

한참을 뒤지던 그녀의 눈에 쾌감이 차올랐다.

“어? 있다! 언니, 있어!”

독각귀의 몸에서 붉은 빛을 내는 구슬이 나왔다.

“야호! 레드 엘릭서야. 고마워, 독각귀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동생의 모습에 카냐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연옥의 생물 중 대부분의 종들은 체내에서 엘릭서를 키운다. 신의 보호를 받는 신민에게는 딱히 필요가 없지만 연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물질이었다.

“운이 좋았네. 자, 이제 빨리 가자.”

엄한 언니로 돌아와 동생을 다그치는 순간, 카냐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묘한 기운에 뒤를 돌아보았다.

숲에 박힌 눈동자들이 살기를 번뜩였다.

잠시 후 뾰족한 다리로 암석 지대를 두드리며 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독각귀였다. 그것도 무려 일곱 마리나.

“레나! 이쪽으로 와!”

동생을 끌어당긴 카냐는 전투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떠나질 않았다.

서식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독각귀가, 그것도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쳇. 방심했어. 드론을 계속 확인했어야 했는데.’

천외지옥이라 불리는 연옥이지만 이곳에도 신의 의지는 드리워져 있었다. 물론 이성이 없는 마물이기에 율법은 본능처럼 작용한다. 결국 본능에 변화가 생길 만한 어떤 사건이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였다.

“하필이면 지금……!”

숲의 율법이 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신민이 천국을 벗어나 연옥으로 나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

확률적으로 낮은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언니, 어떡하지? 독각귀가 너무 많아…….”

독각귀 한 마리는 메카족 한 명이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마리라면 메카족 다섯 이상이 필요했다.

율법에 따르면 메카족의 장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집단 전투였다.

육체 능력은 신민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집단을 이루면 케르고족이나 노르족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들이었다.

카냐가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이것이었다. 아크가 있다고 해도 일곱 마리의 독각귀를 물리치기는 불가능했다.

대체 숲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마물을 피하기 위해 1년이나 루트를 점검했건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키이잉! 킥! 킥!

독각귀들이 뿔을 흔들며 위협하자 자매는 등을 맞대고 서로의 뒤를 보호했다.

간을 보듯 접근하던 독각귀 한 마리가 레나에게 뛰어들었다.

메카의 방패인 엑스드를 내밀자 강력한 반탄력이 독각귀를 튕겨 냈다.

레나와 위치를 바꾼 카냐가 아크를 갈겼다. 정밀 조준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발사체는 독각귀의 갑각을 강타하고 폭발을 일으켰다.

독각귀가 충격에 바닥을 구르는 것과 동시에 남은 놈들이 덤벼들었다.

“언니! 내 뒤로 숨어!”

레나가 다시 위치를 바꾸어 엑스드를 내밀었다. 독각귀의 뿔이 방패에 닿을 때마다 천둥 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충격파 무기인 시그나까지 휘둘렀지만 사각에서 공격하지 않는 한 독각귀는 맞히기 어려운 마물이었다.

엑스드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반탄력의 한계치를 초과하자 방패의 기능이 정지하면서 흔한 장난감이 되어 버렸다.

일곱 마리의 독각귀가 사방에서 협공을 가하자 카냐와 레나는 서로를 껴안으며 눈을 감았다.

죽음의 공포보다도 죽기까지의 고통이 더욱 두려웠다.

독각귀는 살아 있는 인간의 배에 주둥이를 꽂아 내장을 빨아 먹는다. 카냐는 지금이라도 레나의 시그나를 빼앗아 그녀의 목을 베어야 할지 고민했다.

일곱 마리의 독각귀가 뿔로 자매의 몸통을 꿰뚫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섬광이 내려왔다.

카냐와 레나의 눈에 소년의 뒷모습이 보였다. 금발이었고 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시로네는 착지와 동시에 광폭을 시전했다.

반경 3미터에서 5미터 사이에 빛의 장막이 왕복하면서 독각귀를 모조리 튕겨 냈다.

바닥이 원형으로 움푹 꺼지자 두 여성이 주저앉았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시로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속된 자들의 숲에 사람이 산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괜찮아?”

시로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평생을 달려도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향수병과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었다. 두 여성의 정체가 뭐든지 간에 징그러운 괴물은 적이고 사람은 아군으로 느껴졌다.

소년의 등장에 카냐는 경계심을 높였다. 반대로 사춘기 소녀인 레나는 뺨을 발그레하게 물들였다.

‘잘생겼다. 노르인인가?’

두 여성이 동상이몽을 하는 동안 시로네 일행은 독각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리안과 테스가 각기 한 마리씩을 도맡았다.

일합을 치른 리안은 적잖이 안심했다. 쉬운 상대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강함은 원래의 세계에서도 몬스터라는 이름으로 꽤나 많이 접해 본 그였다.

독각귀의 뿔을 잡고 완력으로 젖히자 위태로운 여섯 다리가 발라당 뒤집혔다.

리안은 놈의 복부에 직도를 꽂아 넣어 땅에 고정시켰다.

## [180] 3. 속된 자의 숲 (5)

테스의 전투도 막바지였다.

무게감이 떨어지는 사브르는 독각귀의 갑각을 깰 수 없으나 틈새를 노리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갑각의 사이를 찔러 대며 기동력을 떨어뜨린 테스는 결정타로 외눈에 사브르를 꽂았다. 그리고 사브르를 뒤틀면서 독각귀를 발밑에 굴복시켰다.

전투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자 에이미가 주위에 파이어 월을 쳤다.

이성이 없는 짐승들이었으니 도망쳐 준다면 가장 좋은 결과였으나 예상을 깨고 한 놈이 불의 장벽을 관통해 들어왔다.

덩치를 부풀린 하비스트가 독각귀의 몸통을 붙잡고 등뼈를 꺾어 버렸다.

아린은 초경이 통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네 마리의 독각귀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시전하자 개중에 두 놈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인드 컨트롤에 걸려든 두 마리의 독각귀가 몸을 돌려 아군을 찔러 대기 시작했다.

마물끼리 치고받으니 일행이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

독각귀의 숨통을 끊은 리안과 테스가 무기를 갈무리하며 시로네에게 돌아왔다.

에이미가 파이어 월을 해제하자 독각귀들의 혈투가 보였다. 뿔과 다리, 주둥이까지 사용해 서로를 찌르고 쓰러뜨리고 짓밟는 중이었다.

이 대 이로 숫자가 같았기에 아린의 독각귀 조종 실력이 관건이었다. 처음에는 생소한 생물이라 적응이 되지 않았으나 금세 특성을 간파하고 사정거리가 긴 뿔을 이용해 각개격파 전술을 시도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지켜보고 있던 일행은 소름을 쓸어내렸다.

특히나 카냐와 레나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율법에 따르는 존재가 율법을 거스르고 동족을 죽이다니. 오늘은 속된 자들의 숲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 날이었다.

전투에 승리한 아린이 숨을 크게 내쉬었다.

마인드 컨트롤 자체가 지속적으로 정신력을 소모하는 데다 싸움을 시킬 때에는 피지배 생물의 전의마저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했다.

아린의 지배하에 있는 독각귀가 시로네 쪽을 돌아보았다. 카냐와 레나가 황급히 물러섰으나 놈들은 그저 복종의 자세를 취할 뿐이었다.

아린은 남은 독각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초경을 통한 마인드 컨트롤의 어마어마한 성공 확률은 아린만의 강점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약점이 되기도 했다. 감정 동화율이 높다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였다.

세상의 모든 정신을 다루는 정신 계열 마법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린은 역시나 머뭇거렸다. 아무리 마물이라도 자신을 위해 싸워 준 존재의 생명을 잔혹하게 끊는다는 건 괴로운 일이었다.

자칭 마음이 여리기로 둘째가라면 서운한 테스가 아린의 심정을 대변했다.

“그냥 데리고 다니면 안 돼? 두 마리만 있어도 엄청 든든할 것 같은데?”

“안 돼. 이 정도 마물에 정신력을 낭비할 수 없어. 초경이 통한다는 걸 알았으니 아린은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아. 정신 채널도 항시 유지해야 하고.”

“음, 풀어 주는 건?”

“다시 공격하러 오겠지. 최악은 다른 무리를 데려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아쉽지만 죽이는 수밖에. 서로 싸우게 해서 죽이면 되지 않나?”

자칭 마음이 여리기로 둘째가라면 서운한 테스의 말에 아린은 입술을 말아 물었다.

독각귀를 조종해 다른 독각귀를 죽인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가뜩이나 동화율이 높은 데다가 함께 싸웠다는 아군의 감정까지 더해졌으니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리안이 대검의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죽일게. 그냥 붙들고만 있어.”

카니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아린이 해야 되는 일이야. 정신 계열의 마법사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려면 언제까지고 나약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어.”

초경의 능력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하려면 이 정도의 상황쯤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카니스는 아린이 오랫동안 옆을 지켜 주기를 바랐다.

“아린, 마법협회에 끌려갔을 때 약속했잖아. 스승님은 이제 세상에 없어. 우리가 강해져야 돼. 이곳은 동정심을 발휘할 만큼 여유로운 곳이 아니야.”

아린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카니스의 말이 옳았다. 초경에 의지할 것인가 초경을 지배할 것인가. 힘든 일이지만 한 번은 이겨 내야 하는 문제였다.

아린은 독각귀들을 숲의 경계선까지 걸어가게 했다. 그런 다음 뿔로 서로의 눈을 찌르도록 만들었다.

두 마리의 독각귀가 얼굴을 맞댄 채 쓰러졌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니 다른 방식으로 치명상을 줄 방법은 없었다.

아린은 애써 웃어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비스트는 유리관을 사이에 두고 그녀와 마주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마법사치고는 유약하다는 평가가 여전히 돌지만,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린의 강점이자 약점이지. 상대의 정신과 쉽게 공명하지만, 그렇기에 독해질 수 없는 거야. 아케인은 언제나 이 점을 아쉬워했지.”

“하지만 이제는 변하고 있어. 아린은 잘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린의 슬픔을 함께 느끼던 시로네는 하비스트와 카니스의 대화를 듣고 안심했다. 비록 힘든 직업을 택했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동료가 있었다.

“어쨌거나…….”

시로네가 운을 띄우며 돌아보자 친구들도 카냐와 레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두 여성은 움찔 놀랐다. 여섯 명의 눈에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감동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다.”

“응, 사람이야. 칼과 방패도 있어.”

“아, 칼과 방패. 저걸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휘두르는 거인하고 대화할 생각을 하니 아찔했거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이어지자 카냐가 동생을 가로막았으며 소리쳤다.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 도대체 누구야?”

아린이 스피릿 존을 연결하여 텔레파시를 시도했다. 카냐의 정신이 전해지자 아린은 초경으로 구체화시켜 시로네 일행에게 전달했다.

시로네는 최대한 호의적으로 말을 건넸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왔는데…….”

매서운 눈초리가 시로네를 멈춰 세웠다.

알아들을 수 없던 말이 갑자기 이해되자 카냐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입 모양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것도 마법인가? 너희 노르족이야?”

“노르족? 그게 뭔데?”

카냐는 대답 대신 오른팔을 내밀었다. 하늘에서 드론이 날아왔다. 딱정벌레처럼 생긴 기계장치가 손목에 내려앉더니 계단처럼 분리되며 건틀렛으로 장착되었다.

“언어 해독.”

건틀렛의 손등 부분에 빛이 들어왔다.

“너희, 다시 말해 봐.”

“무슨 말?”

그것으로 충분했다. 카냐는 팔을 구부려 건틀렛을 확인했다.

데이터 없음. 해독 불가.

드론의 정보를 확인한 그녀는 아크를 꺼내 들었다. 손잡이를 당기자 시로네의 미간에 붉은 점이 박혔다.

“뭐,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숲에서 지켜봤던 시로네는 아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다.

이유조차 모르고 이런 꼴을 당하자 당황스러웠다. 괴물이 사는 곳에서 사람끼리 마주쳤을 때 나오는 반응은 절대로 아니었다.

“레나! 이것들 신민이 아니야! 싸워야 해!”

“하, 하지만 언니……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잖아.”

“이제 알았어. 어째서 독각귀가 이곳에 있는지. 저것들이 숲의 율법을 어지럽힌 거야.”

레나도 그 말을 듣고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얼굴에는 내키지 않는 감정이 묻어났지만 그럼에도 시그나와 엑스드를 들고 싸울 자세를 취했다.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아크에 머리가 날아가기 싫으면. 대체 이 숲에서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너희는 도대체 누구야?”

누구냐고 물어본들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답답해진 시로네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믿지? 신민의 언어를 쓰지 않잖아! 그렇다고 이단도 아니고!”

“어쨌거나 말이 통하잖아. 그러면 된 거 아냐?”

카냐는 눈살을 찌푸렸다. 묘하게도 시로네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화로 풀자고. 말이 통한다면 적어도 그 이상한 무기를 들이미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평화? 속된 자들의 숲에서 평화라는 말을 꺼내다니. 너희 정말로 수상해.”

“속된 자들의 숲?”

“여기 숲의 이름인가 봐.”

아린의 설명을 끝으로 침묵이 흘렀다.

대치 상태가 한동안 이어졌다.

시로네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를 제압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으나 싸움은 절대로 싫었다.

인간이다. 말이 통한다. 그녀가 적개심을 풀기만 한다면 이 세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레나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주위를 순찰하고 있던 드론이 500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그녀의 망막에 투사했다. 스무 마리가 넘어가는 독각귀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언니, 큰일 났어. 독각귀야.”

카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숲의 율법이 어긋난 이상 오래 머무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방인들도 싸울 의사는 없는 듯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독각귀를 물리친 실력이라면 충분히 자신을 제압할 수 있었을 테니까.

“일단 따라와. 여기부터 벗어난 다음에 얘기하자.”

카냐는 팔에 찬 건틀렛을 벌레의 형태로 되돌려 하늘로 날려 보냈다. 독각귀의 위치를 확인한 그녀는 방위를 결정하고 숲으로 들어갔다.

시로네 일행은 군소리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에이미가 도시와 멀어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4. 율법의 역전 (1)

카냐는 정글과 암석 지대가 뒤섞인 계곡으로 들어갔다.

주위가 절벽에 가로막혀 오직 하늘만 볼 수 있었다. V 자 계곡의 밑바닥을 지나는 시로네는 이 세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걸어가면서 카냐 일행과 통성명을 했다.

카냐는 아직 그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최소한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건 받아들인 듯했다.

“이곳은 소용돌이 뱀의 계곡이야. 율법이 다르니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가장 위험한 일은 시로네가 그 이상한 무기에 맞는 거겠지.”

리안이 농담에 카냐의 눈매가 샐쭉해졌다. 숲에서 있었던 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울화통이 터지는 쪽을 꼽으라면 오히려 자신이었다.

시로네가 리더라는 걸 짐작한 그녀가 삿대질을 하며 물었다.

“너희 진짜 정체가 뭐야?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게 말이나 돼?”

“하지만 사실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이번엔 네가 설명해 봐. 이 세계는 어떤 곳이야? 아까 쓰러뜨린 거인도 그렇고.”

“거인? 방금 거인이라고 그랬어?”

“응, 거인.”

“그러니까 거인을 죽였단 말이야!”

“아니, 죽이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시로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카냐가 멱살을 붙잡고 소리쳤다.

“거인을 죽이면 어떡해, 이 멍청아! 거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야! 결국 너희였어. 거인을 죽여서 독각귀들이 설친 거였다고!”

에이미가 카냐의 손을 뿌리쳤다. 여태까지 정보를 얻기 위해 성질을 죽이고 있었지만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안 죽였다고 했잖아! 그리고 거인이 먼저 공격했단 말이야!”

“당연하지! 율법을 어긴 건 우리니까! 속된 자들의 숲은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란 말이야!”

으르렁대는 두 여성의 사이를 시로네가 파고들었다.

“그렇게 말해도 우린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어? 우린 정말로 다른 곳에서 왔단 말이야.”

카냐는 멍해졌다. 시로네가 하는 어떤 말도 자신을 설득시키지 못했지만, 그렇기에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너희 설마…… 정말로 다른 곳에서 온 거야?”

“여태까지 말했잖아. 그렇다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음…….”

카냐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다.

어릴 적에 들은 일화에 불과하지만 분명 있었다, 천국의 지배를 받는 땅의 나라의 인간들이.

그들은 신민의 후예지만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기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수명이 다할 동안 필멸자의 고통에서 허우적댄다고 들었다.

## [181] 4. 율법의 역전 (2)

“좋아, 설명해 줄게. 이곳은 천외지옥이라 불리는 곳이야. 연옥이라고도 하지.”

“연옥? 여기가?”

“응, 땅의 감옥. 율법을 거부한 이단들이 사는 곳이거든. 이제야 알겠어. 너희는 땅의 나라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한 거야. 그래서 이곳에 떨어진 거고.”

시로네는 그녀의 착각을 바로잡지 않았다.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테고 딱히 틀린 얘기도 아니었다. 일행 중에 앙케 라를 믿는 자는 없었으니까.

“마법을 쓰는 걸 보니 노르족의 후예인 모양인데 불쌍하게 됐군. 연옥에 떨어진 이상 너희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어. 결국 죽게 될 거야.”

“맞아, 결국 죽게 되겠지.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잖아.”

카냐는 조금 우쭐해진 듯 턱을 치켜들었다.

“천만에. 나는 신에게 선택받은 신민이야.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지.”

시로네는 케르고의 신화를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면 확실히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지가 않았다.

생물은 노화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사망을 막는 건 마법의 힘으로도 불가능했다.

시로네 일행의 정체를 깨달은 카냐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이단은 싫지만 이들은 신의 권능을 영접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불쌍한 자들이었다.

“할 수 없지. 너희 운이 좋은 거야. 나를 따라와. 지낼 곳을 소개해 줄게.”

“갑자기 왜 잘해 주는 거야? 네가 신민이고 우리가 이단이라면 오히려 나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카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돌아섰다.

“의심이 많은 거 보니 노르족의 후예가 맞네. 천국이라면 내쫓았겠지만 이곳은 괜찮아. 연옥에서는 어떤 율법도 신민을 지켜 주지 못하니까. 너희와 나는 같은 처지라는 거야. 아무튼 빨리 가야 해. 해가 지면 위험해지니까.”

계곡으로 들어갈수록 절벽의 높이가 치솟았다. 날벌레 한 마리 존재하지 않는 쓸쓸한 곳이었다. 약간의 습기 그리고 메아리. 거대한 자연에 그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설마 또 이상한 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

“걱정하지 마. 소용돌이 뱀의 계곡은 강력한 하나의 율법이 존재하는 곳이라 독각귀처럼 위험한 마물은 살고 있지 않아.”

“어떤 율법인데?”

“소용돌이 뱀. 1만 년 이상 이곳에 산다고 알려진 마물이야. 하지만 지금은 자고 있을 거야.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거든. 그래서 빨리 가자는 거야.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노르의 쉼터에 가야 해.”

“아까 우리가 노르의 후예라고 했지? 그럼 노르는 신민이 아니야?”

“당연히 신민이지.”

“그런데 왜 연옥에 노르의 쉼터가 있는 거야?”

카냐는 답답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떠올리고 설명을 덧붙였다.

“천국에 거주하는 신민은 세 종족이야. 노르인도 그중의 하나고. 신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수명이 다하면 영생을 얻어. 하지만 노르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나 봐. 그래서 연옥으로 탈출해서 독립적인 사회를 만든 거야.”

시로네는 태어날 때부터 수명이 정해진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일단은 넘어갔다. 적어도 영생을 얻는다는 말보다는 신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보다는 카냐의 배려가 고마웠다. 시로네가 노르인의 후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르족의 사회로 안내를 해 주는 것이었다.

“고마워, 카냐. 친절하구나.”

“무슨 소리야! 이단에게 친절한 신민은 없어. 어차피 우리도 필요한 게 있어서 가는 거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마. 노르의 쉼터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알은척도 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말한 것과 달리 그녀는 시로네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카냐의 내숭에 레나가 볼을 부풀리더니 한마디를 더했다.

“맞아요. 언니는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가는 거고요.”

“하하! 그래, 고마워. 레나는 자상하네.”

시로네의 칭찬에 레나의 뺨이 붉어졌다.

카냐가 걸음을 멈췄다.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이니 이방인에게 끌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신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레나의 손목을 잡고 절벽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 시로네 일행이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가운데 그녀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다그쳤다.

“레나, 너 대체 왜 그래? 너도 알잖아, 이단하고는 절대 이어질 수 없다는 거.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불경이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저 오빠는…….”

“안 된다면 안 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잘생긴 게 다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남자를 고르면 큰일 난다고.”

“그걸 언니가 어떻게 알아? 언니도 남자 친구 없잖아.”

“크면 다 알게 되어 있어. 아무튼 언니 말 들어, 알았지? 앞으로 저 남자에게 쌀쌀맞게 대하란 말이야.”

“시로네 오빠가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정해서 좋아하는 거야.”

“다정해? 저 애가?”

카냐는 황당한 표정으로 레나를 바라보았다. 동생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확실히 독특하기는 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도 이단이기 때문이다. 자유분방함은 타락을 낳는다. 그런 의미에서 시로네와 어울리는 건 위험했다.

“너, 확실히 말해 봐. 잘생긴 사람이 좋은 거야, 다정한 사람이 좋은 거야?”

레나도 열네 살이니 사랑의 감정을 느낄 나이다. 조만간 엄마 노릇까지 해야 하는 그녀는 동생의 사고방식을 바꿔 줄 필요성을 느꼈다.

“당연히 둘 다지. 잘생겨야 되지만, 또 다정해야 된다고.”

“후우, 너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괜찮아, 언니. 하루밖에 안 본 사람과 사랑에 빠지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도 지금은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잖아.”

신민이 무단으로 연옥을 출입하는 건 율법 위반이었다. 어쩌면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동생을 데리고 나온 것은 후회가 들었다.

아무리 레나가 자신보다 수명이 많다고 해도, 언니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판단이었다.

“미안해, 레나. 나는…….”

“알아, 언니. 게다가 내가 가겠다고 졸랐잖아. 언니만 위험한 일을 도맡을 필요는 없어. 나도 엄마에게 꼭 선물해 주고 싶단 말이야.”

카냐는 레나를 쓰다듬었다. 젖 달라고 울던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 그녀가 신의 은총을 받아 영생을 누리기를 바랐다.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분명 라께서 그렇게 해 줄 것이다.

“그래, 알았어. 빨리 가자.”

계곡은 이제 미로화되어 가고 있었다. 좁은 갈림길에 얕은 물이 흐르고 있어 공기마저 축축했다.

에이미는 홍안을 이용해 카냐의 동선이 뒤죽박죽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전형적인 길을 잃은 자의 동선이었다.

“꽤나 머네. 노르의 쉼터는 아직 멀었어?”

“거기로 가는 거 아냐. 우리도 노르의 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뭐? 아까 노르의 쉼터로 간다고 그랬잖아.”

“거긴 목적지야. 천국에서 도망친 노르인이 만들어 놓은 곳을 신민인 우리가 알 수 있을 턱이 없잖아.”

에이미의 황당한 시선을 느낀 카냐가 말을 덧붙였다.

“걱정하지 마. 그래도 방법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인데?”

“드론을 이용하는 거지. 노르의 쉼터는 누구든 갈 수 있는 열려 있는 시장이야. 시장에서 파견된 안내인이 소용돌이 뱀의 계곡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을 찾으면 돼. 그래서 지금 사람이 머물 만한 장소를 드론으로 수색 중이야.”

시로네는 두 기의 드론이 창공을 비행하는 걸 올려다보았다.

저 비행 물체 또한 원래의 세계에서는 고대 유물이라고 불리는 종류일 것이다. 하지만 말만 고대지 기술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이었다.

문득 네이드에게 보여 준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해졌다.

“저 기계가 정찰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카냐가 관자놀이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내 머리와 연결되어 있거든. 주파수라고 부르지.”

“주파수?”

“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호 같은 거야. 소리와 비슷한 개념이랄까? 망막 비전이라는 기술인데, 드론에서 내 주파수에 전파를 쏘면 눈동자에 상이 맺혀. 내 왼쪽 눈을 자세히 봐.”

카냐의 동공에 전기장 같은 필드가 어리더니 계곡의 조감도가 빠르게 전개되었다. 동공보다 작은 크기임에도 해상도가 높아서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드론이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관찰한 계곡이야. 너에게는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실상은 내 시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망막에 직접 맺히는 화면이니까.”

“엄청난 기술이구나.”

테스는 부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부터 고대 유물에 빠져 있는 그녀지만 특히나 드론은 첩보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물건이었다.

“이런 건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구하는 게 아니라 보급받는 거야. 메카족에게만 지급되는 물건인데 열두 살이 되면 드론을 받을 수 있어.”

“그럼 하나 구해서 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수량이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몰래 빼돌렸다가 걸리면 중징계를 받아.”

“그렇구나. 나도 갖고 싶은데…….”

“다른 신민들도 부러워하는 게 드론이야. 하지만 어차피 개인 암호가 걸려 있어서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 주인이 바뀌면 곧바로 신호음이 울리면서 잠들어 버리거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물건이라는 것에 테스는 더욱 속이 상했다. 가지고 싶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물건이라면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질투가 난 테스는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다.

“노르인이 머물 만한 곳을 찾았어. 여기서 멀지 않아.”

카냐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여 동굴 앞에 도착했다.

드론이 카냐의 손등에 내려앉아 건틀렛으로 변했다.

표면에 최종 포착 지점의 풍경이 떠올랐다.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을 비교한 카냐는 이곳이 확실하다고 말하며 동굴로 접근했다.

그 순간 테스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말렸다.

“잠깐 기다려. 피 냄새가 나.”

“피 냄새?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후후, 당연하지. 나는 어릴 때부터 훈련했으니까. 그 기계도 냄새까지는 못 맡나 보지?”

“무슨 소리야? 메카족의 기술은 14만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어. 다만 드론에 그런 기능이 없을 뿐이지.”

일행은 그제야 테스와 드론 사이에 알게 모르게 신경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긴, 드론의 정찰 능력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압권이었다. 하지만 리안은 고작 철 덩어리에게 질투를 느끼는 테스가 한심할 뿐이었다.

“됐으니까 빨리 해 봐. 괜히 이상한 것에 열등감 느끼지 말고.”

리안이 이상한 것이라 말해 주자 기분이 풀린 테스는 감각계 스키마로 피의 잔향을 추적했다.

동굴로 한 발짝 들어가서 내부를 살핀 다음 한참이나 바깥을 두리번거렸다.

분석을 끝낸 그녀가 일행을 돌아보며 말했다.

“동굴 안쪽에서 피 냄새가 나고 있어. 누군가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동굴 밖으로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

“왜? 밖에서는 피 냄새가 안 나?”

“아니. 오히려 피 냄새가 안쪽에서 진하게 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추측하는 거야.”

“그런데 바깥을 더 오래 확인했잖아?”

“일종의 매뉴얼이야. 만약 밖에서도 피 냄새가 난다면 동굴은 함정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일단 함정은 아니란 얘기네. 들어가 보자.”

시로네는 조명 마법 샤이닝을 시전했다.

빛의 구체가 손바닥 위로 떠오르자 카냐와 레나는 기겁했다. 노르인이 마법을 다루는 종족이기는 하지만 천국에서 이런 마법은 본 적이 없었다.

“언니, 저거 보여? 몸에서 빛을 만들었어.”

“그래. 땅의 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마법을 사용하는구나.”

“응. 그런데 저거…… 꼭 그거 닮지 않았어?”

“레나! 그런 생각은 불경한 거야. 빨리 마음속으로 잘못했다고 빌어.”

레나의 표정이 부루퉁해졌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차렸다는 건 언니 또한 같은 생각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불경은 죄악이었으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라에게 용서를 구했다.

## [182] 4. 율법의 역전 (3)

10미터를 전진하자 피 냄새가 더욱 진하게 났다.

긴장감이 치솟은 테스가 시로네에게 속도를 늦추자고 말하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동굴이 흔들리더니 벽에서 뭉툭한 기둥들이 튀어나왔다. 속도도 속도지만 크기 또한 인간을 압사시키기에 충분했다.

시로네 일행은 반사적으로 물러섰다.

거리를 두고 살펴보니 더욱 기괴했다. 동굴의 벽면에서 튀어나온 수십 개의 기둥들이 교차해 있었다.

“괜찮아? 다친 사람은 없어?”

시로네가 소리치자 에이미의 대답이 들렸다.

“응. 없는 거 같아. 시로네 너는?”

“나도 괜찮아. 설마 함정이었던 거야?”

“아니. 동굴에 인위적으로 개조된 흔적은 없어. 게다가 함정치고는 발동 시점이 너무 빠르잖아.”

테스의 말이 옳았다.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면 피할 수 없는 지점까지 유인해서 함정을 발동시켰을 터였다. 하지만 기둥은 접근을 억제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앞에서 튀어나왔다.

“함정이 아니라면 뭐지?”

동굴 끝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체를 밝혀! 이번에는 빗맞히지 않을 테니까!”

시로네는 샤이닝을 내밀어 안쪽을 밝혔다.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소년이 쪼그려 앉아 양손을 바닥에 대고 있었다. 뒤편에는 강인한 인상의 털보가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는데, 배를 가린 손가락 틈 사이로 핏물이 보였다.

노르의 쉼터 안내인인 가드락이었다.

시로네 일행을 살펴보던 가드락이 제자에게 말했다.

“클로브, 동굴에서는 대지의 마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천장이라도 무너지면 우리까지 죽는다.”

스승의 말을 들은 클로브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에도 경계의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로네는 저들의 대화에서 원래의 세계에 온 것처럼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노르족의 언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발음이나 억양이 대륙공용어와 비슷했다.

카냐가 그들에게 다가가 노르족의 언어로 말했다.

“당신들 노르인이지? 여태까지 찾아다녔어.”

“호오? 이제 봤더니 잘난 신민들이었구먼. 그래, 탐험과 모험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메카족이 여기까지 무슨 볼일이지?”

“그야 당연히 노르의 쉼터에…….”

카냐는 말을 하다 말고 가드락의 상태를 살폈다. 입은 웃고 있지만 안색이 창백했기 때문이다.

그의 배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하나의 율법만이 존재하는 소용돌이 뱀의 계곡에서 부상을 당할 일이 뭐가 있을까?

“당신 다쳤어? 설마 소용돌이 뱀이…….”

“아니, 율법은 아니다. 케르고에게 당했어.”

케르고라는 단어가 시로네 일행의 귀에 꽂혔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으나 카냐가 노르족의 언어를 표층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들의 대화가 통역이 되기 시작했다.

“케르고? 그것들이 여기까지 사냥을 나왔단 말이야?”

“이곳은 이단이 살지 않으니 사냥이랄 것도 없지. 작정하고 우릴 노린 모양이다. 다행히 치명상은 피했지만 출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시로네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방금 케르고라고 했어? 그들이 뭘 어쨌다는 거야?”

“케르고 또한 신민의 한 종족이야. 소용돌이 뱀의 계곡은 마물이 살지 않아서 안전한 장소지만 그만큼 노르의 쉼터로 가기 위해 이단들이 자주 찾는 루트야. 그런 곳에는 또 다른 사냥꾼이 있는 법이지.”

“결국 케르고인이 이단을 사냥한다는 거네.”

“아마도 금방 따라잡힐 거야. 추적 능력이 좋거든. 거기다가 놈들은 거인의 기술까지 사용해. 테스처럼 냄새로 이곳을 찾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시로네는 거인의 기술이 스키마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아린이 노르인에게 직접 텔레파시를 시도했다.

“우리를 노르의 쉼터로 데려가 줄 수 있나요?”

가드락과 클로브의 표정이 황당하게 변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분명한데도 뜻이 저절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 꼬맹이들은 뭐야? 요정의 능력인가?”

“아니, 땅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야. 당신들처럼 마법을 사용해. 사실 좀 다른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노르족의 후예인 것 같아.”

카냐는 가급적 노르인들이 시로네 일행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포장했다. 연옥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남으려면 노르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뭐야, 그러니까 모조인이라는 거야?”

시로네 일행을 향한 클로브의 눈빛이 혐오스럽게 변했다.

노르인은 호기심이 많고 그렇기에 천국에서도 가장 율법을 잘 어기는 종족이었다. 따라서 메카족보다 금단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다.

땅의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땅의 나라는 완벽한 세계인 하늘의 나라를 모방한 그림자라고 한다. 그렇기에 그곳에 사는 인간 또한 천국의 인간을 본떠서 만들어진 모조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클로브의 생각에 시로네 일행은 천국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못한 존재였다. 노르인과 모조인의 격차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만큼 크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모조인이라고? 그게 뭔데?”

시로네의 말을 무시한 클로브는 벽을 따라 놓아둔 배낭들을 가리켰다.

“야, 너희. 이리 와서 짐부터 들어. 하나씩.”

굳이 초경을 통할 필요도 없었다. 클로브의 말투에는 비하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거만하게 턱을 쳐들고 서 있는 모습에 울컥한 에이미가 쏘아붙였다.

“우리가 왜 네 짐을 들어야 하는데?”

“당연한 거 아냐? 도망쳐야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 짐을 왜 우리가 들어야 하냐고.”

“너희는 모조인이니까. 우리가 없으면 너희도 없었을 거 아냐? 당연히 고마운 마음으로 따라야지.”

클로브는 시로네 일행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얼굴은 언제 따져 봤는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에이미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모조인치고는 괜찮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때? 연옥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지 않아?”

에이미의 눈이 매서워졌다.

신민이니 모조인이니, 그런 문제는 이곳의 사고방식이니 넘어가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수작은 천국과 상관없이 성격이 막돼먹은 것뿐이었다.

“손 떼라. 날려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하하! 네가 나를? 하긴, 모조인이니까 마법은 조금 쓰겠네.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될걸.”

“그만해라, 클로브.”

스승님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낀 클로브가 물러섰다.

그제야 이곳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시로네 일행이 눈에 살기를 띠고 노려보고 있었다.

“뭐야? 너희가 쳐다보면 어쩔 건데?”

“클로브, 시간이 없다. 날 여기서 죽게 만들 셈이냐?”

스승님의 부상을 깨달은 클로브는 황급히 가드락을 부축했다. 그러자 제자의 어깨에 기대어 일어선 가드락이 클로브를 대신해 사과했다.

“미안하군. 나조차도 모조인을 본 게 처음이라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어쨌거나 너희도 인간이겠지. 나는 가드락이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지 않겠나? 너희도 노르의 쉼터에 가기 위해 찾아온 것 같은데. 우리가 안내해 주지.”

가드락은 그나마 마법사다웠다. 제자 앞에서 사과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조인이든 뭐든 살기 위해서라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시로네 일행도 오래 머물면 위험하다는 판단이었기에 군소리 없이 배낭을 짊어졌다.

클로브의 작품인 기둥이 얽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가드락을 부축하고 있는 클로브는 빠져나가느라 한참이나 진땀을 빼야 했다.

에이미는 코웃음을 쳤다. 자신이 시전한 마법에 당하는 상황도 고소했지만 이런 것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보면 머리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시로네는 클로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시전한 마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벽에서 기둥이 나오는 마법은 과격하면서도 역동적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이것을 구사하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고대 마법의 기재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시로네는 가드락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마법은 뭐예요?”

클로브가 비하의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을 가로챘다.

“하하! 뭐야, 너희는 못하는 거야? 이거 황당하네. 대지 마법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에이미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했다.

“너라면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됐거든? 나는 내 친구들 고생시키기 싫어.”

조금 전의 상황을 비꼬는 말에 클로브의 얼굴이 빨개졌다.

시로네의 마법에 호기심이 드는 건 가드락도 마찬가지였다. 모조인이고 특이한 마법을 구사한다.

그가 알기로 시로네가 손에 띄우고 있는 빛의 구체는 이곳에서 구현하기 불가능한 마법이었다. 동굴은 어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빛의 정령과 계약을 했다면 모르지만 활동성이 없는 걸 보아하니 그런 것도 아니었다.

“흐음, 설명하기 곤란하군. 너희는 이런 마법을 사용하지 않나 보지?”

“땅의 속성을 이용한 마법은 있지만 동굴에서 기둥이 튀어나오는 마법은 없어요.”

“원리가 다른 것일 수도 있지. 우리는 자연에 깃든 힘을 빌려 마법을 구사해. 불이 있는 곳에서는 불의 마법을, 물이 있는 곳에서는 물의 마법을. 클로브가 대지의 마법을 구사한 이유도 마찬가지야. 물론 붕괴의 위험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스승님. 그때는 진짜 다급했다니까요.”

클로브가 변명했지만 어차피 시로네 일행은 듣고 있지도 않았다. 정신 채널을 통해 대화를 하느라 다른 사람의 헛소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한 마법이라. 상당히 특이하다.

-파괴력도 제법이었지. 클로브라는 놈이 시전한 마법은 원래의 세계라면 상당한 난이도일 거야. 그런데도 쉽게 해냈어. 저렇게 덜떨어진 놈인데도 말이야.

카니스의 말에 에이미가 덧붙였다.

-자연의 힘을 빌리는 이점은 위력 말고도 또 있어. 한 사람이 여러 계열을 다룰 수 있다는 거야. 우리처럼 전공을 정해서 수련하는 것과 달라.

아린이 단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응용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거 같아. 환경에 구속되는 거잖아. 원하는 속성이 주위에 없으면 마법을 시전할 수 없어.

고대 마법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광범위하고 위력이 강하며 다양한 속성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환경의 제약이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법 자체가 봉쇄될 여지가 있었다.

하늘의 마법과 땅의 마법.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아직까지 속단할 수 없는 문제였다.

동굴을 벗어난 카냐가 가드락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런데 노르의 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메카족에게 말해 줄 수 없지. 적어도 이곳에는 없다는 것만 알아 둬. 마법으로 가야 하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해. 나를 따라와.”

그 순간 드론의 신호를 받은 레나가 망막 비전을 확인하고 소리쳤다.

“언니! 큰일 났어!”

카냐 또한 한쪽 눈을 감고 드론이 전송하는 정보를 받았다. 그리 멀지 않은 계곡에서 일단의 무리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런, 케르고인이야! 빨리 가야 돼!”

가드락의 눈에 체념의 빛이 깃들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놈들의 후각은 엄청나게 예민해. 피 냄새를 맡은 거야.”

아직까지는 접근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 냄새를 맡았다는 건 최소한 무리 중의 한 명이 감각계의 고수라는 얘기였다.

“어떡하지? 어떡하죠, 스승님?”

클로브가 발을 동동 구르며 물었다.

가드락이라고 묘안이 있을 리가 없었다.

레나의 말에 의하면 추적자의 숫자는 대략 스무 명이었다. 가드락은 부상당한 상태고 클로브는 실전 경험이 부족했다. 이대로 충돌이 일어나면 전멸이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두의 시선이 시로네에게 집중되었다.

@

흑마를 탄 케르고 추격대가 개울 위를 질주했다.

태양에 반사되는 적색 갑옷을 입은 그들의 눈빛이 이제 막 대장간에서 뽑은 명검처럼 번뜩였다.

동굴에 도착한 추격대의 대장이 손을 들어 접근을 말렸다.

“정지! 동굴 안에 있다!”

대장을 선두로 스무 명의 부하들이 멈춰 섰다. 꽁지머리를 늘어뜨린 여성이 대장의 옆으로 말을 몰았다.

## [183] 4. 율법의 역전 (4)

“제가 들어갈까요?”

“아니. 노르는 자연 친화의 능력을 사용한다. 좁은 곳에서는 불리해. 놈들도 그걸 알고 있기에 우리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은 스키마의 능력을 이용해 동굴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셋을 세겠다!”

부하들이 활을 꺼내 들고 화살을 장전했다.

아크처럼 폭발을 일으키는 화살은 아니지만 스키마의 완력으로 날아가는 화살은 바위조차 꿰뚫는다. 동굴 안에 있다면 피할 틈조차 없이 구멍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

동굴은 고요했다.

“둘!”

대장의 인상이 일그러졌다. 죽기로 작정한 것인가?

노르인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대지의 마법을 이용해 동굴을 차단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을뿐더러 퇴로를 스스로 없애는 꼴이었다.

“셋!”

대장의 미간에 붉은 점이 박혔다.

동굴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자 대장은 초인적인 반사 신경으로 검을 뽑아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막아 낸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시점에는 이미 발사체가 폭발하고 있었다.

“이런 제길……!”

굉음을 터뜨리며 불덩어리가 대장을 집어삼켰다.

부하들에게까지 불의 여파가 미쳤고, 놀란 말들이 마구잡이로 날뛰었다.

그 순간 동굴에서 시로네 일행이 빠져나왔다.

말에서 떨어진 대장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몸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바닥에 검을 꽂으면서 일어난 그가 혼란스러운 진열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메카족과 함께 있다! 놓치지 마라!”

노르인을 추격하던 중이었기에 메카족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로네는 그 사각을 노렸다.

예상은 적중했다. 카냐와 레나는 드론을 통해 추격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렸고 정확한 타이밍에 아크를 쏘아 도주 기회를 만든 것이다.

“적들의 숫자가 많아! 좁은 길을 찾아 줘!”

시로네의 말에 카냐는 드론으로 지형을 확인하고 방향을 틀었다.

작전을 간파한 추격대가 활을 쏘았다.

100미터 거리에서 직사로 쏘았는데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시로네 일행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클로브가 짜증을 내며 돌아섰다.

“내가 시간을 벌게!”

“안 돼! 그냥 뛰어!”

“한 방은 갚아 줘야 노르의 체면이 살지!”

클로브는 얕은 물에 손을 담그고 고대 마법 쉐이빙을 시전했다.

개울물이 얼어붙으면서 하얗게 탈색되기 시작했다.

까드드득!

물이 굳는 소리가 계곡에 퍼지고 얼어붙은 수면 위로 동굴에서 봤던 것과 흡사한 기둥들이 솟아올랐다.

시로네는 달리는 와중에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연의 힘을 빌린 고대 마법의 스케일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개울물이 얼어붙었고, 말을 타고 전진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기둥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쾅 하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일행의 얼굴이 핼쑥해졌다. 말을 포기한 추격대가 칼과 주먹으로 얼음 기둥을 터뜨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노르와 메카가 손을 잡은 것이냐? 하등한 이단들답구나!”

카냐가 아크를 겨누며 소리쳤다.

“우리는 신민이야! 같은 신민인 너희가 율법에 관여할 이유는 없어!”

손잡이를 놓자마자 아크의 발사체가 쇄도했다.

장검을 들고 있는 전사가 발사체를 반으로 베어 버렸다. 잠시 후 뒤편에서 2개의 불덩어리가 폭발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참수한다! 우리야말로 신에게 선택받은 제1신민이다!”

케르고 추격대가 무기를 치켜들며 포효를 터뜨렸다.

원래의 세상에서 봤던 케르고의 문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고급스러운 갑옷과 사치스러운 액세서리. 그들은 신민계의 귀족이었다.

카냐의 옆으로 달린 시로네가 물었다.

“저들이 왜 저러는 거지? 똑같은 신민이면서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가 뭐야?”

“이단 사냥이야. 놈들은 신민 중에서도 가장 신앙이 투철한 종족이거든. 그런 만큼 오만하고 다른 신민에게 호전적이지. 얽혀서 좋을 일 하나도 없어.”

시로네는 입을 다물었다. 이미 제대로 얽혔다.

“짜증 나는 놈들이기는 하지만 거인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해. 연옥은 치외신권지대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지. 붙잡히면 곱게 죽이지는 않을 거야.”

추격대와의 거리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스키마를 운용하는 데다가 시로네 일행에게는 가드락이라는 부상자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가드락이 클로브에게 소리쳤다.

“클로브! 에이오스를 시전하자!”

“위험해요! 스승님은 부상당했잖아요!”

“어차피 이대로는 다 죽어! 어이, 우리가 먼저 빠지겠다!”

가드락은 바람의 마법 에이오스를 시전했다. 가드락이 둥실 떠오르자 클로브도 같은 마법으로 날아올랐다.

시로네는 에이오스에서 플라이 마법을 떠올렸다. 만약 비슷한 기재라면 좁은 계곡에서는 대기의 균형을 잡아내기 힘들 터였다.

예상대로 두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흔들렸다. 금방이라도 절벽에 충돌할 것 같은 상황이었다.

저들이 없으면 노르의 쉼터로 갈 방법이 없다.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로네가 친구들에게 전했다.

-한 사람씩 맡아! 순간 이동으로 가자!

카니스는 다크포트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마법사 네 명이 메카족 두 명과 검사 두 명을 이동시켜야 하니 광자화 마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에이미가 테스를, 시로네가 리안을 붙잡았다. 카니스와 아린도 각각 카냐와 레나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러는 사이 추격대는 지척까지 도달해 있었다.

선두의 케르고인이 말 위에서 검을 치켜들었다. 은빛 장검이 시로네의 머리를 향해 벼락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 순간 시로네 일행의 몸이 섬광으로 변해 솟구쳤다.

가드락과 클로브는 하마터면 마법이 풀릴 뻔했다.

빛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빛으로 변해 버리다니. 게다가 메카족까지 동시에 이동시키는 건 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소한 인간의 기준에서는 그랬다.

“어, 어떻게 자연의 힘을 빌리지 않고 빛의 마법을?”

고대 마법은 반드시 속성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건 빛이었다.

빛은 미약하고 넓게 퍼진 힘이다. 따라서 자연의 힘을 빌리는 고대 마법이라고 해도 빛을 집중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

노르인이 빛의 마법을 시전할 수 있는 경우는 빛이 모이는 장소인 샤이닝 스폿이 있을 때뿐이었다.

클로브는 마음이 심란해졌다.

순간 이동으로 순식간에 높이를 따라잡은 시로네 일행은 자신이 생각하던 하찮고 무능한 모조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시로네의 샤이닝 마법을 봤을 때도 그저 어딘가에 있는 샤이닝 스폿에서 빛을 옮겨 온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저들은 몸에서 빛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가 아는 한, 천국에서 빛을 다루는 존재는 라를 제외하고 단 하나의 위상뿐이었다.

노르인의 감정을 읽은 아린이 정신 채널에 전했다.

-노르인들은 순간 이동 마법을 모르나 봐.

에이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흥! 당연한 거 아냐? 광자화 이론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법 역사상 최고의 발견 중 하나니까. 땅의 나라의 천재들을 우습게 보면 큰코다치지.

에이미는 땅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하늘의 케르고도 만만치는 않은 상대였다. 외중력을 이용해 절벽을 수직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에이미는 수평으로 엎드려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갈겼다.

내리꽂히는 화염의 창을 포착한 추격대가 좌우로 나뉘었다. 절벽을 크게 우회한 그들이 더욱 속도를 높이며 시로네 일행과 거리를 좁혔다.

-쳇! 되게 끈질기네!

-내가 해 볼게.

아린이 촉수를 뻗어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했다.

대부분의 추격대가 저항했으나 한 명이 걸려들었다. 아린에게 지배당한 전사가 동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추격의 전열이 흐트러졌다.

“이런 멍청한 자식들!”

절벽 아래에서 지켜보던 대장이 콧잔등을 일그러뜨렸다.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절벽을 향해 포효를 터뜨렸다.

스키마 기술인 하울링이었다.

“아우우우우우우!”

절벽을 타고 퍼지는 하울링의 반향음이 마법사들의 정신을 강타하자 노르인의 에이오스가 풀려 버리고 말았다.

시로네는 집중력을 발휘해 버텨 냈다. 에텔라의 파마의 함성처럼 정신 자체를 흔드는 기술이었다.

시로네는 추락하는 가드락에게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그의 몸을 붙잡는 것과 동시에 에이미가 날아와 클로브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광자화 마법을 시전하여 관성을 초기화시켰다. 시로네가 리안과 가드락을 데리고 내려앉자 이어서 친구들이 속속들이 지상에 도착했다.

“제길! 언제나 하울링이 문제야. 노르는 케르고랑 상성이 안 맞는다고.”

체면을 구긴 가드락이 변명을 했다. 그러고 보면 스승과 제자가 아예 다르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의아했다. 똑같이 하울링에 당했는데 시로네 일행이 멀쩡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이, 어째서 너희는 괜찮은 거지?”

가끔은 순진하게 물어보는 게 더 짜증 날 때가 있다. 카니스가 그런 마음을 담아 퉁명스럽게 말했다.

“괜찮을 리가 있냐? 머리 울려 죽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마법을 시전한 거야?”

“그냥 참고 하는 거지. 이 정도로 흔들릴 수준이면 어디 가서 마법사라고 하지 마.”

자연의 힘을 빌리는 노르인과 달리 땅의 나라의 마법은 전지와 전능을 결합시키는 상태로 발현된다. 고대 마법보다 까다로운 방식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비효율적으로 가다듬은 집중력이 오히려 그들의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냈다.

또한 시로네 일행에는 특수 능력자들이 많았다.

정신력에 특화되어 있는 아린에게 정신 방어는 전공이었고 에이미는 홍안의 능력으로 아예 면역이었다. 게다가 시로네는 내구력만 놓고 보자면 홍안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알려진 금강불괴 정신력의 소유자였다.

클로브는 개울에 얼굴을 처박은 채로 착지했다. 그러다가 화가 난 표정으로 일어서서 에이미를 돌아보았다.

“너! 네가 감히 나를 처박아?”

에이미의 건방진 태도를 더는 용납할 수 없었다. 성질은 고약하지만 그것 또한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서 참고 있었는데 모조인 따위가 머리끝까지 기어오르고 있었다.

“절대로 가만두지……!”

클로브는 오싹함을 느끼고 말을 멈췄다.

에이미의 눈동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또한 추격대를 노려보는 표정에서는 귀신처럼 한기가 느껴졌다.

에이미가 시선조차 돌리지 않고 말했다.

“전투 중에는 건드리지 마라. 어리광은 이따가 받아 줄 테니까.”

클로브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케르고 추격대가 맹수처럼 눈을 번뜩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클로브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했다.

“다 끝났어. 우린 잡히고 말 거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할 거라고…….”

“작전 짜는 데 방해하지 말고 안 싸울 거면 들어와.”

기세에서 이겨도 전세가 불리할 판에 약한 모습을 보여서 어쩌자는 것인가?

에이미가 클로브의 뒷고대를 붙잡고 끌어당기자 다리에 힘이 풀린 클로브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번만큼은 가드락도 제자를 챙길 정신이 아닌지 신경 쓰지 않고 에이미에게 물었다.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시간에 맞추기는 한 것 같아요. 시로네, 다 끝났어?”

“응. 아슬아슬했어.”

가드락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뭐가 끝나?”

시로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스피릿 존이 사방식의 타깃형에서 휘어진 형태로 하늘에 닿아 있었다. 독자적인 형태였기에 변형하는 데 시간이 꽤나 걸렸다.

시로네는 손을 대지 않고 모두에게 광자화 마법을 걸었다. 건널 수 없는 다리의 절벽에서 목숨을 거는 대가로 깨달았던 마법인 매스 텔레포트였다.

“빨리 잡아! 또다시 도망칠 생각이다!”

추격대의 대장이 부하들을 돌진시켰다. 그리고 자신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울링을 내질렀다.

굉음이 시로네 일행을 휩쓸었다. 가드락과 클로브가 인상을 찡그렸지만 금강불괴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르샤의 음향 대포에 비하면 소음도 아니었다.

시로네는 적들의 전의를 무너뜨리듯 태연하게 대장을 지켜보다가 매스 텔레포트를 시전했다.

굵직한 섬광이 일행을 쓸어 담아 스피릿 존이 닿아 있는 절벽의 꼭대기로 퍼 올렸다.

“젠장! 하울링이 통하지 않다니!”

추격대의 대장이 씩씩거리며 이를 갈았다.

## [184] 4. 율법의 역전 (5)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울링이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한 섬광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마법은 본 적이 없었다.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저것들은 누구야?”

추격의 전문가 두 사람이 시로네 일행의 자취를 쫓기 시작했다. 한 명은 개처럼 코를 킁킁거렸고 다른 한 명은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혀를 빼낸 상태였다.

후각을 이용하는 남자가 항복 선언을 했다.

“대장님, 바람이 막혔습니다. 쫓을 수가 없습니다.”

미각을 이용하는 남자는 조금 더 버텼다. 혀를 턱 끝까지 내린 그가 흰자가 보이는 눈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미각으로는 잡힙니다. 저쪽입니다.”

대장은 후발대가 도착하자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후각의 전문가가 가리킨 방향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어차피 벽 하나를 넘었을 뿐이야! 멀리 가지는 못했다! 추격하라!”

“끼랴랴랴랴!”

추격대가 괴조음을 내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로부터 1분 후.

시로네 일행이 섬광을 타고 원래의 장소에 내려왔다.

케르고의 탐색 능력을 역이용하자는 시로네의 제안이었다.

이미 이곳에는 냄새가 배어 있기에 탐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이 되돌아오는 건 모든 지점을 점검하고 난 뒤가 될 것이다.

가드락은 다시 클로브의 부축을 받았다. 그리고 계곡의 깊숙한 틈새를 가리키며 말했다.

“덕분에 살았군. 당분간은 마주칠 일이 없을 테지. 이쪽으로 가 보자고. 길이 있을 거야.”

에이미가 못 미덥다는 듯 물었다.

“대체 노르의 쉼터는 어디예요? 얼마나 더 가야 되죠?”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군. 너희는 어떻게 빛의 마법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거지? 공기에서 추출하는 건가?”

“우린 그런 방법 안 써요. 갑자기 그건 왜요?”

“노르의 쉼터로 이동하려면 빛이 모이는 곳이 필요해. 너희가 시전한 마법과 비슷하지만 훨씬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지. 어쨌거나 나를 믿고 따라와. 조금만 더 가면 샤이닝 스폿이 있으니까.”

아마도 가드락이 얘기한 마법은 공간 이동일 것이다. 빛이 모이는 곳에서 광자의 힘을 빌려 노르의 쉼터로 한 번에 날아가는 방식인 듯했다.

좋은 선택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설령 추격자가 안내인을 죽여도 노르의 쉼터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노르인의 사고방식은 확실히 마법사다웠다.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과연 노르의 쉼터는 어떤 곳일까?

작은 설렘을 안고 시로네는 계곡의 틈을 따라 반대편으로 빠져나갔다.

@

“대체 어디에 숨은 거지?”

추격대의 대장은 심각했다. 벌써 20분째 주위를 살피는데도 놈들의 냄새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정찰조 한 무리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눈빛부터 실패한 기색이 역력했다.

“없습니다. 마루 계곡에도, 부채 개울에서도 진입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젠장! 다 잡은 것들을 놓치다니!”

“그런데 대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싸울 때 어떤 방법으로 탈출한 것일까요? 분명 그곳은 노르인이 말하는 빛이 집중되는 지역도 아니었는데요.”

대장도 그것을 생각하던 중이었다.

그가 아는 한 노르에서 저런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는 없다. 천외종일 수도 있지만 인간과 흡사한 구석이 많았다.

올해로 벌써 400년째 이단 사냥을 하는 그는 오래된 역사에서 힌트를 떠올렸다.

“설마…… 땅의 인간인가?”

대장의 눈에 예리한 빛이 어렸다. 만약 땅의 인간이라면 추격이 문제가 아니었다.

메카는 아는 것을 파고들고 노르는 모르는 것을 파고든다. 하지만 케르고는 신을 파고들며, 그렇기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신민이었다.

땅의 인간은 모조인 같은 게 아니었다. 적어도 케르고인에게는 율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변수였다.

“추격을 중단하라. 샤마인으로 돌아간다. 보고가 먼저다.”

추적대의 대장을 따라 부하들이 말 머리를 돌렸다.

그 순간 갑자기 땅에서 진동이 전해졌다.

대수롭지 않게 주위를 살피던 모두는 진동이 점차 강해지자 눈을 크게 떴다.

“설마……?”

노르인이 계곡을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율법만 피하면 어떤 위해도 당하지 않는 청정 지대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이 진동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소용돌이 뱀이 출몰한다는 얘기는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율법이…… 어긋나고 있다.”

강풍이 몰아치면서 20명의 시야에 검은 장막이 쳐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어진 것은 절규와 비명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외침 소리가 사라져 갔다.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내려와 차가운 계곡을 비췄다. 붉은 개울 위에 수천 개의 살점이 떠다니고 있었다.

@

“샤마인?”

시로네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카냐는 말을 짧게 했음을 깨닫고 설명을 덧붙였다. 천국 외의 사람들을 처음 접하다 보니 가끔씩 그들이 땅의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천국에서도 신민이 사는 구역이야. 제1천이라고도 하지.”

“제1천이라. 첫 번째 하늘이라는 건가?”

그 질문에는 가드락이 대답했다. 이단인 그는 천국을 설명하는 데 카냐보다 부담이 덜했다.

“천국은 제1천부터 제7천까지 7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그중에서 신민이 사는 곳을 샤마인이라고 부르지.”

시로네는 하늘에서 보았던 풍경을 떠올렸다.

거대한 원형의 성벽 안에 파이처럼 쪼개어진 6개의 구역과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구역.

가드락이 말한 7개의 하늘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샤마인에 모든 종족이 모여 사는 건가요?”

“그렇지. 생활권은 다르지만 제1천에 사는 건 똑같아. 케르고도 얌전하게 지내지. 신민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보호를 받으니까. 하지만 연옥은 치외신권이야. 그래서 천국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곳에서 생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대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종족이 살고 있는 거죠?”

“연옥까지 포함하면 수도 없지. 천외종이라고 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생물도 많아. 너희가 상대했다던 독각귀도 천외종이지. 하지만 신의 율법을 지키는 신민은 아직까지는 세 종족뿐이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천국의 근간을 이루지. 노르는 탐험을 좋아하고, 메카는 탐구를 좋아해.”

“그러면 케르고는 무엇을 좋아하죠?”

가드락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놈들은 신을 좋아하지.”

“가드락!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카냐가 쏘아붙였지만 가드락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단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를 지배하는 율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신을 버린 대가로 고통스러운 삶을 얻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의지였다.

“케르고인은 투쟁을 좋아해. 그들의 역할은 사냥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연옥의 출입을 허가받은 종족이지. 물론 당사자들은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이야.”

이번만큼은 카냐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종족이야. 거인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 율법을 지키는 자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걸 보면 짜증 나.”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율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는 대로 해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원래의 세계하고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았다.

카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율법이 뭔지 몰라? 땅의 나라에는 율법이 없어?”

“아니,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걸 꼭 지켜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율법이란 위대한 라의 의지야. 그 의지에 반하는 자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야.”

시로네가 답답한 듯 양손을 벌리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

카냐가 더 답답한 듯 성질을 냈다.

“그래서 연옥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라면 이런 곳에서 평생을 살고 싶겠니?”

연옥을 비하하는 말에 클로브가 받아쳤다.

“흥, 못 살 건 또 뭐야? 그런 좁아터진 곳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아, 그러니? 그럼 어디 잘 살아 봐. 평생 케르고에게 이단 사냥이나 당하면서.”

클로브가 쏘아붙이려는 순간 가드락이 입을 열었다.

“그럴 수도 있지. 어쨌거나 우리는 율법을 거스른 자. 그래서 연옥으로 쫓겨났지만 아무렴 어떤가? 적어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어째서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냥 공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럼에도 죽을 권리는 나에게 있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카냐의 표정이 굳었다.

신민은 영생을 얻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죽음은 민감한 문제였다. 특히나 이단의 입에서 죽을 권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천국에 대한 조롱이었다.

카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신민이라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야 하는 거 아냐? 자기들 마음대로 도망쳐 놓고 이제 와 자유가 어떻다느니 죽을 권리라느니, 그런 말로 포장한다고 당신들 삶이 더 나아지기라도 한다는 거야? 이래서 노르는 마음에 들지 않아.”

레나가 말렸다.

“그만해, 언니. 이단하고 싸워 봤자 결과는 똑같잖아.”

카냐도 알고 있었다. 율법을 기준으로 대칭점에 서 있는 그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드락은 기왕 판이 벌어진 김에 끝장을 볼 생각이었다. 오랜 연옥 생활을 하면서 그도 쌓인 게 많았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너희가 옳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우리는 달라! 연옥에 나온 것도 천국에서는 엘릭서 따위를 쓰지 않기 때문이야. 물건만 구하면 샤마인으로 돌아갈 거고 그곳에서 신의 보호를 받으며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런 식으로 포장할 필요 없어. 너 또한 그저 영생에 목마른 피조물일 뿐이잖아?”

카냐의 눈에 살기가 깃들었다.

여태까지 불경스러운 대화에도 가만히 있었던 건 용납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드락은 방금 그 선을 까마득히 넘어 버리고 말았다.

“당신, 아무리 이단이라도 그런 말은 용서 못 해. 이 자리에서 해치워 버릴 수도 있어.”

“언니, 하지 마.”

카냐는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 아크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가드락은 담담하게, 어떤 의미로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다면 너는 어째서 나를 찾아온 거지? 아니, 노르의 쉼터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아크를 겨누고 있는 카냐의 어깨가 움찔했다.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조만간 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일화의 술을 받는 거지? 그래서 너는 노르의 약을 사러 이곳에 나온 거고.”

아크의 조준점이 흔들렸다. 이 거리에서 손잡이를 놓으면 발사체를 막을 방도는 없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쏘지 못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뭐가, 뭐가 나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뭐가 나쁘냔 말이야! 이건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 난 그저…… 그저 우리 엄마가……!”

여자의 눈물에 약한 건 하늘의 남자도 마찬가지인지라 가드락의 감정이 누그러졌다. 한때는 그도 신민이었다. 그렇기에 카냐의 기분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레나가 언니를 끌어안으며 가드락에게 말했다.

“죄송해요. 언니는…….”

“알아. 이단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 메카족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하지. 답지 않게 흥분해 버렸나 보군. 다 이 상처 때문이야.”

가드락은 머쓱하게 복부의 상처를 살폈다. 근육이 베였을 뿐 장기는 무사했다. 문제는 출혈량인데, 심하지는 않았지만 지혈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가드락이 몸을 돌리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노르인은 물건에 감정을 싣지는 않으니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다만 엘릭서는 꽤 필요할 거야. 노르인의 장사 수완은 뛰어나거든.”

카냐가 눈물을 닦으며 씩씩하게 말했다.

“흥, 그건 걱정하지 마. 1년 동안 충분히 모았으니까.”

멀어지는 가드락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어렸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시로네는 기분이 울적했다. 많은 말이 생소했고 감정이 폭발한 동기도 불분명했지만 이곳 또한 절대 가치가 지배하는 곳은 아니었다.

일화의 술은 무엇일까? 라는 정말로 신일까? 이곳은 천국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일 뿐인가?

이 여정이 끝나면 모든 해답을 안고 돌아갈 수 있을까?

## [185] 4. 율법의 역전 (6)

가드락은 멀지 않은 곳에서 원하던 장소를 찾아냈다.

계곡이 침강하여 균열이 일어난 곳이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틈이었는데, 그 틈새를 따라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여기를 봐라.”

가드락이 섬광의 중심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에만 유독 빛이 뭉쳐 있었다. 눈송이처럼 보송보송했는데, 자세히 관찰하면 빛의 알갱이들이 맴도는 게 보였다.

시로네는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긁적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빛의 성질상 자연적으로 입자가 뭉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노르인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가드락은 특이한 현상이라는 걸 강조하듯 양손으로 빛의 입자를 감싸며 말했다.

“여기에만 유독 빛이 모이는 게 보이지?”

“네. 하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정이라는 거지. 이곳에 빛의 정이 깃들인 거야.”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이 빛을 모으고 있단 얘기인가요?”

“아니. 빛이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정이 깃들이게 된 것이지. 정이라는 건 어디에나 깃들일 수 있어. 바람에도, 물에도, 심지어는 생각에도 깃들일 수 있지. 물론 그 생각이 유구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시로네는 마정석과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었다.

아주 오랫동안 어떤 성질이 고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실체화되는 현상이었다.

“정이 한곳에 오래 깃들이면 정령이 되지. 정령이란 그러니까…… 활동성을 가진 정을 말하는 거야. 게다가 인간과 계약도 할 수가 있어. 빛의 정령과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빛의 힘을 끌어다 쓸 수가 있지. 하지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야.”

시로네가 정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이 빛도 언젠가는 정령이 되겠네요?”

“하하, 그렇겠지. 천 년 정도면 되지 않으려나? 그사이에 소멸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천 년.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월등히 길었다. 아마도 어떤 성질이 정이 되는 기간도 비슷할 것이다. 정령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어쨌거나 이곳을 통해서 노르의 쉼터로 갈 수 있어. 전부 이쪽으로 모여 봐.”

“공간이 협소한데 몇 사람은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러고 보니 땅의 나라의 마법은 반경이 넓지 않더군. 우리는 빛의 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이런 식이지.”

가드락은 빛의 뭉치를 움켜쥐었다. 주먹이 황금빛으로 물들더니 어깨까지 타고 올라왔다.

조만간 몸 전체에 빛이 퍼질 듯했다.

자연의 힘은 무한하므로, 그 힘을 빌리는 인간은 얼마든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간은 꽤나 걸리는 듯했다.

한참이 지나도 빛이 어깨를 넘지 못하자 가드락의 눈에 의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상하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보통은 5분 정도면 충분한데.”

“스승님, 빛의 정이 약해진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3일 전에도 문제없이 해냈어. 정의 기운이 변하려면 최소한 수백 년은 걸려. 아니면 어떤 요인이 정의 기운을 약화시키고 있든가.”

“하지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곳은 하나의 율법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중간 거점으로 삼는 거고요.”

클로브의 말에서 가드락은 깨달았다. 망상일 수도 있지만, 유일한 정답을 놔두고 다른 요인을 찾는 것은 더 큰 망상이었다.

“설마……! 하지만 어째서?”

빛의 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땅이, 마침내 계곡 전체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뒤흔들렸다.

“왜 그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빨리 여기서 나가! 율법 소용돌이 뱀이다! 정이 흐트러지고 있어!”

절벽이 붕괴되면 압사였기에 시로네 일행은 계곡의 틈새를 급하게 빠져나왔다.

밖에서 바라보니 주변 일대가 전부 흔들리고 있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어떤 존재든지 간에 가까이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주위를 살펴봐도 뱀처럼 생긴 것은 보이지 않았다.

“젠장! 어디지? 어디서 오는 거야?”

리안이 대검을 뽑아 들고 시로네의 앞을 막아섰다.

마법사들도 대형을 짜고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테스가 감각을 집중시켜 주변을 탐색했다. 좌측의 떨림과 우측의 떨림이 다르다. 놈은 우측의 모퉁이를 돌고 있다.

중심을 잡고 서 있기 힘들 만큼 땅이 떨리자 테스는 비로소 이상함을 느꼈다. 감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의 떨림이라면 이미 눈앞에 나타나야 정상이었다.

“저, 저기다!”

시로네가 놀란 표정으로 가리켰다.

3미터 떨어진 바위에 앙증맞도록 작고 하얀 생물체가 네 다리로 엎드려 있었다.

아니, 이것을 과연 생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눈도 코도 입도 존재하지 않았다. 외형은 도롱뇽을 닮았는데 표면이 옥으로 깎은 듯 미끈했다.

이렇게 하얀 생물체는 평생 동안 본 적이 없었다.

“뭐야? 이게 소용돌이 뱀?”

“그쪽이 아니야!”

가드락의 외침에 시로네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시야가 열리면서 마침내 놈을 볼 수 있었다.

계곡에 소용돌이 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믿을 수 없게도, 절벽의 전체를 채울 만큼 거대한 그림자였다.

시로네는 다시 바위로 눈을 돌렸다. 도롱뇽을 닮은 생물체의 몸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몸에서 내는 빛으로 그림자를 키우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절벽에서 튀어나온 그림자가 거대한 입가를 찢으며 날아들고 있었다.

어둠의 장막이 시야를 차단했다. 워낙에 상식을 뛰어넘는 크기라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시로네 일행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는 순간 계곡의 틈새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드락이 소리쳤다.

“위험해!”

시로네의 광폭이 작렬했다.

빛이 퍼지는 순간 모두는 깨달았다, 날카로운 그림자 갈퀴가 코앞까지 접근해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만 늦었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상황이었다.

키아아아아아!

광폭에 찢겨 나간 소용돌이 뱀이 비명을 질렀다.

아마도 하비스트와 같은 기재일 것이다. 입이 없는 생물체에게 소리 기관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정신을 차렸을 때 모두의 눈에 소용돌이 뱀의 그림자가 태풍의 구름처럼 밀려 나가는 게 보였다.

1차 공격을 막은 건 다행이었다.

대부분의 사냥감이 소용돌이 뱀의 첫 번째 공격에서 목숨을 잃고 만다. 암흑에 가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까닭에 공격이 들어오는 것조차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에이미가 식은땀을 닦으며 물었다.

“대체 저게 뭐지? 생물이야, 아니야? 저 도롱뇽처럼 생긴 게 조종하고 있는 거야?”

가드락이 계곡의 틈새에서 빠져나오며 말했다.

“아니, 소용돌이 뱀의 실체는 그림자다. 본체는 없어. 바위에 서 있는 건 소용돌이 뱀의 그림자가 만들어 낸 ‘화신’에 지나지 않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도 있는 거죠!”

“그건 나도 몰라. 우리는 이런 걸 ‘율법의 역전’이라고 부르지. 저건 천외종이야. 어디에서 넘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는 절대로 아닐 거야.”

소용돌이 뱀은 선뜻 다가오지 못했다. 여태까지 해치웠던 인간 중에 빛을 발산하는 존재는 없었으니 경계하는 게 당연했다.

화신의 몸이 빛나자 그림자가 더욱 커졌다. 야생 짐승이 적 앞에서 과시를 하는 것과 비슷했다.

시로네는 그 사실에서 깨달았다. 어쩌면 이곳은 자신의 무덤이 아닐지도 모른다.

“들짐승과 비슷한 것 같아. 원래 살던 세계에서는 흔한 포식자가 아니었을까? 고양이나 쥐 같은. 피라미드 최상위 생물이라면 저런 방어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을 거야.”

“고양이? 쥐? 너는 지금 농담이 나오니?”

모두가 하고 싶었던 말을 카냐가 대표로 했다. 하지만 시로네 외에도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카니스였다.

그는 경이로운 눈으로 소용돌이 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로 존재했구나, 어둠이 빛을 지배하는 세계가.’

율법의 역전. 아케인의 쪽지에 적힌 내용은 사실이었다.

“시로네의 말이 맞아. 정말로 규칙이 역전된 세계라면 모든 생물이 그림자로 존재한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소용돌이 뱀이라고 해서 딱히 강한 건 아니었을 거야. 물론 이곳에서는 상황이 다르지만.”

가드락은 계곡의 틈새를 살폈다.

예상대로 소용돌이 뱀의 율법이 발동한 탓에 빛의 정이 약해져 있었다.

이 상태로 탈출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포기할 때는 아니었다. 시로네가 선보였던 빛의 파동이 소용돌이 뱀을 물러서게 할 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다.

“어이, 위기는 넘겼지만 긴장해. 놈의 약점은 빛이야.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지. 어째서 율법이 어긋났는지는 모르지만 빛의 마법을 이용하면 승산이 있어.”

시로네는 하비스트와의 일전을 떠올렸다. 그 전투에서 얻은 사실은, 어둠에게 충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핵심은 에너지의 총량이었다.

시로네가 포톤 캐논을 시전하자 8개의 광자가 좌우측에 불규칙한 포지션으로 태어났다.

8개의 섬광이 소용돌이 뱀에 모조리 처박혔다. 끔찍한 비명 소리가 터졌다.

에이미는 파이어볼을 퍼부었다. 불꽃에도 빛이 있으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용돌이 뱀의 그림자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그것은 개미가 코끼리에 올라타 피부를 꼬집는 정도의 충격에 불과했다. 솔직히 반칙이라 생각할 정도로 거대한 그림자였다.

카니스의 마법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어둠의 권능으로 공격을 해 봤지만 오히려 힘을 흡수당하고 있었다.

동일 속성 간의 승패는 완력으로 판가름 난다.

소용돌이 뱀보다 더 큰 어둠을 지배할 수 없다면 먹히는 건 자신이었다.

시로네는 친구들의 무리를 이탈했다. 또다시 놈의 장막이 감싼다면 그때는 정말로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름답게 소용돌이 뱀은 공간을 크게 회전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옆구리에 포톤 캐논을 처박자 고통에 몸부림치더니 시로네를 추격했다.

소용돌이 뱀이 방향을 급격히 틀자 거대한 꼬리가 에이미 일행 쪽으로 휘어져 들어왔다.

클로브가 머리를 부여잡고 악을 질렀다.

“으아아아! 온다!”

에이미는 파이어 미스트를 펼쳤다. 불의 연기가 모두를 보호했으나 이 정도로는 꼬리를 태울 수 없었다.

빗자루로 쓸어 내듯 꼬리가 일행을 날려 버리려는 순간 에이미는 파이어 월까지 추가로 시전했다.

꼬리에 불이 붙었다. 그러자 궤적은 바뀌지 않았다.

에이미는 입술을 깨물며 화력을 높였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킬 생각이었다.

에이미의 몸통으로 날아들던 꼬리가 갑자기 멀어지면서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소용돌이 뱀이 몸을 내뺀 것이다.

“시로네!”

에이미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소리쳤다.

소용돌이 뱀이 턱을 벌려 시로네를 덥석 집어삼켰다. 동시에 광폭이 폭발하면서 뱀의 얼굴이 터져 나갔다.

포톤 캐논의 고속 연사가 작렬했다.

에이미가 계산하기에 분당 이백 발은 될 듯했다. 스피드 건 시험에서 교내 최고 기록을 세운 시로네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치였다.

연사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일자의 섬광이 되어 그림자를 반대편 벽까지 밀어 버렸다.

광자에서 질량을 제외시킨 것이다.

충격력이 제로라서 그림자를 찢어 낼 수는 없지만 섬광은 조금씩 놈의 몸통을 파먹으며 들어갔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마법이야? 말도 안 돼! 저런 게 가능할 리가 없어!”

아군이 이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클로브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당황스러운 건 카냐와 레나도 마찬가지였다.

메카족과 달리 노르인은 혼자서도 큰 힘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저런 건 천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소용돌이 뱀과 혼자서 맞서 싸우는 광경은 경이로움이었다.

무엇보다 이기고 있다. 벽에 달라붙어 몸부림치는 소용돌이 뱀을 보자 전율이 느껴졌다.

시로네의 섬광이 적색으로 물들어 갔다.

포톤 캐논에서 광자 출력으로, 여기에서 더욱 에너지 준위를 높이면 단일 파장의 레이저로 압축이 된다.

소용돌이 뱀이 그림자의 영역을 수복시키며 레이저를 밀어붙였으나 그조차도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흩어져 버렸다.

키아아아아아!

사나운 포효였다.

소용돌이 뱀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원래의 세계에서 놈은 최하위 포식자였다. 그러다가 이상한 터널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넘어온 것이 무려 1만 년 전이었다.

천적이 없는 이곳에서 진화는 불가능했고, 그저 안락하게 지내 왔다.

하지만 지금 그 안락함이 깨지려 하고 있다. 여태까지 재미 삼아 찢어발겼던 하찮은 인간에게.

## [186] 4. 율법의 역전 (7)

소용돌이 뱀은 그림자를 수십 가닥으로 분화시켜 시로네를 공격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촉수 공격에 시로네는 무방비 상태였다.

그 순간 레이저가 산란하며 여러 줄기로 퍼져 나갔다.

에너지를 분산시켜 각개전투로 파괴시키는 전략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초당 대미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거인의 허벅지보다 두꺼운 그림자들이 시로네의 지척까지 밀려들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조만간 시로네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한 가닥의 촉수가 에너지의 축적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 이어서 모든 촉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일으켰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폭발이 본체인 몸통까지 밀고 들어왔다.

소용돌이 뱀이 새로운 촉수를 뻗어 냈으나 이제는 시로네도 알고 있었다, 촉수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에너지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게 더 빠르다는 사실을.

시로네의 에너지가 분산된 만큼 소용돌이 뱀의 내구력도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어진 전투는 빛과 어둠의 공방전이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두 척의 함대가 서로 거리를 두고 무지막지한 폭격을 교환하듯이, 수십 가닥의 촉수가 잔상을 일으킬 때마다 시로네의 섬광이 따라붙으며 그것을 폭발시켰다.

공격과 방어의 템포가 빨라서 그림자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을 수가 없었다.

시로네는 감각의 7할을 스피릿 존의 공감각에 의지한 채로 레이저를 뿜어냈다.

사출 포인트는 수십 군데였고, 초입체적인 선의 질주가 공간을 장악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지치느냐의 문제였다.

시로네는 패배를 직감했다. 긴장감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전투에 몰두한 정신은 표정을 바꾸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시로네의 정신이 아련해지는 그때 소용돌이 뱀이 울부짖었다.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건 놈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동질감이 들었다.

소용돌이 뱀이 죽음을 직감한 듯 발버둥을 쳤지만 그림자 어디에도 에너지를 흡수할 공간은 남아 있지 않았다.

레이저의 에너지가 소용돌이 뱀의 전부를 뒤흔들었다.

강렬한 폭발이 일어나 몸통을 날려 버리면서 그림자의 파편이 비산했다.

점차 가늘어지던 레이저가 시로네의 정면에서 물방울처럼 점점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미동조차 없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다.

시로네 또한 당장 쓰러지고 싶은 마음을 다잡고 소용돌이 뱀의 화신을 노려보았다.

도롱뇽의 몸에서 빛이 사라지면서 처음과 똑같은 백옥의 재질로 돌아왔다. 이어서 채도가 옅어지는가 싶더니 공기와 동화된 듯 사라졌다.

“죽, 죽은 건가?”

테스의 말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무려 1만 년이나 이곳에 살았던 생물체는 수많은 신민과 이단에게 분석되었지만 죽음만큼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어떤 신민도 소용돌이 뱀을 죽이기는커녕 몰아붙인 적조차 없기 때문이었다.

리안이 도롱뇽이 있던 자리를 검으로 휘저어 보았다.

가드락은 계곡의 틈새를 살폈다. 힘을 되찾은 빛의 정이 화한 빛으로 살아나고 있었다.

가드락이 확신을 담아 말했다.

“죽은 게 분명해. 아니, 적어도 이곳에는 없어.”

시로네는 그제야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른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땅의 인간이 율법을 지웠다.

카냐와 레나, 가드락과 클로브는 지금의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저 소년은 위험하다.

파괴되지 않기에 율법인 것이다. 신의 의지는 오로지 신만이 바꿀 수 있다. 어떤 존재에게도 변화를 허락하지 않은 불가침의 영역을 시로네는 침범해 버리고 말았다.

“너희는…… 도대체 뭐냐? 저 마법은 또 뭐고? 어떻게 이런 마법을 익힌 거지?”

일행은 침묵했다.

사실은 그들조차 모른다. 마법의 원리는 같지만 시로네의 마법은 모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의 입자에서 만들어진 고유 마법은 일장일단을 갖고 있다.

레이저는 강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에게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광폭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포톤 캐논은 기본 마법치고는 정신력의 소모가 심하다.

하지만 시로네는 빛의 산란, 금강불괴의 내구력, 이모탈 펑션에서 끌어오는 무한의 정신력 등으로 단점을 보완했다.

지금의 시로네는 어떤 성향의 마법사라고 분류할 수 없는 독특한 위치였다.

카니스는 마법사회에서 언로커를 유니크라고 부르는 이유를 깨달았다.

단지 이모탈 펑션을 열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고유의 전지를 통해 얼마만큼 밸런스를 조화롭게 꾸릴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시로네는 유니크가 되어 가고 있었다.

클로브는 복잡한 심정으로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나쁜 감정을 갖고 싶지는 않지만 그가 노르인의 사회로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문제였다.

모조인에게 지배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다고 실력으로 제압할 수도 없으니, 남은 건 초장부터 기를 죽여 놓는 것이었다.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생색낼 거 없어. 스승님이 부상만 안 당했어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테니까. 이단에게도 율법을 함부로 제거하는 건 위험한 일이야. 소용돌이 뱀이 사라졌으니 새로운 율법이 생길 거고, 더 이상 이곳에서 안내인 역할도 못 하게 되었어. 이번에는 위험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앞으로는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시로네는 듣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무언가를 빤히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물방울 모양으로 투명하게 빛나고 있는 보석이었다.

“야! 너 내 말 안 들려? 지금 무시하는 거야?”

시로네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앞에 떨어진 3개의 보석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 이건 뭐야? 소용돌이 뱀이 폭발하면서 떨어진 것 같던데.”

“어? 이거, 이거……!”

보석을 발견한 클로브의 눈이 똥그래졌다.

화이트 엘릭서였다.

그가 화이트 엘릭서를 처음 접한 것은 거대 커뮤니티인 본토에 있는 ‘노르의 상점’에서였다.

당시에 시장에서 나온 물건 중 최고가라 예상되는 물방울의 정령을 경매하는 중이었는데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노르 집단이 화이트 엘릭서 23개에 낙찰받았다.

물의 정령과 달리 물방울의 정령은 구하기가 어려웠다. 바다나 강은 움직이지 않기에 정이 자주 태어나지만 물방울이라는 것은 꾸준히 만들어지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법적으로는 물의 정령보다 약하다.

다만 물방울의 정령과 계약을 하면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 주고 노화를 방지하며 약간의 치유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당시에 그가 알기로 물방울 정령의 가치는 레드 엘릭서 4천6백 개 혹은 그린 엘릭서 670개 정도라고 알고 있었다.

독각귀를 7천 마리 정도 잡아야 구할 수 있는 물건을 고작 엘릭서 23개에 가져갈 정도의 가치인 것이다.

“화이트! 화이트 엘릭서다!”

클로브가 날다람쥐처럼 몸을 날려 손을 뻗었다.

엘릭서를 움켜쥐려는 순간 시로네가 바닥을 긁으면서 낚아챘다.

땅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낀 클로브가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렸다.

물론 시로네가 잡아서 나온 물건이니 시로네의 것이다. 하지만 물심이란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법이라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다.

특히나 시로네는 화이트 엘릭서의 가치조차 모르지 않는가?

“흠흠, 왜 그렇게 쳐다봐? 잠깐 구경 좀 하려고 한 건데.”

“이게 뭔데?”

“그냥 뭐…… 별건 아니야. 엘릭서라고, 이단들이 물건을 거래할 때 쓰는 거지. 가치를 따지려면 자세히 봐야 하는데, 잠깐 보여 줄 수 있을까?”

“그래, 좋아. 자.”

시로네는 선뜻 엘릭서를 넘겨주었다. 클로브는 마음이 바뀌기라도 할까 봐 냉큼 엘릭서를 빼앗아 들었다.

사태를 파악한 카냐가 눈에 쌍심지를 켜며 다가왔다.

“야! 그걸 왜 네가 가져가는 거야? 이단에게도 나름의 룰은 있을 텐데. 엘릭서는 사냥한 사람이 갖는다는 거 몰라?”

“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같이 사냥한 거잖아.”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곳에서 엘릭서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시로네뿐이야. 어서 돌려줘.”

“쳇! 아까는 싸우더니 갑자기 친한 척이야? 엘릭서 앞에서는 모조인이고 신민이고 없나 보지? 잘 보여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심보를 모를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신민은 엘릭서 따위 필요 없거든! 그리고 시로네, 너도 앞으로 노르인과 생활하려면 잘 알아 둬! 엘릭서는 식량이자 물이고, 공기이자 생명이야. 특히나 화이트 엘릭서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함부로 넘겨주고 그러면 안 돼.”

“괜찮아. 구경 좀 하겠다고 해서 보여 준 건데 뭐.”

“그러다가 도망치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시로네가 상체를 젖히며 땅을 짚었다.

“하하! 어떻게 도망칠 건데?”

“어떻게 도망치다니? 당연히…….”

카냐는 말을 하다 말고 눈을 깜박거렸다.

그러고 보니 실력도 없는 주제에 화이트 엘릭서를 낚아채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뒤편에 서 있는 시로네의 친구들 또한 가드락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도 긴장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시로네가 마음만 먹는다면 클로브를 제압하는 건 1초도 걸리지 않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클로브도 같은 생각에 도달했는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물욕에 눈이 멀어 판단이 흐려진 모양이었다. 그나마 본심을 드러내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가드락이 한심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클로브, 돌려줘라. 네가 다룰 만한 물건이 아니다.”

얼굴이 빨개진 클로브가 엘릭서를 건넸다.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한 거였어요. 자, 여기. 잘 봤어.”

시로네는 엘릭서를 받아 들었다. 손바닥 위로 던지며 햇빛에 반사되는 모양을 살펴보던 그가 가드락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건 뭐에 쓰는 거예요? 엘릭서라고 했죠?”

가드락은 빛의 정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살폈다. 빠른 속도로 강해지는 빛의 세기로 보건대 앞으로 5분이면 출발할 수 있을 듯했다.

“연옥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 환경은 척박하고 먹을 것은 부족하지. 어떤 곳에는 질병이 돌고 어떤 곳에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공기를 태워서 숨조차 쉴 수 없어. 엘릭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물건이야. 다섯 가지 색상이 있는데, 사실 우열은 없어. 어떤 색상이든 반드시 필요하니까. 다만 희소가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지. 화이트 엘릭서는 두 번째로 희소한 물건이야. 재생과 정화의 성질 덕분에 공기를 만드는 장치나 상처를 치료하는 약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야.”

“그렇군요. 이걸로 무언가를 살 수도 있나요?”

“물론이야. 지금 가는 노르의 쉼터에도 상인들이 있으니 원하는 게 있으면 사는 것도 좋겠지. 하지만 화이트 엘릭서 정도면 노르의 상점에 가야 할 거야. 본토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장이니까.”

시로네는 한 가지 의문을 떠올렸다.

소용돌이 뱀에게 얻은 3개의 엘릭서.

하지만 이런 물품이 예사로 거래가 된다는 건, 누군가는 소용돌이 뱀과 비슷한 등급의 생물을 사냥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시로네의 질문을 들은 가드락은 순순히 수긍했다.

“연옥은 넓어. 어마어마하게 넓지. 노르인들은 독자적인 사회를 구축했지만 그 전부터 수없이 많은 커뮤니티가 있었어. 우리가 가려는 곳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지나지 않아. 그 이상의 세계는 벗어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화이트 엘릭서는 그 경계 너머에서 오지. 우리보다 훨씬 먼 곳을 여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서 말이야.”

노르의 쉼터에 상인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로네는 엘릭서를 품에 간직했다.

원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건과 바꿀 수 없다면 금화 또한 일개 광물에 지나지 않는다. 화이트 엘릭서가 아무리 귀해도 연옥에서 살림을 차릴 것이 아닌 이상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냅다 사는 게 이득이었다.

계곡의 틈새로 사람들이 모이자 가드락은 빛의 정을 움켜쥐었다. 그의 몸이 빛나면서 고대 마법 엘라이저가 발동되자 백색의 광채가 계곡의 틈새를 타고 퍼져 나갔다.

칼날처럼 산란하는 빛의 테두리가 약해지면서 원래의 풍경이 드러났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적막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다.

5. 노르의 쉼터 (1)

들판에는 유적의 잔해가 파묻혀 있었다. 얕은 시내가 흘렀고 냇가를 따라 들꽃이 만개했다.

세월과 함께 늙어 버린 유적지는 황량함보다는 안락함이 느껴졌다. 기울어진 아치 사이로 나비들이 날아다녔고 서너 명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노르의 쉼터에 도착한 시로네는 도착 지점을 살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더 자세히 보니 빛의 기둥을 타고 빛의 정이 날아다녔다.

고대 마법 엘라이저는 빛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마법인 듯했다.

## [187] 5. 노르의 쉼터 (2)

“여기가 노르인의 쉼터인가요?”

“그래. 유독 빛의 정이 강하게 깃들이는 장소지. 수백 명의 노르인을 이동시킬 수 있어. 오래전에 빛의 제단이 있던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거라고 하더군.”

“생각보다 평화롭네요. 천외종의 습격이나 이단 사냥에서 안전한 장소인가요?”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야. 다만 빛의 장막을 쳐서 은폐시켰지. 노르의 쉼터 바깥에서 이곳을 보면 들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투명 마법과 비슷한 원리였다.

인비저빌리티는 전기의 힘으로 빛을 굴절시켜 투명하게 만든다. 다만 이곳은 빛의 반사율을 100퍼센트로 만들어 마치 거울을 세워 둔 것처럼 풍경과 동화시킨 것이다.

눈썰미가 있는 자라면 반복되는 패턴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 넓은 땅에서 그런 작업을 할 인간을 없을 듯했다.

“물론 천국의 높은 것들이 인식을 하려면 찾을 수 있겠지. 하지만 연옥의 생활 따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열을 내는 건 케르고인과 굶주린 천외종뿐이지.”

숲과 가까운 곳에 간이식 텐트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좌판을 깔고 있는 장사꾼들도 보였다. 손님은 없었으나 어차피 물건을 팔 생각도 없는지 한가로이 잡담을 나누는 중이었다.

가드락은 본토의 상점으로 가는 상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쉼터였고, 제대로 된 물건을 찾으려면 노르의 상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끔씩 노르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 신민들이 온다고 했는데, 카냐와 레나가 그런 부류였다.

카냐는 이곳에 도착한 뒤부터 긴장했다. 연옥이 중립지대라면 이곳은 이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시로네 일행과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가드락에게 물었다.

“노르의 약은 어디서 팔지?”

“흐음, 약재상이 왔을까? 저쪽에서 찾아봐.”

카냐가 걸어가자 가드락이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한 가지만 기억해. 노르의 쉼터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알고 있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레나가 시로네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다. 언니의 무례를 무마하려는 예쁜 마음씨지만 소녀의 사심도 담겨 있는 미소였다.

“오빠, 이따가 봐요.”

“그래. 찾는 물건이 꼭 있기를 바랄게.”

노르의 쉼터는 아무리 넓어 봐야 거기서 거기였으나, 아린의 스피릿 존 반경을 벗어나면 대화가 불가능하기에 이별이라고 봐도 좋았다.

시로네는 멀어지는 카냐의 걸음걸이를 살폈다.

초조해 보였다.

그녀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 천국을 떠나온 것일까?

시로네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가드락은 복부의 상처를 살폈다. 출혈은 잡혔지만 상처 부위가 엉망이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잠시 쉬겠네. 출혈을 했더니 피곤하군. 물건을 사는 방법은 클로브에게 듣도록 하게. 자네들도 연옥에서 생활하려면 알아 두어야 할 테니까.”

스승님의 얼굴이 창백했기에 클로브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시로네 일행을 좌판으로 데려간 그는 평소보다 상인이 많다는 걸 깨닫고 눈을 빛냈다.

“저기, 화이트 엘릭서 말이야, 그거 지금 쓸 거야?”

“글쎄. 물건부터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려고. 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내가 흥정을 해 줄 수 있는데. 너는 이곳이 처음이니까 어떤 게 좋은 물건인지 모를 거 아냐?”

노르의 쉼터에서 화이트 엘릭서로 구할 수 있는 물건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사과를 사면서 금화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무엇이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인과 협상을 잘하면 떡고물이라도 챙길 가능성은 충분했다.

시로네는 친구들의 위치를 살폈다. 저마다 흩어져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다. 정신 채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 모을 필요는 없을 듯했다.

-클로브가 중개 수수료를 달래. 어떡하지?

-글쎄. 중개인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서 파는 물건들은 옷이랑 먹을 거 말고는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에이미의 말에 아린이 답했다.

-그건 내가 알아볼 수 있어.

시로네는 결정을 내렸다.

초경을 통하면 클로브가 사기를 치는지 알 수 있다. 다만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랐다. 수수료야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지만 쓸데없는 감정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건 서로 간에 손해였다.

“좋아, 그럼 같이 돌아다녀 보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소개시켜 줘.”

클로브가 앞장서자 친구들도 시로네에게 모여들었다.

본토의 상인이 다수 포함되어서인지 취급 품목이 다양했다.

처음에는 생필품이었다. 식량이나 의복, 베개나 이불 같은 것들은 흔해 보이지만 연옥에 사는 이단에게는 중요한 물건이었다.

클로브가 조약돌처럼 보이는 흰색의 빵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이단의 여행 필수품인 칼라야. 엘릭서로 만든 식량이라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배가 부르지.”

에이미가 쪼그려 앉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특징이랄 게 없어 맛을 짐작할 수 없었다.

하나의 칼라로 하루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면 괜찮은 물건이지만 1순위의 구매 품목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였다.

“흐음, 동글동글하니 귀엽게 생겼네. 한번 먹어 볼까?”

에이미가 미끼를 던지자 클로브가 덥석 물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얼마나 진솔하게 중개를 하는지 알 수 있을 터였다.

“이건 엄청 대단한 물건이야. 오지에 떨어져도 이것만 있으면 한 달은 버틸 수 있다고. 사 둘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사 두는 게 좋아.”

그러면서 클로브는 장사꾼에게 윙크를 했다.

아린은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분석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노골적인 초경이었다.

친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리란 가정하에 그녀는 잡다한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했다.

-그냥 우리끼리 할까? 이 아이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에이미도 그의 뻔뻔함에는 혀를 내둘렀다.

-그런 것 같네. 하지만 일단 데리고 다녀 보자. 이 조약돌이 음식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 어쨌든 물건을 소개시켜 줄 사람은 필요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

-응. 그냥 엘릭서를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야. 어지간히 갖고 싶은가 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불쌍하기도 하네.

카니스가 이기죽거렸다.

-그렇겠지. 마법이야 둘째 치고 상황 판단력과 순간 대응력이 너무 떨어져. 저런 놈이 제대로 사냥이나 할 수 있겠어? 그러니 더욱 욕심이 나는 거겠지.

마법의 위력은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세부적인 우열을 가르는 기준은 될 수 없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마법이 다르고 상성도 있기 때문이다.

소용돌이 뱀의 마법력이 압도적이라도 시로네에게 패한 것과 같은 이치였다.

마법사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법적인 판단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지를 봐야 한다.

물론 그런 부분은 마법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용병들이 눈에 보이는 마법 실력만 믿고 고용했다가 마법사의 실책으로 전멸당하는 일화가 왕왕 전해지는 이유이기도 했다.

아케인의 유서를 찾기 위해 대륙을 여행했던 카니스는 그런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

천국에 도착한 이후 벌어졌던 세 차례의 전투에서 시로네와 에이미의 판단이 얼마나 주효했는지를 검토해 보면 클로브는 마법사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클로브가 소개한 곳은 약품을 파는 좌판이었다.

시로네는 조금 전에 이 약재상과 카냐가 말다툼을 하는 걸 들었지만 정신 채널이 끊어져 있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클로브는 일행에게 여러 가지 약을 소개했다.

작은 호리병에 색색들이 약물이 들어 있었는데 엘릭서를 이용해서 만든 약이라고 했다.

빨간 물약은 상처를 치료하고 파란 물약은 정신을 맑게 해 준다고 했다. 그 두 종류가 가장 많았다.

다른 색상의 약물들 또한 효과가 독특했다.

분홍색 물약은 사랑의 감정을 증폭시켜 주고, 갈색 물약은 특정 시간의 기억을 영구히 기억하게 해 준다고 했다.

시로네는 카냐가 약재상과 말다툼을 벌일 때 봐 두었던 백색의 물약을 가리켰다.

“이건 무슨 물약이야?”

클로브가 의외라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약병을 들었다.

“어라? 이게 있었네? 이거 만들기 꽤나 어려운 건데.”

“어디에 쓰는 약인데?”

“이건 각성제야. 각성제 에피네스. 이걸 마신 사람은 일주일 동안 수면을 취하지 않아도 멀쩡할 수 있어. 마법사에게도 탁월한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 하울링에 당해서 정신이 흔들릴 때 이걸 먹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시로네는 클로브의 설명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파란 물약이 마법의 위력을 높여 주는 것이라면 하얀 물약은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듯했다.

“너희에게 딱 좋은 물건이네.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내가 말해서 싸게 해 줄게. 이걸 사는 게 어때?”

시로네는 에피네스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다. 일주일 동안 수면을 취하지 않을 정도의 정신력이라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원래의 세계에 소모품을 가져가는 건 낭비였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면 사용할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해진다. 연옥에서야 위급할 때마다 벌컥벌컥 들이켜는 것이겠지만 저쪽 세상의 마법사에게는 오히려 심마로 작용할 것이다.

문득 실기 시험 전날에 마시면 효과가 죽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금지 약물 복용으로 퇴학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포기했다.

시답잖은 분석이 지나고 다시금 떠오른 생각은 카냐였다.

각성제.

그녀는 도대체 이 약물로 무엇을 할 생각인 것일까?

시로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일행은 다음 좌판으로 넘어가 있었다.

씨앗을 심으면 10분 안에 수십 미터가 자라는 나무 넝쿨은 암벽 지대를 여행할 때 필수라고 했고, 물을 받아 두고 가루를 뿌리면 물이 끓는다는 화염 가루 같은 것들도 신기했다.

클로브의 설명을 듣고 있던 시로네는 언제부턴가 따로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는 에이미를 돌아보았다.

눈조차 깜박이지 않고 뭔가를 쳐다보는 모습에 궁금해진 시로네가 걸어갔다.

새장처럼 생긴 소쿠리 안에 무언가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불덩어리였다.

불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클로브가 이쪽으로 다가오자 시로네가 철창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뭐야?”

새장 안을 들여다보던 클로브가 자신에게도 생소한 물건인지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우와! 정령이잖아? 아저씨, 이거 어디서 잡았어요? 횡재하셨네.”

“하하! 사연을 말하자면 길지. 내가 오랜만에 좋은 꿈을 꿔서 커뮤니티 밖으로 사냥을 나갔거든. 유황지렁이가 낮은 확률로 그린 엘릭서를 주니까 말이야. 그래서 몇 마리 잡았는데 죄다 레드더라고. 젠장, 개꿈이구나 하고 돌아가려는데 ‘불갈퀴’에게 딱 걸린 거야. 마누라 생각하면서 죽어라 도망쳤지. 그러다가 암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는데, 세상에, 거기가 바로 화염의 스폿이더라고. 바닥에서 새는 유황 가스 덕분에 오랜 세월 불이 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기억해 두려고 갈색 물약을 마시려는데, 불이 통통 튀면서 나에게 오는 거야. 그냥 뿜어 버렸어. 정신없이 정령 감옥을 꺼내서 붙잡았지. 아무튼 그렇게 된 거야, 하하하!”

클로브는 따라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자신에게는 왜 그런 기연이 안 생기는지 한스러울 따름이었다.

유황지렁이는 불의 나라 무스펠뿐만 아니라 용암 지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천외종이었다.

1미터 크기의 지렁이로, 용암을 분사하지만 행동이 둔해서 클로브 또한 쉽게 잡을 수 있다.

다만 불갈퀴가 문제였는데, 그런 강력한 천외종에게서 목숨을 건진 것도 모자라 불의 정령까지 얻었으니 태어날 때부터 천운의 율법을 타고난 게 아닌가 싶었다.

시로네는 에이미를 돌아보았다. 어찌할 줄 모르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갖고 싶은 마음을 시로네는 충분히 이해했다.

만약 새장 안에 빛의 정령이 갇혀 있었다면 자신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시로네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가치를 물었다.

“아저씨, 이건 얼마예요?”

텔레파시로 의미를 전달하는 건 상인에게도 생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깜박거렸을 뿐 태연하게 대응했다.

상인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로네는 그의 반응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유추했다.

신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이 세계에서 자신들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 [188] 5. 노르의 쉼터 (3)

시로네의 예상은 정확했고, 상인은 더 나아가 이들이 연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짚어 냈다.

“흐음, 흥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구나. 정령은 연옥에서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거든. 나는 본토로 가져갈 참이고 쉼터에는 잠시 들른 것뿐이라서.”

가치가 낮지 않으리란 예상은 했지만 흥정조차 거부하자 덜컥 겁이 났다.

화이트 엘릭서 3개로 구입이 가능한가? 자신 있게 덤볐다가 엘릭서가 부족하면 에이미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게 될 터였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로네는 흥정을 접어 두고 질문을 던졌다.

“정령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령하고도 가능한가요?”

“계약? 아, 계약. 물론 가능하지. 하지만 불의 정령하고 계약을 해서 뭐하게?”

“불의 정령과 계약하면 불의 마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 계약으로 귀중한 정령을 낭비하지는 않는단다. 정령이 마을에 들어오면 생활이 얼마나 편해지는데. 그래서 보통은 마을 단위로 엘릭서를 모아서 구비한단다. 커뮤니티 외곽의 사람들이야 워낙 척박한 곳에서 살고 엘릭서도 넘치니까 계약을 전제로 구입한다지만 사실 그런 자들은 목숨 내놓고 사는 족속들 아니겠냐? 나는 너희가 그런 삶을 살 것 같지는 않구나.”

“으음, 어쨌든 계약은 가능한 거죠?”

시로네가 되묻자 상인은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본토에서는 흔한 반응이었다.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는 어중이떠중이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개중에는 작전조가 침투하여 물건의 가치를 깎기도 한다.

커뮤니티 외곽의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거기에서 경매는 끝이지만 그런 자들은 특수한 정령이 아닌 이상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대부분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에서 피를 말리는 수 싸움을 하는 게 보통이었다.

에이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흥정이라면 전문이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금화가 통용되는 세계라면 저금을 털어서라도 샀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만이 가치를 갖는 연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유욕을 드러냈다가 시로네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시로네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마법사에게 마법력의 향상은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가능하면 구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결판의 때가 왔음을 직감한 시로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정령을 사려면 엘릭서가 얼마나 필요하죠?”

상인은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고 말았다. 하지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리는 시로네의 모습에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했다.

“흐음, 만약 여기에서 구입한다면 최소한…….”

시로네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떤 값을 부르든 지금 가진 엘릭서로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역시나 상당한 고가인지 상인도 신중했다. 그가 뜸을 들이며 말을 이어 갔다.

“화이트 엘릭서…….”

시로네와 에이미의 눈에 실망이 담겼다. 엘릭서의 단위가 화이트라는 점에서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 셈이었다.

생각을 끝마친 상인이 고개를 들고 가격을 제시했다.

“1개 정도는 받아야 하겠지.”

“네? 1개요?”

시로네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던 청력을 의심했다.

1개라면 구입할 수 있다.

같은 사실을 깨달은 에이미가 마치 누가 낚아채 가기라도 할 듯 초조함에 무릎을 떨었다.

시로네는 이것저것 따져 보았다. 처음에는 지불할 능력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지나간 생각은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게 마법사다.

하지만 에이미를 돌아본 순간 웃어 버리고 말았다. 아랫입술을 깨문 그녀가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갖고 싶다.”

카르미스 가문의 외동딸인 에이미는 물욕이라는 걸 모를 만큼 풍족하게 자랐다. 하지만 마법에 있어서는 그녀 또한 한 명의 마법사일 뿐이었다.

상인은 에이미의 갖고 싶다는 말을 체념으로 이해했다. 화이트 엘릭서는 본토의 상인들조차 쉽게 만질 수 없는 물건이니 이제 막 연옥에 들어온 그들이 절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딸의 얼굴이 떠오른 그가 에이미를 달랬다.

“화이트 엘릭서는 구하기가 어렵지. 사실 이것도 많이 깎아 준 거야. 본토에 가면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 위험하기도 하고. 노르의 쉼터에서 팔아 치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내린 결론이야. 너희가 진지해서 나도 정확히 계산했어.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언젠가 운이 좋으면 불의 정령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살게요.”

“응?”

“산다고요, 제가.”

시로네가 안주머니를 뒤지자 상인은 바보처럼 눈을 껌벅거렸다. 자신을 놀리려는 수작이 분명한데 여기서 화를 내야 하는지 웃고 넘어가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하지만 시로네의 손에서 3개의 엘릭서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기겁한 듯 의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무지갯빛 스펙트럼만 봐도 화이트 엘릭서가 분명했다.

“여기요. 이제 가져가도 되죠?”

상인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로네가 직접 화이트 엘릭서를 손에 쥐여 주었다.

그와 동시에 에이미가 정령 감옥을 품에 끌어왔다.

따듯한 온기가 느껴졌다.

불의 온기.

이것이야말로 에이미의 인생이었다.

“어이, 자네 괜찮나? 안 뜨거워?”

엘릭서가 진짜임을 확인한 상인이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불의 정령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무생물과 차별화되지만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불이었다. 달구어진 철창을 잡게 되면 화상을 입어야 정상이었다.

“응? 아뇨. 그냥 따듯한 정도인데요?”

“이상하군. 다시 한 번 살펴봐도 되겠나? 내가 파는 물건이지만 양심에 찔려서 그래. 불량품일 수도 있으니까.”

“아뇨, 괜찮아요. 이건 정말 불의 정령이 맞아요.”

에이미는 허공에서 통통 튀는 불의 정령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신 채널을 이용해 시로네에게 말했다.

-시로네, 스피릿 존이야.

-스피릿 존?

-응. 이거 굉장해. 진짜 불이지만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어. 지금도 계속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마법사는 자신이 만든 불에 화상을 입지 않는다. 진짜 불이지만 창조주가 마법사이기 때문이다.

에이미의 말에 의하면 정령 또한 고정된 스피릿 존을 지닌 존재가 아닌가 싶었다. 일종의 정신적 승화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자네들, 어떻게 화이트 엘릭서를 얻은 건가?”

“소용돌이 뱀에게서 나온 거예요.”

“소용돌이 뱀이라고? 설마 계곡의 율법을 파괴했다는 건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소용돌이 뱀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마법사라면 화이트 엘릭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흔히 만날 수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류 또한 엄연히 연옥에 존재했다. 상인들은 그런 자들을 일컬어 경계인 혹은 커뮤니티 외곽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잘 모르지만 경계인이 하는 걸 본 적은 있어. 정령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면 저절로 사라지더라고.”

정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키워드로 발동하는 건 아닐 듯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언령 마법이었다.

내뱉고 되새긴다. 불과 공명하는 게 중요했다.

에이미는 상인이 건넨 감옥의 열쇠로 철창을 열었다. 그런 다음 두 손으로 정령을 받친 그녀가 임기응변으로 만든 언령을 외웠다.

“불의 정령이여, 내 안에 깃들이라.”

불의 정령이 에이미에게 스며들자 배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정령과의 계약은 새로운 전지를 깨닫는 것과 비슷했다. 발화의 전지인 이그나이트와 별개로 새로운 불을 전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이미가 정령을 소환하자 불덩어리가 피어올라 주위를 맴돌았다. 흐뭇하게 지켜보던 그녀는 고대에 존재했다는 엉터리 불꽃의 이름을 떠올렸다.

잭 오 랜턴.

도깨비불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수많은 학자들의 가설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증되지 못한 채 신화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잭 오 랜턴은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고대 마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의 정령은 전략적으로 유용했다.

우선 이그나이트와 상관없이 발동하는 점이 좋았고 원하는 궤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환영처럼 여러 개로 나뉘기도 했다.

유도 기능, 속임수, 다연발 등 구사할 수 있는 전략들이 끊이지 않고 떠올랐다.

에이미는 시로네의 시선을 깨닫고 정령을 소멸시켰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괜히 어색해지기만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싼 물건을 선물받은 것과는 달랐다. 아마도 그녀가 받은 건 시로네의 마음이 아닐까 싶었다.

시로네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치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줄 알았다는 듯 몸을 돌려 멀어져 갔다.

에이미는 그제야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어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일까?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선물에 특별한 의미가 없었나?

시로네는 가식이 없는 성격이지만, 가끔은 이렇듯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

시로네는 꼼꼼히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에이미가 불의 정령과 계약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깨달은 점은, 원래의 세계로 가져갈 물건을 찾는다는 생각 자체가 안일했다는 것이다.

천국은 생과 사를 넘나들 만큼 위험한 곳이었고 무언가를 보강한다면 즉시 전력감을 찾아야 한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든 사들이는 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노르의 쉼터는 커뮤니티에 속한 이단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기에 생필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었다.

물론 특별한 물건을 가진 상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워낙에 고가였기에 시장에 내놓지도 않고 있을 뿐이다.

시로네가 화이트 엘릭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한 남자가 슬그머니 물건을 좌판에 올렸다.

테스가 달려와 상인이 올린 물건을 가리켰다.

“어머!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딱정벌레 형상의 기계장치.

메카족의 기술로 만든 드론이었다.

클로브가 달려와 설명했다. 시로네가 큰손이라는 걸 깨달아서 더욱 적극적이었다.

이미 알고 있는 정찰 기능, 언어 해독 기능 외에도 전파 통신, 맵 디스플레이 등의 기능이 있다고 했다.

“어때? 화이트 엘릭서와 거래하지 않겠나? 자네들도 알겠지만 드론은 엘릭서가 있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신민들 전용 장비니까.”

시로네도 이 물건은 긍정적이었다. 드론의 정찰 능력은 카냐를 통해 경험했던 바였다. 테스가 사용할 수 있다면 훌륭한 보조 장비가 될 것이다.

그때 아린이 조금 깎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상인의 초경에서 비싸게 부른 감정이 잡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했다.

불의 정령이 상품이라면 드론은 한정 상품이다. 신민의 물건이 유출된 것이라면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린, 뭔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어. 어쨌거나 값에 비해 많이 부른 것은 맞아. 나머지는 네가 파악해 봐.

테스는 드론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고대 유물에 꽂힌 그녀였으니 하자가 있든 없든 사 준다면 받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를 대신에 시로네가 물어보았다.

“어떻게 구한 거죠? 메카족에게만 개인 지급되는 물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 하지만 메카족에도 이단은 있다네. 연옥으로 도망치기 전에 훔쳐 왔을 거야. 하나만 팔아도 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테니까. 그 증거로 여기를 봐. 드론의 테두리 사이에 띠가 연결되어 있지? 이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증거야. 즉, 공장에서 바로 빼 온 거지. 아마도 원래 주인은 메카족의 기술 시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을 거야.”

“그 사람은 어디 있죠?”

“모르지. 도망쳤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아마 죽었을 거야. 천국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그런 식이야. 엘릭서를 벌기 위해 천국의 물건을 빼 오다가 연옥에서 죽게 되면 물건만 남는 거지.”

## [189] 5. 노르의 쉼터 (4)

과연 그런 상황도 가능했다. 신민의 물건이라고 해서 구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한정판 메리트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상인은 고객의 지불 한도가 화이트 엘릭서 2개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 그가 욕심을 부린 값이 엘릭서 하나라는 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장착만 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지. 시그나와 엑스드, 아크 같은 사냥 무기는 공용이지만 드론만큼은 개인 암호화 장치가 되어 있다네. 설령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도 사용하지 못해. 하지만 이것은 아직 누구의 주인도 찾지 못한 신품이야.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거지.”

모르겠다. 새것이라면 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순한 착오인 것인가? 아니면 불의 정령이 그만큼 획득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을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시로네가 테스에게 물었다.

“테스, 이거 갖고 싶어?”

“응! 시로네, 나 진짜 갖고 싶어. 이거 사 주라. 어차피 다른 물건은 싸구려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시로네는 피식 웃어 버리고 말았다. 무언가를 요구할 때조차 시원시원한 그녀의 성격은 확실히 에이미와 달랐다.

어차피 엘릭서는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사기는 사야 하겠는데,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모르니 흥정이 될 수가 없었다.

대놓고 물어보자니 상인에게 휘둘릴 게 분명하고 클로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터였다.

“대체 왜 안 판다는 거야! 분명히 말한 대로 가져왔잖아!”

시로네가 고민하는 그때 카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다. 카냐와 달리 상인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봐, 아가씨. 연옥에 정찰제가 어디 있어? 경매라고, 경매. 가격이 올랐다는데 아가씨가 마음대로 가격을 내리면 안 되지.”

“분명 한 달 전에 그랬잖아! 에피네스는 그린 엘릭서 하나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거기에 레드 엘릭서 30개까지 더해서 준다는데 왜 안 판다는 거야!”

에피네스.

시로네는 약재상이 권했던 하얀 물약을 떠올렸다.

그런데 단순히 각성제라고 하기에는 카냐의 반응이 격했다. 천국에서 잠을 자지 않아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한 달 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올랐다고.”

“아니! 두 달 전에도, 세 달 전에도 그런 말은 없었어! 이건 폭리야!”

“아가씨, 경매의 가격은 구매자의 욕망에 의해 정해지는 거야. 갖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게 기본 아닌가? 일화의 술이 며칠 남지 않았을 거 아냐?”

“다, 당신…….”

카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리 장사꾼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막돼먹은 클로브조차 이번만큼은 눈살을 찌푸렸다.

상인은 사갈시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신민에게 물건을 팔 생각 따위는 없었으니까.

“오늘 에피네스를 구한다는 건 며칠 안에 가족이 죽는다는 얘기겠지. 따라서 아가씨는 반드시 이걸 사 가야 해. 그래서 비싼 값을 받겠다는데 뭐가 문젠가?”

“당신! 가만두지 않겠어!”

카냐가 아크를 꺼내 들자 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말렸다.

노르의 쉼터에서 폭력은 금물이다.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건 합리적인 다수 간의 약속이었다. 규율이 깨지는 순간 커뮤니티는 붕괴되고 만다.

“언니! 제발 참아! 여기서 싸우면 죽는단 말이야!”

레나가 언니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카냐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상인은 진상 고객에게 신경을 끄고 건너편의 약재 상인과 눈을 맞췄다.

에피네스를 절대 팔지 말라는 무언의 약속.

과점이었다.

세 달 전에 카냐가 에피네스를 구하러 왔을 때 상인은 그녀가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을 불렀다.

실제로는 레드 엘릭서 40개 정도면 교환이 가능한 물건이지만 그린 엘릭서를 요구했다.

엘릭서는 화폐와 다르다. 임의적인 교환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그린 엘릭서를 고집한다면 레드 엘릭서를 아무리 모아도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

결국 카냐는 그린 엘릭서를 실제 가치보다 높게 구입해야만 했다. 그리고 다시 물건을 사러 왔으나 상인은 그 가격에도 팔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거지? 일화의 술이라는 게 뭐야?”

“생명 재생의 술법이다.”

가드락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숨 자고 있다가 좌판 쪽이 시끄러워서 나온 참이었다.

그는 카냐의 살기 어린 표정만 보고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안내역으로 만난 건 처음이지만 상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은 익히 들은 바였다.

“너도 알다시피 신민들은 수명이 정해져 있어. 수명이 다하면 일화의 술을 거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지. 저 소녀의 어머니가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군.”

“정확히 어떤 술법인데요?”

가드락은 한쪽 눈을 찡그렸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줄이고 싶군. 보다시피 민감한 문제라서. 신민들은 일화의 술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반면에 이단의 대부분은 일화의 술에 거부감을 느껴서 천국을 탈출한 자들이야. 저기 상인도 마찬가지고. 엘릭서 때문에 그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카냐의 어머니는 수명이 다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성제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걸 마시면 살 수도 있나요?”

“아니. 율법이 어긋나는 경우는 없어. 이단의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카냐의 어머니는 조만간 죽을 거야. 그럼에도 에피네스를 사려는 건…….”

가드락은 신음성을 냈다.

그에게도 신민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카냐가 목숨까지 바쳐 가며 해 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동정심이 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절망 속에 주어지는 한 줄기 빛일 뿐이지. 병에 걸려 죽어 가는 사람에게 마취약을 투여해 주는 것과 같은 거야.”

시로네는 가슴이 먹먹했다. 신민과 이단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진심은 어디서나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율법은 그조차도 구분 짓고 있었다.

카냐는 다시 흥정으로 들어갔다. 에피네스를 사기 위해 분을 참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였다.

에피네스를 파는 좌판은 두 군데였고 아마도 카냐는 오늘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시로네는 반대편 약재상을 살폈다. 양심에 찔리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만약 그에게 에피네스를 사서 카냐에게 준다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시로네의 생각을 읽었는지 그가 에피네스를 슬그머니 치웠다. 계약은 노르인에게 절대적이니 괜히 소란을 일으켜 일이 커지는 것을 예방한 것이다.

카냐는 최후의 수단을 제시했다.

“좋아요! 그럼 외상으로 할게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엘릭서를 구해 올 테니까 에피네스를 주세요.”

“어떤 걸 구해 올 수 있는데?”

“뭐든지! 평생 사냥을 해서라도 구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묻잖아. 뭘 구해 올 거냐고?”

상인도 이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신민이 끔찍할 정도로 싫었다. 그리고 천국이 증오스러웠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천국에 살았던 기억만큼은 지울 수가 없다. 라의 율법은 그만큼 강력했다.

“다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니 그쪽이 말해요. 대체 어떡하면 그 약을 팔 건가요?”

“그래? 그럼 싫다고 해도 산다고 하니 말하지. 흐음, 어떡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척하던 상인이 시로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 소년이 가진 엘릭서의 전부 정도면 될까?”

시로네는 깨달았다, 상인의 전략이 급히 수정되었음을.

아마도 카냐가 시로네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계산기를 돌려 보고 있었을 터였다.

상인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독했다.

화이트 엘릭서를 보고 욕심이 생겼지만 보유한 물건 중에 고가는 없다. 그래서 카냐와 엮어 버린 것이다.

감정만 제하자면 괜찮은 전략이었다.

노르인은 장사 수완이 좋다고 들었다. 그는 확실히 뛰어난 장사꾼이었다. 하지만 훌륭한 장사꾼은 절대로 아니었다.

카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장이 정리될수록 사기꾼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다.

“이제 알겠어. 당신은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었던 거야. 세 달 동안 내가 연옥에서 죽기를 바라면서 즐겼던 거야! 내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시로네는 안타까웠다. 카냐처럼 감정적인 대응은 마법사에게 통하지 않는다.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통달해 있기 때문이다.

마법사를 열 받게 하고 싶으면 같은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군. 이럴수록 아가씨만 힘들어져. 불가능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잖나? 평생 사냥을 하느니 저 소년의 엘릭서를 가져오는 게 훨씬 쉬운 일이야. 안 그래?”

“그건 도둑질이야! 강도 짓이고! 게다가 이곳에서는 싸움도 할 수 없잖아!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엘릭서를 어떻게 가져오란 거야?”

“여러 가지 있지 않겠나? 아가씨는 여자고 저 소년은 남자니 방법이야 찾기 나름이지.”

카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상인의 얼굴을 아크로 쏴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엘릭서를 달라고 하면 시로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단에게 생명과도 같은 엘릭서를.

그런데도 어쩌면……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나가 철이 없어도 사람 하나는 잘 보기 때문이다.

-시로네 오빠가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정해서 좋아하는 거야.

당시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확실히 그는 평범한 이단과 달랐다. 어쩌면 엘릭서를 넘겨주지 않을까? 그 비싼 화이트 엘릭서를? 어쩌면. 어쩌면!

모든 게 가정이었다. 그럼에도 가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참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 평범한 신민의 반밖에 살지 않은 어머니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상인의 비릿한 웃음을 뒤로한 채 카냐는 시로네에게 향했다. 이미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는 시로네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했다.

카냐는 오싹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좋은 생각은 아닐 것이다. 어째서 걸어오고 있는 거냐고 하겠지. 너랑 내가 무슨 사이냐고 하겠지.

그럼에도 사정할 것이다.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시로네에게 다가간 카냐는 비참한 심정으로 말을 꺼냈다.

“저기…….”

“자.”

시로네가 손을 내밀었다. 화이트 엘릭서가 놓여 있었다.

카냐는 울컥했다. 치솟는 감정은 분노와 흡사했지만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이 남자는 왜 이러지? 적어도 무릎이라도 꿇을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돈을 주고 감정을 사는 게 선행의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식의 자비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지?

카냐는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올지는 의문이었다.

“왜…….”

“일단 가서 에피네스를 사. 너에게 소중한 거잖아.”

“하지만…….”

너에게는 소중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내뱉고 싶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 소년은 달랐다. 인간과도 다르고 천외종과도 다르다. 심지어는…… 라하고도 달랐다.

불경스러운 생각이 떠오른 순간 카냐는 짜릿한 경험을 했다. 어쩌면 이게 타락의 전초가 아닌가 싶었다.

“고마워.”

겨우 한마디를 꺼낼 수 있었던 카냐는 상인에게 되돌아갔다.

역시나 연옥은 천국과 다른 곳인가 보다. 평생 느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녀는 지친 걸음으로 상인에게 다가와 엘릭서를 건넸다.

“자, 이제 에피네스를 줘.”

“안 돼. 이걸로는 팔 수 없어.”

“왜…… 또 왜?”

카냐는 소리 지를 힘도 없었다. 눈물을 참아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를 두 다리로 서 있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나는 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엘릭서라고 말했어. 그리고 내 계산대로라면 아직 1개의 엘릭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나에게 남은 엘릭서는 없어.”

## [190] 5. 노르의 쉼터 (5)

시로네는 드론을 보유한 상인에게 엘릭서를 던졌다.

양손으로 받은 상인의 몸이 떨렸다. 감격에 겨워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다.

레드도 그린도 옐로도 아닌, 화이트 엘릭서였다.

시로네가 손바닥을 뒤집으며 말했다.

“어때, 이걸로 끝났지? 이제 카냐에게 물건을 줘.”

“이런 식은 곤란해. 저 엘릭서 또한 내 것이어야 거래가 되지.”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뺏어 가든가.”

상인의 눈매가 꿈틀했다. 시로네의 행동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증명해 보이듯 시로네가 엘릭서를 만지작거리는 상인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렇다는데 어쩔 거야? 다시 물러 줄 수 있어?”

“아, 아니! 거래 취소는 절대로 안 되지!”

상인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물론 메카의 드론은 가치가 높다. 다만 그 물건이 쓸 수 있는 상태라면.

그가 팔아 치운 드론은 실상 옐로 엘릭서 선에서 정리되는 물건이었다. 그것을 화이트 엘릭서에 넘겼으니 인생에 다시없는 수지였다.

“자, 이제 어떡할 거야? 이단끼리 사이좋게 치고받고 싸움이라도 할 건가? 그게 특기인 것 같던데.”

약재상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히 이런 경우 난감하다. 고객과의 흥정이라면 얼마든지 뻔뻔해질 수 있지만 업자 간의 갈등은 이득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생필품을 주로 취급하는 하위 커뮤니티 상인끼리는 더더욱 그랬다.

약재상은 그제야 시로네를 유심히 살폈다.

이런 식으로 압박해 오는 걸 보니 노르인이 분명하다. 그것도 쉽지 않은 노르인이다.

하나만 받고 넘길 것인가? 에피네스를 화이트 엘릭서와 교환했다는 건 역사에 남을 장사다.

하지만 기분의 문제였다. 신민의 뜻대로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좋아, 나는 안 팔겠어. 그러니 장난감이나 가지고 만족하라고. 그거 알아? 너는 이 아가씨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거야.”

상인은 파투를 내 버렸다. 돈을 포기하고 승리의 쾌감을 택한 것이다.

상인으로서는 빵점짜리 거래지만 신민이 우는 꼴을 볼 수 있다면 상관없을 듯했다.

시로네는 그가 게임에 졌음을 깨달았다.

“아니, 당신은 약을 팔아야 해. 그러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셈이니까.”

“뭐라? 내가 무슨 계약을 위반해?”

“당신이 말했잖아. 내가 가진 엘릭서 전부를 가져오면 약을 팔겠다고. 카냐는 그렇게 했어. 그런데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다는 건 계약 위반이야. 장사꾼이 신용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을 텐데?”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끝장이다. 최소한 커뮤니티에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았다. 억지를 부리는 건 시로네였기 때문이다.

“말은 똑바로 해. 내가 계약을 제안했을 때, 너에게는 엘릭서 2개가 있었어. 그리고 계약이 성사된 직후 드론을 샀기 때문에 나는 위반한 게 아니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드론을 언제 샀는지?”

약재상의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렸다. 이성을 잃은 상태지만 오랜 장사 경험으로 촉이 왔다.

불리한 쪽은 자신이었다.

“나는 이미 드론을 사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어. 다만 엘릭서를 내놓지만 않았을 뿐이지. 상인이라면서 그 정도도 확인 안 하고 거래를 하다니, 당신도 아직 멀었군. 의심이 간다면 확인해 봐도 좋아.”

약재상은 이를 뿌드득 갈았다. 촉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다.

드론을 판매한 상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로네의 편을 들 것이다. 시로네와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화이트 엘릭서의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이다.

본토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자신도 과점을 통한 폭리를 취했으니 남을 욕할 입장은 아니었다.

‘어째서 내가 불리한 거지? 원래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복기를 해 보던 약재상은 깨달았다. 드론의 가치가 예상보다 낮다는 걸 시로네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인이 시로네의 편을 드는 건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이니까.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물질을 대하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다. 본토의 업자들 사이에서도 먹힐 만한 실력이었다.

“어떤가요, 아저씨? 우리가 먼저 계약한 게 맞죠?”

“물론 우리가 먼저지. 저 처자가 소리를 지르기 전부터 화이트 엘릭서를 받고 드론을 넘겨주기로 구두계약이 끝난 상태였네.”

요구하지도 않았건만 시로네는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다른 상인과 계약이 되었다면 고객의 한도를 확인하지 못한 장사꾼의 책임이다.

이대로 물러나야 하는가? 화이트 엘릭서 1개도 엄청난 수확이지만 자존심 문제였다.

그는 상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저열한 카드를 꺼냈다.

배를 째는 것이었다.

“내 어머니는 천국의 신민이었지. 하지만 일화의 술은 받지 않았어. 이유가 뭔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약재상이 머리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미쳐 버리셨거든. 아버지는 천국에서 살해당했어. 어머니를 짝사랑하던 어떤 미친놈한테. 그런데 내려진 형벌이 뭔지 알아? 수명 40년 삭감이야. 그런데도 수명이 40년이나 남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죽었는데 말이야. 어머니는 평생토록 그 인간을 저주했어, 크크크.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일화의 술 날짜가 잡힌 거야. 아버지를 죽인 그 미친놈하고 함께.”

카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시로네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일행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술법의 대상이 줄어 버렸으니 남은 죗값은 내가 받아야 했지. 그래서 율법을 피해 도망친 거야. 이제 알겠어? 난 신민이 싫어. 보기만 해도 토악질이 나온다고! 그런데 내가 약을 팔아 줄 것 같아?”

한마디로 뚜껑 열렸으니 같이 죽어 보자는 얘기였다.

시로네는 콧방귀로 응수했다.

정말로 자폭을 결심한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상황에서 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원하는 건 감정적인 승리였고, 시로네는 뜻대로 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약을 팔 거야, 말 거야?”

“팔지 않아. 엘릭서도 토해 내지 않을 거야. 난 결정했으니 마음대로 해 보라고.”

“그럼 강제로 가져가는 수밖에.”

“그러든지. 하지만 괜찮겠어? 폭력을 쓰면 커뮤니티에 발붙이고 살지 못해.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한다고.”

시로네는 손을 내밀었다. 광자가 압축되면서 백색의 구체가 진동했다.

약재상은 기겁했다. 이런 식의 마법은 불가능했다. 만의 하나 가능한 자라면 빛의 정령과 계약한 커뮤니티 외곽의 사람들뿐이었다.

“너…… 경계인이냐?”

“소용돌이 뱀은 제법 강했어. 덕분에 화이트 엘릭서를 3개나 얻었지.”

시로네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약재상은 알고 있었다, 마법사는 감정을 거세했을 때 가장 잔인하고 냉혹해진다는 것을.

“당신의 몸에는 어떤 엘릭서가 들어 있을까?”

답변의 여하에 따라서 약재상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리라는 건 모두가 알았다.

약재상은 한참이나 갈등했다. 막장의 막장까지 온 시점이었다. 결국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그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다.

“없어. 내 몸에는 엘릭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살려 줘.”

시로네는 포톤 캐논을 쏘았다. 한 줄기 섬광이 약재상의 코끝을 스치며 유적의 기둥에 처박혔다.

굉음이 터지면서 기둥이 터져 나갔다.

약재상은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웃지 마. 당신은 허세인지 몰라도 나는 진심이야. 율법이고 커뮤니티고 상관없어. 한 번만 더 비열하게 나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진정해.”

약재상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시로네는 폭력이 아닌 선에서 최대치의 적의를 드러냈다. 검사로 따지자면 칼을 뽑아 든 셈이었고 맹수로 따지자면 송곳니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걸 깨달은 약재상은 에피네스를 카냐에게 던졌다.

“자, 됐지? 계약은 끝이야.”

“한 가지 더 남았어. 카냐에게 사과해.”

“어째서 그래야 하지? 내 개인적인 감정까지 간섭할 권한은 없을 텐데?”

“하지만 당신도 아픈 과거가 있잖아?”

“그게 사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무조건 사과를 하라는 건 아니야.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가치가 없으니까. 하지만 당신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거 아냐? 과거의 상처를 말이야.”

과연 그런가? 나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나?

약재상은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카냐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일화의 술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했다.

당시에 그의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날마다 악을 질렀고 자해를 했다. 그녀가 느끼는 공포는 어린 그에게 더욱 심한 공포로 다가왔었다.

“쳇, 누가 사과 따위 할 줄 알고?”

약재상은 콧방귀를 뀌며 좌판을 정리했다. 약병부터 가방에 담고 담요를 말아 배낭 위에 올린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보랏빛 물약을 카냐에게 던졌다.

“코르핀이라는 거야. 신경계 강화 물약이지. 한몫 제대로 챙겼으니 서비스로 주마. 에피네스랑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 봤자 허무할 뿐이겠지만.”

텐트촌으로 걸어가던 약재상이 시로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애송아, 내가 한 말은 전부 지어낸 말이야. 날 꺾은 건 훌륭하지만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하면 본토에서 호되게 당할 거다.”

아린이 정신 채널을 통해 말을 전했다.

-시로네, 거짓인지 확인해 줄까?

-아니, 괜찮아.

시로네는 쓸쓸히 멀어지는 약재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노르의 쉼터.

연옥의 방랑자들이 쉬어 가는 곳.

어쩌면 그들이 이곳에서 잠시 내려놓는 것은 지친 육신이 아닌 마음의 상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쇼핑이 막을 내렸다.

시로네는 울음을 참지 못하는 카냐를 달랬다. 그 옆에서는 레나가 볼을 부풀리며 지켜보고 이었다.

에이미 일행은 시로네를 빼고 회의를 시작했다.

화이트 엘릭서 3개로 구매한 물품은 불의 정령과 드론, 에피네스였다.

상황에 따른 최선이었다고는 해도 손해 보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특히나 테스는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사 달라고 조른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괜찮은 건가? 전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특히나 에피네스는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주고 구입한 거잖아.”

“무슨 상관이야? 필요하면 사냥을 하면 돼. 지나간 일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리안의 말이 맞아.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만 손해는 아니잖아. 시로네는 가장 효율적으로 엘릭서를 운용했고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 거야.”

에이미의 위로를 받은 테스는 울상을 지었다.

“아무리 효율이 좋으면 뭐해? 상황이 엉망이었는데. 나도 시로네의 선택을 지지하지만 약재상이 이상한 수작만 안 부렸어도 드론도 절반이나 깎을 수 있었다고.”

카니스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에이미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실제로 시로네는 손해 따윈 보지 않았어. 화이트 엘릭서를 전부 주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것을 샀으니까.”

“뭐? 불의 정령이 그렇게 비싼 거였어?”

“아니. 가장 비쌌던 것은 에피네스야.”

테스는 친하지도 않은 카니스가 농담을 거는 줄 알았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소리지만, 레드 엘릭서로도 살 수 있는 물건을 화이트 엘릭서로 샀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통이 터졌다.

리안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어째서 에피네스가 가장 비싸다는 거지? 그건 흔한 약물이잖아.”

“그렇긴 하지만 오늘만큼은 값이 상상을 초월했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물건의 주인이야. 카냐와 레나야. 즉, 천국의 신민이라는 거지.”

“아…….”

“이제 알겠어? 에피네스가 아냐. 시로네는 화이트 엘릭서 하나로 천국행 티켓을 사 버린 거라고.”

과연 그렇다.

생각해 보면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도 비빌 구석이 생겼다. 카냐의 힘을 빌리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 [191] 5. 노르의 쉼터 (6)

그럼에도 거부감이 드는 건 시로네가 그녀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시로네는 그런 애가 아니야! 설령 카냐가 신민이 아니었어도 똑같이 도와줬을 거야! 시로네는 착하고 또……!”

“나도 알아, 어떤 성격인지는. 그런 놈이니까.”

카니스가 순순히 인정하자 테스는 할 말이 없어졌다.

“화이트 엘릭서를 내준 건 진심이었을 거야. 따라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시로네는 선의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그 상황에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멍청한 놈 또한 아니라는 거야. 안 그래?”

일행은 반박하지 못했다.

시로네라면 카니스가 떠올린 걸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때마침 시로네가 카냐를 데리고 이쪽으로 걸어왔다.

카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어서.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에이미는 어깨 너머의 시로네에게 눈짓으로 물었다. 역시나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 고개를 저었다.

살다 보면 선의의 행동이 계산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로네의 상황이 그랬다. 카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다.

정신 채널을 통해 의견이 오고 갔다. 카니스는 자신이 말하겠다고 했지만 다수결에 따라 시로네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회의가 끝나자 에이미와 카냐는 불의 정령과 드론을 살펴보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로네는 파티의 여성 중에 아린만이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안해. 엘릭서를 다 써 버려서.”

카니스가 말했다.

“필요 없어. 고작 이딴 거나 얻자고 온 게 아니니까.”

드론을 쓰다듬던 테스가 발끈했다.

“뭐야? 다시 말해 봐.”

“필요 없어. 고작 이딴 거나 얻자고 온 게 아니니까.”

테스가 이를 뿌드득 갈자 카니스가 말을 덧붙였다.

“우리가 목숨 걸고 이곳에 온 건 연옥이나 돌기 위해서가 아니야. 네가 껴안고 있는 그 드론도 천국에서는 아무나 들고 다니는 장비라는 걸 생각해야 할 거야.”

카니스의 말이 옳았다.

연옥이 물건을 파는 시장이라면 천국은 물건을 제조하는 공장이었다. 이 세계의 모든 원리가 천국의 율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테스는 입을 삐죽 내밀고 돌아앉았다.

어쨌거나 드론은 자신의 것이다. 천국에 어떤 기상천외한 물건이 있다고 해도 구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아닌가?

그녀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드론을 쓰다듬었다. 그러다가 문득 사용법이 궁금해졌다.

부서질까 무서워서 험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흔들어 보고 두드려 봐도 작동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카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분명 새거라고 했는데 작동이 안 돼.”

“줘 봐. 내가 살펴볼게.”

카냐는 드론을 건네받고 이리저리 돌렸다. 그러다가 드론의 비행 기관에 강철로 만든 띠가 매여 있는 걸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 또한 화이트 엘릭서로 드론을 산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을 팔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띠가 풀리지 않은 메카족의 장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었다.

“저기…… 이건 사용할 수가 없어.”

“뭐어? 왜? 어디 고장이라도 난 거야?”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이건 공장에서 생산되자마자 나온 신품이야. 여기 강철 띠에 새겨진 문양 보이지? 이건 헤나라는 건데, 이 봉인을 풀어야만 사용이 가능해. 하지만 봉인은 공장에서밖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야.”

테스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이었다. 화이트 엘릭서를 지불하고 얻은 물건이 고철 덩어리와 똑같은 것이었다니.

대화를 듣고 있던 시로네는 상인이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 치우려고 안달한 이유를 깨달았다. 봉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에이미가 드론을 빼앗으며 말했다.

“이리 줘. 내가 가서 환불받아 올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설명도 안 해 주고 팔았잖아. 이건 사기야!”

“맞아. 내가 사기를 쳤네.”

드론을 팔았던 상인이 클로브를 대동하고 걸어왔다.

순순히 인정을 해 버리자 에이미는 맥이 빠졌다.

일행은 화를 가라앉히고 상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품속에서 옐로 엘릭서 3개를 내놓았다.

“이게 뭐예요?”

“드론의 원래 값일세. 물론 이윤은 뺏으나 어떤 경매를 해도 이보다 싸게 팔 수는 없을 게야. 메카의 모든 물건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네.”

아린이 진실이라고 전해 왔다.

에이미는 상인이 양심선언을 한 이유를 짐작했다. 우선 명백한 사기였고, 시로네의 실력을 보자 일이 커지리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결국 수습하고 원래의 몫이라도 챙기자는 심보였다. 상인치고는 배짱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말게. 별다른 의도는 없어.”

“그럼 왜 돌려주죠?”

“사과의 의미일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 천국에서 벗어나 연옥으로 들어왔지만 희망이 있다고 믿고 살았네. 장사꾼의 긍지까지 버리고 싶지는 않아.”

시로네는 알겠다는 듯 옐로 엘릭서를 받았다. 아린이 진실 반 거짓 반이라고 알렸지만 구슬 가지고 싸우는 건 이제 지긋지긋했다.

상인이 나름대로 그들을 위로했다.

“그래 봤자 많이 깎은 것도 아니야. 보통 옐로 엘릭서 10개면 화이트 엘릭서 하나를 구할 수 있지. 연옥에서 드론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

테스가 쏘아붙였다.

“그러면 뭐해요? 어차피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상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다. 메카족의 장비가 주요 취급 품목도 아니고 어쩌다 구한 거라 아는 정보가 없었다.

하지만 에이미는 상인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다.

“가치가 높다는 건 잠금장치를 풀 방법이 있다는 거 아냐?”

테스는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고 돌아보았으나 상인은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카니스가 한숨을 내쉬었다.

잠금장치의 열쇠를 앞에 두고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짜증이 났다. 이걸 말을 해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일말의 동지애를 발휘하여 입을 열었다.

“너희 정말 모르는 거야?”

“응? 모르다니?”

“우리가 어떻게 이곳으로 왔는지를 기억해 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라고.”

테스는 기억을 더듬었다. 거핀의 문을 통해 천국으로 빠져나왔다. 거핀의 문? 가만, 거핀의 문에서 우리가 뭘 했더라?

테스가 시로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시로네! 빨리, 빨리 이것 좀 풀어 줘!”

시로네도 깨달았다.

거핀의 문 또한 일종의 고대 병기다. 외관은 석벽에 지나지 않지만 이모탈 펑션을 개방하면 차원의 문으로 변하는 병기. 어쩌면 언로커라는 별칭은 이래서 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드론을 받아 든 시로네는 양손으로 감싸 쥐고 정신을 집중했다. 과연 될까? 의문이 들었지만 십중팔구는 되리라 예상했다.

이모탈 펑션을 개방하자 드론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상인의 눈이 똥그랗게 뜨였다.

헤나라고 부르는 잠금장치를 따라 적색의 문양이 드러났다. 형태는 달랐지만 거핀의 문에서 봤던 현상과 똑같았다.

팅 소리를 내며 헤나가 떨어져 나가고 조립체 틈새로 빛이 새어 나왔다.

시로네가 해맑게 웃으며 드론을 치켜들었다.

“우와, 이거 진짜로 되잖아?”

웃는 얼굴 그대로 시로네의 몸이 굳었다.

수많은 노르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카냐와 레나는 물론 가드락과 클로브까지 충격을 받은 듯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단순히 봉인을 풀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선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린이 몇몇 사람에게 텔레파시를 시도하자 그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네피림.

수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네피림이었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시로네는 불안해졌다.

네피림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린은 그들의 감정이 경외와 두려움이라고 했다.

시로네와 눈이 마주친 카냐가 흠칫 놀랐다. 하지만 그것조차 불경임을 떠올리고 무릎을 꿇었다.

“라의 신민이 네피림을 뵙습니다.”

시로네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가드락이 다가왔다. 이단 사냥에 쫓겼을 때보다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네들 연옥에 떨어진 자들이 아니었군. 문을 열고 들어온 자들이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피림이 도대체 뭐예요?”

“이 세계에서 천국과 지국地國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존재는 천사뿐이네.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만 그중에서 땅의 나라를 교화시킬 인물을 잉태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한 번도 아이를 갖지 않은 처녀야만 하는데 그걸 처녀 수태라고 부르지. 네피림은 천사와 처녀의 사이에 태어난 후손을 말하는 걸세. 천국에서는 네피림을 이렇게 부르지.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

시로네는 케르고 족장이 연회에 참석시켰던 신녀들을 떠올렸다. 천사의 후예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오직 처녀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자신은 네피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천사의 후손이라면 어머니는 왜 자신을 버렸는가.

게다가 이모탈 펑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네피림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

세상의 모든 언로커들이 하나의 핏줄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네피림은 라의 의지에서 벗어나 있네. 하지만 신민들은 네피림을 따르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자니까.”

시로네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조상이 잘났다고 해서 신민들이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또한 이모탈 펑션은 도전으로 깨달은 경지였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고유의 성취를 핏줄의 공으로 돌리는 것도 터무니없게만 느껴졌다.

“됐어요. 어차피 그런 사실을 안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는 하지. 이곳은 이단의 나라니까. 그나저나 도대체 연옥에는 왜 온 거지? 천사의 임무를 수행하러 온 건가?”

시로네는 천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짐작했다. 차원을 통과해 신과 신민을 이어 주는 통신수단이었다.

“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왔어요.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역시 그랬군. 그런데 왜 노르의 쉼터로 온 거지?”

“그건 어쩌다 보니…….”

시로네가 돌아보자 카냐가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시로네는 배척해야 할 이단이나 모조인이 아니었다. 독각귀를 물리치고 에피네스를 얻어 준 위대한 네피림이었던 것이다.

시로네가 카냐를 진정시켰다.

“너무 긴장할 것 없어. 사실 나는 네피림이라는 것도 몰랐거든. 그냥 편하게 대해.”

“하지만…… 어떻게…….”

에이미가 다가와 거들었다. 시로네의 말이 맞기도 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래, 편하게 해. 시로네가 네피림이라도 다른 친구들은 이단이야. 우리가 시로네랑 편하게 지내는데 네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

카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네피림과 동행하는 자라면 이단으로 분류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네피림과 이어져 있고, 네피림은 천사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상위 율법이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 카냐는 시로네의 뜻에 따라 편하게 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울림이 퍼지고 있었다.

네피림이고 나발이고 테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시로네는 시로네니까.

그녀는 히죽거리며 드론을 살펴보았다. 웅 하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카냐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리 줘 봐. 내가 사용법을 가르쳐 줄게.”

드론은 인간의 뇌를 관제탑으로 사용하는 원격조종 장비다. 망막 비전이라는 첨단 기술로 사용자의 눈에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데, 대기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관제탑을 기준으로 반경 10킬로미터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드론을 사용하려면 개인 암호를 걸어야 돼. 고유주파수를 이용하는 건데 원리는 메카의 기술자만이 알고 있어. 어쨌든 사용하려면 여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초기화 버튼에 손을 가져다 대자 반구형의 드론이 여러 기관으로 쪼개졌다.

테스의 머리에 씌우자 기계음 소리를 내며 드론이 조여들더니 뇌파를 읽기 시작했다.

## [192] 5. 노르의 쉼터 (7)

30초가 지나고 저장이 완료됐다는 신호가 떴다.

좌우 안구를 검색한 드론이 왼쪽 안구에 신호를 보냈다.

테스는 숨이 멎을 듯 놀랐다. 눈으로 보는 풍경에 드론이 보는 풍경이 덧씌워져 있었다.

이 능력만으로도 스키마 한 장의 가치가 있었다.

드론을 벗겨 건틀렛으로 장착한 테스는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카냐는 언어 해독 기능과, 특정 뇌파를 저장하면 전파를 추적해 자동으로 목표물을 찾는 기능도 있다고 알려 주었다.

전투력 보강에 신이 난 시로네 일행과 달리 클로브는 불안한 듯 눈동자를 굴렸다.

이단에게도 네피림이란 단어는 강렬했다.

강한 적에게 느끼는 공포와는 달랐다. 네피림은 무력의 고하와 상관없는 미지의 두려움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였던 태도를 떠올리며 시로네가 이상한 저주만 내리지 않기를 바랐다.

아니나 다를까, 시로네가 다가왔다.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생각하던 것과 달리 그는 옐로 엘릭서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여 주었다.

수수료였다.

클로브는 한참을 갈등하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고, 고마워. 이렇게까지 많이 안 줘도 되는데.”

“괜찮아. 어차피 엘릭서는 쪼갤 수도 없는데 뭐.”

“너…… 정말 네피림이야?”

“모르겠어. 난 그냥 마법학교 학생이야. 여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르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까칠하게 대한 건 미안해. 나는 네가 땅의 사람인 줄 알고…….”

“설령 땅의 사람이라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그, 그렇지. 미안해.”

시로네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공포에 굴복한 상대에게 훈계는 무의미하다. 바퀴벌레에게 절을 하라고 말해도 그는 따를 테니까.

시로네는 클로브에게 신경을 끄고 노르인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이곳 또한 커뮤니티의 일부분이니 물어보기라도 하자는 생각이었다.

“저기, 혹시…… 미로라는 여성에 대해 알고 있나요?”

노르인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이었다.

시로네가 체념하고 돌아서려는 그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걸어왔다.

“미로, 미로라고 했나?”

“네. 알고 계세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들은 적이 있네. 혹시 그녀도 네피림이 아닌가?”

“네? 아, 맞아요.”

이 세계의 사람들은 언로커를 네피림으로 알고 있다. 미로의 태생은 정확히 모르나 그녀 또한 언로커였으니 확답을 해도 무방할 듯했다.

“그녀는 라의 율법을 부정했다네.”

“그게…… 어떤 의미죠?”

“몰라. 그렇게만 들었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어. 라를 그토록 따르던 신민이었는데도 말일세. 어린 나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지.”

라의 율법을 부정한 여성. 얻은 정보는 단순했지만 곱씹어보면 전하는 바가 많았다.

우선 미로는 천국에 왔었던 게 분명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 자신보다 훨씬 많은 걸 깨닫고 돌아갔을 터였다.

그런 그녀가 라를 부정했다.

이 여행이 끝났을 때 자신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미로를 이해하게 될까, 아니면 부정하게 될까.

생각에 잠겨 있는 그때 에이미가 다가왔다.

“시로네, 해가 떨어질 것 같아. 오늘은 여기서 자는 걸로 정했는데, 어때?”

“응? 나도 괜찮아. 아침부터 전투를 치러서 피곤하네. 이제부터는 쉬자.”

“저기…….”

카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에이미는 그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뒤를 밟은 것을 보아하니 자신과 시로네의 관계를 신경 쓰는 게 분명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할 말이라도?”

“테스에게 드론의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

“아, 그래. 고마워.”

“나랑 레나도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이 시간에는 안내인들이 쉰대. 내일 아침에나 출발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시로네는 말끝에 여운을 남겼다.

카냐가 내일 아침에 떠난다면 자신들도 반드시 그때 따라가야 한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문제였다.

에이미의 눈치를 잠시 살피던 카냐가 말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지? 괜찮으면 하루만 우리 집에 들러 주면 안 될까?”

천국에 갈 생각이기는 했지만 카냐의 집에서 묵는다는 건 또 다른 사건이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 때문일 수도 있다. 열렬한 신민인 부모님에게 네피림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인 그녀가 고마울 따름이었다.

시로네가 승낙하자 카냐가 얼굴을 붉혔다.

에이미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소심하게 따질 수도 없었기에 콧방귀를 뀌며 테스에게 가 버렸다.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도중에 노르의 쉼터 외곽이 소란스러워졌다. 일단의 무리가 달려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순찰이다! 숨어! 바닥에 엎드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시간도 없이 노르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시로네는 카냐의 손을 붙잡고 가드락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친구들도 같은 판단을 했는지 그쪽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수풀에 엎드린 시로네는 가드락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다.

달이 대보름으로 차오르는 날이면 천사가 연옥의 주변을 순찰한다고 했다.

이유도, 목적도 불분명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단 사이에 내려오는 계시록이었다.

하늘에서 세상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모여든 것처럼 주위의 공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각각의 소리가 층을 쌓으면서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한 줄기의 선율이 귀를 관통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현악기인가?

시로네는 넋을 잃은 채 망상에 빠졌다.

가드락이 시로네의 정신을 의식 밖으로 끄집어냈다.

“정신 차려! 소리에 빠져들지 마! 우리가 마법사라서 견디는 거지 다른 종족이면 이미 뻗었어.”

시로네는 테스와 레나를 살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미 딴 세상에 가 있었다.

도대체 이 소리는 무엇인가? 하나의 음만으로 이렇게 사람의 정신을 흔들 수 있는 것인가?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천사들은 저마다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이 있어. 존재 자체가 발하는 진동이지.”

“존재 자체의 진동?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천국에서는 천사를 율법의 조율자라고 불러. 인과율 제1개체로서 모든 율법에 우선해. 바이브레이션은 천사 고유의 영역을 증명하는 진동이야.”

시로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이브레이션의 진동수로 보건대 조만간 노르의 쉼터 상공을 지날 듯했다.

빛의 마법으로 장막을 쳤다고는 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천사가 우리를 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뜻이에요?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너는 오늘 손가락의 지문을 확인한 적이 있냐?”

“아뇨.”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야. 마음만 먹는다면 빛의 장막도 얼마든지 투사할 수 있어. 하지만 넓은 연옥에서 그런 식으로 날아다니지는 않지. 오늘따라 변덕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별일은 없을 거야.”

외곽의 수풀에서 누군가가 ‘온다!’ 하고 소리쳤다.

시로네는 고개를 치켜세웠다. 빠른 속도로 상공을 지나는 4개의 인영이 보였다.

눈조차 깜박일 수 없었다.

하얀 로브를 입은 천사가 선두에서 날고 있었다. 몸보다 10배는 커다란 빛의 날개를 펼치고 금빛 철편을 손에 쥐고 있었다. 무엇보다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은 건 머리 위에 떠 있는 빛의 구체였다.

천사를 중심으로 삼각 편대를 이룬 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생물체였다.

왼편과 오른편을 지키는 자들은 인간과 흡사했지만 피부색이 적색과 청색이었다.

그 뒤를 온갖 생물을 합쳐 놓은 괴물이 따르고 있었다.

놈들의 머리 위에는 뿔처럼 기다란 적색 빛의 삼각형이 떠 있었는데 각각 하나에서 셋까지 개수가 달랐다. 원뿔이 아님에도 어떤 각도에서든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뭐죠, 끝에 있는 괴물은? 문어의 다리도 보이고 뱀의 얼굴도 보이던데.”

“저것들은 마라야. 인과율 제2개체. 또 다른 이름은 율법의 수행자.”

“율법의 수행자요?”

“천사를 율법의 조율자라고 말했지. 그들은 신이 창조한 최초의 개성으로 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해석할 권리가 있어.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알아? 율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거야. 거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천사가 율법을 조율하면 마라는 행동하지. 그래서 마라를 율법의 수행자라고 부르는 거야.”

시로네는 이 세계의 최상위 계급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이 법이라면 천사는 법관이었다.

그렇다면 마라는 법관의 명을 수행하는 보좌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머리 위에 뭐가 떠 있던데요. 천사는 구체고 마라는 뿔처럼 생긴…….”

“맞아, 뿔이야. 다만 진짜 뿔은 아니고 사념체지. 뿔의 개수가 많을수록 고위 마라야. 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의 능력을 부여받아. 그 힘의 원천이 뿔이야.”

“그럼 천사의 머리에 있는 건요?”

“그건 성광체라고 불러. 천사의 힘은 성광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원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 내가 신민일 당시에도 천사를 본 적은 손에 꼽으니까.”

클로브가 턱을 떨며 말했다.

“오히려 여기 와서 더 자주 보죠.”

시로네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언로커는 정말로 네피림인가? 차원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힘은, 미로의 스케일 마법은 천사의 능력인 것일까?

머리가 아파 오기 시작했다.

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수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전체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퍼즐의 판이 컸다.

천사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이 떴다.

산이 있다면 정상에서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대한 달이었다. 괴기스러웠다.

천사의 순찰이 끝나자 노르인들의 하루가 저물었다.

텐트촌의 12인승 막사를 빌린 시로네는 친구들과 나란히 누웠다.

피곤했는지 여기저기에서 새근한 숨소리가 들렸다. 생각을 더 하고 싶었지만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게 몸으로 느껴졌다.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든 시로네는 꿈속에서 미로를 만났다. 악몽은 아니었다.

6. 일화의 술 (1)

시로네 일행은 가드락을 따라 소용돌이 뱀의 계곡에 도착했다.

율법이 깨졌기에 더 이상은 소용돌이 뱀의 계곡으로 불릴 수 없겠지만, 수만 년을 유지한 이름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터였다.

가드락은 더 이상 이곳에서 안내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소용돌이 뱀이 사라진 지금 새로운 율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어떤 율법이든 간에 그들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었다.

“언젠가는 볼 수 있겠지. 율법은 유한하나 인간은 무한하니까. 설령 천국이 멸망하더라도 노르의 쉼터는 없어지지 않을 걸세.”

가드락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인간은 무한하다는 말이 시로네의 가슴에 와 닿았다. 수만 광년이 떨어진 이곳에도 인간은 살고 있었다.

일행은 드론 세 기를 하늘로 날렸다.

케르고의 이단 사냥을 경험했기에 정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시로네가 천국에 대해 묻자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카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천국은 7개의 하늘로 되어 있어. 제7천 아라보트부터 제1천 샤마인까지. 신민이 거주하는 곳은 제1천 샤마인이야. 메카, 노르, 케르고, 세 종족이 율법을 지키며 주어진 일을 해. 케르고가 생산하면 메카는 가공하고 노르는 공급하는 역할이야.”

“하지만 불합리한 거 아냐? 태어날 때부터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우리는 벌써 수십만 년이나 이렇게 해 왔어. 앙케 라 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뿐이야.”

시로네가 알기로 원래의 세계에서 문명이 탄생한 건 길어 봐야 1만 년 정도다. 수십만 년이나 천국이 존재했다면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인구 포화 상태가 되어야 정상이었다.

시로네가 그런 속마음을 꺼내자 카냐는 오히려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의문을 갖는 건 불경이야. 앙케 라는 세상을 주관하셔. 여태까지 샤마인의 인구가 줄거나 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 인구수는 언제나 그대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산아제한 정책 같은 건가?”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들은 제3천 셰하킴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지.”

“그럼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죽는다는 거야?”

## [193] 6. 일화의 술 (2)

“아니. 설령 수명이 다하더라도 천국의 신민은 죽지 않아. 일화의 술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재생되지.”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안 맞잖아.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째서 인구가 그대로야?”

“신민의 수명은 라의 주관하에 있어. 엄격한 율법으로 전체 인구의 수명이 계산되기 때문에 고정된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영생과 인구 제한은 병행될 수 없는 말이었다.

결국 핵심은 일화의 술에 있다.

하지만 가드락과 마찬가지로 카냐 또한 설명하기를 회피했다. 신민이든 이단이든 나름의 소신이 있지만 일화의 술만큼은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었다.

모순.

시로네가 상상하는 일화의 술은 거대한 모순이었다.

소용돌이 뱀의 계곡에서 속된 자들의 숲을 지나 천국에 도착했다.

일행은 하늘까지 고개를 쳐들었다.

성벽의 크기에 비하면 그들은 먼지에 불과했다.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는 극한의 스케일이었다.

카냐는 이곳을 73구역이라고 소개하고 제1천에만 820개의 구역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상상을 포기한 시로네는 벽을 만져 보았다. 돌인 줄 알았는데 금속이었다.

천국의 기술력은 시로네 일행의 상식을 초월하고 있었다.

“괜찮을까,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을 거야. 네피림이니까.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

“그럼 차라리 성벽을 넘는 건 어때?”

하늘에 닿아 있는 성벽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별다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카냐는 그조차도 고개를 저었다.

“비행 승인을 받은 드론 외에는 천국의 영공을 날 수 없어. 요격당할 거야. 여태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예전에 할아버지에게 들었거든. 그리고 어차피 몰래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어째서? 문을 지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출입을 제재하지는 않아. 율법의 문제야. 천국에서 일어나는 정보는 천사가 거주하는 제6천 제불에서 관리해. 각 구역의 질량 변동과 공기에 섞이는 기체 성분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숨어서 들어온다고 해도 허사야. 너무 걱정하지 마. 위험한 일은 없을 테니까. 여기는 연옥이 아니라고.”

신민인 카냐는 천국에 대해 미리 안 좋은 감정을 심어 줄 필요는 없다는 듯 시로네를 안심시켰다.

성문에 다가가 건틀렛을 들이밀자 렌즈에서 튀어나온 적색 광선이 표면을 스캔했다.

성문이 열리면서 세상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다.

73번 구역의 입구가 개방되자 시로네 일행은 카냐의 뒤를 따라붙어 천국으로 들어갔다.

성문이 닫히면서 렌즈가 반짝였다.

새롭게 변한 73번 구역의 정보가 제6천 제불로 전송되었다.

총질량 497억 3,949만 8,847.3423킬로그램.

이산화탄소 발생량 0.0000024퍼센트 증가.

@

샤마인의 첫 느낌은 이질적이었다.

길목을 사이에 두고 종족의 거주지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문화양식이 극단적으로 달랐다.

노르인의 건물은 실용적인 데 반해 케르고인의 건물을 사치스러웠다. 그리고 메카인의 건물을 발견했을 때, 시로네와 에이미는 걸음을 멈추고 말을 잃었다.

마법 창고 이스타스였다.

정방형의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는데 옆의 건물과 자유롭게 교차하며 위치를 옮기고 있었다.

메카인이 마법학교에 견학을 왔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메카의 기술이 원래의 세계로 흘러들어 왔다는 증거였다.

카냐는 메카인의 거리를 지나 광장으로 빠져나왔다.

문화의 교두보처럼 여러 종족이 섞여 있는 광장의 풍경은 중립국의 국제시장을 보는 듯했다.

“시로네, 저기 좀 봐.”

에이미가 거인의 상을 가리켰다.

케르고 제단에서 보던 때와는 기분이 달랐다. 이곳에는 실제로 거인이 살고 있다. 게다가 전투까지 치렀다.

신민의 추앙을 받는 거인이 연옥을 떠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냐의 집은 다른 메카족의 집과 똑같은 크기였다.

케르고가 과시, 노르가 실용이라면 메카는 규격을 추구하는 듯했다.

카냐의 집으로 들어가자 건물이 4층으로 떠올랐다.

비인간적인 형태와 달리 내부는 아늑했다.

식탁에 앉아 있던 부모님이 벌떡 일어섰다.

일화의 술은 수명이 끝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시로네의 예상보다 훨씬 젊었다.

카냐의 엄마가 두 딸을 끌어안고 소리쳤다.

“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저 아이들은 누구니? 노르인 같은데.”

“노르의 쉼터에 갔다 왔어. 이걸 구하려고.”

카냐가 물약을 내밀자 엄마의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렸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딸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

“너…… 이건…….”

“각성제야, 노르의 마법으로 만든. 일화의 술 전에 이걸 마셔.”

“레나!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는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

“그럼 지켜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엄마도 할아버지에게 약을 주려고 연옥에 나간 적이 있잖아!”

“너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일화의 술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거면 됐잖아! 그런 게 가족이잖아!”

“너 정말 왜 그래! 그럼 약을 구하다가 엄마의 수명이 줄어든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냐! 딸이 그 짓을 똑같이 한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

침통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아빠가 끼어들었다.

“두 사람 다 그만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일단 무사히 돌아왔으니 됐잖아.”

아내를 말린 그는 시로네 일행을 돌아보았다.

“그럼 자네들은 이단인가, 노르의 쉼터에서 온?”

카냐가 시로네 일행을 소개했다.

“아니야. 저들은 땅의 나라에서 왔어. 나와 레나의 목숨을 구해 주고 이 약도 구하게 도와줬어. 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죽었을지도 몰라.”

딸을 살려 주었다는 말에 매몰차게 대할 부모는 세상에 없다.

아빠는 시로네 일행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카냐는 연옥에서 겪은 일을 말해 주었다.

시로네가 네피림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두 사람 모두 무릎을 꿇는 바람에 거실이 소란스러워졌다.

일행의 간곡한 부탁 끝에야 부모님은 편하게 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랬군. 카냐와 레나를 도와준 건 고맙네. 하지만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네피림이라고 해도 땅의 나라에서 온 자들을 반기지는 않을 테니까.”

“아뇨. 저희는 제7천으로 갈 생각이에요.”

신의 성지 아라보트는 감히 가겠다고 말하는 것조차 불경일 정도로 성스러운 곳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였으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자유롭게 내뱉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제7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네.”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그보다 궁금한 건 이곳의 율법이에요. 수명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말 그대로일세. 신민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따라 수명을 부여받지. 카냐의 수명은 62세. 레나는 73세까지 살 수 있다네.”

“어라? 레나가 동생인데 수명은 더 많네요?”

“수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레나는 어릴 적에 찬송을 아름답게 불렀다는 이유로 10년의 수명을 더 얻었지.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아내일세. 아내의 수명은 43세 하고도 247일.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

시로네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수명을 하루 앞까지 알고 있을까? 만약 자신이 그랬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럼에도 카냐의 엄마는 웃고 있었다. 라의 은총이 내릴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젊을 적 연옥에 나간 죄로 20년의 수명을 삭감당했네. 그래서 내일이면 일화의 술에 들어가게 되지.”

사람의 수명을 바꾼다는 건 잔인한 일이다. 아니, 가능하리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라가 수명을 지배한다면 그는 몇 살이란 말인가?

천국의 역사가 수십만 년이라 했다. 어쩌면 라는 정말로 신일지도 모른다.

“일화의 술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흐음, 말해 주지 않았나 보구먼. 하긴 그랬겠지. 알아서 좋을 일이 아니네. 무엇보다 네피림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닌가? 자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도 알고 싶어요.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좋은 방법이 떠오를지도 모르고요.”

“흐음, 그렇다면야…….”

아빠가 말을 꺼내려는 그때 창문 밖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나를 받들라! 메카족 담당관 페오페니라.”

시로네 일행은 벌떡 일어섰다.

소리 증폭 마법처럼 목소리가 여기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언어가 저절로 통역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채널을 통하지 않고 소리만으로 시전하는 정신감응의 능력.

마법이라면 고난이도였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군. 요정이네.”

“요정요? 제가 아는 그 요정 말인가요?”

시로네는 원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요정족을 떠올렸다.

카냐의 아빠는 그가 말하는 요정이 이곳의 요정인 줄로 착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율법을 행하는 자. 거인이 율법을 지킨다면 요정은 율법을 행하는 존재일세. 내정관이라고 할 수 있지. 카냐와 레나의 건으로 찾아온 것일 게야.”

“저희는 어떡하죠?”

“자네가 네피림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율법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니. 다만…… 그녀가 그런 점을 감안해 줄지는 모르겠군. 특이한 성격이라.”

“무엇 하느냐! 이 집의 신민은 어서 문을 열어라!”

요정의 목소리가 문밖에서 들렸다.

이곳은 4층이었다. 그리고 시로네가 알고 있는 요정은 결코 하늘을 나는 존재가 아니었다.

아빠가 문을 열어 주자 시로네의 예상을 깨고 앙증맞은 생물체가 날아들었다.

손바닥 크기의 여자아이였다.

금발의 곱슬머리였는데, 작은 얼굴에도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보일 만큼 예뻤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녹색 부츠를 신었고 투명한 날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카냐의 가족이 무릎을 꿇자 시로네 일행도 눈치껏 그들을 따라 했다.

허공에 떠 있는 페오페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나는 나선의 요정 페오페. 신민 재판을 하러 몸소 출두했느니라.”

요정은 잭 오 랜턴처럼 정에서 태어나지만 자연계의 속성이 아닌 개념이었다.

단일개념체.

따라서 요정은 이성이 있고 모태가 된 개념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율법을 집행하겠다. 카냐와 레나, 너희 연옥에 나간 적이 있더냐?”

“네. 나갔다 왔습니다.”

카냐의 부모님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카냐는 담담했다. 천국을 나서기 전부터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다.

다만 걸리는 게 있다면…… 레나였다.

“죄송합니다. 일화의 술을 앞둔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속된 자의 숲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케르고는 자유롭게 연옥을 오갈 수 있으니 사냥의 핑계를 대면 죄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페오페는 신민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녀를 몰아붙였다.

“흥,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내일이면 죽을 신민에게 음식이 무슨 소용이지?”

카냐의 엄마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일화의 술이 설령 축복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위태로운 감정을 페오페가 들쑤셔 버린 것이었다.

시로네는 그 사실에서 분노를 느꼈다.

신민들은 일화의 술을 재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정 관리인 요정에게서 나온 말은 명백한 사망 선고였다.

단순한 협박이 아닌 이유는, 페오페의 말에서 악의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느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어쨌거나 판결을 내리마. 카냐와 레나, 너희의 수명을 40년씩 삭감한다.”

카냐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40년 삭감이면 남은 생이 10년도 되지 않는다. 레나는 나은 편이지만 그래 봤자 33살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무단이탈로 40년 삭감을 선고받은 건 그녀가 알기로는 최고 기록이었다.

1년 전 동갑내기 세일은 5년 삭감을 받았다. 노르족인 카이 아저씨는 7년이었다. 가장 재수가 없는 경우로 알려진 엄마조차도 20년이다.

그런데 40년을 삭감한다고? 자신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레나의 인생은 어쩌란 말인가?

## [194] 6. 일화의 술 (3)

“페오페 님! 용서해 주세요! 저와 레나의 수명을 합치면 80년의 삭감입니다. 제가 동생을 억지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 동생만이라도 죄를 덜어 주세요!”

“40년이 어때서 그래? 어차피 길어야 60년밖에 못 살지 않느냐? 5년이면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생물학적 특성을 결정짓는 건 수명이다. 요정은 인간처럼 이성이 있지만 유구한 수명을 영위하는 만큼 사고방식이 판이하게 달랐다.

요정의 인생에는 실수를 만회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아집이 없고 솔직하지만 수명이 제한된 인간의 기분을 알 턱이 없었다.

하루살이의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는 인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나 탄생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페오페의 입장에서 죽음이란 천 년 뒤에나 떠올려 봄 직한 단어에 불과했다.

카냐의 엄마가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내정관이 서투르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참담한 판결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페오페 님, 당신은 율법의 집행자이십니다. 허나 요정계의 어느 누구도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저만 해도 20년이었습니다. 부디 생각을 고쳐 주세요.”

“뭐야? 너 지금 내가 한 살밖에 안 됐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도 알 건 다 알아! 율법의 집행자는 최대 50년까지의 수명을 판결할 권한이 있다. 내 고유의 권한에 반기를 드는 것이냐?”

“정말로 그리 판결을 하셨다면 납득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흥, 좋다! 그럼 이렇게 말해 주지! 카냐와 레나의 천국 무단이탈은 수명 삭감 20년! 그리고 남은 20년은 이단을 끌어들인 죄다! 이러면 불만 없겠지?”

페오페가 시로네 일행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단이 들어왔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이곳에 와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니 판결을 내리는 건 문제가 없었다.

“페오페 님! 이 사람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소년은 네피림입니다.”

“네, 네피림?”

페오페는 시로네를 빤히 바라보았다.

정말로 네피림인가?

천사의 후예.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 탄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원천 지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요정은 율법의 조율자가 아니므로 정해진 율법에 한해서만 죄를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네피림에게는 어떤 처벌도 가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페오페는 물러서지 않았다.

요정 72계급, 4만 8천 요정 중에서 막내인 그녀는 매일같이 시달리는 선배 언니들의 언어폭력을 떠올렸다. 여기서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다음 막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놀림거리가 될 터였다.

“그래 봤자 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네피림은 넘어가 주마! 하지만 모두가 네피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단을 들인 죄는 그대로 물을 것이야!”

카냐의 엄마가 고개를 쳐들고 반박했다.

“네피림은 아니지만 네피림의 동료입니다. 그들을 이단으로 모는 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닥쳐라! 신민 따위가 율법의 집행자에게 율법을 논하다니! 나는 라의 의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나에게 대항하는 것은 신에게 대항하는 것과 같다!”

“잠깐 기다려.”

무릎을 꿇고 있던 시로네가 일어서자 페오페는 팔짱을 끼며 그를 돌아보았다.

네피림과 싸우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아무리 네피림이라도 율법의 집행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

“뭐야? 집행을 방해하는 거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착각을 바로잡으려는 거야. 우리는 저 소녀가 데리고 온 게 아니야. 단지 따라왔을 뿐이지. 그렇다면 저 소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거 아닌가?”

“무슨 소리야? 따라오다니?”

“나는 천국 밖에서 우연히 저 소녀를 발견했어. 문을 열기에 따라서 들어온 것뿐이야. 나는 율법에서 자유롭기에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래서 저녁을 먹기 위해 이 집으로 쳐들어온 거야. 따라서 저 두 자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누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그렇다면 증명해 봐. 내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대 보란 말이야.”

천국 내의 메카 시스템은 어떤 작은 변수도 잡아내지만 감정만큼은 읽어 내지 못한다.

시로네 일행이 카냐와 함께 들어온 상황은 수많은 정보들이 검증하지만 그들의 관계까지 파악하는 건 무리였다. 이 모든 게 시로네가 네피림이라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페오페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의 말에 놀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천 년 동안은 놀림거리가 될 테니까.

“좋다. 그렇다면 카냐와 레나의 수명을 20년 복원시킨다. 그리고 네피림의 출입도 허가한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율법을 부정하는 이단임이 분명하므로 수명을 삭감하겠다. 거기 너, 너부터 이름을 말해 봐.”

페오페가 아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물론 아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확한 인과는 모르지만 수명을 부여하는 능력에는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듯했다. 살생부에 버젓이 이름을 적을 만큼 아린은 어리석지 않았다.

“싫은데. 왜 내가 너한테 이름을 말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진짜! 천박한 이단이라 요정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시로네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람의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냐.”

“나는 정이야. 인간의 목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게다가 아직 1년밖에 안 살았거든! 수명이 끝나려면 아주아주 많이 남았단 말씀.”

시로네는 코웃음을 쳤다.

미래는 결국 다가오기에 미래다. 그렇기에 먼저 산 자들을 예우하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면 추모하는 것이다.

페오페는 미래라는 개념이 파괴 불변의 성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한 살이라고 했다. 인간의 한 살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미성숙한지 짐작이 갔다.

페오페가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죄로 너희는 나보다 높은 분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카냐와 레나는 불경한 이단을 숨겨 준 죄로 다시 30년을 추가하여 두 사람 모두 50년의 수명 삭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카냐의 가족은 억장이 무너졌다.

50년이라면, 율법이 집행되는 즉시 카냐는 죽고 만다.

실제로 수명을 집행하는 건 요정 72계급의 최상위였기에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보고가 올라가면 몇 시간 안에 처리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평가해 보던 페오페가 오늘도 힘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듯 몸을 돌렸다.

“이걸로 판결은 끝. 그럼 나는 이만.”

문을 향해 날아가던 페오페의 비행이 멈췄다.

리안과 테스가 문을 막고 있었다. 시로네와 에이미가 양쪽에서 그녀를 포위했다.

“흐음, 힘으로 제압해 보겠다는 거야? 요정인 나를?”

“못 할 것도 없지. 참새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 그럼 어디 해봐.”

페오페가 눈을 부릅떴다.

그러자 대검의 손잡이를 붙잡은 리안의 인상이 구겨졌다. 묘한 힘이 작용해 팔을 뒤틀고 있었다. 상황을 모르는 테스가 리안의 어깨를 붙잡자 그녀 또한 같은 통증을 느꼈다.

“호호! 빨리 안 비키면 부러질걸.”

단일개념체인 요정의 능력은 규정외식과 닮은 구석이 많다. 개념을 확장시켜 마법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페오페는 나선에서 태어났고 그렇기에 비틀림에 관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었다. 스키마 유저에 준하는 완력의 리안으로도 버티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육체가 뇌의 지시를 100퍼센트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몸이 움직여졌다. 대검을 휘두르자 나선의 힘이 깨진 페오페가 휘청거렸다.

테스가 빈틈을 노리고 사브르를 찔렀다.

하늘로 날아올라 회피한 페오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스키마. 거인의 기술이었다.

요정과 거인은 이 세계를 유지하는 양대 축이다. 그렇기에 율법상 동등하지만 각자가 우월하다는 생각은 내심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이든 거인의 기술에 밀리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이것들이 진짜!”

페오페는 잔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리안과 테스의 동선이 겹치면서 움직임의 공백이 발생했다.

그 순간을 노리고 페오페가 문에 나선의 힘을 갈겼다. 철문의 중심부가 시계 방향으로 구겨지더니 경칩이 깨지며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호호호! 바보들! 그럼 안녕!”

밖을 향해 쇄도하던 페오페는 이상함을 느꼈다. 어째서인지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다.

시로네가 정면에서 다가오자 천장으로 날아올랐지만 그조차도 느렸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로네의 손아귀에 붙들린 상태였다.

시로네는 슬로를 해제하고 페오페를 눈앞에 들었다. 붙잡힌 그녀의 표정은 멍한 상태였다.

“어떻게 시간을?”

시간을 조절하는 건 빛의 마법이다. 그런데 방에는 마법으로 증폭시킬 만한 빛이 없었다.

페오페의 머릿속에 원천 지식이 지나갔다. 네피림은 천사의 후예. 그리고 천사는…… 빛의 지배자였다.

‘이런……!’

페오페는 울상을 지었다.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쳐 보지만 시로네의 완력이 더 강했다.

아니, 요정의 완력이 약한 것이었다.

정신력에 특화되어 있는 요정의 근력은 율법 중에 최하위였다.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페오페의 발버둥은 간지럽지도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이를 앙다물고 마법을 시전했다. 나선의 힘이 깃드는 순간 시로네는 손아귀를 움켜쥐었다.

페오페의 눈이 커지면서 배 속에 있던 공기가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하아아악! 그만! 나 배 터지겠어!”

“가족들의 수명을 원래대로 돌려놔.”

눈물을 훌쩍이던 페오페의 얼굴이 싸늘해졌다.

“흥! 협박하려고? 하지만 소용없어. 상부에 보고를 올리는 건 나지만 집행하는 건 내가 아니야. 율법의 집행자를 공격했으니 아무리 네가 네피림이라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빨리 풀어 주는 게 좋을걸.”

“협박? 널 죽일 수도 있어.”

페오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카냐는 죽는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손아귀에 힘을 가하자 페오페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럼에도 집행자의 자존심은 버리지 않았다.

“주, 죽여. 하나도 무섭지 않아.”

페오페를 압박할수록 맥박이 강하게 느껴졌다.

연약한 생명체였다. 장난삼아 바스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섭지 않다고? 그런데 왜 떨고 있지?”

조롱을 당한 페오페는 사납게 눈을 치켜떴다.

“존재의 멸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이다! 그 사실을 알고서도 죽음을 택하는 거야! 너희처럼 덜떨어진 인간과 비교하지 마라!”

“그렇다면 죽어.”

“죽여! 죽이란 말이야!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시로네는 페오페를 쳐들었다. 바닥에 패대기치면 즉사였다.

페오페의 떨림이 더욱 강해졌다. 내장이 터진 작은 시체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불쾌했다.

페오페는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1년을 살고 떠나는 것이다. 요정 72계급의 1인자가 되겠다는 꿈조차 오늘로서 끝나고 말았다.

페오페의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흐르자 시로네는 인상을 찡그렸다.

본질적인 가치마저 지배당하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두려우면서도 죽음을 선택한다고? 어째서?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흥! 너 같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겠지!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의 집행자로서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아!”

“알았어. 삶을 포기했다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을 테니 나도 편하게 네 생명을 빼앗겠어.”

페오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살려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죽일 거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란 말인가? 율법의 집행자가 신민에게 복종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 죽여! 빨리 죽여 버리란 말이야!”

“하지만 살려 달라고 하면 살려 줄 거야.”

## [195] 6. 일화의 술 (4)

시로네의 말을 들은 페오페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그녀를 지배했던 강인한 감정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 나를 조롱하는 거야? 나에게 굴욕을 줘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조롱?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살려 달라고 말하는 사람을 살려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나 또한 살고 싶으니까. 내 생명이 소중하기에 남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있는 거라고.”

시로네는 페오페를 풀어 주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최후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였다.

다만 카냐와 레나를 떠올렸다. 이대로 두 사람을 죽게 만들 수는 없었다.

“셋을 세겠어. 하나.”

페오페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둘.”

“사, 살려 줘.”

페오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듣지 못했는지 시로네는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리고 셋을 외치려는 순간, 눈을 질끈 감은 페오페가 소리쳤다.

“살려 줘! 살려 달라고! 죽고 싶지 않단 말이야!”

시로네는 페오페를 놓아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그녀가 날개를 떨며 날아올랐다. 얼굴이 노을처럼 붉어진 그녀가 씩씩대며 쏘아붙였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날 죽이려고 했잖아!”

“그랬지. 그리고 그게 바로 네가 카냐와 레나에게 한 짓이야.”

페오페는 반박하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율법의 집행자인 그녀는 신민의 수명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막상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기고 보니 복잡한 문제였다.

죽음은 두렵고 삶은 달콤하다. 1만 년을 살아가는 요정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카냐 어머니의 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어머니의 수명도 되돌려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압박해 들어오자 페오페가 짜증을 냈다.

“아까 말했잖아! 수명부를 건드릴 수 있는 건 요정 72계급의 상층부야.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을 되돌릴 수는 없어.”

“그럼 우선 카냐와 레나의 판결부터 다시 해. 그건 할 수 있겠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페오페가 말했다.

“뭐…… 그럼 수명 1년 삭감 정도로 해 줄게.”

시로네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카냐와 레나의 죄가 가벼워진 건 기뻐할 일이지만 판단의 격차가 너무 컸다. 처음부터 기준 따위는 없는 게 아닌가 싶었다.

“무슨 고물 장수도 아니고 그렇게 맘대로 판결해도 되는 거야?”

“이게 줄여 줘도 난리야! 그럼 확 20년으로 올릴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상하지 않아? 죄를 적용할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 내가 율법의 집행자라고! 너 이제 보니 되게 무식하다?”

시로네는 말을 말아 버렸다. 요정이 인간과 어떤 지점에서 갈라진 다른 종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요정의 사고는 인간의 사고보다 포괄적이다. 인간이 사랑을 수없이 많은 개념으로 쪼갤 수 있는 반면 요정에게 사랑은 그저 사랑이었다.

페오페는 율법의 집행자였고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았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니 1년 삭감인 것이다.

2년 3개월이랄지, 7년 6개월 같은 세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었다.

수천 년이 지나면 사고도 깊어지겠지만 현재 그녀의 나이는 고작 한 살이었다.

“이제 됐지? 그럼 나는 갈게. 요정은 업무가 많아서.”

“가긴 어딜 가? 카냐의 어머니도 해결을 해 줘야 할 거 아냐?”

시로네를 돌아본 페로페가 도끼눈을 치켜떴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당시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게다가 내 직위는 요정 72계급의 막내라 수명부를 수정할 권한도 없어.”

“그럼 방법이라도 알려 줘. 요정이니까 뭔가 알고 있을 거 아냐? 말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낼 수 없어.”

페오페는 나선의 정령답게 성질이 삐딱했으나 나이가 어려서인지 다루기 어렵지는 않았다. 그녀에게 정보를 캐낸다면 카냐의 엄마를 구할 방법도 생길 것 같았다.

“흥, 막는다고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그리고 요정계의 일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 이건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율법이 뭔지는 몰라도 너도 불합리한 일이라는 걸 알잖아? 생명은 소중한 거야. 마음대로 남의 수명을 20년이나 삭감해도 된다는 거야?”

페오페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사실은 자신도 모른다. 율법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면 적어도 600년 정도는 살아 봐야 될 듯싶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라니까!”

“언제는 율법의 집행자라며? 자신만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망치는 거야?”

“아우, 정말! 뭘 어떡하라고? 알고 싶은 게 뭔데?”

“우선 일화의 술이 무엇인지 말해 봐.”

“일화의 술? 그건 신성한 술법이야. 신민들의 율법을 정제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페오페는 오랜만에 아는 게 나왔다는 듯 막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녀의 말에서 포장된 정의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구체적으로 말해 보란 말이야.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 거고, 술법의 기재는 뭐고, 이런 것들 말이야.”

“으, 정말 귀찮게…….”

페오페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일화의 술은 그냥 일화의 술이다. 원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되새겨본 적은 없었다.

남은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기억 전이를 떠올린 그녀가 눈을 빛냈다.

“정말로 알고 싶으면 확실하게 설명할 방법이 있어. 정신 공명을 이용하는 거야. 요정은 상대방에게 기억을 전달할 수 있거든. 내가 경험했던 일화의 술에 대한 기억을 보여 줄게. 그럼 되겠지?”

정신 공명은 위험하다. 페오페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아군은 아니었다.

아린이 정신 채널을 통해 말했다.

-괜찮아. 페오페 정도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확실한 거야? 아무리 방어력이 강해도 규정외식이라는 것도 있잖아?

-페오페는 감정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규정외식의 독특한 패턴을 초경으로 읽어 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발동 전에 멘탈 쇼크로 기절시키면 돼.

카니스 일행 또한 규정외식을 경험해 본 듯했다.

확실히 초경이라는 건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며 시로네는 페오페에게 승낙의 의사를 전했다.

“좋아. 일화의 술에 대한 기억을 보여 줘.”

“알았어. 그럼 시작한다.”

페오페는 기억 전이의 술을 시전했다.

시로네 일행의 정신이 기억 속으로 빨려들면서 1년 전 광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거인의 동상이 서 있는 곳이었고, 신민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다.

시로네가 다른 지점에 도착한 친구들을 부르자 마치 영혼처럼 신민들을 투과하며 다가왔다.

타인의 기억이지만 현실처럼 선명했다.

기억체로 존재하는 시로네는 원하는 건 뭐든지 살필 수 있었다. 신민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게 신기했다.

시로네 일행은 동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인파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다.

거인의 동상에 여러 개의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주위에 배치된 8개의 유리구와 이어져 있었다. 유리구는 사람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신민들은 침묵했으나 몇 사람은 울고 있었다. 경건함과 절망감이 뒤섞인 풍경이 불안감을 자아냈다.

케르고인이 동상 주위를 뛰어다니며 술법을 준비시켰다. 무리에서 여덟 명의 신민이 걸어 나왔다. 나이는 50대에서 60대로 비슷했지만 한 명은 젊은 여자였다.

시로네는 그들의 미소에서 울음을 보았다.

흔들리는 동공, 떨리는 입꼬리, 이마에 맺힌 식은땀.

그들은 분명 죽음을 떠올리고 있었다.

대상자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유리구에 들어갔다.

유리구에 검은 물이 차오르자 가족들이 오열하며 달려왔다. 반면에 다른 신민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앙케 라를 외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를 외치며 유리를 두드리는 가족들을 케르고인이 끌어냈다.

차오르는 물속에 잠겨 있는 대상자들이 미소를 지었다.

익사인가?

잔인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유리구의 안쪽을 들여다본 시로네가 기겁하며 물러섰다.

익사가 아니었다. 액체 안에서 그들의 몸이 풀어지고 있었다.

여태까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기괴한 광경이었다.

액체의 성분이 궁금했고, 색이 검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만약 이 과정을 볼 수 있었다면 가족들은 미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유리구의 액체가 호스를 타고 빨려 들었다. 창자에서 배설물이 쏟아지는 듯 듣기 싫은 소리가 났다.

라를 외치는 신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유리구의 수면이 낮아지면서 찌꺼기 하나 없이 투명한 내부가 다시 드러났다.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소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호스로 빠져나가 버렸다.

시로네는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미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거인의 동상.

그곳으로, 동상의 밑바닥으로 여덟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동상에 차오르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영원불멸의 라.

앙케 라를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갑자기 거인의 동상이 강하게 진동했다.

그 시점에서 신민들은 입을 다물었다.

유리구에는 물 한 방울 남지 않았다. 모조리 거인의 동상에 채워진 것이다.

마치 거푸집처럼.

시로네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멈출 수가 없었다.

인간을 녹여서 들이붓는 거푸집. 그렇다면 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

거인의 상이 절단면을 보이며 열렸다.

거대한 발이 밀려 나와 땅을 울렸다.

시로네는 젤리를 뒤집어쓴 거인의 모습을 보고 전율했다. 인간이라 부르기에는 표정이 엇나가 있었다.

정신 채널을 통해 아린이 중얼거렸다. 거인과 정신 감응을 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하나의 육체에 여러 명의 정신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육체에 담겨 있는 정신은 어떤 상태일까?

여덟 명의 정신일까, 아니면 그것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 무엇일까?

신민들이 자비를 구했다.

율법으로 태어나 율법을 지키는 자. 거인.

그렇기에 거인은 율법을 어긴 자를 처단할 권리가 있다.

이 순간 거인의 발에 누군가가 짓밟히더라도 거인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거인과 눈이 마주친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눈의 기술인 프레싱이었다.

아아.

시로네는 전율했다.

스키마의 원류. 태초의 스키마는 일화의 술로 뒤섞인 인체 도식이 겹쳐지는 현상이었다.

거인의 뒤를 따르며 신민의 대화를 엿들었다.

거인은 이대로 천국을 벗어나 연옥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천국을 위협하는 이단을 처단하고 다시 라의 부름을 받아 제5천 마테이로 돌아오게 된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음성에 반응하듯 거인이 움찔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고,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성문 밖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

페오페의 기억 속 풍경이 불붙은 종이처럼 타들어 가면서 집의 풍경이 되살아났다.

시로네 일행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페오페는 보이지 않았다. 기억이 재생되는 동안 도망쳐 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일화의 술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들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일화의 술 대상자는 액체 속에서 분해된다. 그리고 거푸집에 들어가 특별한 변성 과정을 거친 후 거인으로 재탄생한다. 사람들의 정신은 뒤섞이고, 그 과정에서 스키마가 발생한다.

카냐가 구입한 각성제는 그런 의미였다.

미지의 암흑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식을 차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었다.

가드락의 말이 맞았다. 고통에 죽어 가는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해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럴 수가…….”

테스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거인의 능력 스키마. 그리고 자신의 능력 스키마.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구석으로 달려가 토악질을 했다. 조금 전 먹은 음식이 쏟아졌다.

테스를 핀잔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메스꺼웠다.

리안이 다가오자 테스가 손을 들어 말렸다.

물론 페오페의 기억이 전장의 풍경보다 역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정신적인 구토가 밀려들었다.

스키마는 거인의 기술이다. 그런데 자신은 어째서 스키마를 열 수 있을까? 네피림처럼 거인의 핏줄이 따로 있는 것일까? 하지만 거인에게 생식기는 없었다.

“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알겠지?”

카냐가 슬픈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축복이라 하고, 누군가는 저주라 한다.

신민과 이단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율법에 따르면 인간은 거인에게서 태어났어. 그렇기에 다시 거인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일화의 술이야.”

카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시로네가 목격한 일화의 술은 어떤 화장으로도 본모습을 감출 수 없는 괴물이었다.

결국 깨닫고야 말았다.

천국에서 자행되는 일화의 술은, 사람의 살과 내장을 원료로 하여 거인을 찍어 내는 술법이었다.

(8권 끝)

=======================================

# Volume 9

=======================================

## [196] 1. 신의 자비 (1)

일화의 술.

인간을 녹여 거인을 만드는 술법.

다수의 개체를 하나로 합친다는 생각에 생물의 존엄성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생물은 자손을 퍼트린다. 하지만 천국의 사술은 그런 생물의 구조를 역행하고 있었다.

수명부로 신민의 수명을 조절하고 개체가 늘어나면 거인으로 통합하여 인구수를 유지한다.

그것이 라의 의지라면 일화의 술은 천국을 유지하는 핵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시로네 일행은 테이블에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천국의 잔인한 생각을 접했기에 긴장감은 한층 높아져 있었다.

우선은 페오페의 처우였다.

기억 전이 중에 자리를 빠져나간 그녀가 상부에 보고를 올린다면 카냐의 집도 안전하지 않았다.

“당장 떠나야 해. 페오페는 더 많은 병력을 끌고 올 거야.”

카니스는 움직여야 한다는 쪽이었다.

페오페의 실력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한 살에 불과하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다른 요정들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을지 모르는 이상 전투는 피하는 게 좋았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시로네는 네피림이잖아. 율법에 의하면 네피림은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요정이 시로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야.”

신민인 카냐는 철석같이 율법을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은 네피림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 천국의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관여했을 때의 반발도 심했다.

“시로네, 네가 결정해. 우리는 네 뜻에 따를 거야.”

에이미는 시로네에게 선택권을 넘겼다. 천국의 입장에서 이단은 이물질 같은 존재였다. 그나마 무언가를 해 보려면 시로네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 페오페가 우리를 밀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럴 이유도 없고. 게다가 메타게이트가 있으니 최악의 사태에서는 도망치면 돼.”

시로네는 페오페를 믿었다. 성격은 괴팍했지만 카냐와 레나의 수명 삭감을 1년으로 줄였다.

자기비판이 가능할 만큼 지성이 높은 그녀가 감정에 치우쳐 일을 키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카냐가 걱정스러웠다. 이제 내일이면 카냐의 어머니가 일화의 술을 받게 된다.

평생 동안 나라는 존재만을 탐닉하는 인간에게 다른 인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공포였다.

“네가 일화의 술을 말하기 꺼렸던 이유를 알겠어. 하지만 카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확인한 일화의 술은…….”

“알아, 불합리하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고.”

카냐는 순순히 인정했다.

조금 전만해도 일화의 술을 성스러운 술법이라고 표현한 그녀치고는 과격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믿음과 감정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라고 바보는 아니야.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신을 믿지 않으면 죽어. 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 선택권은 없어.”

카냐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 천국에 사망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었다.

“이곳에 머물 거라면 쉴 곳을 마련해 줄게. 이쪽으로 와.”

배전판의 버튼을 누르자 건물의 측방이 열리면서 새로운 구조물이 날아와 카냐의 집과 연결되었다.

시로네 일행이 놀란 듯 쳐다보자 대부분의 가정이 여러 개의 칸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후후, 메카족은 손님을 초대하는 걸 좋아하거든.”

카냐의 미소가 시로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

그날 밤. 카냐와 레나는 같은 침대에 누웠다.

마치 달리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매는 울지 않았다. 누가 먼저 울어 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하염없이 뒤척이던 그때 레나가 돌아누웠다.

“언니, 내일이면 엄마는 없는 거지?”

카냐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게 된 동생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데 레나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시로네 오빠라면…… 언니에게 양보해도 좋아.”

카냐의 미간이 살며시 좁혀졌다. 황당한 표정에는 정곡을 찔린 마음도 조금은 감추어져 있었다.

“무슨 소리야? 시로네는 네피림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삶을 공유하겠어?”

“하지만 언니는 절대로 이단하고는 사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시로네 오빠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반드시 잡아.”

카냐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애써 참아 냈다. 동생의 심정이 구구절절하게 전해져왔다.

내일이면 엄마는 집에 없다. 레나는 공허함을 새로운 가족으로 채우고 싶어 하고 있었다.

“후후, 하지만 너도 시로네를 좋아하잖아. 시로네가 형부가 되면 네 성격에 못 견딜걸. 날마다 나를 질투할 테니까.”

“아냐! 진심이야! 언니라면 양보할 수 있어!”

카냐는 웃었다. 어차피 시로네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카냐도 알고 레나도 알고 있었다.

야심한 밤에 오가는 소녀들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레나가 비 맞은 고양이처럼 파고들자 카냐는 동생을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춰 주었다.

“걱정하지 마, 레나.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레나의 눈이 스르륵 감겼다.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

시로네 일행은 카냐가 제공해 준 방에서 휴식을 취했다.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시로네는 물론이고 친구들도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한동안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테스가 우는 시늉을 하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 솔직히 여기, 너무 힘들다, 진짜.”

다른 사람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대체 12시간 동안 몇 차례의 전투를 치른 것인가?

게다가 상대하는 적들마다 하나같이 원래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었다.

피로도 그렇지만 아무리 파헤쳐도 끝이 없는 천국의 비밀도 문제였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접한 탓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카니스가 말했다.

“그럴 수는 없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랑 아린은 반드시 제7천 아라보트에 가야 해.”

고작 샤마인이나 관광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터였다.

천국에 온 이상 메타게이트를 회수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그들이 티켓 값으로 지불한 것은 무려 고대 무구인 셈이었다.

에이미가 베개를 끌어안고 돌아누웠다.

“하지만 아라보트는 신이 사는 곳이잖아? 천국에서도 가장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일 거야. 도대체 무슨 수로 거기에 간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가는 게 두려우면 차라리 여기서 기다리든지.”

“어쭈?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데? 그냥 확 우리 먼저 돌아가 버린다?”

“그건 더더욱 안 되지. 여기서 메타게이트를 발동하면 기억이 초기화되니까. 기억은 1회용이야. 우리가 남더라도 돌아갈 방법이 없어지잖아.”

에이미가 베개로 바닥을 퍽 때리며 일어나 앉았다.

“어라? 진짜 그런 거였네? 결국 우리가 돌아가려면 너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잖아?”

“그래. 여태까지 그것도 몰랐냐, 이 호박아?”

“뭐, 호박?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생간 호박 봤어?”

“봤지. 지금 네 목에 붙어 있는 게 그거 같은데.”

에이미는 이를 갈았다. 칭찬인지 악담인지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카니스가 입을 봉해버린 것만은 사실이었다.

시로네가 베개를 껴안으며 자리에 앉았다.

“나도 아직 돌아갈 생각은 없어. 하지만 카니스, 메타게이트를 사용할 시기는 합리적이어야 해. 생존 이외의 것이 머리에 남아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게 되니까.”

“흥,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아린에게 맡겨 두면 돼. 정말로 위험해진다면 천국이고 뭐고 무조건 돌아갈 거니까.”

“그런데 말이야…….”

테스가 머리를 받치고 옆으로 돌아누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몸의 굴곡이 압도적이었다.

‘어른…… 어른이다.’

‘테스, 어른이구나.’

아이들의 시선이 한곳에 집중되었지만 테스는 익숙하다는 듯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명을 조절하는 거야? 정말로 신이라는 게 존재해서 사람의 수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아이들은 생각에 잠겼다.

“난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르샤 누나랑 대결할 때도 같은 느낌이었는데, 마법은 불가능한 게 없는 것 같아.”

분명 클레이 마르샤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함께 싸웠던 에이미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흐음, 규정외식 말이지. 수명을 줄이는 건 대가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영생은 어떡할 건데? 어떤 마법도 수명을 늘릴 수는 없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니까.”

“그런가? 나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으음.”

아린이 말했다.

“왜 다들 비판적으로만 생각해? 어쩌면 라가 정말로 신일 수도 있잖아.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신에 근접한 존재는 아닐까?”

“그것도 좀 이상해. 정말로 신이라면 수명을 조절하는 데 어째서 이름이 필요하지?”

에이미의 말대로 이름이란 인간이 부여하는 호칭일 뿐이다. 인간이 다루는 언어에 의존하는 존재가 신격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았다.

시로네가 말했다.

“게다가 일화의 술,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떤 이유에서건 인간의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잖아. 라는 단순히 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명을 조절하는 것일 수도 있어. 신이 세상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

친구들은 시로네가 천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악은 인간의 개념이고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다. 가치판단을 내리는 건 최후까지 신중해야 하는 일이었다.

테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 그들이 선택한 삶이고 그들의 문화야. 특히나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권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관념이라고.”

“아니, 종교가 아니야. 우리도 방금 말했잖아, 라는 신이 아니라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신이 아니라 독재자라고 해도 상관없어. 라는 어쨌거나 수명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종교에서 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지?”

시로네는 할 말이 더 있는 듯했지만 결국 말을 삼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에이미는 시로네가 여전히 카냐의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 시로네가 좋았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다.

“어떡하려고, 시로네? 내일이면 일화의 술이 진행돼. 테스의 말대로 신민이 선택한 일이야. 단순히 우리의 기준에서 불합리하다고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미로는 율법을 부정했다고 그랬어.”

“시로네, 그건…….”

“알아. 그녀의 생각에 묻어가려는 게 아냐. 내가 받은 느낌도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야. 이제는 어느 정도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로네는 노르의 쉼터에서 들은 미로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미로가 율법을 부정했음에도 노인의 어머니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이 라에게 복종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로는 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낀 것일까?

확실한 것은 내일이 되면 시로네 또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미로는……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

제1천 샤마인.

신민관리 요정부 제73지부.

페오페가 근무하는 요정 부서는 샤마인 중에서도 연옥과 맞닿은 외곽에 터를 잡고 있었다. 세계수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에 수백 채의 집들이 지어져 있고 그 사이를 작은 요정들이 종달새처럼 날아다녔다.

페오페는 세계수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요정부장의 거처는 인간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런만큼 아기자기하고 화려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요정부장 이기린이 날개를 접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짙은 눈 화장을 했고, 뺨에는 황금빛 넝쿨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권위에서 태어난 요정이기도 했지만 나이만 따져도 페오페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어른이었다. 특히나 아름다운 외모는 다른 요정들에게도 경탄을 자아냈다.

## [197] 1. 신의 자비 (2)

“부장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나선의 요정 페오페로구나.”

“네. 기억해 주시는군요.”

“그야 당연하지. 1년 전에 네가 탄생한 이후로 어떤 요정도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페오페는 시무룩해졌다. 요정 72계급의 막내. 이기린이 자신을 기억해 주는 이유는 고작 그 정도였다.

요정은 여성형이라 번식이 불가능하다. 종족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개체가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페오페는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태어난 요정이었다.

“탈주자 건은 어떻게 됐지? 카냐와 레나라고 했던가?”

“네. 자백은 들었고 순순히 조사해 응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두 사람 모두 1년 삭감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이기린이 마뜩하지 않다는 표정을 짓자 페오페는 침을 꼴깍 삼켰다. 자신이 내린 판결에 의심은 없다. 하지만 초심자로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는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아직 어리다고는 하나 너 또한 율법의 집행자. 뜻을 존중해야겠지. 하지만 이건 묻고 싶구나. 외압은 없었던 것이냐?”

“네. 저의 뜻입니다.”

시로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기는 했지만 외압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과도한 형량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1년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기린은 의심의 눈초리로 페오페를 바라보았다.

여태까지 연옥 탈출에 수명 1년 삭감의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요정치고는 판결이 신선했다.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느냐? 신민의 뒤를 따라 이단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페오페는 갈등했다. 엄밀히 따졌을 때 카냐와 동행한 자들은 이단이 아닌 네피림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으면 사실과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페오페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이단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기린은 다음 말을 기다렸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페오페에게서는 어떠한 첨언도 없었다.

한숨을 내쉰 이기린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래, 수고했구나. 나가 보아라.”

“네. 편히 쉬세요, 부장님.”

페오페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자택의 문이 닫히자 이기린은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측근인 진실의 요정 메르에게 물었다.

“어떻게 되었지?”

“페오페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전부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직은 많이 배워야 할 시기인데, 어릴 때부터 주관이 강해지는 게 걱정스럽구나.”

이기린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신민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온 인간들에 대해 알아 오거라. 메카 사령부에 가면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메르는 천장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기린은 다리를 꼬고 미간을 주물렀다.

73번 구역은 조용하기로 유명한 사고 청정 지역이었다. 그런 곳에 이단도 신민도 아닌 인간이 들어왔다.

3천 년을 살아온 그녀의 직감이 1명의 이단을 떠올리게 했다.

“아드리아스 미로…….”

@

“후우, 떨려서 죽는 줄 알았네.”

페오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1년이나 살았으니 적응이 될 법도 하건만, 이기린을 만날 때마다 몸이 굳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특히나 오늘처럼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압박감이 더욱 심했다.

“하아, 율법의 집행자도 힘들다니까.”

“깔깔깔! 신민 상대하는 게 뭐가 힘들어? 다 네가 못나서 그렇지.”

뒤편에서 들리는 소리에 페오페는 인상을 썼다. 고개를 돌리자 여지없이 요정 세 자매가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있었다.

페오페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들이 막내였다고 한다. 개념에서 태어나는 요정에게 혈족은 없지만, 태어난 시기가 비슷해서 세 자매로 불리는 요정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페오페는 억지로 눈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요정 세 자매의 인상이 더욱 사나워졌다.

처음부터 저들의 얼굴이 저랬던 것은 아니다.

정에서 태어나는 요정들은 마음의 변화가 쉽게 얼굴에 드러난다.

어떤 요정이라도 막내 생활을 10년 정도 거치다 보면 저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얘기는 들었어. 1년 판결을 내렸다며? 인간에게 휘둘린 거지? 안 봐도 다 알아.”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머, 그러니? 그럼 참으로 어리석은 판결이네. 이제 너는 공식적으로 호구가 된 거야. 앞으로 신민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걸!”

요정 세 자매가 입을 가리며 까르르 웃었다.

페오페는 화가 났으나 내색할 수는 없었다. 직속 선배에게 찍히면 평생을 시달리게 된다. 그 평생이란 최소 1만 년이었다.

버티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다음 막내가 태어나면 그녀들도 자신을 내버려 둘 터였다.

“아무튼 제대로 하란 말이야. 예전에는 너 같은 애는 집행자로 시켜 주지도 않았어. 요즘은 정이 잘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나마 봐주는 거야. 신민을 더 쥐어짜 내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기는 뭘 해?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네가 뭘 안다고 말대꾸야?”

페오페는 입을 다물었다.

자기들도 이제 갓 10년을 넘겼으면서 훈수를 두는 게 가관이었지만 철저한 계급사회인 요정계에서 한 살짜리가 목소리를 낼 방법은 없었다.

“알겠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신민들이 따른다고. 다음부터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요정 세 자매가 으름장을 놓고 떠나가자 페오페는 10년은 늙은 기분이었다.

그래서인지 지금이라면 저들하고 한판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후우, 피곤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사지를 늘어뜨린 페오페의 비행이 휘청거렸다.

@

다음 날 아침.

일화의 술을 기다리고 있는 샤마인 73구역의 중앙 광장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메카족은 장치를 점검하고 노르족은 술법에 접목되는 마법들을 확인했다.

케르고인이 대상자들을 이끌고 리허설을 시작하자 시로네는 미어지는 가슴을 붙잡았다.

사람이 죽는 행사에 리허설이라니. 대체 천국의 신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것일까?

준비가 끝나자 대상자들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그중에는 카냐와 레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엄마! 엄마!”

레나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용맹한 카냐조차 지금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가련한 딸일 뿐이었다.

술법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카냐는 품에서 에피네스와 코르핀을 꺼냈다.

“이거 마셔. 도움이 될 거야.”

시로네는 카냐가 건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일화의 술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에 생각하자 더욱 마음이 무지근해졌다.

각성제와 신경안정제 따위가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아니, 사실은 모르겠다. 뇌까지 녹아서 거인이 되는 마당에 그들의 정신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알 턱이 없었다.

어쩌면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이 구해다 준 약보다 용기가 되는 건 없을 테니까.

술법을 시작할 준비가 끝나자 신민들이 동상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퍼졌다.

페오페의 기억에서 봤던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으나 다른 점이라면 대상자가 10명이라는 것이었다.

카냐에게 듣기로 일화의 술을 집행하는 자는 구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수명을 계속 부여받았다는 뜻이니 신민 중에서 가장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집행자는 케르고인이었다.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나이는 백여든일곱 살이라고 했다.

케르고족에서도 귀족계급에 속하며 조만간 영생을 얻어 제3천 셰하킴으로 갈 예정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지금부터 일화의 술을 시행한다! 대상자들은 나오도록!”

10명의 대상자가 유리구슬로 다가갔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이상한 약물에 녹아서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찝찝하고 두려운 죽음이었다.

“엄마! 엄마!”

카냐가 달려 나가려는 순간 아버지가 붙잡았다.

분명 딸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모두가 비슷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대상자는 가족을 위해 미소를 짓고, 가족은 대상자를 위해 슬픔을 감춘다.

시로네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화의 술이 신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술을 인정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대상자들이 옷을 벗고 유리구슬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차디찬 유리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시로네는 울분이 치솟았다.

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신에게 어떤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살인이야. 용납할 수 없어.”

시로네는 마침내 내뱉고야 말았다. 어젯밤부터 수없이 고민한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일화의 술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살인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시로네는 동상으로 걸어갔다. 대상자들이 죽기 전에 술법을 중지시킬 생각이었다.

테스가 시로네의 손목을 붙잡았다.

“시로네, 기다려. 나도 화가 나. 하지만 여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인간의 생각일 뿐이야. 카냐의 어머니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일화의 술을 말린다고 해도 카냐 어머니의 수명은 오늘까지야. 애써 구해 봤자 우리만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 어쩌면 카냐의 어머니는 오늘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화의 술이 신민의 의심 속에서도 행해지는 이유는 라가 수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오늘 죽는다는 사실이 율법을 따르게 만든다.

하지만 시로네는 율법이 틀렸다고 말했다. 정말로 일화의 술에 오류가 있다면 신민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사기다. 그렇다면 상황을 바꿀 여지가 충분했다.

“생명의 연료를 주입하라! 일화의 술을 시작하겠다.”

집행자가 소리치자 케르고인이 분주해졌다. 일단 물이 차오르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육체가 분해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익사가 먼저였다.

케르고인이 장치에 다가가는 순간 시로네가 소리쳤다.

“기다려! 일화의 술은 용납할 수 없어!”

신민들의 시선이 시로네에게 집중되었다.

공터에 홀로 서 있는 그를 발견하는 건 쉬웠다. 하지만 언어를 모르기에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시로네는 아린을 돌아보았다. 통역을 해달라는 뜻이었다. 할 수 없이 아린이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다.

시로네가 신중한 성격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그녀가 잘 알고 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아린은 스피릿 존을 확장시켰다. 정신 계열의 마법사는 촉수형에 특화되어 있지만 대중을 상대할 때는 이렇듯 존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시로네는 조금 전의 말을 되풀이했다.

신민들의 머릿속으로 언어가 침투했다. 요정과 같은 능력이었기에 놀라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말에 담긴 의미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신민들의 눈빛에 적개심이 담겼다. 라를 숭배하는 행사를 악으로 간주한 것은 명백한 이단의 논리였다.

집행자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네가 어떤 자격을 지녔기에 술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지? 너는 신민이 아닌가? 부활의 기회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인가?”

“나는 네피림이다.”

장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원래의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모탈 펑션은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73번 구역에서 네피림이 모습을 드러낸 일은 최소한 저들의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집행자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여태까지 라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187세라는 나이는 그에게 훈장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런 훈장도 네피림의 앞에서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었다.

네피림은 천사의 후예.

비록 율법에 관여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태생부터 신민과 다른 존재였다.

“네피림이…… 어째서 일화의 술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이것은 신이 정한 율법이다.”

## [198] 1. 신의 자비 (3)

“율법? 혹시 너희의 율법에 살인죄도 있나?”

“물론이다. 신민은 절대로 신민을 해할 수 없다. 만약 살인을 저지른다면 내정부의 판결에 따라 중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지? 율법에는 살인죄가 있는데도 일화의 술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군. 정말로 네피림인가? 마치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네피림이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내 수명을 모르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저들을 봐. 살아 있지만 살아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너희가 말하는 살인과 뭐가 다르지?”

신민에게서 비난이나 동조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다.

신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느꼈을 모순이다.

일화의 술은 분명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수십만 년에 달하는 관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태까지 일화의 술로 거인이 된 사람은 셀 수가 없다. 누구나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이 신민의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다.

“라의 율법을 부정하는 자여, 우리는 거인에게서 태어났다. 일화의 술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살리게 해 주는 신의 안배이다. 너라는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을 원하는가? 신민들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나오라. 내가 직접 그리해 달라고 고하겠노라.”

나서는 자는 없었다. 신민들이 오래 전부터 전승한 사실에 의하면 일화의 술로 만들어진 거인은 연옥을 여행하고 되돌아와 다시 각각의 개체로 분해된다.

죽는 것보다는 영원히 사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한다면 다시 돌아올 여지라도 남기고 싶다.

그것이 생명이다.

라는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지배하고 있었다.

신민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만족한 집행자가 시로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너는 이단이다! 아니, 네피림이라고 할지언정 율법에 관여할 자격은 없을 터! 모두 저자를 체포하라! 라의 신성함을 모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시로네, 일이 복잡해졌어! 지금 피해야 돼.”

에이미가 시로네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지켰다.

“아니, 가지 않을 거야. 카냐의 어머니를, 그녀를 구해야 돼.”

전방에서 10여 명의 케르고인이 칼을 빼 들고 달려왔다. 거인의 기술을 사용하는 그들의 속도는 치타처럼 빨랐다.

시로네는 그들의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선두의 케르고인이 검을 쳐들었다. 후발대도 시로네를 포위하며 칼을 휘둘렀다.

그 시점에 시로네의 광폭이 폭발했다.

빛의 장막이 케르고인들을 강타했다. 광자에 담긴 질량은 미소하기에 처음에는 얼얼할 뿐이었으나 초당 20회의 속도로 후려치자 몸이 찢어질 것 같은 반탄력이 전해졌다.

시로네를 포위하던 케르고인이 모조리 튕겨 나갔다.

엉덩이를 끌며 땅바닥에 길게 미끄러진 그들은 하나같이 경악의 눈빛으로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네, 네피림? 진짜로 네피림이었단 말인가?”

빛의 마법은 심리적인 면에서 효과가 컸다. 오직 천사만이 구현할 수 있는 현상이었고 시로네가 네피림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마법이었다.

여세를 몰아 시로네는 포톤 캐논을 집중시켰다.

위기감을 느낀 집행자가 청동상을 가로막는 순간 시로네에게서 섬광이 튀어나왔다.

집행자는 동물적인 반응속도로 몸을 뒤틀었다. 섬광이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내장이 짓눌리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고통은 나중의 문제였다.

포톤 캐논이 거인의 동상을 강타하자 종을 때린 듯 웅장한 울림이 퍼졌다.

장내를 진동하는 음파에 신민들이 귀를 막으며 물러섰다.

시끄럽게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었으나 귓가에 남은 이명이 말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그럼에도 거인의 동상은 멀쩡했다.

포톤 캐논의 위력은 철문조차 찌그러뜨릴 정도지만 동상에는 구겨진 흔적조차 없었다.

신민들의 눈에 환희가 차올랐다.

“오오! 앙케 라! 저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영생을, 영생을!”

사태가 심각해지자 에이미가 앞으로 나섰다. 어떻게든 시로네를 데려와 이 자리를 빠져나가야 했다.

그 순간 리안이 어깨를 붙잡고 돌려세웠다.

“기다려. 아직 시로네는 끝나지 않았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저들과 싸워야 한다고.”

“그렇다면 싸우면 되잖아?”

에이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여태까지 나누었던 우정과는 상관없다. 지금의 리안은 오직 시로네의 기사였다.

“왜 그러는데, 리안?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야?”

“있어. 너희들 지금 이상해. 시로네를 말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당연히 도망쳐야지. 천국에서 적이 되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카냐의 어머니는?”

에이미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누군가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시로네는 카냐의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 적이었던 마르샤 누나에게 그랬듯이, 마법학교 학생들을 위해 그랬듯이. 그런데 어째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설마 너. 우리가 살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

리안의 분석이 정확했다. 다른 규칙과 법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들이 선택한 죽음까지 떠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에이미, 이곳이 천국이든 어디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시로네는 카냐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어. 그렇기에 나는 시로네와 함께 싸울 거다.”

에이미는 광장을 돌아보았다. 시로네의 주위로 시그나와 엑스드로 무장한 메카인과 고대 마법을 다루는 노르인이 둘러싸고 있었다.

인간의 정신이란 하찮은 것이 아니다. 설령 이곳이 천국이라고 해서 생명의 진리가 달라질 수는 없었다.

에이미의 얼굴에서 갈등의 기색이 사라졌다.

“나도 시로네를 믿어. 가자, 리안.”

에이미가 몸을 날리자 친구들이 곧바로 뒤를 따랐다.

신민들이 시로네를 에워싸고 있는 곳에 빛이 번쩍하더니 십여 명의 사람들이 바깥으로 흩어졌다. 광폭을 시전한 시로네가 모습을 드러내자 에이미가 등을 기대며 물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어. 시그나와 엑스드는 원거리에 약하고 고대 마법은 바람 계열이 대부분인 거 같아. 그것도 약해. 클로브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천국의 입장에서 연옥은 지옥이었다.

클로브의 실력이 아무리 허접해도 험난한 연옥을 누비는 마법사였으니 이곳의 자들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시로네 일행은 각자의 위치에서 신민의 공격을 받아 냈다.

문제는 반격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신민을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여지가 있었다.

“쳇! 귀찮게 하네.”

카니스가 바닥에 손을 짚으며 섀도 월을 시전했다.

성벽처럼 솟구친 그림자의 표면에서 날카로운 가시들이 튀어나왔다.

메카족이 엑스드를 앞세워 막아섰으나 그들도 딱히 공격할 방법이 없었다.

-시로네,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어.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시로네의 생각이 복잡해졌다. 사실 싸우지 않고 전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했다.

조명 마법 샤이닝이었다.

순간적으로 강렬한 빛을 쏘여 적들의 시야를 봉쇄한다면 전투의 분위기는 급격히 식는다.

‘하지만 샤이닝만으로 가능할까?’

지금이 대낮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빛의 세기를 아무리 키워 봤자 태양광을 이길 수는 없었다.

태양보다 강한 빛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빛의 진동하는 성질 때문이었다.

단일 면적에 들어있는 광자의 숫자를 최대한 늘려야하는데 진동하는 빛은 압축에 한계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세기를 높일 수 있지?’

그 순간 시로네의 눈빛이 번뜩였다.

빛의 진동을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태양보다 강한 빛을 내는 건 가능할지도 모른다.

-눈을 감아! 샤이닝을 시전할 거야!

시로네는 동작을 멈추고 스피릿 존으로 들어갔다. 빛의 입자들이 빠르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눈을 감았으나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카니스는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뭐야, 저거? 빛이 왜 저래?’

시로네에게 모여드는 빛은 기존의 샤이닝보다 훨씬 흐릿했다. 빛이 약하다는 건 발광성을 줄였다는 얘기. 결국 어떤 식으로든 진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편광 방향을 통일시켰어.’

어떤 입자는 수직으로 진동하고 어떤 입자는 수평으로 진동한다. 시로네는 광자에 중력을 가해 빛의 진동 방향을 통일시킨 것이었다.

결과는 경이로웠다.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개수의 광자가 한 점에 모여들고 있었다. 보통의 광자보다 안정화되어 있기에 빛의 색감도 회색에 가까웠다. 샤이닝이 백광을 내기 시작했을 때는 정상치보다 수십 배의 밀도를 자랑했다.

-지금 시전한다!

시로네는 눈을 질끈 감으며 광자의 통제를 풀어 버렸다. 빛의 입자가 고비 풀린 망아지처럼 사방으로 발산했다.

세상을 집어삼키는 백광의 밝기는 무려 30만 루멘에 달했다. 한낮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보다 두 배 이상 강렬한 세기였다.

시로네는 보지 않고도 마법이 성공했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빛이 강렬한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렴풋이 음영을 구별할 수 있었다.

‘됐다! 진짜로 됐어!’

신의 입자는 시로네가 구사하는 마법의 핵심 원리였다.

질량의 포톤 캐논, 에너지의 레이저. 그리고 이번에는 광자를 압축시켜 섬광 폭발을 일으키는 샤이닝 임팩트였다.

자연광의 세기를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생물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살상 마법이었다.

빛이 사라진 뒤에도 신민들은 눈을 감고 있었다. 혹시라도 공격을 당할까 봐 상체를 젖히고 있었고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태였다.

침묵이 흘렀다.

시로네 일행이 먼저 눈을 뜨고, 이어서 신민들도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네, 네피림. 네피림이시여.”

누군가가 중얼거리자 메카족이 하나둘씩 무기를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샤이닝 임팩트는 전투를 막은 것 이상의 효과였다.

빛의 정령과 계약을 하더라도 태양보다 강한 빛을 만들어 내는 건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빛의 힘을 다루는 천사일 것이다.

테스가 턱 밑으로 흐르는 땀을 닦았다.

“후아. 시로네, 이건 무슨 마법이야? 실명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농담처럼 건넨 말이지만 진심이었다. 태어나서 이토록 강렬한 빛은 쬐어 본 적이 없었다.

리안이 대검을 칼집에 넣으며 다가왔다.

“어쨌거나 적들을 무력화시켰으니 됐어. 이제 일화의 술을 중지하면 되는 건가?”

“쉽지 않을 거야. 다른 신민들과 다르게 케르고인은 흔들리지 않고 있어.”

에이미의 말대로 집행자를 위시한 술법 관계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시로네를 노려보고 있었다.

물론 그들도 샤이닝 임팩트의 위력에 주눅이 든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네피림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신적인 타격은 받을 이유가 없었다.

오직 라를 추종하는 그들에게 하위의 율법은 두렵지 않았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네피림이여? 너는 신성한 라의 율법을 어지럽힌 것이다. 내정부에서 움직이면 너의 수명도 오늘로서 끝이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 봐. 나조차도 모르는 내 수명을 너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

집행자의 콧잔등이 일그러졌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목을 베고 싶지만, 솔직히 싸울 생각은 들지 않았다.

평생을 몸 바쳐서 얻은 187년이다. 이제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다.

시로네의 손바닥에 붉은 기운이 어렸다.

신민들이 겁을 먹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다. 포톤 캐논으로 어설프게 화를 부추기기보다는 레이저로 확실히 박살을 내는 전략이었다.

적빛의 광선이 동상으로 뻗어 나가자 신민들이 기겁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더 이상 달려드는 사람은 없었다. 시로네가 네피림이라면 신민의 선에서 어찌할 존재가 아니었다.

## [199] 1. 신의 자비 (4)

레이저에 맞은 자리가 달아오르면서 금방이라도 터져 나갈 듯 동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집행자는 이를 갈았다. 시로네에게 덤빌 수도, 동상의 파괴를 막을 수도 없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소리가 들렸다.

푸른 전광이 다발로 떨어지며 시로네의 주위를 뜨겁게 가열시켰다.

바닥이 폭발하면서 흙먼지가 일었다.

집행자는 벼락이 날아온 곳을 확인했다. 광장의 입구에서 한 무리의 요정들이 날아오고 있었다.

시로네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도 무리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요정을 한 눈에 발견했다.

그녀만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화장을 한 얼굴 또한 아름다웠다.

신민관리부의 부장, 이기린이었다.

시로네의 주위로 친구들이 포진했다. 신민들과 싸울 때에는 느낄 수 없었던 긴장감이 피를 빠르게 돌렸다.

의아한 점은 선제공격이 전기였다는 것이다.

전기는 정령에 가까운 속성이기에 요정이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누가 벼락을 친 거지?

-아직은 알 수 없어. 하지만 무리 중에 마찰력을 다루는 요정이 있을 거야.

대기 중의 전하를 마찰시킨다면 벼락을 일으키는 게 가능하다. 전하의 배치에 따라 전기가 흐르니 정확도가 떨어진 것도 당연했다.

리안이 대검을 뽑으며 걸어나갔다.

“요정 부대 총출동인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시로네 또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천국의 율법을 어겼으니 내정관이 출동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었다.

신민들이 좌우로 물러서며 이기린에게 길을 열어 주었다.

보무도 당당하게 날아온 요정들이 시로네 일행과 10미터의 거리를 두고 대치했다.

시로네는 요정 무리의 말단에 서 있는 페오페를 보았다.

다른 요정과 달리 그녀는 맹한 눈으로 전방을 얼보고 있었다. 어째서 여기에 있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이기린이 시로네 일행을 가리켰다.

“너희로구나, 네피림을 사칭하여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그것만으로도 중죄이거늘, 이제는 성스러운 일화의 술까지 방해하려 하느냐?”

집행자의 표정이 의아하게 변했다. 네피림이 아니라 네피림을 사칭했다는 말인가?

하지만 조금 전에 소년이 시전한 능력은 분명 천사의 것이었다. 네피림이 아니라면 어떻게 빛을 다룬단 말인가?

“이기린 님, 이들이 이단이란 말씀이십니까? 저자는 분명 빛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현혹되지 마라. 땅의 나라에는 빛의 마법을 다루는 기술이 있다. 게다가 다른 자들은 검증할 필요조차 없는 이단. 그런 식으로 요정까지 속이려 한 것이다.”

카니스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말을 들어 보니 자신들에 대해 자세히도 조사했다. 게다가 전투력이 떨어지는 페오페가 함께 와 있다는 건 그녀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방증이었다.

“젠장, 그러게 내가 떠나야 한다고 했잖아. 저 요정이 배신한 거야.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었다고.”

페오페가 미간을 구겼다.

배신? 자신은 이기린의 명을 받고 정신없이 따라왔을 뿐이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저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

“흥! 그래! 내가 다 일러바쳤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러게 적당히 설쳤어야지!”

어차피 인간에게 결백을 주장할 생각 따위는 없었다. 페오페가 오히려 없는 죄를 자처하며 더욱 약을 올렸다.

“배신하지 않았어.”

시로네가 말했다.

“페오페는 옳은 판결을 내렸어. 그런 요정이 이제 와 자신의 신념을 훼손시킬 이유가 없잖아.”

페오페는 흥 하고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 그런 말을 해 봤자 마음 상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많아졌다.

옳은 판결. 신념.

여태까지 선배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가치들이었다.

이기린은 신경 쓰지 않았다. 3천 년 이상을 살면 인간보다 세밀하게 개념을 쪼갤 수 있다.

인간이 사랑을 백 가지 정도로 나열한다면, 그녀는 아마 1만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사건은 독립적이 된다.

남의 집을 훔쳐본다고 해서 도둑은 아니다.

그 집의 자물쇠를 부숴도 도둑은 아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도 도둑은 아닐 수 있다. 심지어 거기서 어떤 물건을 집어도 도둑은 아닌 것이다.

집어 든 물건을 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야말로, 도둑이라는 개념은 완벽하게 성립된다.

일부의 사건에서 전체를 예단하려고 드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인지능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시로네와 페오페의 대화도 지금의 상황과는 독립적인 사건일 뿐이었다.

“나는 신민관리부의 부장, 권위의 요정 이기린이다. 이단 주제에 네피림을 사칭하여 천국에 들어온 죄. 고결한 일화의 술을 방해한 죄로 너희의 수명을 전부 삭감한다.”

시로네의 이마에 주름살이 잡혔다.

“언제나 그런 식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야? 일화의 술도 마찬가지야. 어째서 신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지?”

“너희는 거인에게서 태어났다. 다시 돌아가는 게 무에 그리 억울하지?”

“헛소리야.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살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않아.”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거두어 먹기 위함이다. 생물이 죽는 이유는 다른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함이야. 너희도 이 율법에 얽매인 존재일 뿐이다.”

“씨를 뿌리는 것은 새로운 씨를 맺기 위함이야. 생물이 죽는 이유는 다른 생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야. 인간은 그렇게 번창하는 거야. 삶의 의미가 없는 생명 따위,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기린은 시름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이런 직감은 어째서 틀리지를 않을까. 시로네에게서 미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단답구나.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일화의 술을 시작하라!”

이기린이 명령에 기다렸다는 듯 집행자가 움직였다.

스위치를 내리자 10개의 유리구슬에 검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시간이 없어! 지금 막아야 해!”

리안과 테스가 동상을 파괴하기 위해 달려갔다.

이기린이 손을 들어 요정들을 지휘했다.

“공격하라! 절대로 접근하게 둬서는 안 된다!”

시로네 일행은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아린은 파티에 연결된 채널만을 남겨 두고 정신감응을 해제했다. 이기린의 정신 공명이 전체에 퍼져 있기에 굳이 통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

발사의 정령이 선제공격을 시작했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대기층에 구멍이 뚫리듯 공기가 튀어나왔다.

작고 단단한 기체 덩어리가 시로네 일행의 몸을 두드렸다.

몸이 관통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 숫자가 워낙에 많아 맞설 수가 없었다.

“뒤로 물러서!”

카니스가 섀도 월을 세웠다. 공기 탄환이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섀도 월의 표면을 두드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따가운 소음이 일었다.

마찰의 정령이 정전기를 일으켜 벼락을 내리치자 하비스트가 받아 냈다.

번쩍번쩍 빛나는 번개가 연거푸 내리꽂혔으나 마도 생물체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크크크! 기분 좋은데? 신종 안마술인가?”

섀도 월의 장벽에 등을 대고 있는 에이미가 손바닥 위로 잭 오 랜턴을 띄웠다.

하늘로 날아오른 불의 구체가 수십 개로 늘어나더니 전방을 무차별로 폭격했다.

잭 오 랜턴의 고유 능력인 엉터리 불꽃이었기에 실제 불꽃은 세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이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에이미의 폭격이 요정들을 분산시키자 카니스는 비로소 섀도 월을 거두었다.

열린 시야로 요정들의 위치를 빠르게 포착한 아린이 정신 채널로 작전을 제안했다.

-요정들이 정신적인 존재라면 나에게 방법이 있어. 멘탈 쇼크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시로네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마법 대 마법의 전투에서는 상성이 있지만 정신을 직접 가격하는 것에는 요정들도 손쓸 도리가 없을 것이다.

-가능하겠어? 숫자가 많은데?

-광역 멘탈 쇼크를 시전할 거야. 정신력이 상당히 소모되지만 한 번 정도는 가능해. 대신에 요정들을 유인해 줘. 나를 중심으로 20미터 반경이야.

요정들을 전부 몰아넣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절반이라도 성공한다면 전투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좋아! 우리도 흩어지자!”

각개전투가 시작되었다.

요정들의 능력도 만만치는 않았다. 이미 싸움을 예상하고 왔는지 대부분 전투에 특화된 개념들이었다.

하지만 적들이 강하다면 유인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어? 어?”

온갖 마법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유일하게 페오페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날아다니고 있었다.

실전 전투는 처음인 데다가 오가는 마법의 위력도 자신과는 차원이 달랐다.

섬광이 번쩍하고 페오페에게 다가왔다.

깜짝 놀란 페오페는 양손을 들고 나선의 능력을 사용할 준비를 했다.

시로네도 반사적으로 포톤 캐논을 장착했다.

서로의 얼굴을 뒤늦게 확인한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페오페는 입술을 깨물며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시로네도 포톤 캐논을 취소하고 몸을 돌렸다.

페오페가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요정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다.

페오페의 고개가 시무룩하게 떨어졌다.

-아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게 한계야!

요정들은 비행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 몰아넣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시로네 파티의 마법사들 또한 무브먼트는 수준급이었기에 절반 이상을 영역 안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충분해!

무브먼트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다.

요정이 영역으로 들어온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아린이 마법을 시전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었다.

아린은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땅을 짚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싱크홀처럼 확장되자 5명의 요정들이 위기를 직감하고 몸을 날렸다.

하지만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펑 하고 정신 파동이 솟구치면서 흙이 일제히 튀었다.

요정들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더니 살충제를 마신 것처럼 날개를 멈추고 후두두 추락했다.

전력의 절반이 날아가자 사기가 저하된 요정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비스트가 손톱을 휘둘러 그녀들을 쫓아 버리는 동안 리안과 테스도 케르고인의 포위를 뚫고 스위치를 원래대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3분의 1 정도 차오른 액체가 다시 탱크로 빨려 들면서 유리구슬의 수위가 낮아졌다.

대상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고문일 것이다. 일말의 희망이란 거의 절대적인 절망의 다른 말에 불과하니까.

“시로네! 지금이야! 레이저로 박살 내 버려!”

시로네는 이미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다.

동상이 파괴되면 일화의 술은 중지된다. 요정들이 궤멸당한 지금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못할 터였다.

시로네의 레이저가 붉은 빛을 발하는 순간 이기린의 목소리가 전장에 스며들었다.

“신의 종속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권위 없는 자들이여,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언령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세상이 꺼지듯 모든 인간들이 무릎을 꿇었다. 시로네 일행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었다.

무릎을 땅에 처박은 시로네는 어리둥절했다. 일어서려고 다리에 힘을 줘 보지만 마치 코끼리가 되어 버린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정신 채널에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 된 거야? 일어설 수가 없잖아.

-분명 권위의 요정이라고 했어. 이게 권위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단순한 마법이 아니야. 이건 규정외식이야.

시로네가 생각하기에도 규정외식이 아니라면 지금의 결과는 나올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발동이 되는 것일까?

언령은 아니었다. 단지 말을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무릎 꿇린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로네 일행과 다르게 신민들은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경외의 눈빛으로 이기린을 올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기린은 신민들의 사이를 유유히 지나치며 동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직접 스위치를 내렸다.

다시금 유리구슬에 액체가 차오르기 시작하자 대상자들의 눈이 질끈 감겼다.

가족들의 흐느낌이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 [200] 1. 신의 자비 (5)

시로네는 이를 악물었다.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마법은 시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상태에서 순간 이동을 시전하면 몸이 박살 나고 만다.

‘제길!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는데.’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카냐의 어머니는 죽는다.

아니, 모두 죽는다. 최후에 남게 되는 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흉측한 거인이었다.

“체념하라,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어느 누구도 라의 율법을 방해할 수는 없다.”

이기린은 모두 인간이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을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권위다. 복종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젠장, 뭐가 이렇게 무거워?”

동상 뒤편에서 들린 소리에 이기린의 얼굴이 굳었다.

이어서 턱, 턱 하고 발을 내딛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귀신이라도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그곳을 돌아보았다.

테스가 화색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리안!”

리안은 오만상을 찡그리며 걸음을 옮겼다.

몸무게가 1톤은 되는 듯했다.

그럼에도 압사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중이 전신으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몸이 엄청나게 무겁잖아.”

“어떻게 움직일 수가……?”

단순히 완력이 세다고 버틸 수 있는 마법이 아니다. 근육량에 비례하여 하중이 매겨지기 때문에 근력이 강할수록 더 무거운 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움직인다면 가능한 경우는 한 가지였다. 자신이 낼 수 있는 근력 이상의 힘을 내야 한다.

물론 그것 또한 정상적인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육체 이상의 힘을 낸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거인의 술법 중에서도 최상위의 능력인데.’

이기린이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시로네 일행이 있는 곳에서 탁한 소리가 들렸다.

“크크크, 아주 웃기는 마법이군. 이래서 전투는 재밌어.”

카니스의 그림자에서 하비스트가 불쑥 솟아올랐다.

시로네는 리안과 하비스트의 경우를 보고 깨달았다.

절대치가 아닌 상대적인 하중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발동 원리가 다르면 대응법도 달라지기에 중요한 정보였다.

“어디 잡아 보실까?”

하비스트가 이기린에게 쇄도했다. 하지만 요정부장의 비행 능력도 우습게 볼 것이 아니었다.

매 싸움을 보는 듯한 추격전에 잠시 넋을 잃고 있던 시로네가 리안에게 소리쳤다.

“리안! 시간이 없어! 동상을 부숴야 해!”

리안이 동상 앞에서 대검을 치켜들자 비행 중인 이기린의 얼굴이 충격에 잠겼다.

자신을 쫓고 있는 그림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치지만 검사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이다.

규정외식에 걸린 상태에서 대검을 휘두르려면 육체의 지배력이 100퍼센트에 근접해야 한다.

리안이 기합을 내지르며 동상을 후려치자 쾅 하는 소리가 터졌다.

신민들은 화들짝 놀랐으나 동상에는 금조차 가지 않았다.

리안은 이를 악물었다.

닥치는 대로 깨부수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일격을 더하는 것뿐이었다.

“제길! 이상한 마법만 아니라면!”

구슬의 액체는 절반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대상자들은 이미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리안이 미울 것이다. 방해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모든 것이 편안해졌을 테니까.

아린이 정신 채널을 통해 말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언령만으로 수백 명의 동작을 구속한다는 것은 등가교환에 맞지 않아. 우리가 모르는 조건이 있을 거야.

시로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규정외식이 제아무리 기상천외한 능력을 갖더라도 등가교환의 제로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능력의 강도로 보건대 구속당한 상태에서 해제할 방법이 존재해야 했다.

시로네는 마르샤의 조언을 복기했다.

규정외식은 술자의 성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기린은 권위의 요정.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권위라는 개념에 관계된 전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야아압!”

리안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동상을 내리찍었다.

굉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신민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창백하게 질려 갔다.

그러던 어느 순간 에이미의 홍안이 붉게 타올랐다. 자기상의 기억이 신체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시로네, 고정되어 있는 구속력이 아니야. 조금 전에 하중이 5킬로그램 약해졌어. 이번에는 7킬로그램, 9킬로그램……. 리안이 검을 휘두를 때마다 무게가 빠져나가고 있어.

시로네의 눈이 번쩍하고 빛났다. 에이미의 말을 통해 이기린의 규정외식의 기재를 깨달았다.

“리안! 계속 내리쳐! 일화의 술은 재생의 술법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살인이라고!”

-시로네! 방금 60킬로그램 약해졌어! 설마 이거……!

-그래!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기린은 권위를 수치화시켜서 물리력을 내는 것 같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중은 약해질 거야.

시로네의 생각을 증명하듯 이기린의 인상이 일그러졌다.

일화의 술이 살인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의심의 카운트가 갑자기 치솟았다.

악에 받쳐서 지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결국 이단들이 마법의 발동 조건을 파악했다는 뜻이다.

규정외식 권력자.

이기린은 영역 내의 대상에게 믿음과 의심을 측정하는 저울을 들이댈 수 있다.

언령을 말하는 순간 주위의 모든 생명체가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중앙 광장에 모여 있는 대상은 318명이고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의 비율은 293 대 25였다.

모든 인원이 이기린을 믿는다면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하중이 근력의 100퍼센트이므로 이론상 거동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믿음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참칭의 대가’가 발동, 이기린은 24시간 동안 100퍼센트의 하중이 가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시로네는 리안의 행동이 마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깨달았다. 천국의 상징물이 훼손당한다는 공포가 신민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리안이 거인의 동상을 때릴 때마다 미약하게나마 하중이 약해지고 있었다.

“모두 정신 차려! 일화의 술은 거짓이야! 당신들을 죽이는 술법이란 말이야!”

계속해서 신민을 압박했으나 더 이상 하중은 약해지지 않았다.

시련은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

누군가는 겁에 질리더라도, 누군가는 더욱 강하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닥쳐! 우리를 속이는 건 너희야!”

“죽여라! 이단을 죽여라!”

동상을 훼손하는 행태에 골수 신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광신도로 돌변한 자들이 늘어나면서 의심하는 자들도 조금씩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했다.

시로네는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일화의 술이 재생의 술이라고? 다음에는 당신들 차례다! 왜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율법에 따를 것이다. 라에게 부여받은 수명을 다하고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시로네는 이를 악물었다. 규정외식이고 뭐고 신민들의 꽉 막힌 생각에 답답함이 극에 달했다.

“더 살 수 있어! 일화의 술 대상자들은 오늘 죽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처럼 신민들의 아우성이 사라졌다.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시로네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정적을 신호로 하비스트는 이기린의 추격을 포기했다.

어차피 이대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

산만하게 구는 것보다는 그녀와의 심리전을 통해 신민을 흔드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이기린은 눈살을 찡그렸다. 이번 발언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비율이 말해 주고 있었다.

267 대 51.

전체 대상자 중에 17퍼센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중이 약해지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의 수치였다. 감각이 급격히 변하는 것도 권위를 지키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터였다.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더 살 수 있어?”

“그래. 정말로 대상자들이 지금 수명을 다해 죽는다면 최소한 장례라고 해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죽는 게 아니야. 일화의 술은 당신들의 무덤이 될 수 없다고!”

-시로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에이미는 믿을 수 없었다. 수명부가 절대적이기에 신민들이 따르는 것 아니겠는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라면 뒷감당이 어려워진다.

시로네도 확신을 갖고 꺼낸 얘기는 아니었다. 다만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연옥에서 이단을 만났어. 그들 중에는 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수명을 몰라. 하지만 누군가에게 수명을 지배당하지도 않지.”

“그거야 당연히 이단이니까…….”

“정신 차려! 아직도 모르겠어? 이름을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라고! 신이 전능하다면 어째서 이름이 필요하냔 말이야!”

이기린의 얼굴이 심각하게 변했다.

229 대 89.

의심하는 자의 비율이 절반이 넘으면 권위는 사라진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70카운트밖에 남지 않았다.

집행자가 소리쳤다.

“닥쳐라! 그 또한 율법의 원칙일 뿐이다! 우리가 라의 의지에 따라 영생을 얻거나 재생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단의 논리로 신민을 조롱하지 마라!”

“율법이 아니야! 마법이다! 라의 능력이 무엇이든 마법에 관계되어 있다면 이들은 더 살 수 있어!”

마법이라는 말이 주효했다. 율법으로 일어나는 성스러운 현상이 단지 마법에 불과하다면 신의 위격 또한 인간의 기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더 살 수 있다는 거지? 증거라도 있나?”

신민의 무리 중에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기린은 그를 매섭게 돌아보았다. 방금 전에 의심하는 자의 카운트가 1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의 속성을 연구한 적이 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은 상대적이야.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고.”

신민 중에서도 시간을 연구하는 자들은 있었다. 노르의 마법사들과 메카의 광학자들이었다.

그들의 숫자는 아마도 6명 정도일 것이다. 222 대 96. 시로네의 말을 이해한 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게 어쨌다는 거지?”

“만약 수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시간과 연관이 있다면 일화의 술 대상자들의 수명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수명을 40년으로 확정한다고 해도, 정확히 그 40년에 사망할 수는 없다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유동적이니까.”

“하지만 가설일 뿐이다. 만약 마법이 아닌 율법이라면, 우리는 재생의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가설이 아니야. 증명할 수 있어. 똑같이 10년을 삭감당했다고 해도 태어난 시간은 다를 거야. 그런데 어째서 일화의 술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지 않는 거지?”

206 대 112.

앞으로 47명 남았다.

이기린은 유리구슬을 살폈다. 검은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 육체가 분해되기 시작하는 것은 사망한 순간부터이니 익사자가 생기면 술법은 성공이나 다름없었다.

“몇 시간, 아니, 최소한 1초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일화의 술은 살인이야. 대상자들을 익사시키고 시체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집행자가 눈을 부릅떴다.

“닥쳐라! 네 말이 옳다고 한들 무엇이 바뀌는가! 삶의 가치는 시간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1초를 더 살아 보자고 라를 부정하라는 말인가!”

“그 1초는 인생의 마침표를 스스로 찍느냐 마느냐의 1초야! 왜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기린은 여기에서 만회할 수 있다고 보았다.

243 대 75.

예상대로 믿음으로 돌아선 자들이 늘어났다.

시로네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인간에게 삶의 주도권이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원하는 건 오로지 이득이다.

수명이 조금 늘어난다고 얻는 건 없다. 신민들은 훗날을 기약하며 기꺼이 일화의 술에 뛰어들 것이다.

저울의 수치를 증명하듯 신민들이 너도나도 시로네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젠장! 하마터면 속을 뻔했잖아! 결국 수명은 정해져 있는 거였어! 달라질 건 없었다고!”

“네피림이라고 사기나 치고 다닌 주제에 이번에도 헛소리를 지껄여? 1초라고? 고작 1초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라면 무엇을 할 수 있지?”

## [201] 1. 신의 자비 (6)

시로네는 부들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단위면적당 하중이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나 금강불괴의 정신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민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리안처럼 거구라면 모를까 왜소한 시로네가 일어서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당신들은 신에게 목숨마저 내주잖아. 하라는 것은 뭐든지 하잖아. 그런데 고작 1초라고? 당신들에게 1초가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믿어주는 자들에게 고작 1초의 자비도 베풀지 못하는 거냐!”

이기린은 어금니를 강하게 깨물었다.

159 대 159.

믿음과 의심의 비율이 정확히 동률을 이루었다. 하나의 카운트라도 더 떨어지면 권위는 사라진다.

리안의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졌다. 100퍼센트에 근접한 하중도 이겨 냈던 그라면 50퍼센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하고 대검을 휘두를 수 있었다.

리안은 동상을 포기하고 검은 액체로 가득 찬 유리구슬을 두드려 댔다. 연거푸 내리치자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더니 물줄기가 새어 나왔다.

“제길! 제길!”

그럴수록 초조해졌다. 균열에서 새어 나오는 양만 가지고는 대상자들의 익사를 막을 수 없었다.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켜보는 신민들이 침을 삼켰다.

이기린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기린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다.

“현혹되지 마라! 내 마음의 저울이 너희를 심판하고 있다! 여기서 의심을 품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너희의 수명을 50년씩 삭감할 것이다!”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공포가 신민들의 믿음을 곧바로 되돌렸다.

216 대 102.

그녀의 권위가 빠른 속도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중이 강해지자 시로네의 무릎이 다시 구부러졌다. 이를 악물고 버텨 보지만 불가항력이었다.

무엇보다 괴로운 사실은 신민들의 태도가 돌아서고 있다는 게 몸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시로네…….”

그 순간 카냐가 시로네에게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가 시커먼 물속에 잠겼으니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을까?

“정말로…… 살 수 있어? 엄마 말이야. 나와 레나, 아빠가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떠날 수 있어?”

신민들은 카냐와 유리구슬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웃으며 떠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1초였다.

“당연하지. 어머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다시 만나서 웃을 수 있어.”

카냐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는 어찌 되든 상관없었다.

그저 엄마를 보고 싶었다. 아침에 봤던 엄마를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었다.

“그럼 우리 엄마 좀 살려 줘, 시로네. 제발 엄마 좀 살려 줘. 싫단 말이야. 엄마가 거인이 되는 거 싫어.”

27 대 291.

이기린은 뇌를 강타하는 충격에 눈을 부릅떴다. 권위가 나락까지 떨어졌다.

헉 하는 신음이 토해지기도 전에 참칭의 대가가 발동했다.

수직으로 추락한 그녀는 땅바닥에 무릎을 찍었다.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었다.

“지금이야! 모두 가서 막아!”

하중이 사라지자 시로네 일행은 바닥을 갈듯이 발을 굴러 튀어 나갔다.

시간이 촉박했다. 아니, 이미 초과된 상태였다.

리안이 풀스윙으로 유리구슬을 박살 냈다.

에이미는 액체 탱크의 스위치를 껐다.

테스가 장치의 틈새에 세검을 찌르자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가족들이 달려와 깨진 유리구슬에서 대상자들을 빼냈다. 하지만 끈적끈적한 액체를 뒤집어쓰고 있어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신민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만약 죽었다면 분해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차마 참혹한 광경을 눈으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족들이 액체를 벗겨 내기 시작했다. 점차 살색이 드러나고 눈과 코, 입술이 나타났다.

다행히도 분해는 진행되지 않았다. 엄마를 발견한 카냐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엄마, 엄마!”

액체에 녹아내리지는 않았지만 숨을 쉬지 않았다. 카냐의 아버지가 달려와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기도를 열고 위장을 압박하자 걸쭉한 액체가 역류하면서 엄마가 기침을 토해 냈다.

신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머릿속에 율법은 없었다. 하나의 생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기쁨만이 전부였다.

댕. 댕. 댕.

일화의 술이 끝나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중앙 광장에 경건한 정적이 흘렀다.

되살아난 대상자들은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종을 바라보았다. 율법상 그들의 수명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아직까지 죽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2. 격동의 시대 (1)

종은 열두 번을 울렸다.

종소리는 중앙 광장에 모인 신민들의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여전히 그들은 신민이었고 라의 율법을 따르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페오페가 이기린에게 날아갔다.

무릎이 으스러진 이기린의 모습을 보자 페오페는 죄책감이 들었다.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기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까마득한 후배의 놀란 가슴을 달래주려는 듯이.

“괜찮다. 규정외식이 파괴되면서 발동한 대가야. 내가 감내해야 하는 일이다. 너는 괜찮은 것이냐?”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행이구나.”

페오페는 차마 이기린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다.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도 핀잔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안위를 걱정해 주고 있었다.

언제나 대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부장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기린은 심란한 눈빛으로 광장을 살폈다.

기울어진 동상, 박살 난 유리구슬,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치.

일화의 술이 완벽하게 부정당했다. 오늘은 천국에 파격적인 날이었다.

‘어쩌면 미로가 왔을 때보다 더 큰 여파가 미칠지 모른다.’

미로라는 여성은 금발의 소년에 비해 월등히 강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천국에 미칠 여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제 어찌 될 것인가? 대격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오늘을 기준으로 천국은 변할 것이다.’

페오페가 갑자기 이기린을 막아서며 싸울 자세를 취했다. 시로네 일행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기린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 게다가 무릎까지 박살 났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번만큼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저, 저리 가! 싸움은 끝났잖아! 그래도 덤비겠다면 내가 직접 상대해 주겠다!”

이기린이 페오페를 말렸다.

“괜찮다, 페오페. 나도 이 소년과 대화를 하고 싶구나.”

머쓱해진 페오페는 슬그머니 자리를 내주며 이기린의 옆에 섰다.

시로네는 쪼그려 앉아 최대한 눈높이를 맞췄다.

날아다니는 요정만 보다가 지상에 내려온 그들을 보자 비로소 크기를 실감했다.

정말이지 한 줌밖에 되지 않았다.

이기린은 꿀릴 것 없다는 듯 턱을 치켜들고 말했다.

“흥! 땅의 세상에서 온 아이야, 내가 졌다고 하여 신의 율법이 부정당한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요정 72계급의 중진일 뿐이니, 오늘의 승리가 너를 신격화시키지는 않을 것이야.”

“그런 건 상관없어. 나를 도와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이기린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천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였다.

1명의 목숨이 10명의 목숨보다 하찮은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1억이라면 어떠한가? 10억의 생명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미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천국에서 물러간 것이다. 다수를 위해 1명을 희생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유일한 해답을 찾았다.

하지만 이 소년은 아니었다. 옳은 일을 행하는 데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 필시 인간의 생명에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사조였다.

극단적인 선.

일전에 아케인이 느꼈던 기분을 이기린도 느끼고 있었다.

“이곳을 떠나라.”

이기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너는 천국에 혼란을 초래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조차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떠나라. 한시라도 빨리 우리의 세계에서 사라져라.”

“하지만 우리는…….”

시로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쪽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일행은 놀란 표정으로 그곳을 돌아보았다.

제2천 라키아에서 섬광이 솟구치고 있었다. 거리로 계산해 봤을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 방출이었다.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귀를 틀어막았다.

세계가 멸망이라도 할 것 같은 바이브레이션이 천공을 뒤흔들었다.

마치 송곳을 내리찍은 듯이, 적색 섬광이 광장의 한복판에 꽂혔다. 섬광이 사라지면서 빛의 날개가 갈기갈기 찢어진 천사가 나타났다.

이기린의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렸다.

“타락천사 이카사……. 어째서 여기에?”

제2천 라키아는 타락천사들이 유배되는 장소였다.

제2천의 존재는 제1천의 출입을 허락받지만 타락천사가 신민의 영역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한때는 제6천의 거주자였던 그들의 자존심이 인간과 교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기린은 시로네가 심은 혼돈의 씨앗이 벌써부터 천국의 율법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하급천사 이카사. 신성한 일화의 술을 굽어보다가 난동을 확인하고 이 땅에 내려왔느니라.”

시로네는 몸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2미터가 넘는 키에 째진 눈초리. 한때는 천사였기에 아름다움은 남아 있었지만 예상과 너무 다른 기질이었다.

노르의 쉼터에서 봤던 천사가 찬란한 태양을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 나타난 천사는 저물어 가는 노을과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네가 신을 부정한 자로구나. 가증스러운 것들. 자신들이 어떤 사랑을 받는 줄도 모르고 신을 능멸하는 어리석은 존재여.”

이카사는 증오를 담아 시로네를 노려보았다.

타락천사는 제2천의 존재, 따라서 영생을 얻은 제3천 셰하킴의 인간들보다 격이 낮았다.

거인이나 요정은 몰라도 인간보다 못하다니. 신은 어찌하여 인간을 이리도 아끼시는가?

2만 년 동안 품어 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신을 대신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카사의 성광체가 직경 1미터의 광륜으로 확장되었다. 거대한 빛의 고리가 레일이 되어 별처럼 반짝이는 빛의 입자를 가속시켰다.

이기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타락천사는 죄를 지은 탓에 대부분의 힘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샤마인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이카사 님! 안 됩니다! 타락천사가 광륜을 개방하면……!”

“호호호! 어차피 이단은 죽는다! 이 몸이 직접 처리해 주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이카사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기운에 시로네의 정신이 아득히 멀어졌다.

절대로 넘볼 수 없는 힘의 차이가 느껴졌다. 이건 아니다.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시로네는 온 힘을 다해 돌아섰다. 슬로 마법에 걸린 것처럼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기분이었다. 폐에서 뿜어낸 공기가 아직도 목젖에 도달하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소리를 낼 준비가 끝났을 때, 시로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도망쳐!”

아린은 이미 메타게이트를 들고 장치를 작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1초는 너무나 길었다.

빨리! 더 빨리!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도 2센티미터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시로네의 뒤편에서 바람이 불었다. 아린의 손에 들려 있던 메타게이트가 마술처럼 사라졌다.

일행은 망연자실하게 멈춰 섰다.

아린의 곁에서 왼손을 허리에 얹은 이카사가 메타게이트를 눈앞에 들고 살펴보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빛처럼 빠르거나, 바람처럼 신속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빨랐다.

생물과 자연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 속도. 그것은 그들이 탄생한 순간부터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 [202] 2. 격동의 시대 (2)

초근거리에서 메타게이트를 빼앗긴 아린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어 버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옆에 타락천사가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표정이었다.

“흐음, 이거 메타게이트잖아? 신민에게도 사용이 금지된 건데. 이단 주제에 제법이네.”

이카사의 목소리를 들은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어떻게 메타게이트를 빼앗길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고속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물체를 집었다는 건 육체의 힘만으로 가속했다는 얘기였다.

“흐음, 메타게이트를 들고 여기에 왔다는 것은? 설마 너희…… 미로가 보냈니?”

시로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어떠한 정보도 건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다.

“후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아. 어차피 이걸 분석하면 좌표가 나오니까.”

메타게이트는 메카족의 하이테크 장비다. 메카의 기술로 해체하면 어떤 좌표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작동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카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특히나 저 소년이 일화의 술을 저지한 행동은 압권이었다. 가증스러운 미로의 고향에서 온 자들이 분명했다.

이카사는 호리호리한 몸매를 흔들며 시로네 일행의 사이를 지나갔다.

무방비 상태였지만 아무도 손을 쓰지 못했다.

이카사가 걸음을 멈춘 곳은 여자들이 서 있는 곳이었다.

장신의 천사가 내려다보자 에이미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공포에 지지 않고 끝까지 눈싸움을 이어나갔다.

“혹시 너 숫처녀니?”

에이미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언어폭력의 수위로 따지자면 반칙과도 같은 말이었다.

“뭐, 뭐야?”

“깔깔깔! 그러네. 혹시 너희도?”

이카사가 테스와 아린을 번갈아 가리키며 물었다. 두 사람의 얼굴 또한 예외 없이 빨개졌다.

“흐음, 그렇다 이거지? 인간치고는 참을성이 대단한데?”

이카사는 허리를 숙이고 아린을 유심히 살폈다. 흑발에 검은 동공, 달빛을 연상시키는 하얀 얼굴.

“호오, 너는 동방의 종족이로구나. 아주 좋아.”

이카사는 만족스러웠다. 처음에는 2만 년의 한이나 풀어 보려고 왔건만 예상치 못하게 뜻밖의 수확을 얻었다.

미로의 고향이 기록되어 있는 좌표 그리고 3명의 소녀. 이 정도라면 다시 천사로 승급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이카사는 광륜을 회전시켜 천사의 능력을 발동했다.

“어, 어?”

에이미와 테스, 아린이 허공으로 올라가자 반사적으로 시로네의 눈앞에 빛이 뭉쳤다.

“안 돼! 그만둬!”

포톤 캐논이 쇄도하는 것과 동시에 카니스와 하비스트가 협공을 가했다. 리안 또한 대검을 치켜들고 돌진했다.

이카사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어 좌에서 우로 그었다. 그러자 모든 공격이 보이지 않는 장막에 튕겨 나갔다.

시로네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소리쳤다.

“여자들을 풀어 줘! 내려와! 우리와 싸우자!”

이카사는 한심한 듯 일행을 쳐다보다가 3명의 소녀와 함께 높이 날아올랐다.

시로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토록 무력하게 상황이 종료되어 버리면 마음이 버틸 수가 없었다.

천공으로 떠오른 이카사는 광륜을 가속시켰다.

그녀의 눈앞에 불타는 소용돌이가 탄생하더니 묵직한 덩어리가 탄생했다. 시커먼 몸체에 주황빛을 내는 띠가 교차하는 물체였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타부, 이단을 죽여라. 나는 카리엘 님에게 간다.”

“……네, 이카사 님.”

이카사가 북쪽 하늘로 빠르게 멀어졌다. 누군가를 부르는 에이미의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따라붙었다.

시로네는 제정신이 아닌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천국에 오면서 위험을 각오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이토록 무력할 줄이야.

‘내가…… 내가 오자고 해서.’

시로네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의 탓이다. 처음부터 천국에 오는 것을 말렸어야 했다. 메타게이트가 있다고 조금은 안전하리라 생각했다니. 어리석은 착각이다. 천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였다.

쿠우우우웅!

검은 덩어리가 땅에 추락했다. 암석처럼 보일 정도로 표면이 매끄러웠다. 하지만 웅크린 몸을 펴자 고릴라를 닮은 형상이 일어섰다.

가느다란 주황빛의 띠가 좌우대칭형태로 새겨져 있었는데 색의 대비가 묘하게 매스꺼웠다.

머리 위에 떠 있는 삼각형으로 일각 마라임을 알 수 있었다. 노르의 쉼터에서 봤던 마라보다 크기는 훨씬 작았지만 약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케케케! 나는 타부다. 오랜만의 전투니 모쪼록 재밌게 즐겨 보자고.”

시로네 일행은 임전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여자들을 빼앗긴 시점에서 전의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그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타부는 혼자 신이 나서 몸을 웅크렸다.

“힘이 억제당한 상태라 과시하기는 쑥스럽지만…….”

타부의 주황빛 띠가 빛나면서 강렬한 열기가 폭발했다.

“너희 같은 것들에게는 넘치고도 남지.”

말과 함께 타부가 땅을 박차고 돌진했다.

리안이 달려와 대검을 휘둘렀다. 타부는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마치 리안이 안 보이는 듯 달리는 자세 그대로 검을 들이받았다.

쾅! 충격음이 터지면서 리안이 하늘로 튕겨 나갔다.

타부는 허리를 젖혀 시로네를 거꾸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상태로 몸을 날렸다. 뒤집어진 타부의 얼굴이 다가오는 건 말할 수 없는 이상함이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접근에 시로네는 광폭을 시전했다. 빛의 장막이 타부를 강타했으나 개의치 않는다는 듯 그대로 뚫고 들어왔다.

“크크크, 재밌는 마법이군.”

타부의 얼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황색 세로선이 지나가고 있고 입은 입술조차 없이 균열처럼 갈라져 있었다.

광폭은 초당 20회의 빠른 속도로 질량을 뿜어냈지만 타부는 마치 비바람을 맞는 듯 여유로웠다.

혓바닥을 명치까지 늘어뜨린 그가 시로네를 조롱했다.

“케케. 슬픈가? 여자를 빼앗겨서?”

시로네의 눈에 살의가 깃들었다. 에이미를 되찾아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시로네는 에이미를 머릿속에서 지워 버렸다.

정신이 모여들면서 광폭의 위력이 강화되었다.

이번에는 타부도 버틸 재간이 없었다. 광폭을 타고 멀어진 그는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움직임으로 전장을 교란하기 시작했다.

창조적? 아니, 원시적이었다.

원숭이처럼 탄력적인 동작으로 다가와 바위처럼 묵직한 공격을 가할 때마다 시로네 일행은 막아 내는 게 고작이었다.

‘이것이 마라의 힘인가?’

위력 자체는 소용돌이 뱀보다 떨어질지 모르지만 등급을 매긴다면 타부가 훨씬 높았다.

속도, 힘, 밸런스, 전투 지능까지, 덩치만 컸을 뿐인 소용돌이 뱀을 상회하고 있었다.

만약 이카사가 힘을 잃지 않았다면 이 괴물 또한 재앙에 가까운 위력을 내지 않았을까?

타부의 주먹이 시로네에게 날아드는 순간 바닥에서 섀도 월이 솟구쳤다.

쾅! 그림자의 반대편에서 소음이 터졌다.

타부는 공격을 거두지 않았다. 그저 주먹을 댄 상태에서 미친 듯이 우겨 넣을 뿐이었다.

주먹이 섀도 월을 뚫으면서 시로네의 이마를 가격했다.

1차 방어벽이 충격을 흡수했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핑 도는 기분이었다.

시로네의 그림자에서 카니스가 솟아올랐다.

“평범한 공격으로는 무리야. 지금이라도 이모탈 펑션을 열어.”

“무슨 소리야? 개방한 지가 언젠데.”

카니스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이모탈 펑션 상태에서 시전하는 포톤 캐논의 위력은 직접 당해 본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상처조차 낼 수 없었단 말인가?

“레이저는 불가능한 거야?”

“힘들지 않을까? 작고 빠르잖아.”

에너지 집적에는 5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소용돌이 뱀처럼 덩치가 크다면 모를까 동작의 패턴조차 예측할 수 없는 타부를 상대로는 무리인 전술이었다.

“그래도 시도는 해 보자. 내가 놈을 막아 볼 테니까 그때 공격해.”

카니스는 어둠의 권능을 시전했다. 모세혈관처럼 모여든 그림자가 타부의 발목을 붙잡더니 무릎을 타고 올라가 손목까지 단단하게 묶었다.

시로네의 레이저가 타부를 지지자 점차 몸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만 있어 준다면 아무리 내구력이 대단해도 폭발은 시간문제였다.

“크하하하! 만족! 여기까지다!”

허벅지를 부풀린 타부가 도약하자 사지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권능이 종잇장처럼 찢어지고 말았다.

그의 모습이 순식간에 하늘 속에 점으로 박혔다.

역시 무리인가? 어둠의 권능은 공학적 힘에 특화되어 있지만 물리력이 강한 편은 아니다. 타부를 붙잡으려면 이보다 훨씬 강한 구속력이 필요했다.

“카니스!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 줘!”

시로네는 광자 조형술에 모험을 걸어 보기로 했다.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지만 샤이닝 임팩트를 성공시킨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하비스트가 타부를 상대하는 동안 카니스는 시로네에게 모여드는 빛의 구체를 보았다.

샤이닝 임팩트처럼 빛의 세기가 약한 것을 보아하니 입자의 진동을 줄여 조형을 해 보려는 시도였다.

괜찮은 발상이기는 하지만 과연 저것이 먹힐까?

-진동을 억제한다고 해도 조형이 가능한 크기로 키울 수는 없어. 샤이닝 임팩트처럼 결국 폭발해 버린다고.

-아니. 압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비스트의 말에 카니스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시로네가 빛의 구체로 조형한 것은 검지와 엄지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고리였다.

‘저 자식! 설마……?’

카니스의 머릿속에 놀라운 생각이 번뜩 스쳤다.

분명 빛의 마법은 암흑 마법과 같은 정밀한 모델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시로네가 만들어 낸 빛의 고리가 복제에 복제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카니스의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있었다, 광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태가.

프랙탈 구조.

자신의 형태를 복제하여 전체를 이루는 것을 프랙탈이라고 한다.

시로네는 최소 입자를 모아 가장 단순한 형태를 만든 다음 그것을 무한대로 복제하는 방법을 떠올린 것이었다.

하나의 형태가 완성되었다면 찍어 내는 건 순식간이었다.

시로네의 손바닥 사이에 모인 빛의 구체에서 물줄기처럼 사슬이 뿜어져 나왔다.

속성을 역행하는 방식이기에 정신력의 소모는 보통의 마법보다 심할 수밖에 없지만 타부를 상대로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었다.

카니스를 뒤쫓던 타부는 이상함을 깨닫고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시로네의 주위로 수십 미터 길이의 사슬이 빛을 뿜어내며 출렁거리고 있었다.

천사의 힘이라 불리는 빛의 능력.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빛의 조형술이었다.

“하찮은 인간 따위가!”

타부가 일갈을 내지르며 달려들었다. 그에 맞서는 시로네도 팔을 휘둘러 사슬을 던졌다.

구체의 형태로 얽힌 사슬이 타부의 몸을 칭칭 감기 시작했다. 발목에서 시작하여 허리를 감고 겨드랑이를 파고들었다. 그런 다음 목을 돌리고 엑스 자로 내려와 허벅지를 감았다.

칵! 돌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타부의 주먹이 시로네의 콧잔등을 가격하기 직전에 멈춰 섰다. 부르르 떨리는 주먹이 그의 분노를 대변했다.

“크으으으으!”

타부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중력을 지닌 사슬의 고리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인장력이 강해지고 있었다.

조금만 몸이 움직여도 빈틈을 파고들며 조여들어 왔다.

요정부장 이기린은 빛의 사슬에 감긴 타부를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대체 저 소년은 누구인가?

빛을 다루는 천사들조차 조형술을 구사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상황을 믿기 힘든 것은 카니스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한 사슬이 아니다. 프랙탈 기술로 형태를 이루고 질량을 이용해 인장력을 발생시켰다.

지금까지 시로네의 마법과는 차원이 달랐다. 포톤 캐논에 상응하는 마법은 다른 계열에도 있다. 레이저나 광폭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사슬의 마법은 어떤 계열도 따라 할 수 없는 신의 입자 고유의 영역이었다.

-언로커의 전지가 무서운 속도로 진화해 가는군. 그것도 나오는 것마다 상식을 깨는 마법이야. 샤이닝 임팩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샤이닝 체인인가?

카니스는 침묵을 지켰다. 친구들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료가 강해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선천적인 호전성은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카니스,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강해지기 위해서 천국에 온 거잖아. 너라면 충분히 시로네를 뛰어넘을 수 있어.

-그래. 언젠가는 뛰어넘어야겠지. 일단은 지금 상황에 집중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카니스는 타부가 묶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 [203] 2. 격동의 시대 (3)

“크으으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까짓 것에……!”

타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웅크렸다.

막강한 물리력이 사슬을 잡아당기자 시로네의 뇌에 곧바로 저항감이 전해져 왔다.

가공할 완력이었다.

시로네는 금강불괴의 내구력으로 샤이닝 체인의 인장력을 더욱 상승시켰다.

버티지 못한 타부의 몸이 활짝 펴지면서 분노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크아아아아아!”

저항의 대가는 컸다. 빛의 사슬이 타부의 단단한 표면을 부수면서 파고들었다.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였고, 허리는 곧 부러질 듯 불가능한 각도로 휘어져 있었다.

“크크크, 크크크크.”

타부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평생 이런 비참한 몰골이 된 적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한낱 인간 따위에게.

“그래, 잡기는 잡았구나. 그런데 이제 어떡할 거냐?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을 텐데?”

타부의 내구력을 고려했을 때 제거하는 방법은 레이저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비티 체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다른 마법을 시전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사고회로가 독특한 이루키는 더블 스피릿 존을 사용하지만 정상적인 인간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예외를 두는 규칙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마법에는 필연적으로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순간 이동 중에는 다른 마법을 시전할 수 없는 게 있었다.

특히나 샤이닝 체인은 파이어 월처럼 실시간으로 정신력이 소모되는 지속형 마법이었기에 다른 마법으로 타부를 공격하기가 불가능했다.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간 거지?”

“천사의 안식처로 갔다. 네피림을 낳기 위해서 말이야. 크크크, 안됐군. 네 아이가 아니라서.”

시로네의 눈에 핏발이 일어섰다.

네피림이란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정황은 모르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타부가 혀를 뿌리까지 뽑아내 흔들었다.

“케케케! 포기하라고! 일각 마라에게도 쩔쩔매는 너희는 절대 구하지 못해. 지금쯤 여자들은 비참한 몰골로…… 컥!”

빛의 사슬이 강력한 힘으로 조여 오자 타부의 목이 부러질 듯 꺾였다.

시로네의 어금니에서 뿌드득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말조심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크하하하! 짜릿한데? 하지만 조금 더 들어 보는 게 어때? 이건 끝내주게 재밌는 얘기라고! 진짜 금단의 열매라니까?”

시로네는 인장력을 한계까지 끌어 올렸다.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타부가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을 뿐이었다.

“크아아아아!”

절규가 터져 나왔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몸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타부는 직감했다.

여기가 자신의 끝이었다.

“기고만장하지 마라. 나는 다시 돌아온다.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는 날 너를 찾아갈 것이다! 반드시…… 크아악!”

까드드득!

타부의 몸 전체에서 소름 돋는 소리가 들렸다.

인간의 뼈가 부러지는 것과는 달리 단단한 바위가 우그러지는 소리였다.

샤이닝 체인이 사라지자 타부의 시체만 덩그러니 남았다. 찰흙 인형을 손으로 우겨 버린 듯 몸 전체가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다.

샤이닝 체인의 위력에 카니스는 간담이 서늘했다.

타부가 압살당할 정도라면 어지간한 생명체는 손쉽게 으스러뜨릴 수 있을 터였다. 덫에 걸린 토끼처럼 생사여탈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타부를 소멸시키자마자 시로네는 바닥에 엎드렸다. 두 손으로 흙을 가득 움켜쥐며 어깨를 떨었다.

마법을 성공시킨 설렘도, 타부를 이긴 성취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에이미, 테스, 아린이 납치당했다. 그리고 네피림을 낳게 한다고 했다.

미칠 것 같은 충동이 가슴을 두드렸다. 자신이 이토록 혐오스러운 적은 처음이었다.

페오페가 시로네에게 날아왔다.

마법을 구사하는 그녀였기에 조금 전 샤이닝 체인에 얼마만큼 막대한 정신력이 들어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너…… 괜찮아?”

페오페가 용기를 내어 물었으나 시로네는 반응조차 없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나 때문이야.’라는 중얼거림이 들렸다.

이유 없이 울화통이 터진 페오페가 삿대질을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 바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을 키워? 타락천사라고 해도 샤마인보다 상위 율법이란 말이야. 앞으로 이 구역의 사람들은 어쩔 거냔 말이야! 전부 너 때문에…….”

“으아아아아!”

페오페의 어깨가 들썩였다.

고개를 쳐든 시로네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분노와 원통함, 슬픔이 뒤섞여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 같았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에이미가…… 테스가…… 아린이……. 전부 나 때문에.”

페오페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시로네의 눈빛은 살아 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일화의 술을 부정하고 이기린에게 맞서 소리치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자들은 무사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말이야.”

시로네는 이기린을 돌아보았다. 참칭의 대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사하다고? 어떻게 무사하다는 거야?”

“이카사가 여자들을 데려간 이유는 처녀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의 몸에 천사의 정보를 집어넣어 네피림을 잉태하는 것이지.”

카니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더 위험한 거잖아? 너희는 어떨지 몰라도 인간에게는 정조라는 게 있어.”

“너희가 생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천사는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을 수치로 여기니까.”

리안이 말했다.

“반대로 말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지.”

“가능성과 개연성은 다르다. 천사는 양성을 지닌 종족. 따라서 인간과 관계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명예를 실추시키는 짓은 저지르지 않아.”

시로네는 이기린의 말에서 희망을 되찾았다.

천사가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위정자라면 아직 구출할 기회는 남아 있는 셈이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에이미 일행도 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리안이 시로네의 어깨를 짚었다.

“시로네, 어때? 이제 조금 진정됐어? 네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봐.”

“미안해, 너무 흥분했어. 친구들을 구출할 생각부터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시로네에게 에이미가 소중하듯 리안에게도 테스는 의지하는 친구였다. 또한 카니스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다.

‘아린…….’

카니스의 마음은 전에 없이 불타고 있었다.

라둠의 참혹한 생활에서도 지켜 냈던 아린이다. 그런데 이토록 쉽게 빼앗겨 버리다니.

어째서 이카사에게 바로 달려들지 못했을까?

약해졌기 때문이다. 희망이니, 행복한 미래니, 그딴 것들이 마음을 나약하게 만든 것이다.

‘아린, 조금만 기다려.’

카니스는 라둠의 들개였던 시절로 돌아가기로 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적을 멸하는 데 집중할 생각이었다.

시로네가 물었다.

“말해 줘. 천사의 안식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페오페가 어처구니없다는 듯 되물었다.

“알아서 어쩌려고? 정말 구하러 갈 생각이야?”

“당연히 가야지. 가는 방법 알고 있어?”

물론 방법이야 알고 있다. 게다가 에이미 일행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대충은 짐작이 갔다. 하지만 그렇기에 시로네는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기린조차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천사의 안식처였다.

“들어가게 해 줄 리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단이든 네피림이든, 가면 죽는단 말이야!”

“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잖아.”

페오페는 답답한 듯 가슴을 쳤다. 시로네도 타부라는 강적을 쓰러뜨렸지만 천사는 수준이 달랐다.

타락천사인 이카사에게도 범접하지 못하는 실력으로 쳐들어가 봤자 죽을 뿐이었다.

“정신 차려, 이 바보야! 너희가 가려는 곳은 제6천 제불이야! 진짜 천사가 머무는 곳이라고!”

천사는 강하다. 누구보다 강하다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생물의 정점에 위치한 존재였다.

하지만 시로네는 그들이 사는 곳에 가야만 했다. 에이미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페오페,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끌려갔다면, 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 누군가 구하러 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까? 친구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지 않을까?”

시로네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쩌면 구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친구들의 희망마저 꺼트려서는 안 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 버리면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테니까.”

페오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죽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신의 죽음에 충실하면 세상은 조화롭다. 어째서 인간은 불가능한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일까?

메카족의 남자가 다가왔다.

“천사의 안식처는 제6천 제불일세. 지리상으로는 샤마인 바로 옆이지. 하지만 다섯 단계나 상위 구역이라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 절차를 밟아 제2천부터 차례로 돌아야 하는데 그러면 며칠은 걸리지.”

“절차는 필요 없어요. 직선거리로는 얼마나 걸리죠?”

“직선거리라. 어차피 천국의 장벽을 넘는 건 불가능할 테고, 여기서 제6천으로 바로 간다고 하면 하루 정도 걸릴 것이네.”

예상보다 훨씬 먼 거리였다. 이카사의 비행 속도로 보건대 그녀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을 터였다.

제불의 출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루의 유예는 여자들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네.”

50대의 남자가 걸어왔다. 생김새나 차림새로 보건대 노르인이었다.

“방법이 있다고요? 어떤 방법이죠?”

“여기서 1구역으로 가는 걸세. 샤마인에서 가장 내부에 위치한 구역이지. 천국의 중심부랑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앙 가도를 따라 제불로 들어가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야.”

천국은 아라보트를 중심으로 여섯 등분의 파이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아라보트에 가까울수록 원호의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동선을 줄일 수 있었다.

“여기에서 1구역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12시간 정도?”

시로네는 다시 시무룩해졌다. 하루보다는 단축되겠지만, 그럼에도 무언가를 해 보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다.

노르인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보통의 방법으로 간다면 말일세. 샤마인 내에는 노르인이 관리하는 포탈이 있네. 빛의 스폿을 이용하면 1구역까지는 단번에 갈 수 있지.”

그런 방법이 있었다. 연옥에서 빛의 스폿을 타고 이동해 봤던 시로네는 남자가 제시한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희를 거기로 데려가 주세요. 다른 문제는 없나요?”

“굳이 따지자면 신민들에게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거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걸세. 내가 바로 그곳에 근무하는 통제관이니까.”

시로네는 농담에 웃을 정신조차 없이 몸을 떨었다.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다.

어쩌면……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카냐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미안해, 시로네. 괜히 우리 가족 때문에. 하지만…… 고마워. 정말로…….”

시로네는 카냐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일화의 술을 부정한 대가로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지만 어찌 신민의 탓이겠는가?

진정한 권력자는 시스템의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는 분노의 화살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네 탓이 아니야. 반드시 친구들을 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잠깐만요!”

광장의 갈림길 쪽에서 레나가 달려왔다. 메카의 장비인 시그나와 엑스드를 끌어안고 있었다.

“혹시 몰라서 가져왔어요. 도움이 될까 하고.”

메카의 물건은 개인화 암호가 걸려 있지만 검과 방패는 공용 장비에 속했기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율법으로 대여는 금지지만 일화의 술이 깨진 마당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장비는 리안에게 필요할 것이다.

마법사에게는 현상을 뒤트는 기믹이 있기에 강한 적과 싸울 때도 변수를 일으킬 수 있지만 검사는 정직한 무력이 전부였다. 그런 만큼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 [204] 2. 격동의 시대 (4)

리안은 시그나와 엑스드를 받아 들고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의 무기에 의지하는 것은 검사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친구가 잡혀 있는 마당에 그딴 것이나 따지고 있을 리안이 아니었다.

“고마워. 하지만 험하게 다룰지도 몰라.”

“괜찮아요. 아니,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제발 언니들을 구해 주세요.”

페오페는 생각에 잠겼다.

조금 전만 해도 하루하루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던 신민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타인의 불행을 분쇄하기 위해 저마다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었다.

어째서 율법은 인간을 통제하는가?

개체 수를 유지하고, 수명을 통제받으며, 천국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다. 인간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라에게는 도대체 어떤 위험으로 인지되는 것일까?

“정말로 갈 거야?”

페오페는 이런 걸 묻고 있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시로네를 만난 이후부터 모든 게 변해 버렸다. 그는 혼돈이었다. 천국의 수면에 던져진 바윗덩어리였다.

“알잖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까는 고마웠어. 싸움을 피해 줘서. 사실 나도 너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 카냐와 레나의 죄를 가볍게 해 준 것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페오페는 시로네의 말을 애써 외면했다. 통하는 게 있다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요정과 인간이 어떻게 통할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신민들을 잘 돌봐 줘. 무사히 돌아온다면 그때는 더 친해질 수 있겠지.”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시로네는 몸을 돌렸다.

페오페의 작은 심장이 콩닥거렸다. 노르인을 따라 멀어지는 시로네의 모습이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그럼 나도 구해 줄 거야?”

시로네는 페오페를 돌아보았다. 망설이던 그녀가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

“내가 잡혀가도 구하러 와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면 말이야.”

시로네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페오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당연한 것인가? 그렇다면 시로네는 죽을 것이다.

그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1구역에 간다고 해도 제불의 문을 넘어갈 수는 없을 거야. 나에게 여자애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가 줄게.”

시로네의 눈이 커졌다.

분명 구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인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정말이야? 정말 구할 수 있어?”

“장담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끼리 갔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그래서 같이 가 주겠다는 거야.”

시로네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페오페를 바라보았다. 얼굴이 빨개진 페오페가 화를 내며 고개를 돌렸다.

“흥! 이상한 생각 할 필요 없어. 이번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을 뿐이야.”

이기린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신민들이 시로네를 돕는 것도, 페오페가 인간에게 이끌리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결국 이렇게 되고야 마는가? 아니, 이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율법이라면…….’

결정을 내린 이기린이 입을 열었다.

“페오페, 나에게 오거라.”

페오페의 어깨가 움찔했다. 이제 보니 부장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 상황이었다.

예상과 달리 이기린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에 눈을 감으며 기억을 페오페에게 전달했다.

페오페의 머릿속에 새로운 정보들이 속속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건……?”

“페오페, 내 기억을 가지고 가거라. 제불에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정 간의 기억 전이는 흔한 일이지만 높은 서열이 낮은 서열에게 전이하는 경우는 의미가 남달랐다. 이를테면 자신을 대신해 임무를 다하라는 대리 임명장과 같았다.

요정 72계급의 중진. 하늘 같은 선배의 진심을 깨달은 페오페는 여태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부장님. 이번에도 실망시켜 드려서.”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 너는 천국의 격동기에 태어난 요정이야.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네가 아는 율법과 다를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페오페의 눈망울이 감격에 젖어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기린의 미소를 보았다.

“너는 좌충우돌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렇기에 스스로 깨닫는 아이다. 나선은 모든 방향을 살피며 똑바로 나아간다는 것을 명심해라. 믿는다, 페오페.”

페오페는 눈물을 훔치고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기린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용기를 백배로 끌어 올렸다.

시로네 일행은 페오페를 데리고 광장을 벗어났다.

포탈 통제관이 도착한 곳은 중앙 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노르인의 건물이었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는데, 방방마다 마법진이 그려져 있고 각기 다른 정령들이 머물고 있었다.

구석에 설치된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암실의 중앙에 빛의 정령이 홀로 떠 있었다.

통제관이 다가가 부드럽게 정령을 움켜쥐었다. 정령의 움직임이 멈추면서 그의 팔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다.

“정령의 힘을 이용하면 1구역까지 단번에 갈 수 있네. 하지만 정을 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려. 5분 정도 걸릴 거야.”

연옥에서 경험해 본 터라 별다른 의문은 들지 않았다.

기다리는 동안 시로네는 눈높이에 떠 있는 페오페를 살폈다. 작은 엉덩이를 이쪽으로 내밀고 투명한 날개를 흔들고 있었다.

시로네는 검지를 들어 앙증맞은 엉덩이를 콕 하고 찔렀다.

페오페가 화들짝 놀라며 두 손으로 엉덩이를 가렸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바닥보다 작은 한 살짜리 요정이지만 그래도 여자인 모양이었다. 물론 그녀를 놀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날개가 움직이는 부분을 빼면 남는 부위가 거기밖에 없었을 뿐이다.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 잘해 보자.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

페오페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하지만 시로네의 진심을 읽었는지 다시 빛의 정을 향해 돌아섰다.

기다리는 5분의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이런 현상 또한 시간의 상대성이었다.

카니스가 페오페에게 물었다.

“타부라는 놈, 정말로 죽은 건가?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마라는 죽일 수 있는 존재인 거야? 죽기 전에 그 자식이 그랬잖아. 인간의 타락이 어쩌고 하면 다시 찾아온다고.”

시로네도 갑자기 궁금해졌다. 아니,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마라가 소멸시킬 수 없는 존재라면 전투의 접근 방식부터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흐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소멸은 맞지만 영원한 죽음은 아니야.”

“쉽게 설명해 봐.”

“마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존재라 죽어도 언젠가는 되살아나. 천국에서는 그것을 초기화라고 불러.”

“초기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곧바로 되살아나지는 않을 거야.”

“죽이면 죽는다는 거로군.”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자면…….”

“됐어. 당장은 그것만 알면 돼.”

카니스는 전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린을 되찾으려면 지금보다 강해져야 한다.

1초 단위로 정신력을 높이는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마법학교에서는 수열식이라 부르는 개념이었다.

“그래그래, 마음대로 생각하렴.”

페오페가 알아서 하라는 듯 손을 휘저었다.

시로네는 수열식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아직 듣지 못한 얘기가 남아 있었다.

“친구들을 구할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어떤 방법인데? 이제는 말해 줘도 되잖아?”

페오페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 하지만 천사들의 거주지에 무방비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인간을 아주 사랑하는 분이 계시거든. 어쩌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통제관이 고대 마법을 시전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빛의 무리로 걸어 들어간 시로네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정말이야? 누군데, 그분이?”

페오페가 경건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천사들의 수장, 대천사 이카엘 님.”

빛의 기둥이 승천했다.

3. 영원불멸의 라 (1)

샤마인의 출구에서 관리인과 작별하고 30분 정도를 걷자 제7천 아라보트의 높다란 탑이 보이는 성벽에 도착했다.

페오페는 제6천 제불에 여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처녀 수태는 생명의 술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대천사 카리엘이기 때문이었다.

시로네가 말했다.

“어떻게 제불에 들어가지? 관문을 통과할 방법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아라보트로 들어갈 거야.”

“제불도 못 들어가는데 신이 사는 곳을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이카엘 님에게 도움을 받는 거야. 천사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니까 간청하면 들어가게 해 줄지도 몰라.”

“그건 더 이상하잖아. 아무리 대천사라도 제6천의 존재인데 어떻게 제7천의 관문을 열어 줘?”

“그건 현재 이카엘 님이 제7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야.”

시로네는 고개를 갸웃했다. 대천사가 자신의 구역인 제불을 놔두고 아라보트에 있다는 건 예상 밖이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거야?”

“응. 이카엘 님은 어떤 죄를 지어서 천사장의 자격을 박탈당하셨어. 하지만 라께서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타락천사로 실추시키는 대신 아라보트에 유배시킨 거야.”

제법 충격적인 일화였다. 여태까지 경험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해보면 율법을 앞세운 냉엄한 심판자였다.

그런 신이 예외를 두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제2천이 아닌 아라보트에 유배를 시켰다는 사실도 묘한 일이었다.

“어떤 천사일까?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건 나도 몰라.”

“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천사장까지 오를 정도라면 엄청난 이슈였을 텐데.”

“아마도 그랬겠지.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잊어버렸어. 이카엘 님이 큰 죄를 지었고 지금은 아라보트에 유배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

시로네는 페오페의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원래는 알고 있었으나 기억이 지워졌다는 얘기였다.

누군가의 기억을 지우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전달한다. 정보의 전파속도로 봤을 때 모든 자들의 기억을 동시에 말소시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리안이 말했다.

“수명에 이어서 기억까지? 말 그대로 전지전능이잖아. 신이라는 자는 몇 살이지? 1억 살쯤 되려나?”

“신에게 나이는 무의미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우리는 태초를 모르지. 시작을 모르니 나이도 모르는 거야.”

카니스가 말했다.

“상관없어. 신하고 싸우러 가는 건 아니니까. 여자들만 구하면 곧바로 돌아갈 거라고.”

시로네는 카니스가 아린이 아닌 여자들이라고 말한 것을 귀담아들었다. 평소에는 티격태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정이 든 모양이었다.

아라보트에 도착한 일행은 성벽을 올려다보았다. 천국의 내성이지만 성벽은 외성보다 높았다. 게다가 이카엘을 호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보이지 않았다.

카니스가 말했다.

“설마하니 그 여자가 강아지 산책이라도 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겠지?”

“흥! 기고만장한 것도 지금뿐일걸! 이카엘 님의 도움이 없으면 제불에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야.”

시로네를 돕고 있지만 페오페는 천국의 내정관이었다. 라가 죄의 기억을 말소시켜 줄 정도로 신민에게 존경 받는 대천사를 폄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시로네가 말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그나저나 이제부터 어떡할 거야?”

페오페도 그들의 사정이 급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는 쏘아붙이지 않았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이카엘 님과 대화를 시도해 볼게.”

시로네가 눈을 빛내며 되물었다.

“어라? 할 수 있어?”

“아니, 못 해.”

“……지금 장난하는 거야?”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이카엘 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 [205] 3. 영원불멸의 라 (2)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아라보트에서 여기까지는 장벽에 막혀 있는 데다 거리도 까마득했다. 이카엘의 시력이 몇인지는 몰라도 이곳을 보고 있을 확률은 조금도 없었다.

“그렇게 실망하지 마. 천사들에게 있어 ‘본다’는 것은 인간의 ‘본다’하고 다르니까. 여러 관점의 ‘본다’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굽어보기’는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야. 한마디로 천사들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언뜻 상상이 잘 가지 않았다.

페오페의 말에 의하면 무언가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냥 본다는 뜻이었다.

동화에 나오는 100개의 눈을 가진 괴물조차도 그런 허무맹랑한 능력으로 왕자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사실이야. 일화의 술이 깨지고 가장 먼저 이카사가 도착한 이유도 샤마인을 굽어보고 있었기 때문이니까. 뭐…… 그렇게 옹졸하니까 여전히 타락천사로 지내는 것이겠지만.”

제2천에 사는 타락천사는 제4천에 사는 요정보다도 아래이기 때문에 페오페는 거침없이 이카사를 비판했다.

천국에서 최고의 직위를 가진 천사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나락까지 떨어지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면 천사들은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꼭 그렇지만은 않아. 무엇을 볼 것인지 결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생각해 봐. 만약 네가 굽어보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세상 전부를 파악할 수 있겠어?”

“아니. 어렵겠지.”

시로네는 노르의 쉼터에 천사가 왔던 당시를 떠올렸다.

가드락은 이렇게 말했다. 천사가 원한다면 이곳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지문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라? 그 얘기 알고 있었네? 바로 그런 거야. 어쨌거나 만약 이카엘 님이 이곳을 굽어보고 계시다면 내 목소리에 응답을 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카니스는 언짢았다. 본래부터 마법사는 확률에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도가 너무 심했다.

“희박한 확률이잖아. 이곳이 그녀의 지문일 수도 있지. 게다가 설령 굽어보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데?”

“보장 같은 건 없어. 나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주려고 따라온 거라고. 우리가 가는 곳에 기다리는 건 대천사 카리엘 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시로네는 현실을 직시했다.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 자가 대천사라면 최소한 같은 급의 조력자를 구해야 탈출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었다.

“알았어. 이 방법대로 해 보자. 너를 믿을게.”

하여튼 노르인은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며 페오페는 혀를 쯧 하고 찼다. 어쨌든 그녀도 나름의 가능성을 보고 덤빈 일이었다.

날마다 지문을 확인하는 천사는 없지만 이카엘이라면 혹시 모른다. 그녀는 자애로우며 신민들을 자주 굽어살핀다고 들었다.

“그럼 시작할게. 대화가 시작되면 절대로 건드리지 마. 대천사님에게 불경을 저지르기는 싫으니까.”

눈을 감은 페오페는 정신을 집중했다. 그녀의 청원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나갔다.

시로네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록 페오페에게서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나 불가능한 것인가?

실패의 실망감보다는 친구들을 구출할 희망이 사라진다는 공포가 훨씬 컸다.

일행의 마음이 절망에 잠기는 그때, 페오페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잠시 후 감고 있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아아, 이카엘 님.”

시로네는 고개가 부러질 듯 페오페를 돌아보았다.

이카엘과 대화가 시작된 게 분명했다. 온갖 소리들이 나오려는 것을 페오페의 당부를 떠올리며 가까스로 참아냈다.

페오페와 이카엘은 제법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가끔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대답을 하기도 했다.

“네, 알겠습니다.”

페오페는 미소를 지은 얼굴로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감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그녀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호들갑을 떨었다.

“들었어? 들었지? 내 대화를 받아 주셨다고! 내 대화를!”

“당연히 못 들었지. 뭐라고 그랬는데?”

“아아, 이카엘 님이…… 나를 굽어보셨어!”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페오페의 모습에 시로네는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킬 때까지 감동을 폭발시키도록 내버려 둔 다음에야 말을 꺼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을 풀어 준대?”

페오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대천사와 대화를 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팔려 가장 중요한 내용을 까먹고 있었다.

페오페의 표정이 조금 시무룩해졌다.

“아니. 이카엘 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방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

“뭐야? 결국 실패한 거야?”

페오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겠대. 아라보트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말을 하려다 말고 시로네 일행의 눈치를 살피는 페오페의 모습에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카니스가 쏘아붙였다.

“뭐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

“시로네……라는 소년만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그런데 시로네가 누구야?”

카니스와 리안은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페오페는 아직 누구의 이름도 모른다. 수명을 조절하는 데 이름이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 철저하게 이름을 감추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페오페는 두 사람의 시선이 1명을 지목하자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이름이 시로네였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페오페의 눈에 시로네는 무수한 개념의 집합체에 불과했다.

그것은 마치 잡을 수 없는 안개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로네.

세 음절의 말을 떠올리는 순간 시로네의 행동,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이 통합적으로 뇌리에 꽂혔다.

“시로네만 오라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그건 나도 몰라.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카니스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다. 촉박한 시간을 유용하게 쓰려면 떼로 다니는 것보다는 각자의 임무에 치중하는 게 효율적이었다.

“그럼 시로네는 이카엘을 만나러 가. 어차피 그녀의 도움이 없으면 탈출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너희는 어쩌려고?”

“우리는 제불로 갈 거야. 제7천에서 제6천으로는 프리 패스일 테니까. 에이미가 있는 곳으로 먼저 갈게. 여차하면 시간을 끌 수도 있을 테고.”

현재의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었다.

합의가 끝나자 시로네는 페오페를 돌아보았다. 아라보트로 들어가게 해 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페오페도 방법을 몰랐다.

당황한 그녀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거리를 생각해 내려는 순간 주위가 밝은 빛에 휩싸였다.

페오페는 감격에 겨워 두 손을 움켜쥐었다.

“아아…… 이카엘 님.”

거대한 빛이 시로네 일행을 집어삼켰다.

점을 향해 빨려드는 빛이 자취를 감춘 자리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

제7천 아라보트.

시로네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천국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 도착한 것이다.

첨탑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페오페는 저 끝에 앙케 라가 머물고 있다고 했다.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다.

“신의 성좌가 있는 곳에 오다니. 내 평생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은 처음이야.”

“그래 봤자 1년밖에 안 살았잖아?”

페오페는 카니스를 흘겨보았다.

“1년이고 100년이고 나이 따위는 상관없어. 여기는 오래 살았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그런 것치고는 너무 조용한 거 아냐? 신이 살고 있다면서 경비조차 없고 말이야.”

“응?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신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데도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잖아.”

페오페가 갑자기 멈추더니 멍한 표정으로 카니스를 쳐다보았다. 마치 1 더하기 1이 창문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 얼굴이었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라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신을 지키는데?”

시로네가 뒤늦게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라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아니다.

그가 범우주적인 절대자라면 누군가 그를 지킨다는 것조차 신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아라보트의 첨탑에 도착한 시로네 일행은 각자의 임무를 위해 헤어질 준비를 했다.

이카엘은 시로네와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다. 에이미 일행을 되찾으려면 대천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리안과 카니스도 차별에 불만은 없었다.

시로네를 이카엘의 방까지 안내하는 사명이 있는 페오페는 이기린에게 얻은 기억을 카니스와 리안에게 전해 주었다.

제불의 대략적인 지도가 그들의 머릿속에 새겨졌다.

“여자들이 있는 곳은 동쪽 끝에 있는 대세계전일 거야. 카리엘 님이 기거하는 곳이거든.”

카니스는 이기린의 기억을 더듬어 대세계전의 위치를 찾아냈다. 순간 이동으로 간다고 해도 먼 거리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거리가 아니었다.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대세계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세계의 움직임을 관할하는 곳이라 최고 레벨의 보안장치로 둘러싸여 있어.”

“보안장치라면? 방해물이 있다는 거야?”

“그런 수준이면 말도 안 하지. 한마디로 대세계전은 제불에 없을 거야.”

“제발 성질나게 하지 말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 봐.”

“메카 시스템의 어떤 기술은 특정 공간의 정보를 바꿀 수 있어. 한마디로 다른 차원으로 보내 버렸다는 거야. 대세계전으로 들어가려면 메카 시스템부터 차단시켜야 해.”

“어떻게 차단하지?”

“제불의 지도를 살펴보면 잉그리스로 가는 포탈이 있어. 천국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곳인데, 메카 시스템도 거기에서 차단할 수 있을 거야.”

“어라? 잉그리스?”

케르고 족장과 계약을 했을 때 들었던 장소였다. 카둠은 잉그리스에 자신의 의지를 전해 달라고 했지만 당시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에 계약을 이행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들의 접대를 거절한 것은 탁월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카니스에게 잉그리스는 남다른 의미였다.

메타게이트를 버리면서까지 천국에 온 이유이자 아케인이 대마법사로 등극할 수 있었던 지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였다.

스승님이 남긴 메모를 분석하면서 카니스가 초점을 맞춘 분야는 신화였다.

천국이 오래전부터 인류에 영향을 미친 곳이라면 그 기록은 역사가 아닌 신화에 스며들어 있을 터였다.

그렇게 고서들을 연구하던 중에 각기 다른 신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곳이 바로 잉그리스.

세상의 모든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는 지식의 전당이었다.

“거긴 내가 맡을게. 리안이 대세계전으로 가는 동안 나는 메카 시스템을 해제하겠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

말이 좋아 시간을 버는 것이지 사지로 들어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리안은 그런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찬성이야. 우리는 지금 제불로 갈게. 시로네, 너는 무조건 방법을 찾아.”

“응. 너희도 조심해. 최대한 빨리 갈게.”

친구들이 제불로 향하는 것을 지켜볼 새도 없이 시로네는 탑으로 들어갔다.

기둥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광활한 내부가 펼쳐졌다. 바닥은 유리 재질이었고 발자국은커녕 먼지 한 톨 없었다.

페오페는 이기린이 전수한 기억에 의지해 시로네를 이끌고 탑의 구석으로 향했다.

“어라? 왜 아무 것도 없지?”

기억에 의하면 분명 이 자리에 승강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장치는 없었다.

그 순간 바닥의 틈새에서 빛이 새어 나오더니 눈을 멀게 만드는 빛이 번쩍하고 터졌다.

시로네는 어느새 달라진 풍경을 돌아보았다.

도착한 곳은 마치 생선의 등뼈처럼 복도가 뻗어 있는 곳이었다. 10미터 간격마다 양쪽으로 길이 나 있고 복도의 끝에 황금빛 철문이 서 있었다.

페오페는 철문 앞에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여기서부터는 이카엘 님의 영역이야. 약속한 대로 나는 들어갈 수 없어. 천사는 모든 존재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일은 없을 거야. 혹시 모르니까 너에게도 제불의 지도를 보내 줄게.”

## [206] 3. 영원불멸의 라 (3)

시로네는 눈을 감고 페오페가 전해 주는 기억을 받았다. 따스한 느낌이었다.

“고마워, 페오페.”

페오페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터였다. 만약 에이미 일행을 무사히 구출한다면 시로네는 기꺼이 그 공의 전부를 페오페에게 돌릴 수 있었다.

“흥! 내가 뭐? 난 그냥 너희가 하는 짓거리가 하도 신기해서 따라와 본 거야. 이제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페오페는 끝까지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만 시로네는 알고 있었다.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다. 그렇기에 유구한 수명을 누리면서도 인간의 아픔을 모른 체 할 수 없는 것이다.

“페오페, 너는 분명 훌륭한 요정이 될 거야.”

“됐어. 빨리 들어가기나 해. 나도 피곤해서 더는 여기에 있기 싫으니까.”

페오페는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비켜섰다. 내부가 궁금했지만 감히 천사의 방을 두리번거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로네가 방으로 들어가자 쿵 소리를 내며 철문이 닫혔다.

고작 하나의 문을 사이에 두었을 뿐이지만 페오페는 시로네가 세상에서 사라진 기분이었다.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고독감이 엄습했다. 세상의 정점이라는 곳은 이다지도 외로운 것인가?

“쳇. 난 돌아갈 거다, 뭐.”

심란한 마음을 추스른 페오페는 빛의 승강기를 타고 1층에 도착했다.

샤마인에 도착하면 이기린에게 보고를 해야겠다. 참칭의 대가가 끝날 때까지 그녀를 지켜줘야지. 그리고 잠을 청하면, 다음 날에는 여느 때와 똑같은 일상이 이어질 것이다.

쿵. 쿵.

페오페가 향하는 쪽의 입구에서 땅이 울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다.

소리만 듣고도 페오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직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지만 거인이 분명했다. 바닥이 흔들릴 정도라면 대체 얼마나 크다는 얘기일까?

입구 쪽에서 1명의 거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몸집은 크지 않았다.

고작해야 2미터가 조금 넘는 키였는데, 거인의 평균으로 따지면 난쟁이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다만 의복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일화의 술의 단계가 제법 높은 듯했다.

넓은 어깨와 발달된 아래턱. 팔뚝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원천지식을 통해 거인의 정체를 깨달은 페오페는 날개를 흔드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추락 직전에 겨우 중심을 잡고 날아올랐다.

‘세상에…….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거인의 왕 이미르였다.

덩치가 크지 않음에도 땅이 진동하는 이유는 그의 몸을 이루는 근육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일화의 술에 들어간 인간의 숫자만 1만 명이 넘는다고 전해지는, 역사상 가장 강한 거인이 다가오고 있었다.

페오페를 발견한 이미르의 걸음걸이가 점차 빨라졌다.

거인의 위상은 천사보다, 마라보다 낮지만 이미르라면 얘기가 다르다.

원천 지식에 의하면 오로지 육체의 힘만으로 몇 개의 세상을 파괴시켰다고 전해진다.

단순 무력으로만 따졌을 때 중급 천사 이상의 힘을 지닌 존재였다.

페오페는 침을 꼴깍 넘기며 이미르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쿵 하고 발을 찍으며 멈추자 자신도 모르게 인사가 나왔다.

“아아아, 안녕하세요.”

페오페는 경솔한 판단에 후회가 밀려들었다.

거인은 제5천 마테이, 요정은 제4천 마코놈이지만 실상은 정과 신의 위치에서 균형을 이루는 관계였다.

그렇기에 요정은 거인에게 경배를 올릴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마주칠 때마다 서로를 견제하며 험담하기 일쑤였다.

“너는 누구냐?”

“아, 저는 나선의 정령 페오페예요.”

페오페는 침을 꼴깍 삼켰다. 앙숙 관계인 거인이 어떤 식으로 해코지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이미르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래, 들은 적이 있다. 요정계에 괴짜가 태어났다더니, 바로 너로구나.”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마도 상위 율법끼리 오가던 대화인 모양이었다.

그나저나 괴짜라니. 자신이 뭘 어쨌다고 상부에서 그런 평가를 내린단 말인가?

“귀엽게 생겼구나. 그래, 무슨 일로 아라보트까지 온 것이냐?”

“아, 요정부장 이기린의 대리 임무를 맡았어요.”

페오페는 그렇게 둘러댔다. 물론 사실이었지만 이기린을 팔아먹은 것 같아 죄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없는 인맥이라도 동원해서 사태를 무마해야 할 때였다.

“그렇구나. 샤마인에 이카사가 왔다고 들었다. 이단들을 잡아갔다지?”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다, 혹시 붙잡혀 간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페오페는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입술을 때리고 싶었다.

이제 와 그런 걸 물어봐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났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마음과 반대로 귀는 이미르의 말을 담기 위해 쫑긋 세워져 있었다.

“카리엘의 실험실에 있는 것 같더구나. 메타게이트를 찾았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대세계전이 소란스러운 모양이다.”

대천사 카리엘에게 경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경이었지만 이미르는 개의치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전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소란이라뇨?”

“메타게이트에 잃어버린 좌표가 기억되어 있다고 하더구나. 어려운 이야기는 관심 없지만 조만간 전쟁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라에게 간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육체를 돌려 달라고 말이야.”

“아, 그렇군요.”

이미르가 육체를 빼앗긴 이야기는 천국에서 유명하다.

이카엘이 큰 죄를 지어 힘을 빼앗겼다면, 이미르는 그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본래의 육체를 박탈당했다.

이미르는 강했다. 그것도 너무나 강했다. 그래서 라는 이미르에게 육체의 한계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또한 율법에 어긋나는 일로, 천국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이미르가 손을 번쩍 들자 페오페는 기겁하여 눈을 감았다. 거대한 장벽이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느껴지는 건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거인의 손가락이 페오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차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나와 함께 싸우자꾸나. 내 옆에 있으면 어떤 적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야.”

“아, 네. 그럴게요.”

이미르가 눈으로 웃으며 페오페를 지나치자 쿵, 쿵 하고 다시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승강장에 도착한 그가 빛의 파편으로 사라진 뒤에야 페오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휴우, 어쨌든 무사히 넘겼네.”

거인에게 겁을 먹은 건 부끄럽지만 이미르를 상대로 이 정도면 당당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 합리화를 해 보지만…… 솔직히 지워 버리고 싶은 기억인 것은 사실이었다.

페오페는 고개를 흔들며 아라보트를 벗어났다. 머릿속에 샤마인으로 가는 동선이 빠르게 그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다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대세계전. 메타게이트. 전쟁.

일화의 술이 깨진 뒤로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계속 들리고 있었다.

페오페는 자리를 돌아다니며 갈등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다.

머릿속에 시로네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분명 훌륭한 요정이 될 거야.

페오페는 머리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하지만 이미 생각 속에 박혀 버린 언어는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우, 진짜! 미치겠다응!”

페오페는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1명의 요정이 천사들의 안식처인 제불로 향했다.

@

앙케 라는 아라보트의 첨탑에 머물고 있었다.

신민의 수명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그들의 기억마저 관장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

이미르는 그 위대한 존재를 알현하기 위해 탑을 올라왔다.

거인의 왕 이미르.

천국 역사상 최강의 거인.

일화의 술은 생물의 완전성에 도달하기까지 최종 10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르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종 10단계의 유일한 거인이었다.

그런 이미르조차 앙케 라가 머물고 있는 신의 권좌를 목전에 두고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꼭대기 층은 1층 면적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빛의 승강장을 타고 도착한 그에게 보이는 건 투박한 철문뿐이었다.

“앙케 라여, 당신의 종이 알현을 요청합니다.”

이미르는 한동안 기다렸다.

철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중앙의 틈새가 벌어지며 안쪽으로 열렸다.

이미르는 거칠 것 없이 걸음을 옮겼다.

둥. 둥. 둥.

팽창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다. 마치 느슨한 북을 치는 듯 안으로 먹히는 소리였다.

불과 100평도 되지 않는 방이었다.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신경 다발이 바닥의 틈새를 메우며 사방으로 퍼져 있었고 벽면에는 창자처럼 생긴 호스들이 주룩주룩 매달려 있었다.

바닥의 신경들이 일어서서 이미르의 발목을 더듬거리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떨어져 나갔다.

이미르는 라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거인 이미르가 앙케 라를 뵙습니다.”

둥. 둥. 둥.

이미르의 어깨 너머에 있는 거대한 고깃덩어리가 심장처럼 박동하며 그를 맞이했다.

중량 26톤. 점액질로 둘러싸인 적갈색이었고 외형은 특징이 없는 붕괴된 형태였다.

중앙부가 불룩한 반면에 말단은 늘어진 풍선 같았다.

말단에서 뻗어 나온 창자 다발이 벽면을 메우고 있었고, 다시 거기에서 뻗은 신경들이 바닥에 확장되어 파도처럼 널뛰고 있었다.

라의 육신은 마치 생물을 이루는 모든 기관이 합쳐진 것 같았다.

심장이자 뇌였고, 소화기관이자 감각기관이었다.

이미르의 주위로 라의 신경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이어서 고깃덩어리의 중심부가 불룩하게 부풀더니 쭉 하는 소리를 내며 가로로 찢어졌다. 표피가 위아래로 활짝 열리면서 거대한 눈동자가 튀어나왔다.

앙케 라(영원불멸의 라, 연대 추정 불가).

사람의 얼굴 크기만 한 동공의 조리개가 좁혔다가 확장되면서 포커스를 맞추었다.

이어서 고막을 찌르는 듯한 고주파가 새어나왔다.

“끼익! 거인…… 끼익! 이미르여, 어찌하여 나를…… 끼익! 찾아왔는가.”

강철판에 못을 긁는 듯한 노이즈에도 이미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신성한 천국에 이단의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일화의 술을 부정한 그들은 카리엘에게 넘겨졌고 생명의 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라의 음성이 조금씩 안정되었다. 여전히 하이 톤이었지만 더 이상 노이즈는 섞이지 않았다.

라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따라서 이미르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라에게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떤 의중이신지.”

“아무것도.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태까지 침투하지 못했던 세상의 좌표가 메타게이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라의 의지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르.”

세 음절 동안 라의 목소리 톤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웅장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세상의 시작이자 끝. 모든 게 나와 이어져 있으니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미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라는 전지전능하다. 그렇기에 어떤 사건도 그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육체를 되찾지 못하고 물러갈 수는 없었다.

“저의 육체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부디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의 벽을 녹여 주십시오.”

“이미르여, 너는 내 종이 아니었느냐?”

“곡해하지 마십시오. 거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 이 또한 천국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불허한다.”

이미르는 불타는 눈동자로 고개를 쳐들었다. 하지만 라의 거대한 외눈과 마주하자 모든 감정이 흩어져 버렸다.

“10억 이단의 불경스러운 행동보다 거인의 한 번 발걸음이 더 시끄러울 수도 있지. 그 발걸음의 주인이 거인의 왕 이미르라면 더더욱.”

“제 충정을 의심하십니까? 제가 위대한 당신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 보십니까?”

“이미르여, 너야말로 곡해하지 말라. 너의 힘은 세상의 균형을 깨트린다. 율법은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라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점막의 틈새가 빈틈없이 아물면서 박동의 세기가 커졌다.

둥. 둥. 둥.

## [207] 3. 영원불멸의 라 (4)

이미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음을 알았다.

천천히 몸을 돌리는 그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원통함과 분노가 새겨져 있었다.

라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라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니, 라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깨닫고 있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이미르는 천사의 도시 제불로 향했다.

@

이카엘의 방에 들어온 시로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다. 탁자와 의자, 침대와 양탄자까지 깔려 있는 방의 정경은 인간이 사는 곳과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간의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모든 물건에 햇살이 묻어 있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에 격리당한 듯 사소한 결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완전무결한 사물을 보는 기분은 실로 기묘했다.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함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결벽에 가까운 순결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로네는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스푼을 들어 얼굴을 비춰 보았다.

역시나 인간의 가공품이라기에는 섬뜩할 정도로 깨끗했다.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성물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라? 그러고 보니…….’

가장 중요한 이카엘이 보이지 않았다. 페오페는 분명 그녀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마 자신을 속인 것일까?

무서운 생각이 든 시로네는 정신없이 방을 돌아다녔다. 역시나 아무도 없다. 모든 물건은 깨끗하다. 공포에 가까운 완벽함이었다.

갑자기 아름다운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다. 시로네는 걸음을 멈추고 5미터 높이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하프처럼 맑은 울림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천사의 바이브레이션.

마치 홀린 듯이 그는 창문 아래로 다가갔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형태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1명의 여성이 창문턱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화가도 그릴 수 없는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시로네는 그녀의 머리 위에 성광체가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타락천사 이카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고 따스한 느낌이었다.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빛의 날개가 돋아났다. 거대하게 펼쳐진 빛의 날개가 시로네의 눈에 쾌감을 주었다.

“어서 오세요, 시로네.”

시로네는 확신했다.

그녀야말로 대천사 이카엘이었다.

인과율 제1개체. 그중에서도 신이 가장 아낀다는 고결의 상징. 그런 존재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이카엘은 사뿐히 바닥에 착지했다.

2미터가 넘는 키가 위압적이었지만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 그녀의 따스한 느낌을 가리지는 못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었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조차 그녀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선함이 형태로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 이럴까? 미로의 시공에서 진을 깨달았다면 이카엘은 선이었다.

이카엘은 성숙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게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앉을 자리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어디도 여의치 않았는지 그대로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시로네는 이카엘의 치마폭이 서서히 내려앉는 광경을 황당하게 쳐다보았다. 그러자 다소곳이 종아리를 붙이고 앉은 이카엘이 바닥을 두드리며 시로네를 불렀다.

“자, 이쪽으로 와요.”

시로네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느끼며 그녀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서로의 살이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어쩌면 그녀는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었기에 바닥을 권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상대로 이카엘은 얼굴을 들이밀었다. 시로네를 빤히 바라보는 그녀의 입꼬리가 점차 올라갔다.

시로네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자 그녀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시로네.”

“네? 저를 아세요?”

이카엘은 난감한 듯 눈썹을 긁적였다.

그녀의 행동은 인간을 닮아 있었다. 타락천사 이카사조차 오만의 극치에 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꽤나 충격적이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알다시피,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로네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서로가 서로의 눈빛을 빨아들이자 일체감이 몸에 전기를 통하게 했다.

이어서 고개를 들어 성광체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머리 위에 빛이 떠 있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광경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는 생각에 시로네는 황급히 정신을 차렸다.

“아, 죄송해요.”

이카엘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성광체는 천사의 정신이에요. 인간은 집중을 통해 스피릿 존에 들어가지만 천사의 존은 바깥에 있죠. 이것을 오버 스피릿이라고 불러요.”

설명을 들은 시로네는 새삼 성광체가 달라 보였다. 사방식의 이탈형을 항시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말 그대로 천사의 정신이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역시나 조금 부끄러웠는지 이카엘이 말을 보탰다.

“원래는 지금보다 더 밝았답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라께서 빛의 힘을 제어하셨죠.”

“어떤 죄를 지었는데요?”

시로네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황급히 사과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괜찮아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는답니다.”

시로네는 왠지 안심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당사자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행동은 아니지 않았을까?

“저기…….”

시로네는 말을 머뭇거렸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자 도저히 체념할 수가 없었다.

“말해 보세요. 무슨 말이든 해도 돼요.”

“한 번만…….”

“네?”

“한 번만 만져 봐도 돼요?”

이카엘은 눈을 깜박이더니 비로소 이해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예상치 못한 요청이기는 했다.

대천사 이카엘의 성광체를 만져 보겠다고 하는 존재는 천국을 통틀어 1명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만져 보세요.”

“저기, 실례되는 건 아니죠? 혹시라도…….”

이카엘은 상관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시로네는 그제야 안심하고 손을 내밀었다.

직접 만져 본 성광체는 빛이자 에너지였다. 기분 좋은 감각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따듯하네요.”

“그건 시로네가 따듯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헤헤.”

천국에 와서 처음으로 누리는 안락함이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세상에 어떤 고민도 할 필요가 없을 듯했다.

영원히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 순간 이카엘의 손이 다가왔다. 깜짝 놀란 시로네가 물러서자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변명했다.

“아…… 머리카락이 헝클어져서.”

“하하, 열심히 뛰어왔더니. 사실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시로네는 너스레를 떨며 머리를 털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닿을 것 같아 놀랐을 뿐이다.

그 순간 시로네의 눈이 크게 뜨였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차! 에이미!”

시로네는 벌떡 일어났다.

이제야 친구들이 생각나다니. 그만큼 이카엘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는 얘기였다.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잡혀갔어요! 생명의 술인지 뭔지, 그걸로 네피림을 낳게 한다고 했어요.”

“저런. 큰일이군요.”

“이단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만, 절대로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아니,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붙잡아 가는 건 납득할 수 없어요.”

이카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로네, 친구들을 좋아하나요?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네! 물론이죠!”

이카엘은 그것으로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시로네, 친구들을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대천사 이카엘의 말이었으니 차마 거절을 하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친구들을 구출하고 싶다면’이라는 말이 결정적이었다.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요? 그게 뭐죠?”

“천국에 대해. 그리고 미로라는 여자에 대해.”

시로네는 화들짝 놀랐다. 이카엘의 입에서까지 그녀의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아드리아스 미로.

처음 천국에 왔을 때는 그녀 또한 수많은 언로커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알아 갈수록 천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고 싶었다, 대체 그녀는 어떤 사람인지.

“미로를 아세요?”

“네. 만난 적이 있죠. 저는 그녀를 좋아한답니다. 물론 그녀는 저를 싫어하겠지만요.”

시로네는 충격을 받았다. 이카엘과 미로가 만난 적이 있다니. 특히나 미로가 이카엘을 싫어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가 겪어보기로 이카엘은 좋은 천사였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잠시만 시로네의 머리를 빗을 수 있게 해 주시겠어요?”

이카엘의 성광체가 고리의 형태로 퍼졌다.

강렬한 빛이 고리를 타고 회전하자 그녀의 손에 빛으로 만든 빗이 탄생했다.

광자 조형술.

그것도 빛처럼 섬세한 도구를 순식간에 만들어 낸 것이다.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 정신력을 지녔든 빛의 특성이 변하지는 않는다.

샤이닝 체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잡한 전지를 통해서만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였다.

시로네는 모든 해답이 성광체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카사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느꼈을 때도 성광체가 고리의 형태로 퍼져 나갔던 순간이었다.

“어떻게 광자를 조형한 거죠? 성광체가 변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광륜은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이것을 헤일로라고 불러요. 이를테면 인간들이 사용하는 마법진과 같아요. 광륜이 빛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수많은 개념을 조립하는 거예요.”

이카엘은 마법진을 예시로 들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비교하는 것조차 무례한 일이었다.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개념을 조립하는 방식이었다.

수십 명의 마법사가 달려든다고 해도 해일로 하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였다.

“그럼 시작하죠. 이리 누우세요, 시로네.”

이카엘은 자신의 무릎을 가리켰다. 머리를 빗겨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시로네는 이번에도 어떤 뜻이 있으리라 여기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누웠다.

따지고 보면 이런 호강이 어디 있을까?

대천사의 무릎에 드러누워 천상을 올려다보자 이카엘이 빗을 들어 머릿결을 쓸어내렸다.

‘어라?’

시로네는 의식이 몽롱해짐을 느꼈다.

빗질이 이어질수록 의식이 덩어리째 뽑혀 나가는 기분이었다. 기절하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이 잡혀 있다. 시간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끝장이었다.

‘안 돼. 안…….’

시로네의 눈이 스르륵 감겼다.

이카엘은 잠에 빠져든 시로네의 얼굴을 살피다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빗을 통해 시로네의 정신에 스며들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듯, 이카엘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먼 옛날…….”

4. 천국의 진실 (1)

제불에 있는 대세계전은 카리엘의 연구실이자 세계의 운행을 관장하는 천문대였다.

메카 시스템의 특별한 함수로 공간을 지워 버렸기 때문에 보안장치가 가동되는 한 출입은커녕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전殿 자가 붙은 곳답게 알페아스 마법학교를 담을 수도 있을 만큼 광활한 공간이었다.

전체적인 색감은 기계적인 남색이었고 반구형의 천장에는 수만 개의 전기신호가 반짝이고 있었다.

서북쪽의 공간에 별들이 모여 있는 구상성단의 홀로그램이 느리게 확장하고 있었다.

중심에는 지름 30미터가 넘는 거대한 강철 구체가 떠 있었는데 2개의 띠가 공전과 자전 궤도를 따라 회전하고 있었다.

에이미 일행은 강철 수갑으로 손목이 묶인 채 구상성단 근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자들을 납치한 이카사는 천사의 복직을 기대했으나 카리엘의 침묵 속에 제2천으로 되돌아갔을 뿐이다.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에이미 일행이 유일하게 즐거웠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 외에는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다.

설마하니 대천사 정도 되는 작자가 수갑까지 채울 줄은 몰랐던 것이다.

## [208] 4. 천국의 진실 (2)

수갑에는 노르의 쉼터에서 본 헤나라는 것과 비슷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공간에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마법조차 발동할 수가 없었다.

고작 인간이 무서워서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이미는 실험실에 붙잡힌 개구리를 떠올렸다.

해부하기 전에 사지를 묶는 이유는 개구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소름이 돋았다.

최소한 발버둥을 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다.

같은 생각인지 테스와 아린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마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금의 팽팽한 긴장감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듯이.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테스의 손목에 드론이 없다는 점이었다.

제불에 도착한 그녀는 이카사가 눈치 못 채게 드론을 날려 보냈다.

간자의 교육을 받은 자의 기지였다.

‘어떻게 된 거야? 어째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하지만 그녀의 노력도 지금 당장은 소용이 없었다.

드론은 시로네 일행이 최대한 빨리 도착하도록 길 안내를 해 줄 수 있지만 망막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메카의 함수로 공간 자체가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카리엘은 구상성단에서 7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기계를 점검했다.

천장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기둥이었는데 수천 개의 패널이 각양각색의 빛을 내고 있었다.

카리엘은 10미터 높이에 떠서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은 에이미 일행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기호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에이미는 카리엘의 광륜을 살폈다.

이카사의 것은 갖다 댈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고 선명한 고리였다.

경계선 안쪽으로 도식과 수식이 잔상처럼 나타났다 사라졌고, 그럴 때마다 기계장치의 화면도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시스템 점검 완료. 생명의 술을 시작합니다. 유전물질의 분자구조를 입력해 주십시오.

천장에서 섬뜩한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기계의 음성은 아린조차 분석이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카리엘에게 정신감응을 시도하는 건 미친 짓이었다.

한동안 화면을 응시하던 카리엘이 여자들에게 날아왔다.

콘트라베이스처럼 낮은 저음의 바이브레이션이 들렸다.

그는 미청년이었다. 2미터 30센티미터의 장신이었고 흰색 법의를 입고 있었다. 성광체는 너무나 밝아서 공간에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이었다.

에이미는 용기를 쥐어짜 내 그를 노려보았다.

만약 어떤 일을 당해야 한다면 자신이 첫 번째로 나설 생각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붙잡힌 상황에서 테스나 아린이 먼저 고통을 받았으면 따위의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천사라는 자가 부끄럽지도 않아? 빨리 이 수갑 안 풀어?”

“인간다운 저급한 발상이군. 나는 대천사로서 직무를 다하기 위해 너희를 구속시킨 것이다.”

카리엘을 뚫어지게 주시하던 아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초경은 처음이었다.

진동하는 끈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진동이 복잡하게 흔들리면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조차도 불명확했다.

카리엘은 오직 확률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에이미가 다시 쏘아붙였다.

“직무라고?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러고 보니 내 소개를 빼먹었군. 나는 대천사 카리엘. 라의 명을 받아 점령지에 파견되어 생명의 술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지금 너희에게도 생명의 술을 시행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사명이니 즐겁게 받아들이면 된다.”

“웃기고 있네! 사람을 묶어 놓고 무슨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빨리 이것부터 풀어!”

에이미가 몸을 흔들었다. 허리 높이에 수갑이 고정되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 발을 구르는 것뿐이었다.

카리엘의 말을 곱씹던 테스가 의아한 듯 되물었다.

“잠깐. 점령지라고? 그렇다면 천국에서 다른 세계를 공격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카리엘은 생각에 잠겼다. 율법은 언제나 옳다. 하지만 인간을 설득시키려면 다른 대화법이 필요했다.

“라의 의지를 전하는 것뿐이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고 영원히 존속되기를 원하신다. 너희의 세계도 조만간 라의 의지에 굴복하게 될 것이야.”

테스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지금 막 떠올린 생각에 의하면 라는 우주의 폭군이었다. 천국의 신민들 또한 어딘가에서 살던 점령지의 주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에이미가 소리쳤다.

“우리는 일화의 술을 봤어! 그게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인가? 그냥 변태 살인마랑 다를 바가 없잖아!”

“이해를 못 하는군. 인간은 사랑을 권력으로 착각하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가 너희를 아끼는 건, 단지 너희가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에이미는 수명부를 떠올렸다. 요정은 이름을 통해 신민의 수명을 조절한다.

하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이 라에게 어떤 의미인 것일까?

테스가 비꼬듯 말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수갑을 채웠으니 채찍이라도 휘두르며 사랑해 줄 건가?”

“너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사명? 무슨 사명?”

“나의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다.”

에이미, 테스, 아린의 얼굴이 동시에 빨개졌다.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돋고 짜증이 치솟았다.

에이미가 턱이 떨리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며 소리쳤다.

“변, 변태 같으니라고! 내 몸에 손만 대 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심한 반응이군.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몸에 천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이니까.”

테스는 그 말이 더 짜증 났다. 이를테면 뻔히 아는 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변태들의 언어였다.

“한마디로 우리랑 질펀하게 놀아 보겠다는 거 아냐.”

카리엘이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인간의 표현이란 저급하기 짝이 없군. 생명의 술은 대천사 중에서도 오직 나만이 가능한 고도의 술법이다. 하등한 인간의 번식과 비교하지 마라.”

-생명의 술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보 집적률 100퍼센트. 복제하시겠습니까?

때마침 천장에서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카리엘은 말이 필요 없다는 듯 하늘로 날아올랐다.

“복제.”

-유전물질을 복제합니다. 소요 시간 2분 30초.

카리엘의 성광체가 직경 20미터가 넘어가는 고리로 확장되었다.

검지와 중지를 모으자 손끝에서 구슬 크기의 빛이 탄생했다.

크기는 작았지만 대세계전을 밝힐 만큼 강렬한 세기였다.

카리엘은 광륜을 성광체로 되돌리고 여자들에게 되돌아왔다.

빛이 사라진 손가락 끝에 보랏빛을 내는 마름모꼴의 유리 패널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 패널에는 무한에 가까운 생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알겠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알 게 뭐야! 뭐가 됐든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

에이미가 소리쳤다. 가뜩이나 기가 차서 죽겠는데 설명까지 곁들이자 짜증이 치솟았다.

하지만 카리엘은 생명의 술법에 자부심이 상당한 듯 청중 없는 설명을 이어 나갔다.

“천사의 정보는 섬세하고 복잡하다. 아이를 낳은 여성은 네피림의 출산 성공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운이 좋은 편이다. 위대한 천사의 후예를 직접 몸에 담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으니까.”

“네피림을…… 낳아서 뭘 하려는 거지?”

“다른 세상으로 보내는 거지. 이번 경우에는 너희의 세상이 되겠군.”

“그곳에서 인간들을 교화하여 신에게 바치는 건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카리엘은 입을 다물었다.

결국 그런 것이었다. 점령지의 여자에게 네피림을 낳게 하고, 그곳의 인간을 교화시킨 다음, 신에게 인도한다.

테스는 네피림이 일종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도 그런 뜻이었다.

적국에 숨어드는 전투병에게 자국의 법을 강요할 리는 절대로 없을 테니까.

카리엘이 손끝에 떠 있는 패널을 내밀었다.

“걱정하지 마라.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이니 수치심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유리 패널을 이마에 붙이게 되면 유리 가시들이 튀어나와 뿌리처럼 뇌에 박힌다.

그 뿌리를 통해 천사의 정보가 침투하여 여자의 몸으로부터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카리엘은 크기가 맞나 재 보듯 세 여자의 이마에 한 번씩 유리 패널을 가져가 보았다.

모두 이마가 훤칠하고 예쁘게 생긴 것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적당할 듯했다.

“흠, 그렇군. 너희가 정하도록 할까? 누가 먼저 이 영광스러운 술법의 대상자가 되겠나?”

세 여자가 동시에 소리쳤다.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런 반응을 예상치 못했는지 여자들이 서로를 돌아보았다. 함께 싸운다는 사실이 다시금 용기를 북돋웠다.

카리엘은 만족스러웠다.

생명의 술을 성공시키려면 천사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지만 모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

성공 확률은 대략 30분의 1이고 실패할 경우에는 뇌에 쇼크가 와서 사망한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강하고 신체적인 조건이 탁월할수록 성공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 여자 모두 탁월한 선택이었다.

-유전물질의 복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천장에서 음성이 내려오자 카리엘은 손을 들었다.

수직으로 떠 있던 유리 패널의 좌우에 똑같은 형태의 패널이 만들어졌다.

“사이좋은 자매군. 우열을 가릴 수 없으니 동시에 심어 주도록 하마.”

카리엘의 손을 떠난 3개의 패널이 허공을 유영하며 다가왔다.

에이미 일행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대천사 카리엘은 최악의 변태였다.

@

리안과 카니스는 제불에 도착했다.

성벽을 넘자마자 확인한 제불의 풍경은 수없이 많은 원반들이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형상이었다. 연꽃 위에 세워진 공중 도시를 보는 듯했다.

밖에서 예상했던 대로 제불의 내부는 차원의 미로였다.

공간과 공간을 도약하는 방식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계산하기에 너무 복잡했다.

분명 어떤 규칙이 있을 테지만 두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페오페가 건네준 기억을 더듬으며 오직 좌표에 따라 걸음을 옮겼다.

몇 차례나 같은 장소로 이동한 끝에 카니스는 잉그리스로 가는 포탈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헤어지자. 길을 안다고 해도 찾는 건 다른 문제야. 한 사람이라도 먼저 가 있는 게 좋겠어.”

“괜찮겠어? 메카 시스템을 해제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가는 의미가 없어. 잉그리스에 적이 있다면 차라리 같이 해치우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지.”

카니스는 포탈을 돌아보았다.

특별한 장치는 보이지 않았지만 페오페가 전해 준 기억으로는 분명 이곳이 잉그리스였다.

여태까지 아무하고도 마주치지 않았기에 잉그리스에 적이 있을 확률은 희박했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적은 최소한 마라 이상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리안의 말대로 같이 움직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카니스는 생각을 고치지 않았다.

메카 시스템을 해제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어차피 확실한 건 없어. 둘이 간다고 해서 더 쉬울 거라는 보장도 없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지금은 그게 최선이야.”

리안은 납득했다. 레나에게 받은 시그나와 엑스드를 정비한 그는 제불의 동쪽으로 향했다.

카니스는 심호흡을 하고 승강장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딱히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었다. 좌표에 두 발을 딛자마자 바닥의 틈새가 벌어지더니 펑 하고 빛이 폭발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동안 풍경이 변해 있었다.

천사의 서고 잉그리스.

서고라는 말에 담겨 있는 따스한 느낌과 달리 인간미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기계적인 풍경이었다.

중앙의 제어장치를 기준으로 십자형으로 길이 나 있고 벽면은 수직으로 세워진 직사각형의 패널로 도배되어 있었다.

하비스트가 불쾌하다는 듯 모습을 드러냈다.

진동으로 세상을 느끼는 그에게 잉그리스는 일말의 여백도 없이 진동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었다.

카니스는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마도 모퉁이를 전부 돌아야겠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

## [209] 4. 천국의 진실 (3)

“아무도 없는 것 같군.”

“차라리 잘됐어. 마라인지 천사인지, 솔직히 놈들과 싸울 자신은 없으니까.”

카니스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케인의 기억을 물려받은 하비스트에게서 약한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너는 스승님과 다르구나.”

“기억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지. 나는 너를 지키도록 설계되었으니까. 냉철하게 말하자면, 이카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거야.”

결국은 그런 것이다.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열쇠는 시로네가 쥐고 있었다.

카니스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팀워크를 해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래도 메카 시스템을 해제하지 않으면 기회고 뭐고 없는 거잖아. 일단 좀 살펴볼까?”

카니스는 주위를 둘러보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함을 느끼고 벽으로 다가갔다.

일정한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패널이 마치 도서관에 책을 꽂아 놓은 것과 흡사했다.

손으로 패널을 더듬자 미약한 떨림이 느껴졌다.

가만히 누르는 순간 딸깍 소리가 났다.

경보 장치라도 울리면 낭패였기에 황급히 물러섰다. 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패널이 튀어나왔다.

카니스는 패널을 붙잡고 완전히 빼냈다. 유리처럼 투명한 직사각형의 전자기판이 패널에 연결되어 있었다.

세로로 세워 보고 가로로도 눕혀 봤다.

패널 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만지는 순간 유리판에 빛으로 만든 글씨가 새겨졌다.

‘그렇군. 천사의 서고라.’

카니스는 잉그리스에 박힌 어마어마한 양의 패널을 상기하며 깨달았다.

잉그리스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었다.

패널에 깜박이는 화살표를 만지자 페이지가 넘어갔다. 감탄하며 페이지를 넘기자 끝도 없이 문자가 이어졌다.

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고밀도 정보 체계였다.

문자를 읽을 수 없었기에 유리판 아래에 적힌 숫자에 자연스레 시선이 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스승님이 남긴 메모였다.

잉그리스

113-325-4739-49359-234

아케인이 남긴 기록은 이것이 전부였다. 아마도 패널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일 것이다.

카니스는 스승님이 잉그리스에 온 적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를 깨닫고 암흑 마법의 강화법을 발견했을 터였다.

카니스는 유리판의 문자를 살폈다.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하비스트,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알겠어?”

“아니. 나도 처음 보는 언어야. 아린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 순간 글자가 붕괴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유리판에 새겨졌다.

“자동 언어 변환? 말도 안 돼.”

잉그리스는 카니스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패널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무시무시한 정보 집적률이었다.

카니스는 유리판에 새겨진 문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은 꿈에 대한 정보였다. 대충 살펴보던 그가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드리모는 꿈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세계다. 방법은 꿈속에서 몽인夢人 루버를 찾는 것인데 사건과 비껴 나간 장소에 있기에 그를 발견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하다. 보통은 어떤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자식들을 돌보고 있다. 오직 루버만이 색을 내고 있기에 분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갔다.

“그를 만나게 되면 돈을 건네주면서 일감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라. 그러면 꿈속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직업을 알선해 주는데 세 번 거절하면 드리모로 보내 준다. 만약 마음에 드는 직업을 찾았을 시에는 원할 때까지 꿈을 즐기면 되지만 깨어났을 경우 기억에는 남지 않는다.”

카니스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하비스트를 돌아보았다.

하비스트가 어깨를 으쓱하자 다시 패널로 고개를 돌려 내용을 읽어 나갔다.

“드리모의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법칙을 무시하는 수많은 물건이 있다. 물건을 현실로 가져오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물건의 주인을 도와주고 대가로 그 물건을 받는다. 둘째, 관청에 가서 물건의 도난 신고를…….”

“그러면 안 돼.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카니스의 목소리가 뚝 하고 끊겼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잉그리스의 첫 번째 모퉁이에 앙증맞게 생긴 여자가 서 있었다.

피부는 연보라색이었고 눈은 날카롭게 찢어져 있었다. 연두색 곱슬머리가 풍성했고 머리 위에는 붉은빛을 내는 삼각형이 떠 있었다.

일각 마라였다.

간장감이 치솟은 카니스와 하비스트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부탁인데, 천천히 그것을 제자리에 놓아줄래? 설령 대천사라도 관리인의 허락 없이 잉그리스를 열람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

카니스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패널을 원래 있던 자리에 집어넣었다.

끌어당겨지듯 패널이 들어가면서 다른 패널과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미안하게 됐군. 이곳은 처음이라.”

생각할 시간을 벌기로 한 카니스는 사과부터 했다.

“그럴 것 같더라. 신민이라면 율법을 어길 리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이단이 들어온 건 오랜만이네.”

카니스는 그녀의 입 모양과 발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신감응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알지?”

“후후, 나는 언어 수집가거든. 게다가 명색이 잉그리스의 관리인인데 말이 안 통해서야 되겠어? 사실 횟수로 따지자면 제법 돼. 너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말이야.”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아케인이었다. 이어서 케르고 족장이 보냈다는 언로커 일행이 생각났다.

“카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

관리인이 화색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아하! 너 그거였구나? 당연히 알지. 너희 시간으로 200년 전에 이단들이 왔었지. 카둠이라는 사람의 수명을 300년 늘려 달라고 했거든.”

카니스는 그녀의 말을 듣고 확신했다.

잉그리스는 인간의 수명을 통제하는 장소가 분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단지 정보의 집적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의 수명을 바꾼다는 거야?”

“하아,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들어오네. 모르는데 여기는 어떻게 찾아오는지 몰라.”

관리인은 마치 선생님처럼 뒷짐을 지고 걸어 다녔다. 패널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애정이 듬뿍 담겼다.

“어떻게 수명을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이곳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이야.”

아카식 레코드는 카니스도 알고 있었다. 신화를 연구하면서 자주 접했던 단어였다.

우주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다는 초자연적인 정보 집합체.

천국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인다는 것은 신화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론이었다.

“불가능해. 네 말은 거짓이야.”

“호오? 어째서?”

“세상의 전부를 담은 기록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전부인지 어떻게 검증하지? 결국 어느 정도는 과장이 되었다는 얘기야.”

“흐음, 확실히 인간은 인간이네. 뭐, 너희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말도 맞아.”

카니스는 조금 울컥했다.

“그렇다면 아니라는 거야?”

“아카식 레코드는 그런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야. 이 세계가 그냥 아카식 레코드인 거지.”

“알아듣게 말해 봐.”

관리인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눈을 빛냈다.

“너도 인간이니까 메카인의 설명을 빌릴게. 2에 3을 곱해, 그런 다음 1을 더하면 몇이지?”

“당연히 7이지.”

“그래. 바로 그것이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지. 인간은 문제를 찾아야 답을 구할 수 있어. 수식을 알아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럼 너희는 다르다는 건가?”

“다르지. 그럼 천국의 방식대로 문제를 내 볼게. 나는 방금 7이라는 답을 얻었어. 내가 어떤 수식을 거쳐서 7에 도달했는지 맞혀 봐.”

카니스는 입을 다물었다. 알 수가 없다. 7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기 때문이다.

“이제 알겠어? 아카식 레코드는 그냥 정답이야. 이번에는 노르인의 말을 빌릴까? 어떤 표현을 써도 좋으니까 잉그리스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

언어는 본래의 의미를 완전하게 전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카니스도 아카식 레코드가 뭔지 깨달았다.

“잉그리스.”

관리인은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야. 잉그리스는 잉그리스인 거야. 네가 오기 전에도 잉그리스는 존재했어. 하지만 너에게 이곳은 어디에도 없는 존재였겠지. 어째서일까?”

“이름을…… 몰랐으니까.”

이건 심각한 사태였다. 카니스는 라가 수명을 조절하는 데 이름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았다.

이름. 그것이 전부다.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돌이나 바람에게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완전한 무라고.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데도 말이야. 의미를 부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우주에 우주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때, 비로소 우주가 생겨나는 거라고.”

천국은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정답은 없거나 혹은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정답에 도달하는 수식을 바꾸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7이라는 정답이 8로 변하든 9로 변하든 상관없는 것이다.

어떤 정답이 나오든 그것은 세상의 전부일 것이고, 그렇기에 완벽할 테니까.

“인간은 언제나 유일한 진리를 찾아 헤매지, 바보같이. 유일한 진리가 어디 있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게 전부인 거야.”

관리인은 패널들을 가리켰다.

“잉그리스는 메카 시스템을 이용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해 있어. 수식을 뒤틀어서 진리를 바꾸지. 이것을 해킹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수명쯤은 금방 고칠 수 있다고.”

카니스는 위기감을 느꼈다. 메카의 능력으로 진리를 파괴하는 기술력은 인류의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관리인이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며 주의를 끌었다.

“설명은 그만하고 거래하러 온 거면 저쪽으로 가자. 중앙 통제장치에서 수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

관리인이 은밀한 시선을 보내며 교차로의 중심에 서 있는 기계장치를 가리켰다.

카니스는 과거 라둠에서 봤던 암거래상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자 문득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라는 천국 소속이고 자신은 이단이다. 어째서 그녀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일까?

“거래를 하자고? 지금 바깥의 사정이 어떤지는 알고 있을 텐데.”

“응? 바깥의 사정? 천국에 무슨 일 있어?”

“설마 모르는 거야?”

“당연히 모르지. 나는 무려 잉그리스의 관리인이라고. 여기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수만 년 동안 바깥으로 나가 본 적도 없단 말이야.”

카니스는 그녀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 직감했다. 바빠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얘기한 부분만 빼고.

그녀는 이곳에 격리된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

아카식 레코드를 수정할 권한이 있는 관리인이 세상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 어떤 참괴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어쩐지 고작 일각 마라가 관리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하긴, 나한테는 차라리 잘된 일인가?’

어쨌거나 관리인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거래만 하고 돌아간다면 모를까 제불의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걸 그녀가 지켜볼 리는 없기 때문이다.

“거래라면 어떤 거래를 말하는 거지?”

“아이, 참. 다 알면서 왜 그래? 수명 말이야, 수명. 누구라도 수명을 늘려 줄 수 있어.”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관리인이 엄지와 검지를 살짝 떼며 윙크를 날렸다.

“아주 저렴하지. 단어 하나면 돼.”

“단어? 단어를 지불하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언어를 수집하는 마라거든. 덕분에 똑똑하지. 그래서 잉그리스 관리인도 하는 것이고. 어떤 단어든 상관없어. 네가 알고 있는 단어 하나만 나에게 팔면 돼.”

“단어를 팔게 되면, 나는 그 단어를 모르게 되는 거겠지?”

“그렇지. 평생 그 단어를 알 수가 없지. 아카식 레코드에서 지워지게 되니까. 하지만 상관없지 않아? 단어 하나 없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관리인의 말대로 세상에는 알면서도 쓰지 않는 단어들이 널리고 널렸다.

쌍욕 같은 것도 된다면 하나 정도 안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지만 값이 너무 싸다는 생각에 오히려 불안해졌다.

## [210] 4. 천국의 진실 (4)

“이해할 수가 없군. 어째서 이런 계약을 하지? 잉그리스 관리인이 천국의 일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너 또한 율법을 따르잖아. 이단에게 수명을 파는 게 정상적인 임무는 아닐 텐데 말이야.”

관리인은 멍하니 눈을 깜박거렸다.

“너 되게 직설적이다. 보통 이런 건 알면서도 모른 체해 주는 건데. 아무튼 좋아. 나는 개념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잉그리스 사서를 맡았어. 수만 년 동안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에게는 단어가 필요해. 이곳을 탈출하려면 말이야.”

황당한 소리였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마라의 수명은 영생에 가까울 것이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단어를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된다.

“네가 직접 아카식 레코드가 되려는 거로군.”

“호호! 바로 그거야! 이곳에서 정보를 통제하면서 깨달았지. 나도 신이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하나가 빠졌어! 내가 이곳을 나가는 정보만 빼 버렸다고. 그걸 채워야 해! 그래서 이단은 내 주요한 고객이야. 여기만 나갈 수 있다면, 나는 라보다 위대해질 테니까!”

하비스트가 정신 채널을 통해 말했다.

-카니스, 이 여자, 위험하다.

카니스의 생각에도 약간 맛이 가 있었다.

언젠가는 단어를 모아 아카식 레코드를 완성시키겠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심정은 이해가 되었다.

자신이라도 수만 년 동안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다면 미쳐 버리고 말았을 테니까.

관리인의 눈동자에서 점차 광기가 배어 나왔다.

“할 거야 말 거야? 아까부터 계속 뜸만 들이고 말이야. 너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냐?”

마라의 몸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어렸다. 강력한 적개심이 전해져 왔다.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전투다. 하지만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죽으면 친구들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

-카니스, 위험한 일이다. 신중해야 돼.

카니스도 이제는 리스크를 짐작했다.

단어 하나만 팔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제안은 어떤 인간에게도 유혹적이었다.

솔직히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자신과 아린이었다.

수명이 300년으로 늘어난다면 세상 부러울 게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

200년 전에 이곳에 온 언로커들은 계약대로 카둠의 수명을 늘리고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름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카니스가 수명을 걸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마라에게 이름을 알려 주는 게 과연 안전한 일일까?

카니스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반쯤 미쳐 있는 마라가 어떤 요구를 해 올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알고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는 없어. 메카 시스템도 해제해야 하고.

카니스가 침묵을 지키자 관리인의 얼굴이 괴물처럼 일그러졌다.

폭주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일각 마라라도 정면 대결은 불리하다. 계약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어.’

단어 하나를 넘긴다고 심각한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년 전에 왔던 자들은 분명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라고 했다.

역사에 사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봤다는 얘기였다.

‘어쨌거나 그들은 계약을 했다. 그건 확실해. 단어를 팔면 대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지?’

카니스는 200년 전의 상황을 상상해 보았다.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분명 스승님도 잉그리스에 왔다면, 대체 어떤 선택을 한 것일까?

‘그렇구나! 바로 그거였어!’

카니스는 작전을 지시했다.

-내가 시간을 끌어 볼게. 너는 메모에 적힌 일련번호의 패널을 찾아봐. 무언가 적혀 있을 거야.

-어쩌려고? 설령 암흑 마법의 강화법이라고 해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스승님은 잉그리스에 관리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도 일련번호만 남겨 놨다는 건, 우리가 찾던 게 아닐지도 몰라.

-그렇군. 알았어. 하지만 번호가 복잡해서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카니스의 그림자로 사라진 하비스트가 어둠에 흡수되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좋아, 거래를 하지.”

카니스가 포기했다는 듯 말하자 관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잘 생각했어! 그럼 누구? 네 수명을 늘려 줄까?”

“아니. 이번에도 카둠이야.”

“호오, 그래? 그 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참 복 받았네.”

“대신에…… 이번에는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려놔 줘. 잉그리스라면 가능하겠지?”

관리인이 어이없다는 듯 눈을 깜박였다.

수명을 늘려 달라는 사람은 부지기수여도 수명을 되돌려 달라는 건 처음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재밌겠다. 뭔가 사정이 생겼나 보네?”

카니스는 같은 미소로 화답했다.

케르고의 족장 카둠은 자신의 영생을 위해 부족민을 굶겨 죽이고 있다. 기아의 고통을 잘 아는 카니스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차피 부족민에게 뜯어낸 돈으로 300년이나 더 살아온 인간이다.

여기서 바로 죽여 버리지 않고 원래의 수명대로 되돌려놓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좋아,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관리인은 중앙 통제장치를 정신없이 두드려 댔다.

카니스는 호감을 드러내는 척을 하며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기계는 문외한이지만 일단 봐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었다.

“자, 됐다. 원래대로 수명을 복구시켰어.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좀 있어. 시간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그래도 이 사람 아마 오래 못 살 거야. 300년을 빼 버리니까 거의 생물학적 한계에 다다르는데?”

“상관없어. 살 만큼 살았잖아.”

“호호호! 인간치고는 많이 살았지. 자, 그럼…….”

카니스는 화들짝 놀라며 물러섰다. 어느새 관리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정신 상태가 휙휙 바뀌는 것을 보자 소름이 돋았다. 하비스트가 조금 더 빨리 움직여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계약 완료! 그럼 단어를 빼앗아 볼까?”

“크윽!”

두통을 느낀 카니스는 인상을 찡그렸다. 어떤 능력인지는 모르지만 규정외식이다.

문제는 대가가 아닌 계약이라는 점이었다.

상호 간의 계약으로 맺어진 규정외식이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등가교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젠장! 단어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었나?”

“깔깔! 물론 그렇지! 그냥 간 좀 보는 거야. 응? 괜찮잖아.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는지 볼까? 아, 이거 좋다. 이것도 좋아! 다 마음에 들어서 미치겠어!”

황홀한 표정으로 소리치는 관리인을 보며 카니스는 자신의 착각을 바로잡았다.

약간 맛이 간 정도가 아니다. 숫자에 미친 너드에게서 보이는 집착증과 흡사했다.

-하비스트, 아직 멀었어?

-기다려! 두 번째 항목까지는 찾았어.

두 번째 일련번호라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는 얘기였다.

카니스는 마법으로 시간을 끌어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마법이 발동되지 않았다. 어떤 개념을 떠올리면 그녀가 곧바로 삭제해 버리고 있었다.

‘제길. 이런 능력이었군.’

관리인의 규정외식 ‘머릿속 편집부’는 계약한 대상의 생각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

관리인이 카니스에게 시전하는 능력은 ‘권고’라는 것으로, 그의 생각을 편집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거부권을 발동하면 원래의 생각을 되찾을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전투에 치명적이었다.

“어때? 정신이 없지? 눈. 분노. 동료. 집중. 또 무엇을 편집해 볼까?”

“빌어먹을!”

카니스는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단어 하나가 빠져나갈 때마다 그와 연관된 언어 구조가 무너지는 바람에 머리 한쪽이 텅 비어 버리는 느낌이었다.

“깔깔깔! 이제 알았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200년 전에 그 인간은 나에게 모기라는 단어를 팔았지! 싫어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하비스트!

-거의 찾았어! 마지막 항목이야!

카니스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마음먹고 헝클어 버리는 통에 의식이 날아갈 지경이었다.

충분히 만족했는지 관리인이 카니스의 목을 붙잡고 들어올렸다.

연약해 보이지만 일각 마라의 완력은 타부를 능가했다.

“그 인간은 며칠 동안 모기가 나오는 악몽을 보다가 미쳐 버렸지. 상상이 가? 꿈에서는 나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인간이든 미쳐 버리지 않고서는 못 견딜걸. 깔깔깔!”

카니스는 역사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깨달았다.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그들은 동료를 잃은 것이다. 단어 하나의 가치는 결국 목숨이었다.

“사기꾼…… 같으니라고.”

“어머? 그러는 자기도 꿍꿍이속이 있었으면서.”

관리인은 카니스의 목을 움켜쥔 채로 고개를 돌렸다.

하비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의 패널이 모두 빠져나와 있었다. 아마도 패널을 뒤져 자신이 모르는 단어를 찾은 다음 그걸 팔려고 했을 것이다.

“후후, 나름 머리 썼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네가 팔 수 있는 단어는 의미가 부여된 것만 가능하거든. 아까 그렇게 설명해 줬잖아. 학습 능력이 없구나, 너?”

카니스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갔다. 혈액이 뇌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자, 그만 내놓고 편해지는 게 어때? 안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

-하, 하비스트…….

-찾았다! 카니스!

하비스트는 유리판에 적힌 기록을 손으로 더듬었다.

진동으로 세상을 느끼는 그였기에 판에 적힌 문장들이 정신 채널을 통해 스며들었다.

반쯤 뒤집어진 카니스의 눈동자가 제자리를 되찾았다.

“좋아, 단어를 넘기지.”

“후후, 잘 선택했어. 자, 어떤 단어가 나올까?”

‘권고’는 분명 강력한 능력이다. 하지만 진정한 무서움은 ‘강압’에 있었다.

계약에 의해 발동하며 상대가 제안하는 단어를 영구히 빼앗는 것으로, 그 여파는 생명과 직결된다.

관리인은 광기에 젖은 눈으로 카니스의 대답을 기다렸다.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의 단어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

그녀에게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유…….”

관리인의 미간이 살며시 찌푸려졌다. 유로 시작하는 단어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유. 레. 카.”

카니스는 곧바로 바닥에 떨어졌다. 목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쉰 그가 고개를 들자 관리인이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케인이 남긴 일련번호의 패널에 기록된 것은 암흑 마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마라 열전.

그중에서도 잉그리스의 관리인인 유레카에 관련한 기록이었다.

유레카가 처음부터 미쳤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성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생각을 편집하여 발상을 돕는 괜찮은 마라였다.

아마도 수만 년의 고독이 그녀를 이 지경으로 변하게 만들었으리라.

“아, 안 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카니스는 유레카를 알고 있다가 잊어버렸다.

결국 지금 상황은 존재할 수 없는 유레카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니 인과의 법칙에 따라 소멸할 수밖에 없었다.

“싫어! 조금만 더하면 되는데! 신이 될 수 있었는데! 불러 줘! 내가 누군지 말해 줘!”

“미안하지만…….”

카니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유레카의 눈동자에 충격이 깃들었다. 동공이 뒤집어지더니 절규에 찬 괴성이 잉그리스의 벽을 타고 질주했다.

유레카가 소멸하자 규정외식이 풀리면서 카니스는 다시 개념을 되찾을 수 있었다.

“후우, 진짜 이 짓도 못 해 먹겠네.”

카니스는 주저앉아 버렸다. 하비스트가 정보를 조금만 늦게 찾았어도 저세상으로 떠났을 터였다.

아, 여기가 저세상이었던가?

“카니스, 괜찮아?”

“어, 그럭저럭. 조금 쉬면 정신력도 회복될 거야.”

주인을 잃은 잉그리스는 썰렁했다.

카니스는 유레카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고독은 그에게도 아픈 단어였다.

하비스트가 그런 마음을 대변하듯 말했다.

“외로웠겠어. 수만 년 동안 이런 곳에서 썩었다니 말이야.”

“마라는 초기화될 뿐이라고 했지. 다음 생애에서는 지금보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지.”

묵념과도 같은 정적이 지나고 하비스트가 말했다.

“그런데 카니스, 한 가지 알려야 할 사실이 있다. 유레카라는 단어를 접한 순간 아케인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되살아났어. 아무래도 그게 어떤 키워드였던 모양이야.”

무언가를 깨달은 카니스가 벌떡 일어났다.

## [211] 4. 천국의 진실 (5)

“이중 잠금장치구나!”

“그렇지. 과연 치밀한 놈이야. 지금부터 아케인의 기억을 보여 줄 테니까 직접 확인해.”

하비스트의 기억이 흘러들어 왔다. 아케인은 동료와 함께 천국으로 온 모양이었다.

그러던 중에 혼자서 잉그리스에 들어오게 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유레카는 계약을 제시했다.

아케인은 잉그리스의 자유 열람권을 걸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시에도 그녀는 미쳐 있었으므로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아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스승님…….’

전투에서는 손조차 쓸 수 없었던 카니스와 달리 아케인은 조금도 밀리지 않고 유레카와 접전을 펼쳤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단어를 편집당한 상황에서 마법을 시전하는 거지?’

카니스는 조금 더 기억을 더듬었다.

해답은 아케인답다고 할 정도로 기발했다. 어비스 계열의 마법으로 기억을 모조리 지워 버린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팔 수 있는 개념도 없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케인은 언어의 형태소를 하나씩 복원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형태소로 조합이 가능한 모든 언어를 편집자의 반응과 대조하며 마라의 이름을 찾아내려고 한 것이다.

무한에 가까운 단어가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던 어느 순간 유레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창백하게 질린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케인이 없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아케인의 언어 조합 룰렛이 멈춘 위치는 유레카였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 짧은 순간에 수만 개의 언어를 조합했잖아.”

“생각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한계가 없으니까. 뭐, 그렇더라도 소설 같은 건 쓸 수 없겠지. 수학적인 거야. 형태소를 깔아 두고 알고리듬을 만든 다음에 룰렛으로 돌려 버린 거지. 젊을 때는 그래도 뇌가 쌩쌩했던 모양이구만. 어쨌거나 나를 만든 것만 봐도 천재니까. 암흑 마법을 고집하지만 않았어도 고작 3급 마법사 따위에 머물지는 않았을 거야.”

카니스는 아케인의 제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게다가 유레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스승님이 남겨 놓은 메모에서 비롯되지 않았던가.

아마도 유레카는 아케인이 떠날 때까지 숨어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에 아케인은 유레카의 정보를 찾아낸 다음 일련번호를 기록해 놓은 게 분명했다.

카니스의 머릿속에 아케인의 마지막 기억이 들어왔다. 이중 잠금장치의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자 전율이 흘렀다.

아케인은 기록이 아닌 기억으로 제자에게 위치를 전하고 있었다.

카니스는 아케인이 마지막에 서 있었던 자리로 걸어갔다. 그리고 스승님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며 패널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물론 당시의 아케인은 카니스를 제자로 받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 도착할 후배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백했다.

마법사여, 영원한 소년이 되어라.

아케인이 지정한 패널을 꺼내 들고 언어를 변환시킨 카니스는 유리판에 뜬 문장을 확인했다.

빛과 어둠의 서.

카니스는 페이지를 넘기며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중에 하나의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비스트가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천국에 온 목적을 달성했구나.”

“아니. 무사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 아린을 구해야 돼.”

“그래야겠지. 저쪽은 괜찮을까? 시간이 제법 지체됐는데.”

카니스는 패널을 하비스트에게 넘기고 중앙 통제장치로 갔다.

“리안이 도착하기에 적당한 시간이지. 기록을 복사해 줘. 나는 메카 시스템을 해제해 볼게.”

하비스트는 유리판에 손바닥을 대고 통째로 글자를 찍어냈다. 페이지를 넘기며 진동의 패턴을 모조리 외워 버리는 방식이었다.

중앙 통제장치에 도착한 카니스는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유레카가 화면을 터치하는 것을 훔쳐보면서 원리는 알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장비를 전문가처럼 다루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젠장, 뭐가 이렇게 복잡해?”

카니스는 아무 버튼이나 마구 눌러 댔다. 최악의 실수라고 해 봤자 고장 밖에 더 나겠는가?

어느 순간 제불의 전체 지도가 떴다.

대세계전에 손을 대자 화면이 확대되면서 수많은 항목이 줄줄이 이어졌다.

보안 시스템으로 들어가자 메카 시스템을 차단하는 설정이 눈에 들어왔다.

카니스는 주저 없이 해제를 선택했다.

지도에 점선으로 보이던 몇몇 구역이 선명한 선으로 드러났다.

“카니스, 기록은 전부 저장했어. 패턴으로만 기억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언어로 변환해야겠다.”

“좋아. 나도 한 가지 찾았어. 지도를 보니까 제불의 모든 구역에는 잉그리스로 가는 포탈이 설치되어 있어. 한마디로 이곳이 제불의 심장인 셈이지. 그러니까 포탈을 역으로 타면 대세계전에 가장 가까운 포탈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카니스와 하비스트는 잉그리스의 끝으로 달려갔다.

일이 좋게 풀려서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아린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리안이 늦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

시로네의 무의식으로 이카엘의 기억이 덩어리째 밀려들었다. 시간의 순서는 뒤죽박죽이었지만 생각의 속도보다 빨라서 모순을 느낄 수 없었다.

시로네는 이카엘이 전하는 라의 형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기괴함의 극치였다. 하지만 그가 담고 있는 지적 수준은 현세의 인간을 초월하고 있었다.

“부분이 변해도 전체는 완벽하다.”

라는 우주의 존재를 깨달은 최초의 지성이었다.

“우주는 신이 버리고 간 물건이다. 아무도 이것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가! 하지만 내가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이 우주는 나의 것이다.”

라가 첫 번째로 의미를 부여한 존재는 천사였다.

인과율 제1개체는 제2개체로, 거기서 다시 거인과 요정으로 세분화되었다. 그들은 각기 율법에 따라 행동하며 라의 의지를 퍼트렸다.

이카엘은 시로네를 어떤 세상으로 데리고 갔다.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었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키가 2킬로미터에 달하는 거인이 차원의 문을 통해 도착했다. 거인이 일어서자 얼굴은 구름을 뚫었고 산맥은 그의 허리 아래에 엎드렸다.

이카엘은 거인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일화의 술은 총 10단계로 이루어지고 그중에서도 6단계를 넘은 거인만이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수 있다고 했다.

거인이 포효를 터뜨렸다. 육체가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더니 피와 살점이 비처럼 떨어졌다.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르고…… 거인이 쓰러진 자리에 하나둘씩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를 만든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켜나갈 무렵 천사가 찾아와 소녀의 몸에 아이를 점지했다. 언젠가 아이는 네피림이 되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자 인간 사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갖춘 인간은 빠르게 성장했고 급기야는 스스로의 힘에 도취되어 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천국의 군대가 내려와 그들을 벌했다.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천국의 힘은 막강했고 천사와 마라는 수많은 문명을 멸망시켰다.

그럼에도 인간은 끈질기게 번성했고 또한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에 있는 갈리앙트라는 섬에 신을 부정하는 무리가 나타났다.

천사장 이카엘이 직접 나섰다. 만물의 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녀는 갈리앙트의 화산활동을 2만 배 이상 증폭시켜 화산 폭발을 일으켰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시로네가 살고 있는 연대와 흡사한 세계가 펼쳐졌다.

인간은 여전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불경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한 앙케 라는 마침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했다.

최후의 전쟁. 세상의 종말이었다.

시로네는 당시 천국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수십 미터 높이의 포탈이 열려 있고 그 앞에 거인과 요정, 신민들로 이루어진 천국의 군대가 출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천사의 바이브레이션이, 땅에는 갑옷을 입은 마라들의 포효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시로네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과거라는 것도 잊고 소리를 질렀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천국의 군대가 들어오면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출격 명령이 떨어지자 천사를 선두로 하여 엄청난 대군이 포탈로 밀려들었다.

시로네의 정신도 그들을 따라 포탈의 안쪽으로 들어갔다. 오색찬란한 터널을 지나 출구가 보였다.

긴장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이것은 지나간 기억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대체 인간은 천국의 군대를 어떻게 막아 낸 것일까?

‘역사에도 저런 전쟁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목적지가 눈에 보이자 마라들이 전의를 불태우며 악을 질렀다. 시로네는 그들보다 먼저 날아갔다. 그리고 포탈의 끝에 도착한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원래의 세상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는 창백한 공간. 그리고 그곳에 한 여성이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아드리아스 미로였다.

“거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미로는 울고 있었다. 홀로 대군을 노려보는 그녀가 주먹을 내밀며 마법을 시전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힌 듯 선두의 마라들이 멈추기 시작했다.

천사들이 난감한 듯 미로를 바라보았다. 반면에 마라들은 장벽을 두드리며 괴성을 질러 댔다.

“이 부정한 것! 라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똑똑히 기억해라, 미로! 종말은 유예되었을 뿐이다! 그때가 되면 너부터 죽여 주마!”

시로네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천국과 인간 세상에 뚫린 구멍 사이에 또 하나의 시공을 만들어 연결을 끊어 버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로의 시공이었다.

천사의 무리에서 덩치가 우람한 남자가 포탈의 끝으로 날아왔다.

대천사 유리엘이었다.

“이런다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최후의 전쟁을 피할 방법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히 쓰도록 해라.”

미로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짓깨물었다. 새로운 시공간이 들어차면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졌다.

유리엘은 미로를 매섭게 노려보다가 몸을 돌렸다. 그러자 천사들도 하나둘씩 천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라들은 끝까지 남아 악담을 퍼부었다. 점차 멀어지는 미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처절한 목소리로 절규했다.

시로네 또한 천국의 군대와 함께 멀어져 갔다. 하지만 미로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대마법사 아케인이 기억을 지우면서까지 세상에 일리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깨달았다.

어느 날, 인류가 멸망하려던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미로는, 지금도 자신만의 공간에 머무르며 세상의 종말을 유예시키고 있었다.

5. 천사의 마법식 (1)

시로네는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상쾌함이었다. 마치 긴 잠을 자다 일어난 것 같았다.

대체 얼마나 자고 있었던 것일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시로네가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안 돼! 친구들이……!”

이카엘이 시로네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잠에 빠진 시간은 5분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째서 몸이……?”

“제 빛이 침투하면서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저는 모든 걸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대로 이기린부터 타부까지 연달아 전투를 치르면서 소진했던 정신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아, 고마워요.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그나저나 어떤가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기분은?”

시로네는 이카엘이 전해 준 기억을 더듬었다. 마치 꿈을 꾼 듯 아련했지만 분명 꿈은 아니었다.

엄청난 사실을 알아 버렸다. 특히나 미로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차원과 차원을 연결하는 능력은 천사들의 전유물이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는 천사의 능력을 인간에게 전수해 왔어요.”

“그게 네피림이군요.”

“그래요. 네피림은 인간을 신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네피림은 반대의 일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런 문명은 대부분 신의 의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해요. 시로네가 살던 세상처럼 말이지요.”

시로네는 고대 마법의 기재가 다른 이유를 알았다. 언제부턴가 인간은 신의 의지에서 벗어났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온 마법이 스피릿 존이었다.

## [212] 5. 천사의 마법식 (2)

“거핀이라고 했어요. 거핀의 문을 만든 그 거핀이 맞죠? 미로는 어째서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죠?”

이카엘은 놀란 표정으로 눈을 깜박였다.

시로네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건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 갔다.

“거핀은 천국의 군대로부터 당신의 세상을 지킨 첫 번째 문지기예요. 미로는 이를테면…… 거핀의 후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미로가 첫 번째가 아니란 말인가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일단은 그래요. 맥클라인 거핀, 그 사람은 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 중의 1명일 거예요. 아니, 어떤 네피림보다 뛰어나죠. 그렇기에 인간을 신에게서 분리시킨 것이겠지만.”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카엘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굽어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났어요. 미로라는 후임자를 남겨 두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그래요. 그녀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장벽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로네의 세계는 멸망하고 말 테니까요.”

시로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지막에 보았던 미로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세상과 격리당해 기약 없는 고독을 맞이해야 하는 그녀의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교장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당시에 알페아스의 얼굴은 슬퍼 보였다. 아니, 가끔은 화난 사람처럼 무서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만약 미로가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격리당한 것이라면?

거기까지 생각한 시로네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범죄라고도 부를 수 없었다. 1명의 인간을, 영겁의 지옥으로 처박아 버린 결정이었다.

“대체 미로는 언제까지……?”

“지금도 천국의 군대는 최후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시로네 일행이 가져온 메타게이트에 좌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로네의 정신이 멍해졌다.

미로는 스케일 마법을 이용해 천국의 문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메타게이트는 천국에 새로운 게이트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설마…… 그럴 수가…….”

“아뇨. 가능해요. 메타게이트만 있다면 천국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미로의 시공을 우회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로네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건 자신들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일이었다.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짓을 해 버린 것일까?

“제가 도우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시로네의 친구들은 대세계전에 잡혀 있어요. 카리엘이 소녀들의 몸에 네피림의 정보를 심을 것입니다.”

“어째서죠?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피림이 이 마당에 무슨 상관이에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미로는 네피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력으로 이모탈 펑션을 열었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시로네의 세상에서는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어요.”

노르의 쉼터에서 네피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혼란이 왔던 이유도 그것이었다. 천사의 후예라기에는 언로커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만큼 시로네의 세상이 라의 의지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에요. 거핀은 인간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의지는 미로에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녀가 방어한 시간은 거핀에 비하면 초라해요. 하지만 성장의 속도로 봤을 때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시로네도 그 말에는 동의했다.

마법의 발전 속도는 확실히 빨라지고 있었다. 지난 100년의 성과가 근래 10년보다 못하다는 분석도 나오는 시점이었다.

“이번에는 인간들도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란 거군요.”

“맞아요. 소수이기는 하지만 인간 세상의 지배자들도 천국의 존재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대비를 하고 있겠죠. 지금은 1명이라도 더 네피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로네는 치를 떨었다.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인간의 몸에 천사의 정보를 주입하다니.

그런 이유로 에이미가 누군가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어째서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대천사라면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카엘은 슬픈 눈으로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아…….”

그런 것이다. 어째서 미로는 이카엘을 싫어하는가? 그녀가 천국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이기 때문이다. 이카엘 또한 한때는 천사장으로서 인간에게 징벌을 내린 존재였다.

“그래요, 저는 천사예요. 만약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 또한 인간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시로네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결국은 이런 것이었는가? 천국에서 누구의 도움도 얻지 못한 채 친구들이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제가…… 거핀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말이지요.”

이카엘이 눈웃음을 지으며 혀를 쏙 내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로네. 당신을 돕고 싶어요. 인간은 천사와 달리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죠. 최후의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로네는 멍한 표정을 짓다가 그녀의 말에 담긴 무게감을 깨달았다.

천사장까지 오른 대천사가 인간의 편에 서겠다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희망이 있었다.

거핀을 만나기 전이라고 했다. 이카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연관이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저는 힘을 봉인당한 몸. 게다가 방에서 나갈 수조차 없으니, 시로네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은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저의 힘으로는 천사를 이길 수 없어요.”

“맞아요. 천사는 강합니다. 게다가 카리엘이라면 제가 힘을 잃기 전이라도 함부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대천사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단순히 기를 죽이려고 이런 말을 꺼내지는 않았을 터였다. 시로네는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하며 그녀에게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친구들을 구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거예요.”

“정말요? 어떤 건데요?”

“천사의 마법진입니다. 그것을 시로네가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일로 말인가요?”

“맞아요. 천사는 광륜에 정보를 집적시켜 능력을 발동하죠. 시로네가 그것을 익힌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시로네는 샤마인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이카사가 광륜을 펼쳤을 때 느꼈던 위압감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더러 구사하라는 말인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인간은 오버 스피릿이 없기 때문이다.

성광체가 없으면 정보를 새길 공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마법진을 만들겠는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시로네가 천사의 마법진을 구사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의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카엘이 손가락 3개를 펼치며 말했다.

“먼저 성광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몸속에 있지만 특별한 방법을 통해 그것을 밖으로 빼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시로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카엘이 말한 개념은 사방식의 이탈형이었다.

확실히 이탈형이라면 천사의 오버 스피릿을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을 듯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성광체를 만들었다고 해도 광륜을 펼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원이 일그러지면 빛의 연산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고, 0.1퍼센트만 느려져도 천사의 능력은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없다. 하지만 정신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원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난관이에요. 두 번째는 더욱 심각하죠. 천사의 능력은 헤일로에 집적되는 엄청난 정보량에서 나옵니다. 수식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평생을 기록한다고 해도 부족한 분량이죠. 그것을 빛의 속도로 연산하는 것이 헤일로의 요체예요.”

시로네는 이카엘이 갈리앙트 화산을 폭발시킨 장면을 떠올렸다. 휴화산의 활동성을 무려 2만 배나 높여서 활화산으로 터트리는 능력은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었다.

“완벽한 원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수식은 어떡하죠? 인간의 머리로는 화산을 폭발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정보를 순식간에 계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도를 할 거예요. 정신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제가 시로네가 되어 헤일로를 구사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은 고스란히 시로네의 경험으로 전환되어 정신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 그런 방법이…….”

이카엘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방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극강의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칫하면 시로네의 정신은 깨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시로네와 동화한 저의 정신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시로네는 속이 울렁거렸다.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정신이 파괴되는 것은 상관없었다. 처음부터 목숨을 걸었으니까. 하지만 이카엘마저 위험하다면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만약 제가 실패하더라도…….”

“시로네, 다른 생각 하지 말아요. 저는 당신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은 친구들을 구하겠다는 생각만 하세요.”

시로네는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녀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세 번째 난관은 뭐죠?”

“마법진의 수식이 완성되더라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정신적 내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로네는 파멸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위험과는 별개예요. 하지만 버틸 수 없다면, 처음부터 이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버틸 테니까.”

마지막 관문만큼은 자신 있었다. 마법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그의 정신은 내구력에 강점을 보였다.

게다가 금강불괴의 경지에 올랐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해를 못 하고 있군요. 시로네가 절대로 붕괴되지 않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데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건 모순 같은데요.”

“아뇨. 전자와 후자는 개념의 층위가 다릅니다. 시로네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면 지금의 내구력으로 충분하겠죠. 하지만 상위 차원에서 태어난 천사의 개념은 질이 다릅니다. 물을 담는 데는 충분한 그릇일지도 모르지만, 그 물이 얼어붙으면 어떤 그릇이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그렇군요.”

산 넘어 산이었다. 그녀가 제시한 세 가지 난관 중에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정상이었다.

대천사의 마법진을 인간이 익히는 일이었으니 처음부터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는 게 좋았다.

“헤일로는 시로네의 정신을 내부에서부터 폭발시킬 겁니다. 선택은 시로네의 몫이에요. 이런 위험을 알고도 시도해 보고 싶다면 제가 도울 것입니다.”

천사에게 정신의 붕괴는 생명의 소멸과도 같았다.

이카엘이 모든 것을 걸고 도와준다면 시로네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친구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대천사의 진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해 볼게요. 아니, 해 주세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더라도 받아들이겠어요.”

“좋아요. 이제부터 시로네에게 행할 술법은 빙의라는 것이에요. 정신과 결합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죠. 보통은 파견천사들이 라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시로네는 여러 문헌을 통해 빙의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대천사가 직접 입을 통해 말하는 지금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빙의를 성공시키면 저와 시로네의 정신이 합쳐집니다. 제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시로네를 해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또한 시로네가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악은 저에게 스며들 겁니다.”

서로 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경고였다.

시로네는 이번에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카엘이 악한 마음을 먹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순수성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천사도 아니었다.

## [213] 5. 천사의 마법식 (3)

“당신을 믿을게요. 어떤 불안감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카엘은 미소를 지었다. 시로네가 이해가 빠른 소년이라 다행이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카엘은 눈을 감고 빙의를 시전했다.

그녀의 성광체가 시로네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자 시로네는 눈을 크게 떴다.

눈동자에서 섬광이 뿜어지고 2개의 정신이 합쳐지는 기묘한 느낌이 전해졌다.

-시로네, 기분이 어떤가요?

-어, 어? 이게…….

빙의를 처음 경험한 시로네는 당황스러웠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자신의 것인지 이카엘의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두 사람을 연기하는 기분이었다.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요. 제가 시로네고, 시로네가 저입니다. 그저 생각을 떠올리면 돼요.

어떤 방식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떠오른 생각조차 자신의 망상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

꼭 저 말을 떠올렸어야 했을까? 다른 생각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시로네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빙의는 예민한 술법이에요. 그저 받아들이세요.

시로네는 그저 믿기로 했다. 머릿속의 생각이 혼자만의 망상에 불과할지라도 진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마음이 편해지면서 심장박동이 안정을 되찾았다.

해프닝이 있었지만, 아직 천사의 마법진은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카엘은 첫 번째 난관을 넘어 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성광체를 만들 거예요. 정신을 밖으로 빼내세요.

시로네는 스피릿 존을 이탈형으로 변화시켰다.

천사의 광륜은 정수리 위쪽에 있지만 시로네는 정면으로 스피릿 존을 빼냈다.

인간에게 가장 익숙한 방향이기 때문이었다.

-이러면 되나요?

-네. 아니, 잘했어요. 무엇을 하든 시로네의 결단이 중요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마법진의 틀이 되는 광륜을 만들 거예요. 빛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는 겁니다.

시로네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자 아무 목소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저기…… 지금 하라고요?

-네. 지금 하세요.

조언이라도 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시로네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빛을 고리 형태로 확장시켰다.

직경 1미터의 광륜이 시로네의 정면에 탄생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멋졌다.

깔끔한 원이었고 밝기도 적당했다. 이 정도면 천사의 광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듯싶었다.

-턱없이 부족해요. 이렇게 일그러진 원으로는 막대한 정보량을 연산할 수 없어요.

예상대로 이카엘의 지적이 들렸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단위로 들어가면 엉망진창인 모양이었다.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완벽한 원이라는 건 개념에 불과할 뿐이다.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라는 말인가?

-완벽한 원?

시로네는 번뜩 깨달았다. 한 가지가 있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완벽한 원이.

-맞아요, 시로네. 이모탈 펑션이에요. 그렇기에 네피림을 천사의 후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모탈 펑션을 열어 정신을 끝까지 확장시킨다. 그것만이 완벽한 원이었다.

전체는 언제나 완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미 미로의 시공에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모탈 펑션을 100퍼센트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붙잡은 다음 형태로 구현하는 거예요. 제가 제어하겠지만 위험한 일인 건 확실해요. 할 수 있겠어요?

무한의 영역에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대천사의 능력을 익히는 데 필요한 첫 번째 관문이었다.

-해 볼게요. 한 번 해 봤으니 두 번째는 쉽겠죠.

사실 쉬울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실없는 소리라도 하지 않으면 긴장감에 미쳐 버릴 것 같았다.

시로네는 이모탈 펑션을 개방했다.

브레이크도, 망설임도 없는 방출이었다. 정신이 분해되면서 무한으로 퍼져 나갔다.

시로네의 정신은 아카식 레코드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그 자체로 완벽했기에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시로네! 시로네! 제 목소리를 들으세요! 자신을 놓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감각을 마음에 새기세요! 금강불괴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시로네는 최소 단위로 해체된 정신을 금강불괴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당겼다.

거대한 빛의 고리가 모든 것들을 쓸어 담으며 시로네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유리를 잘라 내는 듯 시리도록 차가운 소리가 터졌다. 이어서 시로네의 눈앞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광륜이 탄생했다.

광륜을 레일 삼아 회전하는 빛의 속도는 말 그대로 광속이었다. 이탈형으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스피릿 존은 엄연히 마법사의 정신이다. 그런 것이 정신에서 돌고 있으니 사고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한마디로 시로네는 이모탈 펑션이라는 개념을 현실 세계에 구현한 셈이었다.

이카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시로네! 이제부터 시로네의 광륜에 대천사의 고유한 전지를 새길 것입니다! 금강불괴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버텨야 살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붉은 섬광이 튀어나와 광륜의 중심에 충돌했다.

붉은 파문이 번지면서 1과 0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장 단순한 연산의 마법진이 탄생했다.

거기에서부터 점차 식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색색들이 섬광이 소나기처럼 광륜에 충돌하며 마법진을 새겼다.

수많은 마법진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회전했다.

각기 다른 크기, 다른 속도,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마법진의 모습은 마치 시계의 기관 장치를 연상시켰다.

시로네의 머릿속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최초의 톱니바퀴가 몇 개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다시 그 톱니바퀴들이 수백 개의 톱니바퀴를 돌렸다.

연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시로네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을 포기했다.

광륜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17만 개에 달하는 연산회로, 4,800개의 마법진이 드러내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어찌 알겠는가?

“으으으으!”

코피가 흘러내렸다. 이를 악물고 버텨 보지만 1억 줄에 달하는 수식이 끝도 없이 위로 말려 올라가고 있었다. 이것을 계산하는 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었다.

-시로네!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찰의 회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로네는 이카엘의 의도를 깨달았다.

계산은 할 필요가 없다. 복잡한 개념을 진리로 단순화시켜 시로네의 뇌에 그대로 찍어 버리려는 것이었다.

광륜에 새겨진 마법진의 개수가 4만 개를 돌파하자 시로네는 신의 영역을 체험할 수 있었다.

다름 아닌 빛의 연산 속도였다.

그럼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광륜에 담긴 개념이 인간의 용량을 초월한다는 얘기였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상상을 넘어서는 거대함인 것만은 확실했다.

-안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금강불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상위 차원의 존재가 담고 있는 전지를 인간이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이카엘이 말했던 세 번째 난관이었다.

-거의 다 왔어요, 시로네! 조금만 더 버티면……!

시로네의 여파가 이카엘에게 미치기 시작했다.

연산 진행률이 90퍼센트를 넘어서면서 마법진이 자동으로 종결을 향해 나아갔다.

시로네의 정신은 과포화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가 머릿속에 심어 놓은 폭탄이 터진 기분이었다.

금강불괴에 수많은 균열이 가는 게 느껴졌다. 정신이 깨지고 있다. 즉 미쳐 간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시로네의 마음은 심각한 파멸로 치닫고 있었다.

이카엘은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설령 마법진이 완성된다고 해도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정보량이 100퍼센트가 되면 금강불괴는 폭발해 버리고 만다.

그 순간 시로네의 정신에 특별한 변화가 발생했다.

금강불괴가 균열을 넘어 무수한 조각으로 박살나고 있었다. 이것이 현재 시로네의 정신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자 이카엘조차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금강불괴의 내구력이 0으로 수렴하는데도 정신의 형태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었다.

금강불괴를 물이 담긴 철구로 비유하자면, 현재 시로네의 상태는 물이 얼어붙는 과정이었다.

물이 얼기 시작하면 철구는 깨지게 된다.

하지만 고무공이라면 어떨까? 늘어난 얼음의 부피만큼 공의 크기도 커질 뿐이다.

그렇기에 시로네는 내구력을 미립자의 단위까지 분쇄하여 유연성을 더한 것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시로네의 철구는 산산조각 나 버렸지만, 그 안에 담긴 얼음의 형태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카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인간의 저력인가? 정신이 가루가 되어 버렸는데도, 어마어마한 심적 고통일 텐데도, 시로네는 최후까지 정신을 유지해 냈다.

그 의지는 시로네의 정신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 그것이 바로 금강불괴의 진화형, 금강태의 경지였다.

틀을 깨 버렸다. 오로지 내용물만 있다.

더 이상 파괴될 것이 없기에 시로네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금강불괴가 내구력의 극한이라면, 틀이 사라진 금강태는 인간이 추구하는 유연함의 극한이었다.

광륜에 새겨진 정보의 집적도가 95퍼센트를 넘어섰다. 가히 엄청난 정보량이었다.

하지만 금강불괴는 불어난 양만큼 크기를 키웠다. 그리고 다시 바짝 조여들어 천사의 정보를 가두었다.

-축하해요, 시로네.

이카엘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인간이 이토록 극과 극을 오갈 수 있을까?

시로네는 강함과 유연함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도약이었다.

천사의 정보에 파묻힌 시로네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다만 버티려고 노력했고, 전보다 수월해졌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었다.

천사의 마법진이 완성되자 비로소 의식이 돌아왔다.

수십 개의 마법진이 다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광륜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내부에는 수백 배나 많은 마법진이 작동하고 있을 터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법진이었다.

이카엘이 시전한 헤일로는 고스란히 시로네의 경험으로 들어왔다. 원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완성된 개념을 도장처럼 찍어 낼 수 있었다.

-해냈어요, 이카엘…….

그 말을 끝으로 시로네는 눈을 감았다. 의식이 멀어지면서 세상이 어둠에 잠겼다.

@

강렬한 빛에 시로네는 인상을 찡그렸다. 눈을 뜨자 이카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시로네? 기분이 어때요?”

시로네는 몸을 일으켰다. 어쩐지 좀 부끄러웠다.

이카엘을 만나고 벌써 두 번이나 의식을 잃었다. 상위 차원의 존재와 어울리는 것은 상당히 고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로네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물었다.

“이번에는 얼마 동안 기절해 있었죠?”

“조금 길어요. 20분 정도.”

“네? 어째서……?”

이카엘이라면 충분히 그 전에 깨울 수도 있었을 터였다.

시로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돌아보자 이카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로네는 쇼크 상태였어요. 강제로 깨워 봤자 최고의 상태로는 싸울 수 없을 거예요. 특히나 천사의 마법진을 구사하려면 시로네의 모든 정신력을 쏟아부어야 할 테니까요.”

이카엘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려스러웠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로네의 정신력은 강해졌어요. 게다가 충분히 회복했으니 전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시로네는 자신의 변화를 살폈다. 금강불괴의 경지에 올랐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작용이 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전보다 몇 배나 깊숙한 곳까지 정신이 빨려 들자 시로네는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았다.

‘최대 속도로 간다면 시간은 만회가 될 거야. 리안과 카니스는 어떻게 됐을까?’

어림짐작으로는 도착했거나 거의 도착할 시점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아직 만회할 기회는 남아 있는 셈이었다.

## [214] 5. 천사의 마법식 (4)

시로네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던 게 떠올라 이카엘을 돌아보았다.

“아, 저기…….”

이카엘이 고개를 저었다.

“아뇨. 저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또한 제 불찰입니다.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시로네에게 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이에요.”

시로네는 한사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카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제불의 성벽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을 터였다.

이카엘의 눈빛이 다정해졌다. 고집을 부리는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인간이었다.

“명심하세요, 시로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제 능력을 사용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시로네의 정신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해도 말이에요. 카리엘은 용의주도한 천사입니다. 친구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시로네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날 채비를 했다. 이카엘과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조심하세요. 무사히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시로네가 방을 나서고 문이 닫히자 이카엘은 지친 기색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홀로 남은 방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어째서인지 결핍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곳에 시로네가 있었다. 한바탕의 활극을 회상하던 이카엘은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시로네라서 다행이야.’

이카엘의 성광체가 광륜으로 열리며 빠르게 회전했다. 그러자 방의 한편에 적빛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부름에 응답하세요, 아슈르.”

이카엘의 정면에 정사각형의 유리판들이 나타났다.

수십 개의 교차선으로 연결된 유리판들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점차 색이 깃들면서 마라의 모습이 투영되었다.

머리 위에 3개의 삼각형이 떠 있는, 먹빛의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미남자였다.

이카엘의 앞에 무릎을 꿇은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슈르. 천사의 명을 받듭니다.”

유리판들의 경계선이 사라지며 아슈르의 모습이 입체감을 드러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시로네를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슈르는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카엘의 눈에 미안한 감정이 깃들었다.

“미안해요, 이런 일까지 시켜서.”

“저는 이카엘 님의 개념에서 태어난 존재. 그 어떤 명이라도 따를 뿐입니다.”

최상급 마라는 대천사의 직속 수행자다. 따라서 천국에서 가장 바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부른다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특히나 아슈르는 천국 최강의 마검사라고 불리는 이카엘의 호위기사. 비록 지금은 힘을 봉쇄당했지만 심부름이나 하고 있을 위치가 아니었다.

아슈르가 씩씩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카엘 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존재의 멸을 걸고 반드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카리엘은 강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제불에는 거인의 왕 이미르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르라는 말에 아슈르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이번 일에 관심을 갖는지는 모르나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르는 생물이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 무력에 도달한 자. 복잡하게 얽혀서 좋을 게 없습니다.”

아슈르의 얼굴에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드러났다. 그는 천국 최강의 마검사지만 천국 최고의 전사 자리는 언제나 이미르와 자신이 한 표씩 나누어 가졌다.

오로지 육체 능력만으로 최강의 자리에 오른 이미르의 가치를 높게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슈르는 인정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누가 최강인지 자웅을 겨루어야 할 터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르는 제 상대가 안 됩니다.”

이카엘은 전사의 자존심을 긁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정한 말투로 달랬다.

“후후, 저야 물론 아슈르가 최강이라고 생각하죠. 설령 이미르가 완벽한 상태로 찾아와도 아슈르가 지켜 준다면 하나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아슈르는 그제야 만족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입니다. 제가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이카엘 님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문 앞에서 몸을 돌린 아슈르는 긴장한 표정으로 존경하는 주인을 바라보았다.

가느다랗게 눈을 뜨고 있는 이카엘의 눈빛에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카리엘을 만나거든, 반드시 이 말을 전하세요.”

6. 천국 소동 (1)

시로네는 탑을 내려와 아라보트의 개활지를 돌아보았다.

제불로 향하는 길은 이기린의 기억이 가르쳐 주고 있었다. 순간 이동으로 가기에는 제법 먼 거리였다.

스피릿 존으로 들어가자 공감각을 통해 막대한 정보가 흘러들어 왔다.

“우와…….”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접해 보자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전과 같은 밀도를 유지한 채로도 스피릿 존의 직경이 1.5배나 늘어났다. 용적으로 환산하면 4배 가까이 정신력이 상승한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마법을 시전하는 데 드는 부담감이 4배나 줄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전보다 스피릿 존이 커지자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시로네는 타깃형으로 제불을 조준하고 공간 이동의 전지를 끌어 올렸다.

여태까지는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직경이 25미터나 늘어났으니 이제는 실전에 접목할 수 있었다.

25미터만 놓고 보자면 그리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사방식의 타깃형으로 변형하면 추가 거리는 100미터로 늘어나게 된다.

공간 이동을 10회만 연계해도 무려 1킬로미터 이상의 증가폭을 갖게 되는 셈이었다.

‘모두 기다려. 조금만 더 버텨 줘.’

친구들의 처지를 떠올리자 견딜 수 없이 마음이 불안해졌다. 하지만 금강태의 경지에 오른 시로네의 집중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전지와 전능이 합쳐지면서 빛의 소음이 천공을 수놓았다.

한 줄기 섬광이 제불이 있는 방향으로 솟구쳤다.

@

리안은 벌써 30분째 달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나 한 호흡에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은 일정했다. 한꺼번에 산소를 써 버리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퍼지고 말기 때문이었다.

카니스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냈을 시점이다.

리안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대세계전의 보안장치를 해제했거나, 죽었거나.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털어 냈다. 다른 사람 걱정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만약 카니스가 실패했다면 다음에 죽어야 하는 건 자신이었다.

“후욱! 후욱!”

테스처럼 몸을 가볍게 만드는 능력은 없지만 평생을 수련해 온 육체는 1시간 이상을 달려도 지치지 않았다.

그렇게 달린 끝에 대세계전과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다.

복도의 오른쪽은 전면 유리로 막혀 있고 그 너머에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제불은 수십 개의 판이 떠 있는 형태였으니, 이곳은 어떤 판의 최외곽인 셈이었다. 따라서 외곽을 따라 계속 달리면 대세계전으로 넘어가는 다리에 도착할 수 있을 터였다.

위치를 어림짐작한 리안이 다시 몸을 날리려는 순간 천장을 부유하는 어떤 물체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기의 드론이 호들갑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드론은 기계에 불과하지만, 움직이는 모습에서 테스의 다급한 심정이 전해져 왔다.

“테스? 무사한 거야?”

드론이 고개를 끄덕이듯 위아래로 움직였다. 아직까지 치명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쿵. 쿵. 쿵. 쿵.

리안이 지나온 길로부터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몸을 돌리자 거구의 남자가 성큼성큼 발을 뻗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리안은 시그나와 엑스드를 들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적. 달려오는 남자의 머리 위에는 성광체도 뿔도 보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거인이었다.

거인치고는 덩치가 너무 작았지만, 발을 내디딜 때마다 흔들리는 땅이 그의 위력을 짐작하게 했다.

‘괴물 같은 놈이다. 얼마나 근육이 무거우면 저런 체중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거인의 움직임은 둔중했다. 하지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몸이 쭉쭉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쿵!

거인은 발바닥을 내리찍는 것으로 리안의 앞에 우뚝 멈췄다.

일종의 힘의 과시였다.

관성을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근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너는 뭐냐?”

이미르가 물었다. 정말로 모르기에 물어본 것이었다.

시그나와 엑스드를 들고 있으니 메카인이겠지만 생김새는 노르인을 닮아 있었다.

“뭐라고 하는 거야?”

거인은 정신 공명이 불가능하기에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미르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언어보다는 무력의 육질을 재 보고 있었다.

“그렇군. 네가 천국에 난동을 부렸다는 이단이로구나.”

이미르의 몸에서 투기가 전해지자 리안은 본능적으로 물러나서 검을 치켜들었다.

오줌을 싸고 도망칠 줄 알았던 인간이 오히려 칼을 들이밀자 이미르의 마음이 격하게 움직였다. 시선과 시선이 격돌하는 순간이야말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좋은 눈이군. 인간치고는 상당히 깎아 냈구나.’

리안은 왼발을 뒤로 빼냈다. 체중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힘으로는 해 보기가 어렵다. 빈틈을 보이는 즉시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게 최우선의 전략이었다.

“정체를 밝혀라. 적인가, 아군인가? 만약 방해할 생각이라면 이곳을 지나갈 수 없다.”

이미르는 리안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강렬한 눈빛에서 백 마디 말을 읽을 수 있었다.

‘선택하라 이거군. 하지만 그건 내 역할인데…….’

이미르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일견 무식한 접근처럼 보이지만 리안의 호흡을 완벽하게 끊어 내는 타이밍이었다.

기습을 노렸던 리안은 낭패감을 느끼며 물러섰다.

그 모습에 이미르는 쾌감을 느꼈다.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다. 서로를 죽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벌어지는 모든 감정들을 그는 사랑했다.

리안에게 접근한 이미르가 말했다.

“적이다.”

리안의 머리털이 곤두섰다.

순간적으로 밀려드는 거인의 기운은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다. 너무나 커서 전체를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시작해 볼까?”

그 순간 천장에서 드론의 기계음이 들렸다.

“언. 어. 해. 독. 시작해 볼까?”

이미르의 시선이 한순간 천장으로 옮겨 갔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을 때 리안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타하!”

측면에서 날아드는 시그나를 이미르가 팔을 들어 막았다. 강력한 충격파가 터지면서 거인의 피부가 강풍에 떨리는 물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그나를 팔로 밀어 올린 이미르는 얼굴을 기울여 리안을 노려보았다.

먹잇감을 노리는 뱀의 눈빛이었다.

“멋진 기습이다. 그래서 미안해지는군. 검사라면 이쪽도 검으로 해 줘야 하는데 말이야.”

말과 동시에 이미르가 시그나를 밀어냈다. 이어서 몸의 좌우가 역전되더니 강력한 훅이 휘어지면서 들어왔다.

리안은 엑스드를 내밀고 몸을 웅크렸다.

이미르의 주먹이 방패를 때리자 굉음이 터지면서 엑스드의 홀로그램이 이미르를 강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미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튕겨 나간 쪽은 리안이었다.

바닥을 구른 리안은 무릎을 꿇고 중심을 잡았다.

팔에 장착한 엑스드가 대포에 맞은 듯 내장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미르가 어깨 너머로 얼굴을 세우고 씩 웃었다.

“보다시피…… 내 힘을 견뎌 내는 무기가 별로 없어서.”

“제길, 쪽팔리게…….”

천장에서 드론을 통해 테스의 시선이 전해져 왔다. 도움을 기다리는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을지 상상이 되자 더욱 피가 끓어올랐다.

“간다아아아!”

리안은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변칙적으로 시그나를 집어 던진 그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면서 등에 차고 있던 대검을 뽑았다.

이미르는 쇄도하는 시그나를 붙잡고 과자처럼 으스러뜨렸다.

동시에 리안이 대검을 내리그었다.

시그나를 쥐고 있는 이미르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쩡 하는 소리에 리안은 경악했다. 대검의 칼날을 주먹의 뼈로 받아 낸 것이다. 흡사 쇠를 때린 기분이었다.

리안은 검을 휘두른 역순의 동작으로 날아갔다. 이미르가 곧바로 추격해 와 주먹을 치켜들었다.

“재밌었다. 선물을 주지.”

“흐으으읍!”

리안은 대검을 땅에 꽂았다. 그리고 넓적한 면을 방패 삼아 어깨와 허벅지를 밀착시킨 다음 모든 체중을 실었다.

## [215] 6. 천국 소동 (2)

쾅!

이미르의 스트레이트가 강타하는 순간 대검만 남고 리안의 모습이 사라졌다.

빠르게 날아가는 리안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밀려들었다. 추가타를 막으려면 중심을 잡고 착지해야 한다. 가까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얼추 두 다리로 착지할 수 있을 듯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깨달은 건 자신의 몸이 구겨진 채로 바닥을 구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몸에 남아 있는 충격이 빠져나가자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뺨에 닿았다.

입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건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미르는 퍼져 있는 리안을 살피다가 바닥에 떨어진 대검을 주웠다. 인간에게는 대검이지만 이미르가 들자 흔한 장검처럼 보였다.

대검의 날을 살펴보던 이미르의 눈빛이 빛났다.

“호오? 이건 제법 유용하겠어.”

“내, 내놔. 그거…… 할아버지의…….”

리안이 다리를 떨며 일어났다.

날마다 한계까지 육체를 단련한 덕분에 충격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은 정상인보다 훨씬 빨랐다. 이른바 맷집이라는 것이었다.

이미르는 씩 하고 입가를 찢으며 대검을 던졌다. 대검이 바닥을 미끄러져 리안에게 도착했다.

“다시 해볼 거냐? 근성은 마음에 드는군.”

리안은 힘겹게 대검을 주워들고 다시 돌진했다. 힘의 격차는 분명하지만 이미르가 가려는 곳이 대세계전이라면 전투 외에 선택지는 없었다.

이미르와 리안이 복도의 중앙에서 충돌했다. 이미르는 대검을 막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쩡! 대검이 이미르의 이마를 강타했다. 아니, 이마로 막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했다.

이미르의 주먹이 큰 궤적을 그리며 날아들었다.

피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달은 리안은 눈을 부릅떴다. 죽어야 한다면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고 싶었다.

리안의 눈빛에서 이미르는 짜릿함을 맛보았다.

‘이름을 모르는 게 아쉽군.’

이미르의 주먹이 강풍을 일으키며 리안의 있던 곳을 가르고 지나갔다.

한동안 정적이 감돌았다.

이미르의 표정이 언짢게 변했다. 전투 중에 불청객이 끼어드는 것만큼 불쾌한 게 또 있을까?

기묘하지만 눈에 익은 현상.

주먹이 닿기 직전에 리안이 수십 개의 정사각형으로 쪼개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하여튼…… 높은 것들은 분위기를 탈 줄 모른다니까.”

리안이 있던 자리에서 3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정사각형의 유리판들이 점멸하더니 두 사람의 모습이 투영되었다.

흑발의 미남자 아슈르. 그리고 옆에는 리안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미르는 차갑게 웃었다. 천국에서 엉덩이 무겁기로 소문난 마라가 행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세계전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어, 바쁘신 분이 오셨구먼. 사모하는 분은 어디다 두고 전장을 기웃거리시나?”

“이미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만 돌아가라.”

“크크, 싫다면?”

“존재를 멸하는 수밖에.”

아슈르가 손바닥을 펼치자 허공에 30여 개의 유리판이 3열종대로 세워졌다. 그곳에 보랏빛 광채를 내는 길고 가느다란 장검이 투영되었다.

“시그널인가?”

아슈르의 능력 시그널은 모든 종류의 신호를 수집한다.

하나의 유리판에는 하나의 신호가 담기고, 그 판의 패턴을 조합하여 무한에 가까운 현상을 구현할 수 있다.

아슈르의 장검 ‘쇼크웨이브’ 또한 각기 다른 30개의 신호를 받아 만들어 낸 것이었다.

전자기 펄스의 영향으로 자체적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일단 파고들면 내부를 초토화시키는 살상력 만점의 무기였다.

리안은 멍하니 아슈르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중간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다.

“당신은 누구야?”

“가라. 아군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시로네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 낸 것이 분명했다.

리안은 이미르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슈르가 나타난 뒤로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

리안은 입술을 짓깨물고 대세계전으로 달렸다.

속에서 불이 끓어올랐다. 패배가 두려울 만큼 고결하게 자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번의 공격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테스의 드론이 뒤를 따르는 게 느껴졌다. 기계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가 전하는 위로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제길! 제길!”

리안은 전력을 다해 대세계전으로 달렸다.

@

아슈르는 여전히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리안을 따라 대세계전으로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이미르를 막는 게 급선무였다.

시그널의 능력인 ‘전송’을 사용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신호를 보내 순식간에 장소를 옮길 수 있지만 대세계전만큼은 불가능했다.

전자기파로 도배가 되어 있는 곳이라 신호가 전송되기를 기다리느니 뛰는 게 빨랐다.

리안을 먼저 보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물러서라, 이미르. 더 이상의 방종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미르가 아래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예쁘장한 천사님까지 버려두고 온 걸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이 터진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같이 좀 알면 안 되겠소?”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어째서인지 상관이 있다는 말로 들리는군.”

아슈르는 부정하지 않았다.

거인의 왕 이미르가 원하는 것은 전투였다. 오직 강하다는 이유로 육체를 빼앗긴 그는 본체의 힘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치열한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면에 이카엘은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카엘이 그것을 바란다면 아슈르 또한 따를 것이다.

자신이 나서는 한 천국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르가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슈르는 이미르의 명치에 쇼크웨이브를 겨누었다.

“대천사 이카엘 님의 명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

“크크크, 천박한 천사에게 그런 권한도 있었나?”

아슈르는 질풍처럼 달려들었다.

두 팔을 교차한 이미르의 팔뚝이 갈라지며 핏물이 튀었다. 전자기파의 진동이 뼈를 후끈하게 불태웠다.

아슈르는 모욕을 당한 시선으로 이미르를 짓눌렀다.

“한낱 거인 따위가 대천사를 능멸하느냐? 너는 그저 육신에 불과하다. 역겨운 혀로 고결한 정신을 능욕하지 마라.”

“한낱 거인?”

이미르의 한쪽 눈썹이 꿈틀했다.

“나는 이미르다.”

살기를 느낀 아슈르가 거리를 벌렸다. 하지만 이미르는 한 번의 도약으로 10미터를 따라잡았다.

이미르의 강력한 스트레이트가 복부를 꿰뚫었다.

“컥!”

아슈르의 눈동자에 충격이 담겼다.

시간 속에 멈춰 있던 그의 모습이 흐릿해지더니 신호를 담고 있던 180여 개의 유리판이 깜박거리다가 사라졌다.

이미르는 짜증 나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새로운 공간에 전송을 완료한 아슈르가 고고한 자태로 쇼크웨이브를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크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힘의 구속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너에게 동정받을 위치가 아니다. 네 육신이나 제대로 간수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하오?”

“빙염의 지옥.”

아슈르와 이미르를 둘러싼 공간이 유리판으로 둘러싸였다.

대략 2,400개에 달하는 유리판이 점멸하면서 열화와 냉기의 신호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불과 얼음이 10센티미터 간격마다 교차되는 광경이 눈을 어지럽혔다.

모든 신호가 전송되면 이곳은 어떻게 될까? 열에 타들어 갈 것인가? 냉기에 얼어 버릴 것인가?

“네가 자초한 일이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않소. 난 최강이니까.”

이미르는 야수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돌진했다. 그에 맞서 아슈르도 차가운 눈을 치켜뜨며 쇼크웨이브를 휘둘렀다.

전송이 완료되면서 열풍과 냉기가 동시에 휘몰아쳤다.

@

“테스!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와 간다!”

리안은 더 이상 산소를 아끼지 않았다. 아슈르와 헤어지고 10분을 달린 끝에 대세계전으로 가는 다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리의 길이는 1킬로미터였고 폭은 60미터에 달했다. 가드펜스가 없어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강풍이 불자 이유 없이 아랫배가 울렁거렸다.

다리의 끝에는 돔형의 구조물이 서 있었다. 친구들이 붙잡혀 있는 대세계전이었다.

건물이 보인다는 건 호재였다. 카니스가 메카 시스템을 해제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뭐야, 너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거야?”

뒤를 돌아보자 카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너, 어떻게 벌써 여기에?”

“포탈을 타고 왔지. 그나저나 얼굴은 왜 그래?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리안은 얼굴을 만져 보았다. 통증을 느낄 새도 없이 바닥을 구르는 바람에 부은 것도 몰랐다. 미안한 감정을 담아 드론을 올려다보았다.

‘걱정했겠구나, 테스.’

카니스도 그것을 살폈다. 설명을 듣지 않고서도 테스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천사에게 붙잡혀 가는 상황에서도 드론을 흘려보낸 것은 확실히 제법이었다.

“안쪽의 상황은 어때? 확인은 했겠지?”

“어.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양이야. 그런데…….”

갑자기 드론의 상태가 이상해졌다.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날아다니더니 전력이 끊긴 것처럼 뚝 떨어졌다.

리안은 황급히 받아 들고 살펴보았다.

작동 램프가 꺼져 있었다. 뇌파와 연결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테스의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증거였다.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몰라! 시간이 없어!”

리안이 먼저 몸을 날렸다. 다크포트라면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하늘 위에 떠 있는 다리는 온통 빛의 영역이었다.

리안을 붙잡은 카니스가 자존심을 죽이고 광자화 마법을 시전했다.

두 사람을 태운 섬광이 다리 위를 질주했다.

@

“이 나쁜 자식!”

에이미가 카리엘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테스와 아린의 얼굴 또한 일그러져 있었다.

머리에 심은 패널에서 정보가 침투하자 마치 술을 진탕 퍼마신 것처럼 정신이 어지러웠다.

“걱정할 것 없다. 생명의 술에 적합한 상태로 호르몬이 조절되는 것이니까.”

무심하게 여자들의 상태를 살피던 카리엘은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딱히 변하는 건 없어. 생명의 술이 끝난 뒤부터는 다르겠지만. 어차피 상관없지 않나? 생물이라면 어떤 존재든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다.”

“닥쳐! 그걸 왜 네가 정하는 거야! 바라는 대로 해 줄 것 같아? 이런 짓을 당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 버리겠어!”

카리엘은 혐오스러운 것을 본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해할 수가 없군. 너희는 벌을 받는 게 아니다. 네피림을 잉태하는 고결한 임무에 당첨된 것이야. 여태까지 생명의 술을 거부한 여성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영생을 얻고 싶지 않은 것이냐?”

“영생 따위 받고 싶지 않아!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을 거라고!”

“말이 통하지 않는군. 어쨌거나 변하는 건 없다. 패널에 담긴 정보가 전부 전송되면 돌이키는 건 불가능하니까.”

-생명의 술 진행률 20퍼센트.

천장에서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10퍼센트마다 안내를 하는 것 같았다. 실험당하는 입장에서 들으니 감정 없는 목소리가 더욱 으스스했다.

에이미는 수갑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다.

손만 빠져나온다면 이마에 심긴 패널을 붙잡아 뽑아 버릴 생각이었다.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테스! 에이미! 아린!”

대세계전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리안과 카니스가 경주를 하듯 동시에 들어왔다.

다리를 건너는 것까지 지켜보았던 테스가 소리쳤다.

“리안! 여기야! 빨리 이것 좀 풀어 줘!”

리안은 걸음을 내딛다 말고 움찔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세계전의 크기에 압도당한 탓이었다.

규모만이 아니라 기물과 기재도 생소했다.

한쪽에서는 행성이 회전하고 있고 반대편의 탑에서는 온갖 빛이 요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젠장! 여기는 뭐야?”

카리엘은 인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이까지 날아올랐다.

“여자들을 따라온 건가? 이것도 무지한 인간의 어리석음이겠지.”

“네가 주범이냐? 내 친구에게 이런 짓을 했으니 무사히 끝날 거란 생각은 마라.”

리안은 바짝 경계하며 검을 치켜들었다.

강하게 쏘아붙인 것과 달리 행동은 신중했다. 타락천사 이카사의 힘을 눈으로 봤던 리안은 대천사의 무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 [216] 6. 천국 소동 (3)

리안이 슬금슬금 간격을 좁히며 공격의 기회를 엿보자 테스가 답답한 듯 소리쳤다.

“이 곰탱아! 싸우는 건 나중에 하고, 우리부터 풀어 달라니까!”

“제길! 그러고 싶어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대천사가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아린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카니스, 이미 생명의 술이 시작됐어. 이마에 붙은 걸 패널을 떼어 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네피림을 잉태하게 될 거야.”

카니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리안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뭐? 그걸 먼저 말해 줬어야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 멍청아!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수갑부터 풀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어쩌니 해도 리안과 테스는 성향이 비슷했다. 승산이 생길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는 마법사와 다르게 리안은 패널부터 떼어 내자는 생각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눈앞에 충격파가 발생했다. 찌릿한 고통을 받으며 물러선 리안이 시선을 치켜올렸다. 허공에 떠 있는 카리엘이 언짢은 표정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다.

‘뭐지? 별거 아닌데?’

빈 공간에 충격파가 터지는 건 놀라운 일이었지만 예상보다 파괴력이 세지는 않았다.

대천사라는 직함에 주눅이 들어 있던 리안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대검을 움켜쥐었다.

카니스 또한 리안이 얻어 낸 정보에 주목하고 있었다.

-대천사의 능력이 예상보다 떨어지는군.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겠어.

-생명의 술인지 뭔지 때문이겠지. 인간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냐?

-그렇겠지. 하지만 의외인데? 우리가 왔는데도 이대로 가겠다는 건가?

천사는 강하지만 전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대천사 이카엘의 능력은 전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활성화였다.

하지만 그 개념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어떤 마라도, 심지어는 천사들조차도 벌벌 떠는 것이다.

카리엘 또한 탄생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폭발, 발화, 기계, 약물 등.

기존의 것을 조합하여 탄생시킬 수 있는 가짓수는 무한대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카리엘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생명이었다.

어떤 물체를 만들어 내든 탄생 그 자체에 집중되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

특히나 생물을 탄생시키는 생물의 술이라면 제아무리 대천사라도 대부분의 정신력을 들이부어야 하는 것이다.

“감히 대천사의 소명을 방해하다니.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건방지구나.”

카니스는 아무도 몰래 하비스트를 어둠 속으로 흘려보냈다. 시간을 끌다가 카리엘을 기습하면 그 틈에 여자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다.

“천사의 소명? 네피림을 만들어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언로커는 우리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에이미가 입을 열었다. 시간을 끄는 카니스의 작전을 간파한 것이었다.

“천국은 네피림을 이용해서 인간 세상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 쪽 세계에 언로커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야.”

“정복? 전쟁이라도 한다는 건가?”

“그래. 네피림은 신의 사도 같은 게 아니야. 점령지에 파견되는 첩자였다고.”

카리엘은 부정하지 않았다. 하찮은 인간의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라는 위대하고 천사는 우월하다. 대천사가 행하는 일에 인간의 개념이 간섭할 여지는 없었다.

“너희에게 감사해야 하겠지. 덕분에 최후의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에이미 일행의 시선이 카리엘에게 쏠렸다. 최후의 전쟁이라는 말도 불안하지만, 그것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최후의 전쟁이라니?”

“말 그대로다. 인간들의 세계는 조만간 멸망할 것이다. 여태까지 가증스러운 미로가 종말을 막고 있었지만 너희로 인해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카니스는 당혹스러웠다. 시로네가 찾던 여자가 종말을 막고 있었다니.

그러다가 아케인의 대응이 떠올랐다. 인류의 멸망이 걸린 일이라면 스승님이 기억을 지운 것도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왜 우리 덕분이라는 거지? 우리가 뭘 어쨌기에?”

“미로라는 여자는 천국과 인간 세상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가져온 메타게이트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다. 조만간 천국의 군대가 인간들을 무참히 불태울 것이다.”

모두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카리엘의 말이 사실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셈이다. 인류의 멸망이 자신들로 인해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다.

카리엘이 기계장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자, 보아라! 이카사가 가져온 메타게이트다! 생명의 술이 끝나면 좌표를 분석해 주마. 새로운 포탈이 열리는 순간 너희의 세계는 멸망하는 것이다!”

에이미 일행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

대세계전이 고요해졌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의아해진 카리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어서 그도 같은 표정이 되었다.

“…….”

메타게이트를 끌어안은 요정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카리엘은 뭔가 말을 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요정이 왜 여기 있단 말인가. 율법과도 다르고, 설령 율법이 아니더라도 인과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침묵이 어색했는지 페오페가 먼저 말을 건넸다.

“아, 안녕하세요.”

카리엘은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최소한 미친 것은 아니다. 부디 이번의 질문으로 적당한 개연성을 찾기를 바라며 말을 건넸다.

“너는 누구냐?”

“페오페인데요.”

카리엘은 울컥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격이 떨어지는 행위였기에 애써 마음을 다스렸다.

“그래, 페오페. 어째서 네가 여기에 있지?”

“아, 메타게이트를 찾아가려고요.”

“……그렇군. 그렇다면 어째서…… 하아, 그러니까 어째서 너 따위가 그것을 찾아가려는 거지?”

“그거야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카리엘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오로지 눈앞의 날파리를 폭사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손을 내밀었다.

한 방에, 화려하게 터뜨린다.

“죽어라.”

-하비스트! 지금이야!

대세계전의 어둠 속에서 하비스트가 튀어나왔다.

칼날처럼 예리한 그림자를 휘두르는 순간 카리엘이 천장까지 날아올랐다.

그 틈을 노린 카니스가 여자들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리안! 페오페를 지켜!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

리안은 곧장 방향을 틀어 페오페 쪽으로 달렸다. 당장이라도 테스를 구출하고 싶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마법사의 말을 듣는 게 좋았다.

“페오페! 이쪽으로 와!”

갑작스러운 전투에 당황하던 페오페가 리안의 목소리를 듣고 날아왔다.

카리엘이 하비스트의 추격을 따돌리며 페오페를 노렸다. 하지만 리안이 먼저 검을 잡고 자리를 지키자 급격히 방향을 틀어 다시 천장으로 날아갔다.

한시름을 놓은 리안이 페오페를 돌아보았다.

“후우, 괜찮아?”

“몰라!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빨리 이거나 받아!”

페오페의 얼굴이 수프처럼 창백했다. 무려 대천사를 도발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받아쳤는지 알 수가 없었다.

리안은 메타게이트를 건네받았다. 아무리 목석같은 그라도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메타게이트를 발동하면 적어도 자신은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물론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상황이 얼마나 호전되었는지를 떠올리면 용기가 불끈 솟았다.

“고마워, 페오페.”

“착각하지 마! 나는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페오페는 말을 멈췄다.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라 속마음을 감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천사의 명을 거역하고 인간을 도왔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 버린 행동이었다.

변명을 포기한 페오페가 볼멘소리를 냈다.

“그,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제 나는 끝장인데.”

“같이 가자.”

“뭐?”

“우리랑 같이 가자. 저쪽 세상에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 네가 우리를 구했으니, 우리도 너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페오페는 황급히 돌아섰다. 솔직히 이건 좀 감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인간들의 세상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것을 바라고 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됐어, 이 바보야! 친구들을 구한 다음에나 생각해!”

리안은 주위를 경계하는 한편 카니스의 진척 상황을 살폈다. 현재 카니스는 여자들의 수갑을 어둠의 권능으로 절단하고 있는 중이었다.

-생명의 술 진행률 40퍼센트.

천장에서 음성이 들리자 에이미가 소리쳤다.

“빨리! 시간이 없단 말이야!”

“조용히 좀 있어, 이 호박아! 정신이 흔들리면 손목까지 절단된다고!”

카니스는 칼날처럼 예리한 그림자를 회전시켜 세 사람의 수갑을 자르고 있었다. 여자들의 살과 완전히 맞닿아 있었기에 정밀한 작업을 요했다.

하비스트를 피해 움직이는 카리엘은 슬슬 짜증이 났다. 차라리 생명의 술을 취소하고 이들을 몰살시켜 버리는 게 어떤가 싶기도 했다.

탄생의 능력으로 죽이는 방법이 아마도 5만 가지는 될 것이다.

하지만 생명의 술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정보 전송률이 40퍼센트를 넘어가는데도 어떤 여자에게서도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최고의 소재들이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

카리엘은 궁여지책으로 포탈을 열었다.

남아 있는 정신력이라면 제법 괜찮은 마라를 소환할 수 있고 게다가 상황에 딱 맞는 적임자까지 떠올랐다.

“부름에 응답하라, 바알브.”

새로운 마라가 등장하자 대세계전이 불길한 색으로 물들었다. 카니스를 제외한 모두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뿔의 개수부터 확인했다.

이각 마라였다.

“수면마 바알브. 카리엘 님의 명을 받듭니다.”

멋스럽게 늙은 중년 남성이었다. 머리는 기름을 발라 뒤로 넘겼고 드러난 귀가 쫑긋했다.

키는 천사와 맞먹을 만큼 컸는데 머리보다 높은 깃의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인간을 제압해라. 생명의 술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확실히 저의 전공이로군요. 알겠습니다.”

바알브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지상에 착지했다.

“페오페, 잠시만 맡아 줘.”

페오페에게 메타게이트를 맡긴 리안이 바알브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돌진했음에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바알브에게 다가가는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뭐지? 갑자기 졸음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상황에서 졸음이 온다는 건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

분명 어떤 능력이다.

거기까지 깨달은 리안은 황급히 물러섰다.

비가시적인 영역을 벗어나자 의식이 되돌아왔다. 하지만 수면 부족의 피로는 고스란히 육체에 남아 있었다.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젠장, 이건 또 무슨 개수작이야?”

거인에서 요정, 마라에서 천사까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천국에 와서 친구들의 짐만 됐다는 생각에 수치심마저 들었다.

바알브가 점잖은 자태로 몸을 돌렸다.

“소용없소. 당신은 나에게 검을 휘두를 수조차 없을 테니.”

붉은 보석이 바알브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고 있었다. 어쩌면 저것이 문제인가?

검도의 자세를 갖추고 천천히 간격을 좁혔다. 예상대로 일정 경계선을 지나자 붉은 보석이 빛을 발하더니 다시금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젠장. 역시 저거였군. 도대체 뭐지?’

누구도 보석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마도 생물체 하비스트만큼은 특유의 파장을 읽어 냈다.

-카니스, 안 좋은 상황이다. 일단 물러서는 게 좋겠어. 오브제다.

-오브제? 저게 오브제라고?

카니스 또한 아케인에게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

오브제는 사물이다.

보통의 사물과 다른 점이라면 외부 세계에 이상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어떤 오브제는 인간에게도 친숙하다.

저주받은 블루 다이아몬드랄지, 하늘을 나는 양탄자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했다.

인간들도 제법 수집하는 물건인 만큼 수많은 세상을 돌아다닌 마라들이 하나쯤 갖고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떤 마라가 소유한 흡혈의 오브제는 주위의 피를 빨아들인다고 한다. 또한 증오의 오브제는 분노를 일으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 수도 있었다.

바알브의 오브제는 수면의 오브제로,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어떤 생물이라도 잠에 빠져들게 하는 물건이었다.

## [217] 6. 천국 소동 (4)

보석의 회전이 빨라지자 카니스에게까지 영향이 미쳤다.

엄청난 졸음이 밀려들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아 보지만 이대로 수갑을 절단하다가는 여자들의 손목이 날아가고 만다.

‘안 돼! 아린을 두고 갈 수는 없어!’

짓깨문 입술에서 피가 새어 나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에이미와 테스는 어떤 조언도 해 줄 수 없었다.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린뿐이었다.

“카니스, 아직 시간은 있어. 일단 물러서. 이러다가 네가 먼저 쓰러지겠어.”

“제길! 제길!”

물러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자르면 되는데. 스승님처럼 막강한 힘이 있었다면 지금쯤 수갑을 전부 잘랐을 텐데.

-정보 전송률 50퍼센트.

“반드시 구해 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카니스는 차마 여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오브제의 영향권 밖으로 멀어졌다.

거짓말처럼 정신이 돌아왔다. 하지만 당시의 고통은 잊히지 않았다. 수면 마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제력이었다.

‘맞아, 강제력. 그것이 오브제의 특징.’

오브제는 사물계의 돌연변이다. 어떤 우주적 오류로 인해 사물의 개념 자체가 뒤틀려 버린 것이었다.

따라서 인과율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오브제의 능력을 막아 내기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타임 리미트가 걸린 상황에서 수면마를 부른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리안, 물러서 있어. 내가 상대할게.”

카니스가 리안과 자리를 바꾸었다. 정신 능력이 취약한 검사에게 수면의 오브제는 쥐약이나 다름없었다.

페오페가 대세계전의 입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얘들아! 저기를 봐!”

거인 이미르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다.

리안의 눈동자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처음 봤을 때보다는 덩치가 작아진 느낌이 들었지만 분명 그 거인이었다.

냉철한 카니스도 이번만큼은 화를 감추지 못했다.

“제길! 거인까지 오다니!”

“침착해. 거인은 내가 맡을게. 너는 바알브를 해치워.”

상성을 고려하면 옳은 판단이었다. 하지만 리안은 상성을 제외하고라도 직접 상대하고 싶었다.

첫 번째 승부에서는 치명상조차 입히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장기를 보여 줄 차례였다.

리안이 입구에 도착하자 페오페가 메타게이트를 들고 날아왔다.

“야, 이건 어떡해?”

“나 대신 지켜 줘. 우린 반드시 돌아갈 테니까.”

“뭐? 이런 중요한 걸 내가 어떻게……!”

페오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부담스럽고 과분한 요구였지만 리안의 얼굴을 보고서는 아무런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반드시 돌아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만약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리안은 페오페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딴 건 얼마든지 줘 버리고 도망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아니니까.”

페오페는 입을 꾹 다물고 미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째서 인간들은 하나같이 어리석은 자들밖에 없을까?

“헛소리하지 마!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내가 죽더라도 이걸 지켜 주기를 바라잖아! 이게 없으면 너희는 돌아갈 수 없다고!”

리안은 대답이 없었다.

“이 바보야! 상대는 이미르야! 거인의 왕 이미르라고! 싸우면 무조건 죽어!”

리안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름이 이미르였나? 그냥 거인도 아니고 거인의 왕이라.

그렇다면 최후의 상대로는 부족함이 없다.

페오페는 가슴이 먹먹했다. 저것이 인간의 생인가? 요정에 비하면 하루살이만큼이나 짧은 생이기에 필사적으로 불태우려는 것인가?

리안은 입구를 가로막았다. 마치 개기일식처럼 역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커보였다.

“이름…… 이름이…….”

페오페는 목이 잠겨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었다.

“이름이 뭐야?”

그렇게 리안에게 물었다. 천국에서 이름을 알려 주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페오페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젠트 리안.”

대검을 치켜든 리안이 페오페를 돌아보며 말했다.

“시로네의 검이다.”

쿵!

대검을 바닥에 깊숙이 박아 넣은 리안은 칼날에 등을 기대고 중심을 낮췄다.

이미르가 괴기스럽게 입가를 찢으며 달려왔다.

“크크크! 두 번째로 붙는 건가? 그 정도는 되어야 전사라고 할 수 있지.”

“덤벼라, 거인의 왕.”

이미르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돌진했다.

바윗덩어리가 굴러오는 듯한 위압감을 느끼며, 리안은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고 기합을 내질렀다.

“으아아아아아!”

몸을 웅크린 이미르의 어깨가 리안의 상체에 처박혔다.

대검이 휘어질듯 구부러지다가 탄성을 받아 되돌아왔다.

우드드득!

리안의 배 속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목에서 튀어나온 핏물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

쇼크웨이브가 이미르의 가슴을 관통했다.

천국 최고의 마검사와 전사의 격돌이 일어났던 전장은 초토화되어 있었다.

그들이 지나갔던 자리마다 함몰된 흔적이 남았고 유리창이 깨진 곳으로부터 바람이 들어왔다.

이미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웃고 있었다. 충격파의 시그널이 밀려들면서 세포 단위로 몸이 분해되고 있었다.

“크크크, 제법이군. 기분이 어때? 나를 찌른 기분이.”

아슈르는 입맛이 썼다. 육체를 빼앗긴 이미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일 검을 허용할 자가 아니었다.

“……너의 ‘부분’이었나?”

이미르는 전무후무한 일화의 술을 10단계까지 달성한 거인이다. 얼마나 많은 육체를 흡수했는지 아는 사람은 라밖에 없지만 족히 1만은 넘어갈 것이라는 게 정설이었다.

“거인이라고 머리를 쓰지 못하는 건 아니지. 천천히 오라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미르가 스르륵 주저앉자 아슈르의 검이 머리를 가르며 빠져나왔다.

잠시 후 이미르의 몸에서 기포가 부글거리더니 검은 액체로 풀어졌다.

아슈르는 발밑을 적시는 액체를 노려보았다. 손바닥을 펼치자 그의 검이 시그널로 변해 사라졌다.

“제길, 방심했군.”

이미르는 전략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약한 자들의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자존심을 버리고 대세계전으로 가는 것을 택했다.

동물적인 본능? 아니, 초인적인 본능이었다.

이미르는 단순한 것을 좋아하지만 언제나 복잡한 것을 이긴다. 한 가지의 특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바로 전쟁의 냄새를 맡는 본능이었다.

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미르는 전쟁의 핵심에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대세계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자신의 육체를 찾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늦었을지도 모르겠군.”

성향은 반대지만 이미르의 후각은 신뢰할 만했다.

그런 그가 전투를 포기하고 사라졌다는 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얘기. 생각보다 대세계전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게 분명했다.

아슈르는 바닥을 박차며 전장을 벗어났다.

@

“카니스! 물러서! 더 이상은 안 돼!”

아린이 소리쳤다. 오브제의 영역에 들어간 지 벌써 10분이 지났다. 그럼에도 카니스는 물러서기는커녕 마법의 연사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었다.

바알브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듯 자리를 피해 버렸다. 이각 마라는 기본적으로 카니스의 능력을 상회하지만, 오브제가 있는 이상 직접 나설 일은 없을 터였다.

수면의 오브제는 생물체를 잠에 빠트리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부할 경우였다.

억지로 버틴다면 수면 부족의 피로가 누적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재 카니스의 정신은 대략 8일 동안 잠을 자지 않은 것과 맞먹는 상태였다.

“인간치고는 제법이군.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카니스는 정신을 차렸다.

조금 전에 바알브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다. 눈으로 보는 풍경이 뇌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카니스! 정신 차려!

하비스트가 정신 채널을 통해 소리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정신이 마비되기 시작했는지 대답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주인이 꽤나 신경 쓰이나 보군. 하긴 생명을 공유하고 있으니 당연한가?”

카리엘의 말에 하비스트가 돌아보았다. 현재 대천사는 지상으로 내려와 상황을 관조하고 있었다. 하비스트의 힘이 약화되었음을 간파한 게 분명했다.

“어둠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것을 인간의 생명으로 보충하는 것인가? 재밌는 발상이지만 힘을 분산시킬 뿐이야.”

카니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엎드려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알았다. 심지어는 입가에 침이 흐르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아린, 모두가 살아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안 돼! 카니스! 그건 절대로 안 돼!”

아린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스승님의 성격을 닮은 카니스가 이런 상황에 시도할 방법이라면 아케인이 죽음 직전에 꺼냈던 카드밖에 없었다.

하비스트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카니스, 설마 어비스 메모리냐? 하지만 너는 아케인과 달라.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

카니스는 고개를 저었다. 겨우 그 정도의 각오로는 이각 마라를 해치울 수 없었다.

-아니. 전에 말했던 것을 해 볼 거야. 네 힘이 필요해, 하비스트. 도와줄 수 있겠지?

-안 돼. 그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마법이다. 실험을 해 본 적도 없잖아. 최소한 빛과 어둠의 서를 해석하고 난 뒤에 시도해 봐야 해.

-하비스트, 우리 중에 누군가 살아야 한다면 그건 아린이야. 너도 알고 있잖아.

하비스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기에 카니스의 말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것은 자신의 소멸을 의미했다.

-알았다. 내 힘을 주지.

하비스트의 몸이 카니스의 그림자로 흡수되었다.

조금이나마 의식을 되찾은 카니스는 죽음을 각오했다.

딱히 어떤 상황에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다. 그저 영원한 무의 세계로 기꺼이 들어갈 뿐이었다.

“심연의 한계(리미트 오브 어비스).”

이론으로만 설계한 마법이 발동됐다.

순간적으로 정신의 피로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아케인처럼 기억을 지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지운 것은 한계였다.

카니스는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었다. 아마도 시로네처럼 지고의 경지에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뛰어넘었다.

불을 모르는 아이들은 기꺼이 불꽃에 손을 집어넣고, 고승들은 스스로 몸을 불태워 좌탈입망으로 들어간다.

무지와 돈오의 차이는 현격하지만, 스스로 불에 뛰어드는 정신적 크기는 같다.

카니스는 깨닫는 고승이 될 수 없다면 무지한 아이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일시적인 이모탈 펑션 상태였다.

물론 실제로 열반에 이른 것은 아니다. 다만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유사한 정신력을 얻을 수 있었다.

“간다!”

심연의 한계의 지속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피로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쌩쌩 날아다니는 카니스의 모습이 아린에게는 지옥이었다.

“카니스!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카니스와 하비스트가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카니스는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처음으로 성공시킨 마법에 약간의 희열까지 느끼며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마법을 시전했다.

‘어둠의 권속.’

마법사의 정신을 물리력으로 변환시키는 마법. 아케인은 다크 골렘이었지만 카니스의 권속은 전혀 다른 형태였다.

바닥에 수면처럼 그림자가 퍼지더니 웜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지렁이가 솟구쳤다.

“스승님…….”

이모탈 펑션에 준하는 정신력을 얻을 수 있다면 어둠의 권속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마법이었다.

‘칭찬해 주실 거죠?’

10미터 길이의 지렁이가 포물선을 그리며 수직으로 떨어졌다.

바알브는 긴장하지 않았다. 팔짱을 풀지 않은 채로 무심히 멀어질 뿐이었다.

“제법이군. 이번 것은 칭찬해 주…….”

바알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에서 또 한 마리의 다크 웜이 솟구쳤다.

역류하는 폭포가 바알브를 삼킨 채로 천장까지 치솟았다.

오브제가 퍼석 깨지고 바알브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기괴하게 뒤틀린 바알브의 시체가 떨어졌다.

## [218] 6. 천국 소동 (5)

카니스는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가 어지럽다 못해 뇌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편해질 수 없었다. 최후의 순간까지 아린을 위해 싸워야 했다.

“바알브, 꼴이 말이 아니구나.”

카리엘의 음성에 바알브의 몸이 움찔거렸다.

“죄송합니다, 카리엘 님.”

카니스의 얼굴이 멍해졌다. 분명 온몸의 뼈를 다 부숴 놓았는데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단순히 살아 있는 게 아니었다.

각각의 신체 기관이 이상한 형질로 변하고 있었다.

갑각으로 둘러싸인 곤충의 다리가 튀어나오고 연체동물과 흡사한 촉수가 뻗어 나왔다.

“악마각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알브의 덩치가 산처럼 커지자 모두 고개를 수직으로 쳐들었다.

온갖 생물이 잡탕으로 뒤섞인 거대한 생물체였다.

잡탕이라는 말이 딱 맞았다.

문어와 바퀴벌레, 파리, 구더기, 뱀 같은 것들을 솥단지에 넣고 끓인 다음 물기를 말리면 정확하게 저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았다.

“키키키! 각성을 한 것은 2천 년 만이군.”

“이젠…… 끝인가.”

카니스의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오브제는 그저…… 마라의 노리개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

“리안, 리안…….”

페오페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리안을 돌아보았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도 그는 싸우고 있었다.

아니, 막아 내고 있었다.

첫 번째 충돌에서 피를 토한 리안은 그 상태로 이미르를 끌어안고 정신적 잠금장치를 걸었다.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다.

위험한 길을 택한 대가로 얻은 것은 스키마에 준하는 육체 능력이었다.

이미르는 리안의 몸을 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연거푸 주먹을 올려쳤다.

리안의 몸이 충격에 흔들릴 때마다 대검이 휘청거렸다.

“크윽! 아직……!”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미르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힘의 기질이 쇠처럼 딱딱하다. 생물이 낼 수 있는 완력이 아니었다. 게다가 배 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 힘을 낼 수 없어야 정상이었다.

‘인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문데.’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아주 낮은 빈도로 그런 자들을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문명을 대표하는 최강의 전사였다.

거인의 술조차 쓰지 못하는 인간을 같은 급으로 놓는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 것이다.

“크크! 어디 끝까지 한번 가 보자고!”

이미르는 초근거리에서 어퍼컷을 쳐올렸다.

복부의 근육이 파열되는 순간 리안의 눈이 크게 뜨였다. 떠오른 몸이 착지하면서 무릎이 구부러졌으나 이미르에게 매달려 버텨 냈다.

다음 순간 리안이 정신적 잠금장치를 풀고 이미르의 어깨를 떠밀었다.

죽어도 풀지 않을 것 같던 클린치가 끝나자 이미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상관있을까? 어차피 자신이 최강이다.

어떤 생물체든 거인의 왕과 겨루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결국 포기했나? 인간치고는 오래 버텼다. 상으로 고통 없이 끝내 주마.”

이미르는 힘껏 발을 내딛으며 주먹을 뻗었다. 근거리에서도 근육을 찢는 파괴력이었으니 체중을 실은 일격이 들어온다면 리안의 몸은 버텨 낼 재간이 없었다.

하지만 리안은 개의치 않았다. 이미르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눈은 거인의 어깨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왔구나, 시로네.”

@

시로네는 1킬로미터의 거리를 30초 만에 주파했다.

대세계전이 가까워오자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거인과 엉망진창으로 당한 리안이 보였다.

“리아아안!”

이미르가 움찔했다. 하지만 거력을 담은 주먹은 관성을 타고 리안의 복부를 향해 돌진했다.

시로네는 샤이닝 체인을 시전했다. 수십 미터 길이의 사슬이 이미르의 몸을 칭칭 감았다.

“응?”

이미르가 깨닫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몸이 끌려갔다.

“크으으으!”

떠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르는 힘을 불어 넣어 사슬의 파괴를 시도했다.

시로네의 정신으로 거인의 완력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무식한 도전을 받아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시로네는 사슬을 움직여 거인을 패대기쳤다.

쾅! 쾅! 쾅! 쾅! 쾅!

사슬에 감긴 이미르의 몸이 포물선의 궤적을 그리며 연거푸 처박혔다. 마지막으로 땅에 메다꽂을 때는 바닥이 쩡 하고 울렸다.

대자로 뻗은 이미르는 미동이 없었다.

굴욕이었다.

한낱 인간 마법사에게 자신의 육체가 조롱당했다는 사실에 몸이 달아올랐다.

“고작 땅에 처박힌다고 부서질 것 같나? 지금 당장 이 사슬을 깨 주마! 내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느껴 봐라!”

이미르가 근육을 부풀리자 사슬이 당겨졌다. 시로네의 미간이 구겨졌다. 하지만 상대가 정공법으로 나온다면 돌려서 받아치는 게 마법사였다.

“이런 건 어때?”

시로네가 팔을 휘두르자 사슬이 풀리면서 이미르가 다리 바깥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미르는 허공에 떠 있는 상태에서 멍한 표정으로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너…….”

무언가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중력을 받은 그의 몸이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7. 천국 (1)

추락하는 이미르는 멀어지는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풍경들이 구름에 가릴 무렵에야 허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여튼 마법사란 것들은…….”

이대로 땅에 처박혀도 상관은 없었다. ‘부분’인 상태로 미적거리느니 차라리 아래에서 기다리는 땅바닥과 내구력 대결을 벌이는 게 훨씬 재밌을 터였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소년이 나타난 순간 다시 냄새가 났다. 전장 특유의 비릿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가.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천국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는 대세계전이었다.

“그런 자리에 빠질 수는 없지.”

대세계전으로 가야한다.

도약을 시도하면 ‘부분’의 힘은 더욱 약해지겠지만 전장의 피 냄새가 부르고 있으니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흐으으읍!”

이미르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몸을 부풀렸다.

산소를 차단하자 피부가 도자기처럼 딱딱하게 굳어 갔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고 눈동자에 생기가 빠졌다.

입술이 열리더니 맥박이 멈췄다.

그렇게 이미르는 사망했다.

펑! 하고 시체의 전면부가 터지면서 똑같은 형태의 이미르가 튀어나왔다.

강력한 추진력에 몸을 실은 이미르는 수십 미터를 도약하여 제불을 지탱하는 기둥에 손가락을 박아 넣었다.

“후우, 할 때마다 짜증 난다니까.”

무력을 추구하는 그에게 힘의 약화는 견딜 수 없는 좌절이었다. 특히나 부분에서 부분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망을 거쳐야 하기에 극도로 불쾌했다.

이 모든 굴욕을 감수하는 이유는 하나. 전투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기둥에 매달린 이미르는 발바닥을 기둥에 붙이고 어깨를 늘어뜨렸다. 팔을 끌어당기면서 기둥을 박차는 순간 거체가 중력을 거스르며 솟구쳤다.

@

-생명의 술 진행률 80퍼센트.

시로네는 대세계전을 돌아보았다. 입구에 다가서자 페오페가 여태까지의 기억을 담아 넘겨주었다.

시로네는 피를 흘리는 리안을 내려다보았다.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아니. 늦지 않았어. 들어가서 여자들을 구해.”

리안은 엉망진창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체력이라도 보충할 시간이 필요했다.

“시로네!”

에이미가 소리쳤다. 여태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게 모르게 서러웠던 모양이다.

“시간이 없어! 정보가 전송되면 끝이야!”

시로네는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무엇을 하든 에이미가 자신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닥치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에이미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시로네의 그림자에서 카니스가 솟아올랐다.

“어떻게 됐어? 탈출할 방법은 찾았어? 이카엘이 여자들을 풀어 주겠대?”

“이카엘은 오지 않을 거야.”

“그럼 헛고생했다는 거야?”

“어쩌면 그럴 수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해 볼게.”

시로네는 바알브에게 걸어갔다. 하지만 노려보는 대상은 그 너머에 있는 카리엘이었다.

“지금이라도 여자들을 풀어 준다면 그냥 돌아가겠어.”

“그렇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진단 말이지? 멸망을 피할 수는 없다. 최후의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아니. 너희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

“무슨 근거로 그딴 망발을 지껄이는지 모르겠군. 천국의 힘은 위대하다. 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세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라는 신이 아니야.”

오기로 꺼낸 말도, 궤변도 아니었다. 시로네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또한 미로도 마찬가지였다.

-시로네, 신이라는 건 딱히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세상의 설계자일 뿐이죠.

미로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스케일 마법을 구사하는 언로커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신을 폄하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이제는 아니었다.

미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존재가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신은 오직 하나. 세상을 설계한 자였다.

“인간은 당신의 생각만큼 어리석지 않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분석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 될 수는 없다고! 우리는 싸울 거야!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멸망하는 건 천국이 될 거다!”

카리엘의 인상이 구겨졌다. 아마도 이토록 불경한 말을 듣는 건 오랜만일 터였다.

“이것으로 확실해졌다.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바알브, 놈들을 처단하라.”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카리엘 님.”

바알브의 둔중한 몸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거체가 움직일 때마다 이름 모를 기관들이 의미 없이 휘적거렸다.

“카니스! 물러서!”

시로네의 주위로 수많은 광자들이 떠올랐다. 진동하는 빛의 긴장감이 손만 대도 튀어나갈 듯 무시무시했다.

바알브가 시로네를 덮치는 것과 동시에 십여 발의 포톤 캐논이 쏘아졌다.

퍼퍼퍼퍼퍼펑!

놀랍게도 바알브의 몸이 밀려났다. 이어서 찢어질 듯한 괴성이 터져 나왔다.

포톤 캐논은 끝도 없이 거체를 두들겨댔다.

곤충의 다리가 부러지고 연체동물의 촉수는 어금니로 질겅거린 듯 탄력성을 잃어 갔다.

바알브의 몸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쏟아지는 대포에 얻어맞으며 카리엘을 향해 밀려나갔다.

시로네는 그제야 마법을 중지했다. 여태까지의 분노가 한 번에 폭발한 공격이었다.

그럼에도 지치지 않았다. 단발의 위력이 상승했음에도 피로감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카니스는 허탈했다. 인간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마법의 위력을 한 단계 올리는 게 가능한 것인가?

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건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시로네는 정신적 변화를 겪은 게 아니었다. 기존에 그를 이루는 모든 수치가 일괄적으로 상승한 상태였다.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멀어질 수는 없는 거야.’

불과 몇 달 전 시로네와 전투를 치렀을 때만 해도 차이가 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빛의 마법에 패한 이후 시로네를 뛰어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수련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전보다 훨씬 멀어져 있었다.

어째서 그는 좌절하지 않는 것일까? 대체 그를 이루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카일엘이 쓰러진 바알브에게 말했다.

“장난은 그만해라, 바알브.”

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물론 시로네의 마법은 확실히 인간치고 제법이었다. 신민의 기준으로 보자면 상위 40퍼센트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터였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각 마라를 이길 수 없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시로네가 10명이 있어도 불가능한 게 마라의 무력이었다.

“죄송합니다, 카리엘 님. 아무래도 대세계전이 좀 부서질 것 같습니다.”

“허한다.”

카리엘이 승낙하자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알브를 이루는 수많은 생물들의 기관이 일제히 천장을 향하면서 발버둥을 쳐 댔다.

“키키키! 내 귀여운 실험체들을 잠에서 깨우다니. 너희에게는 악몽이 되겠구나.”

## [219] 7. 천국 (2)

어떤 문명에서 마취의 신으로 불리는 바알브는 온갖 생물체를 잠재워 자신의 기관에 이식하는 마라였다.

잠은 생물체를 무생물의 위상으로 격하시킨다.

바알브에게 잡힌 생물체는 물건이나 다름없으며, 그렇게 평생 동안 괴물의 기관이 되어 살아가야 했다.

-일화의 술 진행률 90퍼센트.

100톤이 넘는 바알브가 비둔한 몸을 허우적대며 시로네를 뒤쫓았다. 어깨에서 네발짐승의 앞다리 같은 것이 튀어나오더니 바닥을 강타했다.

대세계전이 쩌렁쩌렁 울렸다.

“키키! 어떠냐? 사자 260마리 분의 위력이다. 조만간 너희도 내 몸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일화의 술 진행률 91퍼센트.

90퍼센트가 넘어가자 1퍼센트 단위로 음성이 나왔다. 고작 9퍼센트 남았다는 사실에 시로네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로네! 시로네!”

카니스가 부르는 말에 정신을 차렸다.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어? 준비한 게 있으면 빨리 해. 설마 무턱대고 쳐들어온 것은 아니겠지?”

마법의 수준이 조금 향상됐다고 달려온 것이라면 카니스는 그냥 다크 웜을 자신에게 시전할 생각이었다.

죽으면 죽었지 수면마의 일부분이 되어 영원히 고통 받고 싶지는 않았다.

카니스의 말을 들은 시로네는 이카엘이 전해 준 마법진을 떠올렸다.

하지만 광륜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천사처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다.

“한 가지 있긴 있는데…….”

“그럼 해! 왜 꾸물대고 있는 거야!”

바알브의 하체에서 20개의 게 다리가 튀어나왔다.

빠르게 움직이는 다리가 100톤의 무게를 밀고 들어오자 시로네와 카니스는 동시에 옆으로 몸을 날렸다.

10미터를 뛰어오른 바알브가 그들이 있던 자리를 깔아뭉갰다.

대세계전이 흔들리며 천장에서 철가루가 떨어졌다.

“시간이 필요해. 잠시만 시간을 끌어 줄 수 있어?”

카니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런 것이었나?

하지만 맨정신으로도 상대하기 힘든 이각 마라를 얼마나 붙잡아 둘 수 있을까?

“10초. 그 이상은 절대 못 버텨.”

“1분만 부탁할게.”

시로네가 자리를 떠나는 즉시 바알브가 문어의 다리를 휘둘렀다. 카니스가 날다람쥐처럼 몸을 날리는 순간 축축한 촉수가 바닥을 부쉈다.

“키헤헤헤! 도망치는 건 일품이구나. 하긴, 약한 것들의 유일한 장점이지.”

“흥! 둔해 터진 주제에 기고만장하기는.”

카니스는 정신을 다잡고 시간을 계산했다. 무력의 차이는 극심하지만 회피에만 전념한다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다. 모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1분 동안 도망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리안이 대검을 움켜쥐고 일어섰다.

“내가…… 가야해.”

언제까지고 쉬고 있을 수는 없었다. 시로네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으니 카니스와 함께 시간이라도 끌어야 했다.

그때 페오페가 바깥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저…… 저거!”

리안이 돌아보자 거인의 왕 이미르가 분노에 불타는 눈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굴욕을 안긴 시로네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망가진 몸을 이끌고 온힘을 다해 태클을 가하자 이미르의 몸이 옆으로 밀려났다. 바닥을 구른 리안은 대검을 붙잡고 시로네에게 가는 길목을 차단했다..

‘뭐지? 어째서?’

목숨 걸고 덤비기는 했는데 사실 이미르가 밀릴 줄은 몰랐다. 전보다 힘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미르가 무릎을 털며 일어섰다.

“세 번째군. 하지만 이제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나는 시로네의 검이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가갈 수 없다.”

페오페의 정신감응 덕분에 이제는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르는 오히려 실망한 표정으로 인상을 찡그렸다.

“네 말은 틀렸다. 힘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힘의 본질은 파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는 결코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르는 바람처럼 움직였다. 완력은 줄었지만 민첩성은 오히려 높아진 듯했다.

소나기 같은 연타가 리안의 몸을 두드렸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던 리안이기에 반격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 자신이 살아 있는 한 이미르가 시로네에게 갈 일은 없을 테니까.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거야.’

이미르의 눈이 점차 붉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두들겨도 리안은 쓰러지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파괴했는데도 마치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것 마냥 버티고 있었다.

“리안! 리안! 그만해, 이 자식아!”

테스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다.

“제발 그만 때려! 그러다 죽겠어!”

이미르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일반적인 전투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광기였다.

생명과 생명이 부딪치는 느낌이 피부로 전해져왔다.

재밌다. 아주 재밌는 인간이었다.

“멋지구나! 너를 파괴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리안의 몸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테스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도 보였다. 리안이 죽어가는 것이 오감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카리엘에게 소리쳤다.

“알았어! 낳아 줄게! 네피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낳아줄 테니까 제발 그만해!”

카리엘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피림을 낳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미르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야.”

-생명의 술 진행률 96퍼센트.

이미르는 공격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충격적이었다. 대체 이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죽었다. 아니, 죽어야 정상이었다.

가드조차 올리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에서는 생명의 기운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검을 쥐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오른팔의 근육을 전부 뭉개 버렸다. 인대의 힘만으로 철을 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그냥 시체일 뿐이야. 그대로 굳어 버린 것이다.’

승리한 것이 분명하건만, 이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끝장을 내 주마!”

이미르는 뿌드득 이를 갈았다. 마지막 일격을 가할 생각으로 보폭을 넓히며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리안의 대검이 솟구치는 게 보였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시야를 전체로 넓히자 대세계전에 오로지 그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쳇! 또 이건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이미르는 이것을 시간의 시소라고 표현한다. 갑작스럽게 세계의 속도가 치솟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현상이었다.

한쪽이 빨라지는 만큼 한쪽은 느려진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미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만큼이나 리안의 팔이 빠르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런 제길!’

이미르는 앞에 서있는 소년이 몸이 부서지고서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 깨달았다.

정신이 파괴되지 않았다. 그 파괴되지 않은 정신이 직접 육체를 움직이고 있었다.

정신이 지시를 내리면 몸이 움직인다는 생물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기술.

최상위의 거인만이 가능하다는 화신술이었다.

스키마는 원래 거인의 술법이었기에 화신술 또한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개념과 유사했다.

스키마에서 뇌를 강화하는 검사들은 정신적 잠금장치를 통해 육체를 통제한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버리게 되는 것이다.

인간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신적 초월’이라고 부른다.

‘크크.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잖아.’

이미르는 리안의 대검이 천장을 향하는 것을 노려보며 몸을 뒤틀었다.

회피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몸을 기울였다고 생각한 순간 시간의 속도가 급격하게 되돌아왔다.

리안의 대검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동시에 잘려 나간 오른팔이 허공에서 회전했다.

이미르의 얼굴이 씁쓸해졌다. 리안이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그럼에도 완벽하게 피하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였다.

퍼퍼퍼퍼퍼펑!

대검이 땅에 닿는 순간 리안의 오른팔이 터져 나갔다. 찢어진 근육이 너덜거리고 뼈가 전부 드러나 있었다.

신적 초월의 속도를 육체가 버티지 못한 것이다.

-생명의 술 진행률 97퍼센트.

생명의 술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들의 삶 또한 저물어 갔다. 바알브의 촉수에 얻어맞은 카니스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다.

“바알브, 그만 끝내라.”

“네, 카리엘 님!”

카니스를 해치운 바알브는 시로네에게 돌진했다. 최초에 약속했던 1분은 이미 지나간 상태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로네에게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시로네! 위험해!”

시로네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모탈 펑션을 한계까지 열어 되돌리는 과정에서 신경이 관여할 여지는 없었다.

“크하하하! 너는 내 가장 추악한 곳에 달아 주마!”

바알브의 등에서 전갈의 꼬리 같은 것이 튀어나왔다. 침 끝에 시커먼 물방울이 매달려있었다.

한 번만 꽂히면 드래곤조차 마취되어 버린다는 강력한 수면 독이었다.

그 순간 시로네의 눈이 번쩍 뜨였다. 퍼엉! 직경 2미터의 원이 탄생하더니 바알브의 공격이 충격파에 튕겨나갔다.

그것을 지켜보던 카리엘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인간이 천사의 능력을 구사할 수는 없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어째서 불안한 것일까? 마음을 졸이는 이 저열한 기분은 무엇이란 말인가?

“바알브! 시간이 없다!”

“키에에에에에!”

카리엘의 지시를 들은 바알브가 비명을 지르며 육탄 공격을 감행했다. 흉측한 얼굴이 공포에 잠겨 있었다.

시로네의 광륜이 빛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붉은 점이 중앙에 박혔다. 이어서 최초의 마법진이 수많은 개념을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천사의 마법진.

무한 사법광륜 헤일로.

광륜에서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수많은 마법진을 살핀 카리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말로 헤일로였다.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분명 누군가가 그에게 전수해 준 것이다.

대체 누가? 이 천국에 인간에게 헤일로를 가르칠 미친 천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카리엘이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틈에 페오페는 여자들에게 날아갔다.

“빨리! 빨리!”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나선의 힘을 가하자 수갑을 비틀렸다.

카니스가 절반 이상을 잘라 놓은 덕분에 페오페의 능력으로도 어렵지 않게 수갑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카리엘은 헤일로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네피림보다도 심각한 문제였다.

천사의 배신은 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사였다.

알아야 했다. 누가 전수했는지를.

그리고 존재를 멸해야 했다.

바알브는 온갖 기관을 동원해 시로네를 찍어 눌렀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힌 듯 몸에 닿기 전에 공격이 멈췄다.

“키익! 키익!”

사력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 자식이 어미를 죽이지 못하듯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상위 존재의 권위가 접근자체를 차단하고 있었다.

오색찬란한 섬광들이 헤일로에 처박히자 수많은 마법진들이 탄생하며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

정보의 집적도가 80퍼센트를 넘어가는 순간 급격히 개념이 변하면서 회전속도가 빨라졌다.

상상을 초월하는 광륜의 회전속도는 마치 그것만으로 세상을 헝클어 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법진에 담긴 개념을 깨달은 바알브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찍었다.

마라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과 마주치고 말았다.

“히익! 아타……! 아타……!”

바알브는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을 모두 동원하여 카리엘에게 기어갔다. 하지만 얼마나 넋이 나갔는지 제대로 땅을 미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살기를 포기한 바알브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카리엘 님! 피하십시오! 초마력증폭진 아타락시아입니다!”

카리엘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워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 듯했다.

아타락시아라니.

수많은 천사들을 굴복시킨 천국 최강의 사법. 어떤 마라도 비명을 지르게 만든다는 이카엘의 전매특허였다.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전해 줬다?

아닐 것이다.

차라리 자신의 눈이 삐어서 저기에 서 있는 이카엘이 소년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게 더 그럴듯했다.

‘이카엘, 정말로…… 미쳐 버린 것이냐?’

아니,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전쟁을 막을 생각이었다. 최강의 천사라는 명예조차 포기한 채 인간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정보 전송률 98퍼센트.

카리엘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제 2퍼센트 남았다. 그런데 아타락시아가 기다리고 있다.

자신을 노려보는 시로네의 눈빛이 보였다. 정말로 인간이 구사할 수 있단 말인가?

눈속임일지도 모른다. 생명의 술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만약 지금의 상황이 현실이라면…….

자신은 소멸할 것이다.

“이카에에에에엘!”

카리엘이 분노의 일갈을 내지르는 것과 동시에 시로네의 포톤 캐논이 쏘아졌다.

## [220] 7. 천국 (3)

콰콰콰콰콰콰콰콰!

아타락시아에서 섬광이 뿜어져 나왔다.

시로네는 출력을 제어할 수 없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섬광이 퍼지면서 대세계전을 빛으로 가득 채웠다.

바알브가 수십 개의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바닥을 기었으나 곧바로 빛무리에 휩쓸려 자취를 감추었다.

섬광이 질주하는 자리에 있던 물체들이 쓸려나갔다. 마치 공간마저 밀어내버리는 듯했다.

퍼어어어어어엉!

제불의 끝에 위치한 대세계전.

거대한 돔의 장벽이 폭발하면서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두 줄기의 섬광이 천공을 갈랐다.

“허억! 허억!”

시로네는 무릎을 짚고 숨을 헐떡거렸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대세계전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다. 자신이 해 놓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결과였다.

이카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이걸 새겨 넣은 것일까?

시로네의 시야에 남아 있는 것은 카리엘뿐이었다.

뒤편으로 하늘이 보이고 땅바닥이 거대한 Y 자로 파여져 있었다.

카리엘의 머리 위에 펼쳐진 광륜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다.

-생명…… 술 진행…… 99…… 센트.

시로네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에이미가 이마에 붙은 패널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절망에 빠지려는 그때 또 다시 음성이 들렸다.

-전송 취소. 생명…… 술…… 중지……합니다.

에이미의 이마에 박혀 있던 패널이 스르륵 빠져나오더니 가루보다 작은 입자로 분해되었다.

시로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카리엘을 돌아보았다.

대천사의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안내 음성에는 시간적 오차가 있었지만 아타락시아가 발동되는 순간 힘을 되찾은 게 분명했다.

카리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생명의 술을 진행시켰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아타락시아의 증폭력은 생명의 술에 정신력을 빼앗긴 상태에서 막아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카리엘이 거대한 황금빛 날개를 펼치며 날아올랐다.

“이제 알겠느냐, 어리석은 인간이여? 이게 바로 생명의 술이다. 대천사인 나조차도 모든 걸 포기하고 전념해야 만들 수 있는 게 생명이란 말이다!”

카리엘은 초토화된 대세계전을 내려다보았다.

고작해야 애송이가 시전한 마법이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파괴력이다.

어째서 인간에게 이런 힘이 주어져야 하는가?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 어떤 선인이라도 힘의 유혹 앞에서는 타락해버리고 마는 법이다.

저 소년은 왕이 되려고 할 것이다. 천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온갖 쾌락에 탐닉할 것이다.

‘그것도 괜찮은 일이겠지.’

차라리 이대로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이 인간 세상은 자멸하고 말 테니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걸 이카엘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정말로 미쳐 버렸나?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천사의 사법을 인간에게 전수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

‘그만큼 믿는다는 것인가? 저 소년을?’

이카엘은 저 인간에게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물론 재능은 인정하고 있었다. 아무 재능도 없이 천사의 사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지금 붙잡아야 한다. 놓치게 되면 천국을 위협할 강력한 무기가 인간들의 손에 넘어가는 셈이었다.

“더 이상 나에게 자비를 구하지 마라.”

카리엘이 선전포고를 했으나 도망칠 궁리를 하는 시로네 일행은 듣고 있을 여유조차 없었다.

아린이 카니스를 데려왔고 에이미는 페오페를 지켰다.

테스도 리안을 데려오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이미르가 지키고 있었다.

테스의 살기 어린 눈을 무심하게 쳐다보던 이미르는 무릎을 꿇고 있는 리안에게 시선을 돌렸다.

천장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리안의 얼굴은 살아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오른손은 뼈밖에 남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대검을 쥐고 있었다.

정신과 육체가 통합되어버린 화신술의 무서움이었다.

“1승 1무 1패. 오늘은 비긴 걸로 할까?”

“…….”

“크크, 이렇게 약해서야. 본체랑 싸울 때는 뼈라도 남아나겠나?”

이미르는 잘려나간 오른팔을 들었다. 리안의 입에 쑤셔 넣자 검은 액체로 풀어지더니 목구멍 속으로 흘러들었다.

“데려가라. 그리고 소중히 해라. 만약 살아남는다면 인간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나에게도 재밌는 전쟁이 되겠군.”

이미르가 집어 던진 리안이 바닥을 미끄러지자 테스는 황급히 안아들었다.

뼈만 남은 팔을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야 치료를 할 수 있었다.

드론이 날아와 테스의 팔에 건틀렛으로 장착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미르를 노려보다가 몸을 돌려 아린에게 달려갔다.

다리부터 녹아내리는 이미르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리안이 살아남기를 바랐다. 인간은 더 강해져야 한다. 거인의 왕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해진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었다.

‘다시 싸울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잠이나 자 볼까.’

이미르는 시커먼 액체로 풀어졌다. 더 이상 천국에 남은 ‘부분’은 없었다. 그는 영원히 녹지 않은 얼음에서 언젠가 닥쳐올 최후의 전쟁을 기다리며 오랜 잠에 빠져들 것이다.

-시로네, 준비 끝났어!

시로네의 머릿속에 아린의 목소리가 들어왔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탈출하고 싶지만 메타게이트가 작동하는 시간은 30초였다. 탈출할 타이밍이 생사를 결정짓는 상황이었다.

시로네는 완벽한 상태로 돌아온 카리엘을 두고 모두가 탈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소한 1명이라도 남아 친구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린. 지금 메타게이트를 열어. 그리고 무조건 빠져나가.

-너는 어쩌려고?

-카리엘을 막을 거야. 1초만 접근을 지체시킨다면 빠져나가는 건 충분해.

-하지만 시로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건……!

-부탁할게. 에이미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

비밀로 해 달라는 얘기였다. 시로네가 남는다는 사실을 알면 에이미는 절대로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을 테니까.

아린은 시로네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누군가는 살아야 한다.

카니스가 그랬듯이, 리안이 그랬듯이, 시로네도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선택을 한 것뿐이었다.

-알았어, 시로네. 준비가 되면 신호해 줘.

시로네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자신은 어떻게 될까? 생사도 모르는 사람을 구하러 친구들이 천국에 찾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곧바로 죽는다면 괜찮겠지만, 카리엘에게 붙잡혀 온갖 실험을 당할지도 모른다.

두려웠다.

모두가 떠나고 자신만 남게 되는 것이다.

‘죄송해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말이 옳았어요.’

시로네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이내 매서운 눈빛으로 카리엘을 노려보았다.

돌진해야 한다. 메타게이트를 열고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어떻게든 1초만 카리엘의 주의를 끌면 된다.

지금쯤이면 아린이 친구들에게 작전을 설명했을까? 자신이 여기에 남는다는 것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시로네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작별의 순간이었다.

-아린! 지금이야!

아린이 메타게이트를 여는 것과 동시에 시로네는 카리엘에게 달려들었다.

에이미가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어째서? 시로네?’

들었던 작전과 달랐다. 동시에 몸을 던지고 결과는 운에 맡기는 게 가장 공평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린의 슬픈 표정에서 순식간에 상황을 깨달아 버린 에이미가 눈물을 터뜨리며 손을 내밀었다.

“안 돼! 시로……!”

아린은 에이미의 허리를 끌어안고 메타게이트의 포탈로 뛰어들었다. 카니스와 리안을 붙잡은 테스 또한 포탈로 몸을 날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시로네, 부디…… 다시 볼 수 있기를.’

시로네는 고개를 쳐들고 눈동자로 눈물을 받았다. 환희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카리엘이 친구들의 상황에 신경 쓰지 않는 건 다행이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만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홀가분했다.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붙잡혀 주리라.

-그러지 마, 시로네.

갑작스러운 정신공명에 옆을 돌아보았다. 눈웃음을 짓고 있는 페오페가 나란히 날고 있었다.

-페오페, 왜 아직도 여기 있어?

페오페의 생각이 빠른 속도로 침투해 들어왔다.

-인간이란 이상한 종족이로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음마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겠지.

-갑자기 무슨 얘기야?

시로네는 덜컥 불안해졌다.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어쩌면 아린이 작전을 승낙한 이유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는 안 돼.’

이 작은 요정은 우리를 도와주었다. 천국에 혼자 남게 되었어도 나락까지 떨어진 기분이 들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페오페가 곁에 있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소멸이라는 것은 무서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보면서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인간. 나에게는 그게 참으로 멋지더구나.

-페오페, 안 돼.

-친구들에게 돌아가. 그리고…….

페오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사랑해, 시로네.

페오페는 정신감응을 차단하고 카리엘에게 쇄도했다.

시로네는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멈추고, 몸이 메타게이트가 있는 쪽을 향해 돌아섰다.

“흐윽! 흑!”

시로네는 메타게이트를 향해 뛰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에 잠긴 것처럼 세상이 부해 보였다. 기적과도 같은 기회 앞에서 그는 한없이 나약했다.

돌아갈 수 있다.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모두와 다시 만날 수 있다.

‘엄마, 아빠, 제가 갈게요. 반드시 돌아가서…….’

시로네는 우뚝 멈춰 섰다. 서로 다른 마음이 같은 무게로 싸우고 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페오페와 했던 한 가지 약속이었다.

-만약 내가 잡혀가도 구하러 와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면 말이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페오페.”

시로네는 울먹이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신력으로 순간 이동을 시전했다.

사랑한다고 말한 그녀의 말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한 살짜리 요정에게 사랑이란 그토록 거대한 개념이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친구와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아닌 그저 유일한 사랑.

페오페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요정이었다.

그런 친구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보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페오페! 제발! 제발 기다려!’

죽음을 목전에 둔 페오페는 겁에 질려 있었다. 이것이 소멸인가? 모든 것이 무섭고 생소하기만 했다.

순간순간마다 미지의 세상이 펼쳐지고 그에 따라 마음도 극과 극을 오가고 있었다.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린에게 했던 이야기는 온전한 진심이었을까?

-나 페오페야. 누군가 남아야 한다면 전부 떠나. 내가 카리엘을 막을게.

-하지만…… 너는 어쩌고?

-난 어차피 천국을 떠날 수 없어. 게다가 이건 신민의 내정관인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페오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나는 나선의 요정. 아무리 흔들려도 똑바로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진가를 인정해준 이기린도 만날 수 없지만 생의 마지막에서 깨달았기에 만족할 수 있었다.

일화의 술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위대한 것은 기꺼이 일화의 술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희생이었다.

시로네가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건방진 요정이로구나.”

카리엘이 콧방귀를 뀌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능력이라면 요정쯤이야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을 터였다.

죽음을 직감한 페오페의 입술이 삐죽 내려갔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양손을 내밀며 사력을 다해 나선의 힘을 쏘아 보냈다.

“페오페! 그만둬!”

예상치도 못한 시로네의 목소리에 페오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카리엘이 스쳐지나갔다. 천사의 가느다란 손이 시로네의 목덜미를 노리고 들어왔다.

‘놓치지 않는다. 너만은!’

연구할 것이다. 어떤 잔혹한 방법을 써서라도 아타락시아의 기재를 해부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카아아아앙!

그 순간 보랏빛 장검이 카리엘의 손가락 사이에 박혔다. 어느새 흑발의 남자가 시로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카엘의 수하인 삼각 마라 아슈르였다.

“아슈르…… 너까지 나를 방해할 셈이냐?”

“이카엘 님의 전언입니다.”

카리엘의 눈에 분노가 담겼다.

삼각 마라 따위가 다짜고짜 용무를 대다니. 아직도 이카엘이 천국을 호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물론 한때는 이카엘을 존경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천국의 수치 따위가 나에게 전언을 보내?”

“말을 가려서 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지. 천사장까지 오른 고결한 천사가 하찮은 인간의 씨를…….”

“카-리-엘- 님!”

아슈르는 악귀처럼 눈을 부릅떴다.

“제가 분. 명. 히. 이카엘 님의 전언이라고 했습니다.”

카리엘은 입을 다물었다. 이카엘의 전언이었다.

“이 소년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결코 좋은 감정으로 당신을 대할 수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카리엘의 콧잔등이 구겨졌다. 도저히 그녀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카엘은 추해졌다. 몰락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카엘이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다. 사모했던 천사에게 남은 마지막 회한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천사의 수장까지 오른 그녀가 한낱 인간에게 이다지도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카리엘은 침묵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아슈르가 시로네를 돌아보며 말했다.

“가라. 페오페는 무사할 것이다. 이카엘 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순간 이동으로 모든 정신력을 소모한 시로네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슈르의 말이 흘러들어오자 희미하게 미소가 번졌다.

이카엘이라면 믿을 수 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전해 준 사람이니까.

“잘 가, 시로네.”

나선의 힘을 발동한 페오페가 시로네를 메타게이트로 날려 보내며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시로네가 천국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9권 끝)

=======================================

# Volume 10

=======================================

## [221] 1. 갈리앙트의 추억 (1)

케르고 자치 지구.

시로네 일행이 머물렀던 방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정숙한 공기로 채워진 공간에 검은 구체가 탄생했다. 구체는 2차원의 구멍처럼 보였고, 그곳에서 다섯 사람이 내뱉어졌다.

바닥을 구른 에이미는 포탈로 기어가 시로네를 불렀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테스와 아린이 포탈로 들어가려는 그녀를 붙잡았다.

에이미는 말리는 두 사람도 미웠다. 시로네를 내버려 두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놔! 전부 비켜! 시로네를 구하러 갈 거야!”

“에이미! 들어가면 못 돌아와! 지금은 기다려야 해!”

“뭘 기다려? 너희가 시로네를 사지에 남겨 두고 왔잖아!”

“아니야! 페오페가……!”

아린은 말을 멈추고 포탈을 바라보았다. 공간의 저편에서 시로네가 회전하며 날아오고 있었다.

에이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두 팔을 벌려 시로네를 받은 그녀는 나선의 힘에 바닥을 뒹굴었다. 너무나 기뻐서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아린은 메타게이트의 포탈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천국에 남은 한 요정을 떠올렸다.

‘고마워, 페오페.’

포탈이 열린 곳은 케르고 족장이 내준 방이었다.

천국은 먼 거리지만 거핀의 문을 통해 다녀왔으니 시간의 상대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태양력의 차이를 계산하면 3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았다.

“리안! 리안…….”

테스의 눈물이 리안의 얼굴에 떨어졌다. 살아 돌아왔지만 기쁘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검사가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가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리안의 오른팔은 뼈만 남은 상태였다. 대검을 빼내려고 해 봤지만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다.

테스는 기가 찼다. 근육이 없는데, 인대조차 끊어져서 덜렁거리는데 어떻게 검을 쥐고 있단 말인가?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케르고인이 들어왔다.

파트너를 끌어안고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여자들을 멍하니 지켜보던 그가 출구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아린은 케르고인의 초경에서 적대감을 읽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한 에이미가 물었다.

“아린,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분명 호의적인 감정은 아니었어.”

에이미 일행은 부상자를 데리고 방을 빠져나왔다. 토굴의 구조는 복잡했지만 출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일방통행이라는 점이었다.

동굴 저편에서 발소리가 밀려들더니 수십 명의 전사들이 출구를 가로막았다.

“어디를 도망치려 하느냐, 이 배신자들아!”

아린이 정신 공명으로 언어를 해석했다.

“케르고를 능멸한 죄는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다! 3일 낮 3일 밤 동안 살을 발라내고 태양 아래에서 말려 죽일 테다!”

통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언어임에도 섬뜩했다.

에이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카둠의 의뢰를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계약 같은 것은 아니었다.

전사들 사이에 낯이 익은 노인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얼굴에 주름살이 자글자글했고 아직 근육이 덜 빠진 덩어리들이 늘어져 있었다.

“당신…… 설마?”

“이 빌어먹을 것들이!”

케르고 족장 카둠의 목소리였다.

불과 며칠 사이에 저토록 늙는다는 게 가능한가? 어쩌면 천국에 있는 동안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른다.

“감히 네까짓 것들이 케르고를 멸망시키려 해! 내 수명을 돌려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당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헛소리! 너희가 수작을 부리지 않으면 어째서 내 수명이 줄어들었지? 앞으로 60년은 더 살 수 있었단 말이다!”

아린은 문득 깨달았다.

‘카니스가…….’

남자들 모두에게 수명부를 조절할 기회가 있었더라도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은 카니스뿐이었다.

그의 선택을 지지한다. 카둠이 부족민에게 저지른 짓에 비하면 오히려 싼 편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카니스도 몰랐을 것이다.

전사들이 강력한 기운을 내뿜으며 접근하자 에이미는 본능과도 같은 감각으로 스피릿 존으로 들어갔다.

마하투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반천사파가 숙청당했다면 이곳은 적진의 소굴인 셈이었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산 채로 붙잡아라! 저놈들에게 참혹한 죽음을 선사하겠다!”

케르고 전사들이 병장기를 내밀고 접근했다. 개개인의 무력도 대단하지만 집단의 투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어떡하지? 파이어 월로 길목을 막을까? 하지만 동굴에서는 위험한데.’

5명의 거한이 창을 앞세우고 돌진하려는 그때 출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카둠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신체가 노화되면서 정신까지 꺾인 모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미를 지키던 전사들이 에이미 일행 쪽으로 나가떨어졌다.

“괜찮으십니까?”

에이미의 얼굴이 멍해졌다.

붙잡힌 줄 알았던 마하투가 서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었다.

통역을 끝내고 헤어졌던 지스가 앵무 용병단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고 단장 마르샤와 부단장 프리먼까지 와 있었다.

“지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시간 없어! 빨리 이쪽으로 와!”

지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케르고 전사들이 돌진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시로네 일행을 반드시 붙잡아야 했다.

이미 케르고 자치 구역에 내란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반천사파에 가담했고 이대로 결착이 나면 천사파는 몰락을 피할 수 없었다.

“프리먼! 가서 애들을 데려와!”

마르샤가 프리먼의 엉덩이를 발로 떠밀었다.

리버스 테크닉 트리를 타지 않은 프리먼은 신속의 움직임을 자랑했다.

전사들의 창검으로는 그의 털끝 하나 벨 수 없었다. 재생력을 포기하고 속도에 치중하는 거너의 스키마였다.

투카! 투카! 투카!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간 프리먼이 사방으로 건을 쏘아댈 때마다 전사들이 동굴의 벽에 처박혔다. 어느새 자리에는 프리먼만 남았고 주위에는 마정탄의 포연이 짙게 깔렸다.

에이미는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이 상대했던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스키마를 바꾸자 전투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자. 오래 버틸 수 없어.”

“아, 네!”

에이미 일행은 앵무 용병단을 따라 자리를 벗어났다.

카둠의 전사들이 쫓아왔으나 위협적인 숫자는 아니었다.

수백 년 동안 케르고를 지배했던 독재자는 신체의 노화와 함께 가진 힘을 모두 잃고 말았다.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제발 내 수명을 돌려줘!”

카둠의 절규가 동굴에 메아리쳤다.

@

토아 산을 빠져나오는 동안 시로네 일행은 마하투에게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

카둠의 육체가 노화되자 사제들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반천사파를 투옥시켰다.

그들을 구출한 사람이 지스였다.

팔코아의 외상값을 갚기 위해 자치 지구에 도착한 그는 불안한 공기를 직감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다가 마하투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앵무 도적단을 이끌고 이곳에 도착한 것이었다.

“고마워, 지스. 네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에이미의 칭찬에 지스의 얼굴이 빨개졌다.

“이 정도야 뭐. 너희가 도와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나저나 괜찮아? 어째서 남자들만 이 지경이 된 거야?”

에이미는 시로네의 상태를 살폈다. 여전히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일이 그렇게 됐어. 섬에서 의원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마법 길드로 가야 할까?”

마르샤는 부상자들을 돌아보았다. 시로네와 카니스는 의식을 잃었을 뿐이라고 해도 리안의 상태는 심각했다.

오른팔의 살이 전부 발려 있었다. 이 정도 상처면 과다 출혈로 죽었어야 정상이지만 어째서인지 피는 흐르지 않았다.

“리안의 꼴이 왜 이래? 아니, 그보다는 어떻게 처치를 한 거야? 정말 이대로 둬도 괜찮아?”

테스가 울먹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거인의 팔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인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살아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고칠 거예요”

“거인? 팔을 먹어? 대체 무슨 소리야?”

테스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토아 산의 초입에 도착하자 앵무 도적단의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마하투가 고개를 숙여 죄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족장의 부도덕함으로 신의 사자를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반천사파는 신의 이름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벌이었다.

천국의 입장에서는 이단이고 최후의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고방식이지만 에이미는 마하투를 비난할 수 없었다.

“동료 중에 어떤 악동이 카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나 보죠. 오히려 우리가 죄송해요. 일이 잘돼서 다행이지만 하마터면 많은 희생을 치를 뻔했어요.”

“한 번은 일어났어야 할 일입니다. 카둠이 강건했다면 체제를 전복시키는 데 훨씬 많은 희생이 뒤따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미는 마하투에게서 다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 다녀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자립을 선택한 것이다.

에이미는 마차에 탑승했다. 마하투에게 부족민의 행복이 우선이듯이 그녀에게도 친구들의 안위가 우선이었다.

에이미 일행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마하투는 움직이지 않았다.

@

“빨리요! 빨리!”

마르샤가 갈리앙트 섬을 뒤져서 찾아낸 1명의 의원과 4명의 회복 마법사들이 지스의 집으로 들어왔다.

리안의 상태를 확인한 의원은 기겁했다.

부디 이 소년이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문을 당한 것이 아니기를 기도했다.

“이, 이거…….”

테스가 울며불며 매달렸다.

“의원님! 고쳐 주세요! 고칠 수 있죠?”

의원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도대체 자신더러 어쩌란 말인가? 고친다는 것은 고장이 난 것을 되돌린다는 뜻이다.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을 새로 만들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네. 내가 뛰어난 의원은 아니지만, 나 아닌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절단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네.”

“절단? 이 아이는 검사라고요!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깨 아래쪽부터 잘라 내야 해. 세계 최강의 시체가 되기 싫으면.”

테스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의원의 말이 옳았다. 의식을 차렸을 때 뼈만 남은 팔을 보고 정신이 멀쩡할 사람은 없었다. 아직은 피가 흐르지 않고 있지만 언제 다시 출혈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다.

“크으으! 이거…… 장난이 아니구만.”

회복 마법사들은 두 사람씩 동료와 짝을 이루어 시로네와 카니스에게 회복마법을 부여하고 있었다.

생체 능력을 올리는 힐링과 정신을 맑게 하는 퓨리파이를 시전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아이들은 누구야? 내 평생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구먼.”

에이미가 말했다.

“마법학교 학생이라 다른 사람보단 힘들 거예요.”

“끄응! 10분 이상 지속하면 1시간을 쉬어야 해. 이미 허용치를 넘었다고!”

“제발 10분만 더 버텨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이 나이에 돈은 됐고, 데이트나 한번 해 주게. 보아하니 내 첫사랑이랑 똑 닮았구먼.”

에이미는 눈을 크게 떴다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았어요! 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노인네의 위트를 추접하게 만들지 말게. 어쨌거나 소중한 사람인가 보군. 힘닿는 데까지는 해 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미가 연거푸 고마움을 드러내자 퓨리파이를 시전하는 마법사가 혀를 끌끌 차며 동료를 나무랐다.

“자네, 그런 심한 농담을 하면 쓰나.”

“이럴 줄 알았나?”

“아니, 자네 첫사랑은 추녀 중의 추녀였음을 내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

두 노인은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비공인 9급의 마법사로 한평생 빛은 보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피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다.

“간만에 풀 파워로 가 볼까?”

회복 마법을 증폭하자 시로네의 몸이 밝게 빛났다.

경쟁 심리가 생긴 카니스 쪽의 마법사도 그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더욱 마법을 강화시켰다.

수술 준비를 끝낸 의원이 테스에게 지시를 내렸다.

“자, 이쪽으로 눕히게. 피가 많이 나올 테니 수건을 충분히 준비해 둬.”

테스가 눈물콧물을 쏟으며 리안의 몸을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켰다. 그러자 의원은 가방에서 기분 살벌하게 만드는 장톱을 꺼내 들었다.

의식을 잃어 마취할 필요조차 없었다. 어차피 깨어 있다고 한들 국소마취로 참을 만한 고통이 아니었다.

## [222] 1. 갈리앙트의 추억 (2)

“최대한 빨리 끝낼 것이네. 걱정하지 말게. 한때는 서저리 수업도 받았으니까.”

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서저리는 가정 의학과 다르게 스키마를 구사한다. 의원 또한 기본적인 스키마는 가능했기에 빠르게 뼈를 절단할 수 있었다.

“시작하겠네.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몸을 꽉 누르고 있게.”

테스는 엉엉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에이미와 아린은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었다.

자신더러 선택하라면 도망쳤을 것이다. 그나마 테스였기에, 리안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각오로 내린 결정이었다.

“후우! 후우! 그럼 시작하겠네!”

“그만두세요.”

장톱을 어깨에 대는 순간 들리는 목소리에 의원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의식을 되찾은 시로네가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탈진한 회복 마법사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숨을 헐떡거렸다.

“테스, 뭐 하는 짓이야? 리안의 팔을 왜 자르려는 거야?”

“시로네, 시로네…….”

테스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상황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지금 시로네의 회복은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

“시로네, 나 어떡해? 리안의 팔을 절단할 거야. 리안은 이제…….”

“안 돼. 팔을 자르는 건 리안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하지만 그러면 죽잖아! 리안이 죽잖아!”

“죽는다고 해도 할 수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시로네의 말이 비수가 되어 테스의 가슴에 꽂혔다.

물론 시로네는 리안의 주인이다. 리안 또한 죽는다고 해도 시로네를 원망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마음은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테스, 생각을 고쳐. 리안은 원치 않을 거야.”

“알아! 나도 리안이 최고의 검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건 리안에게 중요한 일이지 나한테는 아니야! 팔 하나 없어도 나는 상관없단 말이야!”

“그런 잔인한 말이 어디 있어! 리안이 듣는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

“그래서 하려는 거야! 의식을 잃었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라고! 리안은 이제 검을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도 포기해! 의원님, 빨리 시작해 주세요!”

“검을 쥐고 있잖아!”

리안에게 돌아선 테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리안을 봐! 지금도 검을 쥐고 있잖아! 뼈밖에 안 남았는데도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 그런데 절단하겠다고? 리안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리안에게 포기하라고 할 수 없어!”

테스는 리안의 팔을 바라보았다.

어째서 검을 놓지 않는 것일까? 죽는 순간까지도 시로네의 검으로 남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자신은 평생 그를 독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게 리안이니까. 그런 리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해.”

테스는 리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검을 쥐고 있다면 그는 죽어서도 검사일 테니까.

리안의 입에서 미약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테……스…….”

테스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리안! 나 여기 있어! 정신이 들어? 많이 아파?”

“시로네, 시로네는…….”

“괜찮아! 무사히 돌아왔어! 여긴 지스의 집이야! 네가 제일 중상이란 말이야!”

리안은 뒤척이더니 상체를 일으켰다. 그가 뼈밖에 남지 않은 오른팔을 돌아보자 친구들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뭐야, 이건?”

예상을 깨고 리안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망가진 팔을 보면서도 침착할 수 있다는 건 초인적인 의기였다.

테스는 시로네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리안이 기사 서약을 한 날부터 얼마나 큰 각오를 검에 새겼는지를.

“내 팔이 왜 이래? 어쩌다 이렇게 망가진 거야?”

리안은 불쾌할 뿐이었다. 신경이 사라져서 고통도 없었다. 검을 쥐고 있는 손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리안, 저기 그게…….”

그 순간 리안의 팔에서 떨그렁 하고 대검이 떨어졌다. 손가락 5개의 뼈다귀가 활짝 펴지고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리안! 리안!”

의원이 리안의 어깨를 짓누르며 소리쳤다.

“출혈이 시작됐어! 어서 지혈제와 붕대를 가져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의원이 살기 어린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는데 리안의 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꿀쩍. 꿀쩍.

점액질의 액체가 물장구를 치는 듯한 소리였다.

고개를 돌린 의원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리안의 팔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다. 회복 계열의 대마법사라도 혈액의 형질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었다.

“자, 자네는 대체…….”

리안은 복구되어 가는 팔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신경이 회복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팔이라는 느낌이 왔다. 근섬유 한 가닥 한 가닥을 신중하게 살피던 그가 친구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설명 좀 해 줘.”

“너, 거인의 팔을 먹었어. 네가 거인의 팔을 잘랐고, 그 거인이 너에게 먹인 거야. 일화의 술에 쓰이는 액체 같은 것으로 변해서 목으로 들어갔어.”

“팔을 잘랐다고? 거인의?”

기억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단편적인 이미지에 불과했지만 이미르의 팔을 베었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래도 한 방은 먹였군.’

팔에 힘을 주자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이 또한 일화의 술에 얽힌 비밀인가?

그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리안이 돌아보자 모두 턱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왜 그래? 근육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너, 진짜로 괜찮아? 지금 피부도 재생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군. 나는 괜찮아.”

시로네가 소리쳤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바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잖아!”

“모르지. 그냥 이렇게 됐으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무리 대범해도 자신의 몸인데 의심은 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대범한 게 아니라 그냥 바보일지도 모른다.

“됐다! 깨어났네!”

카니스를 전담한 마법사들이 소리쳤다.

상체를 일으켜 세운 카니스가 눈꺼풀이 반쯤 감긴 채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인상을 쓰며 말했다.

“시끄러. 졸려 죽겠으니까 깨우지 마.”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세상모르고 곯아떨어졌다.

수면마의 오브제에 시달렸으니 당연한 반응이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친구들은 허탈한 감정이 먼저 들었다.

아린이 카니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잘 자, 카니스.”

@

천국에서 돌아오고 3일 동안 시로네 일행은 지스와 유나에게 극진한 환자 대접을 받았다.

하루 평균 수면은 16시간이었으며 자고 먹고 다시 자는 게 일이었다.

초저녁에 거실에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시로네는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리안은 오른팔로 물건을 자주 부쉈다.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완력이 세졌다. 테스가 힘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소근육까지 발달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해주었다.

테스는 시간이 날 때마다 드론을 닦고 정비했다. 한시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았고 자면서도 귀신 소리를 내며 쓰다듬는 바람에 에이미와 아린은 밤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다.

카니스와 아린은 단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다. 천국에서 원하던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카둠의 수명을 줄인 것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에이미는 고대 정령 잭 오 랜턴을 켜 두고 돌아다녔다. 통통 튀는 불꽃을 가리키며 귀엽다고 말하자 리안은 에이미다 더 귀엽다고 말해주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어울릴 때면 에이미는 오랫동안 시로네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철두철미한 성격답게 친구들에게 들키는 일은 없었다.

시로네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았다. 그럴 때면 대천사 이카엘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아타락시아의 통찰이 지금도 온기를 지닌 채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천국으로 떠났던 사람들 모두가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나 시로네만큼 커다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카니스가 반칙이라고 떼를 쓰며 비법을 알려 달라고 했으나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었다.

‘이카엘…… 잘 지내고 있나요?’

메타게이트는 기능의 특성상 천국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좌표는 초기화되었지만 천국의 기술력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미로의 시공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카리엘은 결국 이카엘의 권고를 거역하지 못했다. 그녀가 인간의 편을 들어주는 한 최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었다. 툴툴대면서고 속마음은 여린 페오페를 떠올리자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시로네, 그만 자자. 오늘까지는 푹 쉬는 게 좋겠어.”

에이미가 파자마 차림으로 서 있었다. 달빛에 비친 모습이 아름다웠다.

두 사람 모두 며칠 전부터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던 차였다. 하지만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그래, 자자.”

시로네는 남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 다락처럼 작은 공간에 리안의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옆에 카니스가 베개로 두 귀를 틀어막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시로네는 구석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그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자 전율이 치밀었다. 긴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시로네의 눈동자에 별빛이 담겼다.

그날 밤.

항구에서 일을 끝마치고 돌아온 지스가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장 먼저 남자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큰일 났어! 일어나! 빨리!”

문을 열고 소리치자 카니스의 베개가 날아와 얼굴을 퍽 하고 때렸다.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다. 천국까지 다녀온 마당에 큰일이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빨리 일어나라니까! 나중에 화내지 말고!”

시로네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빨리 다른 애들 깨워서 내려와! 지금 나가야 돼!”

지스는 설명할 시간도 없이 몸을 돌려 1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쳐들어갔다.

“얘들아! 일어나 봐! 유나, 너도 빨리!”

“아으, 뭐야…….”

단잠에 빠져 있던 에이미가 짐승처럼 엎드렸다. 그러다가 정신에 불이 들어오자 즉각 현실의 상황을 깨닫고 도끼눈을 치켜뜨며 고개를 돌렸다.

“야! 너 여자가 자고 있는 방에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 죽을래?”

“으악! 미안해! 너무 급해서!”

지스는 소녀들의 파자마 차림을 보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눈치 챘다. 배꼽을 드러낸 채로 자고 있는 테스는 언제 봐도 어른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에이미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겼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일어나 보라니까!”

“알았어, 알았다고. 얘들아, 다들 일어나 봐. 지스가 뭐 할 말 있나 봐.”

“아아, 피곤한데. 무슨 일인데?”

그러는 사이에 남자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계단을 내려왔다. 시로네는 괜히 야밤에 폼 잡다가 자는 시간을 빼앗겼다고 자책하며 여자들의 방을 기웃거렸다.

아린과 테스가 이불을 정리하고 에이미는 졸린 눈으로 지스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다.

“너 진짜 별일 아니면 화낼 줄 알아. 방에 들어온 것까지 곱으로 쳐서 때릴 거야.”

“얼마든지! 일단 들어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니까!”

우여곡절 끝에 전원이 거실에 모였다.

지스는 어떤 타이밍에 말해야 친구들이 심장마비로 죽어 버릴까 고민하다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몰라. 네 생일이야?”

“아니!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순간 뒤늦게 잠에서 깬 유나가 허겁지겁 여자 방에서 튀어나와 소리쳤다.

“오빠! 카이오스! 카이오스!”

시로네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카이오스가 뭔데?”

유나에게 질세라 지스가 더 크게 소리쳤다.

“수룡! 수룡 카이오스가 이곳에 온다고!”

@

“아저씨, 조금만 더 빨리 가 주세요!”

시로네 일행을 태운 마차가 항구로 질주했다.

에이미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파자마 차림이었다.

## [223] 1. 갈리앙트의 추억 (3)

“이미 늦은 거 아냐? 10분 정도밖에 안 머문다며?”

“그래서 내가 빨리 일어나야 한다고 했잖아. 나도 너희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밤인데도 관광객들이 줄어들지 않기에 알아챈 거야.”

“아아, 제발.”

수룡 카이오스는 적도를 관통하는 3개의 대양을 10년에 걸쳐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갈리앙트 섬에서는 10분 정도 정착하는데, 드래곤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의 숫자만 무려 2천 명에 달했다.

항구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가득 차서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다. 걸어서 독(dock)까지 가기는 불가능할 듯했다.

누군가가 10분 남았다고 소리쳤다.

주위의 공간에서 어둠의 비율을 가늠하던 카니스가 아린의 손을 붙잡았다.

“그럼, 우리는 이만 실례.”

두 사람이 그림자 아래로 쑥 사라졌다. 다크포트를 시전하면 들키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시로네 일행은 멍해졌다. 특히나 에이미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카니스의 외모를 욕했다. 묘사하는 동물의 이름과 부위를 들어 보니 어지간히도 분한 모양이었다.

“어떡하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내가 항구 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볼게. 기다려 봐.”

관리실로 달려가려는 지스를 에이미가 붙잡았다.

“그래 봤자 이미 늦어. 그냥 여기서 볼 수밖에 없나?”

누군가가 5분 남았다고 소리쳤다.

그 순간 인파의 끝에서 섬광들이 솟구치더니 밤하늘을 빛으로 수놓기 시작했다. 카이오스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대륙의 마법사들이었다.

시로네와 에이미가 서로를 돌아보며 씩 하고 웃었다.

“좋아! 가자!”

순간 이동으로 날아오른 시로네 일행은 자연스럽게 섬광 속에 섞였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학생이고 누가 마법사인지 알 게 뭐란 말인가?

방파제 쪽이 가장 혼잡하리라는 예상과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을 경계로 바깥쪽에 모여 있었다.

카이오스가 갈리앙트 섬에서 사람을 해친 없지만 그럼에도 드래곤이 무섭기는 한 모양이었다.

반면에 사투를 벌이는 데 익숙한 마법사나 검사들은 독 안쪽에 모여 있었다.

수도의 용병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단련된 자들의 인구밀도에 드래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여어, 내가 자리 맡아 놨어.”

먼저 도착해있던 카니스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친구들을 반겼다. 에이미가 팔을 걷어붙이고 다가갔다.

“이 배신자! 혼자만 살려고 도망을 쳐?”

“죽고 살고까지 나올 필요 있나? 왔으니 보면 되잖아.”

그 순간 사람들의 함성이 터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않고도 깨달은 시로네 일행은 곧바로 몸을 돌려 독의 끝부분으로 달려갔다.

먼바다에서 거대한 물의 장벽이 밀려들고 있었다. 크기와 속도를 보건대 항구를 수몰시키고도 남을 정도였다.

“어어? 어어어어?”

시로네 일행은 기겁할 듯이 놀랐다. 해일이 200미터 앞까지 다가오자 숨이 턱 하고 막혔다.

꼼짝없이 휩쓸리겠구나 생각하는 그때 물속에서 거대한 물체가 수직으로 상승했다.

물의 형태가 붕괴되더니 수천 톤에 이르는 막대한 물길이 카이오스에게 이끌려 솟구쳤다.

“으아아아! 으아아!”

시로네 일행은 감전된 것처럼 악을 질렀다. 드래곤이 바다를 통째로 끌어 올렸다. 가히 끝을 알 수 없는 마력이었다.

상승하던 물길이 300미터 상공에서 분수처럼 퍼지면서 수십 개의 아치를 만들었다.

반경 1킬로미터가 넘는 아치에 스스로를 가둔 카이오스가 압도적인 자태를 뽐냈다.

끼오오오오오오오!

구슬프고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바다 위를 수놓았다.

그 순간 시로네의 뒤편에서 빛이 터졌다. 사람들이 원통형의 장치를 수룡에게 조준하고 빛을 쏘아 대고 있었다.

“왜 저러는 거지? 공격하는 건가?”

시로네의 순진한 말에 지스가 웃었다.

“아니, 저건 광학 사진기라는 거야. 빛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하던데 엄청나게 비싸.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불티나게 팔리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카이오스만 찍는 전문 사진기사도 있을 정도야.”

카이오스가 잠영하듯 유려한 비행을 선보이자 갈리앙트 자치 정부에서 준비한 대형 폭죽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지스의 말에 의하면 관광 수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물기둥으로 이루어진 아치에 폭죽의 불꽃이 스며들고 그 사이를 유영하는 드래곤을 구경하는 것은 눈으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달콤함이었다.

에이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지스를 돌아보았다.

“지스, 고마워. 이거 하나만으로 섬에 온 보람은 있네.”

“헤헤, 약속했잖아. 제대로 관광시켜 주겠다고.”

테스는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카니스와 아린의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가 슬그머니 리안의 팔을 끌어안았다.

“뭐, 뭐야. 갑자기 무슨 짓이야?”

리안이 벌레라도 달라붙은 것처럼 질색하자 테스의 눈이 황당하게 커졌다.

“야, 너무하는 거 아냐? 내가 아무리 흉물스러워도 네 팔뚝보다 더하겠니?”

“아,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 정말 깜짝 놀랐다고.”

평소라면 실망감에 기분이 언짢았겠지만 바다 위의 장관은 그런 감정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수룡은 작별인사를 하듯 관객들에게 돌아섰다. 아치가 먼바다를 향해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은색쟁반 같은 달에 12연발 폭죽이 터졌다.

테스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흐윽, 난 몰라…….”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특히나 찔리는 게 있는 리안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왜, 왜 그래? 정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용히 해, 바보야. 정들었단 말이야. 나 이제 어떡해.”

친구들의 마음도 테스와 다르지 않았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되잖아. 헤어지기 싫어. 차라리 나도 마법사로 전직할까? 그러면 학교에서 항상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테스는 당연히 검사가 되어야지. 졸업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잖아.”

시로네의 위로에 테스는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에이미와 아린을 불러다가 손을 맞잡았다.

“우리끼리는 편지도 하고 그러자. 응? 계속 연락하는 거야.”

아린이 자신을 가리켰다.

“나, 나도?”

“당연하지! 천국파 멤버잖아! 이보다 끈끈한 우정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래?”

에이미는 테스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어색한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녀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게 너무나 좋았다. 정의롭고 따듯한 마음씨를 가진 테스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래. 우리 꼭 다시 보는 거야. 그때는 여자들끼리만.”

“좋아! 이걸로 천국파 결성!”

시로네 일행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특별한 날이니만큼 가게들이 24시간 문을 열었으나 휴가의 마지막만큼은 친구들과 오붓하게 보내고 싶었다.

집에 도착한 지스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어라? 대장님이 보낸 편지네? 너에게 왔는데?”

“마르샤 누나가?”

천국에 도착한 날에는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기에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앵무 용병단이 섬을 떠난 뒤였다.

시로네는 편지지를 펼치고 한참이나 읽어 내려갔다.

“하하! 역시 마르샤 누나답네!”

에이미의 눈이 새침하게 가늘어졌다.

“뭐야?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재밌어?”

“응?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빨리 안 내놔? 왜, 연애편지라도 되니?”

에이미가 몸을 던져 빼앗으려고 하자 시로네는 순순히 그녀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었다.

그러자 당황스러운 건 오히려 에이미 쪽이었다.

“뭐, 뭐야? 진짜로 주면 어떡해? 중요한 내용이면 안 봐도 되는데…….”

“아니. 괜찮을 거야. 아마도.”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지 아마도는 뭐란 말인가? 투덜거리며 편지를 읽은 에이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뭐야, 이게? 그냥 백지잖아?”

“맞아. 하지만 편지를 남겼잖아.”

테스가 알 것 같다는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편지를 남겼네.”

시로네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백지에는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말들이 전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마르샤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돌아가면 편지를 써야겠다.’

마르샤의 앞날에 건투를 빌어 주었다.

2. 개학을 기다리며 (1)

집으로 돌아온 시로네는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여유가 생길 때면 틈틈이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다.

마르샤는 백지로 감정을 전했지만 그녀의 위트는 쫓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 정성껏 내용을 채웠다.

“다 썼다.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네.”

내일은 도시에 가서 편지를 부칠 생각이었다. 편지가 친구들에게 도착할 무렵이면 방학도 막바지였다. 천국에서 돌아오고 난 뒤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돌아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다.

“시로네, 내려와서 밥 먹으렴.”

“네, 지금 갈게요.”

1층에서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에 시로네는 촛불을 끄고 방을 나섰다.

@

수도 바슈카.

왕성 관리 구역에 위치한 메르코다인 사저.

제1급 귀족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식탁 위에 구도자나 씹을 법한 이름 모를 풀 반찬이 올라와 있었다.

이루키의 어머니는 질색했지만 메르코다인 부자父子는 단출한 식사를 즐겼다. 고기를 먹고 난 뒤의 포만감이 생각을 무디게 만드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이루키는 쌀을 포크로 떠먹고 가끔씩 나물을 씹었다.

건너편 자리에는 이루키와 똑같이 생긴, 거기에 주름살만 조금 얹은 남성이 밥을 먹고 있었다.

이루키의 아버지이자 용뢰의 수장을 역임하고 있는 메르코다인 알비노. 서번트는 아니지만 그가 모르는 지식은 세상 누구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에 해박한 인물이었다.

알비노가 이상한 타이밍에 물었다.

“엔트로피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럭저럭 해결한 것 같아요.”

이루키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나쁘지 않지만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데에는 귀와 입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식사를 끝낸 알비노가 식기를 내려놓고 물었다.

“이루키, 1 더하기 1이 몇이지?”

“2요.”

“아니. 3이다.”

이루키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눈이 필요한 때였다.

“아뇨, 2인데요.”

“그렇다면 3으로 만들어 봐라.”

“왜요?”

알비노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없잖아?”

“그런가요?”

“증명해서 가져와라. 이걸 할 수 있다면 네가 찾고자 하는 해답에 가까워질 테니까. 이번 방학의 마지막 숙제다.”

“최소 6일은 걸릴 것 같은데요.”

알비노의 눈이 빛났다.

“호오, 벌써 감이 오는 거냐?”

“아뇨. 아버지 5일 뒤에 출장가시잖아요.”

이루키는 다시 쌀을 섭취했다. 한 톨씩, 한 톨씩. 뇌를 가동시키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있다면 포만감은 적이다. 방학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머리를 돌렸더니 서번트의 두뇌도 과부화가 걸리는 기분이었다.

알비노가 뒤늦게 입을 열었다.

“확인하지는 않으마. 해냈다고 믿고 가지 뭐.”

“아버지가 저를 신뢰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알비노는 웃었다. 설령 6일 안에 아카식 레코드를 풀지 못한데도 상관없다. 자신의 출장 기간을 먼저 계산하는 아들이 대견할 뿐이었다.

“어떤 지식도 지혜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지. 네가 이겼다고 치자.”

“잘 먹었습니다.”

이루키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 식기를 치웠다. 알비노가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동안 설거지를 끝낸 그가 돌아서려는데 집사장이 들어왔다.

“도련님, 편지가 왔습니다. 아리안 시로네라는 분입니다.”

“어? 시로네?”

이루키가 화색을 표하며 달려가자 알비노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슬그머니 아들을 살폈다.

아리안 시로네. 이번 학기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입에서 총 3,742번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였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루키는 좋은 재목이다. 천재의 역량을 갖추었고 인간적인 감정도 풍부하다.

어릴 때는 그런 성향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이번 학기를 끝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달랐다.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기에는 시로네라는 소년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터였다.

## [224] 2. 개학을 기다리며 (2)

“하하! 시로네답네. 무슨 편지가 이렇게 길어?”

아들이 해맑게 웃는 것도 집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결국 패배를 선언하고 신문을 내린 그가 이루키에게 물었다.

“네가 말한 그 아이냐?”

“네, 편지를 보냈어요. 글을 아주 잘 써요.”

“그렇게 친하다면 집으로 불러라. 언로커라니, 한번 만나 보고 싶구나.”

“……알았어요. 말은 해 볼게요.”

이루키의 대답에는 영혼이 없었다. 시로네를 소개시키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괴팍한 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였다.

‘6일 후에요, 아버지.’

@

중부 도시 사디아는 토르미아에서 가장 많은 지방귀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유명한 곡창지대답게 재정이 탄탄하여 외부로 진출하는 세력은 적지만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서 서열이 자주 바뀌는 게 특징이었다. 네이드의 가문인 웨스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방학 중에 네이드는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벌써 2일째 밤을 새운 그의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다.

작업장은 마치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의 확장판을 보는 듯했다. 쓰임을 알 수 없는 공구들이 바닥을 굴러다녔고 테이블에는 기관 장치의 엔진 부위가 놓여 있었다.

“후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계절은 가을로 넘어갔지만 작업장은 후텁지근했다. 상의를 벗어던지자 등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상흔이 드러났다. 오래된 상처지만 가끔씩 견딜 수 없을 만큼 욱신거리기도 했다.

네이드는 천막을 끌어와 테이블을 덮었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쓸모없는 일에 돈을 쓴다고 난리가 날 터였다.

지금은 몰락했지만 3대 전만 해도 사디아 곡창지대 절반이 웨스트 가문의 것이었다.

네이드는 가세가 기운 이유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17년을 살아 본 결과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았다. 그저 다 써 버린 것이다.

“네이드, 네이드.”

저택에 돌아오자 심장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머니라는 건 아이러니지만 네이드에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였다.

“네, 어머니.”

“너 기계 잘 다룬다고 그랬지? 존스 가문에 가서 물건 좀 수리하고 와.”

“잠깐만 눈 좀 붙이고 다녀올게요.”

어머니의 인상이 괴물처럼 구겨졌다. 그것은 네이드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자물쇠와 같았다.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에게 대든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해를 하는 바람에 천하의 패륜아가 되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어머니를 이길 수는 없다. 세상에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없는 것이다.

“피곤해서 그래요. 제가 2일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애니?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못 가겠다는 거야?”

네이드는 일그러지는 안면 근육을 붙잡았다. 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고도 모르니? 그 잘난 마법학교에 보내느라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집에서 사라져. 엄마는 더 이상 뒷바라지는 못 해 줄 것 같으니까.”

네이드는 언제 그녀가 자신의 뒷바라지를 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런 기억은 없다. 그저 등에 새겨진 참혹한 상처만이 욱신거릴 뿐이었다.

웨스트 가문의 어느 누구도 가진 재산으로 조그마한 장사라도 해 보려고 들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엄마.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네이드의 상처에서 불에 타는 고통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꼼짝하지 못한다. 아니,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녀가 자해라도 하는 날이면 가족의 모든 짜증은 네이드에게 쏟아진다.

어릴 때는 왜 나만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이유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네이드의 가족은 모든 걸 남에게 미루었고 유일하게 자신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었다.

“해 지기 전에 빨리 가. 존스 가문에서 보일러 점검할 사람을 구한다는데 너 수리공 같은 거 해 볼 생각 없니?”

“조만간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학교부터 졸업하게 해 주세요.”

“그놈의 학교는 가르치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빨아먹는 기생충이니?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려야지.”

네이드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다.

부잣집에 시집을 왔는데 온 가족이 돈을 써 대고 있으니 상심이 클 법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을 위해 자신이 보일러 수리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저택으로 돌아가자 네이드의 이빨 사이로 뜨거운 입김이 새어 나왔다.

세포 하나하나에 살의가 맺히는 기분이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쌓이면 폭발해 버린다.

“도련님, 편지가…… 히익!”

달려오던 집사가 창백하게 질렸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네이드는 고개를 흔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신의 내면에도 깃들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두 번째 고통이 밀려들었다.

“아, 잠을 못 자서. 무슨 일이야?”

“펴, 편지가……. 아리안 시로네라고.”

“뭐? 시로네?”

네이드의 얼굴이 대번에 밝아졌다. 곧바로 편지를 낚아챈 그는 시로네의 필체로 적힌 글자들을 읽어 나갔다.

보고 싶다는 구절을 보는 순간 서러운 마음이 북받치면서 눈물이 핑 하고 돌았다.

“조금만 기다려, 시로네! 금방 갈게!”

네이드는 편지를 움켜쥐고 저택을 나섰다. 앞으로 존스 가문에서는 10년 동안 보일러를 수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세리엘의 가문인 포트리스의 본가는 에이미와 마찬가지로 크레아스 도시에 있었다.

귀족 서열은 그리 높지 않으나 위대한 의사들을 다수 배출한 명문으로 왕국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학교에서는 모범생 에이미의 단짝친구인 그녀지만 집에서는 의사 지망생인 남동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뒤로 쏙 빠지는 천방지축 망아지였다.

오늘도 그녀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3일째 은신 중이었다. 장차 최고의 의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동생의 방은 가족들이 찾지 않는 잔소리 청정 지역이었다.

“흑흑! 나 어떡해. 너무 감동적이야.”

이불을 뒤집어쓰고 연애소설을 읽던 세리엘이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책상에 앉아 있는 남동생 베일은 미칠 지경이었다.

“아우, 좀 시끄러! 나 공부하잖아! 이제 누나 방으로 가! 아니면 질질 짜지나 말든가.”

세리엘은 비극으로 결말을 맺은 소설책을 끌어안고 여운을 음미했다. 자체 평가를 내리자면 방학 중에 읽은 소설 중에서 수위권에 드는 이야기였다.

“너무 슬픈 사랑 이야기였어. 아, 어디 조세프 같은 남자 없나?”

베일이 필기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있어.”

“진짜? 누군데?”

“조세프.”

“이게 혼나려고! 누나한테 장난을 쳐?”

“왜? 현실에 없으면 등장인물이라도 붙잡고 살아 봐야지, 큭큭.”

세리엘은 동생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입술을 이기죽거렸다. 며칠 신세진 것도 있어서 화를 안 냈더니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타려 하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엄마의 잔소리와 함께 편지 한 통이 톡 하고 떨어졌다.

“편지 왔다!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동생 방해하지 말고 나와. 놀 거면 씻기라도 하든가. 저래 가지고 시집이나 갈는지. 쯧쯧.”

세리엘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침대 아래로 기어갔다.

편지라고 하기에 에이미가 보낸 줄 알았으나 발신인을 보니 의외의 인물이었다.

“어? 시로네다! 시로네!”

세리엘은 얼른 봉투를 개봉하고 읽어 보았다. 눈빛이 금세 사랑스러워졌다. 종이에 배어있는 향기를 맡은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아, 어디 시로네 같은 남자 없나?”

열심히 책을 읽고 있던 베일의 눈이 퀭해졌다.

‘시로네는 진짜 사람이잖아, 멍청아. 가서 사귀면 되지.’

이 말이 목까지 치밀었지만 저 여자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터였다. 며칠째 소설책만 파다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했다.

@

크레아스 시립 훈련장.

마크는 비싼 입장료를 내고 훈련장으로 들어갔다. 마리아와 함께 조기 진급에 성공하여 다음 학기부터는 클래스 식스에 배정받게 되는 그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다.

‘드디어 나도 고급반 후배가 생기는구나.’

시로네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날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건널 수 없는 다리에서 패한 이후 시로네를 롤 모델로 삼아 부단히 노력한 덕분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다.

“여어, 마리아.”

“왔어? 오늘은 어제보다 일찍 왔네?”

훈련장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가 농담이 섞인 핀잔을 하자 마크는 웃었다. 건널 수 없는 다리의 기관 장치를 작동시켜서 학생들을 위험에 빠트릴 정도로 우울했던 그녀였으나 사드의 수제자가 되면서 성격이 많이 밝아졌다.

“미안해. 아버지가 눈치를 주셔서. 마법협회에 좋은 교사가 많은데 왜 굳이 나가서 수련하냐고.”

“하긴. 슬라이더 가문은 마법협회에 진출해 있으니까. 정말 계속 같이 해도 괜찮겠어?”

“문제없어. 내가 또 한다면 하는 남자잖아.”

마크는 윙크를 하며 엄지를 들었다. 사실 아침까지 굶어가며 겨우 도망쳐 나온 것이었다. 언제부턴가 열다섯 살 소년의 눈에 열아홉 살 누나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이렇게 귀여운 누나를 괴롭힐 생각을 했다니.’

“여어! 많이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해.”

훈련장 입구에서 사드가 달려오자 마크의 표정이 안 좋아졌다. 다름 아닌 자신의 최고 경쟁자였다. 스승과 제자가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지만, 스물여섯 살 남자와 열아홉 살 여자라면 괜찮은 터울인데다가 사드 또한 싫은 기색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다.

그런 마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리아는 누구보다 다정한 미소로 사드를 맞이했다.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막 왔어요.”

“그래. 교장 선생님 배웅하느라고 조금 늦었다.”

“어머, 교장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응. 그런 일이 좀 있어. 아무튼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

대화에서 소외당한 마크는 기분이 편치 않았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드의 성격이야 질리도록 경험해 봤지만 마리아에게는 특히나 더 다정한 게 눈엣가시였다.

그때 마리아가 손뼉을 치더니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아, 맞다! 이거 봤어? 시로네 선배님에게 편지가 왔어.”

“어? 시로네 선배님이? 나한테는 안 왔는데?”

“아마 왔을걸. 나도 나오는 길에 받아 가지고 왔거든. 아직 읽어 보지도 않았어.”

마리아는 자랑하듯 봉투를 흔들더니 편지를 꺼내 읽었다. 구구절절 다정함이 묻어 나오는 내용에 그녀의 표정이 녹아내렸다.

“아, 정말 멋진 사람이야. 강하면서도 다정하잖아. 시로네 선배님하고 사귀는 에이미 선배님은 얼마나 좋을까?”

사드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솔직히 말하면 마리아가 자신에게 푹 빠졌을 거란 확신을 7할 정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들어 보니 단순한 존경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드가 우울해하자 마크는 통쾌했다.

대부분의 여자 후배들이 마리아처럼 이야기하기에 시로네에게 질투심이 생기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시로네의 곁에는 에이미라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버티고 서 있지 않은가?

‘좋아! 시로네 선배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목표가 한층 더 강화되었군!’

초조해진 사드가 만회에 나섰다.

“하하! 맞아. 시로네가 멋있기는 하지. 하지만 보통은 연상을 선호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동갑은 되어야지. 어린 남자는 재미가 없잖아?”

마크가 질세라 받아쳤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국경보다 중요한 게 나이지. 그럼 마리아에게 물어볼까? 연상과 연하 중에 어떤 쪽을 택할 거야?”

마리아는 턱을 받치고 고민하더니 장난스럽게 혀를 빼물고 대답을 회피했다.

“후후, 글쎄요?”

잔뜩 기대하고 있던 마크와 사드는 허탈했다. 어쩌면 그녀야말로 진정한 밀당의 고수가 아닐까 싶었다.

어쨌거나 비싼 입장료를 내고 잡담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마크와 마리아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열식으로 정신을 예열했다. 그러는 동안 사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시로네를 떠올렸다.

‘방학도 이제 끝이네. 돌아오면 또 무슨 사고를 치려나?’

시로네가 마법학교에 입학한 직후부터 걸어온 행보는 학교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분명 독보적인 데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불안했다.

스승님이 어떤 대답을 받고 올지에 따라 달렸지만 승낙이 떨어진다면 여태까지의 학교생활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다, 시로네.’

## [225] 2. 개학을 기다리며 (3)

@

수도 바슈카.

제롬 가문은 대대로 훌륭한 교사를 배출한 교육자 집안으로 왕국에서 가장 위세가 좋은 가문 중의 하나였다.

왕보다 높은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왕의 스승이라고 답하는 우스갯소리는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들이 키워 낸 제자들만 모아 놓아도 하나의 국가를 운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제롬 가문의 본가에 도착한 알페아스는 집사의 안내를 받아 고대풍으로 지어진 회랑을 걸었다.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나 그녀의 방에 찾아가는 건 처음이었다.

집사가 문을 열어 주자 화려한 풍경이 그를 반겼다.

바닥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했고 벽을 따라 3층으로 나누인 선반 위에는 온갖 골동품들이 놓여 있었다.

북쪽에 사람 10명이 눕고도 남을 호피 양탄자가 깔려 있었는데, 가짜를 혐오하는 성격상 진품일 것이다. 하지만 저렇게 커다란 호랑이가 세상에 존재하는지는 의문이었다.

여자는 호피 양탄자 위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대지만 3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었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소싯적에는 정말로 대단했다. 얼마나 새침하고 깔끔하던지, 남자들은 그녀에게 말조차 쉽게 건네지 못했었다.

“왔으면 문 닫고 앉아. 뭐 구경났다고 멍하니 서 있어? 멍청한 건 여전하군.”

알페아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세상 모든 남자를 깔아 보는 성미는 여전했다. 꾀꼬리처럼 낭랑한 목소리도 그대로여서 시간을 역행한 기분이었다.

“아니, 신기해서 말이야. 어떤 곳에서 살고 있나 했더니 성질머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군.”

“남의 집에 다짜고짜 쳐들어와 놓고 염치없게 헛소리야. 너 같은 촌놈이 내 물건의 가치를 어찌 알겠어?”

양탄자는 분명히 최고급일 것이다. 그래서 알페아스는 신발을 신은 채로 양탄자를 작신작신 밟아주었다.

천하에서 가장 콧대가 높다는 그녀를 한때나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게 했던 장본인으로서 부려 본 호기였다.

그녀는 알페아스를 나무라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너 지금 뭐 하니? 아, 됐고. 용건만 간단히 말해.”

알페아스는 장난스럽게 입가를 찢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모습이었다.

제롬 올리비아.

공인 제2급의 대마법사에 현재 교사회의 감사. 게다가 4년 전에는 왕립 마법학교의 교장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용건이랄 게 있나? 응답이 없어서 직접 찾아왔네.”

“날더러 어쩌라고? 네가 사고 쳐서 교직을 정지당해 놓고 왜 날더러 수습하라는 거야? 시골 마법학교 교장? 그것도 6개월 임시직?”

“꼭 그렇게 못 박은 건 아니잖아. 더 있고 싶으면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왜? 내가 무슨 이유로 이 좋은 집을 놔두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같이 늙어 가는 처지에 한가로이 차라도 마시면 좋지.”

올리비아가 차가운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자 젊었을 때의 모습과 더욱 비슷해보였다.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냐? 내가 너를 사모했던 것도 30년 전의 일이야. 게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는 않았을 텐데? 무엇보다 너는 더 이상 멋있지가 않아.”

“하하! 그렇게 됐지.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예쁘군.”

올리비아는 이를 뿌드득 갈았다. 이래서 남자가 싫은 것이다. 마음 한번 줬다고 다 가진 것처럼 구는 어린애.

교장직까지 박탈당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백수 주제에 뻔뻔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러웠다.

“도대체 네가 뭔데 이렇게 당당하니? 나는 왕립 마법학교 교장을 지낸 공인 2급의 대마법사야. 너는 4급 마법사에 시골 학교 교장이고. 돈을 벌어도 내가 더 벌었고 존경도 내가 더 받아. 그런 네가 부탁하러 온 주제에 뻔뻔하게 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흐음, 글쎄? 네가 날 좋아해서일까?”

“미……친……놈.”

올리비아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다 늙어 가지고 소름 돋는 말을 내뱉다니. 나이 먹어서 늦바람이 들었나? 예전에는 입에도 담지 않았던 말들을 술술 늘어놓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지. 오랜만에 만나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슬퍼할까 봐 그랬어.”

“어머, 전혀 아닌데? 나는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수도 없이 상상했거든.”

알페아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신보다는 그녀의 상처가 더 컸을 것이다.

“좋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시원하게 부탁하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되나?”

올리비아는 코웃음으로 응수했다. 이제 와 무릎을 꿇는 게 무에 대수겠는가?

“요즘은 뭐 해? 직장도 잘리고. 정말 늦바람이라도 난 거야?”

“그냥 뭐,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에리나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올리비아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충격이 가해졌다.

알페아스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에리나가 살고 있었다.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니. 천하의 멍텅구리.’

아내를 잃고 10년을 떠돌다가 돌아온 알페아스는 교사의 꿈을 품고 나이 어린 올리비아의 제자로 들어갔다. 광양자 이론을 정립시킨 희대의 천재였던 만큼 올리비아도 애정으로 가르쳤다.

애정. 그것이 문제였다.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재능도 뛰어난, 무엇보다 잘생긴 그를 제자로 받지 말았어야 했다.

커져가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었던 올리비아는 결국 알페아스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하지만 아내를 잊지 못하던 알페아스는 단칼에 거절했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인생이 180도 변했다. 구겨지는 자존심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로 화가 나는 건 세상에 없는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를 빼앗긴 한심함이었다.

20대의 불타는 사랑은 눈에 뵈는 게 없었다. 그러다가 결국 알페아스가 보는 앞에서 에리나의 그림을 훼손시키는 짓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올리비아는 처음으로 알페아스의 살기를 느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그날 이후로 알페아스는 그녀를 사람 취급조차 해 주지 않았다.

차라리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올리비아는 너무나 절박했고 또한 뜨거웠다. 자신에게 찾아온 첫 번째 사랑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 그날 밤 알페아스의 방을 찾아간 것은 평생의 실수였다.

“착각하지 마, 알페아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남자라는 생물이 귀찮아서일 뿐이지.”

“그래서 요상한 물건이나 모으고 있나? 올리비아, 사랑을 원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

“저급한 감정이야. 예전에 구애를 했던 것도 자존심 때문이었어. 죽은 여자에게 홀려서 관심조차 주지 않았으니까.”

“문득……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르는군.”

올리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방에 찾아와 옷을 벗고…….”

“그만!”

올리비아가 손을 내밀고 소리쳤다.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알몸을 보였던 순간이다.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알페아스의 마음을 얻고 싶었다. 하지만 한 번만 안아 달라는 부탁조차 그는 들어주지 않았다.

‘나쁜 자식…….’

지금 생각해도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평생에 가장 부끄러운 일을 자랑처럼 떠벌리다니. 왜 항상 당하는 쪽은 여자여야 하는가?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후회하게 해 주겠어.’

기선 제압에 실패한 올리비아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소파에 놓인 서류 봉투를 들었다.

“좋아. 어디 한번 볼게.”

문서에는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었다.

“알페아스 마법학교. 마법학교 5대 명문 중 서열 4위. 전체 특수 목적 학교 중 서열 11위. 얼간이치고는 꽤나 올렸네. 개교했을 당시에는 정말로 못 봐 줄 꼴이었는데.”

“운이 좋았지. 좋은 제자들이 많았어.”

올리비아는 능글맞은 알페아스의 머리를 사제 관계였을 때처럼 쥐어박아 주고 싶었다.

“얘기는 들었어. 시로네라는 아이가 있다지?”

“많이도 조사했구먼. 처음부터 승낙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건가?”

“그건 알아서 생각하고, 내가 궁금한 건 초반에만 치고 올라왔다는 거야.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만 놓고 보면 5대 명문에서 간당간당한 수준이야.”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 학교의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

“하하! 여전히 고리타분하네.”

올리비아가 꼬았던 다리를 풀고 상체를 내밀었다.

“좋아. 6개월. 내가 맡아 주지. 지금보다 훨씬 명문으로 만들어 주겠어.”

“호오? 그거 듣던 중 불길한 소리군. 그래 주면 나야 고맙기는 하지.”

“대신에 조건이 있어.”

알페아스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미소 지었다. 처음부터 대가 없이 부탁을 들어주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내가 왕립 마법학교 교장일 당시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 학교에 전학시켜 줘. 여기 프로필이야.”

알페아스는 대답을 미루고 프로필부터 받았다.

17세의 동갑내기 소년 둘과 소녀였고 왕국 최고의 명문인 왕립 마법학교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성적이었다.

세 장의 프로필을 하나씩 넘기며 살피는데 마지막 장에서 알페아스의 눈이 크게 뜨였다.

“단테? 내가 알고 있는 그 단테가 맞나?”

올리비아가 입을 가리며 웃었다.

“호호! 당신 학교에 다니기에는 과분한 학생이지. 하지만 이제 교장은 나니까 뭐.”

알페아스는 바보처럼 눈만 깜박거렸다. 천하의 올리비아가 이 정도로 전력투구를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올리비아가 알페아스를 가리키며 선언했다.

“에어하인 단테 외 2명을 전학시킨다. 그게 바로 내 조건이야.”

@

험지의 산속을 5명의 마법사가 질주했다.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구성된 젊은 파티였고 모두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었다.

급습하는 장소는 수도 인근의 산맥에 터를 잡은 산적들의 아지트로, 현상범 랭크B라는 간과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산적단을 궤멸시키면 명성은 물론 보상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그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평소와 달랐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벌써 죽은 거 아냐?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애들인데.”

“흥! 상관있겠어?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닌데. 너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는지. 왕립 마법학교면 다야?”

“맞아. 아무리 철이 없어도 현역에서 뛰는 공인 마법사를 무시하다니. 요즘 애들은 너무 건방지다고. 한번 크게 데어 봐야 정신을 차리지.”

막상 아지트에 도착하자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다.

의아한 심정으로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40명에 달하는 B급 산적들이 전부 바닥에 퍼져 있었다.

원탁에 앉아 있던 학생들이 그들을 반겼다.

“어라? 늦었네요? 한참이나 기다렸잖아요.”

용병들은 할 말을 잃었다. 출발선에서 고작 10분을 늦게 출발했을 뿐이다. 그 안에 B급 산적단을 궤멸시키는 것은 학생 수준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너, 너희는 도대체?”

“별것도 아닌 일에 정색을 하고 그러시나? 어른들이 쪽팔리게. 킥킥!”

마법사답지 않게 키가 크고 근육이 붙은 체구의 소년이 웃음을 터뜨렸다.

왕립 마법학교 학생인 보니파르 클로저였다.

구릿빛 피부에 얼굴은 샤프했고 뒤로 넘긴 흑갈색 머리는 고슴도치처럼 일어서 있었다.

“깔깔깔! 며칠 전에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겁나서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냐?”

고양이를 닮은 소녀, 빅터 사비나가 눈웃음을 치며 용병들을 조롱했다. 키는 또래에 비해 작았으나 발육은 왕성했고 허리 라인은 밧줄로 동여맨 듯 잘록했다.

용병들은 이를 악물었다. 현직 마법사가 학생에게 패했다는 것은 굴욕이었다. 무엇보다 사실이 알려지면 용병 업계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슬슬 인정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겼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에어하인 단테가 말했다. 비구름을 연상시키는 회색빛 머릿결에 외모는 사나우면서도 지적으로 보이는 미남자였다.

용병들은 고개를 숙였다. 현직 마법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판과 업적이다. 학생에게 패배한 마법사를 어떤 의뢰인이 돈을 주고 고용하겠는가?

## [226] 2. 개학을 기다리며 (4)

“우리가 졌다. 부탁인데 이번 일은 비밀로 해 다오.”

“하아? 언제는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서 우리를 퇴학시키겠다더니?”

굴욕감에 몸이 떨렸지만 용병대의 리더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신과 동료들의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미안하다! 한 번만 도와 다오! 너도 마법사가 될 거잖아. 그래도 명색이 선배인데 밥그릇까지 깨트릴 필요는 없잖아?”

단테는 부족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용병들은 소년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얼굴을 붉혔다. 결국 뒤편에 서 있는 네 사람까지도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사정을 봐 다오. 우리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냐?”

비로소 만족한 단테가 리더의 어깨를 짚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학 중에 무료해서 잠깐 놀아 본 것뿐이니까. 그나저나 너무 방심한 거 아니에요? 공인 자격증은 어떻게 땄을까 몰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용병들은 굽혔던 허리를 반사적으로 세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딴청을 부렸다.

“어머! 벌써 끝났네. 아아, 아쉬워라.”

곱슬곱슬한 단발머리를 뺨에 붙인 여성이었다. 장난기가 가득한 얼굴은 20대 초반처럼 어려 보였으나 실상은 서른이 넘은 나이였다.

“당신은…… 킬라인?”

교사회 예하의 학술지 편찬부에 근무하는 여자로 전국의 마법학교를 돌아다니며 르포를 작성하는 특파원이었다.

그녀가 쓰는 기사는 <스피릿>이라는 잡지에 수록되는데, 전국 마법학교에 배포되기 때문에 실리기만 하면 유명세를 타는 건 시간문제였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역시 멋지게 해냈군요. 단테, 이 참담한 현장이 모두 당신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건가요?”

킬라인이 과장된 몸짓을 선보이자 동행한 사진사가 광학 사진기를 찍었다.

용병들은 낯부끄러운 상황에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에게 <스피릿> 잡지는 한때의 추억일 뿐이지만 전국에 배포되는 메이저 잡지이기도 했다. 자신들의 추태가 기사로 실린다면 가문의 망신이었다.

“아니에요. 어떻게 선배님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물리칠 수 있겠어요? 실전 훈련을 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많이 배웠고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단테가 돌아보자 눈치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마법사들이 얼른 낯빛을 고쳤다.

“하하! 이 정도야 뭐. 그래도 대단하더라. 역시 왕국 최고의 스타답던데?”

킬라인이 눈을 빛내며 돌아섰다.

“어머! 단테를 알고 계시나요? 역시 왕국이 자랑하는 유망주는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아직 학생인데 일선의 마법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다니.”

“물론이죠. 가끔씩 동료들과 단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는 해요. 언젠가는 단테가 제1급의 대마법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킬라인은 리더의 인터뷰를 꼼꼼히 받아 적었다.

<스피릿>은 원래부터 인기 잡지지만 단테에 대한 기사가 실리는 날에는 판매 부수가 1.5배는 뛴다.

단테의 외모는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웠고 남자들의 질투 어린 관심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터였다.

‘아유, 귀여운 것. 정말 잘 컸네, 우리 단테.’

어릴 때부터 단테를 전담 인터뷰했던 킬라인은 단테와 함께 승진했다고 봐도 무방했다. 현재 왕국 최고의 리포터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도 단테 덕분이었다.

“자, 취재도 끝났으니까 뒤풀이하러 가죠. 교사회에서 거하게 쏠 테니까!”

단테가 아지트를 나서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에어하인의 집사가 상자를 들고 다가왔다.

“단테 도련님, 올리비아 님께서 소포를 보내셨습니다.”

“스승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건 저도 잘……. 다만 가주님께서 직접 전하라 이르셨습니다.”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단테라도 올리비아의 말이라면 껌벅 죽었다. 자신의 재능을 어릴 때부터 알아보고 왕립 마법학교에 입학시켜준 스승이자 은인이었다. 물론 동기인 클로저와 사비나도 마찬가지였다.

“알았어. 이리 줘.”

소포를 받아 들고 포장을 뜯자 두툼한 원서가 나왔다. 한 장씩 읽어 보던 단테의 미간에 골이 깊어졌다.

“뭐야? 전학 신청서잖아?”

클로저와 사비나가 어깨너머로 살폈다. 단테의 프로필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프로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킬라인이 달라붙었다.

“뭐야, 단테? 응? 뭔데?”

“음, 그게…… 전학 신청서예요. 이번에 스승님이 어떤 학교의 교장직을 임시로 맡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싶으면 오라고…….”

클로저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야지. 스승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안 따라갈 수야 있나?”

사비나가 말했다.

“어딘데? 학교는 안 적혀 있어?”

“아니, 알페아스 마법학교. 그런데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학교야?”

바슈카에 사는 학생들은 지방의 정보에 관심이 없었다. 단테 일행 또한 아는 정보라고는 왕국 5대 명문 중의 하나라는 것뿐이었다.

킬라인은 특종의 냄새를 맡고 눈을 빛냈다.

“어머, 알페아스 마법학교? 게다가 올리비아 씨가 임시직 교장? 이거 엄청난 사건이네. 알페아스 마법학교는 마법학교 서열 4위에 랭크된 학교야. 크레아스 도시에 있고. 가장 유명한 졸업자로는 현 마법협회장이신 미케아 가올드 씨가 있지.”

“아, 가올드 씨가 여기 출신이셨구나.”

서열 4위라는 말에 심드렁했으나 가올드라는 이름을 듣자 눈빛이 달라졌다. 왕국에 5명밖에 없는 공인 1급의 대마법사가 수학했던 곳이라면 전학을 가도 체면치레 정도는 할 수 있을 듯했다.

클로저가 말했다.

“가 보자고. 어차피 이제 전국적으로 개학이잖아. 맞춰서 전학하면 되겠어.”

“그렇지. 스승님도 그때 부임하실 것이고.”

단테는 편지를 챙기고 원서는 사비나에게 맡겼다. 자세한 사정은 만나서 들어 보면 될 것이고, 지금은 그저 무료한 일상에 흥미로운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다.

산 밑으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던 단테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웃었다.

“재밌겠는데? 알페아스 마법학교라.”

3. 시로네 어디 있어? (1)

알페아스 마법학교 후반기가 시작되었다.

오전부터 정문에는 학생들을 태운 마차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부모를 동반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 질질 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반면에 사춘기 소년들은 집사의 수발을 받는 것조차 부끄러운지 무심한 표정으로 정문을 넘어섰다.

입학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숙소로 돌아가 짐을 풀었다.

이른 아침에 도착한 시로네도 가져온 책들을 책장에 꽂아 넣고 옷가지랑 생필품을 배치했다.

“시로네!”

친구들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다.

“네이드! 이루키!”

시로네 또한 함박웃음을 지으며 달려갔다. 고작 30일 떨어져 있었는데 1년은 못 본 것 같았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알면 두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서로의 손을 맞잡은 그들이 똑같이 소리쳤다.

“나 엄청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가 짧으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좋아. 순서를 정하자. 시로네, 너부터 말해 봐.”

“알았어. 내가 에이미랑 갈리앙트 섬에 갔는데……!”

갑자기 네이드가 멱살을 움켜쥐었다.

“뭐어! 너 그럼…… 설마…… 그거……! 이런 젠장! 이 배신자! 부럽다!”

시로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계속 얘기를 들어 봐.”

“으아아! 말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모태 솔로여도 시로네보다는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네이드는 실성 일보 직전이었다.

이루키마저도 동공이 흔들리는 걸 보니 그것에 대한 문제는 남자에게 최대의 딜레마이기는 한 모양이었다.

시로네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선을 그은 후에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지 알지 못했다.

“우와. 너 정말…… 죽다 살아났구나.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네.”

“그것도 그렇지만 최후의 전쟁 말이야. 이건 뭐랄까, 너무 심각해서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군.”

천국에 대한 인상이 강렬했기에 네이드와 이루키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반면에 털어놓고 속이 후련해진 시로네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들어 보고 싶었다.

“이제는 너희가 말해 봐. 방학 중에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더니 이루키부터 말했다.

“가재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내 작업실에 주먹만 한 거미가 나왔어.”

“하하! 정말 재밌게 보냈네.”

상상만 해도 웃겼다. 아이스크림에서 가재 맛이 나다니. 게다가 주먹만 한 거미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싹했다.

“이런 젠장!”

네이드가 정권으로 시로네의 뺨을 밀었다.

“아욱! 왜 그래?”

“자기는 혼자서 흥미진진한 방학을 보내 놓고는! 그것도 엄청 예쁜 에이미 선배님이랑!”

“정말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엄청 예쁜 에이미는 또 뭐야? 유치하게! 아욱!”

네이드가 시로네의 얼굴을 재차 미는 동안 이루키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었다.

“진짜 아깝네. 미친 척하고 본가로 돌아가지 말 걸 그랬어. 아타락시아인가 뭔가 하는 마법도 궁금하고 말이야. 한번 보여 줄 수 있어?”

“응? 아타락시아?”

시연이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정신력이 소진되는 것도 문제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전하면 괜히 일만 복잡해질 터였다.

“그러고 싶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 줄게.”

“어쭈? 아끼시는데? 좋아, 그럼 나도 당분간은 새로운 마법을 감추기로 하지.”

새로운 마법이라는 말에 시로네가 눈을 빛냈다. 서번트 신드롬의 이루키라면 신규 마법 또한 여느 학생들이 익히는 것과는 수준이 다를 터였다.

“뭔데? 응? 무슨 마법인데?”

“비밀이야. 힌트를 주자면 너를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라고 할까?”

그렇게 말한 이루키가 네이드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나저나 너는 어때? 설마 방학 중에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닐 테고.”

“아, 정신없이 바빴지. 요즘 연금술을 공부하고 있거든. 그쪽 계열에 필요한 마법 좀 보강하고 그랬지 뭐.”

연금술도 마법의 큰 갈래지만 마법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야는 아니었다. 연금술은 거대한 학문이며 연금술 재단에서 따로 연금술사를 육성하고 있었다.

이루키는 걱정스러웠다. 결국 네이드는 방학 중에 수업과 동떨어진 부분에 집중한 셈이었다.

“괜찮겠어? 마법공학자가 될 거면 마법사 자격증이 더 유리할 텐데.”

“물론 그렇지만 재료학도 배우고 싶어. 기능은 형태에서 시작되고, 형태의 시작은 원질이니까. 연금술의 기초는 알아 두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복도 쪽에서 사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입학식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중앙 행사장으로 집결해 주세요.”

@

클래스 원부터 클래스 텐의 전교생이 훈련장에 모였다.

시로네는 단상 쪽에서 알페아스를 찾았지만 어째서인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어라? 교장 선생님이 안 보이시네?”

“6개월 정직. 오늘부터 임시 교장 선생님이 오실 거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공부 좀 적당히만 시켰으면.”

네이드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마법공학자가 꿈이지만 일단은 마법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업이 어려워지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새로 부임한 교장이 단상에 등장하자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루키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이런…… 하필이면 저 사람이 교장이라니.”

“응? 누군지 알고 있어?”

“제롬 올리비아. 전 왕립 마법학교 교장이었어. 아마 공인 제2급의 대마법사일 거야.”

시로네는 올리비아를 유심히 살폈다. 나이에 비해 훨씬 어려 보이고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좌우에는 교사들이 포진했는데, 하나같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왕립 마법학교 교장이라니…….’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올리비아가 연설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새로이 교장직을 맡게 된 제롬 올리비아입니다. 임시직이지만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 [227] 3. 시로네 어디 있어? (2)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졌다.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교장직을 지낸 사람이 와 주었으니 학생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컸다.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명성은 익히 들어 왔기에 기존의 방침에 크게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 마법사회는 높은 효율과 실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전주의. 제가 교장으로 부임하는 동안 심고자 하는 씨앗입니다.”

여태까지 알페아스 마법학교는 실전과 동떨어진 수업을 하고 있었다는 뉘앙스였다. 학생들이 발끈할 법도 하지만 대마법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다.

“심각하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왕립 마법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이루키는 올리비아를 봤을 때부터 직감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교장직에서 은퇴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는지 모르겠다.

클래스 포의 학생들 사이에서 비슷한 말들이 나왔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스피릿>의 예상이 맞았어. 당장 내일부터 죽어나겠군.”

“듣자 하니 제자들도 여기로 온다던데.”

“알아, 나도 읽었어. 그중의 1명이 단테라지?”

시로네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방학 중에 올리비아가 교장으로 부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루키, <스피릿>이 뭐야?”

“교사회에서 출간하는 학술지. 마법학교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스피릿> 구독자라고 할 수 있지. 졸업 시험 출제 경향과 최신 유행하는 마법.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슈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루키 너도 읽어?”

“미쳤어? 다른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든 알 게 뭐야. 나는 마이 웨이라고.”

시로네는 네이드에게도 물었다.

“너는 어때?”

“한때는 친구들 거 빌려 보기도 했는데 요새는 안 읽어. 나도 어차피 공학자가 될 거니까 그다지 관심이 안 가더라고.”

이루키가 말했다.

“그래도 단테라면 학교가 발칵 뒤집힐 일이지. 학생 레벨에서 왕국 랭킹 1위라고 봐도 무방한 녀석이니까.”

왕국 랭킹 1위. 시로네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대체 어떤 학생일까? 아니, 어떤 기분일까?

전국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입학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루키가 물었다.

“시로네, 어떻게 할 거냐?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은 오늘 보기 힘들 거 같은데.”

“개학 첫날이라 모두 바쁘실 거야. 그냥 내일 오전 수업 끝나면 점심시간에 다녀오려고.”

알페아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산더미였다. 천국의 존재는 어디까지 알려져 있고 미로의 시공에 얽힌 사연은 무엇인지. 하지만 오늘은 시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내일을 기약하며 시로네는 숙소로 돌아갔다.

@

아침 일찍 친구들과 합류한 시로네는 역사적인 클래스 포의 첫 수업을 받기 위해 강의실로 들어갔다.

어느새 절반 정도가 차 있었다. 클래스 파이브에서는 항상 1등으로 등교했었기에 색다른 기분이었다.

시로네가 긴장하는 만큼 클래스 포의 학생들 또한 시로네 일행의 동태를 알게 모르게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나 시로네는 반년 만에 클래스 세븐에서 클래스 포까지 올라온 전무후무한 경우인 만큼 학생들의 관심사에서 언제나 1순위를 차지했다.

50년 학교 역사에서 시로네만큼 뛰어난 학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뛰어난 학생은 처음부터 높은 클래스에 배정을 받기에 시로네의 경우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었다.

시로네는 어제까지 선배였던 사람들이 동급생이 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반면에 네이드와 이루키는 당연하다는 듯 손을 흔들어 주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드디어 왔구나. 반갑다.”

시로네의 눈앞에 손이 불쑥 들어왔다. 고개를 들자 동그란 턱에 성격 좋아 보이는 소년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클래스 포의 서열 1위인 크리스 보일. 소환 마법을 주특기로 하는 학생이었다.

모범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소년답게 옷매무새에서도 빈틈을 찾을 수 없었다. 칼라는 목이 조이도록 단추를 채웠고 머리는 단정하게 2대 8로 가르마를 탔다.

시로네가 보일의 손을 맞잡고 말했다.

“나도 반가워. 드디어는 아니고 겨우 올라왔지만.”

“하하!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 여긴 고급반의 마지막 관문이니까. 이제는 겸손보다는 자신을 어필해야 할 시기야.”

좋은 뜻으로 건넨 조언이지만 시로네를 아래로 보는 느낌이 다분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보일의 말대로 자신을 어필하는 방식 중의 하나일 터였다.

“고마워.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얼마나 오래 지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응?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당연히 졸업반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

클래스 포는 언제라도 졸업반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가장 먼저 에이미가 스타트를 끊었고 조금 뒤에 세리엘이 따랐다. 현재까지 총 8명의 학생이 졸업반에 들어갔기에 이제 공석은 두 자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통은 후반기쯤에 등록자가 몰리지만 특이하게도 에이미 선배님이 너무 빨리 도전을 해서 남은 자리가 별로 없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야.”

보일의 말에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클래스 포부터는 딱히 성과가 중요치 않다. 졸업반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조금 더 기초를 다지느냐의 눈치 싸움이었다.

물론 조급한 마음에 졸업반 신청서를 쓰는 사람은 없었다.

일단 졸업반으로 넘어가면 기본기를 다듬을 시간은 없다고 봐야했다. 게다가 매년 도전하는 졸업 시험이라도 탈락의 충격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졸업 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의 60퍼센트가 첫 시험에서 합격한 반면에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마법학교 전체를 통틀어 20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들은 졸업반에 올라가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보일이 물었다.

“너는 어때? 당연히 클래스 포에서 진가를 증명하고 남은 두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할 생각이겠지?”

어젯밤 시로네도 친구들과 그 문제를 상의했다. 그리고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클래스 파이브에서 전 과목 80점 이상을 얻었지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다.

졸업반에 들어가자마자 다이렉트로 졸업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도 있으니 반 학기 정도 기초를 다진다고 해도 손해는 아니라는 계산이었다.

“아니. 이번 학기까지는 클래스 포에 있을 거야.”

보일에게는 의외의 말이었다. 최단시간에 클래스 포로 올라온 시로네라면 당연히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도전할 줄 알았던 것이다.

기만전술일까? 그럴 성격은 아니었다. 어쨌거나 강력한 경쟁자 1명이 포기해 준다면 나쁜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아무튼 열심히 해 보자. 이루키, 네이드. 너희도 잘 부탁해.”

“그래, 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루키가 귀찮다는 투로 말했다. 학생들은 세 사람 모두 졸업반에 진급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자신들도 생각을 다시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시로네 일행과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눈 사람이 클래스 포의 1인자인 보일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또한 클래스 포의 파워 게임이었다.

그런 만큼 서열 2위인 아젤리오 판도라는 기분이 나빴다.

에이미라는 1인자가 있었을 때는 모든 학생이 2인자에 불과했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1등과 2등인 보일과 판도라의 점수 차는 1점밖에 되지 않았다.

보일의 대화가 얼추 끝나가자 판도라가 슬그머니 시로네에게 다가가 손을 들었다.

“안녕?”

네이드가 윽 소리를 냈다. 만인의 친구인 그가 질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고급반에서는 유명한 괴짜였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소녀였다.

시로네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 하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외롭게 보이기도 했다.

“안녕, 판도라. 이제 같은 클래스가 됐네. 좀 이상하다.”

“후후, 나 같은 미모의 여인과 같이 수업을 받는 기분이 어때?”

판도라가 상체를 기울이며 추파를 보냈다. 이런 경우에는 시로네라도 안면을 몰수할 수밖에 없었다.

딱히 외모가 미운 건 아니지만 화장이 야해서 부담스러웠다. 분 냄새만 맡아도 심장이 이상했다. 판도라의 특기가 향기 마법인 것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어머, 얼굴 빨개진 것 좀 봐. 부끄러워할 거 없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작정하고 접근했는지 판도라의 블라우스는 단추가 평소보다 2개나 덜 채워져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몸을 숙이자 눈을 감아야 할지 그냥 보고 있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어느 쪽도 실례되는 행동일 것 같았다.

“어허, 이거 왜 이러시나? 시로네는 이미 임자가 있다고.”

네이드가 시로네의 눈을 가렸다.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해 판도라의 블라우스 안을 대신 훔쳐보았다.

판도라는 남학생들의 시선에 신경 쓸 수도 없을 만큼 짜증이 났다.

시로네의 임자란 다름 아닌 카르미스 에이미였다.

그녀가 고급반에 있었을 때는 어떤 학생들도 잘났다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성적이면 성적, 외모면 외모, 모두 그녀가 우월했다. 시로네에게 추파를 던진 이유도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자신의 남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흥, 에이미 선배님하고 사귀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어차피 만나지도 못하잖아. 게다가 이번 졸업 시험에 통과해서 학교를 떠날 테고. 시로네에게는 새로운 여자가 필요해. 세련되고 지적인 나 같은 여자 말이야.”

판도라는 보물처럼 아끼는 가슴을 은근슬쩍 모았다.

“아무튼 라인을 잘 타는 게 좋을 거야. 조만간 내가 보일을 따라잡을 거거든. 너희도 내 라인에 서면 잘 봐줄게.”

시로네를 끌어당긴 이루키가 손가락을 흔들었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냐? 우린 시로네 라인이라고.”

“호호호! 처음이니까 마음껏 즐겨. 클래스 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그럼, 시로네. 이따 봐.”

판도라는 손으로 키스를 보내며 자리로 돌아갔다. 시로네는 첫 수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정신이 혼미했다. 하지만 덕분에 클래스 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보일과 판도라, 서열 1,2위가 졸업반을 노리고 있고 그 아래로 다른 학생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로네는 이번에 졸업반을 포기한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쟁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선착순으로 정해지는 좁은 틈을 두고 친구들과 감정싸움을 하기는 싫었다.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 낸다면 내년에는 에이미처럼 가장 먼저 신청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3교시까지 무난하게 지나가고 4교시 정신론 수업을 기다리는데 교사가 3명의 전학생을 데리고 들어왔다.

<스피릿>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학생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웅성거렸다.

빅터 사비나.

보니파르 클로저.

에어하인 단테.

수도 바슈카의 왕립 마법학교 출신으로 현재 왕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학생들이었다.

특히나 에어하인 단테는 현직 마법사들 사이에서도 차세대 대마법사라고 불릴 만큼 재능이 출중한 천재 중의 천재였다.

“자, 자! 모두 조용. 오늘부터 클래스 포에서 수업을 받게 된 전학생들이다. 자기소개를 할 테니 반갑게 맞이해 주도록.”

교단으로 올라간 단테는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첫인상은 ‘구리다’였다. 수도에서 최첨단 유행을 향유하던 그의 눈에는 모든 게 촌스러워 보였다.

단테는 보일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딱 봐도 마마보이가 분명한 차림새였는데 소름이 돋을 만큼 당당한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애가 시로네인가? 설마, 아니겠지.’

올리비아에게 들은 시로네의 느낌과는 달랐다. 외모는 모르지만 최소한 저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한편에서는 화장을 떡칠한 소녀가 추파를 날리고 있었는데 얼굴은 곱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진한 화장은 차마 눈 뜨고 봐 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수도에서 저러고 다녔다가는 술집 여자라는 오명을 쓰기 딱 좋았다.

“단테, 뭐 하고 있니? 자기소개를 해야지.”

단테는 생각을 접고 입을 열었다.

“반갑다. 에어하인 단테라고 한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자기소개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 [228] 3. 시로네 어디 있어? (3)

만약 다른 학생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다면 야유가 나올 테지만 단테만큼은 예외였다.

이미 잡지를 통해 알 만큼 아는데 무슨 소개가 필요하냐는 자부심에 학생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사비나와 클로저까지 소개가 끝나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정신론 교사는 공인 8급의 마법사 자격증을 취득한 카르만이라는 60대 철학자였다.

크레아스에서는 나름대로 평판이 좋지만 사실 수업 자체는 지루한 편이었다.

“오늘은 개성과 아집을 구분하는 알고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기를 바라죠. 하지만 단순히 남과 다르다는 게 개성은 아닐 것입니다.”

단테 일행은 시작부터 심드렁했다. 왕립 마법학교에서 서열 400위권에서 끝나는 과목이었다.

불량스럽게 의자를 젖히고 앉아 있던 클로저가 말했다.

“수업 더럽게 진부하네. 개성이면 어떻고 아집이면 어때?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나이가 몇 살인데 정신론이야.”

단테 또한 수업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보다 호기심이 드는 건 시로네라는 학생이었다.

아침부터 올리비아와 면담을 했던 단테는 그녀에게서 시로네라는 아이를 꺾으라는 특명을 받았다.

자신의 전공이었기에 단테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로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여태까지는 콧대를 빳빳이 세우고 다녔을 터였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희한하네. 어째서 1등이 아니지?’

제2급 대마법사가 직접 짓밟으라고 특명을 내린 존재라면 고급반 정도에서는 당연히 1등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1등이라는 자는 마마보이 소년이었다.

그렇다면 시로네는 대체 누구인가?

단테의 눈빛이 학생들을 훑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1명의 소년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메르코다인 이루키였다.

‘그래, 저 자식도 있었지.’

왕립 마법학교에 다닐 무렵만 해도 라이벌 구도가 형성될 뻔했으나 그가 전학을 가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시간이 흘러 자신은 왕국 최고가 되었고 이루키는 잡지에조차 실리지 않으니 격차는 벌어졌다고 봐도 무방했다. 아니, 사실은 이곳의 모든 학생이 왕립 마법학교 학생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왕립 마법학교는 클래스의 구분이 없다. 오직 1등부터 꼴등까지의 순위만이 있을 뿐이었다.

마의 장벽이라고 불리는 30등부터 졸업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는데 현재 단테 일행의 등수는 31, 32, 33등이었다.

단테는 지금 당장 졸업 시험을 치른다고 해도 통과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오로지 1등이었다.

30위권 내에는 32세의 학생도 있다. 실력은 떨어져도 20년 넘게 학교에 다닌 경험은 무시할 수 없을 테니 확실하게 준비해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할 생각이었다.

5대 명문 학교에 들어가면 마법협회에서 열 장의 졸업 티켓을 준다. 그 티켓을 받아 알페아스 마법학교도 매년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왕립 마법학교는 기존 열 장에 왕국 최고의 학교라는 특혜로 열 장이 더 추가된다.

수도의 인구가 워낙에 많은 데다가 졸업 시험에서 3분의 2가 통과할 수 있다는 메리트까지 더해졌으니 왕국에서 내로라하는 마법사 지망생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했다.

결국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졸업반 30명과 왕립 마법학교의 상위 30명은 수준이 달랐다.

단순히 30명의 커트라인으로 클래스 포에 배정된 것부터가 단테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우선은 시로네라는 소년이 누구인지 봐 둘 필요가 있었다. 도무지 특별해 보이는 학생이 없자 단테는 옆자리의 소녀에게 물었다.

“야, 시로네가 누구냐?”

“어? 시, 시로네? 저기 맨 끝에 앉아 있는 애야. 그런데 시로네는 왜?”

단테는 대꾸조차하지 않고 시로네에게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이루키 옆에 앉아 있는 소년이었다. 또한 절대로 저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1명이었다.

“흠, 공부는 잘하게 생겼네. 하지만 딱히 강해 보이지는 않는데?”

클로저와 사비나도 시로네를 살펴보던 참이었다.

“크크, 볼 것도 없이 범생이겠지. 시골 학교라 그런지 책만 파는 모양이야. 벌써부터 따분해 죽겠네. 이래 가지고 실전 연습은 언제 하는 거야?”

“패션은 구려도 잘생기기는 했네. 성격도 차분해 보이는 게 전형적인 언로커잖아.”

“흥, 이모탈 펑션으로 비벼 볼 거면 산에 들어가서 도나 닦을 일이지 마법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이모탈 펑션은 분명 희귀하지만 마법의 수준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었다.

국가 공인 1급 마법사 5명 중에서 언로커는 1명뿐이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카르만의 정신론 수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때 그 생각을 실천하는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개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수긍을 쉽게 끌어낸다면 신념이라 할 수 있죠. 문제는 난이도가 낮으면서 수긍도 끌어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단테는 꾸벅꾸벅 졸았다.

“앞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개성도 좋고 신념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집에 빠지지 마세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수긍을 이끌어 내는 것. 만약 그런 발상이 떠올랐다면 그 생각은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학생들은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박수를 쳤고 카르만은 만족스럽게 떠났다.

“얘들아, 나 그럼 다녀올게.”

시로네는 부랴부랴 가방을 챙겼다. 알페아스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뿐이었기에 시간이 촉박했다.

“괜찮겠어? 밥도 안 먹고?”

“굶는 게 하루 이틀인가. 혹시 알아, 교장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 주실지?”

“그래. 아무튼 잘하고 와.”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까 선생님에게 대신 말해 줘.”

학생들이 식당으로 갈 채비를 하는 동안 클로저는 두 팔을 치켜들고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후아, 이제 끝났나? 젠장. 수업 하나 들었는데도 이렇게 지루하다니. 여기서 반년을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그래도 오후에는 실습을 한다니까 좀 괜찮을지도. 단테, 단테. 일어나. 점심시간이야.”

잠에서 깨어난 단테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우, 무슨 놈의 수업이 수면제야. 아무튼 시작하자. 놈의 텃밭에 왔으니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겠지.”

단테는 예리한 눈초리로 시로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뭐야? 어디 갔어?”

단테가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보일과 판도라가 앞을 가로막았다. 시로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일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반가워. 명성은 익히 들었다. 나는 크리스 보일이야.”

“보일이라. 너는 몇 등이지?”

보일은 기다렸다는 듯 어깨를 펴고 말했다.

“1등이다. 고급반에서는 내가 제일 높지.”

예상했던 대로 시로네는 1등이 아니었다. 스승님은 어째서 보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을까? 단테라는 맹수를 풀어 놓았으면 최소한 1등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시로네는 몇 등이지?”

보일은 왕국 최고의 스타가 신경 쓰는 사람이 시로네라는 사실에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것이란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시로네는 이번 학기에 올라와서 아직 순위는 없어. 하지만 유망주인 것은 확실하지. 내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나는 졸업반으로 갈 거 같아서.”

단테는 여전히 내밀고 있는 보일의 손을 빤히 바라보았다.

“미안하지만 네 이름은 못 들어 봤거든. 한마디로 어째서 너하고 악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고급반 1등이니까 알아서 꿇어라 이거냐?”

보일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비슷한 상황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었다.

“나, 나는 동급생이니까.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로…….”

“동급생? 그러니까 지금 너랑 나랑 급이 같다는 거네?”

단테에게서 서늘한 한기를 느낀 보일은 한 걸음 물러섰다. 클래스 포의 1위까지 오르면서 수많은 경쟁을 치렀지만 이런 식의 저급한 도발은 적응이 되지 않았다.

“너, 전공이 뭐냐?”

보일은 더 이상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소환 마법.”

“푸하하하!”

폭소를 터뜨린 클로저가 순간 다가와 보일의 복부를 가격했다. 두 발이 한 뼘이나 떠오른 보일이 쿵 하고 무릎을 찍으며 추락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교, 교내 폭행은……. 큭!”

클로저의 사커킥이 보일의 배를 걷어찼다. 마법사답지 않게 격투를 즐기는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때리는 게 미안해질 정도였다.

열일곱 살이나 먹은 놈이 한 대 맞았다고 세상 끝날 것 같은 표정을 짓다니. 촌구석 아니랄까 봐 하나같이 심심한 애들뿐이었다.

단테는 침을 게워 내는 보일을 아래로 깔아 보았다.

“일단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내 밑으로 전부 세워 줄 테니까.”

강의실의 공기가 냉랭해졌다. 1시간 만에 본색을 드러낸 단테 일행에게 누구도 덤빌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사비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판도라에게 다가가 노골적으로 외모를 품평했다.

“너는 무슨 화장이 그러니? 역시 촌이라 다르네. 혹시 밤에 술집 나가니?”

판도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당돌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녀지만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이었다.

사비나의 손이 판도라의 뺨을 어루만졌다.

“후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 내 손은 날카롭거든.”

판도라는 꼼짝할 수 없었다. 사비나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차가운 한기가 맴돌고 있었다.

“어디 보자. 요 앙칼진 것을 어떻게 해야…….”

지켜보고 있던 이루키가 끼어들었다.

“그만둬라. 애들도 아니고.”

사비나가 인상을 찡그리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단테가 걸어갔다.

“오랜만이다, 이루키.”

“뭐야, 네가 날 어떻게 알아?”

단테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당시에도 마주 보고 대화했던 사이는 아니지만 라이벌 구도로 한창 떠들썩했다.

이루키라고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주제도 모르고 자신을 무시하는 게 분명했다.

네이드가 끼어들어 분위기를 풀었다.

“와하하하! 싸우지 말자고. 학기 첫날부터 싸우면 쓰나? 이제부터 함께 공부할 사인데 친하게 지내야지. 안 그래?”

단테의 입장에서도 이루키와 척을 져서는 좋을 게 없다. 친하게 지낼 마음은 없지만 용뢰의 가문이었다.

단테는 이루키에게 신경을 끄고 네이드를 돌아보았다.

“시로네 어디 있어?”

시로네는 알페아스에게 갔다. 하지만 단테의 의중을 모르는 이상 순순히 말해 줄 네이드가 아니었다.

“시로네? 아하, 시로네 유명하지! 하지만 나도 제법 인기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구 할래? 내가 회장으로 있는 초자연 심령과학 연구회가 있는데…….”

시간을 끄는 수작에 클로저가 곧바로 튀어나와 주먹을 휘둘렀다. 네이드의 상체가 젖혀지면서 아슬아슬하게 주먹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합을 맞춘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호오, 이 자식 봐라?’

클로저의 눈썹이 올라갔다. 간발의 차이로 피하면서도 눈조차 깜박이지 않는다는 건 싸움에 익숙하다는 증거였다.

단테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웃는 것치고 몸은 전투태세 만만이군.”

“으아아, 놀랐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네이드는 조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흥, 됐어. 무슨 꿍꿍인지는 몰라도 너 같은 겁쟁이한테는 볼일 없으니까.”

단테는 할 수 없이 이루키에게 물었다.

“어이, 너는 알지? 시로네 어디 있어?”

“시로네는 왜 찾는데?”

“인사나 해 두려고. 이제부터 학교생활이 고달파질 테니까. 설마 저 겁쟁이처럼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천하의 메르코다인이 말이야.”

“물론이지. 시로네는 이쪽에 있다.”

이루키는 자신의 발밑을 가리켰다. 바닥을 살펴보던 단테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뭐, 1층에?”

“아니. 이 행성 어딘가에.”

그 말을 남겨두고 이루키는 네이드와 함께 강의실을 나가 버렸다. 단테는 귀까지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다.

“저 자식이…….”

## [229] 3. 시로네 어디 있어? (4)

다른 학생들에게도 시로네의 위치를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기다리면 오겠지만 학교를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막상 돌아다녀 보니 예상과 다르게 시설이 괜찮았다. 부지면적은 왕립 마법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넓었다. 하지만 그래도 정이 안 가는 곳이었다.

어디를 가도 시로네를 찾을 수 없자 사비나가 투덜거렸다.

“나 참, 알려 주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직접 찾아가게 만들어. 꽤나 신뢰받고 있나 봐?”

클로저가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원래 시골 놈들이 의리 하나는 끝내주잖아. 실력은 없으면서 그런 걸로 무게나 잡고 다니는 거지.”

“하지만 이루키도 여기에 있다.”

단테의 말에 클로저의 웃음이 그쳤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이루키가 여기에 있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이해가 안 가네. 메르코다인 가문이 이런 시골에는 왜 처박혀 있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랑 같은 학교였지. 퇴학인지 자퇴인지, 사고를 치고 잠적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단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한 번은 부딪쳐야 할 상대였다.

“상관없어. 스승님이 찍은 사람은 시로네야. 그 자식부터 밟은 다음에 생각하자고.”

식당에 도착한 단테는 선후배끼리 만나서 인사를 주고받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클래스 제도의 흔한 풍경이었으나 왕립 마법학교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그는 헛웃음이 나왔다.

“나 참, 시대가 어느 땐데 클래스 제도야? 알페아스란 사람도 아주 구식이네.”

“그러게. 잡지에서 보니까 서열 제도는 졸업반에서만 하고 있나 봐.”

“크크, 그러니까 애들이 패기가 없지. 아까 그 순두부 같은 자식 내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거 봤어?”

단테는 대화를 뒤로하고 학생들에게 걸어갔다. 어쨌거나 시스템이 그렇다니 특권을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단테의 등장에 학생들이 일제히 돌아보았다. 마법학교 학생치고 단테를 동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최고의 스타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다.

단테는 주머니에 손을 꽂고 한참이나 기다렸다. 그래도 반응이 오지 않자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다.

“뭐 하냐? 선배가 왔는데 인사 안 해?”

넋을 놓고 쳐다보던 후배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숙였다.

“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애들 장난이기는 해도 인사를 받으니 괜찮은 기분이었다.

후배들의 면면을 살펴보던 단테는 자신보다 최소 두 살은 많아 보이는 여성을 발견했다.

정상적이라면 클래스 포 정도가 되어야 했건만 코흘리개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야, 너.”

“저, 저요, 선배님?”

클래스 식스의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켰다.

“그래. 너 몇 살이냐?”

“열아홉 살인데요.”

단테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렇게 순해 빠졌으니 나잇살이나 먹어 가지고 애들이랑 어울리는 것이다.

“시로네라고 알지?”

“시로네 선배님요? 네, 알아요.”

“지금 어디 있어?”

“그,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여자에게는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식당으로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걸음을 옮기는데 클로저가 바통을 터치하듯 나섰다.

왕립 마법학교에서 수많은 여성 편력을 자랑했던 클로저에게 마리아는 딱 맞는 먹잇감이었다.

“호오, 귀여운데? 우리 예쁜 누나, 이름이 뭐야?”

“에를랑 마리아인데요.”

마리아의 얼굴에 불쾌한 감정이 떠올랐다. 어릴 때부터 마법학교에 다녔으니 클래스 제도에 불만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나이 차를 강조하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인상 쓸 줄도 아네? 이거 선배 대접이 영 엉망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클로저는 만족스러웠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왜 이렇게 순진할까? 더욱 자신감을 얻은 그는 마리아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얼굴을 내밀었다.

“죄송할 것까지야.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저런 풋내 나는 애들하고 있으니 얼마나 욕구불만이 심하겠어? 내가 이래 봬도 단단한 걸로는 끝내주거든.”

마리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참고 넘길 수가 없어서 손을 뿌리쳐 보려고 하지만 클로저의 완력이 너무 강했다.

그 순간 마크가 다가와 클로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만하시죠, 선배님.”

클로저의 인상이 구겨졌다. 전해지는 힘이 제법이었다. 마법사치고 몸을 단련하는 사람은 흔치 않기에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과연 자신과 맞먹는 덩치였다.

“선배의 손목을 잡는 후배도 있나? 이거 학교가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그러는 선배님은 무슨 짓입니까? 여자 후배를 희롱하는 것도 교칙에 어긋날 텐데요.”

“희롱? 이건 희롱이 아니라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밀당이야.”

“마리아가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어린애가 여자를 다룰 줄 알아? 저 나이대의 여자란 말이야, 강하게 끌어당기면 못 이기는 척 안기는 거야. 그게 아니면 뭐야? 설마 네가 어떻게 해 볼 생각이었냐?”

마크는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고 말았다.

“이 자식이 보자 보자 하니까…….”

“푸하하하! 이 꼬맹이 완전 열 받았는데! 설마 너 진짜로 좋아하는 거냐? 그래서 뺏길까 봐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거였어?”

마크는 그렇다고 솔직하게 외치고 싶었지만 목까지 차오르는 말을 도로 밀어 넣었다. 아직은 시로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리아는 내 친구다. 그리고 나는 친구를 모욕하는 놈은 가만두지 않아. 선배든 교사든 상관없어.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짓을 해.”

클로저의 표정이 변했다. 웃음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은 영락없는 냉혈한이었다.

“그래? 그럼 존경하도록 만들어 주지. 땅바닥을 뒹굴게 될 거다.”

두 사람은 합의 없이 멀어졌다. 교내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건 금기기에 지켜보는 학생들은 절로 긴장되었다. 하지만 클로저도 마크도 스피릿 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역시 남자라면 주먹이지. 안 그러냐?”

“당신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남자라는 말이 나오다니, 웃기는군.”

“크크,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는구먼. 들어와, 애송아.”

클로저가 권투 자세를 취하고 손을 까닥거렸다.

약이 오른 마크가 뛰어들었다. 마리아를 희롱한 자를 상대로 뒷감당 따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 순간 클로저가 스텝을 밟으며 물러섰다.

마크는 부아가 치밀었다. 당장이라도 붙을 것처럼 굴더니 백스텝은 뭐란 말인가?

마크는 안면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클로저가 상체를 숙이자 곧바로 반대쪽 주먹으로 복부를 쳐올렸다.

‘들어갔다!’

80킬로그램의 거구가 전심력으로 휘둘렀으니 일어서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크윽!”

하지만 인상이 구겨진 쪽은 마크였다.

마치 바위를 때린 것처럼 주먹이 얼얼했다. 인간의 몸이 아니다. 필시 배 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그 순간 클로저의 카운터가 안면에 작렬했다.

마크의 동공이 급격히 흔들렸다.

‘뭐지, 이건?’

일격에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이 마비되고 말았다.

격투기에 관심이 많은 그였기에 힘깨나 쓴다는 무술가랑 대련도 해 봤지만 그것과는 다른 기질의 위력이었다.

“푸하하하! 완전 약골이잖아? 어때? 이제 존경할 마음이 들지? 앙?”

클로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닥에 웅크린 채로 발길질에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때? 재밌지? 선배한테 개처럼 밟히니까 재밌냐?”

고통이 치미는 와중에도 마크는 분해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은 일어나서 반격을 하고 있지만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마리아가 달려와 마크를 끌어안았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죽겠어요!”

“흐흐, 무슨 소리야? 누구에게 덮어씌우려고? 분명 이 자식이 날 먼저 쳤는데?”

마리아는 클로저가 첫 공격을 양보한 이유를 깨달았다.

이대로 두다가는 얻어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크가 징계를 당할 수도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무릎이라도 꿇고 빌 테니까 그만하세요.”

단테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첫 날부터 일을 크게 키우면 앞으로가 귀찮아 진다.

“잘 들어라, 후배들. 앞으로 우리를 보면 꼬박꼬박 90도 경례를 하도록. 선배를 우습게 여기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이 녀석을 보고 똑똑히 기억해 두라고.”

단테 일행이 떠나자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왕국 최고의 스타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도 최고인 듯했다.

마리아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마크를 살폈다.

“마크, 괜찮아? 바보야, 대체 왜 그런 거야?”

마크는 이미 정신이 돌아와 있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상황이 꿈만 같아서 생각을 놓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았기에 얼른 상체를 세웠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마리아가 부러진 곳이 없나 살피는 동안 마크는 멀어져 가는 단테 일행을 노려보았다.

“저것들 진짜 위험한 놈들이네. 저렇게 막나가서 어쩌자는 거야?”

“몰라. 올리비아 교장 선생님의 제자라던데, 그거 믿고 설치나 보지. 왕국 최고의 스타는 개뿔. 완전히 망나니잖아.”

교장이 바뀌자 모든 게 변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오늘의 일을 해프닝으로 여기고 있지만 한때 저들과 같았던 마크는 직감했다. 자신이 당한 일은 앞으로 터질 대형 사고의 전초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

올리비아와 나란히 고급반의 건물 복도를 걷고 있는 사드는 죽을 맛이었다.

알페아스에게 새로운 교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특명을 받은 터라 꼼짝없이 비서 노릇을 하고 있었다.

“저기, 교장 선생님. 순방은 이따가 하시고 식사부터 하시죠. 저희 학교의 음식은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올리비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서류를 살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리 빨리 걸을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학교에 8급 교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8급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왕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학생들은 비공인 9급까지도 쳐주는 실정이에요. 졸업 예정자라면 공인 수준까지 올라가고요.”

사드는 마법사도 아닌 마법 지망생이 왕국에 이름을 알려서 어쩌자는 건지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수도하는 기분으로 임하라던 스승님의 조언을 떠올리며 좋은 말로 설득했다.

“8급 교사는 대부분 마법 외에 한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철학자, 예술가, 기술자 등 전문적인 특기가 있는 교사진으로 꾸렸습니다.”

“여기는 특수 목적 학교예요. 잡다한 교육은 가문에 맡기고 마법을 최우선으로 해야죠. 현재 알페아스에 스타가 누가 있죠? 왕립의 에어하인 단테, 오리스의 미코 라이나, 심지어는 5대 명문도 아닌 플로랑 시립에도 엑시온 카바엘이라는 학생들이 열광하는 스타가 있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그런 애들이 대체 왕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다른 학교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사고방식이 이러니까 이 학교가 근 10년간 말석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교사들 너무 관성적인 거 아닌가요?”

올리비아는 물어 놓고 대답할 틈을 주지 않았다.

“교사진도 긴장감이 필요해요. 5대 명문에 들어가는 학교라면 천재적이고 젊은 교사들이 두루 포진해 줘야죠. 올리페르 시이나 양도 왕립 마법학교 기준으로는 최상위권이 되지 않아요. 솔직히 왕국 전체에서 먹어 준다 싶은 교사로는 로미 에텔라 양밖에 없지 않나요?”

사드는 올리비아의 주둥이를 꿰매 버리고 싶었다. 학생을 진심으로 가르치는 게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교사마저 실력 순으로 줄을 세우려 하고 있었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은 성장시키거나. 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도 괜찮겠네요.”

올리비아의 오른쪽에 떠다니는 노트에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언령 마법의 일종인 도트 필기라는 것으로, 음성을 문자로 찍어 내는 능력이었다.

그녀의 말은 너무 빨라서 초음술(초고속으로 발음하는 언령 마법사의 기술)을 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는데 그럼에도 필기 속도가 밀리지 않았다.

## [230] 3. 시로네 어디 있어? (5)

올리비아가 문득 떠올랐다는 듯 걸음을 멈췄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오후 수업은 내가 직접 참관하겠습니다. 클래스 텐부터 전부 돌아볼 테니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드는 최면에 걸린 듯 대답했다. 학교의 명성을 높여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니 미워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올리비아가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데 복도 건너편에서 시로네가 다가왔다. 밥을 먹고 돌아오기에는 이른 시간인지라 사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시로네? 무슨 일이냐?”

“엇, 안녕하세요.”

올리비아는 다가오는 시로네를 살폈다. 알페아스가 자신을 닮았다고 말했던 소년.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알페아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긴, 그가 30대 초반일 때 만났으니 아내를 잃고 폐인이 되었을 무렵이다. 그렇다면 이 소년이 결혼하기 전의 알페아스, 미르히 가문의 빛이라고 불리던 모습일까?

“네가 시로네로구나.”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지금은 점심시간일 텐데?”

“교장 선생님을 만나려고요. 교장실에 가 봤는데 안 계셔서.”

“당연하지. 오늘부터 내가 교장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시로네가 말실수를 깨닫고 당황하자 사드가 얼른 끼어들어 사태를 무마시켰다.

“스승님은 개인 서고에 계실 거야. 중앙 건물에서 우측으로 가면 별채가 하나 있단다. 그쪽으로 가 보렴.”

사드가 빨리 가라고 눈짓을 보냈다. 어떤 상황인지 깨달은 시로네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후아! 숨 막혀 죽을 뻔했네.”

건물을 벗어난 시로네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제2급의 대마법사가 내뿜는 기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종류였다.

아케인에게서도 압박감을 느꼈지만 올리비아는 그것을 뛰어넘어 압박감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영역을 벗어나고 나서야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을 진정시킨 시로네는 사드가 알려 준 대로 별채를 찾아갔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두드리자 편한 복장의 알페아스가 시로네를 맞이했다.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서 들어오렴.”

시로네는 소박한 별채의 정경을 두리번거리다가 벽에 걸린 초상화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알페아스가 그녀를 가리키며 소개해주었다.

“내 아내, 에리나란다. 너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

“네. 안녕하세요.”

시로네는 초상화에 꾸벅 인사를 올렸다. 왠지 모르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엉뚱한 행동에 알페아스가 눈썹을 들었지만 그만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구나.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 보기 전에…… 혹시 배고프니?”

“사실 조금요.”

“양송이 수프를 끓였단다. 같이 먹자꾸나.”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앉아 식사를 했다. 궁금하기는 알페아스도 마찬가지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어떤 이야기든 시작이 가장 어려운 법이었다.

“교장 선생님, 천국에 다녀왔어요.”

땡그랑, 식기가 떨어졌다. 입술 아래로 수프를 흘린 알페아스가 후루룩 삼키고는 수염을 닦았다.

믿을 수가 없었지만 시로네의 얼굴을 보면 사실이었다. 신기한 곳을 다녀온 여행자의 표정도, 굉장한 것을 발견한 탐험가의 표정도 아니었다.

“천국이라 하면…….”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카니스가…….”

자초지종을 들은 알페아스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특히나 아케인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였다.

하긴, 돌이켜 보면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다. 선과 악 중에 악을 택했지만 허무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교장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미로 씨는 어떻게 그 일을 맡게 되었죠?”

알페아스는 시로네의 짐작을 깨달았다. 하지만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도 없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

‘가올드…….’

미케아 가올드. 지금은 왕국에서 손에 꼽히는 제1급 대마법사지만 알페아스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제자로, 순수했던 청년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시로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라. 초국가적인 사안이다. 거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 네 인생까지 꼬이게 된다.”

“하지만 만약 미로 씨가……!”

“네가 안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지?”

시로네는 입을 다물었다. 안다고 해서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이 세계는 오직 1명의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만약 천국의 군대가 미로의 시공을 돌파한다면…….”

알페아스는 고개를 저었다.

“미로가 천국의 군대를 막은 뒤로 각국의 싱크탱크도 오래 전부터 대비를 하고 있다. 알겠느냐, 시로네? 달라질 것은 없다. 너에게는 꿈이 있어. 손댈 수 없는 진실에 얽매어서 네 인생을 망치지 말거라.”

갈리앙트 섬에 가기 전과 똑같은 말이었지만 이제는 시로네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잠시 발을 담근 것만으로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의 인생까지 망칠 뻔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알페아스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아타락시아는 나조차 감탄스럽구나. 고대에는 천사의 능력을 멸룡의 마법이라고 불렀단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용족의 역사를 찾아보렴. 용족은 인간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갖고 있으니 천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로네는 뜻하지 않게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여태까지 천국과 인간의 관계만을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 세계 전체와 얽힌 사안이었다.

‘나중에 다른 종족의 역사도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마친 시로네가 물었다.

“제가 이 힘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허허, 시로네, 그런 건 없단다. 너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몇 번이나 망설이게 돼요.”

“하하하!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아타락시아가 개방된 순간만큼은 나보다 강하다고 해도 좋다.”

알페아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시로네의 얘기에 과장이 없다면 아타락시아 마법진이 열린 순간만큼은 공인 4급 마법사도 막을 수 없는 위력일 터였다.

하지만 시로네는 기쁘지 않았다.

알페아스가 내건 ‘아타락시아가 개방된 순간만큼은’이라는 전제 조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이모탈 펑션을 개방한 채로 1분의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은 실전에서 목을 내놓고 베어 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아직은 감당하기 벅찬 능력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수련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그래. 좋은 인연을 얻었구나. 네 것이다. 네가 껴안고 수없이 고민해 보거라.”

“네, 감사합니다.”

알페아스에게 털어놓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일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이 순리였다.

시로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그들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었다.

시로네가 학교로 돌아가자 알페아스는 문을 걸어 잠그고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1년 만에 들어온 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였다.

미로가 천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희생으로 모두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로네는 달랐다. 그는 천국과 싸웠다.

투쟁은 적을 만들지만 그렇기에 아군 또한 만든다.

시로네는 천국에서 투쟁한 대가로 동료를 얻었다. 미로하고는 다른 의미의 성과에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여보, 솔직히 두렵구려.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소.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아타락시아. 네가 껴안고 네가 감당하라고, 무책임한 말을 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앞에 두고 훈수를 두는 건 체질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피가 끓는구려. 이런 말을 하면 서운하겠지만, 당신을 떠나보낸 실수는 훗날 이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싶소.”

오로지 자신만이 시로네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젊은 날의 실패는 분명 시로네를 발전시킬 밑거름이 되어 줄 터였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되겠지?”

그림 속의 에리나는 웃고 있었다.

@

아린은 가을꽃들이 만개한 고급반 뒤편의 화단을 기분 좋게 거닐었다. 공터가 좁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지만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수업이야 대부분 아는 것들이라도 태어나서 처음 다녀 보는 학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아린, 기다렸지?”

카니스가 주먹밥을 품에 넣고 달려왔다. 알페아스가 등록금을 지불했기에 숙식은 무료지만 학교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다. 숙소는 사용하면서 식사는 거부하는 것은 유치한 고집일 수도 있지만 알페아스는 말리지 않았다.

아케인을 죽인 학교다. 굳이 어린 나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스승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기특했다.

“먹자. 이번에는 간이 맞나 모르겠네.”

아린은 화단에 앉아 주먹밥을 들었다. 처음에는 너무 짜서 도저히 못 먹을 지경이었으나 점차 맛이 깊어지고 있었다.

카니스가 밥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밤에 일이라도 해야 할까 봐.”

“카니스, 교장 선생님이 용돈도 주고 있잖아. 고집을 부리는 건 바보 같기도 해.”

“알아.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장인 거야. 어쩔 수 없이 받을 건 받겠지만 차근차근 거절해야지. 스승님의 적이었는데 비굴하게 백기를 들 수는 없어.”

카니스는 한마디를 보탰다.

“정 급하다면 쓰겠지만. 그래도 기대고 싶지는 않아.”

카니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아직 식당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쳇, 여기도 없네. 대체 어디 간 거야?”

단테 일행이 화단으로 들어왔다. 카니스는 저들이 누구인지는 소문으로 들었다. 하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왕국의 스타인지 뭔지는 몰라도 유치할 따름이었다.

“물어볼까?”

단테 또한 카니스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막상 두 사람을 가까이서 살피자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데이트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쪼그려 앉아서 궁상맞게 주먹밥을 먹고 있었다. 따돌림을 당하는 게 분명했다. 어떤 조직이든 소외당하는 부류는 있는 법이니까.

“어이, 너희 클래스 포지?”

단테가 물었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분명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는데도 그들의 눈에는 주먹밥밖에 보이지 않는 보양이었다.

클로저가 말했다.

“밥 사 먹을 돈도 없는 거냐? 시골 학교라서 영세민도 받아 주는 건가? 수준 떨어져서 못 봐 주겠네.”

아린은 클로저를 흘끔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마치 빼앗기기라도 할 것처럼 다람쥐처럼 턱을 움직였다.

음식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포크를 집어 든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클로저는 질려버리고 말았다. 몸은 호리호리한 여자애가 식성이 엄청났다.

“걸신들렸냐? 천천히 먹어라.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여전히 두 사람에게서는 대꾸가 없었다. 단테는 갑갑해졌다. 시골이라서 그런지 도시에서는 구경조차 못 하는 진풍경들이 계속 보이고 있었다.

“애들이 괴롭혀서 숨어서 먹는 거냐? 너희도 참 한심하게 산다. 그냥 미친 척 맞서 싸워. 당하지 말고.”

“그래서 뭐어?”

카니스가 참지 못하고 고개를 쳐들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밥 먹는 중에 누가 건드리는 것이었다.

카니스의 눈동자를 바라본 단테는 착각을 깨달았다. 실전주의? 아니, 그보다는 더 깊은 곳에서 맴도는 적의. 이 녀석은 금기를 넘었다.

비로소 반응이 오자 클로저가 주먹을 어루만졌다.

“어쭈? 제법 세게 나오는데? 너도 주먹맛을 봐야 정신 차리겠냐?”

“그만둬라, 클로저.”

단테가 말렸다. 건드려봤자 같이 더러운 꼴을 볼 것 같은 촉이 느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린에게서는 긴장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시체로 둘러싸인 전장에서 살기라도 했던 것일까?

“어이, 네가 클래스 포의 최고냐?”

“최고? 최고는 시로네잖아?”

‘이 녀석도 시로네인가?’

단테는 생각에 잠겼다. 이루키에 이어서 카니스까지 시로네를 지목했다. 비로소 실마리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올리비아 스승님은 정확히 짚어 냈다.

## [231] 3. 시로네 어디 있어? (6)

“시로네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식당에 없어?”

“없으니까 묻는 거 아냐.”

카니스는 짐작 가는 바가 있었다. 천국의 일을 보고하러 알페아스에게 갔을 것이다.

귀찮은 놈들을 떼어 낼 수 있다면 알려 줘도 상관없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시로네는 찾아서 어쩌게?”

“밟아 버려야지. 최고는 시로네라고 했으니 내가 그놈을 꺾으면 너도 내 밑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하하하하!”

카니스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어 버렸다. 그러자 클로저가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다.

“이게 웃어? 너 우리가 누군지 몰라?”

“그러는 너희는 시로네가 누군지 모르냐?”

단테가 말했다.

“알고 있어. 이모탈 펑션의 경지에 오른 놈이지.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냐? 마법사가 도나 닦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마법은 엄연히 살인 기술이라고.”

카니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현자 같은 시로네랑 어울리다가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들으니 속이 시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로 시로네가 착해 빠진 순둥이에 불과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자신에게 밟혔을 터였다.

시로네는 다르다. 그게 핵심이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그 녀석은 건들지 마라. 너 보니까 꼭 옛날의 내 모습이 떠올라서 그래.”

“하하하! 그러니까 뭐야, 네가 졌다고 나도 진다는 거냐? 이제 보니 그냥 패배자였군.”

카니스는 담담했다. 싸구려 도발에 감정을 소모할 만큼 살아온 세월이 아름답지 않았다.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너, 어디까지 떨어져 봤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너랑 다르게 말이야.”

“그렇다면 도전해 봐.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밑바닥의 끝까지 밟히는 기분을 느끼게 될 테니까. 큭큭큭.”

단테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도 바슈카에서도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런 촌놈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었다.

“재미있군. 내가 꺾어 주지. 그때가 되면 너도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될 거야.”

단테가 일행을 이끌고 사라지자 카니스는 밥맛이 뚝 떨어졌다. 귀족들 중에는 왜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놈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아린이 음식을 씹으면서 말했다.

“의외네, 카니스. 순순히 시로네가 최고라고 해 주고.”

“귀찮은 일은 질색이니까. 이딴 곳에서 주목받고 싶지도 않고.”

“하긴, 시로네라면 알아서 잘하겠지 뭐.”

카니스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자신은 몰라도 아린은 천국파의 멤버로서 조금이라도 걱정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렇긴 한데…… 어째 너무 무책임한 말 같다?”

“으응, 아니야. 정말로 시로네라면 괜찮을 거 같아서 그래.”

손가락을 쪽쪽 빨며 말한 아린은 카니스의 손에 남아 있는 주먹밥을 바라보았다.

“혹시 다 먹은 거야?”

“아니, 이건…….”

카니스는 방어적으로 주먹밥을 끌어당겼다. 이래서 빨리 해치웠어야 하는데. 괜한 놈들하고 시비가 붙는 바람에 한 끼 식사를 빼앗기게 생겼다.

“어, 다 먹었어. 너 먹어.”

“헤헤, 고마워.”

허기가 제법 가셨는지 아린이 여유를 되찾고 물었다.

“그러고 보니 시로네는 적이 되게 많네.”

“하지만 그만큼 아군도 많지. 외롭지는 않겠어.”

카니스는 화창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비스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 가져온 빛과 어둠의 서를 분석하는 중이었다.

아케인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상 조급함은 없었다. 가끔씩은 이런 여유도 괜찮지 않을까? 여태까지 정신없이 달렸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되는 거야.”

“응, 그러자.”

카니스는 미소를 지으며 아린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좀 천천히 먹어.”

4. 전투 시뮬레이션 (1)

점심시간이 끝나고 고급반 통합 수업 시간이 돌아왔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담당 교사는 에텔라였고 장소는 이미지 존이 있는 훈련장이었다.

10분 정도가 지나자 시로네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방학 중에 순간 이동으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져서인지 구보로 오는 게 이토록 힘들 줄은 몰랐다.

“아, 에텔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시간에 맞추려고 했는데.”

“그래요. 네이드에게 얘기는 들었어요. 들어가서 수업 준비하세요.”

단테 일행은 점심시간에 시로네를 만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똥 씹은 얼굴이 되었다.

그랬으면 말을 해 줄 것이지 사람을 똥개 훈련시키는 건 뭐란 말인가?

“자,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단테, 클로저, 사비나,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전학 온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단테는 황당한 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왕립 마법학교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로미 에텔라가 담당하는 과목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예상을 깨는 인상이었다.

순해 빠진 얼굴에 커다란 안경을 썼고 머리는 대충 묶었다. 수도사라고 들었으니 거기까지는 이해해도 수업하는 방식이 일곱 살 적에 자신을 가르쳤던 보모를 보는 듯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유치한 지시에도 아이들이 진지하게 박수를 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하위 클래스는 사방식 변환과 수열식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상위 클래스는 정신 박동, 타기팅, 수열식 순으로 진행하세요.”

사비나가 클로저에게 귓속말을 했다.

“여기는 졸업반하고 고급반 수업이 아예 다른가 봐.”

“그러게. 실습 시간이라 기대했는데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잖아.”

사비나가 전학을 오면서 유일하게 기대했던 것이 트리플의 호칭을 얻은 에텔라의 수업이었다.

세 가지 분야에서 6급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트리플이라는 칭호가 주어지는데 에텔라는 마법, 무술, 구도(스피릿 존)에서 6급을 취득한 교육계의 신성이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들어 보니 말투만 유아스러운 게 아니라 교과마저도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기본기 훈련이었다.

사비나가 손을 들고 물었다.

“선생님, 다른 훈련은 안 하나요? 저는 스나이퍼 모드를 배우고 싶은데요.”

“그건 전공 수업에 들어가는 과목이라 고급반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텔라 선생님이면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 수업 하나 들으려고 전학 온 거거든요.”

“자신의 적성을 찾는 과정이 고급반이에요. 스나이퍼 모드라고 해도 결국 사방식의 변환. 응용 기술은 기본을 충실히 닦은 후에 접해도 결코 늦지 않을 거예요.”

“우웅, 그럼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에텔라 선생님에게 배웠다고 하면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거든요.”

수도권의 학생들은 어떤 스승에게 배웠는지도 주요한 자랑거리인 모양이었다.

바슈카의 풍토가 그렇다면 나설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교칙으로는 담당 과제가 아닌 이상 가르칠 수 없었다.

“선생님도 그러고 싶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스나이퍼 모드를 배우고 싶다면 하루빨리 실력을 향상시켜 졸업반으로 들어가세요.”

훈련장 입구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너무 정석만 고집하는 것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올리비아가 걸어왔다. 그녀의 뒤로 고급반의 모든 교사들이 시종처럼 따라붙었다.

에텔라와 더불어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3대 기둥이라 불리는 사드와 시이나도 보였다.

에텔라와 눈을 마주친 두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는 듯 어깨를 치켜들었다.

올리비아의 시선 밖에 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에텔라가 수도사의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다. 올리비아는 목례로 인사를 받고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입구에서 지켜보니 한 학생이 응용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던데, 학생의 열정이 배움에 있다면 교사로서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교칙에 의하면…….”

“아아,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교칙도 변하는 법이에요. 왕국에서 이름을 날린 조너를 교사로 데리고 있으면서 주구장창 기본만 가르치게 하다니. 이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텔라가 대단한 조너이기에 알페아스는 일부러 고급반에서 아이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생각이 달랐다. 기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를 끌어올리려면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 아이들의 개성은 저마다 달라요. 애초부터 그걸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통합시키려는 건 허사예요. 발전할 여지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논쟁에서 빠지는 법이 없는 사드나 시이나지만 지금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공인 2급의 대마법사란 그런 위치였다.

마법사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은 범세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것을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마법사를 관리하는 거대한 인력망 네트워크 시스템이었다.

세상에는 3개의 라인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대역폭이 넓은 채널이 마법협회가 주관하는 레드 라인이었다.

공인과 비공인을 분류하고 1급부터 10급의 호칭을 받는 모든 마법사들이 레드 라인에 속하는 것이다.

레드 라인의 시스템 아래에 있는 교사들은 올리비아의 위치까지 오르는 게 얼마나 턱없이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

공인 1급은 보통 왕국에 5명도 되지 않기에 공인 2급의 마법사만 되어도 레드 라인의 정점이라 불린다.

따라서 아무리 괴팍한 철학이라도 공인 2급까지 올랐다면 반박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에텔라가 말했다. 조너로서는 레드 라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마법사 인력망과 관계가 없는 수도사였기에 다른 교사들보다는 발언이 자유로웠다.

“고급반의 학생들은 아직 마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단지 남들과 다르면 그만인 개성이 아닌, 남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개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초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반면에 사드와 시이나는 슬그머니 엄지를 치켜들었다. 인상은 순해 보여도 속이 단단한 건 역시나 에텔라였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에텔라 선생이 가르친 학생들이 얼마나 기본에 충실한지 리프팅 평가 방식으로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리프팅 평가 방식은 에텔라도 학술회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다른 평가 방식보다 객관적이라는 말들이 많고, 스피릿 존의 전체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데 효과적인 테스트였다.

시로네 일행은 교사들의 기 싸움에 심장이 쫄깃했다.

“휘유, 에텔라 선생님도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도 장난이 아니네.”

“그러게.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냐?”

“설마. 시이나 선생님도 말 한마디 못 꺼내는데 뭐.”

에텔라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기본기는 어느 학교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보죠. 혹시 클래스 포에서 스피릿 존 리프팅 훈련을 해 본 학생이 있나요?”

손을 든 사람은 단테 일행뿐이었다. 알페아스는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왕립 마법학교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정식으로 채택한 과목이었다.

“좋아요. 그럼 다들 전학생의 실력이 궁금하기도 할 테니 단테 군이 나와서 시연을 해 주겠어요?”

“네. 저야 영광입니다, 교장 선생님.”

단테가 이미지 존으로 걸어가는 동안 올리비아는 타깃의 민감도를 최대치로 맞추라고 교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에텔라가 학생들에게 리프팅을 설명했다.

“리프팅 테스트는 스피릿 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반발력이 강한 타깃을 스피릿 존에 잡아 두는 것이죠. 스피릿 존의 밀도, 비중, 형태의 변화에 따라 불특정 방향으로 튕겨 나가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수록 스피릿 존의 기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테는 이미지 존의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자 정수리 위에 구형의 타깃이 태어났다.

## [232] 4. 전투 시뮬레이션 (2)

스피릿 존에 들어가는 순간 타깃이 감전된 듯 부르르 떨렸다

이어서 정신의 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궤도로 튕겨 나가기 시작했다.

타깃이 스피릿 존을 벗어나려고 하자 단테는 사방식을 구사하여 공간을 확보했다.

그런 다음 정신 박동의 순간 집중력을 통해 빠르게 잡아당겼다.

타깃이 중심으로 돌아오자 다시 날뛰었다.

그럴 때마다 단테는 능숙하게 사방식의 형태를 변환시켜 타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타깃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궤적 또한 기상천외하게 변했다.

어떤 구간에서는 벽에 갇힌 듯 진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10미터 이상을 전력으로 뻗어 나가기도 했다.

학생들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었다.

가장 긴 사거리의 타깃형으로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날아가자 저절로 소리가 새어 나왔다.

“어어어?”

그 순간 단테가 수열식으로 스피릿 존을 확장시켰다.

타깃형의 거리가 쭉 늘어나면서 또다시 타깃을 가두었다. 여지없이 정신 박동이 일어나 타깃을 끌어왔다.

묘기에 가까운 스피릿 존 운영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1분이 지나가자 올리비아가 중단시켰다.

“그만. 시연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군요.”

단테는 타깃을 끌어와 정수리 위로 띄운 다음 스피릿 존을 해제했다.

학생들은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한순간이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타깃을 이동시키는 기술은 평범한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한 경지였다.

“이것이 리프팅 테스트입니다. 클래스 포라면 1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럼 이제 다른 학생들도 시연을 해 볼까요? 제가 듣기로 시로네라는…….”

보일이 손을 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시로네에게 무안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뜬금없이 다른 학생이 손을 들자 올리비아는 난감했다.

리프팅 1분이라면 클래스 포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경지였다.

테스트가 도입되자마자 연습을 한 단테조차도 2분은 무리였다.

“제가 클래스 포의 1등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올리비아의 눈이 빛났다.

시로네가 아닌 건 아쉽지만 고급반 1등과의 비교는 에텔라를 압박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어 줄 것이다.

“좋아요. 처음이니까 감각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해 보세요.”

보일은 씩씩하게 이미지 존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오르면서 단테를 노려보았으나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비켜 줄 뿐이었다.

학생들이 긴장한 얼굴로 지켜보는 가운데 보일의 리프팅이 시작되었다.

스피릿 존에 들어가자 타깃이 강하게 반발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마치 두개골 속에 고무공이 튀는 기분이었다.

고급반 1등이라는 재능답게 리프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신 박동으로 끌어당기는 주기가 현저히 짧아졌다.

결국 사방식의 변환 속도가 타깃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타깃이 스피릿 존을 벗어나고 말았다.

“후아, 후아.”

보일은 연거푸 숨을 내쉬었다. 처음 시도한 것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전광판을 확인한 그의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렸다.

21초.

단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였다.

연습을 한다면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1분을 유지하기란 힘들 것 같았다.

“제길! 제길!”

보일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다.

에텔라를 볼 면목이 없었다.

자신의 실패로 에텔라의 제자가 올리비아의 제자보다 기본기가 떨어진다는 게 증명된 셈이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기뻐하지 않았고 에텔라를 핀잔하지도 않았다.

시작은 유치한 동기였지만 평생 교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학교의 일에서만큼은 진심이었다.

“보일 군도 잘했어요. 첫 시도에서 20초면 아주 준수합니다. 저는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기본이라도 기능은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전문화 과정을 밟고 있는 시대에 정석만 고집하다가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얘기였다.

교사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알게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려면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알페아스가 직접 발품을 팔아 올리비아를 데려온 이유일지도 모른다.

올리비아는 학생들에게 눈웃음을 선사했다.

차가운 인상의 여자가 미소를 짓자 아름다움이 한층 돋보이는 듯했다.

“자, 여러분도 해 보고 싶겠죠. 그럼 오늘은 자유 수업으로 리프팅을 연습해 보죠. 첫날이라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니 무엇이든 해 보세요. 그럼 실습 시작입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받은 듯이 우르르 몰려갔다.

올리비아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학생들의 연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오늘만큼은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에텔라는 교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사드와 시이나에게 다가간 그녀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죄송해요. 역시 계란으로 바위 치기네요.”

사드가 에텔라를 달랬다.

“하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에텔라 선생님이 할 말은 해 줘서 속이 시원하네요. 게다가 단테는 왕국 1등이잖아요. 보일의 기본기는 절대 뒤떨어지지 않아요.”

시이나도 생각은 비슷했다.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일도 리프팅을 연습했다면 좋은 승부가 되었을 것이다.

소환 마법사들이 대부분 30대 이후에야 빛을 보는 걸 감안한다면 어린 나이에 고급반 1등에 오른 보일도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천재였다.

“걱정이 되는 건 앞으로의 일이에요. 단테가 이겼으니 교장 선생님의 입김이 강화될 겁니다. 자칫하면 학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요. 고급반에서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한정되어 있어요.”

졸업반이 있는 상황에서 고급반 학생에게 고강도의 훈련을 접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그렇게 어설픈 커리큘럼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이나는 불안했다.

단테를 앞세운 올리비아의 행동에 어떤 의도가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세 사람은 리프팅 훈련을 하는 학생들을 지켜보았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곧잘 했고, 보일과 판도라가 선두 그룹다운 실력을 뽐냈다.

시이나가 시로네 일행을 가리켰다.

“어라? 쟤들은 뭐 하는 거지?”

시로네, 네이드, 이루키가 팀이 되어 하나의 타깃을 두고 리프팅을 하고 있었다.

신기한 발상에 아이들도 연습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한 사람이 타깃을 가두다가 튕겨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리프팅을 하는 식이었다.

“오호, 오호! 이거 재밌는데.”

네이드가 서투른 솜씨로 타깃을 가두자 이루키의 스피릿 존이 들어와 가로챘다.

다음 순간 시로네가 타깃을 빼앗아 뒤편으로 이동시켰다.

타깃이 없는 두 사람이 무섭게 달려왔고, 시로네는 한참이나 버티다가 또다시 네이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시로네 일행을 쳐다보고 있었다.

클래스 파이브 때부터 악동 짓은 도맡아 했던 그룹이지만 경쟁에 대한 부담 없이 즐기고 있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다.

“그런데 말이야, 시로네의 스피릿 존이 저렇게 컸나?”

“어라, 그러네. 엄청나게 올렸잖아?”

클래스 포의 학생들은 시로네의 변화를 즉각 알아차렸다.

방학 중에 특훈을 하는 건 상식이기에 성과 없는 학생은 없겠지만 시로네의 발전은 가히 경이적이었다.

단테 일행도 시로네의 스피릿 존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와, 되게 크다. 저 정도면 왕립 마법학교에서도 서열 30위권 안쪽인데.”

“쳇! 그래 봤자 단테랑 비슷한 정도구만 뭐. 리프팅으로는 단테에게 안될 것 같으니까 저런 식으로 돌리는 거야. 전형적인 패배자 근성이지. 안 그래, 단테?”

단테의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시로네 일행이 리프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크크, 애송이들. 우리가 직접 시범을 보여 줄까?”

클로저가 사비나를 데리고 이미지 존으로 향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알아서 자리를 비켜 주었다.

두 사람의 리프팅 실력은 단테에 비해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나 사비나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뒤틀어 회오리 기술을 선보였다. 화려하게 휘감기는 타깃이 이탈 직전에 되돌아오자 학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덕분에 교사들도 전학생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리비아의 제자들은 확실히 대단했다.

그녀에게 가장 시달렸던 사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왕국 최고의 재능이군요. 에텔라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조너로서, 단테의 실력을 평가하자면요.”

“으음, 리프팅만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확실히 독보적인 면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마법 센스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시이나가 말했다.

“하지만 아쉽기도 하네요. 재능은 굉장하지만 가볍다고 할까요? 지금 아이들은 마법을 자신을 뽐내는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마법이 생활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죠. 마법사의 정신이랄까, 열정? 그런 게 사라진 것 같아요. 화려함과 명성만 추구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로네와 이루키, 네이드는 클래식한 면이 있어요, 후후.”

에텔라는 시로네 일행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때는 마법이 아이들의 꿈이었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액세서리와 같은 모양이었다.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길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순수한 열정이 남아 있는 시로네와 친구들이 보기에 좋았다.

물고 물리는 게임이 끝나자 시로네는 숨을 헐떡거리며 이미지 존을 내려왔다.

한바탕 땀을 흘렸더니 기분이 후련했다.

시로네가 여자 후배가 건넨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는데 단테가 다가왔다.

누구도 알리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연습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시켰다.

마침내 두 사람이 대면한 순간이었다.

단테는 시로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 녀석이 스승님이 꺾으라고 한 녀석인가?’

시로네의 인상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강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터였다.

올리비아의 특명을 받고서도 클로저와 사비나가 긴장을 하지 않는 이유였다.

하지만 생김새로 싸우는 건 아니다.

왕립 마법학교에서 무패의 신화를 이룩한 데에는 천부적인 재능에 더해 방심하지 않는 철저한 성향도 한몫을 했다.

“반갑다. 단테라고 한다.”

단테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강의실에서 보였던 모습과 전혀 다른 태도에 아이들이 놀랐다. 누구보다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보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시로네는 호의로 받아들이고 단테의 손을 맞잡았다.

“그래, 얘기는 많이 들었어.”

“물론 그랬겠지. 나도 들었다. 너, 언로커라며? 밟아 주기에는 제격이군. 아, 물론 너를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어.”

“하하! 그래. 우리 앞으로 잘해 보자.”

적극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시로네는 기분 나쁜 기색이 아니었다.

단테는 그의 속마음을 분석해 보려다가 생각만 복잡해진다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아무튼 잘 지내보자고. 궁금한 게 있다면 뭐든 물어봐도 좋아. 배움에는 스승이나 친구가 없는 법이니까. 원한다면 제대로 가르쳐 줄게.”

“응?”

시로네가 고개를 갸웃하자 단테는 불쾌해졌다.

아무리 정세에 어두운 촌놈이라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상대가 전학을 왔으면 견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 정말로 몰라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너 광자 마법이 전공이라며?”

“어. 내 주특기가 광자 마법이야.”

“나도 그래. 내 별칭이 샤이닝 보이잖아. 몰라?”

시로네는 그제야 실수를 깨닫고 혀를 내밀었다.

“아, 미안해. 정말로 몰랐어. 나는 학술지를 안 읽어서.”

“몰랐다고?”

광자 계열에서 왕국 제1의 유망주인 단테였다.

마법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학술지를 안 읽었다고 모른다는 건 핑계에 불과했다.

“도발이 제법이네. 내 상대로 부족함이 없겠어.”

“아니, 몰랐다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진짜로 미안.”

## [233] 4. 전투 시뮬레이션 (3)

단테는 더 이상 모욕을 참아 낼 수 없었다.

“이게 진짜!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날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시로네의 말이 사실이야.”

이루키가 다가와 시로네의 어깨를 감쌌다.

“흥분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시로네는 정말로 널 몰라. 왜냐하면 마법학교에 입학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거든. 이번이 두 번째 학기라고.”

단테는 얼이 빠진 표정으로 입술을 내밀었다. 이제 막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기간으로 따지자면 고작 반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스피릿 존의 크기가 자신과 맞먹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아니, 아니야. 이것들이 작당하고 날 몰아세우는 거야.’

단테는 태연한 표정을 가장하며 코웃음을 쳤다.

“흥, 그렇다면 고작 반년 동안 마법을 배운 놈에게 전부 무릎을 꿇었다는 거야? 이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쓰레기밖에 없는가 보지?”

학생들이 발끈했으나 단테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차마 따질 수 없었다.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사자인 시로네였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누군가를 이기려고 마법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

“하하! 말은 잘하네. 뭐, 나도 네 실력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

마법이 어떤 이유로 태어났건 간에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체제다. 그런 상황에서 본질을 따진다는 건 약한 자의 이상이거나 강한 자의 가식이었다.

후자라고 단정 지은 단테는 까치발로 키를 높여 시로네를 내려다보았다.

“너의 거짓을 전부 까발려 주지. 기대하라고.”

@

일과가 끝나자 고급반의 교사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올리비아는 오늘 하루 학교를 살피면서 찾아냈던 문제점들을 꼼꼼히 기록 중이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종이를 책상에 올려놓고 회의를 시작했다.

“함께 견학했으니 긴말은 필요 없겠죠. 이 상태라면 학교의 순위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비아가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였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폭탄인지가 의문이었다.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나 고급반 내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졸업반의 시스템을 차용하는 것이죠.”

교사들의 눈이 커졌다. 설마 하는 감정이 뇌리를 스치기도 전에 올리비아가 선포했다.

“전투 시뮬레이션 실습장, 이천번異天煩을 고급반에 개방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드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다.

“교장 선생님! 이천번은 너무 위험합니다. 졸업반조차 교사의 통제 아래 훈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너무 오냐오냐 학생들을 대할 필요 없어요. 이천번이 실전과 가깝다고 해도 싱크로율을 낮추면 됩니다.”

올리비아가 진심이자 사드는 차분하게 설득했다.

“교장 선생님의 방식도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급반의 아이들을 과보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히 자부하건대 졸업반만큼은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충분히 강도 높은 경쟁을 치르고 있고, 실전 훈련은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계층이 치열하지 않은데 상위 계층이 어떻게 치열할 수가 있나요? 고급반에서 졸업반으로 가는 것이지, 이 학교의 졸업반은 어디서 데려오나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어요.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에텔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 졸업반은 어떡하죠? 매일 이천번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천번 수련장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시험장인 콜로세움까지 더하면 세 군데죠. 시간 배분을 잘한다면 둘 중의 하나 정도는 고급반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교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천번을 통해 실전 훈련을 하기에 졸업반인 것이다. 고급반에 적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졸업반의 자부심이라는 무형의 가치도 신경을 써야 했다.

무엇보다 수십 년 동안 학교를 위해 노력한 알페아스의 교육철학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회의를 하자는 건지 싸움을 하자는 건지 모르는 분위기가 되었다. 참을성 있게 의견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올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런 거군요. 제가 임시직이라서 말을 못 듣겠다는 건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알페아스 씨가 교장인 것입니까?”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현 교사회의 감사이자 전직 왕립 마법학교 교장이었던 제가, 고작 알페아스 씨의 구멍이나 막자고 학교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알페아스 씨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저에게 직접 찾아와 간청을 한 것입니다.”

사드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올리비아의 말대로 현재 교장은 그녀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반드시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6개월 뒤에는 그녀가 없다. 알페아스의 철학이 학교의 역사이고 전통인 만큼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누구도 올리비아 선생님의 명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요청은 저희도…….”

“올리비아 씨의 말대로 따르게.”

교사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뒷문으로 들어온 알페아스가 웃고 있었다. 교사들의 정신적 지주가 등장하자 올리비아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뭐죠? 감시하는 건가요? 전권을 위임받은 제가 알페아스 씨의 허락을 구할 이유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소. 산책이나 하던 중에 초음술이 들리는 것 같아서. 허허허!”

“그렇다면 신경 꺼 주시죠, 전 교장 선생님.”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제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구려. 사드, 학교의 교장은 엄연히 올리비아 씨네.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알페아스가 직접 나서서 쐐기를 박자 다른 교사들도 할 말이 없어졌다. 6개월의 임시직 교장에게 정말로 전권을 넘겼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껄껄! 그럼 한가한 노인네는 그만 가 보겠소이다.”

올리비아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더 이상의 심통은 부리지 않았다. 한번쯤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는 일이었다.

올리비아가 사드를 돌아보자 마음의 준비를 끝낸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급반에 공지하겠습니다.”

@

고급반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다. 앞으로 통합 교육은 제27훈련장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위 클래스는 어리둥절했으나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상위 클래스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네이드와 이루키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거긴 이천번이 있는 데잖아? 이거 진짜로 괜찮은 건가?”

“어차피 이대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잖아. 뭐 상관있나? 죽는 것도 아닌데.”

이루키의 말대로 죽는 건 아니지만 위험한 건 사실이었다.

전투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 입으로 효과음을 냈던 전쟁놀이 같은 게 아니었다.

“그래도 긴장되네. 정말로 하려는 건가?”

“알 수 없지. 지금 교장의 성향을 보자면 그럴 수도 있고. 실전주의라고 했잖아. 어쨌거나 시로네에게 말해 주러 가자.”

네이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나저나 시로네는 어디 간 거야, 저녁도 안 먹고?”

“거른대. 밤에 연구회에서 보기로 했어. 훈련장에 볼일이 있다던데.”

“이 시간에?”

“조용할 때 하기는 좀 그렇다더군. 연습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고.”

“설마…… 아타락시아?”

이루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훔쳐보기에 딱 좋은 시간이지. 가 보자.”

@

시로네는 아무도 없는 훈련장에 홀로 서 있었다. 밥을 거르면서까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아타락시아를 훈련하기 위해서였다.

1분이라는 준비 시간은 그가 생각하기에도 턱없이 길었다. 마법진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성병기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당장 전쟁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대량 살상을 유발하는 행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었다.

‘수백수천 번을 연습하면 적응이 되겠지만. 아마도 하루에 한 번이 고작이겠지.’

반복 훈련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아타락시아를 훈련하는 데 생기는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젠트 가문의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해내지 않았던가? 모든 일에는 가속이 붙는 법이니 열심히 걷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달리고 있을 터였다.

“좋아! 해 보자.”

시로네는 헤일로를 시전했다. 눈앞에 직경 1미터의 원이 태어나 수많은 개념을 빨아들였다.

전방에서 밀려드는 오색 빛깔의 색들은 언제 봐도 몽롱한 광경이었다. 어떤 경지를 지나자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다차원적인 구조가 새겨지면서 아타락시아가 탄생했다.

시로네는 전방에 있는 타깃을 노려보며 마법을 정했다. 포톤 캐논이 아닌 광자 출력이라면 물리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마법을 펼칠 수 있었다.

“야, 시로네……!”

네이드와 이루키가 훈련장에 들어오는 순간 아타락시아 마법진에서 거대한 광선이 쏘아졌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훈련장이 번쩍거릴 정도의 빛이었고 멀리 떨어진 학생들조차 산 저편이 밝아지는 걸 발견하고 고개를 돌렸다.

네이드와 이루키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빛의 출력량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졌다.

인간이 다룰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대자연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을 눈앞으로 옮겨다 놓은 기분이었다. 대체 저 빛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

놀랍게도 먼지 한 톨 피어오르지 않았다. 이루키는 시로네가 시전한 마법이 광자 출력이었음을 깨달았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포톤 캐논이었다면 훈련장을 가로막고 있는 절벽은 사라져 버렸을 터였다.

‘역시 대단하다, 시로네. 그 정도는 되어야 내 필살기가 빛을 발하지.’

네이드가 걷는 법을 까먹은 사람처럼 어색하게 다리를 움직였다.

“야, 시로네. 이거…….”

네이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로네가 쿵 하고 쓰러졌다.

원래라면 어느 정도의 의식은 남아 있지만 하루에 한 번뿐인 훈련이다 보니 모든 힘을 쏟아 낸 탓이었다.

“시로네, 시로네! 정신 차려 봐.”

네이드가 시로네를 일으켜 세우고 뺨을 두드렸다. 가끔씩 마법사들이 무리한 마법을 시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끔찍한 상상이 밀려들었다.

걱정과 달리 시로네는 금세 눈을 떴다.

“어? 언제 왔어?”

“괜찮아? 아타락시아인지 뭔지 쓸 때부터 왔었단 말이야.”

“하하하! 봤어? 아껴 두려고 했는데.”

시로네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섰다.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버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루키가 표적지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다가왔다.

“천국에서 시전했던 마법은 아타락시아 더하기 포톤 캐논이었겠지? 그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일까? 이걸 봤으니 해 보라고 할 수도 없겠네.”

“맞아. 아마도 현실에서 이런 강력한 힘을 쓸 경우는 거의 없겠지. 그래도 꾸준히 가다듬고 싶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야.”

“꼭 그렇지도 않아. 어쩌면 현실에서 바로 쓸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

“응? 무슨 소리야? 기회라니?”

이루키는 네이드를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시로네를 붙잡고 하소연이나 하려고 찾아왔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이천번 훈련을 할 거야. 교장이 그렇게 하겠대.”

“이천번? 그게 뭔데?”

이루키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상의 번뇌.”

네이드가 덧붙였다.

“대마법사 전용, 전투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야.”

@

고급반 통합 수업이 시작되기 10분 전, 학생들의 긴장도는 여느 때보다 높았다.

제27훈련장은 산을 평평하게 깎은 개활지로, 바닥은 작은 금속 재질의 블록으로 조밀하게 마감되어 있었다.

외곽 테두리를 따라 4개의 철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높이가 7미터는 되어 보였다.

교육을 주관하는 교사는 시이나, 사드, 에텔라였다. 인기 교사 모두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기에 학생들은 만족했다.

## [234] 4. 전투 시뮬레이션 (4)

훈련장을 찾은 올리비아가 학생들 앞에 섰다.

“첫 수업이니만큼 직접 설명하도록 하죠. 갑작스럽게 교과목이 변경되어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강해야 합니다. 이천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마법공학의 선구자인 루이 자코뱅 씨가 개발한 장치로, 훈련 상황에서도 실전과 같은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네이드에게는 자코뱅이라는 이름이 확성기를 통한 것처럼 크게 들렸다.

세계 최고의 마법공학자로, 이미지 존이라는 희대의 걸작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었다.

이미지 존이 등장하면서 스피릿 존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이천번까지 발전했다.

세간 사람들은 전투 마법사의 화려한 명성에 찬사를 보내지만 그 전투 마법사를 키운 건 누구인가?

자코뱅이 만든 장치가 아니었다면 마법사들의 수준 또한 30년은 정체되었을 터였다.

“사드 선생, 마스터용 팔찌를 주세요.”

사드가 2개의 팔찌를 가지고 왔다. 올리비아는 그것을 손목에 착용한 다음 학생들에게 보여 주었다.

“여기 붉은색 팔찌와 푸른색 팔찌가 있습니다. 각각의 팔찌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친구들과 바꿔 차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붉은색 팔찌는 마법사의 상태를 정보로 변환하고 푸른색 팔찌는 외부의 상태를 정보로 변환합니다. 그 두 가지 정보가 탑으로 전송되어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학생들은 한 쌍의 팔찌를 받았다. 손목에 채우자 적색과 청색의 조명이 켜졌다.

“그럼 이제부터 이천번을 가동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닥에 깔린 물리 블록의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자연환경을 구현한 듯 복잡한 지대를 이루었다.

생전 처음 보는 가상의 풍경이 덧씌워지자 학생들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졸업반 선배들에게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접해 보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현실감이었다.

가상의 풍경은 크레아스 도시의 시가지였다. 사람은 지나다니지 않았지만 수백 채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풍경은 현실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시가지는 좋지 않군요. 다른 풍경으로 바꿔 주세요.”

블록의 배열이 변하기 시작했다. 전체 면적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북동쪽 테두리의 블록이 일제히 하강했다.

움푹 들어간 곳에 물이 차올라 호수가 생기고 그곳을 기점으로 주위의 풍경이 숲으로 변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산속이었다.

“역시 명문 학교군요. 이천번이라도 호수를 만들기는 어렵죠. 자연지물의 80퍼센트 이상은 물리 블록이지만 풍경은 전부 가상으로 만들어집니다. 푸른색 팔찌가 정보를 수신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뇌에 전달하는 것이죠. 따라서 팔찌를 벗게 되면 물리 블록만이 남게 됩니다. 우선 둘러보세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죠.”

학생들은 열을 맞추어 이천번으로 들어갔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산에서 흔히 보던 것들이지만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도 신기했다. 시로네 일행은 호수 쪽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네이드가 나무를 만지자 푸른색 팔찌가 빛나면서 질감이 전해져 왔다.

“굉장하다. 이건 물리 블록도 아닐 텐데, 정말로 가상이란 말이야?”

“나뭇잎도 진짜 같아.”

시로네는 이파리를 뜯었다. 사라지지 않고 손바닥 위에 실물처럼 놓였다.

이루키가 호수로 다가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셔 보았다.

“어때? 물맛이 나?”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갈이 되는데. 물론 착각이겠지만. 뇌에서 물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야. 이건 좀 위험한데.”

시로네도 같은 생각이었다. 만약 물이 아니라 불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뇌가 열기의 정보를 인지하고 몸이 타 버릴 것인가?

현실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로네는 이런 쪽에 박식한 네이드를 돌아보았다.

“네이드, 이거…….”

“그래! 스피릿 존의 메커니즘과 흡사해! 정말 엄청나잖아! 루이 자코뱅은 인간의 정신을 기계장치를 통해서 구현시킨 거야.”

생물학자의 꿈이 인간의 장기를 인공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공학자의 최종 목표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였다.

아직은 요원하지만 최소한 자코뱅은 인간의 정신을 정보화시키는 데에는 성공한 듯했다.

“이천번을 고급반에 개방하기로 했을 때 교사진의 반발이 엄청 심했다던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어.”

“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올리비아가 다가와 있었다.

“죽을 수도 있다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졸업 시험 외에는 싱크로율을 100퍼센트로 맞추지 않으니까요. 현재는 시연을 위해 필터를 해제했지만 여러분이 체험할 때는 50퍼센트 내외일 것입니다. 졸업반은 80퍼센트죠. 왕국교육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이루키가 말했다.

“50퍼센트라고 해도 반드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의외로 겁이 많군요, 이루키 군.”

“모르고 덤볐다가 죽는 바보는 되기 싫거든요.”

올리비아는 이루키를 빤히 바라보았다. 한때는 단테와 동급이라고 평가받던 아이였다.

하지만 왕립 마법학교는 학생들의 건방을 받아 줄 만큼 만만한 곳이 아니었고 결국 자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는 세 치 혀만 남은 건가? 안쓰럽군.’

올리비아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루키 군의 말이 맞아요. 이천번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미 왕립 마법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1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싱크로율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굳이 높은 싱크로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엄연히 교육이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서 연습하면 실전 감각도 절로 상승할 것이란 얘기였다.

학생들이 자리로 돌아가자 올리비아는 본격적으로 이천번 수업을 진행했다.

“제가 차고 있는 팔찌는 여러분과 달리 마스터용입니다. 이천번의 여러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죠. 그럼 무엇이 다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올리비아의 머리 위로 60센티미터 길이의 붉은색 게이지가 떴다.

“이것은 저의 정신력을 백분율로 수치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실습 시간에 여러분은 게이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사드 선생님, 몬스터를 불러 주세요.”

마스터 팔찌는 기능을 공유한다. 1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위험에 빠트리려고 해도 다른 교사들이 마스터 팔찌를 차고 있는 한 위험한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떤 걸로?”

점심 메뉴를 고르라는 것처럼 난감한 상황에 사드는 차라리 선택권을 넘겨 버렸다.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인지 올리비아도 턱을 괴고 고심했다.

“흐음, 6.2버전인가요?”

“네, 최신 버전입니다. 10일 전에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면 마족이 추가됐겠군요. 서큐버스로 하죠.”

학생들의 눈이 크게 뜨였다.

“서, 서큐버스? 진짜로 서큐버스를 부를 수 있단 말이야?”

마족은 몬스터와 차원이 다른 강력한 종족이다. 인간의 발길이 끊긴 고대의 탑이나 지하 미궁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견되는데 그런 구역은 국가에서도 6급 이상의 파티가 아니면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마족의 특성을 띠는 것으로 볼 때 고대인의 집단의식이 투영되었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었다.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는 현대에 새로운 마족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정설을 뒷받침하는 의견이었다.

고대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불분명했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금기들이 행해졌다.

당시의 사람들이 향유했던 자극은 현대의 전쟁에서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강렬했고 그 열망이 승화된 것이 고대의 신이라 불리는 마족이었다.

서큐버스 또한 난교 의식에서 발생했다는 설이 유력한 만큼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들이 긴장을 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큐버스의 코드네임을 찾은 사드는 중앙통제실로 정보를 전송했다.

4개의 첨탑에서 빛이 쏘아지자 한적한 풍경 속에 반투명한 물체가 아롱거리더니 서큐버스가 구현되었다.

학생들은 눈조차 깜박이지 않고 바라보았다. 전문 서적보다는 소설이나 신화에서 접했던 존재였기에 기대를 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참혹한 외모였다.

헐벗은 여자의 몸은 멍이 든 것처럼 시퍼렇고 흉측한 박쥐의 날개가 등에 달려 있었다.

쭉 찢어진 눈에 코는 완벽한 들창코였고 치열은 엉망이라 입을 다물어도 입술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시체처럼 푸르스름한 입술도 기괴함을 더했다.

“저, 저게 서큐버스라고?”

남학생들이 질색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몸매가 아름다워도 그 외의 흉측한 특징들이 혐오감을 자아냈다.

올리비아는 서큐버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교사회의 감사로서 보고는 받았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건 처음이었다.

소싯적에 자신이 해치웠던 서큐버스의 특징이 제대로 담겨있자 고개를 끄덕였다.

“음, 이 정도면 괜찮네요. 마족은 워낙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반신반의했는데.”

올리비아는 박수를 쳐서 학생들을 주목시켰다.

“자, 여러분. 서큐버스를 보는 건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천번으로 구현되는 몬스터들은 수많은 탐험가와 학자들의 정보를 토대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마족 버전은 저도 처음 보는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몽매 능력을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 봅시다.”

사드가 테스트 모드로 변환하자 서큐버스의 외형이 변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얼이 빠진 얼굴로 입을 벌렸다. 특히나 남자들의 입에서는 침까지 새어 나왔다.

흑발의 생머리에 하얀 피부, 청초한 얼굴의 서큐버스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물론 완전히 벗은 몸이었다.

“저기, 교장 선생님. 아직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부류는 좀…….”

사드가 말했으나 올리비아는 오히려 그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자리를 피해주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남자들에게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졌다.

“우아아! 최고예요! 진짜 최고!”

“이런 수업이면 하루 종일 해도 안 지겨울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예쁜 눈웃음을 지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사망입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외모가 어떻든 본질은 마족입니다. 마족이란 무엇이죠?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인간들의 추악한 실수죠. 마족을 보게 되면 판단할 것은 하나입니다. 죽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외의 다른 판단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목은 바닥을 뒹굴고 있을 것입니다.”

올리비아가 사드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서큐버스가 원래의 추악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저런 괴물을 보고 잠시나마 황홀해했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섬뜩함을 느꼈다.

“이런 말이 있죠. 보는 것이 곧 정신이다. 서큐버스의 외모가 스피릿 존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족을 상대하려면 최소한 6급 이상의 파티를 꾸려야 하죠. 그 정도 레벨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궤멸로 이어집니다. 검사가 한눈을 팔든, 서저리가 부상자에게 달려가든, 마법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이 전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법사는 파티의 최우선 생존 대상이며 죽어도 가장 마지막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일선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적나라하게 알려 주는 수업은 처음이었다.

이 또한 올리비아가 주창하는 실전주의 교육이었다.

“어떤가요? 이게 바로 이천번의 효율성입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 봤자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마족과 싸우는 것은 먼 훗날의 얘기겠죠. 하지만 이천번 전투는 졸업 시험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면 탈락입니다. 그런 마법사를 실전 현장에 보냈다가는 동료들을 죽이고 말 테니까요.”

## [235] 4. 전투 시뮬레이션 (5)

시로네도 새겨들었다. 훗날 어떤 직업을 갖든 마법사는 자신과 동료의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임무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책상에 앉아 서류만 뒤적이던 마법사라면 학자를 고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서큐버스로 시험을 하기는 그러니, 이번에는 용아병으로 불러 주세요.”

사드는 언제 그 말이 나오나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서큐버스를 소멸시켰다. 용아병의 코드를 입력하자 강철색의 해골이 이천번에 투사되었다.

학생들은 이번에도 환호성을 터뜨렸다. 용아병은 드래곤의 송곳니로 만든 마도 생물체였다. 너무 단단해서 물리적인 공격으로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턴 언데드를 익힌 신성 마법사가 없으면 도망치는 게 이득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몬스터였다.

“시연을 위해 교사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하죠.”

사드가 나섰다. 솔직히 하기 싫지만 시이나나 에텔라를 보낼 수는 없었다. 여자가 용아병에게 얻어터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비록 가상이지만 받아들이는 정보는 실제의 용아병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실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가볍게 싱크로율 50퍼센트로 가 보죠. 괜찮나요?”

“하하! 물론입니다. 50퍼센트 정도면 뭐.”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공인 6급의 마법사에게도 용아병은 강력한 몬스터였다. 아무리 충격이 절반만 들어온다고 해도 정신이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럼 사드 선생님이 용아병의 공격을 받아 보겠습니다.”

용아병이 쿵쿵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무섭다. 젠장.’

사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코앞까지 다가온 거구의 해골이 유물 같은 검을 쳐들자 학생들의 눈이 커졌다.

굉장한 박력이었다.

“어? 어어?”

용아병의 팔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떨어졌다.

가상의 검이 사드의 몸을 관통해 지나가자 머리 위에 떠 있는 백분율 게이지가 50퍼센트 깎였다.

사드는 태연한 표정을 짓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보다시피 사드 선생님의 정신력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이는 검에 베이면 죽기 때문입니다. 현재 싱크로율이 50퍼센트이기에 절반만 깎인 것이죠. 마법사가 사망 판정을 받으면 홀로그램이 관통합니다. 이것을 ‘먹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어 판정을 보여 드리죠. 사드 선생.”

사드는 숙련된 조교답게 곧바로 마법을 시전했다. 에어 스킨을 구사하자 몸에 압축된 공기의 막이 씌워지면서 백분율 게이지가 1퍼센트 깎여 나갔다.

정신력을 수치화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때는 물론 마법을 시전할 때도 게이지는 줄어들었다.

“자, 용아병의 공격을 받아 보겠습니다.”

용아병이 팔을 치켜들고 검을 내리그었다. 이번에는 먹힘 판정과 달랐다. 사드의 정수리에 콱 하고 박히듯 칼날이 멈췄다. 백분율 게이지가 1.8퍼센트 깎였다.

올리비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대단하군요. 에어 스킨에 소모된 1퍼센트의 비용으로 48.2퍼센트의 방어력을 얻었어요. 실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전력을 다한 용아병의 일격을 맞고도 정신이 거의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사드 선생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모든 학생들이 큰 소리로 네 하고 답했다. 공인 6급 마법사의 정신이 1.8퍼센트나 깎일 정도의 파괴력이라면 고급반 학생들은 스치기만 해도 즉사였다.

사드는 우쭐하게 어깨를 세웠다. 맞기 직전에 엄청나게 수열식을 전개시켰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을 듯했다.

“홀로그램이 관통하지 않는 것을 ‘막힘’이라고 부릅니다. 먹힘과 막힘. 이 두 가지 판정이 일어나면 안티매직과 마력 제어 기술을 통해 정신력을 빼앗습니다.”

마력 제어는 뇌의 특정 회로를 차단하여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었다.

스피릿 존은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 현상, 따라서 대뇌 네트워크의 일부분만 차단해도 집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회로가 차단당하면 뇌는 곧바로 다른 루트로 우회하여 정보를 전송한다.

하지만 마력 제어 장치 또한 초당 20회의 속도로 차단 경로를 바꾸기 때문에 생각은 가능하지만 스피릿 존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물론 초당 20회의 차단 속도를 뛰어넘고 불규칙한 패턴까지 우회하면 스피릿 존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공인 2급의 대마법사 이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협회의 공식 입장이었다.

대단한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은 마력 제어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신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 범죄자에게 쓰려고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공학자가 꿈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안티매직이라는 말에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교장 선생님, 안티매직은 아무래도…….”

“네,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어요. 정신에 손상을 주는 마법이죠. 하지만 싱크로율이 80퍼센트 이상이 아니면 큰 위험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올리비아는 단호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공격 판정으로 넘어가죠. ‘밀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드 선생.”

이번에는 용아병을 공격할 차례였다. 하지만 사드는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었다.

신성 마법을 할 수 없다면 드래곤의 이빨을 부술 정도의 물리력이나 녹일 정도의 화력이 필요했다.

전력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 앞에서 용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저기, 용아병은…….”

“아, 그렇군요. 제가 하도록 하죠.”

사드가 물러서고 올리비아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용아병을 바라보며 가볍게 손을 든 그녀가 신성 마법 홀리 크로스를 시전했다.

손바닥에서 광채가 터지는 것과 동시에 용아병의 명치에 커다란 빛의 십자가가 폭발했다.

충격을 받은 용아병이 비틀대면서 물러섰다.

“이것이 밀림입니다. 가상의 정보가 여러분의 육체를 밀리게 할 수는 없지만 홀로그램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몬스터의 사망 판정도 밀림에 속합니다. 시범을 보여 드리죠.”

올리비아가 입술을 살며시 내밀었다. 색기 넘치게 벌어진 입술 사이에서 삐 하는 고주파 음이 새어 나왔다.

홀리 크로스를 시전하자 전보다 4배는 커진 십자가가 용아병을 박살 냈다.

뼈다귀들이 하늘에서 춤추는 광경에 학생들의 눈이 똥그래졌다.

충격을 받은 건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언령 마법의 최고권위자답게 초음술의 고등 기술인 단음술을 손쉽게 해냈다.

시이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페아스가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버텨 보려고 했으나 샘솟는 존경심을 막을 길이 없었다.

“대단하군요. 증폭력을 보면 2천 음절 이상이었을 텐데.”

“0.82초 걸린 것 같네요. 소설책 다섯 페이지 분량을 1초도 걸리지 않아서 읽은 거죠.”

에텔라의 실감나는 비유에 소름이 돋았다.

상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의 빠르기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언령의 기본은 되새기고 내뱉는다. 발음도 그렇지만 생각의 속도가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래서 S급 범죄자에게는 마력 제어 장치 대신에 염옥을 채워서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만들잖아요. 물론 교장 선생님이 범죄자는 아니지만요.”

마법을 시전한 뒤에도 올리비아의 정신력을 나타낸 게이지가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다.

0.1퍼센트 이내의 감소였을 것이다. 용아병을 박살 내는 일이 그녀에게는 숨 쉬는 것보다 편한 일인 듯했다.

“이것으로 이천번의 기본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이미지 존과 이천번을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할 예정이니 시간표를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클래스 세븐은 싱크로율을 20퍼센트로 맞추고, 단계별로 10퍼센트씩 올려서 클래스 포는 50퍼센트로 합니다. 참고로 졸업반은 현재 80퍼센트로 훈련을 하고 있고 졸업 시험에서는 100퍼센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클래스 포의 학생이 손을 들었다.

“만약 게이지가 전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그렇군요. 사드 선생님의 게이지를 보세요.”

학생들의 시선이 사드에게 향했다. 어느새 그의 게이지는 전부 채워져 있었다.

“정신력 게이지는 마법사의 정신을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공격을 받으면 줄어들고, 마법을 시전해도 줄어듭니다. 물론 휴식을 취하면 채워지죠. 만약 0퍼센트가 된다면 2개의 팔찌에서 빛이 나고 이천번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질문?”

“어…… 정말 그것뿐인가요?”

올리비아가 눈웃음을 지었다.

“네, 그것뿐입니다. 이천번 실습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전술적, 전략적 이해도를 월등히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천번의 핵심 기능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 벌써부터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천번의 효율을 인정하면서도 졸업반에만 국한시킨 이유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몬스터가 아무리 강해도 인위적으로 수집한 죽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패턴이 있다는 것은 공략법 또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천번의 진정한 강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패턴을 찾을 수 없는 정보. 살아 있는 정보 간의 충돌입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천번의 시스템을 이해한 그들은 올리비아의 말에 담긴 의미를 짐작하고 있었다.

“이천번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인 전투입니다.”

@

고급반 통합 수업은 이미지 존과 이천번 수업으로 나뉘었다. 올리비아의 정책에 빠르게 적응한 학생들은 더 이상 이천번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야, 저쪽이야! 잡아라!”

“아니야, 이쪽으로 몰아야 된다니까!”

클래스 세븐의 아이들이 타이콘을 사냥하고 있었다.

털이 없는 적갈색의 괴조로, 부리는 길쭉했고 발톱은 날카로웠다.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싱크로율이 10퍼센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겁 없이 잡을 수 있는 몬스터였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하늘로 마법을 시전하자 대공화망이 펼쳐졌다. 집중포화에 걸려든 타이콘이 온갖 마법에 두들겨 맞고 땅으로 추락했다.

“잡았다! 아이스 소드에 맞았어!”

“아니야, 바보야! 내가 날린 윈드 커터에 당한 거야!”

“어쨌거나 이겼잖아! 우리가 몬스터를 잡았어!”

비행 몬스터를 사냥하는 정석은 지나가는 길목에 화망을 펼치는 것이다. 클래스 세븐의 학생들은 실전에서 대공화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몸소 깨닫고 있었다.

시로네는 학생들의 변화를 실감했다.

이천번 수업이 시작된 후부터 모든 학생들이 마법 수련에 더욱 매진했다. 올리비아가 주창한 실전주의의 효과였다.

후배들의 실습이 끝나고 클래스 포의 차례가 되자 몬스터의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다.

화전민촌에서 만났던 울크는 기본이고 거대 전갈 스콜피언과 음향 마법을 쓰는 하피까지 날뛰고 있었다.

재생 능력을 보유한 트롤이 가장 까다로웠다. 마법에 약점이 있다고 들었건만 어중간한 공격으로는 기별조차 가지 않았다.

“나와라, 메르세스.”

보일이 북극 바다에 서식하는 메르세스를 소환했다.

몬스터계 극피몬스터문 성게강의 생물로, 직경 50센티미터의 구체에 가시처럼 단단한 섬모가 자라 있었다.

지능은 없지만 일단 달라붙으면 대상을 냉각시켜 자신이 살던 환경과 흡사하게 만들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빙결 계열의 능력이 필요할 때 소환사들이 선택하는 몬스터였다.

상온에서는 1분도 살지 못하는 생물이라 트롤의 등에 달라붙은 메르세스는 본능적으로 냉기를 뿜어냈다.

트롤이 얼어붙기 시작하자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졌다. 틈을 노린 학생들이 집중 공격을 퍼부어 트롤을 박살 냈다.

“해냈다! 우리가 트롤을 쓰러뜨렸어!”

“보일, 대단한데? 메르세스를 익히려면 극저온의 환경에서 최소 두 달은 살아야 하잖아? 언제 북극까지 다녀온 거야?”

“하하! 북극은 무슨. 날마다 냉동 창고에서 살았지 뭐.”

이천번이 도입되면서 보일의 이름값이 올라갔다. 기존의 수업에서는 소환 마법의 효용성을 증명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실전에서는 또래의 마법사들이 구사할 수 없는 극한의 능력을 지닌 소환수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반면에 클래스 포의 2등이었던 판도라는 점차 초조해졌다.

두각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은 크지만 향기 마법으로 몬스터를 압도하기는 무리였다.

## [236] 4. 전투 시뮬레이션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향기 마법은 실전에 젬병인가?’

판도라는 고개를 저었다.

향기 마법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단 자격증을 따면 마법사회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효과마저 독특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기 마법의 진가를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판도라는 경쟁자들을 돌아보았다.

보일은 모범생답게 정석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고 시로네 일행은 문제아답게 마음대로 사냥을 하고 있었다.

특이한 건 단테 일행이었다.

이천번이 개방됐음에도 바깥에 앉아 다른 학생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흥, 뭐야? 급이 다르다 이건가? 건방지게.”

단테는 판도라의 시선을 무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가 뒤편에 앉아 있는 클로저와 사비나에게 턱짓을 했다.

“얘들아, 저 여자애가 우리를 쳐다보는데?”

“크크, 똥줄이 타나 보지. 취향은 마음에 드는데 실력은 영 꽝이야. 향기를 이용해서 싸우는 법도 안 가르쳐 주나?”

“보나마나 전공은 졸업반에서 배우라는 소리나 했겠지. 아무튼 기분 나쁘네. 촌닭 같은 계집애가 눈을 부라리고 있잖아? 확 가서 뭉개 버려?”

클로저가 단테를 돌아보며 말했다.

“괜찮을까, 단테? 우리가 조금 시범을 보여도?”

“갔다 와. 이천번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줘라.”

그제야 클로저와 사비나가 팔찌를 찼다. 가상의 풍경은 넓은 초원 지대였다. 그들이 들어오자 미리 자리를 선점한 학생들이 훈련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잡지를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단테 일행의 실력을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

사비나가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말했다.

“너희, 이천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실전 연습을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 줘야지. 사드 선생님, 17번 패키지로 부탁드려요.”

사드는 구석에 앉아 시간만 죽이고 있다가 하품을 하며 코어에 정보를 전송했다.

17번 패키지면 꽤나 소란스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싱크로율이 낮으니 별다른 위험은 없을 터였다.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육해공을 막론하고 수십 마리의 몬스터가 등장했다.

땅에서 골렘이 일어나고 울크와 해골이 언덕을 뛰어내려 왔다. 시체만 뜯어 먹는다는 괴조 나찰이 창처럼 긴 주둥이를 앞세워 육탄 공격을 시도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광경에 학생들은 숨이 멎었다. 전략조차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물량 공세였다.

“후후, 이 정도는 되어야 할 맛이 나지.”

사비나는 허리를 젖히고 마법을 시전했다. 몸에 차가운 바람이 맴돌더니 이내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반쯤 감긴 눈으로 지켜보던 사드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어라? 헤이스트잖아?’

에어 계열의 전공 마법으로, 바람의 힘을 이용해 움직임을 가속하는 효과였다.

사비나를 뒤쫓던 울크들이 손톱을 휘둘렀으나 어느새 그녀는 놈들의 뒤로 돌아들어가 윈드 커터를 뿌려 댔다.

그러는 동안 골렘은 사비나가 움직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눈에 보이는 클로저에게 다가갔다.

“크크, 우리가 어째서 스타인지 보여 주지.”

골렘의 주먹이 클로저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무게는 1톤에 가까웠기에 육체 능력이 약한 마법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하지만 판정은 막힘이었다.

‘어스라이즈? 저것도 전공 과정이잖아?’

대지의 힘을 끌어 올려 내구력을 높이는 마법. 시전자가 움직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떤 계열도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방어력은 자랑거리였다.

‘그렇군. 왕국의 스타라. 비결은 패시브 스킬이었나?’

액티브 마법이 현상에 집중한다면 패시브는 속성이 가진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는 마법이었다.

바람은 빠르고 대지는 단단하다. 거기에서 파생된 마법이 헤이스트와 어스라이즈였다.

마법을 시전한 뒤에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다른 액티브 마법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다.

마법사의 대표적인 패시브 스킬로 순간 이동이 있다.

액티브 스킬로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마법사를 광자화 상태로 변환시키는 게 전부였다.

빛으로 변한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온전히 감각의 문제였고, 그렇기에 시로네도 순간 이동을 배울 때 한 달이나 땅바닥을 뒹굴었던 것이다.

“호호호! 느려! 느려!”

“크크크! 이쪽은 너무 약한데!”

사비나가 치명상을 입히면 클로저가 대지의 힘으로 짓뭉개 버리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순식간에 몬스터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졸업반에서 다루는 마법을 익혔으니 고급반의 패키지 정도야 금세 클리어가 가능했다.

사드는 이마를 부여잡고 고개를 저었다.

“도대체 어쩌자고 패시브 스킬을? 저게 왕립 마법학교의 방식인가?”

시이나가 다가오며 말했다.

“개성을 중시하는 수도의 학풍이 반영된 것이겠죠.”

“개성도 좋지만 다양성은요? 여러 마법을 접해 봐야 적성과 소질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패시브 스킬은 순간 이동으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데 뭐가 저리 급한 건지.”

“효율적인 건 사실이에요. 액티브 스킬은 두 가지 마법을 동시에 시전할 수 없는 약점이 있죠. 이루키야 더블 스피릿 존이니 논외로 치지만요. 헤이스트를 시전한 상태에서 윈드 커터를 날리는 사비나를 보세요.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결과를 내고 있어요. 아케인에 배운 카니스와 아린도 패시브 스킬을 다루고 있고요.”

“하지만 시이나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바슈카의 방식에 찬성하는 건 아니니까. 전국의 학생들이 어째서 저들에게 열광하는지 알아 두고 싶은 거예요.”

시이나가 안경을 올리며 이천번의 구석을 가리켰다.

“어쨌거나…… 액티브 스킬로도 똑같은 결과를 내는 학생도 있으니까요.”

사드는 시로네 일행을 돌아보았다. 골렘 부대로 구성된 패키지 7번을 상대하고 있었다.

라이트닝 볼트, 아토믹 봄, 포톤 캐논이 꽂히는 중이었는데 액티브 스킬의 특성상 좌충우돌하는 장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합을 맞추는 모습이 대견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이 좋았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요절복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실전주의와 학교라는 단어가 정말로 어울리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으아, 힘들어. 이제 그만하자.”

네이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파된 골렘의 시체가 흙을 흡수하더니 일어서기 시작했다.

패키지 7번을 열어 주고 자리를 피한 에텔라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물론 에텔라는 뛰어난 교사다. 하지만 기계치인 것만은 분명했다.

리셋 기능을 켜 놓고 자리를 비우면 어쩌란 말인가?

“팔찌를 풀자. 그 방법밖에는 없겠어. 에텔라 선생님 너무해.”

“잠깐 기다려 봐. 한 가지 해 보고 싶은 게 떠올랐어.”

시로네의 말에 네이드와 이루키가 자리를 비켜 주었다. 그러면서도 시로네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궁금했다. 한 패키지를 혼자 소화시키려면 레이저로 지지거나 포톤 캐논 연사밖에 없을 듯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예상은 빗나갔다.

시로네가 빛의 구체를 띄우자 그곳에서 황금빛 사슬이 물줄기처럼 뽑아져 나왔다.

천국에서 터득한 샤이닝 체인이었다.

듣도 보도 못한 마법의 등장에 학생들의 시선이 시로네에게 집중되었다.

단테도 이번만큼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시로네는 선두의 골렘을 샤이닝 체인으로 묶었다. 타부마저 으스러뜨린 장력이니 흙 골렘 정도는 단숨에 부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는 전부 해치울 수가 없었다.

사슬에 묶인 골렘이 허공으로 떠오르더니 회초리처럼 빠르게 흔들리며 다른 골렘들을 땅으로 처박았다.

쿵! 쿵! 쿵! 쿵!

아무리 덩치가 커도 원질은 흙이다. 같은 중량으로 두들기자 골렘들은 힘조차 써 보지 못하고 땅으로 찌부러졌다.

학생들은 넋을 잃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마법이야? 어떻게 하면 저런 마법을 익힐 수 있는 거지?”

“이모탈 펑션이라서 가능한 거겠지. 정말 엄청나네.”

시로네 일행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긴 클로저와 사비나는 이를 갈았다.

갖은 묘기를 선보여서 17번 패키지를 클리어했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단테마저도 시로네를 보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같은 빛의 마법사로서 충격적이었다. 광자라는 속성은 결합도 힘들지만 조형은 절대로 불가능했다.

‘한 가지 재주는 있다는 건가?’

이천번이 소란스러워지자 에텔라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네이드가 팔짱을 끼고 눈을 흘겼다.

“선생님…….”

“어머,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죠? 다른 패키지 해 줄까요?”

에텔라는 마스터 팔찌를 만지며 쩔쩔맸다.

그 모습에 시로네는 맥이 풀렸지만 존경하는 그녀도 못하는 게 있다는 사실에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

“그냥 꺼 주세요, 제발.”

골렘이 일어나는 소리만 들어도 토할 지경이었다.

지칠 대로 지친 시로네 일행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천번을 벗어났다.

단테가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프랙탈인가?”

잠시 생각하던 시로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광자 조형술로 복잡한 형태는 불가능하니까.”

“그렇군. 괜찮은 방법이야. 대단한데?”

“하하, 고마워.”

“하지만 틀렸어. 너의 방식에는 심각한 단점이 존재해.”

네이드가 인상을 팍 구겼다.

여태까지 시로네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 냈다. 실전을 거듭하며 진화한 능력에 단점이 있을 턱이 없었다.

“언로커의 전지는 인정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게 문제야. 아직 패시브 스킬은 익히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는 밸런스가 맞지 않아.”

이루키가 반박했다.

“공격 마법, 방어 마법, 지속 데미지 마법, 구속 마법까지 갖췄어. 도대체 무슨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야?”

“성향만 보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전부 비싼 마법들이야. 얼마나 전투를 경험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는 1시간도 싸울 수 없어. 내 말이 틀렸나?”

생각지도 못한 말에 시로네는 눈을 깜박거렸다. 확실히 1시간을 넘긴 전투는 없었다.

이루키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성향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보다 오래 뛰지 못하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다. 짧은 시간에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다면 지구력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수비보단 공격이 훨씬 유리하지. 5분, 10분도 아니고 1시간이야. 대부분의 마법 전투는 그 안에 끝나게 된다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긴, 이제 와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지. 의견을 말한 것뿐이야. 참고로 내가 가장 오랫동안 혈투를 벌인 시간은 10시간 27분이거든.”

스프린터에 가까운 시로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이었다.

10시간 27분의 혈투. 그것은 분명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마법의 세계에는 단거리 경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두고 단테는 멀어져 갔다.

@

이미지 존 수업은 한가로웠다.

한 달 전만 해도 고급반의 수준을 가늠하는 실전의 장이었으나 타깃이나 맞히는 건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에 비해 훨씬 지루한 일이었다.

클래스 포의 학생들도 예전만큼 의욕적으로 점수를 올리려들지 않았다.

보다 못한 에텔라가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핀잔했다.

“여러분, 사방식을 수련하지 않으면 실력을 높일 수 없어요. 기본을 충실히 갈고닦아야 사냥도 더 잘하게 되는 법이에요.”

“괜찮은 일 아닌가요? 왕립 마법학교의 선진 교육에 적응한 거겠죠.”

“단테 군도 이제는 엄연히 알페아스 마법학교의 학생이에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은 삼가도록 하세요.”

에텔라가 평소답지 않게 과격한 발언을 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지루한 얼굴이었고 하루빨리 이천번 수업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로네는 달랐다. 근래 그를 불타오르게 하는 분야는 이천번이 아니라 리프팅이었다.

아타락시아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비결이 리프팅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237] 4. 전투 시뮬레이션 (7)

헤일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모탈 펑션을 무한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하지만 완벽한 원의 개념을 얻은 이상 두 번째부터는 메커니즘을 간소화시킬 여지가 충분했다.

리프팅 타깃은 정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정신이 절대안정을 유지한다면 타깃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곧 무한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서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때부터 시로네는 정상적인 리프팅 훈련 대신에 타깃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성과가 나타났다.

반발력 최대인 타깃이 스피릿 존에서 고요하게 떠 있는 모습은 언제 봐도 신기했다.

이모탈 펑션을 통해 완벽한 원의 감각을 깨달은 시로네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생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지만 어째서 저런 훈련을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클로저가 말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저것만 하고 있군. 그래 봤자 10초도 못 버티면서.”

사비나도 질세라 한마디를 보탰다.

“수도승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마법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시로네의 위에 떠 있는 타깃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정신의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다.

마치 뇌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허용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금강태의 경지에 오른 시로네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도 10초 이상을 버티지 못했다. 결국 타깃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스피릿 존 밖으로 날아갔다.

단테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응? 뭐가 커져?”

“스피릿 존. 저번보다 더 커진 것 같아.”

클로저와 사비나도 다시 시로네를 살폈다.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저번보다 커졌다.

“설마. 스피릿 존을 그렇게 쉽게 키울 수 있으면 세상에 대마법사 아닌 사람이 없지. 보통은 고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응? 깨달음?”

사비나는 자신의 말에서 깨달았다. 마법사도 각성을 하지만 순수한 정신체인 스피릿 존은 오히려 구도의 마음과 관련이 깊었다.

카르시스 수도회의 비숍인 에텔라가 왕국에서 이름난 조너이기도 한 이유였다.

사비나의 예상은 정확했다.

금강태의 경지에 오른 시로네는 정신을 확장시키는 한계가 사라진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완벽한 원을 계속 돌리다 보니 엄청난 속도로 스피릿 존이 강화되고 있었다.

클로저와 사비나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비하의 말을 퍼붓는 와중에도 단테는 묵묵히 시로네를 바라보고 있었다.

@

이천번 수업 시간이 돌아왔다.

에텔라, 시이나, 사드, 3명의 교사가 수업을 주관했고 이제는 학생들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다.

시이나가 대표로 나서서 수업을 진행했다.

“오늘부터 대인 전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술훈련과는 맥락이 다르니 통제에 잘 따라 주세요.”

대인 전투는 전술훈련과 다른 점이 꽤 많았다.

우선 강력한 마법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이지가 훨씬 빨리 줄어든다. 즉, 안티매직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패시브 스킬에 한해서는 사람에게도 밀림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였다.

대표적인 사고 사례가 순간 이동을 시전한 두 마법사가 중간 지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였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가상의 현실이라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3명의 교사가 참관하는 이유도 대인 전투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실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자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작심하고 오늘만을 기다린 보일이 손을 들었다.

“좋아요. 그럼 보일의 상대로는…….”

“선생님, 상대도 제가 지목해도 될까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기에 거절하려고 했으나 보일은 이미 도전 상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단테가 황당한 듯 자신을 가리켰다.

“나? 지금 나랑 하자는 거야?”

“그래. 여태까지 잘난 척을 했으니 빼지는 않겠지?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실력으로 증명해 봐.”

하자고 덤비면 못할 것도 없지만 전국 1등의 위치라는 것은 개나 소나 도전한다고 받아 주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렇게 나를 꺾고 싶어? 무슨 일이 있어도?”

“착각하지 마라. 고급반의 1등은 엄연히 나고 도전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 올라오는 게 어때? 네 썩어 빠진 인성을 개조해 주지.”

“하하하! 멋진 말이네! 그럼 이건 어때? 지는 쪽이 이긴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졌다고 말하는 거야.”

에텔라가 말했다.

“단테, 이건 엄연히 수업의 일환으로…….”

“괜찮습니다. 하게 해 주세요, 에텔라 선생님. 오히려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보일이 간절한 눈빛으로 요청했다. 클로저에게 얻어맞은 기억은 평생의 수치였다. 오히려 만회할 기회가 생겨서 고마울 지경이었다.

대결이 성사되자 시로네는 단테가 보일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궁금했다. 광자 계열에는 공격 마법이 없다. 물론 단테 정도면 다른 계열의 마법도 익혔을 테지만 그는 분명 자신을 샤이닝 보이, 빛의 마법사라고 말했었다.

시로네가 생각에 잠긴 사이 보일과 단테는 이천번 실습장에서 50미터 정도 거리를 벌리고 대결을 기다렸다.

대인 전투에서 초반 거리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단 전투에 들어가면 갖은 변수가 난무하지만 시작은 반드시 서로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열식을 전개시켜 선제타격을 하는 게 관건이었다.

물론 소환 마법사는 다른 마법사들과 성향이 다르기에 초반 전술 운용에서 자유로운 편이었다.

선제타격을 포기하고 최대한 빨리 소환수를 불러 상대방의 공격을 수비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테가 선포하듯 말했다.

“소환수부터 꺼내고 여유롭게 시작하자고. 나도 초장부터 호들갑 떠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보일은 단테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싸우기도 전에 거짓말을 해서 뒷말을 남길 여지를 만들 것 같지도 않았다.

어쨌거나 초반에 수비적일 수밖에 없는 소환 마법사의 입장에서는 이득이었다.

“그러고 싶으면 그러든지.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 테니까.”

심리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말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대답이었다.

단테는 여유를 잃지 않았지만 난감하게 눈썹을 긁적였다. 온실 속의 화초인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머리를 굴릴 줄 아는 놈이었다.

‘소환 마법이라. 확실히 저건 까다롭지.’

소환 마법사는 상사相思라고 불리는 독특하고 어려운 전지를 통해서 소환수를 불러낼 수 있다.

소환 마법을 배우는 마법사가 최초로 소환시키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것을 도플갱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성공하면 도플갱어가 제3의 존재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갖게 되는 셈이다.

무언가를 소환한다는 말은 무언가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그것이 바로 상사였고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는 각인 단계라 부르는 것으로, 오감 전부를 사용해서 소환할 대상을 관찰한 다음 이미지를 머릿속에 새기는 과정이다.

소환수의 외형을 완벽하게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소환 마법사들의 관찰력은 일반인의 범주를 까마득히 초월한다.

대표적인 훈련으로 배치법이라는 게 있다.

길이가 1밀리미터씩 차이나는 막대기 30개를 무작위로 섞은 다음 1분 안에 길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훈련이었다.

두 번째는 공감 단계라 부르는 것으로, 소환할 대상의 행태를 연구하여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확신을 갖는 과정이다.

방대한 지식으로 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특성을 느끼는 편이다.

어떤 생물이건 격리된 장소에서 1년 이상을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생물에 대한 특성이 각인되게 마련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생물일수록 반응은 단순해지고 클리어도 쉽다.

세 번째는 소멸 단계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각인시켰던 대상을 죽여 실체를 지워 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대상이 현실에서 보인다면 소환 마법사는 그것을 도플갱어를 통해 구현시킬 수 있다.

반드시 죽여야 할 필요는 없다. 관건은 ‘절대로 다시 볼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 상태가 강화될수록 소환수의 선명도는 강화된다.

오랜 세월 공감대를 형성한 대상을 죽인다는 건 끔찍한 기분이지만 살려 두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었다.

일례로 한 여자 마법사가 치유 마법을 시전하는 오포이라는 몬스터를 소환수로 삼으려다가 소멸 단계에서 주저했다.

결국 오포이를 마물 수집가에게 팔아넘기는 식으로 소멸 단계를 클리어했지만 5년 뒤 어떤 경로를 통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오포이 소환 능력을 잃어버렸다.

소환수는 상사의 수준에 따라 10티어에서 1티어까지 구분하는데, 마법협회의 리서치에 의하면 최하급인 10티어의 종류는 13,872종이지만 1티어에 등재된 소환수는 고작 3종이다.

1티어 소환수 중의 하나로 언데드 몬스터계의 대마법사인 리치가 있다는 건 유명한 사실이다.

중동의 대마법사 줄루라는 여성이 거느리는 소환수인데, 이 사실이 퍼지고 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소멸 단계를 클리어하려면 존재를 지워야 하는데 리치는 사망할 능력을 잃은 몬스터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줄루 자신이 직접 리치가 되었고 단지 도플갱어를 소환한 것뿐이라는 얘기도 돌지만, 그녀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정확한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보일이 거만하게 목을 풀면서 말했다.

“저번 학기에는 고급반의 2등이었지. 근소한 차이로 말이야. 내가 왜 졸업반에 일부러 안 들어가고 여기 남았는지 알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 그런 것 같군.”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무려 4년 동안 공을 들였다. 그리고 이번 방학 중에 마침내 성공했지. 내 소환수가 너를 찢어발길 것이다.”

“기대하지. 솔직히 메르세스는 좀 실망스러웠거든.”

보일의 입가가 찢어졌다. 이 순간만큼은 엄마 품에 안긴 아들도,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모범생도 아닌 1명의 소환 마법사였다.

“걱정 마. 이번엔 다를 테니까.”

시이나가 전투 개시를 외치자 보일과 단테가 동시에 스피릿 존에 들어갔다.

수열식이 전개되면서 정신이 강화되고 스피릿 존이 각자의 사방식으로 변했다.

보일은 수비형이었고 단테는 타깃형이었다.

“나와라, 가오스.”

보일이 손을 내민 곳에 또 하나의 보일이 태어났다. 마법사의 도플갱어가 소환수의 도플갱어로 전이되는 삼위일체의 묘리를 따라 6티어 소환수인 가오스로 탈바꿈했다.

크아아아아앙!

몸길이 3미터에 달하는 인수형의 괴물이 사족 보행의 자세를 취했다. 털 없이 매끈한 피부는 푸른색이었고 근육은 바위처럼 갈라져 있었다.

신체는 인간과 흡사했으나 안대를 한 것처럼 눈이 없었고 콧잔등부터 턱이 있는 자리까지 전부 입이었다.

듬성듬성한 송곳니 안쪽에 빨대 같은 혀가 뒤엉켰고 목부터 이어지는 척추를 따라 전기를 발산하는 촉수가 뻗어 나와 있었다.

손가락은 4개였고 금강석에 맞먹는 강도의 손톱이 10센티미터나 돋아 있었다.

“가, 가오스. 진짜로 가오스를 소환했어.”

학생들은 아연실색했다. 방학 중에 특훈을 했다더니 그게 가오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오스는 6티어에 등재된 소환수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하는데, 육체 능력만 따지자면 5티어도 비벼 볼 수 있는 몬스터였다.

교사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 졸업반에 소환 마법사는 없지만 여태까지 학교에서 6티어까지 이루고 졸업한 사람은 손에 꼽았다.

“세상에. 언제 저런 소환 마법을 익혔을까요? 방학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에텔라의 말에 사드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래전부터 계산했겠죠. 저 녀석, 아예 작정하고 키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영악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고급반이든 졸업반이든 물리력에 취약한 마법사들이다. 신체 능력으로 5티어 언저리까지 쳐주는 가오스를 소환한다면 졸업 시험을 훨씬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 [238] 4. 전투 시뮬레이션 (8)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도 단테는 움직이지 않았다. 솔직히 6티어급 소환수가 나올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떠냐, 창피를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항복하는 게? 그러면 무릎 꿇는 건 취소해 주지.”

“대단하군. 어떻게 가오스를?”

단테가 질린 표정을 짓자 보일의 어깨가 으쓱해졌다.

“나라면 역겨워서 가까이 가기도 싫었을 거야. 저 괴물이랑 몇 년을 살았다는 거 아냐? 설마 너, 금단의 선을 넘은 건 아니겠지? 크크큭.”

보일의 눈이 부릅뜨였다.

소환 마법사의 직업 특성상 금수들과 오래 생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어떤 괴팍한 마법사는 공감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 금단의 선을 넘기도 한다.

마법사라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입 밖에 꺼냈다는 건 분명한 조롱이었다.

“반드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어.”

가오스가 돌진하는 속도는 시선으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다. 화전민촌에서 울크와 싸운 적이 있는 시로네도 가오스는 상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과연 단테는 어떻게 할 생각일까?’

예상과 달리 단테는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 이동으로 자리를 피해 버렸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가오스를 말릴 수는 없었다.

급격히 몸을 뒤틀어 단테의 코앞까지 다가간 몬스터가 손톱을 휘둘렀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오스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뭐지?”

보일과 정신이 연결된 가오스는 바닥을 살폈다. 어느새 소형 마법진이 반짝이고 있었다.

시로네는 효과만 보고도 마법진의 종류를 알 수 있었다.

“슬로 마법진?”

단테가 깎지 낀 손을 머리에 얹고 조롱했다.

“아직 멀었나? 6티어라더니 되게 느리네.”

분노한 가오스는 근육에 힘을 주었으나 시간의 흐름을 완력으로 뒤틀 수는 없었다.

크아아아앙!

마침내 마법진을 빠져나온 가오스가 괴성을 지르며 단테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리 깔아 놓은 슬로 마법진에 걸려 또다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심한 듯 쳐다보던 단테가 하품을 하며 아래를 가리켰다.

“땅을 보라고, 땅을. 너 바보냐?”

“이 자식! 감히 날 조롱해!”

보일이 소리치자 가오스의 척추와 연결된 호스에서 전기가 발생했다. 마법진의 영역을 벗어난 번개가 단테가 있는 자리를 초토화시켰다.

6티어의 소환수가 시전한 마법에 맞았으니 끝났다고 봐도 무방했다.

하지만 이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보일은 뒤늦게 이유를 깨달았다.

“환영 마법진?”

번개로 타들어 간 자리에 작은 마법진 하나만이 덩그러니 그려져 있었다. 첫 번째 슬로 마법진을 시전했을 때부터 만들어 놓은 트릭이었다.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주위를 둘러보는 보일의 뒤편에서 단테가 어깨동무를 걸었다. 심장이 떨어질 정도로 놀란 보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단테의 얼굴이 보일의 어깨 너머로 불쑥 등장했다.

“지금 장난하는 거냐? 간만에 받아 준 도전이니까 제대로 해라.”

“큭! 가, 가오스!”

가오스가 맹렬한 기세로 되돌아오자 단테는 다시 순간 이동으로 멀어졌다.

지금까지의 전투를 토대로 시로네는 단테의 주특기를 깨달았다.

“그렇구나. 빛의 마법, 그중에서도 정보 마법을 이용한 마법진 전투야.”

시로네가 스피드 건 테스트를 앞두고 배웠던 광자 출력. 거기에서 응용된 정보 계열의 마법이었다.

광자는 정보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마법진과 궁합이 좋았다.

천사의 능력인 헤일로 또한 원질은 빛이 아니던가?

게다가 단테가 구사하는 마법진은 1회용인 인스턴트 마법진이었다.

유지시간이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마법진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초 이내로 짧다.

현재 단테의 주위에는 수십 개의 마법진이 떠 있는 상태였다.

종횡무진 질주하던 가오스가 주위의 달라진 풍경을 보고 처음으로 동작을 멈췄다.

전투를 지켜보던 클로저가 입꼬리를 올렸다.

“반사 마법진. 걸려들었군. 보일은 벗어날 수 없어.”

보일은 심각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이 돌아가는 곳마다 마법진이 반짝이고 있었다.

총 48개의 마법진이었고 소환 마법사의 초인적인 감각으로 살핀 결과 직경 57.62센티미터로 크기와 형태가 똑같았다.

단테가 지휘자처럼 두 손을 들고 다가왔다.

“단테의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닥쳐!”

단테는 에어 스트라이크를 반사 마법진에 쏘았다. 가오스가 단테의 코앞까지 접근하는 순간 무려 7개의 마법진을 쿠션처럼 튕긴 에어 스트라이크가 가오스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단테가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단테는 지휘를 하듯 이곳저곳에 마법을 퍼부었다.

에어 스트라이크는 입체적인 궤적으로 마법진을 돌아다녔고 복사 마법진에서 2개로 늘어나 가오스를 공격했다.

크아아아아!

가오스가 아무리 신체 능력이 높아도 마법진으로 강화된 에어 스트라이크를 연타로 맞는 건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보일은 망연자실했다. 가오스를 어디로 이동시켜도 에어 스트라이크가 직격하고 있었다. 3연타가 꽂히는 순간에는 하마터면 소환이 취소될 뻔했다.

“어떻게 된 거야? 천하의 가오스가 이 정도 공격에 쓰러져서야 되겠어?”

단테의 조롱을 참는 이유는 마법진의 유지시간이 끝나 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기회는 온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승리할 기회는 남아 있었다.

“지금이다!”

마법진이 사라지자 가오스가 최대 속도로 돌진했다.

구간마다 슬로 마법진이 깔렸지만 같은 트릭에 두 번 당할 보일이 아니었다.

보일의 생각을 비웃듯 단테는 가오스의 어깨와 무릎에 2개의 슬로 마법진을 비껴 걸었다.

각 부위에 다른 시간이 적용되자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가오스의 몸이 벌러덩 뒤집혔다.

“너 정말 바보구나. 마법진도 마법이야. 피하면 직접 몸에다 걸어 버리면 된다고.”

보일은 이를 악물었다. 대체 저 자식은 어떤 놈이기에 6티어의 소환수를 어린애 다루듯 한단 말인가?

가오스는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가상의 소환수라도 특징은 진짜와 똑같기 때문에 마법사의 정신과 별개로 체력이 떨어지면 싸울 수가 없었다.

“괜찮아? 네 달링이 아파하는데.”

“이 개자식아!”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치욕을 당한 보일은 이판사판으로 가오스를 일으켰다.

전신에서 푸른 번개가 솟구치더니 전기체로 둔갑했다.

실제 가오스조차 사생결단을 내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폭 공격이었다.

크아아아앙!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너무 시시한데.”

단테는 가오스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다. 10개의 마법진이 일렬로 바닥에 깔리더니 잠시 후 전부 일어섰다.

정보 마법의 기술인 라이징 타깃이었다.

‘저건 증폭 마법진…….’

보일은 거리를 계산했다. 일렬로 세워진 마법진을 에어 스트라이크가 전부 통과하면 무려 10배에 가까운 위력을 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오스의 속도라면 최소한 4개의 마법진을 지나서 들어가는 게 가능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단테의 증폭 횟수는 6회로 줄어드니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상황이었다.

‘위력에서는 내가 우위다. 강공으로 간다.’

가오스가 첫 번째 마법진에 도달하는 순간 단테가 에어 스트라이크를 시전했다.

하지만 에어스트라이크는 가오스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쏘아졌다.

전방의 어딘가로 날아간 에어 스트라이크가 삼각 쿠션으로 튕기더니 라이징 타깃의 가장 먼 곳부터 거꾸로 들어왔다.

‘거리를 역으로 계산했어?’

가오스와 마법이 같은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 스트라이크가 10개의 마법진을 전부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가오스가 빠르다. 요지는 에어 스트라이크에 맞기 전에 단테를 가격하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이겼다!”

가오스가 마지막 마법진에 도착하자 보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하지만 희망을 박살 내듯 가오스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느려졌다.

마지막 마법진이 슬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초인적인 관찰력의 소환 마법사지만 10개의 마법진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마법진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9개의 마법진을 통과한 에어 스트라이크가 등을 강타하자 사선으로 튕겨 나간 가오스가 소멸했다.

보일은 허탈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억지로 쥐어짜 내면 다시 소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단테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천재적인 이해력을 갖고 있었다. 정보 마법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조금씩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전술은 싸울 의지마저 상실하게 만들었다.

단테가 어깨를 으쓱했다.

“설마 이게 끝인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 봐줬는데도 실망시키다니.”

“건방 떨지 마. 간발의 차이였어. 가오스의 체력이 조금만 더 남았어도 당하는 건 너였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라도 위안을 삼아야겠지. 하지만 그거 알아?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 끝낼 수 있었어.”

“허튼소리! 너 또한 사력을 다해……!”

보일의 발밑에 마법진이 빛나더니 몸이 아래로 꺼졌다.

곧바로 하늘에 떠 있는 마법진의 밑면을 통해 빠져나와 단테의 앞에 떨어졌다.

“으아아아!”

땅에 처박힌 보일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허리를 활처럼 휘었다.

단테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다.

“패시브 마법은 밀림 판정이 난다는 거 몰라? 마법진도 패시브 스킬이거든.”

“크윽! 너…… 대체 언제 내 밑에 마법진을…….”

“글쎄, 언제일까? 맞혀 봐.”

보일은 전투를 복기했다. 하지만 단테는 가오스를 피해 다니기 바빴을 뿐 자신에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아니, 딱 한 번 있었다.

“설마…… 어깨동무를 한 이유가…….”

“정답이야. 시간 차로 마법진을 발동시킬 수 있거든. 이걸 타임 워크라고 부르지. 소환 마법사는 2개의 자아를 다루기 때문에 보통 제자리에 머물러 있잖아? 게다가 마법진을 거꾸로 뒤집는 기술은 스핀이라고 해서 꽤나 어려운 거라고. 어쨌거나 네가 달링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도 언제든 너를 해치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알겠어, 마마보이?”

“너, 너 이 자식……!”

“하지만 이제는 질렸어. 그만 끝내자고.”

단테의 말이 끝나자 또다시 마법진이 생기면서 보일이 아래로 쑥 하고 꺼졌다.

“으아아아아!”

총 7개의 공간 이동 마법진을 복잡한 패턴으로 이동하는 보일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거리가 제로이기 때문이었다.

그저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단테는 시간을 계산하다가 에어 스트라이크를 발사했다. 정확히 여섯 번을 튕긴 마법이 거꾸로 추락하는 보일의 등을 강타했다.

먹힘 판정이 나면서 2개의 팔찌에 불이 들어왔다.

보일의 시야에 이천번의 풍경이 사라지고 물리 블록이 깔린 바닥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보일은 그들이 무엇에 놀란 것인지 알지 못했다. 정신없이 튕겼고 사각에서 불시의 일격을 당했을 뿐이다.

반면에 학생들이 보았던 광경은 일종의 묘기였다.

보일과 에어 스트라이크가 허공에서 이리저리 교차하다가 정확히 한 점에서 충돌했고, 그것으로 승부는 끝났다.

계산할 수 있다고 따라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단테는 쥐 죽은 듯 고요한 학생들을 돌아보다가 시이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백분율 게이지를 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전력을 공개하는 것이기에 보통은 꺼리기 마련이지만 단테는 당당했다.

시이나는 마스터 팔찌를 이용해 백분율 게이지를 띄웠다.

정신력이 50분의 1도 줄어 있지 않았다.

시로네는 단테가 보내는 메시지임을 깨달았다. 수많은 마법진을 만들고도 정신력의 소모가 적은 이유는 기초 마법이기 때문이다.

광자 출력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마법이고 그것으로 간단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도 힘들지 않다.

마력을 10배 증폭하는 마법진보다 2배 증폭하는 마법진을 5개 설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마법진들이 맞물리면서 창출하는 효과는 6티어 가오스를 애완동물 다루듯이 할 정도였다.

전투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상대를 조금씩 압박하여 결국에는 익사시켜 버리는 전술.

그것이 바로 샤이닝 보이 단테의 전투 방식이었다.

## [239] 4. 전투 시뮬레이션 (9)

“크윽!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보일은 단테의 정신력을 1퍼센트도 깎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대마법사와 싸운 게 아니다. 동갑내기 동급생일 뿐이고 자신도 소환 마법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천재였다.

결국 디테일의 차이였다.

단테는 전투 중에 발생했던 수천 개의 사소한 변수를 전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극단적인 차이를 벌린 것이었다.

“찌질하게 굴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어때? 약속했잖아?”

단테가 주머니에 손을 꽂고 거만하게 기다렸다.

공식적인 고급반 1등인 보일이 대대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일은 1등의 무게감만큼이나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고 피해 나갈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졌다.”

보일이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학생들의 마음에 장마가 쏟아졌다.

보일을 응원했던 시로네 일행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배였다.

이루키가 말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걸. 정보 마법이라, 저것도 정말 상대하기 까다롭겠어.”

사비나가 끼어들었다.

“아니, 단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우리는 올리비아 선생님 밑에서 열 살 때부터 싸워 왔어. 너희와는 실전경험의 횟수가 다르다고. 단테의 공식 전적은 472전 472승. 게다가 비공식 대결에서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무패의 전설이야. 고작 시골 학교 1등이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지.”

공식 대결만 472전. 비공식까지 더하면 대략 1천 번이 넘는 전투를 치렀다는 얘기였다.

어떤 마법사라도 그만큼 대인 전투를 치르면 응용력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단테가 대단한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는 점이다.

단테의 이력이 밝혀지자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재수 없는 동급생에서 왕국의 스타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성격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실력이 초월하면 명성은 따라온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열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전부 단테에게 몰려갔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라도 말을 붙여 보려는 노력이 눈에 보였다.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카니스와 아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이천번 대인 전투는 처음 구경하는 것이었지만 질리도록 싸워 왔던 그들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재밌네. 마법학교는 저렇게 훈련을 하기도 하는구나. 카니스, 우리도 해 볼래?”

“별로. 내키지 않아.”

“단테에게 질까 봐 무서운 건 아니고? 후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린의 심정 또한 카니스와 다르지 않았다. 이천번은 내키지 않았다.

“저게 뭐 어쨌다는 거야? 시로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열 받을 일도 없고.”

“시로네가 가만히 있는 건 원래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래. 카니스하고는 다르지.”

“아린, 요즘 너 은근히 시로네 편드는 것 같다?”

아린은 혀를 삐죽 내밀었다.

물론 카니스와 앙숙인 사람은 자신에게도 앙숙이다. 두 사람이 충돌한다면 전력을 다해 카니스를 돕겠지만, 그럼에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튼 어때? 정보 마법, 아마도 새로운 흐름인 것 같은데. 이길 수 있겠어?”

카니스는 콧김을 내뿜었다.

이천번은 마음에 안 들지만 단테의 실력은 확실히 진짜였다. 재밌는 점은 시로네와 대칭적인 천재라는 것이다.

이루키 또한 천재지만 그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감이 있었다.

“흐음, 전장에서 제대로 붙는다면…….”

“붙는다면?”

한참이나 말이 없던 카니스의 얼굴이 점차 심각해졌다.

흔들리는 감정을 초경으로 간파한 아린이 옆구리를 찌르며 재촉했다.

“응? 붙는다면? 어떻게 되는데?”

아린의 시선을 회피하듯 고개를 돌린 카니스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멋, 멋진 승부가 되겠지.”

5. 매치포인트 (1)

“아싸! 이겼다. 야, 빨리 꿇어.”

“제길! 다시 붙어! 실수만 안 했어도!”

언제부턴가 고급반에는 유행어가 생겼다. 단테가 전파한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었다.

심지어는 클래스 세븐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속출했다. 장난에 불과했지만 승부에 집착하는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다.

A와 B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그중의 승자가 C를 이길 수 있는가?

모든 것들이 전교생에게 등수를 매기는 왕립 마법학교의 시스템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쳇!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이상한 교장이 와 가지고 학교를 망쳐 놔.”

잔디밭에 드러누운 마크는 이천번 실습장에서 후배들이 대인 전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투덜거렸다.

현재 그의 매치포인트는 클래스 식스의 서열 1위였다. 도전하는 족족 묵사발을 내 버렸기 때문이다. 소싯적의 그라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겠으나 시로네를 존경하게 된 뒤로 저급반의 서열 따위는 의미가 없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마리아가 풀을 뜯으며 말했다.

“마크, 그래도 교장 선생님인데 이상한 교장이 뭐야.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짜증 나는 걸 어떡하라고! 단테인지 뭔지도 마음에 안 들어. 특히나 클로저, 그 자식은 나랑 싸울 때 패시브 스킬을 쓴 거잖아. 주먹 대 주먹으로 붙었으면 상대도 안 되는 게.”

마리아도 마크가 얻어터진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특히나 클로저는 나이도 어린 게 자신을 희롱하기까지 했었다.

“시로네 선배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어쨌든 같은 클래스 포니까. 너무 심하게 괴롭히면 나도 사드 선생님에게 말해 보려고. 어떻게 생각해?”

마크는 의견을 내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했다. 마리아를 괴롭힌 녀석에게 앙갚음을 해 주고 싶지만 그들의 실력은 진짜였다. 물론 자칭 시로네 라인인 그에게도 괴물 같은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 시로네, 에이미, 이루키…….

그들이 버텨 주기에 단테 일행을 보고서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마음에 안 들어……. 정말로…….”

싸움을 좋아하는 건 나이에 상관없기에 클래스 포의 학생들도 전투 서열에 관심을 갖는 건 마찬가지였다.

다만 클래스 포의 서열은 단테가 정리해 버렸기에 그들의 시선은 더욱 높은 곳에 있었다.

“에텔라 선생님이랑 시이나 선생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에이, 당연히 에텔라 선생님이지. 왕국에서도 알아주는 분이신데.”

“명성으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 에텔라 선생님이 트리플을 이뤘다고 하지만 시이나 선생님은 빙결의 권위자야. 실전에서는 한 가지만 판 사람이 최고라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드 선생님이지. 같은 6급이라면 빙결보다는 화염이 유리하잖아.”

귀를 막으려 해도 들리는 소리에 시로네가 나섰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모두 훌륭한 선생님들인데. 그런 분들이 서로 강하다고 싸울 리가 없잖아.”

학생들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보일이 무릎을 꿇은 이후 고급반의 무게 중심은 시로네에게서 단테로 넘어갔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시로네가 나서서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해 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근래에는 단테와 싸우고 싶지 않아 술수를 부린다는 얘기마저 돌았다.

“안전한 장소에서 싸우는 건데 이야기 좀 한다고 뭐가 어때서? 솔직히 너도 그렇잖아. 단테랑 싸우는 게 무서워서 대인 전투는 참가도 하지 않잖아.”

“무섭지 않아.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싸우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전술훈련이라면 몰라도 대인 전투는 성적과도 관련 없잖아.”

“쳇, 성적, 성적. 결국 너도 학교 안에서만 잘나가는 거지. 진짜 마법사라면 실전에서 강해야 한다고.”

더 말을 해봤자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시로네는 어깨를 으쓱했다.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동급생들은 도발조차 통하지 않자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쳇, 시로네도 별수 없네.”

“어쩌겠어. 왕국의 스타 앞에서는 시로네도 그냥 촌구석 스타지.”

시로네는 학생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추구하는 강함은 싸워서 제압하는 것과는 다른 경지에 있었다.

반면에 그것만이 의미인 학생도 있기 마련이었다. 대표적으로는 고급반의 서열 2위 판도라였다.

단테가 보일을 제압한 이후 그녀는 적극적으로 단테 일행을 따라다녔고 지금은 거의 그들의 수족이 되어 있었다.

“야, 판도라! 빨리 와! 목말라 죽겠단 말이야!”

사비나의 앙칼진 목소리에 판도라가 허겁지겁 물컵을 들고 뛰어왔다.

“미안해.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내가 마실 거라고 하고 따라오면 되지. 하여튼 융통성 없기는.”

“헤헤, 힘들지?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그럴래? 헤이스트로 너무 달렸더니 뻐근하네.”

판도라는 성심성의껏 사비나의 어깨를 주물렀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만 조만간 그들도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리라는 생각이었다.

단테 일행과 친해지면 단번에 왕국 최고의 유망주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 학교의 전교 2등에서 왕국 전체 4위로의 신분 상승. 해 볼 만한 도박이 아닌가?

클로저가 손부채로 땀을 식히며 말했다.

“어이, 판도라. 나도 목이 좀 마른데.”

“어? 알았어! 물 떠 가지고 올게.”

판도라는 곧장 간이 물통으로 달려갔다. 오늘따라 태양이 뜨거워서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단테의 위세로 새치기를 하면 편하지만 그런 짓은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진다. 그녀의 전공은 짜증을 부려서 앞사람이 물먹다가 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야, 너희 무슨 코끼리니? 적당히 마시고 비켜! 뒷사람 생각도 해야지.”

“자, 내 물 마셔.”

보일이 자신의 물컵을 내밀었다. 사비나는 불쾌한 듯이 바라보았으나 기다리는 클로저를 생각하면 못 받을 것도 없었다.

“흥, 고마워.”

사비나가 클로저에게 돌아가자 보일이 불렀다.

“잠깐 기다려. 설마 저 자식에게 가져다주려는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설마 단테에게 대결에서 졌다고 쟤들에게 앙심 품는 거야?”

“패배는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너 요즘 왜 그래? 단테와 친해져서 나쁠 건 없지만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왜, 벌써부터 불안하니? 나한테 추월당할까 봐?”

“그런 거 없어! 넌 어릴 때부터 내 라이벌이었잖아! 네가 이런 식으로 굽히고 들어가는 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아니지. 난 단테 라인에 들어갈 거야. 조만간 학술지에도 실릴 거고, 졸업하면 나를 스카우트해 가려고 난리가 날걸.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이미 패했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 하나도 설득력 없잖아?”

보일은 입을 다물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어떤 말도 판도라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을 터였다. 어쩔 수 없는 패배자의 숙명이었다.

“제길! 마음대로 해!

멀리서 지켜보는 시로네 일행은 보일의 마음을 이해했다.

고급반의 모든 교우 관계가 단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절대적 1인자에게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시로네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자신의 것을 거듭하다 보면 성공은 오게 마련이라는 생각이었다.

현재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타락시아를 조금이라도 빨리 구사할 수 있는 가였다. 그런 그에게 대인 전투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리프팅 훈련에 공을 들였고 마침내 타깃을 20초나 잡아 둘 수 있었다.

이쯤 되면 이것도 묘기였다. 남들은 1초도 버티지 못하는 정신 상태를 무려 20초나 유지하는 것이다.

“와, 역시 시로네야. 스피릿 존도 점점 커지고 있고. 어쩌니 해도 대단한 재능이야.”

“그래 봤자 언로커라서 그런 것뿐이잖아. 단테하고는 눈도 못 마주치는데 뭐.”

“솔직히 단테는 너무 강하잖아. 시로네의 입장도 이해가 돼.”

“어째서 시로네가 도망쳤다고 단정 짓는 거야? 시로네도 막상 경쟁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하다고. 게다가 아직 카니스도 있고 이루키도 남았잖아.”

“흥!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피하는 거야? 나에게 저런 실력이 있으면 분해서라도 당장 붙자고 할걸. 찌질하게 도망치니까 여자들도 단테에게 가잖아.”

## [240] 5. 매치포인트 (2)

“시로네가 너 같은 줄 알아, 인기 얻으려고 싸우게?”

“뭐야? 너 말 다 했어?”

학생들은 모이기만 하면 시로네 일행과 단테 일행을 저울질했다. 대부분 단테를 1인자로 두고 그 아래에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형태였다. 올리비아가 새로운 교장으로 부임하고 두 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네이드는 사방에서 들리는 잡음이 신경 쓰였다. 이천번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가르지도 않았던 것 같다. 어쨌거나 학업 성취도는 올라가고 있다니 교사진은 올리비아의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터였다.

“아우, 진짜! 확 그냥 우리도 전학을 가 버릴까 보다.”

네이드가 속에 없는 말을 내뱉었다. 여자들이 이쪽을 보고 수군거리다가 비웃음을 지으며 단테에게 달려갔다.

“됐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야.”

시로네는 담담하게 내뱉고는 다시 리프팅 훈련에 몰두했다.

네이드는 입맛을 다셨다. 학생 주제에 제왕처럼 군림하는 단테도 정상은 아니지만 겁쟁이란 소문이 퍼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시로네의 신경도 어지간히 굵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중간 평가가 있었다.

단테 일행이 1등부터 3등을 차지하는 바람에 클래스 포 전원의 등수가 밀렸다. 물론 서열은 그대로였다.

중간 평가를 기점으로 학생들은 시로네의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피드백이 없으니 가십을 퍼트리는 게 무의미했다.

판도라는 단테 일행에게 섞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으나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판도라는 사비나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말을 꺼냈다.

“저기, 사비나. 나도 실전에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전? 하긴, 너는 마법을 정석대로 구사하지. 그러지 말고 패시브를 익혀. 훨씬 쉬워져. 먼저 배운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학교는 이상하다니까.”

조언을 해 주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수고는 하고 싶지 않은 티가 났다.

몸이 달아오른 판도라는 아예 직접적으로 말을 꺼냈다.

“그러지 말고, 이천번에서 가르쳐 주면 안 될까?”

“호오? 지금 나에게 도전하는 거야?”

“아니,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도 패시브 스킬이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술 같은 것 좀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아서.”

클로저의 시선이 판도라의 가슴으로 향했다. 평소부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준다면 오히려 일이 쉬워지는 셈이었다.

“그래, 어쨌거나 판도라도 우리 일행인데 강해져서 나쁠 거 없잖아.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과외라도 시켜 줄까?”

판도라는 날듯이 기뻤다.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을 일행으로 봐준다는 게 좋았다.

“어머, 정말? 그래 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클로저의 속마음을 친구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

단테는 권력, 클로저는 여자, 사비나는 인기.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부상조하는 소꿉친구였으니 단테도 이번만큼은 클로저의 말에 따랐다.

“좋아. 간만에 몸이나 풀어 볼까? 이천번으로 들어가자.”

실습장의 구석에 자리를 잡은 단테 일행은 판도라를 세워두고 한 가지씩 조언을 건넸다.

남이 해주는 조언이 언제나 그렇듯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했다.

클로저가 은근슬쩍 판도라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자, 그럼 우리 3명이 포위 공격을 할 테니까 향기 마법으로 대처해 봐. 천천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어. 알았어.”

단테 일행은 기본적인 마법으로 판도라를 압박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유익한 수업이었으나 동급생들이 보기에는 똥개를 훈련시키는 듯한 모양새였다.

흥이 오른 사비나가 소리쳤다.

“호호! 제법이네? 도망치지만 말고 반격이라도 좀 해 봐. 우리가 심심하잖아.”

판도라는 그녀의 말에 따라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올리프의 꽃향기를 시전했다. 즉효는 아니지만 그만큼 상대가 방심하기 쉽기에 실전에서 자주 쓰였다.

그리고 사비나는 그 작전에 정확히 걸려들었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판도라가 회심의 향기인 파이어 플라워(제조사 알로네스)를 퍼트렸다.

올리프의 향기로 감각이 둔해진 사비나는 알면서도 소량을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

불을 빨아들인 것처럼 폐부에 열기가 확 퍼졌다. 싱크로율이 50퍼센트가 아니었다면 위험할 정도였다.

“컥! 컥!”

“사비나! 괜찮아?”

걱정스럽게 달려가던 판도라가 오싹함을 느끼고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비나가 냉기 어린 눈을 치켜뜨고 있었다.

“미, 미안.”

“괜찮아. 아주 잘했어. 이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사비나의 얼굴이 가식적인 웃음으로 변했다. 다른 학생들, 특히나 후배들 앞에서 얻어맞은 티를 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겁에 질린 판도라가 쩔쩔매며 말했다.

“저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됐어.”

“무슨 소리야? 벌써 이렇게 성장했는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이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테와 클로저가 달려들었다. 건방지게 일격을 날린 판도라에게 분노한 그들은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자, 판도라! 이것도 받아라!”

“호호호! 여기도 간다!”

세 사람이 작심하고 덤비자 판도라는 막아 낼 도리가 없었다. 결국 치명타에 가까운 안티매직이 스피릿 존을 흔들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단테 일행은 멈추지 않았다. 게이지가 최대한 느리게 줄어들도록 힘을 조절하여 무자비하게 마법을 쏟아부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급생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냐?”

“저건 가르쳐 주는 게 아냐. 그냥 구타잖아.”

판도라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쏟아지는 마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너무나 비참한 심정이라 그만두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라이벌이 모욕을 받는 모습에 보일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성격은 모났지만 판도라 또한 클래스 텐부터 노력하여 이 자리까지 온 아이였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판도라의 정신력이 바닥나면서 팔찌에 불이 들어왔다. 더 이상 마법을 가할 수 없기에 사비나는 공격을 멈추고 비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때? 도움이 좀 됐니?”

고개를 든 판도라의 눈망울에는 슬픔이 그득했다. 무슨 짓을 당했는지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다. 단테 일행마저 자신을 버리면 더 이상은 있을 곳이 없었다.

“응. 많이 배웠어. 고마워.”

“푸하하하하!”

클로저가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처음부터 촌스러운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순진할 줄은 몰랐다.

사비나는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최소한 파이어 플라워에 당했던 치욕만큼은 전해주어야 했다.

“이렇게 여러 번 당해 봐야 강해지는 거야. 알겠어?”

“응. 내가 너무 나약했던 것 같아. 다음에도 부탁할게.”

“그래? 그럼 얼른 꿇어.”

판도라는 절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사비나의 눈빛에서는 냉기만이 느껴졌다.

“뭐해? 졌으니까 무릎 꿇고 빌어. 벌써 룰을 잊은 거야?”

판도라는 참아 보려 했으나 터지는 울음을 막아 낼 수 없었다. 어깨가 부르르 떨리더니 눈물을 쏟아 내고 말았다.

“깔깔깔! 너 지금 우니? 설마 분했던 거야? 약한 주제에 가지가지 한다. 얘들아, 여기 봐라. 너희 선배님께서 질질 짜고 계신다!”

후배들이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다. 만약 자신이 저런 상황에 놓였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교사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특히나 사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으로 그들에게 걸어갔다.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을 터였다.

사드를 발견한 사비나는 위험수위를 넘었음을 깨달았다. 촌닭에게 당한 나머지 너무 흥분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바슈카에서 나름 잘나가는 학생이라면 징계 한두 번은 훈장이었다.

어쨌거나 상황이 이어져서 좋을 건 없었기에 사비나는 최대한 빠르게 사태를 무마시켰다.

“왜? 무릎은 차마 못 꿇겠어? 그럼 그냥 꺼져 버려. 다시는 눈도 마주치지 말자.”

“아니, 아니야.”

판도라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도 하기 전에 나온 행동이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이제 와 무릎을 꿇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다.

“내가 졌어. 그러니까…….”

판도라가 무릎을 구부리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사드의 걸음이 멈추고 보일의 눈이 커졌다.

“시로네? 어째서……?”

고개를 돌린 판도라는 자신을 위해 와준 사람이 시로네라는 사실에 의아했다. 여태까지 단테의 일에는 한 번도 끼어든 적이 없던 그였다.

시로네는 판도라를 지나쳐 단테에게 다가갔다. 예상보다 침묵이 길었으나 누구도 길게 느끼지 않았다. 최초의 충돌이었고, 여기까지 오는 데 세 달이 걸렸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단테는 코웃음을 쳤다. 시로네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 했더니 진부한 영웅 놀이였다.

“이런 짓이라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대인 전투 연습한 것밖에 더했나?”

“3명이서 판도라를 공격했잖아. 그것도 전의를 잃은 사람을.”

사비나가 입을 가리고 웃었다. 이 상황을 이용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 너 판도라 좋아했니?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차라리 잘됐네. 이 기회에 고백해…….”

“너한테 안 물어봤어. 단테랑 얘기 중이니까 빠져.”

시로네의 태무시에 사비나의 얼굴이 붉어졌으나 단테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번 일은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좋아. 심하게 한 건 인정할게. 하지만 판도라가 먼저 가르쳐 달라고 했고 우리는 응했을 뿐이야. 그게 상황의 전부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판도라에게 들으라고. 그럼 이만.”

단테가 돌아서자 판도라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덮어씌우고 빠져나가는 그들이 얄미웠으나 먼저 고개를 조아렸던 것은 사실이었다.

“헛소리하지 마. 네 주제에 누굴 가르칠 실력이나 되냐?”

단테의 걸음이 우뚝 멈춰 섰다.

도발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번 것은 확실히 파괴력이 컸다. 일부러 언어를 고른 것이라면 탁월한 조합이었다.

“방금…… 뭐라고?”

“착각하지 마. 동급생과 몇 번 싸워서 이겼다고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대인 전투라는 건 모두하고 싸워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야.”

“하하! 무슨 말인가 했더니 황당하군. 그렇기에 서열이 있고 전적이 있는 거야.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이곳에서도 고급반 1등을 끝장냈지.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네가 그렇게 자신 있냐? 그렇다면 나랑 한번 해볼래?”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돌아보았다. 여태까지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던 시로네가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진 사건이었다.

단테의 안색도 차분하지만은 않았다. 이런 식이면 시로네가 정의의 사도고 자신이 타도해야 할 악당이 되어 버리지 않는가? 챔피언에게는 챔피언을 위한 판이 깔려야 한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단테는 시로네의 생각대로 해 줄 마음이 없었다.

“생각해 봐. 여태까지 승부를 피한 건 너야. 그런데 이제 와 나랑 붙어 보자고? 나는 말이야, 붙고 싶으면 붙고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싸우기 싫은 사람이랑 억지로 싸우고 싶은 생각 없어. 대신에 다시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단테는 이런 점이 짜증 났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력,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왕좌의 자리를 시로네는 하찮게 여겼다.

“내가 누구를 괴롭혔다고 그래? 전부 자기들이 알아서 굽실대는 거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나를 막지 그랬어? 스스로 기회를 차 놓고 생떼를 쓰면 곤란하지.”

어쨌거나 올리비아의 특명을 받은 단테도 시로네는 저격 대상이었다. 잠시 궁리하던 그는 자존심도 세우고 시로네를 짓밟을 수도 있는 방안을 떠올렸다.

## [241] 5. 매치포인트 (3)

“좋아. 마지막으로 도전할 기회를 주지. 사비나와 클로저를 꺾고 올라와라. 나도 보일을 꺾었으니 불만은 없겠지? 만약 두 사람을 이길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상대해 주마.”

클로저와 사비나는 쾌재를 불렀다. 이것으로 단테를 위한 판이 깔렸다. 물론 그렇다고 시로네에게 져줄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시로네는 단테의 제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봐, 정신 차려. 너는 도전자의 입장이야. 나를 상대하려면 최소한…….”

“그냥 3명이서 동시에 다 덤벼. 빨리 해치우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미친……!”

단테 일행의 눈이 부릅뜨였다. 왕립 마법학교에서도 이런 모욕은 받아 본 적이 없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네이드가 혀를 내둘렀다.

“하여튼 말발은 죽인다니까. 나는 절대로 시로네랑 말싸움은 안 할 거야.”

“사람 열 받게 하는 재주는 탁월하잖아. 싫어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말한 이루키는 살벌한 현장 속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다. 여태까지 시로네가 나서지 않기에 참아 주고 있었던 것이지 무시당하고 즐거워하는 악취미는 아니었다.

“여어, 시로네. 이런 재밌는 일이라면 나도 껴 주라.”

단테는 불청객처럼 끼어든 이루키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시로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단체전으로 몰고 가려는 수작이 분명했다.

“이루키,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네 속셈 따위 뻔히 보인다고.”

“무슨 소리야? 이런 건 원래 내 전공이라고. 나도 한 번에 상대해 줄게. 한 사람당 1초씩 계산하면 딱 1초 걸리겠네.”

클로저가 코웃음을 쳤다.

“멍청아, 한 사람당 1초면 3초가 되어야…….”

그러다가 말의 진의를 깨닫고 인상을 찡그렸다.

“이것들이 진짜! 너희 미쳤어?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건방을 떠는 거야!”

“자신 있으면 한 사람씩 덤벼 보든가. 결론은 싸워서 이기면 그만인 거잖아. 누굴 꺾느니 어쨌느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 안 그래, 단테?”

“뭔가 오해하고 있군. 시로네의 진을 빼 놓기 위해 꺾고 올라오라는 게 아니야. 나에게 도전하고 싶으면 자격을 증명하라는 얘기다.”

“자격은 충분해. 시로네를 꺾는다면 더 이상 너에게 덤빌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루키는 이곳의 동태를 살피는 학생들을 가리켰다.

“알겠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를 꺾으면 너희가 최고다. 고급반을 장악한 거야. 또한 그것이 네가 누군가에게 받은 특명일 테고.”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왕립 마법학교에 몸을 담았던 이루키라면 올리비아의 전략을 알고 있을 터였다.

설령 모르더라도 자신들이 난폭하게 구는 이유에 그녀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직감하고 있으리라.

서로의 패가 드러난 이상 단테도 숨기지 않았다.

“좋아. 팀 배틀로 하자. 수업에 지장을 줄 수는 없으니 주말에 비공식 대결을 치르는 거야. 매주 한 사람씩 대결하고 2승을 먼저 올리면 끝나는 거지. 만약 너희가 2패를 먼저 하면 나랑 시로네는 싸울 필요조차 없이 내 승리다. 받아들이겠어?”

“좋아. 끝까지 구색을 맞추고 싶다면 그렇게 해. 어차피 난 이길 테니까. 네가 시로네와 승부를 피할 일도 생기지 않겠지.”

“흥, 말은 잘하는군. 그렇다면 너희 쪽도 1명을 추가해라. 누구라도 상관없다. 보일이라도 부르든지.”

“그러면 재미가 없지. 우리도 나름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

이루키가 고개를 돌렸다. 네이드는 황당한 표정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시로네를 돕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만 설마하니 배틀에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그렇다고 이제 와 거절하면 시로네의 기세가 꺾이니 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네이드가 걸어오자 단테는 고개를 갸웃했다.

“네이드? 그걸로 괜찮겠어?”

여태까지 지켜 본 결과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았고 실습 평가 때도 두각을 드러내는 장점 같은 게 없었다.

하지만 이루키는 라인이라는 말을 썼다. 시로네를 박살 내라는 특명을 받았으니 거기에 얽힌 모두를 짓밟을 수 있는 상황이 차라리 나았다.

전장에 도착한 네이드가 이루키에게 속삭였다.

“야, 너 무슨 생각이야? 그러다가 내가 지면 어떡해?”

“그냥 머릿수만 채워.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두 사람이 속닥이는 동안 단테는 교사들에게 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듣고 있었기에 따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었다.

“담판을 짓고 싶습니다. 주말에 이천번 실습장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이나가 대표로 말했다.

“우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검토해 보마. 돌아가서 기다리렴.”

학생들은 연습을 멈추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로네가 도전장을 던진 건 희대의 사건이지만 학교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결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천번 전담 교사가 모두 모이자 시이나가 말했다.

“결국 이렇게 됐군요. 한 번은 터질 일이었다고 해야 할 까요?”

사드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반대입니다. 학생의 잘못을 다른 학생이 심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판도라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공표하겠습니다.”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겨 있던 에텔라가 말했다.

“으음, 저도 사드 선생님의 말에 일정 부분은 동감해요. 하지만 심판이라는 표현은 과격한 것 같아요. 학생들 간의 자정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대결이에요. 학생들끼리 마법으로 싸워서 승부를 내는 방식은 뭔가 이상해요.”

“그렇더라도 보일과 단테는 이미 승부를 냈어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대결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 이천번을 개방하는 건 보충수업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시이나는 사드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로네에게 맡기고자 하는 에텔라의 마음도 이해했다. 알고 있는 것이다, 사드의 말이 학교에 통할 리가 없다는 것을.

“의견이 갈리니 이쯤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 우리가 거절한다면 단테는 올리비아 교장 선생님에게 건의할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나요?”

사드의 목에서 침음성이 새어 나왔다. 올리비아는 반드시 허락할 것이다. 이유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었다. 더군다나 알페아스는 무조건 그녀의 말에 따르라고 했다. 도대체 스승님은 무슨 생각으로 올리비아를 학교에 들인 것일까?

“교사는 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로네를 믿어 보자는 건가요? 도대체 왜요?”

“올리비아 교장 선생님이 단테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은 시로네를 믿고 있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이건 학생들 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에텔라가 말했다.

“저도 믿어 보고 싶어요. 제가 교사이자 수도사인 것처럼, 시로네도 비록 학생이지만 선을 추구하는 수도사의 정신을 지녔어요. 그 사실을 알기에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도 올리비아 교장 선생님에게 전권을 맡긴 게 아닐까요?”

사드는 생각에 잠겼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상한 일이었다. 스승님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왕국 최고의 교사인 제롬 올리비아를 초빙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사연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게 분명했다.

‘어떻게 제자보다 더 많이 사고를 치고 다닙니까, 스승님?’

사드는 한숨을 내쉬며 학생들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단테의 요청에 관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긴급회의를 실시한 결과 이천번 개방 및 비공식 대인 전투 훈련을 인정하겠다.”

학생들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다. 덕분에 상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는 사드의 말은 묻히고 말았다.

어차피 꺼낼 필요도 없는 말이겠지만.

“대박! 이건 대형 사건이다!”

“드디어 붙는구나! 시로네와 단테! 단테와 시로네! 우아아아!”

학생들이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방방 날뛰었다.

온갖 함성으로 아우성치는 곳에서 이루키가 한 사람씩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을 가리켰다.

“어이, 시로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싸운다고.”

“우아아아! 이루키! 들었어? 시로네랑 단테가 붙는대!”

“…….”

대결 소식은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학교 전체로 퍼졌다.

음지의 연구회에서는 벌써부터 두 사람의 정보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여 투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교사 회의실 또한 떠들썩했다. 전 교사진이 모여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토론을 이어 가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험합니다. 학생의 개인감정을 물리적인 충돌로 푼다는 것은 방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드의 말에 올리비아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싸우는 게 아니라 최고를 가리는 것이죠. 어차피 그들 모두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졸업반에 들어갈 아이들이에요. 경쟁의 심화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학교의 명예가……!”

올리비아가 1절만 하라는 듯 손을 들었다.

“시로네와 단테의 일전은 왕국 전체가 주목하는 사건일 거예요. 저 또한 직접 교사회에 건의해서 특파원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썰렁해졌다. 교사회의 감사인 그녀가 직접 특파원을 부른다. 그렇게 되면 알페아스 마법학교는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왕국의 스타인 단테를 앞세워 학술지에 실리게 되면 학교로서는 더 없는 특혜였다.

달콤한 환상들이 교사들의 머릿속을 몽롱하게 떠다녔다. 왕국 제1의 명문 알페아스 마법학교. 그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최고의 교사 아무개(바로 나).

반면에 사드는 기분이 나빴다. 학교의 명성이 높아지는 건 언제나 찬성이지만 교사들의 입막음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올리비아 교장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드, 그대로 진행해도 좋다.”

“네, 그대로 진행…… 응?”

얼굴이 빨개진 사드가 고개를 돌렸다.

알페아스가 뒷문에 서 있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올리비아도 이번만큼은 축객령을 내리지 않았다.

“역시 알페아스 씨는 선견지명이 있으시군요. 학교에 엄청난 메리트가 되는 사건인데 이걸 내버려 둔다면 어리석은 거지요.”

“여부가 있겠소? 덕분에 나도 말년에 유명세를 타겠군요. 하하하하!”

“대결이 끝나면 단테의 승리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갈 거예요. 시로네라는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을 텐데, 혼자 신이 나 계시니 불쌍한 기분도 드네요.”

“껄껄! 두 아이 모두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다니니 알페아스의 제자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나 또한 최고는 가려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올리비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치는 게 얄미워 죽을 지경이었다.

이번만큼은 알페아스의 눈빛도 난폭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두 교사가 경력의 마침표를 찍을 제자를 얻었으니 수십 년 교육철학의 충돌이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비공식 대결의 안건이 정식 절차를 밟아 승인되었다.

6. 마법 격돌 (1)

학생들은 돌아오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다.

알페아스 마법학교에서 근 10년 동안 이토록 화젯거리를 만들어 내는 사건은 처음이었다.

시로네와 단태의 대결이 있는 날에는 교사회에서 특파원까지 파견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남학생들은 기상천외한 장난을 쳐서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자는 우스갯소리를 나누었고 여학생들은 입을 옷을 걱정했다.

이루키와 네이드는 연구회로 향했다. 짧은 거리를 걷는 와중에도 진짜와 가짜를 선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렸지만 정작 자신들의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까 김새는데. 우리는 곁다리야?”

“그래도 기록관은 온다잖아. 저기…… 아무래도 내가 먼저 하는 게 좋겠지?”

네이드는 매치가 승인된 날부터 걱정이 많았다.

클로저가 이루키를 벼르고 있으니 아마도 자신의 상대는 빅터 사비나가 될 터였다.

헤이스트로 가속하면서 사방에 윈드 커터를 뿌려 대는 어마무시한 여자.

졸업반을 제외하면 전국 톱 20에 들 수 있는 실력자였으니 상성을 떠나서 힘든 싸움이 될 게 분명했다.

## [242] 6. 마법 격돌 (2)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기껏 끼워 줬더니 앓는 소리나 하고.”

“그럼 어떡해! 내가 지면 시로네가 얼마나 분하겠어! 도대체 왜 나를 지목한 거야? 너도 알고 있잖아. 나는……!”

“차라리 지는 게 낫지. 도망치는 것보다는 말이야.”

네이드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이루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차피 너랑 나 둘 중에 1승만 챙기면 돼. 지금 분위기 보면 몰라? 우리는 시로네를 단테의 앞까지 데려다주는 말의 역할이라고. 그건 중요한 일이지. 우리 멤버가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로 시킬 수 없는 일이야.”

“이루키…….”

네이드의 얼굴이 감동에 젖어 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네가 진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몇 가지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길 확률이 있으니까 너를 선택한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해.”

이루키의 말이 옳았다. 승부에서 이기든 지든 시로네가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를 적에게 데려다주는 것은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었다.

먼 훗날 도망쳤다는 기억은 갖고 싶지 않기에, 또한 시로네의 친구로 당당할 수 있기 위해 모험을 걸어야 할 때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까짓것!”

@

첫 번째 매치가 치러지는 주말이 돌아왔다.

네이드와 사비나의 대결은 크게 이슈는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벌써부터 이천번 수련장에 도착해 있었다.

시로네와 단테의 대결이 성사되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대결이라 비중은 결코 낮지 않았고 팀의 색깔도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전 포인트가 많았다.

에이미가 이천번 실습장에 도착했을 때는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차 있었다.

“에이미! 여기야!”

세리엘이 임시로 설치한 관람석의 1열에서 손을 흔들었다. 자신도 나름 빨리 온다고 왔기에 일찍 도착한 그녀의 열성에 기가 찼다. 옆자리에는 마크와 마리아도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마크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인사하고 마리아가 얌전하게 고개를 숙였다. 에이미는 무덤덤하게 인사를 받아주고는 세리엘의 옆자리에 앉았다.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아주 한가한가 봐?”

“헤헤! 사실은 마크에게 특별 지령을 내려 뒀었거든. 나도 온 지는 얼마 안 됐어. 그래도 이런 이벤트를 멀리서 구경할 수는 없잖아. 특히나 시로네에게 중요한 경기인데.”

“중요하기는 무슨. 하여튼 알게 모르게 사고 많이 친다니까.”

에이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마음까지 태연한 건 아니었다. 에어하인 단테는 천재로 주목받던 그녀조차 귀에 딱지가 생길만큼 들어 왔던 이름이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마법사 지망생들을 누르고 명실공히 왕국 서열 1위에 오른 소년. 여태까지 시로네가 넘은 장벽과는 차원이 달랐다.

시로네도 천국에서 실력이 일취월장했으나 단테가 구사하는 정보 마법은 프로들도 쉽게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시작한다! 시작합니다, 선배님!”

마크의 목소리에 에이미는 이천번을 살폈다.

네이드와 사비나가 실습장에 들어가 있었고 시로네는 이루키와 함께 사이드 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심판은 이천번 전담 교사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사드 선생님이었다.

네이드와 사비나를 중앙으로 불러들인 사드가 경기 규칙을 설명했다.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할 시에는 심판 재량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네이드와 사비나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처럼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눈싸움을 벌였다.

10분 전만 해도 끙끙 앓던 네이드였지만 마음의 준비를 끝냈는지 차분한 표정이었다.

클로저가 네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녀석, 어쩌면 복병일지도 몰라. 첫날에 내 주먹을 피했을 때도 싸움에 익숙한 놈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

“아니, 그보다는…….”

단테는 클로저의 말을 부정하듯 고개를 저었으나 뒷말은 끝내 만들어 낼 수 없었다.

단순히 싸움에 익숙하다고 하기에는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굳이 비슷한 유형을 뽑자면 카니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니었다.

“어찌 됐든 이번 대결에서 밝혀지겠지. 어떤 상대라고 해도 사비나가 이길 테니까.”

설명을 끝낸 사드는 네이드와 사비나에게 지정된 위치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내렸다.

시작 지점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 정했는데 각각 30미터씩 도합 60미터였다.

스피릿 존은 닿지 못하지만 수열식을 통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다.

“그럼 이제부터 네이드와 사비나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드가 시작 신호를 주기 위해 팔을 들자 웅성거리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잦아들었다.

이천번 대인 전투를 경험한 졸업반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된다고 말한다.

전진과 후진, 공격과 방어 등 스피릿 존을 초반에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대결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방식의 네 가지 형태는 기본이고 갖은 변칙적인 형태들이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결의 초석이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시작!”

네이드와 사비나는 똑같은 생각을 했다.

전진, 공격, 선제타격이었다.

수열식의 대결은 호각이었다. 두 사람의 스피릿 존이 중첩되면서 일렉트릭 볼트와 윈드 커터가 교차했다.

속도면에서는 광자를 제외하고 전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원소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전하에 민감한 전기력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결국 윈드 커터가 먼저 네이드의 팔을 베고 지나갔다. 그의 스피릿 존이 흔들리는 순간의 틈을 노리고 사비나는 헤이스트를 자신의 몸에 걸었다.

지그재그로 질주하는 사비나의 모습을 시선으로 쫓을 수 있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았다. 사람 크기의 물체가 고양이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트릭이 있는 마술 쇼를 보는 듯했다.

네이드의 배후를 선점한 사비나가 수도를 휘두르자 칼날 바람이 네이드의 목을 자르고 지나갔다.

‘먹힘 판정? 끝인가?’

사비나가 생각하는 순간 팔을 통해 미약한 전기가 흘렀다. 네이드의 장기인 이미지 카피 마법이었다. 시선을 돌렸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의 네이드가 주위를 장악하고 있었다.

“흥! 잔기술은 제법이네!”

일일이 확인하다가는 시간이 지체되고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다. 사비나는 곧바로 집중력을 끌어올려 고등기술인 커팅 플라워를 전개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모으고 회전하자 사방으로 윈드 커터가 퍼져나갔다.

네이드의 환영 중의 하나가 급하게 몸을 날렸다. 커팅 플라워의 반경 밖으로 빠져나온 네이드는 사비나를 바라보며 질린 표정을 지었다.

장거리 윈드 커터를 초당 마흔 발 이상 쐈다. 확실히 고급반을 초월한 수준이었다.

에어 마법은 공기를 압축시키는 프레스 계열과 공기를 휘두르는 블로 계열로 나누어진다. 그의 생각에 사비나는 블로 계열을 전문으로 하는 마법사가 아닌가 싶었다.

‘역시 기본 모드로는 안 되나?’

네이드가 정신을 집중하자 주위에 청색의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전자기 볼트가 구름에서 퐁퐁 튀어나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돌아다녔다.

“플라즈마?”

사비나는 황급히 접근을 멈췄다. 아무리 그녀라도 플라즈마 앞에서는 허튼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와, 저게 플라즈마구나. 저 자식, 저번에도 요행이 아니었나 보네.”

“바보냐? 요행으로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실제의 플라즈마는 초고온에서 발생하지만 현상을 구현하는 마법에서는 전지의 영역이기에 온도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전기 마법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였다.

플라즈마는 전기가 구름처럼 퍼져서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물에서는 물고기가 왕이듯이 전기 구름 안에서는 전기 마법사가 왕이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볼트 마법의 단점은 플라즈마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볼트의 궤적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 환경자체가 전기이기 때문에 마법에 들어가는 정신력의 소모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패시브 스킬이었다.

전기 마법사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능력.

하지만 극한의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전지를 이해하는 건 프로들조차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사비나는 전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긴장했다. 전기 마법사가 플라즈마를 깔았다면 실력 차가 크게 나지 않는 이상 접근을 자제하라는 게 전투 교범의 조언이었다.

“그렇다면…….”

사비나는 전술을 바꿨다. 플라즈마의 영역으로 침투하지 않고 네이드를 공격하는 방법은 외부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켜 통째로 쓸어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토네이도를 시전하자 10미터 높이의 소용돌이 여러 개가 춤을 추며 돌아다녔다.

네이드는 이미지 카피로 시선을 교란하면서 어떻게든 거리를 좁히려고 했다.

일렉트릭 쇼크 한 방이면 된다. 1초만 스턴 상태에 빠뜨리면 플라즈마의 영역에서 시전하는 초고속 전기 폭격에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사비나는 헤이스트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빈틈을 주지 않고 이천번을 자유로이 돌아다녔다.

플라즈마의 영역이 확장되어가는 만큼 소용돌이의 개수도 늘어났다. 사비나가 승부를 걸기로 작심한 듯 30개의 토네이도를 하나씩 합치기 시작했다. 숫자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었으나 크기는 4배 이상 커졌다.

이대로 토네이도가 전부 합쳐진다면 이천번 위에서 피할 곳은 없다. 네이드는 무언가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고 판단하고 플라즈마의 전기력을 통해 지각을 조사했다.

32퍼센트 정도가 금속이었다.

물론 이천번의 정보로 구현된 환경에 불과하지만 전도체라면 무엇이든 플라즈마로 통제할 수 있었다.

‘다른 직종의 기술이라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것저것 가리고 따질 때가 아니었다. 자신이 패하면 시로네의 대결을 성사시켜야 하는 부담은 오로지 남아 있는 이루키가 지게 된다.

네이드는 플라즈마로 자기장을 발생시켰다. 암석에 섞여 있는 대략 금속 가루들이 지면을 뚫고 솟구쳤다. 자기장 폭풍을 일으키자 금속 토네이도가 즉석에서 생겨났다.

사비나는 식겁했다. 크기는 자신의 토네이도에 비해 1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대략 3톤에 가까운 질량이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면 파괴력만큼은 호각이었다.

‘아니. 내 비장의 무기는 아무도 깰 수 없어!’

사비나는 이를 악물고 15개의 토네이도를 합쳤다. 회전융합은 굉장한 고급기술이지만 그녀는 불과 2분 만에 30개의 토네이도를 합치는 데 성공했다.

가히 태풍이라고 부를 만큼 거대한 회오리가 일어섰다. 그 태풍의 눈을 향해 네이드의 금속 토네이도가 돌진했다.

이것이 마지막 공격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학생들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2개의 토네이도가 이천번의 중앙에서 충돌했다.

질량과 크기의 대결이었다. 강철 토네이도가 거대 토네이도의 내부에서 마음대로 춤을 추면서 기류를 난도질했다.

사비나의 팔찌에서 안티매직이 작동하면서 빠른 속도로 게이지가 줄어들었다.

네이드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사비나의 토네이도를 흐트러뜨리고 있지만 체급의 차이가 너무 심했다.

“크으윽!”

자기력보다 강한 풍압이 금속의 밀집상태를 천천히 해체시키면서 속도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서로 상쇄되어가는 회전속도의 어느 지점에서 두 개의 힘이 정확히 맞물렸다.

사비나의 토네이도가 난기류로 변해 흩어졌다. 굉음이 터지면서 강풍이 이천번 바깥으로 퍼져나갔다. 사이드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풍압을 이겨 내지 못하고 밀려났다.

학생들은 공간을 장악한 먼지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렸다. 어떤 먼지는 위로 올라가고 어떤 먼지는 내려앉으면서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사비나는 구부정한 자세로 숨을 헐떡였고 네이드는 아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었다.

사드는 마스터 팔찌를 통해 두 사람의 게이지를 확인했다.

둘 다 정신력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누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경탄한 대상은 사비나가 아닌 네이드였다. 고급반의 중위권에 불과한 그가 전국에서 노는 사비나를 이 정도로 밀어붙일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이거 모르겠는데? 어쩌면 사비나가 질 수도…….’

사비나는 숨을 헐떡이며 걸어갔다. 예상치도 못했던 무명의 학생과 호각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 [243] 6. 마법 격돌 (3)

“가만두지 않겠어!”

사비나는 헤이스트를 시전할 여력도 없이 돌진했다. 어차피 상대도 플라즈마를 시전할 상태가 아닐 터였다.

그 순간 네이드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내가 졌다.”

갑작스러운 항복 선언에 네이드의 목을 공격하려던 사비나가 황급히 돌진을 멈췄다.

마음 같아서는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싶었지만 항복 선언을 한 뒤에 공격하면 실격이었다.

막상 이렇게 되자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왠지 모르게 찜찜했다. 하지만 네이드가 마지막 충돌에서 모든 힘을 써 버렸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흥, 운이 좋았네. 무릎 꿇고 정식으로 패배를 시인해.”

네이드는 곧바로 약속을 지켰다.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기에 입만 움직이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 내가 졌다.”

사비나의 인상이 구겨졌다. 이런 룰을 정한 이유는 패배감에 잠긴 비참한 모습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네이드에게서는 그런 독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너, 남자 맞니? 여자한테 졌는데 그렇게 순순히 무릎을 꿇을 수 있어?”

“졌으니까 졌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되게 쪽팔리거든?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네이드는 정말로 패배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차라리 승부를 부정하듯 웃기라도 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을 것 같았다.

사드는 멀어지는 네이드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다.

‘조금 더 해 보지. 사비나도 거의 바닥이었는데. 그래도 잘했다, 네이드.’

예상보다 대결이 빨리 끝났다. 클래스 포의 학생이라면 강한 파괴력을 내는 마법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다.

실전에서는 캐스팅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번 대결은 상성도 잘 맞물렸고 수준도 비슷해서 힘과 힘의 대결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다.

친구들에게 도착한 네이드가 주체할 수 없는 미안함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다.

“시로네, 이루키! 미안해! 져 버렸어! 진짜, 미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팀으로 싸우는 건데. 나도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루키가 한마디를 보탰다.

“너치고는 잘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발전했잖아.”

솔직히 네이드가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앵무 도적단의 루카스와 싸울 당시에는 아예 포기해버리더니 그래도 근래 들어서는 조금이나마 통제가 되는 모양이었다.

“먼저 숙소에 들어가서 쉴게. 그래도 되지?”

“그래. 지쳤을 텐데 일찍 들어가.”

시로네도 그것까지는 말리지 못했다.

그렇게 네이드는 학생들의 인파에 섞여 실습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숙소가 아닌 외진 공원이었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자 비로소 속마음이 터져 나왔다.

“아우! 제길! 이 멍청이!”

시로네의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사비나는 정말로 강했고 거기서 더 대결이 진행되었다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아직까지 그에게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필요했다.

“호호호! 여기 있었네? 태연한 척하더니 창피해서 죽고 싶은 모양이지?”

네이드는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뒤를 쫓은 사비나가 서 있었다.

“아직도 나한테 볼일이 남았냐? 대결은 끝났잖아.”

“아니, 나는 좀 남은 거 같아서 말이야. 솔직히 불쾌하거든.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가 제대로 승복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팍팍 들어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더 이상 뭘 어쩌란 말이야?”

“그걸 잘 모르겠거든. 여기서 다시 한 번 꿇어 볼래?”

네이드는 사비나의 억지를 받아 줄 여유가 없었다. 시로네에게 미안할 뿐이었고, 친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냥 알아서 생각해라. 네가 나보다 세다고 소문내고 다녀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둬. 난 간다.”

네이드가 숙소로 몸을 돌리는 순간 사비나가 말했다.

“내가 좀 알아보니까, 웨스트 가문 꽤나 유명하더라?”

네이드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막장도 그런 개막장이 없던데. 보아하니까 가주는 백수 도박꾼에 안주인은 사교계에서 왕따라며?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치나 하고 다니는 걸로 소문이 자자……!”

우르릉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기도가 막힌 사비나는 세상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걸 보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깊은 숲 속에서 나무둥치에 처박혀 있는 상태였다.

사비나의 목을 움켜쥔 네이드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다시 말해 봐.”

“컥! 커억!”

네이드의 얼굴을 시선에 담은 사비나는 공포에 질렸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악인도, 사이코패스 살인마도 아닌 그냥 괴물이었다.

‘여기서 죽는구나…….’

가정이 아닌 확신이었다. 차라리 살인자에게 붙잡혔다면 모를까, 짐승에게 물린 상황에서 자비를 기대하는 멍청한 인간은 세상에 없으니까.

“살고 싶어?”

사비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이 점차 흐려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실금해버렸다.

“목뼈를 부러뜨려 줄까? 아니면 피를 말려줄까?”

사비나는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다. 머리와 몸의 연결이 끊어진 듯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였다.

“흐으으응! 흐응!”

네이드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손에 전류를 모았다. 이대로 피를 증발시켜 버릴 생각이었다.

손아귀에 전력이 집중되는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네이드의 짐승을 부드럽게 다독였다.

‘네이드,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지 않니?’

네이드의 눈은 금방이라도 피눈물이 쏟아질 듯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점차 동공에 인간미가 돌아오더니 사비나의 목을 놓아주고 천천히 물러섰다.

“컥! 커억!”

사비나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토해냈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허파는 미친 듯이 산소를 빨아들였다.

“네가 이겼고, 내가 패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그것뿐이야. 알았어?”

사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이드의 입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네이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숲을 빠져나왔다. 입구를 나가기 직전 그의 걸음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름드리나무를 돌아보았다.

‘히익! 어떡하지? 들킨 건가?’

나무 뒤에 숨어있는 판도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비나에게 앙갚음을 하려다가 공교롭게도 봐서는 안 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말았다.

네이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판도라, 복수는 내가 했으니 너는 돌아가라.”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상황을 크게 키우지 말라는 경고였다. 나무에 가려서 볼 수도 없겠지만 판도라는 입을 가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이드는 비참한 심정으로 공원을 벗어났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다. 시원하게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건만 하늘은 자신의 마음처럼 그저 우중충할 뿐이었다.

“이루키, 나는 절대로 마법사가 되지 않을 거다.”

@

두 번째 대결이 치러지는 주말이 돌아왔다.

네이드와 사비나의 대결이 흥행하면서 저번 주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다. 특히나 이루키가 패하면 세 번째 대결이 무산되기 때문에 저번 주보다 더 치열한 전투가 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애들 싸움에 관심 없다던 교사들마저 뻘쭘하게 웃으며 자리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심판을 맡은 에텔라가 점검 사항을 확인하는 동안 시로네와 단테 일행은 사이드에서 대기했다.

사비나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숲에서 당한 린치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잊혀지지 않았다. 아니, 그러기는커녕 점점 심해져서 요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출전 시간이 가까워지자 클로저가 몸을 풀었다. 마법사답지 않은 고난이도의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킨 그가 제자리 뛰기를 하며 단테를 돌아보았다.

“내가 끝낼게. 굳이 너까지 나설 필요는 없잖아?”

팀 대결에서 2승을 먼저 올리면 끝나는 규칙이었다. 하지만 올리비아가 주관하는 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임을 단테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대결은 무산되지 않을 거야.”

“뭐? 어째서?”

“스승님은 시로네를 짓밟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이미 교사회에 특파원 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야. 학교 측에서도 이런 이벤트가 무산되는 걸 원치 않을 테고.”

“그렇군. 결국 내가 이겨도 너랑 시로네는 싸운다는 거네?”

“하지만 판이 다르지. 우리가 2승을 가져간다면 시로네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게 최고일 거야.”

“크크크. 좋아, 너에게 최고의 판을 깔아 주지.”

에텔라가 중앙으로 오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루키와 클로저가 걸음을 옮겼다. 규칙 설명이 끝나자 클로저는 큰 키를 과시하듯 이루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안티매직이 들어오면 콧잔등이 시큰한 기분이 들지. 하지만 나랑 싸울 때는 안티매직 정도가 아니야. 혹시 코뼈 부러져 본 적 있냐? 주먹으로 맞아서 말이야.”

이루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굉장히 아프지. 아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코뼈를 오크처럼 주저앉힐 거야. 그만두라고 소리쳐도 계속 두들겨 팰 거라고. 그래도 되지?”

클로저의 입꼬리가 사악하게 올라갔다.

“왜 말이 없어? 무섭냐?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경기는 시작됐고 너는 엄청나게 얻어터지게 될 거거든. 10분 후면 코에서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를 거야. 이빨도 몇 개 부러지겠지.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지겠군.”

에텔라가 끼어들었다.

“대결 전에 잡다한 말은 삼가세요. 두 사람 모두 지정된 위치로 가세요.”

이루키에게 큼직한 주먹을 흔들어 보인 클로저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대결 전에 숙지한 정보를 토대로 전략을 짰다.

이루키의 주특기는 이탈형의 빠른 타기팅과 도달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화점폭발이었다. 무엇보다 수열식에 강한 서번트 능력자이니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했다.

클로저는 이루키와 6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초반 대응을 정했다. 자신의 장기 또한 공격이 아닌 방어에 있으니 정석대로 진행하면 문제없을 것이다.

“경기 시작!”

에텔라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클로저의 주위에 다연발 폭발이 일어났다. 두 팔로 얼굴을 가린 클로저의 눈에 놀람이 담겼다. 시작과 동시에 폭발. 이탈형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가 줄어든다. 그런데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60미터를 날아왔다는 것은 가히 최상급의 수열식이었다.

시로네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스피드 건 시험에서 이미 느꼈지만 로그를 이용한 수열식의 위력은 대단했다.

실제로 이루키의 스피드 건 점수는 이모탈 펑션을 개방한 시로네를 제외하고 마법학교 역사상 최고였다.

학생들은 클로저의 거구가 불꽃에 파묻히는 광경에 넋을 잃었다. 아무리 싱크로율이 50퍼센트라도 연타에 당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마침내 폭발이 걷히면서 클로저의 모습이 드러났다. 전신을 보호하던 토벽이 후두두 떨어지면서 여유롭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등장했다.

“크크, 이게 끝이냐? 모기에 물린 것처럼 간지럽군.”

패시브 스킬 어스라이즈로 신체를 강화하고 흙의 방어벽으로 몸을 보호하는 어스 스킨까지 시전했다. 어지간한 폭발로는 충격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순간 이동으로 거리를 좁힌 클로저는 이루키와 반대로 근접전으로 대결을 몰고 갔다.

“록앤드롤!”

클로저가 흙을 퍼 올리듯 손을 휘두르자 땅이 출렁이더니 지면이 돌돌 말리기 시작했다.

직경 3미터까지 커진 바위가 이루키가 서 있던 자리를 깔아뭉개고 지나갔다.

이루키는 순간 이동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두 발이 땅에 닿는 순간 함정이라도 파 놓은 듯 지면이 무너졌다.

“크크크! 이걸로 끝이다!”

대지 마법의 상징인 어스퀘이크로 이루키의 움직임을 봉쇄한 클로저는 이럽션 마법을 연계했다. 대지를 압축시켜서 발생한 마찰열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다. 이루키가 빠진 구덩이에서 5톤에 가까운 토사가 솟구쳤다.

이루키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날아올랐다. 머릿속에서는 기폭 방정식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 [244] 6. 마법 격돌 (4)

기폭 마법의 단점이라면 전지가 직관적이지 않아 폭발력에 따라 캐스팅의 시간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1킬로버스터는 짐마차 한 대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을 말하는데 공인 10급의 마법사가 1킬로버스터를 캐스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1초였다.

하지만 서번트인 이루키는 3초면 전지를 끝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10초 이상의 시간을 들여 끌어 올리는 위력은 무려 10킬로버스터에 달했다.

클로저는 이루키의 마법이 침묵을 지킨다는 점에서 이번 폭발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전체를 방어하려다가는 오히려 치명상을 입을 공산이 컸다.

타격 지점을 예측한 클로저는 어스 스킨을 왼쪽에 집중시켰다. 마치 시간을 빠르게 돌리는 것처럼 흙이 쌓이면서 단단한 토벽을 형성했다.

동시에 이루키의 아토믹 봄이 작렬했다.

밀림 판정이 없기에 클로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스 스킨은 흔적조차 없이 날아갔다.

“푸우!”

클로저는 거칠게 숨을 내뱉었다. 충격은 상쇄했지만 어스 스킨을 날려버린 위력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이쯤 되자 이루키도 심각해졌다. 10킬로버스터의 폭발까지 완벽하게 막아 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단단한 마법사였다.

‘할 수 없이 해야 하나.’

이루키는 정신을 두 개로 나누어 스피릿 존을 하나 더 운용했다. 2개의 스피릿 존이 공감각으로 침투하는 순간 클로저의 눈이 커졌다.

마치 2명의 마법사하고 싸우는 기분이었다.

‘젠장. 이거 반칙 아냐?’

이제부터는 클로저도 즐길 수가 없었다. 조금 전에 막았던 10킬로버스터짜리 아토믹 봄이 양쪽에서 날아온다면 방어는 불가능했다.

“그 전에 끝내 주지!”

헤비 스톤을 시전하자 허공에서 엄청난 속도로 흙이 뭉치더니 무려 1톤에 육박하는 바윗덩어리가 이루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단순히 흙을 연성(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연금술 용어)하는 것뿐이지만 높은 곳에서 실행될 경우 위치에너지만으로 압사시킬 수 있는 중력 무기였다.

쿵! 쿵! 쿵! 쿵! 쿵!

이루키가 이동하는 곳은 어디에서건 바위가 추락했다.

연성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도달시간까지 계산하면 대인전투에서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렇군. 오히려 그걸 노리는 건가?’

이루키는 클로저의 의중을 간파했다. 지상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다른 마법과 연계하여 시간 차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예상대로 클로저는 넓은 범위에 헤비 스톤을 시전했다.

허공에서 여러 개의 바위가 만들어지는 동안 능숙한 솜씨로 헤비 스톤의 전지를 이탈시키고 새로운 전지를 장착했다.

슬러그 마법을 시전하자 주위의 돌멩이들이 둥실 떠오르면서 탄환처럼 쏘아졌다.

“이건 어떠냐!”

하늘에서는 낙석이, 전방에서는 돌멩이들이 산탄처럼 퍼져서 날아들었다.

“쳇! 이것까지 쓰기는 싫었는데.”

이루키는 스피릿 존 하나를 수비형으로 바꾸고 방어 마법을 시전했다.

스피릿 존의 표면을 따라 깨알처럼 작은 10그램버스터짜리 폭탄 수백 개가 구체의 형상으로 퍼졌다. 그러자 쇄도하는 돌멩이들이 폭탄에 충돌해 소형 불꽃을 일으켰다.

학생들은 공방의 경계지점에서 수없이 많은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기폭 마법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봄블렛 배리어였다.

초소형 폭탄 수백 개를 주위에 띄워서 접근하는 물체가 마법사에게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기술로 얼마나 많은 소형폭탄을 스피릿 존에 구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루키는 총 387개의 소형 폭탄을 동일한 시간대에 구현시킬 수 있는 경지였다.

개수만 놓고 보면 프로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실력이지만 이루키는 봄블렛 배리어를 펼치고도 수세에 몰렸다.

이탈형이 너무 뛰어난 것도 문제였다. 이루키의 고등 기술은 대부분 이탈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봄블렛 배리어는 수비형의 스피릿 존으로 구사할 때 극대의 효과를 낸다.

한마디로 쌍검을 다루는 공격지향적인 검사가 한 자루의 검을 포기하고 방패를 든 셈이었다.

물론 더블 스피릿 존의 이루키였기에 그나마 한 자루의 검이라도 쥘 수 있는 거지만 이탈형 2개를 동시에 운용하지 않으면 대지 마법의 방어를 뚫을 수가 없었다.

“크크크! 이걸로 끝내주마!”

클로저가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봄블렛 배리어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어스 스킨의 방어력을 믿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소형 폭탄의 장막을 뚫고 들어오자 이루키는 아토믹 봄을 빠른 리듬으로 폭발시켰다.

10그램버스터의 폭발이 미친 듯이 가드 위를 두들기자 이번에는 클로저도 안면을 구겼다. 하지만 돌진을 멈추기는커녕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스 스킨이 박살나는 순간 주먹을 들어 이루키의 얼굴을 후려쳤다.

이루키의 눈동자가 핑 하고 돌더니 나가떨어졌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이천번 대인 전투에서, 그것도 마법사가 주먹으로 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저, 저래도 되나? 주먹으로 때렸잖아.”

“모르겠는데. 대결이니까 상관없지 않나? 몸을 쓰면 안 된다는 규칙은 없잖아.”

학생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심판에게 꽂혔다. 에텔라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일단 마스터 팔찌로 상태를 보았을 때 조금 전의 일격은 대단한 효과였다.

여태까지 이루키의 게이지는 분당 1퍼센트씩 줄어들고 있었다. 모래시계처럼 감소율이 일정하다는 건 그만큼 운용을 잘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클로저의 주먹에 맞는 순간 반 토막이 나 버렸다. 물리 공격에 약한 마법사의 단점이었다.

결정을 내린 에텔라는 인정한다는 뜻으로 물러섰다.

대지 마법의 특성상 육체적 충돌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전술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크크크, 내가 말했잖아? 힌트를 줬는데도 받아먹지를 못하니, 천재라는 말도 허명이군.”

클로저는 일어서려는 이루키의 허리를 발길질로 떠밀었다. 이루키의 몸이 뒹굴 굴러 바닥에 엎드렸다.

거구의 마크조차 일격에 쓰러뜨렸던 공격이었으니 더블 스피릿 존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클로저는 만약을 대비해 전신에 어스 스킨을 두른 상태로 다가갔다.

“슬슬 개조에 들어가 보실까? 일단 몸부터 다져 놓고.”

클로저가 발을 들어 작신작신 몸을 밟아 댔다. 이루키는 얼굴을 가리고 웅크린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야, 아프냐? 아파? 얼굴은 끝까지 안 보여 주네? 원래부터 못생겼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

“저 자식……! 죽여 버린다.”

네이드가 주먹을 움켜쥐고 부들거렸다. 그럼에도 달려들지 않고 있는 건 이루키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였다.

“시로네, 너는 물러서 있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싸울 거라면 같이 싸워야지. 하지만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루키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네이드는 이루키를 유심히 살폈다. 가려진 팔 사이로 웃고 있는 이루키의 얼굴이 보였다. 봄블렛 배리어까지 격파당한 지금 시도할 수 있는 건 없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얻어터지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일까?

“의외로 질기네. 야, 좀 돌아봐라.”

클로저의 발길질에 밀린 이루키는 대자로 돌아누웠다. 겁에 질려있으리라는 예상과 다르게 홀가분한 얼굴이었다.

“이 자식이 끝까지 기분 더럽게 만드네. 이번엔 진짜로 콧대를 주저앉혀 주마.”

불쾌해진 클로저는 다리를 들어 이루키의 얼굴을 겨냥했다. 한 방이면 콧대가 부러질 터였다.

“킥킥! 킥킥킥!”

괴상한 목소리만큼이나 이상하게 웃은 이루키가 허리를 활처럼 휘더니 머리로 땅을 받치고 시로네를 바라보았다.

“시로네, 미안하다. 너에게 쓰려고 아껴 뒀던 건데.”

학생들은 말을 잃었다. 이루키의 기괴한 행동이 또 다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이 자식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클로저가 벼락처럼 발을 내리 꽂는 순간 이루키의 입가가 길게 찢어졌다.

“재밌는 걸 보여 줄게, 시로네.”

쾅! 구둣발이 땅바닥을 내리쳤다.

바닥을 굴러서 회피한 이루키는 클로저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느다란 손목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클로저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스 스킨은 물론 어스라이즈까지 걸린 상태였으니 주먹만 상할 터였다.

“아욱!”

예상과 달리 묵직한 충격이 복부에 전해지면서 클로저의 입에서 가벼운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클로저의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렸다. 위력이야 그저 그랬지만 자신을 감싸던 방어 마법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어, 어떻게……?”

이루키는 학을 흉내 내는 권법 자세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클로저의 눈을 찔렀다.

“아초!”

“크악! 내 눈!”

순간적으로 시각을 잃은 클로저는 황급히 어스라이즈를 시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마법이 발동되는가 싶더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취소되어 버렸다.

톡. 또르르.

전투를 지켜보고 있던 기록관이 이루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펜을 떨어뜨렸다.

“……캔슬레이션?”

취소 마법 캔슬레이션.

위력과 별개로 난이도 최상급의 마법으로 마법사의 전능을 취소시키는 마법이었다.

마법 서적에서는 흔히 캔슬레이션을 유리잔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산산조각 부서진 파편들이 저절로 복구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정답은 ‘있다’이다.

그럼에도 그런 현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는 확률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태초에 시간이 발생하면서 이 세상은 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유리잔을 떨어뜨리면 무한에 가까운 변수로 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무한의 경우 중에 단 하나, 유리가 깨지는 순간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속도가 완벽하게 역전되었을 경우, 유리잔은 저절로 복구될 수 있다.

기실 깨짐이라는 것을 분자간의 결합이 끊어진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자단위에서 힘이 역전되어버리면 실금하나 가지 않은 완벽한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다.

그것을 마법사들은 ‘돌아온 유리잔’이라고 부른다.

이루키는 이탈형의 스피릿 존을 클로저의 스피릿 존에 침투시켜 정신에서 변하는 작용을 분석했다.

그리고 특정 마법에서 발생하는 패턴을 방정식으로 역전시켜 돌아온 유리잔을 성공시켰다.

평범한 인간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계산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캔슬레이션을 구사할 수 있는 마법사의 72퍼센트가 서번트 신드롬 능력자인 이유였다.

“으아아아! 짜증 나!”

클로저는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짜증을 부렸다. 아예 방어를 포기하고 헤비스톤을 시전하자 10여 개의 바위가 허공에 연성되었다.

이루키는 손가락으로 콕콕 찍으며 하나씩 캔슬레이션을 걸었다. 그러자 흙이 뭉치는 과정이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역전되면서 종적을 감추었다.

“아초! 아초! 아초!”

이루키는 고집스럽게 권법을 전개했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클로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는 진지했다.

클로저의 콧잔등을 가격하자 두 줄의 쌍코피가 터졌다.

마법이 강제로 취소되는 상황에 대응할 방법은 없었다. 마법사와 일반인이 싸우고 있는 격이었다.

캔슬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 마법인지는 교사들의 표정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취소 마법을 익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뛰어난 줄은 알았지만 언제 저런 능력을…….”

“환경의 영향도 클 거예요. 아무래도 이루키의 아버님이…….”

용뢰의 수장인 메르코다인 알비노.

허술한 성격으로 보이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왕국에 그리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서번트는 안티매직과 캔슬레이션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천하의 알비노라면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을 게 분명했다.

“서번트라고 모두가 이루키처럼 두뇌 회전이 빠른 건 아니에요. 관리만 잘해 준다면 훗날 독보적인 영역에 도달할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루키의 잔주먹도 무수히 얻어맞자 뼈가 욱신거렸다.

클로저의 얼굴은 엉망진창이었다. 눈두덩은 부었고 코에서는 피가 질질 새어 나왔다. 입술은 터져서 움직일 때마다 아팠다.

## [245] 6. 마법 격돌 (5)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 대결 따위는 상관없다고!”

클로저는 마법을 포기하고 덤벼들었다. 몸싸움이라면 이루키에게 질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이성을 잃었다는 증거였다.

클로저가 주먹을 내지르는 순간 10킬로버스터에 달하는 폭발이 터졌다. 정신력 게이지가 쭉 떨어지면서 무릎이 땅을 찍었다. 싱크로율 50퍼센트가 아니었으면 즉사인 상황이었다.

클로저는 얼이 빠진 얼굴로 이루키를 올려다보았다. 곧바로 정권이 날아와 코를 때렸다. 이제는 손끝만 닿아도 아플 정도였다.

클로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으아아악!”

“자, 슬슬 오크를 만들어 볼까?”

이루키가 주먹을 어루만지며 말하자 퍼뜩 정신을 차린 클로저가 손을 쳐들었다.

“자, 잠깐! 인정할게! 내가 졌……!”

이루키의 강펀치가 코를 짓이겼다. 클로즈의 묵직한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뒤통수를 찍었다.

이루키도 인상을 찡그리며 손을 털었다. 역시나 사람 때리는 짓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모양이었다.

“아우, 주먹이야.”

에텔라가 승리 판정을 내리자 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 환호성을 터뜨렸다.

특히나 마크와 마리아는 뛸 듯이 좋아했다. 그토록 얄미운 클로저를 묵사발 내 버렸으니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었다.

‘대단하다. 시로네 선배님은 친구들도 대단하구나.’

이루키는 분명 대단한 선배지만 마음으로 존경한 적은 없었다. 단지 서번트 신드롬. 생물학적 특혜를 받은 흔한 천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왕국에서 알아주는 클로저를 가지고 놀아버리는 실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 인기 꽝인 이루키지만 지금은 수많은 여자들의 추파를 받고 있었다. 마리아처럼 클로저에게 쌓인 사람이 많은 모양이었다.

“멋있어요, 이루키 선배님! 최고예요!”

“맞아요! 우와, 잘생겼다!”

이루키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기절한 클로저의 뺨을 오른발로 밟았다. 그리고 무덤덤하게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며 승리의 사인을 보냈다.

환호성이 뚝 하고 그쳤다. 아무리 미워도 패배자의 머리를 밟다니. 저 괴팍한 성격은 평생 고치지 못할 터였다.

숨조차 쉬지 않고 전투를 지켜보고 있던 세리엘이 침을 꿀꺽 삼키고는 에이미에게 물었다.

“시로네랑 친구들…… 내년에 올라온다고 그랬지?”

“응.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 나 어떻게든 올해 졸업해야겠네. 쟤들 전부 졸업반에 올라오면 정말 경쟁 지옥이겠다.”

세리엘도 졸업반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정착한 실력자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졸업반은 웃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 자신의 졸업을 가로막을 유력한 경쟁자에게 경계와 주의의 시선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하긴, 나도 조심하기는 해야겠네. 예전에도 느꼈지만…… 참 대단한 아이야.’

클래스 파이브 시절에 이루키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라 신경을 껐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의 허무맹랑한 말들이 이루키에게는 현실이었나 보다.

시로네와 네이드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이루키에게 달려갔다. 특히나 시로네는 자신을 이길 비장의 무기라는 게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돌아온 유리잔을 계산하기란 극히 어렵지만 일단 분석이 끝나면 어떤 마법사도 이루키와 싸우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게 분명했다.

“이루키, 정말 대단하다. 보면서 소름 돋았어.”

“그러게. 우리한테는 비밀로 해 놓고 언제 연습한 거야?”

“실제로 사용한 건 오늘이 처음이야. 방학 때 아버지한테 붙들려서 죽어라 수식만 풀었거든. 실전에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 보니 역시나 쉽게 되네.”

다른 때 같으면 잘난 척에 머리를 쥐어박았겠지만 오늘만큼은 미워할 수 없었다.

이것으로 승패는 동률을 이루었고 시로네를 단테에게 보내겠다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다.

기절한 클로저를 사비나가 깨우는 동안 단테가 걸어왔다. 하지만 그가 말을 건넨 사람은 시로네가 아닌 이루키였다.

“좋은 경기 잘 봤다. 캔슬레이션. 인상적이더군.”

“벌써 그러면 곤란한데? 네 대결에서는 더 인상적일 테니까.”

단테는 코웃음을 쳤다. 캔슬레이션은 프로들도 불가능한 최고의 경지다. 결국 고급반의 1등은 보일도, 시로네도 아니었다. 이루키였다.

“왕립 마법학교를 떠났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재능은 죽지 않는군. 그래서 더욱 아쉬워. 차라리 너랑 붙었으면 더 좋은 대결이 됐을 텐데 말이야.”

마치 시로네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였다. 실제로 그는 이루키와의 재대결을 추진하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시로네를 이기기 힘들 텐데?”

“하하! 내가? 이 촌닭에게? 너 정도 수준이면 알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내가 바슈카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곳에는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단테의 인상이 구겨졌다. 자신은 물론 왕립 마법학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이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내 머리통에 들어 있는 위험 물질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2명 만났지. 1명은 거절했지만 1명은 받아들였어. 그게 바로 시로네야. 네가 어떤 인상을 받았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고작 이 정도로 최고니 뭐니 생각한다면 다음 주 대결에서 최악의 기분을 맛보게 될 거다.”

단테는 시로네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째서 모두 이 아이를 높게 평가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단순히 언로커이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캔슬레이션을 구사할 정도의 천재라면 그런 저급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을 터였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학생들이 술렁였다.

시로네가 이루키의 폭주를 막을 인물이라는 건 저번 학기의 스피드 건 테스트에서 밝혀진 일이었다. 하지만 이루키는 두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지, 남은 한 사람은?”

“에이미 선배님 아닐까? 전에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 이루키가 에이미 선배님을 저격하고 있다고.”

에이미 외에도 여러 인물이 나왔지만 이루키가 밝히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두 번째 대결은 이루키의 완승으로 일단락을 맺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이제 다음 주면 빅 매치의 하이라이트인 시로네와 단테의 대결이었다.

마음으로는 시로네를 응원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단테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472전 472승이라는 화려한 전적. 다음 주는 시간이 느리게 흐를 것 같았다.

@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돌아왔다.

아침부터 학교는 새로운 손님을 맞느라 분주했다.

학생들은 숙소를 정리했고, 몸을 씻었으며,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교사회의 특파원 킬라인이 영상 기록관을 대동하고 알페아스 마법학교에 입성했다. 이천번 실습장에 미리부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역시 지방 학교라도 단테의 명성은 끝내주네. 시작하려면 몇 시간이나 남았는데.’

킬라인은 줄을 기다리는 마크와 마리아의 사이를 가르고 실습장으로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특파원이에요. 먼저 들어갈게요.”

마리아가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와, 저 사람이 킬라인이구나. 학술지에서 이름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미인이네.”

“흥, 그래 봤자 골수 단테 추종자라던데. 우리에게는 적이나 마찬가지야.”

대결 시간이 다가오자 실습장이 개방되었다. 시로네 또한 입구에서 친구들과 줄을 기다리다가 입장했다.

비공식 대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대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다. 어젯밤 이벤트 업체를 불러 꾸몄다는 소문이 사실인 모양이었다.

매끈한 물리 블록은 먼지 한 톨 없었고 분위기를 내려는 듯 횃불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실습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영상 기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찰나의 기록을 담는 광학 사진기와 달리 시간의 흐름을 담을 수 있는 장치였다.

네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영상 기록기에 들어가는 광학 수정은 옵스큐라B라는 것으로, 광학 사진기에 쓰는 옵스큐라A보다 무려 200배나 비싸다고 했다.

초저온의 암실에서 발생하는 광물로, 연금술로 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옵스큐라B는 국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왕국에서 시로네의 대결을 담을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지. 이번 대결에서 이기면 정말로 왕국 전체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거야.”

네이드가 자신의 일처럼 흥분한 반면 이루키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다.

“시로네가 아니라 단테를 담으려고 승인이 떨어진 거겠지. 정보 마법을 단테만큼 다룰 수 있는 마법사는 흔하지 않아. 왕립 마법학교의 교보재로 사용할 생각일 거야.”

“쳇! 어쨌거나 상관없잖아? 시로네가 이길 거니까. 그렇지 시로네?”

시로네는 웃어주고 싶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단테와 겨루게 된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는 있지만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다.

가는 길에 카니스와 아린을 만났다. 입버릇처럼 관심 없다고 말하더니 오늘의 대결만큼은 흥미가 생기는 모양이었다.

이천번의 앞 좌석은 교사와 관계자의 자리였기에 마크와 마리아는 두 번째 열에 자리를 맡아 두었다. 에이미와 세리엘도 일찍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로네가 걸어오자 마크가 꾸벅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시로네! 시로네가 왔다!”

주인을 맞는 강아지처럼 달려간 세리엘이 시로네의 손을 붙잡고 데려오자 에이미는 시로네의 얼굴을 살폈다. 긴장하지는 않았지만 여유롭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시로네를 뒤따라 걸어오던 카니스가 에이미를 보고 손을 들었다. 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서로 바빴기 때문에 지나가다 알은체는 했어도 한자리에서 보게 되는 건 처음이었다.

“여어, 호박. 오랜만이네.”

“이게 어디서 졸업반에게. 선배님이라고 안 불러?”

천국에서도 앙숙이던 두 사람은 학교에서도 똑같았다.

“너무 쫀쫀하게 굴지 말라고. 그러면 아린도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실제로 아린은 어떻게 인사를 건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아린은 예외지! 너 가만 보면 자꾸 아린이랑 엮이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통하거든!”

시로네가 중재에 나섰다.

“자, 자. 다들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그런데 너희 둘은 어째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카니스와 에이미가 서로를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먼저 성질을 긁잖아!”

시로네는 대결의 긴장감도 잊고 웃어 버렸다. 하긴, 아케인이 학교에 침입했을 때부터 생긴 악연이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뒤끝이 없는 편이었다.

까마득한 후배인 마크와 마리아는 대화에 끼지는 못하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한곳에 모아 놓고 보니 시로네 라인도 학교에서 내로라하는 톱클래스였다. 적어도 마크의 눈에는 저들 7명이 걸어 다니는 군단처럼 느껴졌다.

그때 또 하나의 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테 일행이 건너편에서 다가왔다.

그들을 노려보던 마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전학을 왔을 때의 기세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사비나는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고 클로저는 얼굴에 반창고를 치덕치덕 붙인 상태였다.

‘크크크. 꼴좋다, 바보들. 그러게 시로네 라인은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단테는 가장 먼저 에이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의식했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뻤다. 실제로 빛이 나지는 않지만 그녀만이 선명한 기분이었다.

홍안의 카르미스 가문. 게다가 졸업반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일과 판도라를 압도적으로 누른 1위. 이곳에서 누군가를 여왕으로 맞이해야 한다면 그녀만큼 제격인 인물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카르미스 가문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에어하인 단테라고 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랄게.”

## [246] 6. 마법 격돌 (6)

단테는 어리둥절했다. 딱히 호의적인 태도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전국 1등의 인사를 받았으면 좋든 실든 특별한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다른 후배들을 대할 때처럼 평범한 덕담만 건넸다.

“그게 전부입니까? 솔직히 칭찬 정도는 듣고 싶군요. 결과야 어차피 제가 이길 테니까요.”

그 말에 분노한 세리엘이 에이미와 시로네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손을 잡게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 하네! 남자 친구랑 싸우는 상대에게 그 정도 했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 에이미는 무조건 시로네 편이니까 꿈 깨셔!”

단테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그러고 보니 시로네의 여자 친구가 누구인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다. 딱 봐도 여자랑 어울릴 성격은 아니었으니까.

“정말인가요, 에이미 선배님?”

“응. 정말인데.”

에이미의 확인 사살에 단테는 똥 씹은 얼굴이 되었다.

“시로네 학생! 단테 학생! 이쪽으로! 인터뷰 따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

교사회 관계자가 두 사람을 불렀다. 대결을 펼치기 전에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이었다.

시로네가 관계자를 따라가며 말했다.

“그럼 갔다 올게. 끝나면 보자. 먼저 가지 말고 기다려.”

단테는 시로네의 뒤에서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솔직히 한 방 먹은 기분이라 도발할 기분도 나지 않았다. 어떻게 에이미가 시로네 같은 촌놈이랑 사귈 수가 있는 것인가?

‘흥, 그래 봤자 결국은 내 여자가 되겠지. 이번 대결에서 묵사발을 내 줄 테니까.’

클로저처럼 여자를 밝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아름답고 지적인 여자를 곁에 두는 것은 남자를 돋보이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에이미는 자신의 옆에 있어야 어울리는 여자였다. 시골뜨기와 어울릴 급이 아닌 것이다.

단테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시로네를 살폈다.

그동안 여러 정보를 수집하러 돌아다녔지만 물어본 사람마다 시로네가 최고라고 했다.

무엇보다 인상에 남은 것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쾌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런 순해 빠진 녀석이 어째서 최고라는 거지? 혹시 아직도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나?’

카니스는 시로네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했다. 이루키는 오직 시로네만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학교 최고의 수재인 에이미는 시로네의 여자 친구였다.

마크와 마리아는 단테라는 이름 앞에서도 시로네에게 존경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겪어 본 적이 없는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시로네라는 사람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도대체 시로네는 누구인가?

단테는 심란한 마음으로 실습장의 뒤편에 도착했다. 교사들의 인터뷰가 끝나지 않았는지 킬라인이 사드의 옆에서 질문을 던지고 영상 기록관이 녹화하고 있었다.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사드의 얼굴은 백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저러다가 피부가 투명해져서 뼈가 보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테와 시로네의 승률은 5 대 5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긴다면 6 대 4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킬라인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내용의 영양가도 떨어질뿐더러 긴장한 사람의 얼굴을 담아 봤자 쓸모가 없었다.

게다가 5 대 5라니. 그녀의 생각에는 단테가 10이고 시로네가 0이었다. 물론 기사로는 9 대 1 정도로 내보내겠지만.

킬라인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에텔라에게 다가갔다. 그녀 또한 이런 상황은 처음인지 서툰 티를 드러냈다.

“아하하! 그렇죠. 시로네는 참 착한 아이예요. 아, 단테도 훌륭한 학생이고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구요.”

킬라인이 단칼에 인터뷰를 끝내자 에텔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망했다는 걸 깨달은 사드가 에텔라에게 다가와 우는 시늉을 했다.

그들의 기사는 영원히 실릴 일이 없을 것이다.

킬라인은 슬슬 짜증이 났다. 5대 명문이라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건만 만나는 교사마다 하나같이 센스가 없었다.

마지막 차례인 시이나에게 기대를 걸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사 인터뷰는 통으로 들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시이나 선생님. 교사회의 킬라인입니다.”

“네, 올리페르 시이나입니다.”

시이나는 예의 차가운 표정으로 영상 기록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킬라인은 이제야 제대로 잡았다는 듯 눈을 빛냈다.

‘오호, 인물 좋고, 표정 좋고. 이건 딸 수 있겠다.’

시이나는 들어오는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다.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니 긴장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판을 맡으셨는데요. 단테와 시로네, 과연 승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교사에게 제자의 승패를 묻는 건 잔인한 일이지만 이런 질문을 생각하는 게 킬라인의 일이었다.

잔인할수록 보는 사람은 재밌다. 이런 기사를 읽기 위해 전국의 학생들은 학술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시이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여유롭게 대답했다.

“개인적으로는 단테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7 대 3 정도? 하지만 누가 이기든 그것이 마법사의 수준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 마법을 전투에 국한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야만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시이나는 가볍게 목례하고 영상 기록기의 포커스 밖으로 사라졌다. 퇴장마저 세련된 모습에 사드는 더욱 울고 싶어졌다. 반면에 에텔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대단하네요. 저는 긴장돼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던데.”

“쳇, 올리페르 학파 출신이잖아요. 저 같은 이름 없는 교사의 간절함을 어찌 알겠어요?”

“후후, 아니에요. 사드 선생님도 잘했어요.”

에텔라가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터뷰를 지켜보았던 사드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킬라인은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걸어갔다.

우선순위는 단테가 처음이고 시로네가 나중이었다.

대결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인터뷰를 먼저 끝낸 사람이 정신을 가다듬을 여유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단테, 오늘도 잘할 수 있지? 내가 기사 멋있게 써 줄 테니까 화려하게 부탁해.”

“하하! 걱정 마세요. 언제는 안 화려했나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그럼 인터뷰 시작한다.”

킬라인의 웃음기가 사라지고 진지한 질문이 이어졌다. 단테 또한 특유의 위트를 곁들여 능숙하게 답변했다. 얼굴이 멋있게 나오는 각도까지도 알고 있는 듯했다.

“네, 올리비아 스승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수도의 선진 마법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일은 마법학교 간의 실력 차를 좁힐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어머, 하지만 단테 군에게는 손해가 아닌가요?”

“하하!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저는 더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는 프로가 되어야죠.”

“역시 왕국 최고의 유망주답게 당찬 발언이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수많은 상대를 압도적인 격차로 제압해 왔는데, 오늘의 대결은 어떨까요? 기대해도 좋을까요?”

“우선 시로네는 언로커죠. 그리고 재능도 뛰어납니다. 아마도 좋은 승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승자는 저입니다. 오늘 정보 마법의 진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시로네 군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시로네 군, 이쪽으로 와 주시겠어요?”

“아, 네!”

단테가 끝나면 준비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던 시로네는 방심하고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영상 기록기 앞에 서자 선생님들의 심정이 구구절절 느껴졌다.

특히나 단테의 인터뷰는 상대에 대한 칭찬이 나왔을 만큼 가식적이었다. 킬라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지, 솔직한 심정을 말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어…… 그러니까. 네. 올해 마법학교에 입학했어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단테 군이 대결 상대로 인정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시로네가 보기에 단테 군은 어떤가요? 왕국 최고의 학생과 대결할 기회를 얻었는데 행운을 실감하시나요?”

킬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이 단테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불만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대답을 재촉하는 눈빛에 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아, 예.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회를 얻은 건 좋은 일이죠.”

킬라인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좋다는 표현을 두 번 쓰면 어떡해? 어눌해 보이잖아. 이 아이도 스타가 되기는 글렀네.’

단테를 이긴 사람은 없지만 스타성에 빌붙어 이름을 알린 학생들은 꽤나 있었다.

하지만 시로네는 영락없는 시골 소년이었다. 생김새는 괜찮으니 꾸미면 먹힐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어눌한 태도로는 바슈카의 소녀들에게 어필할 수 없었다.

시로네의 인터뷰를 듣고 있던 단테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러는 사이 킬라인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시로네 군의 생각도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다수의 전문가들이 시로네 군의 패배를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단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킬라인의 웃는 얼굴에 감정이 사라지고 형태만 남았다. 단테 또한 발길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단테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수도에서 얼마나 이름을 날렸든 누구를 이겨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든 상관없어요. 마법사는 단순히 불을 피우고 물을 얼게 만드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지성을 추구하는 정신, 그것이 마법이죠. 아무리 대단한 마법을 시전해도 정신부터 어긋나 있는 마법사라면 제가 질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마법사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겁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킬라인조차 시로네의 폭탄선언에 0.5초 정도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뒤늦게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와, 와우! 도전자의 패기가 대단하군요! 시로네 군에게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이상 교사회 특파원 킬라인이었습니다.”

단테는 멀어지는 시로네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어눌함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정신. 이리저리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형태만큼은 변하지 않는 유연성.

‘그렇군. 그게 너였냐?’

단테의 눈에 처음으로 시로네가 보이기 시작했다.

관객석은 만석이었다.

맨 앞줄은 교사들의 차지였고 중앙의 두 자리만이 비어 있었다. 누가 앉을 것인지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허허허, 역시 올리비아 교장은 수완이 대단해.”

알페아스와 올리비아의 등장에 교사들이 일어섰다.

뒤편의 학생들도 영문을 모른 채 일어서자 군중의 스카이라인이 파도처럼 넘실댔다.

지정석에 앉은 알페아스는 좌우를 둘러보다가 좋은 생각이 난 듯 의자 손잡이를 붙잡고 앞으로 끌었다.

“이거 눈이 침침해서. 가까이서 봐야겠구먼.”

1열의 사람들을 모조리 2열로 만들어 버린 황당한 행동에 올리비아가 빨개진 얼굴로 다가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크크, 그러지 말고 앞으로 와. 잘 보이는구먼.”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그렇다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시게나.”

알페아스가 한량처럼 굴자 올리비아는 콧바람을 씩씩 불었다. 그러다가 차갑게 돌아서더니 자신도 의자를 끌어와 알페아스의 옆에 앉았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미르히 알페아스가 노망났다는 기사가 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알페아스는 다리를 들어 반대편 무릎에 얹고 삐딱한 자세로 대결을 기다렸다.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에 올리비아가 인상을 썼다.

“좀 똑바로 앉아. 교장이나 되어 가지고. 여기가 무슨 지하 격투장인 줄 알아?”

“크크, 오랜만에 피가 끓어서 그래.”

“다 늙어서 피가 끓으면 어쩔 건데? 하여튼 남자들이란. 학술지에 우리 사진이 실릴 거란 말이야. 빨리 일어나아. 좋게 앉으라구.”

그러자 알페아스는 아예 상체를 눕히더니 손잡이에 팔을 올리고 턱을 괴었다. 하여튼 제자 때부터 자기 말은 죽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며 올리비아는 차갑게 노려보았다. 반면에 알페아스의 눈에는 불이 타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에서 잠시 옛날 생각에 빠져버린 그녀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설마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어차피 단테가 이길 수밖에 없는 대결이야.”

“그건 모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딱히 누구를 응원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시로네가 진다면 그것대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그건 또 무슨 노망난 소리야?”

## [247] 6. 마법 격돌 (7)

“시로네는 강한 아이야. 한 번 졌다고 좌절할 성격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패배를 통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진정한 스승이라면 패배에서 배우는 법도 가르쳐야 돼.”

올리비아는 알페아스의 목소리를 막듯이 손을 들었다.

“이상 4급 루저의 변명으로 알아듣겠음.”

“크크크, 어쨌든 오늘 나는 그냥 구경꾼이야. 시로네와 단테라. 정말 재밌겠군.”

마침내 대결의 시간이 돌아왔다.

심판을 맡은 시이나가 이천번의 중앙으로 걸어오자 장내의 분위기가 경건해졌다.

잠시 후면 알페아스 마법학교 최고의 재능과 왕국 최고의 재능이 충돌한다.

호흡곤란이 일어난 듯 손발을 떨고 있던 마크가 옆자리의 이루키를 돌아보았다.

“으, 피가 마르는 기분이네. 선배님, 시로네 선배님이 이길 수 있겠죠?”

“내 생각에 두 사람 모두 한 번씩은 기회가 있을 거야. 공격 마법은 시로네 쪽이 다양하지만 단테의 전술 운용도 무시할 수 없어. 마법진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시로네도 손발이 묶이는 형국이 될 거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루키의 입에서조차 희망적인 진단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크가 울상을 지으며 말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함성을 내질렀다.

시로네와 단테가 이천번의 사이드로 올라오고 있었다.

심판을 맡은 시이나는 전직 교장과 현직 교장 두 사람에게 예의를 갖춘 다음 시로네와 단테를 이천번의 중앙으로 불러들였다.

두 사람이 만나는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시로네가 규정된 위치를 넘어서서 단테에게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차!’

시로네는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이미 단테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었다. 생각을 깊게 하다가 신경을 쓰지 못한 탓이었다.

학생들은 시로네의 행동을 도발로 이해하고 더욱 흥분했으나 시로네의 성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생각이 달랐다.

긴장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례적인 상황에 킬라인이 안쓰럽다는 듯 웃었다.

“호호! 어쩜 좋아? 시대가 어느 땐데 저런 싸구려 도발을?”

예전에도 단테를 상대로 저런 행동을 했던 도전자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단테는 여유롭게 받아치며 오히려 상대에게 무안을 주곤 했다.

‘후후, 단테. 오늘은 어떤 퍼포먼스로 시작할…… 응?’

킬라인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다. 단테 또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시로네를 노려보고 있었다.

시이나가 규칙을 설명하고 있으나 귀에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조차 받을 수 없었다.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에 단테의 친구들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비나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단테 말이야, 조금 긴장한 거 같지 않아?”

“그럴 성격이 아닌데. 아침까지만 해도 컨디션 좋았잖아? 조금 기다려 보자고. 저것도 쇼맨십일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루키가 말했다.

“긴장할 수밖에 없지.”

“네? 긴장할 수밖에 없다니요?”

마크가 충격을 받은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초조함이 극에 달해서 이루키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고 있었다.

“시로네는 경쟁에서 진 적이 없어. 마법을 배운 기간은 짧지만 그런 만큼 고난이도의 장벽을 계속 뛰어넘으며 여기까지 왔다고. 물론 단테도 오랜 시간 제왕의 자리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전적을 쌓았지. 그런 두 사람이 맞붙게 되는 거야.”

에이미가 말했다.

“패배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 새겨지는 기록이야. 어떤 식으로든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지. 그런데 두 사람은 아직까지 패배가 없어.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야만 가능한 비정상적인 커리어.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루키가 말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둘 중 1명의 커리어는 완전히 끝장난다. 패배라는 기록을 인생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마크는 멍해졌다. 이것이 바로 천재들이 살아가는 세계인가? 고작 열다섯 살에 패배가 새겨진 그는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경지였다.

하지만 아쉽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이긴 시로네가 또 이기기를 바랐고 가슴이 아플 만큼 심장이 뛸 뿐이었다.

“으으. 미치겠네. 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야?”

규칙을 설명한 시이나가 거리를 벌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지정된 위치로 돌아가서 대기하세요.”

단테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교차했다. 대체 이 소년은 누구인가? 처음에는 싸우기 싫다더니, 권력도 명예도 필요 없다더니, 지금은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아니. 생각하지 말자.’

단테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472전 동안 패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패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른 도전자와 마찬가지로 밟아 주면 그만이었다.

“시로네! 단테! 심판의 지시에 따르도록!”

시이나가 사납게 소리친 뒤에야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물러섰다.

정해진 위치에 도착한 단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몸을 움직여 긴장을 풀었다.

60미터의 거리가 평소보다 멀어 보였다.

하지만 내로라하는 강자들을 전부 꺾고 올라왔다. 평소대로 하면 질 리가 없는 대결이다.

‘그래, 내 방식대로 싸우면 돼. 놈의 유일한 선택지는 선제타격이겠지. 그걸 역으로 이용하자. 타깃형인 내가 속도에서는 우위야.’

사방식을 최대로 가속하여 시로네의 발밑에 공간 이동 마법진을 펼친다. 별다른 충격은 없을 테지만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었다. 그런 다음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상황에 따라 요리하면 그만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시로네와 단테, 단테와 시로네의…….”

커다란 함성에 시이나의 말이 파묻혔다.

앞으로 10초 후면 충돌이다.

열기로 인해 공기의 온도마저 올라간 기분이었다.

시이나는 소리로 신호를 전달하기를 포기하고 손을 들었다. 그러자 학생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고, 시로네와 단테의 시선이 수신호에 꽂혔다.

“경기 시작!”

단테는 초고속의 수열식을 전개했다. 1에서 시작된 숫자가 1만에 도달하고 타깃형의 스피릿 존이 뻗어 나가 시로네를 삼켰다.

‘됐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단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십 발의 포톤 캐논이 어느새 코앞까지 도달해 있었다.

단테는 전지를 교체하여 방어 마법진을 펼쳤다. 탄막처럼 펼쳐진 포톤 캐논이 마법진 위를 두들겼다.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았다.

‘이모탈 펑션!’

시작부터 이모탈 펑션을 개방했다. 게다가 전술의 운용 같은 상관없이 쉬지 않고 포톤 캐논을 갈겨 대고 있었다.

대지 마법과 비등한 물리력에 속도마저 빨랐다. 막상 경험해보니 심각할 정도로 짜증 나는 마법이었다.

방어 마법진에 금이 갈 때마다 정보를 집적하여 보수하고 있으나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단테가 순간 이동으로 자리를 피하자 포톤 캐논을 고속으로 연사하던 시로네도 광자화 마법을 걸고 뒤를 쫓았다.

두 줄기의 섬광이 이천번의 상공을 수놓았다.

시작부터 펼쳐진 난타전, 아니 일방적인 화력 과시에 학생들은 넋을 잃었다.

이루키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좋은 작전이다. 하지만 신중한 성격의 시로네가 이 정도로 초반에 승부를 걸어 버릴 줄은 예상치 못했다.

“아예 처음부터 마법진을 펼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군.”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청나요. 지금 싸우는 사람이 저번 학기에 저랑 순간 이동 대결을 펼친 사람이 맞나요?”

“아마 아닐걸. 어쨌거나 기술을 펼칠 시간도 주지 않는다는 건 시로네도 진심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결과는 모르지.”

시로네는 현란한 무브먼트로 단테를 압박했다. 패트롤 기술로 좌우를 봉쇄한 다음 레인보우 드롭을 역으로 시전하여 하늘로 솟구쳤다. 발밑으로 초당 몇 개씩 탄생하는 수십 개의 광자 덩어리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다녔다.

시로네는 모조리 쏘아 보냈다. 포톤 캐논이 공간을 장악하자 단테는 유일한 퇴로인 지상으로 내려가 도주했다. 공대지 폭격이 따라붙었지만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젠장! 나도 마법 좀 쓰자! 저거 완전 또라이였잖아?’

아니,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장시간 이모탈 펑션을 유지할 수는 없다. 초반의 공세만 무사히 넘긴다면 볼 것도 없이 자신의 승리였다.

‘그래, 이 상태로는 아무리 길어야 30분이야. 30분만 버티면……!’

포톤 캐논이 일렬로 바닥을 긁으며 떨어졌다. 단테는 방향을 틀면서 시로네의 위치를 살폈다.

시로네가 있을 곳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십 발의 광자 덩어리가 쏟아지고 있었다.

착각을 깨달은 단테는 소름이 돋았다.

‘빌어먹을! 30분은 무슨, 5분도 못 버티겠는데!’

방어 마법진으로 1차 폭격을 막은 다음 2차 폭격의 딜레이에서 발생하는 활로를 뚫고 탄막을 벗어났다. 하지만 더 이상은 움직일 곳이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천번의 외곽까지 밀려있었다.

시로네는 패트롤 기술로 공간을 점유하며 단테를 코너의 끝으로 몰았다. 그러다가 단테가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자 손에 압축시킨 광자를 던졌다. 일자의 섬광이 뻗어 나갔다.

결국 코너를 벗어나지 못한 단테는 황급히 방어 마법진을 펼쳤다. 조금 전의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중량감이 전해졌다.

2차, 3차의 공격이 같은 곳에 충돌하자 마법진을 보수하는 와중에도 쩍쩍 금이 갔다.

이루키는 안쓰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긴장했다고 머리까지 굳어 버린 거냐? 이 정도 상대했으면 알아야지. 급조한 마법진으로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단테를 막아 주던 마법진이 산산조각 부서지자 시로네는 공간을 점으로 압축시키듯 일직선으로 쇄도했다.

단테는 차라리 회피를 포기하고 대비할 시간을 버는 쪽을 택했다. 사방에 마법진을 펼쳐서 접근을 차단하자 시로네가 허리를 숙이고 광폭을 시전했다.

“크으윽!”

초당 30회의 장막이 박동하면서 마법진을 두들기자 단테는 정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전술훈련 때 광폭을 본 적이 있지만 방어에만 쓰였기에 얼마나 위력이 있겠나 싶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이건 숫제 광역파괴 마법이었다.

7개의 마법진이 전부 깨지면서 정신이 흔들렸다. 얼굴을 가린 단테는 손목 위로 전방을 살폈다.

하지만 시로네는 보이지 않았다.

시선을 내리는 순간 손에 광자를 압축시킨 채 허리를 숙이고 있는 시로네와 눈이 마주쳤다.

시로네는 단테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손을 휘둘렀다. 광자의 잔상이 꼬리를 늘어뜨리며 따라왔다.

마법사에게 2초는 위력을 강화하기에 충분한 시간. 단테는 다른 생각 할 겨를 없이 방어 마법진을 펼쳤다.

초근거리에서 집어 던진 포톤 캐논이 마법진에 처박히더니 일격에 박살 내 버리고 복부를 가격했다.

단테는 순간 아찔했다. 그러나 빠르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

‘쳇! 그래도 대충은 막았다! 이제부터……!’

그 순간 시로네가 양손을 내밀어 단테의 멱살을 잡고 광자화 마법을 걸었다. 예상치도 못한 육탄전에 의아할 겨를도 없이 단테는 빛이 되어 움직였다.

어디가 어딘지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광자화 마법이 풀리자 단테는 시로네의 위치부터 찾아 헤맸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시로네는 보이지 않고 무수히 많은 광자의 탄환이 시야를 메우고 있었다.

콰콰콰콰콰콰콰쾅!

포톤 캐논이 처박히면서 단테가 있던 자리가 백광으로 번졌다. 학생들은 망막으로 쏟아지는 광자를 손가락으로 걸러 냈지만 그럼에도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시로네는 공격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전투를 개시한 지 고작 5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단테는 정면에 7개의 마법진을 펼쳐 두고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마법진의 빛이 흐릿해지더니 유리처럼 깨져 나갔다. 단테의 한쪽 무릎이 꺾이면서 쿵 하고 바닥을 내리찍었다.

학생들의 눈동자가 충격에 흔들렸다. 마법진을 펼치긴 했으나 완벽하게 막아 내지 못한 게 분명했다.

이루키가 눈을 빛냈다.

“드디어 들어갔다. 이번 건 충격이 있어.”

단테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단 전투에 들어가면 천재적인 운용으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다가 카운터로 끝장내는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시로네가 철벽과도 같은 방어막을 뚫고 유효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을 성공시킨 것이다.

대결 장소에 모인 500명의 사람들 중 누구도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단테를 봐 왔던 킬라인은 물론이고 친구들조차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472전 472승.

무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단테가 5분 만에 상대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투의 난폭함을 드러내듯, 거친 바람이 밀려들어와 이천번을 휩쓸었다.

(10권 끝)